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4. 13.(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박정혜(위원장), 곽노봉, 권오영, 김문식,
김순희, 김태영, 박가영, 박은경, 이종민,
이혜은, 임영애, 조인수, 한경순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 |
|--------------------------|--------------------------------------|------------|
| 【심의사항】 4건 | | 비 고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 |
| 1 | 독서당계회도 | 공 개 |
| 2 |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공 개 |
| 3 | 수능엄경의해 권9~15 | 공 개 |
| 4 | 이항복 해서 천자문 | 공 개 |
| 【검토사항】 10건 | |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 |
| 5 |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 공 개 |
| 6 | 남원 월산리M1-A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 공 개 |
| 7 | 남원 월산리M5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 공 개 |
| 8 | 근목 | 공 개 |
| 9 | 전 이사언 환도 | 공 개 |
| 10 | 아미타여래구존도 | 공 개 |
| 11 |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공 개 |
| 12 |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공 개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 예고> | | |
| 13 |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 공 개 |
| 14 |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 공 개 |
| 【보고사항】 2건 | | |
| 15 | 조선시대 사천왕상 부의 대상 선정 소위원회 결과보고 | 공 개 |
| 16 | 괘불도 국보 지정 추진 대상 추가 선정 소위원회 결과보고 | 공 개 |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3-02-001

1. 독서당계회도 (讀書堂契會圖)

가. 심의사항

‘독서당계회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환수문화재 ‘독서당계회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8.5.)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2.1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3.13.~'23.4.1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 과학적 조사는 환수 직후인 2022년 6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수행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87.2cm×72.4cm, 화면 91.4×62.5cm
- 재 질 : 비단에 수묵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531년 경



<독서당계회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조선시대 16세기 계획도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며, 산수 및 풍속 장면을 정교하게 묘사하여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했던 현직 관료들의 모임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참석자 중에는 주세붕, 송순, 임백령 등 중요 인물이 포함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 현재 알려진 계획도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제작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상태가 양호하여 회화사적으로 중요하다.
- 기지정 국가지정문화재 계획도와 비교하여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사가독서는 조선시대에 국가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에 의해 1426년 12월 처음 시작되어 중종연간에 이르면 1517년 두모포에 동호(독서)당을 설치하면서 가장 성행하였다. 이번에 보물 지정을 신청한

<독서당계회도>(1531년 경)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시각 자료로서 주목된다.

- <독서당계회도>(1531년 경)는 상단 표제, 중단 그림, 하단 좌목의 3단으로 구성된 전형적 형식으로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뿐만 아니라 두모포 일대의 산수와 한강의 경관을 안견과 화풍으로 그려낸 것으로 실경산수화의 시원 양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좌목에 실린 12명 문관의 호, 성명, 자(字), 본관, 출생일, 사가독서 시기, 과거 급제 시기, 계회 당시의 관직, 형제, 아버지 관직과 이름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상당하다. 또한 사가독서의 공간인 동호(독서당)이 두모포에 완성된 것은 1517년이라 알려져 있는데, 인재 장옥이 “병자년(1516) 겨울”에 사가독서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보다 앞서 규모가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2022년 3월 미국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구매해 반입된 <독서당계회도>는 사가독서를 기념한 국립광주박물관의 <동호계회도>(1541년)나 서울대학교박물관의 <독서당계회도>(1570년 이후)보다 이른 작품으로서 미술사적,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므로 보물 지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현재 국가보물로 지정된 계회도(보물 제867호, 868호, 869호, 870호, 871호, 1431호, 1616호, 1722호)와 비교하였을 때, 조선시대 계회도의 전형적 구성요소인 제목+그림+좌목이 모두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전기 독서당계회도 제작을 이해하는 중요자료로 판단된다. 하단의 좌목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직명 등의 사료적 조사를 통해 그림의 제작연대를 1531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바, 현존하는 조선시대 계회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생각되며, 이는 문화재 지정으로서의 당위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산수화의 양식에 있어서도 조선전기의 전형산수 양식과 실경산수 양식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그림의 수준 역시 가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안료의 성분분석을 통해 석청과 진사의 안료 사용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원경의 산에는 석청의 청록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있어 조선전기 산수도에서 청록안료가 남아 있는 귀한 예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독서당계회도는 국가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현 상

- 이 작품은 현재 한 폭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족자의 상하회장은 무늬가 없고 울이 굵은 삼베같은 천을 사용했으며, 상회장에는 푸른색 비단 풍대가 두 개 붙어있다. 상하좌우 변아는 꽃무늬가 있는 황갈색 비단으로 둘렀다. 화면의 상하단에는 뇌문과 운문이 있는 녹색 비단 띠를 가로로 덧붙였다. 상측에는 금속 고리가 붙어 있고 여기에 색끈이 달려있다. 하측에는 흰색의 골제 축수가 붙어 있다. 족자의 형식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림과 함께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낡고 충해를 입은 곳도 있어서 아주 최근의 것도 아니다.
- 족자 뒷면에 상측과 맞닿은 부분의 한쪽에는 흰색 종이 제침이 붙어 있고 행서로 “讀書堂”이라는 목서를 적었다. 다른 쪽에는 “回雲”이라는 녹색 인장이 찍혀있다.
- 화면은 한 장의 비단에 붉은 가로선 2개를 그어 제목, 계획장면, 좌목의 세 부분으로 구획했다. 가로꺾임과 충식 등의 손상 부분이 있으나 근래 보존처리를 거쳐 안정화되어 있다.
- 족자를 넣었던 목제함이 함께 전하고 있다. 뚜껑에는 예서로 “讀書堂契會圖”라고 목서를 적었다. 뚜껑의 안쪽과 함 안쪽 바닥에 행서로 “讀書堂圖”라고 적은 네모난 종이를 붙였다(讀書堂圖 좌우의 작은 글씨는 판독 못함). 족자 뒷면의 제침과 같은 글씨체이다. 함의 한쪽 측면에도 네모난 종이를 붙이고 행서로 “讀書堂”이라고 적었는데, “南印”이라는 주문인이 찍혀있다(다른 글씨는 판독 못함). 반대편 측면에는 네모난 종이에 해서로 “第二百四十号 朝鮮畫 讀書堂圖”라고 목서를 적었는데, 다른 箱書들과는 글씨체와 종이가 다르다. 함의 바깥쪽 바닥에는 “六七号 神田”이라고 목서를 적은 작은 견출지가 붙어있다.
- 이 목제함은 그림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 조선시대에는 각종 기록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과거시험 합격 동기 또는 같은 관청에 함께 근무한 동료들끼리 契會를 갖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契會圖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계획도는 야외의 경우 산수를, 실내의

경우 건물을 배경으로 하여 음식과 술을 즐기고 간혹 가무를 감상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그림의 위에는 계획의 명칭을 쓰고, 아래쪽에는 참가자의 이력을 나열하며, 때로는 詩文을 포함시켜 운치 있는 기록화를 구성한다.

- 조선시대의 계획도는 상상속의 경치를 배경으로 모임 장면을 그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계획 모임이 벌어진 장소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경치가 비슷하여 한강변의 濟川亭이나 蠶頭峯처럼 같은 장소를 그린 계획도가 여러 점이 알려져 있다.
- 이 작품의 화면 맨 위에 전서체로 “讀書堂契會圖”라고 제목을 적어 놓아, 독서당과 관련된 모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부터 젊은 신하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賜暇讀書制가 실시되었고, 성종대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마포에 南湖讀書堂이 세워졌다. 중종대에는 이전 독서당 대신 豆毛浦 부근에 東湖讀書堂을 설치했는데, 이 작품은 동호독서당과 관련하여 제작되었다.
- 화면의 가운데에는 계획 모임을 상징하는 독서당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수를 그려 넣었다. 가운데 한강을 넓게 배치하고 독서당이 있는 鷹峯과 豆毛浦 일대를 위쪽 가운데 묘사하고 그 뒤로 멀리 북악산과 삼각산까지 그렸다. 좌측에는 濟川亭이 보이고, 강건너 狎鷗亭 일대가 아래쪽에 나타난다.
- 강에는 여러 척의 배가 등장하는데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었으며, 가운데 커다란 배는 차양막을 세운 아래에 관모를 쓴 인물 일곱 명이 보인다. 이 배에는 술동이로 보이는 것이 있어 뱃놀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여러 산들이 웅장하게 표현되었고 화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풍속적인 세부 묘사도 정밀하여 솜씨가 뛰어난 직업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먹을 위주로 하여 묘사하는 산수는 단선점준, 수지법 등에서 안건과 화풍을 잘 보여주며, 멀리 원산은 짙은 청색으로 칠한 점이 특이하다.
- 화면의 아래 쪽에는 참석자 12명에 대한 좌목을 적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忍齋 張玉 子剛 豐德人 生于弘治癸丑 丙子冬 賜暇
 登乙亥別試甲科第一十丙戌重試乙科今爲朝奉
 大夫守成均館司成 又號柳亭 鴈行栢 生員
 父通訓大夫司憲府執義 忠輔

魯庵 洪敍疇 道原 南陽人 生于弘治己未 癸未春 賜暇
 登辛巳別試丙科今爲朝
 奉大夫守廣興倉守
 父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知 經筵事 淑

東崖 許磁 南仲 陽川人 生于弘治丙辰 甲申夏 賜暇
舉丙子司馬登癸未別試丙
科今爲通善郎守楊根郡守
父奉正大夫行義盈庫令 瑗

希齋 林百齡 仁順 崇善人 生于弘治戊午 庚辰夏 賜暇
舉丙子司馬登己卯式年甲科今爲通德郎守靈光郡守兼春
秋館編修官 鴈行千齡生員 億齡承政院注書 九齡
父忠順衛 遇亨

圭庵 宋麟壽 眉叟 恩津人 生于弘治己未 甲申夏 賜暇
登辛巳別試丙科今爲通善郎守□□館副應教知製 教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鴈行龜壽 永慶殿參奉
父通仕郎行 健元陵參奉 世良

拙齋 宋純 守初 新平人 生于弘治癸丑 庚辰夏 賜暇
舉癸酉司馬登己□別試乙科今爲通善郎守奉
常寺僉正兼 世子侍講院文學 鴈行綱 紳
父學生 泰

慎齋 周世鵬 景遊 商山人 生于弘治乙卯 甲申夏 賜暇
舉壬午司馬登同年別試乙科今爲
奉訓郎守司諫院獻綱 鴈行世鷗
父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文備

惕庵 李霖 仲望 咸安人 生于弘治辛酉 戊子夏 賜暇
舉乙卯司馬登甲申別試乙科今爲承議郎守
禮曹正郎知製 教 鴈行震 生員 霽進士
父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平壤府尹咸安君 世應

守庵 許沆 清卿 陽川人 生于弘治丁巳 戊子夏 賜暇
舉癸酉司馬登甲申別試丙科今爲承訓郎司諫
院正言 鴈行潤忠義衛 洽弘文館直提學
父通政大夫三陟都護府使江陵鎮管兵馬同僉節制使 確

洞江 申石澗 淸仲 高靈人 生于弘治癸丑 庚寅夏 賜暇
 舉丙子司馬登 戊子別試甲科第一今爲通善郎行
 吏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 鴈行石湖 石河
 父奉列大夫守水原都護府使兼春秋館編修官 淵

十省堂 嚴昕 啓昭 寧越人 生于正德戊辰 庚寅夏 賜暇
 舉乙亥司馬登丙子式年甲科今爲宣教
 郎守吏曹佐郎知製教 鴈行噉 瞳
 父保功將軍行忠佐衛左部將 用和

良齋 崔演 演之 江陵人 生于弘治癸亥 庚寅夏 賜暇
 舉乙酉司馬登同年式年乙科今爲宣教郎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
 檢討官春秋館記事官 世子侍講院司書 鴈行洞 進士 澹 沃 浩 洵
 父忠順衛進勇校尉 世樅

- 좌목에서는 참석 인물 열두 명의 호, 이름, 자, 본관, 생년, 사가독서연도, 과거 급제연도, 관직, 그리고 형제와 부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놓았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박은순 작성)와 같다.

| 연번 | 성명(생몰년) | 사가독서 시기 / 당시 연령 | 과거급제연도 | 계회 당시(1531년) 관직 | 계회 시 연령 |
|----|----------------------------|-----------------------|----------------|--------------------|---------|
| 1 | 인재(忍齋) 장옥(張玉, 1493~?) | 병자년(1516, 중종11) / 24세 | 1515년 별시 문과 | 성균관사성 (成均館司成) | 39세 |
| 2 | 노암(魯庵) 홍서주(洪叙疇, 1499~1546) | 계미년(1523, 중종18) / 25세 | 1521년 별시 문과 | 광흥창수 (廣興倉守) | 33세 |
| 3 | 동애(東崖) 허자(許磁, 1496~1551) | 갑신년(1524, 중종19) / 29세 | 1523년 알성 문과 | 양근군수 (楊根郡守) | 36세 |
| 4 | 희재(希齋) 임백령(林百齡, 1498~1546) | 경진년(1520, 중종15) / 23세 | 1519년 식년 문과 | 영광군수 (靈光郡守) | 34세 |
| 5 |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 1499~1547) | 갑신년(1524, 중종19) / 26세 | 1521년 별시 문과 | 홍문관부응교 (弘文館副應教) | 33세 |
| 6 | 졸재(拙齋) 송순(宋純, 1493~1582) | 경진년(1520, 중종15) / 28세 | 1519년 별시 문과 | 봉상시첨정 (奉常寺僉正) | 39세 |
| 7 |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 | 갑신년(1524, 중종19) / 30세 | 1522년 별시 문과 | 사간원헌납 (司諫院獻納) | 37세 |
| 8 | 척암(惕庵) 이림(李霖, 1501~1546) | 무자년(1528, 중종23) / 28세 | 1524년 별시 문과 | 예조정랑 (禮曹正郎) | 31세 |
| 9 | 수암(守庵) 허항(許沆, 1497~1537) | 무자년(1528, 중종23) / 32세 | 1524년 별시 문과 | 사간원정언 (司諫院正言) | 35세 |
| 10 | 동강(洞江) 신석간(申石澗, 1493~?) | 경인년(1530, 중종25) / 38세 | 1528년 여주 별시 | 이조좌랑 (吏曹佐郎) | 39세 |
| 11 | 십성당(十省堂) 엄흔(嚴昕, 1508~1553) | 경인년(1530, 중종25) / 23세 | 1528년 식년 문과 | 이조좌랑 (吏曹佐郎) | 24세 |
| 12 | 간재(良齋) 최연(崔演, 1503~1549) | 경인년(1530, 중종25) / 28세 | 1525년 식년 문과 | 홍문관부수찬 (弘文館副修撰) | 29세 |

- 즉 이 그림은 중종대인 1516년부터 1530년까지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했던 현직 관료들의 모임을 기념한 것이다. 좌목이 어떤 순서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림 속의 뱃놀이 장면에는 7명만 표현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 참석 인물들의 관직을 근거로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문집을 확인해 보면, 이 모임은 1531년에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다른 계획도와 비교해 볼 때 16세기 계획도의 전형을 보여준다. 16세기의 계획도는 산수화에 가까울 정도로 산수 배경을 위주로 한 것이 많은데, 안건과 화풍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당시 계획은 대개 서울근교 한강변의 경치 좋은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계획도 장면 가운데는 넓은 강이 흐르고 아래쪽에 모임 장면이 묘사되며 위쪽에는 멀리 산봉우리가 서있는 경우가 많다.
- 독서당계획도 장면을 그린 것으로는 1545년에 제작된 것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의 <동호계획도>(98.5×60.5cm)가 있는데, 이 작품과 비슷한 구도를 보여주지만 손상된 부분이 많다. 한편 서울대학교박물관의 <독서당계획도>(102×57.5cm)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157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독서당 건물을 좀 더 클로즈업하여 표현했다.

○ 지정사례

- 현재 조선시대 계획도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모두 13건(20점)이다. 이를 제작연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번 | 문화재명 | 연대 | 소장처 | 지정일 |
|----|------------------|-----------------|----------|---------------|
| 1 | 이십삼 상대회도 | 1488년 경 | 경기도박물관 | 2004. 5. 7. |
| 2 | 은대계획도(이현보 종가 문적) | 1534년 경 | 농암종가 | 1994. 7. 29. |
| 3 | 성세창 제시 미원계획도 | 1540년 | 국립중앙박물관 | 1986. 10. 15. |
| 4 | 성세창 제시 하관계회도 | 1541년 | 국립중앙박물관 | 1986. 10. 15. |
| 5 | 예안 김씨 가전 계획도 일괄 | 1546·1581·1606년 | 개인소장 | 2009. 4. 22. |
| 6 | 호조낭관계회도 | 1550년 | 국립중앙박물관 | 1986. 10. 15. |
| 7 | 연정계획도 | 1550년대 | 국립중앙박물관 | 1986. 10. 15. |
| 8 | 희경루방회도 | 1567년 | 동국대학교박물관 | 2015. 9. 2. |
| 9 | 독서당계획도 | 1570년 | 서울대학교박물관 | 1986. 10. 15. |
| 10 | 정사신 참석 계획도 일괄 | 1580년대 | 국립중앙박물관 | 2005. 4. 15. |
| 11 | 총마계획도 | 1591년 | 국립나주박물관 | 2011. 9. 5. |
| 12 | 신해생갑회지도 | 1626년 | 국립중앙박물관 | 1990. 9. 20. |
| 13 | 이기룡 필 남지기로회도 | 1629년 | 서울대학교박물관 | 1986. 10. 15. |

○ 참고문헌

- 안휘준, 「16세기 안견과 회화와 단선점준」, 『진단학보』 46·47, 1979년.
- 안휘준, 「한국의 문인계회와 계획도」, 『한국인과 한국문화』, 1982년.
- 윤진영, 「16세기 契會圖에 나타난 山水樣式의 변모」, 『미술사학』 19, 2005년.
- 박정혜,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2022년.

○ 기 타

-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에 전해지는 16세기의 계획도는 대개 심하게 손상된 반면에, 일본으로 건너간 계획도는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계획도는 주로 문중에서 문서로 간주하여 다른 전적들과 함께 보관했던 반면, 일본에서는 미술품인 회화로써 소중하게 취급했던 결과다.
- 이 작품은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장을 지낸 간다 기이치로(神田喜一郎, 1897~1984)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족자 함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견출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 이 작품은 일본 개인소장자가 2022년 3월 22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한 것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입수하여 환수한 것이다.



<도판1. 독서당계회도, 국립고궁박물관>



光3870.

<도판2. 동호계회도, 국립광주박물관>



<도판3. 독서당계회도, 서울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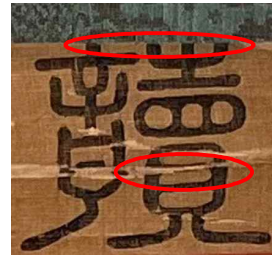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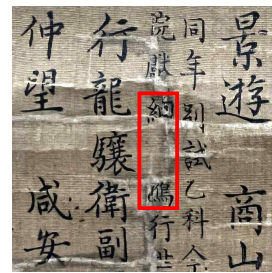
족자의 장황은 일본식이며, 상단 표제, 중단 그림, 하단 좌목의 3단 구성으로 된 전형적인 계획도이다. 전체적으로 꺾임과 결실 등이 다소 진행되었지만, 독서당과 한강 주변의 경관과 계획 장면, 좌목에서 참석자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화면 중앙의 응봉(鷹峰, 매봉산)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려진 원산에 칠해진 석청(石淸)의 일부가 남아 있다(도 1). 화면의 가로 잔금에서 보이는 색맞춤이나 표제(標題)와 좌목(座目)의 글씨에 보이는 가필(加筆)은 과거에 보수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장황 과정에서 표제 글씨의 윗부분이 잘린 것도 확인된다(도 2, 3). 이밖에 <독서당계획도> 족자가 담겼던 목제함의 윗면에는 “讀書堂契會圖”라 묵서되어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제이백사십호 조선화 독서당도(第二百四十號 朝鮮畫 讀書堂圖)”라고 쓴 종이가 붙여져 있다(도 4). 이밖에 목제함의 몸체 안쪽과 왼쪽 측면, 뚜껑 안쪽 면에 행서로 “讀書堂”이라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도 1. 계획 장면, 가로 꺾임과 원산의 석청>



<도 2. 표제 ‘讀’의 색맞춤, 글자 잘림>



<도 3. 좌목의 색맞춤, 가필(加筆)>



<도 4. <독서당계획도> 족자와 목제함, 높이 7cm 너비 75cm 길이 7.7cm, 목제함 윗면 “讀書堂契會圖”>



<목제함 측면 “第二百四十號 朝鮮畫 讀書堂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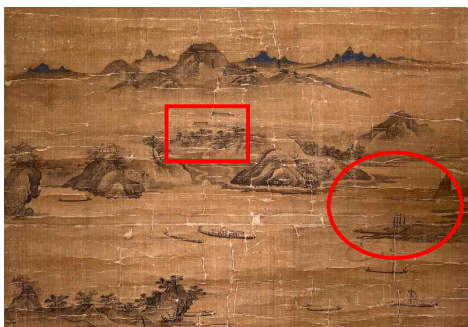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 사가독서(賜暇讀書)는 조선시대에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선발하여 휴가를 주어 공무 대신 학문에 전념하도록 했던 국가 인재 양성책이다. 1426년 12월 세종이 권채(權採)·신석견(辛石堅)·남수문(南秀文) 3명을 선발 자택에서 독서하도록 한 것이 최초이며, 세조연간 중단되었다가 성종연간에 부활되었다. 연산군이 다시 이 제도를 폐지했다가 1506년 11월 중종에 의해 재개되었고, 1517년 두모포(豆毛浦, 현재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별도의 공간인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 건립되었다. 이후 독서당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까지 사가독서의 중심지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 화면 상단에는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라는 제목이 전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은 안견파(安堅派) 화풍으로 두모포 일대의 자연 풍광과 사가독서했던 주인공들이 한강에서 뱃놀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응봉의 바로 아래 연운에 둘러싸여 지붕만 보이는 건물은 사가독서의 공간이었던 독서당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곳은 옥수동 남쪽 한강에 있었던 ‘저자도(楮子島)’로 추정되며, 1970년대에 압구정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흙을 파다 사용하면서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도 5). 특히 자연 경관을 배산임수(背山臨水)로 포치한 것은 안견파의 경물 구성과는 차이를 보이며, 조선 초기에 성행한 관념산수화와는 다르게 한강 주변을 그린 실경산수화의 시원 양식을 유추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사가독서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관복 차림의 7명이 차일이 드리워진 배를 타고 독서당과 일직선상에 위치한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도 6). 그러나 좌목에 적힌 문관이 12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계획 당일에 어떤 연유로 5명은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 5. 작자미상, <독서당계회도>의 독서당과 저자도>



<도 6. 관복 차림의 문신 7명만 배 안에 있음>

- 좌목에는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한 장옥(張玉, 1493~?), 홍서주(洪敍疇, 1499~1546), 허자(許磁, 1496~1551), 임백령(林百齡, 1498~1546), 송인수(宋麟壽, 1499~

1547), 송순(宋純, 1493~1582), 주세붕(周世鵬, 1495~1554), 이림(李霖, 1501~1546), 허항(許沆, 1497~1537), 신석간(申石澗, 1493~?), 엄흔(嚴昕, 1508~1553), 최연(崔演, 1503-1549)의 총 12명 인적 사항이 적혀 있으며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p>⑦ 慎齋周世鵬 景遊 商山人 生于弘治乙卯 甲申夏賜暇 奉訓郎守司馬登同年別試乙科今爲 父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文備</p> | <p>⑥ 拙齋宋純 守初 新平人 生于弘治癸丑 庚辰夏賜暇 舉癸酉司馬登己卯別試乙科今爲 常寺僉正兼 世子侍講院文學 鴈行綱 紳</p> | <p>⑤ 圭庵宋麟壽 眉叟 恩津人 生于弘治己未 甲申夏賜暇 登辛巳別試丙科今爲通善郎守弘文館副應教知製教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館 鴈行龜壽 永慶殿參奉 父通仕郎行 健元陵參奉 世良</p> | <p>④ 希齋林百齡 仁順 崇善人 生于弘治戊午 庚辰夏賜暇 舉丙子司馬登己卯式年甲科今爲通德郎守靈光郡守兼春 秋館編修館 鴈行千齡生員 億齡承政院注書 九齡 父忠順衛 遇亨</p> | <p>③ 東崖許磁 南仲 陽川人 生于弘治丙辰 甲申夏賜暇 舉丙子司馬登癸未別試丙 科今爲通善郎守楊根郡守 父奉正大夫行義盈庫令 瑗</p> | <p>② 魯庵洪叙疇 道原 南陽人 生于弘治己未 己未春賜暇 登辛巳別試丙科今爲朝 奉大夫守廣興倉守 父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知 經筵事 淑</p> | <p>① 忍齋張玉子 剛 豐德人 生于弘治癸丑 丙子冬賜暇 登乙亥別試甲科第一中丙戌重試乙科今爲朝奉 大夫守成均館司成又號柳亭 鴈行栢生員 父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 忠輔</p> |
|--|--|---|--|---|--|---|

| | | | | |
|---|--|--|---|---|
| <p>⑫ 良齋崔演 演之 江陵人 生于弘治癸亥 庚寅夏賜暇 舉乙酉司馬登同年式年乙科今爲宣教郎弘文館副 檢討館春秋館記事官 世子侍講院司書 鴈行洞 父忠順衛進勇校尉 世健 教兼 濬 洵</p> | <p>⑪ 十省堂嚴昕 啓昭 寧越人 生于正德戊辰 庚寅夏賜暇 舉乙酉司馬登戊子式年甲科今爲宣教 郎守吏曹佐郎知製教 鴈行噉 父保功將軍行忠佐衛左部將 用和</p> | <p>⑩ 洞江申石澗 清仲 高靈人 生于弘治癸丑 庚寅夏賜暇 舉丙子司馬登戊子別試甲科第一今爲通善郎行 吏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 鴈行石湖 石河 淵 父奉列大夫守水原都護府使兼春秋館編修官</p> | <p>⑨ 守庵許沆 清卿 陽川人 生于弘治丁巳 戊子夏賜暇 舉癸酉司馬登甲申別試丙科今爲承訓郎司諫 院正言 鴈行潤忠義衛 洽弘文館直提學 父通政大夫行三陟都護府使江陵鎮管兵馬同僉節制使 確</p> | <p>⑧ 惕庵李霖 仲望 咸安人 生于弘治辛酉 戊子夏賜暇 舉己卯司馬登甲申別試乙科今爲承議郎守 禮曹正郎知製教 鴈行震生員 霽進士員 父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內馬水軍節度使平壤府尹咸安郡世應</p> |
|---|--|--|---|---|

(파란색, 붉은색 글자는 동일한 것임)

- ① 인재 장옥: 자 자강, 본관 풍덕, 홍치 계축년(1493) 출생, 병자년(1516) 겨울 사가독서/ 을해년(1515) 별시 갑과 1등으로 급제, 병술년(1526) 중시 을과 급제, 지금은 조봉대부 성균관사성, 다른 호는 유정/ 형제는 장백, 생원/ 부친은 통훈대부 사간원집의를 지낸 장충보
- ② 노암 홍서주: 자 도원, 본관 남양, 홍치 기미년(1499) 출생, 계미년(1523) 봄 사가독서/ 신사년(1521) 별시 병과 급제, 지금은 조봉대부 광흥창수/ 부친은 승정대부 판중추부사 겸 지경연사를 지낸 홍숙
- ③ 동애 허자: 자 남중, 본관 양천, 홍치 병진년(1496) 출생, 갑신년(1524) 여름 사가독서/ 병자년(1516) 사마시 입격, 계미년(1523) 별시 병과 급제, 지금은 통선랑 양근군수/ 부친은 봉정대부 의영고영을 지낸 허원
- ④ 회재 임백령: 자 인순, 본관 송선, 홍치 무오년(1498) 출생, 경진년(1520) 여름 사가독서/ 병자년(1516) 사마시 입격, 기묘년(1519) 식년시 갑과 급제, 지금은 통덕랑 영광군수 겸 춘추관 편수관, 형제 임천령 생원, 임억령 승정원 주서, 임구령/ 부친은 충순위를 지낸 임우형
- ⑤ 규암 송인수: 자 미수, 본관 은진, 홍치 기미년(1499) 출생, 갑신년(1524) 여름 사가독서/ 신사년(1521) 별시 별과 급제, 지금은 통선랑 홍문관 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 편수관, 형제 송귀수 영경전 참봉/ 부친은 통사랑 건원릉 참봉을 지낸 송세량
- ⑥ 졸재 송순: 자 수초, 본관 신평, 홍치 계축년(1493) 출생, 경진년(1520) 여름 사가독서/ 계유년(1513) 사마시 입격, 기묘년(1519) 별시 을과 급제, 지금은 통선랑 봉상시첨정 겸 세자시강원 문학, 형제 송인 송신/ 부친은 학생이었던 송태
- ⑦ 신재 주세봉: 자 경유, 본관 상산, 홍치 을묘년(1495) 출생, 갑신년(1524) 여름 사가독서/ 임오년(1522) 사마시 입격 같은 해 별시 을과 급제, 지금은 봉훈랑 사간원 헌납, 형제 주세곤/ 부친은 어모장군 용양위 부사과를 지낸 주문보
- ⑧ 척암 이립: 자 중망, 본관 함안, 홍치 신유년(1501) 출생, 무자년(1528) 여름 사가독서/ 기묘년(1519) 사마시 입격, 갑신년(1524) 별시 을과 급제, 지금은 승의랑 예조정랑 지제교, 형제 이진 생원, 이제 진사/ 부친은 분충정국공신 가선대부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평양부윤을 지낸 함안군 이세응
- ⑨ 수암 허항: 자 청경, 본관 양천, 홍치 정사년(1497) 출생, 무자년(1528) 여름 사가독서/ 계유년(1513) 사마시 입격, 갑신년(1524) 별시 병과 급제, 지금은 승훈랑 사간원 정언, 형제 허운 충의위, 허흠 홍문관 직제학/ 부친 통정대부 삼척도호부사 강릉진관병마동첩절제사를 지낸 허확
- ⑩ 동강 신석간: 자 청중, 본관 고령, 홍치 계축년(1493) 출생, 경인년(1530) 여름 사가독서/ 병자년(1516) 사마시 입격, 무자년(1528) 별시 갑과 1등으로 급제, 지금은 통선랑 이조좌랑 겸 춘추관 기사관, 형제 신석호 신석하/ 부친은 봉렬대부 수

원도호부사 겸 춘추관 편수관을 지낸 신연

⑪ 십성당 엄흔: 자 계소, 본관 영월, 정덕 무진년(1508) 출생, 경인년(1530) 여름 사가독서/ 을유년(1525) 사마시 합격, 무자년(1528) 식년시 갑과 급제, 지금은 선교랑 이조좌랑 지제교, 형제 엄경, 엄동/ 부친은 보공장군 증좌위좌부장을 지낸 엄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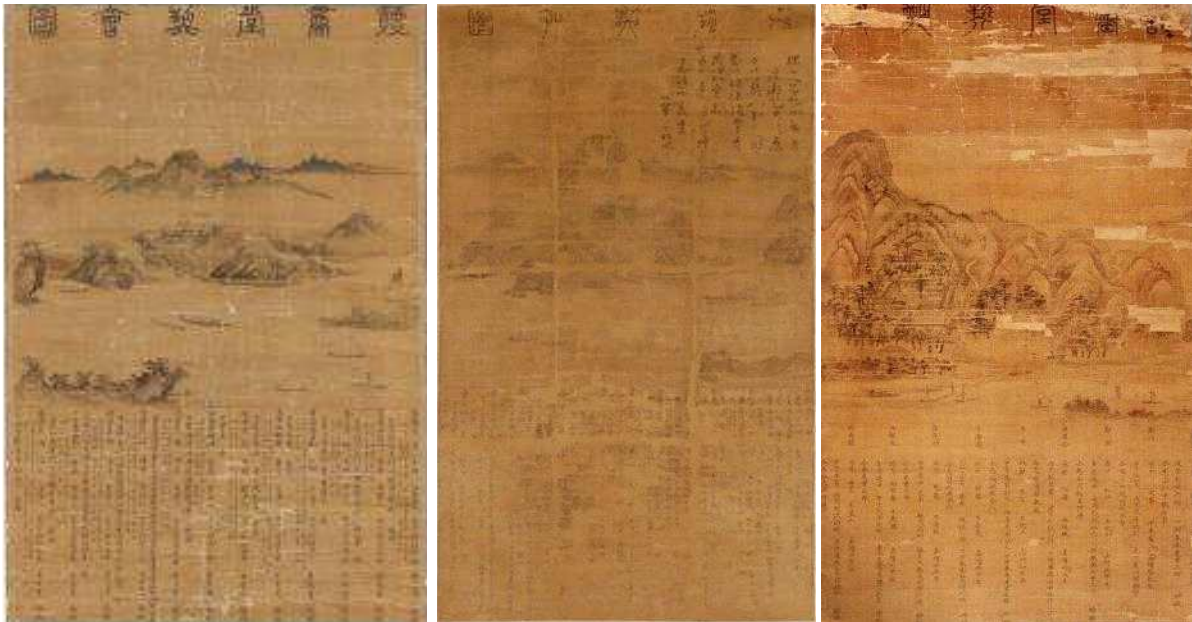
⑫ 간재 최연: 자 연지, 본관 강릉, 홍치 계해년(1503) 출생, 경인년(1530) 여름 사가독서/ 을유년(1525) 사마시 합격 같은 해 식년시 을과 급제, 지금은 선교랑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 기사관 세자시강원 사서, 형제 최형 진사, 최담 최옥 최호 최순/ 부친은 충순위 진용교위를 지낸 최세건

- 좌목에는 문관 12명의 호(號), 성명, 자(字), 본관, 출생일, 사가독서 시기, 과거 급제 시점, 계획 당시의 관직, 형제, 아버지 관직과 이름이 순서대로 해서체로 적혀 있다. 이들은 모두 중종연간(재위 1506~1544)에 과거급제하고 1516년 겨울부터 1530년 여름 사이에 사가독서를 했던 20~30대의 젊은 문관들이다. 이들의 이름과 생몰년, 사가독서 시기와 연령, 과거급제, 계획 당시 관직과 연령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연번 | 호, 성명(생몰년) | 사가독서 시기 및 연령 | 과거급제 연도 | 계획 당시 관직 및 연령 |
|----|----------------------------|-------------------------|----------------|------------------------------------|
| 1 | 인재(忍齋) 장옥(張玉, 1493~?) | 병자년 겨울(1516, 중종 11) 24세 | 1515년 별시 문과 |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39세 |
| 2 | 노암(魯庵) 홍서주(洪叙疇, 1499~1546) | 계미년 봄(1523, 중종 18) 25세 | 1521년 별시 문과 | 광흥창수(廣興倉守) 33세 |
| 3 | 동애(東崖) 허자(許磁, 1496~1551) | 갑신년 여름(1524, 중종 19) 29세 | 1523년 별시 문과 | 양근군수(楊根郡守) 36세 |
| 4 | 희재(希齋) 임백령(林百齡, 1498~1546) | 경진년 여름(1520, 중종 15) 23세 | 1519년 식년 문과 | 영광군수(靈光郡守) 겸 춘추관편수관 34세 |
| 5 |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 1499~1547) | 갑신년 여름(1524, 중종 19) 26세 | 1521년 별시 문과 |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 33세 |
| 6 | 졸재(拙齋) 송순(宋純, 1493~1582) | 경진년 여름(1520, 중종 15) 28세 | 1519년 별시 문과 |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겸 세자시강원문학 39세 |
| 7 |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 | 갑신년 여름(1524, 중종 19) 30세 | 1522년 별시 문과 |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37세 |
| 8 | 척암(惕庵) 이림(李霖, 1501~1546) | 무자년 여름(1528, 중종 23) 28세 | 1524년 별시 문과 | 예조정랑(禮曹正郎) 31세 |
| 9 | 수암(守庵) 허항(許沆, 1497~1537) | 무자년 여름(1528, 중종 23) 32세 | 1524년 별시 문과 |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35세 |
| 10 | 동강(洞江) 신석간(申石澗, 1493~?) | 경인년 여름(1530, 중종 25) 38세 | 1528년 별시 문과 | 이조좌랑(吏曹佐郎) 39세 |
| 11 | 십성당(十省堂) 엄흔(嚴昕, 1508~1553) | 경인년 여름(1530, 중종 25) 23세 | 1528년 식년 문과 | 이조좌랑(吏曹佐郎) 24세 |
| 12 | 간재(良齋) 최연(崔演, 1503~1549) | 경인년 여름(1530, 중종 25) 28세 | 1525년 식년 문과 |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 29세 |

- 계획이 열린 시기는 『중종실록』 중종 25년 경인(1530) 12월 2일(무오)에서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장옥(張玉)과 이조 좌랑(吏曹佐郎) 신석간(申石澗)”의 존재가 확인되고, 『중종실록』 중종 26년 신묘(1531) 3월 17일(임인)과 중종 26년 신묘(1531) 4월 5일(기미)에는 각각 “허항(許沆)은 사간원 정언”에, “송인수(宋麟壽)는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에 제수되었다고 하며, 『중종실록』 중종 26년 신묘(1531) 10월 6일(병술)에는 임백령(林百齡)이 영광군수였음이 확인되므로 1531년 여름이나 가을에 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한 문관들의 계획을 그린 다른 예인 1541년 제작의 <동호계회도(東湖契會圖)>(국립광주박물관)와 1570년 이후의 <독서당계회도>(서울대학교박물관)보다 앞서 제작된 것으로 조선 초기 안견과 화풍으로 그려진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하다(도 7, 8).



<<독서당계회도>, 1531년경,
국립고궁박물관>

<도 7. <동호계회도>, 1541년,
국립광주박물관>

<도 8. <독서당계회도>,
1570년, 서울대학교박물관>

○ 참고문헌

- 『중종실록』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 박은순, 「16世紀 讀書堂契會圖 研究」, 『美術史學研究』 212, 한국미술사학회, 1996.12, pp.45~75.
- 이종묵,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 활동」,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10, pp.5~44.
- 이종묵, 「尹鉉과 16세기 東湖讀書堂」, 『한국문화』 7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6, pp.123~159.

○ 기 타

국의 반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70년대에 교토(京都)국립박물관장 간다 기이치로(神田喜一, 1897~1984)가 소장했던 것을 다른 일본인이 소유하다 2022년 3월 미국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왔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구매해 들여왔다.



○ 현 상

현재 축의 형태로 상황되어 있으며, 일본의 족자 장황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면 상하단에 청록색 직금단을 이어 붙이고, 사방으로 화문의 갈색 직물을 두른 후 상아색 직물로 상황되어 있으며 상단 장황에 청색 풍대가 부착됨. 그림은 견직물에 수묵과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화면 전반에 화면 꺾임, 결실, 충해 등이 관찰되며 글씨에서 가필 및 부분 보수 등의 흔적이 있어 과거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에서 일부 글씨가 잘린 흔적이 있으며, 글씨 등이 부분적으로 어긋난 것이 보인다. 화면 중앙 그림과 글씨가 나누어지는 사이에 있는 붉은 선이 전체적으로 어긋나 있는데, 이는 후대의 배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뒷면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과거 보수과정에서 화면의 꺾임 방지를 위해 띠를 붙인 것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화면에 잔금이 있고 박락부분이 있으나 그림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형태와 필선, 채색이 잘 보존되어 있고, 좌목의 판독도 거의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

○ 내용 및 특징

1. 그림의 내용

- 1) 讀書堂契會圖(4.7×62.2cm): 篆書體로 써 있다.
- 2) 그림(59.5×62.2cm): 수묵과 청록안료를 사용하여 그려졌다.
- 3) 座目(31.7×62.2cm): 참석자의 호, 이름, 자, 본관, 생년, 사가독서의 연도, 사미시 입격연도, 과거급제연도, 계획에 참석할 당시의 품계와 관직명, 부친이나 형제 등의 인적사항 등 기록됨(아래는 원문).

忍齋、張玉：子剛、豐德人，生于弘治癸丑，丙子冬賜暇。

登乙亥別試甲科第一中，丙戌重試乙科，今爲朝奉大夫、守成均館司成，又號柳亭。雁行：栢，生員。

父：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忠輔

魯庵、洪叙疇：道原、南陽人，生于弘治己未，癸未春賜暇。

登辛巳別試丙科，今爲朝奉大夫、守廣興倉守。

父：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知經筵事、淑。

東崖、許磁：南仲、陽川人，生于弘治丙辰，甲申夏賜暇。

舉丙子司馬，登癸未別試丙科，今爲通善郎、守楊根郡守。

父：奉正大夫行、義盈庫令、瑗。

希齋、林百齡：仁順、崇善人，生于弘治戊午，庚辰夏賜暇。

舉丙子司馬，登己卯式年甲科，今爲通德郎、守靈光郡守兼春秋館編修官。雁行：千齡生員，億齡承政院注書，九齡。

父：忠順衛、遇亨。

圭庵、宋麟壽：眉叟、恩津人，生于弘治己未，甲申夏賜暇。

登辛巳別試丙科，今爲通善郎、守弘文館副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雁行：龜壽，永慶殿參奉。

父：通仕郎、行健元陵參奉、世良。

拙齋、宋純：守初、新平人，生于弘治癸丑，庚辰夏賜暇。

舉癸酉司馬，登己卯別試乙科，今爲通善郎、守奉常寺僉正兼世子侍講院文學。雁行：綱、紳。

父：學生、泰。

慎齋、周世鵬：景遊、商山人，生于弘治乙卯，甲申夏賜暇。

舉壬午司馬，登同年別試乙科，今爲奉訓郎、守司諫院獻納。雁行：世鵬。

父：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文備。

惕庵、李霖：仲望、咸安人，生于弘治辛酉，戊子夏賜暇。

舉己卯司馬，登甲申別試乙科，今爲承議郎、守禮曹正郎、知製教。雁行：震，生員，霖，進士。

父：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平壤府尹、咸安君、世應。

守庵、許沆：清卿，陽川人，生于弘治丁巳，戊子夏賜暇。

舉癸酉司馬，登甲申別試丙科，今爲承訓郎、司諫院正言。雁行：潤，忠義衛，洽，弘文館直提學。

父：通政大夫、行三陟都護府使、江陵鎮管兵馬同僉節制使、確。

洞江、申石澗：清仲、高靈人，生于弘治癸丑，庚寅夏賜暇。

舉丙子司馬，登戊子別試甲科第一，今爲通善郎、行吏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雁行：石湖，石河。

父：奉列大夫、守水原都護府使兼春秋館編修官、淵。

十省堂、嚴昕：啓昭、寧越人，生于正德戊辰，庚寅夏賜暇。

舉乙酉司馬，登戊子式年甲科，今爲宣教郎、守吏曹佐郎、知製教。雁行：暉，瞳。

父：保功將軍、行忠佐衛左部將、用和。

良齋、崔演：演之、江陵人，生于弘治癸亥，庚寅夏賜暇。

舉乙酉司馬，登同年式年乙科，今爲宣教郎、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世子侍講院司書。雁行：洞，進士，澹，沃，浩，洵。

父：忠順衛、進勇校尉、世禔。

2. 그림의 특징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의 친목도모와 관청 소속 동료들의 결속을 위해 계획이 자주 행해졌으며, 이러한 계획의 장면을 그린 계획도가 그림의 장르로 유행하였다. 讀書堂契會圖는 讀書堂에서 함께 賜暇讀書한 사람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세종은 1426년 젊은 문신들에게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였다. 중종은 1517년 東湖讀書堂을 설치하여 사가독서 하게 하였다.

조선전기의 계획도는 전형적인 구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상단에 전서체의 계획명칭을 적고, 중단에는 산수를 그리고 하단에는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官階의

서열에 따라 서술하는 座目이 위치한다. 본 <독서당계회도>의 좌목에는 계획에 참석한 문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옥(張玉 1493~?), 홍서주(洪敍疇 1499~1546), 허자(許磁 1496~1551), 임백령(林百齡 1498~1546), 송인수(宋麟壽 1499~1547), 송순(宋純 1493~1582), 주세붕(周世鵬 1495~1554), 이림(李霖 1501~1546), 허항(許沆 1497~1537), 신석윤(申石澗 1493~?), 엄흔(嚴昕 1508~1553), 최연(崔演 1503~1549) 등 모두 12인이다. 좌목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1516년부터 1530년 사이 사가독서하였다. 또한 그림의 좌목에는 계획 참석자들의 호, 이름, 자, 본관, 생년, 사가독서의 연도, 사미시 입격연도, 과거급제연도, 계획에 참석할 당시의 품계와 관직명, 부친이나 형제 등의 인적사항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같은 자세한 기록은 이 그림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 독서당계회도는 작품의 제목과 산수 그리고 좌목이 모두 남아있어 조선전기 계획도의 전형양식이 잘 보존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서당계회도>의 제작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작품의 제작연도를 1531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좌목에 기록된 계획에 참여하였던 문인들의 관직명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송인수의 관직이 “弘文館副應敎”로 기재되어 있는데, 1532년에는 “掌書”이 되었다. 허항 역시 사간원 정언으로 기록되었으나 1532년에는 홍문과 부교리로 제수되었고, 1531년 당시 영광군수 임백령은 1532년 중종실록 기사에서 시강원 문학에 제수되었음이 확인된다. 좌목에 기록된 계획당시 관직명의 기록에 의해 이 계획도가 1531년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작품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점 역시 이 작품의 가치를 높인다.

이 계획도는 조선시대 회화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조선전기 산수도는 제작연도를 가진 절대편년 기준작이 매우 드문데, 이 작품은 16세기 전반의 조선전기 산수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산수도 양식에서는 조선전기 정형산수 양식과 유사함을 보이면서도 동호독서당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은 실경의 산수의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다. 조선전기 산수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인 언덕 위의 누각의 모습, 술동이로 실은 배, 고기잡이를 하는 장면 등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운데 배 위의 사람들은 官服을 입고 있으며, 배 위에는 술동이가 실려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 뿐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등장한다.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는 조선전기 정형산수와 실경산수 모두에서 느껴지는 조선전기 산수의 전형적인 인물 모티브이다.

산수를 그린 화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준법, 수지법, 필선, 산수화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조선전기에 가장 유행하였던 산수양식에 매우 익숙한 직업화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필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이 그림에서 주목하고 싶은 또 하나의 점은 청록안료가 사용된 점 그리고 그 안료가 그림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원경에 표현된 원산의 청록을 표현하기 위해 석청의 안료, 적색의 안료는 진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산수화에서 석청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예는 많지 않으나 석청의 사용기법이 1550년 제작된 李自實 筆, <道岬寺觀世音32應身圖> (知恩院藏), 작가미상, <秋景山水圖> (毛利美術館藏)의 원산 표현과 유사함이 있다.

계회도에 등장하는 산수도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조선전기의 기년 산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산수양식을 보여주는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며, 등장하는 인물의 의관을 통해서 복식사 등에도 중요 정보를 준다. 또한 모임의 주변에 등장하는 커다란 술동이와 정자의 모습 등을 통해 당시의 실제 친목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중간의 산수 양식은 조선전기 정형산수의 양식을 보이면서도, 실경산수의 양식을 보인다. 이 같은 회화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작품은 문화재 지정의 가치가 충분하다.

○ 기 타

이 그림은 이전 국내의 출판물(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삼성출판사 편, 『동양의 명화』 한국 I, 1985;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등)에서 일본 개인 소장자의 계회도로 소개된 바 있다. 2022년 3월 22일 열린 미국의 크리스티스 옥션(Christies Auctions) 《Japanese and Korean Art Including the Collection of David and Nayda Utterberg》에 출품된 것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구입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2022. 7. 7. ~ 9. 25.)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작품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그림의 소장자는 일본의 동양학자이자 교토국립미술관 초대관장이었던 칸다 키이치로(神田喜一郎 Kanda Kiichiro 1897~1984)였다고 전한다.

현재 그림의 보관 상자 바깥에 墨書로 “讀書堂契會圖”가 써 있고, 상자의 아랫편 바깥쪽에는 종이에 묵서로 “第二百四十号 朝鮮畫 讀書堂圖”가 써 있다. 그 외에도 종이에 묵서와 판독이 어려운 인장이 있는데, 모두 소장자와 관련된 기록으로 생각된다.

2.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安城 靑龍寺 金銅觀音菩薩坐像)

가. 심의사항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5.3.)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2.10.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3.13.~’23.4.1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2000.3.24. 지정)
- 명 칭 :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安城 靑龍寺 金銅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청룡리), 청룡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94.0cm, 어깨 폭 52.0cm, 무릎 폭 42.0cm
- 재 질 : 청동에 도금
- 형 식 : 보살좌상 형식
- 조성연대 : 고려 후기(14세기)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같은 금동제인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상(보물)과 대체로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엄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용문사상과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영락장식은 주조 후에 별도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므로, 원래부터 장엄이 생략되었던 것인지, 후에 유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군의 띠자락이 용문사상보다 청룡사상이 더 정교하게 새겨진 점을 보면 청룡사상에도 추가적인 장엄이 부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가름한 얼굴, 긴 상체, 중품중생인의 수인, 다소 구부정하고 목을 내민 자세 등은 용문사상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며, 오히려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상(보물)이나 강릉 보현사 문수보살좌상(보물) 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청룡사상은 봉정사상 같은 고려 후기 보살상 양식이 이번 조사대상인 청룡사상 양식을 거쳐서 양평 용문사상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청룡사 금동보살상 복장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에 의하면 1722년에 이 보살상이 수리되었던 바, 1722년은 청룡사가 크게 중창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중수문에는 청룡사의 언급이 없으나 이 중수가 청룡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내력을 확인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는 양식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금동보살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려 후기 단아양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보살상으로는 드물게 금동제인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기존 지정된 보물급의 고려 후기~조선초기 보살상의 양식적 변천과정을 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청룡사 금동보살상을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과 연구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보살상은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들은 알 수 없으나, 元나라 至元年間(1264~1294)에 明本法師(1263~1323)가 창건하고 뒤이어 나옹화상(1320~1376)이 중창하는 과정에 조성된 금동관음보살상일 가능성이 높다. 초창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22년 중수기를 통해 관음보살로 신앙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룡사는 고려 후기 왕실과 유력자들의 후원으로 1372년에 『능엄경』이 제작되었고, 더불어 공양왕의 어진이 봉안되었던 만큼 고려 후기 왕실의 원찰로서의 성격과 높은 사격을 가지고 있었다. 금동보살좌상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왕실과 중앙과 지방의 여러 유력자들에 후원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인 보살상으로 평가된다. 보살상에서 보이는 복스럽고 살이 오른 귀공자풍의 얼굴, 오능형의 풍성한 보계, 고리를 이루며 어깨위로 늘어진 垂髮, 세 개의 크고 작은 꽃무늬와 수식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이 잘 표현된 귀, 가슴에 열게 자리 잡은 근육, 부드럽고 활달하게 펼쳐진 무릎 주름 등 전반적으로 고려 후기 불상이 지향하고 있는 단아한 조형 감각을 잘 지니고 있다. 다만, 14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에 비해 어깨가 왜소하고 허리가 길고 무릎 폭이 좁은 일련의 양식변화를 보이므로 14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불상은 1400년을 전후하여 많이 등장하는 원·명대 라마불교 양식과 달리 전통적인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는 보살상이자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불상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큰 불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고려시대 제작된 불상의 수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금동불상도 많지 않다. 이 불상은 제작 다른 곳을 전전하지 않고 원래의 봉안장소에서 여러 차례 수리와 개금을 거쳐 오늘 날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는 보살상이다. 물론 전래되는 과정에서 전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등과 엉덩이 쪽이 파손되어 제작 당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1722년 중수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개금수리 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온 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후반의 유

례가 많지 않은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은 양감이 있는 신체의 표현, 입체감 있는 이목구비의 묘사, 가늘게 내리뜬 눈과 작은 입술, 보계와 귀걸이 등 세부 표현 등에서 고려 후기 ‘전통양식’ 혹은 ‘단아양식’으로 이해되어왔던 일군의 보살상과 강한 친연성을 보여준다. 이에 근거할 때,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은 종래에 제시되었던 15세기 초가 아니라 고려후기인 14세기에 조성된 보살상으로 판단된다.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은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각 양식을 계승한 상이자, 1501년명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까지 이어지는 조각 양식의 흐름 가운데에 있는 보살상이다. 비록 원래의 복장물이 유실되어 절대 연대와 조성 주체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와 같은 양식적 유형의 보살좌상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데 반해 동을 주조하여 만들어진 상이기에 미술사적 의미가 중대하다. 다만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은 보관과 대좌가 원래의 것이 아니며, 상의 하반신도 많이 보수가 된 상태여서 제작 당시의 원형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금동제의 불상을 중수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희귀한 실례로서도 지대한 의미가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안성 서운산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서향한 가람배치를 보이는 청룡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의 북쪽(대웅전 중심으로 우측)에 자리잡은 ‘ㄴ’자형의 건축의 정면(서향) 공간을 활용하여 3칸의 관음전을 마련하고, 그 안에 주존으로 단독

봉안하였다. 뒤에는 새로 봉안한 후불탱화가 걸려있다. 보관 및 대좌는 새로 맞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등과 둔부 일부분이 파손되어 나무로 보강하고 개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보관 착용)>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보관 탈거)>



<안동 봉정사 목조보살좌상>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양평 용문사 금동보살좌상>

보살상은 통견 착의에 결가부좌를 하였으며,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려 각각 검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중생인을 결하고 있다. 상체가 긴데다 대좌와 높은 보관도 적당한 비례로 조성되어 전체적인 보살상의 윤곽이 위로 길쭉한 이등변삼각형의 형태로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비례는 고려 후기 보살상인 봉정사 목조관음보

살좌상이나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등과 유사한 비례이나, 이보다 무릎이 더 높은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무릎은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하며, 전체적인 비례관계도 용문사상이 이번 조사대상인 청룡사 보살상과 가장 흡사한 편이다. 특히 두 상은 재료면에 있어서도 금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많은 면에서 비교가 된다. 한편 이러한 비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 고려 건칠보살좌상이나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상의 무릎 폭이 다소 넓은 상들과는 구분되는 비례이다.

청룡사 보살좌상의 세부를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우선 상투를 높이 틀었지만, 폭이 워낙 두꺼운 탓에 상투가 낮은 것처럼 보인다. 정수리에서 마치 번데기처럼 6단으로 쌓인 동여맨 두발과 그 위로 굽어진 타래진 머리칼이 뒤로 누워있는데, 특이한 것은 오른쪽 옆으로 타래진 머리칼의 한 가닥이 맨 윗단의 동여맨 머리칼 사이로 빠져나와 있는 점이다. 엄격한 좌우대칭의 분위기에서 이러한 비대칭은 자연스러움을 끌어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투 윗단의 타래진 부분 중앙에는 방형으로 돌출되고 그 가운데에 국화문처럼 장식된 것이 보이는데 마치 머리카락에 비녀처럼 꽂은 장식으로 보인다. 원래 이 부분은 머리카락처럼 검은색이 아닌 금색으로 칠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에 반해 이마의 발제선 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고려~조선초 보살상의 타래진 머리칼의 표현과 비교해 가장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타래진 머리카락이 연속적으로 둥글게 이어지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타래진 구분은 선각으로 표현되었지만, 매우 평면적이고 타래진 머리칼의 굴곡도 표현되지 않았다. 또한 봉정사상 등의 사례에서는 이마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타래진 머리칼이 좌우대칭으로 표현되는 반면, 안동 보광사상의 경우는 가운데에 반원형의 머리카락 다발을 표현하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머리칼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청룡사상의 발제선 표현은 안동 보광사 형식에 속한다.



<청룡사상 상투(측면)>



<청룡사상 상투(정면)>



<보현사상 상투>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보발은 봉정사·보광사 등의 보살상은 두 가닥 정도가 꺾가를 지나 뒤편으로 흐르는 반면, 청룡사상은 한 가닥만 꺾가를 지나고 있어 간략화된 모습이다. 이처럼 발제선의 보발 타래와 구레나룻의 표현이 간략화된 것은 시대적 차이일 수도 있고, 재료기법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꺾가를 지나는 보발은 함께 구조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 붙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동이라는 재료적 특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용문사상의 경우도 이처럼 한 가닥으로 간략화 된 특징을 보인다.



<청룡사 보살좌상 두부 세부>

귀 뒤에서 흘러내린 한 다발의 머리칼은 어깨 위로 흘러내려 두 개의 원형을 이루고 중심에서 다섯 가닥으로 나뉘며 어깨 아래로 늘어져 있다. 이러한 형식도 기본적으로 용문사상과 가장 흡사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of 고려 금동여래삼존상의 양협시보살입상도 어깨 위의 보발이 두 개의 고리와 다섯 가닥의 머리칼로 구성된 점이 유사하다. 한편 기본적인 틀은 봉정사상도 유사한 형태이지만 어깨 위에서 둥글게 퍼진 형태가 세 가닥으로 더 많고 보발의 굵기가 청룡사상보다 가는 것이 차이점이다. 보광사상은 둥글게 퍼지는 고리 모양이 보이지 않고 마치 이 고리를 당겨서 딱 짜맨 것처럼 매듭진 상태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봉정사상 보살두>



<청룡사상 보살두>



<용문사상 보살두>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은 달갈형의 다소 위아래로 긴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윤곽선은 안동 봉정사상이나 강릉 보현사상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비해 보광사상이나 용문사상은 다소 원형에 가까운 둥근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봉정사·보현사상이 눈을 지그시 감고 눈꼬리가 과장되게 치켜 올라간 것에 비해 청룡사상은 이보다는 과장됨이 덜 한 편이고, 눈도 더 뜨고 있는 상태로 묘사되었다. 눈썹이 그리는 호는 곡률이 심한 편인데, 이는 강릉 보현사상과 유사하지만, 보현사상이 같은 곡률로 눈썹을 양 옆으로 더 길게 늘인 반면 청룡사상은 그보다 짧게 마무리되어 차이가 있다. 코는 좌우 폭이 가늘어 위아래로 긴 느낌이 강조되었다. 삼각형의 윤곽선을 보여주는 양평 용문사상이나 보광사상 보다는 봉정사나 보현사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콧망을 옆의 콧날개선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는데, 여러 면에서 유사한 용문사상의 경우는 유독 콧날개선이 깊게 파여 있어 비교가 된다. 다른 고려시대 보살상의 경우도 용문사상 만큼은 아니지만, 이 콧날개선이 강조된 것이 확인된다. 청룡사상은 현재는 콧날개선이 희미한 편이지만, 개금 과정에서 파인 부분이 어느 정도 메꿔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입술은 봉정사상의 입꼬리가 아래로 다소 처져서 근엄한 표정인 것과 달리 끝이 살짝 올라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다. 그러나 용문사상이나 보광사상처럼 완전히 미소짓는 모습은 아니며, 낙산사상 정도로 미세한 정도만 보여주고 있다.

귓볼 끝에 달린 귀걸이는 단순한 원형이 아니라, 마치 원형 장식 앞뒤로 클립 같은 것이 달려있어 귓볼을 짚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유사한 계통의 보살상들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의 협시보살상 귀걸이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가 확인된다.

안면은 전반적으로 양감이 풍부한 편이다. 턱 아래로 마치 보조개처럼 움푹 들어간 부분이 강조되면서 둥근 턱이 강조되었고, 목 아래로는 삼도가 표현되었는데, 봉정사상 등 다른 보살상처럼 명확히 3단으로 구성된 삼도가 아니라 2단 정도만 표현되었다. 다만 용문사상의 경우는 2단의 구성에 있어서 목 가운데에 단이 긴 형태가 아니라 마치 목 둘레에 쇠골이 강조된 것처럼 돌출되어 표현된 점에서 청룡사상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상체 세부>

청룡사 금동보살상은 통견 착의에 오른쪽 어깨에는 가사가 살짝 덮혀 있는 여래의 착의법에 가깝다. 이러한 착의법은 고려 후기 보살좌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식이다.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내린 소위 구품인 중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중생인을 결하고 있다. 손바닥에는 손금이 표현되었고, 손톱과 손가락 마디의 표현도 섬세하게 되어있다. 손목의 팔찌는 3겹의 고리형태에 네 곳에 돌아가며 3개의 구슬이 박혀있는 형태로서 낙산사 관음보살상의 팔찌와 다소 유사한 편이다. 용문사상은 연주문이 팔찌 전체를 돌아가며 시문된 팔찌여서 차이가 있다.

가슴장엄은 어깨에서 내려오는 천의의 양쪽 옷깃 안쪽에서 나온 끝이 여의두문 형식인 고리장식에 매달린 줄이 포물선을 그리며 매달려 있는데, 가장 양쪽 끝단에는 구슬장식, 중간에는 십(十)자형의 구슬장식, 중앙에는 국화문의 구슬장식이 달려있다. 이중 중간과 중앙의 장식에서는 영락이 늘어지고 있는데, 이 끝에도 구슬장식이 달려있다. 이러한 장엄은 용문사상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금동아미타삼존상의 협시보살상 흥배장엄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다소 간략화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흥배장엄 외에 봉정사상은 추가적으로 옷깃 양쪽 중간에서 영락장식이 늘어져 있다거나, 용문사상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좌상은 왼쪽 어깨에서 가사띠장식으로 보이는 삼각형의 금구장식이 늘어진 것이 보이지만, 이러한 상들에 비해 청룡사상은 이러한 장엄이 보이지 않고 앞서 기술한 흥배 장엄 및 팔찌 외에는 몸에 별다른 장엄을 하지 않았다. 또한 여타의 고려시대 보살상이 결가부좌한 하체에도 영락장엄이 표현된 사례가 많은 것에 비해 이러한 부분이 생략된 점도 주목된다. 이것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혹은 별도로 만들어 부착했는데 유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유사한 금동제 보살상인 용문사상과 비교하자면, 복부에서 매듭진 군의의 띠자락이 용문사상의 경우는 훌쳐 맨 끈이 한가닥씩 흘러내려 군의 위를 덮은 대의 자락 사이로 들어가지만, 청룡사상은 한 가닥이 대의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대의자락 사이로 말려들어가면서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요

소는 다른 고려후기 보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주목된다.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하체 세부>

가부좌한 하체는 오른발을 앞으로 하여 위로 올린 형식인데, 오른발은 발바닥 전체가 드러나 있고, 왼발은 옷자락으로 덮여 윤곽만 보인다. 노출된 오른발의 발바닥은 평발이고 발가락은 대체로 각각의 발가락의 실제 인체비례에 맞춰 도톰한 양감으로 표현되었다.



<강릉 보현사상 측면>



<청룡사상 측면>



<양평 용문사상 측면>

하체를 덮은 옷자락은 교차한 발목으로부터 부채꼴 모양의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양쪽 정강이 앞의 옷자락은 U자형을 그리며 무릎과 발목을 연결하고 있으며, 그 사이 종아리 부분은 옷자락이 없이 종아리의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으나, 양감이 그다지 강조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양상은 용문사상과도 유사하나,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보살좌상의 종아리 표현보다는 양감이 강조된 편이다. 고려후기 보살상에서는 상체에서 흘러내린 천의가 허벅지와 종아리를 덮고 흘러내려 끝단이 V자형으로 늘어진 경우가 보이는데, 봉정

사상의 경우는 양쪽으로, 용문사상의 경우는 왼쪽만 그런 자락이 보이는데 반해 청룡사상은 그런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보살상의 뒷면에는 아무런 옷자락 표현이 없이 밋밋하고 다만 인체의 굴곡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하체, 특히 등과 둔부 부분이 파손된 후 목재로 수리되어 다소 거친 부분이 보이는데 원래는 천의자락이 표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관은 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후기 보살상의 보관이 투각형의 날렵한 금동제 보관에 옆으로 다소 넓게 퍼지는 형식인 것에 비해 청룡사상의 현재 보관은 나무로 된 원통형의 높은 관 형태를 하고 있다. 상의 높이와 비교하여 보관의 높이는 비례는 용문사상과 대체로 유사하다. 보관의 장엄은 바탕에 모란문, 그 위에 여의두문, 화염보주문, 국화문, 구름문 등이 달려있는데, 중앙에 위아래로 달린 여의두문이 강조되었다. 그 아래로 화염문양의 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화불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관 양옆으로는 매우 큰 띠 자락이 각각 두 가닥씩 서로 교차하며 U자형으로 휘날리고 있다. 용문사상과 유사하지만 용문사상은 두 가닥이 서로 붙어있고, 띠자락 안에도 필력이는 듯한 주름이 새겨진 것에 반해 청룡사상은 단순한 판 형태로 되어 있다.



<청룡사상 우측면>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복조보살좌상>
(조선초 15세기)

한편 측면에서 볼 때 청룡사상은 다소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모습이다. 이러한 자세는 강릉 보현사상이나 안동 봉정사상에 비하면 덜 숙인 자세이지만, 완전히 곧은 자세로 앉은 용문사상에 비하면 이들 보현사·봉정사상의 자세에 더 가까운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상은 고려시대 보살상으로서 같은 금동제인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부분적으로는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의 유사성도 보인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용문사상이 조선 전기 보살상의 사례인 상주 남장사 목조관음보살상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를 보여준다면, 청룡사상은 봉정사·보현사상과 같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 단아양식의 보살상이 용문사상 양식으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특히 앉아있는 자세의 구부정한 정도도 용문사상이나 조선시대 불상의 자세보다는 고려시대 단아양식 불상들의 자세에 더 가깝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장엄의 정도를 보면 생략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영락장엄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의 상태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또한 등과 둔부에 파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수리하면서 영락장식 등이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보살상은 청룡사에서 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복장에서 수리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최소한 1722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청룡사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722년 수리기록에 의하면 이 개정(改正)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1720년 청룡사 중수 불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1722년은 청룡사가 대대적으로 중창불사를 한 시점이므로, 비록 중수기에는 청룡사 언급이 없으나 이 1722년 청룡사 중창불사에 때를 맞춰 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랜 기간 청룡사에 봉안된 것으로 보아 그 역사성도 인정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문헌자료

복장에서 중수발원문이 발견됨에 따라 1722년에 수리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비록 중수발원문에는 청룡사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수리한 연도인 1722년 및 발원자들의 명단이 청룡사의 다른 중수불사 참여자들의 명단에서 확인되므로 최소한 1722년부터는 청룡사에 소장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 내용 및 특징

안성 청룡사는 고려 후기에 창건된 사찰이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다. <청룡사사적비>(1720)과 <瑞雲山靑龍寺法

堂重修及丹牖記>(1745), <重修功德記> 등 청룡사 사적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룡사는 元나라 至元年間(1264~1294)에 明本法師(1263~1323)가 창건하고 大藏이라 하였으며, 그 뒤 나옹화상(1320~1376)이 중창하여 청룡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Leeum 미술관(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권6~101)은 大將軍 金瑚와 靈巖君夫人 崔氏, 貞順翁主 李氏 등이 시주하여 1372년 청룡사에서 간행한 것이고, 『세종실록』에는 청룡사에 공양왕의 어진이 봉안되어 왕실 원당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고 있었다.¹⁾ 조선시대 들어와 世祖는 손수 교서를 써서 牌(사과교지)를 하사하고, 水原 後坪의 논 50結을 주었으며 漢陽城 안의 龍興寺, 眞寬寺 두 절의 器物을 모두 청룡사에 보냈으며 그 뒤 麟坪大君의 원당으로 삼아 고려시대 왕실 원당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러한 내용은 『광해군일기』²⁾와 <중수사적비>(1720년)를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볼 때 비록 조선 후기에 작성된 사적자료라 할지라도 근거가 빈약하지 않고 신빙할만하다. 이를 토대로 보면, 청룡사는 고려 후기 원나라 승려 明本이 창건하고, 뒤이어 나옹이 중창하였다. 당시 저명한 고승이 참여하였던 바 이 과정에서 왕실과 유력자들의 많은 후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는 관음보살상은 정확히 언제 누구의 발원과 후원으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보살상이 갖추고 있는 단아한 양식은 고려 후기의 시대적 특징을 담고 있어,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보살상은 10년 전 짚 개금 중수하는 과정에서 중수발원문이 확인되었고 불상의 수리와 함께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전문은 알 수 없지만 “……康熙六十一年 改正……”이라는 전체 발원문 중 극히 일부가 안성의 문화유산에 소개되어 있고, 유근자의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에는 “觀音鑄尊像改重修於康熙六十一年 壬寅二月日 奉安于靑龍寺”라는 기록이 있어 1722년에 관음상이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수발원문에서 중수라는 표현 대신 ‘改正’ 또는 ‘改重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단순한 개금불사와 달리 등과 영덩이 쪽에 파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을 통해 1722년 당시 관음보살의 유존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기록은 중수사적비의 影殿을 수리하고 그 이름을 大雄殿이라 하고, 관음전, 문수전을 차례대로 완공하였다고 하므로, 1720년대 이미 관음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외 관음보살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1874년에 작성된 『改金重修寫彩新造功德記』가 있다. 이 기록에는 李俊奎 은근히 발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관음 1존을 施主하였다고 하며, 같은 해(1874년) 3월 16일에는 神의 도움으로 미타삼존과 관음·지

1)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7월 17일 乙巳.

2) 『光海君日記』 권117, 9년(1617) 7월 15일 庚戌, “청룡사는 바로 조종조의 內願堂이니 그 앞산에는 장사지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듯하다(答前日喪人金自點疏曰, 靑龍寺乃祖宗朝內願堂, 則其前山, 似不可許人入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sillok.history.go.kr/>).

장 2존을 개금하고, 명부의 모든 곳, 신중의 삼단, 성왕 각각의 모사본 두 점씩을 3월 25일에 점안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에서는 이준규가 시주한 관음과 미타삼존과 또 다른 관음보살이 등장하는데, 이준규가 시주한 관음은 이 보다 152년(1722년)에 改重修(또는 개정)한 관음보살이 있기 때문에 같은 관음보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나온 관음보살상은 아미타삼존의 협시로서의 관음인지, 지금의 관음보살과 같은 관음인지는 여러 도상적 조합이 가능하므로 판단하기 어렵다.



<도 1. 청룡사 간행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 수능엄경 권6~10, 1372년, 국립중앙박물관>



<도 2. 안성 청룡사 사적비, 1720년>

1931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청룡사 사찰재산목록」에도 관음보살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곳에는 3척의 철제도금 관세음보살상이 등장하는데, 크기가 3척으로 지금의 관음보살상과 거의 같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사찰귀중품 목록 중에는 청룡사 관음보살처럼 금동으로 제작된 것을 철제도금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관보에 고시된 철제도금관음보살상은 현재의 금동관음보살상과 같은 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도 3. 안성 청룡사 관음전>



<도 4. 안동 청룡사 금동관음 보살좌상>



<도 5. 탈보관>

현재 사찰의 서쪽 편에 마련된 정면3칸 측면 1칸의 소규모 관음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다. 원형의 연화좌 위에 높은 보관을 쓰고 결가부좌 하였는데, 대좌와 보관은 최근에 새로 제작한 것이다. 재질은 금동이며 실납주조로 주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 등과 엉덩이 부분이 파손되어 최근 개금불사 때 나무를 덧대어 수리 보강하였고 한다.

불상은 가름한 얼굴에 고아한 상호를 가졌다. 우선 머리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뿔아 높고 멋스러운 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층층이 퇴를 쌓듯이 쌓아 만든 오능형 보계이다. 이러한 등글게 퇴를 쌓듯 올린 보계의 형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좌상과 금동보살좌상(덕수4238)의 보계에서 같은 표현방식을 볼 수 있다. 보관의 턱을 이루는 앞뒤머리는 머릿결을 섬세하게 조각하였고, 보관으로 가려지는 머리는 민머리로 처리하였다. 귀의 앞뒤에서 흘러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새끼 꼬듯이 꼬아 어깨 위에서 두 개의 고리를 만든 뒤 다시 5가닥으로 드리웠다.



<도 6.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30년>



<도 7. 금동관음보살입상, 1333년, 국립중앙박물관>



<도 8. 청양 운장암, 19세기 >



<도 9. 안성 청룡사>

가름하게 모델링한 얼굴은 작고 아래위가 긴 편이, 양미간에는 작은 백호를 도

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양 뺨에는 복스럽게 살집이 잡혀 있다. 이목구비는 귀공자 풍의 고아한 모습이다. 귀는 세장한 편이며 이륜은 굴곡을 살짝 주었고 짧고 깊게 파낸 삼각와와 불링핀 모양의 뚜렷한 耳孔을 가졌다. 이와 같은 이목구비가 작고 복스럽고 우아한 품위를 가진 상호의 표현은 1330년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1333년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1346년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보살좌상(국립중앙박물관. 덕수4238, 덕수2557) 등 고려 후기 불상들과 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고, 오능형의 보계도 12~13세기의 1165년 경의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1199년경의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상의 크게 우람하게 솟은 삼릉계의 보계와는 다른 1330년에 제작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33년 작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의 좌우 협시 보살상,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좌상, 양평 용문사 금동보살좌상 등 14세기 제작된 보살상의 보계와 가깝다.



<도 10.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199년 경>



<도 11. 금동보살좌상, 덕수4238>



<도 12. 금동보살좌상, 덕수2557>



<도 13.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51년>

불신에 표현된 조형미는, 우선 14세기 전반기 불상에 비해 어깨가 다소 좁고 왜소하며 허리는 길고 무릎도 높고 폭이 좁아져 1351년 작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가까워져 일련의 양식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천의는 불상이 입는 방식으로 二重으로 걸쳤으며, 불신에 표현된 옷 주름은 얇은 선묘로 유려하게 모델링하였다. 가슴에는 비스듬히 걸쳐 입은 승각기가 노출되어 있고, 그 아래로 裙衣를 묶은 띠 매듭이 표현되었다. 고려 후기 불상에서 흔히 보이는 승각기의 금구 장식과 왼쪽 어깨의 멋스럽게 주름잡은 〇형 주름은 보이지 않는다. 무릎 앞으로 너풀너풀 부채꼴 주름이 펼쳐져 있다. 왼쪽 허벅지에 올려 둔 오른발은 얇고 유려한 옷주름에 비해 입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되었다.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오른손과 복부까지 들어 올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살짝 비껴 잡았는데, 고려 후기 관음보살상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손의 위치이다. 손목에는 구슬무늬가 장식된 팔찌를 착용하였다. 가슴에는 세 개의 꽃무늬 아래로 영락이 드리운 목걸이를 착

용하였다. 목걸이는 양어깨 대의 안쪽에서 빠져나온 연봉형 걸이에 건 형식이다.

머리의 모양, 가름한 얼굴에 복스럽게 표현된 얼굴표정, 크고 작은 세 개의 꽃과 영락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삼각와와 열쇠구멍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새겨진 이공의 표현, 균의를 묶은 띠 매듭의 표현, 무릎 앞으로 너풀거리며 활달하게 펼쳐진 옷주름, 열게 드러나 있는 가슴 근육 등 원·명대 라마불상 양식이 반영된 불상과는 다른 고려 후기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불상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양식과 세부표현은 서산 부석사, 1333년 작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좌상,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51년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등과 시대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도 14.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의 무릎주름>



<도 15 안성 청룡사 관음의 무릎 주름>

○ 문헌자료

<중수기>

觀音鑄尊像改重修於康熙六十一年壬寅二月日奉安」于靑龍寺」

引勸兼黃金大施主 比丘性岑」

黃金大施主 崔武業兩主」

供養大施主 居士性瀾兩主」

布施大施主 金丞鶴兩主」

白時先兩主」

居士 道函兩主」

黃金大施主 姜氏次云兩主」

金士天兩主」

趙星太兩主」

引勸兼黃金大施主 比丘敬嚴保体」

緣化秩」

證明 太根比丘」

燃燈 覺隣比丘」

畫員 致源比丘」

眞口比丘」

供養主 覺禪比丘」

雲惠比丘」

功德主 義昊比丘」

山中老德 印埋比丘」

思侃比丘」

印圭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청룡사 사찰재산목록(조선총독부 관보, 1931년 10월 08일, 제1,428호)>

| 명칭 | 수량 | 품질 | 형상 | 크기 |
|--------------|----------|-------------|-----------|-----------------|
| 석가여래 | 1 | 목제도금 | 좌상 | 높이 4척 |
| 좌우보처 | 2 | 토제도금 | 입상 | 높이 3척5촌 |
| 동자 | 2 | " | " | 높이 2척1촌 |
| 패불탱 | 1 | 포지제 | 패도 | 세로 4척2촌 가로 2척4촌 |
| 후불탱 | 1 | " | " | 세로 10척 가로 10척 |
| 지장탱 | 1 | " | " | 세로 5척7촌 가로 6척 |
| 신중탱 | 1 | " | " | 세로 8척9촌 가로 5척5촌 |
| 현왕탱 | 1 | " | " | 세로 5척4촌 가로 4척9촌 |
| 산신탱 | 1 | " | " | 세로 2척9촌 가로 2척1촌 |
| 칠성탱 | 1 | " | " | 세로 4척5촌 가로 7척 |
| 팔상탱 | 1 | " | " | 세로 5척 가로 7척 |
| 지장보살 | 1 | 목제도금 | 좌상 | 높이 2척9촌 |
| 지장탱 | 1 | 포지제 | 패도 | 세로 3척9촌 가로 2척7촌 |
| 좌우보처 | 2 | 목제도분 | 입상 | 높이 4척2촌 |
| 명부대왕 | 10 | " | 좌상 | 높이 4척2촌 |
| 관관 | 1 | " | 입상 | 높이 4척 |
| 장군 | 2 | " | " | 높이 4척6촌 |
| 사자 | 2 | " | " | 높이 4척6촌 |
| 수문장 | 2 | 목제도분 | 입상 | 높이 4척4촌 |
| 동자 | 7 | 토제도분 | " | 높이 2척 |
| 관세음보살 | 1 | 철제도금 | 좌상 | 높이 3척 |
| 후불탱 | 1 | 포지제 | 패도 | 세로 5척1촌 가로 4척9촌 |
| 신중탱 | 1 | " | " | 세로 6척 가로 7척 |
| 현왕탱 | 1 | " | " | 세로 3척7촌 가로 3척 |
| 사적비 | 1 | 석제 | 입형 | 높이 9척 |
| 불탑 | 1 | " | " | 높이 8척7촌 |
| 범종 | 1 | 철제 | 원형 | 높이 3척6촌 |
| 병풍 | 1 | 포지제 | 첩형 | 세로 4척5촌 가로 7촌 |

○ 지정사례

<표1> 고려 시대~조선 전기 보살상 지정현황

| 금동 | 작품명 | 시대 | 크기 | 비고 |
|----|---------------------|-----------|---------|-----|
| |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고려 1165년경 | 113.6cm | |
| |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고려 1199년경 | 106.0cm | |
| ▶ |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 고려 13세기 | 51.0cm | 윤왕좌 |
| ▶ |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 고려 14세기 | 97.5cm | |
| ▶ |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좌상 | 고려 14세기 | 95.5cm | |
| ▶ |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고려 14세기 | 72.5cm | |
| | 건칠보살좌상(국립중앙박물관) | 고려 14세기 | 124.5cm | |
| ▶ | 금동대세지보살좌상(호림) | 여말선초 | 16.0cm | |
| ▶ |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 여말선초 | 18.6cm | |
| |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 1395년 | 79.0cm | |
| ▶ |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여말선초 | 49.3cm | 윤왕좌 |
| ▶ |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 여말선초 | 71.5cm | |
| |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 여말선초 | 73cm | |
| ▶ |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 조선 초 | 83.0cm | |
| |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 조선 초 | 101.0cm | |
| ▶ |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조선 초 | 135.0cm | |
| |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 조선 초 | 143.0cm | |
| ▶ | 영천 은혜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 조선 초 | 102.0cm | |
|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 1466년 | 98.0cm | |
| |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 1501년 | 91.0cm | 반가좌 |
| ▶ |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 조선 초 | 81.0cm | 윤왕좌 |
| | 석조 지장보살좌상(국립중앙박물관) | 1515년 | 33.6cm | |

○ 참고문헌

- 안성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문명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론」,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 불광출판사, 2017.
- 안성시·안성문화원, 『안성문화유적총람』, 2012.
-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2017.



○ 현 상

경기도 안성 청룡사 관음전에는 2000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보살좌상>(이하 <금동보살좌상>) 1구가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다(도1).³⁾ 사중에 전하는 기록과 금석문을 통해 18세기 이래 관음전의 주존불로 기능해왔음이 확인된다(※기타 항목 참조). <금동보살좌상>은 2010년대 초반에 보안을 위해 대웅전에 소조 석가여래삼존좌상과 함께 봉안되기도 하였으나,⁴⁾ 2017년 이후 다시 관음전으로 이안되어 단독으로 모셔져 있다.

<금동보살좌상>의 등과 엉덩이 양옆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면과 달리 표면의 마감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후대에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도2). 근래에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γ-ray 촬영과 XRF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보살상의 배면 중 허벅지 중간부터 목 아랫부분까지는 상당히 손상되어 후대 어느 시점에 목재를 덧대어 수리된 것으로 판명되었다.⁵⁾ <금동보살좌상> 동체의 바닥에 복장구가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⁶⁾

보관과 대좌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현재의 보관에는 화불이나 정병 등 존상의 존명을 추정할 수 있는 표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보살의 양손에도 별도의 지물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후술할 사중에 전하는 기록을 통해 18세기 이래 관음전에 주존으로서 봉안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관음보살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보살상이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는 점은 이 상이 삼존상의 일부로 조성되었느냐 아니면 단독상으로 조성되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통상적인 아미타여래삼존불의 경우 관음보살상이 좌측에서 아미타여래상을 협시하는데, 이 경우 좌우대칭을 맞추기 위해 관음보살상은 왼팔을 들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이다.⁷⁾ 이와 같은 자세는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이 협시보살상이 아니라 조성 시점부터 단독상으로서 조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⁸⁾

현재 카슈공법으로 개금되어 있으며, 양 무릎과 양쪽 팔꿈치 부분 등은 금이 많이 벗겨진 상태이다. 왼손바닥 중앙에는 도금 조각이 일어나 있다.

3) 이 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문명대, 「高麗·朝鮮朝 佛像彫刻 新例考」, 『講座美術史』 15(2000.12), p.254; 문명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론」, 『삼매와 평담미』 한국의 불상 조각 4(예경, 2003), p.271;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조선의 원당 2(국립중앙박물관, 2017), pp.43~45.

4)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광역시·경기도-』 3권 자료집(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227;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43.

5) 최정은·최학, 「비파괴 분석법을 통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내부구조 및 금박층 조사」, 『보존과학회지』 37.2(2021), pp.670~678.

6) 복장구의 사진은 최정은·최학, 「비파괴 분석법을 통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내부구조 및 금박층 조사」, p.672 참조.

7)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사회평론, 2012), pp.45~46.

8)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43.



도1.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봉안 상태(2022년 10월 촬영)



도2.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우측면



도3.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왼손 바닥

○ 내용 및 특징

보살의 신체는 어깨가 둥글고 무릎의 폭은 다소 좁으나 높은 편이다. 가슴과 배 사이의 횡격막 아래위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양감이 잘 나타나 있다. 고개는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도4).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는 1199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도5)을 비롯해 서울 개운사에 봉안된 축봉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6) 등 고려 중후기 불교조각에서 볼 수 있다.



도4.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도5.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도6.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법의는 군의, 승기지(僧祇支), 부견의(覆肩衣), 대의를 갖추어 입었다. 이는 여말선초기의 보살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착의법 형식이다. 왼쪽 어깨의 옷주름은 두 줄의 사선으로 간단하게 표현된 데 반해, 오른쪽 어깨를 감싼 부견의 자락은 가슴을 타고 내려와 복부 앞에서 두 자락으로 대의 속으로 삽입되었다. 넓게 열린 양 가슴 아래로 승기지가 보이고, 가슴 밑에서 여러 번 끈 띠로 매듭을 지어 고정하였다(도7). 경사도가 줄어 일자에 가까워진 승기지 상단과 승기지를 묶은 끈과 매듭은 1330년명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도8)이나 14세기 조성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덕수4238)에서도 보인다(도9).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에서는 이 두 상과는 달리 왼쪽 가슴에 승기지를 고정하는 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도7.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도8.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도9. 개운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덕수4238)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의 승기지 표현은 15세기에 조성된 일련의 관음보살좌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5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도10)과 은해사 운부암 <관음보살좌상>(도11), 그리고 1516년에 개금된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도12)에도 이와 같은 승기지의

착용법이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에서는 상기지의 상단이 아직 자연스러운 호선을 그리는 데 반해, 후자의 세 상에서는 신체의 굴곡과는 관계없이 일자로 잡아 펴놓은 것처럼 표현되었다. 청룡사 상의 경우 넓게 열린 가슴에는 세 줄의 영락이 늘어진 목걸이를 걸쳤으나, 여말선초기의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신을 감싸는 화려한 영락장식은 적용되어 있지 않다.



도10.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도11.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도12.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의 양 무릎 위에 걸쳐진 곡선형의 옷주름은 좌우대칭을 이루며, 발목 사이로 부채꼴 모양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율동감있게 처리되었다(도13). 보살은 결가부좌하고 있는데, 노출된 오른쪽 발바닥은 바깥쪽을 향해 있으나 왼발은 대의 자락 아래 윤곽만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균의와 발의 처리는 15세기 조성으로 추정되는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그것과 유사하다(도14). 그러나 대승사나 운부암 상이 다리 두께가 얇아서 양감이 빈약한 데 반해, 청룡사 상은 하체에서 풍부한 양감이 느껴져서 조형상 큰 차이가 있다.



도 13.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무릎 세부



도14.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무릎 세부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은 오른손은 가슴 부근까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복부 근처까지 내렸으며, 두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손의 위치와 설법인 모양은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낙산사 <건칠관

음보살좌상>,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등 여말선초기에 만들어진 일련의 중형 보살상과 상통한다.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의 양 손바닥에는 각각 두 줄의 음각선으로 손금을 표현하였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는 손금의 표현과 유사하게 두 줄의 음각선으로 손가락 마디를 표현하였다. 대의 아래 드러난 양 손목에는 구슬 장식이 있는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의 상호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도14). 볼은 상당히 처져 있으며, 턱 부분에 양감이 풍부하게 표출되어 후덕한 인상을 준다(도15). 이마는 상당히 넓지만 높이는 비교적 낮으며, 중앙에 큼직한 백호가 돌출되게 표현되어 있다. 활처럼 휘 두 눈썹은 아래로 처진 반면, 두 눈꼬리는 끝이 올라가 있다. 코는 눈썹을 이루는 호를 따라서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콧방울은 다소 좁다(도17). 입술도 콧방울과 마찬가지로 작은 편으로,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의 표현은 고려 후기 보살상에서 볼 수 있다.



도15~17.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상호

귀는 크고 길며 귓볼에는 밴드 형태에 중앙에 커다란 화형 장식이 있는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도18). 비록 개금층이 두터워서 자세한 세부를 관찰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표현을 여말선초기에 조성된 몇몇 보살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도19)과 15세기에 조성된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도20)에서 유사한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된다.



도18.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도19.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도20.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의 목에는 동일한 간격으로 주름이 두 줄 표현되어 다소 특이하다(도21). 이와 같은 이도(二道)의 표현은 14세기 작례로 추정되는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도22)과 당진 신암사(申菴寺) <금동아미타여래좌상>(도2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21.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도22.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도23. 신암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현재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은 머리에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보관을 쓰고 있는데, 후대의 어느 시점에 새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마에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은 직선으로 처리되었다. 보관 아래 노출되는 머리카락은 세로선을 그어 표현하였으나, 보관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별도로 조각하지 않았다. 보발(寶髮)은 높이 말아 올려 보계(寶髻)를 틀었는데, 그 끝부분은 다섯 가닥으로 부채꼴을 이룬다(도24). 보계는 봉정사나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높지는 않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관음보살좌상>(덕수4238)과 높이와 비례감, 다섯 가닥으로 이뤄진 부채꼴 모양 등의 세부가 유사하다. 머리카락 일부는 귀 앞을 가로질러 뒤로 넘겨 빗었고, 귀 뒤의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꼬아서 어깨에 늘어뜨린 형상이다(도25). 어깨 위로 늘어진 수발(垂髮)은 한 가닥은 어깨 앞으로 흘러내렸고, 두 가닥은 어깨 위에서 중첩된 두 개의 실타래 모양을 이루다 다섯 가닥으로 나뉘어 흘러내리고 있다(도26).



도24~26. 청룡사 <금동보살좌상>보계, 보발, 수발 세부

이와 같은 머리 모양은 안동 봉정사나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비롯한 고려 후기 보살상의 수발 표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흡사하다. 수발은 1501년 조성된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1565년 조성의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6세기 작례로 추정되는 금산 신안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에 조성된 보살상에서는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표현되었다.⁹⁾ 이 점은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의 제작 하한이 15세기라는 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조선의 원당 2, 국립중앙박물관, 2017.
- 문명대, 「高麗·朝鮮朝 佛像彫刻 新例考」, 『講座美術史』 15, 2000.12.
- 문명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론」, 『삼매와 평담미』 한국의 불상 조각 4, 예경, 2003.
-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광역시·경기도-』 3권 자료집,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 16, 2013.
-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 불광출판사, 2017.
- 朝鮮總督府 편, 『朝鮮金石總覽』, 亞細亞文化社, 1976[1923].
- 최정은·최학, 「비파괴 분석법을 통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내부구조 및 금박층 조사」, 『보존과학회지』 37.2, 2021.

○ 기 타

현재 본 상이 봉안된 청룡사 관음전에 대해서는 청룡사 경외에 유존하는 <朝鮮國京畿道安城瑞雲山靑龍寺重修事蹟碑銘>(이하 <청룡사 중수사적비>로 약칭, 1720년 건립)에 창건 연대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에 의하면 청룡사는 고려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전기에는 세조를 비롯한 여러 왕실 인사의 후원을 받았던 사찰이었다. 그러나 15세기에 세조가 청룡사에 산과 전토, 불기를 하사한 후 2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전란을 거치면서 사찰과 불상의 훼손이 극심해졌다. 이에 1720년에 思侃道人이 사찰을 중창하기로 발원하여, 대웅전을 먼저 중창하고, 관음전과 문수전을 차례로 완공했다고 한다.¹⁰⁾ 또한 <청룡사 중수사적비>에 나오는 “...금신[불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불단[향단]과 불경[패엽]도 없어져서...(灰燼金身 顛倒香檀貝葉)”이라는 표현을 통해 18세기 초엽 당시에는 사중의 불상이 많은

9)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 16(2013), p.102.

10) <청룡사 사적중수비>, “...佛器歷二百年中間灰燼金身顛倒香檀貝葉勢固難保奇哉侃師慨續眞宗先葺影殿厥號大雄觀音文殊次第告成十方四衆攝衣講經...” 비문과 석문은 朝鮮總督府 편, 『朝鮮金石總覽』(亞細亞文化社, 1976), pp.1091~1093;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광역시·경기도-』 3권 자료집(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229;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p.178~185 참조.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¹¹⁾

한편, <금동보살좌상>의 구성에 관해서는 사중에 전하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조성 시기와 주체를 알 수 없다. 또한, 이 상이 청룡사에서 조성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찰에서 이운해 온 것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관음상으로서 만들어지고 신앙된 것인지 역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금동보살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되었다는 1722년명(康熙 61, 경종 2) 중수발원문이 학계에 보고된 바 있어서 참고된다. 이 중수발원문은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¹²⁾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중수발원문에는 “주조하여 만든 관음존상을 다시 중수하여 강희61년 임인년 2월에 청룡사에 봉안하였다(觀音鑄尊像改重修於康熙六十一年壬寅二月日奉安于靑龍寺).”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¹³⁾ 즉, 관음전을 창건하고 2년 후인 1722년에는 이 상을 중수하여 관음상으로서 청룡사에 봉안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보살상 중수발원문의 연화질에는 1720년 청룡사의 중창과 관음전의 창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간도인이 山中老德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¹⁴⁾

이 외에도 청룡사에 봉안된 불화의 화기나 여타의 문헌 자료를 통해 이 금동보살좌상이 적어도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청룡사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1874년 제작된 청룡사 <지장시왕도>와 <아미타회상도>의 화기에는 이 보살상이 1874년에 다시금 개금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⁵⁾ 18이 해의 개금 불사에 대해서는 1874년에 기록된 현판 <개금중수사채신조공덕기(改金重修寫彩新造功德記)>에도 언급되어 있다. 같은 기록에 갑술년(1874년) 봄에 시주자 이준규가 발심하여 관음 1존상을 시주하고 상향각(上香閣)을 단청했다는 언급이 있다. 이어서 같은 해 3월 16일에 미타 삼존과 관음 지장 2존을 개금했다고 서술된 것으로 보아, 이준규가 시주했다는 관음상은 18세기 이래 청룡사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보살좌상>과는 다른 별도의 상으로 판단된다.¹⁶⁾ 이번 조사에서 이준규가 시주했다는 관음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11) 비문 원문과 해석은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p.180~181 참조.

12)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 당시 행해졌던 청룡사 주지 정완스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개금 당시 보살상 내벽에 중수기가 쓰인 한지가 붙어 있어서 이를 확인하고 다시 상 안에 봉안했다고 한다. 당시 복장물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고 전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45의 각주 26 참조.

13) 중수발원문의 원문은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불광출판사, 2017), p.538.

14) 사간은 <청룡사 중수사적비>의 老德秩에도 山中大德 兼 大化土로 기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p.183~183.

15) “崇禎紀元後五甲戌三月十六日神供改 金彌陀三聖觀音地藏各二尊彩寫左 右補處二位十大王繪成靈山會山神影各 一軸 願佛小本冥間都部神衆三壇聖 王別模各二幃點眼于是月二十五日奉安 于安城南嶺瑞雲山靑龍寺冥府殿...” “改金彌陀三聖觀音地藏各二尊”;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190~191. <아미타회상도>의 화기도 이와 동일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p.192~193.

16) <개금중수사채신조공덕기>, “...癸亥 殿築後 粵十有一載改建上香閣 粵再明年甲戌春 又謀各殿諸像金彩重補之舉行 化檀門李公俊圭 慇懃發心 信施觀音一尊像 金上香閣 期殿像前後功 都是李公之惠也 師之引化 公之舍施 可謂魚水造林之相得也 是年三月十六日神供改金彌陀三聖 觀音地藏二尊 彩寫十位王 繪成靈山會山神影各一軸...”; 국립중앙박물관, 『안성 청룡사』, pp.216~217 참조.

3. 수능엄경의해 권9~15 (首楞嚴經義海 卷9~15)

가.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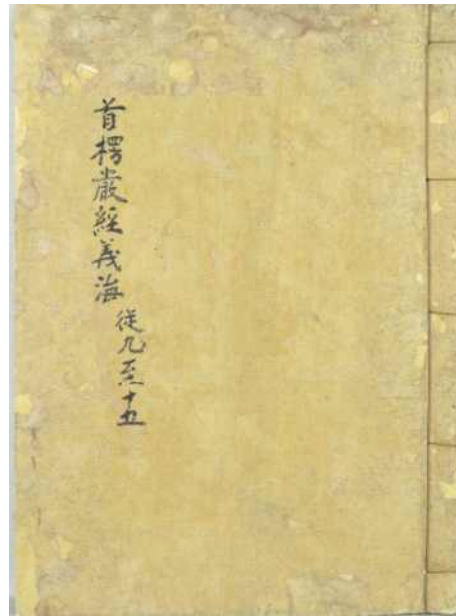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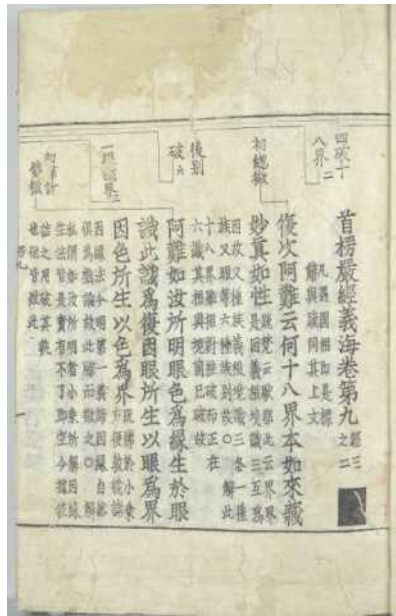
‘수능엄경의해 권9~15’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수능엄경의해 권9~15’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10.15.)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3.13.~'23.4.1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 소유자(관리자)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수 량 : 7권 1책
- 규 격 : 35.0×25.1cm(匡高 : 23.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62년(세조 8)



<수능엄경의해 권9~15>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指定 價値>

『首楞嚴經義海』 권9~15는 各 卷末의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의 刊記를 통하여 朝鮮朝 世祖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경판을 造成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조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首楞嚴經義海』의 경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首楞嚴經義海』 도합 30권 중의 印經本도 高山寺 木造釋迦牟尼佛坐像(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의 복장 유물 속에 권1~3의 1책과 圓覺寺 聖寶博物館 소장의 권23의 1책 등 4권 2책에 지나지 않고 있다.

『首楞嚴經義海』는 세조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전 30권 판본의 일부인 卷9~15의 7권 1책(132장)이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卷數이다.

따라서 『首楞嚴經義海』 卷9~15의 7권 1책(132장)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찰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지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화재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며, 아울러 동일한 판본의 『首楞嚴經義海』 卷1~3 1책(高山寺 所藏本)과 『首楞嚴經義海』 권22~23 1책(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및 『首楞嚴經義海』 卷23 1책(圓覺寺 所藏本) 및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首楞嚴經義海』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의 刊記를 통하여 世祖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鏡판을 造成하여 간행된 ‘刊經都監版’이라는 점에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조선 세조 8년(1462)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전 30권 중의 7권에 해당된다. 서지적인 특징을 볼 때 송본을 번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본이 고려본인지 원간본인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조선의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수능엄경의해』의 국내 소장현황은 대전 고산사의 3권 1책(권1~3), 국립중앙도서관의 2권 1책(권22~23), 고양 원각사의 1권 1책(권23, 결락장 다수) 등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결락 장이 없는 7권 1책(권9~15)이므로 타 기관 소장본에 비해 많은 권수라는 점에서 우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보존상태도 부분적인 줌의 흔적은 있으나 본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좋은 편이다. 또한 『수능엄경의해 권9~15』을 통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수능엄경의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조선 전기의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각 권의 권말에 기록된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의 간기를 통하여 세조 8(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鏡판을 造成하여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세조 8(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鏡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목판에서 인출한 인경본(印經本)도 일부만이 전하고 있다.

『수능엄경의해』 30권본 가운데 일부인 권9~15의 7권 1책에 해당하나, 희귀한 자료로서 역사성과 함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首楞嚴經義海』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首楞嚴經義海. 卷9~15 / 般刺密諦(?~?, 唐朝) 譯 ; 子璿(965~1038, 北宋) 集義疏注經并科 ; 曉月(?~?, 北宋) 標指要義 ; 仁岳(992~1064, 北宋) 集解 ; 咸輝(?~?, 南宋) 排經入註. -- 木版本. -- [漢城] : [刊經都監], [世祖 8(1462) 造成 刊行].

7卷1冊(132張): 上下單邊, 半郭 22.8~23.2×17.0cm 內外, 無界, 半葉 12行13字 註雙行, 無魚尾 ; 35.0×25.1cm. 韓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 題: 首楞嚴經義海. (墨書)

卷首題: 首楞嚴經義海.

版心題: 楞

卷尾題: 首楞嚴經義海.

函 次: ‘翦’·‘頗’. (墨 등으로 처리된 내용은 권9는 ‘翦九’, 권10은 ‘翦十’, 권11은 ‘頗一’, 권12는 ‘頗二’, 권13은 ‘頗三’, 권14는 ‘頗四’, 권15는 ‘頗五’이다.)

內 容: -卷9; 首楞嚴經義海卷九(經三之二), 音釋[17장].

-卷10; 首楞嚴經義海卷十(經三之三), 音釋[18장].

-卷11; 首楞嚴經義海卷十一(經四之一), 音釋[20장].

-卷12; 首楞嚴經義海卷十二(經四之二)[21장].

-卷13; 首楞嚴經義海卷十三(經四之三)[15장].

-卷14; 首楞嚴經義海卷十四(經四之四), 音釋[15장].

-卷15; 首楞嚴經義海卷十五(經五之上), 音釋[26장].

刊 記: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 (各 卷尾)

印 文: □□□□(法然」宗印 ?), □□ (?).

現 狀: 表紙는 改裝되어 있고 본문의 내지는 蟲蝕의 흔적으로 배접하여 수리한 상태이며, 전체적인 印出의 상태와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前後의 표지와 면지 및 綴絲는 후대의 改裝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所藏歷: 圖書出版 ‘民族文化’의 金容和 사장이 소장하다가 法然宗에 기증한 것이라 함(전적 기증서 참간).

他藏處: 고산사목조석가모니불좌상(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복장 유물(권1~3 1책) 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권22~23 1책 및 원각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권23 1책 등이 전해지고 있다.

既指定: 동일한 版本이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된 사례는 없다.

<現狀>

『首楞嚴經義海』 卷9~15의 표지는 改裝되어 있고 본문의 내지는 蟲蝕의 흔적으로 배접하여 수리한 상태이며, 전체적인 印出의 상태와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前後의 표지와 면지 및 綴絲는 후대의 改裝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首楞嚴經義海』는 8세기 초에 唐朝의 중인도 승려(般刺密諦: 極量)가 중국으로 전래하여 漢譯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일명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 10권을 12세기 중엽에 南宋朝의 불교지식인 咸輝(?~?)가 주석한 30권의 註解書로, 북송조 華嚴宗의 大德·高僧이자 淨源(1011~1088)의 스승인 長水 子璿(965~1038, 북송)이 주석한 『楞嚴經義疏注經并科』와 泐潭 曉月(?~?, 북송)의 『楞嚴經標旨要義』 및 淨覺 仁岳(992~1064, 북송)의 『楞嚴集解』 등의 주석을 引附·編輯하여 저술한 것이다.

咸輝(?~?)의 『首楞嚴經義海』 30권은 明版의 『永樂北藏』에는 ‘翦’·‘頗’·‘牧’의 函에 각 10권씩 수록되어 있다. 『永樂北藏』은 明朝 永樂 19(1421)년에 北京에서 雕造를 시작하여 正統 5(1440)년에 완성된 正藏으로 千字文의 ‘天’에서 ‘石’에 이르기까지 636函 1,621部 6,361卷(序文 1卷 포함)으로 編次된 大藏經이다.

그중에서 『首楞嚴經』 10권과 『首楞嚴經義海』 30권과 관련된 編次는 다음 <表 1>과 같다.

<表 1> 『首楞嚴經』과 『首楞嚴經義海』의 編次

| 『楞嚴經』 | | 『首楞嚴經義海』 | | | | 備考 |
|-------|-------------|----------|----|------|-------------|----|
| 卷次 | 經文 | 卷次 | 函次 | 分經 | 經文 | |
| 卷01 | 大佛頂如 … 自取流轉 | 卷01 | 翦一 | 經一之一 | 大佛頂如 … 首楞嚴經 | |
| | | 卷02 | 翦二 | 經一之二 | 如是我聞 … 願捨生死 | |
| | | 卷03 | 翦三 | 經一之三 | 佛告阿難 … 枉入諸趣 | |
| | | 卷04 | 翦四 | 經一之四 | 阿難汝今 … 自取流轉 | |
| 卷02 | 爾時阿難 … 非自然性 | 卷05 | 翦五 | 經二之一 | 爾時阿難 … 取我求實 | |
| | | 卷06 | 翦六 | 經二之二 | 阿難白佛 … 獲菩提果 | |

| 『楞嚴經』 | | 『首楞嚴經義海』 | | | | 備考 |
|-------|-------------|----------|----|------|-------------|----|
| 卷次 | 經文 | 卷次 | 函次 | 分經 | 經文 | |
| | | 卷07 | 翦七 | 經二之三 | 阿難一切 … 非自然性 | |
| 卷03 | 復次阿難 … 心無動轉 | 卷08 | 翦八 | 經三之一 | 復次阿難 … 非自然性 | |
| | | 卷09 | 翦九 | 經三之二 | 復次阿難 … 都無實義 | |
| | | 卷10 | 翦十 | 經三之三 | 阿難水性 … 心無動轉 | |
| 卷04 | 爾時富樓 … 無上知覺 | 卷11 | 頗一 | 經四之一 | 爾時富樓 … 終而復始 | |
| | | 卷12 | 頗二 | 經四之二 | 富樓那言 … 尚留觀聽 | |
| | | 卷13 | 頗三 | 經四之三 | 阿難及諸 … 一時清淨 | |
| | | 卷14 | 頗四 | 經四之四 | 阿難白佛 … 無上知覺 | |
| 卷05 | 阿難白佛 … 斯爲第一 | 卷15 | 頗五 | 經五之上 | 阿難白佛 … 法因爲上 | |
| | | 卷16 | 頗六 | 經五之下 | 阿那律陀 … 斯爲第一 | |
| 卷06 | 爾時觀世 … 卽波旬說 | 卷17 | 頗七 | 經六之一 | 爾時觀世 … 遍十方界 | |
| | | 卷18 | 頗八 | 經六之二 | 爾時世尊 … 三菩提心 | |
| | | 卷19 | 頗九 | 經六之三 | 阿難整衣 … 卽波旬說 | |
| 卷07 | 阿難汝問 … 十二種類 | 卷20 | 頗十 | 經七之上 | 阿難汝問 … 無有是處 | |
| | | 卷21 | 牧一 | 經七之下 | 阿難若諸 … 十二種類 | |
| 卷08 | 阿難如是 … 名爲欲界 | 卷22 | 牧二 | 經八之一 | 阿難如是 … 無量迴向 | |
| | | 卷23 | 牧三 | 經八之二 | 阿難是善 … 兼有元地 | |
| | | 卷24 | 牧四 | 經八之三 | 阿難此等 … 名爲欲界 | |
| 卷09 | 阿難世間 … 成無上道 | 卷25 | 牧五 | 經九之一 | 阿難世間 … 卽魔王說 | |
| | | 卷26 | 牧六 | 經九之二 | 卽時如來 … 成無上道 | |
| | | 卷27 | 牧七 | 經九之三 | 阿難彼善 … 成無上道 | |
| 卷10 | 阿難彼善 … 首楞嚴經 | 卷28 | 牧八 | 經十之一 | 阿難彼善 … 清淨標指 | |
| | | 卷29 | 牧九 | 經十之二 | 阿難彼善 … 最後垂範 | |
| | | 卷30 | 牧十 | 經十之三 | 阿難卽從 … 首楞嚴經 | |

咸輝(?~?)의 『首楞嚴經義海』는 고려의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著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시기는 正統 5(1440)년에 『永樂北藏』이 완성된 뒤의 조선조 초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咸輝(?~?)의 『首楞嚴經義海』는 조선조 세조 8(1462)년에 『永樂北藏』의 판본을 저본으로 刊經都監¹⁷⁾에서 목판으로 雕造된 바 있다.

『首楞嚴經義海』는 세조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판본의 일부인 卷9~15의 7권 1책(132장)의 목판본이다.

『首楞嚴經義海』 권9~15의 表題와 卷首題 및 卷尾題는 ‘首楞嚴經義海’이고 版心題는 ‘楞’이다.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每板의 板郭은 세로 23.4cm 가로 34.0cm 내외이고 界線은 없으며, 板葉의 本文의 行字數는 24行 13字 내외이고 註는 雙行이다. 版心部에 版口와 魚尾는 없으며, 規格은 세로 35.0cm 가로 25.1cm이다. 印經紙의 地質은 韓紙이며 裝정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首楞嚴經義海』 권9~15의 卷頭題 아래에 나타나는 墨等은 『永樂北藏』내의 『首楞嚴經義海』의 函次인 ‘剪’·‘頗’이며, 墨等으로 처리된 내용은 권9는 ‘剪九’, 권10은 ‘剪十’, 권11은 ‘頗一’, 권12는 ‘頗二’, 권13은 ‘頗三’, 권14는 ‘頗四’, 권15는 ‘頗五’이다.

『首楞嚴經義海』 권9~15에 수록된 내용은 卷9에는 首楞嚴經義海卷九(經三之二)과 音釋이 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卷10에는 首楞嚴經義海卷十(經三之三)과 音釋이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卷11에는 首楞嚴經義海卷十一(經四之一)과 音釋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卷12에는 首楞嚴經義海卷十二(經四之二)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13에는 首楞嚴經義海卷十三(經四之三)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卷14에는 首楞嚴經義海卷十四(經四之四)과 音釋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卷15에는 首楞嚴經義海卷十五(經五之上)과 音釋이 2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首楞嚴經義海』 권9~15에는 『楞嚴經』 전체 10권 중에서 권3~5에 나타나는 『能仁經』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깨달음의 종자를 지니고 있다는 ‘여래장’에 관한 내용의 경문과 무명으로 진여성이 가려지면 유정 세계를 만들게 되고 중생들이 미혹하면 업을 짓게 된다는 경문의 내용을 주석한 것이다.

『首楞嚴經義海』 권9~15에 수록된 「音釋」으로는 권9에는 ‘析’·‘爨’·‘鎔’·‘紆’·‘泮’ 등, 권10에는 ‘陟’·‘沼’·‘突’·‘褰’·‘爍’·‘繁’ 등, 권11에는 ‘逾’·‘聆’·‘蚊蚋’·‘練若’·‘擾’·‘渾’·‘蒸’·‘濕’·‘渾’·‘藪’·‘絞’·‘遞’·‘踰’·‘羯’·‘遏’·‘庖炮’ 등, 권14에는 ‘劑’·‘黏’·‘萄’·‘堙’ 등, 권15에는 ‘瘡’·‘翹’·‘糲’·‘縮’·‘緝績’·‘掣’·‘棘’·‘鵠’·‘繁’·‘酢’ 등의 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首楞嚴經義海』 권9~15에 수록된 주해의 형식은 子璿(965~1038)의 『楞嚴經義疏注經并科』의 科文을 頭註의 형태로 하고 科文에 따라서 『楞嚴經』의 經文을 分科

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7(1461)年 6月 16(乙酉)日條.

처음으로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도제조·제조·사·부사·판관을 두었다(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하여, 그 해당 내용에 따라 曉月(?~?)의 『楞嚴經標旨要義』와 仁岳(992~1064)의 『楞嚴集解』를 배열하고 있다.

『首楞嚴經義海』 권9~15의 각 卷尾에는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의 刊記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世祖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經板을 造成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世조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首楞嚴經義海』의 經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印經本도 高山寺木造釋迦牟尼佛坐像(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의 복장 유물 속에 권1~3의 1책과 圓覺寺 聖寶博物館 소장의 권23의 1책 등 4권 2책에 지나지 않고 있다.

○ 조사자 의견

『首楞嚴經義海』 권9~15는 朝鮮朝 世祖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經板을 造成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는 각 卷末의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의 刊記가 수록되어 있어 알 수 있다.

世조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조성된 『首楞嚴經義海』의 經板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首楞嚴經義海』 포함 30권 중의 印經本도 高山寺木造釋迦牟尼佛坐像(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의 복장 유물 속에 권1~3의 1책과 圓覺寺 聖寶博物館 소장의 권23의 1책 등 4권 2책에 지나지 않고 있다.

『首楞嚴經義海』는 世조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전 30권 판본의 일부인 卷9~15의 7권 1책(132장)이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卷數이며, 佛敎學 및 書誌學의 연구에는 물론 조선조 초기의 印刷出版文化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따라서 『首楞嚴經義海』 卷9~15의 7권 1책(132장)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찰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지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며, 아울러 동일한 판본의 『首楞嚴經義海』 卷1~3 1책(高山寺 所藏本)과 『首楞嚴經義海』 권22~23 1책(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및 『首楞嚴經義海』 卷23 1책(圓覺寺 所藏本) 및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 『首楞嚴經義海』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般刺密諦 譯, 咸輝 註, 『首楞嚴經義海』.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世祖

- 8(1462) 造成 刊行]. 卷9~15. 許油 所藏本.
- 一般刺密諦 譯, 咸輝 註, 『首楞嚴經義海』.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世祖 8(1462) 造成 刊行]. 卷1~3. 高山寺 所藏本.
 - 一般刺密諦 譯, 咸輝 註, 『首楞嚴經義海』.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世祖 8(1462) 造成 刊行]. 卷22~23.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 一般刺密諦 譯, 咸輝 註, 『首楞嚴經義海』.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世祖 8(1462) 造成 刊行]. 卷23. 圓覺寺 所藏本.
 - 부산광역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부산 : 부산광역시장, 2019.
 - 윤상기·최영호·이철찬, 「대한불교 법연종(허유) 신청 유물 조사 보고서」 및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 부산 :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2019.
 - 박상국, 「문화재지정 검토의견서」 및 「『首楞嚴經義海』 권9~15 설명」 등. 서울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8.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1990.
 - 최경환, 『세조대 刊經都監 설치와 佛書 간행』.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博士學位論文.
 - 江田俊雄,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朝鮮之圖書館』 5-5(1936).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동국역경원: <http://www.tripitaka.or.kr>
 - 원각사 정보박물관: <http://www.wongaksa.or.kr/sungb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首楞嚴經義海』 卷9~15는 圖書出版 民族文化의 金容和 사장이 소장하다가 현재의 소유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許油(대한불교 법연종 창종회주)에게 기증한 것이라 한다(전적 기증서 참간).

□

○ 현 상

대체로 온전함

○ 내용 및 특징

首楞嚴經義海. 卷9-15 / 般刺密帝(唐) 譯 ; 子璿(宋) 集義疏注經并科 ; 曉月(宋) 標指要義 ; 仁岳(宋) 集解 ; 咸輝(宋) 排經入注.

木板本

[漢城]: 刊經都監, 世祖 8(1462)

7卷1冊: 上下單邊, 上下匡高 23.4cm, 無界, 半葉 12行13字 註雙行; 35.0×2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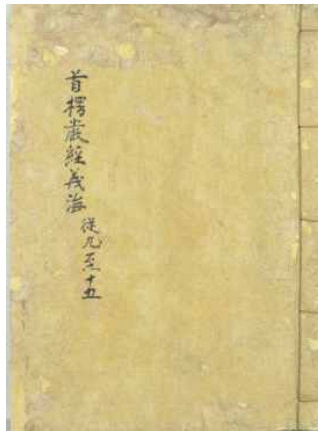
版心題: 楞

刊記: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수능엄경의해』는 당(唐)나라 때 반라밀제(般刺密諦)가 한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을 송나라의 함휘(咸輝)가 30권으로 엮은 주해서이다. 함휘는 이 책에서 이전의 주석서인 자선(子璿)의 『능엄경의소주경(楞嚴經義疏注經)』과 『능엄경의소주경과(楞嚴經義疏注經科)』, 효월(曉月)의 『표지요의(標指要義)』, 인악(仁岳)의 『집해(集解)』 등 3종의 주석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려시대의 간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30권 중의 일부이다. 서지적인 특징을 볼 때 송본을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고려본을 번각한 것인지 원간본을 번각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각 권의 끝에는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과 같이 이 판본은 세조 8년(1462)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간행된 지 5년 뒤인 세조 13년(1467) 8월 17일에 유구국의 국왕에게 하사¹⁸⁾한 기사가 전한다. 그러므로 이 간경도감본 『수능엄경의해』는 당시 국가 간의 불교문화 교류에도 일조한 불서였다.

18) 世祖 13年 8月 17日, “贈琉球國王紅細苧布十一匹…楞嚴義海.”



<사진1. 『수능엄경의해 권9~15』 앞표지(개장)>

앞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는데, 누런색 표지의 좌측 윗부분에는 『首楞嚴經義海』라는 표제와 “종구지십오(從九至十五)”라는 수록 권차가 목서되어 있다. 권수제는 『首楞嚴經義海』이고, 본문과 구분되지 않은 판심 부분에는 『楞』이라는 판심제와 권수 그리고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각 권의 권미제 다음에는 음식(音釋)이 있다. 지질은 좋은 편이며, 인쇄 상태 역시 뛰어난 편이다. 줌으로 인한 손상이 있으나 위아래 부분에 많아 본문을 열람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며, 앞의 11장, 뒤의 12장은 각각 배접이 되어 있다. 각 권별 장수는, 권9는 17장, 권10은 18장, 권11은 20장, 권12는 21장, 권13은 15장, 권14는 15장, 권15는 26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첫 장의 오른쪽 아래에는 판독하기가 어려운 2과의 작은 방형 인장이 있는데, 근자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판본의 국내 전본으로는 『고산사목조석가모니불좌상』(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2005.05.09.)의 복장 전적인 3권 1책(권1~3), 국립중앙도서관의 2권 1책(권22~23), 고양 원각사의 1권 1책(권23, 결락장 다수) 등이 확인된다. 이렇게 지정 신청본인 권9~15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유일한 권수로 희귀성이 돋보인다.

<사진2. 『수능엄경의해 권9~15』의 첫 장(우)과 마지막 장(좌)>



<마지막 장(권15의 제26장)>



<첫 장(권9의 제1장)>

○ 참고문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대한불교 법연종 신청 유물 조사보고서』 .

□

○ 현 상

<書誌 記述>

首楞嚴經義海. 卷9~15 / 般刺密諦(?~?, 唐朝) 譯 ; 子璿(965~1038, 北宋) 集義疏注經并科 ; 曉月(?~?, 北宋) 標指要義 ; 仁岳(992~1064, 北宋) 集解 ; 咸輝(?~?, 南宋) 排經入註. -- 木版本. -- [漢城] : [刊經都監], [世祖 8(1462) 造成 刊行].

7卷1冊(132張): 上下單邊, 半郭 22.8~23.2×17.0cm 內外, 無界, 半葉 12行13字 註雙行, 無魚尾 ; 35.0×25.1cm. 韓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 題: 首楞嚴經義海. (墨書)

卷首題: 首楞嚴經義海.

版心題: 楞

卷尾題: 首楞嚴經義海.

刊 記: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 (各 卷尾)

印 文: □□□□(法然」宗印 ?), □□ (?).

<現狀>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 권9~15는 2018년 도서출판 민족문화의 김용화(金容和) 대표가 대한불교법연종 창종회주인 조연(朝然, 俗名 許油) 스님에게 기증한 자료로서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고 전한다.

표지가 개장되었고, 본문의 내지는 좀이 먹어 일부 배접하여 수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출 상태는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는 8세기 초에 중국 당(唐)의 중인도 승려인 반자밀제(般刺密諦: 極量)가 중국으로 전래하여 한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을 12세기 중엽에 남송(南宋)의 함휘(咸輝, ?~?)가 주석한 30권의 주해서이다. 이곳에는 북송대의 장수 자선(長水子璿, 965~1038)이 주석한 『능엄경의소주경병과(楞嚴經義疏注經并科)』와 늑담 효월(泐潭曉月, ?~?)의 『능엄경표지요의(楞嚴經標旨要義)』 및 정각인악(淨覺仁岳, 992~1064)의 『능엄집해(楞嚴集解)』 등의 주석이 인용되어 있다.

『수능엄경의해』의 저본에 해당하는 『수능엄경』은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수능엄경(首楞嚴經)』·『능엄경(楞嚴經)』 등으로 약칭되고 있다. 이 경전은 당(唐) 중종(中宗) 신룡(神龍) 1년(705)에 반자밀제가 한역하고 송(宋)의 계환(戒環, ?~?)이 쉽게 풀이한 10권본으로 『금강경(金剛經)』·『원각경(圓覺經)』·『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한국 불교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教科) 과목의 하나로 한국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제1권에는 칠처전심(七處徵心)을 주제로 석가모니가 제자 아난(阿難)과의 문답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마음은 몸안[在內], 몸밖[在外], 감각기관[潛根], 어둠으로 감춰진 곳[藏暗], 생각이 미치는 곳[隨合], 감각기관과 대상의 중간지점[中間], 집착하지 않는 곳[無着] 등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다. 제2권에는 깨달음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법하고 있다. 물질과 나, 몸과 마음, 본질과 작용 등은 둘이 아니며, 色·愛·想·行·識 등의 오음(五陰)은 모두가 허망하여 자연도 인연도 아님을 밝히고 있다. 제3권에서는 세간의 만법(萬法)이 모두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라 하여 마음의 영원불멸성(永遠不滅性)을 깨우치고 있다. 제4권에는 여래장(如來藏)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중생들이 미혹하게 된 원인과 업(業)을 짓게 되는 근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3권의 내용과 함께 여래장 사상의 발달사에도 매우 요긴한 해설이 되고 있다.

제5권에서는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풀어야 할 근원적인 업의 매듭은 六根·六境·六識 등이며, 이를 풀어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인연을 범회에 참석한 제자들이 체험담으로 진술하고 있다. 제6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수행문(觀音修行門)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법화경』과 함께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전파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기도 하다. 제7권에서는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주문인 능엄다라니(楞嚴陀羅尼)를 설하고 그 공덕을 밝히고 있다. 제8권에서는 보살의 수행하는 단계로 57位를 설한 뒤 경의 이름을 밝히고, 지옥·아귀·축생·인간·신선·천인·아수라

등 일곱 가지의 중생이 생겨난 원인과 그 각각의 生存樣相을 밝히고 있다. 제9권에서는 말세의 중생이 수행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50가지 마(魔)에 관하여 그 원인과 종류를 밝히고 있다. 제10권에서는 오음(五陰)의 근본을 설하여 경의 본론을 끝낸 뒤 본 경의 공덕과 유통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 전래하는 고판본(古版本)으로는 고려 고종 22(1235)년에 李勝光(?~?) 등이 간행한 해인사판(海印寺版)을 비롯하여 공민왕 21(1372)년의 안성(安城) 청룡사판(靑龍寺版), 세종 25(1443)년의 전라도 화암사판(花巖寺版), 세조 3(1457)년의 을해자판(乙亥字版), 세조 8(1462)년의 간경도감(刊經都監)의 언해판(諺解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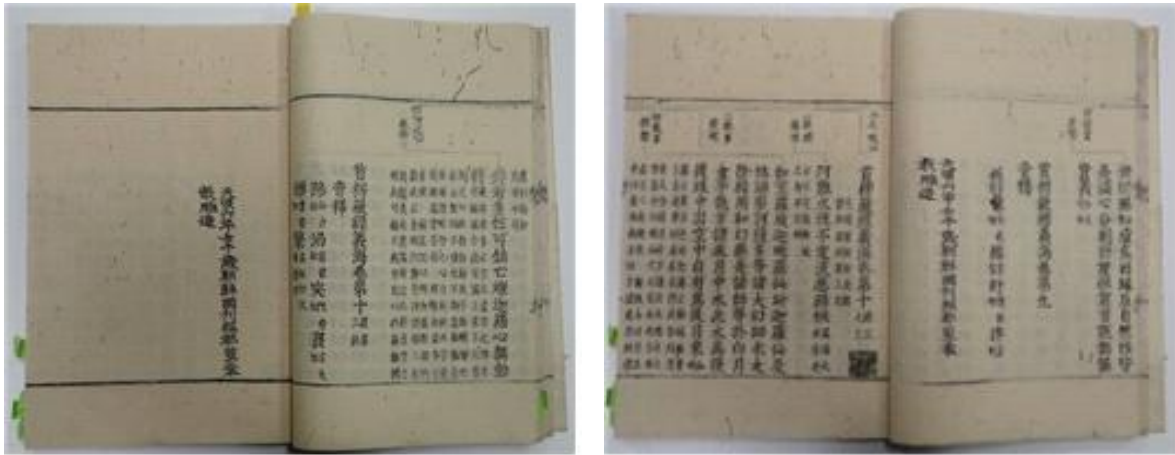
『능엄경』에 관한 우리나라 고승의 주석서로는 고려의 보환(普幻, ?~?)의 『능엄경신과(楞嚴經新科)』 2권과 『수능엄경환해산보기(首楞嚴經環解刪補記)』 2권을 비롯하여 조선의 유일(有一, 1720~1799)의 『능엄경사기(楞嚴經私記)』 1권과 의침(義沾, 1746~1796)의 『능엄경사기(楞嚴經私記)』 1권 등이 현존하고 있다.

함회가 지은 『수능엄경의해』 30권본은 고려말에는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조선 세조 8(1462)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고, 세조 13년에는 유구국(琉球國) 사신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주서(注書) 경준(慶俊)을 태평관(太平館)에 보내어 유구국(琉球國) 사신 상관인(上官人)·부관인(副官人)에게 각각 초록주 유철릭(草綠紬襦帖裏) 1벌, 백면포 유철릭(白綿布襦帖裏) 1벌, 아청유겹장삼(靑靑紬袂長衫) 1벌, 백주 겹장삼(白紬袂長衫) 1벌, 백주 겹철릭(白紬袂帖裏) 1벌, 아청라승관(靑靑羅僧冠) 1벌, 흑사피 운혜(黑斜皮雲鞋) 1냥(兩), 안자(鞍子) 1면(面), 화초 병풍(花草屏風) 1좌(坐), 백저포(白苧布)·흑마포(黑麻布)·정주(鼎紬) 각각 10필(匹), 침석(寢席) 10장(張), 염주(念珠) 1관(寬), 인삼(人參) 10근(觔), 갑구 자석연(匣具紫石硯) 1면(面), 연적(硯滴) 1벌, 백접선(白摺扇) 30자루, 모편(毛鞭) 2벌, 석등잔(石燈盞) 1벌, 유지석(油紙席) 4장,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2장, 황모필(黃毛筆) 30자루, 유연묵(油煙墨) 5자루, 삼병 도자(三并刀子) 1부(部), 요발(鑊鉞) 1벌, 경자(磬子) 1벌, 『성도기(成道記)』·『법화경(法華經)』·『번역명의(翻譯名義)』·『기신론(起信論)』·『영가집(永嘉集)』·『대비심경(大悲心經)』·『원각경(圓覺經)』·『사교의(四教儀)』·『능엄의해(楞嚴義海)』·『도덕경(道德經)』·『법수(法數)』·『함허당원각경(涵虛堂圓覺經)』·『금강경(金剛經)』·『야부종경(冶父宗鏡)』·『능엄회해(楞嚴會解)』·『고봉화상선요(高峯和尚禪要)』·『진실주집(眞實珠集)』·『능엄경(楞嚴經)』·『벽암록(碧巖錄)』·『수륙문(水陸文)』·『유마힐경(維摩詰經)』·『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능가경소(楞伽經疏)』·『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유마경종요(維摩經宗要)』·『법경론(法鏡論)』·『관무량(觀無量)』·『수경의기(壽經義記)』와 조학사(趙學士)가 쓴 석본 『진초천자문(眞草千字文)』·『심경(心經)』·『증도가(證道歌)』·『고세첩(高世帖)』·『팔경시첩(八景詩帖)』·『완화류수첩(浣花流水帖)』·『동서명(東西銘)』·『적벽부(赤壁賦)』·『난정기(蘭亭記)』·『왕우군난정기(王右軍蘭亭記)』를 내려 주고, 선주(船主)·압물(押物) 3인에게 각각 압두록 면포 겹직신(鴨頭綠綿布袂直身) 1령(領), 유청주 유철릭(柳靑紬襦帖裏) 1령(領), 녹비화(鹿皮靴) 1켤레, 백저포(白苧布)·흑마포(黑麻布)·정주(鼎紬) 각각 3필, 침석(寢席)·유지석(油紙席) 각각 3장, 안자(鞍子) 1면(面)을 주고, 시봉승(侍奉僧) 1인(人)에게 압두록 면포 유철릭(鴨頭綠綿布襦帖裏) 1령(領), 백저포(白苧布) 2필, 침석(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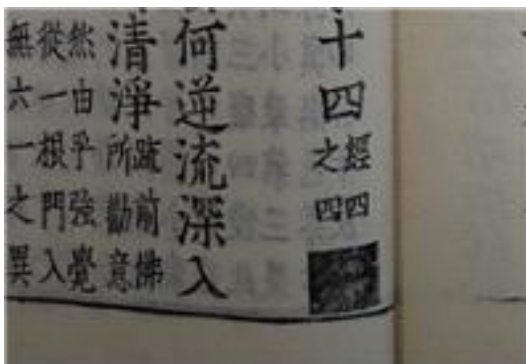
席)·유지석(油紙席) 각각 2장을 내려 주고, 반중(伴從) 13인에게 각각 유청주 유철릭(柳靑紬襦帖裏) 1령(領), 저포(苧布) 1필을 내려 주었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1467) 8월 14일 정미)

조사본 『수능엄경의해』는 세조 8(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일부인 권9~15의 7권 1책(132장)의 목판본이다.



표제와 권수제(卷首題) 및 권미제(卷尾題)는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이고 판심제(版心題)는 ‘楞’이다. 판식의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매 판의 판곽(板郭)은 세로 23.4cm 가로 34.0cm 내외이다. 계선(界線)은 없으며, 판엽(板葉)의 본문의 행자수는 24행 13자 내외이고 주는 쌍행이다. 판심부(版心部)에 판구(版口)와 어미(魚尾)는 없다.

조사본의 권수제 아래에 나타나는 묵등(墨等)은 중국 명(明)의 정장(正藏)인 『영락북장(永樂北藏)』 내에 포함된 『수능엄경의해』의 함차(函次)에 해당하는 ‘翦’과 ‘頗’에 해당된다. 『영락북장』은 영락(永樂) 19년(1421)에 북경에서 조조(雕造)를 시작하여 정통(正統) 5년(1440)에 완성된 정장으로 천자문의 ‘天’에서 ‘石’에 이르기까지 636函 1,621部 6,361卷(序文 1卷 포함)으로 편차된 대장경이다. 이를 통하여 저본의 유통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본 『수능엄경의해』 권9~15에 수록된 내용은 『능엄경』 전체 10권 중에서

권3~5에 나타나는 『능엄경』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깨달음의 종자를 지니고 있다는 ‘여래장’에 관한 내용의 경문이다.

주해의 형식은 자선의 『능엄경의소주경병과』의 과문(科文)을 두주(頭註)의 형태로 하고 과문에 따라서 『능엄경』의 경문(經文)을 분과(分科)하여, 그 해당 내용에 따라 효월의 『능엄경표지요의』와 인악의 『능엄집해』를 배열하고 있다.

한편, 조사본의 각 권말에는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의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조 8(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경판을 조성하여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경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인경본(印經本)도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高山寺木造釋迦牟尼佛坐像)(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의 복장 유물 속에 포함된 권1~3의 1책과 원각사(圓覺寺) 성보박물관 소장 권23의 1책 등 희소하다.

○ 지정사례

현재 『수능엄경의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 최경환, 『세조대 刊經都監 설치와 佛書 간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4. 이항복 해서 천자문 (李恒福 楷書 千字文)

가. 심의사항

‘이항복 해서 천자문’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13.8.19.)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이항복 해서 천자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3.13.~'23.4.12.)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 楷書 千字文)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책(표지 제외 67장, 발문 1장)
- 규 격 : 39.0×24.0cm
- 재 질 : 한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07년(선조 40)
- 제작자 : 이항복(李恒福)



<이항복 해서 천자문>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각 면 39×24cm, 두께 2.5cm이고 126면(천자문 및 제발문 포함)을 오침안정법으로 성책한 필사본이다. 한 면에 2행으로 행마다 4자씩 8자를 125면에 해서로 천 글자를 썼고, 126면에는 행초서로 쓴 이항복 발문이 있다. 또 표지 다음 내지의 오른쪽 아래에 백문방인(白文方印) ‘청헌(聽軒)·월성세가(月城世家)’라는 인영이 있어 제작 연대, 작가, 유전 경로가 분명하다.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첫째, 현전하는 『천자문』에서 가장 크게 쓴 육필이고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예사의 가치가 있다. 둘째, 제작 연대와 작가가 분명하고, 이항복이 후손 교육에 쏟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셋째, 이후 한글로 음(音)과 훈(訓)을 더한 것은 17세기 초·중기의 한글 변천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의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楷書千字文)』은 1607년(선조 40)에 이항복이 52세의 나이로 손자인 시중(時中)에게 써준 친필본이다.

‘천자문’은 한문 공부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삼국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조맹부(趙孟頫)의 ‘천자문’과 함께 김인후(金麟厚)의 천자문, 한호(韓濩)의 천자문 등이 상당수 간행되었다.

조사본은 현재까지 전하는 자료 가운데 판본과 사본에서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물이다. 또한 이미 지정된 1583년(선조 16)에 간행된 한석봉의 서체를 보여주는

『천자문』(2010년 보물 지정)과는 다른 계통의 자료라는 점에서 비교되며, 친필본으로서 1837년(헌종 3)에 쓰여진 『신위 해서 천자문(申緯楷書千字文)』(2010년 보물 지정)에 비하여 앞선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조사대상은 조선시대에 성행되었던 ‘천자문’의 자료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보물로 기 지정된 『신위 해서 천자문』에 비해 연대가 200여 년 앞선 데다 석봉 한호의 『천자문』은 목판 초간본인 것에 반해 본 유물은 친필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 小字 중에서도 비교적 큰 해서체의 천자문으로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필맥이 일관되어 예술성이 상당하며, 후대에 각 글자마다 음훈을 한글로 표기해놓은 것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
- 발문을 통해 조성연대는 물론 이항복의 친필로 확인할 수 있는 서체·서지적 근거가 뚜렷하다.
-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래와 취득경위가 분명하여 본 유물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지정하여 보존·활용할 가치가 있다.
- 다만 문화재 명칭을 ‘이항복 해서 천자문’으로 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각 면 39×24cm, 두께 2.5cm이고 126면(천자문 및 제발문 포함)을 오침안정법으로 성책한 필사본이다. 한 면에 2행으로 행마다 4자씩 8자를 125면에 해서로 천 글자를 썼고, 126면에는 “정미년(1607, 52세) 이른 여름(음력 4월) 손자 이시중(李時中, 1602~1657)에게 써 준다. 오십 노인이 땀을 뿌리고 고생을

참으며 썼으니, 골짜기에 던져서 이 뜻을 저버리지 마라[丁未首夏, 書與孫兒時中. 五十老人, 揮汗忍苦, 毋擲牝以孤是意.]”고 하였다. 이를 보면, 제작 연대가 1607년임을 알 수 있고, 표지 다음 내지의 오른쪽 아래에 백문방인(白文方印) ‘청헌(聽軒)·월성세가(月城世家)’라는 인영이 있다. ‘청헌’은 이항복 6대손 이경일(李敬一, 1734~1820)의 호이다.

합지로 만든 표지는 밀랍이 흑갈색으로 변색하고 겉층의 박락이 심하며, 내지는 너덜거리고 많은 장이 분리되어 있다. 상단 양측 끝에 삼각형으로 한꺼번에 접혔던 자국이 있으나 글씨는 분명하여 가독성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는 이항복 종가가 2018년 12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시작한 17점의 하나이고, 국립중앙박물관은 2019년 5월 ‘이항복 해서 천자문’ 등 모두 17점의 기증품을 인수하여 조사를 통해 학계에 처음 알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수 이후 건식클리닝·책 표지 결실부 보강 및 내지 접착·선장 끈 제작 및 banding 등의 보존처리를 하여 비교적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

○ 내용 및 특징

1.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이항복은 자가 자상(子常)이고 호는 백사(白沙)·필운(弼雲)·동강(東岡)·청화진인(淸化眞人)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봉호는 오성군(鰲城君)이다. 부친은 위사공신(衛社功臣) 이몽량(李夢亮, 1499~1564)이고, 모친은 전주최씨(全州崔氏) 최륜(崔崙, 생물 미상)의 딸이다. 1575년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1580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병조판서·이조판서·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거쳐서 1598년 우의정, 1600년 영의정에 올랐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는 정치가로 유명하고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는 ‘오성과 한음’의 어린 시절 일화로 유명하였다. 1590년 호조참의가 되었고,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모반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그는 실무능력이 탁월한 관료 학자로 당색(黨色, 黨派와 四色)에 치우치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 재상으로 학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선조에서 광해군까지 다섯 차례 공신으로 녹훈되어 조선 시대 최다 공신 임명자이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인이었다.

이항복은 서화에 뛰어났다. 그의 글씨에 대해서는 이정구(李廷龜, 1564~1635)가 1598년에 이르길, “이항복(호는 弼雲) 상공께서 베껴 주신 『청련시초』 1권을 삼가 받으니, 은 갈고리가 찬란하여 곧바로 청수부용(淸水芙蓉)이란 시구와 고움을 다투고 아름다움을 짝할 만합니다. 진귀하게 재삼 완상하니, 자신도 모르게 병든 눈에 빛이 생기고 티끌에 찌든 가슴이 단박에 시원합니다. 삼가 마땅히 비단을 곁에 발라 만든 상자에 소장하여 길이 아름다움으로 삼겠습니다. 감동한 나머지 감히

보잘것없는 시로 마음속 깊이 느껴 사례합니다[伏蒙弼雲相公寫惠青蓮詩抄一卷，銀鉤燦爛，直與清水芙蓉之句，爭妍而儷美。珍玩再三，不覺病眼生輝，塵襟頓爽。謹當藏之巾笥，永以爲好。感戢之外，敢以惡詩鳴謝].”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항복은 당시 서예의 명성이 있었으나 전하는 작품은 많지 않다.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하고 있는 <백사문충공진적첩(白沙文忠公眞蹟帖)>은 굳세고 질박한 서풍으로 송시열과 남구만의 발문이 있어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노자의 『도덕경』을 쓴 해서는 소박하고 단정한 서풍이 나타나고, 행서는 한호와 유사한 왕희지체 서풍이 나타난다. 간송미술관에는 이항복 작품으로 전하는 산수도 소품 <소림청장도(疏林晴嶂圖)>가 전하는데, 낙관이 없고 다른 기준작도 없어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외에 이항복의 서예작품은 종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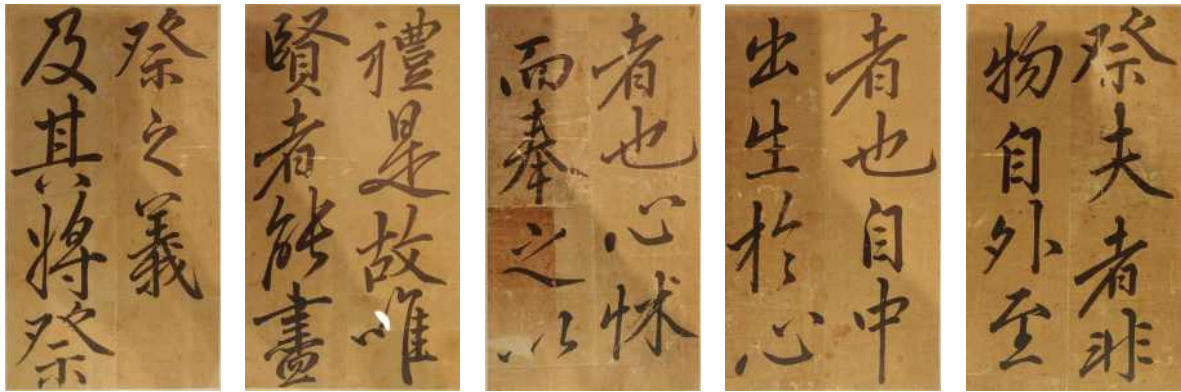
2. 서예 분석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 楷書 千字文)>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선조 40년(1607) 이항복 52세 때 장남 이성남(李星男, 1578~1642)의 장자로 여섯 살 손자인 이시중(李時中, 1602~1657)에게 손수 써 준 것이다. 천자문은 해서로 썼고 끝에는 당부의 글을 행초서로 써서 이르길, “정미년(1607) 이른 여름(음력 4월) 손자 이시중에게 써 준다. 오십 노인이 땀을 뿌리고 고생을 참으며 썼으니, 골짜기에 던져서 이 뜻을 저버리지 마라[丁未首夏，書與孫兒時中。五十老人，揮汗忍苦，毋擲牝以孤是意].”고 하였다. 백문 방인 ‘청헌(聽軒)·월성세가(月城世家)’라는 인영이 있는데, ‘청헌’은 이항복 6대손 이경일(李敬一, 1734~1820)의 호이다. 이를 보면, 제작 연대는 1607년 음력 4월이고, 대대로 종가

에서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진위는 <백사선생수서제병진적첩(白沙先生手書祭屏眞蹟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기(禮記)』에서 제사와 관련된 「제의(祭義)」·「제통(祭統)」·「예기(禮器)」편을 써서 병풍으로 만든 것을 200여 년 뒤 9대손으로 고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첩으로 만든 것이다. 이항복은 이론적인 탐구보다는 실천을 중시하여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절차가 아닌 제사의 근본을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글씨를 써서 병풍으로 제작하였다. 글씨는 당시 유행하던 송설체(松雪體)를 근본으로 근골을 삼아서 이항복 서체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항복, 백사선생수서제병진적첩(白沙先生手書祭屏眞蹟帖), 36.0×20.7cm×82(부분)>

『천자문』은 중국 양나라 주흥사(周興嗣, 470?~521)가 무제의 명령을 받들어 지은 책으로 1구는 4자이고 250구의 고시(古詩)로 모두 천 글자이다.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하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음(音)과 훈(訓)을 달아 한자를 배우는 입문서로 널리 사용하였다. 현전하는 『천자문』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선조 8년(1575) 광주(光州)에서 간행한 『광주판 천자문』(일본 東京大 소장)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천자문』은 한호(韓濩, 1543~1605)가 쓴 것을 선조 16년(1583)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글씨는 초학자에게 규범적인 서체를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정제된 자형, 고른 필획, 긴밀한 결구를 운용하였다. 특히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차이가 거의 없고, 점과 필획은 시작과 끝이 매우 간명한 사자관의 전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약간 행서 필의를 띤 해서로 써서 자유로운 문인의 기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서체는 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띤 해서이다.



<조맹부 송설체(松雪體)의 필의>

조선의 서예는 건국 이후 송설체가 300년간 영향을 주었고 임진왜란(1592~1598) 전후로 많은 변화와 다양한 서풍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였다. 유학자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변화의 개혁을 요구하고 자신의 서체를 확립하며, 송설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점차 조선 서예의 토착화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북고주의가 고조되면서 왕희지체로 회귀하였으나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여전히 송설체 필의가 농후한 해서이다. 전체적으로 수려하고 연미한 서풍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 필획은 대부분 송설체 필의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가로획·세로획·전절·과임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은 한호의 <천자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성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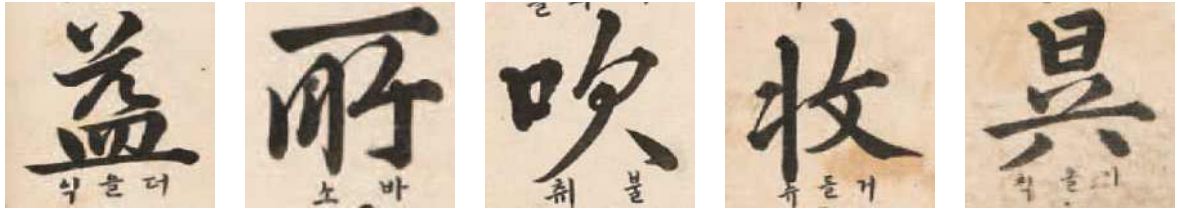


<왕희지, 황정경(黃庭經)>



<조맹부, 구악묘지명(仇鐸墓誌銘)>

둘째, 행서 필의를 섞은 해서이다.



<행서 필의>

해서는 필획마다 연결하거나 흘러 쓰지 않고 끊어진 점과 필획을 조합하여 조형을 이룬 서체이기 때문에 필세와 흐름은 끊어지고 딱딱함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일부 필획을 연결하거나 필획 사이에 견사(牽絲)를 띠면 필세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생동한 변화도 잘 나타난다. 이를 해행서라고도 하는데, ‘이항복 해서 천자문’의 경우는 비록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도 여전히 해서의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서와 행서는 근본적으로 서사 필법이 다르고, 필획의 연결은 자형의 변화와 부드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문인이 해서를 쓸 때 종종 나타나는 습관이기도 하다.

셋째, 이체자(異體字)를 섞은 해서이다.



<이체자(異體字)의 유형>

이체자(異體字)는 음과 뜻은 같으나 정자(正字)에 비교하면 필획이 간단하거나 자형이 조금 다른 속자(俗字)로 세속에서 사용하는 속체(俗體)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당나라 안진경(顔眞卿, 709~785)은 서예의 실용 가치를 중시하였던 까닭에 「간록자서서」에서 서체를 속체(俗體)·통체(通體)·정체(正體)의 세 종류로 나누어 해석하며 이르길, “이른바 ‘속’은 사례가 모두 천근하다. 오직 장부·문안·계약서·약방문으로 우아한 말을 섭렵하지 않았고, 사용도 상쾌함이 없으며, 문득 뜯어고칠 수 있어도 좋은 것을 더할 수 없다. 이른바 ‘통’은 서로 계승함이 오래되어 상주문·장계·척독·판결문에 베풀어도 진실로 꾸밈음을 면할 수 있다. 이른바 ‘정’은 함께 근거가 있어 저술·문장·대책·비갈에 베풀어도 장차 진실로 마땅할 수 있다.”¹⁹⁾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서는 정체(正體)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이체자의 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예를 들면, '甲'자의 마지막 세로 획을 갈고리로 처리한 것, '分'자에서 '刀'를 '力'으로 쓴 것, '磨'자에서 '林'을 '秝'으로 쓴 것, '神'자에서 '耑'을 '耑'로 쓴 것, 이외에 '逸·邈·等·調·潛·讚' 등의 글자도 모두 정체가 아닌 이체자로 썼다. 일반적으로 정통 서예가는 해서를 쓸 때 정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체자를 쓰지 않지만, 문인 서예가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전후좌우에 따라 이체자 사용도 서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쓴다. 이는 위에서 행서 필의를 섞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딱하고 판에 박은 듯한 일률적인 조형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조화와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이항복이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서 은거할 때 쓴 것이다. 따라서 관료 생활과 전란으로 인해 두 아들의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지만, 손자 교육을 위해 『천자문』을 손수 쓰고 아들에게 손자에 대한 교육 방침을 자세하게 제시하며 자상한 할아버지의 면모를 보였다. 이는 1613년 장남 이성남에게 답장의 글을 보낸 「답성남서(答星南書)」에서 이르길, “시아(李時中, 당시 12세)는 『사략』을 곧 다 읽는다 하니, 매우 위로되고 다행스럽다. 다만 한번 슬쩍 보고 흘려 읽어 다시 숙독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읽지 않음과 같다. 이미 마친 뒤 절대로 다른 책으로 옮기지 말고 오래오래 숙독시켜서 반드시 오륙십 번을 두루 거친 연후에 다른 책을 읽으면 좋겠다. 만약 『사략』을 숙독하면 『통감』은 모름지기 읽지 말고 마땅히 『논어』를 읽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기대로 새로운 사항이 있을 것이다[時兒史略將畢, 極可慰幸. 但一瞥流讀, 不復熟讀, 不久與不讀同. 既畢之後, 切勿遷讀他書, 久久熟讀, 須過五六十遍, 然後讀他書爲可. 若熟讀史略, 則通鑑不須讀, 當讀論語, 此則此有新件矣].”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이항복이 후손 교육에 쏟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정확하지 않으나 이후 한글로 음(音)과 훈(訓)을 더한 것은 17세기 초·중기의 한글 변천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작품의 가치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띠면서 행서 필의와 이체자(異體字)를 섞은 해서이다. 글씨는 초학자에게 규범적인 서체를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정제된 자형, 고른 필획, 긴밀한 결구를 운용한 한호의 『천자문』과는 달리 자유로운 문인의 기상을 잘 나타내어 차별성을 갖춘 작품이다. 『천자문』은 목적이 한자를 배우는 입문서로 삼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성정을 나타내는 서예작품보다 비록 예술적으로는 크게 뛰어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세 방면에서 가치가 있다.

19) 顏眞卿, 『干祿字書序』: “所謂俗者, 例皆淺近. 唯籍帳, 文案, 卷契, 藥方, 非涉雅言, 用亦無爽, 儻能改革, 善不可加. 所謂通者, 相承久遠, 可以施表奏, 牋啓, 尺牘, 判狀, 固免詆訶. 所謂正者, 並有憑據, 可以施著述, 文章, 對策, 碑碣, 將爲允當.”

첫째, 이는 자경 8cm 정도로 가장 크게 쓴 육필의 『천자문』이고, 현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예사의 가치가 있다.

둘째, 제작 연대와 작가가 분명하고, 발문에서 이항복이 후손 교육에 쏟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셋째, 정확하지 않으나 이후 한글로 음(音)과 훈(訓)을 더한 것은 17세기 초·중기의 한글 변천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의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 곽노봉, 『한국서예사』, 다운샘, 2020.
- 이수경, 「백사 이항복 종가 소장품의 기증과 의의」, 『국난을 이겨낸 재상, 백사 이항복』, 국립중앙박물관, 2020.
- 이항복, 『白沙集』 권6, 「答星南書(癸丑)」.

○ 기 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이항복 기증품의 하나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 현 상

<書誌 記述>

李恒福筆楷書千字文 / 李恒福(1556~1618) / -- 筆寫本. -- [宣祖 40(1607)].

1책(67장): 39.0×24.0cm, 1장(4句). 韓紙. 線裝.

書 者: 李恒福 書

印 文: 聽軒/月城]世家(앞면 면지 이면).

跋 文: 丁未首夏書與」孫兒時中 五十老人揮」汗忍苦毋擲 牝以」孤是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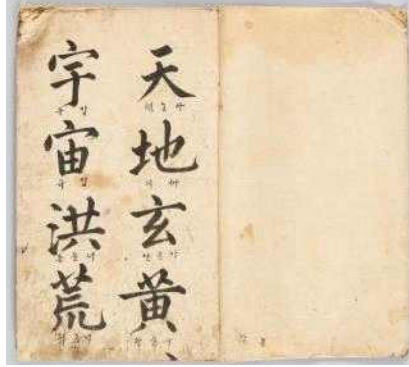
<現狀>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楷書千字文)』은 2019년 11월 20일에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15대 종손 이근형(李槿炯)이 400년 넘게 종가에서 소장해 오던 「李恒福扈聖功臣教書」 및 「李恒福扈聖功臣像(後模本)」과 함께 기증한 유물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증유물 전시를 위해 건식클리닝과 함께 책 표지의 결실부 보강과 내지의 일부 접착을 진행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선장을 위한 책사를 새로 제작하여

장정하였다.

기증 이후 일부 보존을 위한 처리를 진행하였으나, 원상의 변형은 없으며 오염도 심하지 않다.



○ 내용 및 특징

‘천자문(千字文)’은 6세기 초반에 중국 남조 양(梁) 무제(武帝)의 명을 받아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설에는 무제의 명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야 했으나, 마지막 4자를 짓지 못하였는데 홀연히 귀신이 나타나 마지막 4자인 ‘언재호야(焉哉乎也)’를 일러주어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또 완성된 후에는 머리털이 하얗게 세었다고 하여 ‘백수문(白首文)’으로 알려졌다고도 한다.

『양서(梁書)』 「주흥사전(周興嗣傳)」에 의하면 “양나라 고조가 삼교(三橋)의 구택(舊宅)을 광택사(光宅寺)로 만들고 주흥사 및 육수(陸雉)에게 광택사 비문을 짓게 했는데, 비문이 다 이루어져서 아뢰자 고조는 주흥사가 지은 비문을 채택했다. 이후 동표명(銅表銘)·책당갈(柵塘碣)·북벌격(北伐檄)을 주흥사로 하여금 왕희지(王羲之)가 쓴 글자를 이용하여 1천 자를 차운(次韻)하여 만들게 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흥사의 ‘천자문’은 『차운왕희지서천자(次韻王羲之書千字)』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천자문’에 대해서는 중국 후한 말기의 정치가였던 종요(鍾繇, 151~230)가 지었다는 설도 있고, 『일본서기』의 기록을 통하여 5세기 초반에 백제의 왕인(王仁) 박사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였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어 만들어진 시기와 전래된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자문’은 한자 1000자로 되어 있는데, 4자 1구의 사언고시 250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미상으로는 4자구 두 개씩이 묶여 125구의 문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천지현황(天地玄黃)’으로부터 ‘언재호야(焉哉乎也)’의 어조사로 끝나는 내용은 중국의 역사와 사상, 자연과 지리, 인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한 사실을 담고 있다.

‘천자문’은 예로부터 한문 공부를 위한 학습서로서 이해되어 당대 이후 빠르게 보급되었다. 현재 전하는 자료로서 앞선 것은 왕희지의 7대손으로서 수대(隋代)의 명승이며 서예가였던 왕지영(王智永;永禪師)이 지었다고 전하는 진서와 초서의 두

서체로 만든 『진초천자문(眞草千字文)』이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청대 금석학자인 양수경(梁守敬)이 관중(關中)의 석각본(石刻本)과 비교하여 당대(唐代) 영사(永師)가 쓴 것이라는 설도 존재한다.

또한 당의 회소(懷素)는 ‘천자문’을 초서로 적어 서체의 교본으로 확립했다. 그의 뒤를 이어 송나라 선의대사(宣義大師) 몽영(夢瑛)은 전서(篆書)로 『천자문』을 이루었다. 그리고 원나라 조맹부(趙孟頫)는 해서·초서·전서·예서로 ‘천자문’을 써서 모두 세상에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수대부터 ‘천자문’에 대한 주석서와 ‘천자문’의 형식을 본뜬 속찬본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주석서로는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의 소자운(蕭子雲) 주본(注本), 호숙(胡肅) 주본(注本)이 있고, 속찬본으로는 당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정(義淨)의 『범어천자문(梵語千字文)』, 송 전석우(田錫雨)의 『속천자문(續千字文)』, 황조전(黃祖顛)의 『별본천자문(別本千字文)』, 『광천자문(廣千字文)』, 송 호인(胡寅)의 『서고천문(敍古千文)』, 원 하태화(夏太和)의 『성리천자문(性理千字文)』, 명 탁인월(卓人月)의 『천자대인송(千字大人頌)』, 여재지(呂裁之)의 『여씨천자문(呂氏千字文)』, 명 주이정(周履靖)의 『역천자문(易千字文)』, 청 오성란(吳省蘭)의 『공경황상칠순만수천자문(恭慶皇上七旬萬壽千字文)』, 『어제천자조(御製千字詔)』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목왕때에 ‘천자문’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어 이미 널리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하는 자료는 많지 않아 조선초에 이르러 서책을 널리 구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전숙몽(田淑蒙)은 일찍이 충목왕의 시학(侍學)으로 있으면서 사부로 불렸으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채주(祭酒)가 되었다. 왕이 일찍이 축판(祝板)에 압날(押捺)하면서 전숙몽에게 이르기를, “어째서 종이를 쓰지 않는가?”라고 하자, 전숙몽이 말하기를, “판자를 쓰는 것은 검소한 미덕을 숭상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옳은 말이라고 여겼다. 왕이 몇 개의 축판에 압날하자 신예가 그것을 중지시키며 말하기를, “옥체가 피로하실까 걱정됩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 말을 좇았다. 이로부터 태조진전(太祖眞殿)의 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리로 압날하게 하였다. 당시 왕이 천자문을 배우는데 안진(安震)이 말하기를, “음과 뜻을 상세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 전숙몽이 이르기를, “전하께서는 글자의 음만 익히고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비록 글자를 알지 못하나 신에게 어떤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가한 것이므로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사부가 요즘 글자의 뜻을 가르치지 않으니, 때문에 배우지 못하였을 뿐이다.”라고 하니, 전숙몽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공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를 나무라시는데, 신이 가르쳐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 덕녕공주(德寧公主)를 거슬러 동래(東萊)로 유배되었다. 중랑장(中郎將) 김환(金煥)·경윤화(慶允和), 제공(提控) 장세안(張世安) 등은 전숙몽이 비록 죄를 지었으나 국왕을 가르친 지 오래되었으므로 유배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판사 이원룡(李元龍) 등 100여 인과 함께 상소해 소환을 청하였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충정왕 때에 감찰대부(監察大夫)에 제배되었는데, 규정(糾正) 신익지(申翼之)가 악소배의 말을 몰수하여 사복시에 넘기자 전숙몽이 사람

을 시켜 그 말을 빼앗아 되돌려주었다.

(『高麗史』 卷一百二十五, 列傳 卷第三十八, 姦臣, 辛裔)

②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법첩(法帖)을 많이 인쇄하여 나라 안에 널리 반포하려고 하니, 만약 조학사(趙學士)의 진필(眞筆)인 진초(眞草) 천자문(千字文) 등의 서책을 바치는 사람은 소원대로 후하게 상을 줄 것이고, 또 병풍·죽자에 쓴 법첩 같은 것은 모각(摹刻)한 후에 주인에게 돌려 줄 것이니, 이런 뜻으로써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6월 24일 갑술)

이같이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판본과 함께 조맹부(趙孟頫)의 ‘천자문’이 많이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 13년(1467)에는 태평관에 투숙한 유구국 사신에게 조맹부의 『진초천자문』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8월 14일 정미).

그 외에도 김인후(金麟厚)의 초서천자문, 한호(韓濩)의 초서 천자문과 해서 천자문, 삼계 천자문, 1838년 송내희(宋來熙) 서(敍) 『김두영서 천천자(金斗榮書 篆千字)』 등이 널리 이용되었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버드-엔칭 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순창(淳昌) 무량사본(無量寺本) 『신간천자주석(新刊千字註釋)』이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1566년(명종 21)에 최준(崔峻)이 쓴 발문이 있다.

<하버드대학 하버드-엔칭 도서관 소장 목판본 『新刊千字註釋』崔峻 誌>



<하버드대학 하버드-엔칭 도서관 소장 목판본 『新刊千字註釋』卷之上 1a-b>



심경호, 「동아시아에서의 ‘千字文’ 類 및 ‘蒙求’ 類 流行과 漢字漢文基礎教育」, 『漢字漢文教育』 제 36집, 2015, 19쪽 <그림1> <그림2> 재전제.

둘째는 1575년(선조 8) 전라도 광주에서 간행된 『천자문』으로 현재 일본 동경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한글새김과 자음을 표현하였다. 셋째는 1583년(선조 16)에 석봉 한호(石峰韓濩, 1543~1605)가 서사(書寫)한 필체를 판하본(板下本)으로 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른바 ‘석봉천자문(石峯千字文)’으로서 이후 왕실과 관아, 사찰, 개인에 의해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가장 널리 유통되었

던 자료이다.



심경호, 「동아시아에서의 ‘千字文’ 類 및 ‘蒙求’ 類 流行과 漢字漢文基礎教育」, 『漢字漢文教育』 제36집, 2015, 22쪽 <그림3> 재전재.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楷書千字文)』은 책의 뒷면에 기록된 발문을 통하여 1607년(선조 40)에 이항복이 52세의 나이로 손자인 시중(時中)에게 써준 친필본임을 알 수 있다. 발문 내용은 “丁未首夏書與 孫兒時中 五十老人揮 汗忍苦毋擲 牝以 孤是意”이다.



이항복의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자상(子常)이며, 호는 필운(弼雲)·백사(白沙)·동강(東岡) 등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고려의 대학자인 이체현(李齊賢, 1287~1367)의 방손으로, 증조는 이성무(李成茂)이고 조부는 이예신(李禮臣, 1466~1536)이며, 부친은 참찬 이몽량(李夢亮, 1499~1564)이고 모친은 결성현감(結城縣監) 전주(全州) 최륜(崔崙)의 따님이다.

9세에 부친을 여의고 모친의 슬하에서 자랐으며, 소년 시절에는 부랑배로 헛된 세월을 보냈으나 모친의 교훈으로 학업에 열중하였다. 선조 4(1571)년에 모친을 여의고 삼년상을 마친 뒤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힘써 명성이 높았다. 영의정 권철(權轍, 1503~1578)의 아들인 권율(權慄, 1537~1599)의 사위가 되었다. 선조 8(1575)년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선조 13(1580)년에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선조 16(1583)년에는 사가독서를 하였다. 선조 22(1589)년에 예조정랑으로 있

을 때 역모사건의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친국에 참여하여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선조 23(1590)년에 호조참의로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모반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선조 25(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비를 개성까지 무사히 호위하고 또 왕자를 평양으로,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이때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 함께 명(明)에 원병을 청할 것을 건의하자 선조가 의주에 머무르면서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후에 이여송(李如松, 1549~1598)의 대병력이 들어와 평양을 탈환하고 이어 서울을 탈환하여 환도하였으며, 이듬해 선조가 세자를 남쪽에 보내 분조(分朝)를 설치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무를 맡아보게 하였을 때 대사마로서 세자를 받들어 보필하였다. 선조 35(1602)년에 정인홍(鄭仁弘, 1535~1623)·문경호(文景虎, ?~1620) 등이 최영경(崔永慶, 1529~1590)을 모함·살해하려 하였던 장본인이 성혼(成渾, 1535~1598)이라고 발설하여 삼사에서 성혼을 공격하자, 이에 성혼을 변호하고 나섰다가 정철(鄭澈, 1536~1593)의 편당으로 몰려 영의정에서 자진하여 사퇴하였다. 선조 37(1604)년 6월에는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광해군 9(1617)년에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서궁(西宮;德壽宮)에 유폐되고 이어 폐위하여 평민으로 삼자는 주장에 맞서 싸우다가, 광해군 10(1618)년에 관작이 삭탈되고 함경도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즐거하였다. 그러나 동년(1618)에 관작이 회복되고 8월에는 고향인 포천(抱川)에 예장(禮葬)되었다. 사후에는 포천과 북청의 사당에 제향되었으며, 효종 10(1659)년에는 ‘화산서원(花山書院)’이라는 사액이 내려졌다. 저술로는 『사례훈몽(四禮訓蒙)』 1권과 『노사영언(魯史零言)』 15권과 시문 등이 있으며, <이순신충렬묘비문(李舜臣忠烈墓碑文)>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조사본은 앞표지에 책의 제목을 ‘千字文’이라 묵서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결획된 상태이다. 앞쪽의 공지는 본래 표지와 붙여진 면지였으나 현재 떨어진 상태이다. 오른쪽 하단에는 2개의 인장이 찍혀 있다. 두 개 모두 백문방인(白文方印)으로 인문은 ‘청헌(聽軒)’과 ‘월성세가(月城世家)’로 판독된다. ‘청헌’은 이항복의 6대종손인 이경일(李敬一, 1734~1820)의 호로 이해되고 있어 자료의 하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글씨는 굵고 단정한 해서체로 한 면마다 8자씩 쓰여졌다. 노년의 원숙한 필법을 보여줌과 동시에 부드럽고 단아함을 느끼게 한다.

한편 천자문 한 자마다 그 아래에 한글음을 달아 놓았다. 이 자료에 보이는 한자음과 새김에 쓰인 한글은 몇 가지 특징을 통하여 17세기 초·중기의 언어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⁰⁾

조사본은 조선시대에 성행되었던 ‘천자문’의 자료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이해된다. 현재 전하는 자료 가운데 1583년(선조 16)에 간행된 한석봉의 서체를 보여주는 『천자문』(2010년 보물 지정)과는 다른 계통의 자료라는 점에서 비교되며, 친필본으로 지정된 『신위 해서 천자문(申緯楷書千字文)』(2010년 보물 지정)이 1837년(헌종 3)에 쓰여진 자료임에 비하여 조사본은 그보다 앞선 자료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 지정사례

- 천자문(개인, 2010.08.25. 지정)
- 신위 해서 천자문(서울대학교박물관, 2010.10.25. 지정)

○ 참고문헌

- 심경호, 「동아시아에서의 ‘千字文’ 類 및 ‘蒙求’ 類 流行과 漢字漢文基礎教育」, 『漢字漢文教育』 제36집, 2015.
- 김현주, 「『이항복천자문』의 한자음과 새김에 쓰인 한글의 특징」, 『국난을 이겨낸 재상, 백사 이항복』, 국립중앙박물관, 2020.

20) 음절말에서 ‘ㅅ’과 ‘ㄷ’의 표기가 혼기되는 양상은 16세기부터 보이지만 본격화하여 ‘ㅅ’ 표기가 득세하는 것은 17세기 문헌의 특징이고, 중세국어라면 ‘ㄷ’이 되어야 할 초성 표기가 ‘ㄴ’으로 적히는 일이나 ‘ㄴ’이 ‘ㄷ’로 적힌 예들도 17세기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또한 ‘ㅇ’과 ‘ㅇ’이 자형상 구분되지 않는 것도 17세기의 특징이다. ㄷ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점, 두음법칙이 일반화해 있지 않은 점(致 닐월 티), ‘자/저/조/주’ 등이 ‘자/저/조/주’ 등과 혼기되지 않은 점, 즉 구개음화가 일반화해 있지 않은 점 등은 이 자료의 시기를 18세기로 내려보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다(김현주, 「『이항복천자문』의 한자음과 새김에 쓰인 한글의 특징」, 『국난을 이겨낸 재상, 백사 이항복』, 국립중앙박물관, 2020, p.85).



○ 현 상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20일에 白沙 李恒福의 15대 종손 李權炯이 400년 넘게 종가에서 소장해 오던 「李恒福扈聖功臣教書」 및 「李恒福扈聖功臣像(後模本)」과 함께 기증한 유물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증유물 전시를 위해 건식클리닝과 함께 책 표지의 결실부 보강과 내지의 일부 접착을 진행하였다. 또한 선장을 위한 책사를 새로 제작하여 장정하였다. 기증 이후 일부 보존을 위한 처리를 진행하였으나, 원상의 변형은 없으며 오염도 심하지 않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 대상의 앞표지에는 책의 제목을 ‘千字文’이라 묵서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결핵된 상태이다. 앞쪽의 공지는 본래 표지와 붙여진 면지였으나 현재 떨어진 상태이다. 오른쪽 하단에는 2개의 인장이 찍혀 있다. 두 개 모두 白文으로 印文은 ‘聽軒’과 ‘月城世家’로 판독된다. ‘청헌’은 이항복의 6대 종손인 李敬一(1734~1820)의 호로 이해되고 있어 자료의 하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후미의 발문에는 “丁未首夏書與孫兒時中 五十老人揮 汗忍苦毋擲 牝以 孤是意”라고 기록되어 있어 1607년 초여름 52세의 나이에 손자 시중에게 친필로 쓴 것임이 확인된다. 아울러 손자 교육을 위했던 이항복의 애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글씨는 매우 단정하고 遒勁한 長方形의 해서체로 한 면마다 8자씩 서사되어 있다. 글자의 길이가 6~6.5cm 정도로 일반적으로 3~4cm 크기의 小字 천자문에 비해 매우 큰 소자 해서로서 소자 천자문 중에서는 매우 드문 편이다.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안정된 필압과 밀도있는 결구, 일관된 필세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갈한 서풍과 격조를 보여준다. 말미의 발문은 이항복의 전형적인 초서의 서풍으로 확인된다. 한편 천자문 한 자마다 그 아래에 한글로 음훈을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후대에 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한글은 몇 가지 특징을 통하여 조선후기의 언어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丁未年夏
六月五日
人
研
五
母
梯
物
記
是
之
意

日月盈昃
辰宿列張
寒來暑往
秋收冬藏

검 토 사 항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3-02-005

5.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가. 검토사항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2.15./'16.6.13./'17.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31./'2.2./'2.20./'2.23.) 및 과학조사('23.2.17./'2.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는 '18.1월~'20.10월 과학조사 완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국유(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박물관
- 수 량 : 총 637점(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 조성연대 : 1420년~1910년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종합의견)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 상왕(上王), 왕대비(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과 의례용 책문이며, 양자를 합쳐 ‘책보’라고도 부른다.

어보(御寶)란 왕·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책봉(冊封)하거나 존호(尊號)·시호(諡號)·휘호(徽號) 등을 수여하며 만든 의례용의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어보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여러 구성품들이 함께 구성되었다. 각종 『의례(儀軌)』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어보(御寶), 보통(寶筒), 보록(寶盞), 주통(朱筒), 주록(朱盞), 보자기[褰袂袱, 褰單袱], 열쇠 및 자물쇠[鎖鑰匙具], 묶는 끈[結纓子], 호갑(護匣), 의향(衣香) 등이 있다.

어책(御冊)은 의례용 인장인 어보와 함께 수여되는 것으로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 등으로 구별하였다. 옥책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 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죽책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

을 사용하였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수여하였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죽책의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의 내용이다. 한편, 금책은 대한제국 선포 후인 1897년 황제를 칭하면서 승하한 왕비를 황후로 추봉하고, 왕세자 척(척, 순종)을 황태자로, 왕세자비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하면서 수여하였다. 황실에서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를 금책이라 한다.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²¹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玉冊과 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 竹冊과 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필사한 것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교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직조하여 넣었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날인한 것도 있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신실(神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조선왕실의 종묘는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으로 구성되는데 정전에는 19개 신실(神室)에 19위(位)의 왕과 30위의 왕비 신주를 모셔 놓았다. 정전 서쪽에 있는 영녕전에는 16개 신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15위의 왕과 17위의 왕비 그리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의 신주를 모셔 놓았다. 종묘 각 신실의 중앙에는 신주장(神主櫨)을 두어 신주를 봉안하고, 좌측 즉 동쪽에는 보장(寶櫨)을, 우측 즉 서쪽에는 책장(冊櫨)을 둔다. 보장에는 어보를, 책장에는 교명(敎命)·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 등을 봉안하였다.

21) 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 내선, 선양, 전수, 전위라고도 한다. 태조, 태종, 세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교명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표> 종묘 정전(正殿)

| 묘실(廟室) | 왕 | 왕후 | 비고 |
|--------|--------|--------------|----|
| 제1실 | 태조(太祖) | 신의왕후(神懿王后) | |
| | | 신덕왕후(神德王后) | |
| 제2실 | 태종(太宗) | 원경왕후(元敬王后) | |
| 제3실 | 세종(世宗) | 소헌왕후(昭憲王后) | |
| 제4실 | 세조(世祖) | 정희왕후(貞熹王后) | |
| 제5실 | 성종(成宗) | 공혜왕후(恭惠王后) | |
| | | 정현왕후(貞顯王后) | |
| 제6실 | 중종(中宗) | 단경왕후(端敬王后) | |
| | | 장경왕후(章敬王后) | |
| | | 문정왕후(文定王后) | |
| 제7실 | 선조(宣祖) | 의인왕후(懿仁王后) | |
| | | 인목왕후(仁穆王后) | |
| 제8실 | 인조(仁祖) | 인렬왕후(仁烈王后) | |
| | | 장렬왕후(莊烈王后) | |
| 제9실 | 효종(孝宗) | 인선왕후(仁宣王后) | |
| 제10실 | 현종(顯宗) | 명성왕후(明聖王后) | |
| 제11실 | 숙종(肅宗) | 인경왕후(仁敬王后) | |
| | | 인현왕후(仁顯王后) | |
| | | 인원왕후(仁元王后) | |
| 제12실 | 영조(英祖) | 정성왕후(貞聖王后) | |
| | | 정순왕후(貞純王后) | |
| 제13실 | 정조(正祖) | 효의왕후(孝懿王后) | |
| 제14실 | 순조(純祖) | 순원왕후(純元王后) | |
| 제15실 | 문조(文祖) | 신정왕후(神貞王后) | |
| 제16실 | 헌종(憲宗) | 효현왕후(孝顯王后) | |
| | | 효정왕후(孝定王后) | |
| 제17실 | 철종(哲宗) | 철인왕후(哲仁王后) | |
| 제18실 | 고종(高宗) | 명성황후(明成皇后) | |
| 제19실 | 순종(純宗) |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 |
| | |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 |

<표> 종묘 영녕진(永寧殿)

| 묘실(廟室) | 제왕 | 왕후 | 비고 |
|--------|--------|------------|----|
| 제1실 | 목조(穆祖) | 효공왕후(孝恭王后) | |
| 제2실 | 익조(翼祖) | 정숙왕후(貞淑王后) | |
| 제3실 | 도조(度祖) | 경순왕후(敬順王后) | |
| 제4실 | 환조(桓祖) | 의혜왕후(懿惠王后) | |
| 제5실 | 정종(定宗) | 정안왕후(定安王后) | |
| 제6실 | 문종(文宗) | 현덕왕후(顯德王后) | |
| 제7실 | 단종(端宗) | 정순왕후(定順王后) | |
| 제8실 | 덕종(德宗) | 소혜왕후(昭惠王后) | |
| 제9실 | 예종(睿宗) | 장순왕후(章順王后) | |
| | | 안순왕후(安順王后) | |
| 제10실 | 인종(仁宗) | 인성왕후(仁聖王后) | |
| 제11실 | 명종(明宗) | 인순왕후(仁順王后) | |
| 제12실 | 원종(元宗) | 인헌왕후(仁獻王后) | |
| 제13실 | 경종(景宗) | 단의왕후(端懿王后) | |
| | | 선의왕후(宣懿王后) | |
| 제14실 | 진종(眞宗) | 효순왕후(孝順王后) | |
| 제15실 | 장조(莊祖) | 헌경왕후(獻敬王后) | |
| 제16실 | 영왕(永王) | 영왕비(永王妃) | |

의물(儀物)의 관리는 주로 종묘서(宗廟署)에서 담당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을 보면 종묘서에서 “종묘의 옥책, 죽책과 고명(告命)은 종묘서(宗廟署)의 제조(提調)가 매년 한 번씩 받들어 살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의원(尙衣院)에서 관리한 예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이때 정리된 기록물이 『종묘의궤(宗廟儀軌)』, 『종묘등록(宗廟謄錄)』, 『책보록(冊寶錄)』 등이다.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다음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通時性)과 역사성(歷史性)을 보여준다.

둘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궤』 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어 왕실 의례의 내용과 성격, 의례의 절차와 형식, 의례에 사용된 의물(儀物)의 제작자 및 재료와 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셋째, 왕이나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물(儀物)로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제술관(製述官)이 문장을 짓고, 명망 높은 서예가인 서사관(書寫官)이 쓰고, 각 분야에서 20~30년간 장기간 활동하면서 그 솜씨를 인정받은 관영이나 군문 소속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조형예술품의 백미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

넷째,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의물(儀物)은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되어온 유물로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유물이다.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유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면과 공동체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다섯째,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정 기준)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정 명칭은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으로 한다. 관련 유물인 보통(寶筒), 보록(寶鬘), 주통(朱筒), 주록(朱鬘), 보자기[褰袂袱, 褰單袱], 열쇠 및 자물쇠[鎖鑰匙具], 묶는 끈[結纒子], 호갑(護匣), 의향(衣香) 등은 제외한다.
- 2) 1)항에 의거 제작 시기의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한다. 제작의 주체는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의 황실이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유물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공간의 범위는 종묘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에 봉안된 왕과 왕비의 어보, 어책, 교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의 어보, 어책, 교명을 봉안하고 있던 장소는 종묘(宗廟)를 비롯한 외규장각(外奎章閣), 봉모당(奉謨堂), 행궁(行宮) 등이다. 그밖에도 의소세손이나 문효세자 등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어보를 보관했던 의소묘(懿昭廟)²², 문희묘(文禧廟)²³, 선희궁(宣禧宮)²⁴, 경우궁(景祐宮)²⁵ 등 왕실 개인 사묘(祠廟) 공간은 제외한다.
- 4) 어보, 어책, 교명의 수여 대상자는 왕실 및 황실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왕과 왕비,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등과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 그리고 상왕, 태상왕, 왕대비, 대왕대비, 황제,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태후 등과 추존왕과 왕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단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왕을 낳은 후궁 등은 제외한다.

22) 영조의 세손(世孫) 의소(懿昭)의 사당.

23) 정조의 아들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사당.

24)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 장헌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사당.

25)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綏嬪朴氏)의 사당.

5)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의 지정명칭은 의례의 주인공, 의례 명칭, 재질, 유물 유형의 순으로 한다.

예시1) 穆祖 上諡號 金寶

예시2) 太宗妃 元敬王后 上諡號 金印

예시3) 太祖 追上諡號 玉冊

예시4) 顯宗 王世孫冊封 竹冊

예시5) 高宗妃 明成皇后 皇后冊封 金冊

예시6) 仁祖繼妃 壯烈王后 王妃冊封 敎命

(지정 대상-목록 별첨)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조선시대에는 종묘서에서 관리하였으나,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는 일본 궁내성 소속인 이왕직(李王職)이 관리하였으며 광복 이후로는 구황실사무청(1945년 11월~1955년 6월), 구황실사무총국(1955~1961년 10월)이 주관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문화재관리국(1962년 설립), 궁중유물전시관(1992년 설립, 문화재관리국 소속 기관), 국립고궁박물관(2005년 개관)이 승계하여 관리하였다. 현재 유물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 등의 3개처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은 모두 5건 963점에 해당한다. 그 중 지정기준에 근거한 조사 대상은 어보(御寶) 318과, 옥책(玉冊) 253첩, 죽책(竹冊) 34첩, 금책(金冊) 3첩, 교명(敎命) 29축으로 모두 637점이 해당된다. 종묘에 부묘되지 않은 대상과 1910년 이후 제작된 유물에 해당하는 자료는 ①어보 15과 ②옥책 5첩 ③죽책 9첩 ④금책 4첩 ⑤교명 3축 등이 있다.

소장처별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장처 | 어보 | 어책 | | | 교명 | 비고 |
|-----------|-------------|-------------|------------|-----------|------------|----|
| | | 옥책 | 죽책 | 금책 | | |
| 국립고궁박물관 | 312과 | 252첩 | 34첩 | 2첩 | 28축 | |
| 국립중앙박물관 | 4과 | 1첩 | - | 1첩 | 1축 | |
| 고려대학교박물관 | 2과 | - | - | - | - | |
| 합계 | 318과 | 253첩 | 34첩 | 3첩 | 29축 |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I. 개괄

조선시대의 국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등 왕실 가족에게는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어보·어책·교명이 주어졌다. 국왕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주인공의 지위를 표시한 어보·어책과 오늘날의 임명장에 해당하는 교명을 내렸다. 또한 국왕이 선대 국왕과 왕비의 공덕을 드러내는 존호(尊號)를 올릴 때는 새 존호를 새긴 어보와 어책을 제작하여 올렸다. 그리고 국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이 사망하면 그들의 생애를 평가한 시호(諡號)를 새긴 시보(諡寶)와 시책(諡冊)이 제작되었다. 왕비가 사망하면 시호와 함께 특별히 휘호(徽號)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휘호는 존호의 일종이었다.

국왕과 왕비 등 왕실 가족에게 올린 어보·어책·교명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생활 공간에, 본인이 사망하여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혼전(魂殿)에 보관되었고,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신 이후에는 종묘의 각 신실에 비치된 보장(寶槩)과 책장(冊槩)에 보관되었다.



<종묘 신실의 보장과 책장>

왕실 가족의 존호는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올릴 수 있었다. 존호를 처음 올릴 때는 ‘상존호(上尊號)’라 하고, 살아있을 때 추가로 올리는 존호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망한 이후에 올리는 존호는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하였다. 또한 휘호를 올릴 때는 ‘상휘호(上徽號)’, 시호를 올릴 때는 ‘상시호(上諡號)’라 하였다. 왕실 가족에게 올리는 존호의 글자 수는 지위에 따라 달랐다. 국왕에게는 8글자, 왕세자에게는 4글자, 왕비와 왕세자빈에게는 2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왕비에게 올리는 휘호는 4글자였다.

왕실 가족의 시호는 주인공이 사망했을 때 한 번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후대에 새로운 시호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영조의 경우 1776년에 사망했을 때 시호(翼文宣武 熙敬顯孝)를 올렸지만, 1890년에 묘호(廟號)를 ‘영종(英宗)’에서 ‘영조(英祖)’를 바꾸면서 새로운 시호(正文宣武 熙敬顯孝)를 올렸다. 왕실 가족에게 올리는 시호의 글자 수도 지위에 따라 달랐다. 국왕에게는 8글자, 왕세자, 왕비, 왕세자빈에게는 2글자의 시호를 올렸다.

어보는 왕실 가족을 책봉하거나 존호 또는 시호를 올릴 때 사용하는 도장으로, 등급에 따라 보(寶)와 인(印)으로 구분되었다. 보(寶)는 국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도장으로 재료에 따라 금보(金寶)와 옥보(玉寶)가 있었다. 인(印)은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손에게 올리는 도장으로 재료에 따라 은인(銀印)과 옥인(玉印)이 있었다. 별도로 금인(金印)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후기에는 장헌세자(사도세자)와 국왕의 후궁에게 존호를 올릴 때 금인(金印)을 제작한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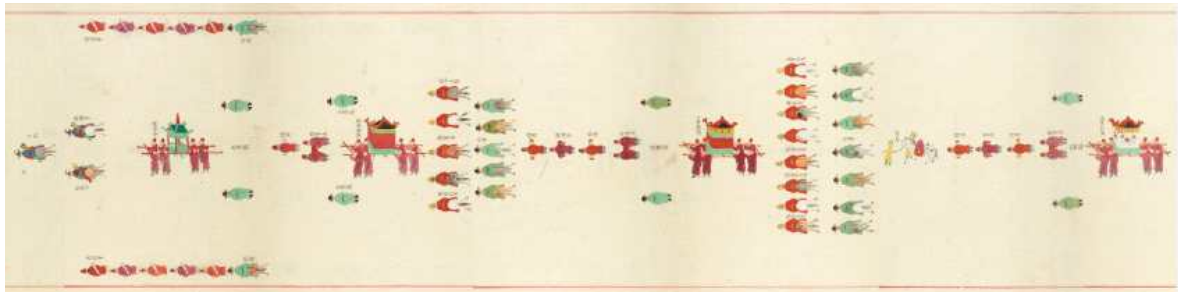
어책은 왕실 가족을 책봉하거나 존호 또는 시호를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로, 재료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금책(金冊)으로 구분되었다. 옥책은 국왕, 왕비,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와 왕비를 책봉할 때 제작되었다. 죽책은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후궁 등에게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와 그들을 책봉할 때 제작되었다. 금책은 대한제국기에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친왕, 친왕비 등을 책봉할 때 제작되었다.

교명은 국왕이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등을 책봉할 때 주는 문서로 주인공에게 교훈과 경계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교명은 아름다운 오색비단으로 장식되어 화려하며, 시작 부분에 전문(篆文)으로 ‘敎命’이라는 두 글자의 수가 있고, 끝부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교명은 조선 초에는 종이로 만들었다가 세종 대에 양원(良媛)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할 때부터 비단에 장식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1. 국왕 가례 때의 어보·어책·교명

국왕의 가례는 제일 먼저 왕비를 간택하는 절차가 있었다.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왕비 후보자들의 처자단자(妻子單子)를 접수하며,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을 통해 왕비를 결정하였다. 새 왕비는 별궁에 거처하면서 왕실의 법도와 가례 의식을 익혔다. 왕비의 간택이 진행되는 동안 가례도감에서는 새 왕비에게 줄 금보·옥책·교명의 글을 지을 제술관(製述官)과 글씨를 쓸 서사관(書寫官)을 결정하였다.

국왕의 가례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납채는 국왕의 명을 받은 사신이 별궁의 주인(국왕의 장인)에게 왕비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국왕의 교서와 기러기를 전달하는 의례이고, 납징은 사신이 별궁의 주인에게 국왕이 보내는 폐백과 말을 전달하는 의례였다. 고기는 사신이 별궁의 주인에게 가례 기일을 알리는 국왕의 교서를 전달하는 의례이고, 책비는 사신이 별궁의 왕비에게 금보·옥책·교명을 전달하면서 왕비로 책봉하는 의례였다. 친영은 국왕이 별궁으로 가서 기러기를 전달한 후 왕비를 맞이하여 궁궐로 돌아오는 의례이고, 동뢰연은 국왕이 왕비를 맞아 궁궐로 돌아온 후 어전에서 함께 술 3잔을 마시는 의례였다. 친영 때 새 왕비는 책비 때 받았던 금보·옥책·교명을 가지고 궁궐로 들어왔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친영 반차도에 나타나는 교명·옥책·금보>

2. 국왕 장례 때의 어보·어책·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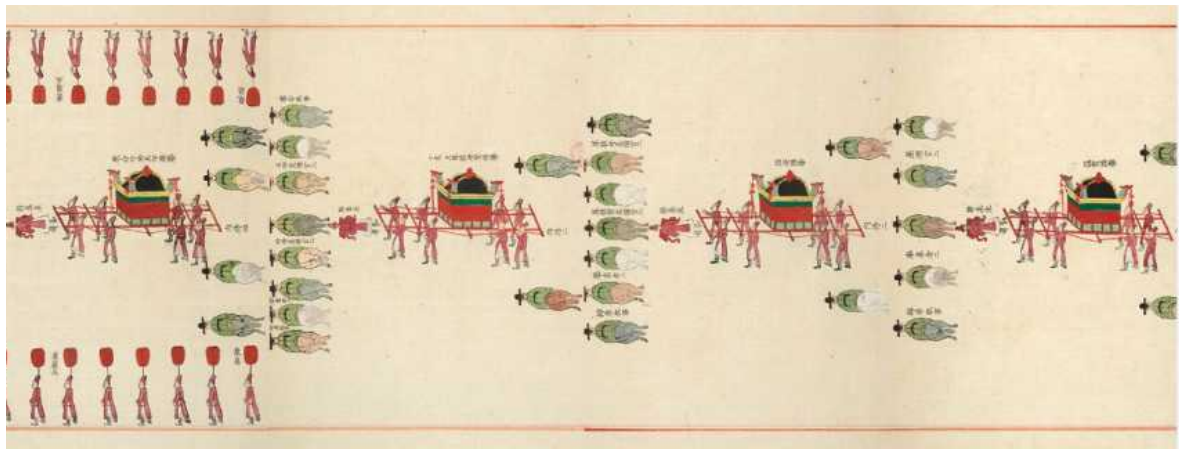
국왕이 승하하면 국장도감을 설치하여 국장을 진행하였다. 국장은 빈전(殯殿)의 마련, 성복(成服), 발인(發靱), 하현궁(下玄宮), 반우(返虞)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왕이 승하하면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습(襲), 옷과 이불로 시체를 감싸는 소렴(小斂)과 대렴(大斂)이 진행되며, 이후 시신을 재궁(梓宮)에 넣어 빈전에 모신다. 대렴 다음날 새 국왕은 성복을 하고 즉위식을 거행한다. 국왕이 사망한 다음 달에 승하한 국왕의 묘호(廟號), 능호(陵號), 시호(諡號)를 정하고, 이를 새긴 시보(諡寶)와 시책(諡冊)을 제작하였다. 시보와 시책은 종묘로 가서 시호를 청하는 의례를 거행한 후 빈전으로 돌아와 보관되었다.

발인이 시작되면 국왕의 재궁이 궁궐을 떠나 노제(路祭)를 거행하고 장지에 이

르렀다. 발인 행렬이 산릉도감이 만들어 놓은 장지에 도착하면 재궁을 정자각에 모시고, 녹로 등의 기계를 이용하며 하현궁을 한다. 길유궁(吉帷宮)에서 우주(虞主, 가신주)에 이름을 쓴 후 궁궐에 돌아오는 반우를 하고, 우주를 혼전에 모시고 우제(虞祭)를 지냈다. 혼전에서 1년이 지나면 연주(練主)라는 새 신주를 만들어 연제(練祭)를 지내고, 3년이 지나면 담제(禫祭)를 지내고 연주를 종묘에 모시는 부모(祔廟)를 하였다.

발인이 시작되면 국왕이 왕세자로 책봉될 때 받은 교명·죽책·옥인, 존호를 올릴 때 받은 어보와 어책, 시보와 시책이 재궁과 함께 장지로 이동하였고, 반우 때에는 행렬과 함께 혼전으로 돌아와 보관되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부모할 때 혼전에 있던 어보·어책·교명은 종묘로 이동하여 신실에 보관되었다. 그런데 효종이 왕세자 책봉 때 받았던 죽책과 옥인, 인선왕후가 왕세자빈 책봉 때 받았던 죽책과 옥인은 장지로 이동했다가 왕릉(영릉)에 매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순조국장도감의궤』 발인 반차도에 나타나는 교명·죽책·옥인, 상존호책·보, 시책, 시보>

3. 문조(효명세자, 익종)와 신정황후의 어보·어책·교명

국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존호는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새 존호를 올릴 때마다 이를 새긴 어보와 어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왕과 왕비가 받는 어보와 어책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다.

문조와 신정황후는 가장 많은 어보와 어책을 받은 국왕(황제)과 왕비(황후)라 할 수 있다. 문조는 세자의 지위에서 사망했으나 아들 헌종에 의해 국왕으로 추승되었고, 양자인 고종에 의해 황제로 추존되었다. 문조의 부인인 신정황후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왕비, 황후가 되었다. 고종은 신정황후의 발탁으로 문조와 신정황후의 후사가 되어 국왕이 되었으므로, 고종은 여러 차례 존호를 올렸다.

다음의 <표>는 문조와 신정황후가 받은 존호와 제작된 어보·어책·교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문조·신정황후의 존호와 어보·어책·교명

| 시기 | 문조 존호 | 신정황후 존호 | 어보 어책 교명 | 비고 |
|--------------------------------|-------------------------|---------|----------------|-----------------------|
| 1812. 07. 06. | 王世子 | | 옥인 죽책 교명 | 세자 책봉 |
| 1819. 10. 11. | | 王世子嬪 | 죽책 | 세자빈 책봉 |
| 1830. 07. 15. | 孝明(시호) | | 옥인 죽책 | 문조 사망 |
| 1835. 05. 19. | 翼宗(묘호) 敦文顯武 仁懿孝明(시호) | | 금보 옥책 | 문조 국왕 추승 |
| 1836. 10. 11. | | 孝裕 | | 순조 부모 후 |
| 1848. 03. 15. 1848. 03. 16. | 體元贊化 錫極定命 | 獻聖 | 금보 | 신정황후 망오 |
| 1852. 08. 10. | | 宣敬 | | 헌종 부모 후 |
| 1853. 10. 08. 1853. 10. 09. | 聖憲英哲 睿誠淵敬 | 正仁 | 금보 옥책 옥보 | 철종 즉위 4년 |
| 1859. 10. 11. | | 慈惠 | 옥보 옥책 | 순원황후 부모 후 |
| 1863. 12. 21. | | 弘德 | 옥보 옥책 | 은언군 종계 변무 |
| 1866. 02. 10. | | 純化 | 옥보 옥책 | 철종 부모 후 |
| 1866. 04. 03. 1866. 04. 04. | 隆德純功 篤休弘慶 | 文光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신정황후 철립 |
| 1867. 01. 03. 1867. 01. 04. | 洪運盛烈 宣光潛祥 | 元成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신정황후 60세 |
| 1868. 12. 06. | | 肅烈 | 옥보 옥책 | 신정황후 회갑 |
| 1869. 01. 03. 1869. 01. 06. | 堯欽舜恭 禹勤湯正 | 明粹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문조 60세 |
| 1873. 04. 17. | | 協天 | 옥보 옥책 | 고종 즉위 10년 |
| 1875. 12. 20. 1875. 12. 21. | 啓天建統 神勳肅謨 | 隆穆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문조 세실 지정 |
| 1877. 01. 03. 1877. 01. 07. | 乾大坤厚 廣業永祚 | 壽寧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신정황후 70세 |
| 1878. 01. 09. | | 禧康 | 옥보 옥책 | 신정황후 망팔 |
| 1879. 01. 03. 1879. 01. 04. | 莊義彰倫 行健配寧 | 顯定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가례 60주년 |
| 1883. 01. 06. 1883. 01. 10. | 基泰垂裕 熙範昌禧 | 徽安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왕대비 50주년 |
| 1886. 01. 08. | | 欽倫 | 옥보 옥책 | 신정황후 79세 |
| 1887. 01. 02. 1887. 01. 13. | 立經亨道 成獻昭章 | 洪慶 | 금보 옥책 옥보 옥책 | 신정황후 80세 대리칭정 60주년 |
| 1888. 01. 24. | | 泰運 | 옥보 옥책 | 신정황후 81세 |
| 1888. 03. 13. | | 昌福 | 옥보 옥책 | 고종 즉위 25주년 |
| 1890. 02. 11. | | 熙祥 | 옥보 옥책 | 명성황후 40세 |

| 시기 | 문조 존호 | 신정황후 존호 | 어보 어책 교명 | 비고 |
|--------------------------------|-------------------|--------------------|-------------|------------|
| 1890. 07. 13. | | 景勳哲範(휘호) 神貞(시호) | 금보 옥책 | 신정황후 사망 |
| 1890. 12. 02. 1890. 12. 06. | 致中達和 繼曆協紀 | 翼謨 | 금보 옥책 옥책 | 황후 사후 탄일 |
| 1892. 07. 23. | 剛粹景穆 峻惠衍祉 | 睿憲敦章 | 금보 옥책 | 고종 즉위 30주년 |
| 1899. 11. 17. | 文祖(묘호) 翼皇帝(제호) | 翼皇后 | 옥보 옥책 | 황제 추존 |
| 1899. 11. 17. | | 翼謨→懿謨 | 옥책 | 존호 수정 |
| 1902. 01. 06. | 宏猷愼徽 綏緒佑福 | 啓祉 | 옥보 옥책 | 고종 즉위 40주년 |

이상의 <표>를 보면 문조(호명세자, 익종)는 존호(尊號) 14회, 시호(諡號) 2회, 제호(帝號) 1회를 받았고, 최종 이름은 “體元贊化錫極定命 聖憲英哲睿誠淵敬 隆德純功篤休弘慶 洪運盛烈宣光濬祥 堯欽舜恭禹勤湯正 啓天建統神勳肅謨 乾大坤厚廣業永祚 莊義彰倫行健配寧 基泰垂裕熙範昌禧 立經亨道成獻昭章 致中達和繼曆協紀 剛粹景穆峻惠衍祉 宏猷愼徽綏緒佑福 敦文顯武仁懿孝明 文祖 翼皇帝”가 되었다.

신정황후(신정왕후)는 존호 27회, 휘호 1회를 받았고, 최종 이름은 “孝裕 獻聖 宣敬 正仁 慈惠 弘德 純化 文光 元成 肅烈 明粹 協天 隆穆 壽寧 禧康 顯定 徽安 欽倫 洪慶 泰運 昌福 熙祥 懿謨 睿憲敦章 啓祉 景勳哲範 神貞 翼皇后”가 되었다.

□ 참고문헌

- 김문식·신병주,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김문식, 「조선시대 御冊의 현황과 특징」, 『고궁문화』 9, 2016.
- 김윤정, 「仁宣王后 국상과 水路發引의 실제」, 『의궤에만 있는 이야기: 외규장각 의궤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2023.
- 서준, 「교명과 축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 왕조 어책 - 교명·축책·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 왕조 어책 - 옥책 5』,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손계영, 「敎命의 형태 연구」, 『장서각』11, 2004.
-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 장을연, 「藏書閣 소장 책문탁인본의 현황과 특징」, 『장서각』22, 2009.
- 장을연, 「대한제국기 金冊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고문서연구』46, 2015.

Ⅱ. 어보·어책·교명의 내용과 성격

1. 어보

어보는 크게 형태와 내용별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으로는 어보의 재질과 손잡이 [紐]의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재질은 금·은·백철·옥 등으로 분류되고, 손잡이 형태는 거북[龜紐], 용[龍紐], 막대(直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어보에 새겨진 보문과 의례 내용별로 나누어진다. 보문은 어보에 새겨진 마지막 글자가 ‘~寶’인지, ‘~印’인지 여부에 따라 신분을 파악할 수 있고, 의례의 내용은 왕실에서 행해진 유교적 통과 의례 등으로 생전에 이루어진 책봉(冊封) 및 존호(尊號), 사후에 이루어진 묘호(廟號), 시호(諡號), 전호(殿號), 능호(陵號) 등의 의례가 있다.

1) 어보의 형태

(1) 재질

어보에 주로 사용된 재료는 금·옥·은·백철 등으로 보문 내용과 더불어 금보·금인·옥보·옥인·은인·백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보와 옥보는 왕과 왕비에게 사용되지만 금인·옥인·은인·백철인 등은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에 사용된다.

재질별 어보의 제작 내용을 보면 금동에 도금한 것은 148과(46.5%), 옥 164과(51.6%), 은 5과(1.6%), 백철 1과(0.3%) 등 모두 318과이다.

<표> 어보 재질별 뉴별 현황

| 구분 | 직뉴(直紐) | 귀뉴(龜紐) | 용뉴(龍紐) | 소계(과) | 비율(%) |
|----------|--------|--------|--------|-------|-------|
| 금보(金寶) | | 138 | 2 | 140 | 44 |
| 금인(金印) | 1 | 7 | | 8 | 2.5 |
| 옥보(玉寶) | | 107 | 24 | 131 | 41.2 |
| 옥인(玉印) | | 33 | | 33 | 10.4 |
| 은인(銀印) | 1 | 4 | | 5 | 1.6 |
| 백철인(白鐵印) | 1 | | | 1 | 0.3 |
| 계 | 3 | 289 | 26 | 318 | 100 |

가. 금

금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상왕·태상왕, 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금보로 제작한다. 존호를 올릴 때에나 존숭하는 경우 대상이 살아있을 때에는 옥보를 수여하고, 사후에는 금보를 수여한다. 시호보인 경우에는 금보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추상존호 및 시호를 올릴 때 금보를

올린다.

의궤의 기록을 통해 금보 제작 방법을 살펴보면 황동(黃銅)을 주조하여 만든다고 되어 있다. 순금은 재질이 물러서 글자면이 쉽게 손상될뿐더러 재용(財用)적인 면에서 왕실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동(銅)이나 천은(天銀)으로 제작한 뒤 표면을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²⁶⁾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도 금인을 수여한 예외가 있다. 1795년(정조 19) 1월 17일 정조가 정순왕후 육순과 혜빈 육순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 사도세자에게도 ‘장륜융범 기명창휴(章倫隆範 基命彰休)’라는 존호를 올렸는데 이때 옥으로 된 어보를 올리지 않고 금으로 된 어보를 올렸다.

1855년(철종 6) 1월 21일에는 장헌세자 탄생 2주갑 즉 120년 기념으로 ‘찬원헌성 계상현희(贊元憲誠 啓祥顯熙)’라는 존호를 올리고 역시 금으로 어보를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혜경궁 홍씨에게도 금인을 올렸는데 1816년(순조 16) 2월 27일 ‘헌경(獻敬)’이라는 시호를 올린 경우와 1855년(철종 6) 1월 21일 장헌세자 탄생 2주갑 즉 120년 기념으로 ‘유정(裕靖)’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금으로 어보를 제작했다.

나. 옥

옥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이고 옥인을 수여하는 대상은 세자와 세자빈 또는 후궁이다.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생시(生時)에 올리는 상존호나 가상존호인 경우에는 옥보를 수여한다. 세자나 세자빈, 후궁인 경우에는 책봉 및 시호를 올릴 때 옥인을 수여한다.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 『춘관통고(春官通考)』 등의 기록을 보면 옥보의 재질을 청옥이나 백옥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수여 대상에 따라 옥의 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수급되는 내용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묘등록(宗廟騰錄)』의 내용을 보면 옥책을 제작할 때 옥의 재질은 백옥, 청옥, 흑옥 3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보에서 흑옥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각종 『의궤(儀軌)』 등에 주로 경기도 남양(南陽) 옥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양옥은 어보뿐만 아니라 옥책을 비롯하여 석경(石磬)²⁷⁾·규(圭)²⁸⁾·옥대(玉帶)²⁹⁾ 등에도 사용한다.

26) 종묘등록이나, 종묘의궤에서 ‘동황동도금’, ‘천은도금’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다.

27)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8월 26일(임진) …今京畿南陽所產石有聲 請遣玉人採來 依古體制造作試之 …

28)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1450) 3월 3일(정미) …佩用藥玉 圭用南陽玉 安於外粹宮 …

29)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10월 25일(경인) …正帶今冬至使當得來 而嘉禮帶 欲用南陽玉 …

다. 은

은으로 만든 어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세자나 왕세자빈, 후궁 등이다. 의례별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왕세자나 왕세자빈인 경우 책봉 시 은으로 어보를 제작하고 후궁인 경우 시호를 내릴 때 은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은은 품질이 가장 뛰어난 천은(天銀)을 사용한다. 한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기록을 통하여 고려 시대에도 은으로 만든 인장을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수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왕의 정배(正配)는 비(妃)로 일컬어 책봉하여 금인(金印)을 주고, 세자의 정배는 빈(嬪)으로 일컬어 책봉하여 은인(銀印)을 주며 여러 왕자의 정배는 옹주로 일컫고 왕녀는 궁주(宮主)로 일컬어 모두 은인을 주도록 하배하소서.”³⁰⁾

은인은 기록에 의하면 모두 12과가 제작되었다. 대상별로 보면 왕세자 4과 왕세자빈 5과, 후궁 3과 등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국초(國初)에 ‘빈궁효부인(嬪宮孝婦印)’은 곧 은인(銀印)이었으니³¹⁾”라는 내용은 태종이 세종비 소헌왕후에게 내린 것이다. 그리고 정조실록 1권, 정조 대왕 행장(行狀)에 “내 나이 21세 때 유서(諭書)와 도상(圖像)을 받았었는데, 《내훈(內訓)》을 보았더니 태종께서 효부은인(孝婦銀印)을 소헌왕후(昭憲王后)에게 내린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1418년(태종 18) 소헌왕후를 ‘경빈(敬嬪)’으로 봉할 때 내린 어보가 은인임을 알 수 있다.

1735년(영조 11) 3월 16일 “소혜왕후의 수빈(粹嬪)이라는 은인(銀印)은 아직도 태실(太室)에 있습니다만”³²⁾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본래 정빈(貞嬪)이었던 소혜왕후의 작호를 수빈(粹嬪)으로 고치면서 내린 ‘효부수빈인(孝婦粹嬪印)’ 또한 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20년(중종 15) 인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은으로 제작한 귀뉴의 어보를 수여하였으며³³⁾ 1524년(중종 19) 인종비 인성왕후가 세자빈으로 책봉되면서 받은 어보도 은인이다. 그러나 『명종실록』 9년(1554) 기록을 보면 “전년도 경북궁 화재로 문정왕후와 인성왕후의 보(寶)·옥책(玉冊)·교명(敎命)·인(印)이 모두 불타 다시 만들었다.”³⁴⁾는 기록이 있어 이 때 재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폐위된

30) 『증보문헌비고』 권 225권, 직관고 12, 외명부.

31)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10월 22일(경해) “宜有差等, 而國初嬪宮孝婦印, 卽銀印也, 今番世孫嬪印, 龜頭銀印, 竹冊只內匣, 粧飾勿爲起花, 用(袖) 袱。”

32)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3월 16일(병술) ○ 昭惠王后 粹嬪銀印.

33) 宗廟謄錄 上,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79쪽,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1520) 4월 22일(기묘) ○ 己卯/冊封王世子.

34)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1554) 6월 7일(병자) ○ 聖烈仁明大王大妃、恭懿王大妃寶、玉冊、敎命、印成、進之。前年秋景福宮災, 寶及玉冊、敎命、印, 皆火, 故命改之, 至是成。

광해군의 왕세자 책봉 어보 또한 은인으로 제작한 기록이 있다.³⁵⁾

영조는 생모 숙빈최씨를 추송하면서 감히 옥인은 바랄 수는 없더라도 은인이라도 올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결국 은인으로 제작하였다.³⁶⁾ 이후 정조비 효의왕후 세손빈 책봉 시에도 은인을 제작하였다.³⁷⁾

효장세자의 이복동생인 사도세자가 폐서인되면서 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入籍)되었는데 이때 효장세자와 효순왕후에게 ‘승통(承統)’이라는 가호를 올리면서 은인을 제작하였다.

현존하는 은인은 6과로 이 중 5과가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수여한 것이고 1과만 후궁에게 수여한 것이다. 이중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이 5과이다.

<표> 은인 어보 현황

| 연번 | 왕, 왕비 | 보문 | 제작 연도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인종비 인성왕후 | 王世子嬪之印 | 1524년(중종 19, 甲申) 1554년(명종 9, 甲寅) 재제작 | 148 | 은인직뉴 |
| 2 | 정조비 효의왕후 | 王世孫嬪之印 | 1762년(영조 38, 壬午) | 230 | 은인귀뉴 |
| 3 | 진종 | 孝章 承統世子之印 | 1776년(영조 52, 丙申) | 42 | 은인귀뉴 |
| 4 | 진종비 효순왕후 | 孝純 承統賢嬪之印 | 1776년(영조 52, 丙申) | 215 | 은인귀뉴 |
| 5 | 정조 | 孝孫八十三書 | 1776년(영조 52, 丙申) | 39 | 은인귀뉴 |

이러한 하교 이후부터 세자나 세자빈의 책봉인은 옥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은(銀)은 금속으로 옥보다 귀한 재료였으나, 세자·세자빈이 옥인을 사용하게 되면서 옥의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영조 대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라. 백철

백철로 제작된 어보는 단 1과로 예종비 장순왕후 상시호 백철인 1과이다. 장순왕후는 한명회(韓明澮)의 딸로 1460년(세조 6)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인성대군을 낳고 사망했다. 이때 ‘장순(章順)’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제작한 인(印)으로 직뉴로 제작되었다. 인면(印面)은 전각(篆刻)의 훼손이 심각하여 훼손되어 네 모서리 부분의 글자 일부만 파악될 뿐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망실되어 있다.

숙종 23년(1697) 작성된 『종묘의궤(宗廟儀軌)』의 기록에는

第九室 睿宗室 章順嬪韓氏之印 白鐵鍍銀 天順四年 世祖朝庚辰四月丁巳 印篆缺破³⁸⁾

35)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1592) 9월 9일(병인) ○禮曹啓曰: “王世子銀印’敎(王).

36)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1753) 7월 27일(경진) “予將告于慈聖矣。 予爲私親, 雖不敢望玉印, 豈不可爲銀印乎?”

37)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10월 22일(정해) “宜有差等, 而國初嬪宮孝婦印, 卽銀印也, 今番世孫嬪印, 龜頭銀印, 竹冊只內匣, 粧飾勿爲起花, 用(袖) 袱.

38) 서울대학교 규장각 『宗廟儀軌』 下, 1997, 416쪽.

종묘 영녕전 제9실 예종실 보장에 소장된 장순빈 한씨의 인이 백철에 은도금한 것으로 천순 4년 1460년(세조 6) 경진년 4월 정사일에 만들어 올린 것인데 각을 한 인면이 떨어져 나가고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숙종 31년(1705) 기사에

“9실(室) 장순빈(章順嬪)의 백철인(白鐵印)은 겨우 형체만 남아 있으며, (중략) 장순빈(章順嬪)의 백철인(白鐵印)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손상된 바가 없고 다만 윗면의 주정(柱頂)이 떨어져 나가 나무껍질의 형상과 같으나, 그다지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³⁹⁾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영조 10년(1734) 기사에도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

“임금이 태묘(太廟)에 거둥하였으니, 하향(夏享)을 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망묘례(望廟禮)를 행하고 각실(各室)의 책보(冊寶)를 봉심(奉審)하였으며, 이를 마치고 이어서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망묘례를 행하고 책보를 봉심하였다. 예종묘(睿宗廟)에는 세자(世子) 때의 금보(金寶)가 있었는데 손을 대자 곧 부서졌으니, 대개 백철(白鐵)인 때문이었다.”⁴⁰⁾

앞의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장순왕후의 백철인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손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철로 제작된 단 1개의 어보로 조선 초기 세자와 세자빈 책봉에는 은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은을 대체하여 백철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손잡이[鈕]

어보의 손잡이 즉鈕(鈕)의 모양으로 어보를 분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鈕의 모양이 여러 가지 동물을 형상화하여 여러 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 크게 용모양[龍鈕]·거북모양[龜鈕]·막대모양[直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의 <표>의鈕별 현황을 보면 직鈕가 3과(0.9%), 귀鈕가 289과(90.9%), 용鈕가 26과(8.2%)를 차지하고 있어서 귀鈕로 제작된 어보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직鈕

직鈕는 손잡이가 막대처럼 생긴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현존하는 것은 모두 3과이며,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 남아있는 3과는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 예종비 장순왕후 상시호 백철인,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 책봉 은인이다.

39) 숙종실록 41권, 숙종 31년(1705) 윤4월 12일(을사) 九室章順嬪白鐵印, 僅存形體, … 至於章順嬪白鐵印, 他無所傷, 惟上面柱頂剝落, 如木皮狀, 不至深慮。 仍舊封藏, 則不至於改造。 設或改造, 與十一室事體無異, 事宜一體舉行。

40)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1734) 4월 7일(임자) 壬子/上幸太廟, 爲行夏享也。 是日, 行望廟禮, 奉審各室冊寶訖, 仍詣永寧殿, 行望廟禮, 奉審冊寶。 睿宗廟有世子時寶, 觸手輒碎, 蓋白鐵也。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은 1441년(세종 23) 당시 왕세자빈이었던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자, 이때 ‘현덕(顯德)’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인면(印面)에는 ‘현덕빈인(顯德嬪印)’이라고 새겨져 있고 인판은 3단의 계단 형태로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다. 막대형의 손잡이는 직육면체의 모습으로 윗부분은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으며, 막대 아랫부분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 인끈[綬]을 연결하였다.

예종비 장순왕후 상시호 백철인은 1461년(세조 7) 왕세자빈이었던 장순왕후가 인성대군을 낳고 사망하자 ‘장순(章順)’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인면(印面)에는 ‘장순빈한씨지인(章順嬪韓氏之印)’이라고 새겼으나 지금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심하다. 인판은 3층 계단식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막대 손잡이 아래에는 구멍을 뚫어 인끈을 연결하였다.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 책봉 은인은 중종 19년(1524) 인성왕후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인면에는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이라고 새겨져 있다. 2단의 인판에 막대형의 손잡이 형태이며, 손잡이 윗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아랫부분에는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 인끈을 연결하였다.

위의 세 인(印)은 조선전기에 제작되었다는 점과 왕세자빈에게 수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세자빈의 인장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나. 귀뉴

예로부터 거북의 솟아오른 등은 하늘을, 평평한 아래 부분은 땅을 상징하였으며 특히 등껍질의 연속되는 무늬는 장구(長久)와 연면(連綿)을 상징하며,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기운을 가진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선사시대 암각화, 탐비의 귀부(龜趺) 등 다양한 곳에서 거북을 형상화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권위와 품위를 나타내는 어보의 손잡이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귀뉴의 전통은 명(明)·청(淸)으로부터 받았던 6과의 국새 또한 귀뉴였음은 한대(漢代)로부터 전해진 전통이 후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⁴¹⁾ 그리고 왕실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어보에 거북 모양의 뉴를 사용한 것은 왕실의 신성성과 장수를 염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에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후대로 갈수록 장식성을 첨가하였다. 처음 거북에서 나중에는 용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귀두(龜頭) 부분은 초기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점차 앞니와 송곳니를 드러내었다. 코는 콧구멍 두 개만을 표현하다가 튀어나오게 강조하였으며 눈은 선으로 표현하다가 동그랗게 튀어나오도록 표현하였다. 꼬리는 초기에는 세 가닥으로 곧게 뻗었다가 차츰 세 가닥의 꼬리를 좌측으로 몸에 붙였다가 후대로 갈수록 한 가닥으로 표현하였다. 귀갑문은 2~3개의

41)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235쪽.

구획선에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가 후대로 갈수록 선각으로만 표현되기도 하고 물고기의 비늘처럼 표현되기도 하였다.

다. 용뉴

전설상의 동물인 용은 전통적으로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의 신하로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원(元)대에는 용을 황실의 전용물로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황제만이 용뉴의 어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조선 초기에도 용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⁴²⁾

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에 전알(展謁)하였다.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전배하고 전내(殿內)와 제1실의 책보(冊寶)를 봉심(奉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난을 겪은 뒤 숙묘(肅廟) 계사년⁴³⁾에 추상(追上)한 옥책(玉冊)인가?”

하니, 도제조 정홍순(鄭弘淳)이 말하기를,

“신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등록(騰錄)을 조사하여 보라고 명하였는데, 용두금보(龍頭金寶)는 곧 숙묘 계사년에 추상한 것이었고, 귀두금보(龜頭金寶)는 곧 태종 무자년⁴⁴⁾에 올린 것이었다. 이어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배하고 봉심하였으며, 경모궁에 나아가 전배하고 봉심한 다음 환궁하였다.⁴⁵⁾

위의 기록 중 용두금보(龍頭金寶)는 숙묘 계사년이 아니라 태종 무자년에 ‘태조(太祖)’라는 묘호와 ‘지인계운 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만든 어보이고, 숙묘 계사에 만들었다는 것은 숙묘 계해⁴⁶⁾에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더 올리면서 만든 귀두금보(龜頭金寶)이다. 이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실록의 기사 내용이 서로 바뀌었고 제작 연도 또한 오기(誤記)로 보인다.

『종묘의궤(宗廟儀軌)』 책보 항에 종묘 제1실 태조실에 봉안된 태조의 어보 중 “지인계운 성문신무 대왕지보(至仁啓運 聖文神武 大王之寶)는 금보(金寶)이고 용모양 인꼭지(龍鈕)이다. 영락(永樂) 6년 태종조 무자년(1408, 태종8) 9월에 올린 시호이다”⁴⁷⁾ 라고 기록되어 있다.

42) 1408년(태종 8, 무자)에 제작한 태조 금보(至仁啓運 聖文神武 大王之寶).

1419년(세종 1, 기해)에 제작한 정종 금보(溫仁恭勇順孝 大王之寶).

1422년(세종 4, 임인)에 제작한 태종 금보(聖德神功 文武光孝 大王之寶).

43) 숙종 39년(1713) 계사.

44) 태종 8년(1408) 무자.

45) 정조실록 6권, 2년(1778) 7월 16일(계묘) ○癸卯/展謁宗廟、景慕宮。上詣宗廟展拜。奉審殿內及第一室冊寶。上曰：“此是經亂後肅廟癸巳年追上王冊乎？”都提調鄭弘淳曰：“臣未之詳矣。”命考騰錄。龍頭金寶，卽肅廟癸巳年追上者也。龜頭金寶，卽太宗戊子年所上者也。仍詣永寧殿，展拜奉審，謁景慕宮，展拜奉審，還宮。

46) 숙종 9년(1683) 계해.

47) 奎章閣資料叢書 儀軌篇 『宗廟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397쪽.

또한 『종묘등록(宗廟謄錄)』의 기록에 1408년(태종 8) 9월에 제작된 태조 시호 금보와 1419년(세종 1) 12월에 만든 정종 시호금보, 1422년(세종 4) 9월에 제작된 태종 시호금보 등 3과가 용뉴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용뉴의 어보가 제작되었으나, 세종 때부터 명(明)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귀뉴의 어보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용뉴 어보는 금보 2과, 옥보 24과로 모두 대한제국(1897~1908)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즉 황제국으로서 높아진 위상을 표현한 것이다.

<표> 용뉴 어보 현황

| 연번 | 왕, 왕비 | 보문 | 수여 연도 | 재질 | 뉴 | 유물번호 |
|----|------------|--|-----------------------------------|----|----|------|
| 1 | 太祖 | 至仁啓運 聖文神武 大王之寶 | 1408(太宗 8, 戊子) 9월 4일 | 금보 | 용뉴 | |
| 2 | 太祖 | 太祖 高皇帝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
| 3 | 신의왕후 한씨 | 高皇后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107 |
| 4 | 신덕왕후 강씨 | 高皇后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108 |
| 5 | 定宗 | 溫仁恭勇順孝 大王之寶 | 1419(世宗 1, 己亥) 12월 24일 | 금보 | 용뉴 | |
| 6 | 太宗 | 聖德神功 文武光孝 大王之寶 | 1422(世宗 4, 壬寅) 9월 2일 | 금보 | 용뉴 | |
| 7 | 眞宗 | 眞宗 昭皇帝寶 |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 옥보 | 용뉴 | 44 |
| 8 | 효순왕후 조씨 | 昭皇后寶 |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 옥보 | 용뉴 | 210 |
| 9 | 莊祖 | 莊祖 懿皇帝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45 |
| 10 | 현경왕후 홍씨 | 懿皇后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216 |
| 11 | 正祖 | 正祖 宣皇帝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54 |
| 12 | 효의왕후 김씨 | 宣皇后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226 |
| 13 | 純祖 | 純祖 肅皇帝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58 |
| 14 | 순원왕후 김씨 | 肅皇后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232 |
| 15 | 文祖 (翼宗) | 文祖 翼皇帝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70 |
| 16 | 文祖 (翼宗) | 體元贊化 錫極定命 聖憲英哲 睿誠淵敬 隆德純功 篤休弘慶 洪運盛烈 宣光潛祥 堯欽舜恭 禹勤湯正 啓天建統 神勳肅謨 乾大坤厚 廣業永祚 莊義彰倫 行健配寧 基泰垂裕 熙範昌禧 立經亨道 成獻昭章 致中達和 繼曆協紀 剛粹景穆 峻惠衍祉 宏猷愼徽 綏緒佑福 敦文顯武 | 1902(광무 6, 壬寅) 1월 6일(양2.13) | 옥보 | 용뉴 | 84 |

| 연번 | 왕, 왕비 | 보문 | 수여 연도 | 재질 | 뉴 | 유물번호 |
|----|------------|---|-----------------------------------|----|----|------|
| | | 仁懿孝明 翼皇帝寶 | | | | |
| 17 | 신정왕후 조씨 | 翼皇后寶 | 1899(광무 3, 己亥) 11월 17일(양12.19) | 옥보 | 용뉴 | 247 |
| 18 | 신정왕후 조씨 | 孝裕 獻聖 宣敬 正仁 慈惠 弘德 純化 文光 元成 肅烈 明粹 協天 隆穆 壽寧 禧康 顯定 徽安 欽倫 洪慶 泰運 昌福 熙祥 懿謨 睿憲 敦章 啓祉 景勳 哲範 神貞 翼皇后寶 | 1902(광무 6, 壬寅) 1월 6일(양2.13) | 옥보 | 용뉴 | 270 |
| 19 | 憲宗 | 憲宗 成皇帝寶 |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 옥보 | 용뉴 | 87 |
| 20 | 효현왕후 김씨 | 成皇后寶 |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 옥보 | 용뉴 | 271 |
| 21 | 효정왕후 홍씨 | 成皇后寶 |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 옥보 | 용뉴 | 272 |
| 22 | 哲宗 | 哲宗 章皇帝寶 |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 옥보 | 용뉴 | 92 |
| 23 | 철인왕후 김씨 | 章皇后寶 | 1908(융희 2, 戊申) 7월 3일(양7.30) | 옥보 | 용뉴 | 292 |
| 24 | 高宗 | 統天隆運 肇極敦倫 正聖光義 明功大德 堯峻舜徽 禹謀湯敬 應命立紀 至化神烈 巍勳洪業 啓基宣曆 皇帝之寶 | 1900(광무 4, 庚子) 1월 18일(양2.17) | 옥보 | 용뉴 | 중박 |
| 25 | 高宗 | 統天隆運 肇極敦倫 正聖光義 明功大德 堯峻舜徽 禹謀湯敬 應命立紀 至化神烈 巍勳洪業 啓基宣曆 乾行坤定 英毅弘休 皇帝之寶 | 1902(광무 6, 壬寅) 1월 18일(양2.25) | 옥보 | 용뉴 | 중박 |
| 26 | 高宗 | 壽康 太皇帝寶 | 1907(융희 1, 丁未) 8월 2일(양2.25) | 옥보 | 용뉴 | 환수 |
| 27 | 명성황후 민씨 | 皇后之寶 | 1897(광무 1, 정유) 9월 17일 | 금보 | 용뉴 | 299 |
| 28 | 명성황후 민씨 | 孝慈 元聖 正化 合天 洪功 明成 皇后之寶 | 1900(광무 4, 庚子) 1월 18일(양2.17) | 옥보 | 용뉴 | 305 |
| 29 | 명성황후 민씨 | 孝慈 元聖 正化 合天 洪功 誠德 明成 皇后之寶 | 1902(광무 6, 壬寅) 1월 25일(양3.4) | 옥보 | 용뉴 | 306 |
| 30 | 純宗 | 皇太子寶 | 1897(광무 1, 정유) 9월 17일 | 금보 | 용뉴 | |
| 31 | 순명황후 민씨 | 純明 皇后之寶 | 1907(융희 1, 정미) 7월 19일(양8.27) | 금보 | 용뉴 | |
| 32 | 순정황후 윤씨 | 皇后之寶 | 1907(융희 1, 丁未) 7월 23일 | 금보 | 용뉴 | |
| 33 | 영친왕 | 皇太子寶 | 1907(융희 1, 丁未) 9월 7일 | 금보 | 용뉴 | 310 |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을 선포함과 동시에 명성왕후를 황후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어보는 금보 용뉴로 보문은 ‘황후지보(皇后之寶)’이다. 몸체는 물고기 비늘로 덮였고 등에 지느러미와 화염 형태의 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뿔은 사슴의 뿔[鹿茸] 형태이고, 얼굴에는 갈기와 충수를 달았고, 꼬리는 말 꼬리처럼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몸체를 덮고 있다. 귀는 소의 귀를 닮았고,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형적인 용의 특징들은 갖추고 있다. 한편 이때 함께 제작된 순종 황태자보 또한 금보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전하지 않는다.

1899년(광무 3) 태조를 비롯한 고종의 직계(直系)인 장조, 정조, 순조, 문조와 그들의 비를 황제(皇帝)와 황후(皇后)로 추존하면서 용뉴의 옥보를 제작하였다. 또한 1900년(광무 4)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옥보 용뉴의 어보를 제작하였고, 1902년(광무 6) 문조와 신정왕후, 고종, 명성황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옥보 용뉴의 어보를 제작하였다. 이 중 고종 옥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907년(융희 1) 순종이 퇴위한 고종에게 ‘수강태황제(壽康太皇帝)’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옥보 용뉴의 어보를 제작하였는데, 모든 어보의 보신이 방형(方形)인데 이 어보만 유일하게 보신의 형태가 팔각형이다.



<사진> 1899년(광무 3) 제작 용뉴 옥보



<사진> 1908년(융희 2) 제작 용뉴 옥보

『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儀軌)』(奎 13163)의 도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8면의 측면에는 팔괘가 새겨져 있다. 1924년 이후 분실한 것을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반환하여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같은 해 순명효황후와 순정효황후의 책봉 금보 2과가 제작되었는데 현재 분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한편 영친왕 황태자 금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8년(융희 2), 1899년(광무 3)에 있었던 태조를 비롯한 고종의 직계 4대조 왕들에 대한 황제 추존 작업에서 미처 추존하지 못했던 진종·헌종·철종과 왕비들을 황제(皇帝)와 황후(皇后)로 추존하면서 용뉴의 옥보를 제작하였다. 이 때 추존된 임금들은 모두 순종의 방계(傍系)이다.

대한제국은 약 13년 동안 존속했으나 고종 때 제작된 용뉴 옥보와 순종 때 제작된 용뉴 옥보의 형태가 한눈에 봐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고종 때 제작된 것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용뉴의 금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조각 자체가 힘이 있고 위엄이 느껴지지만 순종 때 제작된 것들은 대체로 세부적 표현이 많이 생략되고 얼굴이 해학적인 것이 특징이다.

2) 어보의 내용

(1) 보(寶)와 인(印)

왕의 경우 왕세자 책봉 때는 옥인, 등극 이후의 존호는 옥보, 사후의 존호와 시호·묘호를 올릴 때는 금보를 수여한다. 왕비의 경우 왕세자빈 책봉 때는 옥인, 왕비 책봉 때는 금보, 생전에 존호를 올릴 때는 옥보, 사후의 존호·시호·휘호를 올릴 때는 금보를 수여한다. 즉 세자와 세자빈 등의 신분일 경우에는 인(印)이라 하고 왕이나 왕비 등의 신분일 경우에는 보(寶)라 한다.

<표> 신분별 보와 인

| | 왕세자 | 왕세자빈 | 왕 | | 왕비 | | 비고 |
|--------|-----|------|----|----|----|----|----|
| | | | 생전 | 사후 | 생전 | 사후 | |
| 책봉(冊封) | 玉印 | 玉印 | - | - | 金寶 | - | |
| 존호(尊號) | 玉印 | 玉印 | 玉寶 | 金寶 | 玉寶 | 金寶 | |
| 시호(諡號) | 玉印 | 玉印 | - | 金寶 | - | 金寶 | |
| 묘호(廟號) | - | - | - | 金寶 | - | - | |
| 휘호(徽號) | - | - | - | - | - | 金寶 | |

가. 보

‘~보(寶)’의 어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상왕·태상왕·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내용별로는 왕과 왕비 등에게 책봉·존호·시호·묘호·휘호를 수여할 경우에 ‘~보(寶)’의 어보를 사용한다. 왕의 경우 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를 올릴 경우, 시호와 묘호를 올릴 경우 ‘~보(寶)’를 사용하며 왕비의 경우에도 책봉 때와 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를 올릴 경우, 시호와 휘호를 올릴 경우 보문에 ‘~보(寶)’를 사용한다.

나. 인

일반적으로 ‘~인(印)’의 어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비롯한 후궁이다. 내용별로는 왕세자와 왕세자빈, 후궁에게 책봉·존호·시호를 수여할 경우에 ‘~인(印)’의 어보를 사용한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왕비나 왕대비의 어보임에도 불구하고 인(印)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었다.

<표> ‘~보(보)’라고 새겨야 하나 ‘~인(印)’으로 잘못 새겨진 어보

| 연번 | 대상 | 제작연도 | 수여 내용 | 새겨진 보문 | 비고 |
|----|-------------|-------------------|-----------|----------------------|----|
| 1 | 정종비 정안왕후 | 1400년 (정종 2) | 존호 순덕(順德) | 순덕왕대비지인 (順德王大妃之印) | |
| 2 | 태종비 원경왕후 | 1418년 (세종 즉위년) | 존호 후덕(厚德) | 후덕왕대비지인 (厚德王大妃之印) | |

| 연번 | 대상 | 제작연도 | 수여 내용 | 새겨진 보문 | 비고 |
|----|-------------|------------------|------------------|----------------------------|---------|
| 3 | 태종비 원경왕후 | 1420년 (세종 2) | 시호 원경(元敬) | 원경왕후지인 (元敬王后之印) | 고대 |
| 4 | 덕종비 소혜왕후 | 1471년 (성종 2) | 존호 인수(仁粹) | 인수왕비지인 (仁粹王妃之印) | |
| 5 | 덕종비 소혜왕후 | 1475년 (성종 6) | 왕대비로 진봉 | 인수왕대비지인 (仁粹王大妃之印) | |
| 6 | 덕종비 소혜왕후 | 1494년 (성종 25) | 존호 자숙(慈淑) | 인수자숙대왕대비지인 (仁粹慈淑大王大妃之印) | |
| 7 | 예종비 안순왕후 | 1471년 (성종 2) | 존호 인혜(仁惠) | 인혜왕대비지인 (仁惠王大妃之印) | 118 |
| 8 | 성종비 공혜왕후 | 1497년 (연산군 3) | 휘호 휘의신숙(徽懿愼肅) | 휘의신숙공혜왕후지인 (徽懿愼肅恭惠王后之印) | 고궁 1558 |

사례로 든 어보들은 일반적으로 ‘~지보(~之寶)’라고 해야 하나 ‘~지인(~之印)’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에는 보문에 관해 명확한 개념과 규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의례별

어보의 내용 분류를 보면 왕실 인사의 명칭 및 호칭과 가장 큰 관련을 지닌다. 이는 각종 의례에 따른 분류라 볼 수 있다. 가례(嘉禮)·길례(吉禮)·흉례(凶禮) 의식에 따른 상존호(上尊號)·상시호(上諡號)·상휘호(上徽號) 등을 올리면서 어책(御冊)·교명(敎命)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책봉(冊封)·존호(尊號)·시호(諡號)·묘호(廟號)·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어보를 제작한다.

왕의 경우 왕세자로 책봉 될 시, 등극 이후의 존호, 사후의 존호·시호·묘호를 올릴 때 어보가 만들어진다. 왕비는 세자빈으로 책봉 될 시, 왕비 책봉 시, 생전의 존호, 사후의 존호·시호·휘호를 올릴 때 마다 어보를 만들었다.

의례별 어보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의례별 어보 현황

| 연번 | 내용 | 구분 | 수량 | 비고 |
|----|----|---------|----|----|
| 1 | 책봉 | 왕세자 책봉 | 8 | |
| 2 | | 왕세자빈 책봉 | 7 | |
| 3 | | 왕세제 책봉 | 1 | |
| 4 | | 왕세제빈 책봉 | 1 | |
| 5 | | 왕세손 책봉 | 2 | |
| 6 | | 왕세손빈 책봉 | 1 | |
| 7 | | 왕비 책봉 | 16 | |
| 8 | | 태후 책봉 | 1 | |
| 9 | | 황후 책봉 | 1 | |

| 연번 | 내용 | 구분 | 수량 | 비고 |
|----|----|---------|-----|----|
| 10 | | 황태자 책봉 | 1 | |
| 11 | | 황태자비 책봉 | 1 | |
| 12 | 존호 | 상존호 | 24 | |
| 13 | | 가상존호 | 85 | |
| 14 | | 추상존호 | 88 | |
| 15 | 시호 | 상시호 | 58 | |
| 16 | | 추상시호 | 8 | |
| 17 | 휘호 | 상휘호 | 11 | |
| 18 | 기타 | 기타 | 4 | |
| 소계 | | | 318 | |

가. 책봉 어보

책봉(冊封)이란 ‘책명(冊命)’과 ‘봉작(封爵)’의 합성어로서, 책명은 ‘책(冊)으로 명(命)한다’는 뜻이고, 봉작은 ‘봉토(封土)하고 수작(授爵)한다’는 뜻이다. 봉작에서의 ‘봉토’는 고대 중국에서 시행된 봉건제도에서 제후에게 토지를 분봉(分封)한다는 의미이고, ‘수작’은 제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수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책봉이란 분봉을 통해 제후를 봉건하고 제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책(冊)으로 명(命)하는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의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중국적 책봉체제 속에 포섭되면서 국내적으로도 책봉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 삼국시대부터 어보와 어책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없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 인종 24년(1146)에 인종의 시호를 올리며 지은 글을 새긴 시책(諡冊)⁴⁸⁾이 소장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에 고려의 인신(印信)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고려 시대에도 어보와 어책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책봉의 대상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왕세손빈, 후궁이며 대한제국 때에는 황태자·황태자비·황제·황후 등이다. 책봉 어보의 보문 형식은 왕비나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는 명칭 뒤에 ‘~지보(之寶)’를 붙이고 왕세자·왕세제·왕세손, 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은 명칭 뒤에 ‘인(印)’이나 ‘~지인(之印)’을 붙인다.⁴⁹⁾ 즉 ‘妃+之寶, 皇后+之寶, 嬪+之印’이다.

재질은 왕비나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는 금보이고, 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빈은 옥인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선 초기 세자나 왕세자빈의 책봉 어보는 은인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4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인종 시책. 유물번호 본관 4250.

49) 현종의 경우는 왕세자지인이다.

① 왕세자 및 왕세자빈 책봉

세자 책봉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를 정하는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이다.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왕과 황제 중에 적장자의 원칙에 따라 세자 책봉을 받고 왕위에 오른 왕은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등 7명이다. 적장자는 아니지만 그 덕을 인정받거나 중전에게 아들이 없어 후궁의 아들이나 왕족으로서 왕위에 오른 왕은 19명에 이른다. 한편 의경세자(덕종), 소현세자, 효장세자(진종), 장헌세자(장조), 문효세자, 효명세자(문조) 등은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일찍 죽하였고, 양녕대군, 연산군의 아들, 광해군의 아들 등은 폐세자가 되어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세자들도 있었다.

왕세자 책봉 중 가장 이른 나이에 책봉된 세자는 사도세자(장조)와 순종으로, 책봉 당시 2세였다. 영조의 장남이었던 효장세자(진종)가 10세 때인 1728년(영조 4)에 졸하였다. 그로부터 7년 뒤인 영조의 나이 42세에 사도세자가 태어났으므로 서둘러 세자를 책봉한 것으로 보인다. 경종과 문효세자 또한 3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이밖에도 효명세자(문조)는 4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숙종과 효장세자(진종)는 7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가장 늦게 책봉된 세자는 정종으로 43세 때 책봉되었으며, 태종은 34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표> 왕세자 책봉 어보

| 연번 | 세자 | 인문 | 수여 연도 | 어보 | 죽책 | 교명 | 비고 |
|----|----|-------|---------------------------|-----|-----|-----|------|
| 1 | 현종 | 王世子之印 | 1651(효종 2, 辛卯) 8월 28일 | 환수 | 259 | 294 | 옥인귀뉴 |
| 2 | 숙종 | 王世子印 | 1667(현종 8, 丁未) 1월 22일 | 27 | 260 | ○ | 옥인귀뉴 |
| 3 | 경종 | 王世子印 | 1690(숙종 16, 庚午) 6월 16일 | 29 | 261 | 295 | 옥인귀뉴 |
| 4 | 진종 | 王世子印 | 1725(영조 1, 乙巳) 3월 20일 | 41 | 263 | 297 | 옥인귀뉴 |
| 5 | 장조 | 王世子印 | 1736(영조 12, 丙辰) 3월 15일 | 48 | 266 | 298 | 옥인귀뉴 |
| 6 | 순조 | 王世子印 | 1800(정조 24, 庚申) 2월 2일 | 69 | 271 | 300 | 옥인귀뉴 |
| 7 | 문조 | 王世子印 | 1812(순조 12, 壬申) 7월 6일 | 85 | 272 | 301 | 옥인귀뉴 |
| 8 | 순종 | 王世子印 | 1875(고종 12, 乙亥) 2월 18일 | 102 | 275 | 중박 | 옥인귀뉴 |

※ 어보, 죽책, 교명 칸에 기록된 숫자는 유물번호이다. 그리고 중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나타낸 것이며, ○표는 제작하였으나 현재 없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문헌의 기록 및 현존 어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왕세자 책봉 어보는 옥인 귀뉴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문헌에 은인으로 제작된 왕세자 책봉어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종묘등록(宗廟謄錄)』 영녕전 제십(十) 인종실에 ‘세자은보(世子銀寶)⁵⁰⁾ 일(一), 귀뉴(龜鈕)’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덕십오년 중종조경진사월 일 상(正德十五年 中宗朝庚辰四月 日 上)’으로 중종 15년(1520) 4월에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 9월 9일 기사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은인(銀印) 교서(敎書)를 지금 성천(成川)에 보내게 되면 응당 지수(祇受)하는 예(禮)가 있어야 합니다.⁵¹⁾” 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선조 25년 9월 9일 성천에 머물고 있는 왕세자에게 책봉 은인과 교서 등을 보낸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두 문헌의 기록을 고찰한 결과 인종과 광해군의 책봉어보는 은인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인종비 인선왕후의 왕세자빈 책봉인이 은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의 책봉어보 또한 은인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왕세자 책봉인의 보문은 ‘왕세자인’을 사용하였으나, 현종 책봉 어보는 ‘왕세자지인’임을 볼 수 있다.⁵²⁾ 이와 관련한 『현종개수실록』 현종 7년 3월 25일 기사에,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길 “왕세자의 인문(印文)은 지난 신묘년의 규례대로 ‘왕세자지인’이라고 써야 하겠습니까마는, 좌우의 글자 수가 같지 않습니다. 만약 지(之)자를 뺀다면 적합할 것입니다.” 하니, “전후의 인보(印寶)를 고찰해 보면 글자의 수가 짝수나 홀수로 되어 있어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 하자 이판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대체로 인보의 전문(篆文)은 글자 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만 지(之)자를 써서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인문에 쓸 글자는 왕세자인(王世子印) 넷자로 과연 실로 적합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따랐다.⁵³⁾

위 기사를 살펴보면 전문(篆文)에 관한 일정한 규례는 없으나, 대체로 좌우의 글자 수를 맞춰 전문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빈(王世子嬪)은 왕세자의 정배(正配, 嫡室)에게 내린 작위로 흔히 빈궁(嬪宮)이라고 한다. 왕세자빈은 장차 왕비가 될 몸이었기 때문에 간택을 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고 엄중하게 진행하였다.

왕세자빈 책봉어보는 일반적으로 옥인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은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이라고 새겼다.

50) 세자은인(世子銀印)이라고 기록하여야 맞다.

51)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1592) 9월 9일(병인) ○禮曹啓曰: “王世子銀印’敎(王), 今當送于成川, 應有祇受之禮.”

52) 1651년(효종 2)에 편찬한 『현종]세자책례도감의궤』에 보면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 다섯 글자를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53) 『현종개수실록』 현종7년 3월 25일 을사, 太和曰: “王世子印文, 當依辛卯年前規, 書以王世子之印, 而左右字數, 多[寡]不均. 若去之字, 則均適矣.” 上曰: “考見前後印寶, 則字數奇偶, 無一定之規矣.” 吏判金壽恒曰: “凡印寶篆文, 字數不均然後, 用之字以足之. 今此印文, 則所用之字, 以王世子印四字爲文, 實爲均適矣.” 上曰: “依此爲之.”

<표> 왕세자빈 책봉 어보

| 연번 | 왕세자빈 | 인문 | 수여 연도 | 어보 | 죽책 | 교명 | 비고 |
|----|-----------------|--------|------------------------------|-----|-----|-----|------|
| 1 |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 | 王世子嬪之印 | 1524(중종 19, 甲申) 3월 5일 재제작 | 148 | ○ | × | 은인귀뉴 |
| 2 |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 | 王世子嬪之印 | 1671(현종 12, 辛亥) 3월 22일 | 158 | 277 | 306 | 옥인귀뉴 |
| 3 |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 | 王世子嬪之印 | 1696(숙종 22, 丙子) 5월 15일 | 182 | 278 | 309 | 옥인귀뉴 |
| 4 |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 | 王世子嬪之印 | 1718(숙종 44, 戊戌) 9월 13일 | 185 | 280 | 311 | 옥인귀뉴 |
| 5 |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 | 王世子嬪之印 | 1727(영조 3, 丁未) 9 월 27일 | 213 | 282 | 315 | 옥인귀뉴 |
| 6 |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 | 王世子嬪之印 | 1744(영조 20, 甲子) 1월 9일 | 219 | 285 | 316 | 옥인귀뉴 |
| 7 | 순종비 순명황후 민씨 | 王世子嬪之印 | 1882(고종 19, 壬午) 2월 19일 | 311 | 292 | ○ | 옥인귀뉴 |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는 1524년(중종 19) 11살의 나이에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이 때 받은 책봉 어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 된 왕세자빈 책봉 어보이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는 1696년(숙종 2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경종이 즉위하기 전 사망하였다.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왕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사망하자 그 해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추존왕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는 1727년(영조 3)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효장세자와 가례를 올렸다.

추존왕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는 1744년(영조 20) 왕세자빈에 책봉되었다.

순종비 순명황후 민씨는 1882년(고종 19)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② 왕세제 및 왕세제빈 책봉

왕세제 책봉은 영조만 해당된다. 경종이 영조의 이복형이기 때문에 세자가 아닌 세제로 책봉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정종과 태종도 형제지간이지만 종법 상 정종이 세자로서 왕위에 올랐고 부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태종은 왕세제가 아닌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순종과 영친왕의 경우도 이와 같다.

왕세제 책봉 어보는 왕세자나 왕세손 책봉 어보와 마찬가지로 옥인 귀뉴로 제작되었다. 인문(印文)은 ‘왕세제인(王世弟印)’, 왕세제빈은 ‘왕세제빈지인(王世弟嬪之印)’이라 새겼다.

<표> 왕세제 및 왕세제빈 책봉 어보

| 연번 | 왕세제 및 세제빈 | 인문 | 수여 연도 | 어보 | 죽책 | 교명 | 비고 |
|----|----------------|--------|--------------------------|-----|-----|-----|------|
| 1 | 영조 | 王世弟印 | 1721(경종 1, 辛丑) 9월 26일 | 38 | 262 | 296 | 옥인귀뉴 |
| 2 |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 | 王世弟嬪之印 | 1721(경종 1, 辛丑) 9월 26일 | 196 | 281 | ○ | 옥인귀뉴 |

③ 왕세손 및 왕세손빈 책봉

왕세손 책봉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을 통틀어 단 5차례만 이루어졌다.

단종은 8세 때인 세종 30년(1448) 왕세손으로 책봉되었고,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이 왕으로 즉위하자 바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현종은 8세 때인 인조 27년(1649)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그해 효종이 왕위에 올랐고, 인조 상(喪)이 끝난 효종 2년(1651)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의소세손은 2세 때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3세 때 사망하였고, 정조는 8세 때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다가 25세에 즉위하였다. 헌종은 4세 때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다가 8세에 즉위하였다.

왕세손 책봉 어보는 모두 옥인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인문(印文)은 ‘왕세손인(王世孫印)’이다. 대체로 어린 나이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왕세손빈은 책봉되지 않았다. 왕세손빈으로 책봉된 경우는 정조비 효의왕후가 유일한데 이때의 어보는 옥인이 아니라 은인으로 제작되었다. 보문 내용은 ‘왕세손빈지인(王世孫嬪之印)’이다.

<표> 왕세손 및 왕세손빈 책봉 어보

| 연번 | 왕세손 및 왕세손빈 | 인문 | 수여 연도 | 어보 | 죽책 | 교명 | 비고 |
|----|----------------|--------|----------------------------|-----|-----|-----|------|
| 1 | 정조 | 王世孫印 | 1759(영조 35, 己卯) 윤6월 22일 | 57 | 270 | 299 | 옥인귀뉴 |
| 2 |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 | 王世孫嬪之印 | 1762(영조 38, 壬午) 1월 8일 | 230 | 290 | 317 | 은인귀뉴 |
| 3 | 헌종 | 王世孫印 | 1830(순조 30, 庚寅) 9월 15일 | 91 | 274 | 302 | 옥인귀뉴 |

④ 왕비 책봉

조선시대 왕은 보통 8세 전후에 왕세자에 책봉되면서 혼인을 한다. 따라서 왕비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한 다음 왕세자가 왕위에 즉위한 후 정식 왕비에 책봉된다.

선왕이 승하하면 임금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닷새 만에 성복(成服)하고 빈전(殯殿)이 있는 침전(寢殿) 정문에서 즉위식을 거행한다. 왕세자빈은 바로 왕비로 책봉되지 않고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행한다.

<표> 왕비 책봉 어보

| 연번 | 왕비 | 보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교명 | 비고 |
|----|-----------------|------------|---------------------------|-----|------------|-----|------------|
| 1 |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 | 顯德 王后之寶 | 1450(문종 즉위, 庚午) 7월 8일 | 111 | ○ | - | 금보귀뉴 |
| 2 | 선조계비 인목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602(선조 35, 壬寅) 7월 13일 | 134 | ○ | ○ | 금보귀뉴 |
| 3 | 인조비 인렬왕후 한씨 | 王妃之寶 | 1623(인조 1, 癸亥) 8월 16일 | 141 | 94 | ○ | 금보귀뉴 |
| 4 |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 | 王妃之寶 | 1638(인조 16, 戊寅) 12월 2일 | 144 | 99 | 303 | 금보귀뉴 |
| 5 |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676(숙종 2, 丙辰) 10월 21일 | 152 | 113 | ○ | 금보귀뉴 |
| 6 | 숙종계비 인현왕후 민씨 | 王妃之寶 | 1694(숙종 20, 甲戌) 6월 1일 | 159 | 120 | 307 | 복위 금보귀뉴 |
| 7 | 숙종계비 인원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702(숙종 28, 壬午) 10월 3일 | 165 | 122 | 308 | 금보귀뉴 |
| 8 |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 | 端懿 王后之寶 | 1722(경종 2, 壬寅) 9월 3일 | 178 | 141 | 310 | 금보귀뉴 |
| 9 |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 | 王妃之寶 | 1722(경종 2, 壬寅) 5월 15일 | 179 | 143 | 312 | 금보귀뉴 |
| 10 |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 | 王妃之寶 | 1726(영조 2, 丙午) 10월 29일 | 187 | 147 | 313 | 금보귀뉴 |
| 11 |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759(영조 35, 己卯) 6월 20일 | 198 | 157 | 314 | 금보귀뉴 |
| 12 |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778(정조 2, 戊戌) 5월 6일 | 227 | 176 | 318 | 금보귀뉴 |
| 13 |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802(순조 2, 壬戌) 10월 13일 | 233 | 181 182 | 319 | 금보귀뉴 |
| 14 |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837(헌종 3, 丁酉) 3월 27일 | 273 | 221 | 320 | 금보귀뉴 |
| 15 |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 | 王妃之寶 | 1851(철종 2, 辛亥) 9월 25일 | 294 | ○ | ○ | 금보귀뉴 |
| 16 | 고종비 명성왕후 민씨 | 王妃之寶 | 1866(고종 3, 丙寅) 3월 20일 | 300 | 245 | 321 | 금보귀뉴 |

왕비 책봉과 관련하여 어보 현재 남아있는 어보는 16과이다. 왕비 책봉 어보는 모두 금보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은 ‘왕비지보(王妃之寶)’이다.

조선 초기에 공비(恭妃)와 같은 왕비의 명칭은 목조비 효공왕후 이씨를 효비(孝妃)라 하고, 익조비 정숙왕후 최씨는 정비(貞妃), 도조비 경순왕후 박씨는 경비(敬妃), 환조비 의혜왕후 최씨는 의비(懿妃)라고 하였다.⁵⁴⁾ 이어서 태조비 신의왕후 한씨는 절비(節妃)⁵⁵⁾,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는 현비(顯妃)⁵⁶⁾, 정종비 정안왕후 김씨는 덕비(德妃)⁵⁷⁾, 태종비 원경왕후 민씨는 정비(靜妃)⁵⁸⁾, 세종비 소헌왕후 심씨는 공비(恭妃)⁵⁹⁾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여러 명의 정실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미칭을 붙인 것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1432년(세종 14) 미칭을 붙이던

54)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1392) 11월 6일(계미) 皇高祖妣諡曰孝妃。皇曾祖妣諡曰貞妃。皇祖妣諡曰敬妃。皇妣諡曰懿妃。

55)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1393) 9월 18일(경신) 贈節妃。

56)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1392) 8월 7일(병진) 立康氏爲顯妃。

57)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1398) 11월 18일(경인) 授德妃冊寶。

58) 태조실록 1권, 태종 1년(1401) 1월 10일(경오) 封貞嬪 閔氏爲靜妃。

59)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1418) 8월 14일(신묘) 上定中宮號曰儉妃

제도를 폐지하였으며⁶⁰), 이후부터는 왕비, 왕세자빈으로 불리었으며 1897년 대한 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는 황후, 황태자비라 불렀다.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 1418년~1441년)는 문종이 왕세자로 있을 때 후궁인 승휘(承徽)로 궁에 들어갔으며, 왕세자의 두 부인인 휘빈 김씨와 순빈 봉씨가 갖가지 비행으로 왕실을 문란케 하여 폐위되자 이미 두 딸을 낳아 품계가 양원(良媛)으로 올라가 있던 권씨가 세 번째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441년(세종 23)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니 향년 24세였다. 이때 시호를 ‘현덕빈(顯德嬪)’으로 칭하였다. 1450년 문종이 왕위에 오른 뒤 현덕왕후(顯德王后)로 추봉되었다.

선조비 의인왕후 박씨가 사망하자 선조계비 인목왕후 김씨가 1602년(선조 35) 왕비에 책봉되었다.

인조비 인렬왕후 한씨는 1610년(광해군 2) 17세의 나이에 능양군(인조)과 혼인하여 청성현부인(淸城縣夫人)으로 봉해졌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능양군이 왕이 됨에 따라 왕비로 책봉되었다.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는 1635년(인조 13) 사망한 인렬왕후의 뒤를 이어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었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674년(숙종 즉위년) 왕비에 책봉되었다. 숙종계비 인현왕후 민씨는 1681년(숙종 7) 숙종의 계비(繼妃)로 책봉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의 여파로 폐위되었다가 5년 후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복위되어, 같은 해 6월 1일 정식으로 왕비 책봉을 받았다.

숙종계비 인원왕후 김씨는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1702년(숙종 28) 숙종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단의왕후 심씨(端懿王后 沈氏, 1686년~1718년)는 1696년(숙종 22)에 11살의 나이로 왕세자빈에 간택되어 경종과 가례를 올렸다. 경종 즉위 2년 전인 1718년(숙종 44) 2월 7일 갑자기 혼절하여 돌연사 하였다. 왕세자가 손수 지문을 지었고, 숙종은 1718년(숙종 44) 4월 10일 죽음을 비통해하며 ‘단의(端懿)’라는 시호(諡號)를 추서하고 단의빈(端懿嬪)으로 삼았다. 1720년(경종 즉위년) 경종이 즉위하자, ‘단의왕후(端懿王后)’로 추봉되었다.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60)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1월 18일(무인)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보오니, 천자의 배필을 황후라고 하고, 왕의 배필을 왕비라고 하였을 뿐이며, 역대의 제도에 일찍이 아름다운 칭호를 여기에 덧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궁인에 이르러서도 각기 칭호(稱號)하여 명분과 지위를 구별하였사오나, 본조의 제도는 왕비는 모비(某妃)라고 일컫고, 왕세자빈은 모빈(某嬪)이라고 일컫고는 다 휘호(徽號)를 더 붙이는데, 이것은 예에 어긋나는 바 있사오니, 이제 옛 제도에 좃자 다만 왕비·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컫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戊寅禮曹啓: “謹稽古典, 天子之配曰皇后, 王之配曰王妃, 歷代之制, 未嘗以美號加之, 至於宮人, 則各稱號以別名位。本朝之制, 王妃稱某妃, 王世子嬪稱某嬪, 皆加徽號, 有違於禮, 今遵古制, 只稱王妃、王世子嬪。”從之

죽자 그 해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고,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는 1721년(경종 1) 연잉군이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됨에 따라 왕세제빈(王世弟嬪)이 되었다. 1724년 연잉군이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는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사망하자 1759년(영조 35) 15세로 나이로 51세 연상인 영조와 혼인하여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는 1762년(영조 38) 왕세손빈(王世孫嬪)에 책봉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는 1800년(정조 24) 왕세자빈 간택 중 정조의 사망으로 왕세자빈에 책봉되지 않고 1802년(순조 2) 10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는 1837년(헌종 3) 10세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1843년(헌종 8)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1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순종 때 효현성황후(孝顯成皇后)에 추존되었다.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는 당시 대왕대비 순원왕후(순조의 비)의 근친으로 1851년(철종 2) 왕비에 책봉되어 어의동(於義洞) 본궁에서 가례를 올렸다.

고종비 명성왕후 민씨는 1866년(고종 3) 간택령에 따라 금혼령을 내리고 2월 25일 창덕궁 중희당에서 초간택을 하였다. 재간택, 삼간택을 거쳐 왕비로 책봉되었다.

⑤ 황후, 황태자 및 황태자빈 책봉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왕실의 격 또한 제국에 맞게 격상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또한 제국의 위상에 맞게 황후, 황태자, 황태자빈으로 바꾸어 책봉하였다.

<표> 황태자 및 황태자빈, 황후 책봉 어보

| 연번 | 명칭 | 보문 | 수여 연도 | 어보 | 금액 | 교명 | 비고 |
|----|----------------|--------|---------------------------|-----|-----|----|------|
| 1 | 의민황태자 | 皇太子寶 | 1907(융희 1) 9월 7일 | 310 | 금액 | | 금보용뉴 |
| 2 | 순명황태자빈 민씨 | 皇太子妃之寶 | 1897(고종 34) 9월 | 309 | 금액 | | 금보귀뉴 |
| 3 |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 | 皇后之寶 | 1897(고종 34) 10월 12일(양) | 299 | 291 | | 금보용뉴 |

처음 황후로 책봉된 인물은 명성황후로,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으로 사망한 왕비를 황후로 추존하여 책봉한 것이다.

1907년(융희 1) 7월에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순명효황후 민씨를 황후로 추봉하고,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황후 책봉 어보는 금보 용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은 ‘황후지보(皇后之寶)’이다.

명성황후와 순명효황후의 책봉 어보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나, 순정효황후의 어보는 분실되었다.

황태자 책봉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순종과 의민황태자가 이에 해당한다.

순종은 1875년(고종 12) 2월 18일 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대한제국 수립 이후 황태자로 격상되었다. 의민황태자 이은(李垕)은 고종의 일곱째 아들로, 1900년(광무 4) 8월 17일에 경운궁 중화전에서 이은을 영친왕(英親王)으로 책봉하면서 금책과 금인, 칠장복을 하사하였다. 이후 1907년(융희 1) 3월 11일에 경운궁 중화전에서 관례가 행해졌고 같은 해 8월 7일에 태황제 고종의 조서에 따라 순종의 황태자로 이은이 결정되었고, 9월 7일에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황태자 책봉 어보는 금보 용뉴로, 보문은 ‘황태자보(皇太子寶)’이다. 순종의 황태자보는 현재 분실되어 없고 의민황태자보 만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황태자비 책봉은 순종의 빈인 순명효황후와 순정효황후 두 차례 이루어졌다. 순명효황후 민씨는 1882년(고종 19) 2월 19일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2월 21일에 순종과 가례를 올렸다. 1897년(광무 1) 10월 14일 황태자비로 책봉되었다.

순정효황후 윤씨는 1904년(광무 7) 당시 황태자비였던 순명효황후 민씨가 사망하자, 1906년(광무 10) 황태자비로 책봉되었다.

황태자비 책봉 어보는 금보 귀뉴이고 보문은 ‘황태자비지보(皇太子妃之寶)’이다. 1906년(광무 10) 1월 24일에 수여한 순정효황후 황태자비 어보는 현재 분실되어 없고, 1897년(광무 1) 10월 14일에 수여한 순명효황후 황태자비 어보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⑥ 태후 책봉

고려 시대 말기 원나라의 지배 영향으로 모든 관제가 격하되기 이전까지는 대대로 고려 왕의 어머니를 왕태후(王太后)라 부르다가, 조선 왕실에서는王大妃(王大妃)로 격하되어 불리었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조선 왕실의 호칭을 격상 하면서王大妃를 왕태후로 새로 고쳐 불렀다.

태후로 책봉된 인물은 헌종비 효정왕후이다. 1844년(헌종 10) 헌종의 계비로 책봉되었으며, 1849년(철종 즉위년) 대비가 되어 명헌(明憲)이라는 존호를 받았다. 이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왕태후로 칭호가 격상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황태후로 격상되었다.

<표> 태후 책봉 어보

| 연번 | 명칭 | 보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효정왕후 홍씨 | 明憲 太后之寶 | 1897(光武 1, 丁酉) 10월 14일 | 278 | | 옥보귀뉴 |

나. 존호 어보

존호(尊號)는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는 칭호이다. 조선의 왕으로서 생전에 존호를 받은 최초의 왕은 태조 이성계(李成桂)였다. 1399년(정종 1) 10월 권근(權近, 1352~1409)은 상소문을 통해 “근심하며 부지런히 덕을 쌓아 왕업을 창건하고 대통을 전하여 억만년 무궁한 기업(基業)을 열어 전하게 하였으니, 높은 공과 성한 덕이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다.”는 내용으로 태조에게 존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400년(정종 2) 6월 태조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한 봉숭도감(封崇都監)을 설치하고 ‘계운신무(啓運神武)’라는 네 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태조 이성계가 신무(神武)로써 조선을 창업한 공덕을 드러내는 호칭이었다. 이후로 조선시대에는 생전에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존호가 무수히 올려졌다. 조선 초기에는 존호가 없는 왕과 왕비도 있으나, 중기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가상(加上)하는 경우가 많다.

존호는 크게 생전에 올리는 것과 사후에 올리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전에 처음 올리는 것을 상존호(上尊號)라고 하고, 두번째 이후부터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후에 올리는 것은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한다.⁶¹⁾ 지정대상 어보 중 상존호는 24과, 가상존호는 85과, 추상존호는 88과 모두 197과이다.

존호를 받는 대상은 왕과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이며 상존호인 경우 왕은 존호(8字)+왕보(王寶), 왕비는 존호(2字)+왕비지보(王妃之寶), 왕대비는 존호(2字)+왕대비지보(王大妃之寶), 대왕대비는 존호(2字)+대왕대비지보(大王大妃之寶)이다. 이후 올려지는 가상존호는 그 순서에 따라 붙인다.

사후에 올리는 추상존호인 경우 왕은 존호(8字)+시호(8字)+대왕지보(大王之寶)이고, 왕비인 경우 부묘(祔廟)⁶²⁾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묘 전은 존호(2字)+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이며, 부묘 후에는 휘호 4글자를 덧붙여서 존호(2字)+휘호(4字)+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이다.

대체적으로 생시(生時)에 올리는 상존호와 가상존호 어보는 옥보로, 사후에 올리는 추상존호 어보는 금보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인조·효종·현종·경종 등은 생전에는 존호를 받지 못했다.⁶³⁾ 반면 숙종 39년(1713)에 숙종과 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에게 숙종 즉위 40년을 축하하기 위해 존호를 올린 일이 있었다.⁶⁴⁾ 이에 대해 숙종은 “여러 날 동안 조정의 뜰에 모여서 극력 청함이 이에 이르니, 겸양을 지키려던 당초의 마음을 끝내 스스로 이루기 어려워져 힘써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사신(史臣)들은 임금의 겸덕(謙德)이 지극한데, 조신(朝臣)들이 이를 받들어 따르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61) 김종수, 「존호·존승·상호도감의케 명칭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제12집, 166쪽.

62) 3년 상(喪)을 끝낸 뒤에 왕이나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는 일.

63) 김종수,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해설집』 「규장각 소장 존호·존승·상호도감의케 해설」, 40쪽.

64)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1713) 3월 9일(병술).

마침내 강박(強迫)하여 청을 준허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10여 년 동안 간직해 온 겸손한 덕이 시커멓게 어두워 발양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특히 백세(百世)의 비난이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존호(尊號)가 만일 옳지 않다면 임금 스스로 이회(理會)할 것이니,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금상(今上)의 청허(聽許)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혹자는 당초에 성상의 뜻이 굳건히 결정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며 비난했다.⁶⁵⁾

숙종 때부터 선왕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으로 존호를 올리는 일은 영조대로 이어졌다. 존호를 올리는 대상을 살아계시는 대비, 대왕대비에 한정하지 않고, 선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효종·현종·숙종까지도 존호를 올렸다. 이와 같이 선왕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은 단순히 이름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다. 종묘의 신위는 3대가 지나면 조천(祧遷)하여 영녕전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신위에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한 후에 종묘의 세실(世室)에 영원히 모셔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왕의 신위를 세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 불천위(不遷位)로 높이고 이 불천위의 수를 늘려가는 것은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하려는 국왕의 의지가 담겨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⁶⁶⁾

영조께서는 재위 중에 여러 차례 존호를 받았다. 이와 같이 재위 중일 때 존호를 받은 왕은 선조·광해군·숙종 등이다. 영조는 즉위 초기에는 존호를 받는 것을 극구 거절했지만 자신이 주도하는 정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존호를 받았다. 영조는 재위 기간 중에 12차례에 걸쳐 존숭의식을 거행했고 자신은 5차례에 걸쳐 40글자의 존호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은 왕과 왕실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영조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절정은 고종 때이다. 100여 차례 이상이다.

영조 때에는 영조 자신이 5차례의 존호를 받았으며 선왕인 효종·숙종·현종과 그들의 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모인 육상궁에게도 존호를 올렸다. 영조는 재위 2년부터 52년까지 11차례에 걸쳐 31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자신이 존호를 주고받을 수 없기에 김재로 등 신하들이 올리는 형식으로 존호를 받았다. 영조 이후부터 이 선례를 따라 존호를 자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조를 자신의 표상으로 삼았던 고종이 특히 더했다.

정조는 5차례에 걸쳐 9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이때 존호를 올린 배경은 영조의 부묘례, 문효세자의 탄생,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정순왕후 오순(五旬) 등의 사유였다.

순조 때에는 4차례에 6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정순왕후와 효의왕후의 존숭, 수렴청정 철수, 정순왕후 육순 및 보감, 왕세손 탄생 등이다. 순조의 대를 이은 현종은

65)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1713) 1월 17일(을미) 【史臣曰: " 上之謙德至矣, 朝臣等不思將順之義, 終至強迫準請而後已。 使十餘年謙抑之德, 黜昧不揚, 獨不畏百世之譏議乎? 然, 朱子曰: '尊號若不是, 人君自理會得, 如何說今?' 上之聽許太遽, 或疑當初聖志, 未出於堅定, 惜哉!】

66) 김지영, 「조선시대 존숭의식의 의미와 상호도감의례」, 『영조사존호상호도감의례』, 서울대학교 규장각, 7쪽.

불과 8살에 즉위하였다. 순원왕후가 7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공을 기념하고 순원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순원왕후의 육순(六旬) 등을 빌미로 존호를 4차례에 걸쳐 7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순원왕후는 왕실의 방계 인물인 철종을 찾아내어 헌종의 뒤를 잇게 하였다. 철종을 왕으로 추대한 후 재임 14년간 12차례에 걸쳐 27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27가지의 존호 중 장조 1가지, 헌경왕후 1가지, 순조 5가지, 순원왕후 7가지, 문조 1가지, 신정왕후 4가지, 헌종 1가지, 효현왕후 1가지, 효정왕후 4가지, 철종 1가지, 철인왕후 1가지이다.

고종은 26차례에 걸쳐 90가지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태조를 비롯한 직계 존속에 대한 황제 추존 등의 사례도 있지만 존호를 올리는데 너무 남발한 것처럼 여겨진다. 존호를 올리는 배경은 다 이유가 있지만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때 대부분 존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종의 대를 이은 순종은 2회에 걸쳐 존호를 올리는데 한번은 고종을 태상왕으로 올리고 ‘수강(壽康)’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또 한 번은 1908년 고종이 직계 존속들을 황제로 추존한데 미진함을 느낀 순종이 역시 직계의 왕과 왕비들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한 것이다.

① 왕 존호

태조, 정종, 태종 등 조선 초기의 존호 글자 수를 살펴보면 주로 4자인 것을 알 수 있다.⁶⁷⁾ 그러나 세조 3년(1457) 이후부터⁶⁸⁾ 8글자의 존호가 정형화 되었다. 왕이 승하한 이후에 올리는 추상존호도 8글자로 정형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존호는 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변란을 진압하였거나, 종계변무(宗系辨誣), 회갑(回甲), 등과 같이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올리게 된다.

다음 <표>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존호를 올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왕 존호 현황

| 연번 | 왕 |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태조 | 啓運神武 | 1400(定宗 2, 庚辰) 7월 | 상왕→태상왕 | | ○ | |
| | | 應天肇統 廣勳永命 | 1872(高宗 9, 壬申) 1월 | 태조 창업과 태종 즉위 신년(辛年) | 6 | 2 | |
| 2 | 정종 | 仁文恭睿 | 1400(定宗 2, 庚辰) 12월 | 왕→상왕 | | ○ | |

67)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7월 2일(을축) 태조에게 ‘啓運神武’, ○上率世子及百官, 朝于德壽宮, 奉玉冊金寶, 上尊號曰啓運神武太上王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1400) 12월 1일(신묘) 정종에게 ‘仁文恭睿’, 謹上尊號曰仁文恭睿上王.

68)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1457) 3월 7일(경오) 세조에게 ‘승천체도 열문영무(承天體道 烈文英武)’ 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上尊號曰, 承天體道烈文英武.

| 연번 | 왕 |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3 | 태종 | 聖德神功 | 1418(世宗 1, 戊戌) 11월 | 왕→상왕 | | ○ | |
| | | 建天體極 大正啓佑 | 1872(高宗 9, 壬申) 1월 | 태조 창업과 태종 즉위 신년(辛年) | | 6 | |
| 4 | 단종 | 恭懿溫文 | 1455(세조 1, 乙亥) 7월 11일 |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노산군(魯山君)으로 봉(封)하며 | | | |
| 5 | 세조 | 承天體道 烈文英武 | 1457(世祖 3, 丁丑) 3월 | 단종복위 무산, 환구에 제사 | | ○ | |
| 6 | 덕종 | 溫文 | 1471(성종 2, 辛卯) 1월 24일 | | 기증 | ○ | |
| | | 宣肅恭顯 溫文懿敬 | 1475(성종 6, 乙未) 2월 26일 | | | ○ | |
| 7 | 선조 | 正倫立極 盛德洪烈 | 1590(宣祖 23, 庚寅) 2월 |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 | | | |
| | | 至誠大義 格天熙運 | 1604(宣祖 37, 甲辰) 10월 | 왜적을 물리친 공 | 16 | ○ | |
| | | 景命神曆 弘功隆業 | 1892(高宗 29, 壬辰) 4월 | 임진왜란 5갑주 | 18 | 93 | |
| 8 | 인조 | 開天肇運 正紀宣德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21 | 11 | |
| 9 | 효종 | 明義正德 | 1740(英祖 16, 庚申) 6월 |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 | 14 | |
| | | 欽天達道 光毅弘烈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22 | 15 | |
| 10 | 현종 | 昭休衍慶 敦德綏成 | 1772(英祖 48, 壬辰) 11월 |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 | 17 | |
| 11 | 숙종 | 顯義光倫 睿聖英烈 | 1713(肅宗 39, 癸巳) 3월 | 숙종 즉위 40년 | 23 | 18 | |
| | | 裕謨永運 洪仁峻德 | 1753(英祖 29, 癸酉) 12월 | 영조 육순(六旬) | 25 | 20 | |
| | | 配天合道 啓休篤慶 | 1776(英祖 52, 丙申) 1월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 | | 21 | |
| | | 正中協極 神毅大勳 | 1890(高宗 27, 庚寅) 3월 | 역대 선왕의 추승 | 26 | 22 | |
| 12 | 영조 | 至行純德 英謨毅烈 | 1740(英祖 16, 庚申) 7월 | 김재로 등 신하의 청 | 30 | 24 | |
| | | 章義弘倫 光仁敦禧 | 1752(英祖 28, 壬申) 5월 |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 33 | 25 | |
| | | 體天建極 聖功神化 | 1756(英祖 32, 丙子) 1월 | 인원왕후 칠순(七旬) | 34 | 26 | |
| | | 大成廣運 開泰基永 | 1772(英祖 48, 壬辰) 11월 |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 35 | 27 | |
| | | 堯明舜哲 乾健坤寧 | 1776(英祖 52, 丙申) 1월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을 칭찬 | 36 | 29 | |
| | | 配命垂統 | 1784(正朝 8, 甲辰) | 세자책봉, 영조 즉위 | | 30 | |

| 연번 | 왕 |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 | 景曆洪休 | 9월 | 60주년 | | | |
| | | 中和隆道 肅莊彰勳 | 1890(高宗 27, 庚寅) 1월 | 영조 묘호 개묘 | 37 | 32 | |
| 13 | 정조 | 敬天明道 洪德顯謨 | 1899(高宗 36, 己亥) 10월 | 정조 추숭 | 56 | 40 | |
| 14 | 순조 | 淵德顯道 景仁純禧 | 1827(純祖 27, 丁亥) 9월 | 왕세손 탄생 | 59 | 42 | |
| | | 體聖擬命 欽光錫慶 | 1848(憲宗 14, 戊申) 3월 | 순원왕후 육순(六旬) | 62 | 45 | |
| | | 繼天配極 隆元敦休 | 1853(哲宗 4, 癸丑) 1월 | 철종이 종법상의 부인 순조를 현양 | 63 | 46 | |
| | | 懿行昭倫 熙化峻烈 | 1857(哲宗 8, 丁巳) 10월 |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개묘 | 64 | 47 | |
| | | 大中至正 洪勳哲謨 | 1858(哲宗 9, 戊午) 1월 | 순원왕후 칠순(七旬) | 65 | 48 | |
| | | 乾始泰亨 昌運弘基 | 1861(哲宗 12, 辛酉) 1월 | 순조 원년의 회갑 순원왕후 혼인 60년 | 66 | 49 | |
| | | 高明博厚 剛健粹精 | 1862(哲宗 13, 壬戌) 1월 | 순원왕후 책봉 60년 | 67 | 50 | |
| | | 啓統垂曆 建功裕範 | 1879(高宗 16, 己卯) 1월 | 익종 혼인 회갑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 68 | 51 | |
| 15 | 문조 | 體元贊化 錫極定命 | 1848(憲宗 14, 戊申) 3월 | 순원왕후 육순(六旬) | 72 | 54 | |
| | | 聖憲英哲 睿誠淵敬 | 1853(哲宗 4, 癸丑) 10월 |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 73 | 55 | |
| | | 隆德純功 篤休弘慶 | 1866(高宗 3, 丙寅) 4월 |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거, 고종 친정 | 74 | 56 | |
| | | 洪運盛烈 宣光濬祥 | 1867(高宗 4, 丁卯) 1월 | 신정왕후 60세 | 75 | 57 | |
| | | 堯欽舜恭 禹勤湯正 | 1869(高宗 6, 己巳) 1월 | 효명세자 회갑 | 76 | 58 | |
| | | 啓天建統 神勳肅謨 | 1875(高宗 12, 乙亥) 12월 | 신정왕후 68세, 익종 세실 지정 | 77 | 59 | |
| | | 乾大坤厚 廣業永祚 | 1877(高宗 14, 丁丑) 1월 | 신정왕후 70세 | 79 | 60 | |
| | | 莊義彰倫 行健配寧 | 1879(高宗 16, 己卯) 1월 | 익종 혼인 회갑 (60주년) | 80 | 61 | |
| | | 基泰垂裕 熙範昌禧 | 1883(高宗 20, 癸未) 1월 | 신정왕후 국모 0주년 | 81 | 62 | |
| | | 立經亨道 成戲昭章 | 1887(高宗 24, 丁亥) 1월 | 문조 대리청정 60주년, 신정왕후 80세 | 78 | 63 | |
| | | 致中達和 繼曆協紀 | 1890(高宗 27, 庚寅) 12월 | 신정왕후 탄일 추모 | 82 | 64 | |
| | | 剛粹景綿 峻惠衍祉 | 1892(高宗 29, 壬辰) 7월 | 고종 즉위 30년 | 83 | 66 | |
| 宏猷愼徽 綏緒佑福 | 1902(高宗 39, 壬寅) 1월 |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 84 | 67 | | | |
| 16 | 헌종 | 體健繼極 | 1853(哲宗 4, 癸丑) | 선왕의 덕을 기리기 | 89 | 69 | |

| 연번 | 왕 |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 | 中正光大 | 10월 | 위해 | | | |
| | | 至聖廣德 弘運章化 | 1866(高宗 3, 丙寅) 4월 |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폐, 고종 친정 | 90 | 70 | |
| 17 | 철종 | 熙倫正極 粹德純聖 | 1863(哲宗 14, 癸亥) 6월 | 이십일사약편 왕실 중계 수정 | 93 | 72 | |
| | | 欽命光道 敦元彰化 | 1866(高宗 3, 丙寅) 4월 |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폐, 고종 친정 | 95 | 74 | |
| 18 | 고종 | 統天隆運 肇極敦倫 | 1873(高宗 10, 癸酉) 4월 |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 98 | 76 | |
| | | 正聖光義 明功大德 | 1888(高宗 25, 戊子) 3월 |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 97 | 77 | |
| | | 堯峻舜徽 禹謨湯敬 | 1890(高宗 27, 庚寅) 2월 | 명성왕후 40세 | 99 | 78 | |
| | | 應命立紀 至化神烈 | 1892(高宗 29, 壬辰) 7월 | 고종 즉위 30년 | 100 | 79 | |
| | | 巍勳洪業 啓基宣曆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중박 | 80 | |
| | | 乾行坤定 英毅弘休 | 1902(高宗 39, 壬寅) 1월 |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 중박 | 81 | |
| | | 壽康 | 1907(純宗 원년, 丁未) 8월 | 고종 태상왕 기념 | 환수 | 82 | |

② 왕비 존호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우는 보통 회갑(回甲), 임금의 즉위로 상왕이나 왕대비, 대왕대비로 존송될 때 올린다. 즉 존송이란 새 임금이 즉위하면서 왕비를 새로 책봉하면 그 윗대의 왕비는 왕대비로, 왕대비는 대왕대비로 존송하게 되는데 이때 존호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왕비 존호 현황

| 연번 | 왕비 | 왕비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정종비 정안왕후 | 順德 | 1400(定宗 2, 庚辰) 12월 | 왕비→왕대비 | | ○ | |
| 2 | 대종비 원경왕후 | 厚德 | 1418(世宗 1, 戊戌) 11월 | 왕비→왕대비 | | ○ | |
| 3 | 단종비 정순왕후 | 懿德 | 1455(世祖 1, 乙亥) 7월 | 왕비→왕대비 | | | |
| 4 | 세조비 정희왕후 | 慈聖 | 1457(世祖 3, 丁丑) 3월 | 단종복위 무산 환구에 제사 | 114 | ○ | |
| 5 | | 欽仁景德 宣烈明淑 元淑 | 1469(睿宗 1, 己丑) 2월 | 왕비→왕대비 | | ○ | |
| 6 | | 徽愼惠懿 | 1469(睿宗 1, 己丑) 9월 | 궁중 책봉 | | ○ | |
| 7 | | 神憲 | 1471(成宗 2, 辛卯) 1월 | 왕대비→대왕대비 | 115 | ○ | |

| 연번 | 왕비 | 왕비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8 | 덕종비 소혜왕후 | 仁粹 | 1476(成宗 6, 乙未) 1월 | 왕비→왕대비 | | ○ | |
| 9 | | 慈淑 | 1497(燕山 3, 丁巳) 3월 | 왕대비→대왕대비 | | | |
| 10 | 예종비 안순왕후 | 仁惠 | 1471(成宗 2, 辛卯) 1월 | 왕비→왕대비 | 118 | ○ | |
| 11 | | 明懿 | 1497(燕山 3, 丁巳) 3월 | 왕대비→대왕대비 | | | |
| 12 | 성종비 정현왕후 | 慈順 | 1497(燕山 3, 丁巳) 5월 | 왕비→왕대비 | 121 | | |
| 13 | | 和惠 | 1505(燕山 11, 乙丑) 8월 | | | ○ | |
| 14 | 중종비 문정왕후 | 聖烈 | 1547(明宗 2, 丁未) 1월 | 왕대비→대왕대비 | 환수 | | |
| 15 | | 仁明 | 1547(明宗 2, 丁未) 9월 | | 125 | ○ | |
| 16 | 인종비 인성왕후 | 恭懿 | 1547(明宗 2, 丁未) 9월 | 왕비→왕대비 | 126 | | |
| 17 | 명종비 인순왕후 | 懿聖 | 1569(宣祖 2, 己巳) 윤6월 | 왕비→왕대비 | 127 | | |
| 18 | 선조비 의인왕후 | 章聖 | 1590(宣祖 23, 庚寅) 2월 | 종계변무(宗系辨誣) 의 공 | 129 | | |
| 19 | | 徽烈 | 1604(宣祖 37, 甲辰) 10월 | 왜적을 물리친 공 | 130 | ○ | |
| 20 | | 敬穆 | 1892(高宗 29, 壬辰) 4월 | 임진왜란 5갑주 | 132 | 92 | |
| 21 | 선조비 인목왕후 | 昭聖 | 1604(宣祖 37, 甲辰) 10월 | 왜적을 물리친 공 | 133 | ○ | |
| 22 | | 貞懿 | 1610(光海 2, 庚戌) 4월 | 왕비→왕대비 | 135 | ○ | |
| 23 | | 明烈 | 1624(仁祖 2, 甲子) 8월 | 왕대비→대왕대비 | 137 | ○ | |
| 24 | | 正肅 | 1892(高宗 29, 壬辰) 4월 | 임진왜란 5갑주 | 138 | 9 | |
| 25 | 인조비 인렬왕후 | 正裕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142 | 98 | |
| 26 | 인조비 장렬왕후 | 慈懿 | 1651(孝宗 2, 辛卯) 8월 | 왕비→왕대비 | | 100 | |
| 27 | | 恭愼 | 1661(顯宗 2, 辛丑) 7월 | 왕대비→대왕대비 | 146 | 101 | |
| 28 | | 徽獻 | 1676(肅宗 2, 丙辰) 10월 | 왕대비-대왕대비 | 구입 | 12 | |
| 29 | | 康仁 | 1686(肅宗 12, 丙寅) 5월 | 회갑 | 147 | 102 | |
| 30 | | 淑穆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145 | 104 | |
| 31 | 효종비 인선왕후 | 孝肅 | 1661(顯宗 2, 辛丑) 7월 | 왕비→왕대비 | | 106 | |

| 연번 | 왕비 | 왕비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32 | | 貞範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149 | 108 | |
| 33 | 현종비 명성왕후 | 顯烈 | 1676(肅宗 2, 丙辰) 10월 | 왕비→왕대비 | 고대 | 110 | |
| 34 | | 禧仁 | 1772(英祖 48, 壬辰) 11월 |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 | 112 | |
| 35 | 숙종비 인경왕후 | 光烈 | 1713(肅宗 39, 癸巳) 3월 | 숙종 즉위 40년 | 153 | 115 | |
| 36 | | 宣穆 | 1753(英祖 29, 癸酉) 12월 | 영조 육순(六旬) | 155 | 117 | |
| 37 | | 惠聖 | 1776(英祖 52, 丙申) 1월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을 칭찬 | 156 | 118 | |
| 38 | | 純懿 | 1890(高宗 27, 庚寅) 3월 | 역대 선왕의 추숭 | 157 | 119 | |
| 39 | 숙종비 인현왕후 | 孝敬 | 1713(肅宗 39, 癸巳) 3월 | 숙종 즉위 40년 | 160 | 124 | |
| 40 | | 淑聖 | 1753(英祖 29, 癸酉) 12월 | 영조 육순(六旬) | | 135 | |
| 41 | | 莊純 | 1776(英祖 52, 丙申) 1월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 | 162 | 138 | |
| 42 | | 元化 | 1890(高宗 27, 庚寅) 3월 | 역대 선왕의 추숭 | 163 | 139 | |
| 43 | 숙종비 인원왕후 | 惠順 | 1713(肅宗 39, 癸巳) 3월 | 숙종 즉위 40년 | 164 | 123 | |
| 44 | | 慈敬 | 1722(景宗 2, 壬寅) 9월 | 왕비→왕대비 | 166 | 126 | |
| 45 | | 獻烈 | 1726(英祖 2, 丙午) 10월 | 왕대비→대왕대비 | 168 | 127 | |
| 46 | | 光宣 | 1740(英祖 16, 庚申) 2월 | 모임(母臨) 39년 | 169 | 128 | |
| 47 | | 顯翼 | 1740(英祖 16, 庚申) 7월 | 김재로 등 신하의 칭 | 170 | 129 | |
| 48 | | 康聖 | 1747(英祖 23, 丁卯) 2월 | 인원왕후 회갑 | 171 | 130 | |
| 49 | | 貞德 | 1751(英祖 27, 辛未) 2월 | 모임(母臨) 50년 | 172 | 131 | |
| 50 | | 壽昌 | 1752(英祖 28, 壬申) 5월 |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 173 | 132 | |
| 51 | | 永福 | 1753(英祖 29, 癸酉) 12월 | 영조 육순(六旬) | 176 | 133 | |
| 52 | | 隆化 | 1756(英祖 32, 丙子) 1월 | 인원왕후 칠순(七旬) | 174 | 134 | |
| 53 | | 徽靖 | 1776(英祖 52, 丙申) 1월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 | 177 | 137 | |
| 54 | | 正運 | 1890(高宗 27, 庚寅) 3월 | 역대 선왕의 추숭 | 175 | 140 | |

| 연번 | 왕비 | 왕비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55 | 경종비 선의왕후 | 敬純 | 1726(英祖 2, 丙午) 10월 | 왕비→왕대비 | 183 | 144 | |
| 56 | 영조비 정성왕후 | 惠敬 | 1740(英祖 16, 庚申) 7월 | 김재로 등 신하의 청 | 188 | 146 | |
| 57 | | 莊愼 | 1752(英祖 28, 壬申) 5월 |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 189 | 151 | |
| 58 | | 康宣 | 1756(英祖 32, 丙子) 1월 | 인원왕후 칠순(七旬) | 190 | 148 | |
| 59 | | 恭翼 | 1772(英祖 48, 壬辰) 11월 |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 191 | 150 | |
| 60 | | 仁徽 | 1776(英祖 52, 丙申) 1월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 | 192 | 152 | |
| 61 | | 昭獻 | 1784(正朝 8, 甲辰) 9월 |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 194 | 154 | |
| 62 | | 元烈 | 1890(高宗 27, 庚寅) 1월 | 영조 묘호 개묘 | 195 | 156 | |
| 63 | | 영조비 정순왕후 | 睿順 | 1772(英祖 48, 壬辰) 11월 |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 197 | 158 |
| 64 | 聖哲 | | 1776(英祖 52, 丙申) 1월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 | 199 | 159 | |
| 65 | 莊僖 | | 1778(正朝 2, 戊戌) 5월 | 영조 부모 | 201 | 160 | |
| 66 | 惠徽 | | 1783(正朝 7, 癸卯) 3월 | 문효세자의 탄생 | 202 | 161 | |
| 67 | 翼烈 | | 1784(正朝 8, 甲辰) 9월 |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 203 | 162 | |
| 68 | 明宣 | | 1787(正朝 11, 丁未) 1월 | 세손을 보호한 공로 | 204 | 155 | |
| 69 | 綏敬 | | 1795(正朝 19, 乙卯) 1월 | 정순왕후 오순(五旬), 혜빈 육순(六旬) | 205 | 163 | |
| 70 | 대왕대비 | | 1802(純祖 2, 壬戌) 8월 | 왕대비→대왕대비 | 206 | 164 | |
| 71 | 光獻 | | 1804(純祖 4, 甲子) 2월 | 수렴청정 철수, 정순왕후 육순(六旬) | 208 | 165 | |
| 72 | 隆仁 | | 1805(純祖 5, 乙丑) 3월 | 정순왕후의 보감을 기념 | 207 | 167 | |
| 73 | 正顯 | | 1890(高宗 27, 庚寅) 1월 | 영조 묘호 개묘 | 209 | 168 | |
| 76 | 정조비 효의왕후 | 왕대비 | 1802(純祖 2, 壬戌) 8월 | 왕비→왕대비 | 231 | 177 | |
| 77 | | 莊徽 | 1899(高宗 36, 己亥) 10월 | 정조 추승 | 229 | 179 | |
| 78 | 순조비 순원왕후 | 明敬 | 1827(純祖 27, 丁亥) 9월 | 왕세손 탄생 | 234 | 183 | |
| 79 | | 文仁 | 1837(憲宗 3, 庚辰) 1월 | 왕대비→대왕대비 | 235 | 184 | |

| 연번 | 왕비 | 왕비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 | | 丁酉) 1월 | | | | |
| 80 | | 光聖 | 1841(憲宗 7, 辛丑) 2월 | 수렴청정한 공과 왕비책봉 40년 | 237 | 185 | |
| 81 | | 隆禧 | 1848(憲宗 14, 戊申) 3월 | 순원왕후 육순(六旬) | 238 | 186 | |
| 82 | | 正烈 | 1851(哲宗 2, 辛亥) 8월 | 헌종과 효현왕후 부묘 | 239 | 187 | |
| 84 | | 宣徽 | 1852(哲宗 3, 壬子) 2월 | 수렴청정한 공 | 240 | 188 | |
| 84 | | 英德 | 1853(哲宗 4, 癸丑) 1월 | 철종이 종법상의 부인 순조를 현양 | 241 | 189 | |
| 85 | | 慈獻 | 1857(哲宗 8, 丁巳) 10월 |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개묘 | 243 | 191 | |
| 86 | | 顯倫 | 1858(哲宗 9, 戊午) 1월 | 순원왕후 칠순(七旬) | 244 | 192 | |
| 87 | | 洪化 | 1861(哲宗 12, 辛酉) 1월 | 순조 원년의 회갑 순원왕후 혼인 60년 | 245 | 193 | |
| 88 | | 神運 | 1862(哲宗 13, 壬戌) 1월 | 순원왕후 책봉 60년 | 242 | 194 | |
| 89 | | 粹穆 | 1879(高宗 16, 己卯) 1월 |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 246 | 195 | |
| 90 | | 孝裕 | 1837(憲宗 3, 丁酉) 1월 | 왕비→왕대비 | | | |
| 91 | | 獻聖 | 1848(憲宗 14, 戊申) 3월 | 순원왕후 육순(六旬) | | ○ | |
| 92 | | 宣敬 | 1851(哲宗 2, 辛亥) 8월 | 헌종과 효현왕후 부묘 | | ○ | |
| 93 | | 正仁 | 1853(哲宗 4, 癸丑) 10월 |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 249 | | |
| 94 | | 慈惠 | 1859(哲宗 10, 己未) 10월 | 순원왕후 부묘례 | 250 | 197 | |
| 95 | | 弘德 | 1863(哲宗 14, 癸亥) 12월 | 은언군의 사실 수정 | 251 | 206 | |
| 96 | 문조비 신정왕후 | 純化 | 1866(高宗 3, 丙寅) 2월 | 철종 종묘에 부묘 | 252 | 198 | |
| 97 | | 文光 | 1866(高宗 3, 丙寅) 4월 |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거, 고종 친정 | 253 | 199 | |
| 98 | | 元成 | 1867(高宗 4, 丁卯) 1월 | 신정왕후 60세 | 254 | 201 | |
| 99 | | 肅烈 | 1868(高宗 5, 戊辰) 12월 | 신정왕후 회갑 | 255 | 202 | |
| 100 | | 明粹 | 1869(高宗 6, 己巳) 1월 | 효명세자 회갑 | 256 | 203 | |
| 101 | | 協天 | 1873(高宗 10, 癸酉) 4월 |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 257 | 204 | |
| 102 | | 隆穆 | 1875(高宗 12, 乙酉) 1월 | 신정왕후 68세, | 258 | 205 | |

| 연번 | 왕비 | 왕비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 | | 乙亥) 12월 | 익종 세실 지정 | | | |
| 103 | | 壽寧 | 1877(高宗 14, 丁丑) 1월 | 신정왕후 70세 | 260 | 207 | |
| 104 | | 禧康 | 1878(高宗 15, 戊寅) 1월 | 신정왕후 71세(망팔) | 259 | 208 | |
| 105 | | 顯定 | 1879(高宗 16, 己卯) 1월 |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 261 | 209 | |
| 106 | | 徽安 | 1883(高宗 20, 癸未) 1월 | 신정왕후 국모 50주년 | 262 | 210 | |
| 107 | | 欽倫 | 1886(高宗 23, 丙戌) 1월 | 신정왕후 79세 | 263 | 211 | |
| 108 | | 洪慶 | 1887(高宗 24, 丁亥) 1월 | 신정왕후 80세 | 264 | 212 | |
| 109 | | 泰運 | 1888(高宗 25, 戊子) 1월 | 신정왕후 81세 | 265 | 213 | |
| 110 | | 昌福 | 1888(高宗 25, 戊子) 3월 |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 266 | 214 | |
| 111 | | 熙祥 | 1890(高宗 27, 庚寅) 2월 | 명성왕후 40세 | 267 | 216 | |
| 112 | | 翼謨 | 1890(高宗 27, 庚寅) 12월 | 신정왕후 탄일 추모 | 268 | 217 | |
| 113 | | 睿憲敦章 | 1892(高宗 29, 壬辰) 7월 | 고종 즉위 30년 | 269 | 218 | |
| 114 | | 懿謨 | 1899(高宗 36, 己亥) 11월 | 翼謨를懿謨로 수정 | | 200 | |
| 115 | | 啓祉 | 1902(高宗 39, 壬寅) 1월 |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 270 | 220 | |
| 116 | 헌종비 효현왕후 | 端聖 | 1853(哲宗 4, 癸丑) 10월 |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 276 | 224 | |
| 117 | | 粹元 | 1866(高宗 3, 丙寅) 4월 | 신정왕후 수렴칭정 철폐, 고종 친정 | 277 | 225 | |
| 118 | | 明憲 | 1851(哲宗 2, 辛亥) 8월 | 헌종과 효현왕후 부모 | | ○ | |
| 119 | | 淑敬 | 1853(哲宗 4, 癸丑) 10월 |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 279 | | |
| 120 | | 睿仁 | 1859(哲宗 10, 己未) 10월 | 순원왕후 부모례 | 281 | 227 | |
| 121 | | 正穆 | 1863(哲宗 14, 癸亥) 12월 | 은언군의 사실 수정 | 282 | 228 | |
| 122 | 헌종비 효정왕후 | 弘聖 | 1866(高宗 3, 丙寅) 2월 | 철종 종묘에 부모 | 283 | 230 | |
| 123 | | 章純 | 1866(高宗 3, 丙寅) 4월 | 신정왕후 수렴칭정 철폐, 고종 친정 | 284 | 229 | |
| 124 | | 貞徽 | 1873(高宗 10, 癸酉) 4월 |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 285 | 231 | |
| 125 | | 莊昭 | 1888(高宗 25, 戊子) 3월 |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 286 | 232 | |

| 연번 | 왕비 | 왕비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옥책 | 비고 |
|-----|-------------|-------|--------------------|-------------------------|-----|-----|----|
| 126 | | 端禧 | 1890(高宗 27, 庚寅) 1월 | 영조 묘호 개묘 | 287 | 234 | |
| 127 | | 粹顯 | 1890(高宗 27, 庚寅) 2월 | 명성왕후 40세 | 288 | | |
| 128 | | 懿獻 | 1892(高宗 29, 壬辰) 7월 | 고종 즉위 30년 | 289 | 235 | |
| 129 | | 康綏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290 | 236 | |
| 130 | | 裕寧 | 1902(高宗 39, 壬寅) 1월 |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 291 | 237 | |
| 131 | 철종비 철인왕후 | 明純 | 1863(哲宗 14, 癸亥) 6월 | 이십일사약편 왕실 중계 수정 | 293 | 240 | |
| 132 | | 徽聖 | 1866(高宗 3, 丙寅) 2월 | 철종 종묘에 부묘 | 295 | 241 | |
| 133 | | 正元 | 1866(高宗 3, 丙寅) 4월 |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폐, 고종 친정 | 296 | 234 | |
| 134 | | 粹寧 | 1873(高宗 10, 癸酉) 4월 |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 297 | 243 | |
| 135 | 고종비 명성왕후 | 孝慈 | 1873(高宗 10, 癸酉) 4월 |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 301 | 246 | |
| 136 | | 元聖 | 1888(高宗 25, 戊子) 3월 |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 302 | 247 | |
| 137 | | 正化 | 1890(高宗 27, 庚寅) 2월 | 명성왕후 40세 | 303 | 248 | |
| 138 | | 合天 | 1892(高宗 29, 壬辰) 7월 | 고종 즉위 30년 | 304 | 249 | |
| 139 | | 洪功 | 1900(高宗 37, 庚子) 1월 | 효정왕후 칠순(七旬) | 305 | 251 | |
| 140 | | 誠德 | 1902(高宗 39, 壬寅) 1월 |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望六) | 306 | 252 | |

<표>를 통해 왕비 존호를 살펴보면 대체로 존호의 글자 수는 2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조비 정희왕후, 문조비 신정왕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⁶⁹⁾

1469년(예종 1) 2월에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올린 존호를 보면 ‘흠인 경덕 선렬 명순 원숙(欽仁 景德 宣烈 明順 元淑)’이라는 10글자를 올렸다. 그리고 그해 9월 ‘휘신혜의(徽愼惠懿)’라는 4글자의 존호를⁷⁰⁾ 더 올렸다. 이미 세조 3년(1457)에 올린 ‘자성(慈聖)’, 성종 1년(1470)에 ‘신헌(新憲)’이란 존호를 올려 모두 18자의 존호가 올려졌다. 또한 1892년(고종 29) 문조비 신정왕후 조씨에게 ‘예헌돈장(睿憲敦章)’이라는 4글자의 존호를 올린 사례가 있다.

69) 실제로는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 폐비신씨에게 올린 존호가 ‘齊仁元德’이란 4글자의 존호가 있다. 그러나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되었기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70) 예종실록 7권, 1년(1469) 9월 16일(병신) 上尊號曰, ‘太妃慈聖欽仁景行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殿下.’

문조비 신정왕후에게 ‘예헌돈장(睿憲敦章)’을 올리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예조 당상(禮曹堂上), 관각(館閣)의 당상(堂上), 삼사(三司)의 장관(長官)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종묘(宗廟)에 존호(尊號)를 추상하여 선양하려는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슬프고 사모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요즈음 우리 왕조에서 존호를 올린 전례를 상고하여 보니, 대왕(大王)에게는 여덟 글자, 왕후(王后)에게는 두 글자로 하여 원래 일정한 규례가 없었다. 옛날 정희왕후(貞熹王后)에게 존호를 더하여 올릴 때에는 혹은 열 자, 혹은 네 자인 때도 있었으며 명(明) 나라 옛 관례에도 인용할 만한 전례가 있었다. 생각건대, 우리 돌아가신 왕후의 공덕을 어떻게 그 만분의 일인이라도 그려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나의 심정은 비록 날마다 존호를 올리더라도 날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나타내는 때를 만났고 또한 인용할 만한 훌륭한 전거가 있으니, 이번에 신정왕후(神貞王后)에게 올리는 존호는 네 글자를 의논하여 결정하려고 한다.”⁷¹⁾

(중략)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할 때를 상고할 것 같으면 네 글자의 존호를 올리는 것은 실로 우리 왕조에서 한 번 있는 예식입니다. 명나라 영종(英宗)이 태후(太后)에게 처음으로 네 글자의 존호를 올렸으나 이것도 정상적으로 거행하는 규례는 아니고, 무종(武宗) 때 태황태후(太皇太后)의 호(號)를 네 글자로 올린 것도 평소 거행하던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끝없는 효성으로 선대 임금의 법을 본받아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우러러 경모할 뿐입니다.”⁷²⁾

(중략)

하교하기를, “정희 왕후에게 네 글자의 존호를 올린 것은 수렴(垂簾)한 후에 있는 일이고, 명나라의 의식 절차는 대궐 안에서 이미 상고하여 보았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이것은 진실로 비상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정희왕후 이후에는 다시 더 시행한 적이 없었고 명나라 300년 동안에도 단지 두 번 있었을 뿐입니다. 송(宋) 나라 제도에서 황후에게는 모두 두 글자의 시호(諡號)를 올렸는데 오직 장헌 명숙황후(章獻 明肅皇后)만은 황제의 일을 대행하였기 때문에 네 글자의 시호를 올렸다고 하였으니, 마침내 이를 규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⁷³⁾

(『조선왕조실록』 고종 29년 6월 24일)

고종과 대신들의 논의 내용으로 보아 존호를 올리는데 일정한 규식은 없으나, 대체로 2글자를 올렸고 4글자를 올리는 사례가 거의 없으나, 정해진 규식은 없기 때문에 4글자 존호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사왕(嗣王)이 국왕의 자리에 오르면 선왕대(先王代)의 왕대비와 왕비를 대왕대

71) 二十四日。 召見時原任大臣、禮堂、館閣堂上、三司長官。 教曰：“太室將行追闡之禮，采切愴慕之忱。 近考國朝尊號，大王八字，王后二字，原無一定之規。 在昔貞熹王后加上尊號，或以十字，或以四字，而皇明故事，亦有可援之例矣。 惟我先聖母之功之德，何能摹畫萬一？ 而在予情事，雖日日進號，惟日不足。 當此顯揚徽烈之會，亦可以援據懿典，今番神貞王后追上尊號，欲以四字議定矣。”

72) 弘集曰：“若稽貞熹王后垂簾時，加上四字號，此實國朝一有之禮也。 皇明 英宗，始上四字尊號於太后，武宗時，上太皇太后號四字，亦非常行之典也。 今我聖上，以無窮之孝思，乃欲監先憲而舉隆典，承聆之下，惟有欽仰而已。”

73) 教曰：“貞熹王后四字尊號，果在垂簾後，而皇明典禮，自內亦已考覽矣。” 弘集曰：“此，誠非常之禮。 故貞熹王后以後，更未行之。 明朝三百年，亦只再見而已。 至若宋朝之制，皇后皆二字諡，惟章獻明肅皇后，以稱制加爲四字云。 其非遂以爲例，可知也。” 教曰：“誠然矣。 貞熹王后晚年加上，還爲二字矣。”

비와 왕대비로 진봉(進封)하는 존숭의례를 거행하게 된다. 존숭의례는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혼전(魂殿)에 모셔져 있던 선왕의 신위를 옮겨 종묘에 부모(祔廟)한 후에 존호를 올리면서 거행하였다.

③ 황제 및 황후 추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태조를 비롯한 직계와 방계의 추존이 이루어졌다. 1899년(광무 3)과 1908년(융희 2) 총 2회 이루어졌다.

<표> 1899년(고종 36) 12월 7일에 올린 추존 사례

| 연번 | 구분 | 묘호망단자(廟號望單子) | 제호망단자(帝號望單子)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태조 | ‘태조(太祖)’ 【천대(千代)에 빛을 뿌린 것을 태(太)라 한다.】 | ‘고황제(高皇帝)’ 【기강을 만들고 표준을 세운 것을 고(高)라 한다.】 | ○ | 3 | |
| 2 | 신의왕후 | | ‘고황후(高皇后)’ | 105 | 85 | |
| 3 | 신덕왕후 | | ‘고황후(高皇后)’ | 108 | 87 | |
| 4 | 장조 | ‘장조(莊祖)’ 【덕이 훌륭하고 예절이 공손한 것을 장(莊)이라 한다.】 | ‘의황제(懿皇帝)’ 【성스럽고 신성하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懿)라고 한다.】 | 45 | 38 | |
| 5 | 헌경왕후 | | ‘의황후(懿皇后)’ | 216 | 175 | |
| 6 | 정조 | ‘정조(正祖)’ 【안팎이 복중하는 것을 정(正)이라고 한다.】 | ‘선황제(宣皇帝)’ 【정사와 교화를 널리 편 것을 선(宣)이라고 한다.】 | 54 | 41 | |
| 7 | 효의왕후 | | ‘선황후(宣皇后)’ | 226 | 180 | |
| 8 | 순조 | ‘순조(純祖)’ 【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 | ‘숙황제(肅皇帝)’ | 58 | 52 | |
| 9 | 순원왕후 | | ‘숙황후(肅皇后)’ | 232 | 196 | |
| 10 | 문조 | ‘문조(文祖)’ 【천지를 경륜하고 다스린 것을 문(文)이라고 한다.】 | ‘익황제(翼皇帝)’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사를 잘한 것을 익(翼)이라고 한다.】 | 70 | 65 | |
| 11 | 신정왕후 | | ‘익황후(翼皇后)’ | 247 | 219 | |

<표> 1908년(융희 2) 5월 11일(양력)에 올린 추존 사례

| 연번 | 구분 | 제호망단자(帝號望單子)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진종 | ‘소황제(昭皇帝) : 아름다운 명망이 차 넘침을 ‘소(昭)’라고 한다. | 44 | 34 | |
| 2 | 효순황후 | ‘소황후(昭皇后)’ | 210 | 170 | |
| 3 | 헌종 | ‘성황제(成皇帝) : 예법과 음악을 밝게 겸비함을 뜻에서 ‘성(成)’이라고 한다. | 87 | 71 | |
| 4 | 효현황후 | ‘성황후(成皇后)’ | 271 | 226 | |
| 5 | 효정황후 | ‘성황후(成皇后)’ | 272 | 239 | |
| 6 | 철종 | ‘장황제(章皇帝) : 법도에 크게 밝음을 ‘장(章)’이라고 한다. | 92 | 75 | |
| 7 | 철인황후 | ‘장황후(章皇后)’ | 292 | 중박 | |

고종 때 추존한 왕과 왕비는 조선을 세운 태조와 고종의 직계(直系)인 장조, 정조, 순조, 문조이고, 순종 때 추존한 왕과 왕비는 진종, 헌종, 철종으로 순종의 방계(傍系)이다. 이때 황제(皇帝)와 황후(皇后)로 추존하면서 만든 어보는 모두 옥보이고 누는 용뉴이다.

④ 왕세자 및 왕세자빈 존호

존호를 받는 대상은 주로 왕과 왕실의 어른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는 존호를 올리지 않았으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진종비 효순황후 조씨는 1727년(영조 3) 효장세자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으나, 효장세자 사망 후 1735년(영조 11) 현빈(賢嬪)이라는 빈호(嬪號)와 ‘현빈지인(賢嬪之印)’이 새겨진 옥인 귀뉴의 어보를 받았다.

장조(莊祖)는 1736년(영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1762년(영조 38) 왕세자가 사망하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20일 사도세자의 시호를 추숭하여 ‘장헌(莊獻)’이라 하였다. 정조는 이어 1783년(정조 7) 4월 1일 맏아들(문효세자)의 탄생으로 인해 후계자가 정해졌으므로 조상을 추모하는 존호를 올리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장조에게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는 존호를 올리고, 1784년(정조 8) 9월 17일 영조가 즉위한 지 6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홍인경지(弘仁景祉)’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1795년(정조 19) 정순황후 오순과 혜빈의 옥순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륜릉범 기명창휴(章倫隆範 基命彰休)’라는 존호를 추상하였고, 1855년(철종 6)에는 장조와 헌경황후 탄생 2주갑(1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찬원헌성 계상현희(贊元憲誠 啓祥顯熙)’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헌경황후 홍씨는 1744년(영조 20년) 왕세자빈에 책봉되었다. 1762년(영조 38) 왕세자가 사망하자 ‘혜빈(惠嬪)’이라는 빈호(嬪號)를 내린다.

관련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영조 38년 사도세자께서 홍서하고 “이제 이미 처분하였은즉 빈궁(嬪宮)은 효순(孝純)과 같으니, 구인(舊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혜빈(惠嬪)이란 호를 내려 일체로 옥인(玉印)을 내리고, 조정은 정후(庭候)하라.”⁷⁴⁾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1776년(정조 즉위년)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올리며, 혜빈(惠嬪) 홍씨 역시 '혜경궁(惠慶宮)'으로 궁호가 높아졌다. 1778년(정조 2)에 정순왕후가 병을 앓다가 건강을 회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혜경궁에게도 '효강(孝康)'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1783년(정조 7) 정조는 문효세자의 탄생으로 인해 후계자가 정해졌으므로 조상을 추모하는 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희(慈禧)'라는 존호를 올렸다. 1784년(정조 8) 영조가 즉위한 지 6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선(貞宣)'이란 존호를 올렸고, 1795년(정조 19)에는 혜빈의 육순을 기념하여 '휘목(徽穆)'이란 존호를 올렸다. 1855년(철종 6) 11월 6일 장조와 혜빈(惠嬪)의 탄생 2주갑(1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정(裕靖)'이라는 존호가 추상하였다.

<표> 왕세자 및 왕세자빈 존호 어보

| 연번 | 세자 및 세자빈 | 존호 | 수여 연도 | 내용 | 어보 | 어책 | 비고 |
|----|----------------|----|-------------------------|------------------------|-----|------------------|------|
| 1 | 효순왕후 조씨 | 賢嬪 | 1735(영조 11, 乙卯) 3월 16일 | 빈호 | 212 | × ⁷⁵⁾ | 옥인귀뉴 |
| 2 | 장헌세자 綏德敦慶 | | 1783(정조 7, 癸卯) 4월 1일 | 문효세자 탄생 | 51 | 죽책268 | 옥인귀뉴 |
| 3 | 장헌세자 弘仁景社 | | 1784(정조 8, 甲辰) 9월 18일 | 영조 즉위 60주년 | 52 | 죽책269 | 옥인귀뉴 |
| 4 | 장헌세자 章倫隆範 基命彰休 | | 1795(정조 19, 乙卯) 1월 17일 | 정순왕후 오순, 혜빈 육순 | 47 | 옥책35 | 금인귀뉴 |
| 5 | 장헌세자 贊元憲誠 啓祥顯熙 | | 1855(철종 6, 乙卯) 1월 21일 | 장조와 혜빈 탄생 2주갑(120년) | 53 | 옥책36 | 금인귀뉴 |
| 6 | 혜빈홍씨 | 惠嬪 | 1762(英祖 38, 壬午) 윤5월 21일 | 왕세자에게 '사도(思悼)' 시호 내리면서 | 218 | 죽책 × | 옥인귀뉴 |
| 7 | 혜빈홍씨 | 孝康 | 1778(정조 2, 戊戌) 5월 6일 | 정순왕후 건강을 회복 축하 | 220 | 죽책287 | 옥인귀뉴 |
| 8 | 혜빈홍씨 | 慈禧 | 1783(정조 7, 癸卯) 4월 1일 | 문효세자 탄생 | 222 | 죽책288 | 옥인귀뉴 |
| 9 | 혜빈홍씨 | 貞宣 | 1784(정조 8, 甲辰) 9월 18일 | 영조 즉위 60주년 | 223 | 죽책289 | 옥인귀뉴 |
| 10 | 혜빈홍씨 | 徽穆 | 1795년(정조 19, 乙卯) 1월 | 혜빈 육순(六旬) | 224 | 죽책○ 옥책171 | |
| 11 | 혜빈홍씨 | 裕靖 | 1855년(철종 6, 乙卯) 11월 6일 | 장조와 혜빈 탄생 2주갑(120년) | 225 | 옥책173 | |

74)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윤5월 21일(계미) "今既處分, 嬪宮與孝純一也, 不可用舊印。 賜其號曰惠嬪, 一體賜玉印, 朝廷庭候。”

75)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3월 16일(병술) 造進玉印, 自內宣賜, 無敎命竹冊文.

다. 시호 어보

시호(諡號)는 인물의 사후에 올리는 특별한 존칭으로 시호를 받는 대상은 황제, 제후, 왕 등의 군주와 그 조상 및 부인, 왕세자 및 왕세자빈, 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이다. 이번 항목에서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왕 시호

왕 시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본조(本朝)에서 묘호와 함께 올리는 8글자의 시호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황제로부터 받는 2글자의 사시(賜諡)가 있다.

<표> 왕 시호 어보

| 연번 | 왕 | 시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목조 | 人文聖穆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1 | | |
| 2 | 도조 | 康惠聖翼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2 | | |
| 3 | 익조 | 恭毅聖度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3 | | |
| 4 | 환조 | 淵武聖桓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4 | | |
| 5 | 태조 | 至仁啓運 聖文神武 | 1408(태종 8, 戊子) 9월 4일 | - | ○ | 금보용뉴 |
| 6 | 태조 | 正義光德 | 1683(숙종 9, 癸亥) 6월 12일 | 5 | 1 | |
| 7 | 정종 | 溫仁恭勇順孝 | 1419(세종 1, 己亥) 12월 24일 | - | ○ | |
| 8 | 정종 | 懿文莊武 | 1681(숙종 7, 辛酉) 12월 7일 | 7 | 4 | 懿文莊武 溫仁順孝 |
| 9 | 태종 | 聖德神功 文武光孝 | 1422(세종 4, 壬寅) 9월 2일 | - | ○ | 금보용뉴 |
| 10 | 태종 | 睿哲成烈 | 1683(숙종 9, 癸亥) 6월 12일 | - | 5 | 금보귀뉴 |
| 11 | 세종 | 英文睿武 仁聖明孝 | 1450(문종 즉위, 庚午) 5월 21일 | 8 | ○ | |
| 12 | 문종 | 欽明仁肅 光文聖孝 | 1452(단종 즉위, 壬申) 8월 21일 | 9 | ○ | |
| 13 | 단종 | 純定安莊 景順敦孝 | 1698(숙종 24, 戊寅) 12월 25일 | 중박 | 7 | |
| 14 | 세조 |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 1468(예종 즉위, 戊子) 11월 21일 | - | ○ | 금보귀뉴 |
| 15 | 덕종 | 懷簡宣肅 恭賢溫文 | 1476(성종 7, 丙申) 1월 18일 | - | ○ | 금보귀뉴 |
| 16 | 예종 | 欽文聖武 懿仁昭孝 | 1470(성종 1, 庚寅) 1월 26일 | 10 | ○ | |
| 17 | 성종 | 仁文憲武 欽聖恭孝 | 1495(연산 1, 乙卯) 3월 26일 | 12 | ○ | |
| 18 | 중종 | 徽文昭武 欽仁誠孝 | 1545(인종 1, 乙巳) 윤1월 19일 | 13 | ○ | |
| 19 | 인종 | 獻文懿武 章肅欽孝 | 1545(명종 즉위, 乙巳) 9월 12일 | 14 | 8 | |

| 연번 | 왕 | 시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20 | 명종 | 獻毅昭文 光肅敬孝 | 1567(선조 즉위, 丁卯) 11월 | 15 | | |
| 21 | 선조 | 顯文毅武 聖睿達孝 | 1608(광해 즉위, 戊申) 6월 4일 | 17 | ○ | |
| 22 | 원종 | 敬德仁憲 靖穆章孝 | 1632(인조 10, 壬申) 5월 2일 | 19 | ○ | |
| 23 | 인조 | 憲文烈武 明肅純孝 | 1649(효종 즉위, 己丑) 9월 4일 | 20 | 10 | |
| 24 | 효종 | 宣文章武 神聖顯仁 | 1659(현종 즉위, 己亥) 10월 26일 | - | 13 | 금보귀뉴 |
| 25 | 현종 | 純文肅武 敬仁彰孝 | 1674(숙종 즉위, 甲寅) 12월 9일 | - | 16 | 금보귀뉴 |
| 26 | 숙종 | 章文憲武 敬明元孝 | 1720(경종 즉위, 庚子) 10월 16일 | 24 | 19 | |
| 27 | 경종 | 德文翼武 純仁宣孝 | 1724(영조 즉위, 甲辰) 12월 13일 | 28 | 23 | |
| 28 | 영조 | 翼文宣武 熙敬顯孝 | 1776(정조 즉위, 丙申) 7월 20일 | 31 | 28 | |
| 29 | 영조 | 正文宣武 熙敬顯孝 | 1890(고종 27, 庚寅) 1월 4일 | 32 | 31 | 翼文→正文 |
| 30 | 진종 | 濫良睿明 哲文孝章 | 1776(정조 즉위, 丙申) 8월 12일 | 43 | 33 | |
| 31 | 장조 | 新文桓武 莊獻廣孝 | 1899(광무 3, 己亥) 10월 10일 | 46 | 37 | |
| 32 | 정조 | 文成武烈 聖仁莊孝 | 1800(순조 즉위, 庚申) 10월 18일 | 55 | 39 | |
| 33 | 순조 | 文安武靖 憲敬成孝 | 1835(헌종 1, 乙未) 3월 13일 | 60 | 44 | |
| 34 | 순조 | 文安武靖 英敬成孝 | 1857(철종 8, 丁巳) 10월 26일 | 61 | 43 | 憲敬→英敬 |
| 35 | 문조 | 敦文顯武 仁懿孝明 | 1835(헌종 1, 乙未) 5월 19일 | 71 | 53 | |
| 36 | 헌종 | 經文緯武 明仁哲孝 | 1849(철종 즉위, 己酉) 10월 3일 | 88 | 68 | |
| 37 | 철종 | 文顯武成 獻仁英孝 | 1864(고종 1, 甲子) 3월 13일 | 94 | 73 | |
| 38 | 고종 | 文憲武章 仁翼貞孝 | 1919년 己未 1월 27일(양2.27) | 96 | 83 | 옥보귀뉴 |
| 39 | 순종 | 文濫武寧 敦仁誠敬 | 1926년 丙寅 4월 20일(양5.31) | 101 | 84 | 옥보귀뉴 |

<표>에서 보듯 시호는 묘호와 함께 8글자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묘호와 같이 표기되지 않고 시호만 올려진 것은 대개 추상시호이다. 상시호는 처음 올리는 것이고 추상시호는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역대 왕들에게 시호를 올리고 제작된 어보는 모두 39과인데 지정대상 어보는 31과이다. 모두 금보이다. 그러나 고종과 순종에게 시호를 올리고 만든 어보는 옥보이다. 대한제국이후에 만든 것이다.⁷⁶⁾ 시호보의 형식은 왕의 경우는 묘호(2字)+시호(8字)+대왕지보이다.

76) 고종의 시호를 새긴 어보(유물번호 96번)는 1919년, 순종의 시호를 새긴 어보(유물번호 101번)는 1926년에 만들

시호는 사후에 받는 것이다. 태조가 상왕으로 계실 때 정종 2년(1400)에 ‘계운신무(啓運神武)’⁷⁷⁾라는 존호를 받았고, 승하하고 나서 태종 8년(1408)에는 ‘지인계운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라는 시호를 받았다. 정종 2년에 받은 ‘계운신무’는 존호이고, 이번에 올리는 ‘성문신무’라는 시호를 합하여 ‘지인계운성문신무’라는 존시(尊諡)를 받았다.⁷⁸⁾

태조에게는 태종 8년(1408)에 올린 ‘성문신무(聖文神武)’라는 시호가 있음에도 ‘정의광덕(正義光德)’이라는 시호를 올렸다. 그리고 태종에게는 ‘예철성열(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함께 올렸다.⁷⁹⁾

그런데 태조의 시호를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대에 추가로 올린 데에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다. 첫째, 시호의 글자 수가 후대 왕들보다 적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선왕의 시호는 일반적으로 8자였는데, 태조는 생시에 받은 존호 ‘계운신무(啓運神武)’를 제외하면 4자의 시호를 받았고, 시호와 존호를 합쳐 8자인 ‘지인계운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인데 비해 후손인 세조와 선조의 경우 각각 20자와 24자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후손이 선조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형국이었다. 둘째, 태조의 위화도 회군의 공적을 담은 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세채(朴世采) 등은 반대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은 위화도 회군은 『춘추(春秋)』 대의(大義)에 부합한 의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조의 기존 시호에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추가로 올렸는데, 이때 태조뿐 아니라 태종에게도 ‘예철성열(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더하였다.

태종에 대해서는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당(唐)나라 태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민심이 태종에게 기울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종으로부터 선양 받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호를 더하여 올린 것이다.

정종에게는 세종 1년(1419)에 ‘온인공용순효(溫仁恭勇順孝)’라는 6글자의 시호를 올린 예가 있는데, 숙종 9년(1683)에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를 올렸다.⁸⁰⁾

시호는 8글자를 쓴다는 것이 원칙이나, 정종의 시호만이 4글자로 올려 잘못된 전례라 하여 4자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하여 숙종 7년(1681)에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 4자를 더 올렸다.

77)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7월 2일(음축) 奉玉冊金寶, 上尊號曰啓運神武太上王

78) 숙종 14권, 9년(1683) 3월 25일(정묘)에 “역대(歷代)의 고사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휘호(徽號)의 글자수가 많고 적은 것은 공덕(功德)의 높고 낮은 것이나 할아버지와 손자의 높고 낮은 것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태조(太祖)께서는 상황(上皇)이 되셨던 날에 이미 계운신무(啓運神武)라는 존호(尊號)를 받으셨으며, 승하(昇遐)함에 이르러서는 또 지인성문(至仁聖文)이란 시호(諡號)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비록 다시 추가하여 올린다 하더라도 그의 성렬(盛烈)을 유양(揄揚)하는 것에는 더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以歷代故事觀之, 徽號字數之多少, 似無關於功德之高下、祖孫之尊屈。況太祖爲上皇之日, 已受啓運神武之尊號, 及至昇遐, 又上至仁聖文之諡, 則到今雖復追上, 其所以揄揚盛烈, 蔑以加矣。”

79) 숙종 14권, 9년(1683) 6월 12일(계미) 太宗曰恭定聖德神功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

80) 숙종 12권, 7년(1681) 신유) 12월 7일(병술) 加上諡號曰懿文莊武。

“공정 대왕의 묘호(廟號)를 신들이 2품(品) 이상의 관각당상(館閣堂上)과 일제히 모여 삼가 이렇게 협의 결정하여 들여보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열성(列聖)의 시호(諡號)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 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字)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묘호를 추가하여 올리는 때를 당하여 시호(諡號)를 더 올리는 것이 진실로 전례(典禮)에 합당합니다.”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4자(字)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하므로, 마침내 4자(字)를 의논하여 올렸다.⁸¹⁾

한편 공정대왕(恭靖大王)은 묘호(廟號)도 없었다. 숙종 때 비로소 ‘정종(定宗)’이라는 묘호와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열성(列聖)의 시호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의문장무’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선조의 처음 시호는 ‘소문의무 성경달효(昭文毅武 聖敬達孝)’라고 받았다.⁸²⁾ 그런데 같은 해 6월 4일 앞의 ‘소문(昭文)’ 두 글자가 명종의 시호 ‘현의소문 광숙경효(獻毅昭文 光肅敬孝)’와 같다고 하여 소문은 ‘현문(顯文)’으로 고치고, 또한 중국으로부터 사시(賜諡)한 호가 ‘소경(昭敬)’으로 ‘성경(聖敬)’의 ‘경(敬)’자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 자(字)를 ‘예(睿)’자로 고쳐 시보의 보문을 ‘현문의무 성예달효 대왕(顯文毅武 聖睿達孝 大王)’이라고 바꾸었다.⁸³⁾

영조의 묘호는 애초 ‘영종(英宗)’이었는데 고종 때 ‘영조(英祖)’로 개묘하였다. 아울러 정조 때 올린 ‘익문선무 희경현효(翼文宣武 熙敬顯孝)’의 시호를 ‘정문선무 희경현효(正文宣武 熙敬顯孝)’로 고쳐 올렸다.

진종은 1729년(영조 5)에 사망하자 ‘효장(孝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 후 영조의 유지(遺旨)에 따라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진종(眞宗)으로 추숭하고, 진종의 시호를 ‘온량예명 철문효장(溫良睿明 哲文孝章)’이라 하였다.

장조(莊祖)는 영조의 둘째 서자로 효장세자의 이복동생이며 정조의 생부이다. 흔히 사도세자(思悼世子) 또는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조 38년(1762) 뒤주에서 아사한 후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1776년(정조 1) 정조로부터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또 받았다. 이후 1899년(광무 3)에 고종이 ‘장종(莊宗)’이란 묘호와 함께 ‘신문환무 장헌광효(神文桓武 莊獻廣孝)’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이는 고종 황제가 장조를 왕으로 추숭하려 했던 정조의 소망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순조(純祖)의 시호는 묘호를 순종(純宗)에서 순조(純祖)으로 개묘할 때 ‘문안무정

81) 숙종 12권, 숙종 7년(1681) 9월 18일(정묘) “恭靖大王廟號, 臣等與二品以上、館閣堂上齊會, 謹此議定以入。而第念, 列聖諡號, 皆用八字, 而獨於恭靖大王只上溫仁順孝四字, 未免爲欠闕之典。今當追上廟號之日, 加上諡號, 允合典禮。” 上答曰: “加上四字宜矣。” 遂議進四字。

82) 광해군일기[중초본] 1권, 광해 즉위년(1608) 2월 25일(임오) 上大行大王徽號曰“昭文毅武聖敬達孝大王”

83) 宣宗大王上諡初以聖敬達孝及皇朝賜諡而昭敬則以諡號中敬字重疊爲未安而改敬爲睿故諡寶玉冊皆改造而寶則全改鑄。

헌경성효(文安武靖 憲敬成孝)에서 ‘문안무정 영경성효(文安武靖 英敬成孝)’로 바꾸었다. 시호 중 헌경(憲敬)을 영경(英敬)으로 바꾼 것이다.

문조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나 1812년(순조 12)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불행히도 1830년(순조 30)에 사망하여 ‘효명(孝明)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 아들인 헌종이 순조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으로 추숭되었다. 추숭묘호(追崇廟號)는 ‘익종(翼宗)’, 시호(諡號)는 ‘돈문현무 인의효명(敦文顯武 仁懿孝明)’으로 정하였다. 익종이라는 묘호는 1899년(광무 3) 문조로 바뀌었다.

한편 왕이 승하하면 중국으로부터 2글자의 시호를 받는다. 왕이 승하한 후에 신하들이 의논하여 세 가지 안을 올려 중국 황제로부터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정해 내려받는 것이다. 27대 왕 중 단종과 고종과 순종, 그리고 폐위된 광해군과 연산군, 추존왕 중 장조를 제외하고 모두 26명이 중국으로부터 시호를 받았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긴 어보는 7과(顆)인데, 전해지는 어보는 태조·정종·선조 어보 등 4과이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긴 어보>

| 연번 | 왕 | 보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太祖 | 康獻 至仁啓運 聖文神武 正義光德 大王之寶 | 1683(숙종 9) | 5 | | 금보귀뉴 |
| 2 | 太祖 | 康獻 至仁啓運 應天肇統 廣勳永命 聖文神武 正義光德 大王之寶 | 1872(고종 9) | 6 | | 금보귀뉴 |
| 3 | 定宗 | 恭靖 懿文莊武 溫仁順孝 大王之寶 | 1681(숙종 7) | 7 | | 금보귀뉴 |
| 4 | 太宗 | 恭定 聖德神功 文武睿哲 成烈光孝 大王之寶 | 1683(숙종 9) | - | | 금보귀뉴 |
| 5 | 太宗 | 恭定 聖德神功 建天體極 大正啓佑 文武睿哲 成烈光孝 大王之寶 | 1872(고종 9) | - | | 금보귀뉴 |
| 6 | 德宗 | 懷簡 宣肅恭顯 溫文懿敬 文王之寶 | 1476(성종 7) | - | | 금보귀뉴 |
| 7 | 宣祖 | 昭敬 正倫立極 盛德洪烈 至誠大義 格天熙運 景命神曆 弘功隆業 顯文毅武 聖睿達孝 大王之寶 | 1892(고종 29) | 18 | | 금보귀뉴 |

태조는 중국으로부터 1408년(태종 8)에 ‘강헌(康獻)’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683년(숙종 9)에 만든 금보에 시호를 새겼다. 정종은 1401년(태종 1) ‘공정(恭靖)’이라는 시호를 받아 1681년(숙종 7)에 새겼다. 태종은 1423년(세종 5) ‘공정(恭定)’이라는 시호를 받아 1683년(숙종 9)과 1872년(고종 9) 어보에 새겼다. 그러나 2과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덕종은 1475년(성종 6) ‘회간(懷簡)’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476년(성종 7)에 만든 금보에 새겨졌는데 전해지지 않는다. 선조는 1608년(선조 41)에 ‘소경(昭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 시호를 넣어 새긴 어보는 1892년(고종 29)이었다. 추상존호인 ‘경명신력 홍공용업(景命神曆 弘功隆業)’을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조선 말기에 제작된 어보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소경(昭敬)’이라는 시호를 새겼

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태조부터 추존왕인 원종까지는 명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았고 인조부터 철종까지는 청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았으나, 대체로 병자호란 뒤 정으로부터 받은 시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이후에도 숭명(崇明)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비명을 들 수 있으나 어보와 같은 다른 기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② 왕비 시호

왕비의 시호는 왕의 묘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묘호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불리는 명칭으로 세종이나 영조·정조 등의 명칭이다. 왕비 역시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시호인 것이다.

왕비에게 시호를 올리는 경우 부묘 전과 부묘 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묘 전에는 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이고, 부묘 시에는 휘호(4字)+시호(2字)+왕후지보(王后之寶)라고 하면 된다. 부묘시에는 휘호 4자를 더 올리면 된다.

왕비의 시호를 새긴 어보는 모두 31과이다. 30과가 금보이고, 3과가 옥보이다. 추존왕인 원종비 인현왕후 구씨의 시호를 새긴 것이 옥보(유물번호 139번)이다. 그리고 명성황후(유물번호 298번)와 순명효황후(유물번호 307번)의 것이 옥보인데, 이것은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시대의 격식과는 다르다. 손잡이 형식은 모두 귀뉴이다. 대표적인 왕비 시호를 새긴 어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왕비 시호 어보

| 연번 | 왕후 | 보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효공왕후 이씨 | 孝恭 王后之寶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103 | | 금보귀뉴 |
| 2 | 정숙왕후 최씨 | 貞淑 王后之寶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104 | | 금보귀뉴 |
| 3 | 경순왕후 박씨 | 敬順 王后之寶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105 | | 금보귀뉴 |
| 4 | 의혜왕후 최씨 | 懿惠 王后之寶 | 1411(태종 11, 辛卯) 4월 22일 | 106 | | 금보귀뉴 |
| 5 | 원경왕후 민씨 | 元敬 王后之印 | 1420(세종 2, 庚子) 9월 14일 | 고대 | ○ | 금보귀뉴 |
| 6 | 소헌왕후 심씨 | 昭憲 王后之寶 | 1446(세종 28, 丙寅) 6월 23일 | 110 | ○ | 금보귀뉴 |
| 7 | 정순왕후 송씨 | 端良齊敬 定順 王后之寶 | 1698(숙종 24, 戊寅) 12월 25일 | 중박 | 89 | 금보귀뉴 |
| 8 | 안순왕후 한씨 | 安順 王后之寶 | 1499(연산 5, 己未) 1월 | 117 | | 금보귀뉴 |
| 9 | 공혜왕후 한씨 | 恭惠 王后之寶 | 1474(성종 5, 甲午) 5월 22일 | 119 | ○ | 금보귀뉴 |
| 10 | 정현왕후 윤씨 | 貞顯 王后之寶 | 1530(중종 25, 庚寅) 10월 23일 | 120 | ○ | 금보귀뉴 |

| 연번 | 왕후 | 보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11 | 단경왕후 신씨 | 恭昭順烈 端敬 王后之寶 | 1739(영조 15, 己未) 5월 1일 | 122 | 90 | 금보귀뉴 |
| 12 | 문정왕후 윤씨 | 文定 王后之寶 | 1565(명종 20, 乙丑) 6월 21일 | 123 | | 금보귀뉴 |
| 13 | 의인왕후 박씨 | 懿仁 王后之寶 | 1600(선조 33, 庚子) 10월 17일 | 128 | ○ | 금보귀뉴 |
| 14 | 인목왕후 김씨 | 光淑莊定 仁穆 王后之寶 | 1632(인조 10, 壬申) 9월 5일 | 136 | ○ | 금보귀뉴 |
| 15 | 인현왕후 구씨 | 敬懿貞靖 仁獻 王后之寶 | 1632(인조 10, 壬申) | 139 | ○ | 옥보귀뉴 |
| 16 | 인렬왕후 한씨 | 仁烈 王后之寶 | 1636(인조 14, 丙子) 3월 16일 | 140 | 95 96 | 금보귀뉴 |
| 17 | 장렬왕후 조씨 | 貞肅溫惠 莊烈 王后之寶 | 1688(숙종 14, 戊辰) 12월 7일 | 143 | 103 | 금보귀뉴 |
| 18 | 명성왕후 김씨 | 貞獻文德 明聖 王后之寶 | 1684(숙종 10, 甲子) 3월 28일 | 150 | 111 | 금보귀뉴 |
| 19 | 인경왕후 김씨 | 仁敬 王后之寶 | 1681(숙종 7, 辛酉) 2월 16일 | 151 | 114 | 금보귀뉴 |
| 20 | 인원왕후 김씨 | 定懿章穆 仁元 王后之寶 | 1757(영조 33, 丁丑) 6월 13일 | 167 | 136 | 금보귀뉴 |
| 21 | 선의왕후 어씨 | 孝仁惠穆 宣懿 王后之寶 | 1730(영조 6, 庚戌) 10월 8일 | 184 | 145 | 금보귀뉴 |
| 22 | 정성왕후 서씨 | 貞聖 王后之寶 | 1757(영조 33, 丁丑) 5월 27일 | 186 | 149 | 금보귀뉴 |
| 23 | 정순왕후 김씨 | 昭肅靖憲 貞純 王后之寶 | 1805(순조 5, 乙丑) 5월 26일 | 200 | 166 | 금보귀뉴 |
| 24 | 현경왕후 홍씨 | 獻敬 惠嬪之印 | 1816(순조 16, 丙子) 2월 27일 | 221 | 172 | 금보귀뉴 |
| 25 | 효의왕후 김씨 | 睿敬慈粹 孝懿 王后之寶 | 1821(순조 21, 辛巳) 8월 8일 | 228 | 178 | 금보귀뉴 |
| 26 | 순원왕후 김씨 | 睿成弘定 純元 王后之寶 | 1857(철종 8, 丁巳) 10월 19일 | 236 | 190 | 금보귀뉴 |
| 27 | 신정왕후 조씨 | 景勳哲範 新貞 王后之寶 | 1890(고종 27, 庚寅) 7월 13일 | 248 | 215 | 금보귀뉴 |
| 28 | 효현왕후 김씨 | 孝顯 王后之寶 | 1843(헌종 9, 癸卯) 11월 21일 | 274 | 222 | 금보귀뉴 |
| 29 | 효정왕후 홍씨 | 慈溫恭安 孝定 王后之寶 | 1904(광무 8, 甲辰) 1월 6일 (양2.21) | 280 | 238 | 금보귀뉴 |
| 30 | 명성왕후 민씨 | 明成 皇后之寶 | 1897(광무 1, 丁酉) 10월 11일 (양11.5) | 298 | 250 | 옥보귀뉴 |
| 31 | 순명황후 민씨 | 純明 妃寶 | 1904(광무 8, 甲辰) 11월 9일 (양12.15) | 307 | 254 | 옥보귀뉴 |

왕비 시호를 정하는 데에는 먼저 3가지 안을 올려서 그 중 한 가지 안을 정한다. 세종비 소헌왕후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시호(諡號)를 봉상시(奉常寺)에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첩정(牒呈)하였기에,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소헌(昭憲)은 성문(聖聞)이 주달(周達)한 것이 소(昭)이고,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것이 헌(憲)입니다. 효순(孝順)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고, 유현(柔賢) 자혜(慈惠)한 것이 순(順)입니다. 효선(孝宣)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요, 성선(聖善)이 주문(周聞)하는 것이 선(宣)입니다.”하니, 임금이 소헌(昭憲)으로 정하였다.⁸⁴⁾

즉 시호로 수망(首望) 즉 1안으로 소헌(昭憲), 차망(次望) 즉 2안으로 효순(孝順), 삼망(三望) 즉 3안으로 효선(孝宣)을 올린 것인데 수망 즉 제1안인 소헌(昭憲)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다음은 명종비 인순왕후의 시호를 정한 내력이다.

예조 좌랑(禮曹佐郎)이 의의한 것들을 가져다가 삼공 앞에 올리니, 삼공이 의서 단자(議書單子)를 정하여 시호의 수망(首望)에 인순(仁順), 【인(仁)은 현자와 친족을 귀히 여김이요 순(順)은 유순하고 어질며 인자하고 은혜로우이다.】 차망(次望)에 정혜(貞惠),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너그럽고 인자함이다.】 삼망(三望)에 정숙(貞肅)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결단성이 있음이다.】 으로 정하고, 휘호(徽號)의 삼망(三望)에는 일망(一望)에 선열의성(宣烈懿聖), 이망에 소효현의(昭孝顯懿), 삼망에 소덕의열(昭德懿烈)로 정하고, 혼전(魂殿)의 삼망에는 경모(敬慕), 효의(孝義), 영사(永思)로 정하였다.⁸⁵⁾

즉 시호로 수망(首望) 즉 1안으로 인순(仁順), 차망(次望) 즉 2안으로 정혜(貞惠), 삼망(三望) 즉 3안으로 정숙(貞肅)을 올린 것인데 수망인 제1안인 인순(仁順)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왕비가 사망했을 때 왕이 살아 있다면 세종비 소헌왕후처럼 시호만 올린다. 그러나 이미 왕이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명종비 안순왕후처럼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린다. 즉, 소헌왕후는 아직 세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종묘 신실에 부묘되지 못하는 경우고, 안순왕후는 이미 명종이 사망하여 안순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바로 신실에 부묘되기 때문에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리는 것이다.

시호는 그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여 왕비의 품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예시사례로 몇몇 왕비의 시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종비 소헌왕후의 시호 ‘소헌(昭憲)’은 “성문(聖聞)이 주달(周達)한 것이 소(昭)이고,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것이 헌(憲)이다”⁸⁶⁾

84) 세종 112권, 세종 28년(1446) 4월 20일(정사) 議政府據禮曹呈啓: “大行王妃諡號, 奉常寺擬議牒呈, 謹具啓聞。 昭憲, 聖聞周達昭, 行善有記憲。 孝順, 秉德不回孝, 柔賢慈惠順。 孝宣, 秉德不回孝, 聖善周聞宣。” 上以昭憲爲定。

85) 선조 9권, 선조 8년(1575) 1월 10일(경술) 禮曹佐郎持呈于三公前, 三公定議書單子, 諡號首望仁順。 【仁貴賢親, 順柔(賢)慈惠。】 次貞惠 【大慮克就, 寬裕慈仁。】 三貞肅 【大慮克就, 執心正斷。】 徽號三望, 一宣烈懿聖, 二昭孝顯懿, 三昭德懿烈。 魂殿號, 敬慕、孝義、永思。

86) 세종 112권, 28년(1446) 병인) 4월 20일(정사) 聖聞周達昭, 行善有記憲。

5대 문종비 현덕왕후의 시호 ‘현덕(顯德)’은 “행실이 안팎에 보인 것을 현(顯)이라 하고, 충화(忠和)하고 순수(純淑)한 것을 덕(德)이라 하였다.”⁸⁷⁾

9대 성종비 공혜왕후의 ‘공혜(恭惠)’는 “공경하고 유순하게 윗사람을 섬김을 공(恭)이라 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인자함을 혜(惠)라 한다.”⁸⁸⁾

11대 중종비 단경왕의 ‘단경(端敬)’은 “예(禮)를 지키고 의(義)를 지키는 것을 단(端)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⁸⁹⁾

14대 선조비 인목왕후의 ‘인목(仁穆)’은 “인을 베풀고 의를 행하는 것[施仁服義]을 ‘인(仁)’이라 하고, 덕을 펴고 의를 지키는 것[布德執義]을 ‘목(穆)’이라고 하였다.”⁹⁰⁾

16대 인조비 인렬왕후의 ‘인렬(仁烈)’은 “인을 베풀고 의를 따르는 것[施仁服義]을 인(仁)이라 하고, 공로가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有功安民]을 열(烈)’이라 하였다.”⁹¹⁾

19대 숙종비 인경왕후의 ‘인경(仁敬)’은 “인덕(仁德)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였으며 지나깨나 항상 조심하고 가다듬는다.”⁹²⁾

19대 숙종계비 인원왕후의 ‘인원(仁元)’은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지녔다는 인(仁)이며, 의(義)를 세워 덕(德)을 행하였다는 인(仁)이다.”⁹³⁾

20대 경종비 선의왕후의 ‘선의(宣懿)’는 “선문주달(善聞周達)을 선(宣)이라 하고, 온유성선(溫柔聖善)을 의(懿)라 한다”⁹⁴⁾

21대 영조비 정성왕후의 ‘정성(貞聖)’은 “너그럽고도 사사로움이 없다는 정(貞)과 여러 사람이 훌륭하다고 드날린다는 성(聖)이다.”⁹⁵⁾

추존왕인 진종의 효순왕후의 ‘효순(孝純)’은 “자충(慈忠)·애친(愛親)을 ‘효(孝)’라 하고 중정(中正)·화수(和粹)를 ‘순(純)’이라 한 것이다.”⁹⁶⁾

22대 정조비 효의왕후의 ‘효의(孝懿)’는 “자혜(慈惠)하고 아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고, 온유(溫柔)하고 성선(聖善)한 것을 의(懿)라고 한다.”⁹⁷⁾

23대 순조비 순원왕후의 ‘순원(純元)’은 “중정정수(中正精粹)를 순(純)이라 하고 체인장민(體仁長民)을 원(元)이라 한다.”⁹⁸⁾

추존왕인 문조비 신정왕후의 ‘신정(神貞)’은 “백성들이 이름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하고, 원대한 계책을 성취한 것을 정(貞)이라 한다.”⁹⁹⁾

87) 세종 93권, 23년(1441 신유) 9월 7일(경자) 行見中外顯, 忠和純淑德.

88) 성종 41권, 5년(1474 갑오) 4월 19일(계유) 敬順事上曰恭, 寬裕慈仁曰惠.

89) 영조 49권, 15년(1739 기미) 3월 28일(갑술) 守禮執義曰端, 夙夜儆戒曰敬.

90) 인조 27권, 10년(1632 임신) 7월 7일(계묘) 施仁服義曰仁, 布德執義曰穆.

91)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 12월 17일(계사) 施仁服義曰仁, 有功安民曰烈.

92) 숙종 10권, 6년(1680 경신) 11월 2일(정사) 施仁服義, 夙夜儆戒之義.

93) 영조 89권, 33년(1757 정축) 4월 2일(계해) 施仁服義曰仁, 立義行德曰元.

94) 영조 27권, 6년(1730 경술) 7월 6일(계유) 善聞周達曰宣, 溫柔聖善曰懿.

95) 영조 89권, 33년(1757 정축) 2월 21일(계미) 坦然無私曰貞, 衆善播揚曰聖.

96) 영조 74권, 27년(1751 신미) 11월 19일(신사) 慈愛親曰孝, 中正和粹曰純.

97) 순조 23권, 21년(1821 신사) 3월 17일(정묘) 慈惠愛親曰孝, 溫柔聖善曰懿.

98) 철종 9권, 8년(1857 정사) 8월 10일(무오) 中正精粹曰純, 體仁長民曰元.

24대 헌종비 효현왕후의 ‘효현(孝顯)’은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아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고, 착한 행실이 안팎에 나타나는 것을 현(顯)이라 한다.”¹⁰⁰⁾

24대 헌종계비 효정왕후의 ‘효정(孝定)’은 “5대의 종실(宗室)을 편안하게 하였다는 뜻에서 ‘효(孝)’라고 하고, 순결한 덕행을 잃지 않았다는 뜻에서 ‘정(定)’이라고 하였다.”¹⁰¹⁾

25대 철종비 철인왕후의 ‘철인(哲仁)’은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실행함을 ‘인(仁)’이라 한다.”¹⁰²⁾

26대 고종비 명성황후의 ‘명성(明成)’은 “사망을 밝게 내리 비치는 것을 ‘명(明)’이라고 하며 예법과 음악을 밝게 갖추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¹⁰³⁾

③ 왕세자 및 왕세자빈 시호

왕세자에게 시호를 수여하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옥인 귀뉴로 제작한 어보와 죽책을 수여한다. 보문의 형식은 ‘시호+세자지인’이다.

<표> 왕세자 시호 어보

| 연번 | 왕세자 | 인문 | 수여 연도 | 어보 | 죽책 | 뉴 |
|----|------|----------|------------------|----|-----|------|
| 1 | 孝章世子 | 孝章世子之印 | 1729(영조 5년, 己酉) | 40 | 264 | 옥인귀뉴 |
| 2 | 莊獻世子 | 思悼世子之印 | 1762(영조 38년, 壬午) | 49 | | 옥인귀뉴 |
| 3 | 莊獻世子 | 思悼莊獻世子之印 | 1776(정조 즉위, 丙申) | 50 | 267 | 옥인귀뉴 |
| 4 | 孝明世子 | 孝明世子之印 | 1830(순조 30년, 庚寅) | 86 | 273 | 옥인귀뉴 |

왕세자빈 또한 왕비로 책봉하지 못하고 세자빈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시호를 내리며 어보와 죽책을 수여한다.

99) 고종 27권, 27년(1890 경인) 4월 22일(신유) 民無能名曰‘神’, 大慮克就曰‘貞’

100) 헌종 10권, 9년(1843 계묘) 9월 2일(신미) 慈惠愛親曰孝, 行見中外曰顯。

101) 고종 44권, 41년(1904 갑진) 1월 7일(양력) 五宗安之曰孝, 純行不爽曰定。

102)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 5월 17일(병인) 施仁服義曰‘仁’

103)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3월 2일(양력). 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1월 6일(양력)에 정한 명성(明成)은 【은 천하를 굽어 살피는 것을 ‘명(明)’이라고 하며 예악을 밝게 갖추고 있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으나 개명한 것이다. ‘明成’ 【臨照四方曰‘明’, 禮樂明具曰‘成’。】

<표> 왕세자빈 시호 어보

| 연번 | 왕세자빈 | 인문 | 수여 연도 | 어보 | 죽책 | 뉴 |
|----|----------------|---------|-----------------|------|-----|------|
| 1 |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 | 顯德嬪印 | 1441(世宗 23, 辛酉) | 113 | ○ | 금인직뉴 |
| 2 | 예종비 장순왕후 한씨 | 章順嬪韓氏之印 | 1462(世祖 8, 壬午) | 1138 | ○ | 백철직뉴 |
| 3 | 경종비 단의왕후심씨 | 端懿嬪印 | 1718(肅宗 44, 戊戌) | 181 | 279 | 옥인귀뉴 |
| 4 |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 | 孝純賢嬪之印 | 1752(英祖 28, 壬申) | 214 | 283 | 옥인귀뉴 |
| 5 |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 | 獻敬惠嬪之印 | 1816(純祖 16, 丙子) | 221 | ○ | 금인귀뉴 |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는 1441년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니 향년 24세였다. 이때 시호를 ‘현덕빈(顯德嬪)’으로 칭하였다.

예종비 장순왕후 한씨는 1460년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책봉 이듬해인 1461년 11월 30일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같은 해 12월 5일 산후병으로 요절하였다. 1462년(세조 8) 세조는 ‘장순(章順)’의 시호를 내렸다. 이때에는 왕세자빈 신분이었기에 죽책과 백철로 된 어보를 수여한 것이다. 훗날 성종이 즉위하자 왕후로 추존했다. 시호 ‘장순(章順)’은 “온순하고 너그럽고 의용(儀容)이 아름다운 것을 장(章)이라 하고 유순(柔順)하고 어질고 자혜(慈惠)로운 것을 순(順)이라고 한다.”¹⁰⁴⁾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는 1696년(숙종 22) 11살에 왕세자빈에 간택되었으나 경종 즉위 2년 전인 1718년(숙종 44) 2월 7일 갑자기 돌연사 하였다. 숙종은 1718년(숙종 44) 4월 10일 ‘단의(端懿)’라는 시호(諡號)를 추서하고 단의빈(端懿嬪)으로 삼았다.

진종비 효순왕후 조씨는 1751년(영조 27) 11월 14일 창덕궁에서 소생 없이 37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1752년(영조 28) 1월 11일 현빈(賢嬪)에게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장조비 헌경왕후 홍씨는 1815년(순조 15) 사망하였고 1816년(순조 16) 1월 19일 ‘헌경(獻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 1899년(고종 36) 10월 10일에 헌경왕후(獻敬王后)로 추존되었고, 1899년(광무 3) 11월 17일(양력 12월 19일) ‘헌경 의황후(獻敬 懿皇后)’로 추존되었다.

라. 묘호 어보

왕이 사망한 뒤 종묘 신실에 신위를 모실 때 신실의 명칭을 묘호(廟號)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불리어지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명칭이다. 묘호의 글자 수는 2자(字)이다.

조선왕조 왕들은 모두 27명이다. 여기에 폐위된 연산군, 광해군을 제외하고 태조의 4대조,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34명이다. 그 중 조(祖)의 묘호를 갖은 왕은

104) 세조 27권, 8년(1462 임오) 2월 4일(기사) 賜王世子嬪諡章順, 溫克令儀, ‘章’, (案) 賢慈惠, ‘順’.

13명, 종(宗)의 묘호를 갖은 왕은 21명이다.¹⁰⁵⁾

묘호에 주로 쓰는 사례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가 있다. 『예기(禮記)』에 조공종덕(祖功宗德)의 명분에 따라 공이 있는 자는 조로 칭하고, 덕이 있는 자는 종으로 칭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조와 종을 구분하는 내용이 전하는데,

「창업지군칭조(創業之君稱祖), 계체지군칭종(繼體之君稱宗)」

새롭게 나라를 연 왕을 조라 하고, 부자간 즉 직계로 왕이 계승되었을 때는 종이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태종은 정종의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묘호가 붙여졌고, 중종 역시 연산군의 아들이 아니었다.

「입승왈조(入承曰祖) 계승왈종(繼承曰宗)」

세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조라하고,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면 종이라 한다.

「조공종덕(祖功宗德)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

공이 있는 왕은 조라하고, 덕이 있는 왕은 종이라 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이 여럿 있지만 조나 종을 쓰는 데에는 꼭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조는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이나 국통(國統), 즉 나라의 정통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 이러한 연유로 종보다 조가 격이 더 높다는 관념을 낳게 되어 종을 조로 바꾸기도 하였다. 반대로 조를 종으로 바꾼 예는 거의 없다.

이미 정해진 선왕의 묘호를 후일 개묘(改廟)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의 정치 상황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묘호 개묘를 추진하는 주체는 대부분 왕으로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신하들은 선왕의 묘호를 조로 삼으려는 왕에게 왕통을 이어받았으면 종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대한다. 조나 종의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어 묘호 개정을 비판하였다. 묘호를 새로 받거나 개묘된 임금의 정종, 단종, 선조, 영조, 장조, 정조, 문조이다.

광해군은 선조를 임진왜란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을 극복한 새 시대의 개조(開祖)로 만들었다. 광해군 8년(1616)에 선종에서 선조로 개묘하였는데¹⁰⁶⁾ 실제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숙종 때에는 왕실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자신이 그 직통을 잇는 주인임을 내세우고자 하여 공경대왕의 묘호를 정종¹⁰⁷⁾으로 짓고 강등되어 있던 노산군을 단종¹⁰⁸⁾으로 묘호를 추상하였다.

105) 조의 묘호를 갖은 왕은 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 7명과 태조의 4대조인 목조·익조·도조·환조 4명과 장조와 문조 2명의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13명이다. 종의 묘호를 갖은 왕은 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효종·현종·숙종·경종·헌종·철종·고종·순종 등 18명과 덕종·원종·진종 등 3명의 추존왕을 포함하여 모두 21명이다.

106) 광해군일기[중초본] 106권, 광해 8년(1616) 8월 4일(임인) 廟號宣祖.

107)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1681) 12월 7일(병술) 子時以玉冊金寶, 追上恭靖大王, 廟號曰定宗.

108)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1698) 11월 6일(정축) 廟號曰端宗.

철종 때에는 신유사옥으로 서교를 폐하고 정학을 바로 세운 공로를 기려야 하고, 흥경래의 난을 평정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순종을 순조로 개묘하였다.¹⁰⁹⁾ 실제로는 순원왕후가 철종으로 왕위를 이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고종 27년(1890)에 영종에서 영조로 개묘하였다.¹¹⁰⁾ 고종은 제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 롤 모델이 바로 영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조의 묘호를 개묘하고자 하였다.

장조와 정조, 그리고 문조의 개묘 배경은 고종이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직계 선조를 황제로 추존하고 태조를 천제(天帝)에 배향할 것을 결심했으며, 1899년(광무 3) 동지에 올리는 환구단(圜丘壇) 대제(大祭)에서 이를 실행했다. 고종은 종묘로 가서 태조와 자신의 직계 4대조 즉 장조·정조·순조·문조의 존호를 올리는 행사를 거행했고, 동지에는 환구단으로 가서 태조를 천제에 배향하는 행사를 거행했다. 이어 장종의 묘호를 장조로, 정종의 묘호를 정조로, 익종의 묘호를 문조로 개묘하였다.¹¹¹⁾

묘호는 보통 시호와 함께 올려 진다. 묘호 및 시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묘호 현황>

| 대수 | 묘호 | 내용 | 수여 연도 | 어보 | 어책 | 비고 |
|-----|----|--------------------|---------------------|----|----|----|
| 1대 | 太祖 | 至仁啓運 聖文神武/ 太祖 | 太宗 8년(1408) 戊子 9월 | | | |
| | | 高皇帝/ 太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 3 | |
| 2대 | 定宗 | 懿文莊武/ 定宗 | 肅宗 7년(1681) 辛酉 12월 | | 4 | |
| 3대 | 太宗 | 聖德神功 文武光孝/ 太宗 | 世宗 4년(1422) 壬寅 9월 | | | |
| 4대 | 世宗 | 英文睿武 仁聖明孝/ 世宗 | 文宗 원년(1450) 庚午 3월 | | | |
| 5대 | 文宗 | 欽明仁肅 光文聖孝/ 文宗 | 端宗 원년(1452) 壬申 8월 | | | |
| 6대 | 端宗 | 純定安莊 景順敦孝/ 端宗 | 肅宗 24년(1698) 戊寅 12월 | | 7 | |
| 7대 | 世祖 |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世祖 | 睿宗 원년(1468) 戊子 11월 | | | |
| 추존1 | 德宗 | 懷簡宣肅 恭賢溫文/ 德宗 | 成宗 7년(1476) 丙申 1월 | | | |
| 8대 | 睿宗 | 欽文聖武 懿仁昭孝/ 睿宗 | 成宗 1년(1470) 庚寅 2월 | 10 | | |
| 9대 | 成宗 | 仁文憲武 欽聖恭孝/ 成宗 | 燕山 1년(1495) 乙卯 3월 | 12 | | |
| 11대 | 中宗 | 徽文昭武 欽仁誠孝/ 中宗 | 仁宗 1년(1545) 乙巳 1월 | 13 | | |
| 12대 | 仁宗 | 獻文懿武 章肅欽孝/ 仁宗 | 明宗 원년(1545) 乙巳 9월 | 14 | 8 | |
| 13대 | 明宗 | 獻毅昭文 光肅敬孝/ 明宗 | 宣祖 원년(1567) 丁卯 7월 | | | |

109) 철종실록 9권, 철종 8년(1857) 10월 26일(계유) 尊諡冊寶尊號冊寶于純祖室, 行改題主酌獻禮.

110)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1889) 12월 5일(병자) 賓廳議啓: "英宗大王廟號望'英祖'"

111)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1899) 12월 7일(양력).

| 대수 | 묘호 | 내용 | 수여 연도 | 어보 | 어책 | 비고 |
|-----|----|-----------------|---------------------|----|----|----|
| 14대 | 宣宗 | 顯文毅武 聖睿達孝/ 宣宗 | 光海 원년(1608) 戊申 2월 | | | |
| | 宣祖 | 啓統光憲 凝道隆祚/ 宣祖 | 光海 8년(1616) 丙辰 8월 | | | |
| 추존2 | 元宗 | 元宗 | 仁祖 12년(1634) 甲戌 7월 | | | |
| 16대 | 仁祖 | 憲文烈武 明肅純孝/ 仁祖 | 孝宗 원년(1649) 己丑 9월 | | 10 | |
| 17대 | 孝宗 | 宣文章武 神聖顯仁/ 孝宗 | 顯宗 원년(1659) 己亥 10월 | | 13 | |
| 18대 | 顯宗 | 純文肅武 敬仁彰孝/ 顯宗 | 肅宗 원년(1674) 甲寅 12월 | | 16 | |
| 19대 | 肅宗 | 章文憲武 敬明元孝/ 肅宗 | 景宗 원년(1720) 庚子 10월 | | 19 | |
| 20대 | 景宗 | 德文翼武 純仁宣孝/ 景宗 | 英祖 원년(1724) 甲辰 12월 | | 23 | |
| 21대 | 英宗 | 翼文宣武 熙敬顯孝/ 英宗 | 正朝 원년(1776) 丙申 7월 | | 28 | |
| | 英祖 | 正文宣武 熙敬顯孝/ 英祖 | 高宗 27년(1890) 庚寅 1월 | | 31 | |
| 추존3 | 眞宗 | 溫良睿明 哲文孝章/ 眞宗 | 正朝 원년(1776) 丙申 8월 | | 33 | |
| 추존4 | 莊宗 | 神文桓武 莊獻廣孝/ 莊宗 | 高宗 36년(1899) 己亥 10월 | | 37 | |
| | 莊祖 | 懿皇帝/ 莊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45 | 38 | |
| 22대 | 正宗 | 文成武烈 聖仁莊孝/ 正宗 | 純祖 원년(1800) 庚申 10월 | | 39 | |
| | 正祖 | 宣皇帝/ 正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54 | 41 | |
| 23대 | 純宗 | 文安武靖 憲敬成孝/ 純宗 | 憲宗 1년(1835) 乙未 3월 | | 44 | |
| | 純祖 | 文安武靖 英敬成孝/ 純祖 | 哲宗 8년(1857) 丁巳 10월 | | 43 | |
| | | 肅皇帝/ 純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58 | 52 | |
| 추존5 | 翼宗 | 敦文顯武 仁懿孝明/ 翼宗 | 憲宗 1년(1835) 乙未 5월 | | 53 | |
| | 文祖 | 翼皇帝/ 文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70 | 65 | |
| 24대 | 憲宗 | 經文緯武 明仁哲孝/ 憲宗 | 哲宗 원년(1849) 己酉 10월 | | 68 | |
| | | 成皇帝/ 憲宗 | 純宗 1년(1908) 戊申 7월 | | 71 | |
| 25대 | 哲宗 | 文顯武成 獻仁英孝/ 哲宗 | 高宗 1년(1864) 甲子 3월 | | 73 | |
| | | 章皇帝/ 哲宗 | 純宗 1년(1908) 戊申 7월 | | 75 | |
| 26대 | 高宗 | 太皇帝/文獻武章仁翼貞孝/高宗 | 純宗 13년(1919) 己未 1월 | | 83 | |
| 27대 | 純宗 | 孝皇帝/文溫武寧敦仁誠敬/純宗 | 純宗 19년(1926) 丙寅 4월 | | 84 | |

묘호는 시호와 함께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대체로 어보에는 묘호를 새기지 않는 경향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보면

3월 26일[己酉]에 존시(尊諡)를 인문현무 흥성공효 대왕(仁文憲武 欽聖恭孝 大王)으로 올리고, 묘호(廟號)를 성종(成宗)이라고 하였다.¹¹²⁾

112) 성종실록 297권, 성종 25년(1494) 12월 24일(기묘) 三月己酉上尊諡曰: "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廟號曰: "成宗。"

묘호를 ‘성종(成宗)’이라 올리고 시호를 ‘인문헌무 흠성공효(仁文憲武 欽聖恭孝)’라고 올렸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경종 때 묘호와 시호에 대해 예조에서 아뢴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시보(諡寶)·개명정(改銘旌)·우주(虞主)의 식(式)을 계하(啓下)함이 마땅한데, 태묘(太廟)의 의궤(儀軌)를 상고해 보았더니, 성종실(成宗室)·중종실(中宗室)과 정종실(定宗室)·예종실(睿宗室)·인종실(仁宗室)의 금보(金寶)에는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를 썼고, 각실(各室)의 금보에는 모두 묘호는 없고 시호만 썼었습니다. 을유년(1705, 숙종 31년) 금보(金寶)를 수보(修補)할 때에 각실의 금보 가운데 묘호(廟號)를 쓰지 않은 곳이 많았으므로 명묘(明廟)의 금보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써 넣어 개조(改造)하였습니다. 또 본조(本曹)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았더니, 기축년(1649 인조의 국상이 있던 해임)·기해년(1659 효종의 국상이 있던 해임)·갑인년(1674 현종의 국상이 있던 해임)에는 다만 시호만 썼었습니다. 이제 이 시호 또한 태묘(太廟)의 각실(各室)에 다만 시호만 쓰는 예와 기축년 이후 이미 시행한 예에 의하여 묘호는 쓰지 말고 시호만 쓸 것이며, 명정(銘旌)과 우주(虞主)의 식에는 존호(尊號)와 시호를 아울러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¹³⁾

이 내용은 정종(定宗)·예종(睿宗)·성종(成宗)·중종(中宗)·인종(仁宗)의 금보(金寶)에는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소장하고 있는 어보 중 정종 것만 빼고 예종(1470)·성종(1495)·중종(1545)·인종(1545)의 어보에는 묘호가 새겨져 있다.¹¹⁴⁾ 모두 금보 귀뉴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의 형식은 ‘묘호(2자)+시호(8자)+대왕지보(大王之寶)’이다. 모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묘호가 새겨진 어보>

| 연번 | 왕 | 보문 내용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睿宗 | 睿宗 欽文聖武 懿仁昭孝 大王之寶 | 1470(성종 1, 경인) 1924년 재제작 | 10 | | 금보귀뉴 |
| 2 | 成宗 | 成宗 仁文憲武 欽聖恭孝 大王之寶 | 1495(연산 1, 을묘) | 12 | | 금보귀뉴 |
| 3 | 中宗 | 中宗 徽文昭武 欽仁誠孝 大王之寶 | 1545(인종 1, 을사) | 13 | | 금보귀뉴 |
| 4 | 仁宗 | 仁宗 獻文懿武 章肅欽孝 大王之寶 | 1545(명종 즉위, 을사) | 14 | | 금보귀뉴 |

1632년(인조 10) 3월 11일

대신 및 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대원군(大院君)의 시호를 ‘경덕인헌 정목장효(敬德仁憲

113)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 7월 4일(기사) 禮曹啓曰: “諡寶、改銘旌、虞主式、當爲啓下、而取考太廟儀軌、則成宗·中宗室、定宗·睿宗·仁宗室金寶、書廟號、諡號、各室金寶、則皆無廟號、只書諡號。乙酉年金寶修補時、以各室金寶中、廟號不書者居多、明廟金寶、亦依此例、書填改造矣。且考本曹謄錄、則己丑、己亥、甲寅、只書廟號。今此諡號、亦依太廟各室、只書諡號例及己丑以後已行之例、不書廟號、只書諡號、而銘旌、虞主式、則並書尊號、諡號、似爲得宜。” 上從之。

114) 실제 정종 어보는 묘호를 쓰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겼다. 실록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靖穆章孝)라 하였다. 이때 인조가 "묘호(廟號)는 왜 의논해 올리지 않는가?" 하니, "성종 때는 주청한 후 8자 호를 가하고 비로소 묘호를 올렸습니다. 예조가 품한 바는 단지 시호뿐이었으며 전에 우선은 입묘(入廟)하지 말라고 하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논해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634년(인조 12) 7월 14일 대제학 최명길(崔鳴吉)이 원종의 묘호를 지어 옥책을 제작하여 올렸다. 이때 어보는 별도로 제작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옥책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

대체로 시호를 올릴 때 묘호도 함께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종만 시호와 묘호를 별도로 올린 경우는 드물다.

마. 휘호 어보

왕과 왕비가 사망한 후 혼전에서 3년의 상기를 마치고 난뒤 신주를 종묘 신실에 모시는 것을 부묘(祔廟)라 한다. 왕의 경우는 3년의 상기가 끝나는 대로 부묘되었으나 왕후의 경우 왕이 살아 있을 때에는 3년의 상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혼전(魂殿)에 모시다가 왕의 3년 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부묘한다. 즉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왕비가 사망하면 시호(諡號)만 주어진다. 왕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왕후의 상기가 끝나면 시호와 휘호(徽號)를 함께 부여한다.

휘호는 왕비가 승하한 후에 시호와 함께 올리는 존칭이다. 이 휘호는 왕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4글자가 정형화 되어 있다.

<휘호 어보>

| 연번 | 왕후 | 휘호 | 수여 연도 | 어보 | 옥책 | 비고 |
|----|---------|------|------------------------|-----|-----|------|
| 1 | 정안왕후 김씨 | 濫明莊懿 | 1681(숙종 7, 신유) 12월 7일 | 109 | 88 | |
| 2 | 현덕왕후 권씨 | 仁孝順惠 | 1454(단종 2, 갑술) 7월 1일 | 112 | ○ | |
| 3 | 공혜왕후 한씨 | 徽懿愼肅 | 1497(연산 3, 정사) 2월 7일 | 구입 | | 금인귀뉴 |
| 4 | 장경왕후 윤씨 | 宣昭懿淑 | 1546(명종 1, 병오) 4월 23일 | 124 | | |
| 5 | 의인왕후 박씨 | 貞憲 | 1610(광해 2, 경술) 4월 17일 | 131 | | |
| 6 | 인현왕후 민씨 | 懿烈貞穆 | 1722(경종 2, 임인) 8월 1일 | 161 | 125 | |
| 7 | 단의왕후 심씨 | 恭孝定穆 | 1726(영조 2, 병오) 9월 28일 | 180 | 142 | |
| 8 | 정성왕후 서씨 | 端穆章和 | 1778(정조 2, 무술) 5월 6일 | 193 | 153 | |
| 9 | 효순왕후 조씨 | 徽貞賢淑 | 1776(정조 즉위, 병신) 8월 12일 | 211 | 169 | |
| 10 | 헌경왕후 홍씨 | 仁哲啓聖 | 1899(광무 3, 기해) 10월 10일 | 217 | 174 | |
| 11 | 효현왕후 김씨 | 敬惠靖順 | 1851(철종 2, 신해) 7월 27일 | 275 | 223 | |

왕비에게 올린 휘호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글자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2글자를 올린 사례도 보인다.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에게 선조 10년

(1577)에 올린 ‘효순(孝順)’이라는 휘호와 선조비 의인왕후에게 광해 2년(1610)에 올린 ‘정헌(貞憲)’이라는 휘호이다.

중종계비 장경왕후와 같이 두 차례 휘호를 올린 경우도 있다. 1515년(중종 10)에 졸하셨을 때 ‘숙신명혜(淑愼明惠)’라는 휘호를 올렸고, 1546년(명종 1) 부묘할 때 ‘선소의숙(宣昭懿淑)’이란 휘호를 다시 올렸다. 앞서 언급했듯 내상(內喪)이 왕의 상(喪)보다 먼저 있는 경우 시호만 올리고 부묘할 때 휘호를 올리는 것인데, 중종 대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내상이 먼저 있는 경우인데도 휘호를 올렸다가 후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부묘할 때 또 휘호를 올린 것이다.¹¹⁵⁾ 이 내용이 실록에 소상히 나온다.

“신들이 삼가 어제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고 억측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 종묘의 열성등록(列聖謚錄)을 고찰해보니, 내상(內喪)이 앞에 있으면 모두 초상 때에는 시호만 올렸다가 태묘(太廟)에 승부(陞祔)할 때에 이르러 비로소 시호를 더 올렸습니다.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일로 예를 든다면 ‘원경’은 초상 때에 올린 것이고 ‘창덕소열(彰德昭烈)’은 부묘(祔廟) 때에 올린 것입니다. 장경왕후(章敬王后) 때에도 초상에는 ‘장경’만 올리고 정미년 정월 부묘할 때에 이르러 ‘선소의숙(宣昭懿淑)’이라는 시호를 더 올렸습니다.

이로 헤아려 본다면 대체로 휘호(徽號)는 아마도 사왕(嗣王)이 선후(先后)를 위하여 올리는 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내상이 먼저 있게 되면 반드시 부묘 때를 기다려서 올리는 것으로 아마 장경 왕후 때에는 초상 때에 휘호를 미리 올렸다가 곧 이어 전례가 아님을 깨닫고 정미년 정월에 비로소 ‘선소의숙’이라는 휘호를 올린 것으로 그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오늘은 영상과 좌상이 모두 질병으로 오지 못하였으니 신들만으로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¹¹⁶⁾

휘호를 받지 못한 왕비도 있다. 세조비 정희왕후와 중종계비 문정왕후이다. 정희왕후의 예는 조선 초기에는 생전에 올린 존호와 사후에 올리는 휘호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여 휘호를 올리지 못한 경우이다.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생전에 ‘자성 흙인 경덕 선렬 명순 원숙 휘신 혜의 신헌(慈聖 欽仁 景德 宣烈 明順 元淑 徽愼 惠懿 神憲)’이라는 1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성종 14년(1483)에 돌아가 시자 시호만 올리고 휘호는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중종계비 문정왕후는 명종 20년(1565)에 졸하였는데 세조비 정희왕후의 예를 따라 휘호를 올리지 않았다. 즉 1547년(명종 2)에 ‘성열(聖熱)’이라는 존호를 받았고 그해 9월 ‘인명(仁明)’이라는

115) 김종수, 「규장각 소장 존호 존숭 상호도감 의례 해설」, 39쪽.

116) 선조 128권, 선조 33년(1600 경자) 8월 21일(신묘) “臣等伏見昨日下午政院之教，難於臆定，取考宗廟列聖謚錄，內喪在先，則皆於初喪，只上謚號，至於祔大廟時，始加上謚號。試以元敬王后一例爲證，則其曰元敬，卽初喪時所上，其曰彰德昭烈，卽祔廟時加上者也。章敬王后時，亦初喪，只上章敬之謚，至丁未正月祔廟之時，加上宣昭懿淑之號。以此度之，則凡徽號，似是嗣王爲先后而上者也。內喪在先，則必待祔廟時上之，豈章敬王后時初喪，徑上徽號，而旋覺非例而改之，至於丁未正月，始上宣昭懿淑之號耶？此事似無可疑，而但今日。領左相，皆以病不來。臣獨議爲難，姑待後日齊坐，議定何如？” 答曰：“允。”

존호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마. 기타

어보의 개념 및 범위에서 기술하고 있듯 어보는 책봉이나 존호·시호·휘호 등의 위호(位號)를 옥이나 금동에 새긴 인장이다. 그러나 가례나 길례, 흥례 등 의례의 소산물이 아닌 것들이 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타 어보 내용>

| 연번 | 왕·왕비 | 보문 | 년도 | 어보 | 어책 | 비고 |
|----|---------|----------|-----------------|-----|-----|------|
| 1 | 예종 | 武勝安民之寶 | 1469(예종 1, 己丑) | 11 | | 금보귀뉴 |
| 2 | 진종 | 孝章承統世子之印 | 1776(영조 52, 丙申) | 42 | 265 | 은인귀뉴 |
| 3 | 효순왕후 조씨 | 孝純承統賢嬪之印 | 1776(영조 52, 丙申) | 215 | 284 | 은인귀뉴 |
| 4 | 정조 | 孝孫八十三書 | 1776(영조 52, 丙申) | 39 | | 은인귀뉴 |

1469년(예종 1)에 ‘무승안민지보(武勝安民之寶)’를 만들었다.¹¹⁷⁾고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종묘등록에는 1457년(세조 3, 정축) 12월에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예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즉책과 함께 책봉인을 받은 때이다. 세자 책봉인은 대체로 옥으로 제작되며 보문은 ‘왕세자인’으로 새긴다. 그런데 이것은 금동으로 제작되었으며 보문에는 ‘무승안민지보(武勝安民之寶)’라고 새겨져 있다. 예종의 왕세자인은 역시 월정사 소장 국보 제292호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에 날인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영조 52년(1776)에 진종과 그의 빈인 효순왕후에게 올려진 어보가 있다. 진종(1719~1728)은 영조의 아들로 어머니는 정빈(靖嬪)이씨이며, 비는 좌의정 조문명(趙文命)의 딸인 효순왕후(孝純王后)이다. 영조 즉위년(1724)에 경의군(敬義君)으로 봉해지고, 이듬해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즉위하기 전에 졸하였다. 양자인 정조가 즉위하면서 진종(眞宗)으로 추존되었다. 이에 대해 승통을 이었다는 정통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어보를 만든 것이다. 그의 비에게도 올려 졌는데, 둘 다 옥으로 만들었으며 귀뉴이다. 이에 관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한다. 효장궁에 호를 올리고 옥인과 즉책을 만들어 주게 하라는 것이다. 하교하기를,

“이번 예(禮)가 끝난 뒤에는 효장궁(孝章宮)에도 호(號)가 있고서야 종통(宗統)이 바르게 되고 사면(事面)이 곧바르게 될 것이다. 지금 효장(孝章)·효순(孝純) 두 자로 종통이 바르게 되겠는가?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다. 효장은 효장승통세자(孝章承統世子)라 하고 효순은 효순승통세자빈(孝純承統世子嬪)이라 하여 옥인(玉印)과 즉책(竹冊)을 만들어 주라. 그 또한 경사를 이어받아 후세에 전하는 도리이니, 종통을 바른 일을 위에 고하되 삭제(朔祭) 때에 아울러 고유(告由)하고 팔방에 선포하라. 책인도감(冊

117)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1469) 9월 20일(경자) 作武勝安民之寶.

印都監)은 호조(戶曹)·예조(禮曹)·공조(工曹)의 당상(堂上)·낭청(郎廳)이 거행하라.”¹¹⁸⁾

또 다른 어보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 감동하여 영조가 왕세손이던 정조에게 내린 것이다. 83세의 영조 친필을 새긴 것이다. 유물명칭은 ‘정조은인(正祖銀印)’이고, 보문 내용은 ‘孝孫八十三書’라고 새겨져 있는데, 영조가 승하하기 한 달 전인 83세 때인 영조 52년(1776) 2월에 영조가 왕세손이던 정조에게 친히 글자를 써서 내린 은인이다.¹¹⁹⁾ 인면에는 큰 글씨로 ‘孝孫’, 작은 글씨로 ‘八十三書’라고 새겨져 있다. 조선왕조 역대 어보 중 왕의 친필을 새긴 것으로 유일하며, 해서체(楷書體) 글씨로도 유일하다.

2. 어책

1) 옥책의 개념

옥책(玉冊)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 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옥책의 내용은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제왕의 다스림이 부부 관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왕비로 책봉한다고 하고, 왕비의 타고난 천성이 어질고 자질이 뛰어남을 칭송하고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면서 효성과 우애, 심중과 공경, 예의와 법도, 자손의 번창 등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존호는 국가와 왕실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시호·휘호는 통과의례(rite of passage)의 일환으로 책보가 수여되는데, 수여하는 배경과 의미와 문자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즉 왕과 왕비의 책봉 명칭, 추봉 명칭, 존호·시호·휘호 등을 인장에 새긴 것이 어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사연과 의미 등을 주석(annotation)한 것이 어책이다. 어책은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로 구분한다.

옥책은 옥간 5~7쪽을 엮어 만든 것을 1첩(貼)이라 한다. 옥책의 첩수는 시대와 내용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지만 모두 짝수 첩으로 만들어진다.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홀수 첩으로 만들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옥책의 첩수는 1간 1점, 2첩 1점, 4첩 19점, 6첩 20점, 8첩 46점, 10첩 90점, 12첩 42점, 14첩 29점, 16첩 4점, 18첩 1점이다. 10첩이 35.2%를 차지하고 있다.

118)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1776) 1월 27일(기해) 孝章稱孝章承統世子, 孝純稱孝純承統世子嬪.

119)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1776) 2월 7일(기유) 上曰: "予親書孝孫二字, 鑄寶錫世孫, 欲以表其誠孝矣.

<표> 옥책의 첩수 현황

| 구분 | 수량 | 비고(%) |
|-------|-----|-------|
| 1간(簡) | 1 | 0.4 |
| 2첩 | 1 | 0.4 |
| 4첩 | 19 | 7.5 |
| 6첩 | 20 | 7.9 |
| 8첩 | 46 | 18.2 |
| 10첩 | 90 | 35.6 |
| 12첩 | 42 | 16.6 |
| 14첩 | 29 | 11.5 |
| 16첩 | 4 | 1.6 |
| 18첩 | 1 | 0.4 |
| | 253 | 100 |

2첩인 경우 문조비 신정왕후 옥책으로 존호 중 의모(懿謨)를 익모(翼謨)로 고쳐 올린 것으로 간단하게 수정 이유를 적어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첩의 옥책은 19점이다. 인종 16년(1638)에 인조비 장열왕후를 책봉하면서 제작한 것이 1책이 있고, 나머지는 고종과 순종이 직계 왕과 왕비를 추존하여 존송하기 위한 경우이다. 고종 36년(1899) 12월 7일(양력)에 고종이 태조와 신의왕후, 신덕왕후, 장조와 헌경왕후, 정조와 효의왕후, 순조와 순원왕후, 문조와 신정왕후를 각각 태조 고향제, 장조 의향제, 정조 선향제, 순조 숙향제, 문조 익향제 등을 추존하여 올린 옥책이 11책이다. 그리고 융희(隆熙) 2년(1908) 5월 11일(양력)에 순종이 진종과 효순왕후, 헌종과 효현왕후, 효정왕후, 철종과 철인왕후를 각각 진종 소향제, 헌종 성향제, 철종 장향제 등으로 추존하여 올린 옥책문이 7책이다. 이들 모두 4첩의 옥책으로 고종과 순종 즉 대한제국 때 왕과 왕후를 황제와 황후로 추존하면서 제작한 것이다.

6첩의 옥책은 모두 20책으로 전체적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왕비 책봉 9책, 상존호 2책, 가상존호 3책, 추상존호 3책, 상시호 1책, 상휘호 2책이다. 6첩의 경우 시기별, 종류별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후기에 추상존호와 상시호 등이 나타나는 것은 이때부터 추상존호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고, 상시호와 추상시호인 경우에는 인조 대부터 정조 대에는 8첩~14첩의 경우가 많다.

8첩의 옥책은 모두 46책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곤전책봉 6책, 상존호 3책, 가상존호 12책, 추상존호 9책, 상시호 9책, 추상시호 1책, 상휘호 6책이다. 8첩의 옥책 내용은 시기별로나 내용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첩의 옥책은 모두 90책으로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왕비책봉은 없고, 상존호 5책, 가상존호 35책, 추상존호 30책, 상시호 13책, 추상시호

5책, 상휘호 2책이다. 역시 존호를 올린 예가 가장 많다.

12첩의 옥책은 모두 42책으로 1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왕비책봉은 없고, 상존호 1책, 가상존호 16책, 추상존호 15책, 상시호 7점, 추상시호 2점, 상휘호 1점이다. 12첩의 옥책은 영조 대와 고종 대에 많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첩의 옥책은 모두 29책으로 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존호 4책, 가상존호 8책, 추상존호 13책, 상시호 4책이다. 시기별로 보았을 때에도 효종과 현종, 순조와 현종, 순종 대의 옥책 제작은 없고 철종대와 고종대가 많다. 내용별로도 왕비책봉, 추상시호, 상휘호 옥책은 없다. 철종 대의 추상존호 옥책이 9책인데 이중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올린 옥책이 6책이다.

16첩의 옥책은 모두 4책으로 1.6%의 비율을 차지한다. 가상존호 2책, 추상존호 1책, 상시호 1책이다. 영조 28년(1752)에 영조에게 가상존호를 올린 것과, 철종 9년(1858)에 순조비 순원왕후에게 추상존호를 올린 것, 고종 3년(1866)에 철종에게 추상존호를 올린 것 등 3책 모두 존호를 올린 것이다. 나머지 1점은 순조 원년(1800)에 정조에게 묘호와 시호를 함께 올린 것이다.

18첩의 옥책은 1책이다. 문조비 신정왕후에게 고종 27년(1890)에 ‘신정(神貞)’이란 시호와 ‘경훈철범(景勳哲範)’이라는 휘호를 올리면서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옥책 중 가장 첩수가 많은 것 중 하나이다. 고종을 왕으로 등극하게 한 것은 신정왕후이다.

이상의 시기별 종류별 내용을 살펴본 결과 책봉 옥책은 6첩과 8첩으로 제작하였다. 인조부터 정조까지는 6첩으로 주로 제작하고 그 이후는 8첩으로 제작하는 경향이다. 물론 숙종과 경종 때에도 8첩의 책봉옥책을 제작한 예도 있다. 상존호와 가상존호는 10첩으로 제작한 예가 가장 많다. 추상존호는 8첩, 10첩, 12첩, 14첩 등 다양한 첩수로 제작하였으며, 상휘호 옥책은 8첩이 가장 많다. 한편 시기별 특징은 후대로 갈수록 첩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옥책의 1첩을 구성하는 옥간(玉簡)의 매수는 5쪽, 6쪽, 7쪽 등 3종류가 있다. 5쪽 136점(53.8%), 6쪽 39점(15.4%), 7쪽 77점(30.4%)이다. 그런데 이러한 쪽수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규칙은 없다.

<표> 옥책의 옥간 매수 현황

| 구분 | 수량 | 비고(%) |
|-------|-----|-------|
| 1간(簡) | 1 | 0.4 |
| 5간(簡) | 136 | 53.8 |
| 6간(簡) | 39 | 15.4 |
| 7간(簡) | 77 | 30.4 |
| | 253 | 100 |

우선 시기별 특징은 5쪽과 6쪽의 사용 예는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7쪽의 옥간은 고종 12년(1875)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조와 그의 비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된 것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7쪽의 옥간을 사용한다. 고종 12년(1875)부터 고종 29년(1892)까지는 40점의 옥책에 사용되었고, 고종 36년(1889)부터 순종 1년(1907)까지는 37점의 옥책에 사용되었다. 이때의 시기는 조선말기와 대한제국 때인 것이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강점기 때에 제작된 옥책의 옥간은 7쪽을 사용하지 않고 5개와 6개의 옥간을 사용하였다.

종류별 특징은 책봉 옥책은 주로 5쪽을 사용하는데 76%이다. 6쪽을 사용한 예는 4책으로 24%이다. 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를 올릴 때에는 모두 5쪽의 옥간을 사용한다. 고종 대에 와서 가상존호를 올릴 때 7쪽의 옥간을 사용했는데, 이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것이다. 상시호는 6쪽을 사용한 예가 86%이다. 추상시호는 5쪽과 6쪽은 사용하지만 86%가 7쪽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종 대에 추상시호를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휘호 역시 5쪽을 사용한 예가 77%이고 6쪽을 사용한 예가 23%이다.

옥간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쪽과 6쪽의 옥책은 전시기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5쪽을 사용한 예는 책봉·상존호·가상존호·추상존호·상시호·추상시호·상휘호 등 모든 부분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 6쪽인 경우에는 책봉과 상시호 및 추상시호·상휘호에 사용된다. 존호를 올릴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쪽의 옥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상존호·추상존호·상시호이다. 고종과 순종 대에 많이 사용했고 전체 옥책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옥책의 첩과 첩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은 원환(圓環) 연첩방식(連疊方式)과 돌적이(玆迪耳) 연첩방식이 있다. 원환 연첩방식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적이 연첩방식은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에 못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옥책 253책 중 원환 연첩방식이 67책, 돌적이 연첩방식이 185책, 기타 1책이다. 초창기부터 영조 33년(1757)까지의 옥책은 모두 원환 연첩방식이고, 그 이후부터는 돌적이 연첩방식이다.

이렇게 연첩방식이 변경된 계기는 인종대왕 옥책을 새로 만들면서 돌적이 연첩방식으로 바뀌었다. 명종 즉위년(1545) 7월 인종 승하 이후 즉위한 명종이 같은 해 9월 인종의 묘호와 시호를 올리면서 제작된 옥책을 인조 14년(1636) 12월 병자호란의 발발로 종묘(宗廟)에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 33년(1757) 종묘에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이때 다시 인종의 옥책을 제작하였다. 이때 지금까지의 원환 연첩방식에서 돌적이 연첩방식으로 바뀌어 제작하였는데 이후 모든 옥책의 연첩방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뀐 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변철(邊鐵)은 편철(編綴), 변자금(邊子金)이라고도 부른다. 변철은 옥간 양쪽 가

장자리에 대는 꾸미개를 말하는데, 옥간 5, 6개를 나란히 놓고 양쪽 아래 위 가장 자리에 구멍을 뚫고 철로 만든 판으로 감싸듯이 꾸민 다음 두정(頭頂)을 박아 고정시킨다. 이 변철의 기능은 하나의 첩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며 옥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닌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여 단조롭지 않고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하였다. 주로 나타나는 문양들은 만초문(蔓草紋), 만초화문(蔓草花紋), 쌍용문(雙龍紋), 추상적(抽象的)인 쌍용문, 무문(無紋), 수파문(水波紋) 등이다.

옥책의 첫 번째와 마지막 첩의 표지는 직물로 장황을 하는데 이것을 회장급의(回粧及衣)라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종류를 살펴보면 홍공단(紅貢緞), 홍운문단(紅雲紋緞), 다홍금선(多紅錦線), 진홍운문단(眞紅雲紋緞), 홍광직(紅廣織), 진홍공단(眞紅貢緞), 다홍운문단(多紅雲紋緞), 홍금선단(紅錦線段) 등이 있다.

2) 옥책의 종류

(1) 내용 분류

왕과 왕비는 여러 호칭과 명칭을 지닌다. 살아있을 때와 승하했을 때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왕의 경우 아명(兒名), 명(名), 자(字), 호(號) 등과 세습 국왕으로서의 얻어지는 봉작명(封爵名) 등은 살아계실 때 붙여지는 호칭과 명칭이며, 묘호(廟號)·시호(諡號)·전호(殿號)·능호(陵號) 등은 승하한 후의 호칭과 명칭이다.¹²⁰⁾ 이러한 호칭과 명칭 중 승하한 후의 호칭과 명칭이 종묘에 봉안된 어책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칭송의 호칭인 존호, 종묘 신실의 이름인 묘호, 행적을 기리는 호칭인 시호, 왕비에게 따로 올리는 휘호 등은 주로 존숭의 의미이다.

이러한 것이 어책의 내용별 종류인데, 이 또한 어책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어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어책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왕실 인사의 호칭 및 명칭과 가장 큰 관련을 지닌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각종 의례에 따른 명칭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즉, 책봉·국혼(國婚) 등의 가례(嘉禮)에는 책봉 및 존호옥책이, 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에는 묘호·시호·휘호옥책이 제작되는 것이다.

왕의 경우 왕세자 책봉 시에는 죽책과 교명을 수여하고, 등극 이후에는 존호, 승하 후에는 존호·시호·묘호 등을 올릴 때 옥책을 수여한다. 왕비의 경우 세자빈 책봉 시에는 죽책과 교명을 수여하고, 왕비 책봉 시와 살아있을 때의 존호, 승하 후에는 존호·시호·휘호 등을 올릴 때 마다 옥책을 수여한다.

조선시대의 왕은 출생하면 차례로 원자, 왕세자, 왕의 순으로 책봉되었는데, 이 봉작명(封爵名)에 따르는 경칭이 그대로 호칭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 어보와 죽책,

120)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13쪽.

교명이 함께 만들어 올린다.

존호는 대개 생전에 올리는 것이지만 18세기 중반 이후로는 승하 후에도 많이 올렸다. 시호¹²¹⁾는 초상 때 왕과 왕후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시호를 생전에 올리는 경우는 없다. 휘호는 왕비에게만 올리는 아름다운 존칭이다.

존호나 시호를 올리는 의식을 기록한 것이 의궤(儀軌)인데 현존하는 의궤의 명칭을 보면 존숭(尊崇)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존숭이란 왕과 왕비 등에게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올리는 아름다운 명칭인데, 이러한 명칭을 올릴 때 마다 책례도감(冊禮都監)을 설치하여 어책과 어보를 함께 제작하여 올렸다. 생전에 처음으로 존호를 올릴 때에는 상존호(上尊號)라고 하고, 두 번째 이후 존호를 올릴 때에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후에 존호를 올릴 때에는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상(加上) 내지 추상(追上)이 더해주는 의식은 조선시대와 같이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禮)는 분위(分位)보다 큰 것이 없고 분위는 명호(名號)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명칭이 분명하면 반드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선시대인들의 이름(名)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집권하고 있는 국왕의 입장에서는 후대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신의 공덕을 공인받을 수 있는 존호의식을 꺼릴 이유가 없었다.¹²²⁾는 것이다.

<표> 옥책 내용별 수량

| 연번 | 구분 | 수량(책) | 비율(%) |
|----|--------|-------|-------|
| 1 | 곤전책봉 | 16 | 6.3 |
| 2 | 존호 | 183 | 72.3 |
| | (상존호) | (16) | |
| | (가상존호) | (76) | |
| | (추상존호) | (91) | |
| 3 | 시호 | 42 | 16.6 |
| | (상시호) | (35) | |
| | (추상시호) | (7) | |
| 4 | 휘호 | 12 | 4.7 |
| | 소계 | 253 | 100 |

위의 표에서 인조비 인렬왕후 상시호 옥책은 내용이 같은 것이 2점이고, 순조비 순원왕후 책봉옥책 또한 내용이 같다. 그리고 인종 옥책편은 인종옥책의 1개의 편이다. 따라서 이들 셋은 내용이 중복된 것임을 밝혀둔다.

121) 장서각 소장 『諡法總記』(장서각 K2-3076)에서는 조선시대 시호에 사용된 의미와 내력을 정리한 것으로 시와 호에 대해서 「大戴禮」를 인용하여 ‘諡는 行의蹟이며, 號는 功의表’라 정의하였다.

122) 김지영, 「조선시대 존숭의식의 의미와 상호도감의궤」, 『영조사존호상호도감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3쪽.

가. 책봉

조선시대 왕은 보통 8세 전후에 세자에 책봉되면서 혼인을 한다. 따라서 왕비는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한 다음 세자가 왕위에 즉위한 후 정식 왕비에 책봉된다.

조선시대 왕실 혼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 국가의 중요 전례서에 의해 거행된다.

특히 왕비 책봉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¹²³⁾의 납비의(納妃儀)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납비의는 택일(擇日),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봉(冊封), 책명(冊命), 봉영(奉迎), 동뢰(同牢), 왕비 백관 하례(王妃 百官 賀禮), 전하 백관 회례(殿下 百官 會禮), 왕비 수 내외명부 조회(王妃 受 內外命婦 朝會)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왕비 책봉을 위한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처음 절차는 왕비 간택이다. 국왕의 나이에 관계없이 15세 전후 처녀들의 혼인을 금하는 금혼령(禁婚令)을 공포하면 전국 사대부 가문에서는 사주단자와 함께 부·조·증조·외조의 이력을 기록한 처녀단자를 올린다. 이는 예조에서 모아 왕에게 올린다. 왕비의 간택은 대체로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주관한다. 대비는 처녀단자를 보고 가문과 사주가 좋은 처녀를 고른다. 이를 마친 후에는 금혼령을 해제한다. 다음 절차는 간택인데, 간택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초간(初揀)·재간(再揀)·삼간(三揀)이다. 보통 초간에서 선발된 대여섯 명의 처녀들 중에서 두세 명을 재간하고, 최종적으로 삼간에서 마지막 한 명을 뽑는다. 삼간에서 뽑힌 처녀는 별궁(別宮)에서 약 6개월 정도 왕비 수업을 받는다. 왕비 간택이 결정된 후에는 혼례를 주관하는 임시 관청인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한다.

택일은 좋은 날을 골라 종묘와 사직에 왕비를 선택하였음을 고하는 의식이다. 납채는 장차 국구(國舅)가 될 가문에 왕비로 결정된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다. 납징은 교명과 함께 비단 예물을 보내는 의식으로 전체적인 절차는 납채와 같다. 고기는 왕이 혼인 날짜를 알리는 것인데, 방법이나 절차 역시 납채나 납징과 같다. 책비는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으로 별궁에서 거행된다. 왕은 왕비 책봉을 위해 교명·옥책·어보·명복(命服) 등을 보내고, 왕비는 별궁에서 적의(翟衣)를 입고 왕의 책봉문을 받는다. 봉영은 왕이 사신을 보내 별궁에서 대궐로 왕비를 맞이하여 오는 절차이다. 동뢰는 대궐로 들어온 왕비가 그날 저녁에 왕과 함께 술과 음식을 들고 침전에서 첫날밤을 치르는 절차이다.

이후 왕비는 대비나 왕대비·대왕대비 등 왕실 어른들을 뵈고 인사한 뒤 조정백관과 내외명부의 인원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이 난다.

한편 왕비에 책봉되는 시기는 대체로 왕이 등극한지 2년 후에 이루어진다. 선왕

123) 『國朝五禮儀』, 法制處, 1981. pp.114~155.

이 승하하면 임금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다. 따라서 대개 닷새만에 성복(成服)하고 빈전(殯殿)이 있는 침전(寢殿) 정문에서 즉위식을 거행한다. 세자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자빈은 이때 바로 왕비로 책봉하지는 않는다.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행한다. 대략 2년 뒤이다. 효종비 인선왕후, 현종비 명성왕후, 숙종비 인경왕후, 경종비 선의왕후, 영조비 정성왕후, 정조비 효의왕후, 순조비 순원왕후, 철종비 철인왕후까지 모두 선왕의 상기를 마친 2년 뒤에 책봉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문원보불(文苑繡黻)』, 『종묘등록(宗廟謄錄)』 등의 문헌에 수록된 왕비 책봉을 위해 제작된 옥책은 모두 30책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옥책은 15책(1책은 중복)이다. 15책을 분실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왕비 책봉과 관련하여 보물 지정 대상 옥책은 다음과 같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옥책과 어보, 교명을 함께 수여한다. 참고로 이때 올려진 어보·어책·교명을 유물번호와 함께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왕비 책봉 옥책 내용

| 연번 | 왕후 | 연도 | 옥책 | 어보 | 교명 | 비고 |
|----|-----------|----------------------------|-----|-----|-----|----|
| 1 | 인조비 인렬왕후 | 仁祖 1년(1623) 癸亥 | 94 | 141 | - | 등록 |
| 2 | 인조계비 장렬왕후 | 仁祖 16년(1638) 戊寅 | 99 | 144 | 303 | 등록 |
| 3 | 효종비 인선왕후 | 孝宗 2년(1651) 辛卯 | 105 | - | 304 | 등록 |
| 4 | 현종비 명성왕후 | 顯宗 2년(1661) 辛丑 | 109 | - | - | 등록 |
| 5 | 숙종비 인경왕후 | 肅宗 2년(1676) 丙辰 | 113 | 152 | - | 등록 |
| 6 | 숙종계비 인현왕후 | 肅宗 20년(1694) 甲戌 | 120 | 159 | 307 | 등록 |
| 7 | 숙종계비 인원왕후 | 肅宗 28년(1702) 壬午 | 122 | 165 | 308 | 등록 |
| 8 | 경종비 단의왕후 | 景宗 2년(1722) 壬寅 | 141 | 178 | 310 | 등록 |
| 9 | 경종계비 선의왕후 | 景宗 2년(1722) 壬寅 | 143 | 179 | 312 | 등록 |
| 10 | 영조비 정성왕후 | 英祖 2년(1726) 丙午 | 147 | 187 | 313 | 등록 |
| 11 | 영조계비 정순왕후 | 英祖 35년(1759) 己卯 | 157 | 198 | 314 | 등록 |
| 12 | 정조비 효의왕후 | 正朝 2년(1778) 戊戌 | 176 | 227 | 318 | 등록 |
| 13 | 순조비 순원왕후 | 純祖 2년(1802) 壬戌 1824 재제작 | 181 | 233 | 319 | 등록 |
| 14 | 순조비 순원왕후 | 純祖 2년(1802) 壬戌 | 182 | 233 | 319 | 등록 |
| 15 | 현종비 효현왕후 | 憲宗 3년(1837) 丁酉 | 221 | 273 | 320 | 등록 |
| 16 | 고종비 명성왕후 | 高宗 3년(1866) 丙寅 | 245 | 300 | 321 | 등록 |

나. 존호

존호(尊號)는 왕과 왕비의 훌륭한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이다. 그렇다고 모든 왕과 왕후에게 올리는 것은 아니다. 존호가 없는 왕과 왕비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초기의 왕과 왕비에게는 존호가 없는 사례가 많다. 반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가상(加上)된 경우도 있다. 또 살아 있을 때 올리기도 하고 승하한 뒤에 올리기도 한다. 대개 살아 있을 때 존호를 올리는 것을 상존호(上尊號), 두 번째 이후부터는 가상존호(加上尊號)라고 한다. 반면 승하 후에 올리는 것을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한다.¹²⁴⁾

존호의 글자 수는 왕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4글자였다.¹²⁵⁾ 그러나 세조이후부터¹²⁶⁾ 8글자의 존호가 정형화 되었다.

왕비에게 올리는 존호는 대개 2글자이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왕비에게 올리는 존호는 2글자이다. 조선초기의 예를 보면 정종비 정안왕후에게 ‘순덕(順德)’, 태종비 원경왕후에게 ‘후덕(厚德)’,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자성(慈聖)’, 예종비 안순왕후에게 ‘인혜(仁惠)’라는 존호를 올렸다.

그러나 1469년(예종 1) 2월에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올린 존호를 보면 ‘흠인 경덕 선렬 명순 원숙(欽仁 景德 宣烈 明順 元淑)’이라는 10글자를 올렸다. 그리고 그해 9월 ‘휘신혜의(徽愼惠懿)’라는 4글자의 존호를¹²⁷⁾ 더 올렸다. 그리고 1892년(高宗 29, 壬辰) 6월 문조비 신정왕후 조씨에게 ‘예헌돈장(睿憲敦章)’이라는 4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정희왕후와 신정왕후 만 예외로 4글자의 존호를 올렸고 이 경우를 제외하면 왕비에게는 모두 2글자의 존호를 올렸다.¹²⁸⁾

존호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왕인 경우는 국가의 변란을 진압하여 큰 공을 세웠다든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즉위한지 오래되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하들의 주청을 받아들여 존호를 올리게 된다. 선조·광해군·숙종·영조 등이 이런 경우로 존호를 받았다. 선조는 임란을 극복하고 종묘사직을 보존했다는 공으로 존호를 받았고, 광해군은 재위 중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존호를 받았다. 그러나 폐위로 삭제되었다.

왕비인 경우는 조선 초기부터 숙종 2년까지는 대부분 회갑이나 선왕의 즉위 등을 축하하기 위하여 올리는 경우이다. 즉 상왕이나 왕대비, 대왕대비로 존숭할 때 존호를 올리는 것이다. 왕비를 새로 책봉하면 그 윗대의 왕비는 왕대비로, 왕대비는 대왕대비로 존숭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존호를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조 계비 장열왕후는 5번의 존호를 받았고, 숙종 계비 인원왕후는 12번의 존호를

124) 김종수, 「존호·존숭·상호도감의례 명칭에 대한 소고」, 『은지논총』 제12집, 166쪽.

125) 1400(정종 2) 태조에게 ‘啓運神武’, 정종에게 ‘仁文恭睿’라는 존호에서 알 수 있음.

126) 세조 3년(1457)에 세조에게 ‘승천체도 열문영무(承天體道 烈文英武)’ 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127) 예종실록 7권, 1년(1469 기축) 9월 16일(병신)

128) 실제로는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 폐비신씨에게 올린 존호가 ‘齊仁元德’이란 4글자의 존호가 있다. 그러나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되었기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받았다.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한편 인조·효종·현종·경종 등은 생전에는 존호를 받지 않았다.¹²⁹⁾ 반면 숙종 39년(1713)에 숙종과 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에게 숙종 즉위 40년을 축하하기 위해 존호를 올린 일이 있었다.¹³⁰⁾ 이에 대해 숙종은 "여러 날 동안 조정의 뜰에 모여서 극력 청함이 이에 이르니, 겸양을 지키려던 당초의 마음을 끝내 스스로 이루기 어려워 힘써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사신(史臣)들은 임금의 겸덕(謙德)이 지극한데, 조신(朝臣)들이 이를 받들어 따르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마침내 강박(強迫)하여 청을 준허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10여 년 동안 간직해 온 겸손한 덕이 시커멓게 어두워 발양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특히 백세(百世)의 비난이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존호(尊號)가 만일 옳지 않다면 임금이 스스로 이회(理會)할 것이니,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금상(今上)의 청허(聽許)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혹자는 당초에 성상의 뜻이 굳건히 결정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며 비난했다.¹³¹⁾

영조 때에는 영조 자신이 4차례의 존호를 받았으며 선왕인 효종·숙종·현종과 그들의 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모인 육상궁에게도 존호를 올렸다. 영조는 재위 2년부터 52년까지 11차례에 걸쳐 31책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자신이 존호를 주고 받을 수 없기에 김재로 등 신하들이 올리는 형식으로 존호를 받았다. 영조 이후부터 이 선례를 따라 존호를 자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조를 자신의 표상으로 삼았던 고종이 특히 더했다.

정조는 5차례에 걸쳐 9책의 존호를 올렸다. 이때 존호를 올린 배경은 영조의 부묘례, 문효세자의 탄생, 세자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정순왕후 오순(五旬) 등의 사유였다.

순조 때에는 4차례에 6책의 존호를 올렸다. 정순왕후와 효의왕후의 존숭, 수렴청정 철수, 정순왕후 육순 및 보감, 왕세손 탄생 등이다. 순조의 대를 이은 현종은 불과 8살에 즉위하였다. 순원왕후가 7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공을 기념하고 순원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순원왕후의 육순(六旬) 등을 빌미로 존호를 4차례에 걸쳐 7책의 올렸다. 현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순원왕후는 왕실의 방계 인물인 철종을 찾아내어 현종의 뒤를 잇게 하였다. 철종을 왕으로 추대한 후 재임 14년간 12차례에 걸쳐 27책의 존호를 올렸다. 27책의의 존호 중 장조 1책, 현경왕후 1책, 순조 5책, 순원왕후 7책, 문조 1책, 신정왕후 4책, 현종 1책, 효현왕후 1책, 효정왕후 4책, 철종 1책, 철인왕후 1책이다.

129) 김종수,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해설집』, 「규장각 소장 존호·존숭·상호도감의례 해설」, 40쪽.

130)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기사 3월 병술.

131)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1월 17일 을미.

고종은 26차례에 걸쳐 90책의 존호를 올렸다. 물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태조를 비롯한 직계 존속에 대한 황제 추존 등의 사례도 있지만 존호를 올리는데 너무 남발한 것처럼 여겨진다. 존호를 올리는 배경은 다 이유가 있지만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때 대부분 존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종의 대를 이은 순종은 2회에 걸쳐 존호를 올리는데 한번은 고종을 태상왕으로 올리고 ‘수강(壽康)’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또 한번은 1908년 고종이 직계 존속들을 황제로 추존한데 미진함을 느낀 순종이 역시 직계의 왕과 왕비들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한 것이다.

지금까지 존호를 가장 많이 받은 왕은 문조로 14차례에 걸쳐 107자를 받았고 왕비 중에는 문조비 신정왕후로 27차례에 걸쳐 57글자를 받았다.

다음 <표>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존호를 올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존호 현황

| 연번 | 연도 | 왕·왕비 | 내용 | 비고 |
|----|---------------------|---|----------------------|----|
| 1 | 定宗 2년(1400) 庚辰 7월 | 태조(啓運神武) | 상왕→태상왕 | |
| 2 | 定宗 2년(1400) 庚辰 12월 | 정종(仁文恭睿) 정종비 정안왕후(順德) | 왕→상왕 왕비→왕대비 | |
| 3 | 世宗 1년(1418) 戊戌 11월 | 태종(聖德神功) 태종비 원경왕후(厚德) | 왕→상왕 왕비→왕대비 | |
| 4 | 世祖 1년(1455) 乙亥 7월 | 단종비 정순왕후(懿德) | 왕비→왕대비 | |
| 5 | 世祖 3년(1457) 丁丑 3월 | 세조(承天體道 烈文英武) 세조비 정희왕후(慈聖) | 단종복위 무산 환구에 제사 | |
| 6 | 睿宗 1년(1469) 己丑 2월 | 세조비 정희왕후 (欽仁景德 宣烈明淑) 세조비 정희왕후(元淑) | 왕비→왕대비 | |
| 7 | 睿宗 1년(1469) 己丑 9월 | 세조비 정희왕후(徽愼惠懿) | | |
| 8 | 成宗 2년(1471) 辛卯 1월 | 세조비 정희왕후(神憲) 예종비 안순왕후(仁惠) |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 |
| 9 | 成宗 6년(1475) 乙未 1월 | 덕종비 소혜왕후(仁粹) | 왕비→왕대비 | |
| 10 | 燕山 3년(1497) 丁巳 3월 | 덕종비 소혜왕후(慈淑) 예종비 안순왕후(明懿) | 왕대비→대왕대비 왕대비→대왕대비 | |
| 11 | 燕山 3년(1497) 丁巳 5월 | 성종비 정현왕후(慈順) | 왕비→왕대비 | |
| 12 | 燕山 11년(1505) 乙丑 8월 | 성종비 정현왕후(和惠) | | |
| 13 | 明宗 2년(1547) 丁未 1월 | 중종비 문정왕후(聖烈) | 왕대비→대왕대비 | |
| 14 | 明宗 2년(1547) 丁未 9월 | 중종비 문정왕후(仁明) 인종비 인성왕후(恭懿) | 왕비→왕대비 | |
| 15 | 宣祖 2년(1569) 己巳 윤6월 | 명종비 인순왕후(懿聖) | 왕비→왕대비 | |
| 16 | 宣祖 23년(1590) 庚寅 2월 | 선조(正倫立極盛德洪烈) 선조비 의인왕후(章聖) |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 | |
| 17 | 宣祖 37년(1604) 甲辰 10월 | 선조(至誠大義 格天熙運) 선조비 의인왕후(徽烈) | 왜적을 물리친 공 | |

| 연번 | 연도 | 왕·왕비 | 내용 | 비고 |
|----|---------------------|--|------------------------------------|-------------------------------|
| | | 선조비 인목왕후(昭聖) | | |
| 18 | 光海 2년(1610) 庚戌 4월 | 선조비 인목왕후(貞懿) | 왕비→왕대비 | |
| 19 | 仁祖 2년(1624) 甲子 8월 | 선조비 인목왕후(明烈) | 왕대비→대왕대비 | |
| 20 | 孝宗 2년(1651) 辛卯 8월 | 인조비 장열왕후(慈懿) | 왕비→왕대비 | 100 |
| 21 | 顯宗 2년(1661) 辛丑 7월 | 인조비 장열왕후(恭愼) 효종비 인선왕후(孝肅) |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 101 106 |
| 22 | 肅宗 2년(1676) 丙辰 10월 | 인조비 장열왕후(徽獻) 현종비 명성왕후(顯烈) |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 12 110 |
| 23 | 肅宗 12년(1686) 丙寅 5월 | 인조비 장열왕후(康仁) | 회갑 | 102 |
| 24 | 肅宗 39년(1713) 癸巳 3월 | 숙종(顯義光倫 睿聖英烈) 숙종비 인경왕후(光烈) 숙종비 인현왕후(孝敬) 숙종비 인원왕후(惠順) | 숙종 즉위 40년 | 18 115 124 123 |
| 25 | 景宗 2년(1722) 壬寅 9월 | 숙종비 인원왕후(慈敬) | 태묘? 왕비→왕대비 | 126 |
| 26 | 英祖 2년(1726) 丙午 10월 | 숙종비 인원왕후(獻烈) 경종비 선의왕후(敬純) |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 127 144 |
| 27 | 英祖 16년(1740) 庚申 2월 | 숙종비 인원왕후(光宣) | 모임(母臨) 39년 | 128 |
| 28 | 英祖 16년(1740) 庚申 6월 | 효종(明義正德) |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 14 |
| 29 | 英祖 16년(1740) 庚申 7월 | 숙종비 인원왕후(顯翼) 영조(至行純德 英謨毅烈) 영조비 정성왕후(惠敬) | 김재로 등 신하의 칭 | 129 24 146 |
| 30 | 英祖 23년(1747) 丁卯 2월 | 숙종비 인원왕후(康聖) | 인원왕후 회갑 | 130 |
| 31 | 英祖 27년(1751) 辛未 2월 | 숙종비 인원왕후(貞德) | 모임(母臨) 50년 | 131 |
| 32 | 英祖 28년(1752) 壬申 5월 | 숙종비 인원왕후(壽昌) 영조(章義弘倫 光仁敦禧) 영조비 정성왕후(莊愼) | 명 삼황제 대보단 배향 | 132 25 151 |
| 33 | 英祖 29년(1753) 癸酉 12월 | 숙종(裕謨永運 洪仁峻德) 숙종비 인경왕후(宣穆) 숙종비 인현왕후(淑聖) 숙종비 인원왕후(永福) | 영조 육순(六旬) | 20 117 135 133 |
| 34 | 英祖 32년(1756) 丙子 1월 | 숙종비 인원왕후(隆化) 영조(體天建極 聖功神化) 영조비 정성왕후(康宣) | 인원왕후 칠순(七旬) | 134 26 148 |
| 35 | 英祖 48년(1772) 壬辰 11월 | 현종(昭休衍慶 敦德綏成) 현종비 명성왕후(禧仁) 영조(大成廣運 開泰基永) 영조비 정성왕후(恭翼) 영조비 정순왕후(睿順) | 영조 79세, 즉위 49년, 정순왕후 책봉 15주년 | 17 112 27 150 158 |
| 36 | 英祖 52년(1776) 丙申 1월 | 숙종(配天合道 啓休篤慶) 숙종비 인경왕후(惠聖) 숙종비 인현왕후(莊純) 숙종비 인원왕후(徽靖) 영조(堯明舜哲 乾健坤寧) | 영조의 효성, 정순왕후의 어짚을 칭찬 | 21 118 138 137 29 |

| 연번 | 연도 | 왕·왕비 | 내용 | 비고 |
|----|--------------------|--|-------------------------------|---------------------------|
| | | 영조비 정성왕후(仁徽) 영조비 정순왕후(聖哲) | | 152 159 |
| 37 | 正朝 2년(1778) 戊戌 5월 | 영조비 정순왕후(莊僖) | 영조 부모 | 160 |
| 38 | 正朝 7년(1783) 癸卯 3월 | 영조비 정순왕후(惠徽) | 문효세자의 탄생 | 161 |
| 39 | 正朝 8년(1784) 甲辰 9월 | 영조(配命垂統 景曆洪休) 영조비 정성왕후(昭獻) 영조비 정순왕후(翼烈) | 세자 책봉, 영조 즉위 60주년 | 30 154 162 |
| 40 | 正朝 11년(1787) 丁未 1월 | 영조비 정순왕후(明宣) | 세손을 보호한 공로 | 155 |
| 41 | 正朝 19년(1795) 乙卯 1월 | 영조비 정순왕후(綏敬) 장조(章倫隆範 基命彰休) 장조비 헌경왕후(徽穆) | 정순왕후 오순(五旬), 혜빈 육순(六旬) | 163 35 171 |
| 42 | 純祖 2년(1802) 壬戌 8월 | 영조비 정순왕후(대왕대비) 정조비 효의왕후(왕대비) |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 164 170 |
| 43 | 純祖 4년(1804) 甲子 2월 | 영조비 정순왕후(光獻) | 수렴청정 철수, 정순왕후 육순(六旬) | 165 |
| 44 | 純祖 5년(1805) 乙丑 3월 | 영조비 정순왕후(隆仁) | 정순왕후의 보감을 기념 | 167 |
| 45 | 純祖 27년(1827) 丁亥 9월 | 순조(淵德顯道 景仁純禧) 순조비 순원왕후(明敬) | 왕세손 탄생 | 42 183 |
| 46 | 憲宗 3년(1837) 丁酉 1월 | 순조비 순원왕후(文仁) 문조비 신정왕후(孝裕) | 왕대비→대왕대비 왕비→왕대비 | 184 - |
| 47 | 憲宗 7년(1841) 辛丑 2월 | 순조비 순원왕후(光聖) | 수렴청정한 공과 왕비 책봉 40년 | 185 |
| 48 | 憲宗 14년(1848) 戊申 3월 | 순조(體聖凝命 欽光錫慶) 순조비 순원왕후(隆禧) 문조(體元贊化 錫極定命) 문조비 신정왕후(獻聖) | 순원왕후 육순(六旬) | 45 186 54 - |
| 49 | 哲宗 2년(1851) 辛亥 8월 | 순조비 순원왕후(正烈) 문조비 신정왕후(宣敬) 헌종비 효정왕후(明憲) | 헌종과 효현왕후 부모 | 187 - - |
| 50 | 哲宗 3년(1852) 壬子 2월 | 순조비 순원왕후(宣徽) | 수렴청정한 공 | 188 |
| 51 | 哲宗 4년(1853) 癸丑 1월 | 순조(繼天配極 隆元敦休) 순조비 순원왕후(英德) | 철종이 종법상의 부인 순조를 현양 | 46 189 |
| 52 | 哲宗 4년(1853) 癸丑 10월 | 문조(聖憲英哲 睿誠淵敬) 문조비 신정왕후(正仁) 헌종(體健繼極 中正光大) 헌종비 효현왕후(端聖) 헌종비 효정왕후(淑敬) | 선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 55 - 69 224 - |
| 53 | 哲宗 6년(1855) 乙卯 1월 | 장조(贊元憲誠 啓祥顯熙) 장조비 헌경왕후(裕靖) | 장조와 헌경왕후 탄생 2주갑 120년 기념 | 36 173 |
| 54 | 哲宗 8년(1857) 丁巳 10월 | 순조(懿行昭倫 熙化峻烈) 순조비 순원왕후(慈獻) |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개묘 | 47 191 |

| 연번 | 연도 | 왕·왕비 | 내용 | 비고 |
|----|---------------------|---|-------------------------------|--|
| 55 | 哲宗 9년(1858) 戊午 1월 | 순조(大中至正 洪勳哲謨) 순조비 순원왕후(顯倫) | 순원왕후 칠순(七旬) | 48 192 |
| 56 | 哲宗 10년(1859) 己未 10월 | 문조비 신정왕후(慈惠) 헌종비 효정황후(睿仁) | 순원왕후 부묘례 | 197 227 |
| 57 | 哲宗 12년(1861) 辛酉 1월 | 순조(乾始泰亨 昌運弘基) 순조비 순원왕후(洪化) | 순조 원년의 회갑 순원왕후 혼인 60년 | 49 193 |
| 58 | 哲宗 13년(1862) 壬戌 1월 | 순조(高明博厚 剛健粹精) 순조비 순원왕후(神運) | 순원왕후 책봉 60년 | 50 194 |
| 59 | 哲宗 14년(1863) 癸亥 6월 | 철종(熙倫正極 粹德純聖) 철종비 철인황후(明純) | 이십일사약편 왕실 중계 수정 | 72 240 |
| 60 | 哲宗 14년(1863) 癸亥 12월 | 문조비 신정왕후(弘德) 헌종비 효정황후(正穆) | 은언군의 사실 수정 | 206 228 |
| 61 | 高宗 3년(1866) 丙寅 2월 | 문조비 신정왕후(純化) 헌종비 효정황후(弘聖) 철종비 철인황후(徽聖) | 철종 증묘에 부묘 | 198 230 241 |
| 62 | 高宗 3년(1866) 丙寅 4월 | 문조(隆德純功 篤休弘慶) 문조비 신정왕후(文光) 헌종(至聖廣德 弘運章化) 헌종비 효현황후(粹元) 헌종비 효정황후(章純) 철종(欽命光道 敦元彰化) 철종비 철인황후(正元) | 신정왕후 수렴청정 철거, 고종 친정 | 56 199 70 225 229 74 242 |
| 63 | 高宗 4년(1867) 丁卯 1월 | 문조(洪運盛烈 宣光濬祥) 문조비 신정왕후(元成) | 신정왕후 60세 | 57 201 |
| 64 | 高宗 5년(1868) 戊辰 12월 | 문조비 신정왕후(肅烈) | 신정왕후 회갑 | 202 |
| 65 | 高宗 6년(1869) 己巳 1월 | 문조(堯欽舜恭 禹勤湯正) 문조비 신정왕후(明粹) | 효명세자 회갑 | 58 203 |
| 66 | 高宗 9년(1872) 壬申 1월 | 태조(應天肇統 廣勳永命) 태종(建天體極 大正啓佑) | 태조 창업과 태종 즉위 신년(辛年) | 2 6 |
| 67 | 高宗 10년(1873) 癸酉 4월 | 문조비 신정왕후(協天) 헌종비 효정황후(貞徽) 철종비 철인황후(粹寧) 고종(統天隆運 肇極敦倫) 고종비 명성황후(孝慈) | 신정왕후 왕비 40주년, 고종 즉위 10년 | 204 231 243 76 246 |
| 68 | 高宗 12년(1875) 乙亥 12월 | 문조(啓天建統 神勳肅謨) 문조비 신정왕후(隆穆) | 신정왕후 68세, 익종 세실 지정 | 59 205 |
| 69 | 高宗 14년(1877) 丁丑 1월 | 문조(乾大坤厚 廣業永祚) 문조비 신정왕후(壽寧) | 신정왕후 70세 | 60 207 |
| 70 | 高宗 15년(1878) 戊寅 1월 | 문조비 신정왕후(禧康) | 신정왕후 71세(망팔) | 208 |
| 71 | 高宗 16년(1879) 己卯 1월 | 순조(啓統垂曆 建功裕範) 순조비 순원왕후(粹穆) 문조(莊義彰倫 行健配寧) 문조비 신정왕후(顯定) | 익종 혼인 회갑 (신정왕후 가례 60주년) | 51 195 61 209 |
| 72 | 高宗 20년(1883) 癸未 1월 | 문조(基泰垂裕 熙範昌禧) | 신정왕후 국모 | 62 |

| 연번 | 연도 | 왕·왕비 | 내용 | 비고 |
|----|---------------------|--|------------------------------|---|
| | | 문조비 신정왕후(徽安) | 50주년 | 210 |
| 73 | 高宗 23년(1886) 丙戌 1월 | 문조비 신정왕후(欽倫) | 신정왕후 79세 | 211 |
| 74 | 高宗 24년(1887) 丁亥 1월 | 문조(立經享道 成戲昭章) 문조비 신정왕후(洪慶) | 문조 대리청정 60주년, 신정왕후 80세 | 63 212 |
| 75 | 高宗 25년(1888) 戊子 1월 | 문조비 신정왕후(泰運) | 신정왕후 81세 | 213 |
| 76 | 高宗 25년(1888) 戊子 3월 | 문조비 신정왕후(昌福) 헌종비 효정황후(莊昭) 고종(正聖光義 明功大德) 고종비 명성황후(元聖) | 고종 즉위 25주년, 세자 순종의 요청 | 214 232 77 247 |
| 77 | 高宗 27년(1890) 庚寅 1월 | 영조(中和隆道 肅莊彰勳) 영조비 정성왕후(元烈) 영조비 정순왕후(正顯) 헌종비 효정황후(端禧) | 영조 묘호 개묘 | 32 156 168 234 |
| 78 | 高宗 27년(1890) 庚寅 2월 | 문조비 신정왕후(熙祥) 헌종비 효정황후(粹顯) 고종(堯峻舜徽 禹謨湯敬) 고종비 명성황후(正化) | 명성왕후 40세 | 216 233 78 248 |
| 79 | 高宗 27년(1890) 庚寅 3월 | 숙종(正中協極 神毅大勳) 숙종비 인경왕후(純懿) 숙종비 인현왕후(元化) 숙종비 인원왕후(正運) | 역대 선왕의 추송 | 22 119 139 140 |
| 80 | 高宗 27년(1890) 庚寅 12월 | 문조(致中達和 繼曆協紀) 문조비 신정왕후(翼謨) | 신정왕후 탄일 추모 | 64 217 |
| 81 | 高宗 29년(1892) 壬辰 4월 | 선조(景命神曆 弘功隆業) 선조비 의인왕후(敬穆) 선조비 인목왕후(正肅) | 임진왜란 5갑주 | 93 92 9 |
| 82 | 高宗 29년(1892) 壬辰 7월 | 문조(剛粹景綿 峻惠衍祉) 문조비 신정왕후(睿憲敦章) 헌종비 효정황후(懿獻) 고종(應命立紀 至化神烈) 고종비 명성황후(合天) | 고종 즉위 30년 | 66 218 265 79 249 |
| 83 | 高宗 36년(1899) 己亥 10월 | 정조(敬天明道 洪德顯謨) 정조비 효의왕후(莊徽) | 정조 추송 | 40 178 |
| 84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태조(高皇帝/太祖) 태조비 신의왕후(高皇后) 태조비 신덕왕후(高皇后) 장조(懿皇帝/莊祖) 장조비 헌경왕후(懿皇后) 정조(宣皇帝/正祖) 정조비 효의왕후(宣皇后) 순조(肅皇帝/純祖) 순조비 순원왕후(肅皇后) 문조(翼皇帝/文祖) 문조비 신정왕후(翼皇后) | 고종의 4대조 추송 | 3 85 87 38 175 41 180 52 196 65 219 |
| 85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문조비신정왕후(翼謨⇒懿謨) | 익모를 의모로 수정 | 200 |

| 연번 | 연도 | 왕·왕비 | 내용 | 비고 |
|----|--------------------|---|------------------------------|--|
| 86 | 高宗 37년(1900) 庚子 1월 | 인조(開天肇運 正紀宣德) 인조비 인열왕후(正裕) 인조비 장열왕후(淑穆) 효종(欽天達道 光毅弘烈) 효종비 인선왕후(貞範) 헌종비 효정황후(康綏) 고종(巍勳洪業 啓基宣曆) 고종비 명성황후(洪功) | 효정왕후 칠순 (七旬) | 11 98 104 15 108 236 80 251 |
| 87 | 高宗 39년(1902) 壬寅 1월 | 문조(宏猷愼徽 綏緒佑福) 문조비 신정왕후(啓祉) 헌종비 효정황후(裕寧) 고종(乾行坤定 英毅弘休) 고종비 명성황후(誠德) | 고종 즉위 40년, 고종의 망육 (望六) | 67 220 237 81 252 |
| 88 | 純宗 원년(1907) 丁未 8월 | 고종(壽康) | 고종 태상왕 기념 | 82 |
| 89 | 純宗 1년(1908) 戊申 7월 | 진종(昭皇帝) 진종비 효순왕후(昭皇后) 헌종(成皇帝) 헌종비 효현황후(成皇后) 헌종비 효정황후(成皇后) 철종(章皇帝) 철종비 철인황후(章皇后) | 순종의 직계 추숭 | 34 170 71 226 239 75 중박 |

다. 묘호

국왕이 승하한 뒤 종묘(宗廟)에 신위(神位)를 모실 때 붙이는 호(號)를 묘호(廟號)라 한다. 즉 종묘 신실의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불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명칭이다. 묘호의 글자 수는 2자(字)이다.

중국에서는 세상을 떠난 황제를 태묘(太廟)에서 제사지낼 때 사용되는 칭호로 추증되었다. 한대(漢代)에는 묘호를 가진 황제가 적었으나, 당대(唐代)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황제의 묘호를 받아 불리고 있다. 이 묘호는 베트남에서도 사용하였다.

신라 때에는 태종 무열왕 만이 태종(太宗)이라는 묘호를 가졌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祖)·종(宗)의 묘호를 추증하였다. 특히 고려 때에는 태조만이 조(祖)의 묘호를 썼으며, 그 밖의 왕들은 종(宗)의 묘호를 썼다.

조선왕조 왕들은 모두 27분이다. 태조의 4대조 4분과 5분의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36분이 된다. 광해군과 연산군을 제외하면 34분이다. 그중 조(祖)의 묘호를 갖은 분은 13분, 종(宗)의 묘호를 가진 분은 21분이다.

조의 묘호를 갖은 분은 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 7분과 태조의 4대조인 목조·익조·도조·환조 4분과 장조와 문조 2분의 추존왕을 포함하면 모두 13분이다. 종의 묘호를 갖은 분은 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효종·현종·숙종·경종·헌종·철종·고종·순종 등 18분과 덕종·원종·진종 등 3분의 추존왕을 포함하여 모두 21분이다.

조의 묘호를 받은 왕들 중 태조·세조·인조는 사후 바로 조의 묘호를 받았다. 태조의 4대조는 추존왕이기에 태종 11년에 조의 묘호를 받았다.¹³²⁾ 그리고 태종을 비롯한 16분의 왕 또한 사후 바로 종의 묘호를 받았다.

이와 같이 묘호는 왕의 사후에 대를 이은 다음 왕이 결정하여 즉시 올리는 것이 상례이다. 공정대왕이나 노산군처럼 묘호가 없는 왕의 경우 숙종 대에 정종과 단종으로 묘호를 추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선왕의 묘호를 후일 개묘(改廟)하는 수도 있다. 대체로 조종의 묘호를 둘러싸고 개묘하는 것인데, 사례를 보면 당시의 정치 상황과 크게 연관이 있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묘호 추진의 주체는 대부분 왕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신하들은 선왕의 묘호를 조로 삼으려는 왕에게 왕통을 이어받았으면 중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대한다. 조나 종의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어 묘호 개정을 비판하였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묘호를 올릴 때에는 시호와 함께 수록한다. 고종 때의 묘호를 개묘할 때에는 추상존호와 함께 묘호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묘호 현황

| 代數 | 廟號 | 내용 | 年度 | 玉冊 | 御寶 | 비고 |
|-----|----|--------------------|---------------------|------------|----|----|
| 1대 | 太祖 | 至仁啓運 聖文神武/ 太祖 | 太宗 8년(1408) 戊子 9월 | | | |
| | | 高皇帝/ 太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03 | | |
| 2대 | 定宗 | 懿文莊武/ 定宗 | 肅宗 7년(1681) 辛酉 12월 | 04 | | |
| 3대 | 太宗 | 聖德神功 文武光孝/ 太宗 | 世宗 4년(1422) 壬寅 9월 | | | |
| 4대 | 世宗 | 英文睿武 仁聖明孝/ 世宗 | 文宗 원년(1450) 庚午 3월 | | | |
| 5대 | 文宗 | 欽明仁肅 光文聖孝/ 文宗 | 端宗 원년(1452) 壬申 8월 | | | |
| 6대 | 端宗 | 純定安莊 景順敦孝/ 端宗 | 肅宗 24년(1698) 戊寅 12월 | 07 | | |
| 7대 | 世祖 |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世祖 | 睿宗 원년(1468) 戊子 11월 | | | |
| 추존1 | 德宗 | 懷簡宣肅 恭賢溫文/ 德宗 | 成宗 7년(1476) 丙申 1월 | | | |
| 8대 | 睿宗 | 欽文聖武 懿仁昭孝/ 睿宗 | 成宗 1년(1470) 庚寅 2월 | | 10 | |
| 9대 | 成宗 | 仁文憲武 欽聖恭孝/ 成宗 | 燕山 1년(1495) 乙卯 3월 | | 12 | |
| 11대 | 中宗 | 徽文昭武 欽仁誠孝/ 中宗 | 仁宗 1년(1545) 乙巳 1월 | | 13 | |
| 12대 | 仁宗 | 獻文懿武 章肅欽孝/ 仁宗 | 明宗 원년(1545) 乙巳 9월 | 08, 257 | 14 | |
| 13대 | 明宗 | 獻毅昭文 光肅敬孝/ 明宗 | 宣祖 원년(1567) 丁卯 7월 | | | |

132)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4월 22일 임자일에 종묘(宗廟)의 4실(四室)에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하였으니, 목왕(穆王)의 시호(諡號)를 인문성목대왕(仁文聖穆大王), 묘호(廟號)를 목조(穆祖)라 하고, 효비(孝妃)의 시호(諡號)를 효공왕후(孝恭王后)라 하였으며, 익왕(翼王)의 시호는 강혜성익대왕(康惠聖翼大王), 묘호는 익조(翼祖)라 하고, 정비(貞妃)의 시호는 정숙왕후(貞淑王后)라 하였으며, 도왕(度王)의 시호는 공의성도대왕(恭毅聖度大王), 묘호는 도조(度祖)라 하고, 경비(敬妃)의 시호는 경순왕후(敬順王后)라 하였으며, 환왕(桓王)의 시호는 연무성환대왕(淵武聖桓大王), 묘호는 환조(桓祖)라 하고, 의비(懿妃)의 시호는 의혜왕후(懿惠王后)라 하였다.

| 代數 | 廟號 | 내용 | 年度 | 玉冊 | 御寶 | 비고 |
|-----|----|-----------------|---------------------|----|----|----|
| 14대 | 宣宗 | 顯文毅武 聖睿達孝/ 宣宗 | 光海 원년(1608) 戊申 2월 | | | |
| | 宣祖 | 啓統光憲 凝道隆祚/ 宣祖 | 光海 8년(1616) 丙辰 8월 | | | |
| 추존2 | 元宗 | 元宗 | 仁祖 12년(1634) 甲戌 7월 | | | |
| 16대 | 仁祖 | 憲文烈武 明肅純孝/ 仁祖 | 孝宗 원년(1649) 己丑 9월 | 10 | | |
| 17대 | 孝宗 | 宣文章武 神聖顯仁/ 孝宗 | 顯宗 원년(1659) 己亥 10월 | 13 | | |
| 18대 | 顯宗 | 純文肅武 敬仁彰孝/ 顯宗 | 肅宗 원년(1674) 甲寅 12월 | 16 | | |
| 19대 | 肅宗 | 章文憲武 敬明元孝/ 肅宗 | 景宗 원년(1720) 庚子 10월 | 19 | | |
| 20대 | 景宗 | 德文翼武 純仁宣孝/ 景宗 | 英祖 원년(1724) 甲辰 12월 | 23 | | |
| 21대 | 英宗 | 翼文宣武 熙敬顯孝/ 英宗 | 正朝 원년(1776) 丙申 7월 | 28 | | |
| | 英祖 | 正文宣武 熙敬顯孝/ 英祖 | 高宗 27년(1890) 庚寅 1월 | 31 | | |
| 추존3 | 眞宗 | 溫良睿明 哲文孝章/ 眞宗 | 正朝 원년(1776) 丙申 8월 | 33 | | |
| 추존4 | 莊宗 | 神文桓武 莊獻廣孝/ 莊宗 | 高宗 36년(1899) 己亥 10월 | 37 | | |
| | 莊祖 | 懿皇帝/ 莊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38 | 45 | |
| 22대 | 正宗 | 文成武烈 聖仁莊孝/ 正宗 | 純祖 원년(1800) 庚申 10월 | 39 | | |
| | 正祖 | 宣皇帝/ 正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41 | 54 | |
| 23대 | 純宗 | 文安武靖 憲敬成孝/ 純宗 | 憲宗 1년(1835) 乙未 3월 | 44 | | |
| | 純祖 | 文安武靖 英敬成孝/ 純祖 | 哲宗 8년(1857) 丁巳 10월 | 43 | | |
| | | 肅皇帝/ 純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52 | 58 | |
| 추존5 | 翼宗 | 敦文顯武 仁懿孝明/ 翼宗 | 憲宗 1년(1835) 乙未 5월 | 53 | | |
| | 文祖 | 翼皇帝/ 文祖 | 高宗 36년(1899) 己亥 11월 | 65 | 70 | |
| 24대 | 憲宗 | 經文緯武 明仁哲孝/ 憲宗 | 哲宗 원년(1849) 己酉 10월 | 68 | | |
| | | 成皇帝/ 憲宗 | 純宗 1년(1908) 戊申 7월 | 71 | | |
| 25대 | 哲宗 | 文顯武成 獻仁英孝/ 哲宗 | 高宗 1년(1864) 甲子 3월 | 73 | | |
| | | 章皇帝/ 哲宗 | 純宗 1년(1908) 戊申 7월 | 75 | | |
| 26대 | 高宗 | 太皇帝/文獻武章仁翼貞孝/高宗 | 純宗 13년(1919) 己未 1월 | 83 | | |
| 27대 | 純宗 | 孝皇帝/文溫武寧敦仁誠敬/純宗 | 純宗 19년(1926) 丙寅 4월 | 84 | | |

라. 왕 시호

시호를 올리는 의식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¹³³⁾ 그리고 예조에서 책보를 올리는 의식인 「상시책시보의(上諡冊諡寶儀)」와 「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 의례가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 오례/ 흥례/ 청시종묘의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133) 세종실록 6권, 1년(1419 기해 17년) 12월 12일(임오).

왕의 시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2글자의 시호와 본조에서 묘호와 함께 올리는 8글자의 시호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2글자의 시호는 왕이 승하한 후에 신하들이 의논하여 세 가지 안을 올리고 중국황제는 이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정해 내려준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는 옥책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존호는 생전과 사후에도 받을 수 있지만 시호는 사후에만 받는 호이다. 시호를 올리는 경우는 왕이 승하하여 종묘 신실에 모셔 질 때 묘호와 함께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더해지기도 한다. 특히 개묘할 때 고쳐진 묘호와 시호 또한 새롭게 올린다. 그리고 종묘에서 조천하지 않고 세실에 모시는 경우에도 시호를 올린다. 특히 숙종이 태조와 정종·태종에게¹³⁴),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시호¹³⁵)를 올린 예가 있다.

시호는 8글자를 쓴다는 것이 원칙이나, 조선초기에는 4글자로 올린 예가 있다. 정종의 시호가 ‘온인순효(溫仁順孝)’ 4글자로 올려 잘못된 전례라 하여 4자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하여 숙종 7년(1681)에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 4자를 더 올렸다.

“공정대왕의 묘호(廟號)를 신들이 2품(品) 이상의 관각당상(館閣堂上)과 일제히 모여 삼가 이렇게 협의 결정하여 들여보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열성(列聖)의 시호(諡號)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字)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묘호를 추가하여 올리는 때를 당하여 시호(諡號)를 더 올리는 것이 진실로 전례(典禮)에 합당합니다.”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4자(字)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하므로, 마침내 4자(字)를 의논하여 올렸다.¹³⁶

다음 표에서 보듯 시호는 묘호와 함께 8글자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묘호와 같이 표기되지 않고 시호만 올려진 것은 대개 추상시호이다. 상시호는 처음 올리는 것이고 추상시호는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시호는 사후에 바로 정하여 금보에 새기고 그 뜻을 옥책에 새겨 올린다. 그런데 태조의 시호를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대에 추가로 올린 데에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다. 첫째, 시호의 글자 수가 후대 왕들보다 적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선왕의 시호는 일반적으로 8자였는데, 태조는 생시에 받은 존호 ‘계운신무(啓運神武)’를 제외하면 4자의 시호를 받았고, 시호와 존호를 합쳐 8자 ‘지인계운 성문신무(至仁啓運 聖文神武)’인데 비해 후손인 세조와 선조의 경우 각각 20자와 24자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후손이 선조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형국이었다. 둘째, 태조

134) 1683년(숙종 9, 癸亥) 태조에게는 ‘正義光德’, 정종에게는 1681년(숙종 7, 辛酉)년에 ‘懿文莊武’ 태종에게는 1683년(숙종 9, 癸亥) ‘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올림.

135) 1776년(정조 원년, 丙申)에 ‘莊獻’이라는 시호를 올림.

136) 숙종실록 12권, 7년(1681) 신유 9월 18일(정묘).

의 위화도 회군의 공적을 담은 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세채(朴世采) 등은 반대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은 위화도 회군은 『춘추(春秋)』 대의(大義)에 부합한 의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조의 기존 시호에 ‘정의광덕(正義光德)’이란 시호를 추가로 올렸는데, 이때 태조뿐 아니라 태종에게도 ‘예철성렬(睿哲成烈)’이라는 시호를 더하였다.

태종에 대해서는 한(漢)나라 문제와 당(唐)나라 태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민심이 태종에게 기울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종으로부터 선양 받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호를 더하여 올린 것이다.

한편 공정대왕(恭靖大王)은 묘호(廟號)도 없었다. 숙종 때 비로소 ‘정종(定宗)’이라는 묘호와 ‘의문장무(懿文莊武)’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열성(列聖)의 시호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의문장무’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영조의 묘호는 애초 ‘영종(英宗)’이었는데 고종 때 ‘영조(英祖)’로 개묘하였다. 아울러 정조 때 올린 ‘익문선무 희경현효(翼文宣武 熙敬顯孝)’의 시호를 ‘정문선무 희경현효(正文宣武 熙敬顯孝)’로 고쳐 올렸다.

진종은 영조 5년(1729)에 사망하자 ‘효장(孝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후 영조의 유지(遺旨)에 따라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진종(眞宗)으로 추송하고, 진종의 시호를 ‘온량예명 철문효장(溫良睿明 哲文孝章)’이라 하였다.

장조(莊祖)는 영조의 둘째 서자로 효장세자의 이복동생이며 정조의 생부이다. 흔히 사도세자(思悼世子) 또는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조 38년(1762) 뒤주에서 아사한 후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정조 원년(1776) 정조로부터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또 받았다. 이후 광무 3년(1899)에 고종이 ‘장종(莊宗)’이란 묘호와 함께 ‘신문환무 장헌광효(神文桓武 莊獻廣孝)’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다. 이는 고종 황제가 장조를 왕으로 추송하려 했던 정조의 소망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순조(純祖)의 시호는 묘호를 순종(純宗)에서 순조(純祖)으로 개묘할 때 ‘문안무정 헌경성효(文安武靖 憲敬成孝)’에서 ‘문안무정 영경성효(文安武靖 英敬成孝)’로 바꾸었다. 시호 중 헌경을 영경으로 바꾼 것이다.

문 조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나 순조 12년(1812)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불행히도 1830년에 사망하여 ‘효명(孝明)’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 아들인 현종이 순조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으로 추송되었다. 추송묘호(追崇廟號)는 ‘익종(翼宗)’, 시호(諡號)는 ‘돈문현무 인의효명(敦文顯武 仁懿孝明)’으로 정하였다. 익종이라는 묘호는 고종 36년에 문조로 바뀌었다.

<표> 왕 시호 현황

| 연번 | 명칭 | 내용 | 연도 | 옥책 | 어보 | 비고 |
|----|----|-----------------------|-----------------|----|----|----|
| 1 | 목조 | 仁文聖穆 | 太宗 11년(1411) 辛卯 | | 1 | |
| 2 | 익조 | 康惠聖翼 | 太宗 11년(1411) 辛卯 | | 2 | |
| 3 | 도조 | 恭毅聖度 | 太宗 11년(1411) 辛卯 | | 3 | |
| 4 | 환조 | 淵武聖桓 | 太宗 11년(1411) 辛卯 | | 4 | |
| 5 | 태조 | 至仁啓運 聖文神武 | 太宗 8년(1408) 戊子 | | | |
| 6 | | 正義光德 | 肅宗 9년(1683) 癸亥 | 1 | 5 | |
| 7 | 정종 | 溫仁順孝 | 世宗 1년(1419) 己亥 | | | |
| 8 | | 懿文莊武/ 定宗 | 肅宗 7년(1681) 辛酉 | 4 | 7 | |
| 9 | 대종 | 文武光孝/ 太宗 | 世宗 4년(1422) 壬寅 | | | |
| 10 | | 睿哲成烈 | 肅宗 9년(1683) 癸亥 | 5 | | |
| 11 | 세종 | 英文睿武 仁聖明孝/ 世宗 | 文宗 원년(1450) 庚午 | | 8 | |
| 12 | 문종 | 欽明仁肅 光文聖孝/ 文宗 | 端宗 원년(1452) 壬申 | | 9 | |
| 13 | 단종 | 純定安莊 景順敦孝/ 端宗 | 肅宗 24년(1698) 戊寅 | 7 | | |
| 14 | 세조 | 至德隆功 聖神明睿 欽肅仁孝/ 世祖 | 睿宗 원년(1468) 戊子 | | | |
| 15 | 덕종 | 懷簡宣肅 恭賢溫文/ 德宗 | 成宗 7년(1476) 丙申 | | | |
| 16 | 예종 | 欽文聖武 懿仁昭孝/ 睿宗 | 成宗 1년(1470) 庚寅 | | 10 | |
| 17 | 성종 | 人文憲武 欽聖恭孝/ 成宗 | 燕山 1년(1495) 乙卯 | | 12 | |
| 18 | 중종 | 徽文昭武 欽仁誠孝/ 中宗 | 仁宗 1년(1545) 乙巳 | | 13 | |
| 19 | 인종 | 獻文懿武 章肅欽孝/ 仁宗 | 明宗 원년(1545) 乙巳 | 8 | 14 | |
| 20 | 명종 | 獻毅昭文 光肅敬孝/ 明宗 | 宣祖 1년(1568) 戊辰 | | 15 | |
| 20 | 선조 | 顯文毅武 聖睿達孝/ 宣宗 | 光海 원년(1608) 戊申 | | 17 | |
| 22 | 원종 | 敬德仁憲 靖穆章孝 | 仁祖 10년(1632) 壬申 | | 19 | |
| 23 | 인조 | 憲文烈武 明肅純孝/ 仁祖 | 孝宗 원년(1649) 己丑 | 10 | 20 | |
| 24 | 효종 | 宣文章武 神聖顯仁/ 孝宗 | 顯宗 원년(1659) 己亥 | 13 | | |
| 25 | 현종 | 純文肅武 敬仁彰孝/ 顯宗 | 肅宗 원년(1674) 甲寅 | 16 | | |
| 26 | 숙종 | 章文憲武 敬明元孝/ 肅宗 | 景宗 원년(1720) 庚子 | 19 | 24 | |
| 27 | 경종 | 德文翼武 純仁宣孝/ 景宗 | 英祖 원년(1724) 甲辰 | 23 | 28 | |
| 28 | 영조 | 翼文宣武 熙敬顯孝/ 英宗 | 正朝 원년(1776) 丙申 | 28 | 31 | |
| 29 | | 正文宣武 熙敬顯孝/ 英祖 | 高宗 27년(1890) 庚寅 | 31 | 32 | |
| 30 | 진종 | 溫良睿明 哲文孝章/ 眞宗 | 正祖 원년(1776) 丙申 | 33 | 43 | |
| 31 | 장조 | 莊獻 | 正祖 원년(1776) 丙申 | | | |
| 32 | | 神文桓武 莊獻廣孝/ 莊宗 | 高宗 36년(1899) 己亥 | 37 | 46 | |

| 연번 | 명칭 | 내용 | 연도 | 옥책 | 어보 | 비고 |
|----|----|---------------|-----------------|----|-----|----|
| 33 | | 文成武烈 聖仁莊孝/ 正宗 | 純祖 원년(1800) 庚申 | 39 | 55 | |
| 34 | 순조 | 文安武靖 憲敬成孝/ 純宗 | 憲宗 1년(1835) 乙未 | 44 | 60 | |
| 35 | | 文安武靖 英敬成孝/ 純祖 | 哲宗 8년(1857) 丁巳 | 43 | 61 | |
| 36 | 문조 | 敦文顯武 仁懿孝明/ 翼宗 | 憲宗 1년(1835) 乙未 | 53 | 71 | |
| 37 | 헌종 | 經文緯武 明仁哲孝/ 憲宗 | 哲宗 원년(1849) 己酉 | 68 | 88 | |
| 38 | 철종 | 文顯武成 獻仁英孝/ 哲宗 | 高宗 1년(1864) 甲子 | 73 | 94 | |
| 39 | 고종 | 文獻武章 仁翼貞孝/ 高宗 | 純宗 13년(1919) 己未 | 83 | 96 | |
| 40 | 순종 | 文溫武寧 敦仁誠敬/ 純宗 | 純宗 19년(1926) 丙寅 | 84 | 101 | |

마. 왕후 시호

왕후 시호는 사후에 바로 정하여 금보에 새기고 그 뜻을 옥책에 새겨 올린다. 왕후의 시호는 2글자이며, 왕의 묘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묘호란 왕이 승하한 뒤 종묘 신실에 신위를 모실 때 올리는 명칭을 묘호라 하는데 즉 종묘 신실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불리는 명칭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이나 영조·정조 등의 명칭인 것이다. 왕비의 시호 또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것이 시호인 것이다.

왕후의 시호는 3가지 안을 정하여 올려 그 중 한 가지 안을 정한다. 세종비 소헌왕후의 시호를 정한 내력을 실록에서 찾아본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시호(諡號)를 봉상시(奉常寺)에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첩정(牒呈)하였기에,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소헌(昭憲)은 성문(聖聞)이 주달(周達)한 것이 소(昭)이고,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것이 헌(憲)입니다. 효순(孝順)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고, 유연(柔賢) 자혜(慈惠)한 것이 순(順)입니다. 효선(孝宣)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요, 성선(聖善)이 주문(周聞)하는 것이 선(宣)입니다.”하니, 임금이 소헌(昭憲)으로 정하였다.¹³⁷⁾

3가지 안을 올려 소헌으로 정한 것이다. 다음은 명종비 인순왕후의 시호를 정한 내력이다.

예조좌랑(禮曹佐郎)이 의의한 것들을 가져다가 삼공 앞에 올리니, 삼공이 의서단자(議書單子)를 정하여 시호의 수망(首望)에 인순(仁順), 인(仁)은 현자와 친족을 귀히 여김이요 순(順)은 유순하고 어질며 인자하고 은혜로움이다. 차망(次望)에 정혜(貞惠),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너그럽고 인자함이다. 삼망(三望)에 정숙(貞肅) 큰 사려를 능히 성취하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결단성이 있음이다. 으로 정하고, 휘호(徽號)의 삼망(三望)에는 일망(一望)에 선열의성(宣烈懿聖), 이

137) 세종실록 112권, 28년(1446 병인) 4월 20일(정사).

망에 소효현의(昭孝顯懿), 삼망에 소덕의열(昭德懿烈)로 정하고, 혼전(魂殿)의 삼망에는 경모(敬慕), 효의(孝義), 영사(永思)로 정하였다.¹³⁸⁾

즉 시호를 3망 중 수망(首望)인 인순(仁順)으로, 휘호(徽號) 또한 일망(一望)인 선열의성(宣烈懿聖)으로 결정하였다.

왕비께서 승하할 경우 왕이 살아 계신다면 세종비 소헌왕후처럼 시호만 올린다. 그러나 이미 왕이 승하한 후인 경우에는 명종비 안순왕후처럼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린다. 앞의 경우는 왕께서 종묘 신실에 부모하지 않는 경우이고, 안순왕후의 경우는 이미 명종께서 승하하여 종묘 신실에 부모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호와 휘호를 함께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종비 단경왕후의 경우 3월 28일에 빈청에서는 시호와 휘호를 함께 정하여 올렸다. 그러나 옥책의 제작에 있어서는 시호옥책과 휘호옥책을 각각 따로 제작한 것이 주목된다. 시호는 1일 병오일에 올리고, 휘호는 6일 신해일에 올렸다. 일반적으로는 시호와 휘호를 함께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상례이다.

아래 표는 시호를 올린 것을 정리한 표이다. 내용에 있어서 시호만 올린 것이 있고 휘호와 시호를 함께 올린 것 두가지 유형으로 표기되었다. 시호만 있는 것은 왕비가 승하하였을 때 왕이 살아계신 경우이고, 휘호와 시호를 함께 표기된 것은 이미 왕이 승하하여 종묘 신실에 부모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표> 황후 시호 현황

| 연번 | 왕비 | 휘호/ 시호 | 연도 | 옥책 | 어보 | 비고 |
|----|-----------|----------|-----------------|----|-----|----|
| 1 | 목조비 효공왕후 | 孝恭 | 太宗 11년(1411) 辛卯 | | 103 | |
| 2 | 익조비 정숙왕후 | 貞淑 | 太宗 11년(1411) 辛卯 | | 104 | |
| 3 | 도조비 경순왕후 | 敬順 | 太宗 11년(1411) 辛卯 | | 105 | |
| 4 | 환조비 의혜왕후 | 懿惠 | 太宗 11년(1411) 辛卯 | | 106 | |
| 5 | 태조비 신의왕후 | 神懿 | 太祖 7년(1398) 戊寅 | | | |
| 6 | 태조계비 신덕왕후 | 神德 | 太祖 5년(1396) 丙辰 | | | |
| 7 | 정종비 정안왕후 | 定安 | 太宗 12년(1412) 壬辰 | | | |
| 8 | 태종비 원경왕후 | 元敬 | 世宗 2년(1420) 庚子 | | | |
| 9 | 세종비 소헌왕후 | 昭憲 | 世宗 28년(1446) 丙寅 | | 110 | |
| 10 | 문종비 현덕왕후 | 顯德 | 文宗 卽位(1450) 庚午 | | 111 | |
| 11 | 단종비 정순왕후 | 端良齊敬/ 定順 | 肅宗 24년(1698) 戊寅 | 89 | | |
| 12 | 세조비 정희왕후 | 貞熹 | 成宗 14년(1483) 癸卯 | | | |
| 13 | 덕종비 소혜왕후 | 徽肅明懿/ 昭惠 | 燕山 10년(1504) 甲子 | | | |
| 14 | 예종비 장순왕후 | 章順 | 世祖 8년(1462) 壬午 | | 116 | |

138) 선조실록 9권, 8년(1575 을해) 1월 10일(경술).

| 연번 | 왕비 | 휘호/ 시호 | 연도 | 옥책 | 어보 | 비고 |
|----|-----------|----------|-----------------|-----|-----|----|
| 15 | 예종계비 안순왕후 | 昭徽齊淑/ 安順 | 燕山 5년(1499) 己未 | | 117 | |
| 16 | 성종비 공혜왕후 | 恭惠 | 成宗 5년(1474) 甲午 | | 119 | |
| 17 | 성종계비 정현왕후 | 昭懿欽淑/ 貞顯 | 中宗 25년(1530) 庚寅 | | 120 | |
| 18 | 중종비 단경왕후 | 端敬 | 英祖 15년(1739) 己未 | 90 | | |
| 19 | 중종계비 장경왕후 | 章敬 | 中宗 10년(1515) 乙亥 | | 124 | |
| 20 | 중종계비 문정왕후 | 文定 | 明宗 20년(1565) 乙丑 | | 123 | |
| 21 | 인종비 인성왕후 | 孝順/ 仁聖 | 宣祖 10년(1577) 丁丑 | | | |
| 22 | 명종비 인순왕후 | 宣烈懿聖/ 仁順 | 宣祖 8년(1575) 乙亥 | | | |
| 23 | 선조비 의인왕후 | 懿仁 | 宣祖 33년(1600) 庚子 | | 128 | |
| 24 | 선조계비 인목왕후 | 光淑莊定/ 仁穆 | 仁祖 10년(1632) 壬申 | | 136 | |
| 25 | 원종비 인헌왕후 | 敬懿貞靖/ 仁獻 | 仁祖 10년(1632) 壬申 | | 139 | |
| 26 | 인조비 인열왕후 | 仁烈 | 仁祖 14년(1636) 丙子 | 95 | 140 | |
| 27 | 인조계비 장열왕후 | 貞肅溫惠/ 莊烈 | 肅宗 14년(1688) 戊辰 | 103 | 143 | |
| 28 | 효종비 인선왕후 | 敬烈明獻/ 仁宣 | 顯宗 15년(1674) 甲寅 | 107 | | |
| 29 | 현종비 명성왕후 | 貞獻文德/ 明聖 | 肅宗 10년(1684) 甲子 | 111 | 150 | |
| 30 | 숙종비 인경왕후 | 仁敬 | 肅宗 7년(1681) 辛酉 | 114 | 151 | |
| 31 | 숙종계비 인현왕후 | 仁顯 | 肅宗 27년(1701) 辛巳 | 121 | | |
| 32 | 숙종계비 인원왕후 | 定懿章穆/ 仁元 | 英祖 33년(1757) 丁丑 | 136 | 167 | |
| 33 | 경종비 단의왕후 | 端懿 | 景宗 2년(1722) 壬寅 | | 178 | |
| 34 | 경종계비 선의왕후 | 孝仁惠穆/ 宣懿 | 英祖 6년(1730) 庚戌 | 145 | 184 | |
| 35 | 영조비 정성왕후 | 貞聖 | 英祖 33년(1757) 丁丑 | 149 | 186 | |
| 36 | 영조계비 정순왕후 | 昭肅靖憲/ 貞純 | 純祖 5년(1805) 乙丑 | 166 | 200 | |
| 37 | 진종비 효순왕후 | 孝純 | 英祖 27년(1751) 辛未 | | 214 | |
| 38 | 장조비 헌경왕후 | 獻敬 | 純祖 16년(1816) 丙子 | 172 | 221 | |
| 39 | 장조비 헌경왕후 | 仁哲啓聖/ 獻敬 | 高宗 36년(1899) 己亥 | 174 | 217 | |
| 40 | 정조비 효의왕후 | 睿敬慈粹/ 孝懿 | 純祖 21년(1821) 辛巳 | 178 | 228 | |
| 41 | 순조비 순원왕후 | 睿成弘定/ 純元 | 哲宗 8년(1857) 丁巳 | 190 | 236 | |
| 42 | 문조비 신정왕후 | 景勳哲範/ 神貞 | 高宗 27년(1890) 庚寅 | 215 | 248 | |
| 43 | 헌종비 효현황후 | 孝顯 | 憲宗 9년(1843) 癸卯 | 222 | 274 | |
| 44 | 헌종계비 효정황후 | 慈溫恭安/ 孝定 | 高宗 41년(1904) 甲辰 | 238 | 280 | |
| 45 | 철종비 철인황후 | 敬獻莊穆/ 哲仁 | 高宗 15년(1878) 戊寅 | 244 | | |
| 46 | 고종비 명성황후 | 明成 | 高宗 34년(1897) 丁酉 | 250 | 298 | |
| 47 | 순종비 순명황후 | 純明 | 高宗 41년(1904) 甲辰 | 254 | 307 | |

바. 왕후 휘호

왕과 왕비가 승하한 후 상장례(喪葬禮) 의례과정을 혼전에서 3년의 상기를 마치고 난 뒤 신주를 종묘 신실에 모시는 것을 부묘(祔廟)라 한다. 왕의 경우는 3년의 상기가 끝나는 대로 부묘되었으나 왕후의 경우는 왕이 살아계실 때에는 3년의 상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혼전(魂殿)에 모시다가 왕의 3년 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부묘한다. 즉 왕이 아직 살아계실 때 왕후께서 승하하면 시호(諡號)만 주어진다. 반면 왕께서 이미 승하한 경우에는 왕후의 상기가 3년이 끝나면 시호와 휘호(徽號)를 함께 부여한다.

즉 휘호는 왕비가 승하한 후에 시호와 함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존칭이다. 이 휘호는 왕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4글자가 정형화 되어 있다. 그리고 휘호는 존호와 달리 한차례만 올린다.

그러나 휘호가 4글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2글자를 올린 사례도 있다.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에게 선조 10년(1577)에 올린 ‘효순(孝順)’이라는 휘호와 선조비 의인왕후에게 광해 2년(1610)에 올린 ‘정헌(貞憲)’이라는 휘호이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휘호를 올린 예는 중종계비 장경왕후로 중종 10년(1515)에 승하하였을 때 ‘숙신명혜(淑愼明惠)’라는 휘호를 올리고, 명종 1년(1546) 부묘할 때 ‘선소의숙(宣昭懿淑)’이란 휘호를 다시 올렸다. 이것은 장경왕후가 상을 당하였을 때 중종이 살아계신다면 초상에 시호만 올리고 부묘할 때에 휘호를 올리는 것인데, 중종 대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장경왕후가 먼저 승하한 경우인데도 초상에 휘호를 올렸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부묘할 즈음에 또 휘호를 올린 것이다.¹³⁹⁾ 실록에 내력이 적혀 있다.

“대체로 휘호(徽號)는 아마도 사왕(嗣王)이 선후(先后)를 위하여 올리는 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내상이 먼저 있게 되면 반드시 부묘 때를 기다려서 올리는 것으로 아마 장경왕후 때에는 초상 때에 휘호를 미리 올렸다가 곧 이어 전례가 아님을 깨닫고 정미년 정월에 비로소 ‘선소의숙’이라는 휘호를 올린 것으로 그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오늘은 영상과 좌상이 모두 질병으로 오지 못하였으니 신들만으로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¹⁴⁰⁾

또한 조선 초기에 살아계실 때 올린 존호와 돌아가신 후에 올리는 휘호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여 휘호를 올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세조비 정희왕후에게 생전에 ‘자성 흙인경덕 선렬명순 원숙 휘신혜의 신헌(慈聖 欽仁景德 宣烈明順 元淑 徽愼惠懿 神憲)’이라는 18글자의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성종 14년(1483)에 승하하자 ‘정희(貞熹)’라는 시호만 올리고 휘호는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중종 2계비 문정왕후 또한 생전에 ‘성렬 인명(聖烈 仁明)’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명종 20년

139) 김종수, 「규장각 소장 존호 존승 상호도감 의례 해설」, 39쪽.

140) 선조실록 128권, 33년(1600 경자) 8월 21일(신묘).

(1565)에 승하 하였는데 세조비 정희왕후의 예를 따라 ‘문정(文定)’이라는 시호만 올리고 휘호는 올리지 않았다.

다음의 표는 휘호를 올린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휘호와 시호가 함께 표기된 것은 왕비가 승하 할 때 이미 왕께서는 승하하여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한 뒤이다. 그래서 휘호와 시호가 함께 수여된 것이다. 반면 시호는 없고 휘호만 있는 것은 아직 왕께서는 승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비만 승하하여 그때 당시 이미 시호를 받았고 왕이 승하한 후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할 무렵 왕후의 신주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휘호를 수여한 것이다.

<표> 황후 휘호 현황

| 연번 | 왕비 | 휘호/ 시호 | 연도 | 옥책 | 어보 | 비고 |
|----|-----------|----------|-----------------|-----|-----|----|
| 1 | 태조계비 신덕왕후 | 順元顯敬 | 顯宗 10년(1669) 己酉 | 86 | | |
| 2 | 정종비 정안왕후 | 溫明莊懿 | 肅宗 7년(1681) 辛酉 | 88 | 109 | |
| 3 | 중종비 단경왕후 | 恭昭順烈 | 英祖 15년(1739) 己未 | 91 | 122 | |
| 4 | 인조비 인렬왕후 | 明德貞順 | 孝宗 2년(1651) 辛卯 | 97 | | |
| 5 | 숙종비 인경왕후 | 孝莊明顯 | 景宗 2년(1722) 壬寅 | 116 | 154 | |
| 6 | 숙종계비 인현왕후 | 懿烈貞穆 | 景宗 2년(1722) 壬寅 | 125 | 161 | |
| 7 | 경종비 단의왕후 | 恭孝定穆 | 英祖 2년(1726) 丙午 | 142 | 180 | |
| 8 | 영조비 정성왕후 | 端穆章和 | 正朝 2년(1778) 戊戌 | 153 | 193 | |
| 9 | 진종비 효순왕후 | 徽貞賢淑 | 正朝 원년(1776) 丙申 | 169 | 211 | |
| 10 | 장조비 헌경왕후 | 仁哲啓聖/ 獻敬 | 高宗 36년(1899) 己亥 | 174 | 217 | |
| 11 | 헌종비 효현황후 | 敬惠靖順 | 哲宗 2년(1851) 辛亥 | 223 | 275 | |
| 12 | 철종비 철인황후 | 敬獻莊穆/ 哲仁 | 高宗 15년(1878) 戊寅 | 244 | | |

(2) 재질별 종류

옥책은 옥을 조각내어 5~7개의 옥간을 1폭으로 하여 짝수 폭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이에 사용되는 재질에 대한 내용은 각종 『의궤(儀軌)』나 『실록(實錄)』에서는 대부분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한다”라고 산지를 기록하고 있다.

“지문·애책은 남양산(南陽産) 옥에다 써서 광중(壙中)에 들이고, 시책·시보(諡寶)도 남양옥에 써서 종묘에 간직하게 하소서.”¹⁴¹⁾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남양이 어디인지는 필자가 수십 년 조사하여 보았으나 찾지를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도 화성의 남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는 지질상 옥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 국립지리원에서

141) 연산군일기 2권, 연산 1년 1월 17일 신축.

발표한 지질도 등에서도 이곳에는 옥의 분포지역이 아니다. 향후 남양이 어디인지는 좀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옥의 종류에 대해 기록한 것은 『종묘등록(宗廟騰錄)』¹⁴²⁾이다. 흑옥, 백옥, 청옥 3종의 재질을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곳에 수록된 옥책의 재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흑옥 3책(0.9%), 백옥 52책(15.4%), 청옥 282책(83.7%) 등 모두 337점이다.

흑옥은 태종 11년(1411) 태조의 4대조 왕후들에게 시호를 올린 옥책으로 3책만 기록하고 있다. 목조비 효공왕후 가상시호 옥책, 익조비 정숙왕후 가상시호 옥책, 도조비 경순왕후 가상시호 옥책 등 3책인데 환조비 의혜왕후 가상시호 옥책 또한 같은 날 제작되어 같이 봉안되었는데 왜 흑옥이 아닌 청옥인지는 알 수 없다.

백옥은 대체로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52책이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전하는 유물은 1책도 없다. 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세종 14년(1432)부터 인조 12년(1634) 사이다. 이 시기 중 세조 때 만든 세조 옥책 1책(1457)과 정희왕후 옥책 2책(1455, 1457) 등 3책은 청옥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명종 원년에 만든 인종 시책(1545)이 있는데 이 또한 청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영조 대에 새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선조 1년에 만든 명종 시책(1568)도 청옥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인조 1년(1623)에 만든 인렬왕후 책봉 옥책 또한 청옥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조선 초기에는 대체로 백옥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들 중 6책이 청옥으로 만들어졌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때 제작된 6책의 옥책은 책봉 2책, 존호 2책, 시호 2책으로 옥책 내용에 따른 종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52책의 백옥 옥책의 내용별 수량을 보면 책봉 6책, 존호 18책, 묘호 2책, 시호 21책, 휘호 5책이다. 옥책 내용에 따른 종류 구분은 역시 별 의미가 없다.

한편 청옥은 337책 중 282책(67.6%)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소장하고 있는 옥책 모두가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옥책을 모두 청옥이라고 하나 고종과 순종 대에 제작된 옥책을 재질로 보았을 때는 옥의 일종이라기보다는 대리석에 가까운 재질로 보인다.

3) 죽책의 개념

죽책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을 사용한다.

142) 종묘등록은 조선 및 대한제국기 종묘 및 영녕전의 각실에 봉안된 역대 왕·왕비의 옥책, 금보 교명축 시책 시보 죽책, 인 국조보감 등의 연대, 수량, 물품내역 등을 종묘서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이 책은 모두 4책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등록된 번호와 연도를 살펴보면 K2-2212(1783~1908년), K2-2172(1555~1651년), K2-2173(1698년경), K2-2174(1705~1783년)이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수여한다. 죽책의 형태는 죽간(竹簡) 5~6조각을 책자 형태로 엮어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새기고 니금(泥金)을 하고 변철로 고정하여 둥근 고리와 돌쩌귀로 연결한다. 죽책의 앞뒷면에는 비단으로 회장하여 장식한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죽책의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 내용이다.

죽책은 죽간 5~6쪽을 한 폭으로 변철로 엮어 4첩·6첩·8첩·10첩으로 연결한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 첩은 비단으로 장식하였다.

죽책의 첩과 첩을 연결하는 방식은 원환(圓環) 연첩방식과 돌쩌귀[玃迪耳] 연첩방식이 있다. 원환 연첩방식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 연첩방식은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에 못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죽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효종 원년(1649)부터 영조 12년(1736)까지는 원환 연첩방식이다. 영조 20년(1744)에 제작된 장조비 헌경왕후 봉왕세자빈 죽책이 돌쩌귀 연첩방식이었다가 영조 28년(1752)에 제작된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에 다시 원환 연첩방식이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모두 돌쩌귀 연첩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죽책의 종류

죽책의 제작 형태는 모두 같다. 따라서 죽책을 분류하고자 한다면 내용별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즉 죽책을 수여하는 대상과 의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죽책을 수여하는 대상은 왕세자·왕세제·왕세손·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후궁 등이다. 의례별로는 저위 책봉(儲位 冊封), 빈궁 책봉(嬪宮 冊封),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이다. 특히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에는 인(印)과 교명과 죽책을 함께 수여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이나, 『종묘등록(宗廟謄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을 종합한 결과 76건의 죽책이 제작되고 수여되었다. 이 중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 등으로 일부 손실되고 현재 전하는 죽책은 43책이다.

<표> 죽책 내용별 수량

| 연번 | 내용 | 수량 | 비율(%) | 비고 |
|----|---------|-----|-------|--|
| 1 | 저위 책봉 | 12 | 35.3 | |
| | 왕세자 책봉 | (8) | | 현종, 숙종, 경종, 진종, 장조, 순조, 문조, 순종 |
| | 왕세제 책봉 | (1) | | 영조 |
| | 왕세손 책봉 | (3) | | 현종, 정조, 헌종 |
| 2 | 빈궁 책봉 | 10 | 29.4 | |
| | 왕세자빈 책봉 | (8) | | 명성왕후, 인경왕후, 단의왕후, 선의왕후, 효순왕후, 헌경왕후, 신정왕후, 순명왕후 |
| | 왕세제빈 책봉 | (1) | | 정성왕후 |
| | 왕세손빈 책봉 | (1) | | 효의왕후 |
| 3 | 존호 | 5 | 14.7 | |
| | 왕세자 존호 | (2) | | 장조 |
| | 왕세자빈 존호 | (3) | | 헌경왕후 |
| 4 | 시호 | 5 | 14.7 | |
| | 왕세자 시호 | (3) | | 효장세자(진종), 장헌세자(장조), 효명세자(문조) |
| | 왕세자빈 시호 | (2) | | 단의왕후, 효순왕후 |
| 5 | 기타 | 2 | 5.9 | |
| | 가호 | (2) | | 진종(가호), 효순왕후(가호), |
| 소계 | | 34 | 100 | |

저위 책봉 죽책은 왕세손 책봉 죽책이 3책, 왕세제 책봉 죽책이 1책, 왕세자 책봉 죽책은 8책 등 모두 12책이 전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이나 『종묘등록(宗廟謄錄)』 등의 문헌에는 모두 25책의 죽책이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645년 이전 죽책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표> 저위 책봉 죽책

| 연번 | 발급 | 명칭 | 제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인조 | 현종왕세손책봉죽책 | 조정 | 인조 기축 | 1649 | 258 | 왕세손 |
| 2 | 효종 | 현종왕세자책봉죽책 | 이일상 | 효종 신묘 | 1651 | 259 | |
| 3 | 현종 | 숙종왕세자책봉죽책 | 김수항 | 현종 정미 | 1667 | 260 | |
| 4 | 숙종 | 경종왕세자책봉죽책 | 민암 | 숙종 경오 | 1690 | 261 | |
| 5 | 경종 | 영조왕세제책봉죽책 | 이관명 | 경종 신축 | 1721 | 262 | 왕세제 |
| 6 | 영조 | 진종왕세자책봉죽책 | 이의현 | 영조 을사 | 1725 | 263 | |
| 7 | 영조 | 장조왕세자책봉죽책 | 윤순 | 영조 병진 | 1736 | 266 | |
| 8 | 영조 | 정조왕세손책봉죽책 | 김양택 | 영조 기묘 | 1759 | 270 | 왕세손 |
| 9 | 정조 | 순조왕세자책봉죽책 | 이병모 | 정조 경신 | 1800 | 271 | |
| 10 | 순조 | 문조왕세자책봉죽책 | 남공철 | 순조 임신 | 1812 | 272 | |
| 11 | 순조 | 헌종왕세손책봉죽책 | 남공철 | 순조 경인 | 1830 | 274 | 왕세손 |
| 12 | 고종 | 순종왕세자책봉죽책 | 이유원 | 고종 을미 | 1875 | 275 | |

빈궁 책봉 죽책 중 왕세손빈 책봉 죽책 1책, 왕세제빈 책봉 죽책 1책, 왕세자빈 책봉 죽책 8책 등 모두 10책이 전한다. 문헌에 수록된 죽책은 모두 19책이다. 인조 이전에 제작된 죽책은 모두 손실 되었고 그 이후 것만 남아 있다. 이 중 신정 왕후 죽책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병인양요 때 약탈당했다가 2017년 프랑스 옥션에서 구입하였다.

<표> 빈궁 책봉 죽책

| 연번 | 발급 | 명칭 | 재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효종 | 명성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오준 | 효종 신묘 | 1651 | 276 | |
| 2 | 현종 | 인경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강백년 | 현종 신해 | 1671 | 277 | |
| 3 | 숙종 | 단의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최석정 | 숙종 병자 | 1696 | 278 | |
| 4 | 숙종 | 선의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민진후 | 숙종 무술 | 1718 | 280 | |
| 5 | 경종 | 정성왕후왕세제빈책봉죽책 | 홍계적 | 경종 신축 | 1721 | 281 | 왕세제빈 |
| 6 | 영조 | 효순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윤순 | 영조 정미 | 1727 | 282 | |
| 7 | 영조 | 헌경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이덕수 | 영조 갑자 | 1744 | 285 | |
| 8 | 영조 | 효의왕후왕세손빈책봉죽책 | 김양택 | 영조 임오 | 1762 | 290 | 왕세손빈 |
| 9 | 순조 | 신정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남공철 | 순조 기묘 | 1819 | | 환수 |
| 10 | 고종 | 순명왕후왕세자빈책봉죽책 | 김상현 | 고종 임오 | 1882 | 292 | |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존호를 수여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장조와 그의 비인 헌경왕후의 죽책이 5책 전한다. 장조에게는 ‘수덕돈경(綏德敦慶)’과 ‘홍인경지(弘仁景祉)’라는 존호를 올렸고, 헌경왕후에게는 ‘효강(孝康)’, ‘자희(慈禧)’, ‘정선(貞宣)’ 등 3차례에 걸쳐 존호를 올리고 죽책을 제작하였다.

<표> 왕세자 존호 죽책

| 연번 | 발급 | 명칭 | 내용 | 재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정조 | 장조추상존호죽책 | 수덕돈경 | 황경원 | 정조 계묘 | 1783 | 268 | |
| 2 | 정조 | 장조추상존호죽책 | 홍인경지 | 이복원 | 정조 갑진 | 1784 | 269 | |

<표> 왕세자빈 존호 죽책

| 연번 | 발급 | 명칭 | 내용 | 재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정조 | 헌경왕후상존호죽책 | 효강 | 이회지 | 정조 무술 | 1778 | 287 | |
| 2 | 정조 | 헌경왕후가상존호죽책 | 자희 | 이복원 | 정조 계묘 | 1783 | 288 | |
| 3 | 정조 | 헌경왕후가상존호죽책 | 정선 | 황경원 | 정조 갑진 | 1784 | 289 | |

왕세자에게 시호를 내리는 경우는 왕세자의 신분으로 죽었을 때이며, 그 시호를 죽책에 기록하였다. 모두 7차례에 걸쳐 죽책이 수여되었는데 전하는 것은 5책이며 지정대상은 3책 뿐이다.

<표> 왕세자 시호 죽책

| 연번 | 발급 | 명칭 | 내용 | 재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영조 | 효장세자상시호죽책 | 효장 | | 영조 을유 | 1729 | 264 | 진종 |
| 2 | 정조 | 장헌세자상시호죽책 | 장헌 | 황경원 | 정조 병신 | 1776 | 267 | 장조 |
| 3 | 순조 | 효명세자상시호죽책 | 효명 | 김리교 | 순조 경인 | 1830 | 273 | 문조 |

왕세자빈 시호 죽책은 11책이 제작되었으나 전하는 것은 2책 뿐이다. 숙종 이전의 것은 전란 중에 소실되었다.

경종비 단의왕후는 경종 즉위 2년 전인 1718년에 돌연사 하였다. 왕세자인 경종이 손수 지문(誌文)을 지었고, 숙종이 죽음을 비통해하며 단의(端懿)라는 시호를 추서하고 단의빈으로 삼았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단의왕후로 추봉하였다. 이 죽책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시호를 받았기에 죽책에 기록한 것이다.

효순왕후(1715~1751)는 1727년(영조 3) 세자빈에 책봉되고, 1735년 현빈(賢嬪) 칭호를 받았다. 1751년(영조 27) 37세의 나이로 창경궁 의춘헌(宜春軒)에서 세상을 떠났고, 1752년 효순(孝純)으로 추증되고, 1776년(정조 즉위) 왕후로 추존되었다

<표> 왕세자빈 시호 죽책

| 연번 | 발급 | 명칭 | 내용 | 재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숙종 | 단의왕후상시호죽책 | 단의 | 송상기 | 숙종 무술 | 1718 | 279 | |
| 2 | 영조 | 효순왕후상시호죽책 | 효순 | | 영조 임신 | 1752 | 283 | |

1776년(영조 52) 진종에게 ‘승통(承統)’이라는 호칭을 가호(加號)하면서 제작한 죽책이다.

‘승통(承統)’이라는 가호 내용은 그에게 양자로 입적된 정조가 세손으로서 대리 청정을 하여 종묘사직을 부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승통’이라는 칭호를 추가한다고 하였다.

이때 진종비 효순왕후에게도 ‘승통(承統)’이라는 호칭을 가호(加號)하면서 죽책을 제작하였다.

<표> 기타 죽책

| 연번 | 발급 | 명칭 | 재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영조 | 진종추가승통세자죽책 | 이회지 | 영조 병신 | 1776 | 265 | |
| 2 | 영조 | 효순왕후추가승통세자빈죽책 | 서명응 | 영조 병신 | 1776 | 284 | |

5) 금책의 개념

황실에서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를 금책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비 책봉 시에는 옥책을 수여하고,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

제빈·왕세손·왕세손빈 책봉 시에는 죽책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후인 1897년 황제를 칭하면서 승하한 왕비를 황후로 추봉하고, 왕세자 책(척, 순종)을 황태자로, 왕세자비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하면서 금책(金冊)을 수여하였다. 이때 제작된 것이 3점이다.

금책은 두 개의 금편에 글을 새기고, 붉은색 끈으로 두 곳을 엮어 책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이다. 금책의 폭수는 문장 내용에 관계 없이 2개 금편으로만 제작된다. 1개 금편의 행수는 5~7행, 1개 행의 글자 수는 15~25자이다.

금책문의 내용은 책봉의 배경, 인물의 인적 사항과 평가인데 주로 칭송하는 내용, 책봉 선언한 뒤 당부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6) 금책의 종류

금책은 책봉에만 사용되었다.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금책은 모두 16건이다. 그리고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7건이며 보물 지정 대상은 3건이다.

고종비 명성왕후추봉황후 금책(1897), 순종비 순정효황후책봉 금책(1907) 등 2건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1897)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금책 현황

| 연번 | 명칭 | 보문 | 연도 | 재질,紐 | 어보 | 금책 | 항, 행, 글자수 |
|----|-------------------|------|-------------------|-------|-----|------|---------------|
| 1 | 고종비 명성왕후 추봉황후 금책 | 皇后之寶 | 1897(광무 1) 9월 17일 | 금보 용紐 | 299 | 291 | 19항, 7행, 185자 |
| 2 |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 | 皇太子寶 | 1897(광무 1) 9월 17일 | 금보 용紐 | ○ | 9237 | 17항, 5행, 139자 |
| 3 |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 皇后之寶 | 1907(융희 1) 7월 23일 | 금보 용紐 | ○ | 369 | 25항, 7행, 257자 |

3. 교명

1) 교명의 개념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¹⁴³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玉冊과 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 竹冊과 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필사한 것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교

143) 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 내선, 선양, 전수, 전위라고도 한다. 태조, 태종, 세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교명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직조하여 넣는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날인한 것도 있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명에 글을 쓸 때에는 대두법(擡頭法)이라 하여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를 높여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줄을 바꾸어 다른 줄 맨 위로 올려 적거나 글의 중간을 띄어 쓰는 형식을 사용한다. 글자를 배정할 때에는 극항(極行)이라 하여 글줄의 최상단부터 글을 적어 10글자¹⁴⁴⁾, 중항(中行)은 글줄의 중간 형태로 한 줄에 9글자, 그리고 평항(平行)은 글줄이 같은 높이를 말하는데, 한 줄에 8글자가 들어간다.

이와 같은 구분을 두어 뜻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형식은 유교 국가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정통성과 위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체는 교명과 옥책, 죽책 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글에서는 이를 표현하기는 어렵다.

교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고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의 형식이다.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교서의 서식은 기두(起頭)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고,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¹⁴⁵⁾로 마무리된다.

교명에는 의례를 행하면서 수여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교명의 경우 날짜를 본문의 맨 마지막 쪽인 검은 바탕의 승강룡 사이에 쓴다.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간지(년)+모월+모일’이고 또 하나는 ‘칭 연호(순치, 강희)+모년+모월+모일’이다.

일반적으로 교명문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연월일만 쓰게 한 것인데, 숙종 때의 기록을 참고해 볼 만하다.

“무릇 국가의 길흉(吉凶) 문서에 병자년(인조 14년, 1638) 이전에는 반드시 명(明)나라 연호(年號)를 썼으니, 여기에는 뜻을 둔 바 있었다. 그리고 옥책문(玉冊文)은 단지 연월(年月)만 쓰고 교명문(敎命文)에는 연호를 갖추어 썼다. 옥책과 교명이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연호를 쓰고 혹은 연호를 쓰지 않았으니,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겠다.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니, 도감에서 아뢰기를, “등록(謄錄)을 취하여 상고해 보건대, 신묘년 왕비를 책봉(冊封)할 때에 죽책문(竹冊文)을 써서 드렸더니, 머리말에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하교(下敎)가 있었으므로, 도감에서 복계(覆啓)하여 ‘유세차 신묘(維歲次 辛卯)’로 쓰라는 뜻으로 정탈(定奪)하였으나, 교명문에는 연호를 갖추어 썼는지의 여부는 품정(稟定)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책문에 연호를 쓰지 않은 것이 신묘년으로부터 시작되어, 교명

144) 효종비 인선왕후 봉왕세자빈 교명의 극항은 9자, 순조비 순원왕후 봉왕비 교명과 헌종비 효현왕후 봉왕비 교명은 11자, 고종비 명성왕후 봉왕비 교명은 12자이다.

145) 그래서 교시(敎示)하노니, 자세히 알 것이라 생각하노라.

문에 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 여기에서 연유된 듯하고, 이외에는 달리 상고할 문헌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교명문은 다만 연월일(年月日)만 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¹⁴⁶⁾

이때부터 교명에는 연월일(年月日)만 쓰도록 하였다.

교명의 다섯 번째 폭 본문이 끝나면 국새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한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왕의 문서에 사용하는 국새인데, ‘시명(施命)’은 『주역(周易)』의 구괘(姤卦)에서 따온 말로, “바람이 하늘 아래 두루 다니는 것과 같이 군주(君主)가 상(象)을 두루 관찰하여 명령을 베풀어서 사방을 교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교명 또한 국왕의 문서이므로 일반적으로 ‘시명지보’를 날인하였다. 숙종실록의 내용을 보면

“세자빈(世子嬪)을 책봉(冊封)할 때의 교명(敎命)은 마땅히 병자년(1696년, 숙종 22)의 전례에 의거하여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사용하도록 하소서.”¹⁴⁷⁾ 하였다.

그런데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아닌 ‘조선왕보(朝鮮王寶)가 날인 된 교명이 3점 있다. 의소세손 왕세손책봉 교명(영조 신미년, 1751)과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교명(영조 기묘년, 1759),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고종 을해년, 1875)이다. 1744년(영조 20년) 12월 24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에

“태조 때의 인물인 강순룡(康舜龍)의 후손 강치경(康致卿)이 태조의 어필로 쓰인 교지(敎旨)를 영조에게 올리니 왕께서는 지금은 교지에 모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사용하는데, 태조 때의 교지에 날인된 조선왕보를 보았으니 앞으로는 교명(敎命)과 왕후·왕세자의 책례(冊禮) 때에는 조선왕보를 사용하여야 하겠다고 상방(尙方)에 명하여 이를 주조해서 바치게 하였다.”¹⁴⁸⁾

고 한다.

교명은 두루마리인 권자본(卷子本) 형태이다. 두루마리 가운데는 옥축(玉軸)을 놓고 전체적으로는 가로로 된 비단으로 꾸며져 있다. 이 비단에는 교명이라는 전서체의 글씨와 용과 봉황문을 직조하였고 교명문을 먹으로 썼다. 이 교명은 중국 황제가 제후국의 국왕을 인준(認准)하는 문서인 고명(誥命)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우선 교명의 핵심이라고 할 비단은 다섯 가지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바탕은 홍색, 둘째 바탕은 황색, 셋째 바탕은 남색, 넷째 바탕은 백색, 다섯째 바탕은 흑색이다. 첫 번째 홍색 바탕에는 전서체로 ‘교명(敎命)’이라는 글자와 승강룡을 직조하였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흑색바탕에도 승강룡을 직조하였다.

146) 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9월 15일 계해.

147) 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윤8월 2일 정미.

148)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12월 24일 정묘.

맨 앞면과 뒷면은 침향운문단(沈香雲紋緞)¹⁴⁹⁾이고, 위아래 가장자리의 회장은 남운문단(藍雲紋緞)이다. 그리고 맨 앞면 뒤에 배접한 것은 오색후수단(五色後垂緞)¹⁵⁰⁾이고 전체적으로 뒷면을 배접한 것은 모변지(毛邊紙)¹⁵¹⁾ 및 박백지(薄白紙)¹⁵²⁾이다.

2) 교명의 세부 명칭

(1) 옥축(玉軸)

횡축(橫軸) 또는 횡목(橫木)이라고도 한다. 교명을 만들 때 맨 왼쪽편 끝에 비단을 감싸 두루마리 형태로 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안쪽 가운데는 나무¹⁵³⁾로 둥글게 만들고 아래 위 끝부분은 옥으로 만든다.

(2) 변죽(邊竹)

교명을 펼쳤을 때 맨 왼쪽 끝에는 옥축이 자리하고 맨 오른쪽에는 변죽이 자리한다. 변죽에는 명칭과 달리 대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산유자(山柚子), 오동(梧桐) 나무, 추목(楸木) 등의 나무가 사용된다.¹⁵⁴⁾ 변죽은 옥축과 달리 반원 모양의 형태이다. 반원의 평평한 면은 교명의 안쪽이고 반원 형태는 밖이다. 이곳에 거물정으로 영자를 부착한다.

(3) 거물정(巨勿釘)

거물못이라고도 하며, 변죽과 영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변죽에 ㄷ자 모양의 거물정을 박고 영자를 거물정에 걸어 연결한다.

(4) 영자(纓子), 대자(帶子)

두루마리 형태의 교명을 감아서 고정시키는 띠이다. 영자의 한쪽 끝은 변죽에 연결되고 한쪽 끝은 운두첨자를 단다.

(5) 운두첨자(雲頭簪子)

메뚜기라고도 한다. 연황동으로 만들며 도금을 한다. 형태는 비녀와 비슷하며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 끝은 구름모양이다. 영자의 끝에 달려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49) 검푸른 빛깔에 구름 무늬를 놓은 비단.

150) 오색으로 된 비단. 영조비 정순왕후부터 오색후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51) 종이의 한 종류.

152) 얇은 백지.

153) 의궤에는 산유자(山柚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154) 손계영, 「교명의 형태 연구」, 114쪽 주21) 참조.

3) 교명의 종류

교명의 제작 형태는 모두 같다. 따라서 교명을 분류하고자 한다면 내용별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즉 교명은 수여하는 대상과 의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명을 수여하는 대상은 왕비·왕세자·왕세제·왕세손·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후궁 등이다. 의례별로는 전선(傳禫), 저위 관례(儲位 冠禮)¹⁵⁵⁾, 곤전 책봉(壺殿 冊封)¹⁵⁶⁾, 저위 책봉(儲位 冊封)¹⁵⁷⁾, 빈궁 책봉(嬪宮 冊封)¹⁵⁸⁾, 후궁 봉빈(後宮 封嬪)¹⁵⁹⁾ 등이다.

『문원보불(文苑繡黻)』이나, 『종묘등록(宗廟謄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을 종합한 결과 77건의 교명이 제작되고 수여되었다. 이 중에는 폐위로 인하여 과기된 교명도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 등으로 일부 손실되고 지정 대상 교명은 29점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28점,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 등이 소장되어 있다.

<표> 교명 내용별 수량

| 연번 | 내용 | 수량 | 비율(%) | 비고 |
|----|---------|-----|-------|--|
| 1 | 곤전 책봉 | 11 | 37.9 | 장렬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단의왕후, 선의왕후, 정성왕후, 정순왕후, 효의왕후, 순원왕후, 효현왕후, 명성왕후 |
| 2 | 저위 책봉 | 10 | 34.5 | |
| | 왕세손 책봉 | (2) | | 정조, 헌종 |
| | 왕세제 책봉 | (1) | | 영조 |
| | 왕세자 책봉 | (7) | | 현종, 경종, 진종, 장조, 순조, 문조, 순종 |
| 3 | 빈궁 책봉 | 8 | 27.6 | |
| | 왕세손빈 책봉 | (1) | | 효의왕후 |
| | 왕세자빈 책봉 | (7) | | 헌경왕후,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경왕후, 단의왕후, 선의왕후, 효순왕후 |
| 소계 | | 29 | 100 | |

곤전 책봉은 왕비의 책봉을 말하며, 『문원보불(文苑繡黻)』과 『종묘등록(宗廟謄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28건인데 유물로 전하고 있는 것은 11건이다.

왕비를 책봉하면서 거행하는 의식은 ‘책비(冊妃)’라 하는데, 별궁에서 거행된다. 이 의례에서 왕은 왕비 책봉을 위해 교명·옥책·어보·명복(命服) 등을 보내고, 왕비는 별궁에서 적의(翟衣)를 입고 왕의 책봉문을 받는다.

155) 왕세자의 관례.

156) 왕비 책봉.

157)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책봉.

158)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 책봉.

159) 후궁을 빈으로 책봉.

<표> 왕비 책봉 교명

| 연번 | 발급 | 명칭 | 제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인조 | 장렬왕후왕비책봉교명 | 이경석 | 인조 무인 | 1638 | 303 | |
| 2 | 숙종 | 인현왕후왕비복위교명 | 이여 | 숙종 갑술 | 1694 | 307 | |
| 3 | 숙종 | 인원왕후왕비책봉교명 | 이여 | 숙종 임오 | 1702 | 308 | |
| 4 | 경종 | 단의왕후추봉왕비교명 | 이사상 | 경종 임인 | 1722 | 310 | |
| 5 | 경종 | 선의왕후왕비책봉교명 | 이조 | 경종 임인 | 1722 | 312 | |
| 6 | 영조 | 정성왕후왕비책봉교명 | 이의현 | 영조 병오 | 1726 | 313 | |
| 7 | 영조 | 정순왕후왕비책봉교명 | 김양택 | 영조 기묘 | 1759 | 314 | |
| 8 | 정조 | 효의왕후왕비책봉교명 | 황경원 | 정조 무술 | 1778 | 318 | |
| 9 | 순조 | 순원왕후왕비책봉교명 | 이병모 | 순조 임술 | 1802 | 319 | |
| 10 | 헌종 | 효현왕후왕비책봉교명 | 조인영 | 헌종 정유 | 1837 | 320 | |
| 11 | 고종 | 명성왕후왕비책봉교명 | 김병학 | 고종 병인 | 1866 | 321 | |

저위 책봉은 왕세자·왕세제·왕세손 등을 책봉하는 것을 말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과 『종묘등록(宗廟騰錄)』 등을 보면 24건이 전하는데 유물로 전하고 있는 것은 11건이다. 이 중 왕세손 책봉은 5건 중 3점, 왕세제 책봉은 1건 중 1건, 왕세자 책봉은 18건 중 7점이 전한다.

<표> 저위 책봉 교명

| 연번 | 발급 | 명칭 | 제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효종 | 현종봉왕세자교명 | 김익희 | 효종 신묘 | 1651 | 294 | |
| 2 | 숙종 | 경종봉왕세자교명 | 류명천 | 숙종 경오 | 1690 | 295 | |
| 3 | 경종 | 영조봉왕세제교명 | 송상기 | 경종 신축 | 1721 | 296 | 왕세제 |
| 4 | 영조 | 진종봉왕세자교명 | 김재로 | 영조 을사 | 1725 | 297 | |
| 5 | 영조 | 장조봉왕세자교명 | 송인명 | 영조 병진 | 1736 | 298 | |
| 6 | 영조 | 정조봉왕세손교명 | 이천보 | 영조 기묘 | 1759 | 299 | 왕세손 |
| 7 | 정조 | 순조봉왕세자교명 | 홍량호 | 정조 경신 | 1800 | 300 | |
| 8 | 순조 | 문조봉왕세자교명 | 김조순 | 순조 임신 | 1812 | 301 | |
| 9 | 순조 | 헌종봉왕세손교명 | 김이교 | 순조 경인 | 1830 | 302 | 왕세손 |
| 10 | 고종 | 순종봉왕세자교명 | | 고종 을해 | 1875 | 중박 | |

빈궁 책봉은 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 책봉을 말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과 『종묘등록(宗廟騰錄)』 등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14건이 전하는데 유물로 전하고 있는 것은 8건이다. 이 중 왕세손빈 책봉은 1건 중 1점, 왕세제빈 책봉은 1건 중 0건, 왕세자빈 책봉은 9건 중 7점이 전한다.

<표> 빈궁 책봉 교명

| 연번 | 발급 | 명칭 | 제술관 | 간지 | 서기 | 유물번호 | 비고 |
|----|----|-------------|-----|-------|------|------|------|
| 1 | 인조 | 인선왕후봉왕세자빈교명 | 김광옥 | 인조 을유 | 1645 | 304 | |
| 2 | 효종 | 명성왕후봉왕세자빈교명 | 조석윤 | 효종 신묘 | 1651 | 305 | |
| 3 | 현종 | 인경왕후봉왕세자빈교명 | 김수항 | 현종 신해 | 1671 | 306 | |
| 4 | 숙종 | 단의왕후봉왕세자빈교명 | 이여 | 숙종 병자 | 1696 | 309 | |
| 5 | 숙종 | 선의왕후봉왕세자빈교명 | 송상기 | 숙종 무술 | 1718 | 311 | |
| 6 | 영조 | 효순왕후봉왕세자빈교명 | 강현 | 영조 정미 | 1727 | 315 | |
| 7 | 영조 | 헌경왕후봉왕세자빈교명 | 송인명 | 영조 갑자 | 1744 | 316 | |
| 8 | 영조 | 효의왕후봉왕세손빈교명 | 정휘량 | 영조 임오 | 1762 | 317 | 왕세손빈 |

Ⅲ. 공예

1. 어보의 제작과 장인

어보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 상왕(上王),王大妃(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옥이나 금속에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을 말한다. 이러한 어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례』 등의 기록을 통해 491과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331과가 전해지고 있다. 어보는 이것을 담고 싸서 봉안하는 부속물로서 보통(寶筒)과 보록(寶盞) 및 호갑(護匣) 등과 함께 각종 보자기나 끈 등도 함께 제작된 조선왕실공예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보를 제작한 재료는 금, 은, 백철, 옥 등이 있다.

1) 옥인과 옥보

(1) 옥인과 옥보의 종류

조선왕실에서 옥으로 만든 도장은 옥인과 옥보로 구분한다. 옥인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하거나 존호를 올리거나 사후에 시호를 올릴 때 제작한다. 옥보는 왕과 왕비에게만 올릴 수 있는데, 생전의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하여 사용하는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은 왕실 인사의 명칭 및 호칭과 큰 관련이 있다.

| 구분 | 왕세자 | 왕세자빈 | 왕 | | 왕비 | | 후궁 | 비고 |
|----|-----|------|----|----|----|----|-------|----|
| | | | 생전 | 사후 | 생전 | 사후 | | |
| 책봉 | 玉印 | 玉印 | - | - | 金寶 | - | - | |
| 존호 | 玉印 | 玉印 | 玉寶 | 金寶 | 玉寶 | 金寶 | - | |
| 시호 | 玉印 | 玉印 | - | 金寶 | - | 金寶 | 金, 銀印 | |
| 묘호 | - | - | - | 金寶 | - | - | - | |
| 휘호 | - | - | - | - | - | 金寶 | - | |

(2) 옥인의 형식과 체제

국왕이 왕세자나 왕세자빈, 왕세제나 왕세제빈, 왕세손이나 왕세손빈을 책봉할 때 교명과 죽책과 함께 제작하여 내리는 것이 옥인이다. 예컨대 왕세자[빈]를 책봉하

기 위한 책례의식을 거행할 때에도 교명과 죽책 및 옥인의 순서로 들어오고, 책례도감의 도제조 이하가 궁궐의 정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승지가 교명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책봉을 받을 때 승지가 죽책을 읽고 나서 교명과 죽책 및 옥인을 왕세자 등에게 전하여 준다. 이것은 왕세손[빈]이나 왕세제[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왕세자[빈]의 책봉 때 사용된 옥인은 생시에는 동궁에 모시며 행행시 왕세자와 함께 이동하고, 왕세자의 사후에는 魂宮에 모셨다가 別廟[경모궁]에 모시고, 국왕으로 추존되면 종묘에 모셔지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제작한 옥인 중 현존하는 것은 총37과인데, 그중 왕세자책봉과 관련된 옥인은 ‘현종왕세자지인’을 비롯한 9과, 왕세자빈의 옥인은 숙종비 인경왕후의 ‘왕세자빈지인’을 비롯한 6과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옥인의 글자는 왕세자의 것은 ‘왕세자(王世子印)’이라고 전문(篆文)으로 새겼으며, 왕세자빈의 경우 ‘왕세손빈지인(王世孫嬪之印), 왕세손의 경우 ‘왕세손인(王世孫印)’이라고 전문으로 써서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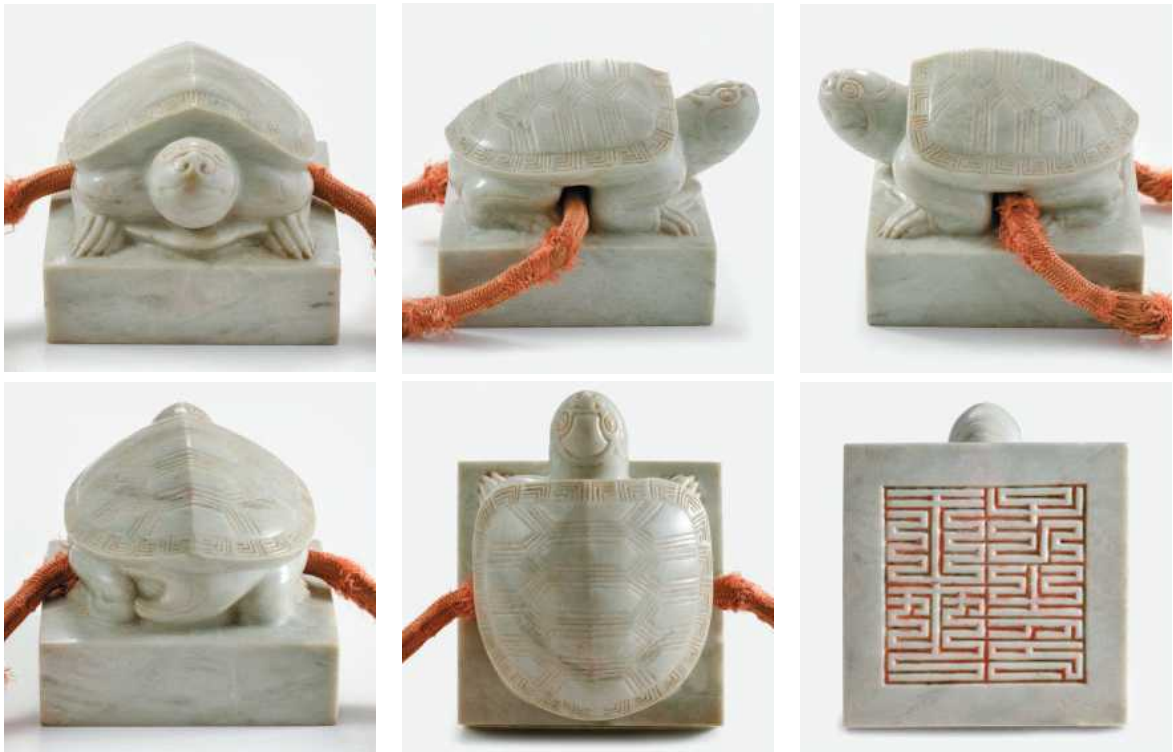
17세기에 玉印은 책례도감 2방에서 관장하였으며, 반드시 見樣에 따라 만들었다. 1621년 책례도감에 의하면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책봉 때에는 대내에 소장하고 있는 옥인을 승정원에 내렸고, 장인들로 하여금 견양에 따라 제작토록 하였다. 1645년 효종 왕세자의 옥인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 있던 옥인을 견양으로서 참고하는데, 당시에는 혼궁도감에 있는 것을 내어 책봉시의 견양으로 삼았다. 1621년 책례도감에서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옥인으로 사용할 옥 재료는 남양의 옥을 선택하였다. 1645년에도 옥인을 만들 재료는 남양옥 1괴이고, 백납 5돈이다.

왕세자 옥인은 전례에 따라 견양대로 제작하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었다. 1645년 효종 왕세자나 1651년 현종 왕세자나 왕세자의 옥인은 모두 예기척을 사용해서 사방 3치 6푼, 두께는 8푼 5리, 거북이의 높이는 2치 1푼, 거북이 손잡이 길이는 1치 1푼이었다.

1648년 인조가 현종 왕세손을 책봉할 때 왕세손의 옥인은 왕세자의 옥인보다 크기를 줄여서 제작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왕세자의 옥인은 사방 3치 6푼이었는데, 왕세손의 것은 거기서 2푼을 감하여 3치 4푼으로 하였다. 왕세자 옥인의 두께는 8푼 5리였고, 왕세손의 것은 5리를 감하여 8푼으로 했다. 왕세자의 거북이의 높이는 2치 1푼이었는데, 왕세손의 것은 여기에서 1푼을 덜어내어 2치로 했다. 거북이 손잡이[龜鈕]의 길이는 1치 1푼에서 1푼을 제하여 1치로 했다. 거북이의 길이는 왕세자의 것이 4치 6푼였는데, 왕세손의 것은 거기에서 2푼을 감한 것이다. 이처럼 왕세손 옥인의 체제는 왕세자 옥인과 체제는 같으나 크기나 규모가 작고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옥인의 印綬는 홍진사로 만든 영자인데 길이 2자, 속감은 홍향사이고, 綬兒는 5치이다. 이것을 쌀 대홍대단 솜보자기는 7치이고, 소는 풀솜을 넣는다. 보자기의

자적초 끈은 길이 2자에 나비 1치이며 포백척이다. 전문을 쓸 서사관용으로 족제비붓 1자루, 진떡 1정, 초주지 1장, 황밀납 1냥 2돈, 탄 10두이다. 인수용으로는 홍진사 2냥 8돈 2푼, 소감으로 홍향사 8돈 2푼, 보자기감으로 다홍대단 2자, 풀솜 8돈, 삭감으로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 께맬 홍진사 4푼이다. 자적초 2자 4치 5푼이고 께맬 남진사를 들었다.



<현종왕세자책봉옥인, 1651, 옥, 비단, 10.3×9.0cm, 2017년 환수>

예를 들어 <현종왕세자책봉옥인>은 1651년 조선 제18대 임금 현종(1641~1674년, 재위 1659~1674년)을 왕세자에 책봉하면서 만든 어보이다.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는 옥으로 만든 옥인과 교명 및 죽책을 함께 제작한다. 이 옥인의 인면에는 ‘왕세자인(王世子印)’의 네 글자를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종어보에는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의 다섯 글자를 구첩진(九疊篆)의 서체로 새겼다. 재질은 남양옥

이고 손잡이는 거북 모양[龜鈕]이며 붉은 다회 매듭끈으로 인수(印綬)를 만들어 걸었다.

| 연도 | 대상 | | 도감 | 옥인 현존 | 전문 서사관 | 옥인전문 보획회원 | 소장번호 | 도감의뢰 |
|------|------|-------|----|----------|-----------|---------------|--------|--------|
| 1645 | 왕세자빈 | 인선왕후 | 책례 | ○ | 金光炫 | - | - | 규13062 |
| 1651 | 왕세자 | 현종 | 책례 | ○ | 呂爾徵 | - | 고박2844 | 규13071 |
| 1667 | 왕세자 | 숙종 | 책례 | ○ | 洪錫龜 | - | 고박27 | 규13076 |
| 1671 | 왕세자빈 | 인경왕후 | 가례 | ○ | 李正英 | - | 고박158 | 규13078 |
| 1690 | 왕세자 | 경종 | 책례 | ○ | 李瑞雨 | - | 고박29 | 규13094 |
| 1706 | 왕세자빈 | 단의왕후 | 가례 | ○ | 崔錫鼎 | - | 고박182 | 규13092 |
| 1718 | 왕세자빈 | 선의왕후 | 책례 | ○ | 閔鎭遠 | - | 고박185 | 규13094 |
| 1721 | 왕세제 | 영조 | 책례 | ○ | 李徵夏 | - | 고박38 | 규13099 |
| 1721 | 왕세제빈 | 정성왕후 | 책례 | ○ | 金濟謙 | - | 고박196 | 규13099 |
| 1725 | 왕세자 | 추존 진종 | 책례 | ○ | 李徵夏 | - | 고박41 | 규13105 |
| 1800 | 왕세자 | 순조 | 책례 | ○ | 金翊休 | 崔昌祐 | 고박69 | 규13122 |
| 1805 | 왕세자 | 추존 문조 | 책례 | ○ | 李肇源 | 吳珣 | 고박85 | 규13130 |
| 1830 | 왕세손 | 헌종 | 책저 | ○ | 李相璜 | 白俊煥, 李邦植 | 고박91 | 규14190 |
| 1875 | 왕세자 | 순종 | 책례 | ○ | 金炳國 | 李景玉, 朴俊永, 崔圭序 | 고박102 | 규13169 |
| 1885 | 왕세자빈 | 순명효황후 | 가례 | ○ | 洪淳穆 | 朴鏞夔 | 고박311 | 규13174 |

(3) 옥보의 재료

옥보는 왕과 왕비의 생전에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하는 것이다. 옥보는 금보와 달리 보신과 보뉴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옥도장들은 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지속해서 제작되었는데, 특히 조선 후기에 왕권이 약해지고 왕손이 귀해져 적장자가 아닌 방계까지 왕위를 잇게 되어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어보를 제작하여 존호를 가상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옥인이나 옥보 유물들을 살펴보면 연옥, 경옥, 사문석옥이 대표적인 옥의 재료들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연옥과 경옥은 주로 장신구에 많이 쓰였고 사문석옥은 옥보와 옥책, 편경, 옥동자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

| | | | |
|------|---|--|---|
| |  |  |  |
| | 연옥(춘천옥) | 경옥(미얀마 비취) | 사문석옥(남양옥) |
| 광물군 | 각섬석[角閃石] | 휘석[輝石] | 사문석[蛇紋石] |
| 화학성분 | (Ca, Na) ₂₋₃ (Mg, Fe, Al) ₅ (Al, Si) ₈ O ₂₂ (OH) ₂ | (Ca, Mg, Fe) ₂ (Si, Al) ₂ O ₆ | Mg ₃ Si ₂ O ₅ (OH) ₄ |
| 모스경도 | 6~6.5 | 6.5~7 | 2.5~5 |

연옥은 각섬석군 광물의 변종으로 경옥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연옥은 경도와 인성(靱性)이 좋은 광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춘천의 것이 유일하다. 경옥은 휘석군 광물의 변종으로 현재는 주로 미얀마에서 채굴되고 있다. 경옥을 옥광물 중 가장 경도가 높아 조탁(彫琢)하는 작업은 연옥이나 사문석옥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문석옥은 사문석군 광물의 한 변종이며 연옥과 경옥에 비해 경도가 낮아서 조탁(彫琢)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신구보다는 예술성이 높은 공예품을 만드는데 주로 쓰인다.

조선 후기 왕실의 옥보는 남양옥으로 제작하되, 금보와 비교하여 문양이 정교하지 않고 비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옥의 무른 특성과 덩어리 크기의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귀뉴의 꼬리를 처리함에 있어 같은 시기에 제작한 금보가 끈게 뺀 것에 비하여 옥보의 꼬리는 몸에 붙여 만들었는데 이는 옥이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옥장들은 같이틀을 사용한 연마방식의 작업과 정질 작업을 같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같이틀을 이용한 연마방식의 옥공작업은 임원경제지 섭용지 ‘옥과 돌 가공’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옥인 서사관

가. 17세기 옥인전문서사관

17세기 옥인에는 玉印 篆文 書寫官을 두었다.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인선왕후를 빈궁으로 책봉할 당시 ‘왕세자인’ 4자의 전문서사관은 병조판서 金光炫(1584~1647)이었고, 예차는 행호군 呂爾徵(1588~1656)이었다. 이들이 전문을 정본과 부분 3분을 서사하여 첫 번째 본을 낙점하였다. 처음 옥인 전문 서사관의 별단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여이징은 옥인전문 서사관의 예차면서 행호군의 위치였는데, 실제 완성된 옥인의 전문서사관은 여이징이고 병조참판으로 직급이 상승되어 있었

다. 여이징은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에는 공조참판으로서 옥인전문서사관 실차였고, 예차는 교서관 정자 洪錫龜(1621~1679)였다. 1667년 숙종의 왕세자 옥인 전문서사관의 예차는 단천군수 洪錫龜였다. ‘왕세자지인’ 5글자나 ‘왕세자인’의 4글자 중 후자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옥인은 실예차가 쓴 3분을 한꺼번에 들여 예람 후 실차가 쓴 정본으로 정하였다. 1671년 왕세자빈 인경왕후를 책봉할 때의 옥인 전문서사관은 李正英(1616~1686), 1690년 왕세자 경종의 책례를 위한 옥인전문서사관은 李瑞雨(1633~1709)였다.

나. 18세기 옥인전문서사관

18세기에 왕세자의 옥인은 ‘王世子印’, 왕세손의 것은 ‘王世孫印’이라는 篆文을 쓰기 위해 玉印 篆文 書寫官을 두었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 1721년 8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옥인을 제작하였다. 8월 24일 옥인 전문서사관 실차와 예차 명단이 있고, 8월 28일의 도감별단에도 명단이 올라 있다. 당시 왕세제의 옥인을 전문서사관은 부호군 李徵夏(1643~1695)였고, 예차는 나주목사 兪命健이었다. 왕세제빈의 옥인을 전문으로 쓴 서사관은 홍문관 부응교 金濟謙(1680~1722)이었고, 예차는 장단부사 趙尙綱(1681~1746)이었다.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 옥인의 전문은 실차로는 행호군 李徵夏와 예차인 홍문관 부교리 洪鉉輔(1680~1740)가 각각 3분씩 쓴 것을 모두 대내에 들여 어람하였다. 그런 다음 실차인 이정하기 쓴 정본을 사용하여 옥인에 새기도록 했다. 1736년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는 2월 3일 옥인전문서사관으로 실차는 행사직 兪拓基(1691~1767), 예차는 낙풍군 李茂(1355~1409)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왕세손인’의 옥인 전문서사관은 실차는 행호조판서 洪鳳漢(1713~1778), 예차는 행부사직 尹東暹(1710~1795)이었다. 왕세자나 왕세손 및 왕세제 등의 옥인에 사용할 篆文은 옥인 전문서사관 실차와 예차가 각각 3분씩을 쓰도록 준비하였다. 예컨대 1721년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옥인에 사용할 실차였던 호군 이정하나 예차인 나주목사 유명건 및 장단부사 조상경 등이 3분을 썼다. 1736년 영조가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도 옥인전문서사관의 실차인 전 황해감사 兪拓基로 정하였고, 예차는 洛豐君 李楸가 각각 3분씩 썼고 실차에게 정본과 부분 3부를 쓰는 일을 모두 맡기도록 했다.

다. 19세기 옥인 전문서사관과 화원

19세기에 왕세자의 옥인은 ‘王世子印’, 왕세손의 것은 ‘王世孫印’이라는 篆文을 쓰기 위해 玉印 篆文 書寫官을 두었다.

1800년 정조가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옥인 전문서사관의 실차는 행대호군 金翊休(1724~1802)와 예차는 승정원 행도승지 閔台懋(1746~1806)이었다. 1805년

효명세자[후일 추존 익종]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 옥인 전문 서사관의 실차는 형조판서 李肇源(1758~1832), 예차는 한성부 판윤 李相璜(1763~1841)이었다.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 옥인 전문 서사관의 실차는 판중추부사 李相璜, 예차는 동지돈녕부사 趙寅永(1782~1850)이었으나 탈이 있어 실차에 부표를 붙여 바꾸고 예차를 실차로 승격시켰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책례도감에서 옥인전문 서사관은 우의정 金炳國(1825~1905)이고, 예차는 대호군 金輔鉉(1826~1882)이었다. 이중 실차인 우의정 金炳國이 正本과 副本을 서사하여 대내에 올렸고, 어람 후 정본으로 새기게 하였다. 그로부터 옥인을 20일 동안 새겨서 길일로 정한 날짜에 옥인의 印出本을 장첩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한편 19세기 도감에는 옥인 전문 서사관이 글로 쓰고 나면 화원 중에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을 두었다. 1800년 순조 왕세자를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崔昌祐였고, 1812년 효명 왕세자를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吳珣과 李命儒였으며, 1830년 헌종 왕세손을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白俊煥과 李邦植이며, 1875년 순종 왕세자를 책봉하는 옥인전문 보획화원은 李景玉과 朴俊永이었다. 1800년에는 1명이었는데, 1812년과 1830년 및 1875년에는 화원 2명으로 늘었다.



<헌종 옥인>, 1651, 옥석, 전체 높이 9.0cm, 국립고궁박물관

<숙종비 인경왕후 옥인>, 1671, 옥석, 전체 높이 8.1cm, 국립고궁박물관

<경종비 단의왕후 세자빈 옥인>, 1690, 옥석, 전체 높이 9.1cm, 국립고궁박물관

(5) 17세기 옥인의 제작 장인

17세기에 옥인을 제작하는 장인의 경우 옥을 채취하고 잘라낸 옥으로 조각을 하는 옥장을 비롯하여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각자장, 옥장과 각수 등의 도구를 버리는 도자장, 그리고 천혈장이 옥인에 뚫린 구멍에 걸 인수를 제작하는 다회장이 중심이 된다. 그와 함께 완성된 옥인은 인통에 넣고, 인주는 같은 크기와 형태의 주통에 넣으며, 이것들은 각각 인록과 주록에 담으며, 다시 호갑에 넣게 된다. 도감 2방의 장인들은 이와 같이 옥인과 인통, 주통, 인록, 주록, 호갑을 만들 때 동원되는 장인들의 장색과 그 종별이다. 17세기 옥인을 제작하기 위한 장인들의 종별은 1648년 왕세손인 현종의 것을 제작할 때 17종인 이외에는 평균 22종의 장색이 동원되는 것이 공통되었다.

<표> 17세기 책례도감 2방의 장인 종별과 종수

| 연대 | 대상 | 책봉 | 도감 | 2방 장인의 종별 | 종수 | 소장번호 |
|------|-----------|-----------|----|---|----|--------|
| 1645 | 효종 인선후 | 세자 세자빈 | 책례 | 옥장, 인통장, 주통장, 이지장, 마경장, 시소장, 호갑장, 입사장, 다회장, 담편장, 야장, 주장, 소목장, 침장, 두석장, 피장, 권로장, 유장, 은장, 동장, 소로장, 각자장, 도자장, 배첩장 | 24 | 규13062 |
| 1648 | 현종 | 왕세손 | 책례 | 옥장, 소로장, 인통장, 소목장, 마경장, 시장, 이지장, 호갑장, 입사장, 담편장, 야장, 주장, 안자장, 칠장, 다회장, 각자장, 도자장 | 17 | 규13067 |
| 1651 | 현종 | 왕세자 | 책례 | 옥장, 각자장, 도자장, 다회장, 담편장, 호갑장, 두석장, 마경장, 인통장, 이지장, 소목장, 호갑장, 칠장, 숙피장, 은장, 피장, 각자장, 소로장, 입사장, 천혈장, 야장, 주장, 다회장, 안자장, 시장, 침선비 | 26 | 규13069 |
| 1667 | 숙종 | 왕세자 | 책례 | 옥장, 인통장, 이지장, 시장, 두석장, 호갑장, 은장, 입사장, 다회장, 주장, 야장, 소목장, 안자장, 마경장, 담편장, 천혈장, 각자장, 병풍장, 소로장, 도자장, 피장, 침선비, 쇄약장 | 23 | 규13076 |
| 1690 | 경종 | 왕세자 | 책례 | 화원, 옥장, 두석장, 마경장, 도자장, 시장, 호갑장, 다회장, 이지장, 소목장, 담편장, 천혈장, 소로장, 각수, 야장, 은장, 안자장, 침선비, 입사장, 주장, 칠장, 병풍장, 관자장 | 23 | 규13091 |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는 1631년(인조 9) 봉림대군(효종)과 혼인하여 풍안부부인(豊安府夫人)에 봉해졌고, 1646년(인조 24) 3월 소현세자빈이 사사(賜死)된 후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는 1651년(효종 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는 1696년(숙종 2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경종이 즉위하기 전 사망하였다.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왕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사망하자 그 해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이렇게 왕세자나 왕세자빈을 책봉하면서 제작한 옥인은 책례도감의 2방에서 제작하였다. 17세기 옥인을 제작하는 장색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은 1690년 경종 왕세자를 책봉할 때 화원을 처음으로 분속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옥인을 제작할 때 화원의 기화를 토대로 제작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옥인을 만들 재료는 옥규나 패옥 등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국내산 옥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옥대에 사용하는 眞玉의 경우 본래 국내산이 아니어서 중국

으로부터 부득이 무역을 해서 사용하였다. 남양의 옥이 다른 곳보다 좋다고 하므로 여기에서 좋은 것을 골라 사용토록 하였고, 병자호란이 끝난 당시에 중국에서 옥대용 옥을 수입하기 어려워 부득이 상의원에 소재한 것을 사용토록 하였다.

<표> 17세기 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다회장 명단

| 연대 | 대상 | 유물번호 | 도감 | 玉匠 | 刻字匠/玉印刻手 | 刀子匠 | 다회장 | 소장번호 |
|-------|-----|-------|------|----------|----------|----------|----------|--------|
| 1645 | 효종 | - | 왕세자 | 金莫男 등 4명 | 李忠民 등 2명 | 金卜立 | 金太卜 등 3명 | 규13062 |
| 1648 | 현종 | - | 왕세손 | 金莫男 | 吳有進 | 崔黃男 | 金太福 등 2명 | 규13067 |
| 1651* | 현종 | 환수 | 왕세자 | 金莫男 등 2명 | 李忠民 등 2명 | 裒業 등 2명 | 朴應男 등 4명 | 규13069 |
| 1667* | 숙종 | 어보27 | 왕세자 | 金莫男 등 2명 | 李琇一 등 5명 | 盧信男 등 3명 | 朴戒男 등 2명 | 규13076 |
| 1671* | 인경후 | 어보158 | 왕세자빈 | 金莫男 등 2명 | 崔萬元 등 2명 | 朴松立 등 2명 | 李孝賢 등 4명 | 규13078 |
| 1690* | 경종 | 어보29 | 왕세자 | 李以珍 등 2명 | 李守命 등 4명 | 池硯石 등 2명 | 朴起善 등 2명 | 규13091 |
| 1696* | 단의후 | 어보182 | 왕세자빈 | 李喬致 | 李五龍 등 3명 | 金業山 | 朴見善 | 규13092 |

가. 17세기 옥장

옥인을 제작하기 위해 옥장은 옥의 산지인 남양으로 가서 옥을 캐오거나 호조 등에 소장된 옥을 잘라서 옥인에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옥장이 옥을 마련하면 옥인서사관의 글씨를 토대로 각자장이 印面의 글씨를 새기고 도자장은 옥장과 각자장이 사용하는 도구를 버리는 일을 해주고, 옥인이 완성되면 거북 몸체 아래쪽에 뚫린 구멍으로 다회장이 만든 인수를 걸게 된다.

1645년을 예로 들면 당시 옥인에 사용할 옥은 마땅히 남양에 도감의 감조관 1명이 옥장과 석수 각각 1명을 보내어 채취토록 하였다. 이렇게 채취한 남양옥을 옥장이 무치거로 자르고 마정한 후 색을 보았더니 정결하지 못하고 옥에 티[瑕]가 너무 많았다. 이에 백색에 티가 적었던 파주옥을 채취하는 방안을 의논했으나 파주옥은 성질이 단단하지 못하여 다시 남양옥을 택하여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남양과 파주 두 곳의 옥 중 남양에서 옥을 20여 괴를 채취했으나 모두 적합하지 못하여 다시 감조관과 옥장 및 석수 등이 가서 정밀한 것을 골라 채취하기로 했다. 당시 책 봉시 옥인을 조성할 옥석을 채취하는 데 서울에서는 옥장과 석수가 각각 1명씩 내려갔는데 이들만으로는 작업하기 어려워 채취할 때에는 경기도 내 금천의 석수 金金伊, 안산의 석수 崔鐵水, 金破回, 수원의 석수 李巨勿里, 任生 등을 해당 지역 관리와 색리들에게 영을 내려 남양옥을 채취하는 데 부역토록 하였다.

양란 이후 1645년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옥인을 제작해야 하는데, 옥인을 조작할 수 있는 장인이 서울에는 옥장은 金莫男 1명 뿐이었다. 더욱이 채취한 옥석은 절단하기 어려운데 명주실을 끌어당겨[引纜] 9일간 작업을 해도 쓸만한 것이 없었다. 김막남이 밤낮으로 상의원과 도감을 오가며 작업하기도 어려워 남포의 옥장을 속히 올려 보내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평안도와 공청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성천의 옥장 黃金奉 등을 비롯한 2명, 충청도 남포의 옥장 崔壽卜, 金玄龍 등을 긴급히 보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경거옥장인 김막남이 옥인을 만들 때 옥장 중 우두머리로서 남포와 성천에 거주하는 외방옥장을 이끄는 체제였다.

김막남은 1639년 인조왕 장렬왕후의 국혼 때부터 서울에 거주하여[京居] 활동하면서 1683년까지 44년간 수많은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644년 녹훈도감에서 옥역을 했다. 1645년 효종 왕세자 책례도감과 소현세자 예장도감 및 1649년 인조의 국장이나 현종 왕세손을 책봉하는 도감에도 옥장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조의 국장 때에는 3방에서는 옥책을 만들기 위해 경옥장으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향옥장들을 거느리고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0년 경종의 왕세자를 책봉할 때 옥인을 만들 때 옥장 李以珍은 李眞이나 李珍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국혼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13년 숙종 존숭도감까지 32년간 옥장이었고, 특히 상의원 소속 관옥장으로 서 존호존숭도감 등에서 옥인을 제작하는데 장기를 보인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대표적인 옥장이었다. 그는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수개하는 도감에서는 1방에서 옥인을 제작하는 제작처에서 상의원에 소속 관옥장으로 내수사 소속의 옥장 金始贊과 함께 활동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상의원 소속의 이이진은 내수사 소속의 김시찬과 협업한 도감은 1688년 책보도감 이후 1690년 경종 왕세자 책례도감 2방, 1690년 장희빈의 중궁 책례도감 3방, 1691년 장렬왕후 부묘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하는데 장기를 보였다.

나. 17세기 각자장

1645년 옥장 김막남이 남양의 옥석들을 가려 그나마 괜찮은 것을 가려내어 刻印匠 李忠民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충민은 막중한 옥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옥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파주의 옥을 시험 삼아 절단하고 품질을 본 다음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충민을 각수가 아닌 각인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옥보나 옥인을 새기는 장인을 각수보다는 각자장이나 각인장, 옥인각수, 옥각수, 보전각장 등으로 부르는 경향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17세기 책례도감에서 활동한 각자장 중 이른 시기의 장인이 李忠民(敏)과 吳有進(璉)이다. 이중 이충민의 경우 1627년 원종의 예장 때부터 국역을 졌는데, 이후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 국역에 징발되지 않았다가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도감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수 중 우두머리였는데, 같은 효종 왕세자의 책례도감 때 각자장의 우두머리로 등장한다. 즉 같은 해에도 흥례 때에는 각수로, 가례 때에는 각자장으로 부르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후에도 1649년 현종 왕세손의 책례도감에서는 각자장, 1651년 현종 왕세자의 책례도감과 인선왕후의 존숭도감에서는 옥각자장, 인선왕후의 존숭도감에는 옥각자장 및 1652년 현종과 명성왕후의 가례도감

에는 각자장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반면 이충민이 국장도감에 동원될 때에는 1627년 원종의 예장, 1649년 인조의 국장, 1659년 효종의 국장 때에는 각수로 불렸다. 각자장 吳有進의 경우 1635년 인조의 실록을 편찬할 때부터 국역을 졌다. 그 또한 가례 때에는 각자장으로 1635년부터 1670년까지 35년간 책봉이나 국혼 등 가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자장이나 옥각수로, 국장 등 흥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주로 불렸다. 예컨대 1645년 효종의 왕세자를 책봉하거나 1649년 현종의 왕세손 책봉을 위한 책례도감에서는 옥인을 제작하는 각자장이나 옥각자장 및 옥각수로, 1651년 인선왕후의 중궁전 책봉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옥책각수로 불렸다. 반면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이나 1649년 인조의 국장 등 흥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불렸다. 이처럼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것과 같이 세밀한 글자를 새기는 경우 각자장이나 ‘옥’자를 넣은 옥각수 등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옥책 등을 제작할 때에는 각수로 장색을 달리 구분하여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1667년 숙종 왕세자 책례도감 때 활동하는 각자장 李秀(守)一과 李惟一은 형제 각수로서 1674년 인선왕후의 국장, 1675년 현종의 국장, 1681년 인경왕후의 국장 및 1684년 명성왕후의 국장 때 함께 활동하였다. 특히 각수 李秀一은 1651년부터 1677년까지 26년간 12회 동안 도감에 동원되었으며, 李惟一은 1651년부터 12번의 도감에 동시에 참여하여 1696년까지 8차례의 도감에 더 참여하여 총 20회의 도감에서 45년간 활동하였다.

1681년 숙종과 인현후의 가례 때 각수가 사용한 도구를 보면 망석 2넙, 평자 1개 들인 백목 3자, 양판 2넙, 풀솜 7돈, 감개용 노루가죽 1령, 새김칼 30개, 수건베 6자, 걸쇠 2, 솜보자기 1, 면화 3냥이다. 당시 입사장의 것은 황밀 4냥, 중술 1개, 방구리 1, 연일 솥돌 1, 중간 솥돌 1개 수건베 1자, 양판 1넙, 곡초 2속이었다.

다. 17세기 도자장

남양에서 옥장과 석수들이 옥석을 채취할 때 사용한 도구는 곡갱이 10개, 비김쇠 100개, 소뿔동이 10개, 중뿔동이 3개, 숙마 3근, 중비지네쇠 3개, 한망치 10개 등이었다. 이것을 들인 상설아문으로서 호조와 선공감에서 철물을 주었고, 말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병조였다. 도자장은 이것들을 버리는 일을 해준다. 1645년 도자장은 金卜立이고, 최황남, 배업, 김명, 문득기 등이 있다.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도자장으로 활동했던 裴業의 경우 1649년 인조의 국장 때부터 1652년 현종과 명성왕후의 국혼까지 3년간 국역을 졌다. 도자장 金命의 경우 1649년부터 1667년까지 18년간 9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배업이 하나의 도감에서 여러 각방에서 모든 도구를 버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김명의 경우 책례도감이나 존숭도감 및 가례도감이나 국장도감에서 주로 2방에서 각수의 도구를 버리는 역할을 했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 도자장

중 文得己의 경우 1659년부터 1684년까지 25년간 15곳의 도감에서 도자장으로 서 국역을 졌던 17세기를 대표하는 도자장이었다.

라. 17세기 印綬를 제작하는 다회장

책례도감에서 옥인의 인수를 제작하는 다회장은 金太卜(福), 朴應男, 黃竹 등이었다. 그들 다회장이 옥인의 인수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는 수건베 2자와 중간 꺾짜 1부, 파유둔 4장을 부친 것 1부, 그리고 무엇보다 실을 감아서 굵게 만드는 雙絲機 1좌를 들인 것이다.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국혼 때 다회장은 실을 정련하는 鍊絲機와 굵게 만드는 쌍사기를 준비하였던 점이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와 1691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에도 쌍사기 1좌가 기본이 되면서 그밖에 수건베나 꺾짜 및 파유둔을 마련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회장 김태복의 경우 1644년 녹훈도감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여, 1671년 숙종과 인경왕후의 왕세자 가례 때까지 활동한다. 17세기 중후반기 27년간 15곳의 도감에서 거의 대부분 다회장 중 가장 앞자리에 기록되어 다회장의 우두머리로서 옥인이나 금보 및 옥보 등 어보의 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1645년 효종 왕세자와 세자빈을 책봉할 때부터 다회장 김태복과 朴應男은 1652년까지 서로 같은 도감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한편 박응남과 朴戒(繼)男과 형제 다회장으로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부터 1661년까지 10년간 거의 모든 도감에서 박응남을 우두머리 삼아 형제 다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당시 그들 형제 이외에도 박충남까지 ‘男’자 돌림의 형제인 것이 확인된다.



<의인왕후존호옥보 보수, 1604>



<인목왕후존호옥보 보수, 1604>

(6) 18세기 옥인의 제작 장인

18세기 책레도감 2방에는 화원을 비롯하여 옥장과 전문을 새기는 각수 및 도자장과 인수를 만드는 다회장, 인통을 만드는 인통장과 호갑을 제작하는 호갑 등이 활동하였다. 당시 도감에는 왕세제의 책봉 때 32장색과 진종 때의 34장색으로 그 종별이 많았으며, 사도세자의 책봉 때 26명으로 줄었다가 1757년 정조 왕세손을 책봉할 때 29명이었다. 대체로 30종의 장색들이 동원되어 17세기에 22종이었던 것에 비해 장색의 종별이 증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제작이 가능하여 품질도 좋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조왕세제옥인>, 1721,
옥석, 전체 높이 8.8cm,
국립고궁박물관

<진종 왕세자옥인>, 1725,
옥석, 전체 높이 8.5cm,
국립고궁박물관

<정조 옥인>, 1759,
옥석, 전체 높이 10.0cm,
국립고궁박물관

18세기 옥인의 제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735년 효장세자빈인 현빈 조씨를 추송하여 빈궁의 작호를 내리고, 호조에 소장된 옥이 없어 은인을 만들면 어떨지 의논하다가 옥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옥인조성도감을 둔 것이다. 도감의 당상은 행공조판서 尹淳과 행예조판서 金取魯 등을 책임자로 두었다. 당시 옥인을 제작할 재료는 호조에 그동안 수급한 옥 재료가 다수 있어 그 옥을 가져다가 살펴보고 품질이 좋은 재질을 골라 옥인을 제작토록 하였다. 당시 옥인전문 서사관은 형조 참판 趙顯命이 정본과 부본을 모두 써서 왕세자가 예람하였고 정본으로 새기도록 하였다. 1735년 4월 20일 현빈의 옥인을 완성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옥인을 재적한 첨사 최천약에게 궁시를 상으로 주었다. 그로부터 1달 뒤 현빈의 옥인을 조성한 내용을 기록한 『옥인조성의궤』를 완성하여 의정부, 예조, 춘추관, 강호부에

나누어 보냈다.

<표> 18세기 도감 2방의 장인 종별과 종수

| 연대 | 대상 | 책봉 | 도감 | 2방 장인의 종별 | 종수 | 소장번호 |
|------|----|-----|----|--|----|--------|
| 1721 | 영조 | 왕세제 | 책례 | 화원, 옥장, 인통장, 소로장, 이지장, 시장, 두석장, 유장, 권로장, 대은장, 동장, 소목장, 다회장, 호갑장, 봉조장, 칠장, 동해장, 마경장, 쇠약장, 야장, 주장, 입사장, 천혈장, 침선비, 담편장, 과록장, 옥인각수, 도자장, 판자장, 섭장, 박배장, 병풍장 | 32 | 규13099 |
| 1725 | 진종 | 왕세자 | 책례 | 화원, 옥장, 각수, 도자장, 소목장, 두석장, 대은장, 동장, 소로장, 유장, 동해장, 권로장, 칠장, 호갑장, 봉조장, 다회장, 침선비, 이지장, 시장, 마경장, 야장, 주장, 쇠약장, 천혈장, 마조장, 담편장, 과록장, 섭장, 조각장, 판자장, 입사장, 병풍장, 대인거, 소인거 | 34 | 규14909 |
| 1736 | 사도 | 왕세자 | 책례 | 화원, 옥장, 두석장, 마경장, 도자장, 시장, 호갑장, 다회장, 소목장, 각수, 칠장, 소로장, 이지장, 조각장, 은장, 쇠약장, 야장, 천혈장, 판자장, 과록장, 담편장, 봉조장, 입사장, 병풍장, 안자장, 침선비 | 26 | 규13108 |
| 1759 | 정조 | 왕세손 | 책례 | 화원, 각수, 소목장, 소로장, 시장, 쇠약장, 마경장, 인통장, 두석장, 천혈장, 호갑장, 과록장, 담편장, 다회장, 병풍장, 칠장, 은장, 옥장, 도자장, 봉조장, 야장, 주장, 납장, 박배장, 침선비, 급수군, 마정군, 숙정군, 지거 | 29 | 규13113 |

가. 18세기 옥장

옥인을 새기는 작업은 옥인의 전문을 써서 내리면 7-8일 정도면 가능하였다. 1721년의 경우 9월 15일에 옥인의 전문을 쓴 지 9월 23일에 벌써 다 새겼다. 이에 궐내에 옥인을 들여서 ‘시명지보’를 찍는 것을 시행하였다. 한편 옥책을 제작함에 있어서 18세기 후반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는 옥책을 만들 때 옥장과 각수 및 도자장 뿐 아니라 사자관과 화원들까지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옥책의 품질이나 제작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표> 18세기 책례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다회장 명단

| 연대 | 대상 | 도감 | 현존 | 각방 | 玉匠 | 玉印刻手 | 刀子匠 | 다회장 | 소장번호 |
|------|------|------|-------|----|----------|----------|----------|----------|--------|
| 1721 | 영조* | 왕세제 | 어보38 | 2방 | 金太徵 등 4명 | 金海宗 등 4명 | 朴廷旭 등 2명 | 文士立 등 3명 | 규13099 |
| | 정성후* | 왕세제빈 | 어보196 | | | | | | |
| 1725 | 효장* | 왕세자 | 어보41 | 2방 | 金太徵 등 2명 | 韓業相 등 2명 | 朴從 | 吳太奉 등 2명 | 규14909 |
| 1736 | 사도* | 왕세자 | 어보48 | 2방 | 李汝鳳 등 3명 | 韓業相 등 2명 | 朴吉同 등 2명 | 趙丁贊 등 2명 | 규13108 |
| 1759 | 정조* | 왕세손 | 어보57 | 2방 | 李汝鳳 등 4명 | 李良弼 등 2명 | 金鳳翼 등 2명 | 劉恸江 등 3명 | 규13113 |
| 1784 | 문효* | 왕세자 | 어보341 | 2방 | 朴枝興 등 4명 | 元命長 | 姜世興 | 姜世興 | 규13200 |

18세기 옥인의 제작은 책례도감의 2방이 제작처이며, 이곳에서 옥인을 제작하는 핵심 장색은 옥장, 옥인각수, 도자장 및 다회장이다. 1721년에는 옥인 2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옥장도 4명, 각수도 4명이었고, 도자장 2명과 다회장 3명이었다. 1725년 진종 왕세자의 옥인 1과를 만들 때에는 그보다 인원수가 반으로 줄어 옥장 2명,

각수 2명, 도자장 1명, 다회장 2명이었다. 그러나 1736년 사도 세자의 옥인을 제작할 때에는 옥장의 인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나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에도 옥장이 4명으로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각수나 도자장 및 다회장의 숫자는 규례를 따르고 있었다.

18세기에 옥인을 조각하는 일을 감독한 간역이 도감역이 끝나고 상을 받았다. 예컨대 1719년 경종 세자와 선의후의 가례 때에 옥인을 새기는 일에는 李景夏가 간역으로서 도감역이 끝나고 3등상을 받았다. 더욱이 옥인을 제작할 때 조각에 일가견을 가졌던 崔天若이나 卞爾珍의 존재가 눈에 띈다. 1721년 당시 한량 崔天若이 옥인을 조각하였고, 그는 본래부터 조각에 뛰어난 솜씨를 지닌 것으로 이름이나 여러 도감에서 조각을 할 때 전담하였다.

옥인을 제작하려면 玉塊를 남양 등지에서 캐오거나 호조 등지에 소장한 것을 사용한다. 이것은 옥장이 옥을 갈 때에는 단단한 錠玉沙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옥인 1과를 만들려면 정옥사 3말과 小爐匠이 사용하는 白土 1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례에 따라 생산되는 지역에서 북정하여 마련하였다. 다만 1721년에는 호조에서 보관하고 있던 玉塊를 가져다 제작하였다. 당시 옥괴는 남양옥 2괴이고, 白蠟 1냥이 들어갔다. 특히 옥인에 필요한 중국사 정옥사를 수입하기도 했는데, 중국제 정옥사 1되는 4냥을 호조에서 지불하였다.

옥인의 규모를 보면 옥인은 사방 3치 7푼 5리, 끈[紘]은 6푼, 높이 1치 2푼, 귀龜의 높이 2치 2푼, 몸체의 길이 3치 1푼, 머리 길이 1치 8푼,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 5치이다. 따라서 왕세제인과 왕세제빈의 옥인은 사방 크기가 3치 7푼 5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도세자의 경우 여러 점의 옥인이 존재한다. 1736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옥인의 재료는 靑玉이고, 龜鈕이다. 길이와 너비 및 꼭지를 합친 높이는 3치 5푼이고, 귀두의 길이는 1치 5푼이다. 1762년 사도세자에게 시호를 올리고 제작한 옥인[贈諡玉印]은 청옥이고 귀뉴가 있다. 길이와 너비는 3치 6푼이고 꼭지를 합한 높이는 3치 3푼이며, 귀두의 길이는 1치 5푼이다. 1776년 정조의 즉위 이후 1788년 가상존호(加上尊號)를 올리면서 제작한 옥인은 길이와 너비는 3치 7푼이고, 귀뉴를 합한 높이는 4치 5푼이며, 귀두의 길이는 1치 7푼이다.

18세기 초의 옥장들은 이전 시기와 다르게 내수사에 소속된 옥장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사장들과 함께 작업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예컨대 1719년 옥인을 새긴 각수는 훈련도감 소속의 한업상이 차출되었으며 사장인 金海宗, 金承昌, 文德化이 옥인의 각수였다. 도자장의 경우 사장인 朴廷旭, 朴廷彬이 참여하였고, 조각장 李命이나 섭장 또한 사장인 元道亨, 車重太, 李二疇, 朴排匠으로 훈련도감 소속의 李次江과 금위영 소속의 金世萬이 참여하였다.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인 관자장 崔碩起 또한 옥을 다루는 일을 잘 알고 있어서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1721년과 1725년에 옥장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金太(泰)徵은 1718년 소현세자와 강빈을 복위하면서 시호를 올릴 때 시호 옥인,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때 1방에서 옥보, 1721년 책례도감에도 내수사의 관옥장이었다. 1726년 경종과 단의왕후를 부묘할 때,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는 상의원 소속이었다. 옥장 김태징이 1718년부터 1740년까지 22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질 때 내수사나 상의원 소속의 관옥장으로서 18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관장이었던 옥장이었다.

1736년과 1759년의 책례 때 옥장 중 우두머리였던 李汝鳳(奉)은 1721년부터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의 도감까지 38년간 17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지면서 옥장 중 우두머리로서 1등상을 받은 17세기 중기를 대표하는 옥장이면서 사옥장을 대표한다.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에 옥장으로 활동한 옥장 朴枝興의 경우 1776년 영조의 국장 때 19명의 옥장 중 8번째에 해당되었다가 이후 1784년까지 8년간 활동하였을 뿐이다.

나. 18세기 각수

18세기 국왕이나 왕후의 금보를 제작하는 장인을 보전각장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하여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장인은 옥인각수라고 불렸다. 옥장과 각수가 옥을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는 刻釘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 또한 전례를 참고하여 1721년에는 각정 13개를 만들었다.

18세기의 옥인각수는 1721년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옥인 2과의 전문을 새길 때에는 4명이었고, 일반적으로 옥인 1과를 새길 때에는 각수 2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1784년 문효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만 1명이었다. 18세기 초에는 金海宗을 비롯하여, 韓業相, 李良弼, 元命長이 우두머리였다. 그중 전해종은 1718년부터 1731년까지 각수로 활동하였는데, 사적 생산에 종사하던 사각수였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韓業相(尙)의 경우 1702년 숙종의 국장도감 때 옥각수였다.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때와 1721년 훈련도감의 玉印刻手로 불렸다. 이처럼 각수 한업상의 경우 1702년부터 1736년까지 34년간 20곳의 18세기 초 옥책이나 옥인을 제작하던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영 각수로서 옥인각수로도 불렸다.

각수 李良弼의 경우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도감의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하였는데 1751년부터 1787년까지 27년간 여러 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교서관의 관각수인데, 오랫동안 활동하면서도 중간 정도의 실력으로 평범하게 각수의 역할을 했다.

각수 元命長은 1756년부터 1787년까지 31년간 16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는데, 처음 입문한지 20여년이 지나 1778년부터 1783년까지 각수로 성장하여 18세기 말에 옥보나 옥인을 새기는 옥각수를 대표하며, 그의 뛰어난 그의 솜씨는 그보다 20년 정도 다음 세대 옥각수인 金德麗(禮)가 이어져 19세기 초까지 전해졌다.

다. 18세기 도자장

도자장은 책레도감 2방에서 옥장과 각수의 도구를 베틀는 일을 하였다. 옥인의 印綬를 제작하는 다회장이 사용하는 도구는 18세기에도 대부분 변화가 없다. 1706년 경종과 단의왕후의 국혼 때 다회장은 실을 정련하는 연사기와 굵게 만드는 쌍사기 및 공석과 껌작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1718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1721년 영조와 정성왕후를 왕세제와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나 1744년 사도세자와 헌경혜빈이 혼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 연대 | 대상 | 도감 | 각방 | 도감 2방 옥인 제작 도자장 | 도감 2방 옥인 제작 다회장 | 소장번호 |
|------|----|-----|----|-----------------|-------------------------|--------|
| 1721 | 영조 | 왕세제 | 2방 | 朴廷旭, 朴廷彬(私匠) | 文士立(尙方), 吳太奉, 金命(以上 訓局) | 규13099 |
| 1725 | 진종 | 왕세자 | 2방 | 朴從先(訓局) | 吳太奉(訓局), 李墨巨(私匠) | 규14909 |
| 1736 | 사도 | 왕세자 | 2방 | 朴吉同, 嚴成貴(以上 尙方) | 趙丁贊(尙方), 姜遇泰(訓局) | 규13108 |
| 1759 | 정조 | 왕세손 | 2방 | 金鳳翼, 李德起 | 劉恸江, 梁聖起, 林遇春 | 규13113 |
| 1784 | 문효 | 왕세자 | 2방 | 姜世興 | 姜興喆 | 규13200 |

18세기의 도자장으로는 朴廷旭, 朴廷彬 형제가 있고, 朴從先, 朴吉同, 金鳳翼, 姜世興 등이 있다. 박종선은 1702년에 처음 기록에 등장하여, 그로부터 18년 뒤에는 훈련도감의 장인이었고, 1725년 진종 왕세자를 책봉할 때 책레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할 때 옥장과 각수의 도구를 베틀는 일을 했다. 당시 도감 3방 전설소에 소속된 도자장들은 구성이 복잡하여 훈련도감에서 3명, 상의원에서 2명, 사장 4명이 활동하였다. 도자장 박종선은 1702년부터 1740년까지 40년간 18세기 초 도자장으로서 옥인이나 옥보 및 각종 석물을 제작하는 옥장이나 석수 및 각수 등의 도구를 베틀는 역할을 하였다.

刀子匠 朴吉同은 1732년 인조의 장릉을 천릉할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때 옥인을 제작하는 2방이나 1740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옥보를 제작하는 2방에서는 상의원 소속의 도자장으로 차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1744년 사도세자와 혜빈의 국혼 때에는 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어 신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752년까지 20년간 5곳의 도감에서 징발되었으며, 처음에는 상의원의 관공장이었다가 사장으로 직역이 바뀌며 국역을 졌던 장인이었다.

도자장 金鳳翼(益)의 경우 1748년 진전을 중수할 때부터 상의원 소속의 관장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여 1770년까지 22년간 활동하였던 18세기 중후반기의 대표적인 도자장으로 활동 초기에는 상의원이나 공조 등 상설아문에 소속된 관공장이었음이 병기되었다.

라. 18세기 다회장

18세기에 옥인을 제작하던 다회장으로는 文士立를 비롯하여 吳太奉, 趙丁贊, 劉濬江, 姜興喆 등이 있다. 이중 문사립의 경우 1721년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옥인을 제작하는 책례도감의 2방에서 옥인에 매달 印綬를 제작한 이후 1727년 진종과 효순왕후의 가례 때까지 8년간 국역을 졌는데, 모든 도감에서 상의원 소속임을 병기하여 17세기 초에 다회장 중 관공장이었다.



<숙종존호옥보 보수, 1713> <인현왕후존호옥보 보수, 1722> <인원왕후존호옥보 보수, 1751>

다회장 吳太奉의 경우 문사립보다 앞선 1718년 단의빈의 사후 예장도감부터 국역을 지기 시작하여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1721년 숙종의 국장, 1725년 진종의 세자 책봉시 책례도감 2방에서 옥인의 인수를 제작할 때에는 훈련도감 소속 군영의 장인,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 때, 1739년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까지 21년간 훈련도감 소속의 장인으로서 활동하였다.

다회장 劉濬江은 1729년 녹훈도감의 직조색 및 교서색에 차출되어 이후 1731년 국장 때 이후 1735년 어진을 모사할 때, 1739년과 1740년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 1744년 사도세자와 혜빈의 혼례 때,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1762년 정조와 효의왕후의 혼례 때 2방에서 인수를 제작할 때에도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이었다. 이처럼 그는 1729년부터 1762년까지 33년간 국역을 졌는데, 상의원 소속의 관영공장이었다. 그는 다회장으로 장인 집안을 이루고 있기도 했는데, 1667년부터 1681년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다회장이면서 국역을 졌던 劉濬龍의 존재로 확인된다.

다회장 姜興喆은 1776년부터 1805년까지 29년간 13곳의 도감에서 다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활동한 도감의 제작처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로 가장 앞에 기록되었다.



<순조왕세자 옥인>, 1800,
옥석, 전체 높이 10.9cm,
국립고궁박물관

<문조왕세자 옥인>, 1812,
옥석, 전체 높이 11.4cm,
국립고궁박물관

<헌종왕세손 옥인>, 1830,
옥석, 전체 높이 10.2cm,
국립고궁박물관

(7) 19세기 옥인의 제작 장인

1800년 당시 玉印 1과를 만들기 위한 옥은 지방에서 캐서 복정하지 않고 이미 호조에 보관하고 있던 옥괴를 사용하였다.

왕세자의 玉印은 이미 18세기에 규례로 정해져 있어서 사방 4치 9푼, 높이 1치 2푼이다. 거북이 길이는 6치 4푼, 거북이 머리 길이는 1치 5푼, 거북이 높이는 2치 5푼이다. 옥인의 印綬는 紅眞絲 다회로 만드는데, 큰 끈 1개에 流蘇를 만들고 방울[方兀]를 달아서 거북이를 뚫어낸 구멍을 꿰어 묶는다. 주위의 둘레는 4푼, 길이는 6자 5치이다.

옥인 1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표면을 반짝이게 닦아 윤을 내는데 쓰는 鍊光용 재료는 白蠟 3돈이다. 옥인의 경우에도 거북이의 형상을 본을 떴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밀납[黃蜜] 7돈을 사용하여 만든다. 인수에 해당되는 큰 끈을 만들 감은 홍진사 2냥 5돈이고, 소[栗] 감은 홍향사 1냥이며, 방울을 감싸는 紙金은 2장이다.

<표> 19세기 책레도감 2방의 장인 종별과 종수

| 연대 | 대상 | 책봉 | 도감 | 2방 장인의 종별 | 종수 | 소장번호 |
|------|----|-----|----|---|----|--------|
| 1800 | 순조 | 왕세자 | 책레 | 화원, 옥장, 옥각수, 두석장, 소로장, 칠장, 낭자장, 마경장, 인통장, 쇠약장, 도자장, 다회장, 호감장, 담편장, 과록장, 이지장, 시장, 천혈장, 침선비 | 19 | 규13119 |
| 1812 | 효명 | 왕세자 | 책레 | 화원, 옥장, 옥각수, 도자장, 인통장, 두석장, 호감장, 담편장, 이지장, 시장, 마경장, 소로장, 칠장, 소목장, 천혈장, 과록장, 쇠약장, 줄장, 조각장, 낭자장, 다회장, 소은장, 책장, 병풍장, 침선비 | 24 | 규13125 |
| 1830 | 헌종 | 왕세손 | 책레 | 화원, 옥장, 옥각수, 인통장, 두석장, 호감장, 담편장, 이지장, 시장, 마경장, 도자장, 소로장, 소목장, 천혈장, 과록장, 은장, 조각장, 마조장, 낭자장, 병풍장, 책장, 침선비, | 22 | 규14190 |
| 1875 | 순종 | 왕세자 | 책레 | 화원, 옥장, 옥각수, 두석장, 호감장, 담편장, 도자장, 마경장, 다회장, 진칠장, 시장, 소로장, 천혈장, 마조장, 병풍장, 낭자장, 쇠약장, 줄장, 침선비 | 19 | 규13169 |

19세기에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할 때에는 화원을 비롯하여 옥장과 옥각수, 도자장 등 장인의 장색이 적을 때는 19종, 많을 때는 24종의 장색을 동원하여 평균적으로 21종이었다. 이것은 17세기의 22종과 비슷하나 18세기의 29종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가. 19세기 옥장

19세기의 책레도감 2방에 동원한 옥장과 각수와 도자장 및 다회장의 인원수는 18세기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옥장은 대체로 2명, 옥각수나 도자장 및 다회장은 대체로 1명이다.

<표> 19세기 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다회장 명단

| 연대 | 대상 | 도감 | 현존 | 도감 | 각방 | 玉匠 | 玉刻手 | 刀子匠 | 다회장 | 소장번호 |
|------|-----|-------|-------|----|----|----------|----------|-----|-----|--------|
| 1800 | 순조 | 왕세자* | 어보85 | 책레 | 2방 | 黃慶郁 | 金千得 | 池順才 | 朴尙益 | 규13119 |
| 1812 | 효명 | 왕세자 | | 책레 | 2방 | 李大得, 朴潤得 | 李東植 | 李東植 | 李再郁 | 규13125 |
| 1830 | 헌종 | 왕세손* | 어보91 | 책레 | 2방 | 嚴得成, 李昌根 | 李東植, 李燦奎 | 田應春 | - | 규14190 |
| 1875 | 순종 | 왕세자* | 어보102 | 책레 | 2방 | 朴英根, 李昌烈 | 芮光國 | 李同根 | 黃益善 | 규13169 |
| 1885 | 순종빈 | 왕세자빈* | 어보311 | 가례 | 2방 | 孫錫祚 등 4명 | 金永植, 李孝一 | 李培植 | 李守吉 | 규13174 |

1800년 순조를 왕세자를 책봉할 당시 옥인을 제작한 옥장 黃慶郁은 1783년 정순왕후와 혜빈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인을 제작하여 1802년 정순왕후와 효의왕후의 존호를 올리는 존승도감 3방에서 옥보를 제작할 때까지, 19년간 옥장으로 성장하였다.

1812년 효명 왕세자를 책봉할 당시 옥인을 제작한 옥장 李大得은 1783년 정순왕후와 혜빈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보나 옥책을, 1795년 정순왕후와 혜빈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호도감, 1800년 정조 국장도감의 3방에서 옥책을, 1819년 혜빈의

상례 때 도감의 3방에서 옥책이나 애책을 만들 때 옥장의 우두머리였다. 이처럼 이대득은 11783년부터 1816년까지 33년간 옥책이나 옥인을 제작하는 도감에서 옥장의 우두머리였던 18세기 말 19세기 초 대표적인 옥장이었다.

옥장 嚴得成은 1819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830년 효명세자의 예장도감 때,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 옥인을 제작할 때에는 옥장의 우두머리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엄득성은 1819년부터 1835년까지 17년간 국가의 옥업에 참여한 옥장이었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1방과 2방에서 옥인 등을 제작한 옥장은 朴英[永]根이다. 그는 1863년 신정왕후와 효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에 옥장으로 참여하였던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후 고종 대에 존호 존숭도감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1875년 책례도감까지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하였을 뿐이다.

19세기의 옥장 집안은 19세기 초의 옥장 李昌根과 19세기 중반의 李昌烈에 의해 확인된다. 이창근은 1827년부터 1841년까지, 이창렬은 1843년부터 1875년까지 국역을 졌다. 이들도 박영근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만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나. 19세기 옥인각수나 옥각수

19세기에는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각수를 옥각수나 옥인각수로 불렀다.

1800년 옥각수 金千得은 1772년부터 1805년까지 33년간 활동한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교서관 소속 관각수였다. 그는 옥책이나 옥보나 옥인 및 표석이나 지석 등과 같이 옥석에 글자를 새기는 데 특장이 있었다. 1772년 현종과 영조의 존호도감에서 각수로 참여하여, 1784년 영조와 사도세자에게 존호도감, 1795년 존호도감 등에서 옥각수 중 우두머리로 성장하였다.

1812년과 1830년 책봉도감 2방에서 옥인에 글을 새겼던 옥각수 李東植은 1789년부터 1830년까지 41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진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옥각수이다. 그는 처음 동원된 1789년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천봉하는 도감에서는 지석에 새기는 석각수였다가 1795년 존호도감 1방에서 정순왕후의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옥각수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東’자 돌림을 쓴 각수 집안의 일원으로서 각수 李東珍, 李東植, 李東彬, 李東根, 李東運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장인 집안의 형제 여럿이 국가적인 옥업에서 옥책이나 옥보나 옥인 및 표석 등 거의 전 분야에 골고루 활발하게 참여했다.

1830년 헌종의 왕세손 책봉 때 참여하여 옥인을 제작하였던 옥각수 李燦奎는 이후 1849년 헌종의 국장 때에는 옥책을 제작하는 옥각수로 활동하였고,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875년 순종의 왕세자 책봉 때 옥인을 새긴 옥각수 芮光國는 1859년 신정왕후

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각수였으나, 1863년 철종의 예릉의 대부석소에서는 석각수로도 불렸다. 이후 그는 1904년까지 효정왕후의 국장 때까지 45년간 13곳의 도감에서 옥각수로 활동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각수로서, 대부분의 도감에서 옥책이나 옥보 및 옥인을 제작한 옥각수였다.

다. 19세기 도자장

19세기의 刀子匠으로는 1800년 智順才, 1812년 李東根, 1830년 田應春, 1875년 李同根 등이 있다.

1800년 순조를 책봉할 때의 도자장 智順才는 1778년에 처음 기록에 보이기 시작한다. 1778년 정조가 효의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방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10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로서 가장 앞에 기록되어 3등상을 받았다. 같은 해 정조와 정순왕후의 존호를 올릴 때, 같은 해 영조와 정성왕후 및 진종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처럼 智順才는 1778년부터 1804년까지 26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던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도자장이다.

이중 1812년 李同根이나 1875년 李同根은 1번의 도감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 활동한 田應春은 18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도자장이다. 그는 1827년 순조의 존호도감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당시 10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 역할을 하여 도감역이 끝난 후 3등상을 받았다. 이후 1837년까지 10년간 7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라. 19세기 다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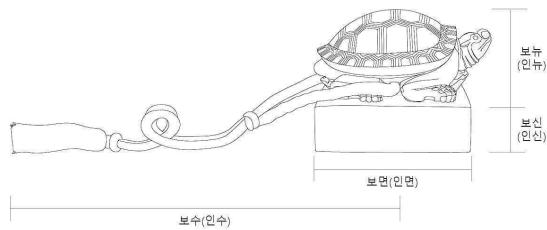
19세기 왕세자나 왕세손 책봉 시 옥인의 인수를 제작한 다회장은 1800년 朴尙益, 1812년 李再郁, 1875년 黃益善이다. 이중 박상익은 1회만 참여했을 뿐이다.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 인수를 제작한 다회장 이재욱의 경우 1809년 종부시에 속하여 선원보를 수정할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1821년 효의왕후의 국장까지 활동하였다. 그는 1809년부터 1821년까지 12년간 7곳에서 참여하였다.



<신정왕후존호옥보 보수, 1869> <신정왕후존호옥보 보수, 1877> <신정왕후존호옥보 보수, 1890>

2) 금보

어보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 상왕(上王), 왕대비(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옥이나 금속에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을 말한다. 이러한 어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조선왕실의례』 등의 기록을 통해 491과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331과가 전해지고 있다. 어보는 이것을 담고 싸서 봉안하는 부속물로서 보통(寶筒)과 보록(寶盞) 및 호갑(護匣) 등과 함께 각종 보자기나 끈 등도 함께 제작된 조선왕실공예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보를 제작한 재료는 금, 은, 백철, 옥 등이 있다.



<어보의 세부 명칭>



<세종비 소헌왕후 시호금보, 1446년>

(1) 금보의 종류

금보를 수여하는 대상은 왕과 왕비, 상왕·태상왕, 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그중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금보로 제작한다. 존호를 올리거나 존숭하는 경우 대상이 살아있을 때에는 옥보를 수여하고, 사후에는 금보를 수여한다. 왕이나 왕비의 사후에 제작하는 시호보인 경우에는 금보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사후에 시호를 올리거나 돌아가신 분에게 추상존호를 올릴 때에 금보를 제작하여 올린다.

금보는 왕과 왕비에게만 올릴 수 있는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은 왕실 인사의 명칭 및 호칭과 큰 관련이 있다. 이는 각종 의례에 따른 분류라 볼 수 있다. 수여 대상을 해당 지위에 봉하는 책봉 의례 때 제작하는 책봉보(인), 덕을 기리기 위해 제작하는 존호보, 사후 시호와 묘호를 올릴 때 제작하는 시호보 등으로 나뉜다. 국왕의 즉위 이후 생전의 존호는 옥보이지만, 사후에는 금보로 제작했다. 왕비의 경우 책봉 어보는 금보, 책봉 이후 생전에는 옥보, 사후에는 금보를 제작했다.

| 구분 | 왕세자 | 왕세자빈 | 왕 | | 왕비 | | 후궁 | 비고 |
|----|-----|------|----|----|----|----|-------|----|
| | | | 생전 | 사후 | 생전 | 사후 | | |
| 책봉 | 玉印 | 玉印 | - | - | 金寶 | - | - | |
| 존호 | 玉印 | 玉印 | 玉寶 | 金寶 | 玉寶 | 金寶 | - | |
| 시호 | 玉印 | 玉印 | - | 金寶 | - | 金寶 | 金, 銀印 | |
| 묘호 | - | - | - | 金寶 | - | - | - | |
| 휘호 | - | - | - | - | - | 金寶 | - | |

책봉금보는 왕비나 황후·황태자·황태자비는 금보로 제작하였다. 존호금보는 왕과 왕비, 상왕 등 왕실 선조의 덕을 기리기 위해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한 어보를 말한다. 해당 인물에게 처음으로 존호를 올리는 것을 상존호, 그 이후 존호를 더하여 올릴 때는 가상존호, 사후에 존호를 올릴 때는 추상존호라 명하였다. 시호금보는 왕과 왕비의 사후 올리는 이름을 시호라 하고 이것을 금보로 만든 것이다. 시호는 묘호와 함께 8글자로 올린다. 처음 올리는 것을 상시호, 그 이후 추가로 더하여 올리는 것을 추상 시호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시호를 올리며 제작된 어보는 총 39과이며 대한제국 시기 이후 제작된 고종, 순종의 시호 어보는 옥보로 제작되어 왕과 황제간 시호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 책봉금보

왕비의 책비례를 거행할 때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을 설치하고, 도감 2방에서 금보를 제작하여 들인다. 이중 현존하는 왕비의 책봉 금보는 14과이다.

이러한 왕비 책봉어보는 모두 금보에 귀뉴로 되어 있으며 보문은 ‘왕비지보(王妃之寶)’이다. 인조비 인렬왕후 한씨는 1610년(광해군 2) 능양군(인조)과 혼인하여 청성현부인(淸城縣夫人)으로 봉해졌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능양군이 왕이 됨에 따라 왕비로 책봉되었고 금보를 제작하였다.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는 1635년(인조 13) 사망한 인렬왕후의 뒤를 이어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었다.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는 1631년(인조 9) 14세에 봉림대군(효종)과 혼인하여 풍안부부인(豊安府夫人)에 봉해졌다. 1646년(인조 24)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가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는 1651년(효종 2) 현종과 혼인하여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1659년(현종 즉위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숙종비 인경왕후 김씨는 1671년(현종 12) 왕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674년(숙종 즉위년) 왕비에 책봉되었다. 인현왕후 민씨는 인경왕후 사망 후 1681년(숙종 7) 숙종의 계비(繼妃)로 책봉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의 여파로 폐위되었다가 5년 후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복위되어, 같은 해 6월 1일

정식으로 왕비 책봉을 받았다. 현재 전하는 것은 복위 때 만든 어보이다. 숙종계비 인원왕후 김씨는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1702년(숙종 28) 숙종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표> 현존하는 왕비 금보의 체제와 현황

| 연대 | 대상 | | | 도감 | 현존 | 유물번호 | 도감의궤 |
|------|--------|-----|-----------|----|----|-------|--------|
| 1638 | 인조 계비 | 중전 | 장렬왕후 조씨 | 가례 | ○ | 어보144 | 규13061 |
| 1651 | 효종 | 중전 | 인선왕후 장씨 | 책례 | × | - | 규13066 |
| 1651 | 현종 세자빈 | | 명성왕후 김씨 | 책례 | × | - | 규13071 |
| 1676 | 숙종 | 중전 | 인경왕후 김씨 | 책례 | ○ | 어보152 | 규13078 |
| 1694 | 숙종 계비 | | 인현왕후 민씨 | 책례 | ○ | 어보159 | 규13501 |
| 1696 | 경종 세자빈 | | 단의왕후 심씨 | 책례 | ○ | - | 규13092 |
| 1702 | 숙종 계비 | 중전 | 인원왕후 김씨 | 가례 | ○ | 어보165 | 규13089 |
| 1718 | 경종 세자빈 | | 선의왕후 어씨 | 책례 | ○ | - | 규13094 |
| 1722 | 경종 계비 | 중전 | 선의왕후 어씨 | 가례 | ○ | 어보179 | 규13097 |
| 1726 | 영조 | 중전 | 정성왕후 서씨 | 책봉 | ○ | 어보187 | 규13100 |
| 1727 | 진종 세자빈 | | 효순왕후 조씨 | 책례 | × | - | 규13105 |
| 1744 | 장조 세자빈 | | 헌경왕후 홍씨 | 책례 | × | - | 규13109 |
| 1759 | 영조 계비 | 중전 | 정순왕후 김씨 | 가례 | ○ | 어보198 | 규13102 |
| 1778 | 정조 비 | 중전 | 효의왕후 김씨 | 가례 | ○ | 어보227 | 규13114 |
| 1802 | 순조 비 | 중전 | 순원왕후 김씨 | 가례 | ○ | 어보233 | 규13122 |
| 1837 | 헌종 비 | 중전 | 효현왕후 김씨 | 가례 | ○ | 어보273 | 규13139 |
| 1751 | 철종 비 | 중전 | 철인왕후 김씨 | 가례 | ○ | 어보294 | 규13147 |
| 1866 | 고종 비 | 중전 | 명성왕후 민씨 | 책례 | ○ | 어보300 | 규13153 |
| 1897 | 고종 비 | 황후 | 명성왕후 민씨 | 대례 | ○ | 어보299 | 규13486 |
| 1897 | 순종 비 | 황태자 | 순명황태자빈 민씨 | 대례 | ○ | 어보309 | 규13486 |

18세기의 경종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1718년(숙종 44) 첫 번째 왕세자빈인 심씨(단의왕후)가 사망하자 그 해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고,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비 정성왕후 서씨는 1721년(경종 1) 연잉군이 왕세제로 책봉됨에 따라 왕세제빈(王世弟嬪)이 되었다. 1724년 연잉군이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는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사망하자 1759년(영조 35) 15세로 나이로 51세 연상인 영조와

혼인하여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는 1762년(영조 38) 왕세손빈(王世孫嬪)에 책봉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19세기에 들어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는 1800년(정조 24) 왕세자빈 간택 중 정조의 사망으로 왕세자빈에 책봉되지 않고 1802년(순조 2) 10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는 1837년(헌종 3) 10세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1843년(헌종 8)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1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순종 때 효현성황후(孝顯成皇后)에 추존되었다.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는 당시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근친(近親)로 1851년(철종 2) 왕비에 책봉되어 어의동(於義洞) 본궁에서 가례를 올렸다.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는 1866년(고종 3) 간택령에 따라 금혼령을 내리고 2월 25일 창덕궁 중희당에서 초간택을 하였다. 재간택, 삼간택을 거쳐 왕비로 책봉되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해 승하한 명성황후에게 ‘황후지보’를 금보에 용뉴로, 순종세자빈을 순명황태자비로 책봉하고 ‘황태자비지보’를 금보에 귀뉴로 제작하여 현존하고 있다.

나. 시호금보

조선의 임금의 왕이 승하하면 묘호와 시호를 올리면서 국장도감 3방에서 시보 1과를 금보의 형태로 제작한다. 어보를 재질에 따라 구분할 때 왕과 왕후의 금보는 총 144과이다. 이중 왕이 승하한 이후 제작한 시보는 현재 30과가 있으며, 이것들은 금보이고 원종과 고종 및 순종의 3과는 옥보이다. 1619년 승하할 당시에 왕이 아니어서 1632년(인조 10) 추존왕으로 추승하면서 만든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종의 시보는 1919년 승하한 후 제작하였고 순종의 시보는 1926년 승하한 후 제작하였는데 둘 다 옥보이다.

(2) 금보의 양식적 특징

직뉴형은 왕세자빈이나 공주 등에게 수여되고 제작시기는 주로 조선 전기부터 중기 사이에 제작되었다.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은 1441년(세종 23) 당시 왕세자빈이었던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하자, 이때 ‘현덕(顯德)’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인면(印面)에는 ‘현덕빈인(顯德嬪印)’이라고 새겨져 있고 인판은 3단의 계단 형태로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이다. 막대형의 손잡이는 직육면체의 모습으로 윗부분은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으며, 막대 아랫부분에 동그란 구멍을 뚫어 인끈[綬]을 연결하였다.

거북형은 왕과 왕비, 대왕대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 왕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수여되었고 제작시기는 조선전반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가장 많이 제작된 형태이다.

용뉴는 조선 초기에는 용을 손잡이로 하는 용뉴 금보가 제작되었다. 『종묘등록』

의 기록에 1408년(태종 8) 9월에 제작된 태조 시호금보와 1419년(세종 1) 12월에 제작된 정종 시호금보, 1422년(세종 4) 9월에 제작된 태종 시호금보 등 3과가 용뉴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용뉴의 어보가 제작되었으나, 세종 때부터 명(明)과 시대관계가 정립된 이후부터 거북이 손잡이의 귀뉴 어보가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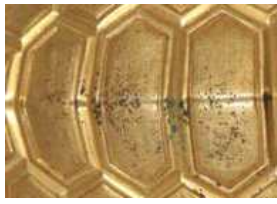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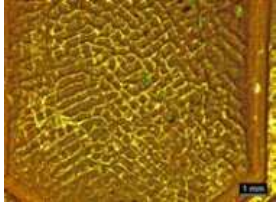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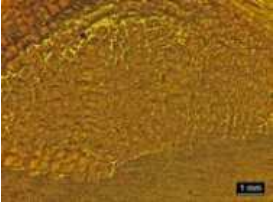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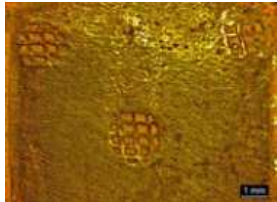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황제를 상징하는 용을 손잡이로 하는 용뉴금보로 보문은 ‘황후지보(皇后之寶)’이다. 몸체는 물고기 비늘로 덮였고 등에 지느러미와 화염 형태의 털이 묘사되어 있다. 뿔은 사슴뿔[鹿茸] 형태이고, 얼굴에는 갈기와 충수를 달았으며 꼬리는 말 꼬리처럼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몸체를 덮고 있다. 귀는 소의 귀를 닮았고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형적인 용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의 신하로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원(元)대에는 용을 황실의 전용물로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황제만이 용뉴의 어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용뉴 어보는 2과이며 모두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국으로서 위상을 천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현존하는 유물은 1897년 9월 17일에 수여한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의 ‘황후지보(皇后之寶, 어보299)’와 1907년 8월 7일 고종의 양위로 순종이 황위에 오르고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할 때의 ‘황태자보(皇太子寶, 어보310)’가 현존하고 있다. 용뉴형 어보는 보신 위에 얹드린 용을 조각했고, 등줄기 위에 양각으로 갈기를 표현했다, 또한 몸의 비늘을 굵게 나타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용의 입에는 송곳니를 드러내고 입 주변에는 수염을 표현했으며, 이마에는 뿔을 달았다.

가. 귀갑문

1441년부터 1651년(효종 2)까지 만들어진 26과의 귀뉴형 금보에는 귀갑만이 새겨진다. 이후 1676년(숙종 2)부터 1816년(순조 16)까지 제작된 귀뉴형 금보 51과 중 2과를 제외한 49과는 귀갑 내부에 문양을 새겨 장식하였다. 1835년(헌종 원년)부터 1924년까지 제작된 73과의 귀뉴형 금보는 귀갑 내부의 문양이 사라지고 다시 귀갑만이 새겨진다.

1676년부터 1816년까지 제작된 귀뉴형 금보에서 확인되는 귀갑 내부 문양은 크게 점각으로 장식한 문양과 조이질하여 장식한 문양으로 구분된다. 두 문양은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점각 문양은 1676년부터 1730년(영조 6)까지 제작된 금보에서, 조이질문양은 1739년(영조 15) 부터 1816년까지 제작된 금보에서 확인된다. 점각은 격자, 화형, 원형 등의 무늬를 새겨 장식하였다. 문양들은 귀갑 내부에 한 종류 또는 두 종류가 혼합되어 나타나며, 한 귀뉴의 귀갑문 내부에는 동일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점각 문양이 새겨진 금보 중 1705년(숙종 31)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된 9과의 금보는 같은 형태의 원형문과 화형문 조합이 확인된다. 조이질문양은 귀갑면 일부를 정으로 쪼아 표면에 반원형이나 삼각형 형태의 요철을 새겼다. 예외적으로 1688년(숙종 14)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시호금보(G037)> 에서도 조이질이 확인되는데, 1739년에서 1816년 사이 제작된 금보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다르게 귀갑면 전체를 조이질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전체 쪼이질 | | 부분 쪼이질 | |
|--|--|---|--|
| 귀갑 | 세부 현미경사진 | 귀갑 | 내부 세부 현미경사진 |
|  |  |  |  |
| 1688년 | | 1778년 | |
| 점문 | | | 조이질 |
| 격자 | 격자문+화형문 | 원형문+화형문 | |
|  |  |  |  |
| 1681년 | 1702년 | 1705년 숙종 | 1776년 영조시호금보 |

(3) 금보의 재료

의례를 통해 살펴보면 금보의 제작은 황동(黃銅)을 주재료로 삼아 주조하여 만든다. 순금은 재질이 물러서 글자면이 쉽게 손상될뿐더러 채용(財用)적인 면에서 왕실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동(銅)이나 천은(天銀)으로 제작한 뒤 표면을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시보를 제작할 때의 재료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는 대체로 일치하여 鍊黃銅에 鍍金을 했다. 실제로 시호금보를 제작하기 위해 실제 도감에 들었던 재료를 보면 1649년 인조의 국장 때에는 연황동 12근, 숙동 1근, 두석 4냥씩을 섞어서 연황동을 만들고, 정련할 때 실제 들인 것은 6근, 도황금 6돈 3푼, 수은 4냥 2돈, 백은 3돈, 비상 1돈, 봉사 2푼이었고, 족제비털붓[黃毛筆] 1자루와 진묵 1정이었다. 이러한 재료는 1675년 현종의 국장 때에도 대체로 유사하여 연황동 13근, 도황금 7돈, 백은 1돈, 비상 3돈, 봉사 3돈 2푼, 황필 2자루, 진묵 1정이다. 이를 통해 연황동 위에 수은아말감 기법을 사용하여 도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황밀에 글자를 새기고 조각하여 연황동을 녹여 주물을 떠낸 다음 그 위에 백은, 비상, 봉사

등을 매제로 삼아 황금을 녹여 도금하였다. 시보를 제작하고 나면 여기에 綬兒를 짜서 印綬[寶綬]를 만든다. 이를 위해 1649년 인조 국장 때에는 홍진사 2냥 1돈, 소감으로는 홍향사 8돈, 금전지 1장, 황밀 3근, 무늬 있는 홍단 7치, 소감의 설면자 5돈, 자적초는 길이 2자, 나비 2치, 진홍사 1푼,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을 들었다.

<표> 시보 금보의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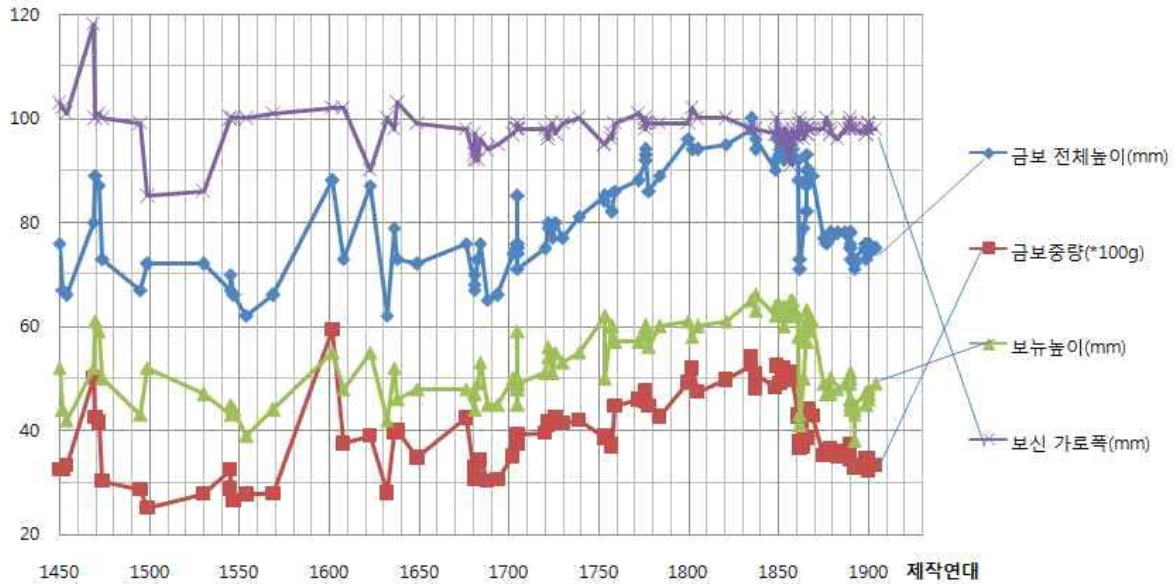
| 왕대 | 국왕 | 연황동 | 두석 | 도황금 | 수은 | 백은 | 비상 | 봉사 | 황밀 | 의뢰번호 |
|----|----|---------|---------|------|------|----|------|------|-------|--------|
| 17 | 효종 | 15근/6근반 | 4냥 | 4돈2푼 | 2냥5돈 | 2돈 | 3돈 | 3돈2푼 | 1근11냥 | 규13527 |
| 18 | 현종 | 13근/ | - | 7돈 | 4냥 | 1돈 | 3돈 | 3돈 | 1근11냥 | 규13539 |
| 19 | 숙종 | 13근 | | 7돈 | 4냥2돈 | 1돈 | 3돈 | 3돈2푼 | 1근11냥 | 규13548 |
| 20 | 경종 | 13근 | | 5돈 | 3냥2돈 | 1돈 | 3돈 | 3돈2푼 | 1근11냥 | 규13566 |
| 21 | 영조 | 銅鐵13근 | | 7돈 | 4냥2돈 | 1돈 | 3돈 | 3돈2푼 | 1근11냥 | 규13581 |
| 22 | 정조 | 숙12근 | 합석 1근9냥 | 4돈 | 2냥3돈 | 1돈 | 1돈3푼 | 2돈3푼 | 1근8냥 | 규13634 |
| 23 | 순조 | 숙14근 | 6근 | 4돈 | 2냥3돈 | 1돈 | 1돈3푼 | 1돈 | 1근8냥 | 규13669 |
| 24 | 헌종 | 숙14근 | 6근 | 3돈 | 2냥 | 1돈 | 1돈 | 1돈 | | 규13784 |
| 25 | 철종 | 숙14근 | 6근 | 3돈 | 2냥 | 1돈 | 1돈 | 1돈 | | 규13844 |

이러한 시보에 대한 구조와 형식 또한 시책과 마찬가지로 1757년(영조 33)에 편찬한 『國朝喪禮補編』에서 확인된다. 여기에는 국왕의 사후에 올리는 諡號의 篆文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諡寶에 대한 규모나 체제 및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다. 이때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시보의 재료는 연황동에 도금을 했으며, 무게는 6근 반이었다. 금보의 허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는 홍진사로 綬兒를 길이 2자, 무게 2냥을 걸어 印綬를 만드는 것이다. 1800년 정조의 국장 이후 19세기에 시보의 재료는 연황동 대신 숙동합석熟銅含錫으로 기본 재료가 바뀌었고, 인수의 재료 또한 이전까지 홍진사 였는데, 홍용모사紅絨毛絲를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연황동 위에 수은아말감 기법을 사용하여 도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황밀에 글자를 새기고 조각하여 연황동을 녹여 주물을 떠낸 다음 그 위에 백은, 비상, 봉사 등을 매제로 삼아 황금을 녹여 도금한 것이다.

금보의 사방 크기는 같으나 거북이의 높이는 1치 5푼에서 2치 1푼으로 조금 키가 커졌다. 시보에 대한 구조와 형식 또한 시책과 마찬가지로 1757년(영조 33)에 편찬한 『國朝喪禮補編』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諡寶에 대한 규모는 예기적으로 사방 3치 5푼이고, 거북이 손잡이의 높이는 1치 5푼이다. 1800년 정조의 국장 때부터 금보의 사방 크기는 같으나 거북이의 높이는 1치 5푼에서 2치 1푼으로 조금 키가 커졌다.

현존하는 유물에 의하면 1610년 선조상시호금보는 높이 7.3cm, 보누는 4.8cm,

보면은 10.2×10.2cm, 보신의 높이는 2.5cm이다. 1649년 인조상시호금보는 전체 높이가 7.2cm, 보누는 4.8cm, 보면은 9.9×9.8cm, 보신은 2.4cm이다. 1683년 태조추상시호금보도 높이가 7.3cm, 보누 4.9cm, 보면 9.5×9.5cm, 보신은 2.4cm이다. 대체로 17세기의 것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18세기의 것으로 전체 높이가 8.5~9.5cm, 보누는 6.2cm, 보신은 9.5×9.5~10.2~10.2cm에 해당되었다. 19세기의 것은 높이가 9.0cm, 보누 6.0~6.2cm, 보면은 9.8×9.8cm, 9.9×9.9cm에 해당되었다.



<표> 조선후기 국왕 시보의 치수와 재료

| | 국왕 | 사방 | 龜高 | 재료 | 무게 | 纓子綬兒 | | | | | | 소장번호 |
|------|------------|-------|-------|----------|-----|------|------|-----|----|----|-----|------------------|
| | | | | | | 재료 | 무게 | 소 | 무게 | 장 | 금전지 | |
| 1649 | 인조 | 3치 5푼 | 1치 5푼 | 鍊黃銅, 鍍金 | 6근 | 홍진사 | 2냥1푼 | 홍향사 | 8돈 | 2자 | 3냥 | 귀13521 |
| 1659 | 효종 | 3치 5푼 | 1치 5푼 | 鍊黃銅, 鍍金 | 6근반 | 홍진사 | 2냥1푼 | 홍향사 | 8돈 | 2자 | 3장 | 귀13527 |
| 1675 | 현종 | 3치 5푼 | 1치 5푼 | 鍊黃銅, 鍍金 | 6근반 | 홍진사 | 2냥1푼 | 홍향사 | 8돈 | 2자 | 3장 | 귀13539 |
| 1721 | 숙종 | 3치 5푼 | 1치 5푼 | 鍊黃銅, 鍍金 | 6근반 | 홍진사 | 2냥1푼 | 홍향사 | 8돈 | 2자 | 3장 | 귀13548 |
| 1724 | 경종 | 3치 5푼 | 1치 5푼 | 鍊黃銅, 鍍金 | 6근반 | 홍진사 | 2냥1푼 | 홍향사 | 8돈 | 2자 | 1장 | 귀13566 |
| 1757 | 國朝 喪禮補編 | 3치 5푼 | 1치 5푼 | 黃銅, 鍍金 | 6근반 | 홍진사 | 2냥 | 홍향사 | 8돈 | | 1장 | 귀13734 |
| 1776 | 영조 | 3치 5푼 | 1치 5푼 | 銅鐵, 鍍金 | 6근반 | 홍진사 | 2냥 | 홍향사 | 8푼 | 2자 | 1장 | 귀13581 |
| 1800 | 정조 | 3치 5푼 | 2치 1푼 | 熟銅含錫, 鍍金 | 6근반 | 紅絨毛絲 | 2냥 | 홍향사 | 8푼 | 2자 | 1장 | 귀13634 |
| 1835 | 순조 | 3치 5푼 | 1치 5푼 | 熟銅含錫, 鍍金 | 6근반 | 紅絨毛絲 | 2냥 | 홍향사 | 8푼 | 5자 | 1장 | 귀13669 |
| 1849 | 헌종 | 3치 5푼 | 2치 1푼 | 熟銅含錫, 鍍金 | 6근반 | 紅絨毛絲 | 2냥 | 홍향사 | 8푼 | 5자 | 1장 | 귀13784 |
| 1864 | 철종 | 3치 5푼 | 2치 1푼 | 熟銅含錫, 鍍金 | 6근반 | 紅絨毛絲 | 2냥 | 홍향사 | 8푼 | 5자 | 1장 | 귀13844 장2-022 |

시보를 제작하고 나면 여기에 수아를 짜서 인수를 만든다. 이를 위해 1649년 인조 국장 때에는 홍진사 2냥 1돈, 소감으로는 홍향사 8돈, 금전지 1장, 황밀 3근, 무늬 있는 홍단 7치, 소감의 설면자 5돈, 자적초는 길이 2자, 나비 2치, 진홍사 1푼,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을 들었다. 정조 국장 때에 시보에 인수용 영자纒子는 홍용모사를 사용하였고, 다회의 속감으로는 홍색 향사를 쓴다. 방울[方兀]과 술[蘇兀]을 갖추며, 길이는 5자이다. 헌종대 수아의 감은 영자는 홍용모사 2냥을 사용하였고, 다회의 속감으로는 홍향사 8푼을 쓴다. 안쪽에는 금전지 1장을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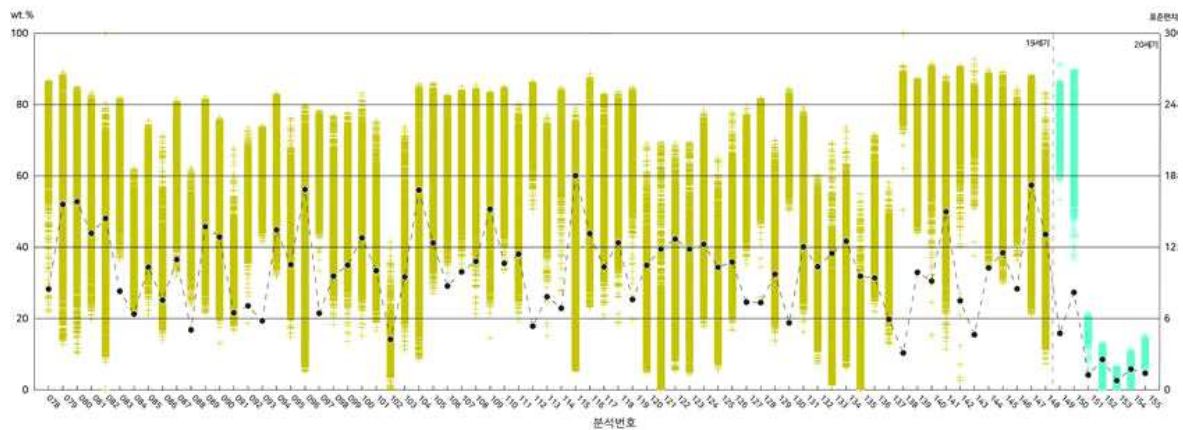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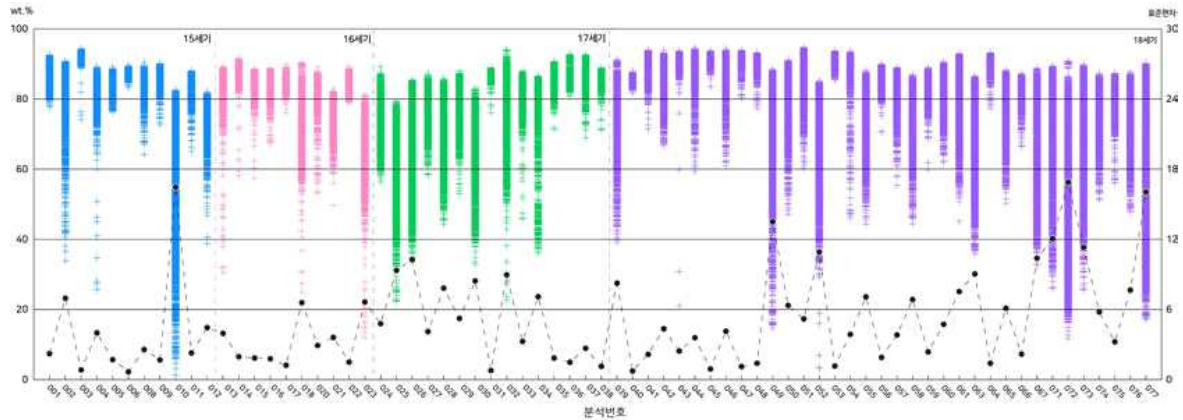
가. 재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금보 155과 전체 중 93%인 145과는 구리합금이다, 설분에서는 구리와 아연이 검출되었으며, 아연의 함량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15~17세기의 구리 합금 금보 35과 중 1681년 <정종추상시화금보> 1과만 아연 10.17%이고 이것을 제외하고 모두 아연 함량은 10% 미만이었다. 반면 18세기에는 아연 함량이 10%이상인 금보가 10%미만인 금보보다 더 많이 제작되었으며, 아연 함량이 20%를 넘어가는 금보도 소량이나마 확인된다. 특히 18세기 초반까지 제작된 금보에서는 아연 함량이 약 10% 초반을 넘지 않으나,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금보> 가 제작된 1739년 이후부터 아연 함량이 10% 중반 이상인 금보가 주로 제작되었다. 19세기에는 아연 함량 10% 미만의 금보는 소량만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금보에서 10% 이상의 아연 함량이 확인된다.

금보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밀납으로 견양을 만들고, 밀납 견양의 주변으로 백토와 개흙을 사용하여 흙을 덮어 거푸집을 마련한다. 개흙은 강가나 개울가, 늪바닥에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가는 마[삼베]와 교합하여 사용한다. 밀납 견양의 삼베는 개흙이 잘 붙도록 마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탕 금속이 구리에 은합금인 금보는 4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리 은 합금의 금보는 도금층에 의해 구리합금의 금보와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

도금의 경우 <금보개조도감의궤>에 기록된 바 금보 1과에 소용되는 물품으로 ‘도금’, ‘수은’ 등 수은 아말감 도금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금과 함께 수은 등이 검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은 아말감 도금기법을 사용하여 금보 표면을 도금한 것을 알 수 있다.



<금보 중 보신 부분의 도금층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Line scan 방법’으로 금의 산포도를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 1776년 <진중추 상시호 금보> 이후 1990년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금보>까지 금 함량의 최소값이 20%로 작아지면서 표준편차도 6% 이상으로 분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제작된 금보의 도금층이 이전에 제작된 금보에 비해 균일하지 못하고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일부 금보의 경우 금이 4~17%로 다른 금보에 비해 금 함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수은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이에 도금층이 얇아 검출되지 않았거나 수은아말감법이 아닌 옷이나 아교에 의한 도금 등의 가능성도 비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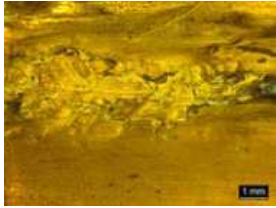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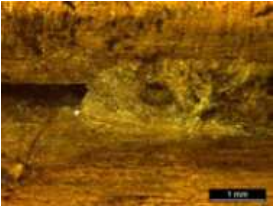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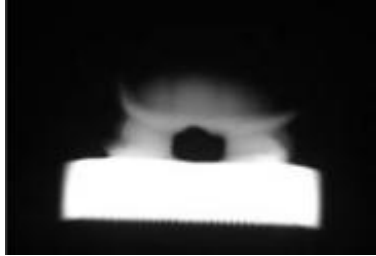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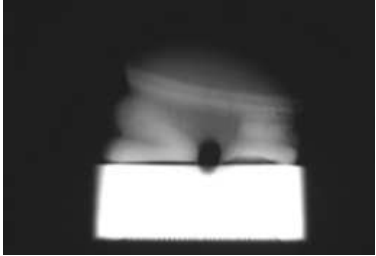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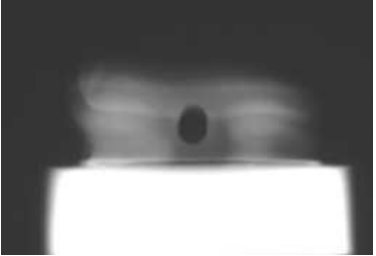
(4) 금보의 제작 방식: 보면과 귀뉴의 결합 방식

보면과 귀뉴의 결합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4가지 경우가 보인다.

보뉴·보신의 경계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1776년(영조 52)에 제작된 <정조 추존은인>의 보뉴·보신의 경계면은 중심부에 은색 원기둥이 관찰된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보뉴와 보신을 각각 별도로 제작한 다음 리벳으로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1835년 제작된 <문조 추상 시호 금보>, 1897년 제작된 <고종비 명성황후 책봉 금보>, 1900년(광무 4) 제작된 <인조 추상존호 금보>의 보신·보뉴

경계면이 들뜬 사이에는 뿔자국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4과의 금보는 18세기 후기 이후에 제작되었는데, 이 같은 흔적들을 통해 보신과 보뉴를 각각 주조한 후 리벳으로 연결하였거나 뿔질하여 접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일체형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보신·보뉴 분리 주조 후 결합방식으로, 1924년에는 일체형으로 제작했음을 밝혔다.

| 리벳 | 뿔질 흔적 | | |
|--|--|--|---|
|  |  |  |  |
| 정조 추존은인, 1776년 | 문조 추상 시호 금보, 1835년 | 명성황후 책봉 금보, 1897년 | 인조 추상존호 금보, 1900년 |
| 경계면 구분되지 않음 | 경계면 들뜸 | 경계면 사이 이물질 | |
|  |  |  | |
| 예종금보, 1469 | 문조 추상 시호 금보, 1835년 | 1862년 | |

(5) 조선 후기 금보의 전문 서사관

조선후기에 금보를 제작하는 경우 중 왕이 승하할 때 시호금보를 제작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살펴볼 수 있다. 왕이 승하하면 국장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좌의정을 총호사로 두었고, 국장도감에서 시호와 묘호와 전호 및 능호를 정하였다. 시호금보를 만드는 과정은 1) 총호사를 비롯한 도감의 책임자들이 시호를 선정, 2) 고위 관리 중 전문서사관을 결정, 3) 서사관이 보문을 서사, 4) 국장도감 3방에서 시보와 관련 공예품을 제작, 5) 완성된 시보를 궁으로 들여 봉과식을 거행, 6) 발인 때에 시보요여에 실어 산릉까지 가져갔다가, 7) 반우제 이후 다시 궁으로 들여와 혼전에서 봉안, 8) 왕의 사후 3년 상이 끝난 후 종묘에 부묘할 때 시보요여에 실려 종묘의 보장에 안치되는 방식이다.

왕이나 왕비의 사후 국상 때 시호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후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한 선조의 시보는 1608년 6월 4일 광해군이 묘호는 ‘宣宗’, 시호는 ‘顯文毅武聖睿達孝’의 8글자를 올렸다. 현재 선조의 시보에는 이 8글자 이외에 만력 경인년에 올린 존호인 ‘정륜립극성덕홍열正倫立極盛德洪烈’의 8글자와 이후 만력 갑진년에 추상존호로 올린 ‘지성대의격천희운至誠大義格天熙運’까지 16글자가 더 있다. 그의 사후 명나라로부터 받은 시호가 ‘소경昭敬’ 이어서 신주에는 ‘소

경’+ 존호 ‘정륜입극 성덕공열’+ 추상존호 ‘지성대의 격천회운’+ 시호인 ‘현문의무 성예달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조의 시보에는 명에서 받은 시호는 생략된 채, 존호+추상존호+시호로 총 24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1649년 인조의 국상 때에는 ‘헌 문렬무명숙순효憲文烈武明肅純孝’로 8글자를 올린 것을 필두로, 1659년 효종의 국상 때에는 ‘선문장무신성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의 8글자 시호를 올렸고, 1674년 현종의 국상 때에도 ‘순문숙무경인창효純文肅武敬仁彰孝’과 같이 시보에는 시호 8글자만 새겨지는 원칙으로 정해졌으며 이것이 실천되었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왕의 국상 때 제작된 시보를 보면 “시호(8글자)+대왕지보(4글자)”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시호가 정해지면 시보에 전문 글씨를 쓰는 사람은 보전문서사관을 정하였다. 종친이나 고위 관리 중에서 전자를 잘 쓰는 사람을 선택하여 보문서사관을 임명하였는데, 혹시라도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여 예비명단으로 예차를 두었다.

1649년 인조의 국상 때 시보의 篆文 서사관 실차는 부제학 呂爾徵(1588~1656)이었고, 예차는 부교리 李正英(1616-1686)이었다. 1659년 효종 시보는 우승지 金壽恒이었고, 1675년 현종 시보의 서사관은 복창군 李楨이었다. 18세기 들어 보전문서사관에 1721년 숙종 시보는 부호군 金雲澤, 1724년 경종 시보는 이조참판 李世最, 1776년 영조의 시보는 봉조하 洪鳳漢이었다. 19세기의 보전문서사관에 정조 시보는 좌의정 李時秀, 1835년 순조의 시보는 영종추부사 李相瓚, 1849년 헌종 시보는 영돈녕부사 洪在龍, 1864년 철종 시보는 영명위 洪顯周이었다.

서사관은 시호로 사용한 글씨체는 ‘大篆’이라고 불리는 篆書體의 일종으로 쓰는데, 그 형식은 ‘九疊篆’이다. 구첩전은 당나라의 官印으로 처음 사용된 글씨체인데 필획이 적은 글자를 아홉 번 구불구불 휘어 써서, 10cm 이하의 작은 면적에도 전체에 가득 차게 균형과 통일을 주는 특징이 있다.

<표> 조선후기 국왕의 시호와 보전문 서사관의 목록

| 승하년 | 국왕 | 시호 | 諡寶篆文書寫官 實差 | 預差 | 소장번호 |
|------|----|----------|-----------------|------------|--------|
| 1649 | 인조 | 憲文烈武明肅純孝 | 副提學 呂爾徵 | 副校理 李正英 | 규13521 |
| 1659 | 효종 | 宣文章武神聖顯仁 | 右承旨 金壽恒 | 兵曹佐郎呂聖齊 | 규13527 |
| 1675 | 현종 | 純文肅武敬仁彰孝 | 福昌君 李楨 | 副司直洪錫龜 | 규13539 |
| 1721 | 숙종 | 章文憲武敬明元孝 | 副護軍 金雲澤 | 京畿都事金濟謙 | 규13548 |
| 1724 | 경종 | 德文翼武純仁宣孝 | 吏曹參判 李世最 | 行副司果李徵夏 | 규13566 |
| 1776 | 영조 | 翼文宣武熙敬顯孝 | 奉朝賀洪鳳漢/ 領府事 金相福 | 議政府右參贊朴相德 | 규13581 |
| 1800 | 정조 | 文成武烈聖仁莊孝 | 左議政 李時秀 | 行議政府左參贊金文淳 | 규13634 |
| 1835 | 순조 | 文安武靖憲敬成孝 | 領中樞府事李相瓚 | 永明尉洪顯周 | 규13669 |
| 1849 | 헌종 | 經文緯武明仁哲孝 | 領敦寧府事洪在龍 | 行漢城府判尹趙冀永 | 규13784 |
| 1864 | 철종 | 文顯武成毅仁英孝 | 永明尉 洪顯周 | 行大護軍 成原默 | 규13844 |

(6) 17세기 금보 제작 장인

17세기 들어 寶匠을 가장 먼저 징발하는 때는 1608년 선조의 사후 3년상이 끝나고 선조와 의인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던 1610년에 금보를 제작하면서부터이다.

가. 보장과 보전각장

1610년 당시 금보를 만드는 책임은 보장 변수였던 李齡金이었고, 보장은 劉夢松이었다. 이후 1649년 인조의 사후 국장 때 시보를 만든 보장은 보이지 않는데, 銀匠은 金仁國, 徐士吉, 朴信이었고, 이것을 녹이는 注匠은 朴彦信과 安聖民이었다.

그밖에 17세기 후반에 보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장인은 朴汗吉, 朴守英, 鄭貴龍, 朴成建, 朴尙元, 郭二山 등이다.

<표> 17세기 금보 제작에 참여한 보장, 보전각장 및 다회장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寶匠, 金寶匠 | 篆刻匠, 寶篆刻匠 | 多繪匠 | 소장번호 |
|------|----------|----|----|-------------------|-------------------|---------------|--------|
| 1608 | 선조 | 국장 | 3방 | 李齡金(邊首), 劉夢松 | - | - | 꺄13212 |
| 1610 | 선조의인후 | 부묘 | 3방 | 李齡金(邊首), 劉夢松 | 味匠 姜命希, 金守智 | 申長福, 金巳仁 | 꺄13512 |
| 1639 | 인조장렬후 | 가례 | 3방 | 金暹 | 味匠 嚴禮龍, 林成一 | 金景伯, 金大守(京) | 꺄13061 |
| 1649 | 仁祖 | 국장 | 3방 | 두석장 | | | 꺄13521 |
| 1659 | 孝宗 | 국장 | 3방 | 豆錫匠 姜立, 金禮龍 | | | 꺄13527 |
| 1670 | 신덕후 | 부묘 | 2방 | 朴汗吉 | 安善一, 李天業, 朴成建 | 朴戒男 등 5명 | 꺄13496 |
| 1674 | 인선후 | 국장 | 3방 | 朴汗吉 | 寶篆刻匠 朴成吉 | 金日男 등 6명 | 꺄14865 |
| 1675 | 현종 | 국장 | 3방 | 朴汗吉 | 寶篆刻匠 朴成建 | 金日男 등 6명 | 꺄13539 |
| 1676 | 인선후 | 부묘 | 2방 | 朴汗吉 | 安善吉, 李天業, 朴成建 | 李吉伊 등 6명 | 꺄13536 |
| 1677 | 인경후중전 | 책례 | 2방 | (金)朴汗吉 | 朴成建 | 姜吉, 崔雲起 | 꺄13082 |
| 1681 | 仁敬后 | 국장 | 3방 | 朴守英, 朴汗吉 | - | 金日男 등 5명 | 꺄13553 |
| 1681 | 숙종인현후 | 가례 | 3방 | 鄭貴龍 | 朴守英, 朴尙建, 李珍松 | 金一男, 朴戒男, 金得英 | 꺄13084 |
| 1684 | 명성후 | 국장 | 3방 | 朴成建, 朴守英 | - | 金一男 등 6명 | 꺄14869 |
| 1684 | 명성후 | 부묘 | 2방 | 朴成建, 朴守永 | 朴成建, 朴守永 | 崔雲起(尙衣院) | 꺄13545 |
| 1691 | 장렬후 | 부묘 | 2방 | 朴成建(觀象監), 朴相云(訓局) | 朴成建(觀象監), 朴相云(訓局) | 金一男, 全永贊(尙衣院) | 꺄13525 |
| 1694 | 인현후 | 책례 | 2방 | (金)朴成建 朴尙元 | | 李永善, 吳永善 | 꺄13086 |
| 1699 | 단종정순후 복위 | 부묘 | 2방 | 朴成建, 朴尙元, 郭二山 | 朴尙元 | 李永先, 朴起善 | 꺄13503 |

보장은 박한길을 비롯하여 박성건 및 박상원 등으로 이어지는 박씨 집안이 보장으로 활약하는 것이 확인된다. 박한길은 1670년부터 1676년까지 6년간 활약했던 데 비해 박성건은 1683년 이후부터 32년간 금보전각장으로 금보 제작에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박한길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던 반면, 박성건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장인은 1681년부터 보장이던 박수영이다. 그는 1681년부터 1686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그러면서 그를 지칭하는 장색의 명칭은 보장을 비롯하여 보각장, 보전각장 및 보록장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보장이나 금보장이나 전각장 및 보전각장 등으로 불렸던 장인 중 한 명이 박상원이다. 그 또한 입사장이 이른 시기부터 10년 내지 20년간 여러 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던 것과 달리 금보를 제작하는데 장기를 지닌 보장으로 장기간 활동하는 장인은 비교적 늦은 167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

박한길과 박성건은 1674년에 함께 도감에서 금보를 제작한 이후 1675년 현종의 국장 때에도 박한길은 보장으로 금보를 만들었고, 박성건은 보전문장으로 금보의 글자를 새기는 역할을 분업적으로 수행하며 시호보를 제작하였다. 1676년 인선왕후를 종묘에 부묘하면서 금보를 제작할 때에도 박한길은 보장으로 금보를 만들었고, 박성건은 전각장으로 안선길이나 이천업과 함께 금보의 글자를 새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숙종 대가 되면 보장과 보전각장으로 분업화하여 입사장이 보에 전문을 새기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같은 도감 내 각방에서도 보전각장으로 동시에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물론 보전각장으로 활동한 장인은 입사장 중 일부이며 그들 중 금보를 제작할 때 전각장으로 동원되면서 입사와 전각을 동시에 겸업한 이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입사장은 입사일에만 전문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이때 박상원은 소속 관청을 훈련도감인 훈국으로 병기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숙종 때부터 상설아문의 복설 및 장인 조직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는데 이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7세기의 寶匠이나 寶篆刻匠으로 장색을 넘나든 朴汗吉이나 朴成建, 朴守英 및 朴尙元은 당시 여러 도감의 금속공예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보장 朴汗吉은 1652년부터 1681년까지 활동하였는데 특히 1670년부터 1681년까지 여러 곳의 도감에서 금보를 제작한 17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보장이다. 그가 보장으로 제작한 금보는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의 국장 때 시보, 1675년 현종의 국장 때 시보, 1676년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책봉금보(고박152), 1681년 인경왕후의 사후 시보(고박151)가 있다.

보장 朴成建의 경우 1661년 注匠으로 도감역을 지기 시작하여 1667년에는 금보에 전문을 새기는 篆刻匠이자 입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670년 태조비 신덕왕

후를 복위시켜 종묘에 부모할 때부터 전각장으로 금보제작에 참여하였다. 1671년 숙종 왕세자로 가례를 치를 때 등에는 입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674년 인선왕후의 국장 때, 1675년 현종의 국장 때 諡寶를, 1684년 명성왕후의 시호금보(고박150)를, 1686년 명성왕후의 신주를 부모할 때 휘호금보의 제작에는 보장이었고,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개수할 때 금보를 개수할 때에는 박성건과 박수영이 전각장으로 참여하였다. 1690년 장희빈을 중궁전으로 책봉하는 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입사장으로, 1691년 장렬왕후의 신주를 부모할 때 추상휘호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보장이자 전각장으로, 1694년 인현왕후의 중궁전으로 책봉금보(고박 165)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장, 1699년 정종과 정안왕후의 시호도감이나, 태조와 신의왕후, 태종과 원경왕후의 시보를 다시 제작하여 올릴 때도 보전각장,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의 국장 때는 보장이었다. 이처럼 박성건은 1661년부터 1702년까지 41년간 활동하였다. 이후로도 박성건과 박수영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국왕과 왕후의 국장에서 시보를 제작하였던 보장이었다. 이것은 박상건과 박상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금보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인이 박씨 성을 가진 장인들로 장인집안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장 朴尙元은 이미 1690년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할 당시에 금보를 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던 장인이다. 당시 박성건과 함께 금보장으로서 활동을 하였으며, 박성건과 1691년 장렬왕후를 종묘에 부모할 때, 1694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699년 단종과 정순왕후를 복위시켜 부모할 때, 1702년 인현왕후의 국장 때, 그리고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례 때 보전각장으로서 함께 활동하였다. 박상원이 금보장으로서 한 획을 그은 것은 1705년 바로 숙종이 명종의 금보를 개조하고자 개설했던 금보개조도감에서 1705년과 신의왕후와 4대 조부모의 금보를 제작할 때에도 보장으로 활동한 것이었다. 이처럼 박상원은 1694년부터 1705년까지 10년간 금보를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금보장, 보장, 보전각장, 전각장 및 입사장으로도 불렸다.

17세기에 보장이 제작한 금보 위에 보전문서사관이 쓴 전문을 토대로 조각하는 장인은 각수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寶篆匠이나 寶篆刻匠 및 篆刻匠으로 불렸고, 19세기에는 이들 금보를 새기는 각수들을 금보소이장, 보소이장 보소이장, 보소이각수 등으로 더 상세하게 불렸다.

나. 다회장

시보와 끈을 합쳐 ‘寶綬[印綬]’라 부른다. 어보에 매다는 끈은 ‘綬兒’라고 하는데, 그 재료는 홍진사 2냥 1푼, 홍향사 8돈, 금전지 3장, 황밀 1근 11냥, 유문홍단 7치, 풀숨 5돈, 자적초 길이 2자, 나비 2치, 꿩털 홍진사 1푼, 금전지 2장, 남진사 1돈, 수은 4냥이다. 이러한 재료로 끈을 짜는 장인은 다회장이다. 국장도감에서는 시보

를 제작할 때마다 다회장이 인수를 제작하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국장도감의 3방에는 다회장은 5~6명을 차출하여 함께 작업을 하였다.

17세기의 다회장의 숫자는 제작할 금보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왕비나 세자빈을 책봉할 때 책봉 금보 1과의 보수를 제작할 때에는 대체로 2명의 다회장을 동원하였고, 금보의 숫자가 많은 부묘도감이나 국장도감 때에는 5~6명을 동원하였다. 17세기의 다회장으로는 金太福, 朴戒男 및 金日男 등이 대표적이다.

박계남의 경우 옥인의 印綬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다회장 박응남과 형제지간이다. 박계남은 박응남과 함께 형제 다회장으로서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부터 함께 활동하였다. 이들 형제는 1651년부터 1661년까지 10년간 거의 모든 도감에서 박응남을 우두머리 삼아 형제 다회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당시 그들 형제 이외에도 박충남까지 ‘男’자 돌림의 형제인 것이 확인되며, 1681년 인경왕후의 국장 때까지 30년간 여러 도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649년 인조의 국장 때 시호금보에 수아를 제작한 다회장은 金太福 등 6명이다. 김태복의 경우 1644년 녹훈도감부터 수아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1645년 효종의 세자빈을 책봉하는 책례도감,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하거나, 인조와 장렬왕후를 존숭할 때나, 인조와 인렬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거나, 1652년 현종과 명성왕후의 국혼 및 1667년 숙종을 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그리고 1671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까지 1644년부터 1671년까지 27년간 다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7세기 말에 가장 활발하게 국역을 지면서 어보의 受兒를 제작한 다회장은 金一(日)男이다. 그는 1671년 숙종이 왕세자로서 인경왕후와 가례를 치를 때부터 1675년 현종의 실록을 편수할 때, 1681년 숙종과 인현후의 가례 때, 1681년 태조와 정종 및 태종 등의 시호를 올릴 때, 장렬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수개하거나 같은 해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1686년 명성왕후나 1691년 장렬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 보인에 수아를 제작하는 다회장이었다. 이처럼 김일남은 1671년부터 1691년까지 17세기 말 20년간 책봉이나 존호 시에 제작하는 보인에 수아를 갖추는 다회장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숙종상시호금보, 1720, 어보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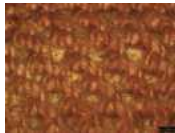
<효의왕후책봉금보, 1778, 어보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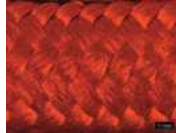
<순조상시호금보, 1835, 어보60>



끈목



방울



끈목



방울



끈목



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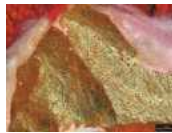
술끝



금진지



술끝



금진지



술끝



금진지

(7) 18세기 금보 제작 장인

조선 후기 시보의 제작은 1757년(영조 33)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한 이후 황동黃銅으로 주조하고 도금하며, 크기는 사방 3치 5푼, 거북이뉴[龜鈕]의 높이는 1치 5푼, 두께는 8푼이었고, 인수는 다홍사로 만든다. 시보는 두석으로 주조한 보통에 담고, 이것을 다시 잣나무 위에 자서피紫黍皮로 싼 보룩에 넣는다. 인주印朱는 보통과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주통에 담아 주룩에 넣는다. 이렇게 만든 시보와 보통과 보룩, 주통과 주룩은 가죽으로 만든 호갑에 넣도록 한 것이다. 보통과 주통의 도금은 삼보수三浦水로 대신하였다.

<표> 18세기 금보 제작에 참여한 보장, 보전각장 및 다회장의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寶匠, 金寶匠 | 多繪匠 | 소장번호 |
|------|-------|----|----|----------------------|---------------|--------|
| 1702 | 인현후 | 국장 | 3방 | 朴成建, 朴尙元 | 李必祥 등 6명 | 규13555 |
| 1702 | 肅宗仁元后 | 가례 | 3방 | 보전각장 朴成建 朴尙元 | 吳永善, 閔恣致 | 규13089 |
| 1705 | 금보개조 | | 별단 | 朴尙元 등 2명 | | 규14949 |
| 1705 | 금보개조 | 추보 | 1방 | 安樂成, 田時滄, 崔承立, 羅世明 | 李墨開, 崔有奉, 李五壯 | 규14948 |
| | | | 2방 | 郭二山, 鄭武信, 鄭有成, 表正吉 | | |
| | | | 3방 | 朴尙元, 林澤虎, 李以善, 安萬雄 | | |
| 1721 | 숙종 | 국장 | 3방 | 表時材, 金成○ | | 규13548 |
| 1722 | 端懿后중전 | 冊禮 | 2방 | (金)表時才(訓局), 劉興世(御營廳) | 安五奉(尙方) | 규13097 |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寶匠, 金寶匠 | 多繪匠 | 소장번호 |
|------|------------------|----|----|---|---|--------|
| 1725 | 경종 | 국장 | 3방 | (金)表時才, 金成元 | | 규13566 |
| 1726 | 貞聖后중전 | 冊禮 | 2방 | (金)表時才, 劉興世 | 田二江(尙方) | 규13100 |
| 1731 | 선의후 | 국장 | 3방 | 李弘成(訓局), 黃時傑(內司) | 安俊萬(尙方), 吳泰奉, 鄭俊贊(訓局), 李東先(尙方), 林老味, 金世徵(以上 私匠) | 규13576 |
| 1739 | 단경후복위 | 부묘 | 2방 | 李弘成, 朴泰亨(訓局) | | 규13506 |
| 1740 | 효종 | 시호 | 2방 | 朴太亨(訓局), 李弘成(訓局) | | 규13264 |
| 1754 | 인원후 | 존호 | 2방 | 朴太亨, 表成采, 鄭順興, 李守根, 李喜得(以上 訓局), 陳再起, 李啓昌, 徐正漢(以上 尙衣院) | | 규13294 |
| 1756 | 숙종 | 존숭 | 2방 | 表成采(訓局), 朴守崑, 陳再起(以上 尙衣院) | 徐太石(尙衣院), 林得春, 金龜齡, 李渭望(以上 訓局) | 규13269 |
| 1756 | 인원후, 숙빈, 영조, 정성후 | 존숭 | 2방 | 表成采[訓練都監], 朴守崑, 陳再起[以上訓練都監] | 徐太石[尙衣院], 林得春, 金龜齡, 李渭望[以上訓練都監] | 규14890 |
| 1757 | 인원후 | 국장 | 3방 | 表成采 | 安俊萬, 鄭俊贊, 安世達, 金彭齡 | 규13557 |
| 1759 | 영조, 정순후 | 가례 | 3방 | 河有福, 表成采 | 劉恣江, 朴得春, 梁聖起, 朴枝興 | 규13102 |
| 1776 | 장조 | 봉원 | 3방 | 表德運, 金卜世 | 姜渭賓, 鄭重珎 | 규13337 |
| 1777 | 진종 | 추송 | 2방 | 表德運, 金元柱/召耳匠 韓贊柱, 李聖位 | 金相行, 李次福, 金興世 | 규13327 |
| 1778 | 정조효의후 | 책례 | 2방 | 表德運 | 崔光運 | 규13116 |

가. 18세기의 보장

18세기 초에는 표시재와 표정질, 표성채 및 표덕운까지 표씨 집안이 입사장이면서 보장을 대표한다. 표시재(表時才)는 1718년부터 1719년까지는 입사장이었고, 1720년 훈련도감의 장인으로서 숙종의 국장시 시보를 만들었다. 같은 해에 경종이 영조를 왕세제로 책례할 당시 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입사장이었고, 1725년 경종의 국장도감에서 시보를 만드는 보장으로서 1등상을 받았다. 그는 초기에는 입사장으로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1720년 금보를 제작하면서 보장 내지 금보장으로 불렸고, 석물을 조각하는 도감에서는 섭장으로, 존호보를 제작할 때에는 입사장으로 활약하여 보장과 입사장 및 섭장의 기술적 친연성을 엿볼 수 있다.

보장 김성원은 부금장으로서 1720년 숙종 시보의 제작, 1722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이나 1726년 영조가 정성왕후를 복위시켜 왕비로 책례하는 도감에서는 훈련도감에 소속된 두석장으로 참여하였다. 금보 위에 도금할 때 부금장이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보장 이흥성은 1725년 경종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할 때 표시재와 함께 도감역에 참여했다. 1726년 영조비 정성왕후를 왕비를 책봉할 때,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 내수사의 보장 황시걸(黃時傑)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그는 1740년까지 보장이자 입사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표정길이나 표시와 함께 표씨 집안은 18세기 내내 입사장이었다가 금보를 만드는데 특기가 있던 장인 가문이었다. 이것은 표시재의 뒤를 이은 표성채와 표덕운이 그들이다. 표성채의 경우 1754년부터 1772년까지 활동하였다. 1754년 숙종과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757년 숙종비 인원왕후의 국장, 같은 해에 치러진 영조비 정성왕후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한 보장이었다. 1762년 정조 왕세손이 효의왕후와 국혼을 치를 때에는 은인장이었다.

나. 18세기 보전각장

표씨 집안의 표덕운은 1772년부터 1800년까지 보장을 비롯하여 은장, 인장, 인통장印筒匠 등 여러 장색에서 활동하였다. 1772년 현종을 추존하고 영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훈련도감 소속의 인장, 1776년 정조가 즉위하고 영조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할 때 보장, 1777년 정조가 종법상의 부친인 진종을 추송하여 추상시보를 제작할 때 보장이었다. 그러나 1778년 이후 다양한 장색으로 불렸다. 1778년 영조와 정성왕후 및 진종을 종묘에 부묘할 당시 시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각수, 1795년 영조와 정순후 및 장조와 헌경후에게 존호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각수金刻手 혹은 금인장金印匠으로 불렸다. 1800년 정조가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책봉인을 만들거나 정조의 사후 빈전에서는 두석장으로 국역을 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장이나 금각수 금보각수라 불린 점으로 미루어 단순히 주물을 떠서 거북뉴의 형태를 제작하는 일 뿐 아니라 글씨를 파고 새기는 데에도 일가견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鄭武信은 원래는 17세기 말 18세기 초까지 30여 년간 입사장으로 이름이 났지만 보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그가 최초로 국역을 졌던 시기는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인데 이때 입사장이었으며, 이후 1690년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할 때, 1702년 인현왕후의 명릉 산릉도감에서도 여전히 입사장이었다. 다만 정무신은 1705년 금보를 개조하던 도감에서 유일하게 보장으로 동원되었을 뿐, 이후에도 입사장이었다. 곧 그는 1690년부터 1720년까지 총 31년간 입사장이었다.

18세기 후반기에는 보전각장은 보이지 않고, 대신 소이장이나 보소이장 및 은인 소이장 등이 등장한다. 이들의 기능은 글씨를 새기는 역할이다. 보소이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장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들 소이장은 훈련도감의 군문 장인으로서 나머지 사적 생산에 종사하는 私匠 1명 혹은 5명의 장인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활약한다.

다. 다회장

왕이나 왕후의 어보에 수아를 제작하는 다회장은 17세기에는 도감마다 6명이었으나, 영조 때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한 이후 다회장의 숫자는 6명에서 4명 및 2명

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당시 1개 도감에서 금보 1개를 제작하면 다회장은 2명이었고, 금보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인원수도 늘어났고,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3~4명이었다. 당시 다회장 우두머리는 李必祥, 李東先, 安俊萬, 劉恠江, 姜渭賓, 金相行, 崔光運 등이 있다.

1702년 숙종비 인현왕후의 국장 때 시보인 금보에 다회를 한 다회장은 이필상 李必祥을 비롯한 6명이었다. 이 중 이필상 1702년부터 1719년까지 여러 도감에서 활동하였으며 상의원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다회장 이동선 李東先은 1702년부터 1731년까지 18세기 초반 29년간 다회장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장인이다. 1702년 인현왕후 국장, 1718년 단의빈 예장, 1721년 숙종 국장, 1725년 경종 국장, 1731년 선의왕후 국장 등 4번의 국장과 1번의 예장에서 시보에 수아를 제작하였던 18세기 초의 대표적인 다회장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719년 경종과 선의왕후와의 국혼 때와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때에는 상의원 소속임을 병기하여 관공장으로서 다회 작업에 참여한 것도 확인된다.

다회장 안준만 安俊萬은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으로서 18세기 중반에 가장 활발하였다. 안준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발견되는 때는 1722년 단의왕후에게 중궁전을 책봉할 때부터이고, 1757년 정성왕후의 국장 때까지 35년간 1725년 경종의 국장, 1731년 선의왕후의 국장, 1757년 정성왕후의 국장 등에서 참여하여 시보의 수아를 제작했다. 훈련도감의 다회장 정준찬 鄭俊贊은 1726년부터 1757년까지 30년간 활동하였는데, 대부분 상의원 소속의 안준만이 앞에 서서 이끌면서 시상을 받았다. 한편 다회장 임로미의 경우 1725년부터 1748년까지 23년간 안준만이나 정준찬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 기간동안 임로미는 상의원 장인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어느 순간 사장이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상설아문인 상의원 소속의 관공장과 5군영인 훈련도감의 군공장 및 민간의 사적 생산에 종사하던 사공장까지 힘을 합쳐 제작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위빈 姜渭濱은 1772년 선원보를 수정할 때부터 1795년까지 18세기 말까지 23년간 국역을 졌다.

다회장 유말강의 경우 여러 명의 다회장 중에서 상의원 소속의 유말강이 다회장의 우두머리로서 인수를 비롯한 각종 끈을 제작할 때 다른 다회장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그가 18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다회장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그는 다회장으로 장인 집안을 이루고 있기도 했는데, 그보다 앞서 1667년부터 1681년까지 10여 곳의 도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다회장이면서 국역을 졌던 劉恠龍의 존재에 의해서 확인된다.

(8) 19세기 금보 제작 장인

19세기의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에서 왕비를 책봉한 책봉 금보, 국왕이나 왕비의 존호존숭도감에서 존호를 새긴 존호금보를 제작한 금보는 2~3명 내외이고, ‘왕비

지보'이나 존호를 새긴 보소이각수나 금보소이장은 1~2명이며, 寶綬를 제작한다. 회장은 3~4명 정도이다. 당시 왕이나 왕후의 사후 시보로 금보를 제작할 때 보장과 보전각장[소이장]이 주도하여 보장 2명, 보전각장 1~2명, 보통장은 1명 정도이다.

19세기에 보장은 1800년 2~3명이었고, 그중 1~2명이 1등상을 받았다. 금보 위에 전문을 새기는 각수는 보전각장이나 금보전각장, 혹은 보소이장, 보소이각수 등으로 불렸으며, 대개 2~3명이 참여하여 1명이 2등상을 받았다.

<표> 19세기 금보장, 금보소이장 및 다회장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 보장, 금보장 | 금보소이장 | 다회장 | 유물번호 |
|------|--------------|----|----|----|----------------------------|----------|--------------|---------|
| 1800 | 정조 | 국장 | 3방 | | 申大義, 朴秀桂, 表命得 | 金興喆, 金福星 | 姜興喆 등 6명 | 규13634 |
| 1802 | 순조순원후 | 가례 | 3방 | | (金)表命得 | | 崔守昆 등 2명 | 장2-2595 |
| 1835 | 문조 | 추승 | 2방 | | 全龍得, 辛三福 | 召伊匠 全三得 | 李春成, 李春起 | 규13396 |
| 1837 | 헌종효현후 | 가례 | 3방 | | 全三得 | 林啓祿 | 嚴光憲 | 규13139 |
| 1845 | 헌종효정후 | 가례 | 3방 | | 全三得 | 龍興喆 | 李成大 | 규13143 |
| 1848 | 순조문조 | 존호 | 별단 | 1등 | 全三得 | | | 규13348 |
| 1852 | 철종철인후 | 가례 | 3방 | | 全興石 | 李東郁 | 李振基 | 규13147 |
| 1853 | 순조순원후 | 존호 | 별단 | 1등 | 全三得 | | 李振基(3등) | 장2-2817 |
| 1853 | 문조헌종 | 존호 | 별단 | 1등 | (金)全三得 | | | 장2-2818 |
| | | | | 2등 | (金)鄭萬成(3등) | 寶雕伊匠 鄭再得 | 李允伊 등 2명(3등) | |
| 1857 | 순조 | 존호 | 2방 | | 金命福, 龍得煥 | | 李潤伊, 文延煥 | 장2-2847 |
| 1861 | 순조순원후 | 존호 | 2방 | | (金)朴興石 | | 崔漢永 | 규13365 |
| 1866 | 문조헌종철종 | 존호 | 2방 | | (金)金甲芑, 朴啓昌 | | 鄭仁宅 | 규13408 |
| 1875 | 문조신정후 | 존호 | 2방 | | 朴有正 | | 李永俊 | 규13412 |
| 1878 | 보인소 | | 별단 | 2등 | 全興吉, 安順祿, 閔祥浩, 石漢鼎 | | | 규14212 |
| 1888 | 문조신정후 | 존호 | 별단 | 1등 | 金喜生(帖加) | | | 규13460 |
| 1888 | 신정후 헌종효정후 | 존호 | 2방 | | 金興吉 | | | 규13473 |
| 1890 | 숙종 | 존호 | 2방 | | 全興吉 | | | 규13272 |
| 1898 | 고종 | 大禮 | 별단 | | 全興吉, 全壽命, 全億萬, 全一萬 등 3명 | | | 규13486 |
| 1906 | 순종순종비 | 가례 | 3방 | | 金景祿 | | | 규13182 |
| 1907 | 순명후 | 冊禮 | 별단 | | 李元植 등 3명 | | | 규13190 |

가. 19세기 보장

보장 중 19세기 전반기에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장인은 신대의申大義, 유광옥劉光玉, 신경철申慶喆, 신삼복辛三福, 전삼득全三得, 이완근李完根 등이고, 19세기 후반기에는 전홍석全興石과 최도길崔道吉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보소이각수의

경우 19세기 전반에는 표명득表命得, 전삼득, 권복이權卜伊, 전흥길全興吉이 있다. 이중 표명득과 전삼득과 전흥석 및 전흥길 등은 보장과 보각수를 넘나들며 오랫동안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최창언崔昌彦과 이귀동李貴同 및 유치억俞致億이 오랫동안 여러 도감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통장의 경우 19세기 초반에는 박덕득朴德得이, 그밖에 방차함方且咸, 정치영鄭致永, 이인식李仁植, 전삼득, 김재손金再孫, 박영식朴永植, 하종문河宗文 등이 있다.

19세기의 보장과 보소이각수는 모두 금속을 다루는 장인들이어서 금보를 제작할 때에는 이들 명칭으로 불리지만, 두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롭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19세기 보각수나 보소이장

왕이나 왕후의 국장마다 장식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 때에 시보를 제작하는 금보소이장金寶召伊匠이나 보소이장으로, 1816년 헌경 혜빈의 상례 때에는 인장이나 금인소이장金印召伊匠으로, 1821년 정조비 효의왕후의 국장 때 시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소이장이나 금보소이각수金寶召伊刻手로, 1822년 현목 수빈의 예장 때에는 인소이장印召伊匠이나 은인각수銀印刻手로 불렸다. 하나의 도감에서 같은 이름이 아닌 다 다른 장식의 이름을 불린 점이 특징이다.

19세기의 表命得, 全龍得, 全三得, 全興吉은 보장이면서 각수 역할도 함께 하였는데, 각수로만 기록된 이들로 金興喆, 林啓祿, 權卜伊, 龍興喆, 崔昌彦, 金漢吉, 李得孫, 金性得, 孫仁浩, 俞致億, 李元永, 車今成, 任壽, 金萬吉, 裴德淳 등이다.

예컨대 표명득은 1819년 문조와 신정왕후의 국혼 때와 1823년의 현목 수빈의 휘경원을 천릉할 때에는 줄장으로 차출되거나, 1821년 정조의 건릉을 천릉할 때에는 노야소의 납염장鑷染匠으로 국역을 졌다. 표명득은 보장, 금보장을 비롯하여 금보소이장, 보소이장, 인장, 금인소이장, 금보소이각수, 인소이장, 은인각수, 줄장, 납염장, 제기두석장 등 많은 장식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종류의 장식은 금속을 다루고 세밀하게 글자를 새길 수 있어 입사의 의미를 지닌 소이, 혹은 쯤이의 기법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세기 말 보장(寶匠)은 전흥길(全興吉), 전수명(全壽命), 전억만(全億萬), 전일만(全一萬)이다. 이들 전씨 가문은 보인을 제작하는 데 특장을 보이는 장인가문으로서, 특정 기술이 가업으로 세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전흥길의 경우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 금보를 제작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였던 19세기 말의 대표적 보장이자 보소이장이다. 전수명 또한 1875년부터 두석장, 조각장, 소은장, 마조장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 후 1890년 문조와 신정왕후의 추상존호보를 만들 때에는 금보장이자 소은장이었다. 1892년 문조와 신정

왕후의 상호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장이자 쪼이장(雕伊匠)이었다. 1875년부터 1897년까지 22년간 금보를 제작하였다.

보면을 새긴 소이장(召伊匠)은 김제당(金濟塘)과 전일득(田一得),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낸 마경장(磨鏡匠)은 유치혁(柳致赫)과 이구성(李九成), 도금을 위해 금을 녹인 금장(金匠)은 김희영(金喜永), 안일성(安一成), 김후복(金厚福), 은을 녹인 은장(銀匠)은 최종환(崔宗煥), 이완근(李完根), 용뉴의 형태를 주물을 만든 주장(鑄匠)은 김원여(金元汝), 한치옥(韓致玉)이다. 이들 19세기 말 장인들은 대개 1회성으로 활동할 뿐이었다.

다. 19세기 다회장

19세기 가례도감이나 존호존숭도감에서 보수를 제작한 다회장의 숫자는 대체로 1~2명이었다. 당시 다회장으로서는 姜興喆, 崔守昆, 李春成, 嚴光憲, 李成大, 李振基, 李允[潤]伊, 崔漢永, 鄭仁宅, 李永俊 등이다. 당시 금보의 구멍에 수아를 만드는 다회장의 숫자는 불어난다. 다회장 중 오랜 기간 활동한 장인은 姜興喆, 李春成, 嚴光憲, 李成大, 李振基, 李允[潤]伊, 崔漢永, 鄭仁宅, 李永俊 등이 있다.

다회장 강홍철의 경우 다회장 姜興喆은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 옥인의 인수를 제작한 장인이다. 그는 1776년 영조 국장도감과 사도세자를 추송하는 도감부터 기록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18세기 말이 되면 상설아문 소속이나 훈련도감 등 오군영의 소속임을 병기하지 않아 대부분 다회장은 사장화되었다. 이후 18세기 말의 대부분 도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도감 3방에서는 12명의 다회장 중, 표석소에서는 6명의 다회장 중 가장 앞쪽에 기록되어 해당 제작처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그는 1776년부터 1805년까지 29년간 13곳의 도감에서 다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활동한 도감의 제작처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로 가장 앞에 기록되었다.

무엇보다도 다회장 중 이씨 ‘춘’자 돌림의 장인 집안을 형성하였다. 1830년 효명세자의 사후 예장도감에서는 1방에 이춘업과 이춘성이, 2방에는 이춘업이, 3방에는 이춘업과 이춘근 및 이춘기 등이 함께 참여한 것이다. 이춘업은 당시 1방, 2방, 3방의 모든 제작소에서 다회장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4형제와 함께 한꺼번에 각방에서 옥인에 필요한 인수를 비롯하여 각종 끈을 제작하는데 간여한 것이 확인된다. ‘춘’자 돌림의 이춘성은 이후 1882년까지 52년간 국역을 지면서 다회장 장인 집안을 형성하였던 것이 확인되지만 이후 도감에 참여한 다회장들은 하나의 도감에 1명의 다회장 밖에 부르지 않아 장기간 활동한 장인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9) 대한제국기 금보 제작 장인

『대례의궤』에 의하면 <칙명지보>를 비롯하여 <명성황후책봉금보> 등 7종의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은 ‘보책조성시별단’에 의해 확인된다. 그중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은 금장(金匠), 은장(銀匠), 주장(鑄匠), 보장(寶匠), 천혈장(穿穴匠), 소이장(召伊匠), 마경장(磨鏡匠) 등이다.

보장(寶匠)은 전흥길(全興吉), 전수명(全壽命), 전억만(全億萬), 전일만(全一萬)이다. 이들 전씨 장인들은 19세기 말 보인의 제작을 가업으로 세습한 장인 가문이었다. 전흥길의 활동시기는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이며, 전수명은 1875년부터 1897년까지 22년간 금보를 제작한 보장이자 보소이장[쪼이장]이었다. 이들은 19세기 말 여러 도감에서 조선왕실의 보인이나 대한제국의 새보를 제작하였다.

한편 보면의 글씨를 새긴 소이장(召伊匠)은 김제당(金濟塘)과 전일득(田一得)이다.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낸 마경장(磨鏡匠)은 유치혁(柳致赫)과 이구성(李九成)이다. 도금을 위해 금을 녹인 금장(金匠)은 김희영(金喜永), 안일성(安一成), 김후복(金厚福)이다. 은을 녹인 은장(銀匠)은 최종환(崔宗煥), 이완근(李完根)이다. 용뉴의 형태를 주물을 만든 주장(鑄匠)은 김원여(金元汝), 한치옥(韓致玉)이다. 이들 중 금장 김희영은 1885년부터 1907년까지 22년간 활동하는 동안 여러 도감에서 대부분 부금장(付金匠)이어서 국새를 제작할 때 도금을 했을 것이다. 주장 김원여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9년간 유기장[鑄匠]으로도 활동하였다.

금속공예 장인들이 새보를 만드는 역할은 분업적으로 협업을 한다. 은장(銀匠)은 천은을 녹이고 용뉴와 보면을 땀하고, 주장(鑄匠)은 용모양 손잡이[용뉴]를 밀납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 백토로 만든 풍로 위 도가니 속에 녹여 만든다. 금장(金匠)은 황금을 수은과 붕사 및 비상으로 녹이는 수은 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는 역할을 한다. 보장(寶匠)은 용 형태를 각도(刻刀)로 새기고 쫄정(鬚釘)과 세정(細釘)으로 쪼아서 제작한다. 천혈장(穿穴匠)은 용의 배 부분의 구멍을 뚫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이장(召伊匠)은 보면(寶面)의 전각(篆刻) 부분을 쫄정(鬚釘)과 세정(細釘)으로 새긴다. 마경장(磨鏡匠)은 거친 숫돌[中礪石]이나 세밀한 숫돌[延日礪石] 및 오미자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어보』1·2·3, 국립고궁박물관, 2010.
- 국립고궁박물관, 『왕의 상징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2.
- 국립고궁박물관, 『다시 찾은 조선왕실의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9.
- 국립고궁박물관, 『어보, 과학적 분석』, 국립고궁박물관, 2020.
- 박성호, 「환수된 제고지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13호, 국립

- 고궁박물관, 2020.
- 성인근,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고궁문화』13호, 2008.
 -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 이경주,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활용」,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임현우, 「조선시대 어보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국훈과 연향용 공예품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3.
 - 제지현, 「조선시대 17~18세기 왕실 어보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제지현, 「고종 연간(1863~1907) 제작 어보(御寶) 연구」, 『문화재』Vol.54 No.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 제지현, 「조선 왕실 어보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2. 어책의 제작 방식과 장인

1) 옥책

○ 옥책의 개념과 종류

조선은 유교국가로 명분과 질서를 위한 신뢰와 예(禮)를 국가적 이념으로 여기던 시기이며, 기록문화의 전성기이다. 어책(御冊)은 이러한 조선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제작된 특색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책은 어보와 함께 과거 중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책봉제도(冊封制度)의 유산으로 왕비나 왕세자, 왕세자빈을 책봉하거나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 시호 등을 올릴 때 제작했다. 어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책은 왕이나 왕비 또는 왕대비 등에게만 올리던 책문이다. 옥책에는 수여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왕비의 책봉, 존호, 시호, 묘호, 휘호를 수여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목적 중에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가. 책봉 옥책

왕비의 책봉은 왕과 국훈을 통해 책봉되거나, 세자빈의 경우 세자가 왕위에 즉위한 후 왕비에 책봉된다. 왕비를 책봉하여 받아들이는 의식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납비의(納妃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데, 이 의례는 다시 택일(擇日),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봉영(奉迎), 동뢰(同牢), 왕비백관하례(王妃百官賀禮), 전하백관회례(殿下百官會禮), 왕비수내외명부조회(王妃受內外命婦

朝會)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 중 ‘책비’라는 절차가 왕비를 책봉하면서 옥책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이 때 왕비는 별궁에서 적의(翟衣)를 입고 교명·옥책·어보 등의 책봉문을 받게 된다. 계비의 경우에는 간택을 통해 왕비를 뽑아 국혼을 치르면서 왕비에 책봉된다.

선왕이 승하하고 세자는 닷새 만에 성복(成服)하고 빈전(殯殿)이 있는 침전(寢殿)의 정문에서 즉위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세자빈은 이때 바로 왕비로 책봉되지 않고 선왕의 삼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부모한 뒤에 거행한다.

『문원보불文苑繡黻』, 『종묘등록宗廟謄錄』, 『외규장각형지안外奎章閣形止案』 등에 수록된 책봉 옥책은 모두 30책이 수록되어 있으나 그중 15책의 책봉옥책이 현존하고 있다.

나. 존호 옥책

존호(尊號)는 왕이나 왕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이다. 대개 살아 있을 때 처음 존호를 올리면 상존호(上尊號), 두 번째 이후부터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사후에 올리는 것은 추상존호(追上尊號)이다.

조선 전기부터 경종대까지는 상왕이나 왕대비 및 대왕대비로 존숭할 때 존호를 올렸다. 그러나 영조대에 숙종계비 인원왕후에게 여러 차례 존호를 올렸고, 고종대에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자주 올렸다. 왕에게 존호를 올린 이유는 국가의 변란을 진압, 경사스러운 일, 장기간 즉위 등이다. 왕비의 경우 회갑이나 선왕의 즉위 등을 축하 등이다.

존호의 글자 수는 왕과 왕비가 다르다. 조선 초기에 왕의 존호는 네 글자였다가 세조대부터 여덟 글자로 정형화되었다. 왕비의 존호는 조선시대 내내 두 글자였다.

다.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옥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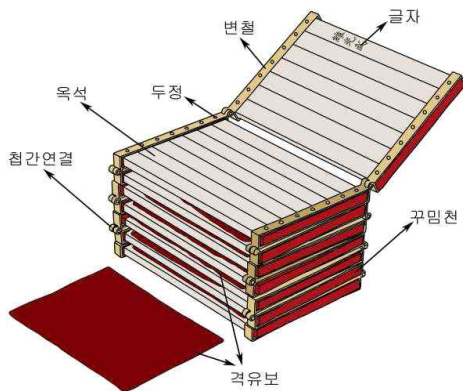
왕의 시호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중국에서 받는 두 글자의 시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묘호와 함께 올리는 여덟 글자의 시호이다. 하지만 중국에게 받은 시호는 옥책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묘호는 왕의 사후 종묘의 신위를 모실 때 붙이는, 종묘 신실의 명칭이다. 묘호의 글자 수는 2자로서, 태조부터 순종까지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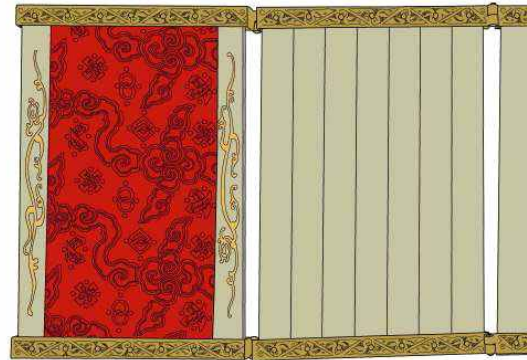
시호는 왕의 사후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결정되고, 묘호를 바꿀 때에 시호 또한 새로 올린다. 상시호는 처음 시호를 올리는 것이고, 추상시호는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묘호와 같이 표기되지 않고 시호만 올려지면 추상시호이다. 시호는 사후에 바로 정하여 금보에 새기고 그 뜻은 옥책에 새긴다.

왕후의 시호는 두 글자이며, 왕의 묘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왕이 살아 있을 때 왕후가 승하하면 시호만 주어지고, 왕이 이미 승하한 경우 왕후의 3년 상이 끝나면

시호와 휘호가 함께 부여된다. 휘호는 단 한 차례만 올린다. 휘호는 왕비에게만 올리며 두 글자도 있으나 대개 네 글자로 정형화되어 있다.



<옥책의 각 부분 명칭>



<진중옥책의 뒷면 모식도>

(2) 옥책의 체제와 형식

玉冊은 옥으로만 다듬어진 단일 품종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담아 놓는 여러 부속 공예품이 동시에 제작되었다.

조선후기 가례도감에서 옥책을 최초로 제작하였던 도감은 1638년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 때이다. 도감에서는 옥책을 제작하고자 玉冊色을 별설하였다. 당시 옥책색에서 제작한 玉冊諸具는 玉冊을 비롯하여 그것을 감싸는 보자기, 朱紅內函과 홀보자기, 黑漆外櫃와 홀보자기, 排案床과 巾 등 여덟 종류의 품목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옥책을 비롯한 조선왕실의 의물은 그것을 제작할 때마다 항시 선왕의 법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 변화가 크지 않았고, 다만 재료나 문양 등에서 약간의 시대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옥책을 만들 때 반드시 禮器尺을 사용하여 전후의 시기간에 차이가 없이 길이는 9치 내외, 너비는 각 1치 2~5푼이고 두께는 6푼이었다. 이와 같이 길이나 너비의 치수를 동일하게 한 이유는 옥책이 왕실의 가장 비중 있는 儀物이었으므로 예컨대 1681년에 숙종과 인현비의 가례 때에도 옥책만은 1676년의 冊禮 때에 만든 옥책을 선례로 삼아 제작하고 있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총258책의 옥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중 조선후기 국왕의 사후 국장도감 3방에서 시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국왕의 시책[상시호옥책] 중 10권이 현존하고 있다. 국장 시 국왕의 시책은 옥간과 극향은 규정을 따랐고, 행과 글자수는 제술문의 다과에 따라 달라져 옥책의 첩수에 영향을 미쳤다. 시책의 첩수는 보관을 위해 짝수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조선후기 현존 국왕 시호옥책 유물의 첩수와 옥간 및 글자수

| 대수 | 연대 | 국왕 | 도감 | 제작처 | 첩수 | 옥간 | 극향 | 행 | 글자수 | 유물번호 | 소장번호 |
|----|------|----|----|-----|----|----|----|----|-----|------|--------|
| 16 | 1649 | 인조 | 국장 | 3방 | 10 | 6 | 12 | 63 | 482 | 고박1 | 규13521 |
| 17 | 1659 | 효종 | 국장 | 3방 | 12 | 6 | 12 | 71 | 575 | 고박13 | 규13521 |
| 18 | 1674 | 현종 | 국장 | 3방 | 12 | 6 | 12 | 71 | 564 | 고박16 | 규13539 |
| 19 | 1720 | 숙종 | 국장 | 3방 | 14 | 6 | 12 | 75 | 660 | 고박19 | 규13548 |
| 20 | 1724 | 경종 | 국장 | 3방 | 14 | 6 | 12 | 84 | 765 | 고박23 | 규13566 |
| 21 | 1776 | 영조 | 국장 | 3방 | 12 | 6 | 12 | 72 | 720 | 고박28 | 규13581 |
| 22 | 1800 | 정조 | 국장 | 3방 | 16 | 6 | 12 | 95 | 984 | 고박37 | 규13634 |
| 23 | 1835 | 순조 | 국장 | 3방 | 12 | 6 | 12 | 68 | 686 | 고박44 | 규13669 |
| 24 | 1849 | 헌종 | 국장 | 3방 | 12 | 6 | 12 | 68 | 672 | 고박68 | 규13784 |
| 25 | 1864 | 철종 | 국장 | 3방 | 14 | 6 | 12 | 81 | 794 | 고박73 | 규13669 |

국왕의 시호옥책은 옥간 6개가 1첩인 것은 항례화 되어 있고, 극향을 12자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술관이 지은 책문에 따라 옥책의 첩수가 달라졌는데, 17세기에는 10첩 내지 12첩이었고, 18세기에는 14첩이었다가, 19세기에는 다시 12첩이 대세를 이루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조 때에는 가장 두꺼운 16첩이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649년 인조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글자수가 482자로 가장 짧아 이 때문에 63행이고, 시책의 첩수는 10첩로 가장 얇은 편이다. 이후 1674년 효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글자수가 575자로 71행, 현종 때는 책문의 564자로 71행이었다. 이 때문에 효종과 현종의 시책은 각각의 첩수가 12첩이다. 인조 때 10첩보다 책문의 양이 길어져 옥책의 첩수를 12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서 1720년 숙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669자로 75행, 1724년 경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765자에 84행으로 둘 다 14첩의 옥책으로 만들었다. 1776년 영조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720자에 72행으로 12첩이어서 두께가 얇아졌다. 하지만 1800년 정조의 사후 제술관이 지은 책문의 내용이 많고 길어져 책문의 글자수가 984자에 95행이어서 시책의 첩수는 16첩으로 제일 두껍다.

19세기에 들어서면 다시 시책의 첩수가 줄어든다. 1835년 순조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686자에 68행이어서 시책의 첩수는 12첩이고, 1849년 헌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도 672자에 68행으로 시책의 첩수는 순조대와 마찬가지로 12첩이다. 다만 1863년 철종의 사후 시책의 책문은 794자에 81행이고 시책의 첩수는 14첩으로 약간 두터워졌다.

이와 같이 국왕의 시책은 옥편 6간에 극향은 12향으로 공통되고, 시책의 첩수는 기본적인 책자 형식에 의해 짝수이지만 책문의 내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첩수가 약간씩 변화를 보였다. 시기별로 17세기 시책은 대체로 12첩, 18세기에는 14첩, 19세기에는 12첩인 것이 확인된다.

한편 조선후기의 도감에서 만들었던 옥책들은 가례와 책례, 존호·존숭 등 의전의 종류에 따라 책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가례 때의 옥책이 4~6첩인데 비하여 존호 때의 옥책은 前代의 왕이나 왕비를 기리는 글의 내용에 덕을 칭송하는 言辭를 길게 작성하였기 때문인지 가례시의 옥책에 비하면 무려 2배 이상이나 되었다. 1638년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 때에 제작한 옥책의 책수가 4첩이었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 현종대까지 가례 때마다 이것을 참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681년 숙종과 인현비의 가례 때 옥책은 1676년의 건양에 맞추어 6첩으로 제작하였고, 1702년 숙종과 인원비의 가례 때에도 옥책의 책수는 6첩이었다.

한편 옥책은 존호를 올릴 때마다 제작하기 때문에 옥책을 만드는 회수가 가례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현존하는 256권의 옥책도 대부분이 존호시의 옥책들이다. 일례로 文祖의 옥책은 그의 아들인 현종이 1835년 왕으로 즉위하던 해에 親父에게 諡號를 올리면서 만들기 시작하여 1902년 대한제국 때 고종이 翼皇帝로 尊號를 올리면서 만든 것까지 모두 15권이 현존한다. 가례 때의 옥책이 4첩이나 6첩을 만드는데 비해 존호 때의 옥책은 10첩, 또는 12첩, 14첩씩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례 때 보다 옥책수가 훨씬 많았으며 시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였다.

(3) 옥책의 재료

조선후기의 국장이나 국혼 및 존호존숭 때 옥책에 사용하기 위해 옥책용의 옥은 주로 경기도 南陽에서 채취하였다. 이때마다 반드시 監造官과 옥장을 함께 옥의 특산지에 파견하였다. 監造官은 옥산지에서 옥의 품질을 감별할 뿐 아니라 옥의 채굴을 독려하였다.

1674년 현종의 국상 때 시호옥책을 만들기 위해 남양에 감조관 洪受疇(1642~1704)를 보내고, 강화도에는 봉상시 부봉사인 李華鎭(1626~1696)을 보내어 전례에 의해 채취해 오도록 하였다. 시책을 제작하기 위해 남양에서 채취한 청옥 12괴, 태염태 1되, 백납 8돈이다. 옥 위에 넣는 니금 2돈 5푼과 명교 1돈 5푼을 섞어서 만든다. 상하를 장식하는 冊衣는 홍금선단 1자 9치인데 여기에 도련지 2장으로 배접을 한다. 상하 변철(編鐵)의 경우 백은 4돈, 수는 1냥, 도금용 황금 4돈, 비상 4돈 1푼으로 수은아말감 기법으로 도금을 했다. 책을 만들 변철은 24개인데 두정을 갖추어 만드는 동철은 3근 4냥 6돈이다.

1776년 영조의 사후 시책은 남양의 靑玉을 사용하는데, 길이 9치 7푼, 너비 1치 2푼, 두께 6푼이다. 6간을 연이어 엮어서 1貼을 만드는데, 영조 국장 당시 시책문의 문장이 많아 14첩으로 만들었다. 글을 새긴 후에 白蠟을 바르고 泥金으로 글자를 메운다. 위아래 가장자리에는 紅廣적으로 감싸고 그 위를 두를 변철은 熟銅을 두드려서 만들고 조각하고 도금하여 장식한다. 변철의 너비는 5푼이고, 玉簡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서 위와 아래를 연이어 잇는데, 첩은 처음

부터 끝까지 잇는다. 첩의 바깥 면은 紅廣的으로 싸서 장식한다.

옥괴를 다듬어 가늘고 긴 옥편으로 다듬어 사용하는데, 1776년 영조의 사후 시책이나 애책에 필요한 靑玉을 1776년에는 호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와 사용하였다.

이렇게 옥괴를 가져오면 옥장은 이것을 細沙 혹은 定玉沙를 부으면서 잘라내고, 옥 위에 옥각수가 글을 새기고, 화원이 니금을 박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옥책은 이렇게 여러 장인들이 만든 5~6조각의 옥편을 연결한 1첩을 다시 6첩 이상의 책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을 홍색 비단[金線緞]으로 가장자리를 감싼 다음, 그 위에 두석에 도금을 한 ‘ㄷ’자 형태의 변철로 감싸고 그 것을 고정시키고자 못[頭釘]을 박는다. 두정은 못의 머리가 둥근 원두정과 납작한 형태의 것으로 나뉜다. 이것들은 옥간과 변철을 가로질러 구멍을 뚫은 다음 아랫부분을 두드려서 넓은 다음 구멍에서 빠지지 않도록 끝 부분이 볼록한 머리를 갖도록 만든다.

옥책에 화원이 니금을 넣을 때 필요한 그림붓 1자루와 당주홍 1돈 및 泥金 2돈 5푼 그리고 이것의 접착제에 해당되는 明膠 1돈 5푼, 백휴지 1근이다. 옥간의 상하 가장자리를 두를 紅廣的은 실제 사용할 양에 따라 준비하되, 이것을 배접하여 사용할 도련지 2장도 준비한다. 옥간의 상하를 두를 변철의 경우 銅鐵 3근 4냥 6돈과 白蠟 8돈을 녹이고, 도금에 필요한 황금 4돈은 수은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해야 하기 때문에 수은 2냥 4돈과 비상 4돈, 붕사 5돈이 필요하다. 원환이나 돌쩌귀 방식의 경첩을 연결할 때에 필요한 땀질은[汗音銀] 4돈 또한 마련한다.

(4) 옥책의 제작 방식 및 제작 기술

옥책에는 대부분 남양옥(南陽玉)을 재료로 사용하고 옥책의 구조는 첩, 옥간, 연첩 방식, 변철, 회장 및 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5~7개의 옥간이 1첩을 이루고 있으며 연첩 방식은 원환, 돌쩌귀 연첩방식이 있다. 변철은 옥간을 연결해주며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회장 및 의는 붉은 비단을 사용했으며 비단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옥책의 시대양식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옥책을 매는 방법의 변화이다. 17세기의 옥책에는 둥근 고리를 사용하여 매는 圓環連貼을 사용하였으나 18세기 말에는 경첩으로 연결하는 接貼으로 바뀌면서 시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곧 1638년의 옥책은 圓環連貼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1681년에는 옥책이 6책으로 늘면서 원환의 개수가 늘고 있었다. 그러나 둥근 고리로 옥책을 연결하는 수법은 1702년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옥책을 경첩으로 연결하는 수법이 18세기 말부터 확연하게 달라져 양식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현존하는 256점의 옥책에서도 확인된다. 17세기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圓環連貼이던 것이, 1772년 이후에는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곧 궁중유

물전시관에 현존하는 옥책 중 17세기의 이른 예에 해당되는 1623년 인조가 즉위 하던 해에 仁烈妃에게 올린 옥책은 둥근 고리로 연결하는 圓環連貼을 사용하고 있었고, 1638년 인조와 장렬비의 옥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현존하는 유물에서 원환연첩을 접첩으로 바꾼 시기는 1772년이였다. 실물에 의해 전체 옥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顯宗玉冊 2권을 양자의 대표적인 유물로 들 수 있다. 현종옥책의 2권 중에서 1권은 1674년(숙종원년)에 올린 시호인 “純文肅武敬仁彰孝”와 묘호인 “顯宗”을 새긴 12폭의 옥책을 둥근 고리로 연결하는 원환연첩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1권은 1772년(영조 48)에 존호인 “昭休行慶敦德綏成”을 올리면서 만든 12폭의 옥책인데 경첩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17세기의 連貼 대신 18세기 말에는 경첩을 사용한 接貼으로 바뀌듯이, 옥책을 꾸밀 때 사용한 비단의 종류도 시대가 내려가면서 저렴하고 무늬 없는 국산 재료로 바뀌고 있었다. 1638,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 때 제작한 옥책은 첫째 첩과 마지막 첩에 홍색 錦段을 입혔다. 1681년의 가례에는 紅錦線段 1자3치를 사용하였으며, 1702년에도 같은 비단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1759년에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붉은 색깔은 그대로 둔 채 비단의 재질만 廣的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비단의 색깔은 홍색으로 일치하지만 그 종류는 무늬 있는 錦段 대신 무늬 없는 비단으로 대체되었다. 곧 영조는 앞서 보자기를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색깔만 선례를 지키고 비단의 재료는 값싼 국내산을 사용하여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려 하였던 것이다.

가. 첩

옥간 5~7쪽을 엮어 만든 것을 1첩(貼)이라 한다. 옥책의 첩 수는 시대와 내용에 따라 수가 달라지지만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모두 짝수 첩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전하는 옥책의 첩 수는 2첩 1점, 4첩 19점, 6첩 22점, 8첩 45점, 10첩 90점, 12첩 42점, 14첩 30점, 16첩 5점, 18첩 1점이다. 10첩이 35.2%를 차지하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책봉 옥책은 주로 6첩과 8첩으로 제작하였다. 인조부터 정조까지는 6첩으로 주로 제작하고 그 이후는 8첩으로 제작하는 경향이 있다. 상존호와 가상존호는 10첩으로 제작한 예가 가장 많다. 추상존호는 8첩, 10첩, 12첩, 14첩 등 다양한 첩으로 제작하였으며, 상휘호 옥책은 8첩이 가장 많다. 한편 시기별로 보면 후대로 갈수록 첩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옥간

옥책의 1첩을 구성하는 옥간(玉簡)의 매수는 5쪽, 6쪽, 7쪽 등 3종류가 있다. 5쪽 136점 (53.3%), 6쪽 41점(16.1%), 7쪽 78점(30.6%)이다. 그런데 이러한 쪽수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규칙은 없다. 시기별로 보면 5쪽과 6쪽의 사용 예는 인조부터 순

종까지 골고루 사용한다. 7쪽의 옥간은 고종 12년(1875)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 변철

변철은 옥간 양쪽 가장자리에 대는 꾸미개를 말한다. 옥간을 나란히 놓고 양쪽 아래 위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옥간이 충격에 견디도록 천으로 감싼 다음 구리합금에 도금으로 만든 판으로 돌려 감싸 꾸민 다음 두정(頭頂)을 박아 고정시킨다.

옥간의 상하에는 회장과 마찬가지로 직물을 감싸 옥을 충격에서 보호하였고, 그 직물은 옥책 앞뒤면에 바른 천과 마찬가지로이다. 천을 감싼 다음 그 상하의 양 끝에 변철을 대고 정을 박았다.



<명성왕후 상존호옥책, 1676>



<인원왕후가상존호옥책, 1751>



<문조추상존호옥책, 1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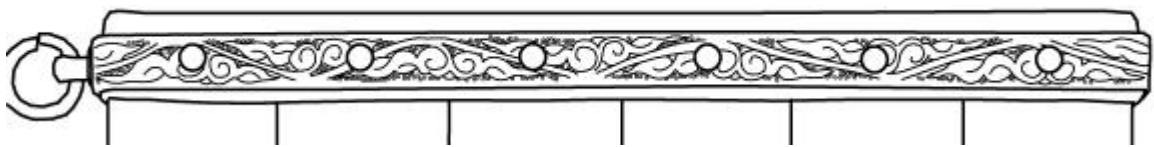
이 변철의 기능은 하나의 첩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며 옥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닌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여 단조롭지 않고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하였다. 주로 나타나는 문양들은 만초문, 만초화문, 쌍룡문, 추상적인 쌍룡문, 무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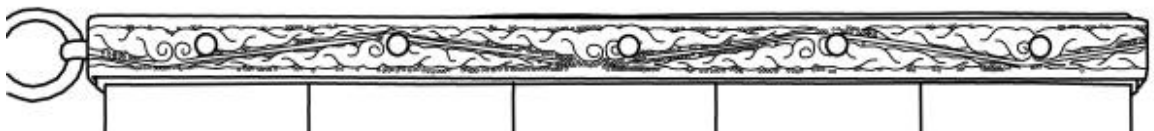
<만초문 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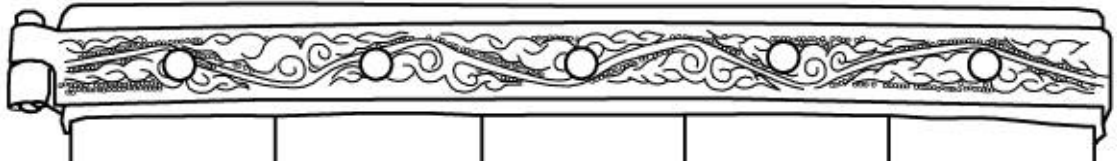
<쌍룡문 변철>



<효종상시호옥책의 변철, 1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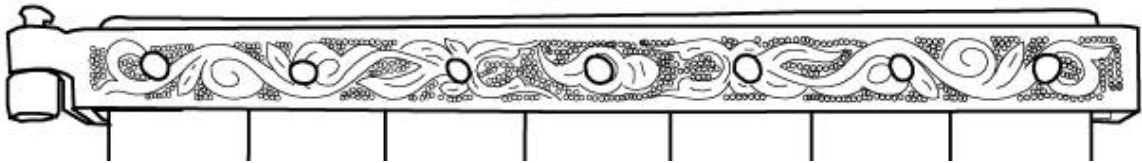
<영조옥책의 변철, 1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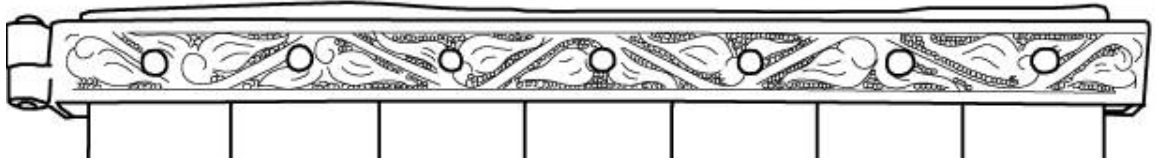
<숙종옥책의 변철, 1776>



<철종상시호옥책의 변철, 1863>



<영조옥책의 변철, 1890>



<정조옥책의 변철, 1899>



<정종추상시호옥책의 만초문, 1681>



<효현왕후상시호옥책, 1843>



<고종상준호옥책의 쌍룡문, 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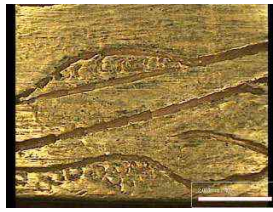


<문조추상준호옥책의 추상쌍룡문, 1890>

이러한 문양은 직선이나 곡선 부분의 문양을 이루고 있다. 날카로운 삼각끝을 비스듬히 사용하여 망치로 두드려 이어가며 선적인 처리를 나타내었고, 둥근 날의 끝은 선의 여백 부분을 메꾸기 위해 위에서 눌러 물고기알[魚子文]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문양 처리 기법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축조기법을 중심으로 문양을 새긴 것이며, 1926년 순종옥책에서는 끝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서 날카로운 끝로 긴 획을 밀어서 도구와 기법에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현중옥책, 1659,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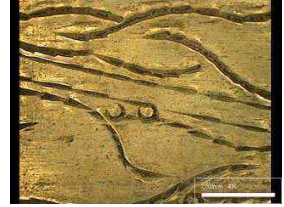
<현중옥책, 1674,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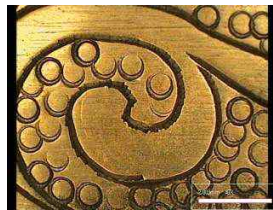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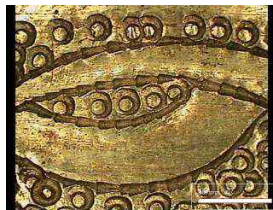
<숙중옥책, 1713,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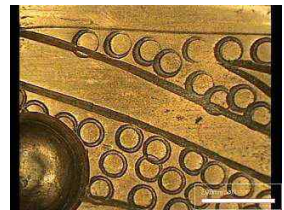
<영조옥책, 1756, 국립고궁박물관>



<현중옥책, 1853, 국립고궁박물관>



<순중옥책, 1926, 국립고궁박물관>



<동근머리 정>



<납작머리 정>

두정(頭頂)은 변철의 상하를 고정시키기 위한 못이다. 못머리가 반원형인데, 동근머리 정과 납작한 형태의 납작머리 정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모두 변철과 옥간을 가로지르는 구멍에 끼운 다음 아래 부분을 두드려 넓혀 구멍에서 빠지지 않게 고정되어 있다.

라. 연첩 방식

옥책의 첩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은 원환(圓環) 연첩 방식과 돌쩌귀(玆迪耳) 연첩 방식이 있다. 원환 연첩 방식은 동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 연첩 방식은 양쪽 첩 사이에 못 형태의 동근 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원환 연첩 방식>



<돌쩌귀 연첩 방식>

옥책 255책 중 원환 연첩 방식이 67책, 돌쩌귀 연첩 방식이 188책이다. 초기부터 영조 33년(1757)까지의 옥책은 모두 원환 연첩 방식이고, 그 이후부터 1758년에는 돌쩌귀 연첩과 혼용되다가 1759년 이후 돌쩌귀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된다.

마. 회장 및 의

옥책의 첫 번째와 마지막 첩의 표지는 직물로 장황(粧潢)을 하는데 이것을 회장 및 의라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회장은 옥책의 위아래의 장황이며, 의는 즉 책의(冊衣)로 옥책의 첫 번째 면과 마지막 면의 표지의 기능을 하는 직물이다. 시대별로 보면 화봉문, 만초화룡봉문, 만초연화문, 연화운룡문 등의 직금단이 영조 16년(1740)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운보문단과 무문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40년까지의 직금단은 금사(金絲)로 화려한 무늬를 짠 직물로 고급 직물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고급직물의 사용 규제 등의 영향으로 소박한 직물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운보문단>



<연당초문단>



<연화운보문단>



<화조문단>



<연화운보용문단>



<무문단>

(5) 17세기 옥책의 제작 장인

조선후기의 가례도감, 책례도감 및 존호·존숭도감은 옥책과 그 부속 공예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중앙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조달할 뿐 아니라, 지방의 각 관아들로부터도 소요되는 재료들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도감은 옥책과 부속 의물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들만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 요구하여 조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장인이나 인부들까지도 경외의 각 관청에 요청하여 징발하고 있었다. 곧 도감은 해당의 공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는 權設衙門이지만, 그 공역을 마칠 때까지는 임의로 경외 각 관청의 물력과 인력을 총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도감에서 옥책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발하는 장인들은 주로 서울의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공장들과 지방의 각 관아에 등록된 향공장들이었다. 옥책을 제작하는 장인은 옥을 다루는 玉匠과 옥에 글씨를 새기는 刻手가 가장 중요한 장색이지만 이들 외에도 10여 종 이상의 장색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옥책을 제작할 때 옥을 다루는 옥장과 글씨를 새기는 각수가 반드시 협업을 하였으며, 그 밖에 옥장이나 각수 이외에도 섭장, 두석장, 소목장, 칠장, 화원 등 여러 장색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1638년에 玉冊色을 별도로

설치하였던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도감에는 畫員, 寶匠, 冶匠, 刻字匠, 玉匠, 護匣匠, 漆匠, 入絲匠, 섭匠, 磨鏡匠, 匙匠, 豆錫匠, 盖兒匠, 擔鞭匠, 注匠, 多繪匠 등 총 16종의 장색이 참여하고 있었다. 옥책을 만들기 위해 당시 동원된 장인은 화원, 보장(寶匠), 야장, 각자장, 옥장, 호갑장, 칠장, 입사장, 섭장, 마경장, 시장, 두석장, 개아장, 담편장, 주장(注匠), 다회장의 총 16장색이었다. 물론 옥책색에서는 옥책과 함께 옥책을 담을 보통(寶筒)도 함께 제작하여 완성된 옥책을 오래도록 보관하도록 보자기와 함께를 제작하는 장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옥책을 제조하는 과정은 우선 玉匠들이 옥의 산지에서 옥석을 채취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옥석이 옥책색에 반입된 뒤 옥석을 자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注匠이 모래와 물을 알맞게 부어가면서 옥을 반듯하게 잘라냈다. 잘라낸 옥석은 磨鏡匠이 표면을 거울처럼 매끈하게 갈았고, 그 위에 書寫官이 글씨를 써 주면, 비로소 刻字匠이 글씨를 음각하였다. 글씨가 음각되면 填金畫員이 음각된 글씨마다 金液으로 메웠다. 옥책을 4권 또는 6권으로 묶기 위해 穿穴匠이 옥에 구멍을 뚫으면 冶匠과 豆錫匠이 옥책의 위 아래를 마감하는 邊鐵을 만들어 붙였으며, 여기에 화원이 唐草紋 등을 起畫하면 섭장과 入絲匠이 기화한 그림에 따라 새겨 넣었다. 다회장이 끈목을 엮었다. 이처럼 옥책을 하나의 우수한 공예품으로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옥장과 각수의 숙련된 기술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

17세기에 옥책을 제작한 공방은 책례도감이나 존숭도감에서는 1방, 국장도감에서는 3방이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동원한 장색은 각수, 옥장 및 도자장의 순이었다. 그만큼 옥 위에 끌과 망치만을 가지고 글자를 새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각수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각 장색별로 1등상을 받아 장인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며 도감역을 지휘한 인물로, 옥장 중에는 金莫男과 邊繼昌 및 張孝善이 여러 도감에서 수십년간 활동하였고, 각수 중에서는 李忠民과 李秀一 및 李惟一이 두드러졌으며, 도자장 중에는 文得己가 거의 모든 국장도감에서 뚜렷한 성취를 보인다.

<표> 17세기 각종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玉匠 | 刻手 | 刀子匠 | 소장번호 |
|------|-------|----|--------|--------------|-------------|-----------|--------|
| 1610 | 의인후 | 책례 | 1방 | 李龜峇, 丁春 | 高碩男 등 10명 | 金加應金 등 8명 | 규13196 |
| 1610 | 공성후 | 존숭 | 1방 | 李仇今 등 16명 | 金得男 등 6명 | 安獸生 등 4명 | 규14880 |
| 1621 | 광해군사친 | 존숭 | 1방 | 曹仁雄 등 17명(경) | 金得男 등 39명 | 安公山 등 6명 | 규14891 |
| 1621 | 선조의인후 | 존호 | 1방 | 曹仁雄 등 20명(경) | 金得男 등 28명 | 安公山 등 6명 | 규14895 |
| 1639 | 인조장렬후 | 가례 | 3방 玉冊色 | 金命金 등 6명 | 吳敬男 등 5명(京) | 安儉同 등 4명 | 규13061 |
| 1645 | 효종 | 책례 | 2방 | 金莫男(京) 등 4명 | 李忠民 등 2명 | 金卜立 | 규13062 |
| 1649 | 인조 | 국장 | 3방 | 金莫男 등 22명 | 申得男 등 52명 | 金善云 등 10명 | 규13521 |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玉匠 | 刻手 | 刀子匠 | 소장번호 |
|------|----------------|----|----|--------------|--------------|-----------|---------|
| 1651 | 효종인선후 | 책례 | 1방 | 金莫男(京) 등 6명 | 吳有進(京) 등 14명 | 盧應孫 등 3명 | 규13066 |
| 1651 | 현종 | 책례 | 1방 | 金莫男 등 8명 | 吳有進(京) 등 5명 | 盧應孫 등 3명 | 규13069 |
| 1651 | 인조장렬후 | 존승 | 1방 | 金莫男(京) 등 7명 | 吳有進 등 14명 | 盧應孫 등 3명 | 규13252 |
| 1651 | 인조비효종비 | 존승 | 2방 | 金莫男(京) 등 2명 | 李忠敏 등 3명 | 命伊 등 2명 | 장2-2805 |
| 1652 | 현종명성후 | 가례 | 3방 | 黃金奉 등 2명 | 李忠民 등 6명 | 盧應孫 등 2명 | 규13071 |
| 1659 | 효종 | 국장 | 3방 | 金莫男 등 20명 | 李忠民 등 54명 | 文得己 등 10명 | 규13527 |
| 1661 | 명성후증궁전 | 책례 | 3방 | 金莫男(京) 등 5명 | 吳有進(京) 등 29명 | 金萬龍 등 5명 | 규13073 |
| 1674 | 인선후 | 국장 | 3방 | 金必 등 18명 | 振惠 등 41명 | | 규14865 |
| 1675 | 현종 | 국장 | 3방 | 金莫男 등 24명 | 李秀一 등 32명 | 文得起 등 15명 | 규13539 |
| 1677 | 인경후증궁전 | 책례 | 3방 | 邊戒昌(京) 등 7명 | 李惟一(京) 등 18명 | 文得己 등 8명 | 규13082 |
| 1677 | 인조장렬후 현종명성후 | 존호 | 3방 | 邊戒昌(京) 등 14명 | 李惟一(京) 등 35명 | 文得己 등 8명 | 규13258 |
| 1677 | 명성후 | 존승 | 3방 | 邊戒昌(京) 등 14명 | 李惟一(京) 등 35명 | 文得己 등 8명 | 규14896 |
| 1681 | 인경후 | 국장 | 3방 | 張孝善 등 8명 | 李秀一 등 15명 | 文得己 등 12명 | 규13553 |
| 1681 | 숙종인현후 | 가례 | 3방 | 張孝先 등 8명 | 李惟一 등 12명 | 文得己 등 6명 | 규13084 |
| 1684 | 명성후 | 국장 | 3방 | 張孝善 등 8명 | 李惟一 등 21명 | 朴松立 등 11명 | 규14869 |

가. 17세기 옥장

옥은 재료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생산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한 다음 운반하여 도감에서 옥공예품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옥장의 기술은 재료 의존적인 성향을 보여 도감에 차출된 옥장 역시 옥재료의 특산지에서 도감에서 파견된 경공장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하였다. 옥이 생산되는 지역의 방외 장인 출신 중에서 특출한 솜씨를 지닌 자를 선발하여 경거 장인으로 삼았으며, 이들은 경공장으로서 고향에 파견되어 해당 지역의 외공장들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장인을 조직화하였다.

당시 도감에 차출된 옥장의 숫자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였으며, 가례, 책례, 존호·존승 등 儀典의 종류에 따라 제작할 옥책의 책수에 따라 동원되는 옥장 인원은 많고 적음에 차이를 보였다. 동원되는 옥장의 숫자는 가례 때 가장 적어 2~3명에서 많아야 8명을, 책례 때의 옥장은 적을 때는 1명이지만 보통 4~7명에서 많을 때는 10~15명을, 존호·존승 때에는 가장 많은 옥장을 동원하여 적을 때는 9~10명이며 보통 14명 내외였고, 많을 때는 17~19명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옥장의 인원 구성은 소수 정예의 경옥장이 다수의 향옥장을 주도하면서 옥책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다. 즉 옥책을 제작할 때면 경옥장의 주관 아래 향옥장들이 대부분의 작업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작업이 끝나서 상을 내릴 때면 경옥장이 주로 받고 있었는데,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경옥장이 없을 때도 있어,

이럴 경우에는 결국 향옥장이 작업을 주관하였고 또 이들은 행사가 끝난 후 시상을 할 때 수상의 대상자가 되고 있었다. 1681년 숙종과 인현후의 가례 때 시사한 장인들은 1등은 金莫男, 2등은 張孝善 등 3명, 3등은 李振 등 4명이 받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옥장으로서 수십년간 수십 차례의 도감에 계속하여 동원되었다.

당시 가장 활동이 많은 옥장은 金莫男은 경옥장으로 1638년부터 1683년까지 45년간 옥장으로 참여하지만 중앙의 관청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였다. 邊繼[戒]昌은 안동의 향옥장으로 1659년부터 1677년까지 활동하다가 1674년부터 경옥장으로 등재되었다. 張孝善은 성천의 향옥장으로 1649년부터 1686년까지 37년간 활동하다가 1675년부터 경옥장이 되고 1686년에 상의원의 옥장이 되었다.

나. 17세기 각자장과 각수

이 시기 옥책을 제작하는 刻手의 호칭은 각수보다는 대부분 刻字匠으로 불렸다. 각자장이 새기는 옥책의 글자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옥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었다. 17세기의 옥책들에 새겨진 글자수는 한 칸마다 11자씩이었다. 현존하는 총 7권의 인조대 옥책 중 1623년에 제작한 인렬왕후의 옥책은 6폭이고 종서는 23행이므로 250여 자가 새겨져 있으며, 1638년에 제작한 장렬왕후의 옥책은 8폭이고 종서를 31행이므로 340여 자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1681년 숙종과 인현비의 가례 시에는 임금의 칭호와 勳號 등을 쓸 때 줄을 바꾸어 맨 위에 쓰는 極行은 12자였으며, 平行은 10자씩 새겼다. 그러나 18세기 들어와 1759년 영조와 정순비의 가례 때에는 極行은 12자, 中行은 11자, 平行은 10자씩이었다. 이처럼 시대가 내려 갈수록 옥책 한 칸마다 새기는 글자의 간격이나 새김방식 등이 세분화되고 규격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도감에서는 옥장과 마찬가지로 京鄕 각지에 거주하는 각수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아문과 지방의 감영에 공문을 띄워서 해당 장인을 소집하였다. 옥책을 제작하는 옥장은 재료 의존적인 장색이어서 옥재료가 생산되는 지역에 분설된 제작처에서 해당 지역의 외공장을 동원하여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반면, 기술 집약적인 장색인 각자장은 의례의 종류에 따라 가례 때는 서울 지역의 각수만 동원하고 흉례 때는 각처의 대규모 각수를 불러 모아서 경공장의 통솔 아래 집중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국혼이나 책례와 같은 가례 때에는 도성 안에서 의례행사가 진행되고 도감 내 제작처도 도성 안이었기 때문에 10여 명 내외의 경거 각수를 동원하여 옥공예품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17세기의 국혼이나 책례, 존호존숭 등의 가례 관련 도감에서는 흉례 관련 도감 때의 제작방식을 좇아서 소수의 경각수(京刻手)와 방외각수[外刻手]는 물론 승각수(僧刻手)까지 동원하여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한동안 채택하였다.

17세기의 도감에서 활동하는 각수는 전술한 옥장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해당 관청에 소속된 京刻手와 지방의 관아에 등록된 鄕刻手를 동원하는 체제였고, 鄕刻手 중에는 僧刻手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옥책을 제작하는 각수의 기술은 오랜 기간의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감에 차출될 정도의 숙련된 각수는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각수는 金得男, 李忠民, 金種金, 李成民, 李守一, 李惟一, 李守命, 李時英, 李時俊 등이었다. 김득남은 1604년부터 1621년까지 17년간, 이충민은 1621년부터 1659년까지 38년간, 김종금은 1644년부터 1661년까지 17년동안, 李守一은 1651년부터 1677년까지 26년간, 李惟一은 1651년부터 1696년까지 45년간 활동하였다. 이수명은 1674년부터 1702년까지 28년 동안, 李時英은 1675년부터 1696년까지 21년간, 李時俊은 1694년부터 1726까지 32년간 활동한 후 1725년에 校書館의 官刻手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20~40년의 장기간 도감에 차출된 경각수들 중에서 몇몇은 형제가 함께 각수로 활동하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각수의 계보도 형성하였다. 일례로 金得男은 1610년부터 1621년까지 3회간 동원된 金得林, 또 1630년부터 1638년까지 3회 동원된 金得善과 함께 삼형제가 모두 각수였던 듯하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李忠民과 李成民, 李時英과 李時俊 또한 형제가 각수로서 도감의 옥책역에 동원된 것 같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경각수는 李守一과 李惟一이다. 양자는 1651년부터 1677년까지 26년 동안 12차례의 도감에 한 차례도 빠짐 없이 동시에 참여하였는데, 이렇게 형제가 같은 도감에 참여하면서 상호간에 제작기술이나 비법도 전수하면서 비중 있는 각수로서 성장하도록 도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17세기 도자장

도자장은 옥장과 각수와 바늘과 실처럼 함께 하나의 도감에 참여하였다. 17세기 도감에 징발된 도자장의 경우 가례 때 2~6명, 책례 때 1~4명, 존호존숭 때 6~8명을 징발하여 존호존숭 때에 가장 인원수가 많았다. 다만 이들 도자장은 옥장이나 각수보다 기술적 수준이 전문적이지 않아서인지 오랫동안 여러 도감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 17세기 초 도자장 安二男의 경우 1621년부터 1638년까지 17년간 활동했고, 도자장 文得巳가 1661년부터 1681년까지 20년간 활동하였던 것이 확인될 뿐이다.

이처럼 17세기 가례 관련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활동한 장인의 구성과 조직상의 특성을 옥장과 각자장 및 도자장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장색은 모두 소수의 경공장이 다수의 외공장과 함께 분업적인 협업체제로 공예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옥장이 다루는 옥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재료여서 옥이 산출되는 제작처에서 해당 지역의 장인이 작업을 하는 재료 의존적인 장색이었다. 반면 각수는 기술 집약적인 장색이어서 도감 내에 설치한 제

작처에 다수의 장인이 모여 공동으로 제작하도록 조직되었다. 세 장색 중 기술적 수월성이 낮았던 도자장의 경우에는 장기간 활동한 장인이 극소수였던 점도 주목되었다.

(6) 18세기 옥책의 제작 장인

18세기에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장색의 종류가 늘어났다. 예컨대 1721년 숙종의 국장도감 3방의 경우 사자관을 비롯하여 화원, 옥장, 야장, 소목장, 마조장, 주장, 죽망장, 목수, 조각장, 편자장, 목소장, 관자장, 다회장, 천혈장, 침선비, 칠장, 쇠약장, 호갑장, 담편장, 소로장, 두석장, 보장, 시장, 은장, 동장, 병풍장, 과록장, 이지장, 납장, 각수, 도자장, 가칠장, 입사장, 전장, 부금장, 소인거, 대인거 등 총 37장색이었다. 옥장과 각수 및 도자장을 제외한 34종 장인의 총숫자는 98명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장색에는 2~3명이 참여하였고 5명 이상의 장색은 소목장 5명, 다회장 6명, 침선비 6명, 대인거 5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시책을 제작하는 옥책을 만드는 옥장 21명, 각수 17명, 도자장 14명으로 3종 장색에는 총 52명의 장인을 차출되어 17세기에 3종 장색에 총 84명이던 것보다는 숫자가 줄었다.

어쨌든 이 시기에도 다른 장색보다 옥장과 각수 및 도자장의 숫자가 많았다. 18세기 국장도감에서 옥장은 적을 때는 15명, 보통 19명, 많을 때는 23명이었다. 각수는 적을 때는 12명, 보통 15~17명, 많을 때는 21명이었다. 도자장은 적을 때는 9명, 보통 12~14명, 많을 때는 18~19명이었다. 일례로 1713년 숙종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장 15명, 각수 23명, 도자장 9명을 동원하였다. 가장 많은 장인을 동원한 1740년 영조가 숙종 계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던 존숭도감에서는 옥장 23명, 각수 19명, 도자장 2명이었다. 의전별로는 존호존숭 도감의 경우 옥책에 새겨야 할 내용이 많고 옥책의 첩수가 많아서인지 옥장이나 각수의 숫자가 많았다. 이를 통해 17세기에는 각수, 옥장, 도자장의 순서로 숫자가 많았으나, 18세기에는 옥장, 각수, 도자장의 순서로 옥장의 숫자가 더 많아 시기에 따라 장인의 숫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영조가 인원왕후나 숙종에게 존호를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졌으며 옥책의 장수가 많고 그 제작 수량이 많아지면서 동원되는 장인의 숫자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대체로 옥장은 42~51명, 각수는 19~27명, 도자장은 22~35명이 옥책을 제작하였다. 이전 시기까지 장인들의 장색 중 각수의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옥장, 그리고 도자장의 숫자가 적었는데, 이때에는 옥장의 숫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자장이고 각수의 숫자가 가장 적었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17세기에는 장색별로 10명 미만의 장인들이 국역을 졌던 데 비해 그 숫자가 점점 늘어 각수는 20명 내외, 도자장은 30명 내외, 옥장은 40명 내외로 매우 많은 숫자가 동원되었다. 이들 장인들은 대부분 관공장이었다. 옥장이나 도자장은 상의원이나 내수사에 소속되었던 관옥장이나 관도

자장이었고, 각수의 경우 교서관 소속의 관각수였다.

<표> 18세기 의전별 도감 각방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각수, 도자장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玉匠 | 刻手 | 刀子匠 | 소장번호 |
|------|-----------------------|----|----|-----------|--------------|-----------|--------|
| 1702 | 인현후 | 국장 | 三房 | 李以珍 등 19명 | 李時成 등 18명 | 朴宗善 등 12명 | 규13555 |
| 1713 | 숙종 | 존승 | 一房 | 方良悅 등 15명 | 金廷顯 등 23명 | | 규13267 |
| 1719 | 선의후 | 가례 | 三房 | 金太徵 등 3명 | 黃自賢 등 8명 | 朴宗先 등 2명 | 규13094 |
| 1721 | 숙종 | 국장 | 三房 | 金泰徵 등 21명 | 黃自先 등 17명 | 朴從先 등 14명 | 규13548 |
| 1721 | 영조왕세제 | 책례 | 一房 | 安石屎(尙方) | 金二萬 등 9명 | 金白 등 4명 | 규13099 |
| 1725 | 경종 | 국장 | 三房 | 金泰徵 등 21명 | 黃自顯 등 27명 | 朴春文 등 18명 | 규13566 |
| 1725 | 진종세자 | 책례 | 一房 | 金辰玉(私匠) | 金海溥 등 8명 | 姜有骨 등 4명 | 규14909 |
| 1726 | 숙종인원후 경종선의후 | 존승 | 三房 | 姜二俊 등 8명 | 劉以碩 등 6명 | 朴老味 | 규13280 |
| 1727 | 진종효순후 | 가례 | 三房 | 姜二俊 등 2명 | 劉二石 등 10명 | 夜斗星 등 3명 | 규13105 |
| 1731 | 선의후 | 국장 | 三房 | 金泰徵 등 19명 | 黃自顯 등 15명 | 朴從先 등 14명 | 규13576 |
| 1736 | 장조세자 | 책례 | 一房 | 李汝奉 등 2명 | 黃再顯 등 8명 | 宋世彬 등 2명 | 규13108 |
| 1739 | 인원왕후 | 존승 | 一房 | 姜翊濟 등 2명 | 姜武男 등 14명 | 宋厚奎 등 2명 | 규13283 |
| 1740 | 인원왕후 | 존승 | 一房 | 姜翊濟 등 3명 | 姜再望 등 19명 | 宋厚圭 등 8명 | 규13286 |
| 1744 | 장조헌경후 | 가례 | 三房 | 金德奉 등 2명 | 竹冊匠 李辰郁 등 2명 | 朴吉同 등 2명 | 규13109 |
| 1747 | 인원후 | 존호 | 1방 | 姜翊濟 등 2명 | 鄭愛男 등 11명 | 金振秋 등 2명 | 규13288 |
| 1751 | 의소세손 | 책례 | 1방 | 李先福 등 2명 | 尹世同 등 6명 | 金振秋 등 2명 | 규13199 |
| 1751 | 인원후 | 존호 | 1방 | 姜翊濟 등 8명 | 金壽海 등 13명 | 金振秋 등 6명 | 규13290 |
| 1752 | 숙종인원후 | 존승 | 1방 | 申厚寬 등 14명 | 鄭愛男 등 13명 | 金福江 등 7명 | 규13292 |
| 1754 | 숙종인원후 | 존호 | 1방 | 姜翊濟 등 50명 | 李斗伯 등 19명 | 金奉益 등 19명 | 규13294 |
| 1756 | 숙종 | 존승 | 1방 | 姜翊齋 등 43명 | 金壽海 등 19명 | 金鳳翼 등 19명 | 규13269 |
| 1756 | 인원후, 숙빈,영조, 정성후 | 존승 | 1방 | 姜翊齋 등 43명 | 金壽海 등 19명 | 金鳳翼 등 35명 | 규14890 |
| 1757 | 정성왕후 | 국장 | 三房 | 李呂奉 등 15명 | 李呂奉 등 12명 | 嚴海寬 등 9명 | 규13589 |
| 1772 | 현종, 영조 | 존호 | 1방 | 李善才 등 51명 | 金守海 등 27명 | 池順才 등 22명 | 규13296 |
| 1776 | 영조 | 국장 | 三房 | 李喜福 등 19명 | 韓壽大 등 14명 | 任順才 등 15명 | 규13581 |

이들 18세기 옥책을 제작한 장인들 중에서 각 장색별로 1등상을 받은 장인이 우두머리의 성격을 가지고 도감의 일을 진두지휘하였다. 이중 옥장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 1등상을 받은 장인은 金泰徵, 姜益齋, 李汝奉 및 李善福이었다. 각수 중에는 李時俊, 黃自顯, 李呂奉, 韓壽大가 두드러지고, 도자장 중에는 朴從先, 嚴海寬, 任順才 등이었다.

가. 18세기 옥장

18세기에는 시기가 내려가면서 도감에서 차출하는 옥장의 숫자는 의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례 때의 옥장은 4~5명 내외이며, 1759년에만 예외적으로 23명이었다. 책례 때의 옥장은 적을 때는 2~3명에서 많아야 4~5명을 동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존호·존숭 때의 옥장은 적으면 3~6명 내지 10명 내외였지만, 시기가 내려가면서 53~63명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한편 18세기가 되면 도감에 동원되어 옥책을 조성하는 옥장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17세기 말에 이르러 점차 상설아문이 복설되어 숙종대부터 관청에 소속된 官匠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1680년대 후반부터 상의원 또는 내수사에 玉匠이 官匠으로 전속되어 官玉匠을 차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가례도감이나 국장도감에서는 3방에서 옥책을 제작하였고, 책례도감이나 존호존숭도감에서는 1방에서 옥책을 제작하였다. 1713년부터 1772년까지 60년간 20차례의 도감이 개설되었으며 동원된 옥장은 총 357명이었다. 이중 1713년만 예외적으로 경·향공장 29명을 동원하였을 뿐이다. 이후 19차례에 동원된 官·私匠만을 합치면 총 328명이었다.

의궤에서 內需司와 工曹와 尙衣院에 소속되어 있던 官玉匠은 45명을 동원하였다. 상설 아문에 소속된 관옥장을 동원한 것은 1718년, 1721년, 1727년, 1736년, 1740년, 1744년이다. 이들 의궤의 장인질에는 관청명이 병기되어 있다. 17세기에 京·鄕에 거주하는 옥장 총 157명을 동원한 데 비해, 18세기에는 官·私玉匠 총 357명을 동원하였다.

1718년에는 내수사의 옥장 5명이 도감에 분속되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721년에는 상의원 옥장 1명과 내수사 옥장 1명을 동원하였고, 1727년과 1736년에는 각각 내수사 옥장 1명씩을 징발하였다. 1740년에는 내수사 옥장이 25명이나 동원되기도 하였고, 1740년에는 내수사의 옥장 3명과 공조의 옥장 7명이 차출되었으며, 1744년에는 상의원의 옥장 1명이 도감의 옥책 제조장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 밖에 18세기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향옥장 대신 私玉匠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상의원이나 내수사 및 공조의 옥장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사옥장을 부르지 않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1744년에 상의원의 관옥장 1명을 동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옥책을 제작할 때에도 사옥장으로 대체되었다. 아울러 동원된 사옥장의 숫자는 10명 안팎이었으나, 1753년 이후에는 50명 이상으로 대거 증가하고 있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옥장은 李以珍, 金泰徵, 李汝奉 및 李善福이다. 옥장 金太徵은 1718년부터 1740년까지 22년간 도감에 참여하였다. 그는 당초 사장이었다가 1721년부터 내수사의 관장이 되었고, 1726년부터는 사장으로 있었으며, 다시 1730년부터 상의원의 관장이다가, 1740년에 또 내수사의 관장이 되었다. 그리고 姜二俊도 1718년부터 1731년까지 13년간 11차례 도감에 동원되었는데, 첫해부터 내수사의 관장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1721년부터 사장으로 일해 오다가 마지막 해에

는 상의원의 관장으로 도감에 동원되고 있다. 姜益(翊)齊는 1727년부터 1755년까지 28년간 도감의 옥책역에 동원되었다. 강익제도 첫 해부터 내수사의 관장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735년부터는 사장으로 활동하였고, 1740년에 다시 내수사의 관장이 되었다가 1751년에 또 다시 사장이 되었다. 李善福은 1755년부터 1778년까지 23년간 활동한 옥장이었다. 오랜 기간 도감의 옥책작업에 동원되었으면서도 끝까지 사장으로 있는 옥장으로는 李汝(呂)奉이 대표적인 장인이다. 이여봉은 1726년부터 1759년까지 33년간 동원되었으나 사장이면서 學洞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서울에 사는 옥장이라 여겨진다.

18세기의 의궤 자료에서 관장인지 사장인지를 병기하여 비교적 자세히 밝혀 놓은 옥장들을 간추려 살펴보면 17세기에는 향옥장에서 경옥장이나 관옥장으로 발탁한 것처럼, 18세기의 관옥장도 사옥장 중에서 발탁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의 사옥장과 관옥장의 관계는, 17세기의 향옥장에서 경옥장이나 관옥장으로 수직 상승하는 유형과 달랐다. 즉 사옥장이 관옥장이 되었다고 하여 관장으로 종신토록 봉사하였던 것이 아니라 관장이 되었으면서도 다시 사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까지 도감에 동원된 玉匠들은 시기에 따라 京·鄉玉匠과 官·私匠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었고, 옥장의 신분변화를 토대로 시대적인 변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이미 상품생산이 활발하여 화폐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므로, 옥장들이 중앙 관청의 관장으로 속박되기보다는 자유롭게 사적인 생산에 종사할 때 훨씬 이익을 얻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나. 18세기 각수

각수는 1713년을 고비로 급변하여 18세기의 도감에서는 京·鄉刻手 대신 관각수와 사각수를 동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18세기에 해당되는 1713년부터 1772년까지 59년 동안 21차례의 도감이 개설되었을 때 동원된 刻手는 京鄉匠은 물론 官私匠까지 전체 인원은 318명이었으며, 이중 상설아문 소속의 官刻手와 私刻手を 합친 숫자는 295명으로서 전체의 92%였다. 숙종 39년(1713)에 존숭도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17세기와 마찬가지로 경각수 14명과 향각수 9명 합 23명을 동원하였으며, 향각수 9명 중에는 승려 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관각수가 소속되어 있던 상설아문에는 몇몇 곳이 있어서 도감에서는 선공감에서 11명, 공조에서 2명, 훈련도감에서 5명, 어영청에서 1명의 각수를 징발하였다. 이처럼 숙종 44년(1718)부터 영조 48년(1772)까지 55년간 20차례의 도감이 개설되면서 대부분 관장과 사장을 동원하는 추세였지만, 예외적으로 1739년과 1740년에는 官刻手와 함께 서울 근처에 거주하는 鄉刻手를 차출하고 있었다. 1739년 헌렬후의 존숭도감에는 도성 근교에 위치한 금주산성이나 광주산성에서 僮刻手를 동원하였고, 1740년에는 남한

산성이나 북한산성에서 僧刻手를 차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18세기 도감의 각수 동원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18세기 옥장의 동원체제와 마찬가지로, 官匠과 私匠 중에서 각수를 차출하는 형태였다.

18세기에는 대체로 시대가 내려갈수록 도감 내에 차출하는 각수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동원된 각수의 숫자는 가례와 책례가 비슷하고 존호·존숭은 현저하게 많았다. 가례와 책례 때에는 적을 때는 2~4명의 각수를 동원하였고, 많을 때는 15~16명을 동원하고 있었다. 존호·존숭 때에 동원하는 각수는 적을 때는 9명을, 통상적인 때는 13~16명을, 많을 때는 39명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18세기의 가장 이른 동원되기 시작하는 각수는 韓業相였다. 그는 1701년부터 1736년까지 35년간 23회의 도감에 차출되었는데, 官刻手로 등재된 시기는 1718년이었다. 한업상처럼 校書館 등의 관청에 소속되어 5회 이상 옥책역에 동원된 관각수는 총 9명이었다. 이들 중 校書館에만 소속된 官匠은 金武男, 尹世同, 朴守萬, 金壽海, 張世柱, 田得春 등 6명이었다. 김무남은 1718년부터 1740년까지 22년간 11회의 도감에 차출되었는데, 관청 소속을 병기한 세 차례 모두 교서관 소속이었다. 윤세동과 박수만은 1721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720~30년대의 여러 도감에서 동시에 차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관각수였다. 양자 중 윤세동은 그후 1751년까지 30년이라는 장기간 각수로 활동하지만 도감에 차출된 횟수는 단 6회에 불과하였다. 박수만의 경우 1721년부터 1732년까지 11년간 5회 동원되었으며, 활동 시기나 동원횟수로 볼 때 윤세동과 단적으로 활동하였던 것 같다. 김수해의 경우 1724년부터 1772년까지 48년간 설치된 공방에서 24회 동안 도감에 징발되어 옥책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장세주의 경우 1739년부터 1759년까지 20년간 교서관의 장인으로서 13회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18세기 관각수 중에서 전덕춘은 1772년부터 1795년까지 23년간 9회 동안 도감에서 활약하였다.

이처럼 校書館에 소속된 官刻手들은 평상시에는 서책을 인쇄하기 위하여 木板 위에 글씨를 새기는 일에 종사하지만, 왕실의 가례행사를 치르기 위해 도감을 개설하고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玉板 위의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韓業相과 韓福萬 및 劉大昌 등 3인은 校書館 이외의 관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官匠이었다. 그 밖의 官刻手들은 校書館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선공감이나 공조 및 軍門 등에도 소속되어 있기 마련인데, 도감에서는 이들 각 아문에 소속된 각수들조차 도감의 옥책역에 동원하였던 것이다.

18세기에 관·사장을 넘나드는 각수는 鄭愛男, 元命長, 李斗白, 朴元世 등은 20년 이상 30여 년간 활동하였다. 평생 순수한 사각수는 1720년부터 1740년의 기간 동안 동원된 黃自顯, 文德化, 金海宗, 金承昌 등 4명의 사각수들이었다. 당시 사각수들이 증가하는 데에는 영·정조 연간에는 국가적인 편찬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거나 문인들이 저술한 문집이 간행되어 인쇄문화가 활짝 핀 문예부흥기였던 데 이

유가 있다. 아울러 현존하는 서책들이 대부분 이 시기의 산물이란 사실과도 연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10여 종 이상의 장색이 분업적 협업 방식으로 제작하는 옥책의 핵심기술은 옥을 다루는 옥장과 글씨를 새기는 각수가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비중은 장인의 숫자가 도감 내에서도 가장 많았던 데에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공예품을 제작할 장색은 상설아문의 경공장만으로 그 숫자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외공장이나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작업하는 사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옥장과 각수도 마찬가지로였다.

옥장을 상의원과 내수사에 소속시켰던 시기가 1686년 경이었던 데 비하여 각수는 그보다 약간 늦은 1718년부터 교서관에 소속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전반에 경각수들은 교서관과 함께 훈련도감이나 어영청에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옥장의 경우 상의원, 내수사와 함께 수어청에 소속된 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례라 할 수 있다. 도감은 상설아문 뿐 아니라 차출할 수 있는 최대의 인력을 총동원하였던 핵심 권부였듯이, 병자호란 이후 무기를 제작하고 군인들을 소집하였던 훈련도감이나 어영청, 수어청과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조선후기에 설치하였던 군사관련관청에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다가 도감에 차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 18세기 도자장

옥장과 각수의 도구를 제작해주는 역할은 도자장의 작업이다. 18세기 도자장의 경우 옥장이나 각수와 마찬가지로 상설아문에 소속된 관장이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즉 당시 도자장이 소속되었던 관청에는 상의원, 공조, 교서관, 내수사가 있으며, 그밖에 군문인 훈련도감도 있다. 이들 중 장기간 국역을 지면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도자장은 17세기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18세기 중반의 도자장 宋厚奎(1739~1940년 활동)는 고작 1739년과 1940년 3번의 도감에서 활동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국역을 지기 위해 도감에 징발될 때마다 상의원이나 교서관 및 훈련도감 등으로 징발할 때마다 소속 관청이나 군문이 변화가 있었다.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도자장은 金奉益(1753~1770년 활동)이며, 그는 영조시대를 대표하는 장인이다. 특히 그는 1753년부터 1770년까지 17년간 14곳의 도감에서 영조가 왕릉이나 왕후릉에 능표석을 영건할 때 공조나 상의원 소속의 관장으로 각수들의 새김칼을 버리는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한편 정조대에는 도자장 智順才(1778~1804년 활동)가 1778년부터 1804년까지 13곳의 도감에서 활동하게 활동하였다. 1778년 정조와 효의왕후의 책례도감에서 국역을 진 이후 1783년에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사존호 및 장조와 헌경왕후의 재존호를 올리는 도감에서는 19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의 위치까지 올라가 3등상을 시상했다. 이후 정조대를 대표하며 순조 초 1804년까지 활동하였다.

(7) 19세기 전반기 옥책의 제작 장인

19세기에는 존호·존숭을 위한 도감이 많이 설치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존호와 존숭의 대상은 주로 대왕대비나 왕대비 등 왕실의 어른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그들에게 존호를 올리고 진찬을 베푸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신정왕후는 순조의 장자인 효명세자의 세자빈으로서 남편이 세자로 요절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아들인 헌종이 왕세손으로서 책봉되고 이후 왕위에 오르면서 대비가 되었다. 그녀는 1890년까지 90세로 장수하면서 철종과 고종을 즉위하게 하거나 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거나 고종을 즉위시키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고종은 즉위 당시 종법상 문조의 뒤를 잇게 되어 신정왕후 조씨가 종법상 모후여서 고종 재위 내내 존호존숭이 빈번하게 거행되었다.

가. 19세기 전반 사자관과 화원

19세기에 존호존숭이 빈번해지면서 옥책의 제작도 늘어났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 18세기 후반부터 옥책에 복칠을 하고 금을 메꾸 넣는 사자관과 화원의 동원이 정례화 된 점을 알 수 있다. 옥책에 복칠한 사자관의 경우 18세기 말에는 도감 당 4명이었던 데 비하여 19세기 초 사자관은 8명이어서 50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관이 2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원의 경우 이전 18세기 말에는 옥책에 금을 메꾸는 업무에 국한되었는데, 19세기에는 여기에 더하여 옥보의 전문에 복칠을 하는 일까지 업무가 확장되었다. 또한 화원의 숫자는 18세기 말에는 4명이었는데, 19세기 초에는 7명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음이 확인된다.

<표> 19세기 전반 존호, 존숭도감에서 활동한 사자관과 화원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별단 | 옥책과 옥보의 寫字官 | 書員 | 소장번호 |
|------|---------------|----|----|---|--|--------|
| 1827 | 순조, 순원후 | 존호 | 별단 | 崔始鎭, 全承祖, 李東憲, 金振鏞, 李漢中, 閔壽根, 李東鉉, 趙世奎 | 張駿良, 金和鍾, 許宏, 金殷鍾, 李宗聃, 劉運弘, 尹命周 | 규13344 |
| 1835 | 문조 | 추숭 | 1방 | 洪聖老, 權載豐, 金繼述, 彭繼曾, 金應泰, 崔學遠 | 張駿良, 全應洙, 全在晟, 金學敬, 金聖祐, 李應模 | 규13396 |
| 1837 | 순원후/신정후 | 존숭 | 1방 | 全承祖, 李世煥, 李八元, 崔應夏, 劉亨基, 全榮植 | 張駿良, 金舜鍾, 朴基駿, 全聖祐 | 규13376 |
| 1851 | 순원후, 신정후, 효정후 | 존숭 | 1방 | 玉冊; 彭勉義, 金弘祖, 閔厚根, 李漢明, 崔漢奎, 金成鉉, 姜在興/玉寶; 全承祖, 李基禎, 崔應夏 | 玉冊; 鄭昌鉉, 李宗彬, 金舜鍾, 李宜錫, 張東赫/玉寶; 張駿良, 金和鍾, 劉淑 | 규13385 |

1835년 순조의 장남이면서 요절한 효명세자의 아들이던 헌종이 즉위하고 사친인 효명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翼宗’으로 묘호와 시호를 올리는 ‘追崇都監’을 설치 운영하였다. 여기에서 익종의 시호보인 금보와 시호옥책 및 종묘에 모실 신주, 그리고 추존왕릉에 세울 표석 등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차출한 사자관과 화원의 업무는 세분화되었다. 먼저 사자관의 경우 이전까지 옥책에 복칠하던 일에 더

하여 신주에 획을 더하거나[補畫], 왕릉 앞에 세울 표석의 전후 면에 복칠하는 일까지 업무가 세분화되었다. 당시 옥책에 복칠하는 사자관은 權載豊을 비롯하여, 金繼述과 彭繼曾 및 金應泰의 4명이, 신주에 획을 더하는 역할에는 사자관 洪聖老가, 왕릉 표석의 전후 면에 새겨놓은 글자에 복칠하기 위해 前主簿 崔學遠가 차출되어 활동하였다. 화원의 경우에도 18세기에는 옥책에 금을 메꾸는 일로 국한되었다가 1827년에는 옥보의 전문에 복칠하는 일까지 확장되었는데, 이때부터 금보의 전문에 복칠하는 일, 왕릉의 표석에 주홍을 메꾸는[填紅]까지 수행하였다. 금보 篆文에 복칠하는 일은 화원 張駿良이, 시책에 금을 메꾸는 일은 화원 全應洙과 全在晟 및 金學敬이, 표석에 주홍을 메꾸는 일은 화원 金聖祐와 李應模이 맡아 했다. 이처럼 사자관과 화원의 업무는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확장되었지만 당시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의 숫자는 총 6명, 화원의 숫자는 총 6명으로서 1827년에 사자관 8명과 화원 7명이었던 것보다 14~25% 정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835년에 국역을 졌던 사자관 洪聖老의 경우 1795년부터 1835년까지 40년간 8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1795년 영조와 정순왕후 및 장조와 헌경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802년 영조와 정순왕후 및 효의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 때, 1812년 효명세자를 세자로 책봉할 때, 1816년 혜경궁 홍씨의 사후 상례도감과 빈궁도감에서, 1835년 익종을 추존하여 신주에 보획할 때 차출되어 국역을 졌다.

2년 뒤 1837년에는 순조의 사후 2년 뒤 순조와 순원왕후 및 문조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이 설치되었고, 여기에서 4분의 옥보와 옥책을 제작했다. 옥보와 옥책의 수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관은 6명, 화원은 4명을 동원하여 2가지 업무를 했다. 옥책에 초도서를 쓰는 사자관은 全承祖과 崔應夏를 비롯한 6명을 차출했는데, 옥보의 복칠을 하는 사자관도 6명 중 2명이 수행한 것이다. 화원 경우에도 張駿良과 朴基駿을 비롯한 4명이 옥책에 금을 메꾸는 일도 하였고, 옥보에 복칠하는 일도 함께 했다. 이처럼 이전에는 사자관과 화원이 모두 6명씩이었는데, 그중 화원은 4명으로 약간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존호존숭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사자관과 화원의 역할은 헌종의 사후 철종 때 1851년 순조와 순원왕후, 문조와 신정왕후 및 효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까지 보인다. 당시 존숭도감에는 사자관은 옥책에 복칠하거나 옥보의 전문에 복칠하는 역할을 위해 총 10명을, 화원은 옥책에 금을 메꾸거나 옥보의 전문에 획을 긋기 위해 차출하였다. 이를 위해 복칠 사자관은 옥책에 복칠하는 서사관은 彭勉義, 金弘祖를 비롯하여 7명을, 옥보의 전문에 복칠을 하는 서사관은 全承祖를 비롯하여 3명이었다. 옥책에 금을 메꾸는 화원은 鄭昌鉉 등 5명을, 옥보의 전문에 획을 긋는 화원은 張駿良과 劉淑 등 3명이다. 이전까지 서사관과 화원은 옥보나 옥책 모두에 복칠하거나 금을 메꾸는 일을 공통적으로 수행하여 인원수가 서사관 6명,

화원 4명이었다. 그런데 1851년에는 사자관 총10명과 화원 총8명으로 이전보다 1.5배 이상 1배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활동한 사자관 彭勉義의 경우 1835년 순조의 국장 때와 1852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존호도감 때에도 국역을 졌다.

<표> 19세기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옥각수, 도자장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玉匠 | 玉刻手 | 刀子匠 | 소장번호 |
|------|------------------|----|----|-----------|---------------|-----------|---------|
| 1800 | 정조 | 국장 | 三房 | 李大得 등 31명 | 玉刻手 李瑞興 등 18명 | 池順才 등 15명 | 규13634 |
| 1802 | 영조, 정순후, 정조, 효의후 | 존승 | 1방 | 李大得 등 6명 | 金千得 등 12명 | 智順才 등 10명 | 규13319 |
| 1804 | 영조, 정순후 | 존호 | 1방 | 李大得 등 13명 | 金千得 등 12명 | 智順才 등 11명 | 규13322 |
| 1805 | 정순왕후 | 국장 | 三房 | 李大得 등 46명 | 李東珍 등 14명 | 鄭尙禧 등 13명 | 규13592 |
| 1805 | 영조, 정순후 | 존승 | 1방 | 李大年 등 13명 | 金千得 등 12명 | 金昔鎭 등 6명 | 규13325 |
| 1821 | 효의왕후 | 국장 | 三房 | 方成昌 등 35명 | 朴枝春 등 13명 | 李祥得 등 13명 | 규13647 |
| 1827 | 순조, 순원후 | 존호 | 1방 | 方聖昌 등 25명 | 李世豊 등 10명 | 田應春 등 10명 | 규13344 |
| 1835 | 순조 | 국장 | 三房 | 鄭在寬 등 52명 | 李世豊 등 18명 | 田應昌 등 18명 | 규13669 |
| 1835 | 문조 | 추승 | 1방 | 鄭昌雲 | 李東協 | 田應春 등 12명 | 규13396 |
| 1837 | 순원후, 신정후 | 존승 | 1방 | 李昌根 등 9명 | 李東顯 등 8명 | 田應春 등 3명 | 규13376 |
| 1841 | 순원후 | 존호 | 1방 | 金光采 등 9명 | 李元 등 2명 | 李完石 등 2명 | 규13381 |
| 1843 | 효현왕후 | 국장 | 三房 | 鄭在寬 등 23명 | 李世豊 등 19명 | 崔福潤 등 19명 | 규13802 |
| 1848 | 순원후, 신정후 | 상호 | 1방 | 金光采 등 7명 | 李世永 등 3명 | 崔福潤 등 2명 | 규13348 |
| 1849 | 헌종 | 국장 | 三房 | 金光采 등 35명 | 朴春根 등 17명 | 崔卜允 등 17명 | 규13784 |
| 1851 | 순원후, 신정후, 효정후 | 존승 | 1방 | 申得浩 등 8명 | 朴春根 등 7명 | 李明圭 등 3명 | 규13385 |
| 1852 | 순원후 | 상호 | 1방 | 鄭在寬 등 5명 | 朴春根 등 5명 | 金信澤 등 3명 | 규13391 |
| 1853 | 순조, 순원후 | 존호 | 1방 | 金光采 등 2명 | 朴春根 등 2명 | 羅慶宗 등 2명 | 규13353 |
| 1853 | 문조, 헌종 | 존호 | 1방 | 金光采 등 5명 | 朴春根 등 5명 | 羅昌基 등 2명 | 규13403 |
| 1857 | 순원왕후 | 국장 | 三房 | 金光采 등 6명 | 朴春根 등 13명 | 崔福潤 등 8명 | 규13683 |
| 1863 | 철종, 철인후 | 존호 | 1방 | 金光采 등 3명 | 朴春根 등 5명 | 李明奎 등 2명 | 규13446 |
| 1864 | 철종 | 국장 | 三房 | 方喜文 등 2명 | 朴春根 등 4명 | 李世九 | 장2-3022 |
| 1878 | 철인왕후 | 국장 | 三房 | 朴相根 등 2명 | 玉刻手 李好榮 등 2명 | 李英植 | 규13860 |
| 1890 | 신정왕후 | 국장 | 三房 | - | 玉刻手 鄭道源 등 8명 | 崔福允 등 2명 | 규13736 |
| 1898 | 명성황후 | 국장 | 三房 | - | 玉刻手 金殷錫 등 5명 | 崔光哲 등 2명 | 규13883 |
| 1904 | 효정왕후 | 국장 | 三房 | 金德用 등 2명 | 玉刻手 金殷錫 등 6명 | 金甲得 등 3명 | 규13814 |
| 1904 | 순명비 | 국장 | 三房 | - | 金殷錫 등 7명 | 金漢玉 등 2명 | 규13900 |

19세기 후반의 경우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 시호옥책을 제작할 때 필요한 옥을 산지의 옥광산에서 채취하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이미 갖추고 있거나 시장에서 무역한 옥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시호옥책을 제작하는 옥장이나 각수 및 도자장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864년 철종의 국장 때 국장도감의 3방에 옥장은 3명, 각수는 옥각수라는 전문화된 장색으로 특화되어 불리며 4명, 도자장은 1명이었다. 그보다 바로 앞선 1849년 헌종의

국장 때 옥장은 35명, 각수는 17명, 도자장은 17명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현종 국장 때 3장색의 총원은 69명으로 평균 23명이었는데, 철종 국장 때 3장색의 총원은 8명으로 평균 3명이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기에 국장 시책을 제작하는 장인은 전반기보다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시책을 제작한 장인들 중에서 각 장색별로 1등상을 받은 장인들이 우두머리의 성격을 가지고 도감의 일을 진두지휘하였던 것 같다. 19세기 전반에 옥장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 1등상을 받은 장인은李大得, 方成昌, 金光采, 方喜大, 朴相根, 崔順元 및 金德龍이었다. 각수 중에는 李東珍, 李瑞興, 李世豊, 朴春根, 李好榮, 鄭道源, 金殷錫이 두드러지고, 도자장 중에는 池順才, 李祥得, 崔福潤, 李世九, 崔光哲 등이었다.

19세기 국장도감 3방에서는 이전 시기와 달리 19세기 전반기와 19세기 후반기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국왕의 국장과 왕후의 국장 또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19세기 전반 국왕의 국장은 1800년 정조의 국장, 1835년 순조의 국장, 1849년 현종의 국장을 보면, 옥장은 각각 31명, 52명, 35명으로 총118명에 평균 49명이다. 3도감의 각수는 18명, 18명, 17명으로 총53명에 평균 17명이며, 3도감의 도자장은 15명, 18명, 17명으로 총50명에 평균 16명이다. 곧 옥장 49명의 숫자가 각수 17명이나 도자장 16명보다 약 3배 정도로 많았고, 각수나 도자장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였다.

한편 왕후의 국장은 1805년 정순왕후, 1821년 효의왕후, 1843년 효현왕후, 1857년 순원왕후의 국장을 보면 옥장은 각각 14명, 13명, 19명, 6명으로 총52명에 평균 13명이다. 4도감의 각수는 14명, 13명, 19명, 13명으로 총59명에 평균 15명이고, 4도감의 도자장은 13명, 13명, 19명, 8명으로 총53명에 평균 13명이다. 옥장 15명, 각수 15명, 도자장은 13명으로서 3장색의 장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숫자였다. 이를 통해 국왕의 시호옥책이 왕후의 것보다 양이 많고 새기는 내용이 많아 규모가 커서 옥장의 숫자가 많았으며 각수나 도자장의 숫자도 약간씩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나. 19세기 전반 옥장

19세기에 들어 왕실의 존호존숭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 동원된 옥장 중 장기간 국역을 지면서 활동하는 장인이 몇몇 두드러진다.

19세기 초에는李大得(1783~1816년 활동)이 정조대부터 순조대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옥장이었다. 그는 1783년 존호존숭도감부터 1816년 혜경궁 홍씨의 상례도감까지 33년간 13곳의 도감에서 옥을 다루어 1등상을 받았다. 19세기 말에는 鄭在寬(1816~1855년 활동)과 金光采(1835~1864년 활동)이 대표적인 옥장이다. 이들 중 정재관과 김광채는 1835년부터 1855년까지 20년간 활동시기가 겹치면서 상호

경쟁을 하면서 옥장 중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었던 점이 인상적이다.

다. 19세기 전반 각자장

19세기에 들어서도 왕실에서는 왕실 의례 때 옥책의 제작이 활발해서인지 동원된 각수들 또한 옥각수들이 장기간에 다수의 도감에 동원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각수들 중 18세기 말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던 각수집안에서 성장한 형제각수들이 같은 도감의 같은 제작처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178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850년대까지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이동진 4형제 각수와 이세영 형제 각수 집안이 대표적이다.

18세기 말 정조 말부터 19세기 초 순조연간에 해당되는 1780년대부터 1850년까지 70년간 활동했던 장인 집안의 각수 형제들이 공동작업을 한 것이 주목된다. 각수 이씨 집안에 해당되는 이들로서 그들은 돌림자를 사용하는 이동진, 이동식, 이동근, 이동현 형제들과 이세영, 이세풍 형제들이다.

19세기 전반기에 ‘동’자 돌림 형제각수들과 비교되는 각수집안으로 이세영과 이세풍 형제를 들 수 있다. 그들은 1800년부터 함께 동원되기 시작하여 거의 모든 국역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들 중 이세영은 1858년까지 58년간, 이세풍이 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1843년까지 43년간 활동하였다. 국역에 동원된 기간 동안 형제 각수는 앞서 이동진 형제각수들과 마찬가지로 왕실의 가례나 흥례 때 옥책이나 애책 및 시책에 글자를 새기는 옥각수로 동원되었고, 국장도감에서 지식이나 표석 및 산릉도감 대부석소에서 석물을 다루는 장인으로 활동하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두 형제각수들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옥을 다룰 때에는 옥각수로 세분화되어 의례에 병기되어 있으나 석물을 다룰 때에는 석각수가 아닌 각수로만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각수는 박지춘, 박춘근, 안정필, 이원석, 박중근 등이다. 이들이 국역에 참여하였을 때 의례의 기록에는 대부분 옥각수로 분류되어 있었다. 다만 석각수의 경우에는 18세기 말부터 옥각수로 활동을 시작했던 박지춘과 19세기 말의 이운대가 대표적이다. 먼저 박지춘의 경우 1795년부터 1837년까지 42년간 14번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그 또한 국역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부터 옥각수로 주로 불렸으나, 그의 진가는 흥례 시 예장도감이나 산릉도감 등의 대부석소에서 뚜렷한 활약을 하여 옥각수보다는 석각수로서의 활동이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1816년 헌경 혜빈의 상례도감의 거의 모든 제작처에 참여하여 3방에서는 옥각수로서 애책과 시책을 제작하였고, 표석소와 지식소에서는 석각수였지만 분류상 명칭은 각수였다. 각방과 각소에서 그는 모든 각수보다 가장 앞선 위치에 존재하였던 가장 으뜸에 해당되었다. 이미 18세기 말에 뛰어난 장인으로 인정받았던 이동식을 비롯한 형제각수와 이세영과 이세풍의 형제각수들보다 앞자리에 위

치하여 당시 가장 뛰어난 석각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시상을 할 때 석각수로서 1등에 올랐다.

이후에도 박지춘은 산릉도감 대부석소의 석각수로서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1821년 정조 건릉 천봉 산릉도감의 경우 대부석소의 석수로 활동하였는데 이때 맨 앞에 기록되어 있었다. 1822년 현목 수빈의 예장도감에서도 그는 표석소와 지식소에서 석역에 활동하였는데, 이때 19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형제 각수 중 이동근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함께 해서 그는 3등으로 시상하였다. 1830년 효명세자의 예장도감에서도 그는 표석소에서 또 다른 형제 각수였던 이세풍이 가장 앞장서서 석역을 주도할 때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등으로 시상하였다. 이처럼 산릉도감이나 예장도감의 표석소에서 비석에 글자를 새겼던 석각수가 박지춘이었다. 19세기에 그는 교서관에 소속되지 않고 사사로이 활동을 하다가 국역에 징발되었던 사장, 사각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도 죽각수나 목각수의 경우 왕실이나 국역에서는 옥각수나 석각수보다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아, 그들은 민간에서 개인 문집이나 서원의 책자 간행 등에서 활약을 했다고 여겨진다. 18세기 말에 활동하였던 옥각수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지만 개인의 특징이 달라 활동공간이 겹치지 않는 각수가 있는데, 그 중 1명이 이주욱이다. 그는 각수로만 병기되어 있지만 옥각수로 세분된 각수들과는 활동 영역이 달랐다. 즉 그가 참여한 도감은 주로 왕실의 족보를 제작하는 데여서, 그들은 선원보를 목판에 새기는 작업을 했던 목각수였다고 여겨진다.

19세기에도 각수들 중 일부는 교서관에 소속된 관각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경순과 송홍일의 경우 1848년 국조보감을 간행할 때의 도감에 참여하였는데, 그들은 예관(芸館) 소속으로 병기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18세기 말 정조 말경에 상당수의 상설아문에 소속 장인들이 거의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교서관은 19세기에도 여전히 국가에서 사용할 인쇄물을 간행하여 국가 지식을 집결시키고 확산시키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라. 19세기 전반 도자장

19세기의 도자장 또한 이전 18세기 도자장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장인이 그다지 많지 않다. 19세기 초중반에는 田應春이 1827년부터 1837년까지 10년간 3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도자장은 19세기 중후반에 李明圭의 경우 예외적으로 1835년부터 1863년까지 28년간의 장기간 동안 6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여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도자장의 경우 2~3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2~3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진 정도이고 대개 1차례만 의뢰에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도자장의 기술이 옥장이나 각수처럼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기량

이 우수해서 옥책을 제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수가 옥편 위에 새기는 칼을 버려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8) 19세기 후반기 옥책의 제작장인

고종이 즉위한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존호존숭이 이뤄졌고, 특히 신정왕후 조씨에 대한 존호가 가장 많았던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도감에서 옥책의 제작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제작하는 장인들이 전문화되면서 사자관과 화원 뿐 아니라 옥장과 옥각수 및 도자장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숙련된 장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가. 19세기 후반 사자관과 화원

고종대에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제술관이 책문을 작성하고 사자관들은 이것을 쓴 후, 사자관이 옥책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였고, 화원들은 옥책에 금을 메꾸는 역할이 정례화되었다. 아울러 옥책을 제작하는 각수는 옥각수로 세분화되어 관련 도감에 이 때문에 19세기 후반 존호존숭도감에 차출된 사자관과 화원은 특정 역할로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9세기 후반 고종대 존호, 존숭도감에서 활동한 사자관과 화원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별단 | 寫字官 | 畫員 | 소장번호 |
|------|-----------------------|----|----|---|---|--------|
| 1866 | 문조, 헌종, 철종 | 존호 | 1방 | 玉冊補劃; 李象桓, 李仁模, 崔健植, 劉信祐, 金永集, 劉晉祐, 金載傳, 崔在禧 | 玉冊填金; 金學道, 李哲模, 白俊煥, 金濟懋, 金濟完, 劉淵祐, 李文炯 | ㉚13408 |
| 1867 | 순조, 순원후 | 존호 | 1방 | 玉冊北漆; 彭繼容, 劉漢翼 | | ㉚13366 |
| 1875 | 문조, 신정후 | 존호 | 1방 | 玉冊補劃; 金尙鍵, 劉漢翼/ 玉冊北漆; 李斗赫, 郭元淳, 徐寅杓, 李鍾益, 金季永, 李兢鉉, 金東弼 | 玉冊填金; 崔圭序, 朴昌洙, 徐斗杓, 金鏞元, 白禧培, 金樂遠, 尹錫永, 金濟完, 張東赫 | ㉚13412 |
| 1877 | 신정후, 효정후, 철인후, 고종 | 존호 | 1방 | 玉冊補劃; 金成鉉, 劉晉祐, 劉漢翼, 金季永, 李觀秀, 金尙鍵/ 玉冊北漆; 李斗赫, 郭元淳 | 玉冊填金; 徐寅杓, 徐興源, 崔圭序, 朴昌洙, 徐斗杓 | ㉚13455 |
| 1888 | 신정후 | 존호 | 1방 | 玉冊補劃; 金季永, 李健基/ 玉冊北漆; 金薰泳, 金永錫 | 玉冊填金; 李哲模, 朴昌洙, 朴正鉉, 金濟完, 宋秉華 | ㉚13460 |
| 1888 | 신정후, 효정후 | 존호 | 1방 | 玉冊補劃; 李命桓, 李兢鉉, 金漢朝, 李斗嫻, 金東勛, 李健基, 李英鎭 玉冊北漆; 全昌錫, 朴壽永, 李一溶, 金泰殷, 朴商說 | 玉冊填金; 宋秉華, 李基成, 金仁植, 朴昌洙, 李棋祥 | ㉚13473 |
| 1890 | 숙종 | 존호 | 1방 | 玉冊補劃; 李一溶, 金泰殷, 李碩奎, 李斗嫻, 李兢鉉/ 玉冊北漆; 崔仁植, 劉漢春, 金相沼, 李健基 | 玉冊填金; 宋秉華, 洪永祖, 李祺榮, 金濟民 | ㉚13272 |
| 1890 | 문조, 신정후 | 존호 | 1방 | | 玉冊填金; 宋秉華, 卞志琬, 洪永祖 | ㉚13422 |
| 1892 | 문조, 신정후 | 존호 | 1방 | 玉冊補劃; 金重謨, 崔昶, 劉漢稷, 劉漢肯, 洪奎鉉, 朴正善, 金載傳, 金肯洙/ 玉冊北漆; 全光默, 全宅慶, 金漢朝, 金東勛, 李斗赫 | 玉冊填金; 宋秉華, 宋秉斗, 李基淳, 白禧培, 劉淵祐, 劉容祐, 尹錫永, 金世榮, 趙景健 | ㉚13425 |
| 1900 | 인조, 인렬후, 장렬후, 효종, 인선후 | 존호 | 1방 | 玉冊補劃; 韓斗錫, 朴鳳鎭, 黃龍秀, 金澤榮, 李貞善, 慶煌, 閔泳禧, 李應鉉/ 玉冊北漆; 朴淳亨, 林興完, 李源益, 尹晶錫 | 玉冊填金; 尹錫永, 白禧培, 吳正善, 閔泳郁 | ㉚13426 |

고종이 즉위한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존호존숭이 이뤄졌고, 특히 신정왕후 조씨에 대한 존호가 가장 많았던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도감에서 옥책의 제작이 많아지면서 사자관과 화원의 업무가 전문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곧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들은 옥책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거나 옥보의 전문에 북칠을 했고, 화원들은 옥책에 금을 메꾸거나 옥보의 전문에 보획을 하거나 옥보의 전문에 북칠을 하는 역할이 정례화 되었다. 이 때문에 19세기 후반 존호존숭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과 화원은 특정 역할로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866년 철종의 사후 고종이 문조와 헌종 및 철종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옥책에 보획을 위해 사자관 李象桓을 비롯한 8명과 옥책에 금을 메꿀 화원 金學道를 비롯한 7명, 옥보에 보획을 할 화원 趙在興을 비롯한 7명을 차출하였다. 사자관은 8명인데 화원은 총 15명으로 인원수가 많아진 점이 눈에 띈다. 이듬해 1867년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책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彭繼容과 劉漢翼을 차출하였고, 그들에게 상으로 외직을 주거나 邊將에 제수하기도 하였다.

이후 고종대에는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이 빈번했다. 1875년 고종이 문조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옥책에 보획을 위해 사자관 金尙鍵과 劉漢翼을, 옥책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李斗赫을 비롯한 7명, 옥보 전문에 북칠을 할 사자관 白萬裕 등 3명을 차출했다. 화원의 경우 옥책에 금을 메꾸기 위해 화원 崔圭序를 비롯한 9명을, 보전문에 보획을 할 화원 白運培과 李景鈺을 차출하였다. 당시 사자관 총 12명과 화원 총 11명으로 이전보다 숫자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년 뒤 1877년 대왕대비인 신정왕후를 비롯하여 왕대비인 효정왕후 및 철인왕후 그리고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상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 제작해야 할 옥책의 숫자가 많아 사자관과 화원도 많이 차출하였다. 옥책에 보획은 사자관 金成鉉 등 6명을, 옥책의 북칠은 사자관 李斗赫과 郭元淳이 했다. 옥책에 금을 메꾸고자 화원 徐寅杓을 비롯하여 5명을,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彭宅均과 白運培를 차출하였다. 즉 사자관은 총 8명, 화원은 총 7명이 활동하였다.

1888년 대왕대비인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가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 제작할 옥책의 숫자가 작아서인지 사자관 총 5명과 화원 총 7명을 그 숫자가 줄었다. 옥책에 보획할 사자관 金季永과 李健基을, 옥책의 북칠할 사자관 金薰泳과 金永錫을, 보전문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高殷相을 차출했다. 옥책에 금을 메꾸고자 화원 李哲模 등 5명을,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朴鏞夔와 朴鏞薰을 차출하였다. 같은 해 문조를 비롯하여 신정왕후, 효종과 효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가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에는 제작해야 할 옥책이 많아서인지 이전보다 사자관과 화원의 숫자가 증가하여 사자관은 총 17명과 화원은 총 10명이었다. 옥책의 보획은 사자관 李命桓 등 7명을, 옥책의 북칠은 사자관 全昌錫 등 5명을, 보전문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劉漢承 등 5명을 차출했다. 옥책에 금을 메꾸고자 화원

宋秉華 등 5명을,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朴鏞夔 등 5명을 차출하였다. 옥책의 숫자에 따라 동원해야 하는 사자관과 화원의 숫자가 가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에는 숙정에서 존호를 올리기 위해 추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 제작할 옥책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사자관 총12명과 화원 총8명이 참여하였다. 옥책에 보획할 사자관 李一溶 등 5명을 동원하였고 그들에게 加資하고, 상당한 직책에 調用했다. 옥책에 북칠할 사자관 崔仁植 등 4명을 동원하였고 그들 중 3명에게 守습을 제수하였다. 옥보의 篆文에 북칠을 위해 사자관 金相河 등 3명이 참여하였고 그들에게 상당직을 조용하였다. 화원의 경우 옥책에 금을 메꾸고자 화원 宋秉華 등 4명을 동원하여 그들 중 4명에게 수령을 제수하였고, 보전문에 보획하고자 화원 朴鏞夔 등 4명을 차출하여 상으로 상당직을 조용하였다. 이때부터는 도감에 차출된 사자관이나 화원에게 상으로 벼슬을 내렸다.

1890년 신정왕후가 승하하자 고종은 종법상의 부모인 익종과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추상존호도감을 설치하였다. 당시 제작한 것은 옥책과 금보였는데, 사자관은 부르지 않고 화원 총7명만 차출한 점이 주목된다. 당시 익종대왕의 옥책에 금을 메꾼 화원은 宋秉華과 卞志琬을, 신정왕후의 옥책에 금을 메운 화원은 洪永祖이었다. 익종대왕의 금보에 보획을 한 화원은 朴鏞夔와 徐元熙였고, 신정왕후의 금보에 보획을 한 화원은 朴鏞薰과 趙錫晋이었다. 신정왕후의 사후 4년상이 지나고 종묘에 부모해야 할 때가 되어 1892년에는 익종과 신정왕후에게는 추상존호를, 효정왕후와 고종 및 중전[명성황후]에게는 가상존호를 올리기 위해 상호도감을 설치하였다. 존호의 대상이 많고 옥책의 수량도 많았기 때문에 차출된 사자관은 총 13명, 화원은 총 20명이어서 보통 때보다 2~3배 이상 많았다. 4점의 옥책에 보획을 한 사자관은 金重謨 등 8명이고, 옥책에 북칠을 한 사자관은 全光默 등 5명이었다. 옥책에 금을 메꾼 화원은 宋秉華과 卞志琬을, 신정왕후의 옥책에 금을 메운 화원은 洪永祖이었다. 익종대왕의 금보에 보획을 한 화원은 宋秉華 등 9명이었고, 보전문에 보획을 한 화원은 趙錫晋 등 5명, 보전문에 북칠을 한 화원은 金濟懋 등 5명이었다.

화원들 중 집안 전체가 오랫동안 존호도감에 국역을 진 경우가 있는데, 白殷培와 白禧培 및 白運培 형제가 그들이다. 이들 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아 가장 먼저부터 활동한 화원이 백은배이다. 화원 白殷培는 1843년 효현왕후의 국장 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여 1857년부터 참여하는 백희배보다 14년 이상 앞서고 있다. 이후 1845년 헌종과 효정왕후의 국혼 때, 1852년과 1853년 순조와 순원왕후를 비롯한 효정왕후 및 철인왕후에 대해 존호를 올릴 때, 이후 1855년 수릉의 천봉이나 휘경원의 천릉 및 1857년 순조왕후의 빈전 때, 1863년 수빈 박씨의 휘경원 천봉 때에 참여하였다. 1872년 어진을 이모할 때에 종친부에 소속되어 어진화사로 우뚝 올라섰다. 그 또한 중부시 소속의 화원으로서 여러 차례 참여한 곳이 바로 국왕의 璿

源譜를 약수정할 때 선을 긋는 印札畫員으로 참여한 것이 주목된다. 1875년, 1877년, 1879년 백은배와 백희배가 함께 참여한 것이다. 1887년 정해진찬 때 화원으로 참여하였고, 1890년 문조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보전문에 보획을 하는 화원이었다. 1899년 영정을 모사할 때 주관화사는 趙錫晉과 蔡龍臣이었고, 동참화원은 洪義煥이나 李棋榮 등이, 백은배는 방외화사로 참여하였으며 백희배는 圖畫主事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백은배는 1843년부터 1899년까지 56년간 국역을 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원 白禧培의 경우 1857년 순원왕후의 국장부터 1907년 중화전을 영건할 때까지 50년간 국역을 졌다. 1866년부터 1675년, 1892년, 1899년, 1900년, 1902년 등의 존호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메꾸는 역할을 했는데, 특히 그의 이력 중 눈에 띄는 것은 1863년과 1872년, 1875년, 1877년, 1878년, 1879년, 1883년, 1899년, 1902년, 1907년 종친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왕의 선원보를 약수정하는 도감에서 인찰화원으로 활동한 점이다. 그밖에 백희배는 1898년 명성황후의 국장 때 빈전도감에서는 八翟에 起畫하는데 참여하였고, 1899년과 1901년의 영정모사도감이나 1900년 경복궁과 창덕궁의 증건도감이나 永禧殿의 영건도감, 1907년 덕수궁 中和殿의 영건도감에서는 五峰屏을 기화하거나 圖畫를 했다. 1904년 효정왕후와 같은 해 승하한 순명황태자비의 빈전도감에서 棺衣에 黼紋을 그렸으며, 1906년 순종과 순종비와 국혼을 치를 때에 참여했다. 그는 1907년까지 선원보를 수정할 때 선을 긋거나 중화전의 오봉병을 그릴 때까지 국역을 졌으며, 이때는 백희배는 정3품의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백희배는 1857년부터 1907년까지 50년간 화원으로서 국역을 지면서 6번의 존호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메꾸는 화원이었는데, 1863년부터 1907년까지 선원보를 수정하는 도감에서 선을 긋는 역할을 했으며, 궁궐의 영건도감에서는 오봉병풍을 기화하거나 그리는 화원으로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발하게 국역을 졌다.

화원 白禧培와 함께 화원 집안으로 여겨지는 白運培의 경우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 비롯하여, 1875년, 1877년 존호도감에서는 보전문의 보획을 하는 화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편 화원 李哲模는 1853년부터 1888년까지 35년간 5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853년 순조에게 추상 존호를 올리고 신정왕후에게 가상존호를 올릴 때, 1866년, 1875년, 1888년의 존호도감에서는 옥책에 북칠을 하거나 금을 메꾸는 역할을 했다. 1864년 철종의 국장 때 3방에 참여하였다.

화원 宋秉華의 경우 1888년, 1890년, 1892년에 설치된 여러 차례의 존호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메꾸는 역할로 참여를 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여러 도감에서 활약을 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는 1878년 철인왕후의 빈전혼전도감에서 棺衣에 黼紋을 그리면서 부터이다. 1885년 세자 순종이 순명세자빈과 국혼을 올릴 때 병풍에 기화하였고, 1887년 정해진찬 때에는 3등을, 1890년 영조의 묘호를 올리거나

신정왕후의 국장 때 옥책에 금을 메꾸는 일을 하고, 1892년 신정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모할 때 국역을 졌다. 그는 1878년부터 1890년까지 거의 대부분 도감에서 옥책에 금을 넣는 일에 특장이 있어 반복적으로 차출되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존호를 올린 것은 대한제국기인 1900년에 인조와 인원왕후와 장렬왕후, 효종대왕과 인선왕후 그리고 고종과 효정왕후 및 명성황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였다. 당시 옥책과 옥보의 제작이 많았기 때문에 사자관이나 화원의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았다. 게다가 대한제국에서 제도와 직제의 명칭이 바뀌어 이전과 다른 품등으로 구분하였다. 제작을 주도한 사자관 韓斗錫과 朴鳳鎭은 6품이었지만, 나머지 사자관들은 대체로 9품이었다. 그들 중 소속이 있는 이들로 李貞善은 學部主事였다. 옥책에 전금을 한 화원은 尹錫永과 白禧培는 圖書主事였다. 보 전문에 보획을 한 朴鏞夔는 掌隸院 주사, 李潢遠은 度支部 주사, 朴承源은 中學校 敎官이었다. 보 전문에 북칠을 한 화원 朴鏞薰과 金喜鎭 및 尹元燮은 6품이었고, 吳在珪는 內部 주사였다. 이처럼 당시에도 옥책이나 옥보의 제작과정에 맞춰 사자관은 옥책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화원은 옥책에 금을 메꾸거나 옥보의 전문에 보획을 하거나 북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조선이나 대한제국 시기에 일치하였으나 차출된 사자관이나 화원의 소속 관청은 학부나 도화부, 장예원, 탁지부, 중학교, 내부 등 새로운 편제된 관제와 직제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행사가 끝난 사자관과 화원들은 加資하거나 관품을 올려 주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까지 1888년, 1890년, 1892년, 1900년 존호존숭도감에서 寶篆文에 보획을 하는 활동한 화원 朴鏞夔와 趙錫晉이 있다. 박용기의 경우 1857년 순원왕후나 1864년 철종의 빈전도감, 1879년 철인왕후의 빈전도감 때, 1890년 신정왕후의 빈전도감 때, 1878년 명성황후의 빈전혼전도감 때, 명정에 보획을 하거나 棺衣에 黼를 그리거나 하현궁 명정에 보획을 하였으며, 1872년, 1901년 어진을 이모하거나 모사할 때 참여했고, 1877년 선원보를 수정하는 도감에서 인찰화원이었고, 보인소에서 보인을 개주하여 다시 제작할 때, 1890년 영조에게 묘호를 올릴 때, 1898년 고종의 대례 때, 1898년 명성황후의 국장 때에는 掌隸院 주사였는데 수령으로 제수 받았다. 1900년 영왕과 의왕을 책봉할 때, 1901년 순비를 책봉할 때 참여하였다. 1900년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를 영건할 때 조경단 비석의 보획을 하였다. 이처럼 화원 박용기는 1857년부터 1901년까지 44년간 많은 도감에서 국역을 졌던 대표적인 화원이었다.

나. 고종대 옥장

옥책을 만들 때 옥장이 옥편을 다듬고, 사자관이 종이 위에 옥책의 책문을 베껴 쓰고, 옥간 위에 붙이고 나면 옥각수들이 이것을 새기며, 도자장은 옥장이나 옥각

수가 사용한 도구를 버리는 역할을 했다.

<표> 19세기 고종대 존호존숭 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한 옥장, 옥각수, 도자장 명단

| 연대 | 주체 | 도감 | 각방 | 玉匠 | 玉刻手 | 刀子匠 | 소장번호 |
|------|--|----|----|----------|-----------|----------|--------|
| 1864 | 신정후, 효정후 | 존호 | 1방 | 方喜文 등 3명 | 朴重根 등 4명 | 朴永福 등 2명 | 규13444 |
| 1866 | 문조, 헌종, 철종 | 존호 | 1방 | 方喜文 등 2명 | 李俊錫 등 4명 | 李世弘 | 규13408 |
| 1867 | 순조, 순원후 | 존호 | 1방 | 金濟根 등 3명 | 車昌信 등 5명 | 李命圭 등 2명 | 규13366 |
| 1875 | 문조, 신정후 | 존호 | 1방 | 金景雲 등 2명 | 李元錫, 등 4명 | 李明石 | 규13412 |
| 1877 | 신정후, 효정후, 철인후, 고종 | 존호 | 1방 | 朴在根 등 3명 | 李俊錫 등 3명 | 李明圭 등 2명 | 규13455 |
| 1888 | 신정후 | 존호 | 1방 | 金景雲 등 2명 | 李仲呂 등 5명 | 金學瑞 | 규13460 |
| 1888 | 신정후, 효정후 | 존호 | 1방 | 金景雲 등 2명 | 李潤奎 등 8명 | 金學瑞 | 규13473 |
| 1890 | 숙종 | 존호 | 1방 | 金景雲 등 2명 | 李潤大 등 9명 | 金仁得 | 규13272 |
| 1890 | 문조, 신정후 | 존호 | 1방 | 金景雲 등 2명 | 趙俊煥 등 7명 | 李秀鶴 | 규13422 |
| 1892 | 문조, 신정후 | 존호 | 1방 | 朴相燁 등 3명 | 安孝建 등 12명 | 金啓孫 | 규13425 |
| 1900 | 인조, 인렬후, 장렬후, 효종, 인선후, 고종, 효정후, 명성황후 | 존호 | 1방 | 金德龍 | 金殷錫 등 11명 | 池永奎 | 규13426 |

고종대의 옥장은 2~3명이었고, 옥각수는 1888년까지는 4~5명이었으나 이후에는 8~9명 내지 11~12명으로 늘어났으며, 도자장은 1877년까지는 2명이었으나 이후에는 대체로 1명이었다. 그중 옥장은 方喜文, 金濟根, 金景雲, 朴在根, 朴相燁, 金德龍 등이다.

다. 고종대 이후 옥각수

고종대의 존호존숭도감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의 옥각수는 보통 4~5명이 동원되었고, 1888년에는 옥책의 숫자가 많아져 8명 이상 12명까지 동원하게 되었다. 여러 명의 옥각수 중 가장 앞쪽에 기록되어 각수 중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朴重根을 비롯하여 李俊錫, 車昌信, 李元錫, 李仲呂, 李潤奎, 李潤大, 趙俊煥, 安孝建, 金殷錫 등이었다. 18세기에는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관각수여서 2~30년 이상 오랫동안 활동하였던 데 비하여 이 시기에는 사적 생산에 종사하여서인지 대체 1~2번의 도감에서만 활동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옥책이나 옥보 및 옥인 등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특별히 옥각수라고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세기 중기 이후 고종대에 활동한 옥각수 중에서는 세습적인 각수 집안이 발견된다.

장기간 활동하였던 옥각수 중에서는 박씨 형제로서 박춘근과 박중근, 이씨 형제 각수인 이윤규와 이윤대가 그들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박씨 형제인 박춘근은 1827년부터 1864년까지 37년간 18번의 도감에서 옥각수로 활동하였다. 그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박중근은 1851년부터 1864년까지 13년의 짧은 기간에 9번의 도감에서 옥각수로 활동하였는데, 박중근과 함께 활동하며 형제 각수로서 기술이 가계로 전승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짧은 기간 활동한 장인 중에서 형제 각수가 함께 동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곧 1849년부터 국역을 졌던 이원석의 경우 그가 참여한 도감에서 1659년부터 ‘석’자 돌림의 이형석, 이준석, 이완석, 이영석 등과 함께 활동하여 형제 각수였다고 추정한다.

안정필과 안창식의 경우 성씨는 같으나 전자는 1835년부터 1858년까지 23년간 7번의 도감에, 후자는 1853년부터 1890년까지 37년간 17번의 도감에 징발되어 참여했지만 양자가 함께 활동한 시기나 도감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수집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편 안창식은 37년간 옥각수로 활동하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옥각수로 차출된 초기인 1853년부터 10년간은 옥각수 중에서 3등상을 시상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863년부터는 옥각수 중에서 2등상을 시상하고 있어 세월이 흐르면서 솜씨와 기술이 숙련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19세기에 3~4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도감에서 활동했던 옥각수는 안창식, 예광국, 이윤규, 이윤대, 이중려 등인데, 이들이 국역에 참여하였을 때 의례의 기록에는 대부분 옥각수로 분류되어 있었다.

19세기 들어서면 왕실의 의례행사용 공예품을 제작하는 옥각수의 숫자가 이전 18세기와 달리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예컨대 국혼을 치를 가례도감과 존호존숭도감 때 사용할 옥책을 제작할 때 차출된 옥각수의 숫자가 5명 내지 10명 내외였고, 흥례행사인 국장도감과 산릉도감 등에서 애책이나 시책을 제작하기 위해 동원된 옥각수들의 숫자도 10명 내지 15명이었다. 이렇게 줄어든 옥각수의 숫자 때문에 19세기 후반기에 장기간 오랫동안 도감에 차출되었던 옥각수들인 안창식이나 예광국, 이윤규, 이윤대 등은 1850년부터 1890년대에 설치되었던 대부분의 도감에서 함께 활동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도 죽각수나 목각수의 경우 왕실이나 국역에서는 옥각수나 석각수보다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아, 그들은 민간에서 개인 문집이나 서원의 책자 간행 등에서 활약을 했다고 여겨진다. 19세기 후기 죽각수는 이전 17세기나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세자와 세자빈의 가례나 책례 때 사용할 죽책의 각수로 동원되었던 공통점이 있다. 송홍일은 1848년부터 1879년까지 31년간 8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것이다. 곧 옥각수와 목각수의 공통점은 그들이 국역을 지는 기간이 20년 이상 40년 정도로 매우 길다는 점이다. 이들 옥각수는 같은 기간 15회 이상 20여 회에 가깝게 거의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국역에 빈번하게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한말에도 왕실의 행사에 노인국이 마지막 목각수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한말이 되면 목판 각자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데, 복각(覆刻)이나 지방 사간본(私刊本)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목판 인쇄술을 대신할 대안이 없

었기 때문에 목판 인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라. 고종대 도자장

19세기 말 고종대의 도자장은 대개 1명을 동원하는 것이 확인된다. 1864년의 朴永福, 李汝成을 비롯하여 李世弘, 李命圭, 金命吉, 李明石, 李昌植, 金學瑞, 金仁得, 李秀鶴, 金啓孫, 池永奎이다.

1907년 고종황제가 순종황제에게 양위를 하고 상황제에 오르면서 ‘수강(壽康)’이라는 존호를 가상하는 옥책을 제작하였다. 의궤에 수록된 <옥책 1건>의 도설에 의하면 옥책은 남양옥을 사용하였고, 옥간은 예기적으로 각 길이 9치, 너비 1치 2푼, 두께 6푼이었다. 이 때에는 옥간 5간을 1첩으로, 극항은 12자, 중항은 11자, 평항은 10자이고 니금으로 글자에 금을 메꿨다. 상하에는 진홍운문단으로 감쌌는데, 비단은 붉은 선자지로 배첩을 했으며, 상하의 편철과 돌쩍이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의궤에서 두드러진 것은 옥간의 맨 앞뒤 첫간에 옷을 입히는 부분에는 좌우 간에 가늘고 긴 초롱이 승강하도록 배치하고, 가운데 3간에는 옥간의 상하를 감싼 비단천과 같은 재질의 천에 선자지로 배첩한 다음 붙였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과 실제 유물이 일치하고 있다.

2) 죽책

죽책(竹冊)은 조선의 국왕이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왕세손과 왕세손비 등을 책봉할 때 제작하여 내리는 문서이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 책문(冊文)과 책보(冊寶)를 함께 제작하였는데, 왕세자 이하의 책문은 죽책과 옥인이었다. 죽책은 왕실의 의례 행사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권설도감(權設都監)’이라는 임시기구에서 1방에서 제작하는데, 교명이나 옥책이나 금보 및 옥인을 제작하던 전례를 따라 매우 정교하고 엄격한 형식과 체제를 따라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죽책은 대체적인 형태가 유사하지만 시대적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책례도감의 1방에서 제작된 죽책 중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할 때에도 1방에서,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도 죽책은 1방에서 제작하였다. 조선 시대에 제작한 죽책 중 현존하는 것은 총 43책인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죽책 40책, 고려대학교박물관에 2책, 서울공예박물관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표> 현존하는 왕세자(빈), 왕세손(빈), 왕세제(빈)의 죽책 목록

| 연대 | 대상 | | 도감 | 죽책 현존 여부 | 유물 소장번호 | 의뢰책자 소장번호 |
|------|-------|------|----|----------|---------|-----------|
| 1649 | 현종 | 왕세손 | 책례 | ○ | 고박258 | 꺄13062 |
| 1651 | 현종 | 왕세자 | 책례 | ○ | 고박2844 | 꺄13071 |
| 1667 | 숙종 | 왕세자 | 책례 | ○ | 고박27 | 꺄13076 |
| 1671 | 인경왕후 | 왕세자빈 | 가례 | ○ | 고박158 | 꺄13078 |
| 1690 | 경종 | 왕세자 | 책례 | ○ | 고박29 | 꺄13094 |
| 1696 | 단의왕후 | 왕세자빈 | 가례 | ○ | 고박182 | 꺄13092 |
| 1718 | 선의왕후 | 왕세자빈 | 책례 | ○ | 고박185 | 꺄13094 |
| 1721 | 영조 | 왕세제 | 책례 | ○ | 고박38 | 꺄13099 |
| 1721 | 정성왕후 | 왕세제빈 | 책례 | ○ | 고박196 | 꺄13099 |
| 1725 | 진종 | 왕세자 | 책례 | ○ | 고박41 | 꺄13105 |
| 1727 | 효순왕후 | 왕세자빈 | 책례 | ○ | 고박213 | 꺄13105 |
| 1736 | 장조 | 왕세자 | 책례 | ○ | 고박48 | 꺄13109 |
| 1744 | 헌경왕후 | 왕세자빈 | 책례 | ○ | 고박219 | 꺄13109 |
| 1759 | 정조 | 왕세손 | 책례 | ○ | 고박57 | 꺄13102 |
| 1762 | 효의왕후 | 왕세손빈 | 책례 | ○ | 고박230 | 꺄13114 |
| 1800 | 순조 | 왕세자 | 책례 | ○ | 고박69 | 꺄13122 |
| 1812 | 문조 | 왕세자 | 책례 | ○ | 고박85 | 꺄13130 |
| 1830 | 헌종 | 왕세손 | 책례 | ○ | 고박91 | 꺄14190 |
| 1875 | 순종 | 왕세자 | 책례 | ○ | 고박102 | 꺄13169 |
| 1885 | 순명효황후 | 왕세자빈 | 가례 | ○ | 고박311 | 꺄13174 |

(1) 죽책의 형식과 체제

죽책을 여러 단계로 제작되며 각 과정의 세부마다 여러 장색의 장인들이 참여한다. 무엇보다도 죽책을 제작할 때 핵심 재료인 대나무를 수급하고 그것을 자르고 쪼개고 뒤틀리지 않게 삶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장색이 누구인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잘 다듬은 대나무로 만든 죽편 위에 각수가 단정하게 글씨를 새겨야 하며, 19세기에는 각수에서 죽각수나 목각수로 세분화 전문화하였다. 글씨를 다 새긴 죽간을 문장의 순서대로 첩으로 모아 책의 형태로 장책하게 된다. 이를 위해 1첩의 5~6간의 죽간 상하에는 비단천을 상하에 끼우고, 죽간마다 구멍을 뚫고 변철을 올린 다음 못[圓頭釘]을 박으며, 5~6첩을 연결하고자 원환[돌쩌귀]을 만들어 끼운다. 이렇게 완성된 죽책은 竹冊匣으로 싸서, 보자기로 싸서 죽책내함에 넣고, 다시 보자기로 싼 다음 죽책외곽에 넣는다. 이렇게 죽책을 만드는 단계별로 많은 장인이 동원되어 제작된다. 이와 같은 죽책은 그것을 책봉문으로 받는 왕세자[빈]나 왕세제[빈], 왕세손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죽책이 갖는 형식미와 그것을 원형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인이 발휘할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죽책의 제작과정은 문장을 잘 짓는 제술관이 죽책문을 짓고[製述], 글씨에 능한 서사관이 글씨를 써서[書寫], 국왕에게 올리고[稟定], 서사관이 초도서[草圖書]를

쓴 다음, 다시 정본[正本]을 쓴 다음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서사관의 글을 베껴[北漆] 쓰는 서사관의 글씨를 올린다. 그러면 대쪽[竹簡] 위에 올린 글씨대로 각수가 새기면, 여기에 화원이 아교와 니금을 섞어 금을 메꿔 넣고[填金], 책장이 죽책의 형태로 만드는[作貼]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장을 짓는 제술관과 글씨를 쓰는 서사관, 글씨를 베껴 쓰는 북칠서사관, 니금을 메꿔넣는 전금화원이 동원되었다.

가. 죽책의 제술관과 서사관

죽책을 제작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이다. 첫째 죽책의 제술문이 결정되어야 하고, 둘째 제술된 글자수의 다소를 세어서 죽책에 따라 들어갈 編竹을 계산하여 죽편을 결정하며, 셋째 죽편을 다듬는 일은 정밀하고 세밀함을 요구하여 대단히 어려워 반드시 여러 날이 필요하다. 즉 죽편을 잘라 삶고 바짝 잘 말린 후 표면을 다듬는 단계의 일이 진행된다. 넷째 죽편을 다듬은 다음 書寫를 하고, 다섯째 서사를 한 뒤에 비로소 각수가 쪼고 새기는[鑄刻] 일을 한다. 여섯째 새기는 일이 끝난 다음에 금을 메워[填金] 넣을 수 있다. 일곱째 금을 메워 넣은 다음에는 변철을 두석장이나 은장 및 동장이 만들고 천혈장이 구멍을 뚫고 책장이 책으로 매 죽편을 책으로 장정할 수 있다.

이중 죽책문을 작성하는 製述官은 承文院에 속한 벼슬아치 중 典禮文을 전담하는 관리가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술관의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죽책의 문장을 짓기 위해서는 駢儷文을 짓는 문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을 고려하여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니고 문장력이 뛰어난 관리 중에 선택하였다.

書寫官은 제술관이 지은 글을 임금이 어람할 수 있도록 정갈한 해서체로 쓰는 初圖書를 써서 올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正本 위에 글씨로 쓰는 관원이다. 서사관이 쓴 정본의 글씨는 다시 대쪽[竹片]마다 12항씩 나눠서 베껴 쓰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세기부터는 北漆서사관을 6~7명을 두었고 도감역이 끝나면 이들에게 시상을 하는 것이 항례화되었다. 각수[죽각수]가 죽책 위에 글씨를 각자를 완성하고 나면 죽책에 글자를 새긴 곳에는 泥金과 아교를 섞어 메꾸는 작업을 화원을 불러 마감하였는데, 이것도 19세기에 들어 항례화 되었다.

<표> 책레도감에서 왕세자와 왕세손을 책봉할 당시 죽책의 제술관과 서사관 현존 여부

| 연대 | 대상 | | 도감 | 죽책 제술관 | 죽책 서사관 | 北漆 서사관 | 填金 화원 | 첩 | 죽간 | 극항 | 행 | 글자수 |
|------|----|-----|----|-----------|-----------|-----------|----------|---|----|----|----|-----|
| 1649 | 현종 | 왕세손 | 책봉 | 趙綱 | 吳竣 | - | - | 4 | 6 | 12 | 23 | 220 |
| 1651 | 현종 | 왕세자 | 책봉 | 李一相 | 吳挺緯 | - | - | 6 | 5 | 12 | 30 | 285 |
| 1667 | 숙종 | 왕세자 | 책봉 | 金壽恒 | 吳竣, 柳滄 | - | - | 6 | 5 | 12 | 26 | 255 |
| 1690 | 경종 | 왕세자 | 책봉 | 閔黯 | 吳始復 | - | - | 8 | 5 | 12 | 32 | 306 |
| 1721 | 영조 | 왕세제 | 책봉 | 李觀命 | 兪崇 | - | - | 6 | 5 | 12 | 30 | 281 |
| 1725 | 진종 | 왕세자 | 책봉 | 李宜顯 | 尹憲柱 | - | - | 6 | 5 | 12 | 29 | 266 |
| 1736 | 문조 | 왕세자 | 책봉 | 尹淳 | 金取魯 | - | - | 6 | 5 | - | - | - |
| 1759 | 정조 | 왕세손 | 책봉 | 金陽澤 | 洪樂性 | - | - | 6 | 6 | 12 | 29 | 286 |
| 1800 | 순조 | 왕세자 | 책봉 | 李秉模 | 金箕性 | 朴希聖 등 6명 | 金得臣 등 2명 | 8 | 6 | 12 | 42 | 378 |
| 1812 | 효명 | 왕세자 | 책봉 | 南公轍 | 曹允大 | 洪聖老 등 6명 | 許容 등 3명 | 6 | 6 | 12 | 35 | 330 |
| 1830 | 헌종 | 왕세손 | 책봉 | 南公轍 | 金履載 | 李東秀 등 6명 | 金命遠 등 3명 | 6 | 6 | 12 | 32 | 310 |
| 1875 | 순종 | 왕세자 | 책봉 | 李裕元 | 尹宜善 | 趙漢斌 등 10명 | 白萬玉 등 3명 | 8 | 6 | 12 | 41 | 396 |

조선 후기에 죽책을 처음 제작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1627년 소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이다. 당시 죽책문의 제술관은 張維(1587~1638)이고, 죽책의 서사관은 李弘胄(1562~1638)이고, 전문 서사관은 金光炫(1584~1647)이었다. 이후 병자호란이 끝난 후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하여 이식이 제술관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 1649년에는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제술관 趙綱(1686~1669)이 죽책문의 글을 쓰고, 서사관 吳竣(1587~1666)이 죽책문의 글씨를 쓴 죽책 유물이 현존하고 있다. 이 죽책은 죽간 6간을 1첩으로 삼아 4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 제술관 李一相(1612~1666)이 죽책문을, 서사관 吳挺緯(1616~1692)가 죽책문의 글씨를 쓴 죽책 유물이 현존하고 있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제술관은 金壽恒(1629~1689)이, 서사관은 吳竣, 柳滄(1608~1667)이었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문의 제술관은 李觀命(1661~1733)이, 서사관은 兪崇(1661~1734)이었고, 옥인의 전문을 보획한 화원은 李徵夏였다. 이것은 죽간 5간이 1첩이 되어 6첩으로 이뤄져 있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하는 죽책의 제술관은 대제학 李觀命이었고, 서사관은 사간원 대사간 兪崇, 옥인의 전문 서사관은 부호군 李徵夏였다. 1736년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죽책문의 제술관은 李宜顯(1669~1745), 서사관은 金取魯(1682~1740)였다. 1721년 영조비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을 책봉하는 죽책의 제술관은 부제학 李緯(1680~1746), 서사관은 사간원 헌납 徐命均(1680~1745), 옥인의 전문 서사관은 홍문관 부응교 金濟謙(1680~1722)이었다. 이후 왕세제빈 죽책문을

제술하는 이재가 사양하여 9월 6일 왕세제빈의 죽책문 제술관은 행 도승지 洪啓迪(1680~1722)으로 바꾸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9월 14일 국왕 경종에게 왕세제 책봉 죽책문의 제술 내용을 쓴 草圖書를 올리는데 이것은 공조참판 兪崇이 써서 올렸다.

1800년 정조가 아들인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의 제술관은 영의정 李秉模(1742~1806)이었고, 서사관은 光恩副尉 金箕性(1752~1811)이었다. 특히 이때부터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려 새길 수 있도록 다시 베껴 쓰는 북칠서사관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북칠서사관은 朴希聖, 李命藝, 趙元魯, 彭得大, 金孝達, 李東憲이었다. 이렇게 각수들이 다 새기고 나면 음푹 패인 안쪽으로 니금에 아교를 섞어 금을 메우는 填金 화원은 金得臣(1754~1822)과 許容이었다. 1800년 玉刻은 禁衛營 別武士 池瑞旭이었다.

1812년 효명세자[후일 익종, 문조 추존]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문의 제술관은 南公轍(1760), 서사관은 曹允大(1748~1813)였다.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베껴쓰는 북칠 서사관은 洪聖老, 李宜重, 朴在華, 李希必, 朴春根, 洪澤柱이었고, 죽책문에 금을 메꾸 넣는 전금 화원은 許容, 尹命周, 朴治儼이었으며,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은 吳珣, 李命儒이었다.

1830년 헌종 왕세손을 책봉할 때 죽책문의 제술관은 南公轍, 서사관은 金履載(1767~1847)였다.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베껴쓰는 북칠 사자관은 李東秀, 李東鉉, 調命錫, 劉運五, 張國紳, 李相誼이고, 죽책문의 填金 화원은 金命遠, 張俊良(1802~1870), 金載鼎이며,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은 白俊煥, 李邦植이었다.

1875년 순종 왕세자를 책봉할 때 죽책의 죽책문의 제술관은 李裕元(1814~1888), 서사관은 尹宜善(1823~1887)였다. 서사관이 쓴 글씨를 죽책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베껴쓰는 북칠 사자관은 趙漢斌, 金載傳, 林鴻植, 徐寅杓, 李鍾益, 劉漢謙, 金季永, 趙錫圭, 崔翼相, 金永燾이고, 죽책문의 填金 화원은 白萬玉, 金大榮, 趙景健이며, 옥인에 전문을 보획하는 화원은 李景玉, 朴俊永이었다.

나. 죽책의 형태와 구조

죽책에 사용되는 죽간의 한 폭의 매수는 5쪽과 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竹簡 5~6쪽을 한 폭으로 변철로 엮어 4첩~10첩으로 연결한 것이다. 죽간 각쪽을 잇대어 1첩을 만든 다음 각첩의 상하에는 비단을 회장(回粧)으로 돌려서 대나무의 끝 부분이 깨지거나 상하는 것을 방지한다. 죽책의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은 비단으로 옷[衣]을 입히도록 장식하여 장황(裝潢)을 하였다. 이러한 책의는 수입산 문단이 주류를 이루고, 영조대 이후에는 국내산 무문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죽책의 회장, 변철, 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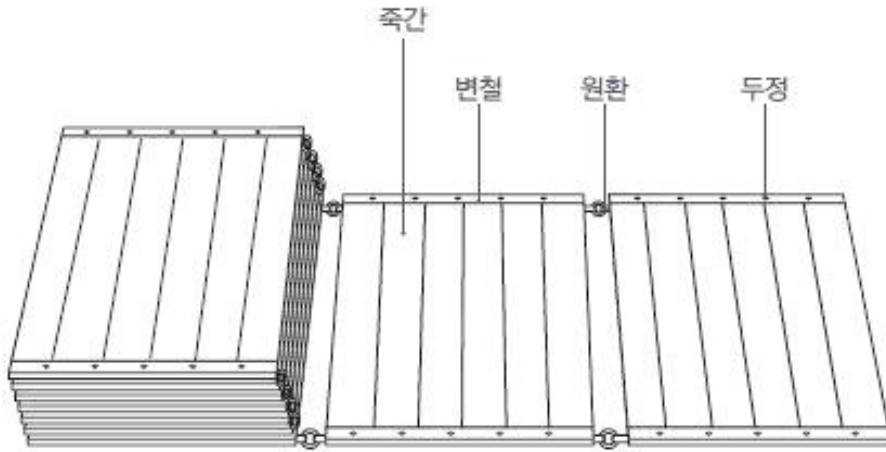
<죽책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책의(冊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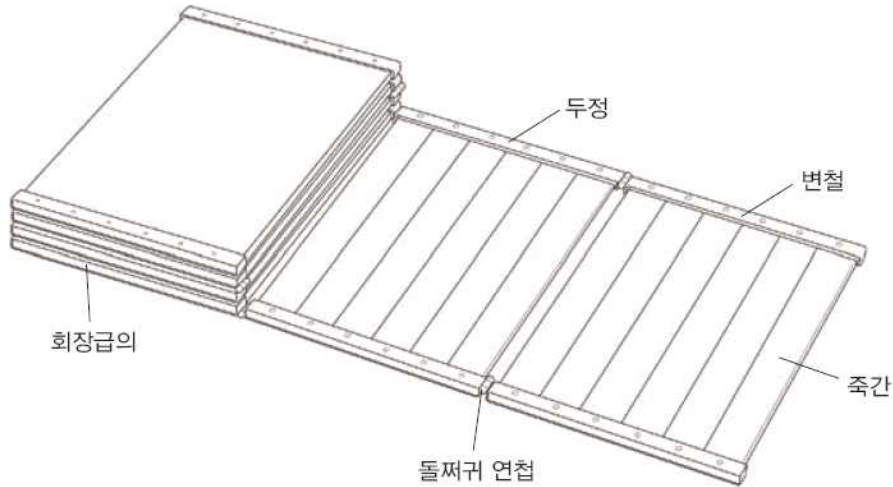
<변철의 여의두형 넝쿨문양, 두정>

현존하는 죽책 41책을 분석한 결과 대쪽을 5쪽을 연결하여 만든 책은 8책이고, 대쪽을 6쪽으로 연결하여 만든 책은 33책이다. 그런데 이렇게 5쪽의 죽간으로 만든 책은 대체로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을 책봉할 때 주로 사용된 대쪽의 숫자이고, 6쪽의 죽간으로 만든 책은 이들을 책봉할 때 뿐 아니라 이들에게 존호나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 대쪽의 숫자이다. 결국 죽간 5쪽은 주로 책봉 시에, 죽간 6쪽은 존호시나 시호시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간을 5쪽이나 6쪽으로 사용하여 책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 貼이다. 현존하는 죽책의 貼數를 분석한 결과 4첩, 6첩, 8첩, 10첩 등 4종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제술관이 제술한 죽책문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시기가 올라가면 첩수가 작은 4첩이고, 시기가 내려가면서 10첩으로 길어졌다. 총 41점 중 6첩이 20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8첩(14점), 4첩(5점), 10첩(4점) 순이다. 첩수에 의해 살펴볼 때 4첩은 주로 왕세손의 책봉 죽책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6첩은 책봉 때나 존호 때 및 사후 시호 때까지 제작 사례가 많다. 특히 6첩이 가장 많아진 이유는 영조가 1752년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할 때 왕세자[손]의 책봉 죽책은 죽간 5간을 1첩으로 삼아 6첩으로 제작하는 것을 규례로 삼은 때문이다. 이로 인해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부터 5간 1첩의 책봉 죽책의 형식에서 6간을 1첩으로 제작하는 것이 항례가 되었다. 죽책 8첩의 경우도 6첩과 마찬가지로 책봉, 존호, 시호에 사용되었지만, 10첩은 존호와 시호 때에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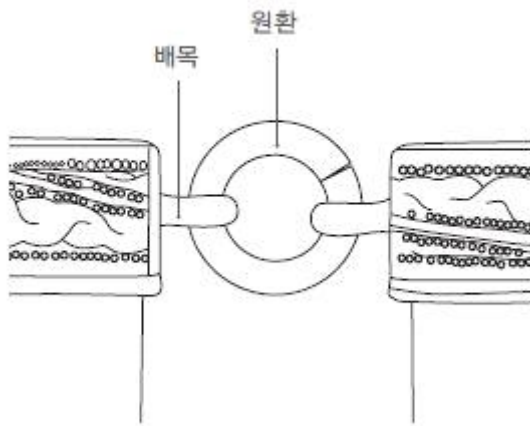
<죽책의 원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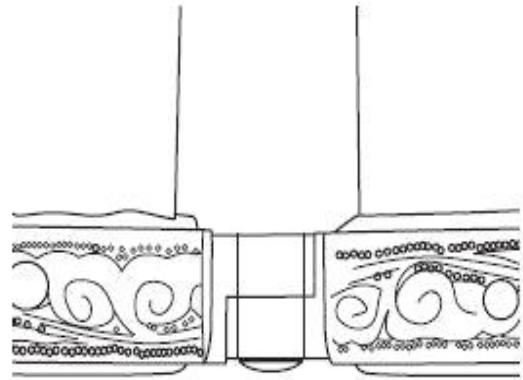
<그림 2> 죽책 각부 명칭

<죽책의 돌쩌귀 연결>

죽책의 첩과 첩을 연결하는 방식은 圓環의 연결방식과 돌쩌귀[玆迪耳] 연결방식이 있다. 원환 연결방식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 연결방식은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에 못 형태의 둥근쇠를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현존하는 죽책 43책 중 원환 연결방식이 19책이고, 돌쩌귀 연결방식이 24책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죽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효종 원년(1649) 때부터 영조 12년(1736)까지는 원환 연결방식이다. 영조 20년(1744)에 제작된 장조비 헌경왕후 봉왕 세자빈 죽책이 돌쩌귀 연결방식이었다가 영조 28년(1752)에 제작된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에 다시 원환 연결방식이 잠깐 예외적으로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모두 돌쩌귀 연결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환 연첩의 세부구조>



<돌쩌귀 연첩의 세부구조>

죽책은 제작 목적에 따라 책봉 죽책, 존호 죽책, 시호 죽책으로 구분된다. 먼저 책봉 죽책은 국왕이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 및 동생과 그들의 부인을 왕세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에 제작한 것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고 유존하는 유물의 사례도 많다. 다음 존호 죽책은 책봉 죽책은 국왕의 사친이 세자나 세자빈일 경우 존호를 올리더라도 죽책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일례로 정조의 재위 시에 사친인 사도세자[후일 추존 장조]와 혜빈 홍씨[후일 추존 헌경왕후]에게 올린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시호 죽책은 왕세자[손]나 왕세자[손]빈의 신분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제작한다. 한편 영조대 이후 19세기에 사친이 후궁인 경우 사망 당시나 후대에 시호를 올려 죽책을 제작하기도 한다.

현존하는 죽책을 분석해 보아도 죽책의 제작시기는 영조나 정조 때에 가장 많다. 영조 때에는 진종 세자와 세자빈[후일 추존 효순왕후]의 죽책이나 숙빈 최씨 및 인빈 김씨 등의 시호 죽책이 그것이다. 정조 때 사도[장헌]세자와 세자빈인 혜경궁 홍씨에게 올리는 존호와 시호 죽책 때문이다.

(2) 17세기 죽책의 제작 장인

왕세자나 왕세자빈 등을 책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책례도감의 일방에서 담당하는 물품의 종류는 교명과 교명궤, 교명배안상, 죽책과 죽책갑, 죽책내외궤, 죽책배안상, 독책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의물과 관련 기물을 제작하기 위해 책례도감의 1방의 장색은 대체로 28종에 장인의 숫자는 평균 40~50명이다.

17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공역에 참여한 장색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17세기에는 1645년 34종, 1648년 32종, 1651년 28종, 1668년 32종, 1690년 36종으로 총162종이고 평균 32종이다.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공역에 참여한 장색은 18세기에는 17세기와 종별의 수량이 거의 비슷하다. 1721년 42종, 1725년 36종, 1736년 27종, 1759년 30종으로 총135종이고 평균 34종

이다. 책레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공역에 참여한 장색은 19세기에는 18세기에 비해 종별의 숫자가 줄어든다. 19세기에는 1800년 14종, 1812년 22종, 1830년 21종, 1875년 18종으로 총 75종이고 평균 19종이다. 이로 미루어 17세기와 18세기에는 거의 비슷하나 19세기에는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장색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668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책레도감 1방에 차출되었던 장색을 보면 소목장, 야장, 주장, 두석장, 마경장, 은장, 다회장, 도자장, 각수, 관자장, 개아장, 사립장, 회장장, 배첩장, 화원, 부금장, 천혈장, 매듭장, 침선비, 대자장, 조각장, 제리장, 칠장, 동장, 소로장, 시장, 목소장, 목수, 전장, 피장, 가칠장, 쇠약장이 있다. 당시 동원된 장색은 32종이었는데, 책레도감 1방에서 교명에 회장을 두르는 회장장이나, 책레도감 2방에서 옥인을 제작하는 옥장이나 옥인장 및 옥인각수와 달리 죽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장색이나 장인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죽책의 구조와 재료적 특성상 대나무를 다루는 장색, 글씨를 새기는 장색, 칠을 하는 장색, 변철을 제작하는 장색, 구멍을 뚫는 장색 및 책을 엮는 장색이 주목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색은 도감 1방에서는 대체로 공통되어 대나무를 다루는 弓人이나 矢匠이나 箭匠 및 斜笠匠, 글씨를 새기는 각수, 주칠을 하는 칠장, 변철을 제작하는 두석장, 구멍을 뚫는 천혈장, 책을 엮는 粧冊匠 등이 그것이다.

특히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던 책레도감 때부터 죽책을 제작하는 장인들의 장색과 동원이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죽책의 제작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한다. 곧 책레도감 1방에는 기존의 장색에 신규 장색이 보완된다. 곧 이전부터 죽책을 제작하던 각수, 두석장, 천혈장 및 도자장 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더해 대나무를 삶고 틀어지지 않게 다루던 사립장, 대쪽 위에 글씨를 쓰던 서사관, 그리고 책으로 매는 장책장을 분속시킨 것이다.

죽책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대나무를 다루고, 글씨를 새기고, 칠을 하고, 변철을 제작하고, 구멍을 뚫고 책을 엮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17세기 책레도감 1방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색은 18세기 이후에는 대나무를 다루는 장인은 斜笠匠[笠匠]이 주로 하는데 비해, 17세기에는 弓匠이나 矢匠 및 箭匠이 하기도 했다. 글씨를 새기는 일은 각자장[각수]의 역할이다. 주칠을 하는 장인은 칠장, 변철을 제작하는 장인은 두석장, 구멍을 뚫는 장인은 천혈장, 책을 엮는 장인은 粧冊匠이 분장하였다.

1645년 왕세자 효종과 세자빈 인선왕후의 책봉 때부터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까지는 대나무를 다루는 장인으로 사립장이 규정되지 않아 활이나 화살 등을 다루는 장인 중에 징발되어 활동하다가 1667년부터 사립장 1명이 이 기능을 수행했다. 책을 엮는 장인의 경우 1690년 이전에는 교명에 회장을 두르는 회장장

이 함께 제작했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장책장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장색의 장인 숫자는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졌지만 대개 사립장은 1명, 각자장은 4~5명, 칠장은 2명, 두석장, 2명, 도자장 3~4명, 장책장 2명이었다.

가. 17세기 궁장과 사립장

죽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만들 대나무와 이것을 잘 다루는 장인이 있어야 한다. 죽책 1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넓이의 대쪽을 만들 수 있어야 해서 당연히 큰 대나무[大竹]를 준비해야 하고, 이것은 잘 마르고 흠결이 없으면서 넓고 두툼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1648년에는 죽책용 대나무를 선공감에서 진배하였다.

죽책을 알맞게 다듬는 일을 경험이 없으면 능숙하게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1648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는 이 일을 해본 적이 있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掖庭署의 하인 金德男과 金太奎를 赴役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책례도감에서 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오랫동안 다루어 대나무의 특성을 잘 아는 장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책례도감 전체를 보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이후 이 분야는 대나무를 다루어 갓을 만드는 斜笠匠의 역할이었다. 다만 17세기 초에는 사립장보다는 대나무를 다뤄 활을 만드는 弓匠이나 화살을 만드는 矢匠이나 箭匠을 징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의 죽편 제작 장인 명단

| 연대 | 대상 | 도감 | 弓匠 | 矢匠 | 箭匠 | 斜笠匠 | 소장번호 |
|------|---------|-------|---------|-----|----------|-----|--------|
| 1645 | 효종, 인선후 | 왕세자/빈 | 玄守, 梁命承 | 李忠男 | - | - | 규13062 |
| 1648 | 현종 | 왕세손 | 玄水 | - | 徐夫希 등 2명 | - | 규13067 |
| 1651 | 현종 | 왕세자 | - | - | 金承龍 등 2명 | - | 규13069 |
| 1667 | 숙종 | 왕세자 | - | - | 金尙立 | 崔武正 | 규13076 |
| 1690 | 경종 | 왕세자 | - | 柳永達 | - | 李貴善 | 규13091 |

궁장 玄守(水)는 1645년과 1648년 두 차례의 책례도감에서 확인되고, 그와 더불어 矢匠 李忠男이었다. 이들이 1~2번의 도감 밖에 동원되지 않았던 것처럼 箭匠 徐夫[富]希도 1648년 책봉과 1649년 인조의 국장에서만 보인다. 金尙立의 경우 1648년부터, 1651년, 1667년까지 3번의 책례도감에서 활동을 하였을 뿐, 그밖에도 여러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649년 인조국장에는 1방에서는 矢人으로, 3방에서는 箭匠이었다. 1651년 이후 1667년까지는 전장으로 활약하였다. 1690년 책례 때의 시장 柳永達은 1702년 인현왕후의 국장 때에는 전장으로 한번 더 국역을 졌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 대나무를 다룬 장색으로 사립장 崔武正이 처음 등장하였고,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사립장 李

貴善이 보인다. 사립장은 대나무로 갓을 만들 때 일정한 크기로 대쪽을 낸 다음 깨지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삶는데, 이 기술이 죽책을 만들 때 핵심기술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책례 때 죽책의 대나무를 다루던 장색은 궁장, 시장, 전장 및 사립장 등 다양하지만 이들 장인들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이면서 도감역에는 1~2번 정도 징발되어 부역을 했고, 시장 김상립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6년간 5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죽책의 죽간용 대쪽을 다루는 일은 궁장, 시장, 전장 등에서 점차 사립장으로 일원화되는 경향도 엿볼 수 있었다.

나. 17세기 각자장과 각수

옥책이나 죽책은 책문제술관이 글을 짓고, 이것을 책문서사관이 종이 위에 글씨를 써서 대내에 들이는 과정까지는 일치한다. 그런데 이것을 옥책과 죽책 위의 글씨를 새기는 방식은 다르다. 옥책 위에는 책문서사관의 글씨를 베낀 북칠서사관의 글씨를 붙인 다음 각수가 새기기 때문에, 옥책을 제작하는 도감마다 이들 북칠서사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죽책 위에는 각수가 직접 대쪽[죽간]마다 먹으로 글씨를 쓴 다음 새기게 되므로, 서사관이 장인과 함께 도감에 분속되어 있는 것이다. 즉 옥책에는 옥책서사관이 쓴 정본을 북칠서사관이 종이 위에 글씨를 써서 붙인 다음 각수가 새기지만, 죽책에는 서사관이 직접 죽간 위에 쓴 글을 쓴다.

이것은 17세기에 죽책의 제작과정이 체계가 잡히는 1690년 경종의 왕세자 책례도감 1방을 보면 죽책 위에 글을 쓰는 서사관 李泰亨이 배속되어 각수들과 함께 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645년 각자장은 이충민을 비롯하여 6명의 장인들이 죽책을 새기는 데 동원되었다. 이중 가장 앞자리에 기록되어 우두머리 격인 李忠民은 이미 1621년부터 1659년까지 38년간 11곳의 도감에서 각수로 활동하였다. 특히 1645년, 1648년, 1651년의 책례도감 1방에서 활동하면서 죽책을 제작하는 데 장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621년 선조와 의인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호도감의 1방에서는 28명 중 16번째에 위치하였다. 이후 1627년에도 활동하였지만 각수로서 기술이 부족했음인지 한참동안 국역에 동원되지 않아 도감에 이름이 오르지 않다가 입문한지 24년째가 되는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드디어 죽책을 제작하는 1방이나 옥인을 제작하는 2방에서도 모든 각수들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더욱이 죽책이나 옥인과 같은 의물을 제작할 때에는 각수라는 명칭보다는 각자장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었던 吳有進의 경우 이충민보다 14년 정도 늦게 입문한다. 처음 기록된 1635년 인조대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도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 중에서도 우두머

리로서 총15명의 각자장 중 우두머리였으며, 서울 각수 3명이 전주와 태인 등지에 거주하는 외방 각수 4명과 승각수 8명을 거느리고 작업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미 도감에 등장할 때부터 각수의 우두머리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며, 이충민과 함께 오랫동안 활동한 17세기 중기의 각수이다. 각자장 吳有進의 경우 1635년 인조의 실록을 편찬할 때부터 국역을 지기 시작하였는데, 1645년부터 1659년까지 14년 동안 9곳의 도감에서 이충민과 함께 활동하였고 이때는 이충민이 우두머리였다. 그 이후 1670년까지 35년간 18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던 17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각수이다. 그는 책봉이나 국혼 등 가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자장이나 옥각수로 불린 것이 확인되고, 국장 등 흉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주로 불렸다. 예컨대 1645년 효종의 왕세자를 책봉하거나 1649년 현종의 왕세손 책봉을 위한 책례도감에서는 옥인을 제작하는 각자장이나 옥각자장 및 옥각수로, 1651년 인선왕후의 중궁전 책봉에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옥책각수로 불렸다. 반면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이나 1649년 인조의 국장 등 흉례 관련 도감에서는 각수로 불렸다. 이처럼 옥인에 전문을 새기는 것과 같이 세밀한 글자를 새기는 경우 각자장이나 ‘옥’자를 넣은 옥각수 등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옥책 등을 제작할 때에는 각수로 장색을 달리 구분하여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새기는데 각수 우두머리였던 李壽[守]命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각수이다. 그가 의뢰에 처음 기록되는 것은 1674년 인선왕후의 국장도감부터이다. 당시 국역을 진 각수들은 총 29명이었는데, 그중 서울에 거주하는[京居] 각수는 앞자리에 있는 8명의 각수들이 위치하여 도감역을 이끌었다. 그중 우두머리는 李惟一과 李秀一 형제였으며,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각수로 활동하여 솜씨로 이름났던 경각수 徐俊悌, 韓振國, 韓斗相, 朴永男, 金廷賢, 李時碩가 자리매김했다. 곧이어 외방 각수와 승각수가 위치했는데, 은진 지역의 경우 외각수인 白以采와 함께 승각수 振惠, 海信가 같은 지역에서 징발되어 부역을 한 경우이다. 그밖에도 안악, 충주, 고산, 춘천, 진안, 니산, 순천, 금산, 남한산성, 남원, 문경, 청주, 보성, 함평 등지의 순서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수명의 경우이다. 그는 전체 29명의 각수 중 27번째에 위치하여, 서울의 경각수임을 병기하고 있지만 앞서 8명과 구별해서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그가 처음으로 도감역을 졌기 때문에 기술이 숙련되지 못하여 나머지 경각수와 구분해서 나머지 외방각수나 승각수의 위치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듬해 1675년 현종의 국장도감 때 각수를 동원하고 기록하는 체제는 유지되어 총32명의 각수 중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각수를 앞 자리에 두고, 그 뒤를 지방의 외각수와 승각수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즉 경거 각수는 13명이었고, 11명은 외방 각수이며, 8명은 승각수였다. 당시 각수의 우두머리 또한 1674년과 마찬가지로

李秀一, 李惟一 형제였는데, 그나마 이수명이 외각수나 승각수의 위치에 병기되지 않고 13명의 경각수 중 맨 뒷자리에 위치하여 그 자신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난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2년 뒤인 1677년 숙종이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당시에 그는 책례도감의 3방에서 총18명의 옥각수와 함께 옥책을 제작하는 일을 했다. 당시에 경거 각수 10명이 외방 각수 5명 및 승각수 3명을 이끌면서 작업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당시 경거 옥각수 10명 중 우두머리는 여전히 李惟一과 李秀一 형제였으며, 그는 이제 10명 중 7번째로 약간 앞쪽으로 자리가 옮겨졌다. 이것은 같은 해 장렬왕후와 명성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에서도 옥책의 숫자가 늘어나 옥각수의 숫자가 35명으로 많아졌을 뿐 대체적인 제작체제나 각수의 동원방식은 비슷하다. 다만 경각수는 13명인데 비해, 외방각수는 9명, 승각수는 13명으로 외방각수보다 승각수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李惟一과 李秀一 형제였으며, 그는 경각수 13명 중 10번째로 조금 앞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감역에 입문한지 3년 만에 각수로서 조금씩 일을 배워 성장해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 같은 해 명성왕후의 존숭도감에서도 13명의 경각수와 9명의 외각수 및 승각수 13명인 점도 모두 같다.

4년 뒤 1681년 인경왕후의 국장도감에서는 애책과 시책을 제작하는 도감 3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제작해야 할 옥책의 숫자가 많아서인지 서울 거주하는 옥각수는 15명을,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각수 6명과 승각수 4명으로 10명씩, 총25명의 각수를 동원하고 있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은 옥각수라 병기하여, 지방의 외각수나 승각수를 통칭 각수라고 병기하여, 제작하는 의물의 품종과 각수의 직역이나 위상에 따라 명칭부터 차등을 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서울 거주 옥각수 15명 중 우두머리는 여전히 李秀一, 李惟一 형제였으며, 그는 4번째에 위치하여 많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도감 3방에서 12명의 각자장 중 3번째로 기록되어 옥책을, 같은 해 정종의 시호도감 2방에서는 11명의 옥각수 중에서 4번째로 기록되어 옥책을 제작하였다. 당시의 각자장 우두머리는 여전히 李惟一이었는데, 그는 이제 앞에서 3~4번째에 위치하여 입문한 지 7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국역을 거둬 지면서 玉刻을 하는 실력도 좋아졌다고 여겨진다. 1683년 태조의 시호를 올리고 금보와 옥책을 제작하는 도감을 보면 각수의 명칭이 제작 의물의 종별과 장인의 장색을 구분해서 병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도감역이 끝난 후 장색은 각수로 통칭되어 그는 2등상을 받았고, 당시 1방은 금보의 제작처여서 이곳에서 금보에 전문을 새기는 각수는 보전각장이라고 높여서 병기했으며, 옥책을 제작하는 2방에서 옥 위에 책문을 새기는 각수는 옥각수라고 병기한 것이다. 1684년에는 명성왕후의 국장도감 때에는 각수와 외방각수로 구분지어 병기하였다. 당시 경거 각수로 11명이었고, 외방각수는 10명이었다. 10명 중 6명은 외방각수이고, 4명은 승

각수였다.

그러던 그가 각수의 우두머리가 되어 도감역이 끝나고 1등상까지 받게 된 것은 1688년 장렬왕후의 책보를 수개하는 도감에서였다. 당시 그는 옥보를 새기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1방에서 옥보를 새기는 옥각수였고, 이로 인해 1등상을 받은 별단에는 전각장으로 병기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쳐 드디어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죽책을 만드는 1방에서 우두머리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도감에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699년 단종과 정순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당시에 옥책을 제작하는 도감 3방에서 옥각수장 15명 중 2번째였고, 1702년 인현왕후의 국장도감 3방 때 옥책과 애책을 제작하는 옥각수로 3번째로 활동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18세기 들어서 그는 나이가 들었는지 19년간 도감역에 징발되지 않았다가 1721년 숙종의 국장도감 3방에서 옥책과 애책을 제작하는 일에 17명의 각수 중 2번째로 참여한 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각수 李壽[守]命은 서울에 거주하던 경거 장인으로서 1674년부터 1721년까지 47년간 20곳의 도감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17세기 말 18세기를 대표하는 각수였다. 각수로 입문할 당시에는 초보자로서 그 실력이 두드러지지 않아 경거 장인각수이면서도 외방각수나 승각수보다 못한 처지에 자리하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앞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40여 년간 국역을 지는 동안 도감 내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왕세자를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죽책을 제작하였고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는 옥책과 애책을 제작하였으며 그때마다 옥각수, 각자장, 보전각장, 전각장, 옥각수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의 의례용 공예품 중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금보를 제작하는 각수는 다른 각수들과 구분하여 보전각장으로, 옥책이나 애책을 새기는 각수는 옥각수나 각자장으로 구분하여 권위를 부여했음을 의물의 종별에 따라 각수의 수준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다. 17세기 칠장

죽책의 표면에는 붉은 색 주칠이 되어 있어 이러한 작업은 칠장의 역할이다. 물론 왕세자나 왕세손의 책봉도감 1방에 징발된 칠장은 옥인을 담을 보록이나 죽책을 담을 내함이나 외궤 등의 칠에도 동원되었다. 17세기의 책례도감 1방에 동원된 칠장은 초반에는 4~5명이었고, 대개 2명이었다.

<표> 17세기 책레도감 1방 칠장

| 연대 | 대상 | 도감 | 漆匠 | 인원수 | 소장번호 |
|------|---------|-------|-------------------------|-----|--------|
| 1645 | 효종, 인선후 | 왕세자/빈 | 鄭應龍, 鄭者斤男, 曹俊一, 金一男, 金難 | 5 | 규13062 |
| 1648 | 현종 | 왕세손 | 鄭應龍, 李恣同, 金日男, 金蘭伊 | 4 | 규13067 |
| 1651 | 현종 | 왕세자 | 俞順吉, 柳恣福 | 2 | 규13069 |
| 1667 | 숙종 | 왕세자 | 俞順吉, 柳恣福 | 2 | 규13076 |
| 1690 | 경종 | 왕세자 | 金宗建, 姜善元, 崔士民, 金輝, 金禮云 | 5 | 규13091 |

17세기 칠장 중 1645년 왕세자 효종과 왕세자빈 인선왕후를 책봉하는 때나 1648년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한 도감의 1방에 죽책 등의 칠을 담당한 칠장의 우두머리는 鄭應龍이고, 그를 돕는 칠장은 鄭者斤男과 李恣同이다. 17세기 중반기에 칠장 정응룡은 1630년부터 1681년까지 51년간 여러 칠장과 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630년 선조의 목릉을 천릉도감 별공작에서는 가칠장으로 진칠장을 보조한 역할로 국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정응룡은 51년간 국장도감 6회, 산릉도감 4회, 부묘도감 5회, 책레도감 6회, 존호도감 5회, 건물 개수도감 2회 참여하면서 진칠장이나 가칠장이었다. 1667년 영녕전 개수도감에서는 칠장의 우두머리로서 진칠장 10명, 가칠장 27명, 칠장 42명의 우두머리였다. 1635년과 1645년까지 2곳의 도감에서 함께 작업했던 칠장 鄭者斤男, 1645년부터 1652년까지 5곳의 도감에서 함께 했던 가칠장 李恣同, 1659년부터 1681년까지 22년간 10곳의 도감에서 함께 한 진칠장 咸忠立이 정응룡과 협업을 했다.

43년의 장기간 국역을 졌던 유순길은 유말복과 협업을 하고 있어 숨씨 좋은 칠장은 장기간 활동하면서 후대 칠장과 협업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칠장 金善男을 비롯하여 張者斤男, 李永, 李男 등과 협력하여 칠일을 했다. 그와 유말산, 유말복 형제 칠장이었다. 유말복과는 1661년 현종이 명성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책레도감의 3방,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1방에서도 짝궁을 이뤄 협업을 했다. 유순길은 1624년부터 1667년까지 43년간 국역을 졌는데, 그중 9곳의 제작처에서 서로 협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 1방에서 죽책에 칠일을 했던 칠장은 金宗建이다. 그는 1681년 숙종과 인현왕후의 국혼 때, 1690년 장희빈을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경종의 왕세자 책레도감에서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았다. 그는 공조 소속의 관공장으로서 군영 소속의 칠장을 거느리고 칠 작업을 했다. 1691년 장렬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 그는 공조 소속, 1696년 경종과 단의왕후의 가례도감 2방, 1701년 인현왕후의 국장도감 1방에서는 공조 산하의 자문감 칠장이었다. 이처럼 칠장 김종건은 1681년부터 1702년까지 21년간 활동한 장인이며, 그는 공조 소속의 자문감 소속으로서 관공장이었다.

라. 죽책을 책으로 만든 장인들

죽간 위에 글씨를 새기고 주철을 한 다음 가장자리에 비단을 씌우고 천혈장은 구멍을 뚫고, 두석장은 邊鐵로 씌워 고정시키고, 장책장은 책처럼 만들게 된다.

<표> 17세기 죽책을 제작한 두석장, 천혈장, 도자장 명단

| 연대 | 대상 | 도감 | 豆錫匠 | 穿穴匠 | 刀子匠 | *粧冊匠 | 소장번호 |
|------|---------|-------|----------|----------|----------|----------|--------|
| 1645 | 효종, 인선후 | 왕세자/빈 | 金一男 등 2명 | 金成立 | 金善福 등 4명 | - | 규13062 |
| 1648 | 현종 | 왕세손 | 金一男 등 2명 | 金成立 | 金先允 | - | 규13062 |
| 1651 | 현종 | 왕세자 | 金明吉 등 3명 | 千大仁 | 盧應孫 등 3명 | - | 규13067 |
| 1667 | 숙종 | 왕세자 | 池仇智 등 2명 | 張己英 등 3명 | 金丑生 등 4명 | - | 규13069 |
| 1690 | 경종 | 왕세자 | 任忠達 등 2명 | 羅泰尙 | - | 朴命吉 등 2명 | 규13076 |

첫째, 두석장의 경우 1645년과 1648년에 활동한 두석장 김일남은 그 때 이후 더 이상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박응립의 경우 1645년부터 1652년까지 7년간, 김명길은 1635년부터 1652년까지 17년간 활동하였다. 泥洞에 거주한 지구지는 1651년부터 1681년까지 30년간 활동하였다. 任忠達은 1673년부터 1702년까지 29년간 13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17세기 말의 대표적인 두석장으로서 상의원 등 관청에 소속된 관공장으로 편제되었다.

둘째, 천혈장은 금속이나 옥석으로 된 기물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한다. 1648년에 천혈장으로 활동한 장인은 金成立이다. 그는 1625년 제기악기도감, 1630년 선조의 목릉을 천릉하는 도감 2방에서,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 때, 국장도감 1방 및 부묘도감에도 참여하였다. 1639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국혼 때는 가례도감의 3방 옥책색에 소속되어 옥책을 책으로 매기 위해 玉間마다 구멍을 뚫는 역할을 했다.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하거나 1649년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거나 1651년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는 죽책에 구멍을 뚫는 천혈장이었다. 1651년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이나 1651년 장렬왕후나 인선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에서는 옥책에 구멍을 뚫는 천혈장이었다. 1652년 왕세자 현종과 세자빈 명성왕후가 국혼을 올릴 때에도 죽책에 구멍을 뚫던 장인이었다. 이후 1671년 숙종과 인경왕후의 국혼과 왕세자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 천혈장이었다. 이처럼 천혈장 김성립은 1625년부터 1671년까지 46년간 천혈장으로 활동하여 17세기 중반 서울에 거주하였던 대표적인 장인이었다. 국장이나 예장 및 부묘 등 흥례와 관련된 3곳의 도감에서는 2~3명의 장인과 함께 부역했지만, 1639년 가례도감에서 옥책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였다. 천혈장 천대인의 경우 1649년부터 1651년까지 3년간 5곳의 도감에서만 활동하였다.

셋째, 책례도감에 명단이 올라간 도자장은 金善福[卜], 盧應孫[祿], 金先允, 金丑生, 李難金, 裴業 등이다. 金善福[卜]의 경우 1639년부터 1645년까지 6년간 도감에서

활동했고, 도자장 李難金은 1645년부터 1651년까지, 裴業은 1949년부터 1652년까지 짧은 기간 부역을 했다.

넷째 죽책을 책으로 매는 기능은 18세기 중순 이후 19세기에는 [粧]冊匠이 배속되어 있다. 17세기 책례도감에서는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粧冊匠 朴命吉과 朴斗京이었다.

(3) 18세기 죽책의 제작 장인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장인들의 장색은 17세기에 비해 정비되었다. 대나무를 다루는 장인은 斜笠匠[笠匠]이 맡아했고, 글씨를 새기는 일은 죽각수가, 주칠은 칠장이, 변철의 제작은 두석장이, 구멍은 천혈장이, 책을 엮는 일은 粧冊匠이 분장하였다.

<표> 18세기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사립장, 각수, 칠장, 책장명단

| 연대 | 대상 | 도감 | 斜笠匠/笠匠 | [竹]刻手 | 漆匠 | 豆錫匠 | 穿穴匠 | 刀子匠 | 繪粧匠/冊匠 | 소장번호 |
|------|----|-----|-------------|-----------|----------|----------|----------|-----------|-------------|--------|
| 1721 | 영조 | 왕세제 | 尹太輝 등 2명 | 金二萬 등 9명 | 金欣立 등 7명 | 張重先 등 4명 | - | 金白 등 4명 | 繪; 金廷贊 등 2명 | 규13099 |
| 1725 | 진종 | 왕세자 | 柳世光 등 2명 | 金海得 등 8명 | 金欣立 등 5명 | 張重先 등 3명 | 金三益 등 2명 | 姜有骨 등 4명 | 繪; 金斗相 등 2명 | 규14909 |
| 1736 | 사도 | 왕세자 | 斜; 金世輝 | 黃再賢 등 8명 | 吳善興 등 3명 | 張夫業 등 3명 | 黃時傑 | 宋世彬 등 2명 | 冊; 李德昌 | 규13108 |
| 1759 | 정조 | 왕세손 | 斜; 金世輝 | 金守海 등 15명 | 金順萬 등 4명 | 張後先 등 2명 | 李世輝 | 金鳳益 등 10명 | 冊; 金世光 | 규13113 |
| 1784 | 문효 | 왕세자 | 斜; 高福興 등 2명 | 李時泰 등 9명 | 朴世得 등 5명 | 韓点山 등 4명 | 黃尙杓 등 2명 | 池順才 등 4명 | 冊; 徐弼良 | 규13200 |

1721년 영조의 왕세제를 책봉할 때 구멍을 뚫는 천혈장을 부르지 않았고,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까지 장책장이 분속되지 않아 교명에 회장을 두르는 회장장이 처리하였다. 이후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당시부터 대나무를 다루는 장색은 笠匠에서 斜笠匠으로, 책을 매는 장색은 책장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른 장색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해당 장색의 인원수는 업무의 성격이나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사립장 1~2명, 각수 8~15명, 칠장 4~5명, 두석장 3~4명, 천혈장 1~2명, 도자장 2~4명, 책장 1명이었다.

가. 18세기 사립장

죽책을 만들기 위한 대나무는 굵기가 굵고 품질이 좋은 것이어야 대쪽이 편편하여 책의 상태가 좋다. 더욱이 책봉이나 가례 등의 행사용 의물인 죽책을 만들기 위한 일정한 품질을 지닌 대나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대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11월이 지나 물이 오르지 않는 시기에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공역을 위해 각 관청에 이러한 대나무를 미리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중 건물의 영건 등을 위해 목재나 죽재 등을 비축한 곳이 선공감에서 가져다 썼으나, 1727년 세자였던 진종의 가례 때부터는 內局에 소장된 靑大竹 중에서 적합한 것을 가져다 썼다.

죽책에 들어가는 大竹은 두껍고 큰 것으로 정밀하게 가려 뽑아 대나무는 자르고 쪼개어 조각을 낸 다음 그것을 찌고 말리는 데에는 옹기 시루 1좌와 밥솥 1좌를 사용한 다음에 보내기로 하고 들였으며, 이것을 꿰일 뿔나무 4단을 전례대로 진배하도록 해당 관청에 감결하였다. 이를 통해 옹기시루와 솥 단지 및 뿔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나무를 찌서 틀어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대나무를 찌서 뒤틀림을 없애는 기술은 선자장이나 참빗장 등 대나무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장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전통기술이며 현재도 전승되고 있다.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하는 도감에서는 죽책을 1개를 만들지만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함께 책봉할 때에는 죽책 2개를 만들어야 해서 재료의 양도 그만큼 늘어났다. 죽책을 제작할 때 죽책에 들어가는 編竹의 숫자는 제술문의 내용에 따라 글자수의 다소를 세어서 죽책에 따라 들어갈 죽편의 갯수를 결정하게 된다. 죽편을 잘라 삶고 바짝 잘 말린 후 표면을 다듬는 단계의 일이 여러 날 진행되어야 한다. 죽편을 삶고 말린 다음 죽편을 자르고 나서는 상어껍질로 다듬는 일을 한다. 이 일을 위해 호조에서 상어껍질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거칠고 정세하지 못하여 죽책에 사용하지 못하고 함이나 궤자 및 상탁 등의 나무로 된 물건의 표면을 다듬는데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정세한 상어껍질 1/2령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대나무를 삶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은 립장이나 사립장이 맡아했다. 1721년 립장은 상의원 소속의 趙二萬이었다. 1718년 의장용 선개 자루를 제작하는 개아장이었고 1721년 책례도감의 1방에서는 상의원 소속의 笠匠이자 蓋兒匠., 1721년 숙종이나 1725년 경종의 국장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조이만은 1718년부터 1732년까지 14년간 8곳에서 상의원 소속의 개아장이어서 대나무를 다루는 일에 장기를 지니고 있었다.

1736년 사도세자의 왕세자 책봉 시 부역한 사립장 金世輝이 이시기를 대표하는 장인이다. 그는 1736년부터 1772년까지 36년간 공조 소속의 사립장으로 국역을 족고, 도감역이 끝난 후에는 1등상 등을 받았다. 따라서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공조 소속의 관공장이던 사립장 김세휘는 대나무를 잘 다루어 그가 간여하여 제작한 1736년 사도세자의 왕세자 책봉 죽책 유물[고박48]이나 1759년 정조 왕세손 책봉 죽책 유물[고박57]의 죽간에 사용된 대나무들이 뒤틀림 없이 편평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장 고복홍의 경우 1783년부터 1800년까지 17년간 활동한 사립장이다.

나. 18세기 죽책 각수

죽책의 글자를 새기는 데 쓰는 태인산 돌[泰仁石] 2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용한 다음에는 반납하였다. 죽책을 새기는 칼은 38개였고, 죽책을 새길 때 각수들은 종이로 대를 싸고 작업하였다. 이렇게 싸는 것은 白休紙 1근이었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의 죽책문은 원래 교서관 소속의 각수 6명 외에 새겨야 할 죽간의 숫자가 많아서인지 각수의 숫자가 부족하여 북한산에 위치한 각 사찰서 승려 각수 楚寬 등 6명을 부르려 하였다. 하지만 승려를 궁궐에 부르는 폐단이 있어 원래보다 1명만 추가하였다. 당시 교서관 소속의 각수 중 金二萬을 비롯하여 金萬石, 柳二石, 尹世東, 朴守萬, 金武男, 韓業尙, 姜太望, 李楷이었다. 이중윤세동의 경우 1719년부터 1751년까지 32년간 국역을 졌으며, 처음부터 1727년까지 교서관의 관각수였다. 1731년 효의왕후의 사후 국장 때 옥책을 제작하며 옥각수로 불렸다. 이후 1751년 의소세손을 책봉할 때 죽책을 새기는 각수로 마지막 국역을 마무리했다.

1725년 진종의 왕세자 책봉 때 죽책을 새긴 8명의 각수는 교서관 소속의 金海溥, 李時俊 등이었다. 이중 각수 李時俊은 1694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때부터, 1726년 경종과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까지 32년간 교서관 官刻手였다. 그는 18세기 후반 ‘時’자 돌림을 각수들을 이끌어준 장인이다.

1736년에 사도 세자를 책봉할 때 각수 8명의 구성은 관공장과 사장이 함께 편제되어 관각수 1~2명이 나머지 여러 명의 사장을 거느리는 것이 방식이다. 1735년 사장인 黃再顯이 각수의 우두머리이면서 사장 3명과 교서관 4명을 거느리고 활동했다. 황재현은 1719년 민회빈의 봉묘부터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때까지 17년간 활동하였다. 그의 형에 해당되는 각수 黃自顯은 1713년 숙종의 존숭도감부터 징발되어 1739년까지 21년간 활동한 형제 각수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각수 金守海를 비롯하여, 15명이었다. 이들 중 우두머리 격인 김수해의 경우 1725년 경종의 국장 때부터 교서관의 관각수로 국역을 지면서 조금씩 성장하여 1740년 효종에게 가상 시호를 올릴 때 관각수 1명, 외방 각수 14명, 승려 각수 3명 등 총 18명의 각수 중 앞자리에 위치했다. 1751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책을 제작하는 존숭도감 1방에는 교서관의 각수 13명을 동원했는데, 이 때 비로소 김수해는 관각수의 맨 앞자리에 위치하였다. 이를 통해 1725년에 입문할 때부터 교서관의 관각수였던 김수해는 처음에는 가장 뒷자리에 위치하였다가 매년 조금씩 앞자리로 위치가 바뀌어 1740년에는 교서관 내 4번째 관각수로서 외방 각수와 승려각수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 성장하여 1751년에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여, 입문한 지 26년 만에 드디어 교서관 내에 최고 위치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각수 김수해는 1754년 厚陵, 顯陵, 光陵, 敬陵, 昌陵, 宣陵, 靖陵 7곳 왕릉의

표석을 영건하거나, 1762년 왕세손인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도감 2방에서 죽책을 제작할 때 사각수를 총괄하였다. 1772년 영조의 사친 숙빈 최씨에게 시호를 올리는 도감 1방에서 죽책을 만들 때 총15명의 각수는 9명의 관장과 6명의 사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각수 김수해는 1725년부터 1772년까지 47년간 활동하는 동안 내내 교서관의 각수였으며, 1754년 왕릉의 표석을 제작할 때에는 선공감으로 잠깐 편제를 바꾸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교서관 소속이었다. 입문할 당시에는 교서관의 막내로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가 매년 조금씩 성장하면서 조금씩 앞자리로 이동하였으며, 입문한지 15년이 되면서 앞자리로 오르기 시작하여 2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가 관각수의 우두머리로서 자리매김한 다음부터는 같은 교서관의 각수들을 이끌거나, 대규모 공역에서는 외방각수나 승려 각수를 총괄하였다.

18세기 초반이나 중반까지 왕실 의례와 관련된 옥책이나 죽책은 교서관 관각수만으로 제작하거나, 시책이나 애책을 제작하는 규모가 큰 도감에서는 교서관의 관각수가 외방 각수나 승려 각수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관각수가 도감역을 주도하지만 그들이 협업을 하는 대상이 외방각수나 승려 각수가 아니라, 사각수와 함께 제작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8세기에 ‘時’자 돌림을 가진 각수들은 李時俊을 비롯하여 李時成과 李時蕃 및 李時泰, 李時恒까지 다수가 있어 장인 집안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1784년 문효왕세자를 책봉할 때 죽책을 새긴 죽각수였던 이시태의 경우 교서관의 관각수로서 38년간 도감에 참여한 18세기 후반기 교서관의 대표적인 각수였다. 정조대에 들어 옥책을 만들면 옥각수, 죽책을 만들면 죽각수 등으로 세분된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씨 ‘時’자 돌림 각수 중에서 1755년 숙종의 존숭도감에서 죽책각수로 활동한 李時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18세기 각수들은 대부분 교서관 소속의 관장이었으며, 각수로 장인집안을 형성하여 형제간에 함께 도감에 징발하여 국역을 져던 경향도 확인된다.

다. 18세기 칠장

18세기에 칠장은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죽책을 2개 만들 때 기타 제작할 의물의 양도 2배가 되면서 칠장을 7명이나 불렀지만, 나머지 도감에서는 대개 4~5명을 불러 작업하였다. 17세기 책례도감에서 보통 2명, 많아야 3~4명의 칠장이 작업하던 것에 비해 장인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관청이나 군영에 소속된 장인으로서 工曹와 尙衣院과 內需司 및 선공감과 그 하부기관인 자문감에 소속되었다. 군영은 훈련도감이나 수어청 및 총융청 등 군문 소속 장인이었다.

1721년 영조 왕세제 책봉 때 책례도감 1방의 칠장들을 보면 공조 소속 칠장이

군문 소속 장인을 거느리고 작업하는 방식이 구축된 것이 확인된다. 공조 소속 관공장 중 가장 앞쪽에 기록된 칠장이 해당 장색의 우두머리 격인데, 이중 주목되는 이가 1721년과 1725년 진종 왕세자 책봉 때 거듭 활동한 칠장 金欣立이다. 칠장 김흔립은 1698년부터 1744년까지 46년간 활동하였고, 공조 소속이거나 자문감 소속의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칠장이다. 그가 처음으로 기록에 보이는 것은 1698년 단종과 정순왕후를 복위하고 그들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도감에 막내로 입문하였다.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례도감 때 중간 위치로, 1713년 숙종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에서는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여 성장하였다. 1718년 왕세자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때 가례도감에 공조 소속이었다. 당시 공조 소속 칠장 김흔립은 훈련도감 칠장 4명과 총융청 칠장 2명을 거느렸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정성왕후를 왕세제빈으로 책봉할 때의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할 때에도 확인된다.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공조 소속의 관장이자 칠장의 우두머리인 김흔립이 공조 소속 칠장 文俊伊과 孔貴萬, 훈련도감의 車已玄, 총융청의 尹弼漢이 함께 했다. 이처럼 칠일을 할 때 상설아문의 관장이 군영의 장인을 통솔하여 의물을 제작하는 경향은 계속 유지되어, 1727년 왕세자 진종과 효순왕후의 가례 때 죽책부터는 사장까지 함께 작업에 참여하여 8명의 칠장은 官匠과 軍門匠人과 私匠으로 분포하였다. 칠장 김흔립은 1744년 사도 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가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칠일에 칠장의 우두머리로 차출되어 총7명의 칠장 중 관장 5명과 사장 2명이 협업을 하는 제작체계여서, 이전까지 관장이 군문 장인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관장이 사장을 거느리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1736년 사도 세자의 책봉 때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칠장 오선홍은 공조에 소속된 관장으로서 공조의 칠장 崔萬才나 金夢致 등과 칠일을 했다. 그는 15년 뒤인 1751년 의소세손을 책봉하는 도감의 1방에도 참여하였다. 1759년 정조의 왕세손 책례도감 1방에서 칠장 중 우두머리였던 金順萬은 1744년부터 1772년까지 28년간 도감에서 활동한 18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칠장이다. 다른 칠장과 달리 그는 책과 관련된 칠일에 특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1748년과 1751년 및 1758년, 1760년, 1771년, 1772년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를 약수정할 때 꾸준히 칠장으로 활동한 것에서 확인된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책봉도감의 1방이나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도감 1방이나, 1762년 왕세손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도감 2방에서 칠장의 우두머리로서 5~7명의 칠장을 총괄하여 죽책을 비롯한 각종 의물에 칠을 하는 일을 주관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궤에 기록된 것은 1772년 현종을 추숭하고 영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 공조 칠장 김순만은 해당 제작처의 우두머리로서 어영청의 칠장 朴世得과 상의원의 칠장 文弼成을 거느리고 작업을 했다. 이처럼 김순만은 18세기 중후반에 28년간 가례 관련 도감이나 왕실 족보 관련

도감에서 공조 소속의 관공장으로서 군문 장인이나 사장을 지휘한 칠장의 우두머리로서 꾸준히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84년 문효 왕세자를 책봉할 때 朴世得은 1762년부터 1795년까지 29년간 도감에서 칠장이나 진칠장으로 활동하였던 18세기 말의 대표적인 칠장이다. 그는 1776년 영조와 정순후부터 1762년 왕세손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 때 군기시의 칠장이었다. 1772년 존호도감에서 박세득은 1방에서는 어영청, 2방에서는 훈련도감, 1776년 국장도감에서는 훈련도감의 칠장이었다. 1777년 이후 1778년부터 1795년 정순왕후와 헌경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던 도감에서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아 칠장 중 가장 우수하였다.

라. 18세기 두석장

죽책은 죽간에 천혈장이 구멍을 뚫고, 두석장이 변철을 만들어 씌우고, 장책장이 책으로 만든다. 죽책을 장정할 때 銅匠은 艮水 1명과 수건 4자를 사용했고, 각양의 장식에 늦쇠의 색깔을 내기 위해 두석장은 三甫 2타래를 사용하였다. 이 삼보는 구리화로 1좌에 넣고 땀나무를 때서 끓여서 사용하였다. 죽책의 장식을 도금할 때 동원한 銀匠은 礪礮 6냥을 사용하였고, 작업이 끝나면 반납하였다. 도자장은 각수들이 죽책을 새기는 칼 38개는 날날이 버려서 들었다.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 징발된 두석장과 천혈장 및 도자장을 보면 1721년, 1725년, 1736년까지 18세기 전반기 장인들은 대부분 관장이나 군영 소속의 장인이었다. 그들이 소속한 상설아문에는 공조나 내수사[內司로 병기함] 및 상의원[尙方으로 병기함]이었고, 오군영에 소속된 훈련도감[訓局이라 병기함]을 비롯하여 수어청 등이었으며, 일부는 私匠도 있었다.

<표> 18세기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두석장, 천혈장, 도자장 명단

| 연대 | 대상 | 豆錫匠 | 穿穴匠 | 刀子匠 | 소장번호 |
|------|--------|---------------|--------------|--------------|--------|
| 1721 | 영조 왕세제 | 張重先(守御廳) 등 4명 | 金三益(尙方) | 金白 등 4명 | 규13099 |
| 1725 | 진종 왕세자 | 張重先(守御廳) 등 3명 | 金三益(尙方) 등 2명 | 姜有骨 등 4명 | 규14909 |
| 1736 | 사도 왕세자 | 張夫業(工曹) 등 3명 | 黃時傑(工曹) | 宋世彬(尙方) 등 2명 | 규13108 |
| 1759 | 정조 왕세손 | 張後先 등 2명 | 李世輝 | 金鳳益 등 10명 | 규13113 |
| 1784 | 문효 왕세자 | 韓点山 등 3명 | 黃尙杓 등 2명 | 池順才 등 4명 | 규13200 |

두석장은 張重先을 비롯하여 張夫於非, 張後先, 韓点山이 활동하였다. 우선 두석장 장중선은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수어청의 장인이었으며, 1748년 진전을 중수할 때에는 공조의 관공장이었다. 그는 27년간 고작 5곳의 도감에서만 활동하였지만 아문과 군문에 소속된 장인이었다.

다음 張夫於非는 張夫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는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1722년 단의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 공조 소속의 두석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1748년까지 27년간 20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두석장인데, 대부분의 경우 공조 소속의 관공장이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726년 종묘를 개수하는 도감 3소에서는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어영청의 군문 장인으로 편제된 적이 있었다. 1731년과 1732년에는 사장이었지만 다시 1736년 사도세자를 책봉할 때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할 때에는 공조의 관공장으로서 내수사의 宋龍瑞[世]와 高暹伊를 통솔하였고, 도감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739년 인원왕후의 존숭도감에서는 다시 사장으로, 같은 해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에는 공조의 관장으로서 내수사의 관장인 송룡서를 거느리고 활동하였다. 이렇게 그는 송룡서와 여러 도감에서 함께 작업하였다. 이후 마지막으로 활동한 1748년까지 계속 공조의 관공장이었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도감의 두석장이었던 張後[厚]先은 이전부터 두석장으로 활동했던 張重先과 형제 사이로 장인집안이다. 그가 처음 기록에 오른 때는 1739년 단경왕후의 신주를 부묘하던 때부터이며, 공조 소속의 두석장으로서 관공장으로서 내수사의 장인을 거느렸다. 그로부터 1762년까지 23년간 22곳의 도감에서 대부분의 경우 공조의 두석장으로서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두석장이다.

하지만 1751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에서는 내수사의 두석장으로 병기되기도 하였다. 또 금속을 다루던 그는 다른 장색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곧 1744년 선원보를 수정하는 교정청에서는 마경장, 1752년 의소세손의 사후 묘소도감의 대부석소에서는 섭장이었다. 1757년 인원왕후나 정성왕후의 사후 국장도감의 대부석소에서는 섭장으로 활동했지만, 도감역이 끝난 다음에는 2등상을 받았다. 1754년 인원왕후에게 가상존호를 올리는 도감의 2방에서는 공조 소속의 小爐匠으로 참여하였지만, 도감역이 끝난 후 별단에서는 두석장으로서 1등상을 받았다. 이로 미루어 두석장 뿐 아니라 마경장, 섭장 및 소로장 등으로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784년 의소세손을 책봉할 때 책례도감의 1방에서 참여한 두석장은 韓点[占]山이다. 그는 1762년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도감 1방부터 기록되어 있다. 처음 국역을 진 이후 10년간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참의 기간 동안 장인으로 기술을 습득한 시기로 여겨진다. 다시 도감역에 참여하여 1772년 현종을 추존하고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상호도감에서 그는 두석장이 아닌 2방에서 금보를 넣는 寶筒을 제작하는 筒匠이었다. 보통의 경우 금속으로만 만드는데 두석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국역에 징발된 1778년에는 영조와 정성왕후의 부묘도감을 비롯하여 책례도감 및 존호존숭도감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가장 두석장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는 1784년이고, 당시 문효세자의 책례도감이나 영조와 장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호도감에서 도감역이 끝난 후 여러 두석장 중 1등상을 받았다. 그 후 1786년 문효세자의 사후 예장도감에 표석소의 두석장을 참여한 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이렇게 1762년부터 1786년까지 24년간 비교적 많지 않은 8곳의 도감에서 두석장으로 활동하였다.



<두석장의 쪼이질 모습>



<천혈장이 죽편에 구멍을 뚫은 모습, 1721>

마. 18세기 천혈장

구멍을 뚫는 천혈장은 金三益(尙方), 黃時傑(工曹), 李世輝, 黃尙杓이다. 1721년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할 때와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천혈장 김삼익은 상의원에서 차출되었다. 그런데 김삼익은 이미 1684년 명성왕후의 빈전도감 때부터, 1731년 선의왕후 의릉 산릉도감까지 기록에 보인다. 이렇게 1684년부터 1731년까지 47년간 13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진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천혈장이었고, 상의원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736년 사도 왕세자 책봉당시 천혈장 黃時傑(工曹)은 黃時乞이라고도 기록되었으며, 1713년부터 1740년까지 27년간 12곳의 도감에서 활동할 때 내수사의 장인이었다. 이중 1736년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1방에서만 공조의 장인이었다. 그의 ‘時’자 돌림 형제들로 여겨지는 내수사의 장인으로 1719년부터 1721년까지 참여한 黃時輝(내사, 1719)과 黃時會(내사, 1721. 1722)을 비롯하여 黃時俊(1713)과 黃時贊(禁營, 1744) 및 黃時一(私匠, 1748) 등이 그들이다.

1759년 정조 왕세손 책봉 당시 천혈장 李世輝는 1번만 등장할 뿐이다.

1784년 문효왕세자 책봉 당시 책례도감 1방에는 천혈장 黃尙杓이 그의 집안이라 여겨지는 천혈장 黃尙福이, 2방에는 천혈장 黃尙福이 참여하였다. 그는 같은 해 영조와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의 1방에도 여전히 참여하면서 그의 집안에서 천혈장 黃尙允과 함께, 2방에서는 이전처럼 黃尙福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상표는 천혈장으로서 장인 집안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尙’자 돌림의 형제들로는 내수사의 장인이었던 黃尙一(內司, 1772)을 비롯하여, 黃尙彬(1777), 黃尙采

(1778), 黃尙福(1783, 1784, 1795), 黃尙漢(1800), 黃尙彭(1804)까지 같은 시기에 같은 도감의 제작처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에서 확인된다. 이중 천혈장 黃尙彦(1802, 1804, 1805, 1807, 1818, 1819, 1821, 1822)의 경우 1802년부터 1822년까지 19세기에 20년간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윗대의 경우 ‘世’자 돌림자를 가진 이들로서 1742년 공조의 장인이었던 천혈장 黃世泰[太]에서 비롯하는데, 그는 1752년에는 내수사의 장인, 1753년에는 공조, 1754년과 1756년 및 1757년에는 내수사의 장인이었고 1759년 및 1772년, 1776년, 1777년, 1778년까지 활동하였고, 특히 1779년에는 황세태와 황상체 등이 함께 작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바. 18세기 도자장

1721년의 도자장은 金白[伊]이었다. 그는 1718년부터 1726년까지 8년간 4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상의원 소속의 姜有骨은 1721년과 1725년 도감에서 활동하였을 뿐이다. 宋世彬의 경우 1736년 사도세자의 책봉 때 옥책을 제작하는 1방에서 상의원 장인이었는데, 그는 1713년부터 도감역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1744년까지 31년간 활동하는 내내 상의원의 장인이었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10명의 도자장이 활동하는데, 당시 우두머리 격이었던 장인은 金鳳益[翼]이다. 그가 처음으로 의궤에 기록되었을 때는 1748년 진전을 중수할 때였는데, 당시 그는 상의원의 장인이었다. 그는 1753년 숙빈에게 시호를 올리고 소령원을 봉원할 때 책인조성소나 비석소에서 각각 9명씩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로도 활동하였다. 책인조성소에는 鄭得京, 崔福丕, 朴致茂, 朴東夏, 安廷敏, 李春和, 金大得, 薛昌遠가 참여했고, 비석소에는 鄭得衡, 李丕福, 趙德必, 安廷民, 李春興, 金重江, 朴東夏, 朴致茂가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도자장은 총 17명이었으며, 양 제작처에서 우두머리인 김봉익만 함께 참여하였고, 나머지 도자장은 각각의 제작처에 분속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도감역이 끝난 뒤 이들 중 5명은 2등상을, 나머지 9명은 3등상을 받았다.

한편 김봉익은 1754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가상하는 도감에서는 옥책을 제작하는 1방에 총 19명의 도자장이 징발되어 활동하였는데, 그는 공조 소속의 관장이었다. 그는 나머지 18명의 사장을 거느리고 옥책을 작업하였다. 도감역이 끝난 후 그를 비롯한 4명의 도자장은 3등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공조의 관장 1명이 나머지 다수의 장인을 거느리고 옥역을 했는데 특히 18세기 중반에 사장을 거느리고 왕실의 의물을 제작하는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순의 도감에는 동원되는 도자장의 숫자가 많아진다. 1754년 후릉이나 현릉, 광릉, 경릉, 창릉, 선릉, 정릉 등 7곳 왕릉에 표석을 새로 영건할 때에는 9곳의 왕릉에 표석을 제작해야 했기 때무 2인지 하나의 제작처에 총 29명의 도자장을

징발하였다. 그들 중 도자장의 우두머리는 金鳳益이었고, 29명 중 도감역이 끝난 뒤 17명은 1등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2년 뒤인 1756년 숙종의 존숭도감에서는 도감 전체에서 활동한 도자장의 숫자가 총 40명이었다. 그들은 옥책을 제작하는 1방에는 35명의 관장인 도자장이, 2방에는 5명의 사장인 도자장이 동원되었다. 1방에서는 35명 중 당시 옥책을 제작할 때에는 金鳳翼을 우두머리로 삼아 총19명이었고, 김봉익을 비롯하여 상의원 소속 도자장 5명과 내수사 소속 도자장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옥보를 제작할 때에는 金就卜을 비롯한 총16명의 내수사 소속 도자장을 동원하여 제작하였다. 이들 19명과 16명의 도자장들은 각각의 우두머리 아래에 별도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2방에는 吳道殷을 비롯한 도자장 5명을 동원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사장이었다. 이들은 같은 해에 인원왕후와 숙빈, 영조와 정성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도감에서 1방에서는 金鳳翼을 비롯한 35명의 관장인 도자장이, 2방에서는 사장인 도자장 5명이 공통되었다.

이후에도 김봉익은 여러 도감에서 국역을 졌다. 1757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국혼 때 가례도감의 3방에서 옥책을 제작하는 19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였고,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10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였다.

이후 1770년 정릉에 표석을 영건할 때 도자장 7명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처럼 도자장 김봉익은 1748년부터 1770년까지 22년간 13곳의 도감에서 옥책이나 죽책을 제작하는 제작처에서 다수의 도자장을 이끌면서 작업을 했던 우두머리였음을 알 수 있다. 맨 처음 도감에 기록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국역을 지는 내내 상의원 소속의 관장으로서 18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도자장이었다.

1784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 4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는 池順才였다. 1800년 정조의 국장 때 1등한 도자장 池順才의 경우, 그가 처음으로 도자장으로 기록될 때는 1778년 정조가 효의왕후를 왕비로 책봉할 때 옥책을 제작하면서 의궤의 기록에 등장한다. 그는 이후 1778년부터 1804년까지 26년간 14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지면서 도자장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었다. 도감에 징발되어 도자장으로 활동하는 내내 여러 명의 도자장 중 대표로 3등상을 계속 받았다. 아울러 옥장과 각수는 도감 내 옥책을 제작하거나 표석 및 지석을 제작하는 1곳의 제작처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한 데 비해, 그는 1방이나 2방 등 칼을 베푸는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여러 번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 18세기 죽책을 책으로 꾸미는 책장

죽책을 책으로 만드는 장인은 책장이 있다. 1736년 장조 왕세자의 책례도감에서 죽책을 제작한 冊匠은 교서관 소속의 李德昌이었다. 이덕창은 1728년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를 약수정할 때부터 책장 중 가장 막내였고, 1736년에 책장으로 참여하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는 교서관 소속의 책장 金世光이었다. 그는 이미 1747년과 1754년 인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1방에서 교서관 소속의 책장으로 참여하였다.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는 1방에서 죽책을 책으로 꾸미는 역할을 한 반면, 같은 해 영조와 정순왕후의 국혼 때에도 1방의 책장이었다. 1784년 문효 왕세자를 책봉할 때의 冊匠 徐弼良은 이후 1790년 선원보를 수정할 때에도 책장이었다. 이후 1800년 정조의 국장 때 옥책을 제작하는 3방에서도 책장으로 활동하였다.

책장이 죽책을 장황할 때 가장자리 부분에는 金線緞을 붙였는데, 이것은 부레풀 [魚膠] 1냥을 사용해서 붙인다.

죽책을 넣은 함케는 흑칠내케와 흑칠외케의 2종류이고, 행사 때에는 이것을 죽책배안상에 올린다.

1721년에는 왕세제와 왕세제빈의 흑칠내케는 2개를 만들었다. 재료는 자작나무판을 사용하여 길이 각 1자 5치, 폭 각 1자, 높이와 덮개 각 1자로 만든다. 덮개 위에는 구름과 두 마리의 봉황을 그리고, 사면에는 매화와 대나무 및 난초를 그린다. 두석豆錫으로 장식하고, 두석으로 된 자물쇠에 紅眞絲 多繪纓子 27개를 갖춘다. 여기에 들어가는 단판 2냥, 부레풀 4냥, 세저포 14자, 숯가루 4되, 콩가루 4되, 풀가루 4되, 전칠全漆 1되 2흡, 매칠每漆 1되, 백저포 4자, 풀숨 1냥, 백지 20장, 안에 바르는 紅段 9자, 泥金 6돈, 明膠 6돈, 畫筆 2자루이다. 흑칠외케의 경우 왕세제 것과 왕세제빈의 것으로 모두 2개이며, 자작나무판을 사용하며 안쪽 내케가 들어갈 정도로 약간 크게 만든다. 납땀 장식과 납땀 자물쇠를 갖추었으며, 안에 靑綾花紙 28장을 바른다.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 자작나무판 4냥, 풀숨 2냥, 싸는 세저포 18자, 부레풀 10냥, 풀가루 4되, 숯가루 4되, 전칠 1되 4흡, 콩가루 4되, 때를 제거한 백저포 10척, 매칠 1되 1흡, 안에 바를 청릉화지는 8장이다.

흑칠 배안상도 왕세제 것과 왕세제빈의 것으로 모두 2개이며, 자작나무판을 사용한다. 단판 1냥과 가래나무 1조의 나무판재를 세저포 14자로 싨다. 골회는 부레풀 4냥에 콩가루 4되 및 숯가루 4되와 풀가루 4되를 섞어 발라주고, 검은 색을 내기 위해 참떡 4정을 섞은 전칠 2되를 칠하고, 다시 그 위에 매칠 1되 6흡 6사를 칠해주는 것이다. 가는 쇠못 4냥을 박는다. 흑칠 독책상도 2개를 만드는데 배안상보다 높이가 낮고 작는데, 목재는 배안상보다 반 정도 줄어 단판 반 냥과 가래나무 반 조이다. 이것을 세저포 4자로 싨고, 골회는 부레풀 3냥과 콩가루 3되, 숯가루 2되, 풀가루 2되를 섞어 만든다. 흑칠의 경우 전칠 6흡과 매칠 6흡이며, 여기에 참떡 2정을 섞어준다. 이렇게 칠을 할 때 백골 위에 모시포를 뒤집어 싨우고 골회칠을 하고, 떡을 섞은 흑칠을 하되, 전칠과 매칠을 해주는 것이다. 다만 배안상이나 독책상은 다리 모양이 둥글게 휘어 있으므로 이것들의 형태를 잡기 위해 부레

풀을 바르고 난 다음 줄바[條所] 2거리로 묶어 두어 둥근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4) 19세기 죽책의 제작 장인

<표> 19세기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사립장, 각수, 칠장, 책장명단

| 연대 | 대상 | 도감 | 斜笠匠 | 刻手 | 漆匠 | 豆錫匠 | 穿穴匠 | 刀子匠 | 冊匠 | 소장번호 |
|------|----|-----|-------------|-------------|-------------|-------------|-----|-------------|-----|--------|
| 1800 | 순조 | 왕세자 | 李馨集 등 2명 | 劉澤龍 등 3명 | 崔泰崙 | 表德運 | - | 金道成 등 2명 | 金興昌 | 규13119 |
| 1812 | 효명 | 왕세자 | 朴雲成 등 2명 | 朴亨蕃 등 5명 | 張萬得 등 3명 | 冊張龍雲 | 朴致根 | 金漢玉 등 3명 | 金東運 | 규13125 |
| 1830 | 헌종 | 왕세손 | 金世興 | 李周郁 등 7명 | - | 金福伊 등 2명 | 李根郁 | 鄭昌永 등 2명 | 高義相 | 규14190 |
| 1875 | 순종 | 왕세자 | 朴萬源 | 宋興一 등 3명 | 金俊五 | 李元榮 등 2명 | 白仁周 | 朴快東 | 金壽鎭 | 규13169 |

가. 19세기 죽책용 사립장

한편 이렇게 죽간으로 대나무 75편을 이용해서 일정하고 고른 죽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은 小木匠이 작업을 하였다. 소목장은 죽책을 만들 때 사용했던 물품을 살펴보면 질그릇 항아리[陶罐] 1개와 속새풀 1냥, 익힌 삼으로 끈 중간노끈 1거리, 상어껍질 1/4장, 자물쇠를 갖춘 궤 1부, 빈 가마니 5널, 솥 5말, 토화로 1좌, 등자쇠[鏡子金]를 갖춘 죽책틀[竹冊機] 5부, 양정틀(仰呈機) 2좌를 갖춘다. 이를 통해 소목장은 먼저 물에 대나무를 죽간을 충분히 불리고 거친 상어껍질로 대나무의 표면을 다듬은 다음 속새풀로 매끈하게 갈아준다. 이렇게 표면을 다듬은 죽간을 죽책틀에 맞춰 책의 형태로 만들고 나서 등자로 짝 맞물려 책의 형태로 만든다. 이제 이것이 틀어지지 않게 노끈으로 감은 다음 토화로 위에 질그릇 항아리를 올리고, 그 속에 물을 가득 넣고 등자틀로 물린 죽책틀을 넣고 물을 팔팔 끓여 고정시키는 것이다. 물 속에서 죽책의 형태가 고정된 다음 이것을 양정틀 2좌에 걸어서 말렸다.

이렇게 물속에서 대나무를 삶으면 뒤틀리거나 휨이 없이 반듯해지면서 편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도 대나무를 다루는 무형문화재들에게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죽책틀 5부와 양정틀 2좌 및 등자쇠 7개는 죽책을 다 제작하고 난 뒤에는 원래의 관청으로 되돌려 주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의 竹簡은 大竹인데 16마디짜리로 호조에 있는 75편을 사용해서 만들고, 填金용 재료는 白蠟 3돈, 니금 2돈 5푼, 아교 1돈이다. 죽책의 가장자리를 장식할 邊鐵은 熟銅 2근 6냥 5돈이고, 도금할 금은 5돈, 수은은 3냥 4돈, 땀은은 3돈, 봉사는 1냥 3돈이고 이것을 녹일 솥은 5말이 든다.

전두감은 홍화주로 길이 4치, 나비 1치 5푼짜리 16편이다. 뒤쪽을 배첩할 저주지 1장, 옷감으로 사용할 홍화주는 길이 7치, 나비 3치짜리 2편, 뒤쪽 배첩용 분홍선 자지 1장, 풀가루 5홉이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도감에 활동한 이형집은 1곳의 도감에서만 발견되지만, 고복홍의 경우 1783년 정순왕후와 혜빈 홍씨에게 존호를 올릴 때 1방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가 죽책을 제작하는 데 장기가 있음을 이듬해 1782년 문호세자를 책봉하는 책례도감에서 국역을 지고 2등상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다. 이후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도감까지 17년간 6곳의 도감에서 활동한 18세기 말의 대표적인 사립장이었다.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의 사립장 朴雲成은 1800년 정조의 국장 때에는 립장으로서 처음 기록에 기록되기 시작하여, 1805년 효명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면서 1등상을 받게 되었다. 이후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도감 3방에서 죽책을 제작하였고, 국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이렇게 박운성은 1800년부터 1819년까지 19년간 5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는데, 세자의 책례도감이나 가례도감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나머지 사립장들은 해당 도감에 1번씩 참여하였고, 다른 도감에서 활동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 18세기 사립장들이 상의원이나 공조에 소속된 관장으로서 국역을 진데 비해, 19세기의 사립장들은 사장이어서 국역을 질 의무가 없어 필요할 때마다 참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나. 19세기 각자장

19세기 책례도감에는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1812년 효명세자를,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설치하였다. 19세기 책례도감에서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할 때 죽책에 冊文을 새기는 각수는 도감마다 적을 때는 3명, 많을 때는 5~7명이었다.

19세기 죽책을 제작한 각수 중 앞자리에 위치한 각수의 우두머리는 劉澤龍, 朴亨蕃, 李周郁, 宋興一이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죽책을 새긴 각수 劉澤龍의 경우 1776년 사도세자에게 장헌세자라는 시호를 올리고 영우원을 봉원할 때, 각수로 처음 입문하였기 때문인지 10명 각수 중 가장 뒷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가 죽책을 제작하는 죽각수로서 조금씩 성장하여 1783년 혜경궁 홍씨의 존호를 올리던 때였다. 유택룡은 총19명의 죽각수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였다. 1784년 문호세자를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서 죽책을 새기는데 동원된 9명의 죽각수 중 18세기 말을 대표하는 죽각수 李時泰의 뒤를 이어 2번째의 위치였다. 같은 해 그는 장헌세자에게 존호를 올리는 도감의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11명의

죽각수 중 4번째의 위치해 있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하는 3명의 각수 중 하나였다. 1800년 정조의 국장 때에 책보를 제작하는 3방에서 5명의 죽각수 중 하나였다.

이처럼 劉澤龍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간 7곳의 도감에서 주로 죽책에 책문을 새기는 죽각수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택룡은 각수 집안이었다. 그것은 1776년 영조대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도감에 그와 함께 참여했던 劉澤興의 존재에 의해 확인된다. 유택룡과 유택홍은 이후 1783년 혜경궁 홍씨의 죽책이나 1784년 장헌세자의 죽책에 존호를 새길 때에도 같은 도감의 같은 제작처에서 죽각수로 함께 활동하였다. 이후 유택홍은 1800년 정조의 실록을 제작하거나, 1809년과 1812년 및 1817년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처럼 목재로 만든 책판 위에 새기는 목각수로 주로 활동하는 것이 확인된다.

각수 朴亨蕃 또한 유택룡보다 후배로서 그와 함께 죽책을 새기는 데 특기가 있는 죽각수였다. 두 사람은 1784년 문효세자의 죽책, 1784년 장헌세자의 죽책, 1800년 순조 왕세자의 죽책, 1800년 정조의 국장도감 등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후 1800년 정조의 사후 빈전혼전도감에서 각수였고, 1805년 왕실의 선원보를 편찬하거나 1812년 문효세자를 책봉할 때 5명의 죽각수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였다. 그는 1784년부터 1812년까지 28년간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1812년 효명 왕세자의 책봉 때와 1830년 헌종을 왕세손의 책봉 때 죽책에 책문을 새긴 각수는 李周郁이다. 그는 1795년 혜경궁 홍씨에게 존호를 올리고 죽책을 새기는 목각수로 朴昌福을 보조하며 입역하기 시작하였다. 각수 이주욱은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에 이르러서이다.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국혼 때, 1830년 헌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에도 죽책을 새기는 각수와 옥인을 새기는 옥각수로 구분되었다. 이주욱은 대나무나 나무 위에 새기는 목각수로서 1827년과 1830년에 왕실의 죽보인 선원보를 목판본으로 새기는 12113명의 각수 중 우두머리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각수 이주욱은 1795년부터 1830년까지 35년간 죽책이나 목판 위에 전문이나 글자를 새기는 데 장기를 가진 19세기 초기를 대표하는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책례도감 1방에서 활동하였던 각수는 宋興一이다. 그는 1848년 국조보감을 새기고 인출할 때 총44명의 각수 중 관각수 10명의 교서관[芸館] 각수 중 9번째 위치에 있던 막내였다. 이후 1872년과 1875년 종부시에 소속되어 왕실의 죽보를 목판 위에 판각하는 7명 각수 중 1등상을 받았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 1877년과 1878년, 1879년까지 왕실의 죽보를 목판에 새기는 일에 14, 15, 16명 등 다수의 각수 중 우두머리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각수 宋興一은 1848년부터 1879년까지 31년간 주로 국조보감이나 선원보처럼 목판본을 인쇄하는 교서관이나 종부시에 소속되어 목판 위에

새기는 목각수였음을 알 수 있다.

1875년 송홍일과 함께 순종의 왕세자 죽책을 새긴 李萬祚는 1863년 순조의 사친 수빈 박씨의 휘경원을 천원하는 원소와 천봉할 때 수빈의 죽책에 책문을 새기는 죽각수로 참여하였다. 1890년 신정왕후의 국장도감 때 목각수로서, 1892년 임진진찬 때에는 시강원의 각수로서 도감역을 졌다. 1898년 명성황후의 국장 때나 1904년 순명황태자비의 국장 때에도 3방의 각수로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각수 이만조는 1863년부터 1904년까지 41년간 6곳의 도감에서 국역을 졌는데, 죽책을 제작하거나 목판을 새기는 데 장기가 있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각수였다.

다. 19세기 칠장

죽책은 붉은색의 주칠을 한 다음에 각수가 새긴 부분에는 금을 넣는다. 이러한 재료는 아문이나 군문에서 옮겨다 사용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의 填金용 재료는 白蠟 3돈, 니금 2돈 5푼, 아교 1돈이다. 이것들은 당시 壯勇營에 있는 것을 옮겨 왔고, 니금은 상의원의 것을 가져다 썼다. 이를 위해 책례도감의 1방에는 죽책에 칠을 한 칠장이 소속되어 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도감별로 대체로 1명이고 많을 때에는 3명이었다.

19세기 책례도감 1장의 칠장은 崔泰崙은 이곳 이외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의 칠장 張萬得은 1800년 순조 왕세자를 책봉할 때의 2방에 칠장으로 처음 기록되었다. 그는 1804년 창덕궁 인정전을 영건할 때도 8명의 진칠장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고 도감역이 끝난 후 2등상을 받았다. 1805년 정순왕후의 사후 빈전이나 1818년 혜빈의 사후 빈궁에서 진칠장으로 칠을 했다. 1812년 효명세자의 책례도감에서 1방에서 칠장이었고, 왕실의 선원보를 제작할 때에 칠을 하기도 했다. 1819년 문조 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 때에는 별공작에서 칠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장만득은 1800년부터 1819년까지 19년간 진칠장으로서 활동하였다.

장만득과 함께 활동한 全德修의 경우 1802년 정조의 부모도감 때 3방에서 6명의 칠장과 함께 할 때 처음 기록되었다.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 때 3방에서, 같은 해 존호를 올릴 때 1방의 진칠장이었다. 1816년 혜빈의 상례 때에는 3방에서 칠을 하였다. 1812년 효명세자를 책봉할 때 1방에서 죽책에 칠하였고,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 때에는 3방에서 칠을 하였다. 1821년 효의왕후의 국장 때, 1822년 수빈 박씨의 예장 때에는 3방에서 칠장으로서 칠을 했다. 이처럼 전덕수는 1802년부터 1822년까지 20년간 칠장으로 활동하였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죽책을 만드는 책례도감 1장의 칠장으로서 참여했던 김준오의 경우 단 한차례만 그때에만 기록이 보일 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19세기 두석장

죽책은 대나무를 5~6쪽으로 자르고 쪼갠 후 두석장이 변철로 감싸고 천혈장이 구멍을 뚫고 여기에 천을 옷으로 감싸 입힌다. 1800년 순조의 죽책은 매쪽 9치, 너비 1치, 두께 1푼[예기척]인데, 변철의 재료는 숙동이요, 황금으로 도금한다. 위아래는 紅禾紬로 옷을 만들어 씌운다.

19세기에도 변철은 두석장이, 구멍은 천혈장이, 그것들을 도자장이 베풀어주는데, 이전과 달리 줄질을 하는 줄장이 있다. 이것을 책장이 책으로 엮는다. 이들 장색의 인원은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져 두석장 대체로 2명, 천혈장은 1명, 도자장은 2명, 줄장 1명, 책장 1명 등이다.

<표> 19세기 도감 1방에서 죽책을 제작한 두석장, 천혈장, 도자장 명단

| 연대 | 대상 | 豆錫匠 | 穿穴匠 | 刀子匠 | 裝匠 | 冊匠 | 소장번호 |
|------|--------|----------|-----|---------------|----------|-----|--------|
| 1800 | 순조 왕세자 | 表德運 | - | 金道成, 秋德麟 | 鄭東元 | 金興昌 | 규13119 |
| 1812 | 효명 왕세자 | 張龍雲, 金成昌 | 朴致根 | 金漢玉, 金昌文, 張得成 | 林快得, 李長金 | 金東運 | 규13125 |
| 1830 | 헌종 왕세손 | 金福伊, 趙哲得 | 李根郁 | 鄭昌永, 李孫 | - | 高義相 | 규14190 |
| 1875 | 순종 왕세자 | 李元榮, 張仁吉 | 白仁周 | 朴快東 | - | 金壽鎭 | 규13169 |

19세기 책례도감에서 활동한 두석장은 張龍雲, 金成昌, 金福伊, 趙哲得, 李元榮, 張仁吉이다. 1812년 효명세자의 책례도감 때의 두석장 張龍雲의 경우 1812년부터 1825년까지 13년간 두석장을 국역을 졌다. 혜경궁의 사후 상례도감이나, 1819년 효명세자와 세자빈 신정왕후의 가례도감 및 1821년 효의왕후의 사후 국장도감, 1823년 수빈 박씨의 사후 혼궁 조성 시 당가를 조성할 당시, 1825년 수빈의 신주를 모실 때도 활동하였다.

趙哲[喆]得의 경우 1816년 혜빈의 상례 때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여, 1821년에는 효의왕후의 국장도감 때 표석소에서, 수빈 박씨의 예장 때, 1827년 순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 활동하였다. 1830년 효명세자의 예장 때에는 두석장 8명 중 우두머리로, 1830년 헌종의 왕세손 책봉 때, 1832년 효명세자의 신주를 모실 때, 1835년 효명세자를 추송할 때 죽책을 제작하는 1방의 두석장이었다. 1835년 순종의 국장 때에는 두석장 8명 중 우두머리로, 1836년에는 종묘와 영녕전을 중수할 때, 1837년 헌종과 효의왕후의 국혼 때 두석장으로, 1837년에는 순원왕후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거나, 같은 해 어진을 모사할 때에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조철득은 1816년부터 1837년까지 21년간 활발한 활동을 했던 19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두석장이다.

| 연대 | 대상 | | 豆錫匠 | 穿穴匠 | 刀子匠 | 鎚匠 | 冊匠 | 소장번호 |
|------|----|-----|----------|-----|----------|----------|-----|--------|
| 1800 | 순조 | 왕세자 | 表德運 | - | 金道成 등 2명 | 鄭東元 | 金興昌 | 규13119 |
| 1812 | 효명 | 왕세자 | 張龍雲 등 2명 | 朴致根 | 金漢玉 등 3명 | 林快得 등 2명 | 金東運 | 규13125 |
| 1830 | 헌종 | 왕세손 | 金福伊 등 2명 | 李根郁 | 鄭昌永 등 2명 | - | 高義相 | 규14190 |
| 1875 | 순종 | 왕세자 | 李元榮 등 2명 | 白仁周 | 朴快東 | - | 金壽鎭 | 규13169 |

마. 19세기 천혈장

19세기의 책레도감에 동원되었던 천혈장 朴致根, 李根[瑾]郁, 白仁周이다. 천혈장 朴致根은 1800년부터 1816년까지 16년간 8곳의 도감에서 활동하였다. 천혈장 李根郁의 경우 1830년부터 1845년까지 15년간 활동하였다. 이를 보아 구멍을 뚫는 기술은 특별하여 해당 기술을 가진 장인이 15년 이상 꾸준히 왕실에 도감역에 참여하였다고 여겨진다.

바. 19세기 도자장과 줄장

19세기의 책레도감에 동원되어 활동하였던 도자장은 대체로 1차례의 도감에만 기록이 보일 뿐이고 秋德麟[仁], 金昌文, 張得成 등이다. 추덕인은 1800년의 책레도감과 1805년 인정전을 영건할 때 호조에서 장인들에게 품삯을 주고 고용하였던 5명의 도자장 중 우두머리였다. 金昌文은 1830년 책레도감에서는 도자장, 같은 해 예장도감에서는 두석장이었다. 張得成의 경우 1830년 책레도감에서는 도자장, 1835년 인릉산릉도감에서는 야장으로서 8명의 장인을 거느리고 석수의 도구를 버리는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된다.

사. 19세기 책장

19세기의 책레도감에 동원되어 활동하였던 책장은 金東運, 高義相, 金壽鎭이다. 당시의 책장도 나머지 장색의 장인들처럼 이미 사적인 생산에 종사하였기 때문인지 한 곳의 도감에서 도감역을 했을 뿐 더 이상 기록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김동운의 경우 1802년부터 1837년까지 35년간 활동한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책장이다. 특히 그는 존순도감이나 국장도감 및 가례도감 등에서는 옥책을, 책레도감이나 예장도감에서는 죽책을 제작하는 책장의 역할을 했다. 1827년 이후 1837년까지는 종부시에 소속되어 왕실의 선원보를 제작하는 13명의 책장 중 우두머리로 활동하였다.

3) 금책

(1) 대한제국의 선포와 금책의 제작

고종은 1897년 9월 17일, 高宗은 大韓帝國을 宣布하면서 스스로 皇帝에 登極하였다. 이로써 王室儀禮 대신 皇室儀禮로 變化하면서 황후나 황태자 등을 책봉할 때의 冊文制度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동안 王朝國이었던 조선은 왕실의례여서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玉冊을,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는 竹冊을 수여였으나,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明聖王后를 皇后로, 王世子와 王世子嬪을 皇太子와 皇太子妃로 冊封하면서 왕실례를 따른 옥책과 죽책 대신 처음으로 金冊을 제작하여 수여하게 된 것이다.

이후 金冊은 1910년 7월 24일 興親王과 興親王妃 冊封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총 16件이 제작되었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도 玉冊은 尊號, 諡號, 廟號를 올리거나 哀冊으로 사용되었고, 竹冊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또 책문은 1926년 순종이 사망하자 그해 4월 20일 황태자 이은이 尊號 ‘孝皇帝’, 諡號 ‘文溫武寧敦仁誠敬’, 廟號 ‘純宗’을 함께 올린 옥책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현존하는 대한제국의 금책은 총16건인데, 그중 1910년 이전 종묘에 소장되어 있던 금책은 현재 3건으로서 이것들만이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명성황후추봉금책, 1897>



<순종황태자책봉금책, 1897>



<순정효황후책봉금책, 1907>

(2) 대한제국의 금책의 현황

대한제국 대한제국 왕실이 황실로 격상됨에 따라,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후국으로써 행할 수 없었던 천자의 예를 행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상징적인 儀物 가운데 하나가 金冊이다. 조선왕조에서는 冊封이나 上號(尊號, 徽號, 諡號, 廟號) 의례와 哀冊으로 玉冊이나 竹冊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을 기점으로 마침내 금책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며, 바로 그 첫 번째가 1897년 고종황제 즉위와 함께 제작된 명성황후, 황태자 책, 황태자비 민씨의

금책이었다. 금책은 이 3건을 시작으로, 1900년 고종과 황귀비 사이에서 태어난 마지막 황태자 이은을 영왕으로 책봉한 <李垠冊封英王金冊> 이후 1910년 7월 24일 興親王과 興親王妃 洪氏와 李氏 책봉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총 16건이 제작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로 황제국으로 격상되면서 옥책은 존호를 올리거나 애책으로만 사용되었고, 금책은 황후를 비롯하여, 황태자, 王(親王),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를 책봉하는 데 사용되었다. 죽책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가. <明聖王后 皇后 追封金冊>(어책29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897년 9월 17일 일본 낭인에게 살해된 부인 명성왕후를 황후로 추봉할 때 제작하였다. 제술관은 홍문관 대제학사 김영수(金永壽, 1829~1899), 서사관은 홍문관 학사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다. 금책 유물의 크기는 세로 24.9cm, 길이 20.6cm, 두께 0.5cm, 편폭 10.3cm이다. 규격은 2첩 2칸에, 극항 19자, 행 12행이다.

나. <순종皇太子金冊>(신수92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순종은 1875년, 나이 2세로 왕세자에 임명되었다. 이때에는 조선왕실의 책문 제도를 따랐으므로 왕세자 책봉에 사용되는 죽책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1897년, 광무 원년에 황태자로 책봉될 때는 황실 제도에 따라 금책이 제작되었다. 제술관은 홍문관 대제학사 김영수(金永壽, 1829~1899), 서사관은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다.

금책 유물의 크기는 세로 23.3cm, 길이 20.2cm, 두께 0.6cm, 편폭 10.1cm이다. 규격은 2첩 2칸에, 극항 17자, 행 10행, 총139자이다.

다. <尹氏冊封皇太子妃金冊>(어책86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906년 12월에 해풍부원군 윤택영의 딸(1894~1966)을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하여, 순종이 황제로 즉위한 1907년에 황태자빈이었던 순정효황후의 황후책봉 금책을 수여하였다. 이 금책의 제술관은 홍문관대학사 김학진(金鶴鎭, 1838~1917), 서사관은 홍문관학사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이다. 금동에 세로 22.9cm, 길이 20.5cm, 두께 0.6cm, 편폭 10.2cm 이고, 무게는 25.88kg이다. 2첩 2칸이고, 극항 25자, 행 14행, 글자수 257자이다.

(3) 금책의 제술관과 서사관 및 서사식(書寫式)

대한제국기 금책의 제작과정은 ‘製述-書寫-作貼-繪粧-封裹’으로 제작되는 일련의 과정은 동일하다. 우선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금책문을 담당할 부서와 製述官과 書寫官이 임명된다. 제술관이 문장을 지으면[製述] 서사관이 이를 서사하여[書寫]

草圖書와 正本을 만든다.

가. 제술관과 서사관

금번에 어책어보로 조사한 금책 3점 중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제작한 명성황후추봉금책과 순종황태자책봉금책은 『대례의궤』에 의하면 둘다 제술관인 홍문관대학사 김영수가 지었고, 서사관인 홍문관학사 민병석이 쓴 글씨를 바탕으로 새겼다.

한편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를 하면서 왕비를 황후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순정효황후책봉금책의 경우 제술관은 김학진이어서 그가 글을 지었고, 서사관은 홍문관학사 신기선이어서 그가 글씨를 쓴 것을 새겼다.

세 금책에서 공통되는 ‘유(維)’자나 ‘황제(皇帝)’의 글씨체를 보면, 1897년의 두 금책과 1907년의 금책에서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된다. 서사관 민병석과 신기선의 글씨체가 금책을 제작할 때 반영된 것이다.

나. 서사식

금책에 새겨지는 문장, 즉 금책문의 형식은 ‘서사식(書寫式)’이라고 한다. 서사식에는 배자(排字)와 배행(排行), 대두법(擡頭法)이 포함된다. 배자와 배행은 글자를 중형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이때 전체 문장의 글자수를 감안하여 한 행에 들어갈 글자의 수와 1개 금편(金片)에 들어갈 행의 수가 결정된다. 또 다른 글자보다 특별히 높여 써야 할 글자와 높이를 정한다. 서사식은 책문 담당 부서가 초안하는데, 출초본(초도서출초본) 입계를 통해 결정된다.

16건 금책 전체를 볼 때, 1개 첩(貼)은 4~7행, 극항(極行)은 12~19자, 평항(平行)은 11~17자로 다양하다. 배자·배행에 있어 금책이 옥책이나 죽책과 다른 점은 대두법의 차이이다. 즉 옥책이나 죽책은 평항을 기준으로 극항은 두 글자, 중항은 한 글자를 높여 쓴 반면, 금책은 중항을 없애고 극항과 평항만을 두어, 극항은 평항보다 2자를 높게 썼다. 또 옥책과 죽책은 행을 바꾸지 않고 대상을 높일 경우, 해당 글자 앞에 한 글자만큼의 간격을 비워 두는 ‘격자(隔字)’ 방식을 사용한 반면, 금책에서는 격자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책은 모든 책문이 동일한 크기의 금편 두 개로 제작되므로 글자의 수에 따라 글자의 크기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또한 하나의 특징이다. 지정대상인 3건의 금책은 각각 글자의 수와 크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명성황후 민씨 황후추봉금책 : 2첩 2칸, 극항 19자, 평항 12행, 185자이다.
- 순종 황태자책봉금책 : 2첩 2칸, 극항 17자, 10행, 총139자이다.
-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 2첩 2칸, 극항 25자, 평항 14행, 257자이다.

(4) 재질과 규격

금책의 주요 부분인 金片의 재질은 黃金鍍金, 天銀鍍金, 熟銅鍍金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정대상 3점 중 2점은 황금도금이고 나머지 1점은 천은도금이다.

가. 1897년 황금도금 금책 2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에 제작된 <명성왕후 민씨 황후책봉 금책>과 <순종 황태자 책봉금책>은 황금도금이다. 명성왕후의 황후 추봉과 황태자 책봉은 황실의 명맥을 잇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일이므로, 책문을 특별히 황금으로 제작한 이유도 여기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두 금책은 황금으로 片을 만들고 다시 황금을 도금한 것이다. 소요된 황금의 양은 <명성왕후 황후 책봉금책>과 <왕세자 황태자 책봉 금책>은 각각 黃金 7근 12량, 鍍黃金 4錢이었다.

나. 1907년 천은도금 금책 1점

순종이 황제로 즉위한 1907년에 제작된 <순정효황후 황후 책봉 금책>은 천은도금이다. 순정효황후금책은 天銀으로 片을 만들어 황금을 도금한 것으로, 金片 1개는 禮器尺으로 길이 1척 2촌, 너비 5촌, 두께 2푼 5리이다. 의궤에는 [圖說]에 “每片 長一尺二寸 廣五寸, 厚二分五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유물을 실측한 결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07년 당시 순종이 영왕 이은을 황태자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英王皇太子冊封金冊>을 비롯하여 총 10건이 유존되고 있다.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친왕제도와 이들에 대한 책봉 의례 또한 중국의 사례를 모방하면서, 친왕 책봉 시에 금책과 금인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금책에 사용된 天銀과 黃金의 양은 금책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책의 규격은 16건 금책이 대체로 동일한 편이다.

한편 최초의 친왕 책봉인 1900년 고종이 왕자였던 이은과 이강을 친왕으로 책봉하면서 <李垕英王冊封金冊> 등을 제작토록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친왕과 친왕비의 책봉 때 금책과 금인이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기 동안 총 7건이 제작되었다. 영왕 이은은 1907년 7월 순종 즉위와 함께 황태자로 책봉되면서 금책을 제작했으나, 종묘에 소장된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한다.

(5) 금책의 제작자

금책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鍍金한 金片 두 개를 정해진 규격으로 책을 펼쳤다가 접는 모양으로 만든다.[作貼] 두 개의 금편이 제작되면 正本을 붙여[北漆] 陰刻하고[刻字], 글자의 패인 면에 붉은 색 안료인 당주홍을 채운다[填字, 填紅]. 뒷면은 종이와 비단으로 褙接하고 문양을 새긴다.

이를 위해 먼저 금책의 가장자리에 용문양은 화원과 화사를 동원하였다. 1897년

『대례의궤』에 의하면 명성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할 때 금책의 보획사자관은 학부주사 白萬奭이었다. 금책의 네 변의 가장자리에 용문양[草龍]을 그리는 일은 화원 朴昌洙, 朴鏞薰, 尹錫永와 화사 李廷愚, 金載喜를 동원하였다. 당시 금책은 黃金 7근 12량, 도금을 위해 鍍黃金 4錢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동원된 장인은 金匠 金喜永 등 3명, 銀匠 崔完煥, 李完植 등 5명이었고, 주물을 하는데 鑄匠 金完汝, 韓致玉 등 6명이었다.

1907년 『隆熙兩皇后復位時冊禮都監』에 의하면 금책에 보획은 정3품 白萬玉이 했다. 금책에 글씨를 쓰는 일은 사자관 李德鉉이 썼으며, 금책의 네 변의 가장자리에 용문양[草龍]을 그리는 일은 화원 金基洛, 李祺榮과 화사 金俊永, 金益煥, 韓仲寬이 했다. 순정효황후책봉금책은 천은 6근에 광도금 7전 5푼이었는데, 이것은 大銀匠 金聖老 등 3명과 小銀匠 高雲善 등 3명이 담당하였다.

위 3권의 금책에서 보듯이 1897년이나 1907년의 금책에서 황후나 황태자의 금책은 모두 네 변의 가장자리에 초룡문을 새겨 넣은 것이 공통된다. 그러나 그밖에 의왕과 영왕 및 흥왕 및 그들의 배우자의 금책에는 반리(蟠螭)문을, 엄비를 순비나 황귀비로 책봉할 때에는 雙翟문을 네 변의 가장자리에 새겨넣고 있다. 이로 미루어 대한제국 황실의 위계에 따라 문양이 달라져 황후와 황태자 및 황태자비는 초룡문을, 황귀비는 쌍적문을, 친왕과 친왕비는 반리문으로 차등을 두었다.

네 가장자리에는 동물 문양을 새기고 唐朱紅으로 패인 면을 채우는데, 문양은 草龍, 蟠螭 雙翟 등 세 종류이다. 초룡문은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를 책봉하는 금책에만 사용되었는데, <명성황후민씨추봉황후금책>, <왕세자척책봉황태자금책> 등 7건이다. 쌍적문은 황후로 책봉되지 못한 황귀비의 금책 2건, 즉 <순빈엄씨책봉순비금책>과 <순비엄씨책봉황귀비금책>에만 사용되었다. 반리[교룡]문은 왕(친왕)과 왕(친왕)비의 금책에 사용되었는데, <의화군책봉의왕금책>, <이은책봉영왕금책>, <완화군추봉완왕금책>, <김씨책봉의왕비금책>, <완흥군책봉흥왕금책>, <완흥군부인홍씨추봉흥왕비금책>, <완흥군부인이씨책봉흥왕비금책> 등 6건이다. 이상의 구분을 통해 금책에 새겨진 문양은 피책봉자의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편에 글자를 새기고 문양을 새긴 후에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패인 면에 중국산 붉은 색 안료, 唐朱紅을 채운다. 이렇게 글씨를 채우는 것을 填字 또는 填紅이라고 한다. 당주홍은 6錢이 사용되었는데, 이 재료와 양의 기록은 모든 금책에 동일하다. 이 작업은 안료인 당주홍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글씨를 메꾸는 일이기 때문에 화원들이 수행한다.



<완화군완왕추봉금책, 1907, 어책36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완흥군흥왕책봉금책, 1910, 운1129,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완흥군책봉흥왕금책>의 가장자리 반리문, 1910, 운1129,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6) 회장(繪粧)

회장은 금책을 꾸미는 일련의 과정이다. 금책은 두 개의 금편을 엮어 책처럼 펴고 접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공통된다.



금편의 뒷면 양쪽은 둘다 해당되며 네 번의 가장자리에 초롱문을 새긴 부분을 제외한 안쪽 부분에는 붉은색 비단 뒤를 먼저 붉은색 종이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병풍장이 하며 1897년에는 병풍장 高在鳳이 했다. 당시 비단은 중국산의 붉은색 구름문 비단[雲紋漢緞]에 접착제로 찻쌀풀[糊]을 사용하여 붉은 선자지[紅扇子紙]로 배접한 다음 금책에 붙였다. 이렇게 양쪽 뒷면의 가운데 부분에만 붉은 비단을 종이로 배접하여 붙이는 것은 모든 금책에 동일하다.

이를 위해 두 편 of 안쪽 상·하에 구멍을 뚫어 붉은색 끈(紅條)을 사용하여 묶는다.

금책을 다 만들고 나면 첩과 첩 사이에 솜을 넣은 붉은비단요[紅雲紋漢緞藉褥]를 깔아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붉은 비단 보자기[紅雲紋漢緞端袱]로 금책을

감싸고, 위쪽에 오색실끈[五色眞絲結纓子]으로 묶는다.

회장까지 끝나면 책문을 보자기에 싸고 궤에 담은 봉과식에 의해 책봉식을 거행하기 위해 궤내로 들였고, 책봉 당사자의 사후 삼년상이 끝난 후 종묘에 부묘되었다.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옥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어책-교명, 죽책, 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김문식, 「조선시대 어책의 현황과 특징」,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박윤미, 「17~20세기의 어책 상황 직물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서울공예박물관, 『경혜인빈상시호 죽책』, 서울공예박물관, 2022.
-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인수, 「대한제국기 금책문의 형태적 특징과 인출·반사(1897~1910)」, 『고인쇄문화』 제14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 장경희,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연구 : 17~18世紀 玉匠과 刻手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미술사연구회, 2001.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朝鮮後期 여성장인의 장색(匠色)과 직역(職役) 연구」, 『여성과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 장경희, 「1755년 경혜인빈 김씨의 상시호 죽책(竹冊)과 은인(銀印) 관련 물품의 제작장인 연구」, 『역사민속학』 61,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 장경희, 『국혼과 연향용 공예품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3.
- 장을연, 「청대 조선왕실 책봉교명과 조선 교명의 형태 비교연구」,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장을연, 「대한제국기 금책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고문서연구』 제46호, 2015, pp.183~209.
- 정다슬, 「조선 후기 옥책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 교명의 제작 방식과 장인

교명은 국왕이 왕비를 책봉하거나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손과 왕세손빈을 訓諭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단으로 짜고 만든 왕실 문서의 하나이다. 책봉과 관련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사료에서 확인이 된다. 그중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을 기록한 의궤에는 그 내용이 되는 敎命文과 敎命式, 敎命織造形, 雲頭籤子, 敎命橫 敎命繪粧式, 敎命封裹式, 排案床, 花銀 등 교명 제작방법과 교명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圖說을 첨부하여 기재하고 있다.

교명은 조선 초기에는 임명장의 성격을 가지고 종이에 작성되었다가 1437년(세종 19) 중국의 제도를 따라 오색실로 짠 비단 위에 황금축으로 꾸몄고, 이후 현존하는 교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교명의 재질이 종이에서 비단으로 변화하였던 것은 왕실의 권위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신들에게 내리는 교서 등에는 명주류를 사용하는 등 같은 견직물이라도 문서를 받는 사람과 문서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재료에 차별을 둬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의례의 상징성을 중시한 것이다. 다만 임진왜란 이전의 교명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조선후기의 것이 존재한다.

책봉교명을 제작하기 위해 『大明會典』의 고명과 칙명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서 교명의 형태 및 장황의 체제를 규정하였고 도감에서는 왕비나 세자 및 세자빈을 책봉할 때마다 이것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교명은 일반 문서와 달리 오색의 비단실로 교명문의 바탕을 직조하고 앞 부분에 제목을 쓰고 陞降龍의 무늬를 글씨의 좌우에 배치하고, 뒷부분에는 연월일을 쓰는 것, 그리고 두루마리 끈을 오색으로 갖추어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하여 교명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공예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 교명의 형식과 체제

교명은 국왕이 왕세자나 왕세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왕세손과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에, 왕비로서의 자세나 교훈 및 경계의 내용을 담아 내린 문서이다. 교명은 아름다운 오색 비단으로 장식되어 화려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비단의 시작 부분에 篆文으로 ‘敎命’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다.

책봉과 같은 국가적인 의례가 거행될 때 임시관청인 도감이 설치되는데, 교명은 상방[상의원]에서 비단을 짜서 도감에 들이면 1방에서 문서의 형태로 장황하고 배접한 다음 교명문을 작성하였다. 현존하는 교명 유물은 총 32점이다. 그중 종묘에 소장되어 있다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된 유물은 28점인데,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것은 1638년 인조계비의 왕비 책봉 교명을 비롯하여 1866년 고종비 명성황후를 왕후로 책봉할 때의 교명이다.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는 책례도감에서 제작한 교명 중에서 현존하는 왕세자의 책봉 교명은 총 6개가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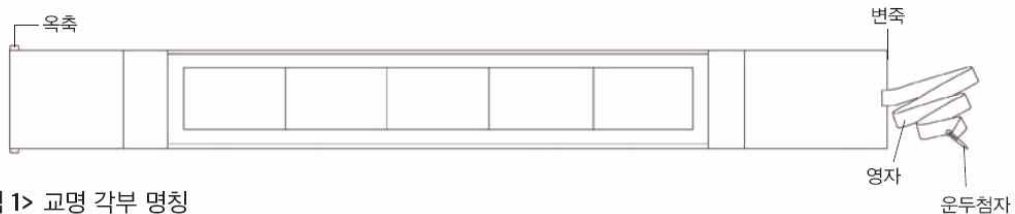
소장되어 있는 유물은 총4점으로서 1751년 의소세손을 왕세손을 책봉하는 왕세손 책봉 교명과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왕세자교명이 소장되어 있다.

<표> 책례도감에서 왕세자와 왕세손을 책봉할 당시 교명의 제술관과 서사관 및 현존 여부

| 연대 | 대상 | 도감 | 교명 | | 크기 | 극항 | 행 | 글자수 | 날인 | 유물 | |
|------|-----|-----|-----|--------------|------------|-----|-----|-----|------|--------|--------|
| | | | 제술관 | 篆字 서사관 | | | | | | 소장번호 | 소장번호 |
| 1651 | 현종 | 왕세자 | 책봉 | 金益熙 吳挺緯 | 33.8*271 | 10자 | 29행 | 251 | 시명지보 | 고박294 | 규13069 |
| 1651 | 명성후 | 세자빈 | 책봉 | 金光煜 李景憲 | 31.4*291.5 | 9자 | 42행 | 287 | 시명지보 | 고박305 | 규13069 |
| 1671 | 인경후 | 세자빈 | 책봉 | 金壽恒 李正英, 吳始復 | 33.5*302 | 10자 | 38행 | 333 | 시명지보 | 고박306 | 규13078 |
| 1690 | 경종 | 왕세자 | 책봉 | 柳命天 俞夏益 | 35.4*315.8 | 10자 | 38행 | 302 | 시명지보 | 고박295 | 규13091 |
| 1696 | 단의후 | 세자빈 | 책봉 | 李奮 金鎭龜 | 36*317.2 | 10자 | 33행 | 270 | 시명지보 | 고박309 | 규13092 |
| 1718 | 선의후 | 세자빈 | 책봉 | 宋相琦 李夏坤 | 34.2*314.5 | 10자 | 40행 | 313 | 시명지보 | 고박311 | 규13094 |
| 1721 | 영조 | 왕세제 | 책봉 | 宋相琦 正申皙 | 37.8*311.7 | 10자 | 45행 | 352 | 시명지보 | 고박296 | 규13099 |
| 1725 | 진종 | 왕세자 | 책봉 | 金在魯 金相玉 | 36.9*311.2 | 10자 | 29행 | 233 | 시명지보 | 고박297 | 규14909 |
| 1727 | 효순후 | 세자빈 | 책봉 | 姜覲 李穡 | 36.2*303 | 10자 | 37행 | 295 | 시명지보 | 고박315 | - |
| 1736 | 장조 | 왕세자 | 책봉 | 宋寅明 尹淳 | 35.2*312.2 | 10자 | 48행 | 353 | 시명지보 | 고박298 | 규13108 |
| 1759 | 정조 | 왕세손 | 책봉 | 李天輔 金漢耆, 徐志修 | 34.9*304 | 10자 | 31행 | 243 | 시명지보 | 고박299 | 규13113 |
| 1800 | 순조 | 왕세자 | 책봉 | 洪良浩 李命植 | 34.5*292.3 | 10자 | 40행 | 296 | 시명지보 | 고박300 | 규13119 |
| 1812 | 문조 | 왕세자 | 책봉 | 金祖淳 金履度 | 36.6*308 | 10자 | 41행 | 314 | 시명지보 | 고박301 | 규13125 |
| 1830 | 헌종 | 왕세손 | 책봉 | 金履喬 洪義俊 | 37.2*283 | 10자 | 40행 | 313 | 시명지보 | 고박301 | 규14190 |
| 1875 | 순종 | 왕세자 | 책봉 | 金炳學 李敦宇, 李崔應 | 37.3*294 | 10자 | 44행 | 350 | 시명지보 | 신수9239 | 규13169 |



<헌종왕세자책봉교명, 1651, 22.8×271.0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 교명 각부 명칭

<교명의 각부 명칭>

(1) 교명의 제술관과 篆字 서사관

교명문은 吏曹에서 담당하여 차출한 敎命文 製述官과 書寫官, 篆文書寫官이 교명문의 내용 작성과 서사를 수행하였고, 교명문 끝에는 이들의 직책과 성명이 기록

되어 있다. 교명문을 작성하는 製述官은 承文院에 속한 벼슬아치 중 典禮文을 전달하는 관리가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술관의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죽책의 문장을 짓기 위해서는 駢儷文을 짓는 문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을 고려하여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니고 문장력이 뛰어난 관리 중에 선택하였다.

篆字 書寫官은 ‘敎命’이라는 단어의 글씨를 篆書體로 쓰는 관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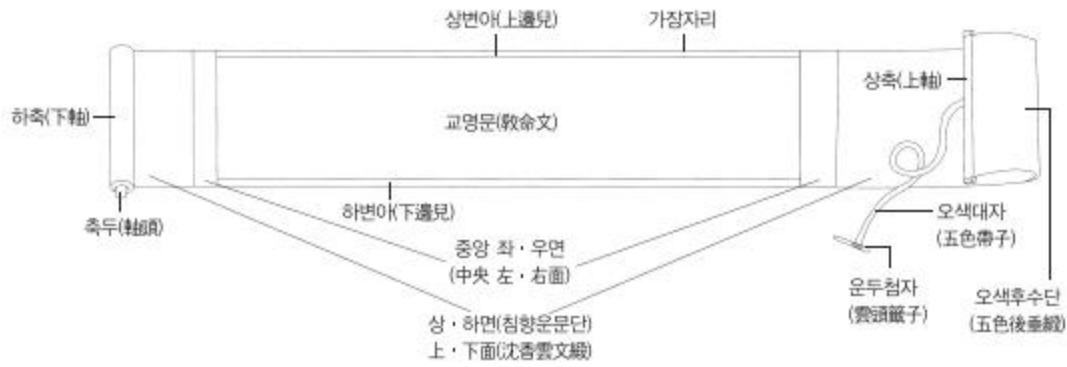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교명을 처음 제작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1627년 소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이다. 당시 교명문의 서사관은 沈悅(1569~1646)이었다. 1628년 가례를 행할 때에 교명 제술관은 洪瑞鳳(1572~1645), 교명 서사관은 沈悅이었다. 1638년 인조가 장렬왕후를 책봉할 때 교명문의 제술관은 李景奭(1595~1671), 서사관은 吳竣(1587~1666)이었다. 1645년 효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교명문 제술관은 金光煜(1580~1656), 교명문 서사관은 李景憲(1585~1651)이었다. 1648년 가례를 치를 때 교명문 제술관은 趙翼(1579~1655), 교명문 서사관은 申翊全(1605~1660), 전문 서사관은 金光煜이었다. 1651년 효종이 왕비를 책봉할 때에 교명문 제술관은 趙錫胤(1606~1655), 교명문 서사관은 吳竣이었고,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교명문 제술관은 金益熙(1610~1656), 서사관은 李天基(1607~1671)였다.

1667년 자의대비의 교명문 제술관은 李一相(1612~1666), 서사관은 宋浚吉이었다. 당시 왕세자 숙종의 교명문 제술관은 趙復陽(1609~1671), 서사관은 金壽恒(1629~1689)이었다. 1671년 왕세자 숙종과 세자빈 인경왕후의 가례 때 교명문 제술관은 이조판서 金壽恒, 교명 전문의 서사관은 호조참판 李正英(1616~1686)이고, 예차는 예조판서 金壽恒, 교명문 서사관은 개성부유수 李正英, 예차는 부사과 吳始復(1637~1716)이었다.

1681년 가례도감의 교명문 제술관은 겸호조판서 金錫胄(1634~1684), 예차는 사헌부 대사헌 李端夏(1625~1689)이며, 서사관은 청평위 沈益顯, 예차는 호조판서 趙師錫(1632~1693)이고, 교명 전문 2차 서사관은 판돈녕부사 李正英, 예차는 낭선군 李僎이다.

1725년 진종을 왕세자로 책례할 때에 교명문 제술관은 부제학 金在魯(1682~1759), 교명문 서사관은 감사 金相玉(1683~1739)이었고, ‘敎命’ 전자 서사관은 金祖澤이었다. 1762년 정조 효의왕후의 세손빈 책례 때 교명문 제술관인 판부사 鄭翬良, 교명문 서사관 洪樂性(1718~1798)이다.

1875년 순종을 왕세자로 책례할 때에 교명문 제술관에는 영돈녕부사 金炳學(1821~1879)이고 예차에는 판중추부사 朴珪壽(1807~1877)를, 서사관에는 좌의정 李最應(1815~1882)이고 예차에는 李承輔(1814~1881)이며, ‘敎命’ 전자 서사관에는 봉조하 李敦宇(1801~1884)이고 예차에는 金世均(1812~1879)이었다.



<교명의 세부 명칭>

| | | | |
|---|---|--|---|
|  |  |  |  |
| 인조비 장렬왕후 왕비 책봉교명, 1631, 어책 30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45, 어책 30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현종 왕세자 책봉교명, 1651, 어책 29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51, 어책 30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  |  |  |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71, 어책 30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경종 왕세자 책봉교명, 1690, 어책 29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숙종비 인현왕후 복위 교명, 1694, 어책 30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96, 어책 30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 | | |
|--|--|---|--|
| | | | |
| <p>인조비 장렬왕후 왕비 책봉교명, 1631, 어책30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45, 어책30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현종 왕세자 책봉교명, 1651, 어책29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51, 어책30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 | | | |
| <p>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71, 어책30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 왕세자 책봉교명, 1690, 어책29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숙종비 인현왕후 복위교명, 1694, 어책30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696, 어책30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2) 교명의 형태와 제작체제

製述官이 문장으로 지은 교명문은 출초본을 내어 내용을 품평하여 정하면, 그 문장을 書寫官이 베껴 써서 교명문 초도서를 작성하고, 국왕의 어람이 끝나면 寫字官이 서사식을 만든다. 이후 도감에서는 2단계를 거쳐 교명을 직조한다. 먼저 ‘敎命織造式’은 교명문을 쓸 바탕이 되는 비단 직물을 尙衣院에서 직조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敎命繪粧式’은 교명문이 써 있는 부분의 상하좌우를 둘러 장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대부분 ‘장황’이라고 부르는 반면 왕실문서인 교명에 사용할 때에는 ‘繪粧’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敎命織造式’이다. 이것은 상의원에서 직조하여 도감으로 보낸다. 오색 비단 위에 교명문이 작성되는 부분과 그 사방 테두리를 飛鳳과 雲紋으로 장식된다. 교명문의 내용이 작성되는 오색비단은 같은 크기의 홍색·황색·남색·백색·흑색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명이 시작되는 홍색 비단의 첫 부분에는 오르내리는[陞降] 두 마리 용이 옥색으로 짜여 있고, 두 용 사이에 ‘敎命’이라는 두 글자가 황색 비단실로 직조되어 있다. 교명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의 승강하는 용이 있으며,

두 용 사이에 ‘연호·월·일’을 적고 그 위에 어보(御寶)-시명지보를 찍었다.

둘째 ‘敎命繪粧式’이다. 이 부분은 도감의 1방에서 진행한다. 교명문을 쓰는 비단의 상하좌우와 뒷면에 무늬 있는 비단을 회장하여 교명문을 보호하는 부분이다. 비단으로 장식된 교명을 두루마리 형식대로 유지하고 지지하며 고정한다.

회장을 제작하는 재료는 오색 금선비단으로 길이와 나비는 각 1자씩이고, 축초의를 만드는 심향운문대단은 길이 2자, 나비 8치이다. 배접을 위해 毛邊紙 4장, 生布 20자, 細條所 1근의, 청밀 5홉, 백급말 7돈, 황밀 1냥, 비상 2돈, 백반 1냥, 초주지 10장, 밀가루 2승이다. 籤子는 두석 2냥으로 원환을 만들고, 진먹 1정, 서사관이 쓰는 족제비붓 2조, 옥막이로 쓸 성천 玉軸 2개, 교명의 상하의 끝에 자루용 柄木 1조각은 도감에서 만들어 들인다. 기름종이 10장, 비단에 초주지로 배접한 후 팽팽하게 붙여들 쟁틀 2부는 길이 8자, 너비 2자이다. 붓자루용 대나무 4개, 의향 2봉지이다. 화문 백룡 길이 1자 6치, 나비 8치, 남대단은 길이 4자 7치, 나비 3치 5푼, 백숙초는 7자, 백지 1권이다. 교명에 배접을 하고 쟁틀에 팽팽하게 묶어둘 때 꿰매는 실은 백저사였고, 호조와 제용감에서 백저사 1돈을 들었다.

회장 부분의 형태는 두루마리인 卷子本으로 되어 있다. 그 중앙에 옥축이 있으며, 전체는 비단으로 꾸며지고, 비단 위에 교명문을 작성하는 형태이다. 교명의 세부는 횡축(橫軸)·변죽(邊竹)·거물못[巨物釘]·대자[帶子, 纓子]·침자(籤子)로 구성된다. 횡축은 교명을 두루마리처럼 말았을 때 두루마리의 중앙에 위치하며 교명을 펼치면 가장 왼쪽에 위치한다. 횡축의 상하 끝부분의 재료는 옥이고, 가운데 재질은 나무이며 원기둥의 형태이다. 변죽은 교명의 횡축 반대편에 해당되는 우측 끝에 해당된다. 변죽의 재료는 대나무가 아닌 산유자·오동·추목 등의 나무를 사용하며 반달기둥의 형태이다. 변죽의 평평한 면이 교명의 앞쪽을 향하고 반달 곡선 부분은 교명의 뒤쪽을 향한다. 거물못은 교명의 비단 오른쪽과 두루마리를 감는 띠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대자는 두루마리 형태의 교명을 감아서 고정시키는 길이 1m에 너비 3~5cm 내외의 좁은 띠이며, 다섯 가지 이상의 색상을 짜 오색대자라 불리기도 한다. 대자의 한쪽 끝에는 비녀형 운문 침자가 달려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핀 역할을 한다. 침자는 두석이나 황동을 재료로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은 구름무늬를 지녀 비녀의 형태와 비슷하다.

직조하고 장황이 완료된 비단 위에 사자관이 제술관이 지은 교명문을 먹으로 필사하여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직조와 회장까지 완성한 교명을 ‘敎命封裹式’이라 하여, 보자기로 싸고 내함과 외곽에 넣은 다음 책봉의례가 거행되는 공간에 올려두고 읽을 때 사용하는 案까지 제작하였다. 이처럼 교명과 교명함과 교명케 및 교명안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敎命’篆文 2글자를 쓰는 사자관, 교명의 비단을 직조하는 능라장이나 綯匠, 침자를 제작하는 두석장, 오색영자를 짜는 다회장 등이 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와 직역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 17세기 교명의 제작장인

전란을 거치면서 제작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광해군 시기에는 중국의 고명과 칙명을 참고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광해군 시기 왕세자 책봉 교명을 제작하기 위해 『대명회전』의 규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오색의 삼베실이나 명주실로 교명문의 바탕을 직조하였다. 앞부분에 제목을 쓰고 승강룡 무늬를 글씨 좌우에 배치하고 뒷부분에는 연도, 월, 일을 쓰였다. 또한 두루마리 끈 역시 오색으로 갖추는 등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존하는 조선 왕실의 교명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교명을 제작한 도감에서 만들어지는 의궤에는 사용된 재료를 빼놓지 않고 기재하며 간혹 채색도설까지 실고 있다. 일례로 『현종비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봉이나 혼례는 국왕의 전교 혹은 관원들이 올린 상소로 시작되며 거행이 결정되어 교명문 제작에 돌입한다. 결정된 행사는 차질 없이 치루기 위해 이조에서는 도감을 설치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임시관청인 도감에서는 총책임자인 도제조, 부책임자인 제조, 그리고 각 부서의 장으로 3~6품에 남청이 차출된다. 다시 남청은 도청과 각방에 2명씩 차정된다. 이 밖에도 각종 문서 장성과 회계, 주직을 담당하는 인원들로 서리, 고직, 사령, 가환군사 등도 부서에 분속되며 화원과 서사 역시도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공장들을 통솔하고 각종 기물제작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관원인 감조관을 5~9품직으로 각방에 1명 또는 2명씩 배치되었다. 교명의 바탕이 되는 비단과 기타 장황에 필요한 각종 비단은 상의원에서 직조하였다. 제술관에 의해서 완성된 교명문은 출토본을 내었으며 이를 품정한 후 초도 서서사식을 만들었다. 이 초도서서사식이 결정이 되면 어람을 위해 서서관이 교명문초도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서관이 직조 비단 위에 먹으로 필사하였다. 교명문 비단 바탕은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순으로 직조되어 교명문에 묵서한다. 마지막 흑색 부분에 묵서가 끝나면 교명문이 완성되며 본격적인 장황에 들어간다.

국혼은 왕[세자]이 사대부 가문의 여인을 왕비[세자빈]로 맞아 들어서 왕실에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통과례의 일종인 것이다. 이 때 교명은 왕실과 혼인이 맺어졌음을 대내외에 확인시키는 인증서에 해당되어 가례용 공예품 중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 왕비나 세자 및 세자빈을 책봉하며 내리는 교명은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작하되 국혼 날짜에 맞춰 제작해야 하는 공예품이다. 조선후기 가례 때마다 교명의 직조가 가장 시급하므로 빨리 제작하여 납입하라는 전교가 수시로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교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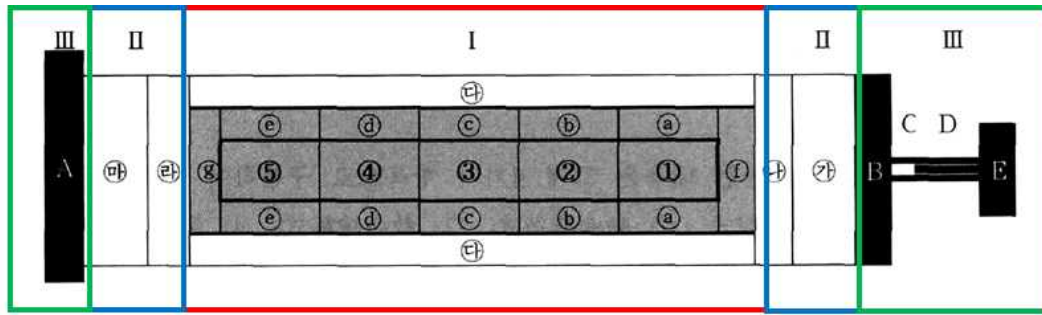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도감에 소속되어 있는 書寫官이 篆文을 써서 상의원으로 보내면 능라장이 내용대로 직조한 후 다시 가례도감으로 보내면 도감 소속의 繪粧匠이 표구를 하여 완성을 하는 분업방식으로 제작되었다.

(1) 교명의 직조와 회장

조선왕실에서 의물이나 예기를 제작할 때에는 선례를 상고하여 그것을 토대로 화원이 기화를 한 ‘본’에 의거하여 ‘견양’을 만들어 내었으며, 왕실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인하는 잣대로서도 활용되었다. 예컨대 가례나 책례 때 왕비와 세자빈을 책봉하며 내리는 敎命은 왕실 공예품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어서 견양에 의해 제작하였다.

견양은 제작해야 할 공예품의 치수와 크기를 조정하는 근거로 활동될 뿐 아니라 문양이나 색상,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례 때 왕비나 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던 교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교명은 왕실의 국혼을 증명하는 인증서의 성격을 지녀서, 그 상징성 때문에 가례도감에서 제작하는 공예품 중에서도 형식미를 갖추면서도 가장 긴급하게 제작해야 했다. 교명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분업체제로 제작되었다. 도감 내 寫字官은 전서체로 글씨를 쓴 다음 상의원으로 보내었고 綾羅匠은 ‘교명’의 내용과 글씨를 직조한 다음 또다시 도감으로 보내면 繪粧匠이 오방색실로 9축을 짜면서 행서체의 ‘책명날짜’를 짜 넣어 족자형태로 완성시키는 공예품이었다. 이렇게 가례의 상징성을 가장 극적으로 표출하는 공예품이므로 의전과 선례에 꼭 맞도록 제작하려 노력했으며, 반드시 등록을 먼저 참고한 다음에 제작에 착수하였다.

예컨대 1638년 인조와 장렬후의 가례 때에는 敎命軸과 翟衣 등은 상의원의 능라장이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제작할 공예품의 선례를 임인(1602, 1542)등록에 의거하여 살피도록 하였으나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도감으로 하여금 상의원에 명하여 확인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교명축을 제작하는 제도는 견양에 의해 직조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제작할 때에는 선례에 의해 상의원으로 하여금 그 제도를 살핀 후 모방하여 완성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일 후에는 교명축에 짜 넣을 용문양을 임인 등록에 의해 밝힐 수 있었다. 교명축에는 왕실의 紋章 격이라 할 수 있는 용문양을 본받아서, 축머리와 축말미에는 각각 승룡과 강룡을 그리도록 하였다. 또 축의 상하 양변에도 용문양을 넣도록 하는 논의를 거친 후 결국 옛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① 교명문 작성 부분 ② 회장부분 ③ 권자본 축과 고정띠 부분

<교명의 세부형태 구분>

가. 교명의 견양

17세기에 제작한 교명은 회장의 각축마다 크기와 색상, 문양과 직조조직이 달라졌는데, 의례에 보이는 교명의 견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세기 교명회장축의 견양

| | 초면 | 1축 | 2축 | 3축 | 교명전문 | 4축 | 5축 | 6축 | 7축 | 8축 | 9축 | 말면 |
|------|-------------------------|-------------------------|-----------------|-----------------------|-----------------------------------|-------------------------|-------------------------|-------------------------|-------------------------|-----------------------|---------------|-----------------------|
| 1627 | 홍 질 청 화문단 7.3×6.2 | 심 향 색 화문단 7.3×0.9 | 화문백릉 7.3×3.0 | 담 남 색 승 강 룡 문직성 | 교명 2자 무문 운봉백문 5.0×18.0 | 담홍색운 봉백문 5.0×18.0 | 담황색운 봉백문 5.0×18.0 | 백색운봉 담황문 5.0×18.0 | 담자색운 봉백문 5.0×18.0 | 대 연 호 월일 안보 | 초 면 과 동일 | 회 장 백 릉갑 |
| 1638 | 심향색 8.0×10.0 | 심향색운 봉문 8.5×6.5 | 운문백릉 3.0×3.0 | 홍 질 승 강 룡 황 사직성 | 교명 2자 자적직성 /운봉문사 4.5×8.0 | 황질 | 청질 | 흑질 (승강 룡 문직성) | 백릉 | 연월일 | 백릉 2.9×2.9 | 심향색운 봉문 4.0×4.0 |
| 1651 | 심향색 운문단 10.3 | 심향색 운문단 | 화문백릉 | 담 남 색 승강룡 | 교명 2자 직성 | 담 홍 색 운봉문 | 담 황 색 운봉문 | 담 남 색 운봉문 | 백 색 운 봉문 | 신 묘 11 월/21일 안보 | 담 초 록 운봉문 | 심 향 색 운문단 |
| 1696 | 심향색 운문단 | | 화문백릉 | 담 남 색 승강룡 | 교명 2자 전문직조 | 담 홍 색 운봉문 | 담 황 색 운봉문 | 담 남 색 운봉문 | 백 색 운 봉문 | 병자 5월 14일안보 | 담 초 록 운봉문 | 심 향 색 운문단 |

교명의 견양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회장축의 크기와 비단의 색상과 문양도 달라진다. 시기별로 교명의 견양은 차이를 보여 회장축의 크기와 비단의 색상과 문양도 달라지고 있었다.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제작한 교명 회장축은 길이 7치 5푼에 넓이 12자이었다. 교명의 재료로 사용한 비단은 첫머리와 말미에 심향색을 배치하였고 가운데 부분은 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자색으로 구분하여 글씨나 문양을 새겼는데 각각은 오색실을 사용하여 능직 비단으로 짰다. 문양은 화문(花紋), 승룡문(乘龍紋), 운봉문(雲鳳紋) 등이었다. 그러나 1638년 인조와 장렬후의 가례 때에는 양 끝에 심향색(沈香色)을 배치한 다음 백색, 홍색, 황색, 청색, 흑색의 오방색 비단을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이것은 앞 시기에 제작한 오방색보다 짙은 색상으로 바뀐 것이었으며, 제작처는 도감이 아니라

상의원의 ‘繪粧鋪陳色’에서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1651년과 1696년의 가례 때에는 양끝의 심향색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원색의 오방색(五方色)은 조금 열린 오색(五色)으로 바뀌고 있었다. 즉 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남색, 백색의 순서에 담초록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 때 직조조직은 금(錦)이나 능직(綾織) 및 교직(交織) 등이 활용되었으며, 문양은 雲鳳紋이나 陞降龍紋 등을 사용하였다.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교명에 들어갈 각종 비단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였고 회장은 도감에서 제작을 하였다. 1638년에는 교명의 직조는 상의원 내의 직조색에서 했으며 회장은 회장포진색에서 나누어서 작업을 하였다. 이후 1651년에도 교명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였고, 회장은 도감에서 하였다. 1671년에는 도감 소속의 寫字官이 쓴 篆文을 상의원으로 보내면 직조색에 소속된 능라장이 “교명” 두 글자를 가운데에 넣으면서 五色錦 비단으로 짠 다음 다시 도감으로 보내면 繪粧匠이 교명의 외곽에 해당되는 회장을 짰다.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제작한 교명 회장축은 포백척으로 길이 7치 5푼에 넓이 12자이었으며, 도감에서 직조를 했다. 교명의 재료로 사용한 비단은 첫머리와 말미에 심향색을 배치하였고 가운데 부분은 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자색으로 구분하여 글씨나 문양을 새겼는데 각각은 오색실을 사용하여 능직 비단으로 짰다. 문양은 花紋, 乘龍紋, 雲鳳紋 등이었다. 각각 비단의 길이는 초면의 홍질은 길이 1자, 나비 9치, 1면 심향색은 길이 1자 5치, 나비 8치, 2면 화문은 길이 9자 3치, 나비 2치 5푼, 백릉은 길이 1자 6치, 나비 8치이다.

나. 교명의 회장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제작한 교명 회장축은 포백척으로 길이 7치 5푼에 나비 12자이었으며, 도감에서 직조를 했다. 제1면은 ‘軸衣’이며, 청화문이 있는 필단으로 길이 7치 3푼, 나비 6치 2푼이다. 여기에는 두석으로 만든 길이 1치 3푼의 籤子를 다회장이 만든 오색 영자에 꿰맨다. 籤子는 원환인데, 두석 1냥으로 두석장이 만든다.

1638년 인조와 장렬후의 가례 때에는 양 끝에 沈香色을 배치한 다음 백색, 홍색, 황색, 청색, 흑색의 오방색 비단을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이것은 앞 시기에 제작한 오방색보다 짙은 색상으로 바뀐 것이었으며, 제작처는 도감이 아니라 상의원의 繪粧鋪陳色에서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1651년과 1696년의 가례 때에는 양끝의 심향색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원색의 五方色은 조금 열린 五色-백색, 담남색, 담홍색, 담황색, 담남색, 백색의 순서에 담초록을 배치하였다. 문양을 짤 직조는 錦이나 綾織 및 交織 등이 활용되었다. 교명을 짤 때 들었던 재료는 시기마다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일치하여, 17세기에 치러진 국혼 때 제작한 교명회장의 구성체제과 크기, 색상, 문양을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한편 국혼에 사용할 교명을 짜기 위해 상의원이나 도감의 회장포진색에서 고급 직기를 갖추어 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1627년의 도감에서는 문양을 넣은 고급 필단을 짤 수 있는 직조기를 호조에서 구입하여 상의원에 갖추어 주었다. 1638년의 도감에서는 장인들이 머무는 처소에 ‘織綃機’라 불리던 베틀을 두었는데, 당시 넓은 폭을 짜기 위해 큰 대나무 바디를 선공감에서 만들어 들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양이 복잡하여 까다로운 솜씨가 요구되는 교명은 상설아문인 상의원과 의례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권설도감의 분업적 협업으로 완성시켰다.

(2) 상의원 능라장

교명에 들어갈 비단의 직조를 위해 상의원에서 능라장이 제작을 하거나 책례도감이나 가례도감의 1방에 능라장을 동원하였다. 1610년 의인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고 인목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부터 능라장을 차출하였다. 1627년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가례 때에는 교명에 들어갈 각종 비단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였다.

도감에서는 회장을 위한 비단을 직조하기도 했다. 1610년 의인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고, 중궁전을 책봉하고 왕세자를 책봉할 당시의 책례도감에는 교명의 제작을 위해 능라장을 차출하였으며, 그들은 제작일수와 업무량에 따라 그들 중 梁永과 安得男은 1등상을, 田世倫과 李禮京 및 金壽長은 2등상을 받았다. 1627년 가례도감의 1방에는 능라장 尹得仁, 李無金, 李大秀, 孫貴文, 李禮景, 金孝一, 金長命, 李孝一, 張戒男이 징발되어 제작하였다.

1638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 때 도감 1방에 능라장 金德一을 비롯하여 11명을 동원하였다.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하거나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당시 교명의 직조는 상의원 능라장 鄭應龍이 짰다.

(3) 17세기 회장장

1651년 효종이 인선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와 현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교명의 회장장은 金以善이었고, 특히 교명회장장은 金德男, 全仲賢이었다. 이중 회장장 김이선은 같은 해 인조와 인렬왕후의 부모도감에서도 회장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全仲賢의 경우 다른 도감에서는 병풍장으로도 불리고 있었다. 예컨대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도감 1방과 2방에서 서울 김포에 거주하는 병풍장이었다. 1649년 인조의 국장도감 2방이나 1659년 효종의 국장도감 2방에서도 병풍장이었다. 이를 통해 교명을 제작할 때는 그것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는 장인도 ‘회장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그밖의 다른 공예품의 장황할 때에는 ‘병풍장’으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1667년 숙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책례도감의 1방에는 회장장 朴武善이 활동하였다. 그는 1671년 인경왕후를 세자빈으로 책봉 때, 1677년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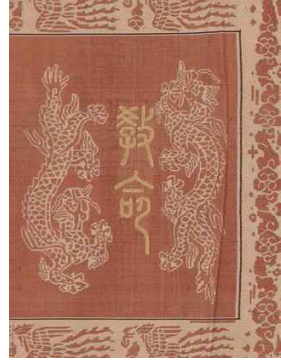

책봉할 때, 1681년 인현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688년 영정모사도감 때, 1690년 장희빈을 중궁전으로 책봉,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 1694년 인현왕후를 다시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1696년 경종 왕세자와 단의왕후의 가례 때도 회장이었다. 그 밖에도 박무선은 1659년 효종의 사후 혼전 2방이나, 1667년 숙종을 세자로 책봉할 때에는 병풍장, 1690년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할 때는 배첩장이었다. 이렇게 회장장 박무선의 경우 1659년부터 1696년까지 37년간 가례도감이나 책례도감 및 영정도감 등에서 국역을 졌던 17세기 말의 대표적인 회장장이었다.

(4) 17세기 축초의 끈을 짠 다회장

1627년 소현세자의 가례 때 다회장은 교명 회장의 軸初衣에 매달 오색 纓子를 짰다. 그들이 오색 영자를 짜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홍진사 2돈, 남진사 2돈, 자적진사 2돈, 유청진사 2돈, 백진사 2돈으로 오색 纓子를 짜고, 여기에는 상의원에서 만들어 들인 두석 원환으로 된 침자를 달았다.

1639년 인조와 장렬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다회장은 金景[敬]伯, 金大守이었다. 이중 김경백은 1627년 원종의 예장, 1630년 선조의 목릉을 천봉, 1645년 소현세자의 예장, 1649년 인조의 국장도감, 1659년 효종의 국장 등에서 32년간 국역을 졌던 서울 출신의 대표적인 17세기 전반의 다회장이었다. 17세기 중반의 다회장 朴元은 1651년부터 1674년까지 23년간, 다회장 李承男의 경우 1645년부터 1661년까지 16년동안 활동하였다.

1677년 숙종이 인경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다회장 朴日(一)元은 1667년부터 1699년까지 32년간 활동한 17세기 말을 대표하는 다회장이다. 특히 그는 원래부터 서울에 거주하던 장인으로서 국역에 징발되었는데, 20년이 지난 1686년부터는 상의원에 소속되었다.

| | | | |
|---|---|--|---|
|  |  |  |  |
| 숙종비 인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702, 어책3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18, 어책3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 추봉교명, 1722, 어책3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경종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  |  |  |
| 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 책봉교명, 1759, 어책31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  |  |  |
| 장조 왕세자 책봉교명, 1736, 어책29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44, 어책31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정조 왕세손 책봉교명, 1759, 어책29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78, 어책3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 | | |
|--|---|--|--|
| | | | |
| <p>숙종비 인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702, 어책3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18, 어책3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비 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 | | | |
| <p>숙종비 인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702, 어책3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18, 어책3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비 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22, 어책3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 | | | |
| <p>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 책봉교명, 1759, 어책31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진종 왕세자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25, 어책29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 | | | |
| <p>장조 왕세자 책봉교명, 1736, 어책29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현경왕후 왕세자빈 책봉교명, 1744, 어책31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정조 왕세손 책봉교명, 1759, 어책29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효의왕후 왕비 책봉교명, 1778, 어책3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3) 18세기 교명의 제작

교명은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상징물이었으며, 상의원에서는 비단을 직조하고 도감에서는 회장을 제작하여 완성시킨 염직공예품의 정수였다.

(1) 18세기 교명의 체양

18세기에도 전례를 참고하는 교명의 제작방식은 계속 이어져 1718년 경종과 선의 후의 가례도감에서 교명을 제작할 때 예전에 제작한 교명의 체양(體樣)을 따랐다. 즉 선례에 따라 제작할 교명은 상의원으로 하여금 길이와 넓이, 체제 및 직조와 형태, 색상 및 전서체의 글자모양과 크기 등을 그림으로 그려 모사한 것을 보고 직성하도록 한 것이다.

1727년의 교명회장은 제1면은 중간에 교명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쪽의 홍색바탕에는 승룡과 강룡을 직조하였으며, 제2면은 황색바탕, 제3면은 남색바탕, 제4면은 백색바탕, 제5면은 국혼날짜를 쓴 양면을 흑색바탕에 승룡과 강룡을 직조하였다. 크기와 형태, 색상 및 직조기법 등은 그림으로 그려두었다가 모사하는 방식으로 교명의 견양을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제작방식은 1744년의 가례 때에도 여전히 전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가례 때 사용하는 교명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선례를 견양으로 삼아 상의원에서 직조하였는데, 선례가 된 실물의 체양은 상의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그것에 따라 제작하였다.

교명이 가례라는 왕실행사에서 그 가치와 상징성을 지녔고 의궤라는 체제 속에서 형식미가 부가된 시기는 『국조속오례의』 이후였다. 즉 1759년 영조와 정순후의 가례 때 비로소 1방에서 제작하는 공예품 중 가장 먼저 기재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교명과 관련되는 각종 부속 공예품의 제작순서 및 해당 공예품의 도식까지 그려지기 시작하여, ‘교명직조형’, ‘운두침자’, ‘교명식’, ‘교명궤’, ‘교명회장식’, ‘교명봉과식’ 등이 그려졌다. 도식화된 교명의 제작방식은 1762년 정조와 효의후의 가례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교명과 교명회장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던 심향색 운문단은 19세기 내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1802년 순조와 순원후의 가례 때에도 도설화하는 체제는 계속 이어졌으나 교명을 회장할 때 사용하던 비단의 색상은 바뀌어, 이전까지의 심향색 운문단 대신 아청 운문단을 사용하였다.

(2) 교명직조식 : 상의원의 직조 장인

‘교명직조식’은 상의원에서 교명의 오색비단을 직조할 때 오색의 색상과 문양, 교명문 글자의 배치 부분 등을 지시하여 교명의 체제와 형식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영조가 정성왕후를 중궁전으로 책봉할 때 교명축을 직조해야 하는데, 오색실을 교차시키는 순서 및 교명문에 쓰는 글씨체와 크기 때문에 1676년[丙辰]과 1722년[壬寅]

의 도감 때를 예로 들어 대비전의 교명문을 봉심해서 체제대로 직조토록 하였다. 교명 1건의 직조는 상의원에서 하고 회장은 책례도감 3방에서 한다. ‘교명’ 전문 2자 제술관이 쓴 篆文을 내려 받은 후 상의원에 이송하여 직조한다. 특히 1744년 영조가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부터 교명은 안에서 내린 본(本)에 의해 제작되었고, 직조는 상의원에서 회장은 도감에서 수행하였다. 다만 도감의궤에서는 상의원의 능라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교명회장식 : 회장장과 다회장

상의원 소속의 능라장이 교명을 다 짜면 가례도감으로 보냈으며 도감에서 繪粧匠은 표구를 하였으며, 회장의 부속물이며 회장축의 끈으로 사용한 纓子是 오색실로 다회장이 제작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명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각각의 부속물은 능라장이나 회장장을 비롯한 여러 장인이 분업화된 제작방식에 의해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제작방식은 『국조속오례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19세기에 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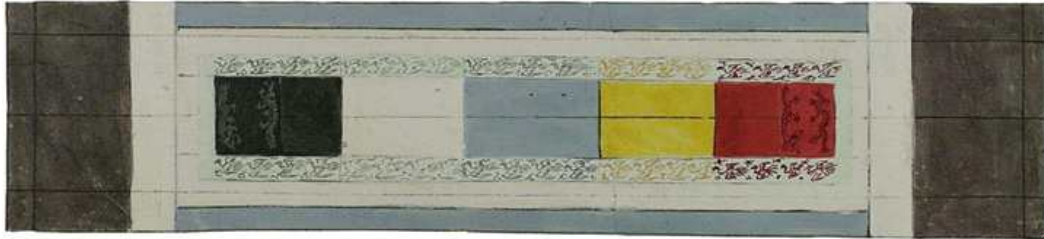
9면으로 제작하던 교명 회장축은 1727년의 가례 때부터는 달라지고 있었다. 교명회장은 총5면으로서 제1면은 중간에 교명 두 글자를 짰고, 그 양쪽은 홍색바탕에 승룡과 강룡을 직조하였으며, 제2면은 황색바탕, 제3면은 남색바탕, 제4면은 백색바탕, 제5면은 국혼날짜를 쓴 양변을 흑색바탕에 승룡과 강룡으로 직조하고 있었다. 교명회장을 5면으로 짜는 방식은 1744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교명은 안에서 내린 본(本)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제1면은 홍색바탕의 중앙에 교명 두 글자를 짜 넣고 승강룡을 새겨 짰으며, 제2면은 황색 바탕에 행서를 짰다. 제3면은 남색 바탕, 제4면은 백색 바탕, 제5면은 흑색 바탕에 승강룡을 직조하고 연월일의 글짜를 짜 넣고 璽寶를 찍었다. 175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762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승강룡을 직조하였으나 3조룡을 짰고 양끝 두 줄에 구름문양과 함께 칠보문양을 배치하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교명회장식에서 교명을 회장하는 장인은 繪粧匠이고 특별히 敎命匠이나 교명회장장 및 교명직조장이라고 불렀다. 회장장 金斗星[成]은 내수사나 상의원의 장인으로서 1694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왕비로 책례할 때부터 1702년 숙종과 인원왕후가 가례를 올릴 때까지 30년간 교명을 비롯한 회장에 핵심역량을 지니고 활동하였다.

1744년까지 교명회장장은 내수사의 장인들을 동원하였고, 1751년 의소세손에게 교명은 장인 孫守成을 교명직조장이었는데, 그는 1759년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도감에서도 직조장이었다. 당시 무늬를 도와준 解紋匠 金德喆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손수성은 직조장은 1784년 문효세자를 세자로 책봉할 때 김영휘가 활동하기도 했다.

4) 19세기 교명의 제작장인

교명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솜씨가 요구되어 상의원과 도감에서 분업적 협업으로 완성시켰다.



<‘교명’도식, 1800년,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례, 규장각>

(1) 교명 직조용 재료와 도구

상의원에서는 교명 1부를 짜는 데에는 여러 물품이 소용되었다. 이를 위해 상설아문에서는 필요한 재료와 제작도구를 마련했다.

1800년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경사를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 바디 위에 바르는 黃蜜 1냥, 그리고 직기 위에 끼워 넣을 뱀대용으로는 海長竹 50개와 도투마리를 밑 中竹 7개를 마련하였다. 참기름[眞油] 5홉은 바디살의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기 위해 바르던 것이다. 교명을 짜는 동안 직기의 앞뒤에 끼워 넣을 것으로 백휴지 10냥, 베틀에서 신나무와 끝신을 이을 쇠꼬리나 가로대와 눌림대를 고정시킬 눌림끈 및 부테허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줄바[條所] 2거리, ‘교명’전자나 용봉 문양을 본에 그려서 베틀의 아래쪽 바탕에 대줄 저주지(楮注紙) 1장이 준비되었다.

당시 상의원에서는 능라장을 비롯한 장인들이 사용했을 솟 2섬, 직조기 아래에 깔았던 빈 가마니 5넝, 앞에 펴는 油菴 1부, 땀 나무 1단, 모시베(苧布) 수건 1건, 흰 무명 마치[白木赤尔] 1건 등도 들였다. 상의원에서는 도감 1방에 교명의 뒷부분을 회장할 금의필단 1건을 짜서 도감 1방으로 보냈다. 금의필단을 짜기 위해 바탕 직조와 무늬를 넣는 씨실을 합쳐 오색용모사 각 3냥씩, 뒤쪽에 넣을 경사 감으로 백사 8냥, 테두리를 단단하게 짤 백사 1냥, 곡결이 감으로 백사 1냥, 바디 위를 매끈하게 해줄 황밀 1냥, 저주지 1장, 송진(松脂) 1냥, 참기름 5홉, 솟 5말, 땀나무 1단, 앞에 펴는 유둔 1부, 저포 수건 1건, 흰 무명 마치 1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상의원에서는 교명의 회장이 끝난 교명족자를 짜기 위해 필요한 각종 보자기용 명주를 염색해서 짰고, 부속재료들도 마련해 주었다. 안 짜개용 3폭 겹보자기 1건 감으로 홍화주 12자 6치를 짰고, 그 보자기의 가장자리를 꾸밀 紙金 1장을 만들었으며, 지금의 안쪽에 실을 잘라 넣을 草綠絨絲 2돈을 마련한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교명궤에 보자기로 짠 다음 묶을 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적정주

끈(紫的鼎絢纓子) 길이 4자, 너비 1치짜리 2편도 상의원에서 마련해 주어 도감 1방에서 제작하였다.



<교명 제1면 ; ‘교명’전자와 승강룡 및 비봉, 운보문 직조, 18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교명 제5면 ; ‘연월일’ 및 시명지보, 18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 교명 전자 서사관

19세기 교명의 기본 형식은 오른쪽부터 1면 홍색, 2면 황색, 3면, 남색, 4면 백색, 5면 흑색이다. 1면과 5면에는 솟구치거나 내려가는 용[陞降龍]이 직조되어 있다. 특히 1면의 승강룡 사이에는 ‘교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씨[篆字]는 전자서사관이 써서 상의원으로 보내면 이것을 짜 넣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거의 일치하는 교명 형식이다.

오색비단을 짜기 전에 도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명’전자를 쓸 寫字官과 교명문 製述官과 그것을 베껴 쓸 교명문 寫字官을 정하는 일이다. 1800년 책저도감에서 교명전자를 쓸 사자관은 행공조판서 洪億(1722~1809), 교명문 製述官은 실차는 판중추부사인 洪良浩(1724~1802), 예비[預差] 製述官은 행지돈령부사 李秉鼎(1742~1804), 교명문을 글씨로 옮길 사자관은 봉조하 李命植(1720~1800)으로 결정하였다.



(3) 교명직조식 : 상의원의 능라장

‘교명직조식’은 상의원에서 교명의 오색비단을 직조할 때 오색의 색상과 문양, 교명문 글자의 배치 부분 등을 지시하여 교명의 체제와 형식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19세기의 경우 1800년 책저도감의 도청에 소속된 서사관 홍억이 쓴 글자를 상의원으로 보내자, 상의원에서는 제1면 홍색 비단에 가장 먼저 배치할 위로 솟구치는 승룡은 옥색 바탕에 붉은 비늘 문양으로 짰고, 그 다음 교명전자의 본을 대고 ‘교명’ 두 글자는 황색 비단실로 짰으며, 그 다음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강룡은 승룡과 마찬가지로 색상으로 짰다.

‘교명’전자를 사이에 두고 승강룡을 배치하는 것은 제1면과 제5면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제2면 황색, 제3면 남색, 제4면 백색으로 짜면 된다. 오색면의 상하 테두리는 옥색 바탕이고 각 면마다 해당 색상으로 날아가는 봉황[飛鳳]이 각각 4마리씩 짜 넣은 것이 공통된다. 제1면 홍색 상하에는 홍색 봉황, 제2면 황색 바탕에 상하 테두리는 황색 봉황, 제3면 남색 바탕에 상하테두리는 남색 봉황, 제4면 백색 바탕에 상하테두리는 백색 봉황 4마리씩 짜 넣었다. 제5면의 바탕은 흑색이고, 위아래 테두리 바탕은 옥색으로 짰다. 흑색으로 날아가는 봉황을 각각 4마리를 짰다. 바탕의 비단에는 제1면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용과 내려가는 용 1쌍을 짜되, 옥색 바탕에 검은 비늘 문양을 하고 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 사이에는 1면과 달리 책봉 ‘연월일(年月日)’을 쓸 자리를 비워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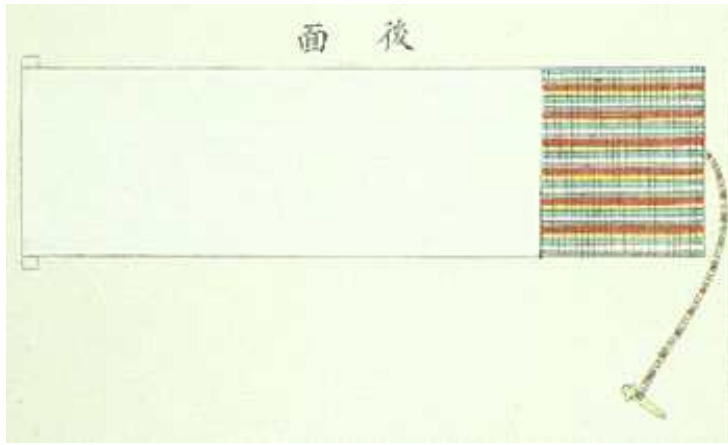
1800년 현존하는 교명 유물은 제1면을 시작하기 전 왼쪽 바탕에는 구름과 칠보문[雲寶文]을 붉은색으로 짰고, 쌍사에는 자적색으로 가늘게 선을 굵듯이 짰 雙絲를 엮볼 수 있다.

제1면의 홍색바탕에는 왼쪽부터 옥색에 붉은 비늘의 솟구치는 승룡, 금색으로 왕역이 쓴 ‘교명’전자, 옥색에 붉은 비늘로 내려가는 강룡을 직조하였다. 승강룡은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교명전자는 작은 편이다. 교명문은 홍양호가 짓고 이명식이 쓴 “왕약왈(王若曰)”로 시작되며 검은 먹으로 제1면부터 제5면까지 글자의 숫자에 맞춰 배열하여 썼다. 1800년의 경우 極行은 10자, 平行은 8자, 모두 40항으로 썼다. 제1면은 승강룡과 교명전자 및 6항을 썼고, 제2면부터 제4면까지 각면은 황색, 남색, 백색 바탕 위에 각각 9항을 썼으며, 마지막 제5면은 6항을 썼다. 제5면의 경우 승강룡 사이에 숙종대 이래로 중국연호가 생략된 ‘연월일’을 썼고, 그 위에 찍는 璽寶는 영조 때 사도세자 이후부터 ‘시명지보’를 눌러 찍었다. 1800년 교명에는 ‘경신이월일’이라고 순조왕세자 책봉일과 시명지보가 찍혀 있다.

| | | |
|--|--|--|
|  |  |  |
| <p>순조 왕세자 책봉교명, 1800, 어책 3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순조비 순원왕후 왕비 책봉교명, 1802, 어책31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효명세자 왕세자 책봉교명, 1812, 어책30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  |  |  |
| <p>헌종 왕세손 책봉교명, 1830, 어책 30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헌종비 효현왕후 왕비 책봉교명, 1837, 어책32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p>고종비 명성황후 왕비 책봉교명, 1866, 어책32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p> |

(4) 교명회장식 : 도감 1방의 교명 회장

‘교명회장식’은 도감 1방에서 교명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하는 체제로서 다른 것들을 ‘장황’으로 부르는 대신, 왕실문서 중 최상위에 해당되기 때문인지, 신하들에게 반사하는 교지 등과 차별화하여 ‘回粧’이라는 왕실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명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 위해 상하좌우를 회장하는 데 사용하는 비단과 비단 뒷면에 배접하는 물품의 종류와 색상 및 크기 등을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회장에 필요한 각종 비단직물은 상의원에서 직조했으며, 그밖에 비단 뒷면을 배접할 종이나 황축이나 변죽, 마개용 옥이나 금속제 침자나 거멸못 등은 호조·내섬시·의영고·사재감·제용감·내의원·장흥고·공조·선공감 등 여러 상설아문에서 마련하여 도감 1방으로 보냈다.



<교명후면도>, 책저도감의궤, 1830, 장서각 소장(k2-2724)



<순조왕세자 책봉 교명 후수단, 18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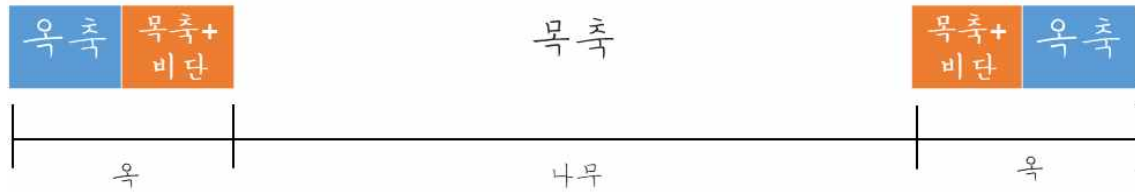
가. 교명의 회장 체제

‘교명회장식’에 의하면 교명은 두루마리[卷子本] 형식으로 되어 있다. 회장은 오색 비단 위에 쓴 교명문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해 상하좌우를 배첩하고 꾸미는 일이다.

1800년 교명은 상의원에서 중앙 부분에 ‘교명’전자를 배치하고 그 좌우를 승강통으로 짚고, 가장자리 쌍사는 자적색의 얇은 선으로 구획하여 짚으며, 그 주위를 액자형으로 빙두르되 상하는 봉황 40마리를 배치하여 짚고, 그 좌우 측면은 운보문을 배치하여 짚으며 안 길이 6자 2치 3푼에 나비 1자 3치였다. 이것을 책저도감으로 들여 1방에서는 회장의 전체 길이 10자 4치 8푼으로 만들어 실제 유물은 292.3cm이고, 나비 1자 3치 5푼으로 만들어 실제 유물은 4.5cm였다. 두루마리의 가장 마지막 끝 부분을 마감하는 옥축의 위아래 마개[玉軸莫只]는 각 길이가 3치 5푼, 둘레가 3치 5푼, 위아래 출두(出頭)가 각 5푼으로 만들어 실제 유물은 길이 37.2cm이고, 지름은 3.1cm이다. 현존하는 실제 교명 유물의 경우 길이와 나비가 조금씩 달라 1736년 사도세자의 책봉교명 유물은 313.0×35.0cm여서 1800년의 것과 차이가 있다. 책봉 때마다 제작된 교명 중 현존하는 유물의 크기는 약간씩 달라 그때그때 별도의 본에 의해 유일본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교명의 좌우에는 넉넉한 길이의 비단이 연결되어 있다. 두루마리 형태인 교명문이 횡축과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두루마리의 겉을 말라 교명의 표지 역할을 한다. 교명의 오른쪽과 왼쪽 끝에는 아청운문단을 사용하였다. 그 안쪽에 위치한 곳에는 백운문단으로 장식한다. 교명문의 상하에는 좁고 긴 형태의 남운문단을 사용하여 회장한다.

1800년 순조 왕세자 책봉 때 교명을 회장하기 위해 상의원에서 도감으로 보낸 바탕감은 ‘錦衣匹緞’이라고 불렀다.



<권자본 축의 형태>

먼저 바탕천의 좌우 테두리는 아청운문단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길이 1자 3치 5푼, 나비 1자 9치 5푼짜리 한 편이다. 사이에 끼울 백운문단은 길이 1자 3치 5푼, 나비짜리 1편이고, 사이에 끼울 백운문단은 길이 1자 3치 5푼, 나비 4치 5푼짜리 1편이다.

앞면 중 상하의 가장 마지막 끝 부분[邊兒]을 회장하는데 사용하는 비단은 남은 문단이다. 비교적 밝은 남색으로 되어 있으며 나비 5자 9치 3푼, 길이 5푼짜리 1편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 붙이고 약간 여유를 두어 뒤로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이 1치 5푼이므로 이것을 합하면 길이는 2치로 여유 있게 배접해야 한다.

교명의 뒷면에는 종이를 대고 그 위에 2종류의 비단으로 배접한다. 회장의 뒷면에 사용한 종이는 蟬翼紙 2권과 煙窓紙 4장이며, 나비 10자 4치 8푼, 길이 1자 3치 5푼에 해당된다. 한편 교명의 뒤쪽을 배접할 비단은 白熟絹였으며, 길이 1자 3치 5푼, 나비 7자 9치 8푼짜리 1편이다. 뒷면의 회장을 보면 두루마리의 뒷면에 대한 도식과 현존하는 1800년 <순조왕세자 책봉 교명 금의필단>을 비교할 수 있다. 교명후면도를 보면 제1면의 뒤쪽에 바를 비단과 금의필단이 그려져 있으며, 당시 금의필단은 나비 2자 5치이다. 이 부분은 조선 후기에 후수(後綬)를 짜는 것처럼 짜기 때문에 ‘後綬緞’이라고도 부르지만, 1800년에는 금의필단으로 부르고 있다. 금의필단의 제작방식은 베틀 위에 광다회를 직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실과 씨실을 평직으로 교차해서 짜는 평조직이다. 곧 날실과 씨실의 굵기에 차이를 두어 날실은 가늘고 얇은 오색실을 순차적으로 걸고 씨실을 그보다 굵은 실을 사용해서 작업하여, 오색날실이 표면에 나타나는 경조직[warp faced woven]에 해당된다. 1800년에 제작된 금의필단은 오색 날실이 황색, 녹색, 적색, 남색, 흑색이 교차하는 광다회 형식으로 직조되어 있어, 1736년 사도세자의 교명 유물이 주황 바탕에 운룡문단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렇게 금의필단을 사용한 것은 영조가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하고 『국훈정례』를 발간한 1744년에 거행된 사도세자와 헌경왕후의 왕세자빈 책봉 교명유물부터였다. 때문에 이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무늬비단[紋緞] 대신 국내산 비단[鄉職]을 사용하여 사치를 금지하고 절검을 실천하려 했던 영조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사도세자의 책봉 교명을 비롯한 금의필단의 오색은 황색, 녹색, 적색, 남색, 흑색을 교대로 반복시켜 직조한 것이며, 이것은 이후의 교명 유물 뿐 아

나라 1800년의 것에서도 일치한다.

1800년 교명을 회장할 때 교명 두루마리를 시작하는 오른쪽 시작 면은 변죽목이라 부르고, 두루마리를 마감하는 왼쪽 끝면은 횡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오른쪽 변죽목과 왼쪽 횡축의 재료는 둘 다 추목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러한 목재들은 부속품이어서 상의원 등 상설아문에 소장된 것 중에서 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졌는데, 간혹 오동이나 산유자나무 등을 사용한 기록도 있다. 당시 변죽목은 길이 1자 3치, 너비 5푼, 두께 3푼짜리 1편을 사용하여 반달형의 삼각으로 축을 만들었다. 현존하는 초상화 족자의 경우 위쪽 부분을 반달형 삼각으로 처리하는데 두루마리의 시작 면을 제작하는 형식이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

두루마리를 마감하는 횡축은 사방 2치, 길이 1자짜리 1편을 들였는데, 변죽목보다 짧고 둥근 형태로 만들되 비단으로 감싸고 그 가장자리 끝을 옥으로 마감하여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나무로 축을 만들어 넣은 부분은 보이지 않게 두루마리 안으로 넣고 위아래에 짧게 옥을 낸 다음 바깥을 비단으로 감싸 보이지 않게 처리하여 끝 부분만 보이도록 꾸미는 것이다. 횡축의 위아래는 ‘옥축마개(莫只玉軸)’로 막는데 상하 2개이고, 각각 길이 3치 5푼, 너비 3치 5푼이다. 이렇게 막은 다음 옥 부분이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분을 출두(出頭)하 부르며 이것은 각 5푼이다. 오색비단을 짜고 비단으로 전후좌우를 회장하고 뒷면에 금의필단을 배첩한 교명의 중요성은 그것의 위아래를 옥으로 막아 마감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옥은 전통시대에 최상위 계층이 금은보다 선호한 보석으로서, 일례로 왕실에서는 옥으로 만든 옥관자가 금관자보다 높았던 것에서 확인된다. 옥마개에 사용할 옥은 전통적으로 남양의 옥으로 지름 6푼짜리를 사용하였다.

1800년 순조의 세자교명에는 오색다회(多繪)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회는 다른 의궤에서는 帶子나 纓子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현재 광다회를 짜는 기술에 해당된다. 두석침자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나. 교명 회장 장인

19세기 이전 교명의 회장은 교명회장장이나 회장장이라는 장인들이 작업했으나, 1800년 회장을 위해 병풍장 林遇春이 동원되었다. 임우춘은 영조대에는 내수사에 소속되었다가 정조대부터는 관청에 소속되지 않고 왕실에서 필요할 때만 차출되어 활동하던 장인이었다. 그는 당시 병풍장으로 활동하던 임씨 가문의 林世萬(1705~1736)이나 林世煥(1730~1744) 등과 함께 전업적인 장인 가문을 형성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는 가장 오랜 1751년부터 1805년까지 54년간 활동하며 가장 우수한 장인이었다. 당대 최고화가였던 이명기가 그린 초상화에 장황을 했던 작품이 현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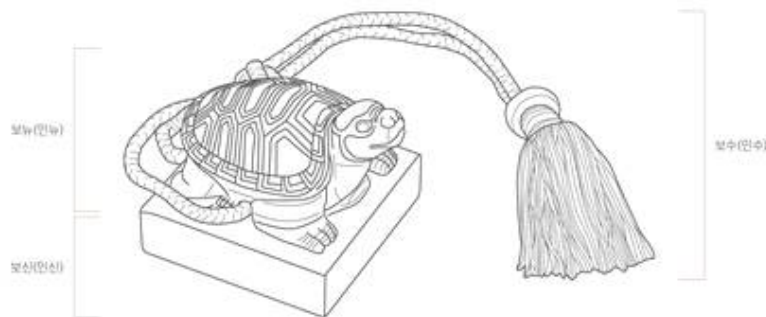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어책-교명, 죽책, 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김경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의 교명 상황」, 『고궁문화』 2, 국립고궁박물관, 2008.
- 김문식, 「조선시대 어책의 현황과 특징」,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박윤미, 「17~20세기의 어책 상황 직물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손계영, 「교명의 형태연구」, 『장서각』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장경희,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연구 : 17~18世紀 玉匠과 刻手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미술사연구회, 2001.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국혼과 연향용 공예품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제작한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3.
- 장을연, 「청대 조선왕실 책봉교명과 조선 교명의 형태 비교연구」,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정다슬, 「조선 후기 옥책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0.

IV. 직물

1. 어보의 직물

- 조선의 어보(御寶)는 왕권과 왕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존호를 올릴 때 사용하는 의례용과 실제로 사용하는 행정용이 있는데, 행정용은 국새(國璽)라고도 불리었다.
- 조선시대의 의례용 어보는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어 왔으며 보물지정 대상은 총 319과이다.
-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만큼 금이나 옥 등으로 만들고 용이나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에 아름다운 영자(纓子)를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그림 1>



<그림 1> 어보의 구조: 『어보의 과학적 분석』 I, p.8

1) 어보 장식의 명칭

- 각 의례에는 어보의 장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영자(纓子)’, ‘보영자(寶纓子)’, ‘대영자(大纓子)’, ‘방영자(方纓子)’, ‘관영자(貫纓子)’, ‘인수(印綬)’, ‘보수(寶綬)’ 등으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영자’이다.
- ‘방영자(方纓子)’는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1690)¹⁶⁰⁾의 기록이 유일하며, ‘보영자(寶纓子)’는 총 110권의 의궤 가운데 5권, ‘대영자(大纓子)’는 『인목왕후존숭의궤』¹⁶¹⁾부터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¹⁶²⁾까지 21권에 적혀있다.
- ‘관영자(貫纓子)’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¹⁶³⁾ 등 7권에 ‘대영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관영자는 일반적인 품목으로 소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대영자는 품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때에 사용되었다.

160)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1690), “金寶一顆 紅眞糸多繪方纓子具”.

161) 『인목왕후존숭의궤』(1624), “玉寶一顆方四寸三分二里厚一寸二分龜高二寸五分龜頭一寸四分 裘縵袱一件有紋紅緞 大纓子一件紅眞絲 紅紬纓子二件”.

162)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1882), “玉印【多會方兀蘇兀大纓子貫龜穴結之】”.

16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1759), “金寶一顆 貫纓子一件裘縵袱一件結纓子二件 (중략) 玉印一顆所入 【方三寸五分絃五分高一寸二分龜高二寸一分龜頭一寸一分用禮器尺造 成畢刻後以眞紅絲多繪方兀流蘇大纓子一箇貫龜穴結之】”.

- ‘인수(印綬)’는 의궤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용어인데, 『국조오례의』¹⁶⁴⁾, 『조선왕조실록』¹⁶⁵⁾, 『세종실록오례의』¹⁶⁶⁾, 『일성록』¹⁶⁷⁾, 『승정원일기』¹⁶⁸⁾, 그리고 여러 의궤에는 주로 보인(寶印)과 장식용 영자를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보수(寶綬)’¹⁶⁹⁾도 인수(印綬)와 같이 보인과 영자를 함께 부르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보개조도감의궤』¹⁷⁰⁾에는 寶綬의 소재로 ‘紅眞絲多繪’로 기록하여 ‘寶綬’는 보인과 영자를 통틀어서 일컫는 명칭이며 장식부분에 대해서는 ‘多繪’로 명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 이상의 용어를 정리해보면 어보에 달리는 장식은 ‘纓子’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장식을 구성하는 끈목[多繪]와 장식의 주요부분인 술과 조사되었다. <그림 2>는 『보인소의궤』에서 國王之印에 관한 도설과 원문으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王之印【銀鍍黃金鈕龍頭龜身】…

纓子一件

以紅絨冒絲作圓多繪槩入紅鄉絲長三尺五寸圓圍八分【用布帛尺】以其一端貫龜穴兩端俱上至龜背合以每緝其末又盛方兀蘇兀【入紙金】

홍용모사(紅絨冒絲)로 동다회를 만들고 속심으로 홍향사를 넣었다. 길이는 3자5치, 둘레는 5푼이다. 【포백척을 적용했다】. 끈의 한쪽 끝을 귀혈(龜穴)에 꿰어 넣은 다음 두 쪽 끝을 모두 위로하여 거북이 등에 이르면 합하여 매듭을 지었다. 그 맨 끝에는 방울과 술(蘇兀)을 달았다 【금전지를 넣었다】.



<그림 2> 보인소의궤(왼쪽:도설, 오른쪽:원문)

164) 『國朝五禮儀』(1474), “「嘉禮」‘冊王世子儀’禮曹正郎, 捧敎命·冊·函·印綬, 各置於案”.

165) 『朝鮮王朝實錄』(1432), “左中護引就勤政門外次坐, 有司奉冊·函·印綬, 各置於案上”.

166) 『世宗實錄五禮儀』「嘉禮儀式」‘冊王世子儀’禮曹正郎, 奉敎命·冊·函·印綬, 各置於案”.

167) 『日省錄』, 정조24년(1800) 2월 2일 “捧敎命·冊·印官, 各捧敎命·竹冊·印綬, 同置於案”.

168) 『承政院日記』정조7년(1783) 1월 11일: “印綬, 多紅紬絲多繪”, “寶綬八件【紅眞絲多繪】”.

169) 『大韓禮典』卷9「嘉禮」‘皇太子納妃儀’掌禮院主事, 捧制命·函·冊函·印綬及冠服函, 各置於案”.

170) 『金寶改造都監儀軌』(1705), 金寶改造都監一房附錄‘本房所掌’“寶綬八件【紅眞絲多繪】”.

2) 영자의 구조

- 조선시대 의궤 중 보인(寶印)이 기록된 의궤에는 소재의 크기와 양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보 손잡이에 다회를 끼우고 영자를 다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에 달린 영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궤에 다회, ‘방울[方兀]’, 그리고 술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방울부분을 ‘방울머리’와 ‘방울기둥’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의궤의 도설에 묘사된 영자와 본문의 내용이나 실물과 다소 다르게 그려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1680)의 시보(謚寶) 도설<Fig. 4>에는 다회의 양끝에 방울술이 각각 한 개씩 달려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물 유물<Fig. 5>은 방울술이 한 개 달려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 의궤에 기록된 영자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의인왕후인목왕후존숭도감의궤』에는 영자의 길이가 포백척으로 1척이라고 하였는데¹⁷¹⁾ 이후의 의궤에는 주로 2척으로 명시되었다. 1690년의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에 길이가 3척5촌으로 명시되는데 이후 2척과 3척5촌이 함께 명시되다가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1747)에서부터는 대부분 3척5촌으로 기록되었다.



<그림 3> 어보 영자의 구조



<그림 4> 시보 도설



<그림 5>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3) 어보 영자의 특성과 변천

(1) 다회(多繪)







- 조선시대 의궤에는 어보제작에 필요한 각 재료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영자에 사용된 끈목은 ‘동다회(童多繪, 同多繪)’ 혹은 ‘원다회(圓多繪)’로 기록하고 있다. ‘다회는 끈목의 옛말이며, 동다회는 다회 가운데 표면이 둥근 형태의 끈목(丸組)으로 동다회(童多繪, 同多繪, 東多繪) 또는 원다회(圓多繪)라고 표기

171) 宣祖懿仁王后仁穆王后尊崇都監儀軌 (1604), “大殿玉寶一顆。【方四寸六分五厘, 厚一寸三分。龜高二寸三分, 龜頭長一寸五分, 已上用禮器尺。紅真絲纓子長一尺。甲合二尺。綬兒五寸。裏有紋紅段襦袢一尺一寸, 方紫的纓子二尺, 已上用布帛尺。】”

하기도 한다. 同/童/東은 ‘동’의 음가자로, ‘동고리다(圈了)의 ’동‘이며, ‘둥글다’는 뜻의 동을 ‘圓’으로 한자화하여 ‘圓多繪’로도 표기하였다.¹⁷²⁾ 의궤에는 일부 童多繪, 東多繪, 同多繪로 기록되어 있으나 ‘多繪’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圓多繪’이다. 그리고 다회 외에도 ‘수아(綬兒)’가 끈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둥근 동다회를 짤 때에는 안에 심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굵은 다회를 짤수록 가운데에 심을 넣어 다회가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했다. 의궤에는 다회의 겉실로는 홍진사(紅眞絲)나 홍융모사(紅絨冒絲, 紅絨帽絲)를 사용하고 속심은 홍향사(紅鄉絲)나 홍면사(紅綿絲)를 쓴다고 하였다.
- 실물 어보 영자의 다회는 모두 심을 넣고 짠 홍색의 동다회이다. 다회의 심은 주로 홍색으로 넣었는데 이 주로 조사되었는데 1850년 이후에는 백색심의 사용이 증가했다.
- 다회는 짤 때 사용하는 실의 올수에 따라 8사, 12사, 16사 등으로 표현한다. 어보의 다회는 초기에는 주로 16사로 짤으며 후기로 갈수록 24사의 사용이 늘며 1850년 이후에는 일부 32사도 있다.<그림 6>
- 의궤에는 조선후기에 영자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진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유물의 길이는 시대별로 일정하지 않아 의궤의 내용과는 다르다.

<표 1> 다회 조직

| | 다회 종류 | | |
|-------|---|---|---|
| | 16사 | 24사 | 32사 |
| 다회 확대 |  |  |  |
| 조직 |  <p>실배열 (Yarn Arrangement)</p> <p>조직 (Structure)</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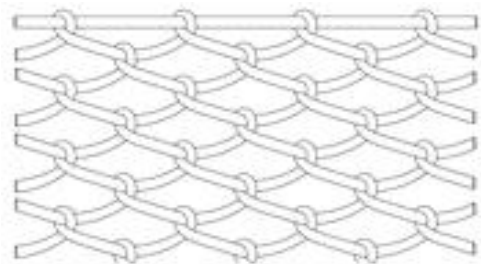
172) 오창명, 「의궤에 나타나는 借字 표기 연구(1)」, 『한국복식』 15, 1997, pp.43~44.

(2) 방울

- 방울은 의궤에 ‘方兀’로 표기되어 있다.
- 방울은 머리와 기둥부분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1800년대 중기에는 기둥부분이 없어지면서 방울머리가 술과 바로 연결된다.
- 방울머리는 속틀 위에 금전지를 바르고 별도로 짠 망(網)을 위에 씌우는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망은 전 시대에 걸쳐 ◇ 형태가 되도록 엮었는데<그림 6>, 1800년대 이후에는 망 사이의 간격이 넓어 사선의 무늬가 뚜렷이 나타난다.
- 1900년대부터 방울 위에 금사와 각종 색사로 만든 가락지매듭을 끼운다.
- 방울과 술은 같은 색으로 제작하는데 1919년의 고종옥보는 방울은 홍색이며 다회와 술은 보라색으로 다른 색상으로 조합하여 만들었다. 1928년에 제작된 순종비 옥보는 다회와 술은 자주색인데 작은 방울머리가 달려있고 청록색과 황색의 가락지매듭이 끼워있다.
- 어보의 영자는 도래매듭을 1~2회 맺고 다회의 양 끝은 함께 모아 방울술을 부착하므로 각 어보마다 한 개의 방울술이 달려있다. 그런데 1830년부터 1835년에는 방울술이 다회의 양 끝에 한 개씩 달리는 영자가 등장하는데 1830년에 제작된 문조옥인과 현종옥인, 그리고 1835년의 순조금보, 문조금보의 4과가 2개의 방울술이 달리는 독특한 구조의 영자이다.

(3) 술

- 어보 영자의 술은 다회와 방울과 동일한 홍색 견사로 제작하였다. 술의 올 수는 대략 300올 이상 많이 넣어 풍성하게 보이도록 했는데 일부는 500올 이상 넣은 것도 있다.
- 술의 꼬임방향은 전 시대에 걸쳐 오른쪽의 우연(右撚)으로 동일하나 1850년대부터 술 끝에 동그란 구멍이 있는 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그림 7>



<그림 6> 망의 구조



(구멍 없는 술)

(구멍 있는 술)

<그림 7> 술 종류

(4) 속틀

- 어보에 사용된 영자는 동다회에 방울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방울술은 미리 제작해 놓은 속틀 위에 금전지를 붙이고 망을 씌운 후, 아래에 술을 달아 완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속틀은 방울머리와 방울기둥, 그리고 술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8> 쉽게 변형되지 않도록 단단한 소재로 만들었다.



<그림 8> 속틀 구조

- 속틀 소재는 크게 한지와 나무의 2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는 한지틀을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나무로 만든 목각틀을 사용하였다.
- 한지틀은 한지로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여러 겹 덧붙이면서 만드는데 한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실과 한지를 교대로 겹쳐서 만든 것도 있다. 한지틀은 1800년대 중순경까지 사용되었다.
- 실물조사한 어보 영자 가운데 술 안쪽에 한지틀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기법<그림 8>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1유형은 별도의 술받침을 만들어 부착한 후 동다회 겹실로 묶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제2유형은 술받침의 가운데에서 동다회를 구멍보다 크게 묶어서 술받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3유형은 술받침을 2단으로 끼우는 방법으로 술받침 아래에 작은 술받침을 더 끼워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제4유형은 술받침을 2단으로 하되 첫 번째 술받침에 망을 씌우는 기법이다. 제5유형은 술받침의 겉을 명주나 색지로 덧바르는 방식이다.
- 1800년대 중순경부터는 목각틀이 나타난다. 이 당시는 술기둥이 없어진 시기로 술머리 아래에 술이 부착되는 형식으로 제작되던 때이다. 그러므로 목각틀은 방울머리와 술받침의 형태로만 깎았다. 나무를 깎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에 붉은색으로 칠한 것도 있다.<그림 9>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그림 9> 한지tul 종류

(5) 목각틀

- 어보의 영자에 목각틀이 사용된 것은 1800년대 중순경의 유물에서 조사할 수 있었다. 이 당시는 술기둥이 없어진 시기로 술머리 아래에 술이 부착되는 형식으로 제작되던 때이다. 그러므로 목각틀은 방울머리와 술받침의 형태로만 깎았다. 나무로 깎은 방울머리 위에는 금전지를 붙이고 그 위에 망을 씌웠고, 술받침은 백골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거나(제6유형) 혹은 붉은색의 안료를 칠하기도 했다.(제7유형)



제6유형



제7유형

<그림 10> 목각틀 종류

- 이상과 같이 어보 영자는 시대에 따라 세부 형태에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왕과 왕비, 왕세자 등의 신분에는 차등이 없이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는 보물 지정을 위해 실물 조사한 10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어보 영자의 특성

| 연번 | 명칭 | 유물번호 | 제작년대 | 사진 | | |
|----|--------------------------|---------|------|---|--|---|
| | | | | 전체 | 방울·술 부분 | 속틀 |
| 1 | 세종 상시호 금보 | 종묘13559 | 1450 |  |  |  |
| 2 | 세조비 정희왕후 상존호 옥보 | 종묘13565 | 1457 |  |  |  |

| 연번 | 명칭 | 유물번호 | 제작년대 | 사진 | | |
|----|----------------------------|---------|------|---|--|---|
| | | | | 전체 | 망울·술 부분 | 속들 |
| 3 | 선조 가상존호 옥보 | 종묘13587 | 1604 |  |  |  |
| 4 | 선조비의인왕후 상휘호 옥보 | 종묘13593 | 1610 |  |  |  |
| 5 |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 고대2214 | 1676 |  |  |  |
| 6 | 숙종 상시호 금보 | 종묘13618 | 1720 |  |  | |
| 7 | 정조비 효의왕후 봉왕세손빈 은인 | 종묘13726 | 1762 |  | | |
| 8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종묘13662 | 1772 |  | | |
| 9 | 문조 상시호 옥인 | 종묘13760 | 1830 |  | | |
| 10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종묘13741 | 1862 |  | | |

4)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시대의 어보는 왕권과 왕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장으로 손잡이에 아름다운 영자를 장식하여 화려함과 장엄함을 극대화하였다.
- 어보의 영자는 어보와 함께 제작되므로 제작 시기가 분명한 유물이며 대체로 제작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어보의 영자는 시대에 따라 세부적인 형태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어보 손잡이에 영자를 다는 구조는 대부분 일치했으며, 왕이나 왕비, 왕세자 등의 신분에는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 어보 영자와 같은 장식은 어보뿐만 아니라 조대(組帶)와 초상화의 유소, 호패

(號牌), 각종 함(函)의 열쇠 장식 등 다양한 품목에 사용된 장식물이었다. 그러므로 어보 영자의 시대별 특성변화는 조선시대의 유사 품목의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편년 자료가 될 수 있다.

- 어보 영자는 매우 정교하게 만든 전통 공예품으로 우리나라를 수준 높은 기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식품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에 유사한 장식품은 있으나 조선시대 어보 영자의 세밀함과 뛰어난 조형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재이다.

□ 참고문헌

- 『金寶改造都監儀軌』, 1705.
- 『선조의인왕후인목왕후존숭도감의궤』, 1604.
-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 1882.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1759.
- 『인목왕후존숭의궤』, 1624.
-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 1690.
- 『國朝五禮儀』, 1474.
- 『大韓禮典』.
- 『世宗實錄五禮儀』.
- 오창명, 「의궤」에 나타나는 借字 표기 연구(1)」, 『한국복식』 15, 1997.

2. 어책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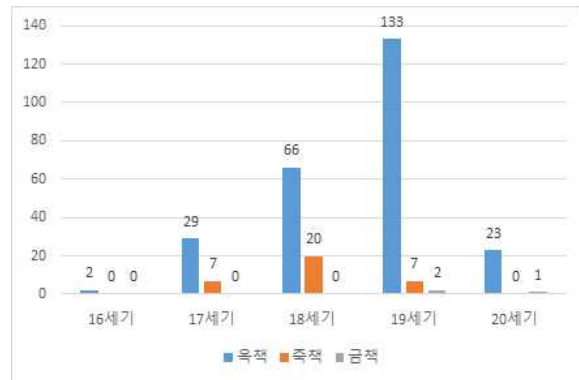
1) 어책의 구조 및 상황

- 조선시대의 어책(御冊)은 받는 대상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금책(金冊)으로 구분된다. 옥책(玉冊)은 왕비를 책봉하거나 왕과 왕비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휘호(徽號)를 올릴 때 그 내용을 옥간에 새겨 첩(帖)으로 만든 것으로 대개 주인공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죽책은 왕세자(王世子)와 왕세자빈(王世子嬪)을 책봉하거나 존호(尊號)나 시호 등을 수여할 때에 그에 관한 글을 죽간에 새겨 첩으로 엮었으며, 금책은 황후나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금동판에 내용을 새겼다.
- 지정 대상이 되는 어책은 총 290책으로 옥책 253책과 죽책 34책, 1897년 이후 대한제국기의 금책 3책이다(표 1, 그림 1). 옥책은 1545년(명종 원년) 인종 상시호 옥책과 옥책편이 전해지며, 이후 시대가 내려올수록 많이 제작되어 19세기에는 133책이나 제작하였다. 20세기의 경우 1908년까지 23책이 제작되었으므로

이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전해지는 죽책 유물은 가장 이른 시기가 1649년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이고 하한선이 1882년 순종비 순명효황후 왕세자빈책봉 죽책이므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제작된 죽책이 남아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금책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신분이 격상되어 옥책 대신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 | 옥책 | 죽책 | 금책 | 합계 |
|------|-----|----|----|-----|
| 16세기 | 2 | - | - | 2 |
| 17세기 | 29 | 7 | - | 36 |
| 18세기 | 66 | 20 | - | 86 |
| 19세기 | 133 | 7 | 2 | 142 |
| 20세기 | 23 | - | 1 | 24 |
| 총수량 | 253 | 34 | 3 | 290 |

<표 1> 세기별 어책의 종류와 수량



<그림 1> 세기별 어책 종류의 추이

- 어책은 왕실의례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옥책, 죽책, 금책 모두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1681년(숙종 7) 『정종시호도감도청의궤』에는 왕의 10첩 옥책과 왕비의 8첩 옥책을 만드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남양청옥으로 만든 옥간 5간(簡)을 모아 진홍색 비단실[紅眞絲]로 한 첩으로 묶고, 위와 아래 끝부분을 다홍색 금선단[多紅錦線段]으로 꾸민 후 도금한 구리를 가장자리에 두르고 둥근 고리로 첩을 연결하여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바깥 면에도 다홍색 금선단[多紅錦線段]을 입혔다.¹⁷³⁾
- 옥책 또는 죽책 유물의 구조(그림 2)를 보면 의궤의 기록과 일치하며, 직물은 크게 두 군데에 사용되었다. 첫째는 옥간이나 죽간을 하나의 첩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하로 변철을 고정할 때 변철의 안쪽에 직물을 먼저 감싸준 회장(繪粧, 回粧) 부분이고(그림 3), 둘째는 어책의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바깥쪽 겉면 전체를 직물로 씌운 의(衣) 부분이다(그림 4, 그림 5). 이렇게 장황을 함으로써 어책을 접어서 보관할 때 위아래면과 앞뒷면이 모두 비단으로 마감되었다. 또한 첩과 첩 사이에는 격유보[隔襦褙]를 끼워서 어책을 소중하게 보관하였다.

173) 『定宗諡號都監都廳儀軌』 甘結秩. “大王玉冊十貼一件 王后玉冊八貼一件 … 以五簡爲一貼 … 以紅眞絲 結貼 上下頭粧 以多紅錦線段 以銅鍍金爲編鐵兩頭邊 皆有圓環連貼成冊 初貼終貼外面以多紅錦線段衣之”



<그림 2> 옥책의 각 부분 명칭 : 유지은, 2012, p.27.



<그림 3> 위와 아래의 회장(繪粧,回粧)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1649년, 종묘13481



<그림 4> 겉면의 의(衣)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그림 5> 어책의 장황
『진종추존시의궤』, 1908년

2) 어책 장황 직물의 특성과 시대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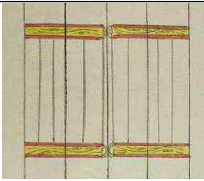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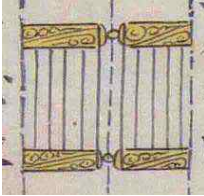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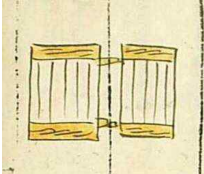
(1) 의궤에 기록된 장황 직물의 종류와 변천

- 어책의 장황에 사용된 직물을 의궤(儀軌)로부터 확인해보면 다홍금선(多紅錦線), 대홍금선(大紅錦線), 홍금선(紅錦線), 다홍금선단(多紅錦線段), 홍금선단(紅錦線段), 홍금단(紅錦段), 다홍운문단(多紅雲紋緞), 다홍운문대단(多紅雲紋大緞), 진홍운문단(眞紅雲紋緞), 홍도류단(紅桃柳緞), 홍운문단(紅雲紋緞), 진홍공단(眞紅公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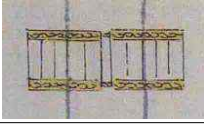









紅貢緞), 홍공단(紅貢緞), 홍성화단(紅盛禾緞), 홍영초단(紅寧綃緞), 홍한단(紅漢緞), 홍광직(紅廣織), 홍광직장(紅廣織粧), 홍수주(紅水紬), 홍숙초(紅熟綃)까지 약 20종이 기록되어 있다.¹⁷⁴⁾ 색은 홍색이 가장 많으며, 다홍, 대홍, 진홍 역시 홍색 계열로 명도와 채도의 차이는 다소 있다하더라도 붉은색 비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단의 종류로는 금선 혹은 금선단, 단, 대단, 공단, 화단, 한단, 광직, 광직장단, 수주, 숙초 등이 쓰여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장황 직물을 살펴보기 위해 시호나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한 옥책에 사용한 직물을 비교해보았다. <표 2>를 보면 17세기와 18세기 전반까지의 의례에서는 다홍색 바탕에 금실을 넣어서 화려하게 무늬를 표현한 금선단을 사용하였고, 색상은 여전히 홍색 계열이지만 1755년(영조 31) 『숙종존숭도감의례』부터는 금실 없이 구름무늬를 넣은 운문단, 혹은 무늬마저 없는 공단, 광적으로 바뀌었다. 옥책에 금선단을 사용한 시기인 18세기 전반까지는 옥책의 장황에 사용된 직물이 동일하고 옥책 사이에 끼워 넣은 격유보는 덜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즉 옥책의 위와 아래 끝부분[上下頭]과 시작과 끝 첩의 겉면[外面]에는 금선단을 사용하고 격유보에는 금실 없이 무늬만 있는 단[有紋緞]을 사용하였다. 이후 18세기 중엽부터는 소박한 직물이 사용되면서 눈에 보이는 겉면과 격유보에 구름무늬가 있는 운문단을 쓰고 변철로 인해 노출이 덜 되는 위와 아래부분은 무늬가 없는 공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2> 의례에 기록된 옥책의 위치별 직물의 종류

| 의례명 | 제작시기 | 도설 | 위와 아래 [上下頭] | 겉면 [外面] | 격유보 (隔襦袂) |
|----------------|-------|---|----------------|------------------------|--------------------------|
| 정종시호 도감도청의례 | 1681년 |  | 上下頭粧 以多紅錦線段 | 初貼終貼外面 以多紅錦線段 衣之 | 一玉冊隔襦袂十六件 每件多紅有紋段 |
| 숙종존숭 도감의례 | 1713년 |  | 上下頭粧 以多紅錦線 | 初終貼外面 皆以多紅錦線 衣之 | 隔襦袂三十八件內 ... 每件多紅雲紋大段 |
| 효종가상시호 도감의례 | 1740년 |  | 上下頭粧 以多紅錦線 | 初終貼外面 以多紅錦線 衣之 | 一玉冊隔襦袂十六件 每件多紅有紋段 |

174) 국립고궁박물관(2017), 『조선왕조의 옥책 5』, p. 247.

| 의궤명 | 제작시기 | 도설 | 위와 아래 [上下頭] | 겉면 [外面] | 격유보 (隔襦袂) |
|----------------|-------|---|---------------------|------------------------|---------------------------------------|
| 숙종존숭 도감의궤 | 1755년 |  | 上下頭 以多紅雲紋大緞 粧 | 初終貼外面 以多紅雲紋大緞 衣之 | 隔襦袂三件 每件所入 多紅廣的從實入次 |
| 헌종상호 도감의궤 | 1853년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 隔襦袂五十七件 內外俱用紅雲紋緞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
| 순조추상존호 도감의궤 | 1857년 |  | 上下 以紅廣的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廣的爲衣 | 隔襦袂十一件 內外俱用紅廣的 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 순조추상존호 도감의궤 | 1858년 |  | 上下 以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 隔襦袂二十六件 內外俱用紅雲紋緞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 순조추상존호 도감의궤 | 1862년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 隔襦袂二十六件 內外俱用紅雲紋緞 |
| 철종상존호 도감의궤 | 1863년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 隔襦袂二十六件 內外俱用紅雲紋緞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
| 문조상존호 도감의궤 | 1875년 |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 隔襦袂十八件 內外俱用紅方紗紬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
| 영조묘호 도감의궤 | 1890년 |  | 上下 以紅廣的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廣的爲衣 | 隔襦袂九件 內外俱用紅廣的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
| 영조묘호 도감의궤 | 1890년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雲紋緞爲衣 | 隔襦袂二十七件 內外俱用紅方紗紬 槩入去核錦花 長廣從貼 |
| 문조상호 도감의궤 | 1892년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 隔襦袂四十九件 內外俱用紅方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 인조상호 도감의궤 | 1900년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 隔襦袂三十六件 內外俱用紅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 효종상호 도감의궤 | 1900년 | | 上下 以眞紅貢緞纏頭 | 初終貼外面 以紅貢緞爲衣 | 隔襦袂三十六件 內外俱用紅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 고종상호 | 1900년 | | 上下 | 初終貼外面 | 隔襦袂三十六件 |

| 의궤명 | 제작시기 | 도설 | 위와 아래 [上下頭] | 겉면 [外面] | 격유보 (隔褻裯) |
|--------------|-------|---|--------------------|-----------------------|--|
| 도감의궤 | | | 以眞紅貢緞纏頭 | 以紅貢緞爲衣 | 內外俱用紅紗紬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 문조상호 도감의궤 | 1902년 |  | 上下 以眞紅雲紋緞 纏頭 | 初終貼外面 以眞紅雲紋緞 爲衣 | 隔褻裯三十四件 內外俱用眞紅雲紋緞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 진중추춘시 의궤 | 1908년 |  | 上下 以眞紅雲紋緞 纏頭 | 初終貼外面 以眞紅雲紋緞 爲衣 | 隔褻裯二十一件 內外俱用眞紅雲紋緞 槩入去核綿花 長廣從貼 |

출처: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10~24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추가 보완

(2) 유물로 확인되는 장황 직물의 종류와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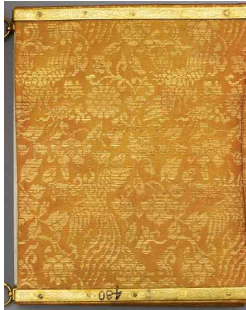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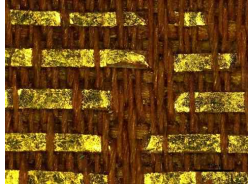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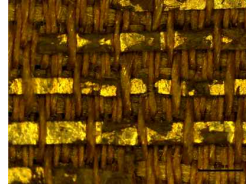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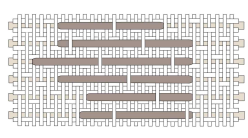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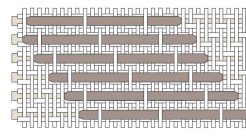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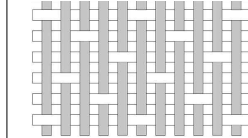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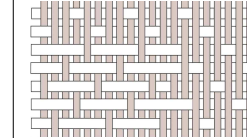
- 어책 유물에 사용된 장황 직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물을 색, 조직, 무늬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색을 보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옥책, 죽책, 금책 유물의 장황 직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붉은색이었다. 일부 유물은 황색이나 갈색 기운을 띠지만 이 역시 본래는 홍색 직물로 꾸몄다가 변색과 탈색현상에 의해 색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옥책 가운데 58책은 겉면의 장황 직물이 손실되어 있으나 다행히 상단과 하단에는 직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장황직물의 종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 장황의 위치와 방식은 의궤 기록과 일치하였으며, 옥책과 죽책의 상단과 하단, 가장 앞과 뒤의 바깥 표면을 직물로 감쌌는데 금선단(錦線段), 문단(紋緞), 무문단(無紋緞), 문능(紋綾), 주(紬)와 견(絹) 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어책을 장황한 여러 직물들을 조직에 따라 대표 유물을 뽑아보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의궤에서 금선단 혹은 금선이라고 기록된 직물은 금실을 넣어 구름, 용, 봉황 등의 무늬를 표현한 최고급 직물이었으며, 이처럼 추가로 금실을 넣어서 직조하는 방법을 직금(織金)이라고 한다. 이때 사용한 금실은 대부분 종이에 접착제를 바르고 금박을 올린 뒤 가늘게 잘라서 실로 사용한 편금사(片金絲)였다.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만든 어학서인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織金段子’라 쓰고 ‘금선비단’으로 언해하고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에는 ‘片金’으로 쓰고 ‘금선단’으로 언해하였으며¹⁷⁵⁾,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비롯한 각 문헌에는 ‘금선(錦線)’¹⁷⁶⁾, 혹은 ‘직금(織金)’¹⁷⁷⁾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175) 서울대학교규장각,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서울: 다해미디어, 2009), p.148·335.

176) 『조선왕조실록』 태종6년. “是日朝, 黃儼使其副韓帖木兒, 詣闕獻茄藍香間珊瑚帽珠一部、建康弓二張、綵段錦線各一

- 의궤에서는 동일하게 금선단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바탕직물을 짜는 방법에 따라 직금단과 직금능으로 구분된다. <표 3>의 첫 번째 직물인 직금단은 바탕직물을 수자직으로 짠 단(緞)인데 추가로 금실을 넣어서 짠 직금기법이 결합된 것이고, 두 번째 직물인 직금능은 바탕직물을 능직으로 짠 능(綾)인데 금실을 넣어서 짠 직금기법이 결합된 것이다. 바탕직물을 단(緞)으로 짜면서 무늬가 없으면 세 번째 직물인 무문단(無紋緞)이고, 무늬가 있으면 네 번째 직물인 문단(紋緞)이다. 바탕조직이 능(綾)이라면 무문능, 문능이다. 여기에 직물에 넣은 무늬에 따라 용이 있으면 용(龍), 봉황이 있으면 봉(鳳), 꽃이 있으면 화(花), 구름이 있으면 운(雲), 각종 보배가 있으면 보(寶)를 직물명에 넣으며, 여러 가지 무늬가 결합되면 직물명칭도 화봉문, 운보문, 운용봉보문과 같이 무늬를 나열한다.

<표 3> 어책 장황 직물의 종류

| 직물종류 | 화봉문직금단 (花鳳紋織金緞) | 화봉문직금능 (花鳳紋織金綾) | 무문단 (無紋緞) | 운보문단 (雲寶紋緞) |
|-----------------|---|---|--|---|
| 유물명칭 |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옥책 |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책봉 옥책 |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 제작년도 | 1623 (인조즉위년) | 1651 (효종2년) | 1740 (영조16년) | 1747 (영조23년) |
| 어책의 장황 직물 |  |  |  |  |
| 확대사진 |  |  |  |  |
| 직물무늬 | 화봉문 | 화봉문 | (없음) | 운보문 |
| 직물조직 | 직금단 | 직금능 | 무문단 | 문단 |
| 조직도 |  |  |  |  |

- <표 4>를 보면 유물 역시 1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장황 직물의 종류가 크게 변화하며, 이는 의궤에서 보이는 경향과 일치한다. 18세기 전반까지 옥책과 죽

匹、金剛子三貫、椰瓢八顆及諸菓實”
177) 『조선왕조실록』 단종2년. “文武官員常服胸背方花樣, 已有定式, 用雜色紵絲綾羅紗繡, 或織金, 各照品級穿着”

책은 직금단 혹은 직금능의 화려하고 값비싼 금선단으로 장황을 하다가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점차 문단, 문능, 또는 무문단 등 금선단에 비해 소박하고 가격이 낮은 직물로 바뀌었다.

- 18세기 전반까지의 옥책 유물은 해당 의궤에서 금선(錦線), 금선단(錦線段)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색상은 다홍색이나 홍색으로 명시하고 있다. 옥책의 장황 직물은 바탕직물을 수자직으로 짜고 금실로 무늬를 넣은 직금단이 주를 이루는데, 1651년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옥책과 효종비 인선왕후 봉왕비 옥책에서만 직금능이 사용되었다(표 4-5, 4-6). 그런데 직금능으로 장황한 두 옥책의 해당 의궤에는 ‘홍금선단(紅錦線段)’으로 기록되어 있어¹⁷⁸⁾ 실제 장황에 사용된 직물과 의궤의 내용이 다르다. 이것은 당시 직금단과 직금능이라는 바탕조직에 의해 구분하는 전문적인 직물명 대신 직금, 직금단, 혹은 금선, 금선단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 옥책의 장황 직물에는 다양한 길상무늬가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용과 봉황, 구름을 주제로 한 무늬가 많다. 1623년에 제작된 <표 4-1>의 인조비 인렬왕후 왕비책봉 옥책에는 연꽃, 모란, 국화, 동백 등의 꽃 사이를 봉황이 날고 있는 화봉문(花鳳紋) 직금단이 사용되었다. <표 4-6>의 현종 상시호 옥책의 겉면 직물은 구름과 용, 그리고 보상화가 어우러져있는 운용화문(雲龍花紋)의 직금단이다. 구름은 사합여의 형태이며 운두에서 나온 꼬리가 서로 이어지는 사이에 여의주를 향해 날고 있는 용과 보상화가 배치되어 있다. 1676년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표 4-8)을 비롯한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표 4-9)과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옥책의 직물 무늬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현종 상존시묘호 옥책(표 4-6)과 비교해보면 운두에 작은 꼬리 2개가 더 달려있는 형태이다.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표 4-7)의 직물은 구름이 꼬리가 좀 더 마름모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에는 용과 봉황이 하늘을 날고 있으며 여백에는 조그마한 보문(寶紋)으로 메워져있는 운용봉보문(雲龍鳳寶紋)의 직금단이다. 보문은 불교, 도교 등의 상징물을 비롯하여 갖가지 보배로운 유형, 무형의 기물을 무늬로 나타낸 것으로 <표 4-7>에 시문된 보문은 전보(錢寶), 서보(書寶), 방승(方勝), 卍, 매화 등의 잡보문이다. 이 운용봉보문직금단은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직물 가운데 드문 무늬의 직물이다.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표 4-9)은 1661년 장렬왕후에게 ‘공신(恭愼)’이라는 존호를 올린 옥책이었으나 화재로 손상되어 1687년(숙종 13)에 다시 제작하였다. 직물은 직금단으로 장황하였으나 편금사가 거의 손실되어 무늬가 두

178)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上下頭粧以紅錦線段且以銅鍍金爲編鐵…”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 “…上下頭粧以多紅錦線段且以銅鍍黃金爲邊鐵…”

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황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과 연꽃, 그리고 용무늬가 시문되어 있는데 구름의 형태는 卍자형의 구름꼬리가 달린 사합여의 형태의 구름이며 측면형의 연꽃과 한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보며 둥글게 틀고 있는 원용문(圓龍紋)이 배치되어 있는 원용화운문(圓龍花雲紋)의 직금단이다. 이 직물은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시호 옥책(1701년)과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표 4-10)에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무늬의 직금단을 벽암대사의 가사와 화순옹주의 원삼에서 찾아볼 수 있어, 어책의 장황 외에 복식 재료로도 사용되었던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벽암대사의 가사는 현재 화엄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편은사(片銀絲)로 무늬를 시문한 직은단(織銀緞)이며 인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는 유물¹⁷⁹⁾이다. 화순옹주(1720~1758)는 영조의 서장녀로 옹주가 착용했던 초록색 원삼의 한삼에 편금사(片金絲)로 시문한 유사한 직물¹⁸⁰⁾이 사용되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왕실과 관련이 있어 당시 원용화운문직금단이 왕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1740년(영조 16)에 제작된 효종 추상존호 옥책(표 4-11)은 붉은 색 바탕에 금실로 화려한 연꽃무늬를 나타낸 직금단이 사용되었고 해당 의궤¹⁸¹⁾에는 ‘다홍금선(多紅錦線)’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궤의 내용과 실제 옥책의 직물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시기에 제작된 영조 상존호 옥책이나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표 4-12)은 붉은 색 무문단으로 장황되어 있는데 의궤에는 ‘다홍금선(多紅錦線)’으로 명시되어 있다.¹⁸²⁾ 즉, 1740년의 의궤에는 다홍금선단으로 겉면을 짜서 장황하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에 맞게 직금단, 즉 금선단을 사용하였으나 의궤의 기록과는 달리 무문단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장황 직물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1750년대에 들어서면 이전 시기에 비해 문단(紋緞), 무문단(無紋緞), 주(紬) 등의 비교적 소박한 직물로 장황되었다. 무늬가 없는 직물을 먼저 살펴보면, 1757년에 제작된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옥책과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옥책은 모두 홍색 무문단으로 꾸며져 있다. 아무 무늬가 없이 수자직으로 단순하게 제작된 무문단을 사용하여 만든 옥책은 해당 의궤를 찾아보면 ‘홍광직(紅廣織)’¹⁸³⁾, ‘홍광적(紅廣的)’¹⁸⁴⁾, ‘진홍공단(眞紅貢緞)’¹⁸⁵⁾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 장황에

179) 화엄사에는 벽암대사의 가사와 관련해서 교지와 벽암대사비가 소장되어 있다. 교지에는 1626년(인조4)에 ‘보은천교 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의 칭호와 의발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강선정은 「조선중기 이후 가사(袈裟)의 유형과 변천」에서 현재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은가사(織銀袈裟)가 교지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당시의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정, 「조선중기 이후 가사(袈裟)의 유형과 변천」(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83, 104~106.

국립중앙박물관, 『화엄사의 불교미술』(서울: 디자인 나눔, 2010), pp.196~197.

180)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서울: 놀와, 2006), pp.258~259.

181) 『孝宗加上諡號都監儀軌』 稟目秩, “粧以多紅錦線”

18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2冊, “初貼終貼外面以多紅錦線衣之”

183) 『인원왕후숙빈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各樣物件造作秩 “初終貼外面以紅廣織粧”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各樣物件造作秩 “初終貼外面以紅廣織粧”

- 사용된 직물과는 다른 것도 있다. 광직과 광적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직물들인데 광직에 대해서 영조대에 “빈전에 홍광직으로 두른 휘장을 붉은 주(紬)로 대신하고”라고 하여 주보다는 가격이 비싼 직물이었다고 짐작된다.¹⁸⁶⁾
- 수자직 바탕에 무늬가 들어간 문단(紋緞)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특히 구름 사이에 보배가 배치된 운보문단(雲寶紋緞)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만 의궤에서는 이 직물을 운문단으로 기록하고 있다. 구름무늬의 운문단은 조선시대에 가장 애용하던 직물 가운데 하나로 복식뿐만 아니라 침구류, 장식용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옥책의 상황에도 상당수가 사용되어 있는데 옥책은 제작년도가 분명하므로 구름무늬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직물의 구름무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오직 구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단독운문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둘째, 구름 주변에 여러 가지의 무늬와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대개 길상무늬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옥책에는 단독운문보다는 팔보, 잡보 등의 보배무늬가 결합된 운보문(雲寶紋)이 사용되었는데 운보문이 옥책 상황에 사용된 것은 1747년부터이다.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표 4-13, 1747년)의 운보문단은 운두를 중심으로 구름꼬리가 사선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백에는 서각, 서보, 여의, 산호, 전보, 방승, 여의보주, 보(繡)의 8가지 보문(寶紋, 보배무늬)이 시문되어 있다. 1772년에 제작된 영조 가상존호 옥책(표 4-15)도 이와 유사한 문양이나 구름머리가 작고 양옆에 달린 작은 구름꼬리가 길게 뻗어나가고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구름사이에 배치된 보문의 크기가 약간 커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조 상존호 옥책(표 4-20, 1827년)의 운보문단에서는 구름머리가 수직방향으로 길어진 형태가 확인되며, 태조 추상존호 옥책(표 4-27, 1899년)에는 구름의 꼬리가 분리되었으며 여의보주, 근자, 방승, 횡적(橫笛), 보검(寶劍), 음양판(陰陽板) 등의 잡보와 도교의 보문이 혼용되어 있다. 철종 상존호 옥책(표 4-23, 1863년)부터는 구름이 마치 실과 같은 가는 사운(絲雲)의 형태에 꽃이나 나비가 혼재된 구조의 문단이 사용되었다.
 - 운보문 외에도 옥책 상황에 쓰인 문직물로는 도류단, 영초단 등이 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도류문은 복숭아[桃], 석류[榴], 그리고 불수감[佛手]이 어우러져 표현된 무늬로 도류불수문(桃榴佛手紋)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수자직으로 직조되었고 의궤를 비롯한 각 문헌에는 주로 도류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헌종 상시호 옥책(표 4-21, 1849년)과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표 4-2, 1866년)에 도류단이 사용되었는데,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의

184) 『영조국장도감의궤』, 各樣物件造作秩 “初終貼外面以紅廣的粧”

185)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의궤』, “初終貼外面以眞紅貢緞衣”

186) 『조선왕조실록』 영조28년. “後廢殿紅廣織帳, 代以紅紬…”

- 도류단은 복숭아, 석류, 불수감과 더불어 박쥐가 함께 있는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 영초단(永綃緞, 寧綃緞)은 「조선향염직물명칭류회(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에 “보통 영초(永綃)라고도 하는데 바탕직물은 평직으로, 무늬부분은 수자직으로 짠 직물로 도톰한 수직물(手織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¹⁸⁷⁾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표 4-22, 1857년)의 장황에 사용된 영초단은 ‘별문영초단(別紋寧綃緞)’이라고도 하는데 바탕직물도 능직으로 짜고 커다란 원용문(圓龍紋) 역시 능직으로 짠 직물이다. 수자직으로 짠 것이 아니라 능직으로 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緞)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지만 조선후기에는 이런 직물을 영초단이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가 내려올수록 운보문단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여러 무늬의 직물이 옥책의 장황에도 사용되었다.
 - <표 4>에서 죽책만 별도로 정리해보면, 현존하는 죽책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649년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만든 현종 봉왕세손 죽책(표 4-3)으로 바깥쪽을 감싼 직물은 운용문직금단이다. 사합여의 형태의 구름머리에 꼬리가 사선형으로 이어지며 그 사이에는 여의주를 향해 날고 있는 용이 배치되어 있다. 이 운용문직금단은 옥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직물로 옥책뿐만 아니라 복식에서도 현재까지 전하여지는 것이 거의 드문 유형의 직물이다.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도안의 직금단이 명대에 사용되었으며 홍색, 남색 바탕에 편금사로 직조한 것이 있다.¹⁸⁸⁾ 1736년까지의 죽책은 직금단으로 장황을 했는데 운용문, 화문 등 옥책에 사용된 문양의 직금단과 비슷한 직물들이다. 반면 18세기 후반의 죽책부터는 장황 직물이 금선단 대신 운보문단이나 무문단으로 바뀐다. 1776년 장조 상시호 죽책(표 4-17)은 운보문단으로, 1800년 순조 왕세자책봉 죽책(표 4-18)을 비롯한 4책의 장황에는 무늬없이 평직으로 직조된 홍색의 주(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죽책도 옥책과 마찬가지로 후기로 갈수록 화려하지 않은 직물로 장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책 역시 시대적인 경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금책은 황후와 황태자, 황태자비 등을 책봉할 때 명문을 금동판에 새겨 책으로 엮은 것으로 대한제국시대에 제작되었다. 금책은 옥책의 옥간, 죽책의 죽간이 여러 조각 모여서 하나의 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이 곧 하나의 첩이므로, 직물을 감싸거나 위와 아래에 변철을 고정시킬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겉면에만 직물을 붙여주었다. 금책은 현재 3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2점은 1897년에 제작되었고 나머지 1점은 1907년에 제작된 것이다. 1897년에 만들어진 고종비 명성황후 황후책봉 금책(표 4-25)은 홍색 운보문단으로 장식되어 있고, 같은 해 제작된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표 4-26)은 무문단으로 겉면을 꾸몄다.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하는






187) 吉永彦太郎,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 『朝鮮彙報』(1915), p.148.

188) 黃能馥·陳娟娟 書, 이희영 譯,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 년』(과주: 한국학술정보, 2016), pp.257·259.

어책에도 화려하고 값비싼 직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옥책, 죽책, 금책의 장황 직물을 비교해보면 직물의 종류나 변화 양상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책의 수급대상이 다르더라도 장황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간혹 이러한 시대별 변화와는 다른 옥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선단이 주로 쓰였던 시기인 1545년에 제작된 인종 상시호 옥책(표 4-14)은 무문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이 옥책은 1636년 병자호란의 발발로 종묘에 매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757년(영조 33) 종묘에서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후 다시 제작되어 종묘의 태실(太室)에 봉안되었다고 한다.¹⁸⁹⁾ 그러므로 최초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금선단으로 장황하였는데 오랜 기간 매립되어 있으면서 유기질인 직물은 손상되어 새로운 무문단으로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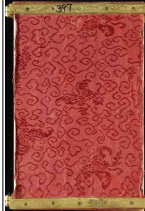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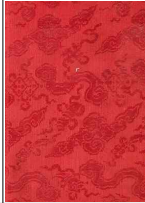
<표 4> 어책 장황 직물 비교표

| 연번 | 종류 | 유물명 | 유물번호 | 제작년도 | 직물 | 무늬 | 조직 |
|----|----|------------------|---------|-----------------|---|----------|-----|
| 1 | 옥책 | 인조비 인렬왕후 왕비책봉 옥책 | 종묘13245 | 1623 (인조즉위년) |  | 화봉문 | 직금단 |
| 2 | 옥책 | 인조비 인렬왕후 상시호 옥책 | 종묘13247 | 1636 (인조14) |  | 용봉 화문 | 직금단 |
| 3 | 죽책 |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 종묘13481 | 1649 (인조27년) |  | 운용문 | 직금단 |
| 4 | 옥책 |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존호 옥책 | 종묘13251 | 1651 (효종2년) |  | 화봉문 | 직금능 |
| 5 | 옥책 |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책봉 옥책 | 종묘13260 | 1651 (효종2년) |  | 화봉문 | 직금능 |

18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조선 왕실 어책(御冊) 조사 학술연구』 (2012), p.52.

| 연번 | 종류 | 유물명 | 유물번호 | 제작년도 | 직물 | 무늬 | 조직 |
|----|----|-------------------|---------|------------------------|---|-----------|-----|
| 6 | 옥책 | 현종 상시호 옥책 | 종묘13264 | 1674 (숙종즉위년) |  | 운용 화문 | 직금단 |
| 7 | 옥책 |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 | 종묘13262 | 1674 (숙종즉위년) |  | 운용 봉보문 | 직금단 |
| 8 | 옥책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종묘13252 | 1687 (숙종13년) |  | 운용 화문 | 직금단 |
| 9 | 옥책 |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 종묘13267 | 1676 (숙종2년) |  | 운용 화문 | 직금단 |
| 10 | 옥책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 | 종묘13308 | 1730 (영조6년) |  | 원용 화운문 | 직금단 |
| 11 | 옥책 | 효종 추상존호 옥책 | 종묘13258 | 1740 (영조16년) |  | 화문 | 직금단 |
| 12 | 옥책 |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 종묘13319 | 1740 (영조16년) |  | - | 무문단 |
| 13 | 옥책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종묘13295 | 1747 (영조23년) |  | 운보문 | 문단 |
| 14 | 옥책 | 인종 상시호 옥책 | 종묘13239 | 1757 (영조33년) 재제작 |  | - | 무문단 |

| 연번 | 종류 | 유물명 | 유물번호 | 제작년도 | 직물 | 무늬 | 조직 |
|----|----|------------------|---------|-----------------|---|-----------|----|
| 15 | 옥책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종묘13312 | 1772 (영조48년) |  | 운보문 | 문단 |
| 16 | 옥책 | 숙종 추상존호 옥책 | 종묘13273 | 1776 (정조즉위년) |  | 운보문 | 문단 |
| 17 | 죽책 | 장조 상시호 죽책 | 종묘13499 | 1776 (정조즉위년) |  | 운보문 | 단 |
| 18 | 죽책 | 순조 왕세자책봉 죽책 | 종묘13508 | 1800 (정조24년) |  | - | 주 |
| 19 | 옥책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 종묘13374 | 1824 (순조24년) |  | 운보문 | 문단 |
| 20 | 옥책 | 순조 상존호 옥책 | 종묘13362 | 1827 (순조27년) |  | 운보문 | 문단 |
| 21 | 옥책 | 헌종 상시호 옥책 | 종묘13428 | 1849 (철종즉위년) |  | 도류 불수문 | 문단 |
| 22 | 옥책 |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 | 종묘13382 | 1857 (철종8년) |  | 영초문 | 문단 |

| 연번 | 종류 | 유물명 | 유물번호 | 제작년도 | 직물 | 무늬 | 조각 |
|----|----|------------------|---------|-------------------------|---|-----------|-----|
| 23 | 옥책 | 철종 상존호 옥책 | 종묘13451 | 1863 (고종즉위년) |  | 운보문 | 문단 |
| 24 | 옥책 |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 종묘13468 | 1866 (고종3년) |  | 도류 불수문 | 문단 |
| 25 | 금책 | 고종비 명성황후 황후책봉 금책 | 종묘13544 | 1897 (대한제국, 광무1년) |  | 운보문 | 문단 |
| 26 | 금책 |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 | 신수9237 | 1897 (대한제국, 광무1년) |  | - | 무문단 |
| 27 | 옥책 | 태조 추상존호 옥책 | 종묘13226 | 1899 (대한제국, 광무3년) |  | 운보문 | 문단 |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어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왕실 의례 품목으로 왕권의 상징이며, 5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작되면서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계승한 매개체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문화 유산이다. 어책에는 대상에 따라 옥책, 죽책, 금책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역사적으로 발급자와 수급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고 부속품 역시 다양한 섬유류로 구성되어 있다.

- 옥책과 죽책의 상단과 하단, 첫 번째 첩과 마지막 첩의 바깥쪽 겉면은 직물로 장황을 하였는데 문헌기록에 금선단(錦線段)이라고 쓰여진 직금단과 직금능 뿐 아니라, 문단(紋緞), 무문단(無紋緞), 문능(紋綾), 주(紬)와 견(絹) 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이중 금선단은 편금사(片金絲)로 무늬를 시문한 최고급의 직물이었으며 구름, 용, 봉황 등의 길상무늬를 매우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18세기 전반까지 옥책과 죽책은 직금단이나 직금능과 같은 화려하고 값비싼 금선단으로 장황을 하다가 18세기 중엽부터 점차 문단, 문능, 또는 무문단 등 금선단에 비해 가격이 낮고 소박한 직물로 바뀌었다. 이는 절용(節用)을 중시하고 실천하는 조선후기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을 표출한 것이다.
- 궁중에서 제작되었던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로 장황하였으며 일부는 직물 부분이 손실되거나 변색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제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작연대가 확실하여 조선시대 직물사 연구에 있어 절대적인 편년의 기준이 된다. 또한 의궤나 등록 등 문헌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시대별 직물명칭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며, 무늬의 종류와 배치로부터 연대별 특징을 파악하여 초상화, 복식 등 다른 유물의 연대까지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고유한 색상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어 전통 염색 및 색상 연구에 있어서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
- 이상으로부터 조선왕조 어책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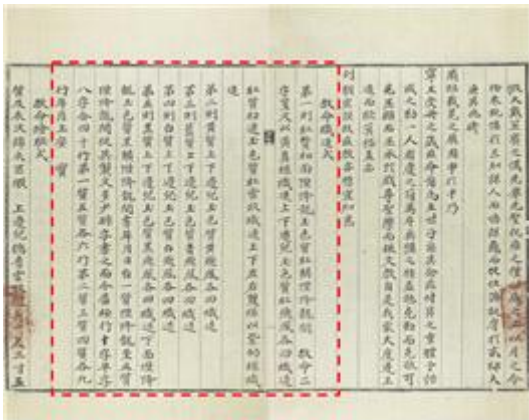
- 『조선왕조실록』 .
- 『영조국장도감의궤』 .
-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의궤』 .
- 『인선왕후책례도감의궤』 .
-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
-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
-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
-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
- 『정종시호도감도청의궤』 .
-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
- 국립고궁박물관 편,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08).
-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 왕조 어책 : 교명·죽책·금책』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왕조의 옥책 5』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서울: 놀와, 2006).

- 국립중앙박물관, 『화엄사의 불교미술』 (서울: 디자인 나눔, 2010).
- 吉永彦太郎,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 『朝鮮彙報』 (1915).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조선 왕실 어책(御冊) 조사 학술연구』 (2012).
- 서울대학교규장각,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서울: 다해미디어, 2009).
- 黃能馥·陳娟娟 書, 이희영 譯,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 년』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6).
- 강선정, 「조선중기 이후 가사(袈裟)의 유형과 변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1).
-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 이은주,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문화재52(4)』, pp.18~37, 2019.

3. 교명의 직물

1) 교명의 구조

- 교명(敎命)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 교명은 왕실문서의 하나로 두루마리인 권자본(卷子本)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전면과 후면을 모두 각종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황하였다. 교명에서 가장 중요한 교명문이 적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앞면의 양옆, 위아래, 그리고 후면부분에도 직물로 배접하는데 그중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에 가장 바깥에 보이는 부분에는 금단(錦緞)이나 후수단(後綬緞)과 같은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색으로 직조한 오색대자(끈의 일종)를 달아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 교명은 총 29점으로 시기별로는 17세기의 교명이 8점, 18세기는 14점, 그리고 19세기는 7점이다.
- 의궤에는 교명의 제작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데 직물과 관련된 항목은 ‘교명직조식(敎命織造式)’과 ‘교명회장식(敎命繪粧式)’이다. 교명직조식<그림 1>에는 교명문을 적는 부분과 그 사방테두리를 장식하는 비단에 대한 구성과 직조에 내용을 담고 있다. 교명회장식<그림 2>은 교명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분의 회장에 사용하는 직물과 첨자(籤子)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림 1> 교명직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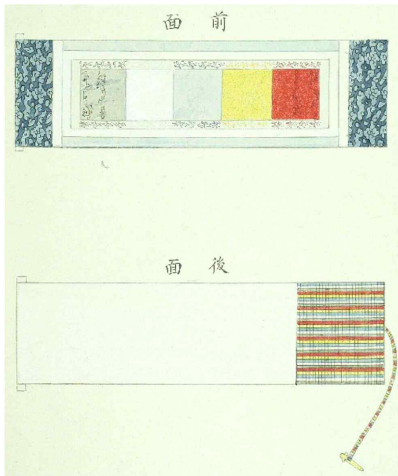
- 출처: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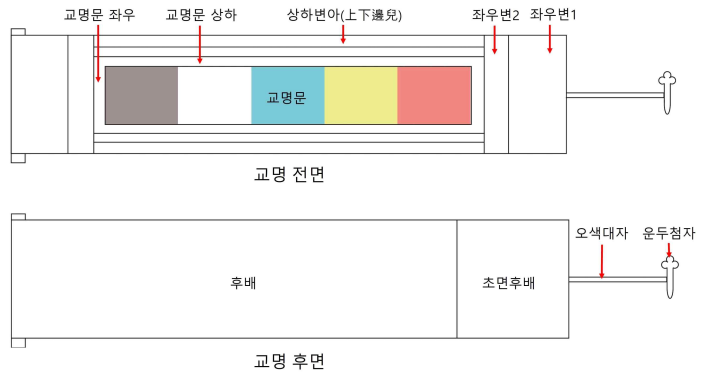
<그림 2> 교명회장식

- 출처: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

- 의궤 중에는 도설(圖說)로 교명을 나타낸 것도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실물과 유사하게 채색하여 표현하였으며 주로 앞면을 보여주고 있다. 순종 왕세자책례도감 의궤(1875)의 도설<그림 3>에는 교명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그려서 표현하였는데 전면(前面)과 후면(後面)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교명 29점은 부분별 크기와 색상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양식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명의 장황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의궤에 따라 각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교명문을 적는 앞면을 전면(前面), 초면(初面) 혹은 내면(內面)이라고도 하며, 앞면의 가장 오른쪽을 상변아(上邊兒), 초면(初面), 내면초변측(內面初邊則) 등으로 부르고, 반대편인 왼쪽을 하변아(下邊兒), 하면(下面)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교명의 위·아래의 가장자리는 상하변아(上下邊兒), 상하회장(上下繪粧)이라고 하며, 교명의 뒷면 전체는 후면(後面) 또는 외면(外面)으로 구분하는 등 일괄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직물을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교명의 각 부분을 가능한 의궤 기록에 근거하여 명칭을 제시<그림 4>하고자 한다. <표 1>은 7책의 의궤에 나타난 교명의 각 부분을 표로 작성한 것으로 다양한 용어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책저도감의례의 교명 도설



<그림 4> 교명의 구조

<표 1> 의례에 기록된 교명의 부분별 명칭

| 의례명 | 제작 년도 | 교명 앞 | | | | | | 교명 뒤 | | 오색 대자 | 운두 첨자 |
|------------------|----------|--------------|-----------|-----------|----------|-------------|-------------|------------|-----------|-----------------------------|----------|
| | | 교명문 | 교명문 상하 | 교명문 좌우 | 상하 변아 | 좌우변1 | 좌우변2 | 초면후배 | 후배 | | |
| 인조장영왕후 가례도감의례 | 1638 | 第參軸 ~ 第柒軸 | - | - | - | 第壹軸裏 | 第貳軸 | 第壹軸 | - | 五色 纓子 | 籤子 |
| 경종왕세자 책례도감의례 | 1690 | 第一則 ~ 五則 | 左右邊 | 上下 | - | 第一內面 則 | 第二內面 則 | 第一衣 | - | 五色 眞絲 帶子 | 籤子 |
| 경종선의왕후 가례도감의례 | 1719 | 第三軸 ~ 第七軸 | 上下邊 | 左右邊 | - | 第一軸 | 第二軸 | 後襟 | - | 五色 纓子 (五色 唐帶 子) | 籤子 |
| 사도세자 책례도감의례 | 1736 | 第一則 ~ 第五則 | 五質上下 | 初邊 | 上下 邊兒 | 內面則 | 內面則次 | 第一外 面衣則 | 後襟 | 五色 唐帶 子 | 籤子 |
| 정조효의왕후 가례칭의례 | 1762 | 第一質 ~ 五質 | 各質上下 | - | 上下 邊兒 | 前面, 下前面次 | 前面次, 下前面 | 上面後襟 | - | 五色 帶子 | 雲頭 籤子 |
| 효의왕후 책례도감의례 | 1778 | 第一質 ~ 五質 | - | - | 上下 邊兒 | 前面, 下面次 | 前面次, 下面 | 初面後襟 | 初面後 襟次 | 五色 帶子 | 雲頭 籤子 |
| 순조관례 책저도감의례 | 1800 | 第一則 ~ 第五則 | - | - | 上下 繪粧 | - | - | 初面後襟 | - | 五色 多繪 | 籤子 |

2) 교명 직물의 특성과 시대적 변천

(1) 교명문

- 교명의 핵심인 교명문이 작성되는 부분으로 의례에 ‘교명직조식(敎命織造式)’에서 언급되는 부분이다. 의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나 순조관례책저도감의례(190)와 같이 비교적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측의 바탕은 홍색이다. 초면은 승강용(陞降龍) 모양, 옥색 바탕에 붉은 비늘 문양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 모양 사이에 ‘교명(敎命)’ 2자 전문(箋文)을 황진사로 직조한다.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홍색으로 날아가는 봉새(鳳凰) 각 4개를 짠다. 홍색 바탕에 첫 테두리는 옥색바탕, 홍색으로 구름문양[雲紋]을 짠다. 위아래와 좌우의 쌍사(雙絲)는 자적사(紫的絲)로 짠다.

제2측의 바탕은 황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황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제3측의 바탕은 남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청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제4측의 바탕은 백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백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제5측의 바탕은 흑색이고, 위아래 테두리는 옥색 바탕에 흑색으로 날아가는 봉새를 각 4개를 짠다. 하면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은 옥색 바탕에 검은 비늘 문양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 사이에 연월일(年月日)을 쓴다. 첫째 바탕의 ‘승강용’부터 다섯째 바탕의 ‘승강용’ 사이에 제문(製文)의 다소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여 쓰는데, 이번에는 극항은 10자, 평항은 8자, 모두 40항으로 한다. 제1바탕과 제5바탕은 각각 6항, 제2바탕과 제3바탕, 제4바탕은 각각 9항을 하고 년월(年月) 위에 보인(寶印)을 찍는다.

-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는 1800년(正祖24) 2월에 元子(純祖)를 왕세자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이때 제작한 순조 왕세자책봉 교명의 교명문 부분<그림 5>을 보면 의궤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물 조사한 교명은 크기나 색상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의궤에서 명시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작되었다.
- 교명문의 바탕직물은 한 장의 직물로 직조되었다. 교명에 따라 바탕조직은 다른데 교명문이 시작되는 홍색부분부터 직조를 시작하며 紅·黃·藍·白·黑의 5색의 순서로 직조하며, 각 구획마다 양쪽에 각각 4마리씩 총 40마리의 봉황을 구획과 동일한 색으로 짠다. ‘敎命’ 2자는 황색의 색사로 직조하는데 글자 부분만 직조하는 봉취직(縫取織)의 기법으로 짠다.

190)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 一房儀軌, 一房所掌, “敎命織造式 第一則紅質初面陞降龍玉色質紅鱗陞降龍間敎命二字箋文以黃眞絲織造上下邊兒玉色質紅飛鳳各四織造紅質初邊玉色質紅雲紋織造上下左右雙絲以紫的絲織造 第二則黃質上下邊兒玉色質黃飛鳳各四織造 第三則藍質上下邊兒玉色質青飛鳳各四織造 第四則白質上下邊兒玉色質白飛鳳各四織造 第五則黑質上下邊兒玉色質黑飛鳳各四織造下面陞降 龍玉色質黑鱗陞降龍間書年月日自一質陞降龍至五質陞降龍間從其製文多少排字書之而今番極行十字平字八字合四十行第一質五質各六行第二質三質四質各九行年月上安寶”



<그림 5> 교명 제1, 2축

(2) 좌우변

- 교명의 좌우변1은 교명을 펼치면 처음 드러나는 부분으로 남색이나 아청색, 또는 침향색(沈香色)의 문직물이 사용되었다. 좌우변1은 주로 운문(雲紋)이 사용되었으나 17세기의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1638)과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645), 그리고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원 교명(1694)의 3점에만 화문능(花紋綾)이 사용되었다. 운문의 경우 이후 18세기 초기까지는 단독운문이 사용되다 이후에는 구름 사이의 여백에 보문(寶紋)이 배치되어 있는 운보문단(雲寶紋緞)으로 변화한다.
- 좌우변2는 좌우변1 옆에 꾸며지는 부분으로 백색 혹은 소색(素色) 비단을 사용하였다. 17세기 전반부터 수자직으로 직조한 각종 무늬의 문단(紋緞)이 사용되었는데 17세기~18세기 초까지는 주로 화문단이 사용되다 이후에는 운보문단이 주를 이룬다. 19세기 후반에는 운보문단과 함께 도류불수(桃榴佛手) 무늬의 도류단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3) 상하변아

- 교명문의 위아래 가장자리에 청색으로 장황한 부분이다. 의궤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의궤도 있고 ‘상하변아(上下邊兒)’, ‘상하회장(上下繪粧)’ 등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 구름무늬의 운문단이나 운보문단이 사용되었다.

(4) 초면후배

- 초면후배(初面後襟)는 교명의 뒤에 배접하는 부분이나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에

-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교명에서 가장 장식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화려한 직물로 장식하여 교명의 위엄을 나타낸다.
- 18세기 중반까지는 다채롭고 화려한 금직물이 사용되다 이후에는 후수단(後綬緞)으로 변화했다.
 - 1651년에 제작된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종묘13518)은 등롱문을 표현한 직금장화단(織金粧花緞)으로 초면후배를 꾸몄다. 등롱(燈籠)은 처마 밑이나 기둥 외부에 거는 등기구(燈器具)의 일종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알리고 축하하는 의미를 사용되었는데, 등롱의 네 모서리에 달린 술 장식은 일반적으로 벼이삭 모양이고, 옆에는 꿀벌로 장식하여 오곡풍등(五穀豐登)의 의미를 담고 있다.¹⁹¹⁾ 5매수자직의 바탕조직에 편금사와 여러 가지 색사를 추가로 더 넣으며 문양을 짠 중조직의 직물이다.
 - 1671년도의 교명에서부터는 금문(錦紋)이 표현된 금문금(錦紋錦)이 나타난다. 금문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다양한 도형이 연이어지도록 배열하고 그 안에 여의문, 화문 등의 각종 무늬로 다채롭게 표현한 무늬이다. 중국 송·원대에 유행했던 팔답운(八答量)에서 유래한 것으로 팔달운(八達量), 팔화운(八花量)이라고도 했다. 바탕조직의 지경사(地經絲) 외에 별도의 경사가 더 있고 위사에도 지위사와 무늬를 짜는 문위사가 따로 있는 구조의 직물로 Lampas 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송식금(宋式錦) 혹은 송금(宋錦)이라고 하는데 송대(宋代) 비단의 특징을 모방한 견직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직물 구조에 따라 ‘특결금(特結錦)’이라고도 한다.¹⁹²⁾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바닥조직에 따라 지경사와 지위사가 평직이나 능직으로 짜여졌으면 ‘금(錦)’이라 하고 수자직으로 짜여졌으면 ‘금단(錦緞)’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⁹³⁾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671),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1690) 등의 초면후배에는 금문(錦紋)이 시문된 금직물로 장황되어 있다. 금문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다양한 도형이 연이어지도록 배열하고 그 안에 여의문, 화문 등의 각종 무늬로 다채롭게 표현한 무늬이다. 중국 송·원대에 유행했던 팔답운(八答量)에서 유래한 것으로 팔달운(八達量), 팔화운(八花量)이라고도 하였으며,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하여 천화금(天華錦), 첨화금(添花錦)이라고도 했다.¹⁹⁴⁾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671)은 3매 능직으로 바탕조직을 짜고 문위사(紋緯絲)인 편금사는 특별경사에 의해 능직으로 조직되어 시문되었다. 문위사 중 색사는 청,황,초록과 청,남,황색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위사의 색상을 교체하면서 직조하고 편금사로는 壽와 무늬의 윤곽선을 표현하였다. 해당 의례인

191) 黃能馥·陳娟娟 書, 이희영 譯,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년』 (한국학술정보, 2016) p.328.

192) 趙豐(主編), 앞의 책(2005), p.534.

193) 심연옥, 앞의 책(2002), pp.222~223.

194) 周汎·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典出版社, 1996), p.509.

숙종비 인경왕후 교명의 의궤에는 ‘오색선단(五色線段)’¹⁹⁵⁾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의 경종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1718)의 의궤에는 ‘오색장단(五色壯段)’¹⁹⁶⁾으로 적혀있다. 장단은 봉취직으로 문위사가 직조되는 구조의 직물을 뜻하므로 의궤의 내용이 초면후배의 직물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170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후수단은 후수에 사용하던 옷감을 뜻하는데 4~5가지 색상이 세로 방향의 줄무늬로 나타나는 직물이며 의궤에는 ‘오색후수단(五色後垂緞, 五色後綬緞)’¹⁹⁷⁾, 또는 ‘후수단(後綬緞)’¹⁹⁸⁾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두 5색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흑→백→초록→홍→청색의 색상 배열순서는 조선말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각 색상의 너비는 점차 줄어들는데 1875년에 제작한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1875)은 1cm 정도이다.

(5) 후배

- 후배(後褙)는 교명 뒷면의 초면후배 옆 부분을 뜻한다.
- 교명을 말았을 때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주로 평직의 백색 직물을 사용하는데 의궤에는 ‘백숙초(白熟綃)’, ‘백초(白綃)’, 그리고 ‘백견(白絹)’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오색대자

- 대자는 끈목의 일종으로 주로 단면이 납작한 허리띠 종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¹⁹⁹⁾ 오색대자는 운두침자에 끼워 고정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기능도 하여 표지비단과 함께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 교명 대자는 각색 색사로 짜기 때문에 의궤에 ‘오색교직영자(五色交織纓子)’²⁰⁰⁾, ‘오색영자(五色纓子)’²⁰¹⁾, 그리고 ‘오색대자(五色帶子)’²⁰²⁾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 오색대자는 숙종비 인경왕후 교명(1671) 1점만 이중직으로 직조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평직으로 직조하였으며 여러 색사를 섞어 줄무늬를 표현하고 있다.
- 오색대자의 너비는 1.2~7.0cm, 길이는 65~176.5cm로 대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시대에 따라 특정 크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조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1638)의 대자는 너비 1.3cm, 길이 79.5cm로 너비가 가장 좁으며 정조 왕세손 책봉 교명(1759)은 너비 7.0cm, 길이 176.5cm로 대자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크다.

195)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1671). “敎命第一軸衣五色線段”

196)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1719). “敎命一部所入 尙房織造本方繪粧 五色壯段長一尺五寸廣八寸五分”

197)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1784). “...初面後褙五色後垂緞”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 (1762). “...上面後褙用五色後綬緞廣二尺三寸五分...”

198)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 (1800). “...初面後褙後綬緞廣二尺五寸繪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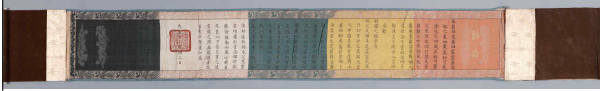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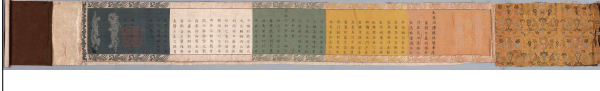










199) 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 (서울: 한길사, 1992), p.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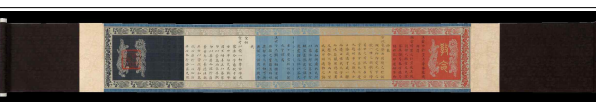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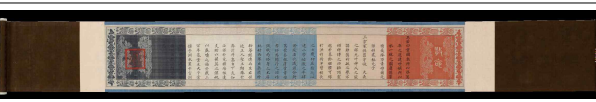






200)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638). “五色交織纓子長壹尺參寸廣參分 鍍金籤子具繪粧鋪陳色

201) 『현종비 명성왕후 가례도감의궤』 (1652). “五色眞絲多繪纓子長一尺六寸”

202)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 (1812). “五色帶子長三尺五寸廣分一寸二分”

<표 2> 보물지정대상 교명 목록

| 번호 | 유물명칭 | 유물번호 | 제작시기 | 책봉대상 | 사진 |
|----|------------------------------|---------|------|-------|--|
| 1 |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 | 종묘13516 | 1638 | 왕비 |  |
| 2 |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종묘13517 | 1645 | 왕세자빈 |  |
| 3 |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 | 종묘13518 | 1651 | 왕세자 |  |
| 4 |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종묘13519 | 1651 | 왕세자빈 |  |
| 5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종묘13520 | 1671 | 왕세자빈 |  |
| 6 |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교명 | 종묘13521 | 1694 | 왕비 복위 |  |
| 7 |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 종묘13522 | 1702 | 왕비 |  |
| 8 |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 종묘13523 | 1690 | 왕세자 |  |
| 9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종묘13524 | 1696 | 왕세자빈 |  |
| 10 |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교명 | 종묘13525 | 1722 | 왕비 추봉 |  |
| 11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종묘13526 | 1718 | 왕세자빈 |  |
| 12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 종묘13527 | 1722 | 왕비 |  |

| 번호 | 유물명칭 | 유물번호 | 제작시기 | 책봉대상 | 사진 |
|----|------------------------------|---------|------|------|--|
| 13 | 영조 왕세제 책봉 교명 | 종묘13528 | 1721 | 왕세제 |  |
| 14 |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 책봉 교명 | 종묘13529 | 1726 | 왕비 |  |
| 15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 책봉 교명 | 종묘13530 | 1759 | 왕비 |  |
| 16 | 진종 왕세자 책봉 교명 | 종묘13531 | 1725 | 왕세자 |  |
| 17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 종묘13532 | 1727 | 왕세자빈 |  |
| 18 | 장조 왕세자 책봉 교명 | 종묘13533 | 1736 | 왕세자 |  |
| 19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 종묘13534 | 1744 | 왕세자빈 |  |
| 20 | 정조 왕세손 책봉 교명 | 종묘13535 | 1759 | 왕세손 |  |
| 21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 책봉 교명 | 종묘13536 | 1762 | 왕세손빈 |  |
| 22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 책봉 교명 | 종묘13537 | 1778 | 왕비 |  |
| 23 | 순조 왕세자 책봉 교명 | 종묘13538 | 1800 | 왕세자 |  |
| 24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 책봉 교명 | 종묘13539 | 1802 | 왕비 |  |
| 25 | 문조 왕세자 책봉 교명 | 종묘13540 | 1812 | 왕세자 |  |
| 26 | 헌종 왕세손 책봉 교명 | 종묘13541 | 1830 | 왕세손 |  |

| 번호 | 유물명칭 | 유물번호 | 제작시기 | 책봉대상 | 사진 |
|----|----------------------------|---------|------|------|----|
| 27 |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 책봉 교명 | 종묘13542 | 1837 | 왕비 | |
| 28 |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 책봉 교명 | 종묘13543 | 1866 | 왕비 | |
| 29 | 순종 왕세자 책봉 교명 | 신수9239 | 1875 | 왕세자 | |

<표 3> 의궤 부분별 장황직물

| 유물명칭 | 유물번호 | 제작년도 | 좌우변1 | 좌우변2 | 초면후배 | 후배 | 오색대자 |
|-------------------------------|---------|------|----------|-----------|------------------|-------|------|
|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 책봉 교명 | 종묘13516 | 1638 | 화문능 | 운학문단 | 화봉문금 | 초 | |
| 헌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 종묘13519 | 1651 | 운문단 | 만자화문단 | 등룡문직금장 화단 | 견 | |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 종묘13520 | 1671 | 운문단 | 만자화문단 | 금문금 | 견 | |
| 경종 왕세자 책봉 교명 | 종묘13523 | 1690 | 운문단 | 화문능 | 금문금 | 견 | |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 종묘13526 | 1718 | 운문단 | 화문능 | 금문금 | 견 | |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 종묘13534 | 1744 | 운보문단 | 운보문단 | 후수단 | 견 | |

| 유물명칭 | 유물번호 | 제작년도 | 좌우변1 | 좌우변2 | 초면후배 | 후배 | 오색대자 |
|------------------------------|---------|------|---|---|---|--|---|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 책봉 교명 | 종묘13536 | 1762 |  운보문단 |  운보문단 |  후수단 |  견 |  |
| 순종 왕세자 책봉 교명 | 신수9239 | 1875 |  운보문단 |  운보문단 |  후수단 |  견 |  |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교명은 총 29점으로 현재 28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4점에 대해 실물조사하였다. 교명은 다채로운 색사로 화려하게 직조한 고급직물을 사용해 왕실의 권위를 극대화하였다. 교명에서 가장 중요한 교명문이 적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앞면의 양옆, 위아래, 그리고 후면부분에도 직물로 배접하는데 그중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에 가장 바깥에 보이는 부분인 초면후배에는 금단, 직금장화단, 후수단과 같은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여러 색으로 직조한 오색대자를 달아 화려함과 함께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교명의 각 부분에 장식된 직물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데 초면후배는 1638년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부터 1725년의 진종왕세자책봉 교명까지는 금단, 직금장화단과 같은 최고급의 직물을 사용하였고, 18세기 중반부터는 직금단에 비해 가격이 낮은 후수단을 사용하였다. 오색대자는 시대에 따라 특정 크기나 색상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교명은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궁중의 상방에서 직조한 직물을 사용한다는 의궤의 기록에 따라 당시 조선의 직조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또한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직물이 달라 직물사에 있어 편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V. 보문과 책문

1. 보문의 서체

인장을 새기는 행위, 또는 새겨진 인장을 전각(篆刻)이라 하듯이 여기에 쓰이는 서체는 전서(篆書)가 주종을 이루며, 이는 이미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이 되었다. 전서는 한자체의 하나로 예서 이전의 서체를 포괄한다. 주로 진시황의 문자통일을 분기로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나뉘며, 상주(商周)의 갑골문(甲骨文)·금문(金文), 춘추전국시대의 육국문자(六國文字), 진(秦)의 소전(小篆), 그리고 무전(繆篆), 첩전(疊篆) 등 각 시대와 국가, 용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서체가 생성·소멸하였다.

전서는 해서나 행서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체는 아니었고 어보나 어진, 금석문의 두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특수한 서체였다. 그중에서도 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은 반드시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선조(宣祖)의 옥보에는 글자 수가 매우 많은데 어떤 전자(篆字)로 써서 새길 것인가? 자체를 상세히 써서 들이라.”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어보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九疊篆)이다. 구첩전은 첩전,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인전(印篆)의 한 형태로 필획을 중첩하고 쌓아올려 인면을 가득 메우는 서체이다. 필획이 많이 중첩된 경우 10첩(疊) 이상인 경우도 있다. 첩전은 어보를 포함한 관인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중원의 경우 송대(宋代)로부터 시작하여 원대(元代)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대부분 주문(朱文)이다.

조선에서는 어보에 쓰이는 서체를 ‘구첩전’이나 ‘첩전’이라 쓴 사례는 보이지 않고, 이칭인 ‘상방대전(上方大篆)’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상방대전의 발생 배경에 대하여 김진홍(金振興, 1621~?)의 『전대학(篆大學)』에서는 ‘정막(程邈)이 이사(李斯)를 수식하여 법을 내었다(程邈飾李斯出法)’고 기록하였다.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 통일시대 진나라의 정국을 담당한 실력자로, ‘소전’이란 서체를 개발한 사람이며, 정막은 진대(秦代) 사람으로 예서를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상방대전에 대한 중국의 문헌을 살펴보자. 당대(唐代) 위속(韋續)은 『묵수(墨藪)』에서 “상방대전(尙方大篆)은 정막이 짓고, 후대인이 수식하여 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청대(清代) 요안(姚晏)은 『재속삼십오거(再續三十五舉)』에서 “후세의 관인은 9첩, 8첩, 7첩이 있는데, 무두 주문사인(朱文私印)이다. 간혹 9첩이 있는데, ‘상방대전(上方大篆)’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위속의 기록에서는 이 서체에 대해 ‘상방(尙方)’이란 용어를 썼고, 김진홍의 기록에서 ‘정막이 이사의 서체를 수식했다’는 말과 달리 정막이 짓고, 후대인이 수식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요안은 ‘상방(上方)’이

란 용어를 쓰고 구첩전의 이칭으로 설명하였다.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이 서체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구첩전(九疊篆)=상방대전(上方大篆)=상방대전(尙方大篆)의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면 인장에서 구첩전을 사용하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명대인(明代人)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장은 매 글자마다 전서의 굴곡이 아홉 획이며 이는 바로 ‘건원용구(乾元用九)’²⁰³의 뜻”이라 하였다.²⁰⁴ 또한 중국 현대의 인학가(印學家)는 새보(璽寶)와 관인(官印)에서 ‘건원용구’의 의미를 차용함에 대해 ‘건원(乾元)은 천(天)의 덕(德)이며 9는 양(陽)의 수로 하늘의 덕이니, 곧 하늘의 덕을 사용함, 즉 인장을 통해 하늘의 덕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조선의 국새와 어보에서 구첩전을 사용한 이유 또한 서체에 포함된 ‘건원용구’의 의미를 인장에 함축하였다 하겠다. 이는 고궁의 건축물과 꽃담 등에 남은 길상문(吉祥文)의 서체가 대부분 구첩전인 점과 상통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상방(上方·尙方)의 뜻은 무엇일까? ‘상방(尙方)’은 한대(漢代)의 관서명으로 제왕과 황궁에 필요한 도검(刀劍) 및 일용완호(日用玩好)를 공급하는 관서이다. 이후 명대(明代)까지도 상방은 이러한 역할 외에도 궁중에 음식이나 의약품을 공급하던 관서였다. 조선에서도 ‘상방(尙方)’은 궁중의 의복과 일용품, 보물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상의원(尙衣院)’의 이칭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구첩전의 이칭으로서 상방대전은 궁중의 소용품을 제공하던 관서의 명칭과 연관이 높아 보인다. 상방대전은 인장에 쓰이는 서체로 특히 국새와 어보에 부여되었으므로, 국왕을 포함한 왕실의 소요물품을 진상하는 ‘상방’이란 용어를 서체명에 차용하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구첩전은 시각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공간의 분포가 정연하며, 공간적 긴밀함을 보인다. 구첩전을 서예나 전각의 관점, 또는 개성을 추구하는 사인(私印)의 관점으로 바라보긴 어려우며, 예술적 감상의 대상도 아니다. 어보는 왕실의 권위와 영속성을 담아내는 의물이므로, 근엄, 장중, 신성함이 내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보에 담긴 구첩전 역시 왕실의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하였던 상방대전은 대한제국기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를 보였다. 즉 기존의 상방대전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간명한 ‘소전’으로 바꾸었다. 소전은 전서의 일종으로 발생국의 명칭을 따 진전(秦篆)이라고도 하며 대전(大篆)과는 상대개념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승상 이사(李斯)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다고 전한다.²⁰⁵ 당시 진나라의 문자를 중심으로 여기에 합치되지

203) ‘乾元用九’는 周易 乾卦의 ‘乾元用九 天下治也’에서 따온 말이다. 傳에서는 ‘用九之道는 天與聖人同하니 得其用이면 則天下治也’라 설명했다(成百曉 譯註, 『周易全義』, 傳統文化研究會, 2004).

204) 徐官, 『古今印史』(『歷代印學論文選』, 西泠印社, 1999. p.49).

205)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는 대전과 소전의 발생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않는 다른 나라들의 문자를 모두 폐지하였다. 소전은 이전의 문자에 비해 균일하며 좌우 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대하는 듯하다. 따라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와 시황제의 자궁심이 담긴 서체로 인식된다. 이후 한대(漢代)로 넘어와 예서(隸書)의 시대에도 전서는 인장과 비액(碑額)에 쓰이는 공식적 서체로 남았고,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또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서체를 대한제국의 국새와 어보에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중원의 여러 국가에서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 또한 소전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하여 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소전에 담아 국새와 어보의 서체에도 반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 현존하는 어보 가운데 90% 이상이 구첩전이며, 나머지 10% 이하가 소전으로 제작하였다.

2. 보문의 서사

어보의 보문은 승문원이나 교서관의 전자관(篆字官)이 쓰기도 하였으나 도감의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이 쓴 사례가 많다. 전문서사관은 당대에 전서에 능숙한 고위직을 채용하였으며 이들은 당시 전서의 대표적 명필이기도 하였다. 의례가 시작되고 선정되는 전문서사관들은 일반 사자관과는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조선 왕실 어보 제작에 참여했던 전문서사관들은 의례가 전해지는 17세기부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문은 광산김씨, 안동김씨, 여흥민씨, 전주이씨, 풍산조씨, 풍산홍씨 등이다. 전문서사관은 다양한 가문의 문신들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승정원 도승지, 홍문관 부제학, 홍문관 교리 등 문한을 담당할 관직 이외에도 공조판서, 병조판서, 이조참판, 의정부 영의정 등 고위 관직에 제직하고 있는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또한 종친이나 왕실의 척신들이 주로 참여한 사례도 있는데, 왕의 장인으로는 김만기, 김문근, 조만영, 홍봉한, 홍재룡 등을 들 수 있다. 의례를 일괄해 보면 전문서사관의 대표적 인물로 광해군 대의 허함(許涵), 효종 대의 이익엽(李益燁), 여이징(呂爾徵), 현종 대의 김수항(金壽恒), 영조 대의 조현명(趙顯命), 유척기(兪拓基), 철종 대의 김도희(金道喜), 박회수(朴晦壽), 홍재룡(洪在龍), 고종 대의 김문근(金汶根) 등이 보인다.

전문서사관은 보문(寶文)의 정본 1장과 부분 2장을 써서 근봉하여 올리면 이를 임금이 보고 정본과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선택 방법은 입계 시 전문 본에 왕이 점을 찍어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1645년 효종의 왕세자 책례시 왕세자인과

“大篆은 周宣王 때에 史籀가 처음 만든 것이다. 平王이 동쪽으로 천도할 때 문자가 어그러지고 뒤섞였는데, 秦의 李斯와 胡毋敬이 籀書를 고쳐 小篆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大篆과 小篆이 있게 된 것이다(大篆出於周宣之時 史籀創著 平王東遷 文字乖錯 秦之李斯及胡毋敬有改籀書 謂之小篆 故有大篆小篆焉)”(北魏 酈道元, 『水經注』卷7, 「穀水」.)

세자빈인의 전문 3종을 준비하여 1, 2, 3으로 갖추어 낙점해달라고 감계하니 임금이 1로 결정했다. 의례에 따라 왕세자가 먼저 예람하고, 이후에 임금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화원들에 의한 복칠, 보획, 전각,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어보의 보면(寶面)을 완성하였다.

3. 책문의 서체

국왕이 책봉(冊封)할 때 어책(御冊, 玉冊이나 竹冊)·어보(御寶, 玉寶나 玉印)·교명(敎命) 세 가지 의물(儀物)을 건네주는데, 여기에서는 어보를 제외한 어책·교명을 살펴보겠다.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 세 가지가 있다.

옥책(玉冊)은 왕실에서 책봉하는 것으로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 왕비 이상의 존호·시호·휘호를 올리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옥간(玉簡)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이다. 내용에 따라 존호책(尊號冊)·시책(諡冊)·휘호책(徽號冊)·애책(哀冊)·축책(祝冊)이 있는데, 옥색에 따라 흑옥책(黑玉冊)·백옥책(白玉冊)·청옥책(靑玉冊)으로 구분되는데, 청옥책이 가장 일반적이다. 제작은 제술(製述)→서사(書寫)→회장(回粧)의 과정을 거쳐 원환(圓環)과 돌찌귀(玃迪耳)의 연첩방식(連貼方式)을 취한다. 제술과 서사는 제술관과 서사관이 담당하고, 특히 옥책문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으로 작성됨에 품계가 높은 관원에서 대제학(大提學)이 차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장은 북칠(北漆)→각자(刻字)→전자(填字)→작첩(作貼)의 각 과정을 전문 공장(工匠)이 담당하였다.

옥책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한 왕조가 예와 효라는 유교 덕목을 실천하면서 행한 왕실 의례(儀禮)의 산물이고, 왕실 최고 계층의 신분이나 명예를 직접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이기도 하다. 또 당대 문장가와 명필, 최고 수준의 전문 장인이 협업으로 제작한 화려한 왕실 공예품이기도 하다. 현전하는 옥책은 258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253점이고 조사대상은 5점이다.

죽책(竹冊)은 옥책과 성격이 같으나 재질이 다르고 왕세자(王世子)·왕세자빈(王世子嬪)·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王世弟嬪)·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王世孫嬪)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제작과정 또한 옥책과 같으며,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며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이다. 현전하는 죽책은 43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34점이고 조사대상은 2점이다.

금책(金冊)은 황실에서 책봉할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로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왕실을 황실로 격상시킨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책문이다. 조선이 옥책과 죽책이었다면, 금책은 대한제국이 자주권 확보를 위해 천자국의 예를 행한 상징적인 의물(儀物)이다. 책봉의 신분에 따라 금책 문양이 구

분되는데, 초룡(草龍)은 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 쌍적(雙翟)은 황귀비(皇貴妃), 반이(蟠螭)는 왕(親王)과 왕비(親王妃)에게 수여할 때 새겼다. 금책은 그 양식이 갖는 상징성이 무엇보다 큰 책문이라 하겠다. 현전하는 금책은 7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3점이고 조사대상은 2점이다.

교명(敎命)은 원래 국왕의 교시(敎示)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였지만, 책봉할 때 교시를 일정한 형식과 형태로 제작한 문서를 가리키기도 한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에는 주로 책례(冊禮)와 관련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비(大妃)·왕비(王妃)·왕세자(王世子)·왕세제(王世弟)·왕세손(王世孫)·왕세자빈(王世子嬪)·왕세제빈(王世弟嬪)·왕세손빈(王世孫嬪)·후궁(後宮) 등의 책봉은 국왕이 명하는 책봉 전교를 선포함으로써 시행된다. 책례를 거행할 때 교명을 교명궐(敎命櫃)에 담아 전(殿)의 뜰로 옮겨 와서 교명주홍배안상(敎命朱紅排案床) 위에 올려놓고 대기하여 두었다가 의식이 진행되면 교명을 궐에서 꺼내 상으로 옮긴 후에 의식을 진행하였다.

교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오색(紅色·黃色·藍色·白色·黑色) 비단으로 교명문이 작성된 부분과 사방 테두리를 봉황무늬나 구름무늬로 장식한 부분이다. 둘은 교명문이 있는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회장(回粧) 부분이다. 셋은 두루마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옥축(玉軸)·변죽(邊竹)·영자(纓子, 흑帶子)·거물정(巨物丁)·운두침자(雲頭籤子)가 있는 부분이다. 교명문은 시작 부분의 홍색 비단 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황진사(黃眞絲)로 직조하였고, 마지막 흑색 비단 위에는 승강룡을 직조한 사이에 연호와 연월일을 쓰고 그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조선왕보(朝鮮王寶)’를 날인(捺印)하였다. 서식은 기두(起頭)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여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마무리된다. 내용은 앞부분에서 책봉 사유와 경위를 적고, 뒷부분에는 책봉 이후 행해야 할 의무와 당부를 적었다.

교명은 초기에 교지(敎旨)와 같은 짤막한 내용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격식을 갖추어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핵심 의물(儀物)로 조선 왕실을 상징하였다. 현전하는 교명은 32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29점이고 조사대상은 4점이다.

어책과 교명의 제술과 서사는 제술관과 서사관이 담당한다. 제술(製述)은 문장을 찬술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제술관(製述官)이라 한다. 책문 짓는 것을 담당한 관원을 ‘책문제술관(冊文製述官)’이라 하고, 종류에 따라 죽책문은 ‘죽책문제술관(竹冊文製述官)’, 옥책문은 ‘옥책문제술관(玉冊文製述官)’, 금책문은 ‘금책문제술관(金冊文製述官)’이라 칭한다. 제술관은 높은 품계를 가지면서도 문재(文才)를 갖춘 사람으로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정1품부터 정3품

까지 차출되었고, ‘금책문제술관’ 역시 홍문관대학사(弘文館大學士)·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 등이 대다수이다.

서사(書寫)는 글을 베껴 쓰는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관원을 서사관(書寫官)이라 하며, 책문 종류에 따라 ‘죽책문서사관(竹冊文書寫官)·옥책문서사관(玉冊文書寫官)·금책문서사관(金冊文書寫官)’이라 칭한다. 그러나 서사 과정에 따라 ‘책문서사관(冊文書寫官)’과 ‘책문초도서서사관(冊文草圖書書寫官)’으로 달리 칭하였다. ‘책문초도서서사’는 책문의 초도서를 서사하는 관원이란 의미로 초도서를 서사하는 단계에서만 특별히 사용된 명칭이다. 이에 반해 정본(正本)을 서사할 때는 ‘책문정본서사관(冊文正本書寫官)’이란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서사관의 품계는 정6품에서 종1품까지 분포되었으나 오익(吳翊, 정5품)과 오정위(吳挺緯, 정6품) 두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정3품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자관(寫字官)은 특별히 ‘책문사자관(冊文寫字官)’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자관은 승문원(承文院)·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되어 사대교린문서(事大交鄰文書)와 자문(咨文)·어첩(御牒)·어제(御製)·어람(御覽) 등의 문서를 정서(正書)하던 관원이다. 정원은 규장각에 8인, 승문원에 40인이 있었고, 이들은 외국 사행(使行)에도 수행하였다. 이들은 매년 1·4·7·10월 승문원의 제조(提調)가 행하는 시험에 우수한 자는 점차 녹관(祿官)에 임명하였다. 특히 승문원은 사대교린문서를 관장하며 사대문서(事大文書) 부분(副本)은 선사자(善寫者)가 서사(書寫)하여야 했으므로 당상관이나 문신이 아니더라도 사자(寫字)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에게 서사하도록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4품 이상 품계로 승천(陞遷)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개국 초기에는 사자관이 없었고, 이후 문신으로서 글씨 잘 쓰는 자에게 군직(軍職)의 직함을 주고 매일 근무하게 하였는데, 이해룡(李海龍, 생물 미상)·한호(韓濩, 1543~1605)가 곧 그 시작이었다. 이를 보면, 제술관과 서사관은 다른 관직을 갖고 책문 제작에 차출한 관원이고, 사자관은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되어 문서를 정서(正書)하던 관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문서사관’의 글씨는 사자관의 글씨에 비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자기의 성정을 나타내었다는 차별성이 있다.

1) 어책

(1) 옥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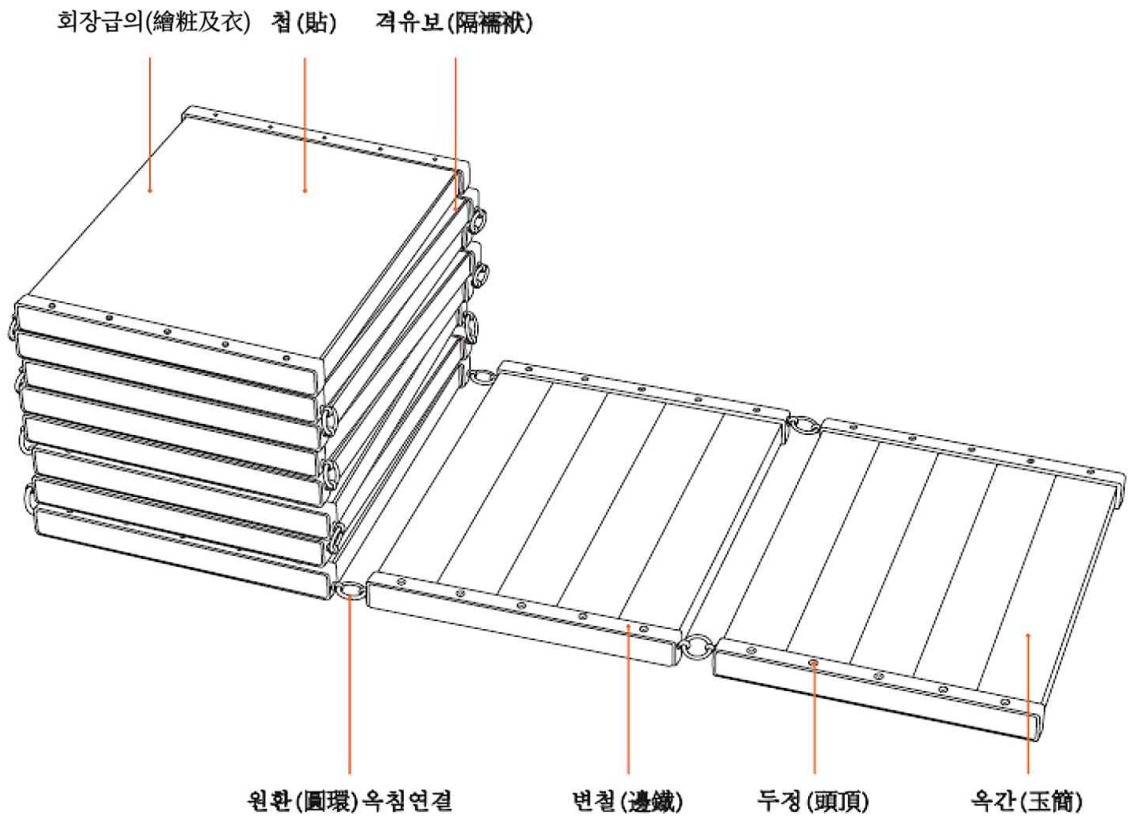
가. 옥책 개요

옥책(玉冊)은 유교와 성리학에 토대를 둔 왕실의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규범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옥책이 조선왕조 500여 년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역사적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옥책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 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책봉은 ‘책명(冊命)’과 ‘봉작(封爵)’의 합성어로서 책명은 ‘책(冊)으로 명(命)한다.’는 뜻이고, 봉작은 ‘봉토(封土)하고 수작(授爵)한다.’는 뜻이다. 현전하는 옥책은 고려 1146년(의종 원년)에 인종의 시호를 올리며 지은 글을 새긴 시책(諡冊)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어서 고려 때에 옥책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조선은 중국 명나라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조선은 중국과 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중국에서 내리는 시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의 왕과 신료들이 상의하여 결정된 존호와 시호를 어책과 어보에 새기는 것으로 조선의 주체성을 표출하였다.

내용은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왕비 책봉의 배경과 자질, 그리고 효성과 우애, 예의와 법도 등의 덕목을 훈계하는 내용을 수록하였고, 존호 및 시호·휘호는 수여하는 칭호의 뜻과 배경·의미 등을 수록하였다. 당시 어책은 어보와 함께 수여되었는데, 왕과 왕비의 책봉 명칭, 추봉 명칭, 존호·시호·휘호 등을 인장에 새긴 것이 어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사연과 의미 등을 풀이해 새겨 엮어 만든 것이 어책이다. 어책은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로 구분한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옥책은 1392년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시점을 비로소 시작으로 삼고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왕·왕비·왕대비·대왕대비 등이다. 제작은 책봉·국혼(國婚) 등의 가례(嘉禮)에는 책봉 및 존호 옥책, 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에는 묘호·시호·휘호 옥책이 만들어진다.

옥책은 옥을 조각내어 5~7개의 옥간을 1폭으로 하고 짝수 폭으로 엮어 만들며, 옥간 5~7쪽을 엮어 만든 것을 1첩(貼)이라 한다. 재질은 대부분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하였다. 옥책은 모두 왕이 발급하였고, 왕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세손이나 세자 그리고 황태자 등이 올릴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는 신하들이 올리는 경우이다. 옥책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왕과 왕비이고, 세자와 세자빈은 옥책 대신 죽책을 받는다.



<옥책의 각부 명칭>



<연침방식(連貼方式): 원환(圓環)과 돌쩌귀(玆迪耳)>

옥책의 첩과 첩 사이를 연결하는 연첩(連貼) 방식은 원환(圓環)과 돌쩌귀(玃迪耳)가 있다. 원환은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이고, 돌쩌귀는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에 목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하는 방식이다. 옥책 255책 중 원환은 67책이고, 돌쩌귀는 188책이다. 초창기부터 1757(영조 33)까지의 옥책은 모두 원환 방식이고, 그 이후부터는 돌쩌귀 방식이다.

옥책 제술관(製述官)은 조선 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벼슬로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전례문(典禮文)을 전담하여 짓게 하거나 외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관리이다. 그러나 옥책문 제술관은 왕과 왕비의 옥책문의 문장을 짓는 사람이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미리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옥책 문장을 짓는 요건인 변려문(駢麗文)의 문장력을 갖춘 고위 관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고 신분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대체로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닌 문장력이 뛰어난 고위 관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사관(書寫官)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옥에 직접 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사관 또한 제술관과 같이 중요한 관직과 명망을 갖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서사관에 대해서는 실록이나 의궤에서는 자격 요건을 기술한 것은 없다. 하지만 왕과 왕비의 옥책을 제작하기 위해 글자를 쓰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서사관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옥책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모두 253점이고,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인종 상시호 옥책(1545), 인종 상시호 옥책(1757),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1687),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1824),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1908) 등 5점이다. 이것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옥책 1점을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나. 옥책의 현상

| No. | 신 번호 | 명칭 | 發給 | 제작시기 | 제술관 | 재질 | 크기(cm) | 字數 |
|----------------------|-------------|-----------------------------------|----|------------------------|-----|--------|--|------------------------|
| | | 분류 | 受給 | 수여시기 | 서사관 | | | |
| 1 | 종묘 13238 | 인종 상시호 옥책 | 명종 | 1545년 | 崔演 | 玉 銅 | 세로: 27.3 가로: 3.5 두께: 2.7 폭 : 3.5 편폭: 3.5 | 1첩 1편 1행 13자 |
| | | 상시호 (獻文懿武 章肅欽孝) 및 묘호(仁宗) | 인종 | 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 | 李文樾 | | | |
| 1면 : 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前烈 乃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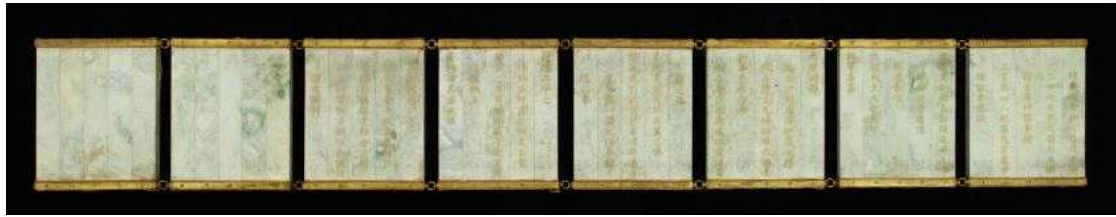


| | | | | | | | |
|-------------|--|----|------------------------|----------|----------------|--|------------------------------|
| 종묘 13239 | 인종 상시호 옥책 | 명종 | 1757년 | 崔演 | 靑玉 黃銅 비단 | 세로: 26.4 가로: 165.7 두께: 1.8 폭: 20.1 편폭: 3.3 돌쩌귀 (玃迪耳) | 48첩 6편 48행 433자 |
| | 상시호 (獻文懿武 章肅欽孝) 및 묘호(仁宗) | 인종 | 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 | 영조 어필 | | | |
| 2 | <p>1면 : 維嘉靖二十四年歲次乙巳九月辛酉朔壬申 孤弟嗣王臣峴 謹再拜稽首上言 竊以孝莫大於繼 序 方切永慕之懷 禮尤重於易名 爰舉追崇之典</p> <p>2면 : 斯乃古今之彝法 固非臣子之私情 恭惟皇兄大王 堯欽舜文禹勤湯敬 久正儲貳之位德允協 於元良 恒加精一之功 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p> <p>3면 : 前烈 乃丕承乎洪圖惟知儉以慎厥身 寔能孝以仁若考 先收謹獨於屋漏 效既著乎修齊 未有 命戒於亮陰 道固具乎恭默試以存神過化之妙 敷此博施濟</p> <p>4면 : 衆之仁 五百年興王之符 將復見乎昭代 三十二喪予之慟 奈又減乎夢齡 何天意之難謀 閔 蒼生之無祿 豈料瘳疾之漸進 而致几席之重仍 審訓纔及於</p> <p>5면 : 元臣 末命俄遺於眇幼 恩無所怙 義無所從 徒銜恤於飭終 願揚休於節惠 摹天地畫日月 雖 盛德難於形容 垂竹帛勒瑤珉庶微稱傳諸悠久 諷吉</p> <p>6면 : 辰以獻號 陳寶冊而備儀 謹上諡曰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 廟號曰仁宗 伏冀明靈俯鑑殷禮 不顯亦世 默贊燕翼於苞</p> <p>7면 : 桑 無疆惟休 益鞏鴻基於盤石 貞聖后虞主埋安時 得諡冊一片玉於太廟後塔 節當室祝式釐 正日也 事非偶然 追慕</p> <p>8면 : 深功 敢將原本盥手以寫 重判粧緘奉安室右所得玉片 並奉穢中 皇明崇禎紀元後三 丁丑季 冬 孝曾孫嗣王臣吟拜手敬書</p> | | | | | | |



| | | | | | | | |
|-------------|---|--------------|----------------------------|-----------|----------------|--|--------------------------|
| 종묘 13252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현종 | 1687년 | 尹順之 | 靑玉 黃銅 비단 | 세로: 24.8 가로: 172.6 두께: 1.6 폭: 20 편폭: 3.9 원환(圓環) | 8첩 5편 31행 235자 |
| | 가상존호 (恭愍) | 인조계비 장렬왕후 | 辛丑 七月 戊申朔 二十七日 甲戌 | 李德成 吳竣 | | | |
| 3 | <p>1면 : 維歲次辛丑七月戊申朔二十七日甲戌 國王臣柵 稽首再拜謹奉冊上言 恭以人紀莫先崇孝 方殫報本之誠</p> | | | | | | |

2면 : 聖德宜加顯名 詎緩進冊之舉 肆揚殷禮 庸陳縟儀 恭惟慈懿大王大妃殿下 淑質柔嘉
 3면 : 天資淵靜篤生世闕 丕膺沙麓之祥 夙正坤元 允協關雎之詠 逮勛華之繼 陟尚任姒之尊 臨南國風謠 曾播葛
 4면 : 覃之化 東朝慈訓 式昭燕翼之謀 懿範既彰於家邦 善頌斯遍於中外 致一國之隆養顧不足於奉
 5면 : 親 增二字之休稱 庶可盡於歸美 茲實祖宗之成憲 非徒臣子之至情 謹加上尊號曰恭愍 伏惟
 6면 : 茂衍洪圖 誕受景命 千秋萬歲 綿壽祺而無疆 玉檢金泥 耀徽音以不朽 臣欄誠歡誠忭 稽首再拜
 7면 : 上言
 8면 : 글자 없음




| | | | | | | | |
|-------------|-------------------------|-------------|------------------------|-----|---------------------|---|--------------------------|
| 종묘 13374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 책봉 옥책 | 순조 | 1824년 | 李晩秀 | 絹, 銅, 玉, 木 | 세로: 26.7 가로: 172.9 두께: 1.5 폭 : 21 편폭: 3.2 돌쩌귀 (玆迪耳) | 8첩 6편 41행 358자 |
| | 곤전 책봉 (왕비) | 순조비 순원왕후 | 壬戌 十月 己亥朔 十三日 辛亥 | 徐邁修 | | | |

1면 : 維歲次壬戌十月己亥朔十三日辛亥 王若曰 周梁之吉日已卜 六禮咸宜 漢殿之寶冊初宣 百祿鼎至 載是琬琰 諧我琴鐘 蓋聞天地交泰而萬品
 2면 : 亨 日月儷明而四序順 王化必資內助 家人爲治平之基 邦典最重大婚 關雎居風雅之首 咨爾金氏 淑質坤厚 懿範天成 奕世忠貞 篤生塗莘之德 大家詩
 3면 : 禮 早襲蘋蘩之儀 雖彤管之含章 令聞夙著 媿黃裳之元吉 景命維新 猗歟 寧考之簡心 悅若溫音之在耳 珩珮合度 想昔日喜動
 4면 : 天顏 龜筮定祥 幸小子遙追先志 太母之明命祇奉 中壺之縟禮誕陳 承聖祖積慶之庥 佳氣集龍潛之邸 用戴經備物之義
 5면 : 是月告績之功 茲遣使臣議政府左議政李時秀 漢城府判尹李敬一 持節備禮冊 命爲王妃 朱鴈玄端 賁儀文於迎相 玉簡金篆 晉位號於配尊 彝章式
 6면 : 遵 象服是稱 於戲 孝敬卽我家法 勤儉如古后妃 齊風第一篇 炯壺戒於簪珥 女則三十卷 廣陰教於紘緼 愉愉婉容 奉
 7면 : 殿宮萬年之樂 振振嘉頌 衍本支百世之休 克贊宸極之治 永緜宗祧之慶 故茲教示想宜知悉
 8면 : 글자 없음



| | | | | | | | | |
|---|------------|------------------------|-------------|---------------------|-----|----------------|--|--------------------------|
| 5 | 신수 9235 |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 순종 | 1908년 | 金允植 | 靑玉 黃銅 비단 | 세로: 26 가로: 71 두께: 1.1 폭 : 17.4 片幅: 2.3 돌쩌귀 (玆迪耳) | 4첩 7편 18행 135자 |
| | | 추상존호 (章皇后) | 철종비 철인왕후 | 戊申 七月 甲申朔 初三日 | 洪承穆 | | | |

| | | | | | | | |
|--|--|--|-----------|--|--|--|--|
| | | | 丙戌(양7.30) | | | | |
| 1면 : 維隆熙二年歲次戊申七月甲申朔初三日丙戌 皇帝臣垢稽首頓首上言 明純徽聖正元粹寧敬 獻莊穆哲人王后金氏 伏以至哉陰功 寔贊 2면 : 聖人 洋洋其頌 肫肫其仁 粵在己亥 受命維新 上崇祖禰 配天明禋禮有未遑 若待今辰 屬 值祿將 爰及僉詢 咸曰邦禮 統序是遵 肆於 3면 : 三宗追隆之日 謹上尊號曰章皇后伏惟明靈 光膺寶典 俯答忱恂 謹言 4면 : 글자 없음 | | | | | | | |
|  | | | | | | | |

이 중에서 ‘인종 상시호 옥책(仁宗 上諡號 玉冊)’을 대표로 선택하여 살펴보겠다. 이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명종 즉위년(1545) 인종(1515~1545)에게 ‘헌문의무 장숙흠효(獻文懿武章肅欽孝)’라는 시호와 ‘인종(仁宗)’이라는 묘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옥책이다. 시호에서 총명예지(聰明睿智)를 ‘헌(獻)’이라 하고, 도덕박문(道德博問)을 ‘문(文)’이라 하고, 체화거중(體和居中)을 ‘의(懿)’라 하고, 강강직리(剛強直里)를 ‘무(武)’라 하며, 경신고명(敬愼高明)을 ‘장(章)’이라 하고, 집심결단(執心決斷)을 ‘숙(肅)’이라 하고, 위의를비(威儀悉備)를 ‘흠(欽)’이라 하고, 병덕불회(秉德不回)를 ‘효(孝)’라 한다는 뜻이다. 이 옥책 편은 1편만 남아 있는데, 『영조실록(英祖實錄)』권90 영조 33년 12월 10일 무진일에 “우주(虞祭 때 사용하는 神主)를 매안할 때에 한 조각 옥을 태묘의 후계에서 얻었는데, 16자의 각문이 완연히 보였으므로 삼가 열성지장을 상고하여 보니, 바로 인종의 시책이었습니다[虞主埋安時, 得一片玉於太廟後階, 十六字刻文宛然可見, 故謹考列聖誌狀, 則是仁宗諡冊也].”는 기사가 보인다. 인조 14년(1636) 12월 병자호란의 발발로 종묘에 매립되었다가, 영조 33년(1757) 종묘에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옥책 편은 동으로 사각형의 틀을 만들어 넣었는데, 안은 청색이고 밖은 붉은색인 비단으로 갑(匣)을 만들고, 나무로 함을 만들어 넣었다. 봉안장소는 종묘 영녕전 제10실이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옥책은 명종이 발급(發給)하고 인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545년(명종 즉위년, 乙巳)이고 수여는 을사 구월 신유삭 십이일 임신(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이다. 제술관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최연(崔演, 1503~1549)²⁰⁶⁾

206) 최연(崔演, 1503~1549)은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자는 연지(演之)이며, 호는 간재(艮齋)이고 부친은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최세건(崔世健, 1484~1541)이다. 1519년(중종 14) 사마시를 거쳐 1525년(중종 20)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고, 이어 저작에 올랐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설서·사서를 거쳐 1531년(중종 26)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을 고변하고 홍문관수찬에 올랐다. 이후 병조좌랑·원접사(遠接使)·충청도어사·부제학·대사간·동

이고, 서사관은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 이문건(李文楗, 1494~1567)²⁰⁷⁾이다. 재질은 옥(玉)·동(銅)이고, 크기는 세로 27.3cm, 가로 3.5cm, 두께 2.7cm, 폭 3.5cm, 편폭(片幅) 3.5cm이며, 무게는 0.3kg이다. 1첩 1편이고 1행 13자이며, 서체는 해서이다. 내용은 ‘성스러움 또한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능히 이전의 공렬을 잇고[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前烈 乃]’이다.

다른 하나는 1545년(명종 즉위년, 乙巳) 제작한 것이 병자호란 발발로 매립되었으나 영조 33년(1757) 종묘에 영조의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니, 다시 제작된 후 종묘 영녕전 제10실에 봉안하였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옥책은 명종이 발급(發給)하고 인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757년(영조 33)이고 수여는 을사 구월 신유삭 십이일 임신(乙巳 九月 辛酉朔 十二日 壬申)이다. 제술관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최연(崔演)이고, 서사관은 영조 어필이다. 재질은 청옥(靑玉)·동(銅)·비단이고, 크기는 세로 26.4cm, 가로 165.7cm, 두께 1.8cm, 폭 20.1cm, 편폭(片幅) 3.3cm이며, 무게는 17.8kg이다. 8첩 6편이고 48행 433자이며, 서체는 해서이고 연첩 방식은 돌쩌귀(玆迪耳)이다. 내용은 인종의 뛰어난 자질을 찬양하고, 그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말미에는 영조가 직접 작성한 옥책의 발견 및 중수(重修)의 경위를 기록하였다.

다. 옥책의 내용

을사년(1545, 명종 즉위) 9월(초하루 신유일) 12일(임신) 고제(孤弟, 선왕 인종의 혼령에 대해 자신을 指稱)인 사왕(嗣王) 신 환(峘, 명종의 이름)은 삼가 재배하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올립니다.

생각컨대, 효는 대를 잇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바야흐로 영원히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예(禮)는 역명(易名, 이름을 바꿈)에 있어 더욱 중요하므로 이에 추숭(追崇)하는 전례(典禮)를 거행합니다. 이것은 고금의 떳떳한 법이니 진실로 신하의 사사로운 정리(情理)가 아닙니다.

부승지·좌승지를 역임하고 1545년(명종 즉위년) 도승지에 올랐으며,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동원군(東原君)에 봉해졌다. 1548년(명종 3) 지중추부사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거쳐 이듬해 동지사로 명나라에 가던 중 평양에서 병사하였다. 좌찬성 겸 대제학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시문에 능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서·책문을 주로 담당했고, 어제시(御製詩)에 항상 수석 또는 차석을 차지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저서는 『간재집(艮齋集)』이 있다.

207)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은 본관이 성주(星州)이고 자는 자발(子發)이며, 호는 묵재(默齋)·휴수(休叟)이고 부친은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이운탁(李允濯, 1462~1501)이다. 조광조(趙光祖)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1513년(중종 8)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21년(중종 16)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루되어 낙안(樂安)에 유배되었다. 1527년(중종 22) 사면되어 이듬해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주서에 발탁되어 승문원박사·정언·이조좌랑·승문원판교를 지냈다. 명종이 즉위하고 윤원형(尹元衡) 등에 의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죽친 이휘(李輝)가 화를 입었고, 이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성품이 근후했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23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경사(經史)에 탐닉하고 시문에 힘썼다. 이후 이황(李滉)·조식(曹植)·성수침(成守琛)·이이(李珥) 등이 그의 시문을 즐겨 읊었다고 한다. 괴산의 화엄서원(花嚴書院)에 제향되었고, 부친을 위해 1536년(중종 31)에 쓴 <서울 이운탁 한글 영비(서울 李允濯 한글靈碑)>(보물)는 우리나라 비문으로서 한글로 쓴 최초의 묘비문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형대왕(皇兄大王)께서는 요임금처럼 삼가고 순임금처럼 빛나며, 우임금처럼 부지런하고 탕임금처럼 공경스러워서 오랫동안 저이(儲貳)의 자리에 바르게 계시었으며, 덕은 진실로 원량(元良)에 부합되었습니다. 항상 정일(精一)한 공(功)을 더하여 성스러움은 또한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에 도달하였으니 비로소 지난날의 공적을 이어 홍도(洪圖)를 크게 계승하였습니다. 오직 검소함을 알아 그 몸을 삼가고 참으로 효도를 잘하여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먼저 옥루(屋漏, 방 안의 서북쪽 모퉁이)에서 근독(謹獨, 즉 慎獨)을 닦아 그 효과가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양음(亮陰, 임금이 喪中에 있음) 중에는 훈계와 명령이 없으니 도리가 참으로 공손함과 과묵함을 갖추게 되었고, 존신과화(存神過化, 머무는 곳은 신성하게 되고 지나가는 곳은 감화되는 것)하는 묘(妙)로써 시험하여 널리 베풀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인(仁)을 펼쳤습니다. 5백 년마다 왕자(王者)가 나는 상서(祥瑞)를 밝은 세대에 다시 보려 하였는데, 슬프게도 32세에 나를 버리시니 어찌하여 또 몽령(夢齡, 제왕의 수명)을 줄이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처럼 하늘의 뜻은 믿기가 어렵습니까? 백성들의 복없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어찌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궤석(几席, 神主를 모시는 곳)이 거둬 설치됨에 이르게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상세한 가르침이 원신(元臣)에게 이르고, 말명(末命, 임금이 죽을 때에 남긴 마지막 명령)이 갑자기 어리고 작은 저에게 남겨지니 은혜는 의지할 곳이 없고, 의리는 따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식종(飾終, 飭과 飾은 통하니 죽은 이에 대해 마지막 예를 꾸미는 것)함에 슬픔을 머금고 절혜(節惠)에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를 바랄 뿐인데, 하늘과 땅을 베끼고 해와 달을 그려서 비록 성대한 덕을 표현하기 어렵더라도 죽백에 전하고 요민(瑤珉)에 새기면 아름다운 칭호가 영원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길일을 가려 칭호를 바치는데, 보책(寶冊)을 드리고 의례(儀禮)를 갖추며, 삼가 시호(諡號)를 올리어 ‘헌문의무 장숙흠효 대왕(獻文懿武 章肅欽孝 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는 ‘인종(仁宗)’이라 합니다. 명령(明靈,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은 성대한 예를 굽어 살피시어 드러나지 않고 대대로 포상(苞桑, 苞桑之計로 근본을 먼저 굳건히 하는 계책)에 연익(燕翼, 조상이 자손을 도와 편안하게 하는 계책)함을 말없이 도우시고, 한없이 아름답게 반석(盤石)에 왕업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우주(虞主, 虞祭 때 사용하는 神主)를 묻어서 안치할 때에 태묘(太廟) 뒷 계단에서 시책(諡冊)의 옥 한 조각을 얻었습니다. 때가 종묘의 축식(祝式)을 바로잡아 고치는 날이고 일이 우연스럽지 않아서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었습니다. 감히 원본(原本)을 관수(盥手,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손을 깨끗이 씻는 절차)하고 베껴서, 다시 만들어 단장해 태실(太室) 오른쪽에 봉안(奉安)하고 얻은 옥 조각도 상자 안에 모셨습니다.

명나라 송정(崇禎, 1628~1644) 기원(紀元) 후 세 번째 정축년(1757) 12월에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 금(吟, 영조의 이름)이 두 손 모아 절하고 삼가 글을 썼습니다.

維嘉靖二十四年歲次乙巳九月辛酉朔壬申 孤弟嗣王臣峴 謹再拜稽首上言 竊以孝莫大於繼序 方切永慕之懷 禮尤重於易名 爰舉追崇之典 斯乃古今之彝法 固非臣子之私情 恭惟皇兄大王 堯欽舜文禹勤湯敬 久正儲貳之位 德允協於元良 恒加精一之功 聖亦造於天縱 肆克紹夫前烈 乃丕承乎洪圖 惟知儉以慎厥身 寔能孝以仁若考 先收謹獨於屋漏 效既著乎修齊 未有命戒於亮陰 道固具乎恭默 試以存神過化之妙 敷此博施濟衆之仁 五百年興王之符 將復見乎昭代 三十二喪予之慟 奈又減乎夢齡 何天意之難諶 閔蒼生之無祿 豈料熒疾之漸進 而致几席之重仍 審訓纔及於元臣 末命俄遺於眇幼 恩無所怙 義無所從 徒銜恤於飭終 願揚休於節惠 摹天地畫日月 雖盛德難於形容 垂竹帛勒瑤珉 庶徽稱傳諸悠久 諷吉辰以獻號 陳寶冊而備儀 謹上諡曰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 廟號曰仁宗 伏冀明靈 俯鑑殷禮 不顯亦世 默贊燕翼於苞桑 無疆惟休 益鞏鴻基於盤石 貞聖后虞主埋安時 得諡冊一片玉於太廟後堦 節當室祝式釐正日也 事非偶然 追慕烝功 敢將原本盥手以寫 重判粧緘奉安室右 所得玉片 並奉櫛中 皇明崇禎紀元後三丁丑季冬 孝曾孫嗣王臣吟拜手敬書

라. 옥책의 옥책의 서체

‘인종 상시호 옥책(1545년)’의 ‘聖亦造於天縱肆克紹夫前烈乃’는 ‘인종 상시호 옥책(1757년)’ 제2면 6행의 ‘聖亦造於天縱肆克紹夫’, 제3면의 1행 ‘前烈乃’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제술관은 모두 최연(崔演)이지만, 서사관은 전자가 이문건(李文健)이고 후자는 영조(英祖, 1694~1776) 어필이어서 글씨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제작 시기에 의하면, 이문건은 51세이고 영조는 63세에 썼다.



영조어필, 1757년



이문건, 1545년



이문건



이문건은 중종 때의 명필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4권 「문예전고(文藝典故)」에서 글씨에 능하고 병풍과 족자를 잘 꾸몄다고 하였으며, 『해동호보(海東號譜)』에는 그림에도 능했다고 하였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서는 송시열이 지은 행장을 인용하여 이르길, “널리 여러 글씨에 통달하고 필법이 한 시대에 뛰어나서 당시의 같은 또래들이 그를 추대하여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글씨를 칭하는 자가 있으면 초서나 해서를 가리지 않고 당장 휘둘러 써 주었다.”라고 하였다. 저서는 『묵재집(默齋集)』·『묵휴창수(默休唱酬)』·『묵재일기(默齋日記)』가 있다. 『묵재일기』는 1535년에서 1567년까지 쓴 방대한 분량의 일기를 초서로 썼다. 『묵휴창수』는 교유하던 유럽 제현의 화답시를 묶은 친필본이다. 또 부친을

위해 1536년(중종 31)에 쓴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서울 李允濯 한글靈碑)>(보물)는 우리나라 비문으로서는 한글로 쓴 최초의 묘비문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영조 또한 서화가로 부왕 숙종의 영향을 받아 글씨 쓰기를 좋아해 독자적 서풍을 나타내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서예작품이 전한다. 전반기는 송설체 이외에 왕희지체를 구사하였는데, 자신이 이해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왕희지체에 비해 가늘고 긴 필획이 많은 것을 주요 특징으로 삼았다. 후반기, 특히 1760년 무렵에는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세로획 혹은 날획 등을 부분적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한편 일부 필획은 짧게 처리하며, 이전보다 약간 기괴하고 자유분방하며 속도감이 있는 운필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전문적 서예가보다는 군왕으로서 모범적 서체를 갖추기 위해 서예작품에 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아하면서 방정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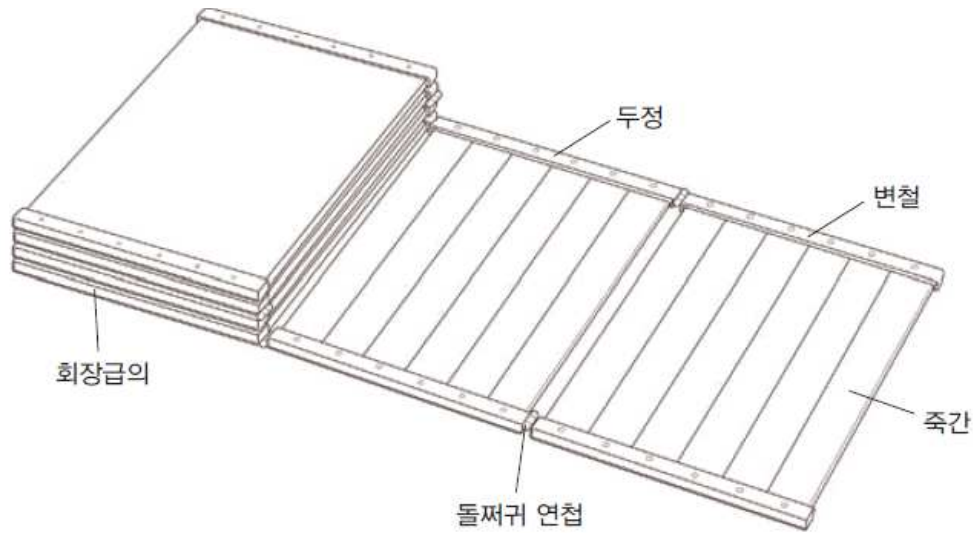
이문건과 영조가 쓴 글씨는 내용이 같고 같은 해서이지만, 용필·결구·서풍은 같지 않다. 용필에서 가장 다른 점은 가로획의 가로와 날획의 각도이다. 예를 들면, ‘聖·亦·天·克·夫’자 등의 가로획에서 이문건을 길게 처리하고 영조는 짧게 처리하였으며, ‘於’자의 오른쪽 ‘人’에서 오른쪽 필획은 이문건은 짧게 처리하였고 영조는 길게 처리하였다. 또 ‘造·縱·夫’자에서 마지막 날획에서 이문건은 45~55° 정도로 곧게 처리하였고, 영조는 글씨를 감싸거나 35° 정도로 처리하여 횡으로 벌어지면서 조금 들린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용필은 결구에도 영향을 주어 이문건의 결구는 긴밀하고 장방형을 이루면서 종세의 필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영조는 성글고 정방형 내지는 편방형을 이루면서 횡세의 필세를 나타내었다. 서풍은 세련되고 원숙하며 안온함을 나타낸 이문건에 비해 영조는 너그럽고 전아하며 방정한 느낌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문 서예가와 군왕으로서 모범적 서체를 갖춘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2) 죽책

가. 죽책의 개요

죽책(竹冊)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에도 죽책을 사용한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敎命)과 책인(冊印)을 수여한다. 죽책의 형태는 죽간(竹簡) 5~6조각을 한 폭으로 변철(邊鐵)로 엮어 4~10첩으로 연결하였고, 처음과 마지막 첩은 비단으로 장식하였다. 글자는 해서로 써서 새기고 니금(泥金)을 하며, 연첩(連貼) 방식은 변철로 고정하고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원환(圓環)과 양쪽 첩과 첩 사이의 배목(排目)에 못 형태의 둥근 쇠를 넣어 고정하는 돌쩌귀(玆迪耳) 두 가지가 있다. 1649년(효종 원년)부터 1736년(영조

12년)까지는 원환 방식이고, 1744년(영조 20)에 제작된 ‘장조비 헌경왕후 봉왕세자빈 죽책’은 돌쩌귀 방식인데, 1752년(영조 28)에 제작된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은 다시 원환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후에는 모두 돌쩌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책의 앞뒷면에는 비단으로 회장하여 장식한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지만, 문장은 사육변려문(四六駢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며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이다.



<죽책 돌쩌귀(玃迪耳) 연첩방식(連貼方式) 각부 명칭>

죽책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건국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까지이고, 봉안 장소는 종묘 신실(神室)과 사묘(祠廟)이다.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곳으로 신실에는 신주와 함께 어보(御寶)·어책(御冊)·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을 봉안해 둔다. 사묘는 종묘 신실에 봉안되지 못한 의소세손(懿昭世孫)이나 문효세자(文孝世子) 같은 분들과 후궁들의 신주, 그리고 어보와 어책을 봉안한 곳이다. 죽책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왕세자·왕세자빈·후궁 등이다. 왕세자·왕세자빈을 책봉할 때는 현재 왕이 발급하여 수여한다. 후궁일 경우에는 시호를 받을 때만 죽책을 사용하는데, 역시 왕이 발급하여 후궁에게 수여한다. 그런데 당대의 왕은 발급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대체로 후대 왕비가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죽책문(竹冊文) 형식은 대두(擡頭)를 사용하고, 글자를 배정할 때 극항(極行, 글줄의 최상단)은 12글자, 중항(中行, 글줄의 중간)은 11글자, 평항(平行, 글줄이 같은 높이)은 10글자인데, 행수(行數)는 지은 글의 다소에 따른다. 문장은 사육변려문(四六駢儷文)이고, 기두(起頭)는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여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마무리된다. 죽책에는 수여한 날짜를 기록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간지(년)+모월+모일’이고, 다른 하나는 ‘청나라 연호(順治, 康熙)+모년+모월+모일’이다.



죽책 제작은 제술(製述)→출초본서사(出草本書寫)→품정(稟定)→초도서서사(草圖書書寫)→정본서사(正本書寫)→북칠(北漆)→전금(填金)→작첩(作貼)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제술’은 죽책에 새길 글을 짓는 것이고, 제술관은 이를 완성하여 예문관에 제출하면 서사 형식을 가정하여 초도서서사관(草圖書書寫官)을 확정하는데 이를 ‘품정’이라 한다. 초도서서사관은 이를 해서로 쓰는데, 이를 ‘초도서서사’라 한다. ‘정본’은 죽책문을 죽간에 새기기 위해 서사관이 단정하게 쓴 것이고, ‘정본’을 죽간에 붙이는 것을 ‘북칠’이라 한다. 그런 다음 각수(刻手)가 글자를 새기고, 새긴 곳에는 니금(泥金)이라 하여 금가루로 메워 칠하는데 이를 ‘전금’이라 한다. 전금이 끝나면 죽간을 연결하여 첩(貼)의 형태로 만들어 완성한다. 이 과정에 참여한 장인들은 평균 40~50명으로 전문성에 따라 분화된 당시 수공업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죽책문은 제술관(製述官)이 작성한다. 제술관은 조선 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벼슬로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전례문(典禮文)을 전담하여 짓는 관리이다. 제술관의 특별한 자격 요건은 미리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죽책문을 짓는 요건인 변려문(駢儷文)의 문장력을 갖춘 고위 직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고 신분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니고 문장력이 뛰어난 고급 관원이 맡았다. 서사관(書寫官)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비단과 대나무에 직접 글을 쓰거나 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서사관 또한 제술관과 같이 중요한 관직과 명망을 갖추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서사관에 대해서도 실록이나 의궤에서는 자격 요건을 기술한 것은 없다. 죽책을 제작하기 위해 글자를 쓰는 것을 고려할 때 서사관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전하는 죽책은 43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34점이고 조사대상은 2점이다.

나. 죽책의 현상

죽책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모두 34점이고,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1649), 장조 추상시호 죽책(1776) 2점이다.

| No. | 신 번호 | 명칭 | 發給 | 제작시기 | 제술관 | 재질 | 크기(cm) | 字數 |
|-----|-------------|-------------------|----|-------|-----|-------------|----------------------------------|------------------|
| | | 분류 | 受給 | 수여시기 | 서사관 | | | |
| 1 | 종묘 13481 |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 인조 | 1649년 | 趙綱 | 竹 銅 絹 | 세로: 25.5 가로: 73.5 두께: 0.54 | 4첩 6편 23행 |

| | | | | | | | |
|--|--|----|--------------------|----------|-------------|---|------------------------------|
| | 저위책봉 (왕세자) | 현종 | 기축(1649) 2월 18일 | 吳竣 俞掄 | | 폭 : 16.7 편폭: 2.7 원환(圓環) | 220자 |
| <p>1면 : 維順治六年歲次己丑二月庚寅朔越十八日丁未, 王若曰: 君子抱孫, 禮經所載; 大統正嫡, 宗法所先. 此義通於古今, 介福關於家國. 粵予涼德以承緒, 恒懼天命</p> <p>2면 : 之靡常, 幸賴列聖之垂庥, 乃有元良之錫羨. 咨爾元孫欄, 神氣外朗, 胚胎前光, 教讓之年已盈, 成德之期何遠. 傾耳拭目, 可見百姓之心; 定號命名, 宜</p> <p>3면 : 副羣工之請. 是用, 命爾爲王世孫. 爾其幼志是屏, 玩好是防. 敬恭父母之傍, 說繹忠正之訓. 鷄鳴衣服學問, 寢於龍樓; 蠹簡縱橫傲親, 師於鶴禁. 孝悌而已, 習</p> <p>4면 : 慣自然. 於戲, 豐水歌詩, 詒厥之謀由祖; 赤爵呈瑞, 興周之慶在昌. 誕敷彝章, 備書簡冊. 故茲教示, 想宜知悉.</p> | | | | | | | |
|  | | | | | | | |
| 종묘 13499 | 장조 추상시호 죽책 | 정조 | 1776년 | 黃景源 | 竹 銅 絹 | 세로: 25 가로: 178.3 두께: 0.5 폭 : 16.7 편폭: 2.7 돌쩌귀(軋迪耳) | 10첩 6편 51행 341자 |
| | 상시호 (莊獻) | 장조 | 병신(1776) 8월 17일 | 徐命善 | | | |
| 2 | <p>1면 : 維歲次丙申八月丙子朔十七日丙辰, 從子國王祚, 謹稽首再拜上冊. 竊以, 秩祀以廣祇敬, 是有國之常經; 顯美以答</p> <p>2면 : 劬勞, 乃亘古之徽則. 誠禮兩盡, 感喜交深. 伏惟皇叔父思悼世子, 凝重之儀, 淵懿爲性. 綦綦翼翼, 允矣肅廟之有神孫; 瑜珮將將, 猗歟</p> <p>3면 : 英考之冊元子. 睿明遂攝於庶政; 溫文架著於重暉. 開賓對而詢廊廟之謨, 聲教克廣; 代宸聽而理國家之事, 獄訟悉歸. 垂</p> <p>4면 : 十四年, 臨玄端視朝之位; 佇千萬世, 基朱芾凝命之祥. 念茲眇躬之受同, 實由春邸之毓祉. 冊辰纘</p> <p>5면 : 九章之服, 熒熒銜哀; 青盖想七旒之光, 戚戚增疚. 欽遵繼體之明命, 既盡尊宗之誠; 緬思</p> <p>6면 : 撫首之至恩, 詎無報本之道. 爰稽儀節, 聿建宮園. 侑以雅樂三成, 中呂. 姑洗之并奏; 殺於清廟一等, 大武. 柔毛之具陳. 茲將</p> <p>7면 : 闡徽之忱, 誕舉進冊之禮. 莊然後, 剛德克就, 如覲粹容. 獻也者, 智質有釐, 庶合懿行. 謹奉竹冊, 加上</p> <p>8면 : 諡號曰莊獻. 伏惟冀回明鑑, 俯格微衷, 金篆昭休, 並星辰而齊耀; 竹冊揚</p> <p>9면 : 烈, 與天壤而久存. 祚稽首再拜上冊.</p> <p>10면 : 글자 없음</p> | | | | | | |
|  | | | | | | | |

이 중에서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顯宗 王世孫冊封 竹冊)’을 대표로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 죽책은 1649년(인조 27)에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것이다. 현종(1641~1674)은 효종의 맏아들이며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소생으로, 이름은 연(漣), 자(字)는 경직(景直)이다. 효종이 심양(瀋陽)에 볼모로 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으며, 1649년(인조 27) 왕세손에 책봉되고 1651년(효종 2) 세자에 책봉되었다. 1659년에 등극하여 15년 3개월 동안 재위하였고 창덕궁에서 승하하였다.

이 죽책은 인조가 발급(發給)하고 현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649년(인조 27)이고 수여는 기축년(1649) 2월 18일이다. 제술관은 대제학(大提學) 조경(趙綱, 1586~1669)²⁰⁸이고, 서사관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오준(吳竣, 1587~1666)²⁰⁹과 공조참의(工曹參議) 유험(兪掄, 1599~1655)²¹⁰이다. 재질은 대나무[竹]·동(銅)·견(絹)이고, 크기는 세로 25.5cm, 가로 73.5cm, 두께 0.54cm, 폭 16.7cm, 편폭(片幅) 2.7cm이며, 무게는 1,032g이다. 4첩 6편이고 23행 220자이며, 극항(極行)은 12글자이고 평항(平行)은 10글자이다. 연첩방식(連貼方式)은 변철(邊鐵)로 고정하고 둥근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원환(圓環)이다. 내용은 왕통을 이어갈 적자(嫡子)를 세우는 것이 국가의 명운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세손(世孫)을 세운다고 한 뒤에, 세손은 타고난 천성이 어질고 자질이 뛰어난을 칭찬하며,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면서 효성과 우애, 신중과 공경, 학문에의 매진 등을 훈계하였다. 봉안장소는 종묘 정전 제10실이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08) 조경(趙綱, 1586~1669)은 본관이 한양(漢陽)이고 자는 일장(日章)이며, 호는 용주(龍洲)·주봉(柱峯)이고 부친은 봉사(奉事) 조익남(趙翼男, 생몰 미상)이며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의 문인이다. 1612년(광해군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광해군의 난정(亂政)으로 대과를 단념하고 거창에 은거하였다. 1626년(인조 4)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정언·교리·헌납 등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이어 이조좌랑·이조정랑을 거쳐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사간으로 칩화(斥和)를 주장하였고, 1643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기행문을 저술하였다. 이어 형조참의·대사간·대제학, 이조·형조의 판서 등을 거쳐 1653년 회양부사를 지내고 포천에 은퇴하였으며, 1658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661년 관중추부사로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상소를 변호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받고 파직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고, 저서는 『용주집(龍洲集)』 23권과 『동사록(東槎錄)』이 있다.

209) 오준(吳竣, 1587~1666)은 본관이 동북(同福)이고 자는 여완(汝完)이며, 호는 죽남(竹南)이고 부친은 이조참판 오백령(吳百齡, 1560~1633)이다. 1618년(광해군 10)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주서(注書)를 거쳐 지평·장령·필선·수찬 등을 지냈다. 1639년(인조 17) 한성부판윤으로 주청부사(奏請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같은 해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보내라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비문을 써서 보냈다. 1643년 등극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50년(효종 1) 예조판서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뒤 형조판서·대사헌·우빈객·좌참찬을 거쳐 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서 국가적인 행사의 서사를 도맡았고, 왕가의 길흉책문(吉凶冊文)과 수많은 공사(公私)의 비명을 썼다. 특히 왕희지체를 따라 단아한 모양의 해서를 잘 썼다. 저서는 『죽남당집(竹南堂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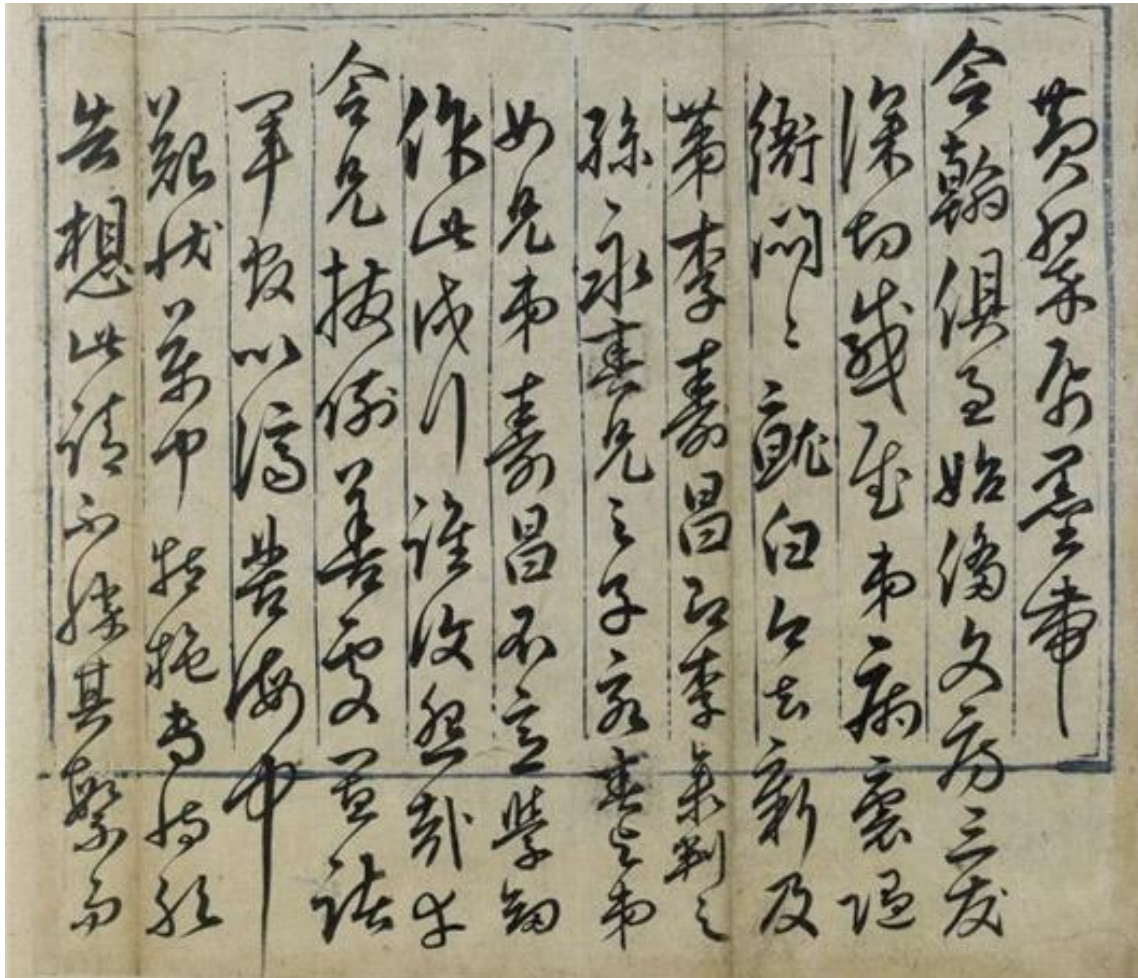
210) 유험(兪掄, 1599~1655)은 본관이 기계(杞溪)이고 자는 전숙(典叔)이며, 호는 봉주(鳳洲)이고 부친은 관찰사 유성증(兪省曾, 1576~1649)이고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문인이다.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했고, 금오랑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633년 상운찰방(祥雲察訪)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괴원(槐院, 承文院의 다른 이름)에 배속되어 검열·대교·봉교를 거쳐 전직에 올랐다가 병조좌랑을 거쳐 지평에 보임되었다. 이후 헌납·이조참의 겸 시강원문학을 거쳐 병조참의·부승지 등을 역임하고 1648년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승지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공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철저한 배척승명과 노선을 걸었고, 호란이 끝난 뒤에서 참상을 잊지 말 것을 역설하였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다. 죽책의 내용

순치(順治) 6년 기축년(1649, 인조 27) 2월[초하루 경인일] 18일(정미)에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자가 손자를 가슴에 품는 것은 『예경禮經』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제왕의 지위를 이어갈 때 적자(嫡子)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종법(宗法)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의리는 옛날이나 지금에 통용되는 것이고, 큰 복록은 가국(家國)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덕이 부족한 내가 왕통을 계승하여 천명이 일정하게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두려워하였다. 다행히 선대의 여러 성왕께서 드리워주신 홀륭함에 의지하였기에 신명(神明)이 복을 내려주어 원량(元良, 世子の 代稱인데, 여기에서는 世孫을 이룸)을 두었다. 아, 너 원손(元孫) 연(欄)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밖으로 밝게 드러나고 선조의 공덕을 품고 있다. 교양(教讓, 사양함을 가르침)의 나이인 8세가 이미 짝 찼으니, 덕을 이룰 시기가 어찌 멀겠는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닦고 보면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호를 정하고 이름을 지어 모든 관원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너를 왕세손으로 명한다. 너는 마땅히 어린 아이의 마음을 숨기고 노리개를 멀리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곁에서 삼가 공손하며,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그 의미를 잘 찾아내야 한다. 새벽답이 울면 의복을 정제하고 학문에 매진하다가 용루(龍樓, 세손의 거처)에서 잠들며, 좀이 슨 옛 책을 종횡으로 가까이 하여 학금(鶴禁, 세손의 거처)에서 배우라. 오직 효성과 공손일 뿐이니, 습관을 들이면 저절로 천성처럼 된다. 아, 풍수(豐水)를 노래한 시가 있으니(『詩經·大雅·文王有聲』)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내려주는 것은 그 조상으로 말미암고, 붉은 새가 상서로움을 드러내니 주(周)나라를 일으킨 경사는 창(昌, 文王의 이름)에게 있었다. 몇몇한 법도를 널리 반포하여 간책(簡冊)에 글을 갖추어 쓴다. 이상의 이유로 이렇게 교시하니 아마 나의 뜻을 잘 알 것이다.

維順治六年歲次己丑二月庚寅朔越十八日丁未，王若曰：“君子抱孫，禮經所載；大統正嫡，宗法所先。此義通於古今，介福關於家國。粵予涼德以承緒，恒懼天命之靡常，幸賴列聖之垂庥，乃有元良之錫羨。咨爾元孫欄，神氣外朗，胚胎前光，教讓之年已盈，成德之期何遠。傾耳拭目，可見百姓之心；定號命名，宜副羣工之請。是用，命爾爲王世孫。爾其幼志是屏，玩好是防。敬恭父母之傍，說繹忠正之訓。鷄鳴衣服學問，寢於龍樓；蠹簡縱橫傲親，師於鶴禁。孝悌而已，習慣自然。於戲，豐水歌詩，詒厥之謀由祖；赤爵呈瑞，興周之慶在昌。誕敷彝章，備書簡冊。故茲教示，想宜知悉。”

라. 죽책의 서체



<오준의 간찰, 28×24cm, 『근묵(權墨)』>

서사관은 비록 오준(吳竣)과 유황(兪攄) 두 사람이지만, 유황은 서예의 명성이 높지 않고 오준은 당시 글씨를 잘 써서 국가적인 행사의 서사를 도맡았음을 고려하면 이 죽책은 그가 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 오준은 1639년 주청부사(奏請副使)를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중국을 다녀와 견문을 넓혔고, 그가 다양한 서화를 소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서예는 한호(韓濩, 1543~1605)에게 배운 뒤 왕희지체를 깊이 연찬하였다. 그의 필적은 한호의 해서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고 필획이 정교하면서 법도가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차출되며, 단정하고 전형적인 글씨를 많이 남겼다. 따라서 청나라 사신이 와서 명필의 글씨를 요구할 때마다 그의 필적을 얻어갔다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차례 보인다. 구례의 <화엄사벽암대사비(華嚴寺碧巖大師碑)>(1663)를 포함한 비갈 글씨가 여러 점 전하는데, 대부분 한호의 소해서 서풍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근묵(權墨)』에 그의 간찰을 수록하였는데, 한호에 비해 필획이 좀 거칠고 비후(肥厚)한 경향을 보인다.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의 서체>

이 죽책의 서체는 해서이고 필법이 정교하며 단정한 서풍이 돋보인다. 필획은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곧으며, 간격은 고르면서 넓어 균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가로획의 기필은 모난 방필(方筆)로 필봉을 드러내어 조금 길게 처리하였고, 수필은 회봉(回鋒)을 하면서 굽게 눌러 누에머리의 잠두(蠶頭)를 형성하였다. 세로획은 곧으며, 가로획과 세로획을 연결하여 전환하는 전절(轉折) 부분은 부드러우면서 안쪽으로 향해 세련된 결구를 이루었다. ‘ㄷ’는 행서 필의로 연결하였고, 점은 ‘ㄱ’ 형태를 이루었다. 2~3개 단독자를 합친 합체자 ‘縱·橫·傲’자 등은 서로 피하거나 양보하는 피양(避讓)과 암수가 짝을 이루는 빈모(牝牡) 등의 수법을 운용하여 성글거나 긴밀하지 않으면서 원만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좌우의 빠침이나 날획을 길게 처리하여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마저 나타내었다. ‘屏’자에서 왼쪽 빠침의 약획(掠畫)을 밖으로 향해 길게 빼쳐서 가운데 공간을 너그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可’자의 마지막 필획은 일반적으로 갈고리의 적획(趯畫)으로 처리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래로 향해 조금 빼쳐서 오히려 시원하고 넓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之’자의 날획은 일파삼절(一波三折)과 제비 꼬리의 연미(燕尾)가 아니라 길게 늘어지게 하여 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본받았다. 이상의 용필(用筆)은 굳세고 강한 서풍보다는 부드럽고 연미한 서풍을 나타내기엔 안성맞춤이었다.

결구는 글자에 따라 장방형·정방형·편방형을 자유자재로 섞어 작은 변화를 나타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조화와 통일을 이루었다. 특히 필획·자간·행

간이 고르고, 필획이 많은 글자는 너그럽게 하며, 필획이 적은 글자는 중궁(中宮)을 향해 모이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口’는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하여 가운데로 모이도록 하였으며, ‘六’에서 윗부분은 중궁을 향해 모이고 아랫부분은 밖으로 향해 펼쳤다. 서풍은 석봉체(石峯體)·왕희지체(王羲之體)·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본받아 전아하고 단정하며 안온하여 죽책의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겠다.

(3) 금책

가. 금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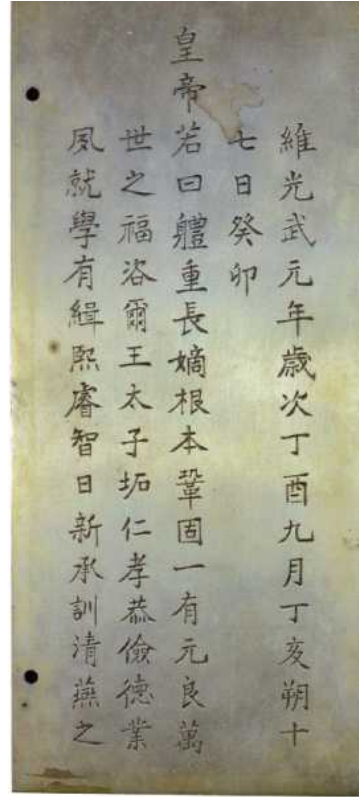
금책(金冊)은 황실에서 책봉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이다. 이는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왕실을 황실로 격상시킨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책문이다. 조선이 옥책과 죽책이었다면, 금책은 대한제국이 자주권 확보를 위해 천자국의 예를 행한 상징적인 의물(儀物)이다. 금책은 1897년에서 1910년 7월 24일에 이르기까지 16건이 제작되었고, 용도는 책봉으로 제한하였다. 발급(發給)은 황제이며, 수급(受給)은 승통에 속하는 황후·황태자·황태자비는 물론이고 친왕·친왕비와 황제의 후궁인 귀비와 황귀비 등이다. 이들 신분에 따라 금책 문양이 구분되는데, 초룡(草龍)은 황후·황태자·황태자비, 쌍翟(雙翟)은 황귀비, 반이(蟠螭)는 왕(親王)과 왕비(親王妃)에 새겼다. 제작된 16건의 금책 가운데 현재 소장처가 파악되는 금책은 7건으로 국립고궁박물관(3건)·국립중앙박물관(1건)·서울역사박물관(3건)에서 소장하고 있다.

금책의 내용은 책봉의 배경, 인물의 인적 사항과 평가(칭송), 책봉 선언문, 당부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금책은 두 개의 금편에 글을 새기고, 붉은색 끈으로 엮어 책처럼 접었다 펴는 형태이다. 금책 역시 옥책이나 죽책과 마찬가지로 제술(製述)→서사(書寫)→회장(回粧)으로 이루어지며, 제술과 서사는 금책문 제술관과 서사관이 담당하였다. 회장은 북칠(北漆)→각자(刻字)→전자(填字)→작첩(作貼)의 각 과정을 전문 공장(工匠)이 담당하였다. 금책의 규모는 문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2개 금편으로만 제작되었는데, 1개 금편의 행수는 4~7행, 1행의 글자 수는 11~19자이다. 금책은 글자 면에 붉은색 안료인 당주홍(唐朱紅)을 채웠다. 또 뒷면을 붉은색 비단으로 배접하고, 상하좌우 4변의 가장자리에 문양을 새겼다. 금책문제술관(金冊文製述官)은 홍문관대학사(弘文館大學士, 3명 8건)·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3명 4건)·규장각대학사(奎章閣大學士, 1명 3건)·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1명 1건)이다.

현전하는 금책 7점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모두 3점으로 ‘고종비(高宗妃) 명성황후(明成皇后) 황후책봉(皇后冊封) 금책(金冊, 1897), 순종(純宗) 황태자책봉

(皇太子冊封) 금책(金冊, 1897), 순종비(純宗妃)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황후추봉(皇后追封) 금책(金冊, 1907)’ 등이다.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과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추봉 금책’ 2점이다. 이것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금책 1점을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나. 금책의 현상

| No. | 신 번호 | 명칭 | 發給 | 제작시기 | 제술관 | 재질 | 크기(cm) | 字數 |
|--|----------|---|----|--|-----|----|---|--------------------------|
| | | 분류 | 受給 | 수여시기 | 서사관 | | | |
| 1 | 신수 9237 | 순종 황태자책봉 금책 | 고종 | 1897년 | 金永壽 | 金銅 | 세로: 23.5 가로: 20.0 두께: 0.6 편폭: 10.0 | 2첩 2편 10행 139자 |
| | | 저위책봉 (왕세자) | 순종 | 정유(1897) 9월 17일 | 閔丙奭 | | | |
| <p>1면 : 維光武元年歲次丁酉九月丁亥朔十七日癸卯, 皇帝若曰: 體重長嫡, 根本鞏固, 一有元良, 萬世之福. 咨爾王太子, 仁孝恭儉, 德業夙就, 學有緝熙, 睿知日新. 承訓清燕之暇, 聰達政教; 叶吉离明之象, 頌騰謳歌. 純行篤誠, 光贊克著. 迺者寶位正名, 制度載新, 今冊爾爲皇太子. 於戲守器承祧, 托付實大; 撫軍監國, 期望且厚. 勉爾令儀令聞, 永綏我不基, 欽承休命.</p> <p>2면 : 暇, 聰達政教; 叶吉离明之象, 頌騰謳歌. 純行篤誠, 光贊克著. 迺者寶位正名, 制度載新, 今冊爾爲皇太子. 於戲守器承祧, 托付實大; 撫軍監國, 期望且厚. 勉爾令儀令聞, 永綏我不基, 欽承休命.</p> | | | | | | | | |
| | |  | |  | | | | |
| 2 | 창덕 25349 | 순종비 순정효황후 | 순종 | 1907년 | 金鶴鎭 | 金銅 | 세로: 22.6 가로: 21 | 2첩 2편 |

| | | | | | | | |
|---|-------------|-----------|-------------------------------|-----|--|----------------------|-------------|
| | 황후 추봉 금책 | | | | | | |
| | 황후 추봉 | 순정효 황후 | 정미(1907) 7월 19일 8.27(양) | 申箕善 | | 두께: 0.7 편폭: 10.45 | 14행 257자 |
| <p>1면 : 維隆熙元年歲次, 丁未七月庚寅朔十九日戊申, 皇帝若曰, 帝王之道, 齊其家而國治; 風教之端, 型于寡而邦御. 惟其德齊, 是以尊同. 供奉天地, 祇承宗廟; 母臨四海, 嗣續百世. 故塗山翼夏, 有莘興殷, 內治之責, 不其重歟? 咨妃尹氏, 忠藎華胄, 幽閑令姿. 動容周旋, 中於規, 自合女則; 仁孝勤儉, 本於性, 無煩姆教. 雖含章而在中, 亦隨時而</p> <p>2면 : 發外. 佐玉齋而嚴禮, 至尊所嘉; 偕銅闈而儆箴, 亦朕攸敬. 六宮之所以敍, 九族之所以親. 朕茲當受命嗣服, 妃亦宜從正位號. 今遣正使完順君李載完, 副使弘文館大學士金鶴鎮, 持節冊, 命妃爲皇后. 欽哉, 夫惟孝敬, 可以奉上; 夫惟寬裕, 可以御下. 泰而能約, 罔有失; 動而思慎, 罔有愆. 懋乃后德, 昭乃母儀. 克念有終, 永綏無疆. 曷不遵哉.</p> | | | | | | | |



이 중에서 ‘순종(純宗) 황태자책봉(皇太子冊封) 금책(金冊)’을 대표로 선택하여 살펴보겠다.

이 금책은 1897년에 고종이 순종을 황태자로 책봉하면서 내린 금책이다. 순종은 이후 1907년 고종에 이어 황위에 올랐다.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옥책 대신 금책으로 바꾸어 올린 것이다. 이 금책은 명성황후에게 금책을 올릴 때 같이 제작하여 올린 것이다. 순종은 1874년 음력 2월 8일에 창덕궁

관물헌에서 태어났다. 휘는 척(拓), 자는 군방(君邦), 호는 정헌(正軒)이다. 이 호는 고종이 내려준 아호이다. 순종은 2세 때인 1875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895년에 홍범 14조 반포와 동시에 왕태자로 올랐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로 격상되었다. 대한제국이 멸망된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이왕(李王)으로 불렸다. 『고종실록(高宗實錄)』 34년(1897) 10월 12일(양력)에 왕후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삼고두(三叩頭), 산호만세(山呼萬世), 재산호만세(再山呼萬世)를 창하였다고 전한다.

이 금책은 고종이 발급(發給)하고 순종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광무 원년(1897)이고 수여는 정유년(1897) 9월 17일이다. 제술관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김영수(金永壽, 1829~1899)이고, 서사관은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다. 재질은 금동(金銅)이고, 크기는 세로 23.5cm, 길이 20.0cm, 두께 0.6cm, 편폭 10.0cm이며, 무게는 3,800g이다. 2첩 2편이고 10행 139자이며, 극향(極行)은 17글자이고 평향(平行)은 15글자이다. 봉안장소는 종묘 봉황태자 금보(분실)이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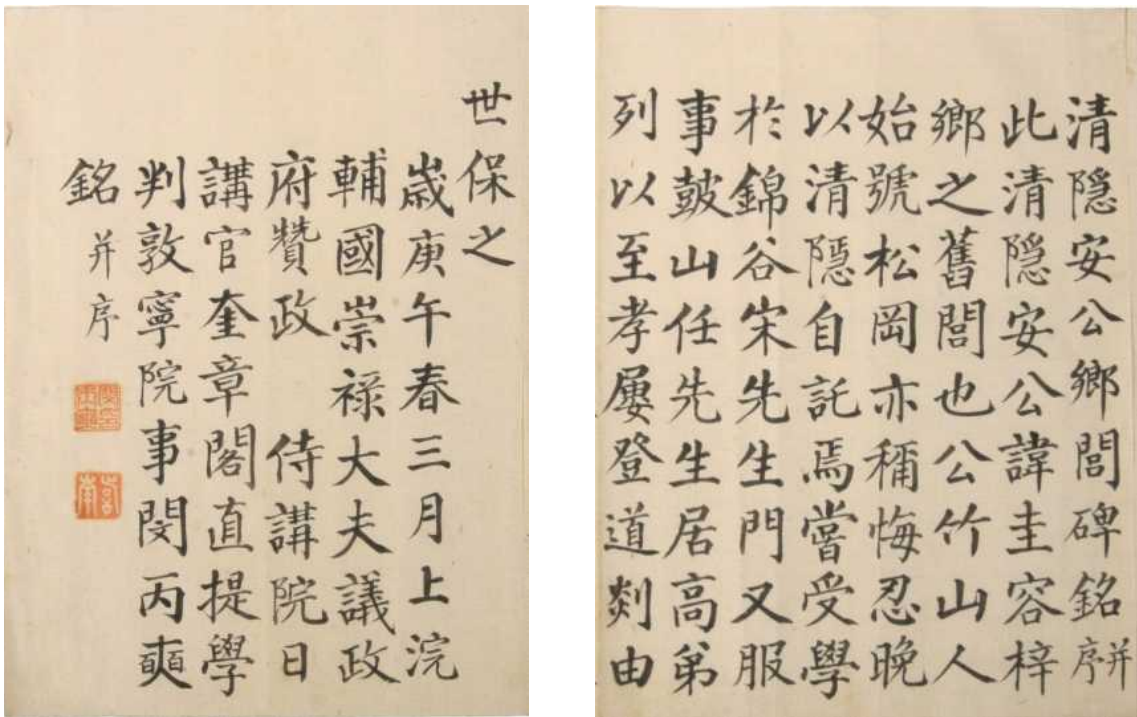
다. 금책의 내용

광무 원년(1897, 丁酉) 9월[초하루 丁亥日] 17일(癸卯) 황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체통상 만아들을 중요시하면 근본이 공고해지는 법이니, 먼저 원량(元良)을 둔 것은 만세의 복록이다. 아, 너 왕태자 척(拓)은 어질고 효성스러우면서 공손하고 검소하여 덕업을 일찍 성취하며, 학문을 끊임없이 밝혀 예지가 나날이 새로워졌다. 교훈을 받들고 한가롭게 쉬는 여가에는 충명하게 정치와 교육에 통달하고, 이명(離明, 세자를 뜻함)에 길함이 들어맞는 형상으로 칭송이 노래로 비등하다. 순일하게 행동하고 독실하게 정성을 다하니 빛나는 보필이 제대로 드러났다. 일전에 보위(寶位)가 바르게 명명되고 제도가 일신되었으니, 지금 너를 황태자로 책봉한다. 아, 종묘의 제기를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야 하니 맡긴 일이 실로 거대하고, 군대를 위무하고 국가 정무를 살펴야 하니, 기대와 바람이 또한 크다. 너는 훌륭한 거동과 아름다운 명성에 힘써 영원히 우리 왕가의 큰 기업을 안정시키고 삼가 아름다운 천명을 받들라.

維光武元年歲次丁酉九月丁亥朔十七日癸卯，皇帝若曰：體重長嫡，根本鞏固，一有元良，萬世之福。咨爾王太子拓，仁孝恭儉，德業夙就，學有緝熙，睿知日新。承訓清燕之暇，聰達政教；叶吉離明之象，頌騰謳歌。純行篤誠，光贊克著。迺者寶位正名，制度載新，今冊爾爲皇太子。於戲守器承祧，托付實大；撫軍監國，期望且厚。勉爾令儀令聞，永綏我丕基，欽承休命。

라. 금책의 서체

이 금책의 제술관은 김영수(金永壽)이고²¹¹⁾, 서사관은 민병석(閔丙奭)²¹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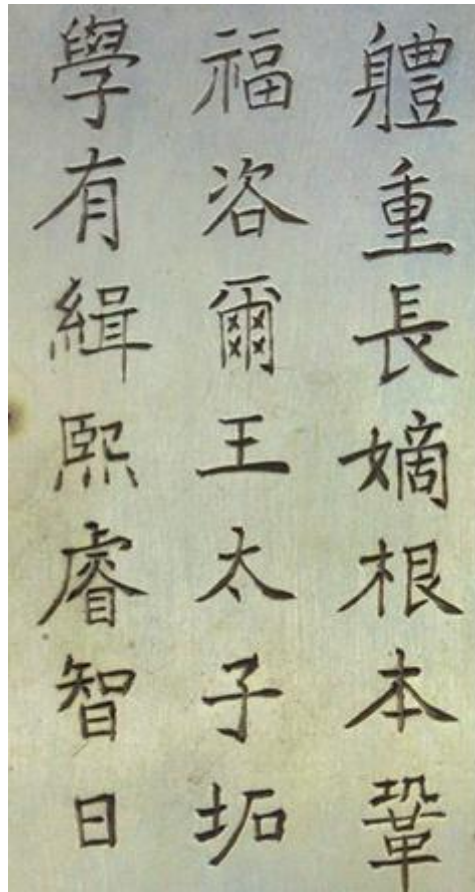
<민병석, 안규용비명(安圭容碑銘), 楮紙, 34.0×144.0cm(부분),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민병석은 비록 행서로 유명하지만, 해서도 잘 써서 현재 광화문 기념비전(紀念碑殿) 안에 있는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서울 高宗 御極 四十年 稱慶紀念碑)>(사적)를 썼다. 이 금책을 쓴 서풍은 위에서 제시한 <안규용비명(安圭容碑銘)>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친필과 이를 단단한 금동(金洞)에 새긴 것은 모필과 도필(刀筆), 종이와 금속에서 나타나는 먹색의 번짐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비록 아무리 잘 새겼더라도 부드러움과 모남의 미묘한 차이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 금책문의 글씨는 도필로 새긴 것이어서 필획은 전체적으로 곡선보다는 직선이지만, 필획의 각도 변화를 통해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211) 김영수(金永壽, 1829~1899)는 본관이 광산(光山)이고 자는 복여(福汝)이며, 호는 하정(荷亭)이고 부친은 김우현(金宇鉉, 1790~1840)이다. 1870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성균관대사성·이조참의·강화부유수·이조참판·경상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890년까지 예조·이조·호조·병조·공조의 판서 등을 두루 지냈다. 이후 한성부판윤·홍문관대제학·궁내부특진관·의정부찬정·장례원경·홍문관대학사·의정부참정 등을 지냈다. 특히 문재(文才)에 뛰어나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212)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은 본관이 여흥(驪興)이고 자는 경소(景昭)이며, 호는 시남(詩南)이고 부친은 민경식(閔敬植, 1822~?)이다. 1879년(고종 1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승지·대사성·강화부유수·평안도관찰사·호위대총관·헌병대사령관 등을 역임하였다. 1898년 농상공부대신이 되어 1905년 7월 왕명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이토히로부미를 왕실 최고 고문으로 초빙하려 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일어나자 궁내부대신으로 이토히로부미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이후 한일합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윤덕영(尹惠榮, 1873~1940)과 함께 이를 무마하는 데 힘썼다. 한일합병과 함께 훈1등 자작이 되고 은사금 10만 엔을 받았다. 1937년 애국금채회의 발기인이 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후원했으며, 조선사편수회 고문, 국민정신총동원 고문 등을 역임한 뒤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가 1940년 8월 6일 일본 도쿄의 병원에서 죽었다. 서화에 능하였고, 특히 행서를 잘 썼다.



<순중 황태자책봉 금책의 서체>

용필에서 가로획은 대체로 평평하지만, 아랫부분은 평평하고 윗부분은 기필보다 수필이 굽어서 위로 향한 느낌이 든다. 세로획은 곧게 내려갔지만, 미묘하게 왼쪽으로 향하거나 오른쪽으로 향하며 변화를 나타내었다. 긴 세로획은 마치 가로획을 세운 것처럼 위아래는 조금 굽고 가운데는 곧으며, 필획 안쪽은 곧고 바깥쪽은 약간 호형(弧形)을 이루는 내엽법(內擲法)을 운용하였다. 이는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전환하는 전절(轉折)에서 말미암은 바가 크지만, 방법은 모나게 꺾는 방절(方折)과 둥글게 전환하는 원전(圓轉) 두 가지를 운용하였다. 왼쪽 긴 빼침의 약획(掠畫)은 그냥 45°로 길게 빠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위에서 약간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빠치며 전체적으로 활 모양의 호형을 이루어 둥글면서도 탄성이 풍부한 느낌이 든다. 갈고리의 직획은 뾰족하고 강하게 처리하였고, 날획에 해당하는 파임은 $\frac{2}{3}$ 는 45°로 곧게 빠치다가 끝의 $\frac{1}{3}$ 은 굽으면서 옆으로 향해 길게 빼며 송설체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용필의 변화는 도필로 직선에서 부드러운 필의를 나타내는 것이 관건이다.

결구는 세로가 긴 장방형이 위주이고, 자간보다 행간이 넓어 종세(縱勢)의 필세가 두드러진다. 필획 사이의 간격은 고르고 너그러우니 성글거나 균색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비록 정방형 위주에서 나타나는 전아(典雅)하고 단정하며 안온한 느낌

이 부족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유롭고 생동하며 활발한 기식을 나타내었다. 종합하여 말하면, 행서를 잘 썼던 금책문서사관(金冊文書寫官) 민병석은 해서를 쓸 때도 행서와 북위서(北魏書) 필의를 가미하여 굳세고 아리따운 자태를 나타내며 일반 어책(御冊)과는 차별성을 이루었다.

2) 교명

(1) 교명 개요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 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으로 內禪·禪讓·傳授·受禪·傳位라고도 함)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玉冊과 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 竹冊과 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황색·남색·백색·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해서체를 필사한 것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황진사(黃眞絲)로 직조하여 넣는다. 서식은 교서(敎書)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捺印)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찍은 것도 있다.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것이다. 교명과 죽책은 형태적으로 볼 때는 확연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여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시명지보(施命之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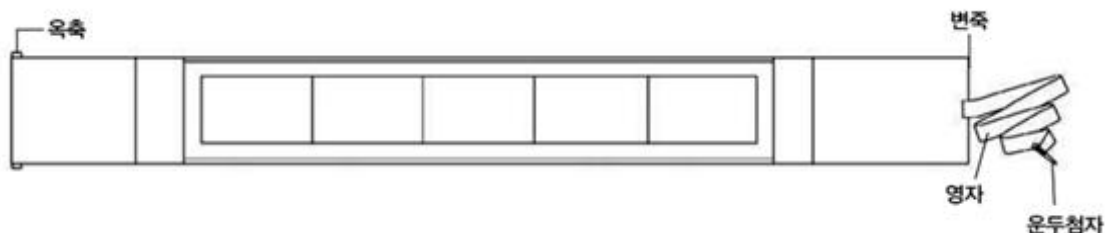


<조선왕보(朝鮮王寶)>

교명의 제작 형태는 모두 같고, 내용은 수여하는 대상과 의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여하는 대상은 왕비·왕세자·왕세제·왕세손·왕세자빈·왕세제빈·왕세손빈·후궁 등이다. 의례는 전선(傳禪), 저위 관례(儲位 冠禮, 왕세자의 관례), 곤전 책봉(壺殿 冊封, 왕비 책봉), 저위 책봉(儲位 冊封, 王世子·王世弟·王世孫 책봉), 빈궁 책봉(嬪宮 冊封, 王世子嬪·王世弟嬪·王世孫嬪 책봉), 후궁 봉빈(後宮 封嬪, 후궁을 빈으로 책봉) 등이다.

현전하는 교명은 32점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 28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점,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 등이 소장되어 있다. 교명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후궁 등을 책봉 및 봉빈할 때 왕이 발급한다. 왕비의 경우는 대체로 왕으로 등극한 지 2년 후에 왕비를 책봉하면서 교명을 발급해 수여하는데, 왕이 발급(發給)하고 왕비가 수급(受給)한다. 왕세제·왕세제빈은 형이 발급하고 동생이 수급한다. 현재의 왕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교명을 발급하여 수여할 때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되는 것이다. 선대 즉 할아버지께서 발급하여 수여할 때는 왕세손과 왕세손빈이 된다. 후궁일 경우에는 왕이 발급하고 후궁이 수급한다.

교명은 대두(擡頭)를 사용하여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를 높여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줄을 바꾸어 다른 줄 맨 위로 올려 적거나 글의 중간을 띄어 쓰는 형식을 사용한다. 글자를 배정할 때 극항(極行, 글줄의 최상단)은 10글자, 중항(中行, 글줄의 중간)은 9글자, 평항(平行, 글줄이 같은 높이)은 8글자이고, 행수(行數)는 지은 글의 다소에 따른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敎書)와 비슷하고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이며,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다. 서식은 기두(起頭)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여 마지막 결사(結辭)는 ‘고자교시(故茲敎示)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마무리된다. 교명은 의례를 행하면서 수여한 날짜를 기록하는데, 본문의 맨 마지막 폭인 검은 바탕의 승강룡 사이에 쓰고 일반적으로 연호를 쓰지 않으며 연월일만 쓴다. 날인(捺印)은 본문이 끝나는 다섯 번째 흑색 폭에 국새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한다.



<교명의 각부 명칭>

운두첨자(雲頭籤子)는 메뚜기라고도 하는데, 연황동(鍊黃銅)으로 만들며 도금을 한다. 형태는 비녀와 비슷하며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 끝은 구름 모양이다.

영자(纓子)의 끝에 달려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영자는 대자(帶子)라고도 하는데, 두루마리 형태의 교명을 감아서 고정하는 띠로 한쪽 끝은 변죽(邊竹)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은 운두침자를 단다. 변죽은 명칭과 달리 대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산유자(山柚子)·오동나무·추목(楸木) 등의 나무를 사용한다. 변죽은 옥축(玉軸)과 달리 반원 모양의 형태인데, 반원의 평평한 면은 교명의 안쪽이고 반원 형태는 밖으로 이곳에 거물정(巨物釘)으로 영자를 부착한다. 거물정은 ‘거물못’이라고도 하며, 변죽과 영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변죽에 ㄷ자 모양의 거물정을 박고, 영자를 거물정에 걸어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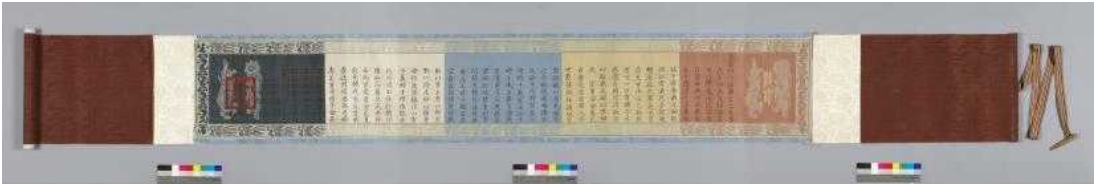

교명문(敎命文)은 제술관(製述官)이 작성한다. 제술관은 조선 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벼슬로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전례문(典禮文)을 전달하여 짓는 관리이다. 제술관의 특별한 자격 요건은 미리 정해진 바는 없지만, 교명문을 짓는 요건인 변려문(駢儷文)의 문장력을 갖춘 고위 직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고 신분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지닌 문장력이 뛰어난 고급 관원이 맡았다. 서사관(書寫官)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비단에 직접 글을 쓰는 것인데, 서사관에 대해서는 실록이나 의궤에서도 자격 요건을 기술한 것이 없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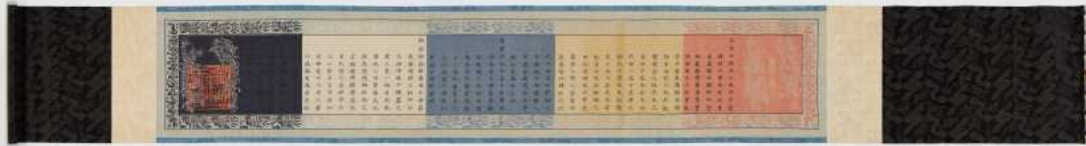
교명은 초기에 교지(敎旨)와 같은 짤막한 내용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격식을 갖추어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핵심 의물(儀物)로 조선 왕실을 상징하였다. 현전하는 교명은 32점이며, 이 중에서 보물 지정 검토 대상은 29점이고 조사대상은 4점이다.

(2) 교명의 현상

교명(敎命)은 1398년 ‘정종 수선 교명’부터 1882년 ‘순명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까지 총 77점이 제작되었다. 현전하는 교명은 국립고궁박물관에 28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점,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 등 모두 32점이다. 이 중에서 조사대상은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景宗 王世子冊封 敎命, 1690년)·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景宗繼妃 宣懿王后 王世子嬪冊封 敎命, 1718년)·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교명(正祖妃 孝懿王后 王世孫嬪冊封 敎命, 1762년)·순종 왕세자책봉 교명(純宗 王世子冊封 敎命, 1875년) 등 4점이다.

| No. | 신 번호 | 명칭 분류 | 發給 受給 | 제작시기 수여시기 | 제술관 서사관 | 재질 | 크기(cm) | 字數 |
|--|-------------|---|------------------------------------|--------------|-------------------|---------------------|--|-------------|
| | 1 | 종묘 13523 |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저위책봉 (왕세자) | 숙종 | 1690년 | | | |
|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義易著蒙養之功, 方軫翼子; 漢史徵豫建之議, 肆舉冊儲. 言出敷心, 喜深撫頂. 念予鴻祚之忝御, 久欠燕禩之嘉祥. 廿八鼎</p> <p>3면 : 盛之年, 未爲人父; 三百傳授之業, 恐墜吾身. 後事孤危, 入宮鈔提孩之樂; 國本捏抗, 率土佇延頸之望. 何幸上天之垂休, 果致</p> <p>4면 : 前星之有慶. 咨爾元子昀, 體貌甚偉, 性質不凡. 明珠掌中, 儼若天人之表; 膝下, 藹然父子之情. 令聞已著於懸弧, 德器允</p> <p>5면 : 叶於主鬯. 元子之號初定, 固是重本之圖; 副君之位久虛, 寧稽正名之典. 臣齊籲, 盖倣周家之舊儀; 幼年行封, 亦有明朝之</p> <p>6면 : 遺軌. 故當免懷之歲, 爰陞繼體之尊. 茲命爾爲王世子. 爾其毋失赤子之心, 阿保之手. 設春坊之僚屬, 宣爲親賢; 膺夏啓</p> <p>7면 : 之謳歌, 庶懋成德. 瞻繼照於明兩, 付托何憂; 勤問寢於日三, 長成是待. 提耳既切於今日, 服膺益勉於他時. 故茲敎示, 想宜知悉.</p> <p>8면 : 康熙二十九年六月十六日. 施命之寶 날인</p> | | | | | | | | |
|  | | | | | | | | |
| 2 | 종묘 13526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 책봉 교명 빈궁책봉 (왕세자빈) | 숙종 | 1718년 | 宋相琦 李夏坤 閔鎮厚 | 絹, 銅, 玉, 木 | 세로: 34.2, 가로(전체): 314.5 봉: 길이(37.6), 지름(3.4) 끈: 폭(2.8) 길이(111) | 40행 313자 |
|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予惟國家之本, 唯在冢儲. 其克相協左右, 以肇基王化, 亦唯在賢配. 典冊所載, 厥義可稽. 肆予丕庸, 致愼于茲. 粵我元嗣, 聰</p> <p>3면 : 明仁孝. 迺代予理, 迺懋厥政, 大器是承, 負荷尤重. 內治之助, 其曷可一日有曠. 予乃歷選名閥, 思得淑哲, 以配我元嗣, 以共相</p> <p>4면 : 我宗事. 咨爾魚氏, 自爾先迺有聞人, 奕世載德, 儲祥毓祉. 爰有碩媛, 以應我寤寐之求. 婉嫵柔順, 德容具備, 予用特簡在心.</p> <p>5면 : 迺稽于龜筮, 迺詢于卿士, 咸云其吉, 罔或有違. 茲遣正使臨昌君焜副使禮曹判書閔鎮遠, 持節備禮, 冊爾爲王世子嬪. 爾其</p> <p>6면 : 宜爾象服, 謹爾婦職. 敬以事上, 惠以御衆; 勤以持志, 儉以飭身. 毋作逸豫驕侈, 以害于義悖于禮. 惟艱厥位, 乃罔不休. 於戲, 陰</p> <p>7면 : 陽和而萬化成, 內外正而百度貞. 爾式克欽承, 輔我元良, 贊我壺政, 罔俾思齊思媚, 專美有周. 惟予爾嘉, 爾亦將有無窮之福.</p> <p>8면 : 尙忱念茲, 毋忝予訓辭. 故茲敎示, 想宜知悉.</p> | | | | | | | | |

| | | | | | | | | |
|--|---|---|--------------------|-------------------|---------------------|--|---|-------------|
| 9면 : 戊戌九月十三日. 施命之寶 날인 | | | | | | | | |
|  | | | | | | | | |
| 종묘 13536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 책봉 교명 | 영조 | 1762년 | 鄭翬良 | 絹, 銅, 玉, 木 | 세로: 34.3, 가로(전체): 307.4 봉: 길이(38.5), 지름(3.2) 끈: 폭(6) 길이(145) | 43행 337자 | |
| | 빈궁책봉 (왕세손빈) | 정조비 효의왕후 | 임오(1762) 정월 초8일 | 洪樂性 | | | | |
| 3 |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萬世繼體之圖, 已托於冢嫡; 三古擇配之義, 爰稽於彝章. 弗…祿斯基, 風化所自, 念文孫德性之夙就, 伊而域顛望之日深. 導</p> <p>3면 : 正養蒙, 謨則遠於貽厥; 筮賓齒胄, 責已備於成人. 盖邦教必本於正家, 故予心益急於選耦. 迺眷名德之族, 孰膺窈窕之求. 咨</p> <p>4면 : 爾金氏, 恭慎存心, 貞靜成性, 襲賢相種德之後, 閨範克彰; 鍾聖后毓慶之餘, 天意可見. 衆美之具, 特簡所符, 卜協而卿士率從,</p> <p>5면 : 祥定而宮闈胥賀. 茲遣臣, 行吏曹判書韓翼馨, 戶曹參判洪麟漢, 持節備禮, 冊爾爲王世孫嬪. 爾其寵命是服, 婦道益虔, 龍樓</p> <p>6면 : 展歡, 祇承長秋之陰教; 鶴禁致敬, 式遵貳壺之芳猷. 幸我有子而有孫, 以娛晚境; 勸爾宜家而宜室, 永鞏丕基. 秉柔則而儆戒</p> <p>7면 : 相成, 體訓辭而謙約自度. 是知則百之運, 寔自今休, 豈料望七之齡, 親當斯慶? 矧痘疹次第遄復, 乃宗廟</p> <p>8면 : 陟降所臨. 於戲! 吉棟可徵於嗣徽, 至情愈切於錫福. 思齊思媚, 播令聞於珩璜; 克儉克勤, 昭懿德於綈練. 故茲敎示, 想宜知悉.</p> <p>9면 : 壬午正月初八日. 施命之寶 날인</p> | | | | | | | |
| |  | | | | | | | |
| | 신수 9239 |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 | 고종 | 1875년 | 金炳學 | 絹, 銅, 玉, 木 | 세로: 37.3, 가로(전체): 294 봉: 길이(39.5), 지름(3.0) 끈(폭): 2.7 | 44행 350자 |
| | | 저위책봉 (왕세자) | 순종 | 을해(1875) 월 18일 | 李敦宇 金炳學 | | | |
| | 4 | <p>1면 : 敎命</p> <p>2면 : 王若曰: 繼大人照四方, 建儲所以固本; 有元良貞萬國, 立嫡所以守祧. 載稽禮彝, 庸賁寶典. 咨爾元子圉, 胄胤居正, 睿表應祥. 后稷</p> <p>3면 : 卽有邠家, 已兆於誕實匍匐之狀; 文王之爲世子, 盖本乎生而明聖之姿. 中某律吹銅, 允叶青史氏記; 問若干衣尺, 喜見朱芾</p> <p>4면 : 斯皇. 周成在襁褓之中, 必須師保正事; 庖羲著匕鬯之象, 賈由蒙養聖功. 肆惟三代之久安, 莫如貳邱之早諫. 緬九廻繞樞之</p> <p>5면 : 甲, 慶會適符於今年; 值初度懸弧之辰, 慈情倍悅於是月. 既舉沐浴正名之禮, 爰答謳歌延頸之忱. 茲</p> | | | | | | |

| | |
|--|---|
| | <p>命爾爲王世子，爾其保赤</p> <p>6면 : 子之良知，履青宮之定位. 無違父母，惟仁孝通乎神明; 當法祖宗，惟誠敬嚴若天命. 勸我家傳授之訓, 四勿九經; 待端士輔翼之</p> <p>7면 : 箴, 三善一物. 屏衣服器玩之侈, 習與長化與成; 遠便僻邪佞之言, 喻諸德歸諸道. 先自孔聖之孝經朱子之小學, 名言在茲; 以</p> <p>8면 : 至神堯曰文思大舜曰溫恭, 有爲若是. 於戲, 乾元得少陽之副, 嚮五福於範疇; 前星扶太極之尊, 奠萬歲於磐泰. 故茲教示, 想</p> <p>9면 : 宜知悉. 乙亥二月十八日. 施命之寶 날인</p> |
| |  |

이 중에서 ‘순종 왕세자 책봉 교명(純宗 王世子冊封 敎命)’을 대표로 선택하여 내용과 서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 교명은 1875(고종 12) 2월 18일 고종이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교명이다. 순종은 고종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명성황후이며, 1874년 음력 2월 8일에 창덕궁 관물헌(觀物軒)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척(拓), 자는 군방(君邦), 호는 정헌(正軒)이다. 순종은 1882년 9세의 나이로 순명 효황후(純明 孝皇后)와 가례를 올리고, 1897년 24세에 황태자에 책봉되며, 1907년 황위에 올랐다. 왕세자 책봉식은 1875년 2월 18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고종은 인정전에 나가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으며, 이튿날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행사가 끝난 직후 고종은 『국조어첩(國朝御牒)』과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세자의 책봉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捺印)하고 종묘 정전 제 19실에 봉안하였는데, 현재 이 교명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교명은 고종(高宗)이 발급(發給)하고 순종(純宗)이 수급(受給)하였으며, 제작은 1875년(고종 12)이고 수여는 을해년(1875) 2월 18일이다. 제술관(製述官)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 1821~1879)이고, 서사관(書寫官)은 봉조하(奉朝賀) 이돈우(李敦宇, 1801~1884)가 교명의 전문(篆文)을 썼으며, 본문은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이 해서로 썼다. 재질은 견(絹)·동(銅)·옥(玉)·나무[木]이다. 크기는 세로 37.3cm이고 가로(전체) 294cm이며, 봉의 길이는 39.5cm이고 지름은 3.0cm이며, 끈의 폭은 2.7cm이고 무게는 975g이다. 글자 수는 44행에 350자를 썼는데, 대두(擡頭)를 사용한 것은 10자이고, 나머지는 행마다 8자씩 썼다.

(3) 교명의 내용

교명.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인을 계승하여 사방을 비추니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근본을 공고히 하는 것이고, 원량(元良)을 두어 만국을 바르게 하니 적장자를 세우는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키는 바이다. 이에 몇몇한 예전(禮典)을 상고하여 보배로운 전례를 빛나게 한다. 아, 원자인 너 척(烝, 순종의 이름)은 만아들로서 바른 자리에 있으며, 왕세자 모습이 상서로움에 응한다. 후직(后稷)이 태(郃)나라에 봉함을 받았으니 이는 이미 크게 튼튼하여 힘차게 기어가는 모습에서 조짐이 나타났고, 문왕(文王)이 세자가 되었으니 이는 태생적으로 총명하고 성스러운 자태에 근본 한 것이다. 율관을 붙였을 때 아무개 음률에 맞으니 역사가의 기록에 진실로 부합하고, 약간 의복의 치수를 물어보니 붉은 슬잡이 빛나는 것을 기쁘게 본다.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포대기 속에 있을 때도 반드시 바른 일로 가르치는 스승을 필요로 하였고, 복희(庖羲)가 비창(匕鬯, 匕는 宗廟 祭器의 일종이고, 鬯은 종묘의 제사에 쓰는 鬱鬯酒로 종묘의 제사를 뜻함)의 형상을 드러낸 것은 실로 어릴 때부터 성왕의 공부로 수양했기 때문이다. 하·은·주(夏·殷·周) 삼대가 오래도록 평안했던 것은 일찍부터 세자를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아홉 번 북두성이 회전한 시절이 이어지니 경사스러운 연회가 마침 올해에 들어맞고, 첫돌에 문 앞에 활을 건 때를 만나니 자애로운 감정으로 이달에 기쁨이 배가 된다. 이미 목욕재계하고 명분을 바로잡는 예식을 거행했으니, 신민들이 칭송하고 기다리는 정성에 부합하려 한다. 이에 너를 왕세자로 명하니, 너는 적자(赤子)의 양지(良知)를 보존하고, 청궁(靑宮)의 확정된 자리를 밟으라. 부모에게 어김이 없어야 하니 오직 인효(仁孝)만이 신명에게 통하고, 역대 선대왕을 본받아야 하니 오직 성경(誠敬)만이 천명처럼 엄한 것이다. 우리 왕가에서 전수해온 교훈에 힘써야 하니 그것은 바로 사물(四勿, 즉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과 구경(九經, 신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법으로 修身·尊賢·親親·敬大臣·體羣臣·子庶民·來百工·柔遠人·懷諸侯)이고, 단정한 선비가 보좌하는 경계를 기다려야 하니 그것은 바로 삼선(三善, 세 가지 착한 일로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며,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일)과 일물(一物)이다. 의복이나 기물의 사치스러움을 물리쳐야 하니 이는 습관이 심해져서 변화하여 본성처럼 되기 때문이고, 편벽되고 아첨하는 말을 멀리해야 하니, 이는 덕에 밝고 도에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공자의 『효경(孝經)』과 주자의 『소학(小學)』에 격언이 실려 있고, 요(堯)임금의 문사(文思)와 순(舜)임금의 온공(溫恭)은 큰일을 하면 이와 같은 것이다. 아, 건원(乾元, 임금을 비유함)은 소양(少陽)의 도움을 얻으니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제시한 오복을 누리고, 전성(前星, 세자를 비유함)이 태극(太極)의 존귀함을 도우니 만세토록 태산반석(泰山盤石)처럼 공고히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교시하니 아마도 나의

뜻을 잘 알 것이다. 을해년(1875, 고종 12) 2월 18일.

敎命.

王若曰：“繼大人照四方，建儲所以固本；有元良貞萬國，立嫡所以守祧。稽禮彝，庸賁寶典。咨爾元子圻，胄胤居正，睿表應祥。后稷卽有郃家，兆於誕實匍匐之狀；文王之爲世子，蓋本乎生而明聖之姿。中某律吹銅，允叶青史氏記；問若干衣尺，喜見朱芾斯皇。周成在襁褓之中，必須師保正事；庖羲著匕鬯之象，亶由蒙養聖功。肆惟三代之久安，莫如貳邱之早諭。緬九廻繞樞之甲，慶會適符於今年；值初度懸弧之辰，慈情倍悅於是月。旣舉沐浴正名之禮，爰答謳歌延頸之忱。茲命爾爲王世子，爾其保赤子之良知，履青宮之定位。無違父母，惟仁孝通乎神明；當法祖宗，惟誠敬嚴若天命。勸我家傳授之訓，四勿九經；待端士輔翼之箴，三善一物。屏衣服器玩之侈，習與長化與成；遠便僻邪佞之言，喻諸德歸諸道。先自孔聖之孝經朱子之小學，名言在茲；以至神堯曰文思大舜曰溫恭，有爲若是。於戲，乾元得少陽之副，嚮五福於範疇；前星扶太極之尊，奠萬歲於磐泰。故茲敎示，想宜知悉。”乙亥二月十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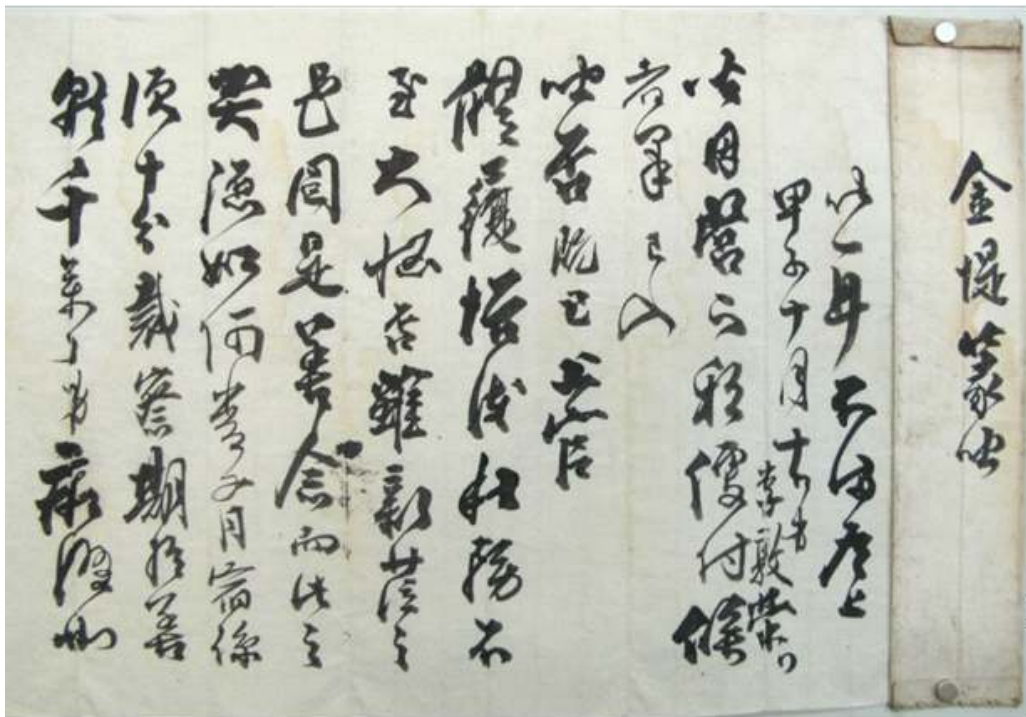
(4) 교명의 서체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純宗 王世子冊封 敎命)’의 제술관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²¹³이고, 서사관은 봉조하(奉朝賀) 이돈우(李敦宇)²¹⁴가 전문(篆文)을 썼으며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 1815~1882)²¹⁵이 본문을 썼다.

213) 김병학(金炳學, 1821~1879)은 본관이 안동(安東)이고 자는 경교(景敎)이며, 호는 영초(穎樵)이고 부친은 이조판서(吏曹判書) 김수근(金洙根, 1798~1854)인데, 백부 김준근(金浚根, 생몰 미상)에게 입양되었다. 1853년(철종 4) 현감으로 정시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고 장령·사간·대사헌을 거치며,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제거하거나 고종 즉위에 은밀히 노력한 공로와 딸을 며느리로 줄 것을 약속한 평소의 친분 때문에 1864년(고종 1)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좌찬성을 거쳐 좌의정에 오르며 실록총재관으로 『철종실록』을 편찬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완성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 탄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영의정을 거쳐 1875년 영돈녕부사가 된 뒤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條約) 체결을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214) 이돈우(李敦宇, 1801~1884)는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처음 이름은 이돈영(李敦榮)이다. 자는 윤약(允若)·윤공(允恭)이고 호는 신계(莘憩)이며, 효령대군의 15대손이고 부친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이상두(李相斗, 1769~1843)인데, 이상형(李相衡, 생몰 미상)에게 입양되었다. 1827년(순조 27) 증광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록·도첨·이조참판·전라도관찰사·대사헌·형조판서·한성부판윤·공조판서·판의금부사·예조판서·병조판서·광주부유수·이조판서·호조판서를 지내고 실록찬수당상으로 『철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874년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세자를 보필하였고, 이듬해 좌찬성으로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의 임무를 수행한 뒤 봉조하가 되었으며, 1882년 대제학이 되어 회권(會圈)에 참여하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비록 일생을 관직에서 보냈지만, 청백한 것을 좋아해 연꽃을 사랑한다는 ‘연설보(蓮說補)’를 지어 자기의 뜻을 펼쳤고, 저서는 『갑고(甲藁)』 6권이 있다.

215)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호는 산향(山響)이며, 흥선대원군의 형으로 흥인군(興寅君)에 봉해졌다. 1863년(고종 즉위) 종척집사(宗戚執事)가 된 뒤 좌찬성·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판의금부사·호위대장 등을 역임했다. 흥선대원군 정권하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아 요직에 등용되지 못했으나 서예의 재능을 발휘해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존호옥책문서사관(尊號玉冊文書寫官) 등을 지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수립되자 호위대장·좌의정·영의정을 지냈다.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1882년 광주부유수를 거쳐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으나 임오군란 때 난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효헌(孝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1884년 충익(忠翼), 1905년 문충(文忠)으로 다시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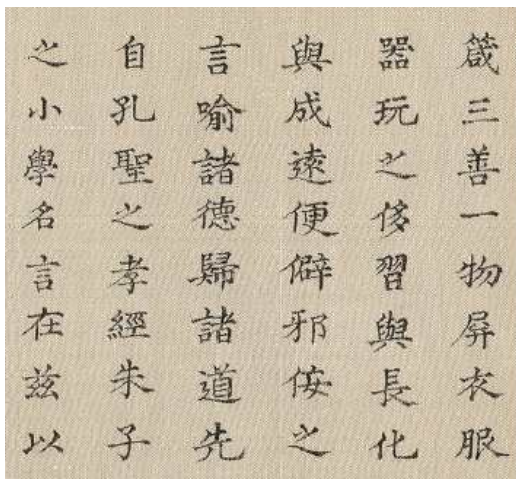
<이돈우 간찰, 지본, 31.3×44.8cm, 원주역사박물관 소장>



<이취응 필 간찰, 지본, 35.0×5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敎命’은 이돈우가 전서로 쓴 문자를 제1면 홍색 바탕에 황금색으로 직조하였다. 이는 전서에서 소전(小篆)에 속하는데, 이는 중국 진나라 이사(李斯, 기원전 284 후 280~기원전 208)가 창조한 것이어서 진전(秦篆)이라고도 한다. 소전의 가장 큰 특징은 용필에서 기필과 수필은 모두 원필(圓筆)과 중봉(中鋒)을 운용하여 필

획이 둥글고 굽기가 고르며, 필획을 전환하는 전절(轉折)은 호형(弧形)의 완곡한 원전(圓轉)을 운용하여 모나지 않는 둥글을 나타내었다. 좌우의 대칭을 이루면서 자형은 세로와 가로 비율이 대략 3 : 2를 이루는 장방형이고, 별획·날획이 없다. 필세는 종세(縱勢)를 이루면서 변화가 없으며, 서풍은 엄정하고 장엄하며 단정한 가운데 굳세고 아름다운 자태가 보인다. 그러나 이돈우가 쓴 필획은 호형이 없고 가로획과 세로획만 있을 뿐이며, 자형은 세로가 지나치게 길어서 엄정하거나 장엄한 아름다운 자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문 서예가가 아닌 이돈우의 한계라 하겠다.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의 서체>

위에서 제시한 이돈우와 이취응의 간찰을 보면, 이돈우는 질박한 장점은 있으나 자연스럽거나 세련된 필치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에 비해 이취응은 강약이나 대소의 변화가 자연스럽고, 한 기운으로 전체를 꿰뚫는 유창한 필세가 돋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그를 차출하여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존호옥책문서사관(尊號玉冊文書寫官)’ 등을 맡긴 것도 도리가 있다. 그가 쓴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의 본문은 글자마다 수놓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 쓴 모습이 역력하다. 가로획은 수필에서 잠두(蠶頭)의 형상이 분명하고, 기울기는 거의 평평하여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세로획은 곧게 내리그어 필획의 분명함을 나타내었고, 전절은 능각(稜角)을 나타내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갈고리의 적획은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날획은 약간 위로 향해 들린 모습을 하였다. 따라서 필획이 비교적 적은 ‘化·言·自·孔·之·朱·自·子·小·以’자 등은 매우 또렷하고 안정된 자형이 돋보인다.

그러나 필획마다 정성을 들이느라 합체자의 결자에서는 부조화를 이루거나 필법에서 어긋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服·與·遠·便·邪·歸·道·聖·學’자 등은 부조화를 이루었고, ‘箴·器’는 세 부분을 조합한 것 같으며, ‘喻’자에는 필법에서 금하는 두 개의 적획이 보인다. 자형은 비록 정방형·장방형·편방형이 있으나 정방형과 편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자간보다 행간이 넓으나 주체적인 필

세의 느낌이 부족하다. 종합하여 말하면, 하나의 필획과 글자마다 수놓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며 아리따운 모습을 나타내어 교명의 실용성에는 부합하지만, 서예의 예술적인 면에서는 완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어책(御冊)과 교명(敎命)에서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으로 나뉜다. 조사대상은 옥책이 5점, 죽책이 2점, 금책이 2점, 교명이 4점으로 전수 13점이다. 모두 보전 상태는 양호하고, 국왕이나 황제가 책봉할 때 건네주는 어책(御冊)·어보(御寶)·교명(敎命)의 세 가지 의물(儀物)에 속한다. 이것들은 조선 왕실이나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의물임과 동시에 당시 최고 수준의 제술관·서사관과 전문 장인(匠人)이 협업으로 제작한 공예품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어책’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는 역사적, 서예사적, 공예사적, 민속학적으로 상징성과 희귀성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1.
- 서준, 「교명과 죽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왕조 어책: 교명·죽책·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왕조 어책: 옥책 5』,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장을연, 「朝鮮時代 冊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곽노봉, 『서체』, 다운샘, 2015.

VI. 과학조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어보는 모두 331과로 국립고궁박물관 322과, 국립중앙박물관 7과, 고려대학교 박물관 2과를 소장하고 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을 대상으로 그동안 국립고궁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박물관 소장 어보 322과(금보 155과, 옥보 167과), 어책(옥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옥보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간 진행된 과학적 분석 결과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조선왕조 어보의 과학적 분석

1) 금보의 과학적 분석 결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금보 155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미경 관찰을 통해 금보의 형태 특징을 살펴보았다. 17세기 후기부터 18세기 중기까지 제작된 귀뉴형 금보에서만 점각과 조이질로 장식한 귀갑 내부 문양이 나타났다. 또한, 귀갑에 조각된 문양 및 보문 전각에서 끝자국, 금알갱이 뭉침 등과 같은 조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18세기 후기 이후에 제작된 보뉴와 보신 경계면에서는 뽕흔적, 리벳 등과 같은 접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감마선 조사를 통해 금보 내부의 주물결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조기법으로 금보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마선 측면 사진에서 관찰되는 보뉴와 보신의 경계면을 통해 금보의 제작기법을 추정하였다. 18세기 후기 이후에 보뉴와 보신의 제작방법이 일체형 주조에서 분리형 주조로 변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나며, 1924년에 재제작된 금보는 15세기 양식을 반영하여 일체형으로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 도금층 성분 분석 결과, 금과 수은 등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수은 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금층 주성분인 금의 산포도와 표준편차를 통해 시기별 도금층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는데, 18세기 후기 이후에 제작된 금보의 도금층이 이전에 제작된 금보에 비해 균일하지 못하고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07년과 1924년에 제작된 금보 5과의 도금층 성분 분석 결과, 약 4~17%의 금만 검출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제작된 어보와는 다른 기법으로 도금된 것으로 보인다.
- 바탕금속 성분분석 결과, 구리 합금, 은 합금, 주석 합금으로 분류된다. 금보의 약 93%가 구리 합금이며, 시기별로 아연 함량이 달라진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제작된 금보는 아연 함량이 10% 미만이며,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대부분의

금보는 아연 함량이 10% 이상이다. 은 함금은 총 9과로 5과의 은인과 4과의 금보에서 확인되며, 백철인은 주석, 칼슘 등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주석 함금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옥보의 과학적 분석 결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옥보 167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옥보의 최초 제작시기는 1471년이며 16세기에는 제작되지 않다가 1600년부터 다시 제작되어 1928년까지 만들어 졌고, 19세기에 75과(42.9%)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 옥보의 크기는 보신의 가로와 전체 높이를 통해 무게와 비교해 본 결과, 19세기 후반부터 보신 크기와 무게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작된 경향성을 보인다.
- 보뉴 머리에 글자가 새겨진 옥보는 총 25과로 대부분 ‘王’자이거나 이와 유사하며, 거의 1726년과 1762년 사이에서 나타난다. 흑색 눈동자는 11과의 옥보에 나타나며, 4과는 1726년과 1744년에, 7과는 1908년에서 확인된다.
- 자외선 촬영으로 시기에 따른 특징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표면 코팅물질의 잔존여부, 과거 보존처리 및 이물질, 자외선에 영향을 받는 광물의 밝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 옥보의 재질을 주요 구성원소로 분석한 결과, 크게 사문석 계열, 백운석 계열, 방해석 계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부분 주요 구성원소는 사문석 계열은 이산화규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백운석 계열은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방해석 계열은 산화칼슘으로 확인된다.

2.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의 재료 특성

1) 옥보의 광물학적 특성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보 167과에 대한 분석 결과, 옥보를 구성하는 암석은 크게 3개의 그룹인 사문암질암, 대리암질암, 백운암질암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사문암(Serpentinite)은 광물인 사문석(Serpentine)이 다량 함유되는 암석을 말한다. 사문석은 일반적으로 감람석, 휘석, 각섬석 등의 Mg가 많은 광물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이중에서도 감람석의 변질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가장 흔하다. 사문암은 화성암뿐만 아니라 변성암에서도 발견되며 지역적으로 상당한 양이 산출될 수 있다.
- 대리암(Marble)은 석회암(Limestone)이나 백운석의 변성에 의해 형성된 변성암이다. 백운암(Dolostone)은 주로 백운석(Dolomite)으로 구성된 암석이다. 백

운석은 방해석의 Ca 이온이 Mg 이온에 의해 교대되면서 만들어지는 마름모형의 탄산염 광물이다. 옥보를 구성하는 암석들은 단일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명명을 위해 광물의 조성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비파괴분석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문암질암, 대리암질암, 백운암질암으로 명명하였다.

- 옥보를 이루는 암석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인 것은 사문암질암(116개; 69.5%)이었으며, 그 다음은 대리암질암(29개; 17.4%), 백운암질암(22개; 13.2%)의 순이었다. 각 그룹은 다시 구성광물의 종류에 따라 세부 그룹으로 나뉘는데, 사문암질암은 8개 그룹, 대리암질암은 6개 그룹, 백운암질암은 6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2) 옥책의 재료적 특성

어책 중 옥책 251권에 대한 전체적인 암석학적 조사와 시대에 따른 12책의 세밀한 성분분석을 통하여 옥책의 재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은 육안으로 크게 담록색 및 백색계열 암석으로 구분된다. 폐기 옥책편을 대상으로 염산반응 실험, 실체 및 편광현미경 관찰, X-선 회절분석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담록색 계열의 암석은 사문석과 방해석이 주구성광물로, 녹니석과 돌로마이트 등을 수반하는 옥질암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색계열의 암석은 대부분 방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흑운모를 함유한 대리암질암으로 동정하였다.
- 시대에 따라 12점의 옥책을 선정하여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고, 폐기 옥책편을 통해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X-선 형광분석에서는 동종 암석끼리 원소 함량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동종 암석 중에서도 품위가 다를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화학분석 결과, 옥질암이 대리암질암에 비해 SiO₂, Fe₂O₃, MgO의 함량이 수 십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Fe와 Mg를 양이온으로 하는 규산염광물인 사문석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였다. CaO의 함량은 방해석이 주구성광물인 대리암질암에서 매우 높게 검출되었지만, 방해석을 함유한 옥질암에서도 높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옥질암에서 Cr과 Ni가 다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담록색(옥색)의 발색원소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옥책의 개략적인 조사 결과, 전체 251권 중 옥질암은 41.8%(105권), 대리암질암은 38.2%(96권), 혼합암질암 20.0%(50권)으로 조사되었다. 혼합암질암 50권 중 주요 구성암석이 옥질암으로 판정된 것은 전체의 0.8%(2권), 대리암질암은 19.2%(48권)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리암질암 혹은 주구성암석이 대리암인 옥책은 전체의 57.4%(146권)를 차지하였다.
- 옥책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인조, 효종, 현종대에 비해 숙종, 경종, 영조대에서

고품위의 옥질암이 사용되었다. 정조대에서도 주로 옥질암을 사용하였으나 혼합암질암도 나타난다. 이후 암석학적 불균질성으로 인해 품위는 점점 낮아졌다. 순조 연간부터 옥질암과 대리암질암이 한 옥책 내에서 혼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헌종 말기에 처음으로 대리암질암만 사용한 옥책이 제작되었다. 이후 후대로 갈수록 대리암질암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석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 옥책의 글자 안료와 부속품에 대해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다. 어책 076을 제외한 글자 안료는 금(Au)을 사용하였으며, 어책(유물번호 076, 1876년 고종 10)에 사용한 안료는 재료학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철과 두정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재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변철과 두정은 조선 초기에서 후기까지 구리에 금도금을 하여 제작하였으나, 조선 말기로 가면서 Cu에 Zn을 혼합한 Cu-Zn계 황동합금을 사용하였다.

3.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의 과학적 고찰

금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18세기 후기를 기점으로 금보의 제작 기법과 재료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보 제작 방법이 일체형 주조에서 분리형 주조로 바뀌었으며, 금보의 도금층도 18세기 후기 이전 제작된 금보에 비해 균일하지 못하고 손상되었다. 또한, 구리 합금으로 제작된 금보는 1739년 이후부터 아연 함량이 10% 중반 이상인 금보가 대다수 제작되었으며, 19세기에는 아연 함량이 20~30%인 금보가 주로 제작되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제작 기법을 인문학적 자료 및 당시 시대적 상황 등과 비교·연구한다면 어보의 제작기법 변화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금보의 3차원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3D 스캔으로 정밀한 데이터를 구하여 어보 형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향후에 비파괴 분석으로도 도금 두께나 바탕금속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금보에 담긴 제작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옥보의 제작시기에 따른 주요 구성 원소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지만, 재질에 따른 경향성은 알 수 있다. 보누가 거북이 모양인 귀뉴는 제작시기가 470년으로 그 범위가 넓고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여 시대별 특징을 뚜렷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누가 용 모양인 용뉴는 1899년부터 1906년까지 약 7년간 22과가 제작되어 상대적으로 쉽게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용뉴로 만들어진 옥보의 색은 백색 계열이며, 보신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약 10.0~10.4cm, 무게는 1.1~1.6kg의 범위에 속한다. 1899년부터 1900년까지는 방해석 계열, 1900년부터 1902년까지는 백운석 계열, 1907년과 1908년은 사문석 계열로 명확히 구분된다.

옥보의 경우는 15~20세기의 전기 간에서 사문암질암이 일관되게 가장 많은 비

울을 보였으며, 대리암질암과 백운암질암은 19세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보와 옥책의 이러한 차이는 옥보가 옥책보다 미학적인 관점이 더 중요시 되었고, 또한 다량의 암석이 필요한 옥책에 비해 옥보에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암석 덩어리가 사용되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옥보에 더 좋은 품질의 옥을 우선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옥보는 일반적으로 현재 옥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의 경옥(jadeite)과 연옥(nephrite)이 검출되지 않았다. 옥보는 크게 사문석 계열, 백운석 계열, 방해석 계열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당시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옥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현대와 달랐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편경이나 장신구 등 다른 유사 유물과 비교 분석하여 옥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옥보의 색상을 살펴보면, 사문암질암으로 구성된 것들은 대부분 담녹색·황녹색·회녹색·진녹색을 띠거나 이들의 배색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으며, 드물게 유백색과 연황색을 띤 것도 존재하였다. 대리암질암으로 구성된 옥보는 대부분 회황색·황갈색을 띠는 가운데 진녹색과 유백색을 가진 것이 나타났다. 백운암질암으로 구성된 옥보 또한 대부분 회황색·황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녹갈색·담황색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백운암질암 옥보들은 대리암질암 옥보와 비슷한 색을 띠는 것들도 존재하나, 대체로는 대리암질암의 그것보다 명도가 낮아 진한 색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옥보의 다양한 색상은 과거 조선시대에 옥보를 제작하기 위한 암석선택의 기준이 좁은 색상영역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같은 광물조성을 공유하는 옥보 그룹 내에서도 상이한 색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외관으로 만옥보를 분류할 때 오분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옥책의 재질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옥책을 옥질암, 대리암질암 및 옥질암과 대리암질암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분류한 후 16~18세기까지는 혼합사용 옥책 1권을 제외한 모든 옥책이 옥질암으로 제작되었다가 19세기부터는 대리암질암 및 혼합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19세기 철종 이후로는 대부분의 옥책이 대리암질로 제작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옥책의 옥질암은 본 연구의 사문암질암이며, 옥책의 대리암질암은 본 연구의 대리암질암과 백운암질암을 아울러 통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책을 구성하는 옥질암과 대리암질암은 재료학적으로 전형적인 연옥과 경옥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문헌과 선행연구에 의하면 옥은 녹색과 백색의 아름다운 돌을 총칭하므로 옥책의 구성 암석을 전통적인 옥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통적 옥의 재료학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에 다양한 비파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정밀 전수조사를 수행한다면 옥책의 암석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산지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2023년 어책 과학적 분석 결과

1) 인종 상시호 옥책편(종묘13238)

조선왕조에서 옥재 유물의 재료로 주로 사용된 옥질암(대리, 사문, 백운암질 암석)의 표면에 백색 안료(연백)를 칠한 후 적색 안료(진사, 연단)으로 글씨를 쓴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재 유물 중 인종 상시호 옥책편과 같이 옥질암 표면에 백색 안료를 칠한 조선왕조·대한제국의 옥재 유물의 사례나 제작기록은 확인된 바 없다. 그렇지만 이 옥책편은 『종묘등록(宗廟謄錄)』에 기록되어 있는 백옥(白玉)으로 만들어진 옥책 중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로 보여지며 조선 전기 옥재 유물의 재료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순종계비 순정효황후 황후추봉 금책(창덕25349)

순종계비 순정효황후 황후추봉 금책은 은(Ag)을 소지금속으로 하여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도금법으로 금도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명황후추봉순정황후진봉의궤(純明皇后追封純貞皇后進封儀軌)』에도 천은도금(天銀鍍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조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어책: 교명·죽책·금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조선왕조어책: 옥책 5』, 국립고궁박물관, 2017.
- 『어보 과학적 분석 I 서론』, 국립고궁박물관, 2020.
- 『어보 과학적 분석 II 금보』, 국립고궁박물관, 2020.
- 『어보 과학적 분석 III 옥보』, 국립고궁박물관, 2020.
- 「어책 과학적 조사 결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2023.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지정 대상 목록-유형별】

<어보> : 318과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 | 목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1실 | 종묘13545-1 | |
| 2 | 목조비 효공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1실 | 종묘13546-1 | |
| 3 | 익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2실 | 종묘13547-1 | |
| 4 | 익조비 정숙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2실 | 종묘13548-1 | |
| 5 | 도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3실 | 종묘13549-1 | |
| 6 | 도조비 경순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3실 | 종묘13550-1 | |
| 7 | 환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4실 | 종묘13551-1 | |
| 8 | 환조비 의혜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4실 | 종묘13552-1 | |
| 9 | 태조 추상시호 금보 | 1683년 | 정전 | 1실 | 종묘13553-1 | |
| 10 | 태조 추상존호 금보 | 1872년 | 정전 | 1실 | 종묘13554-1 | |
| 11 |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555-1 | |
| 12 |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556-1 | |
| 13 | 정종 추상시호 금보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557-1 | |
| 14 |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금보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558-1 | |
| 15 | 태종비 원경왕후 상시호 금인 | 1420년 | 정전 | 2실 | 고대2204 | 고대 |
| 16 | 세종 상시호 금보 | 1450년 | 정전 | 3실 | 종묘13559-1 | |
| 17 | 세종비 소헌왕후 상시호 금보 | 1446년 | 정전 | 3실 | 종묘13560-1 | |
| 18 | 문종 상시호 금보 | 1452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1-1 | |
| 19 |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 | 1513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2-1 | |
| 20 | 문종비 현덕왕후 추상시호 금보 | 1513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3-1 | |
| 21 | 문종비 현덕왕후 상휘호 금보 | 1513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4-1 | |
| 22 | 단종 상시호 금보 | 1698년 | 영녕전 | 7실 | 신수212 | 중박 |
| 23 |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 1698년 | 영녕전 | 7실 | 신수213 | 중박 |
| 24 | 세조비 정희왕후 상존호 옥보 | 1457년 | 정전 | 4실 | 종묘13565-1 | |
| 25 | 세조비 정희왕후 가상존호 옥보 | 1471년 | 정전 | 4실 | 종묘13566-1 | |
| 26 | 예종 무승안민지보 | 1457년 | 영녕전 | 9실 | 종묘13567-1 | |
| 27 | 예종비 장순왕후 왕세자빈책봉 백철인 | 1460년 | 영녕전 | 9실 | 종묘13569-1 | |
| 28 | 예종계비 안순왕후 상존호 옥인 | 1471년 | 영녕전 | 9실 | 종묘13571-1 | |
| 29 | 성종 상시호 금보 | 1495년 | 정전 | 5실 | 종묘13573-1 | |
| 30 | 성종비 공혜왕후 상시호 금보 | 1474년 | 정전 | 5실 | 종묘13574-1 | |
| 31 | 성종비 공혜왕후 상휘호 금인 | 1497년 | 정전 | 5실 | 고궁1558-1 | |
| 32 |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존호 금인 | 1497년 | 정전 | 5실 | 종묘13575-1 | |
| 33 |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시호 금보 | 1530년 | 정전 | 5실 | 종묘13576-1 | |
| 34 | 중종 상시호 금보 | 1545년 | 정전 | 6실 | 종묘13577-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35 |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금보 | 1739년 | 정전 | 6실 | 종묘13578-1 | |
| 36 | 중종계비 장경왕후 상휘호 금보 | 1546년 | 정전 | 6실 | 종묘13579-1 | |
| 37 |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존호 금보 | 1554년 | 정전 | 6실 | 고궁2843-1 | |
| 38 | 중종계비 문정왕후 가상존호 금보 | 1554년 | 정전 | 6실 | 종묘13580-1 | |
| 39 |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시호 금보 | 1565년 | 정전 | 6실 | 종묘13581-1 | |
| 40 | 인종 상시호 금보 | 1545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582-1 | |
| 41 |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은인 | 1554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583-1 | |
| 42 | 인종비 인성왕후 상존호 금보 | 1554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584-1 | |
| 43 | 명종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11실 | 종묘13585-1 | |
| 44 | 명종비 인순왕후 상존호 금보 | 1569년 | 영녕전 | 11실 | 종묘13586-1 | |
| 45 | 선조 가상존호 옥보 | 1604년 | 정전 | 7실 | 종묘13587-1 | |
| 46 | 선조 상시호 금보 | 1608년 | 정전 | 7실 | 종묘13588-1 | |
| 47 | 선조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589-1 | |
| 48 | 선조비 의인왕후 상존호 옥보 | 160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0-1 | |
| 49 | 선조비 의인왕후 상시호 금보 | 160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1-1 | |
| 50 |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 1604년 | 정전 | 7실 | 종묘13592-1 | |
| 51 | 선조비 의인왕후 상휘호 옥보 | 161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3-1 | |
| 52 |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594-1 | |
| 53 | 선조계비 인목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02년 | 정전 | 7실 | 종묘13595-1 | |
| 54 |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존호 옥보 | 1604년 | 정전 | 7실 | 종묘13596-1 | |
| 55 |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1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7-1 | |
| 56 |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24년 | 정전 | 7실 | 종묘13598-1 | |
| 57 |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시호 금보 | 1632년 | 정전 | 7실 | 종묘13599-1 | |
| 58 |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600-1 | |
| 59 | 원종 상시호 옥보 | 1634년 | 영녕전 | 12실 | 종묘13601-1 | |
| 60 | 원종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 1632년 | 영녕전 | 12실 | 종묘13602-1 | |
| 61 | 인조 상시호 금보 | 1649년 | 정전 | 8실 | 종묘13603-1 | |
| 62 | 인조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604-1 | |
| 63 |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605-1 | |
| 64 |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금보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606-1 | |
| 65 |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607-1 | |
| 66 |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87년 | 정전 | 8실 | 종묘13608-1 | |
| 67 |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87년 | 정전 | 8실 | 종묘13609-1 | |
| 68 |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76년 | 정전 | 8실 | 고궁3864 | |
| 69 |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86년 | 정전 | 8실 | 종묘13610-1 | |
| 70 | 인조계비 장열왕후 상시호 금보 | 1688년 | 정전 | 8실 | 종묘13611-1 | |
| 71 | 인조계비 장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612-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72 | 효종 추상존호 금보 | 1740년 | 정전 | 9실 | 고궁3668-1 | |
| 73 | 효종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613-1 | |
| 74 |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614-1 | |
| 75 | 현종 왕세자책봉 옥인 | 1651년 | 정전 | 10실 | 고궁2844-1 | |
| 76 |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 1676년 | 정전 | 10실 | 고대2214 | 고대 |
| 77 |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금보 | 1684년 | 정전 | 10실 | 종묘13615-1 | |
| 78 | 숙종 왕세자책봉 옥인 | 1667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6-1 | |
| 79 | 숙종 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7-1 | |
| 80 | 숙종 상시호 금보 | 172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8-1 | |
| 81 | 숙종 추상존호 금보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9-1 | |
| 82 | 숙종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0-1 | |
| 83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671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1-1 | |
| 84 |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2-1 | |
| 85 |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금보 | 1681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3-1 | |
| 86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4-1 | |
| 87 |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보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5-1 | |
| 88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6-1 | |
| 89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7-1 | |
| 90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8-1 | |
| 91 | 숙종계비 인현왕후 복위 금보 | 1694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9-1 | |
| 92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0-1 | |
| 93 |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1-1 | |
| 94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2-1 | |
| 95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3-1 | |
| 96 |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0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4-1 | |
| 97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5-1 | |
| 98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6-1 | |
| 99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2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7-1 | |
| 100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8-1 | |
| 101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9-1 | |
| 102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47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0-1 | |
| 103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1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1-1 | |
| 104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2-1 | |
| 105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금보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3-1 | |
| 106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4-1 | |
| 107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금보 | 1757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5-1 | |
| 108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6-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09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7-1 | |
| 110 | 경종 왕세자책봉 옥인 | 169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48-1 | |
| 111 | 경종 상시호 금보 | 1724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49-1 | |
| 112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69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0-1 | |
| 113 |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옥인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1-1 | |
| 114 | 경종비 단의왕후 추봉 금보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2-1 | |
| 115 |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보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3-1 | |
| 116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4-1 | |
| 117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5-1 | |
| 118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보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6-1 | |
| 119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금보 | 173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7-1 | |
| 120 | 영조 왕세제책봉 옥인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658-1 | |
| 121 | 영조 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59-1 | |
| 122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0-1 | |
| 123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1-1 | |
| 124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2-1 | |
| 125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3-1 | |
| 126 | 영조 상시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4-1 | |
| 127 | 영조 추상시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5-1 | |
| 128 | 영조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6-1 | |
| 129 |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옥인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7-1 | |
| 130 |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2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8-1 | |
| 131 |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9-1 | |
| 132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0-1 | |
| 133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1-1 | |
| 134 |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금보 | 1757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2-1 | |
| 135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3-1 | |
| 136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4-1 | |
| 137 |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보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5-1 | |
| 138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6-1 | |
| 139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7-1 | |
| 140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59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8-1 | |
| 141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보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9-1 | |
| 142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0-1 | |
| 143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1-1 | |
| 144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83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2-1 | |
| 145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3-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46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87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4-1 | |
| 147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95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5-1 | |
| 148 |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 옥보 | 180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6-1 | |
| 149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04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7-1 | |
| 150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8-1 | |
| 151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9-1 | |
| 152 |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90-1 | |
| 153 | 진종 왕세자책봉 옥인 | 172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1-1 | |
| 154 | 진종 상시호 옥인 | 1729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2-1 | |
| 155 | 진종 세자승통 은인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3-1 | |
| 156 | 진종 추상시호 금보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4-1 | |
| 157 | 진종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5-1 | |
| 158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727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6-1 | |
| 159 | 진종비 효순왕후 현빈책봉 옥인 | 173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7-1 | |
| 160 |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옥인 | 1752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8-1 | |
| 161 | 진종비 효순왕후 세자빈승통 은인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9-1 | |
| 162 |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금보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700-1 | |
| 163 |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701-1 | |
| 164 | 장조 왕세자책봉 옥인 | 173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2-1 | |
| 165 | 장조 상시호 옥인 | 1762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3-1 | |
| 166 | 장조 추상시호 옥인 | 177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4-1 | |
| 167 | 장조 추상존호 옥인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5-1 | |
| 168 | 장조 추상존호 옥인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6-1 | |
| 169 | 장조 추상존호 금인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7-1 | |
| 170 | 장조 추상존호 금인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8-1 | |
| 171 | 장조 추상시호 금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9-1 | |
| 172 | 장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0-1 | |
| 173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74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1-1 | |
| 174 | 장조비 헌경왕후 혜빈책봉 옥인 | 1762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2-1 | |
| 175 |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옥인 | 1778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3-1 | |
| 176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4-1 | |
| 177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5-1 | |
| 178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6-1 | |
| 179 |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금인 | 181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7-1 | |
| 180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금인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8-1 | |
| 181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시호 금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9-1 | |
| 182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20-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83 | 정조 왕세손책봉 옥인 | 175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1-1 | |
| 184 | 정조 효손 은인 | 1776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2-1 | |
| 185 | 정조 상시호 금보 | 1800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3-1 | |
| 186 | 정조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4-1 | |
| 187 | 정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5-1 | |
| 188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은인 | 1762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6-1 | |
| 189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78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7-1 | |
| 190 |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보 | 1802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8-1 | |
| 191 |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금보 | 1821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9-1 | |
| 192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30-1 | |
| 193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31-1 | |
| 194 | 순조 왕세자책봉 옥인 | 1800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2-1 | |
| 195 | 순조 상존호 옥보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3-1 | |
| 196 | 순조 상시호 금보 | 1835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4-1 | |
| 197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5-1 | |
| 198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6-1 | |
| 199 | 순조 추상시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7-1 | |
| 200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8-1 | |
| 201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9-1 | |
| 202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0-1 | |
| 203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1-1 | |
| 204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2-1 | |
| 205 | 순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3-1 | |
| 206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4-1 | |
| 207 |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보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5-1 | |
| 208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3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6-1 | |
| 209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4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7-1 | |
| 210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8-1 | |
| 211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9-1 | |
| 212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0-1 | |
| 213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1-1 | |
| 214 |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2-1 | |
| 215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3-1 | |
| 216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4-1 | |
| 217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5-1 | |
| 218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6-1 | |
| 219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7-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20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8-1 | |
| 221 | 문조 왕세자책봉 옥인 | 181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59-1 | |
| 222 | 문조 상시호 옥인 | 183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0-1 | |
| 223 | 문조 추상시호 금보 | 1835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1-1 | |
| 224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4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2-1 | |
| 225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3-1 | |
| 226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4-1 | |
| 227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5-1 | |
| 228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6-1 | |
| 229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7-1 | |
| 230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8-1 | |
| 231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9-1 | |
| 232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0-1 | |
| 233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1-1 | |
| 234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2-1 | |
| 235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3-1 | |
| 236 | 문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4-1 | |
| 237 | 문조 추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5-1 | |
| 23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6-1 | |
| 23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7-1 | |
| 240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8-1 | |
| 241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9-1 | |
| 242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0-1 | |
| 243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1-1 | |
| 24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2-1 | |
| 24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3-1 | |
| 24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4-1 | |
| 247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5-1 | |
| 24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6-1 | |
| 24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7-1 | |
| 250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8-1 | |
| 251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9-1 | |
| 252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0-1 | |
| 253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1-1 | |
| 25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2-1 | |
| 25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3-1 | |
| 25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4-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57 |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5-1 | |
| 258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6-1 | |
| 259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7-1 | |
| 260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8-1 | |
| 261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9-1 | |
| 262 | 헌종 왕세손책봉 옥인 | 183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0-1 | |
| 263 | 헌종 상시호 금보 | 1849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1-1 | |
| 264 | 헌종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2-1 | |
| 265 | 헌종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3-1 | |
| 266 | 헌종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4-1 | |
| 267 |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37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5-1 | |
| 268 |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금보 | 184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6-1 | |
| 269 |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보 | 1851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7-1 | |
| 270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8-1 | |
| 271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9-1 | |
| 272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0-1 | |
| 273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1-1 | |
| 274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9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2-1 | |
| 275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3-1 | |
| 276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4-1 | |
| 277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5-1 | |
| 278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6-1 | |
| 279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7-1 | |
| 280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8-1 | |
| 281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9-1 | |
| 282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2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0-1 | |
| 283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7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1-1 | |
| 284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2-1 | |
| 285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3-1 | |
| 286 |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금보 | 1904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4-1 | |
| 287 |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5-1 | |
| 288 | 철종 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6-1 | |
| 289 | 철종 상시호 금보 | 1864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7-1 | |
| 290 | 철종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8-1 | |
| 291 | 철종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9-1 | |
| 292 |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51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0-1 | |
| 293 |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1-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94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2-1 | |
| 295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3-1 | |
| 296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4-1 | |
| 297 |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5-1 | |
| 298 | 고종 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6-1 | |
| 299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7-1 | |
| 300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8-1 | |
| 301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9-1 | |
| 302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8실 | 신수9236 | 중박 |
| 303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8실 | 신수9240 | 중박 |
| 304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907년 | 정전 | 18실 | 고궁1993-1 | |
| 305 |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66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1-1 | |
| 306 |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2-1 | |
| 307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3-1 | |
| 308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4-1 | |
| 309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5-1 | |
| 310 | 고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보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6-1 | |
| 311 | 고종비 명성왕후 책봉 금보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7-1 | |
| 312 |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8-1 | |
| 313 |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9-1 | |
| 314 | 순종 왕세자책봉 옥인 | 1875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0-1 | |
| 315 | 순종비 순명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882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2-1 | |
| 316 | 순종비 순명왕후 황태자빈책봉 금보 | 1897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3-1 | |
| 317 | 순종비 순명왕후 상시호 옥보 | 1904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4-1 | |
| 318 | 영친왕 황태자책봉 금보 | 1907년 | 영녕전 | 16실 | 종묘13856-1 | |

<어책> : 290첩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 | 태조 추상시호 옥책 | 1683년 | 정전 | 1실 | 종묘13224-1 | |
| 2 | 태조 추상존호 옥책 | 1872년 | 정전 | 1실 | 종묘13225-1 | |
| 3 | 태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6-1 | |
| 4 |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7-1 | |
| 5 | 태조계비 신덕왕후 상휘호 옥책 | 166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8-1 | |
| 6 |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존 옥책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9-1 | |
| 7 | 정종 추상시호 옥책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230-1 | |
| 8 |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옥책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231-1 | |
| 9 | 태종 추상시호 옥책 | 1683년 | 정전 | 2실 | 종묘13232-1 | |
| 10 | 태종 추상존호 옥책 | 1872년 | 정전 | 2실 | 종묘13233-1 | |
| 11 | 단종 추상시호 옥책 | 1698년 | 영녕전 | 7실 | 종묘13234-1 | |
| 12 |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 1698년 | 영녕전 | 7실 | 종묘13235-1 | |
| 13 | 중종비 단경왕후 상시호 옥책 | 1739년 | 정전 | 6실 | 종묘13236-1 | |
| 14 |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옥책 | 1739년 | 정전 | 6실 | 종묘13237-1 | |
| 15 | 인종 상시호 옥책편 | 1545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238-1 | |
| 16 | 인종 상시호 옥책 | 1757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239-1 | |
| 17 | 선조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240-1 | |
| 18 |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241-1 | |
| 19 |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242-1 | |
| 20 | 인조 상시호 옥책 | 1649년 | 정전 | 8실 | 종묘13243-1 | |
| 21 | 인조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244-1 | |
| 22 |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23년 | 정전 | 8실 | 종묘13245-1 | |
| 23 |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 1636년 | 정전 | 8실 | 종묘13246-1 | |
| 24 | 인조비 인열왕후 상휘호 옥책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248-1 | |
| 25 |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 1758년 | 정전 | 8실 | 종묘13247-1 | |
| 26 |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249-1 | |
| 27 |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38년 | 정전 | 8실 | 종묘13250-1 | |
| 28 |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존호 옥책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251-1 | |
| 29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1661년 | 정전 | 8실 | 종묘13252-1 | |
| 30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1676년 | 정전 | 8실 | 종묘13253-1 | |
| 31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1686년 | 정전 | 8실 | 종묘13254-1 | |
| 32 |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시호 옥책 | 1688년 | 정전 | 8실 | 종묘13255-1 | |
| 33 | 인조계비 장렬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256-1 | |
| 34 | 효종 상시호 옥책 | 1659년 | 정전 | 9실 | 종묘13257-1 | |
| 35 | 효종 추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9실 | 종묘13258-1 | |
| 36 | 효종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259-1 | |
| 37 |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51년 | 정전 | 9실 | 종묘13260-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38 | 효종비 인선왕후 상존호 옥책 | 1661년 | 정전 | 9실 | 종묘13261-1 | |
| 39 |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 | 1674년 | 정전 | 9실 | 종묘13262-1 | |
| 40 |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263-1 | |
| 41 |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 1649년 | 정전 | 10실 | 종묘13481-1 | |
| 42 | 현종 왕세자책봉 죽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482-1 | |
| 43 | 현종 상시호 옥책 | 1674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4-1 | |
| 44 | 현종 추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5-1 | |
| 45 |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483-1 | |
| 46 | 현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61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6-1 | |
| 47 |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 1676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7-1 | |
| 48 |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책 | 1684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8-1 | |
| 49 | 현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9-1 | |
| 50 | 숙종 왕세자책봉 죽책 | 1667년 | 정전 | 11실 | 종묘13484-1 | |
| 51 | 숙종 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0-1 | |
| 52 | 숙종 상시호 옥책 | 172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1-1 | |
| 53 | 숙종 추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2-1 | |
| 54 | 숙종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3-1 | |
| 55 | 숙종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4-1 | |
| 56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671년 | 정전 | 11실 | 종묘13485-1 | |
| 57 |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5-1 | |
| 58 |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옥책 | 1681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6-1 | |
| 59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7-1 | |
| 60 |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책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8-1 | |
| 61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9-1 | |
| 62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0-1 | |
| 63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1-1 | |
| 64 |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옥책 | 1694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2-1 | |
| 65 |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시호 옥책 | 1701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3-1 | |
| 66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4-1 | |
| 67 |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책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5-1 | |
| 68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6-1 | |
| 69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7-1 | |
| 70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8-1 | |
| 71 |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0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9-1 | |
| 72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0-1 | |
| 73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1-1 | |
| 74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2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2-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75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3-1 | |
| 76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4-1 | |
| 77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47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5-1 | |
| 78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1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6-1 | |
| 79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7-1 | |
| 80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8-1 | |
| 81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9-1 | |
| 82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옥책 | 1757년 | 정전 | 11실 | 종묘13300-1 | |
| 83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301-1 | |
| 84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302-1 | |
| 85 | 경종 왕세자책봉 축책 | 169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6-1 | |
| 86 | 경종 상시호 옥책 | 1724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3-1 | |
| 87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축책 | 169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7-1 | |
| 88 |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축책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8-1 | |
| 89 |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옥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4-1 | |
| 90 |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책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5-1 | |
| 91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축책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9-1 | |
| 92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6-1 | |
| 93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책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7-1 | |
| 94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 | 173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8-1 | |
| 95 | 영조 왕세제책봉 축책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490-1 | |
| 96 | 영조 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09-1 | |
| 97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0-1 | |
| 98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1-1 | |
| 99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2-1 | |
| 100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3-1 | |
| 101 | 영조 상시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4-1 | |
| 102 | 영조 추상존호 옥책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5-1 | |
| 103 | 영조 추상시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6-1 | |
| 104 | 영조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7-1 | |
| 105 |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축책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491-1 | |
| 106 |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2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8-1 | |
| 107 |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9-1 | |
| 108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0-1 | |
| 109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1-1 | |
| 110 |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옥책 | 1757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2-1 | |
| 111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3-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12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4-1 | |
| 113 |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책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5-1 | |
| 114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6-1 | |
| 115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7-1 | |
| 116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59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8-1 | |
| 117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9-1 | |
| 118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0-1 | |
| 119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1-1 | |
| 120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83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2-1 | |
| 121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3-1 | |
| 122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87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4-1 | |
| 123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95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5-1 | |
| 124 |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존호 옥책 | 180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6-1 | |
| 125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0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7-1 | |
| 126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8-1 | |
| 127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9-1 | |
| 128 |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40-1 | |
| 129 | 진종 왕세자책봉 죽책 | 172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2-1 | |
| 130 | 진종 상시호 죽책 | 1729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3-1 | |
| 131 | 진종 왕세자승통 죽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4-1 | |
| 132 | 진종 추상시호 옥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1-1 | |
| 133 | 진종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2-1 | |
| 134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727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5-1 | |
| 135 |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 | 1752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6-1 | |
| 136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승통 죽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7-1 | |
| 137 |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옥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3-1 | |
| 138 |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4-1 | |
| 139 | 장조 왕세자책봉 죽책 | 173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498-1 | |
| 140 | 장조 상시호 죽책 | 177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499-1 | |
| 141 | 장조 추상존호 죽책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0-1 | |
| 142 | 장조 추상존호 죽책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1-1 | |
| 143 | 장조 추상존호 옥책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5-1 | |
| 144 | 장조 추상존호 옥책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6-1 | |
| 145 | 장조 상시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7-1 | |
| 146 | 장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8-1 | |
| 147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74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2-1 | |
| 148 |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죽책 | 1778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3-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49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죽책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4-1 | |
| 150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죽책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5-1 | |
| 151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9-1 | |
| 152 |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옥책 | 181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0-1 | |
| 153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1-1 | |
| 154 | 장조비 헌경왕후 상휘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2-1 | |
| 155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3-1 | |
| 156 | 정조 왕세손책봉 죽책 | 1759년 | 정전 | 13실 | 종묘13506-1 | |
| 157 | 정조 상시호 옥책 | 1800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4-1 | |
| 158 | 정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5-1 | |
| 159 | 정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6-1 | |
| 160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죽책 | 1762년 | 정전 | 13실 | 종묘13507-1 | |
| 161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78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7-1 | |
| 162 |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책 | 1802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8-1 | |
| 163 |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옥책 | 1821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9-1 | |
| 164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60-1 | |
| 165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61-1 | |
| 166 | 순조 왕세자책봉 죽책 | 1800년 | 정전 | 14실 | 종묘13508-1 | |
| 167 | 순조 상존호 옥책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2-1 | |
| 168 | 순조 상시호 옥책 | 1835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3-1 | |
| 169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4-1 | |
| 170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5-1 | |
| 171 | 순조 상시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6-1 | |
| 172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7-1 | |
| 173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8-1 | |
| 174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9-1 | |
| 175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0-1 | |
| 176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1-1 | |
| 177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2-1 | |
| 178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3-1 | |
| 179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4-1 | |
| 180 |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책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5-1 | |
| 181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3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6-1 | |
| 182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4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7-1 | |
| 183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8-1 | |
| 184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9-1 | |
| 185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0-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86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1-1 | |
| 187 |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2-1 | |
| 188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3-1 | |
| 189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4-1 | |
| 190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5-1 | |
| 191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6-1 | |
| 192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7-1 | |
| 193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8-1 | |
| 194 | 문조 왕세자책봉 죽책 | 1812년 | 정전 | 15실 | 종묘13509-1 | |
| 195 | 문조 상시호 죽책 | 1830년 | 정전 | 15실 | 종묘13510-1 | |
| 196 | 문조 추상시호 옥책 | 1835년 | 정전 | 15실 | 종묘13389-1 | |
| 197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48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0-1 | |
| 198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1-1 | |
| 199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2-1 | |
| 200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3-1 | |
| 201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4-1 | |
| 202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5-1 | |
| 203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6-1 | |
| 204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7-1 | |
| 205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8-1 | |
| 206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9-1 | |
| 207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0-1 | |
| 208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1-1 | |
| 209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2-1 | |
| 210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3-1 | |
| 211 |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819년 | 정전 | 15실 | 고궁2899-1 | |
| 212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4-1 | |
| 213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5-1 | |
| 21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6-1 | |
| 21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7-1 | |
| 21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8-1 | |
| 217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9-1 | |
| 21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0-1 | |
| 21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1-1 | |
| 220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2-1 | |
| 221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3-1 | |
| 222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4-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23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5-1 | |
| 22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6-1 | |
| 22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6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7-1 | |
| 22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8-1 | |
| 227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9-1 | |
| 22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0-1 | |
| 22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1-1 | |
| 230 |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2-1 | |
| 231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3-1 | |
| 232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4-1 | |
| 233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5-1 | |
| 234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6-1 | |
| 235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7-1 | |
| 236 | 헌종 왕세손책봉 죽책 | 1830년 | 정전 | 16실 | 종묘13511-1 | |
| 237 | 헌종 상시호 옥책 | 1849년 | 정전 | 16실 | 종묘13428-1 | |
| 238 | 헌종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29-1 | |
| 239 | 헌종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0-1 | |
| 240 | 헌종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1-1 | |
| 241 |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옥책 | 1837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2-1 | |
| 242 |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옥책 | 184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3-1 | |
| 243 |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책 | 1851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4-1 | |
| 244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5-1 | |
| 245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6-1 | |
| 246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7-1 | |
| 247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9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8-1 | |
| 248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9-1 | |
| 249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0-1 | |
| 250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1-1 | |
| 251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2-1 | |
| 252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3-1 | |
| 253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4-1 | |
| 254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5-1 | |
| 255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6-1 | |
| 256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7-1 | |
| 257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8-1 | |
| 258 |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옥책 | 1904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9-1 | |
| 259 |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50-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60 | 철종 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1-1 | |
| 261 | 철종 상시호 옥책 | 1864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2-1 | |
| 262 | 철종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3-1 | |
| 263 | 철종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4-1 | |
| 264 |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5-1 | |
| 265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6-1 | |
| 266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7-1 | |
| 267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8-1 | |
| 268 | 철종비 철인왕후 상휘호 옥책 | 1878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9-1 | |
| 269 |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7실 | 신수9235 | 중박 |
| 270 | 고종 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0-1 | |
| 271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1-1 | |
| 272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2-1 | |
| 273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3-1 | |
| 274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4-1 | |
| 275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5-1 | |
| 276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907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6-1 | |
| 277 |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책봉 옥책 | 1866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8-1 | |
| 278 |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9-1 | |
| 279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0-1 | |
| 280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1-1 | |
| 281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2-1 | |
| 282 | 고종비 명성황후 황후책봉 금책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544 | |
| 283 | 고종비 명성황후 상시호 옥책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3-1 | |
| 284 | 고종비 명성황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4-1 | |
| 285 | 고종비 명성황후 추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5-1 | |
| 286 | 순종 왕세자책봉 죽책 | 1875년 | 정전 | 19실 | 종묘13512-1 | |
| 287 | 순종 황태자 책봉 금책 | 1897년 | 정전 | 19실 | 신수9237 | 중박 |
| 288 | 순종비 순명효황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882년 | 정전 | 19실 | 종묘13513-1 | |
| 289 | 순종비 순명효황후 상시호 옥책 | 1904년 | 정전 | 19실 | 종묘13478-1 | |
| 290 |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 1907년 | 정전 | 19실 | 창덕25349 | |

<교명> : 29축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 |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책봉 교명 | 1638년 | 정전 | 8실 | 종묘13516-1 | |
| 2 |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45년 | 정전 | 9실 | 종묘13517-1 | |
| 3 |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518-1 | |
| 4 |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519-1 | |
| 5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71년 | 정전 | 11실 | 종묘13520-1 | |
| 6 |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교명 | 1694년 | 정전 | 11실 | 종묘13521-1 | |
| 7 |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02년 | 정전 | 11실 | 종묘13522-1 | |
| 8 |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 169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3-1 | |
| 9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9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4-1 | |
| 10 |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교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5-1 | |
| 11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6-1 | |
| 12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7-1 | |
| 13 | 영조 왕세제책봉 교명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528-1 | |
| 14 |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26년 | 정전 | 12실 | 종묘13529-1 | |
| 15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59년 | 정전 | 12실 | 종묘13530-1 | |
| 16 | 진종 왕세자책봉 교명 | 172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531-1 | |
| 17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727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532-1 | |
| 18 | 장조 왕세자책봉 교명 | 173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33-1 | |
| 19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74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34-1 | |
| 20 | 정조 왕세손책봉 교명 | 1759년 | 정전 | 13실 | 종묘13535-1 | |
| 21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교명 | 1762년 | 정전 | 13실 | 종묘13536-1 | |
| 22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78년 | 정전 | 13실 | 종묘13537-1 | |
| 23 | 순조 왕세자책봉 교명 | 1800년 | 정전 | 14실 | 종묘13538-1 | |
| 24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539-1 | |
| 25 | 문조 왕세자책봉 교명 | 1812년 | 정전 | 15실 | 종묘13540-1 | |
| 26 | 헌종 왕세손책봉 교명 | 1830년 | 정전 | 16실 | 종묘13541-1 | |
| 27 |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교명 | 1837년 | 정전 | 16실 | 종묘13542-1 | |
| 28 |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책봉 교명 | 1866년 | 정전 | 18실 | 종묘13543-1 | |
| 29 |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 | 1875년 | 정전 | 19실 | 신수9239 | 중박 |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지정 대상 목록-소장처별】

<국립고궁박물관> : 628점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 | 목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1실 | 종묘13545-1 | |
| 2 | 목조비 효공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1실 | 종묘13546-1 | |
| 3 | 익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2실 | 종묘13547-1 | |
| 4 | 익조비 정숙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2실 | 종묘13548-1 | |
| 5 | 도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3실 | 종묘13549-1 | |
| 6 | 도조비 경순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3실 | 종묘13550-1 | |
| 7 | 환조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4실 | 종묘13551-1 | |
| 8 | 환조비 의혜왕후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4실 | 종묘13552-1 | |
| 9 | 태조 추상시호 금보 | 1683년 | 정전 | 1실 | 종묘13553-1 | |
| 10 | 태조 추상존호 금보 | 1872년 | 정전 | 1실 | 종묘13554-1 | |
| 11 |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555-1 | |
| 12 |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556-1 | |
| 13 | 정종 추상시호 금보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557-1 | |
| 14 |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금보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558-1 | |
| 15 | 세종 상시호 금보 | 1450년 | 정전 | 3실 | 종묘13559-1 | |
| 16 | 세종비 소현왕후 상시호 금보 | 1446년 | 정전 | 3실 | 종묘13560-1 | |
| 17 | 문종 상시호 금보 | 1452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1-1 | |
| 18 | 문종비 현덕왕후 상시호 금인 | 1513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2-1 | |
| 19 | 문종비 현덕왕후 추상시호 금보 | 1513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3-1 | |
| 20 | 문종비 현덕왕후 상휘호 금보 | 1513년 | 영녕전 | 6실 | 종묘13564-1 | |
| 21 | 세조비 정희왕후 상존호 옥보 | 1457년 | 정전 | 4실 | 종묘13565-1 | |
| 22 | 세조비 정희왕후 가상존호 옥보 | 1471년 | 정전 | 4실 | 종묘13566-1 | |
| 23 | 예종 무승안민지보 | 1457년 | 영녕전 | 9실 | 종묘13567-1 | |
| 24 | 예종비 장순왕후 왕세자빈책봉 백철인 | 1460년 | 영녕전 | 9실 | 종묘13569-1 | |
| 25 | 예종계비 안순왕후 상존호 옥인 | 1471년 | 영녕전 | 9실 | 종묘13571-1 | |
| 26 | 성종 상시호 금보 | 1495년 | 정전 | 5실 | 종묘13573-1 | |
| 27 | 성종비 공혜왕후 상시호 금보 | 1474년 | 정전 | 5실 | 종묘13574-1 | |
| 28 | 성종비 공혜왕후 상휘호 금인 | 1497년 | 정전 | 5실 | 고궁1558-1 | |
| 29 |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존호 금인 | 1497년 | 정전 | 5실 | 종묘13575-1 | |
| 30 | 성종계비 정현왕후 상시호 금보 | 1530년 | 정전 | 5실 | 종묘13576-1 | |
| 31 | 중종 상시호 금보 | 1545년 | 정전 | 6실 | 종묘13577-1 | |
| 32 |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금보 | 1739년 | 정전 | 6실 | 종묘13578-1 | |
| 33 | 중종계비 장경왕후 상휘호 금보 | 1546년 | 정전 | 6실 | 종묘13579-1 | |
| 34 |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존호 금보 | 1554년 | 정전 | 6실 | 고궁2843-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35 | 중종계비 문정왕후 가상존호 금보 | 1554년 | 정전 | 6실 | 종묘13580-1 | |
| 36 | 중종계비 문정왕후 상시호 금보 | 1565년 | 정전 | 6실 | 종묘13581-1 | |
| 37 | 인종 상시호 금보 | 1545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582-1 | |
| 38 | 인종비 인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은인 | 1554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583-1 | |
| 39 | 인종비 인성왕후 상존호 금보 | 1554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584-1 | |
| 40 | 명종 상시호 금보 | 1705년 | 영녕전 | 11실 | 종묘13585-1 | |
| 41 | 명종비 인순왕후 상존호 금보 | 1569년 | 영녕전 | 11실 | 종묘13586-1 | |
| 42 | 선조 가상존호 옥보 | 1604년 | 정전 | 7실 | 종묘13587-1 | |
| 43 | 선조 상시호 금보 | 1608년 | 정전 | 7실 | 종묘13588-1 | |
| 44 | 선조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589-1 | |
| 45 | 선조비 의인왕후 상존호 옥보 | 160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0-1 | |
| 46 | 선조비 의인왕후 상시호 금보 | 160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1-1 | |
| 47 |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 1604년 | 정전 | 7실 | 종묘13592-1 | |
| 48 | 선조비 의인왕후 상휘호 옥보 | 161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3-1 | |
| 49 |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594-1 | |
| 50 | 선조계비 인목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02년 | 정전 | 7실 | 종묘13595-1 | |
| 51 |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존호 옥보 | 1604년 | 정전 | 7실 | 종묘13596-1 | |
| 52 |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10년 | 정전 | 7실 | 종묘13597-1 | |
| 53 | 선조계비 인목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24년 | 정전 | 7실 | 종묘13598-1 | |
| 54 | 선조계비 인목왕후 상시호 금보 | 1632년 | 정전 | 7실 | 종묘13599-1 | |
| 55 |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600-1 | |
| 56 | 원종 상시호 옥보 | 1634년 | 영녕전 | 12실 | 종묘13601-1 | |
| 57 | 원종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 1632년 | 영녕전 | 12실 | 종묘13602-1 | |
| 58 | 인조 상시호 금보 | 1649년 | 정전 | 8실 | 종묘13603-1 | |
| 59 | 인조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604-1 | |
| 60 |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605-1 | |
| 61 |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금보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606-1 | |
| 62 |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607-1 | |
| 63 | 인조계비 장열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87년 | 정전 | 8실 | 종묘13608-1 | |
| 64 |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87년 | 정전 | 8실 | 종묘13609-1 | |
| 65 |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76년 | 정전 | 8실 | 고궁3864 | |
| 66 | 인조계비 장열왕후 가상존호 옥보 | 1686년 | 정전 | 8실 | 종묘13610-1 | |
| 67 | 인조계비 장열왕후 상시호 금보 | 1688년 | 정전 | 8실 | 종묘13611-1 | |
| 68 | 인조계비 장열왕후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612-1 | |
| 69 | 효종 추상존호 금보 | 1740년 | 정전 | 9실 | 고궁3668-1 | |
| 70 | 효종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613-1 | |
| 71 |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금보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614-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72 | 현종 왕세자책봉 옥인 | 1651년 | 정전 | 10실 | 고궁2844-1 | |
| 73 |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금보 | 1684년 | 정전 | 10실 | 종묘13615-1 | |
| 74 | 숙종 왕세자책봉 옥인 | 1667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6-1 | |
| 75 | 숙종 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7-1 | |
| 76 | 숙종 상시호 금보 | 172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8-1 | |
| 77 | 숙종 추상존호 금보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19-1 | |
| 78 | 숙종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0-1 | |
| 79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671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1-1 | |
| 80 |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금보 | 16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2-1 | |
| 81 |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금보 | 1681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3-1 | |
| 82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4-1 | |
| 83 |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보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5-1 | |
| 84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6-1 | |
| 85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7-1 | |
| 86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8-1 | |
| 87 | 숙종계비 인현왕후 복위 금보 | 1694년 | 정전 | 11실 | 종묘13629-1 | |
| 88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0-1 | |
| 89 |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보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1-1 | |
| 90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2-1 | |
| 91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3-1 | |
| 92 |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0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4-1 | |
| 93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보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5-1 | |
| 94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6-1 | |
| 95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2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7-1 | |
| 96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8-1 | |
| 97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39-1 | |
| 98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47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0-1 | |
| 99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1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1-1 | |
| 100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2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2-1 | |
| 101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금보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3-1 | |
| 102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4-1 | |
| 103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금보 | 1757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5-1 | |
| 104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6-1 | |
| 105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647-1 | |
| 106 | 경종 왕세자책봉 옥인 | 169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48-1 | |
| 107 | 경종 상시호 금보 | 1724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49-1 | |
| 108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69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0-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09 |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옥인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1-1 | |
| 110 | 경종비 단의왕후 추봉 금보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2-1 | |
| 111 |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보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3-1 | |
| 112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4-1 | |
| 113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5-1 | |
| 114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보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6-1 | |
| 115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금보 | 173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657-1 | |
| 116 | 영조 왕세제책봉 옥인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658-1 | |
| 117 | 영조 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59-1 | |
| 118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0-1 | |
| 119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1-1 | |
| 120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2-1 | |
| 121 | 영조 가상존호 옥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3-1 | |
| 122 | 영조 상시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4-1 | |
| 123 | 영조 추상시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5-1 | |
| 124 | 영조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6-1 | |
| 125 |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옥인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7-1 | |
| 126 |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2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8-1 | |
| 127 |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보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69-1 | |
| 128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0-1 | |
| 129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1-1 | |
| 130 |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금보 | 1757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2-1 | |
| 131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3-1 | |
| 132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4-1 | |
| 133 |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보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5-1 | |
| 134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6-1 | |
| 135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7-1 | |
| 136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59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8-1 | |
| 137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보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79-1 | |
| 138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0-1 | |
| 139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1-1 | |
| 140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83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2-1 | |
| 141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3-1 | |
| 142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87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4-1 | |
| 143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795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5-1 | |
| 144 |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 옥보 | 1802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6-1 | |
| 145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04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7-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46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8-1 | |
| 147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689-1 | |
| 148 |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690-1 | |
| 149 | 진종 왕세자책봉 옥인 | 172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1-1 | |
| 150 | 진종 상시호 옥인 | 1729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2-1 | |
| 151 | 진종 세자승통 은인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3-1 | |
| 152 | 진종 추상시호 금보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4-1 | |
| 153 | 진종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5-1 | |
| 154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727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6-1 | |
| 155 | 진종비 효순왕후 현빈책봉 옥인 | 173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7-1 | |
| 156 |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옥인 | 1752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8-1 | |
| 157 | 진종비 효순왕후 세자빈승통 은인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699-1 | |
| 158 |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금보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700-1 | |
| 159 |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701-1 | |
| 160 | 장조 왕세자책봉 옥인 | 173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2-1 | |
| 161 | 장조 상시호 옥인 | 1762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3-1 | |
| 162 | 장조 추상시호 옥인 | 177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4-1 | |
| 163 | 장조 추상존호 옥인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5-1 | |
| 164 | 장조 추상존호 옥인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6-1 | |
| 165 | 장조 추상존호 금인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7-1 | |
| 166 | 장조 추상존호 금인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8-1 | |
| 167 | 장조 추상시호 금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09-1 | |
| 168 | 장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0-1 | |
| 169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74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1-1 | |
| 170 | 장조비 헌경왕후 혜빈책봉 옥인 | 1762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2-1 | |
| 171 |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옥인 | 1778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3-1 | |
| 172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4-1 | |
| 173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5-1 | |
| 174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인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6-1 | |
| 175 |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금인 | 181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7-1 | |
| 176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금인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8-1 | |
| 177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시호 금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19-1 | |
| 178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720-1 | |
| 179 | 정조 왕세손책봉 옥인 | 175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1-1 | |
| 180 | 정조 효손 은인 | 1776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2-1 | |
| 181 | 정조 상시호 금보 | 1800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3-1 | |
| 182 | 정조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4-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83 | 정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5-1 | |
| 184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은인 | 1762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6-1 | |
| 185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금보 | 1778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7-1 | |
| 186 |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보 | 1802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8-1 | |
| 187 |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금보 | 1821년 | 정전 | 13실 | 종묘13729-1 | |
| 188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30-1 | |
| 189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731-1 | |
| 190 | 순조 왕세자책봉 옥인 | 1800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2-1 | |
| 191 | 순조 상존호 옥보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3-1 | |
| 192 | 순조 상시호 금보 | 1835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4-1 | |
| 193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5-1 | |
| 194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6-1 | |
| 195 | 순조 추상시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7-1 | |
| 196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8-1 | |
| 197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39-1 | |
| 198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0-1 | |
| 199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1-1 | |
| 200 | 순조 추상존호 금보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2-1 | |
| 201 | 순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3-1 | |
| 202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4-1 | |
| 203 |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보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5-1 | |
| 204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3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6-1 | |
| 205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4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7-1 | |
| 206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8-1 | |
| 207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49-1 | |
| 208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0-1 | |
| 209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1-1 | |
| 210 |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2-1 | |
| 211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3-1 | |
| 212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4-1 | |
| 213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5-1 | |
| 214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6-1 | |
| 215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7-1 | |
| 216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758-1 | |
| 217 | 문조 왕세자책봉 옥인 | 181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59-1 | |
| 218 | 문조 상시호 옥인 | 183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0-1 | |
| 219 | 문조 추상시호 금보 | 1835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1-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20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4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2-1 | |
| 221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3-1 | |
| 222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4-1 | |
| 223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5-1 | |
| 224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6-1 | |
| 225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7-1 | |
| 226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8-1 | |
| 227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69-1 | |
| 228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0-1 | |
| 229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1-1 | |
| 230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2-1 | |
| 231 | 문조 추상존호 금보 | 189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3-1 | |
| 232 | 문조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4-1 | |
| 233 | 문조 추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5-1 | |
| 23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6-1 | |
| 23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7-1 | |
| 23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8-1 | |
| 237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79-1 | |
| 23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0-1 | |
| 23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1-1 | |
| 240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2-1 | |
| 241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3-1 | |
| 242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4-1 | |
| 243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5-1 | |
| 24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6-1 | |
| 24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7-1 | |
| 24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8-1 | |
| 247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789-1 | |
| 24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6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0-1 | |
| 24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1-1 | |
| 250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2-1 | |
| 251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3-1 | |
| 252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4-1 | |
| 253 |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금보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5-1 | |
| 254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6-1 | |
| 255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7-1 | |
| 256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8-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57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799-1 | |
| 258 | 헌종 왕세손책봉 옥인 | 183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0-1 | |
| 259 | 헌종 상시호 금보 | 1849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1-1 | |
| 260 | 헌종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2-1 | |
| 261 | 헌종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3-1 | |
| 262 | 헌종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4-1 | |
| 263 |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37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5-1 | |
| 264 |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금보 | 184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6-1 | |
| 265 |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보 | 1851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7-1 | |
| 266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8-1 | |
| 267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09-1 | |
| 268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0-1 | |
| 269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1-1 | |
| 270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59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2-1 | |
| 271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3-1 | |
| 272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4-1 | |
| 273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5-1 | |
| 274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6-1 | |
| 275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7-1 | |
| 276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8-1 | |
| 277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19-1 | |
| 278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2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0-1 | |
| 279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7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1-1 | |
| 280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2-1 | |
| 281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3-1 | |
| 282 |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금보 | 1904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4-1 | |
| 283 |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825-1 | |
| 284 | 철종 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6-1 | |
| 285 | 철종 상시호 금보 | 1864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7-1 | |
| 286 | 철종 추상존호 금보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8-1 | |
| 287 | 철종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7실 | 종묘13829-1 | |
| 288 |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51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0-1 | |
| 289 |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보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1-1 | |
| 290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2-1 | |
| 291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3-1 | |
| 292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4-1 | |
| 293 |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8년 | 정전 | 17실 | 종묘13835-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294 | 고종 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6-1 | |
| 295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7-1 | |
| 296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8-1 | |
| 297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839-1 | |
| 298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907년 | 정전 | 18실 | 고궁1993-1 | |
| 299 |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금보 | 1866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1-1 | |
| 300 |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2-1 | |
| 301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3-1 | |
| 302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4-1 | |
| 303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보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5-1 | |
| 304 | 고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보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6-1 | |
| 305 | 고종비 명성왕후 책봉 금보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7-1 | |
| 306 |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8-1 | |
| 307 |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849-1 | |
| 308 | 순종 왕세자책봉 옥인 | 1875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0-1 | |
| 309 | 순종비 순명왕후 왕세자빈책봉 옥인 | 1882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2-1 | |
| 310 | 순종비 순명왕후 황태자비책봉 금보 | 1897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3-1 | |
| 311 | 순종비 순명왕후 상시호 옥보 | 1904년 | 정전 | 19실 | 종묘13854-1 | |
| 312 | 영친왕 황태자책봉 금보 | 1907년 | 영녕전 | 16실 | 종묘13856-1 | |
| 313 | 태조 추상시호 옥책 | 1683년 | 정전 | 1실 | 종묘13224-1 | |
| 314 | 태조 추상존호 옥책 | 1872년 | 정전 | 1실 | 종묘13225-1 | |
| 315 | 태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6-1 | |
| 316 | 태조비 신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7-1 | |
| 317 | 태조계비 신덕왕후 상휘호 옥책 | 166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8-1 | |
| 318 | 태조계비 신덕왕후 추존 옥책 | 1899년 | 정전 | 1실 | 종묘13229-1 | |
| 319 | 정종 추상시호 옥책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230-1 | |
| 320 | 정종비 정안왕후 상휘호 옥책 | 1681년 | 영녕전 | 5실 | 종묘13231-1 | |
| 321 | 태종 추상시호 옥책 | 1683년 | 정전 | 2실 | 종묘13232-1 | |
| 322 | 태종 추상존호 옥책 | 1872년 | 정전 | 2실 | 종묘13233-1 | |
| 323 | 단종 추상시호 옥책 | 1698년 | 영녕전 | 7실 | 종묘13234-1 | |
| 324 |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 1698년 | 영녕전 | 7실 | 종묘13235-1 | |
| 325 | 중종비 단경왕후 상시호 옥책 | 1739년 | 정전 | 6실 | 종묘13236-1 | |
| 326 | 중종비 단경왕후 상휘호 옥책 | 1739년 | 정전 | 6실 | 종묘13237-1 | |
| 327 | 인종 상시호 옥책편 | 1545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238-1 | |
| 328 | 인종 상시호 옥책 | 1757년 | 영녕전 | 10실 | 종묘13239-1 | |
| 329 | 선조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240-1 | |
| 330 | 선조비 의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241-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331 | 선조계비 인목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7실 | 종묘13242-1 | |
| 332 | 인조 상시호 옥책 | 1649년 | 정전 | 8실 | 종묘13243-1 | |
| 333 | 인조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244-1 | |
| 334 | 인조비 인열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23년 | 정전 | 8실 | 종묘13245-1 | |
| 335 |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 1636년 | 정전 | 8실 | 종묘13246-1 | |
| 336 | 인조비 인열왕후 상휘호 옥책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248-1 | |
| 337 | 인조비 인열왕후 상시호 옥책 | 1758년 | 정전 | 8실 | 종묘13247-1 | |
| 338 | 인조비 인열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249-1 | |
| 339 |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38년 | 정전 | 8실 | 종묘13250-1 | |
| 340 |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존호 옥책 | 1651년 | 정전 | 8실 | 종묘13251-1 | |
| 341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1661년 | 정전 | 8실 | 종묘13252-1 | |
| 342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1676년 | 정전 | 8실 | 종묘13253-1 | |
| 343 | 인조계비 장렬왕후 가상존호 옥책 | 1686년 | 정전 | 8실 | 종묘13254-1 | |
| 344 | 인조계비 장렬왕후 상시호 옥책 | 1688년 | 정전 | 8실 | 종묘13255-1 | |
| 345 | 인조계비 장렬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8실 | 종묘13256-1 | |
| 346 | 효종 상시호 옥책 | 1659년 | 정전 | 9실 | 종묘13257-1 | |
| 347 | 효종 추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9실 | 종묘13258-1 | |
| 348 | 효종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259-1 | |
| 349 | 효종비 인선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51년 | 정전 | 9실 | 종묘13260-1 | |
| 350 | 효종비 인선왕후 상존호 옥책 | 1661년 | 정전 | 9실 | 종묘13261-1 | |
| 351 | 효종비 인선왕후 상시호 옥책 | 1674년 | 정전 | 9실 | 종묘13262-1 | |
| 352 | 효종비 인선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9실 | 종묘13263-1 | |
| 353 | 현종 왕세손책봉 죽책 | 1649년 | 정전 | 10실 | 종묘13481-1 | |
| 354 | 현종 왕세자책봉 죽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482-1 | |
| 355 | 현종 상시호 옥책 | 1674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4-1 | |
| 356 | 현종 추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5-1 | |
| 357 |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483-1 | |
| 358 | 현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61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6-1 | |
| 359 |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 1676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7-1 | |
| 360 | 현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책 | 1684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8-1 | |
| 361 | 현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0실 | 종묘13269-1 | |
| 362 | 숙종 왕세자책봉 죽책 | 1667년 | 정전 | 11실 | 종묘13484-1 | |
| 363 | 숙종 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0-1 | |
| 364 | 숙종 상시호 옥책 | 172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1-1 | |
| 365 | 숙종 추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2-1 | |
| 366 | 숙종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3-1 | |
| 367 | 숙종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4-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368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671년 | 정전 | 11실 | 종묘13485-1 | |
| 369 | 숙종비 인경왕후 왕비책봉 옥책 | 16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5-1 | |
| 370 | 숙종비 인경왕후 상시호 옥책 | 1681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6-1 | |
| 371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7-1 | |
| 372 | 숙종비 인경왕후 상휘호 옥책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8-1 | |
| 373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79-1 | |
| 374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0-1 | |
| 375 |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1-1 | |
| 376 |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옥책 | 1694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2-1 | |
| 377 |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시호 옥책 | 1701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3-1 | |
| 378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4-1 | |
| 379 | 숙종계비 인현왕후 상휘호 옥책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5-1 | |
| 380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6-1 | |
| 381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7-1 | |
| 382 |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8-1 | |
| 383 |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0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89-1 | |
| 384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존호 옥책 | 171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0-1 | |
| 385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2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1-1 | |
| 386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2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2-1 | |
| 387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3-1 | |
| 388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4-1 | |
| 389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47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5-1 | |
| 390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1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6-1 | |
| 391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2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7-1 | |
| 392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3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8-1 | |
| 393 | 숙종계비 인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6년 | 정전 | 11실 | 종묘13299-1 | |
| 394 | 숙종계비 인원왕후 상시호 옥책 | 1757년 | 정전 | 11실 | 종묘13300-1 | |
| 395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1실 | 종묘13301-1 | |
| 396 | 숙종계비 인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1실 | 종묘13302-1 | |
| 397 | 경종 왕세자책봉 죽책 | 169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6-1 | |
| 398 | 경종 상시호 옥책 | 1724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3-1 | |
| 399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69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7-1 | |
| 400 | 경종비 단의왕후 상시호 죽책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8-1 | |
| 401 |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옥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4-1 | |
| 402 | 경종비 단의왕후 상휘호 옥책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5-1 | |
| 403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489-1 | |
| 404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6-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405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존호 옥책 | 172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7-1 | |
| 406 |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시호 옥책 | 173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308-1 | |
| 407 | 영조 왕세제책봉 죽책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490-1 | |
| 408 | 영조 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09-1 | |
| 409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0-1 | |
| 410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1-1 | |
| 411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2-1 | |
| 412 | 영조 가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3-1 | |
| 413 | 영조 상시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4-1 | |
| 414 | 영조 추상존호 옥책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5-1 | |
| 415 | 영조 추상시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6-1 | |
| 416 | 영조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7-1 | |
| 417 | 영조비 정성왕후 왕세제빈책봉 죽책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491-1 | |
| 418 |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2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8-1 | |
| 419 | 영조비 정성왕후 상존호 옥책 | 174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19-1 | |
| 420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0-1 | |
| 421 | 영조비 정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5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1-1 | |
| 422 | 영조비 정성왕후 상시호 옥책 | 1757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2-1 | |
| 423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3-1 | |
| 424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4-1 | |
| 425 | 영조비 정성왕후 상휘호 옥책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5-1 | |
| 426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6-1 | |
| 427 | 영조비 정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7-1 | |
| 428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59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8-1 | |
| 429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존호 옥책 | 177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29-1 | |
| 430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76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0-1 | |
| 431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78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1-1 | |
| 432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83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2-1 | |
| 433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8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3-1 | |
| 434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87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4-1 | |
| 435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95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5-1 | |
| 436 | 영조계비 정순왕후 대왕대비존호 옥책 | 1802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6-1 | |
| 437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04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7-1 | |
| 438 | 영조계비 정순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8-1 | |
| 439 | 영조계비 정순왕후 상시호 옥책 | 1805년 | 정전 | 12실 | 종묘13339-1 | |
| 440 | 영조계비 정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2실 | 종묘13340-1 | |
| 441 | 진종 왕세자책봉 죽책 | 172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2-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442 | 진종 상시호 죽책 | 1729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3-1 | |
| 443 | 진종 왕세자승통 죽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4-1 | |
| 444 | 진종 추상시호 옥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1-1 | |
| 445 | 진종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2-1 | |
| 446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727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5-1 | |
| 447 | 진종비 효순왕후 상시호 죽책 | 1752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6-1 | |
| 448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승통 죽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497-1 | |
| 449 | 진종비 효순왕후 상휘호 옥책 | 1776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3-1 | |
| 450 | 진종비 효순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344-1 | |
| 451 | 장조 왕세자책봉 죽책 | 173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498-1 | |
| 452 | 장조 상시호 죽책 | 177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499-1 | |
| 453 | 장조 추상존호 죽책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0-1 | |
| 454 | 장조 추상존호 죽책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1-1 | |
| 455 | 장조 추상존호 옥책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5-1 | |
| 456 | 장조 추상존호 옥책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6-1 | |
| 457 | 장조 상시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7-1 | |
| 458 | 장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8-1 | |
| 459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74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2-1 | |
| 460 | 장조비 헌경왕후 상존호 죽책 | 1778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3-1 | |
| 461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죽책 | 1783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4-1 | |
| 462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죽책 | 178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05-1 | |
| 463 | 장조비 헌경왕후 가상존호 옥책 | 179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49-1 | |
| 464 | 장조비 헌경왕후 상시호 옥책 | 181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0-1 | |
| 465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5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1-1 | |
| 466 | 장조비 헌경왕후 상휘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2-1 | |
| 467 | 장조비 헌경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353-1 | |
| 468 | 정조 왕세손책봉 죽책 | 1759년 | 정전 | 13실 | 종묘13506-1 | |
| 469 | 정조 상시호 옥책 | 1800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4-1 | |
| 470 | 정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5-1 | |
| 471 | 정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6-1 | |
| 472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죽책 | 1762년 | 정전 | 13실 | 종묘13507-1 | |
| 473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옥책 | 1778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7-1 | |
| 474 | 정조비 효의왕후 상존호 옥책 | 1802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8-1 | |
| 475 | 정조비 효의왕후 상시호 옥책 | 1821년 | 정전 | 13실 | 종묘13359-1 | |
| 476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60-1 | |
| 477 | 정조비 효의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3실 | 종묘13361-1 | |
| 478 | 순조 왕세자책봉 죽책 | 1800년 | 정전 | 14실 | 종묘13508-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479 | 순조 상존호 옥책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2-1 | |
| 480 | 순조 상시호 옥책 | 1835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3-1 | |
| 481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4-1 | |
| 482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5-1 | |
| 483 | 순조 상시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6-1 | |
| 484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7-1 | |
| 485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8-1 | |
| 486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69-1 | |
| 487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0-1 | |
| 488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1-1 | |
| 489 | 순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2-1 | |
| 490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3-1 | |
| 491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옥책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4-1 | |
| 492 | 순조비 순원왕후 상존호 옥책 | 182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5-1 | |
| 493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3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6-1 | |
| 494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4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7-1 | |
| 495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4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8-1 | |
| 496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79-1 | |
| 497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0-1 | |
| 498 | 순조비 순원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1-1 | |
| 499 | 순조비 순원왕후 상시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2-1 | |
| 500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7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3-1 | |
| 501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8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4-1 | |
| 502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61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5-1 | |
| 503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62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6-1 | |
| 504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7-1 | |
| 505 | 순조비 순원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4실 | 종묘13388-1 | |
| 506 | 문조 왕세자책봉 죽책 | 1812년 | 정전 | 15실 | 종묘13509-1 | |
| 507 | 문조 상시호 죽책 | 1830년 | 정전 | 15실 | 종묘13510-1 | |
| 508 | 문조 추상시호 옥책 | 1835년 | 정전 | 15실 | 종묘13389-1 | |
| 509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48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0-1 | |
| 510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1-1 | |
| 511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2-1 | |
| 512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3-1 | |
| 513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4-1 | |
| 514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5-1 | |
| 515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6-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516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7-1 | |
| 517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8-1 | |
| 518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399-1 | |
| 519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0-1 | |
| 520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1-1 | |
| 521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2-1 | |
| 522 | 문조 추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3-1 | |
| 523 |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축책 | 1819년 | 정전 | 15실 | 고궁2899-1 | |
| 52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4-1 | |
| 52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5-1 | |
| 52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6-1 | |
| 527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7-1 | |
| 52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7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8-1 | |
| 52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09-1 | |
| 530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0-1 | |
| 531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1-1 | |
| 532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5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2-1 | |
| 533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7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3-1 | |
| 534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4-1 | |
| 535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5-1 | |
| 536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3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6-1 | |
| 537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6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7-1 | |
| 538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7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8-1 | |
| 539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19-1 | |
| 540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0-1 | |
| 541 | 문조비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1-1 | |
| 542 | 문조비 신정왕후 상시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2-1 | |
| 543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3-1 | |
| 544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4-1 | |
| 545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5-1 | |
| 546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99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6-1 | |
| 547 | 문조비 신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5실 | 종묘13427-1 | |
| 548 | 헌종 왕세손책봉 축책 | 1830년 | 정전 | 16실 | 종묘13511-1 | |
| 549 | 헌종 상시호 옥책 | 1849년 | 정전 | 16실 | 종묘13428-1 | |
| 550 | 헌종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29-1 | |
| 551 | 헌종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0-1 | |
| 552 | 헌종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1-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553 |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옥책 | 1837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2-1 | |
| 554 | 헌종비 효현왕후 상시호 옥책 | 184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3-1 | |
| 555 | 헌종비 효현왕후 상휘호 옥책 | 1851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4-1 | |
| 556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5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5-1 | |
| 557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6-1 | |
| 558 | 헌종비 효현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7-1 | |
| 559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59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8-1 | |
| 560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39-1 | |
| 561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0-1 | |
| 562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1-1 | |
| 563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2-1 | |
| 564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3-1 | |
| 565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4-1 | |
| 566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5-1 | |
| 567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6-1 | |
| 568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7-1 | |
| 569 | 헌종계비 효정왕후 가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8-1 | |
| 570 | 헌종계비 효정왕후 상시호 옥책 | 1904년 | 정전 | 16실 | 종묘13449-1 | |
| 571 | 헌종계비 효정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6실 | 종묘13450-1 | |
| 572 | 철종 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1-1 | |
| 573 | 철종 상시호 옥책 | 1864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2-1 | |
| 574 | 철종 추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3-1 | |
| 575 | 철종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4-1 | |
| 576 | 철종비 철인왕후 상존호 옥책 | 1863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5-1 | |
| 577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6-1 | |
| 578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66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7-1 | |
| 579 | 철종비 철인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8-1 | |
| 580 | 철종비 철인왕후 상휘호 옥책 | 1878년 | 정전 | 17실 | 종묘13459-1 | |
| 581 | 고종 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0-1 | |
| 582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1-1 | |
| 583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2-1 | |
| 584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3-1 | |
| 585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4-1 | |
| 586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5-1 | |
| 587 | 고종 가상존호 옥책 | 1907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6-1 | |
| 588 | 고종비 명성왕후 왕비책봉 옥책 | 1866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8-1 | |
| 589 | 고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책 | 1873년 | 정전 | 18실 | 종묘13469-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590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88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0-1 | |
| 591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1-1 | |
| 592 | 고종비 명성왕후 가상존호 옥책 | 189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2-1 | |
| 593 | 고종비 명성왕후 황후책봉 금책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544 | |
| 594 | 고종비 명성왕후 상시호 옥책 | 1897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3-1 | |
| 595 |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0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4-1 | |
| 596 | 고종비 명성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2년 | 정전 | 18실 | 종묘13475-1 | |
| 597 | 순종 왕세자책봉 죽책 | 1875년 | 정전 | 19실 | 종묘13512-1 | |
| 598 | 순종비 순명효황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 1882년 | 정전 | 19실 | 종묘13513-1 | |
| 599 | 순종비 순명효황후 상시호 옥책 | 1904년 | 정전 | 19실 | 종묘13478-1 | |
| 600 | 순종비 순정효황후 황후책봉 금책 | 1907년 | 정전 | 19실 | 창덕25349 | |
| 601 | 인조계비 장렬왕후 왕비책봉 교명 | 1638년 | 정전 | 8실 | 종묘13516-1 | |
| 602 | 효종비 인선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45년 | 정전 | 9실 | 종묘13517-1 | |
| 603 | 현종 왕세자책봉 교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518-1 | |
| 604 | 현종비 명성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51년 | 정전 | 10실 | 종묘13519-1 | |
| 605 | 숙종비 인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71년 | 정전 | 11실 | 종묘13520-1 | |
| 606 | 숙종계비 인현왕후 왕비복위 교명 | 1694년 | 정전 | 11실 | 종묘13521-1 | |
| 607 | 숙종계비 인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02년 | 정전 | 11실 | 종묘13522-1 | |
| 608 |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 1690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3-1 | |
| 609 | 경종비 단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696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4-1 | |
| 610 | 경종비 단의왕후 왕비추봉 교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5-1 | |
| 611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718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6-1 | |
| 612 | 경종계비 선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22년 | 영녕전 | 13실 | 종묘13527-1 | |
| 613 | 영조 왕세제책봉 교명 | 1721년 | 정전 | 12실 | 종묘13528-1 | |
| 614 |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26년 | 정전 | 12실 | 종묘13529-1 | |
| 615 | 영조계비 정순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59년 | 정전 | 12실 | 종묘13530-1 | |
| 616 | 진종 왕세자책봉 교명 | 1725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531-1 | |
| 617 | 진종비 효순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727년 | 영녕전 | 14실 | 종묘13532-1 | |
| 618 | 장조 왕세자책봉 교명 | 1736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33-1 | |
| 619 | 장조비 헌경왕후 왕세자빈책봉 교명 | 1744년 | 영녕전 | 15실 | 종묘13534-1 | |
| 620 | 정조 왕세손책봉 교명 | 1759년 | 정전 | 13실 | 종묘13535-1 | |
| 621 | 정조비 효의왕후 왕세손빈책봉 교명 | 1762년 | 정전 | 13실 | 종묘13536-1 | |
| 622 | 정조비 효의왕후 왕비책봉 교명 | 1778년 | 정전 | 13실 | 종묘13537-1 | |
| 623 | 순조 왕세자책봉 교명 | 1800년 | 정전 | 14실 | 종묘13538-1 | |
| 624 | 순조비 순원왕후 왕비책봉 교명 | 1802년 | 정전 | 14실 | 종묘13539-1 | |
| 625 | 문조 왕세자책봉 교명 | 1812년 | 정전 | 15실 | 종묘13540-1 | |
| 626 | 헌종 왕세손책봉 교명 | 1830년 | 정전 | 16실 | 종묘13541-1 | |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봉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627 |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교명 | 1837년 | 정전 | 16실 | 종묘13542-1 | |
| 628 | 고종비 명성황후 왕비책봉 교명 | 1866년 | 정전 | 18실 | 종묘13543-1 | |

<국립중앙박물관> : 7점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 | 단종 상시호 금보 | 1698년 | 영녕전 | 7실 | 신수212 | |
| 2 | 단종비 정순왕후 상시호 금보 | 1698년 | 영녕전 | 7실 | 신수213 | |
| 3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900년 | 정전 | 18실 | 신수9236 | |
| 4 | 고종 가상존호 옥보 | 1902년 | 정전 | 18실 | 신수9240 | |
| 5 |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 1908년 | 정전 | 17실 | 신수9235 | |
| 6 | 순종 황태자 책봉 금책 | 1897년 | 정전 | 19실 | 신수9237 | |
| 7 | 순종 왕세자책봉 교명 | 1875년 | 정전 | 19실 | 신수9239 | |

<고려대학교박물관> : 2점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보안장소 | | 소장품번호 | 비고 |
|----|-----------------|-------|------|-----|--------|----|
| | | | 전 | 실 | | |
| 1 | 태종비 원경왕후 상시호 금인 | 1420년 | 정전 | 2실 | 고대2204 | |
| 2 |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 1676년 | 정전 | 10실 | 고대2214 | |

6. 남원 월산리M1-A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南原 月山里M1-A號墳 出土 冑·頸甲·札甲)

가. 검토사항

‘남원 월산리M1-A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13.8.9.)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남원 월산리M1-A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南原 月山里M1-A號墳 出土 冑·頸甲·札甲)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쌍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1건 3종(투구 1식, 목가리개 1식, 갑옷비늘 1식)
- 규 격
 - 투 구: 현존 높이 16.6cm, 최대 지름 25.0cm
 - 목가리개: 높이 21.6cm
 - 갑옷비늘: 최대 길이 8.0cm
- 재 질 : 철
- 형 식 : 복발형 투구, 지판형 목가리개, 갑옷비늘
- 조성연대 : 삼국시대(5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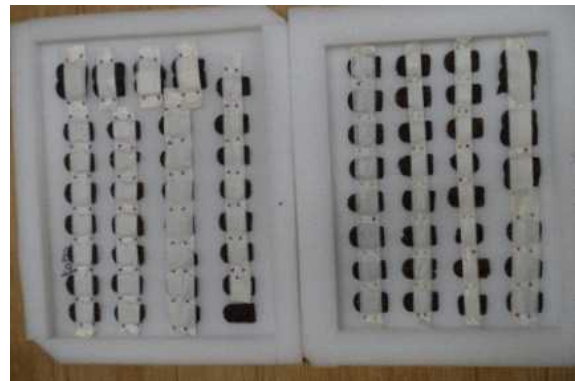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유물 전체 모습 >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목가리개>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투구>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갑옷비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남원 월산리 M1-A호 석곽 출토 갑주 일괄품(투구·목가리개·찰갑)은 남원의 운봉고원에서 처음 확인된 무구로서 상당히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알려졌던 것과 형태가 다른 투구가 확인되어 삼국시대 갑주의 다양성을 확인하게 된 사례로서 주목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 및 찰갑의 구조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하기는 어렵다.

○ (지정 가치 미흡)

- 이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은 수혈식봉토분인 남원 월산리M1-A호분 석곽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이다.
- 재질은 철제이며, 규모는 투구높이 16.6cm, 목가리개높이 21.6cm, 비늘길이 8.0cm이다.
- 복발형 투구는 복발부분이 멸실되었으며, 비교적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지판으로 구성되었고 앞 중앙부 지판은 아래가 뾰족하며 챙은 없다. 목가리개는

- 목 뒷부분이 부드럽게 뒤로 휘어져 목을 보호하는 형태이며 비교적 완형이다. 그리고 갑옷비늘은 찰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나 어느 부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 갑옷세트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복발형 투구, 목가리개, 갑옷비늘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유물로 기술적으로나 공예적 특징도 크지 않은 일반적 유물이다.
 -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남원 월산리 M1-A호분은 1982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한 길이가 8.65m인 초대형 수혈식 석곽묘로서 5세기 무덤이다. 석곽의 내부에서는 은상감환두대도를 비롯하여 유개장경호나 발형기대 등 지역성이 강한 토기나 무기류나 마구류나 농공구류 및 갑주가 출토되었다. 이렇게 남원 월산리 M1-A호분에서 출토된 종장판주, 경갑, 찰갑편의 갑주 유물은 전라북도 지역까지 대가야가 확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유물로서 발굴 경위와 출토지가 확실하고 함께 출토된 유물에 의해 5세기 중엽 가야의 수장층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점과 강력한 가야 철갑기법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특히 남원 월산리 M1-A호분에서 출토된 5세기 중엽의 갑주는 이후 가야와 왜의 갑주의 선행 양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곧 월산리 M1-A호분 출토 종장판주의 상부에 있는 철대(帶)는 복발과 종장판주의 철판을 이어주는 것으로 이후 5세기 후엽으로 비정되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월산리 M1-A호분 출토 갑주는 대가야 및 소가야, 멀리 왜의 철기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편 해당 유물은 고령과 합천 등 대가야 고분과 다른 전라북도의 지역성을 보이는 가야의 수장층 무덤에서 출토된 사례가 많지 않아 희귀한 것에 속하는 편이다. 그러나 갑주의 제작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월산리 M1-A호분에서 다수 출토된 188매의 찰갑편이 비늘갑옷의 전체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통해 가야시대 비늘갑옷의 전체 형태나 원형을 명확하게 고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상존한다. 게다가 출토 이후 현재까지 해당 유물의 재료인 철제의 산화와 부식이 계속 지속되어 보존상태가 심각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종장판주와 목가리개 및 찰갑편에 의한 비늘갑옷 등 갑주 일괄은 전라북도 남원지역에서 발굴에 의해 가야의 지배층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나 가야문화의 지역적 확산의 증거로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나, 출토유물만으로 가야 개마무사가 착용한 비늘갑옷의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철제 유물의 산화와 부식에 의한 보존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미흡)

남원 월산리M1-A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일괄품은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며, 원상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발굴된 일반적인 삼국시대의 철제 갑주에 해당한다.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삼국시대 다른 철제 갑주들과 비교해서 공예기술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형식에 해당하므로, 보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투구는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긴 만곡하는 철판 수십 매를 좌우로 겹치게 하여 가죽끈으로 연결하고, 윗쪽에 평면 타원형의 철판 1매로 고정하였다. 타원형 철판 위의 복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목을 보호하는 목가리개는 20매 내외의 철판이 좌우 가장자리가 겹치게 하고 가죽끈으로 묶어 연결하였다. 목가리개 양쪽에 각각 고리경첩을 달아 서로 연결하였다. 목가리개는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찰갑옷을 구성한 비늘은 발굴 조사보고서의 보고에 의하면 크기와 형태가 다른 4종류의 비늘이 모두 118개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찰갑의 각 부위에 사용된 비늘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 내용 및 특징

남원 월산리 M1-A호 석곽 출토 갑주 일괄은 남원의 운봉고원에서 처음 확인된 무구로서 상당히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알려졌던 것과 형태가 다른 투구가 확인되어 삼국시대 갑주의 다양성을 확인시켜주기도 하였다.

월산리 M1-A호 석곽 출토 갑주 일괄은 기왕에 알려진 5세기 후반 이후부터 가야 갑주의 범주에 포함되어 공반된 가야 토기와 함께 남원 운봉고봉원 일대가 가야문화권에 속했음을 확인시켜준 자료로서 주목되기도 하였다. 투구의 복발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고분군의 M5호분과 합천 옥전고분군 M3호분, 반계제 가A호분 등에서 출토된 투구의 복발처럼 백제나 신라의 관모와 유사한 형태로서 관모형복발주 또는 난형복발주로 불리기도 한다.

월산리 M1-A호 석곽 출토 갑주 일괄은 동일 고분군의 M5호분 출토 갑주 일괄품과 가장 유사하다.

○ 참고문헌

- 全榮來, 『南原 月山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 국립전주박물관, 『운봉 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2012.
- 국립김해박물관, 『갑주, 전사의 상징』, 2015.
- 재)전북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南原 月山里古墳群-M4·M5·M6號墳-』, 2012.



○ 현 상

- ① 투구: 비교적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지판으로 구성되었고 앞 중앙부 지판은 아래가 뾰족하며 챙은 없다. 위에 붙었던 복발은 멸실되었다.
- ② 목가리개: 여러 개의 지판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이다. 목 뒷부분이 부드럽게 뒤로 휘어져 목을 보호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완형이다.
- ③ 갑옷비늘: 수십 개의 찰갑비늘 일괄로 상원하방형의 미늘 끝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게 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남원 월산리 M1-A호분에서 출토된 무장구로 복발형 투구이나 복발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목가리개는 목 뒷부분이 부드럽게 뒤로 휘어져 목을 보호하는 형태로 비교적 상태도 양호하고 완형이다. 그리고 갑옷비늘은 찰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어느 부위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길이 8.0cm이다.

○ 참고문헌

-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南原 月山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83.

○ 기 타

1982년 88고속도로 부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됨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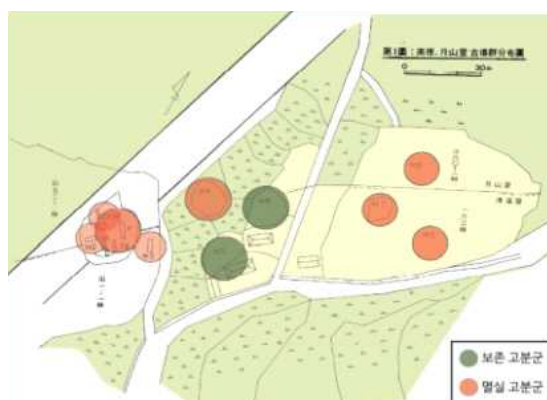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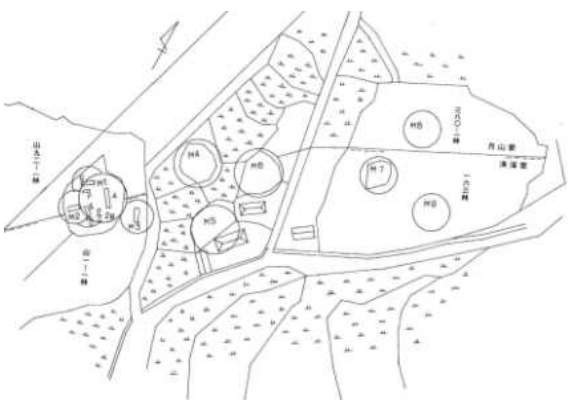
남원군 월산리고분군은 남원시와 장수군의 경계에 위치한 시리봉(777.7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동쪽 경사면의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다. 고분은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능선을 따라 봉토분 9기가 연달아 분포하고 있다. 능선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위치한 M1호분부터 동북쪽 방향으로 60m 정도에 M4-6호분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70m 떨어진 곳에 M7-9호분이 위치한다. 이중 M7-9호분은 후대에 경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멸실되어 버린 상태였다.

해당 고분군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1982년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남원 아영면 월산리에 있는 고분군 4기에 대한 1차 발굴을 실시하였다. 이중 남원 월산리 M1호분은 당시 원형 분구의 중앙부에 위치한 대형의 수혈식 석곽묘였으며, 그 주변에는 7기의 소형 석곽이 시간을 달리하여 지하에 축조된 다곽식묘이었다. 이 고분의 주위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단곽식의 구조이다.

그동안 월산리고분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지역의 고분군은 대체로 마한백제시대의 유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74년 임실 금성리 고분군에서 대가야계 장경호가 출토됨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가야계의 정치세력이 지배했다는 것이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도 가야계 관련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이 지역에서의 가야계 정치세력에 대한 존재가 더욱 명확해지게 되었다. 특히 남원 월산리 M1-A호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투창고배, 유개장경호, 발형기대, 환두대도 등과 함께 단갑편과 찰갑편 등의 갑주가 공반하여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성격을 통해 이 월산리 유적의 제작시기는 무령왕대 이후이며, 백제오방성 중 남방성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가야문화권의 성격과 판도를 재검토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군 아영면 월산리 고분군의 위치와 전경>



<남원 월산군 고분군 M1부터 M9까지의 분포 현황216)>

이 월산리 M1-A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해당 고분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 유물이다. 그중 최고급 위 제품에 해당되는 금은상감환두편 2점을 비롯하여 채갈(1), 등차(2), 윤등(1), 교구(3), 좌금구(11) 등의 마구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철검(6), 철부(12), 철촉(27), 철도자(1) 등의 무구류가 출토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단갑편(1)과 찰갑편(118) 등의 철제 갑주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고구려의 개마 무사의 영향을 받은 가야 개마무사의 비늘갑옷의 존재를 밝힐 단서가 된다는 점이다.

216) 전영래, 「남원 초춘리 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전북유적조사보고』 제12집, 1981, p.6.

안정수,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연구-고분유적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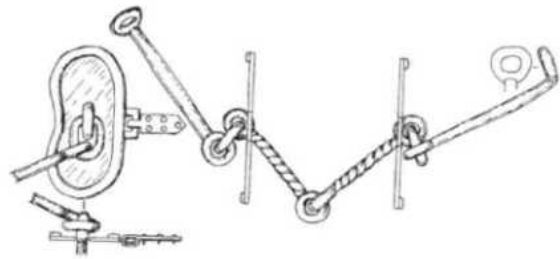
<남원 월산리 M1-A호분 석실 북반부>



<남원 월산리 M1-A호분 재갈 등 마구류 출토상태>



<월산리 M1-A호분 출토 환두대도>



<월산리 M1-A호분 출토 재갈>

○ 내용 및 특징

1.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투구

삼국시대의 투구는 철판과 전체 모양에 따라 크게 종장관주, 차양주, 충각부주, 소찰주, 이형주로 구분된다.

남원 월산리 M1호분 출토 투구는 관모형 복발이며, 세로로 긴 철판(종장) 그리고 챙, 불가리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월산리에서 출토된 관모형 복발의 형태는 가야의 다른 투구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반타원형 철판 2장에 철판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씌우고 내면 양쪽 끝 부분에 사각 철판을 2개의 철판못으로 접합[리벳팅]한 것이다. 다만 복발과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주는 철판이 있는데, 이런 형식은 남원 M5 출토 투구와 같다.



출토당시 철판

정면

측면(좌)

뒷면

측면(우)

<남원 월산리 M1-A호분 종장관주, 높이 24.0cm, 지름 25.0cm>



<남원 월산리 M1-A호분 종장판주 유물 조사 당시 상태,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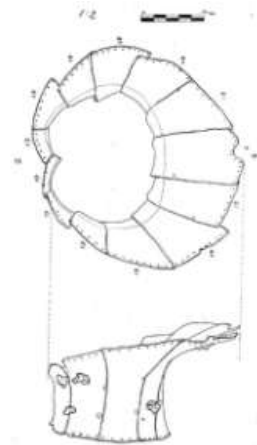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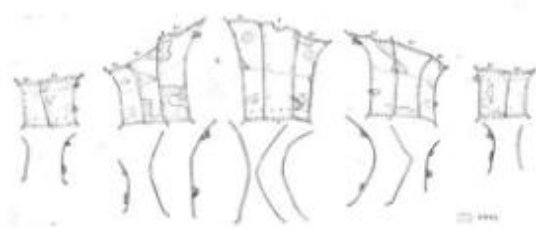
이처럼 남원 월산리 M1-A호분 종장판주는 상부에 복발과 종장판주를 연결해주는 철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원래는 그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월산리 M5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복발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목가리개[頸甲]

남원 월산리 M1-A호 출토 목가리개는 발굴 당시 수십 편의 철편으로 되어 있었으며, 철편의 두께가 얇고 심한 부식으로 약화되어 손으로 만지면 쉽게 부서지는 상태였다.



<남원 월산리 M1-A호분 경갑의 보존처리 전> <남원 월산리 M1-A호분 경갑의 보존처리 후 파편 접합>



<남원 월산리 M1-A호분 경갑의 보존처리 후 모습217>



<남원 월산리 M1-A호분 목가리개 유물의 현재 상태,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이와 같이 출토 당시부터 목가리개는 경갑의 원래 부위나 형태 파악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판을 연결할 때 못이나 가죽끈의 사용을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보존처리를 위해 X-ray 투시촬영에 의해 파악할 결과 철심은 없고 철판의 연결은 가장자리 2cm 윗부분에 2~3개의 작은 구멍이 일정하게 뚫려 있어 소형 반원두정으로 연결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존처리를 통해 모두 접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결손되어 있지만 경갑의 기본적인 형태는 확인되었다. 보존처리를 통해 파악하여 13판의 철판을 모양별로 제작하고 좌우 각 6판의 철판을 외쪽에 중복시켜 전방부터 후방으로 돌렸고, 정후방 중앙 철판은 상단이 반달형으로 움푹 패인 특징까지 확인되었다. 중앙의 철판 1쪽은 두 개의 고리 경첩이 4부분에 있다. 고리경첩으로 연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3~4개의 못으로 철판과 철판이 접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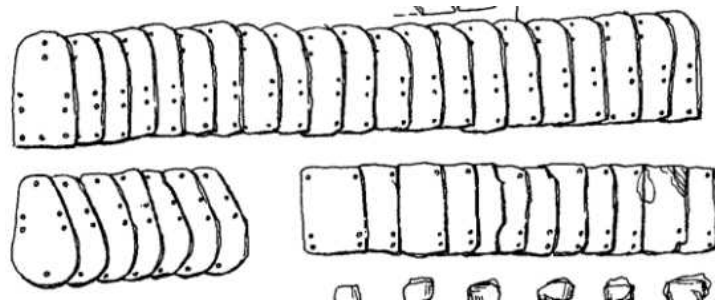
이처럼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목가리개에서 특이한 점은 목가리개의 중심 철판에 홈 같은 모양이 관찰되는 점이다. 이것은 목가리개의 중심축으로 보이며, 이것은 M5호분 출토 목가리개와 상주 신흥리 나39호 목가리개에서도 확인되

217) 이오희, 「남원 월산리 고분출토 경갑 보존복원처리」, 『문화재』 Vol.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85.

는 특징이다. 이로 미루어 이것은 지역적 상징이나 표시로 추정되기도 한다.

3.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비늘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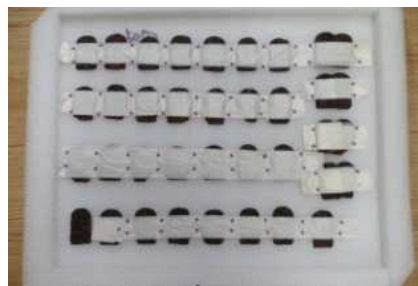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된 갑옷은 1질의 단갑편이며, 등판의 윗판이나 겹침판 등은 눈에 띄지 않는다. 철로 제작된 많은 수량의 비늘 118편이 층층이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다만 이것들이 비늘갑옷의 전체 수량인지 알 수 없으며, 원래 비늘갑옷의 온전한 형태를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찰갑편 도면>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찰갑편 처리 후 복원>



<남원 월산리 M1-A호분 비늘갑옷 찰갑편 유물의 현재 상태,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출토된 찰갑편 188매는 형태에 따라 4종류로 구분되었다. 1형은 29매, 2형은 70매, 3형은 14매, 4형은 5매이다. 1형은 변이 좁고 1변이 넓은 장방형의 <발형> 찰갑편이다. 길이 16.5cm, 폭 3.2cm, 2.0cm의 것이 13매, 길이 17.0cm, 폭 3.0cm,

1.7cm의 것이 16매이다. 모두 가죽끈을 엮는 구멍이 뚫려 있다. 2형 70매는 길이 4.7cm, 폭 3.6cm의 철판 상부를 호(弧)형의 찰편인데, 모두 가죽 끈을 엮는 구멍이 뚫려 있다. 3형은 14매이고 길이 3.8cm, 폭 3.0cm의 방형 찰편으로 엮을 구멍이 뚫려 있다. 4형 5매는 길이 4.8cm, 아랫변은 1.4cm로 좁고 윗변은 원형으로 다듬었다. 상변의 폭은 3.1cm이며 역시 가죽끈을 엮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비늘갑옷의 모양은 대부분 평찰이고 소량의 오각형찰이 있다. 평찰의 일부에서는 섬유와 가죽으로 엮은 흔적이 관찰되었고, 평찰을 서로 가죽으로 엮을 때 사용하는 구멍의 위치가 X-선 촬영 결과 동일하게 보였다. 이렇게 평찰의 크기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뒷면에 얇은 선이 둘레를 따라 보인다. 이것은 평찰을 제작할 때 프레스 기법으로 대량 생산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 월산리 M1-A호분 고분 출토 철제 유물의 특성상 찰편들은 출토 이후 계속 부식이 진행되는 상태여서 향후에도 향온향습이 가능한 곳에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남원 월산리 M1-A호분은 5세기 중엽에 전북지역까지 가야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뻗쳤음을 보여주는 초대형 무덤이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갑주를 비롯하여 상징성이 강한 환두대도를 비롯하여 철제 마구류나 무기류 및 농공구가 다수 출토되어, 해당 유물을 통해 이곳을 다스린 가야계 최고 수장층의 위세와 권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곽장근, 「남원의 고고학적 연구성과」,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pp.61~84.
- 국립전주박물관, 『운봉 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 2012.
- 김기홍, 「삼국시대 운봉고원 고분축조집단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승신, 「호남 동부지역 가야 제국(諸國) 무장의 추이」, 『호남고고학보』Vol.70, 호남고고학회, 2022, pp.122~150.
- 김혁중, 「가야의 갑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pp.410~441.
- 안정수,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연구-고분유적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오동선,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고학보』제117집, 한국고고학회, pp.105~144.
- 우애리, 「남원 동부지역 삼국시대 고분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유영춘,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Vol.59, 호남고고학회, 2018, pp.64~88.
- 이영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금속유물의 제작기법」, 『동원학술논문집』

제14집, 2013, pp.593~604.

- 이오희, 「남원 월산리 고분출토 경갑 보존복원처리」, 『문화재』Vol.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85.
- 이현주, 「삼국시대 소찰주 연구」, 『우정의 고고학』, 진인진, 2015, pp.326~370.
- 전영래, 「남원 초춘리 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전북유적조사보고』제12집, 1981.
- 최완규,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Vol.59, 호남고고학회, 2018, pp.4~24.

□

○ 형 식



<도 1. 남원 월산리 M1-A호분 출토 투구(13), 경갑(14), 찰갑 일괄(15),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철제 투구, 경갑(頸甲, 목가리개), 찰갑(札甲, 갑옷비늘)으로, 파손된 상태로 석실 내에서 발굴되었다.

투구는 상부의 둥근 철테, 즉 철대(鐵帶)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철편을 붙여서 만든 종장판주(縱長板冑) 형식이다(도 2). 철대의 존재로 볼 때,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종장판주와 같이 상부에 복발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복발은 남아 있지 않다. 종장판주를 구성하는 가늘고 좁은 철편은 약 20여 매 이상으로, 현재 상태로는 원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발굴당시에는 찰갑편 I로 보고되었으며, 길이 16.5cm, 폭 2.0~3.2cm의 지

판이 13매, 길이 17.0cm, 폭 1.7~3.0cm의 지편 15매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모두 위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못을 박은 흔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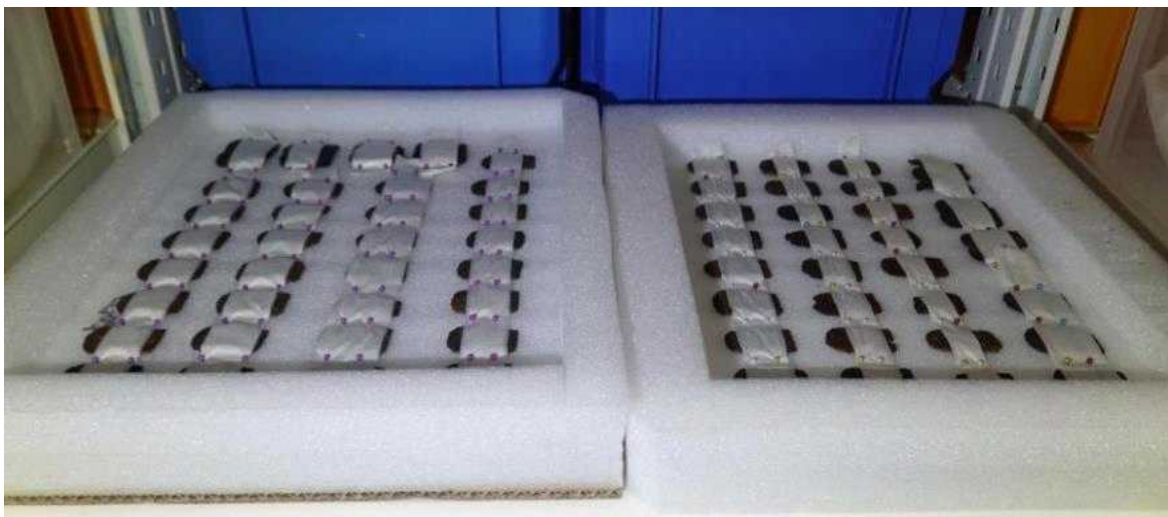


<도 2. 철제 투구>



<도 3. 철제 경갑>

경갑도 여러 개의 철편을 단조하여 서로 이어 붙여 만든 것인데, 가장자리에는 작은 원공들이 뚫려 있고, 일부 편에는 걸쇠 구조가 남아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독특하다(도 3). 이 경갑은 발굴 당시에는 단갑편으로 보고되었으나, 1985년 보존처리 과정에서 경갑으로 복원되었다. 모두 13매의 철판을 재단하여 단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경갑에 해당한다.



<도 4. 철제 찰갑편 일부>

찰갑은 장방형, 윗면이 둥그스름하고 아래는 방형인 형식, 그리고 아래 위가 둥그스름한 이형타원형 형식 등 세 종류 정도의 형식이 남아 있는데, 현존 예는 원

래 갑옷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므로(도 4), 원래 전체 갑옷의 형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 조성연대

이 철제 갑옷과 투구 일괄품이 출토된 월산리 M1-A호분은 5세기 중후반경에 조성된 수혈식 장방형 대형 석실분에 해당하므로, 갑주의 제작 연대도 5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된다.

○ 현 상

투구, 경갑, 찰갑이 복원되어 따로 보관되어 있다. 부식이 심한 편이며 투구와 경갑은 비교적 전체 형태가 잘 남아 있지만 찰갑은 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원상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내용 및 특징

이 철제 갑주 일괄품은 1982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88올림픽고속도로 공사구간 조사 과정에서 발굴조사한 남원 월산리 M1-A호분에서 출토되었다. 발굴당시에는 단갑(短甲)과 찰갑(札甲) 편으로 보고되었지만, 국립박물관에서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투구, 경갑, 찰갑 편으로 재복원되었다. 워낙 부식이 심한 파편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갑주의 원형을 완전하게 복원할 수 없다. 대략적으로 복원된 형태로 보면 이러한 철제 갑주편들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종종 출토되는 일반적인 형식의 갑주들에 해당한다. 투구의 경우에는 상부에 복발이 달려 있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종장관주와 비슷한 형식으로 추정되지만, 현존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서 원형을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 참고문헌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 李午熹, 「남원 월산리 고분출토 경갑 보존복원처리」, 『문화재』18, 1985, pp.150~158.
- 국립전주박물관, 『운봉 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 2012.
- 국립김해박물관, 『갑주, 전사의 상징』, 국립김해박물관, 2015.
-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국립중앙박물관, 2019.
- 유영춘, 「남원 월산리 고분군·청계리 고분군 출토 철제 무구의 종류와 의미」,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조사 성과와 의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남원시, 2020, pp.171~203.

7. 남원 월산리M5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南原 月山里M5號墳 出土 冑·頸甲·札甲)

가. 검토사항

‘남원 월산리M5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13.8.9.)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남원 월산리M5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南原 月山里M5號墳 出土 冑·頸甲·札甲)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축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1건 3종(투구 1식, 목가리개 1식, 갑옷비늘 1식)
- 규 격
 - 투 구: 높이 29.5cm, 너비 21.4cm, 복발 높이 10.5cm, 너비 13.8cm, 불가리개 높이 18.9cm, 너비 19.9cm
 - 목가리개: 높이 42.6cm, 너비 39.0cm, 철(지)판 길이 9.2~18.5cm
 - 갑옷비늘: 평균 길이 8.6cm, 너비 2.6cm, 두께 0.2cm
- 재 질 : 철
- 형 식 : 종장판형 복발형 투구, 지판형 목가리개, 상원하방형 갑옷비늘
- 조성연대 : 5세기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갑옷 일괄품은 가야 갑주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의 하나이나 투구는 불가리개를 이루는 소찰이 완전하지 않고, 목가리개는 토압으로 형태가 변형되었고, 비늘갑옷은 구조와 형태를 알 수 없어 복원이 어려운 점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 이 투구·목가리개·갑옷비늘은 수혈식봉토분인 남원 월산리M5호분 석곽의 남단 벽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이다.
- 재질은 철제이며, 규모는 투구 높이 29.5cm, 너비 21.4cm, 목가리개 높이 42.6cm, 너비 39.0cm, 비늘 길이 8.6cm이다.
- 복발형 투구는 위가 산처럼 뾰족하게 솟아 있는 특징이 있다. 복발은 투구의 정수리부분에 붙어 있는데, 위로 갈수록 좁아져 끝은 뾰족하다. 목가리개는 목 뒤 부분이 부드럽게 뒤로 휘어져 목을 보호하는 형태이며 비교적 완형이다. 그리고 갑옷비늘은 찰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어느 부위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 갑옷세트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복발형 투구, 목가리개, 갑옷비늘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유물로 기술적으로나 공예적 특징도 크지 않은 일반적 유물이다.
-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2010년 발굴한 이 지역의 초대형 무덤이었는데, 석곽 내부에서 철제 갑주를 비롯하여 철제자루술, 청자계수호나 철제 자루술[초두], 원통모양 그릇받침, 금제귀걸이 등의 유물이 출토하여 5세기 후반에 이 지역을 대가야의 최고 수장층이 다스렸음이 입증되었다. 더욱이 이 무덤에서는 가야 권역 최초로 청자계수호와 초두, 금동식리와 함께 종장판주와 목가리개 및 찰갑편의 갑주 유물이 출토되어 지배층의 최고급 위세품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5세기 후반 대가야가 전라북도 남원지역까지 정치적으로 지배했음이 입증되었으며, 남원 월산리 M5호분 갑주들은 발굴 경위와 출토지가 확실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종장판주는 복발, 차양, 불가리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가야의 일반적인 종장판주와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형태의 종장판주가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에 늦게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남원지역의 갑주 제작기술이 후대에 고령 대가야로 전파되어 종장판주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학계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5세기 후반의 갑주는 피장자의 발치쪽에서 총 232개의 소찰들이 무더기로 출토되어 가야의 강력한 비늘갑옷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찰갑편은 철제로 평면 형태는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진 점이 동일하여 프레스로 제작하는 금속 가공 기술을 파악할 수 있어 공예기술적인 가치도 있다.

그러나 소찰들은 출토 당시 층층이 겹쳐 있어서 비늘갑옷의 어느 부분을 구성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갑옷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출토된 이후 현재까지 철제 갑주 유물은 원재료인 철제의 산화와 부식이 계속 지속되어 유물의 원상태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결 과제이다.

따라서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종장판주와 목가리개 및 찰갑편에 의한 비늘갑옷 등 갑주 일괄은 전라북도 남원지역에서 발굴에 의해 대가야의 지배층 무덤에서 발견되어 가야 개마무사의 갑옷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가야의 정치세력이 전북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 지역의 갑옷이 고령에까지 확산된 증거로서 그 학술적인 의미는 지니고 있으나, 출토유물만으로는 비늘갑옷의 원형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철제 유물의 산화와 부식에 의해 원형 유지가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미흡)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투구, 목가리개, 갑옷비늘 일괄품은 삼국시대 5세기 후반 남원 지역의 독특한 종장판주 형식을 보여주는 예로서 중요하다. 특히 복발과 창을 가진 철제 투구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예로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성 상태가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원형을 알 수 없으며,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보물로 지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현 상

투구·목가리개·비늘갑옷으로 이루어졌다. 투구는 복발·챙·철판·불가리개로 이루어졌다. 복발과 챙·철판 등은 완형이나 불가리개는 일부 편만 남아 있다.

목가리개는 완형이며, 모두 22매의 장방형 철판을 끈으로 묶어 이었고, 양쪽 측면에 고리경첩을 달아 서로 연결하였다. 일부 지판들이 서로 고착되어 붙어있고, 토압에 의해 변형이 생겨 앞부분이 맞물리지 않고 벌어졌다.

비늘갑옷의 비늘들이 층층이 겹쳐있고, 일부 비늘들이 교란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비늘들이 서로 붙어 있는 개체들이 많아 복원이 어렵다.

○ 내용 및 특징

투구는 너비가 넓고 길이가 긴 장방형의 철(지)판 10매를 가장자리가 겹치게 하여 끈으로 묶어 이었다. 지판 위쪽 끝을 꺾어 세우고, 안쪽에는 2매의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복발을 삽입하고, 지판 바깥에 철판 1매를 타원형으로 구부려 감싼 후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월산리 M호분 출토 투구(좌)와 복발(우)>

앞면의 가운데 지판의 아래 끝의 가운데가 뽕족하게 튀어 나오게 하여 이마를 덮도록 하였다(미간부 지판). 미간부 지판을 중심으로 좌우 지판은 끝에 ‘U’모양으로 구부린 철판을 이어붙이고, 그 위에 타원형의 철판을 리벳으로 박아 고정시켜 챙을 만들었다. 육각모양으로 오려 만든 철판을 좌우의 지판에 끈으로 5단으로 엮어 불가리개를 붙였다.

월산리 M5호분의 투구는 동 고분군의 M1-5호 석곽에서 출토된 투구와 유사하나 차이점도 있다. M1-5호 석곽 출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철판의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긴 세장방형으로 철판 수가 많으나 M5호분 출토 투구의 철판은 장방형으로 철판 수가 10매로 적다.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투구의 철판 형태가 세장방형이고 그 수가 많은 것에서 장방형이고 그 수가 적은 것으로의 변화를 고려하면, M5호분 출토 투구가 M1-5호 석곽 출토 투구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산리 M5호분의 투구는 종장관주로서 가야의 투구에 포함되나 높고 너비가 좁은 관모 모양의 복발과 이마 부위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붙어 있는 점 등은 매우 특이한 투구로서 가야 투구의 다양성을 잘 드러내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월산리 M호분 출토 목가리개(좌)와 고리경첩(우) 모습>

목을 보호하는 부속갑인 목가리개는 목 뒤쪽 중앙부의 철판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향해 크기가 점점 작은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판은 위로 갈수록 넓은 사다리꼴을 이룬다. 각각의 철판은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 끈으로 묶어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산리 M5호분 출토 목가리개는 동 고분군의 M1-5호 석곽 출토 목가리개와 크기와 철판의 구성, 양 측면에 고리경첩을 달아 연결한 점 등은 동일하다. 목가리개에 경첩을 달아 탈착을 용이하게 한 사례로는 부산 북천동 10·11호분 출토 목가리개를 비롯해 합천 옥전 23·70·M3호분과 남원 월산리 m1-5호 석곽·M5호분 출토품 등이 있다. 경첩을 목가리개의 좌우에 단 사례는 합천 옥전고분군과 남원 월산리 출토품 등 주로 대가야권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

비늘갑옷의 비늘들은 크기와 형태가 같고, 뒷면에 얇은 선이 비늘의 둘레를 따라 보이는데, 이는 비늘 제작 시 프레스기법으로 대량 생산한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늘의 가장자리를 따라 구멍이 뚫려 있어 위아래와 좌우의 비늘들을 끈으로 이어 묶은 것으로 보인다.



<월산리 M호분 출토 비늘갑옷(좌)과 비늘(우) 모습>

○ 참고문헌

- 全榮來,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 국립전주박물관, 『운봉 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2012.
- 국립김해박물관, 『갑주, 전사의 상징』, 2015.
- (재)전북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南原, 月山里古墳群 -M4·M5·M6號墳-』, 2012.



○ 현 상

- ① 투구: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지판 10개로 구성되었고 앞부분에 첩이 붙어 있다. 위에 붙은 복발은 위가 산처럼 뽕족하게 솟아 있다.
- ② 목가리개: 22개의 긴 지판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이다.
- ③ 갑옷비늘: 현재 230여 개의 상원하방형의 갑옷비늘로 끝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비늘들은 겹쳐 있고 형질혼도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무장구로 복발형 투구는 위가 산처럼 뽕족하게 솟아 있는 특징이 있다. 복발은 투구의 정수리 부분에 길이 10.5cm, 지름 13.8cm의 크기로 위로 갈수록 좁아져 위는 뽕족하다. 목가리개는 목 뒷부분이 부드럽게 뒤로 휘어져 목을 보호하는 형태로 22개의 지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비교적 완형이다. 지판의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며, 길이는 9~18cm이다. 그리고 갑옷비늘은 찰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어느 부위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길이 8.6cm, 너비 2.6cm의 비늘 230여 개가 확인되었다. 갑옷세트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갑옷, 목가리개, 갑옷비늘이다.

○ 참고문헌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南原 月山里古墳群-M4·M5·M6號墳』, 2012.

○ 기 타

2010년 88고속도로 확장구간 발굴조사에서 출토됨

□

○ 현 상

남원군 월산리고분군은 남원시와 장수군 경계에 위치한 시리봉(777.7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동쪽 경사면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다. 고분군은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능선을 따라 봉토분 9기가 분포하고 있다. M1호분부터 동북쪽 방향으로 60m 정도에 M4~6호분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70m 떨어져 M7~9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M7~9호분은 후대에 경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멸실되었다.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10년 10월 남원시 아영면 청계산 1-7번지에 위치한 월산리 고분군을 1982년 원광대 마한백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제1차 발굴에 이어 제2차로 발굴 조사하였다. 특히 이때에는 해당 고분군 유적 내에서 최대 규모의 고분인 M5호분이 위치한 M4~6호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지하에 기반층을 정지하고 나서 그 위에 석곽과 봉분을 함께 쌓아 올렸음을 밝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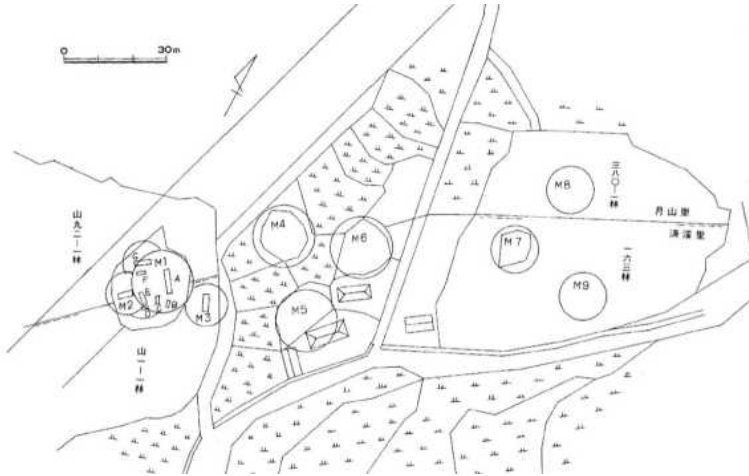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는 발굴 결과 철제 갑주, 마구류, 철제자루술, 청자계수호, 원통모양 그릇받침, 금제귀걸이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가야 권역의 유적 중에서는 최초로 상대편년을 파악할 수 있는 청자계수호와 초두가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5세기 후반 가야시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판명되어 학계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중에서도 갑주는 철제자루술 등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2년 동안 보존처리를 하였다. 이 유물은 2012년 7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라는 특별전에 전시되었다.



<남원군 아영면 월산리 고분군의 위치>



<월산군 고분군; 오른쪽부터 M1~M5호분까지>



<남원 월산리 고분군 M1~M9까지의 분포 현황>



<남원 월산리 M5호분 계수호>

이처럼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5세기 후엽에 해당되는 길이 9.6m 이상의 초대형 수혈식 석곽분이다. 피장자는 최고 수장층으로서 내부에서는 지역성이 강한 월산리식 토기와 함께 소가야 토기가 지속적으로 부장되었으며 M5 고분의 출토유물은 토기류, 마구류, 갑주류 등이다. 토기류로는 청자계수호(1), 고배(1), 대부호(1), 대부완(1), 단경호(10), 소형기대(4), 발형기대(14), 장경호(9)가 출토되었다. 마구류는 기꽃이(1), 등자(2), 이형금구(1), 교구(5), 성시구(1), 성시구편(1)이며, 다양한 형태의 철촉(11) 등의 무기류 등이다. 갑주류는 투구-종장관주(1), 경갑(1), 찰갑편(1), 초미금구(1) 등이다. 그밖에 금제이식(1)과 삼환령(1), 초두(1)가 출토되었다. 이처럼 금은귀걸이를 비롯하여 위세적 성격이 강한 철기류의 부장되었다가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



<남원 월산리 M5호분 유물 출토 전경>



<남원 월산리 M5호분 유물 출토 상태>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철제 초두>

<금귀걸이>

<등자>

<재갈>

특히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는 가야 고분에서 최초로 청자계수호(靑磁鷄首壺), 철제초두(鐵製鏹斗)가 출토되었다. 이 청자계수호는 백제 중앙에서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는 상대편년이 가능한 유물이다. 초두의 경우에는 형태 및 제작방법이 신라 등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사행상철기는 합천 등 대가야의 중심지 및 타 지역 출토품과 제작기법 및 착장방법이 달라 남원 운봉지역의 철기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월산리 고분군 조성집단의 사행상철기 제작기술이 소가야로 전파되었고, 토기를 통해 5세기 중엽부터 남원 운봉 가야와 소가야는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철기를 통해서도 이전시기에 이어 5세기 후엽 이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1.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투구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는 석곽의 남단 벽에 치우쳐 있는 곳에서 투구가 출토되었다. 투구는 철판과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 종장판주, 차양주, 충각부주, 소찰주, 이형주로 구분되는데,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투구는 철로 제작된 복발과 챙, 지판, 불가리개로 구성된 세로로 긴 철판의 종장판형(縱長板形) 투구이다.



<남원 월산리 M5호분 남단벽 투구 출토 상태>



<남원 월산리 M5호분 갑주>

이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부의 구성품은 총13점이다. 지판은 총10점으로 지판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서로 끈으로 묶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수리 부분은 길이 10.5cm, 직경 13.8cm의 복발이 달려 있으며 폭이 좁다. 이러한

관모형 복발은 합천 반계제 가-A호에서 출토된 투구가 있지만 형태나 재질은 다르기 때문에 가야시대 다른 지역의 투구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복발은 반타원형 철제 판이 좌우로 얇은 철판 2매를 이용하여 만들고, 연결부분에 머리 부분의 지판과 복발을 결합하였다. 투구의 앞에는 첩이 연결되어 있다. 첩의 길이는 21.4cm, 폭은 6.9cm이다. 지판은 아래부분에 넓은 종장판으로 미간부의 지판과 후방부 중앙의 지판을 중심으로 왼쪽 4판, 오른쪽 4판을 연결시켜 전체 형태를 둥글게 만들었다.

미간부 지판을 중심으로 좌우 지판 3점은 지판의 가운데를 U자형으로 구부러 이어붙였다. 투공은 지판 위쪽에 2개, 아래쪽에 6개, 측면에 2개씩 1세트로서, 각 지판에는 6세트씩 뚫려 있다. 미간부의 지판 길이는 17cm, 좌우 지판의 길이는 14.2cm, 후방부 지판은 17.2cm이다. 불가리개의 경우 양쪽에서 일부 편만 남아 있어서 보존처리 시 복원한 상태이다.

소찰은 모두 38개가 남아있다. 그 형태는 육각형으로 재단하였으며, 5단은 위에서 아래의 양 모서리는 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방형이다. 소찰은 위부터 1~5단까지 4매로 엮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찰의 상중하 좌우에는 각각 1~2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 투구는 2.2cm의 얇고 폭이 좁은 철띠로 테두리를 만들어 종장판지판과 결합하였다. 투구 내면의 양쪽 끝 부분에 사각 철판을 2개의 철제못으로 접합[리벳팅]한 것이다. 또한 복발과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주는 철띠가 있는데, 이런 형식은 남원 M1-A분 출토 투구와 같다.

세로로 긴 철판[地板]은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지판과 지판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3부분에 2개의 구멍을 뚫었다. 이 구멍들에는 가죽이나 직물 끈을 연결한 흔적이 남아 있어 연결을 하기 위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월산리 M5분의 투구는 길이 29.5cm, 너비 21.4cm, 복발 길이 10.5cm, 복발 너비 13.8cm, 불가리개 길이 18.9cm, 너비 19.9cm, 소찰 길이는 4.5cm이다. 출토 상황을 보면 철판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다. 그러나 투구 중심 철판과 좌우 세 점은 붙어 있으며 미간부 중심이 돌출되어 있다. 하단에 얇은 U자형 판을 구부러 연결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는 부산 복천동 93호분, 합천 옥전 28호분에서 출토된 투구가 있어 비교가 된다.

최근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처럼 복발에 차양이 형성된 종장판주는 고령 지산동 518호에서 출토되었다. 시기적으로 월산리 M5호분이 5세기 후엽인데 지산동 518호는 6세기 초엽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 남원 월산리를 비롯한 운봉지역에서 줄곧 사용된 종장판주가 고령의 대가야로 넘어가 종장판주의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남원 월산리 M5호분 종장관주 출토 당시 도면> <투구 정면> <투구 측면> <투구 측면>



정면 측면(좌) 뒷면 측면(우) 윗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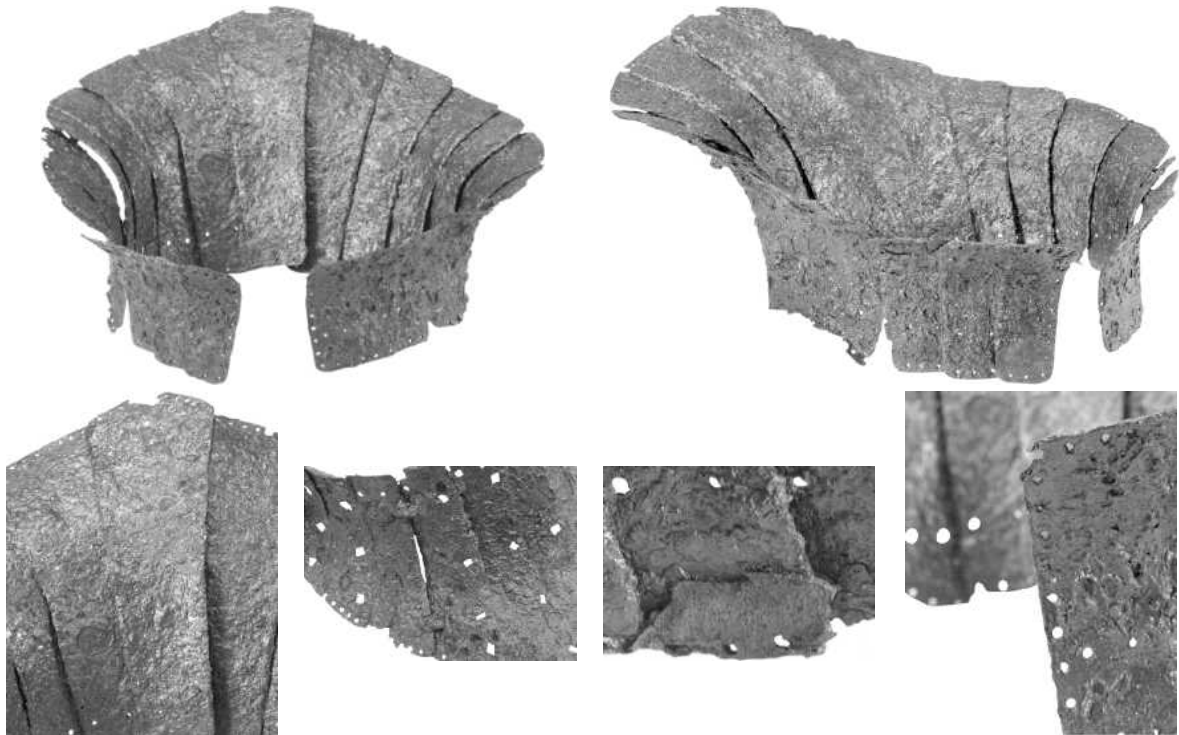
<남원 월산리 M5호분 종장관주, 높이 39.5cm, 지름 21.4cm>

햇빛을 가리는 챙 또한 4개의 구멍을 뚫어 가죽이나 직물 끈으로 연결하여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챙이 있는 김해 두곡 43호와 고령 지산동 1~3호,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 투구는 리벳팅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어 양자간에는 제작기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불가리개는 출토 당시 일부 찰갇이 흐트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전체적인 조합의 모양은 사각 형태이다. 개별적인 찰갇의 모양은 사각형, 사각타원형, 사다리꼴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다양하다. 찰갇의 모서리 일부에서는 가죽으로 엮은 흔적이 관찰된다.

월산리 M5호분 종장관주는 복발, 차양, 불가리개로 구성되어 가야의 일반적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투구는 상부에 형성된 복발의 형태이며, 형태상 군마현 칸논야마, 후쿠시마현 이케노우에 1호분 등 일본 출토품과 연관되기도 한다. 우리 남원 월산리 것이 5세기 후엽의 것으로 그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일본의 것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연구되기도 한다.

2.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목가리개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목가리개, 길이 42.6cm, 너비 39.0cm, 지판 길이 9.2~1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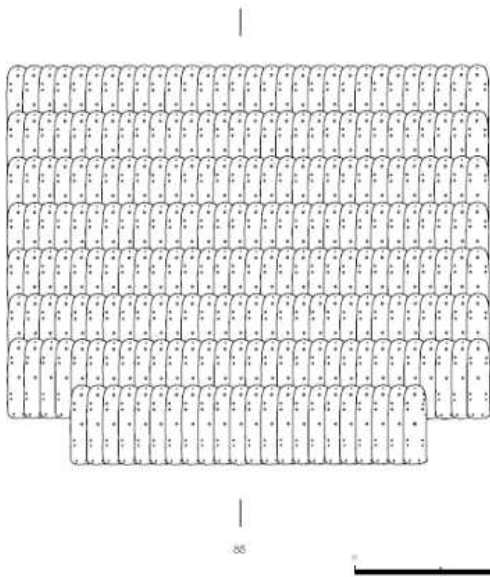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목가리개는 세로로 긴 첩판 22장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든 것의 완형이 출토되었다. 목가리개는 총 22점의 정후방지판으로 구성된 것이다. 지판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고 목 뒷부분으로 갈수록 넓고 긴 것을 사용하였으며 지판의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이다. 지판의 길이는 9~10cm이다. 경갑 전체의 길이는 42.6cm, 너비 39.0cm, 지판 길이 9.2~18.5cm이다.

지판 위쪽의 정면 형태는 방형이며, 위쪽 바깥으로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외반되어 곡선을 이룬다. 중앙의 지판을 중심으로 왼쪽 10판, 오른쪽 11판을 좌우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형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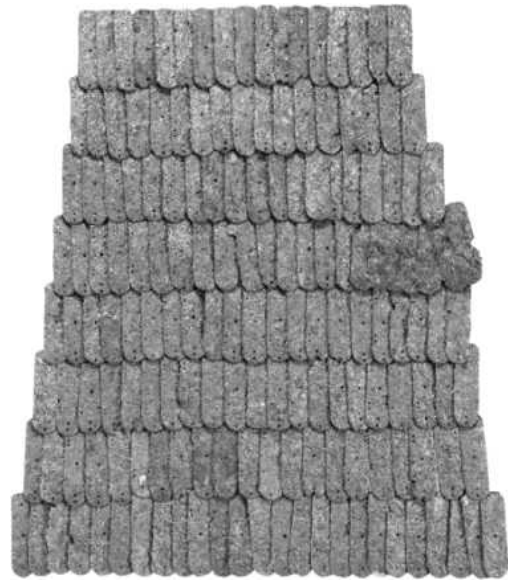
목가리개의 착용방향은 우측 첩판 6~7번, 좌측 첩판 7~8번에 두 개의 고리경첩이 연결되어 있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M1-A호분 출토 목가리개는 두 개의 고리 경첩이 4부분에 있다. 고리경첩으로 연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3~4개의 못으로 첩판과 첩판이 접합되어 있다. 일부 지판들은 서로 고착되어 있고 지판 안쪽의 하단에는 가죽의 흔적이 관찰된다.

M5호분에서 출토된 목가리개에서 특이한 점은 목가리개의 중심 첩판에 홈 같은 모양이 관찰되는 점이다. 이것은 목가리개의 중심축으로 보이며, 이것은 M1호분 출토 목가리개와 상주 신흥리 나39호 목가리개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다. 이로 미루어 이것은 지역적 상징이나 표시로 추정되기도 한다.

3.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비늘갑옷[札甲]



<남원 월산리 M5호분 비늘갑옷 출토 당시 도면>



<남원 월산리 M5호분 비늘갑옷>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피장자의 발치쪽에서 소찰이 무더기로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찰들은 층층이 겹쳐진 상태로 한꺼번에 출토되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체계적이지 않아서 철갑의 어느 부분을 구성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출토된 철편은 총232개의 소찰들이 확인되었으며 철로 제작된 비늘은 길이 8.6cm, 폭 2.6cm, 두께 0.2cm이다. 형태는 대체로 동일한 편이며 평면 형태는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지다. 투공은 중앙에 있고 양측면에 2개 구멍씩 1조를 뚫었다. 아래 네모진 양 모서리에 복륜공, 고정공으로 2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위 둥근 중앙의 2개 구멍과 중앙의 1구멍은 수결공으로 소찰은 중앙의 투공을 건너 엮는 방식으로 엮어 있다.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비늘갑옷, 232개 소찰, 소찰 길이 8.6cm, 폭 2.6cm, 두께 0.2cm>

비늘갑옷의 모양은 대부분 평찰이고 소량의 오각형찰이 있다. 평찰의 일부에서는 섬유와 가죽의 흔적이 관찰되고, 평찰을 서로 엮을 때 사용하는 구멍의 위치가 X-선 촬영 결과 동일하다. 평찰의 크기는 대부분 동일하고 뒷면에는 얇은 선이 둘레를 따라 보인다. 이것은 평찰을 제작할 때 프레스 기법으로 대량 생산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 월산리 M5호분 고분 출토 소찰은 철제 유물의 특성상 출토 이후 계속

부식이 진행되어 향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5세기 후엽 전북지역이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권에 해당되었음을 증명하는 초대형 무덤이었다. 특히 청자계수호나 초두가 출토되어 상대적 편년이 가능했으며, 철제 갑주와 마구류가 출토하여 이곳을 다스린 가야계 최고 수장층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곽장근, 「남원의 고고학적 연구성과」,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pp.61~84.
- 국립전주박물관, 『운봉 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 2012.
- 김기홍, 「삼국시대 운봉고원 고분축조집단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승신, 「호남 동부지역 가야 제국(諸國) 무장의 추이」, 『호남고고학보』Vol.70, 호남고고학회, 2022, pp.122~150.
- 김혁중, 「가야의 갑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pp.410~441.
- 안정수,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연구-고분유적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양영주·김상규, 「남원 월산리 고분군 - M4·M5·M6號墳-」,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pp.5~25.
- 오동선,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고학보』제117집, 한국고고학회, pp.105~144.
- 우애리, 「남원 동부지역 삼국시대 고분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유영춘,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Vol.59, 호남고고학회, 2018, pp.64~88.
- 이영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금속유물의 제작기법」, 『동원학술논문집』제14집, 2013, pp.593~604.
- 이현주, 「삼국시대 소찰주 연구」, 『우정의 고고학』, 진인진, 2015, pp.326~370.
- 전북문화재연구원, 『月山里 古墳群-M4·M5·M6號墳-』, 2012.
- 전영래, 「남원 초춘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전북유적조사보고』제12집, 1981.
- 최완규,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Vol.59, 호남고고학회, 2018, pp.4~24.

□

○ 형 식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철제 투구, 경갑, 찰갑으로 구성된 철제 무구(武具)이다. 이 중에서 철제 투구의 형식은 남원 지역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형식으로 주목된다.

철제 투구는 세로로 길고 폭이 좀 넓은 철판 10매를 이어 붙여서 머리 형태를 이루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종장판주(縱長板冑) 형식에 속하는데, 다른 지역의 종장판주와는 달리 정수리 윗부분에 둥그스름한 철테를 올리고 그 위에 독특한 복발을 올려놓아서 장식했으며, 앞부분에는 차양이 달려 있다(도 1).



<도 1. 월산리 M5호분 출토 철제 투구 측면>

투구 정수리 위의 철테, 즉 철대(鐵帶)는 머리 부분의 가늘고 긴 철판들과 머리 위의 복발을 연결하기 위한 구조이다. 철대 위에 올려진 복발은 삼국시대 관모(冠帽)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관모형 복발 형식에 해당하는데(도 2), 이와 유사한 복발 형태는 삼국시대 투구 중에서는 드문 편이다. 투구의 머리 부분은 세로로 긴 철판 10개를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각 철판들에는 서로 연결하기 위해 끈을 꿰었던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 또한 투구 앞 부분에는 햇빛을 가리는 챙이 달려 있는데, 챙도 역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끈을 꿰어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구에 복발과 챙이 달린 종장판주는 그 예가 드문 편인데, 월산리 M5호분 이외에 함천 옥전 등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이러한 예들은 일본의 군마현 칸돈야마 고분, 후쿠시마현 이케노우에 1호분 등 6세기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들의 형식적 원류가 되는 것으로서, 한반도에서 기원하여 일본에 영향을 주었던 형식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 외에 투구의 부속품으로는 육각형의 소찰을 연결해서 만든 불가리개가 있다(도 3). 불가리개를 구성하는 소찰은 평균 길이 5.7cm. 폭

4.8cm 정도이다.



<도 2. 관모형 북발>



<도 3. 불가리개를 구성하는 소찰편>

경갑은 세로로 긴 철판 22매를 단조하여 만든 후, 서로 연결해서 완성하였다(도 4). 철판 두 곳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경첩이 달려 있다. 철판 아래 위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달려 있고 가죽 흔적이 철판 안쪽에 남아 있어서, 철판 안쪽에 가죽을 덧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 4. 월산리 M5호분 출토 경갑>

찰갑은 장방형의 일반적인 형태로 생긴 철판이 232점 남아 있고, 그 외에 다수의 파편이 있다. 그 외에 오각형의 찰갑편 16점이 발견되었다. 찰갑편은 서로 겹쳐진 상태로 발견되어, 원래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 조성연대

이 철제 갑옷과 투구 일괄품이 출토된 월산리 M5호분은 월산리 M1-A호분보다

조금 늦은 5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되는 석곽묘이므로, 갑주의 제작 연대도 5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 현 상

현재는 찰갑을 비롯한 첩편들이 모두 날개로 보존처리 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부식이 심하긴 하지만 보존처리가 잘되어 첩편의 상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독특한 투구 형식은 전시를 위해서 복원이 가능하지만, 투구의 불가리개와 찰갑 등은 편만 남아 있어서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철제 갑주 일괄품은 2010년 전북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남원시 아영면 청계산 1-7번지 월산리고분군 중 월산리 M5호분의 석곽 내에서 출토되었다. 석곽 남단벽에서 투구와 불가리개가 발견되었으며, 찰갑과 경갑은 피장자의 발치쪽에서 무더기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굴 이후 약 2년에 걸쳐 국립전주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보존처리 되어 현재의 상태가 확인되었다. 이 갑주 일괄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독특하게 변형된 종장관주, 즉 투구의 형태이다. 투구 위에 관모형의 복발이 달리고 앞부분에 챙이 달린 예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남원 월산리 지역에서 비교적 일찍 제작된 독특한 지역 형식으로 추정된다. 특히 월산리 M5호분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M1-A호분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식의 투구가 발견되어 이 지역에서 시작된 독특한 형태로 추정된다. 이와 비슷한 복발달린 투구의 예로는 창녕 교동 3호분에서 타원형금구와 복발편이 출토된 투구의 일부가 발견된 바 있으며, 6세기 전반의 고령 지산동 518호분과 지산동 B-3호분 등에서도 발견되기는 했다. 또한 복발과 챙이 달린 투구는 합천 옥전 지역에서도 발견되기는 했다. 한편, 월산리 M5호분 출토품과 비슷한 투구 형식은 6세기 이후 일본 고분에서 크게 유행하기 때문에, 남원 지역과 일본의 문화 교류 및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지만 갑옷과 투구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것이 아니므로 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 참고문헌

- 全北文化財研究院, 『南原 月山里古墳群 - M4·M5·M6號墳』, 2012.
- 국립전주박물관, 『운봉 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2012.
- 이영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금속 유물의 제작기법」, 『東垣學術論文集』 14, 2013, pp.594~604.
- 국립김해박물관, 『갑주, 전사의 상징』, 2015.

-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2019.
- 유영춘, 「남원 월산리 고분군·청계리 고분군 출토 철제 무구의 종류와 의미」,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조사 성과와 의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남원시, 2020, pp.171~203.

8. 근묵(槿墨)

가. 검토사항

‘근묵’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으로부터 ‘근묵’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5.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2.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근묵(槿墨)
- 소유자(관리자) :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박물관
- 수 량 : 총 35책(서첩 34책, 목록 1책)
- 규 격 : 45.0×30.5cm
- 재 질 : 종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첩장본(帖裝本)
- 조성연대 : 1943년 성첩(고려 말~근대 필적 수록)



<근목-목록>



<근목-서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근목(槿墨)』은 오세창(吳世昌)이 우리나라 선인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까지 근 60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필적을 수록한 서첩이고, 구성은 선장본(線裝本) 목록 1책과 첩장본(帖裝本) 본문 34책을 합한 35책이다. 재질은 저지(楮紙)이고 각 책의 표지는 비단으로 장황하였으며,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45.0cm이고 성첩 연대는 1943년이다. 제1책의 첫 장은 전서로 ‘근목(槿墨)’이라 쓴 표제에 ‘팔십위(八十輩)’이라 쓰고, 오른쪽 가운데에 둥근 와당형 인영 ‘진주암인(眞住庵印)’과 왼쪽 ‘八十輩’ 아래에 방형의 주문인 ‘세창지새(世昌之鈔)’와 백문인 ‘위창한묵(葦蒼翰墨)’의 인영이 있다. 서첩 34책은 필적의 크기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에 1점씩 수록하였고, 오른쪽 첩지(添紙)에는 이를 쓴 인명과 생몰연대 등을 적어 놓았다. 목록 1책에는 이를 쓴 성명(姓名)·자호(字號)·향관(鄉貫)·시대(時代)·직업(職業)·계통(系統) 등을 기록하였다. 보존상태는 양호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첫째로 진위판단,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 서명이 없는 필적의 신빙성, 대필의 필적 등 문제점은 『근목』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보이는 것이어서 전체의 가치에 비하면 옥에 티라 하겠다. 둘째로 성첩이 1943년이라는 문제점은 수록된 필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동산문화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셋째로 『근목』은 우리나라 600년간의 서예사·인장사·서지학·생활사·문화사 연구의 자료 가치가 높은 진귀한 서첩이고, 유전경로가 확실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정 가치 있음)

『근목』은 오세창이 80세 때에 편집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당시에 국내 최고의 서예가요 감식가로서 무려 1,136점의 필사본을 망라하여 35책으로 꾸민 것으로 볼 때, 당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후생으로서의 소명감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일로서 크게 기려져야 마땅하다.

약간의 하자로 지적받고 있는 안작으로 의심되는 몇몇 작품에 대한 문제는 1981년도에 발간된 『근목』 두 권의 해제에서 임창순이 잘 밝혀놓고 있다. 물론 완벽에 비할 수 있으려면 필자 본인도 감정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고해 볼 적에, 오세창의 실수가 읽혀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길재·이개·황희 등등의 필적을 소위 ‘전칭작’으로 보았을 개연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안평대군의 것이 위작이기는 하지만 안평대군의 필치를 엿볼 수 있으니 자료적 가치로서의 몫은 하고 있다고 여기는 바이다. 이는 곧은 나무가 주종을 이루지만 굽은 나무, 쓰러진 나무가 어우러져 있어 한 산을 이루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심지어 1,136점에서 논란거리가 수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감식가의 한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만 하다고 본다. 옥에 티가 있어도 그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근목』에서의 하점(瑕玷)도 그 큰 가치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목』이 해방 이후 한국서예사 연구에 크게 기여했음은 원광대학교를 위시한 5개 서예과에서의 석박사 논문에 녹아 있으며, 일찍이 임창순도 『한국미술전집』, 『한국의 미』 같은 책 중의 서예부분을 집필할 때 다수 『근목』에서 차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1985년에 예술원에서 출간된 『한국미술사전』에 필자를 비롯하여 김양동, 김세호 등이 참여했는데 이론적 측면은 오세창의 『근역서화집』과 김영윤의 『한국서화인명사서』 등을 주로 활용했지만 도판은 거의가 다 『근목』을 참조했음도 밝혀둔다.

『근목』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임창순을 비롯한 선행연구자들이 밝혀놓았기에 여기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다만 이 연구 결과물들에 대해서 대체로 동감하는 바이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에 크게 충족된다고 판단한다.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인 『근목』은 위창 오세창이 1943년에 완성한 서첩으로 우리나라 서예사, 미술사학 연구에 초석이 된다. 필적 인물의 신분이 다양하고, 수록 시기 역시 600년을 넘는다. 그런 만큼 『근목』은 선인들의 필적을 역사성 있게 편성한 작품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 가치는 우리나라 서예사, 미술사학뿐 아니라 생활사, 인장학(印章學)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유물이다. 더욱이 내용 중에는 사회상이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 많아서 당대의 사회, 생활사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

다만 여말선초 필적을 중심으로 일부 오류나 진위의 논란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방대한 수록 필적에 비하면 일부의 작품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서첩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서첩 『근묵』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정 가치 있음)

《근묵(槿墨)》은 현존 역대 서첩 가운데 질과 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서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서첩에 수록된 목적의 시대적 분포가 고려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고, 서사자의 신분 계층 또한 제왕에서 중인에 이르며 수록된 유묵의 문체 또한 한문학 거의 전 장르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조선 전기 이래 역대 명필들의 목적이 빠짐없이 장첩되어 있어 각 시기에 유행하던 서풍 및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 문화재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여향인들과 화가들의 목적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서간문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이 서첩은 서사자가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 및 당시의 사회상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묵(槿墨)》에 장첩된 목적의 수집자인 오세창이 뛰어난 서화 감식안을 지닌 서예가였기 때문에 장첩된 거의 모든 목적이 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수록된 목적 가운데 안평대군 글씨는 김육이 1636년 명나라로 사신가는 길에 지은 시로 알려져 시기가 맞지 않으며, <松杖贈冲菴>이란 제목으로 수록된 박훈의 시는 김정이가 박수량에게 준 시로 《충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임수적과 정언황의 서간은 천초(倩草)이며, 모사작도 극소수 있는 듯 하여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목적을 수집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서 장첩한 오세창과 훗날 탈초와 감수를 담당한 임창순의 빼어난 감식안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을 이 서첩에 수록한 것은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의 서풍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거나 당대의 서풍을 확인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묵》은 근대의 저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였던 오세창이 여말 이래 명사들의 목적 1,136점을 수집하여 34책으로 장첩한 것으로 질과 양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귀중한 문헌이다. 특히 이 서첩에는 선초 이래 역대명필들의 목적이 대거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빼어난 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서가들의 목적 및 화가와 여향인들의 목적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첩은 당대의 학술, 사회제도, 서지 풍습 등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한국 서예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서첩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

○(지정 가치 있음)

『權墨』은 위창 오세창이 수집해서 정리한 우리나라 역대 명사의 서첩이다. 성균관 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權墨』은 오세창의 또 다른 책 『權域書彙』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서첩으로 평가된다. 『權墨』은 모두 34첩의 서간첩과 1책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려 말 정몽주부터 일제강점기 이도영에 이르기까지 총 1,136명의 행서·초서·해서·전서·예서가 수록된 국내 최대 분량의 서첩이다. 수록된 필적은 한국서예사 연구의 기준작이자 조선시대 글씨 변화의 흐름과 수준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의 시대상과 선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사 자료로서도 귀중하다. 목록에는 각 서간마다 글씨를 쓴 주요 인물의 이름(명·자·호), 이력(관향·시대·직업) 계통(관련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글씨를 남긴 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중요하다.

『權墨』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절대다수가 원본 필적이기 때문에 서사자가 처한 시대적 서풍, 사회문화적인 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서자의 미의식과 역대의 서풍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지질에 있어서도 고정지·감지·상피지·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었으며, 서예사를 실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이다. 서예에 있어 우리나라 사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權墨』은 600년의 살아있는 서예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선현들이 직접 써서 남긴 필적인 手澤이어서 그 체취조차도 귀하다. 이는 인쇄된 책자나 탁본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 본서에는 특히 서간문이 많은데 일부러 공들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運筆한 실용문이지만, 예술성도 있다. 따라서 행초서가 많으며, 그 筆致는 유려하고 暢達하여 보는 이의 마음과 눈을 기쁘게 하는 매력이 있다.
- ③ 신분상 제왕으로부터 고관, 문인, 서화가, 역관, 여향인, 승려는 물론 당파를 막론하고 망라되어 있다. 신분에 따라 서풍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할 과제가 될 수 있다. 서예 분야에서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위향문인의 작품도 상당수 수록되어, 이 분야 연구주제의 개척에도 기능할 수 있을 것 이란 점이다.

한편 『權墨』에 수록된 명사의 글씨 중에는 진위판단이 어렵거나,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그대로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작품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 ① 署名이 있어도 필법이 후대의 필법이거나 傳稱作이어서 전체 작품이 진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로 鄭夢周, 鄭道傳, 吉再, 匪懈堂 安平大君 등 고려와 조선 초기 몇몇 작가의 작품 가운데 진적임을 확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창이 安平大君의 작품은 진작이 아니어서 수준은 떨어지지만 안평대군체로 썼다는 의미에서 계통을 밝힐 수 있는 점에서 수용했거나, 靑溟 任昌

淳도 탈초해서 영인본을 간행할 때 제거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王羲之의 진작은 없고 모본으로 전래되고 있지만, 그 시대의 서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본을 중시하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 ② 署名이 없이 전하는 黃喜, 孟思誠, 金守濫의 작품도 그대로 신빙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이것은 “歷代名人의 작품을 集成한다”는 목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전하는 작품이 없거나 비교대상본이 없어 진위 판단이 어려운 것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 ③ 1943년 성첩되었으므로 근대유물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위창의 감식안으로 성첩한 연도가 1943년이지만, 수록된 내용은 여말부터 20세기 초란 점에 주안점을 둔다면 내용은 조선 중기와 말기의 작품이 중심이다. 예로 조선 후기 李寅文(1745~1824 경)의 『江山無盡圖』는 광복 직전 표구된 것인데, 근대문화재가 아닌 조선시대의 그림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權墨』도 내용은 조선시대의 작품이 위주이므로 동산문화재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1943년에 성첩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국가문화재로서 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숙고한 결과, 성첩한 연대가 1943년이지 수록된 작품은 여말에서 20세기 초의 작품이므로 성첩한 연도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僞作보다 眞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서예사의 귀중본이자 역대 최대 분량의 서첩인 본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와 상징성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연구해서 후세에 바르게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權墨』은 위창 가문 8대의 수집품의 토대 위에 위창이 의도적으로 수집하였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또 다시 이렇게 망라된 저작이 편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權墨』은 600년의 살아있는 서예사라고 할 수 있다. 하여 寶玉에 약간의 티가 있다하여 그 전체 값어치를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소수의 티가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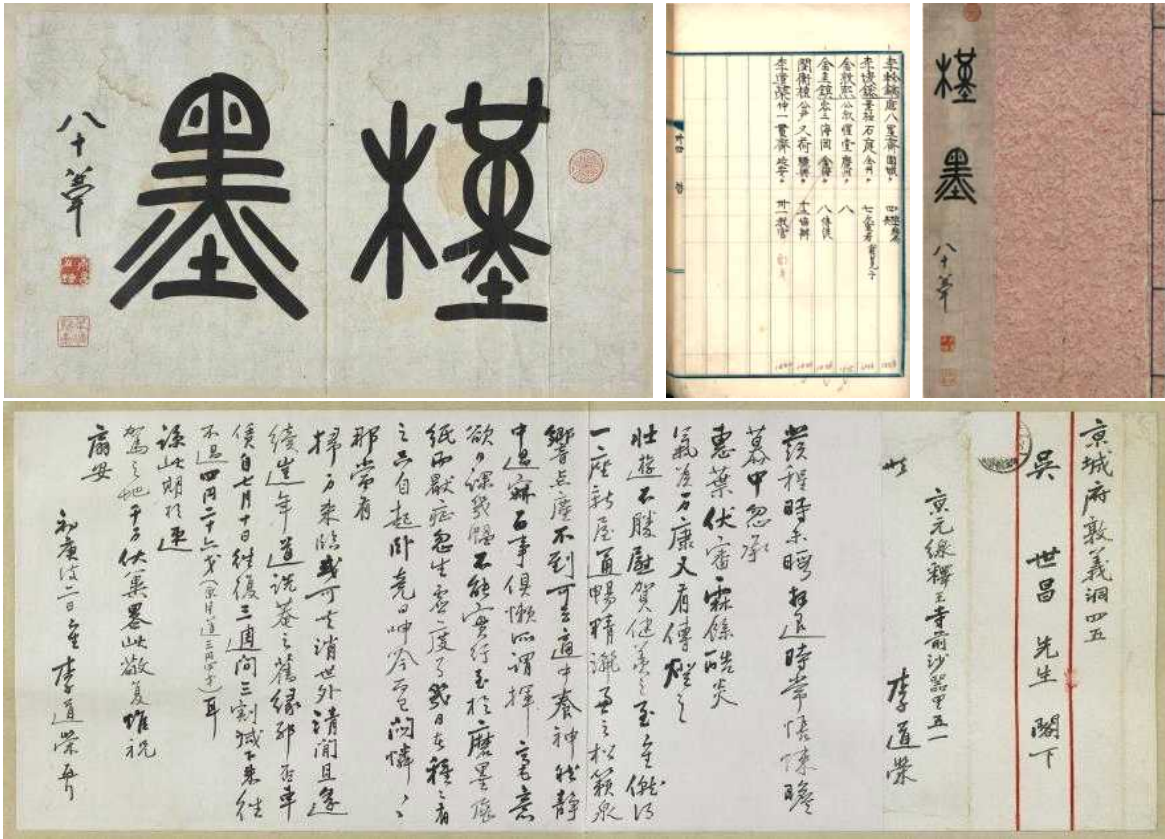
조사보고서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근묵』은 오세창(吳世昌)²¹⁸이 우리나라 선인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까지 수록하였는데, 근 600여년에 걸친 1,136명의 필적 서첩이다. 선장본(線裝本) 목록 1책과 첩장본(帖裝本) 본문 34책을 합한 35책이다. 재질은 저지(楮紙)이고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45.0cm이며, 각 책의 표지는 비단으로 장황하였고 성첩(成帖) 연대는 1943년이다. 제1책의 첫 장은 전서로 ‘근묵(槿墨)’이라 쓴 표제에 ‘팔십위(八十輩)’이라 쓰고, 오른쪽 가운데에 둥근 와당형 인영 ‘진주암인(眞住庵印)’과 왼쪽 ‘八十輩’ 아래에 방형의 주문인 ‘세창지새(世昌之銖)’, 백문인 ‘위창한묵(葦蒼翰墨)’의 인영이 있다. 서첩 34책은 필적의 크기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에 1점씩 수록하였고, 오른쪽 첨지(添紙)에는 이를 쓴 인명과 생몰연대 등을 적어 놓았다. 목록 1책에는 이를 쓴 성명(姓名)·자호(字號)·향관(鄉貫)·시대(時代)·직업(職業)·계통(係統) 등을 기록하였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는 오세창이 1943년에 성첩하였고, 1962년 12월 유족으로부터 구매하여 성균관대학교도서관에서 보관하다가 1964년 6월 22일 박물관이 개관되자 이관되어 현재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18)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은 본관이 해주(海州)이고 자는 중명(仲銘, 一作 重明)이며, 호는 위창(葦滄) 이외에 백여개를 사용하였다. 서울 중부 이동(梨洞, 지금의 을지로 2가)에서 태어났고, 부친은 오경석(吳慶錫, 1831~1879)으로 8대가 역관을 지낸 중인 집안이다. 그는 근대 서화를 대표하는 예술가·학자·서화감식가·개화사상가·언론인·독립운동가이고, 생애는 관료 생활·개화운동·언론 생활·독립운동·예술활동이 주를 이룬다. 8세인 1871년 가숙(家塾)을 설치하고 부친과 함께 개화를 대표하던 유대치(劉大致, 1814~1884)를 스승으로 모셔 공부한 뒤, 16세인 1879년 역과(譯科)에 합격하여 사역원에 등제(登第)하였다. 이후 사역원 직장(直長, 종7품), 『한성주보』 기자, 도쿄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 『만세보』 사장, 『대한민보』 사장을 지냈고,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 1921년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 이후 『시대일보』 사장을 지냈고, 광복 후 우익에 가담하여 반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민족대표로 대한제국 황제의 국새를 되돌려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고서화 명품 가운데 상당수는 그의 감정과 평가를 거쳐 수집하였고, 또 그의 감식안으로 발굴한 문화재들이 그의 집뿐만 아니라 간송미술관이나 조선미술관 등에 구매되며 민족문화의 유산을 지키게 되었다. 부친이 수집한 골동 서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서체를 확립하고, 우리나라 서화에 대해 집필하였다. 대표 저작은 우리나라 금석학을 정리한 『서지정(書之譜)』(1901), 서화가의 인명록 『근역서화정(槿域書畫徵)』(1928), 고려 말에서 대한제국까지 선인들의 필적을 모은 『근역서휘(槿域書彙)』37책(1911)과 『근묵(槿墨)』35책(1943), 역대 명인의 그림을 모은 『근역화휘(槿域畫彙)』천(天)·지(地)·인(人) 3첩(帖), 서화가와 학자들이 사용하던 인장을 모은 『근역인수(槿域印數)』4함(函, 1937) 등이 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금석학·서예·회화·전각을 연구하는 근간이다.



<근목(權墨)의 목록과 본문>

○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근목(權墨)』은 내용 분석, 문제점, 가치와 의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을 위해 먼저 1,136점 필적을 도표로 작성해 연대순으로 작가·생물·신분·서체·크기·분류와 내용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또 이를 통해 신분·서체·분류별 통계

와 책마다 수록한 필적 점수를 다음과 같이 살펴 확인하였다.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001 | 정몽주(鄭夢周) | 1337-1392 | 문신 | 해행서 | 23.3×27 | 편지, 李集에게 보냄 |
| 0002 | 강희백(姜淮伯) | 1357-1402 | 문신 | 초서 | 15.5×13.3 | 편지, 祭文의 초고를 보냄 |
| 0003 | 정도전(鄭道傳) | 1342-1398 | 문신 | 초서 | 17.5×13.4 | 편지, 침상에서 괴로움을 호소 |
| 0004 | 길재(吉再) | 1353-1419 | 학자 | 해행서 | 16.5×14.3 | 편지, 스승에게 안부 |
| 0005 | 맹사성(孟思誠) | 1360-1438 | 문신 | 행초서 | 15.3×7 | 편지, 尊丈에게 보냄 |
| 0006 | 황희(黃喜) | 1363-1452 | 문신 | 해행서 | 22×9.5 | 편지, 몸이 아파 직접 작별 못함 |
| 0007 | 최덕지(崔德之) | 1384-1455 | 문신 | 해행서 | 18.3×19.5 | 시, 天官承命原韻 |
| 0008 | 최흥효(崔興孝) | 생몰 미상 | 문신 | 초서 | 34.5×20 | 시, 杜牧의 念昔游 |
| 0009 | 황수신(黃守身) | 1407-1467 | 문신 | 행초서 | 17.5×15 | 편지, 세 가지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
| 0010 | 이석형(李石亨) | 1415-1477 | 문신 | 행초서 | 30.5×36 | 시, 次程(칠언율시) |
| 0011 | 김수온(金守溫) | 1409-1481 | 문신 | 해서 | 23×15 | 鍾銘, 楡岾寺新鍾銘并序 |
| 0012 | 권람(權擘) | 1416-1465 | 문신 | 행초서 | 14.5×17 | 편지, 李遠의 딸에 구혼 |
| 0013 | 신숙주(申叔舟) | 1417-1475 | 문신 | 초서 | 15.5×17 | 편지, 조카의 병문안 |
| 0014 | 성삼문(成三問) | 1418-1456 | 문신 | 행초서 | 21.5×21.3 | 편지, 白筆과 먹 선물에 사례 |
| 0015 | 이용(李瑑) | 1418-1453 | 서예가 | 해행서 | 25×52 | 시, 金堉이 두보의 오언시를 集句 |
| 0016 | 이개(李塏) | 1417-1456 | 문신 | 해행서 | 21.2×23 | 편지, 숙부의 筍子에 답답함 |
| 0017 | 유성원(柳誠源) | ?-1456 | 문신 | 초서 | 16.5×13.5 | 편지, 어제 빈 것을 잊지 못함 |
| 0018 | 서거정(徐居正) | 1420-1488 | 문신 | 해행서 | 15.4×35.5 | 시, 칠언고시 |
| 0019 | 권전(權專) | ?-1441 | 문신 | 해행서 | 26.8×25.5 | 편지, 모든 일은 許翰林에게 묻길 |
| 0020 | 김종직(金宗直) | 1431-1492 | 문신 | 해행서 | 24×15 | 편지, 吉 官長께 답장 |
| 0021 | 노사신(盧思愼) | 1427-1498 | 문신 | 행초서 | 18.3×25 | 편지, 현운을 보니 직접 빈듯함 |
| 0022 | 김시습(金時習) | 1435-1493 | 승려 | 해행서 | 21.8×23.5 | 시, 清寒走筆(칠언율시) |
| 0023 | 홍귀달(洪貴達) | 1438-1504 | 문신 | 해행서 | 20.5×11 | 시, 次興德韻(칠언율시) |
| 0024 | 성현(成俔) | 1439-1504 | 학자 | 해행서 | 25×25 | 편지, 제사에 참여 못해 망극함 |
| 0025 | 이의무(李宜茂) | 1449-1507 | 문신 | 해행서 | 29.5×32.5 | 시, 送權應教奉使對馬島 |
| 0026 | 김굉필(金宏弼) | 1454-1504 | 문신 | 해행서 | 23.5×26.5 | 시, 宏弼忙草(오언절구) |
| 0027 | 조지서(趙之瑞) | 1454-1504 | 문신 | 해행서 | 27×27.4 | 시, 칠언율시 |
| 0028 | 송질(宋軼) | 1454-1520 | 문신 | 해행서 | 24.5×20.5 | 시, 칠언율시 |
| 0029 | 이계맹(李繼孟) | 1458-1523 | 문신 | 해행서 | 24.5×15.5 | 시, 칠언절구 |
| 0030 | 강백진(康伯珍) | ?-1504 | 문신 | 해행서 | 28×34 | 記, '無名齋' 記文 |
| 0031 | 성희안(成希顔) | 1461-1513 | 문신 | 행초서 | 18.5×16.5 | 편지, '性理大全'을 부탁하는 글 |
| 0032 | 정광필(鄭光弼) | 1462-1538 | 문신 | 해행서 | 15.9×8.5 | 편지, 시를 지어 인사드립니다 |
| 0033 | 신용개(申用漑) | 1463-1519 | 문신 | 해행서 | 19×25.5 | 편지, 동백즙을 보냄 |
| 0034 | 김일손(金駟孫) | 1464-1498 | 문신 | 해행서 | 21.5×20.8 | 시, 사언고시 |
| 0035 | 지엄(智嚴) | 1464-1534 | 승려 | 해행서 | 23.5×43 | 편지, 說法을 논함 |
| 0036 | 이현보(李賢輔) | 1467-1555 | 문신 | 해행서 | 26×29.5 | 편지, 이황에게 보낸 답장 |
| 0037 | 어득강(魚得江) | 1470-1550 | 문신 | 해행서 | 25.5×37.5 | 시, 칠언고시 |
| 0038 | 남곤(南袞) | 1471-1527 | 문신 | 해서 | 24×14 | 시, 楚辭·九歌·山塊의 일부 |
| 0039 | 박영(朴英) | 1471-1540 | 무신 | 해행서 | 22.5×20.7 | 시, 칠언절구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040 | 이장곤(李長坤) | 1474-1519 | 문신 | 해행서 | 21×28 | 시, 칠언율시 |
| 0041 | 박상(朴祥) | 1474-1530 | 문신 | 해서 | 27×18.4 | 시, 又和愛日堂韻(칠언율시) |
| 0042 | 권별(權撥) | 1478-1548 | 문신 | 초서 | 22×21 | 시, 오언율시 |
| 0043 | 김안국(金安國) | 1478-1543 | 문신 | 해행서 | 22.5×30.5 | 편지, 城主께 답장 올림 |
| 0044 | 박은(朴閔) | 1479-1504 | 학자 | 해행서 | 23.5×24 | 편지, 아드님 대접이 소홀함 |
| 0045 | 이자(李耜) | 1480-1533 | 문신 | 해행서 | 26.7×16.7 | 시, 칠언고시 |
| 0046 | 김안로(金安老) | 1481-1537 | 문신 | 해행서 | 35.4×34.8 | 편지, 贈順之還鄉 |
| 0047 | 조광조(趙光祖) | 1482-1519 | 문신 | 해행서 | 26×13 | 편지, 山寺로 가는 길에 답장함 |
| 0048 | 김식(金湜) | 1482-1520 | 문신 | 해행서 | 18.6×16 | 편지, 글을 전하고 답을 받아오길 |
| 0049 | 공서린(孔瑞麟) | 1483-1541 | 문신 | 해행서 | 27.7×34.7 | 賦, 寄呈拙吟以成一笑 |
| 0050 | 이연경(李延慶) | 1484-1548 | 문신 | 행초서 | 24.7×28.3 | 시, 送金令公之任(칠언율시) |
| 0051 | 정순명(鄭順明) | 1484-1548 | 문신 | 행초서 | 28.3×22 | 편지, 金生員宅께 답장 |
| 0052 | 신광한(申光漢) | 1484-1555 | 문신 | 초서 | 22.5×12.5 |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
| 0053 | 박훈(朴薰) | 1484-1540 | 문신 | 해행서 | 20.3×7.5 | 시, 松杖贈冲菴(오언절구) |
| 0054 | 소세양(蘇世讓) | 1486-1562 | 문신 | 초서 | 20×26.4 | 편지, 아들 行己를 지도 바람 |
| 0055 | 정옥형(丁玉亨) | 1486-1549 | 문신 | 해행서 | 26.5×29 | 편지, 관찰사 부임을 축하 |
| 0056 | 이성동(李成童) | 생몰 미상 | 문신 | 초서 | 20×44 | 편지, 과거시험 합격을 기원 |
| 0057 | 김구(金球) | 1488-1534 | 문신 | 초서 | 26×27.7 | 편지, 매서운 추위에 문안드립니다 |
| 0058 | 정사룡(鄭士龍) | 1491-1570 | 문신 | 해행서 | 26×32.5 | 시, 칠언율시 |
| 0059 | 기준(奇遵) | 1492-1521 | 문신 | 초서 | 23×9.4 | 편지, 죽지 앓음은 임금의 은혜 |
| 0060 | 이언적(李彦迪) | 1491-1553 | 문신 | 초서 | 31.5×7 | 편지, 바름을 기리는 정성 |
| 0061 | 조성(趙晟) | 1492-1555 | 학자 | 초서 | 22.5×18 | 편지, 이별 후 섭섭함 |
| 0062 | 성수침(成守琛) | 1493-1564 | 학자 | 해행서 | 28.5×13.8 | 시, 贈汪倫(칠언절구) |
| 0063 | 상진(尙震) | 1493-1564 | 문신 | 초서 | 27×41.5 | 편지, 道案에 대한 말씀 |
| 0064 | 장옥(張玉) | 1493-1550 | 문신 | 초서 | 22×27.3 | 편지, 건강에 대한 안부 |
| 0065 | 심달원(沈達源) | 1494-1535 | 문신 | 초서 | 20×32.8 | 편지, 도를 함께 하나 만나지 못함 |
| 0066 | 송지한(宋之翰) | 1494-? | 문신 | 해행서 | 22.3×39 | 시, 오언고시 |
| 0067 | 성수종(成守琮) | 1495-1533 | 학자 | 해해서 | 33×23.5 | 편지, 교제가 끊어진 아쉬움 |
| 0068 | 주세붕(周世鵬) | 1495-1554 | 학자 | 초서 | 26.2×25.7 | 편지, 李應教宅 문안 |
| 0069 | 김면(金沔) | 1541-1593 | 의병장 | 해행서 | 33.5×16.2 | 편지, 攻守의 계획 의논 |
| 0070 | 백인걸(白仁傑) | 1497-1579 | 학자 | 초서 | 21×17.8 | 편지, 賻儀에 대한 감사 |
| 0071 | 심봉원(沈逢源) | 1497-1574 | 문신 | 해행서 | 24×27 | 시, 오언고시 |
| 0072 | 조욱(趙昱) | 1498-1557 | 학자 | 초서 | 29×17.6 | 시, 오언율시 |
| 0073 | 이찬(李漵) | 1498-1554 | 문신 | 해행서 | 24×22.3 | 편지, 부채를 보냄 |
| 0074 | 이항(李恒) | 1499-1576 | 문신 | 초서 | 32×36 | 편지, 理氣論을 논함 |
| 0075 | 김홍윤(金弘胤) | 1499-1569 | 문신 | 해행서 | 21.6×38.7 | 제발, 書送梅詩帖後 |
| 0076 | 이준경(李浚慶) | 1499-1572 | 문신 | 해행서 | 21.7×17 | 편지, 小紙에 긴밀한 내용을 보냄 |
| 0077 | 이황(李滉) | 1501-1570 | 문신 | 해행서 | 24.7×17.8 | 시, 칠언율시 |
| 0078 | 조식(曹植) | 1501-1572 | 학자 | 행초서 | 24×24 | 편지, 汝友 侍史께 답장 |
| 0079 | 원혼(元混) | 1505-1597 | 문신 | 초서 | 20.2×24 | 편지, 약을 지어 보냄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080 | 정렴(鄭濂) | 1505-1549 | 儒醫 | 해행서 | 24×9.8 | 시, 오언절구 |
| 0081 | 원호변(元虎變) | 1506-? | 문신 | 초서 | 24×27.8 | 편지, 試場은 무사히 지나갔음 |
| 0082 | 박충원(朴忠元) | 1507-1581 | 문신 | 행초서 | 23.4×24.3 | 편지, 도망간 婢 체포 부탁 |
| 0083 | 엄흔(嚴昕) | 1508-1543 | 문신 | 해행서 | 38×24.2 | 시, 送金上舍還宣城(칠언율시) |
| 0084 | 황기로(黃耆老) | 1508-? | 서예가 | 초서 | 35.1×47.2 | 시, 칠언절구 |
| 0085 | 윤복(尹復) | 1512-1577 | 문신 | 해서 | 24×59×2 | 시, 送別洪應龍赴倅雲峯 |
| 0086 | 김인후(金麟厚) | 1510-1560 | 학자 | 해행서 | 18×30×2 | 시, 칠언절구 |
| 0087 | 김부인(金富仁) | 1512-1584 | 무신 | 해행서 | 26×36.4 | 편지, 이황의 서원 창건을 부탁 |
| 0088 | 유희춘(柳希春) | 1513-1577 | 문신 | 해행서 | 26.2×31.5 | 편지, 貞夫人께 아뢰 |
| 0089 | 김우굉(金宇宏) | 1524-1590 | 문신 | 행초서 | 26.7×20.5 | 시, 칠언절구 |
| 0090 | 박난영(朴蘭英) | 1514-? | 문신 | 해행서 | 29.5×9.5 | 詩序 |
| 0091 | 주이(周怡) | 1515-1564 | 문신 | 해행서 | 24.2×49.7 | 시, 奉別洪應龍赴任雲峯 |
| 0092 | 양사준(楊士俊) | 1515-? | 문신 | 초서 | 24×58.2 | 시, 送別洪應龍(오언고시) |
| 0093 | 신호(申護) | 1515-? | 학자 | 해서 | 24×57.7 | 시, 奉送洪先生之任十韻 |
| 0094 | 노수신(盧守愼) | 1515-1590 | 문신 | 행초서 | 26.5×21.5 | 시, 奉贈成健叔令兄 |
| 0095 | 심수경(沈守慶) | 1516-1599 | 문신 | 해행서 | 20.5×20.3 | 시, 遊佛聖寺用頤庵韻題贈 |
| 0096 | 이희검(李希儉) | 1516-1579 | 문신 | 해행서 | 24×37.4 | 시, 奉贈雲峯洪使君先生 |
| 0097 | 송인(宋寅) | 1517-1584 | 학자 | 해서 | 23.5×32.5 | 시, 오언고시 |
| 0098 | 양사언(楊士彦) | 1517-1584 | 서예가 | 해행서 | 26×30.7 | 편지, 崔雲遇에게 보냄 |
| 0099 | 허엽(許曄) | 1517-1580 | 문신 | 해행서 | 27×19.5 | 시, 칠언절구 |
| 0100 | 노진(盧禎) | 1518-1578 | 문신 | 해행서 | 23×25 | 편지, 옥계에 돌아가 회포 풀길 |
| 0101 | 이량(李樑) | 1519-1571 | 문신 | 행초서 | 24×57.8 | 시, 奉別洪應龍之任雲峯 |
| 0102 | 휴정(休靜) | 1520-1604 | 승려 | 해행서 | 27.8×34.5 | 편지, ‘百丈廣錄’의 일부 |
| 0103 | 이숙량(李淑梁) | 1519-1592 | 문신 | 초서 | 26×25.5 | 편지, 趙穆께 답장 |
| 0104 | 김부륜(金富倫) | 1531-1598 | 학자 | 행초서 | 30.5×27 | 편지, 易東 모임에 불참 통보 |
| 0105 | 조목(趙穆) | 1524-1606 | 문신 | 초서 | 19.2×40 | 편지, 易東 모임에 권유 |
| 0106 | 신희중(申孝仲) | 1536-? | 서예가 | 해행서 | 28.2×22.8 | 시, 別舍弟宗一(칠언율시) |
| 0107 | 김제갑(金悌甲) | 1525-1592 | 문신 | 해행서 | 33.5×11.5 | 편지, 전란의 어려움 호소 |
| 0108 | 이희득(李希得) | 1525-1604 | 문신 | 해행서 | 22.8×37 | 시, 奉別李判書以奏請使赴京 |
| 0109 | 이양원(李陽元) | 1526-1592 | 문신 | 행초서 | 20.3×17.1 | 편지, 보낸 선물에 감사함 |
| 0110 | 정탁(鄭琢) | 1526-1605 | 문신 | 행초서 | 21.5×21 | 편지, 집안의 우호 결합 |
| 0111 | 구봉령(具鳳齡) | 1526-1586 | 문신 | 해서 | 26.5×41.2 | 편지, 趙穆께 보냄 |
| 0112 | 금응협(琴應夾) | 1526-1596 | 문신 | 해행서 | 23.5×19.3 | 편지, 金富倫께 보냄 |
| 0113 | 기대승(奇大升) | 1527-1572 | 문신 | 해행서 | 22.6×17.7 | 시, 칠언절구와 오언절구 |
| 0114 | 신점(申點) | 1527-1601 | 문신 | 해행서 | 26×23 | 편지, 약재 20첩을 보냄 |
| 0115 | 남몽오(南夢鰲) | 1528-1591 | 학자 | 해행서 | 6×12.5 | 편지, 名楮를 부탁함 |
| 0116 | 김수일(金守一) | 1528-1583 | 학자 | 행초서 | 15.5×47.5 | 편지, 錄名單子를 부탁함 |
| 0117 | 최황(崔滉) | 1529-1603 | 문신 | 해행서 | 31×45.7 | 편지, 陵의 뼈를 확인 |
| 0118 | 금난수(琴蘭秀) | 1530-1604 | 의병장 | 해행서 | 27×36.5 | 편지, 형께 혼사 조치를 부탁 |
| 0119 | 구사맹(具思孟) | 1531-1604 | 문신 | 해행서 | 26×43.3 | 시, 칠언율시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120 | 이광준(李光俊) | 1531-1609 | 문신 | 초서 | 25.7×18 | 시, 오언율시 |
| 0121 | 김부신(金富信) | 1523-? | 문신 | 해행서 | 21.5×17.3 | 편지, 逆奴 문제 해결을 부탁 |
| 0122 | 권호문(權好文) | 1532-1587 | 학자 | 해행서 | 28×43 | 시, 贈言權徵君定甫西行 |
| 0123 | 황정옥(黃廷彧) | 1532-1607 | 문신 | 해서 | 26.7×33.5 | 편지, 北兵使行軒께 보냄 |
| 0124 | 최경회(崔慶會) | 1532-1593 | 의병장 | 해행서 | 40×26 | 편지, 관찰사께 정황 보고 |
| 0125 | 고경명(高敬命) | 1533-1592 | 문신 | 초서 | 28.8×39 | 편지, 승진을 축하함 |
| 0126 | 윤두수(尹斗壽) | 1533-1601 | 문신 | 해행서 | 26×22.8 | 편지, 대감의 사직을 만류 |
| 0127 | 이해수(李海壽) | 1536-1599 | 문신 | 해행서 | 21.7×26.4 | 편지, 자연스러움을 강조 |
| 0128 | 정작(鄭瓘) | 1533-1603 | 문신 | 해서 | 27.7×10.2 | 시, 年且樂命(칠언고시) |
| 0129 | 정유일(鄭惟一) | 1533-1576 | 문신 | 해행서 | 27.5×18 | 편지, 달력을 구해 보냄 |
| 0130 | 배삼익(裵三益) | 1534-1588 | 문신 | 초서 | 30.7×35.5 | 시, 칠언율시 |
| 0131 | 김명원(金命元) | 1534-1602 | 문신 | 해행서 | 36×35 | 편지, 혼례복 한 벌을 보냄 |
| 0132 | 송익필(宋翼弼) | 1534-1599 | 학자 | 해행서 | 23.3×6.3 | 편지, 離騷 1장을 논함 |
| 0133 | 조정기(趙廷機) | 1535-1575 | 문신 | 해행서 | 30×23.2 | 편지, 生鰯을 부탁함 |
| 0134 | 성혼(成渾) | 1535-1598 | 문신 | 해행서 | 30×35.3 | 편지, 보낸 시·仙藥에 감사 |
| 0135 | 심의겸(沈義謙) | 1535-1587 | 문신 | 초서 | 31×31.7 | 시, 次古韻(칠언절구) |
| 0136 | 김륵(金玊) | 1540-1616 | 문신 | 초서 | 21.5×39 | 편지, 새해 인사 |
| 0137 | 우성전(禹性傳) | 1542-1593 | 의병장 | 해행서 | 34.5×19.8 | 편지, 보낸 위문편지에 답함 |
| 0138 | 이이(李珥) | 1536-1584 | 학자 | 해행서 | 25.3×25 | 시, 칠언절구 |
| 0139 | 정철(鄭澈) | 1536-1593 | 문신 | 행초서 | 37.3×29 | 시, 칠언율시 |
| 0140 | 송응개(宋應漑) | 1536-1588 | 문신 | 초서 | 18.5×30 | 편지, 公移의 중요성 강조 |
| 0141 | 최영경(崔永慶) | 1529-1590 | 학자 | 행초서 | 16×27 | 편지, 朴臺諫의 可否를 고심 |
| 0142 | 정개청(鄭介淸) | 1529-1590 | 학자 | 해서 | 22.7×7.2 | 시, 古體詩 |
| 0143 | 송한필(宋翰弼) | 1536-? | 학자 | 초서 | 25.5×16.2 | 편지, 崔橫城宅에 보냄 |
| 0144 | 이제신(李濟臣) | 1536-1583 | 문신 | 초서 | 29×14.6 | 편지, 시집간 딸에게 보냄 |
| 0145 | 이일(李鎰) | 1538-1601 | 문신 | 행초서 | 22.7×31.7 | 편지, 삿갓 工人을 보냄 |
| 0146 | 권울(權慄) | 1537-1599 | 문신 | 해행서 | 25.5×21.3 | 편지, 술 취한 실수를 사과함 |
| 0147 | 조종도(趙宗道) | 1537-1597 | 문신 | 해행서 | 36.5×22.7 | 편지, 會試 답안지를 요청 |
| 0148 | 김천일(金千鎰) | 1537-1593 | 문신 | 해행서 | 27.5×31 | 편지, 南致利께 답장 올림 |
| 0149 | 이충원(李忠元) | 1537-1605 | 문신 | 행초서 | 28.5×24.7 | 시, 奉別安直講還朝 |
| 0150 | 김연광(金鍊光) | 1524-1592 | 문신 | 해행서 | 29.5×21 | 편지, 有字와 無字의 해석 |
| 0151 | 백광훈(白光勳) | 1537-1582 | 시인 | 해행서 | 31×16.5 | 시, 劉長卿의 送鄭司直歸上都 |
| 0152 | 홍인건(洪仁健) | 1537-? | 문신 | 해행서 | 30.5×18 | 시, 慕琴聲靜(칠언절구) |
| 0153 | 이수봉(李壽鵬) | 1537-? | 종실 | 해행서 | 21×37 | 편지, 金奉事께 보낸 초대장 |
| 0154 | 윤근수(尹根壽) | 1537-1616 | 문신 | 해서 | 28×28.8 | 시, 칠언율시 |
| 0155 | 김성일(金誠一) | 1538-1593 | 문신 | 초서 | 30.5×48.5 | 편지, 金富倫에게 보낸 답장 |
| 0156 | 최철건(崔鐵堅) | 1548-1618 | 문신 | 해행서 | 26×57 | 시, 칠언고시 |
| 0157 | 이산해(李山海) | 1539-1609 | 문신 | 초서 | 18×20.3 | 편지, 안부를 여쭙 |
| 0158 | 이달(李達) | 1539-1612 | 시인 | 초서 | 26.5×26.5 | 시, 奉送李侍郎燕京之行 |
| 0159 | 최경창(崔慶昌) | 1539-1583 | 시인 | 초서 | 24.5×37 | 편지, 宋翼弼에게 보냄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160 | 최립(崔昱) | 1539-1612 | 문신 | 초서 | 25.5×36.3 | 편지, 推刷를 요청함 |
| 0161 | 김극일(金克一) | 1522-1585 | 문신 | 초서 | 32×39 | 편지, 金富倫에게 문안함 |
| 0162 | 김취려(金就礪) | 1539-? | 문신 | 행초서 | 22.5×31.5 | 편지, 李德弘에게 문안함 |
| 0163 | 유운룡(柳雲龍) | 1539-1601 | 문신 | 해서 | 27×32 | 편지, 小祥을 위로함 |
| 0164 | 권춘란(權春蘭) | 1539-1617 | 문신 | 해서 | 24.7×26 | 편지, 忠과 孝 선택을 청함 |
| 0165 | 김홍민(金弘敏) | 1540-1594 | 문신 | 해서 | 31.5×20.5 | 편지, 합천 수령에게 답함 |
| 0166 | 금응훈(琴應薰) | 1540-1616 | 문신 | 해행서 | 30.2×32 | 편지, 金富倫에게 문안함 |
| 0167 | 홍가신(洪可臣) | 1541-1615 | 문신 | 해서 | 30.3×44.8 | 편지, 달력을 보내 답장함 |
| 0168 | 홍진(洪進) | 1541-1616 | 문신 | 초서 | 27.5×51.5 | 시, 奉別李相公赴燕京 |
| 0169 | 김복일(金復一) | 1541-1591 | 문신 | 해행서 | 36.5×27.5 | 편지, 당상관 예복을 부탁함 |
| 0170 | 이덕홍(李德弘) | 1541-1596 | 학자 | 행초서 | 28.4×35.5 | 편지, 추후에 답장을 보냄 |
| 0171 | 이정(李霆) | 1541-1622 | 화가 | 초서 | 26.3×21.8 | 편지, 후일을 기약하는 답장 |
| 0172 | 이우(李瑀) | 1542-1609 | 서화가 | 초서 | 33.5×23 | 시, 黃庭堅의 題歸去來圖 |
| 0173 | 황진(黃璣) | 1542-1606 | 문신 | 해행서 | 28×37.5 | 시, 칠언율시 |
| 0174 | 김현성(金玄成) | 1542-1621 | 서화가 | 해행서 | 33×38 | 시, 送月沙相公以奏請使赴皇朝 |
| 0175 | 유성룡(柳成龍) | 1542-1607 | 문신 | 초서 | 22.2×33 | 편지, 襄三益께 보낸 답장 |
| 0176 | 송언신(宋言愼) | 1542-1612 | 문신 | 행초서 | 26.5×36 | 편지, 奴의 면제를 부탁함 |
| 0177 | 한준(韓準) | 1542-1601 | 문신 | 해행서 | 26×18 | 시, 次韻(오언고시) |
| 0178 | 한호(韓濩) | 1543-1605 | 서예가 | 해행서 | 25×15 | 편지, 門懸洞에 피난을 권유 |
| 0179 | 정구(鄭述) | 1543-1620 | 문신 | 해서 | 30.6×31 | 편지, 병 증세를 논함 |
| 0180 | 강신(姜紳) | 1543-1615 | 문신 | 해행서 | 29×37 | 시, 贈言(칠언율시) |
| 0181 | 조헌(趙憲) | 1544-1592 | 문신 | 해서 | 21.5×18 | 편지, 靜養 중 건강을 부탁 |
| 0182 | 이발(李潑) | 1544-1589 | 의병장 | 초서 | 39×24.5 | 편지, 閒丁 처벌 선처를 청함 |
| 0183 | 유정(惟政) | 1544-1610 | 승려 | 해행서 | 23×32 | 시, 오언율시 |
| 0184 | 정윤목(鄭允穆) | 1571-1629 | 학자 | 초서 | 25.5×48 | 賦, 贈金而實老兄 |
| 0185 | 유희경(劉希慶) | 1545-1636 | 시인 | 해행서 | 26.6×37 | 시, 送朴應教之任咸平 |
| 0186 | 김응남(金應南) | 1546-1598 | 문신 | 행초서 | 26×33.5 | 편지, 契貼 제작 비용을 부탁 |
| 0187 | 심대(沈岱) | 1546-1592 | 문신 | 해행서 | 28×20.7 | 편지, 王子 행차를 슬퍼함 |
| 0188 | 이원익(李元翼) | 1547-1634 | 문신 | 행초서 | 24.5×20 | 편지, 愛君憂國을 토로함 |
| 0189 | 김수(金睟) | 1537-1615 | 문신 | 해서 | 26×37 | 시, 奉送奏請使李判書 |
| 0190 | 김기(金圻) | 1547-1603 | 학자 | 행초서 | 22×31 | 시, 詠卽景(칠언절구) |
| 0191 | 김택룡(金澤龍) | 1547-1627 | 문신 | 행초서 | 28×34 | 편지, 訟山事에 대한 하소연 |
| 0192 | 우복룡(禹伏龍) | 1547-1613 | 문신 | 초서 | 24.2×24 | 편지, 위로에 대한 감사 답장 |
| 0193 | 김여물(金汝唘) | 1548-1592 | 문신 | 해행서 | 32×21.4 | 편지, 형제가 절하고 문안드림 |
| 0194 | 심희수(沈喜壽) | 1548-1622 | 문신 | 초서 | 27×28.5 | 시, 칠언율시 |
| 0195 | 김장생(金長生) | 1548-1631 | 학자 | 초서 | 29.8×43 | 편지, 鄭弘溟께 문안드림 |
| 0196 | 허성(許箴) | 1548-1612 | 문신 | 예서 | 32×52 | 시, 別章(오언율시) |
| 0197 | 이인기(李麟奇) | 1549-1631 | 문신 | 해서 | 31.2×34.5 | 시, 次入燕大風韻(칠언율시) |
| 0198 | 홍이상(洪履祥) | 1549-1615 | 문신 | 초서 | 24.2×33.5 | 편지, 예조판서께 건의 |
| 0199 | 유근(柳根) | 1549-1627 | 문신 | 해행서 | 27×27 | 시, 칠언절구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200 | 한회(韓懷) | 1549-1587 | 문신 | 해행서 | 23.5×29.5 | 시, 奉驢趙壯元賀至之行 |
| 0201 | 임제(林悌) | 1550-1621 | 시인 | 해행서 | 28×14 | 詞, 菩薩蠻 |
| 0202 | 한언침(韓彦忱) | 1551-? | 문신 | 행초서 | 23.4×44 | 시, 奉別李尙書令行赴京 |
| 0203 | 송상현(宋象賢) | 1551-1592 | 문신 | 해행서 | 27.7×27 | 편지, 용승환 대접에 감사 |
| 0204 | 허봉(許篈) | 1551-1588 | 시인 | 행초서 | 26.5×22 | 편지, 옛 동료 金富倫께 보냄 |
| 0205 | 신식(申湜) | 1551-1623 | 문신 | 초서 | 24×16.5 | 편지, 罷榜 문제 처리를 의논 |
| 0206 | 정광적(鄭光績) | 1551-? | 문신 | 해행서 | 32×14 | 시, 오언율시 |
| 0207 | 이광정(李光挺) | 1552-1627 | 문신 | 해행서 | 29.5×45 | 시, 오언율시 |
| 0208 | 곽재우(郭再祐) | 1552-1617 | 의병장 | 초서 | 30.3×21.5 | 시, 咏懷(오언절구) |
| 0209 | 조탁(曹倬) | 1552-1621 | 문신 | 초서 | 18.5×20.3 | 편지, 荒租 7석을 보냄 |
| 0210 | 김덕겸(金德謙) | 1552-1633 | 문신 | 해행서 | 27×28.5 | 시, 奉驢陳奏副使行 |
| 0211 | 권우(權宇) | 1552-1590 | 문신 | 해행서 | 22.5×38 | 시, 齋中偶吟錄奉養伯調右 |
| 0212 | 박홍구(朴弘耆) | 1552-1624 | 문신 | 행초서 | 33.5×47.8 | 시, 奉別月沙令兄赴京 |
| 0213 | 정홍명(鄭弘溟) | 1582-1650 | 학자 | 행초서 | 26.6×40 | 시, 칠언율시 |
| 0214 | 이호민(李好閔) | 1553-1634 | 문신 | 해행서 | 22×17 | 편지, 白紙 1束을 보냄 |
| 0215 | 오덕령(吳德齡) | 1553-? | 문신 | 해행서 | 26×19.3 | 시, 贈舍弟德耆(칠언절구) |
| 0216 | 이덕윤(李德胤) | 1553-1630 | 학자 | 해행서 | 28×24 | 편지, 蔡宗吉 장인 喪을 조문 |
| 0217 | 고종후(高從厚) | 1554-1593 | 의병장 | 해서 | 22.5×27.5 | 시, 奉呈陳謝使行軒(칠언율시) |
| 0218 | 장현광(張顯光) | 1554-1637 | 학자 | 해서 | 29.5×39 | 편지, 金長生께 감사드립니다 |
| 0219 | 김해(金垓) | 1555-1593 | 의병장 | 초서 | 23.5×36.2 | 시, 謹次月川近體韻(칠언율시) |
| 0220 | 강인(姜綱) | 1555-1634 | 문신 | 초서 | 25×29.5 | 편지, 변방에서의 건강을 바랍 |
| 0221 | 이항복(李恒福) | 1556-1618 | 문신 | 해행서 | 25×49.5 | 시, 칠언율시 2수 |
| 0222 | 차천로(車天輅) | 1556-1615 | 문신 | 해행서 | 26×30.2 | 시, 敬次(칠언율시) |
| 0223 | 조익(趙翊) | 1556-1613 | 문신 | 해행서 | 25×38 | 시, 和五山韻奉寄朴丈座右 |
| 0224 | 이정면(李廷冕) | 1556-? | 문신 | 해행서 | 29×51.5 | 시, 칠언율시 |
| 0225 | 허적(許積) | 1563-1641 | 문신 | 해서 | 27.5×39 | 시, 黃謹中에게 쓴 칠언율시 |
| 0226 | 이숙(李瀟) | 1556-? | 문신 | 해행서 | 32×32.5 | 편지, 보낸 부체에 감사드립니다 |
| 0227 | 이경운(李卿雲) | 1556-1619 | 문신 | 해행서 | 28.5×34 | 시, 權光潤에 보낸 오언율시 |
| 0228 | 송영구(宋英耆) | 1556-1620 | 문신 | 초서 | 19.5×30 | 편지, 혼례 비용을 도와줌 |
| 0229 | 이상길(李尙吉) | 1556-1637 | 문신 | 해행서 | 24×35.3 | 시, 칠언율시 |
| 0230 | 한준겸(韓浚謙) | 1557-1627 | 문신 | 행초서 | 25×32.5 | 시, 奉送陳奏副使月沙李參判之行 |
| 0231 | 이귀(李貴) | 1557-1633 | 문신 | 해행서 | 23×26.5 | 편지, 보낸 紙束에 감사드립니다 |
| 0232 | 홍경신(洪慶臣) | 1557-1621 | 문신 | 해행서 | 23.5×24.5 | 편지, 奴子를 보내 혼례를 도움 |
| 0233 | 서성(徐渚) | 1558-1631 | 문신 | 행초서 | 24.5×51.3 | 시, 奉驢李養源令兄之行 |
| 0234 | 유몽인(柳夢寅) | 1559-1623 | 문신 | 해서 | 26×44 | 편지, 李廷龜에게 節義를 말함 |
| 0235 | 구성(具晟) | 1558-1618 | 문신 | 해행서 | 24.8×54 | 시, 오언고시 |
| 0236 | 김의원(金義元) | 1558-? | 문신 | 해행서 | 27×45 | 시, 送別陳奏副使赴京 |
| 0237 | 윤광계(尹光啓) | 1559-? | 문신 | 해서 | 26×54.4 | 시, 奉驢李相公朝京(칠언고시) |
| 0238 | 오윤겸(吳允謙) | 1559-1636 | 문신 | 초서 | 25×19.5 | 편지, 보낸 甁 4마리에 감사드립니다 |
| 0239 | 성문준(成文濬) | 1559-1626 | 문신 | 해행서 | 31×8.5 | 시, 칠언절구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240 | 차운로(車雲路) | 1559-1637 | 문신 | 해행서 | 26×24 | 편지, 보낸 冊曆에 감사드립니다 |
| 0241 | 권극중(權克中) | 1560-1614 | 문신 | 초서 | 21.5×22.5 | 시, 奉別月沙令公(칠언율시) |
| 0242 | 이준(李峻) | 1560-1635 | 문신 | 해행서 | 35×42.8 | 시, 칠언율시 |
| 0243 | 김종남(金終男) | 1560-1618 | 문신 | 해행서 | 31×55.8 | 시, 贈月沙赴京奏事(칠언고시) |
| 0244 | 이상익(李尙毅) | 1560-1624 | 문신 | 초서 | 25.5×23.5 | 편지, 보낸 해산물에 감사드립니다 |
| 0245 | 오백령(吳百齡) | 1560-1633 | 문신 | 해행서 | 24×19 | 편지, 陸參議宅께 보냄 |
| 0246 | 정효성(鄭孝成) | 1560-1637 | 문신 | 해행서 | 21×34 | 편지, 많은 流民을 가슴 아파함 |
| 0247 | 이덕형(李德馨) | 1561-1613 | 문신 | 해행서 | 34×49.5 | 편지, 왕자와 재상의 계책을 바랍 |
| 0248 | 김상용(金尙容) | 1561-1637 | 문신 | 행초서 | 33×51.2 | 시, 奉送月沙台兄朝京 |
| 0249 | 이각(李覺) | 1541-? | 문신 | 해행서 | 24×19 | 시, 奉別月沙老翁赴京 |
| 0250 | 김순명(金順命) | 1561-1614 | 문신 | 해행서 | 29.5×23.5 | 시, 李參判陳奏之行 |
| 0251 | 황신(黃愼) | 1560-1617 | 문신 | 해행서 | 18×23.5 | 편지, 官軍의 승리를 기뻐함 |
| 0252 | 김덕함(金德誠) | 1562-1636 | 문신 | 행초서 | 20.5×24.8 | 편지, 李庶尹께 보냄 |
| 0253 | 기자헌(奇自獻) | 1562-1624 | 문신 | 해행서 | 35.2×45.5 | 시, 오언율시 |
| 0254 | 이홍주(李弘胄) | 1562-1638 | 문신 | 행초서 | 22.5×37 | 편지, 노비 乙南(於乙南)을 부탁함 |
| 0255 | 조존세(趙存世) | 1562-? | 문신 | 해행서 | 34×40.5 | 시, 奉別奏請上使台鑑赴京 |
| 0256 | 윤방(尹昉) | 1563-1640 | 문신 | 해행서 | 28.5×48.5 | 시, 칠언율시와 발문 |
| 0257 | 정엽(鄭曄) | 1563-1625 | 문신 | 해행서 | 31.8×44.5 | 시, 送奏請使月沙相公之行 |
| 0258 | 배대유(裴大維) | 1563-1632 | 문신 | 행초서 | 26×56.5 | 시, 奉別月沙相公朝京 |
| 0259 |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 문신 | 행초서 | 33×41.5 | 편지, 守守 사직에 감탄함 |
| 0260 | 이수광(李睟光) | 1563-1628 | 학자 | 해서 | 30×47 | 시, 奉送朴學士赴任咸平 |
| 0261 | 이의건(李義健) | 1533-1621 | 학자 | 해행서 | 25.5×33 | 편지, 잣을 구해 보내주길 바랍 |
| 0262 | 김지남(金止男) | 1559-1631 | 문신 | 해행서 | 30.5×48.5 | 시, 奉別朴學士左遷赴咸平 |
| 0263 | 전식(全湜) | 1563-? | 문신 | 초서 | 27×13.5 | 시, 次沙溪亭韻(칠언절구) |
| 0264 | 권겸(權幹) | 1563-? | 문신 | 해행서 | 28×22 | 편지, 海淡 스님을 친거함 |
| 0265 | 성여학(成汝學) | 1557-? | 시인 | 해행서 | 31.4×54 | 시, 칠언고시의 일부 |
| 0266 | 이정구(李廷龜) | 1564-1635 | 문신 | 해행서 | 31×57.2 | 시, 오언고시, |
| 0267 | 박동열(朴東說) | 1564-1622 | 문신 | 초서 | 22.7×42 | 편지, 네 자루 부채를 보내드립니다 |
| 0268 | 이유록(李綏祿) | 1564-1620 | 문신 | 해행서 | 26.5×55.5 | 시, 趙書狀栞仲至日朝京之行 |
| 0269 | 민형남(閔馨南) | 1564-1659 | 문신 | 해행서 | 35×46 | 시, 贈別奏請上使月沙台兄之行 |
| 0270 | 황익중(黃益中) | 1564-? | 문신 | 해행서 | 31.5×48 | 시, 奉別月沙台鑑之燕京 |
| 0271 | 유숙(柳瀟) | 1564-1636 | 문신 | 해행서 | 27.3×34.8 | 시, 奉送月沙相公赴京奏請 |
| 0272 | 백진남(白振南) | 1564-1618 | 서예가 | 초서 | 23×26.5 | 편지, 백련사 눈 구경을 기약함 |
| 0273 | 권반(權盼) | 1564-1631 | 문신 | 행초서 | 23.5×15 | 편지, 仇錄에 대한 말씀을 인정함 |
| 0274 | 남이공(南以恭) | 1565-1640 | 문신 | 행초서 | 25.8×37 | 시, 칠언율시 |
| 0275 | 김수현(金壽賢) | 1565-1653 | 문신 | 해행서 | 21×23.7 | 편지, 인삼을 부쳐주길 바랍 |
| 0276 | 신흠(申欽) | 1566-1628 | 문신 | 초서 | 19.8×21.5 | 편지, 오랑캐의 差人을 불만함 |
| 0277 | 이덕형(李德炯) | 1566-1645 | 문신 | 해행서 | 20.5×28.5 | 편지, 보낸 蘇魚에 감사드립니다 |
| 0278 | 장만(張晩) | 1566-1629 | 문신 | 초서 | 25×16 | 편지, 戰馬 110필을 기르길 바랍 |
| 0279 | 한민정(韓敏政) | 1567-1637 | 서예가 | 해서 | 25×20.5 | 시, 鄭駙馬池臺喜遇鄭廣文同飲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280 | 이경전(李慶全) | 1567-1644 | 문신 | 해행서 | 32×30 | 시, 醉次主人韻(칠언절구) |
| 0281 | 강주(姜籀) | 1567-1651 | 문신 | 해행서 | 22.5×30 | 편지, 姜正言께 조문함 |
| 0282 | 유역(柳湊) | 1567-1624 | 문신 | 해행서 | 28.5×29.5 | 시, 칠언율시 |
| 0283 | 이홀(李屹) | 1568-1630 | 문신 | 해행서 | 23×49 | 시, 金燮께 보낸 칠언고시 |
| 0284 | 윤안국(尹安國) | 1569-1629 | 문신 | 초서 | 28×24 | 시, 칠언율시 |
| 0285 | 심열(沈悅) | 1569-1646 | 문신 | 초서 | 23×23.5 |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림 |
| 0286 | 허균(許筠) | 1569-1618 | 문신 | 해행서 | 22.2×30 | 편지, 시를 짓지 않음을 맹세 |
| 0287 | 정온(鄭蘊) | 1569-1641 | 문신 | 행초서 | 24.7×40.2 | 편지, 쌍계사 유람을 미룸 |
| 0288 | 박동량(朴東亮) | 1569-1635 | 문신 | 해행서 | 29×52.2 | 시, 칠언율시 |
| 0289 | 목서흠(睦叙欽) | 1572-1652 | 문신 | 해행서 | 23×42 | 시, 贈別月沙令公以奏請朝京 |
| 0290 | 심집(沈詰) | 1569-1644 | 문신 | 초서 | 24×41 | 편지, 문안과 칠언절구를 보냄 |
| 0291 | 황경중(黃敬中) | 1569-1630 | 문신 | 초서 | 26.5×45.2 | 시, 伏次(칠언절구·오언절구) |
| 0292 | 권필(權鞞) | 1569-1612 | 시인 | 행초서 | 18.7×15.3 | 편지, 약재 大黃을 부탁함 |
| 0293 | 양형우(梁亨遇) | 1570-1623 | 시인 | 해행서 | 32×15 | 시, 칠언절구 |
| 0294 | 이민성(李民成) | 1570-1629 | 문신 | 해서 | 26×45.2 | 시, 復用前韻以換瓊報 |
| 0295 | 임서(林愔) | 1570-1624 | 문신 | 해행서 | 26.5×35.5 | 시, 奉送奏請上使李相國之行 |
| 0296 | 김상헌(金尙憲) | 1570-1652 | 문신 | 해행서 | 26×21.3 | 편지, 나라의 경사로 위로함 |
| 0297 | 김류(金瑬) | 1571-1648 | 문신 | 해행서 | 22×21.5 |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림 |
| 0298 | 윤황(尹煌) | 1571-1639 | 문신 | 초서 | 17.5×47 | 편지, 새해의 淸福을 바람 |
| 0299 | 이춘원(李春元) | 1571-1634 | 문신 | 해서 | 31×53.7 | 시, 奉送月沙先生奏請行二十韻 |
| 0300 | 양인용(梁仁容) | 1571-? | 문신 | 해행서 | 26×50.5 | 시, 奉別月沙道人奏請天朝 |
| 0301 | 정홍익(鄭弘翼) | 1571-1626 | 문신 | 해행서 | 29.5×20 | 시, 敬送月沙相公赴燕京 |
| 0302 | 윤휘(尹暉) | 1571-1644 | 문신 | 행초서 | 23.5×19 | 편지, 보낸 건어물에 감사드림 |
| 0303 | 심액(沈恪) | 1571-1655 | 문신 | 해행서 | 32.8×40.5 | 시, 칠언율시 |
| 0304 | 이안눌(李安訥) | 1571-1637 | 문신 | 초서 | 26.5×21.5 | 시, 夜宿西郊餞席口號更別 |
| 0305 | 이목(李槩) | 1572-1646 | 문신 | 해행서 | 27×29 | 시, 送朴學士宰咸平 |
| 0306 | 홍서봉(洪瑞鳳) | 1572-1645 | 문신 | 해행서 | 22×40 | 편지, 家婢 조사를 요청함 |
| 0307 | 조찬한(趙縝韓) | 1572-1631 | 문신 | 초서 | 26×29 | 시, 칠언율시 3수 |
| 0308 | 목장흠(睦長欽) | 1572-1641 | 문신 | 행초서 | 28×12.2 | 시, 칠언절구 |
| 0309 | 김신국(金薰國) | 1572-1657 | 문신 | 행초서 | 23.5×14.5 | 편지, 제사에 熟手를 압송 바람 |
| 0310 | 조정호(趙廷虎) | 1572-1647 | 문신 | 초서 | 20.5×23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311 | 정호서(丁好恕) | 1572-1647 | 문신 | 초서 | 20.5×30 | 편지, 낙상으로 오른쪽 마비 |
| 0312 | 이시직(李時稷) | 1572-1637 | 문신 | 초서 | 26.5×25 | 편지, 봄에 菴山에서 만남을 기약 |
| 0313 | 홍명원(洪命元) | 1573-1623 | 문신 | 해행서 | 26.5×18.5 | 시, 次贈(칠언율시) |
| 0314 | 윤환(尹暄) | 1573-1627 | 문신 | 해행서 | 27.5×57.5 | 시, 奉送朴學士大觀赴咸平 |
| 0315 | 이형욱(李馨郁) | 1551-1630 | 문신 | 초서 | 24.5×32 | 편지, 資憲大夫에 오름을 감사함 |
| 0316 | 이현영(李顯英) | 1573-1642 | 문신 | 해행서 | 33×48.5 | 시, 送大觀赴咸平(칠언율시) |
| 0317 | 안방준(安邦俊) | 1573-1654 | 학자 | 초서 | 25×32.2 | 편지, 曹生員宅에 보냄 |
| 0318 | 김덕보(金德普) | 1571-1627 | 의병장 | 초서 | 21×34 | 편지, 安邦俊께 보냄 |
| 0319 | 김집(金集) | 1574-1656 | 학자 | 해행서 | 23.5×20 | 편지, 城主 座下史께 보냄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320 | 남이웅(南以雄) | 1575-1648 | 문신 | 행초서 | 20.7×27.5 | 편지, 徒刑 받음을 위로함 |
| 0321 | 권도(權壽) | 1575-1644 | 학자 | 해행서 | 31.5×47 | 시, 送朴學士大觀赴貶 |
| 0322 | 유희량(柳希亮) | 1575-1628 | 문신 | 해서 | 27.5×42.5 | 시, 칠언율시 |
| 0323 | 이선복(李善復) | 1575-1621 | 문신 | 해행서 | 31×42.5 | 시, 奉送李老爺朝天(오언율시) |
| 0324 | 조희일(趙希逸) | 1575-1638 | 문신 | 초서 | 22×22.5 | 편지, 奉世長 弟嫂 석방을 부탁 |
| 0325 | 이지완(李志完) | 1575-1617 | 문신 | 해행서 | 20×27 | 편지, 乘率을 마련 후 방문 |
| 0326 | 엄성(嚴惺) | 1575-1628 | 문신 | 해행서 | 28×41 | 시, 奉送權光潤陪樞府大監朝京 |
| 0327 | 양극선(梁克選) | 1575-? | 문신 | 행초서 | 33×48 | 시, 奉別月灘相公行軒 |
| 0328 | 기윤헌(奇允獻) | 1575-1624 | 문신 | 해서 | 26.5×29.5 | 시, 奉送正使月沙台鑑赴京 |
| 0329 | 신경진(申景禎) | 1575-1643 | 무신 | 초서 | 19.8×20 | 편지, 大斗만한 空石을 부탁 |
| 0330 | 정충신(鄭忠信) | 1576-1636 | 무신 | 해행서 | 26.5×20 | 편지, 네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331 | 남이흥(南以興) | 1576-1627 | 무신 | 해행서 | 27×45.2 | 시, 贈別裴仲兄朝天(칠언율시) |
| 0332 | 유성증(兪省曾) | 1576-1649 | 문신 | 해행서 | 26.5×53 | 시, 送咸平兄歸所治(칠언율시) |
| 0333 | 최연(崔苻) | 1576-1651 | 문신 | 행초서 | 33×51.5 | 시, 贈別朴大觀把麾箕山 |
| 0334 | 임숙영(任叔英) | 1576-1623 | 문신 | 해행서 | 20×26 | 편지, 清心元·蘇合元을 부탁함 |
| 0335 | 정광성(鄭廣成) | 1576-1654 | 문신 | 해서 | 26×19 | 편지, 李秀才께 보냄 |
| 0336 | 신민일(申敏一) | 1576-1650 | 문신 | 해행서 | 22.5×17.2 | 편지, 副提學 行史께 보냄 |
| 0337 | 고용후(高用厚) | 1577-1652 | 문신 | 초서 | 27×26 | 편지, 新曆 2부를 보내드립니다 |
| 0338 | 이경직(李景稷) | 1577-1640 | 문신 | 행초서 | 27.8×38.8 | 시, 칠언절구 |
| 0339 | 김대덕(金大德) | 1577-1639 | 문신 | 초서 | 27.5×56 | 시, 오언율시 |
| 0340 | 신계영(辛啓榮) | 1577-1669 | 문신 | 해행서 | 27×39.5 | 시, 送朴大觀赴咸平(칠언율시) |
| 0341 | 조박(趙璞) | 1577-? | 문신 | 해행서 | 31.6×27.7 | 시, 咸平縣監께 드린 칠언율시 |
| 0342 | 홍무적(洪茂績) | 1577-1656 | 문신 | 해행서 | 21.7×27 | 편지, 이조참판 記室에 보냄 |
| 0343 | 고부천(高傅川) | 1578-1636 | 문신 | 초서 | 33×44 | 시, 伏次使相韻(오언절구) |
| 0344 | 고부립(高傅立) | 1577-1637 | 의병장 | 해행서 | 28×18.5 | 편지, 보낸 祭需에 감사드립니다 |
| 0345 | 김령(金玲) | 1577-1641 | 문신 | 초서 | 31×23.5 | 편지, 죄인 진술을 받아 올림 |
| 0346 | 김영조(金榮祖) | 1577-1648 | 문신 | 행초서 | 26×21.7 | 편지, 金玲의 죽음을 슬퍼함 |
| 0347 | 김시국(金薯國) | 1577-1655 | 문신 | 해서 | 29.5×21.5 | 시, 李明漢 송별의 오언율시 |
| 0348 | 윤계선(尹繼善) | 1577-1604 | 문신 | 해행서 | 30×51 | 시, 趙裴仲 송별의 오언고시 |
| 0349 | 박로(朴簾) | 1584-1643 | 문신 | 해행서 | 26.5×27 | 시, 贈送權光閔之任寧越 |
| 0350 | 이중길(李重吉) | 1578-1637 | 문신 | 해행서 | 25.7×23.3 | 시, 칠언율시 |
| 0351 | 민응형(閔應亨) | 1578-1662 | 문신 | 해행서 | 32×41 | 시, 奉別朴大觀戚兄赴咸平 |
| 0352 | 한필원(韓必遠) | 1578-1660 | 문신 | 해서 | 27×32 | 시, 送別朴大觀赴咸平 |
| 0353 | 조익(趙翼) | 1579-1655 | 문신 | 해행서 | 23×32.5 | 편지, 간절한 그리움을 전함 |
| 0354 | 정기광(鄭基廣) | 1579-? | 문신 | 해행서 | 33×35.5 | 시, 칠언율시 |
| 0355 | 윤이지(尹履之) | 1579-1668 | 문신 | 해행서 | 30×39.5 | 시, 題黃監司赤壁宅(칠언절구) |
| 0356 | 서경주(徐景霽) | 1579-1643 | 문신 | 해행서 | 18.5×19 | 편지, 보낸 郭索에 감사드립니다 |
| 0357 | 김확(金矍) | 1572-1653 | 문신 | 해행서 | 24.5×28 | 시, 奉次狀元令監瓊韻呈案下 |
| 0358 | 임광(任統) | 1579-1644 | 문신 | 해행서 | 32.3×54 | 시, 奉贈朴學士赴咸平 |
| 0359 | 이성신(李省身) | 1580-1651 | 문신 | 초서 | 28.8×58 | 시, 送朴學士之咸平(칠언율시)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360 | 김광욱(金光煜) | 1580-1656 | 문신 | 해행서 | 23×34 | 시, 칠언율시 |
| 0361 | 김육(金瑨) | 1580-1658 | 문신 | 해서 | 28.5×49.5 | 시, 奉別朴學士之任咸平 |
| 0362 | 김응하(金應河) | 1580-1619 | 무신 | 해행서 | 32×49.5 | 편지, 멀리서 그리움을 전함 |
| 0363 | 김시양(金時讓) | 1581-1643 | 문신 | 해행서 | 28.5×37 | 시, 朴大觀 송별의 칠언율시 |
| 0364 | 유림(柳琳) | 1581-1643 | 무신 | 초서 | 28.5×25 | 편지, 새해에 경사를 바람 |
| 0365 | 홍명형(洪命亨) | 1581-1636 | 문신 | 해행서 | 26×23.5 | 시, 칠언율시 |
| 0366 | 이정남(李井男) | 1581-? | 문신 | 행초서 | 21×20.5 | 편지, 새해의 행복을 바람 |
| 0367 | 윤신지(尹新之) | 1582-1657 | 문신 | 행초서 | 24.5×20.5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368 | 유진(柳珍) | 1582-1635 | 문신 | 해행서 | 23.5×32 | 편지, 자식 죽음을 위로함 |
| 0369 | 박홍중(朴弘中) | 1582-1646 | 문신 | 해서 | 27.5×34 | 시, 送李榮伯赴北闕幕下 |
| 0370 | 김개(金闔) | 1582-1618 | 문신 | 해행서 | 25.5×33.5 | 시, 칠언고시 |
| 0371 | 유충립(柳忠立) | 1572-1620 | 문신 | 해행서 | 30×56.7 | 시, 奉呈月沙相公行軒 |
| 0372 | 정세규(鄭世規) | 1583-1661 | 문신 | 초서 | 23×31.5 | 편지, 賜恩副使 선물을 말함 |
| 0373 | 윤계(尹槩) | 1583-1636 | 문신 | 행초서 | 20×22.5 | 편지, 잠시 왕림을 부탁함 |
| 0374 | 홍영(洪震) | 1584-1645 | 문신 | 해행서 | 19.5×22 | 편지, 벼슬자리를 주선할 계획 |
| 0375 | 김광현(金光炫) | 1584-1647 | 문신 | 예서 | 26.8×25.6 | 시, 贈別朴使君大觀之咸平 |
| 0376 | 한여직(韓汝潑) | 1575-1638 | 문신 | 초서 | 24×23 | 편지, 임금의 밝은 판단을 바람 |
| 0377 | 이식(李植) | 1584-1647 | 문신 | 해행서 | 29×42 | 시, 送朴學士大觀左任咸平 |
| 0378 | 이성구(李聖求) | 1584-1644 | 문신 | 해행서 | 25.3×39.5 | 시, 黃同知께 보낸 칠언율시 |
| 0379 | 이계선(李繼先) | 1584-1645 | 문신 | 해행서 | 29×39 | 시, 奉別李評事赴北幕 |
| 0380 | 이경여(李敬興) | 1585-1657 | 문신 | 해행서 | 31×40.5 | 시, 奉呈書狀官大人之行 |
| 0381 | 정세구(鄭世矩) | 1585-1639 | 문신 | 초서 | 23×30.5 | 편지, 서울 房子에게 분통함 |
| 0382 | 김지수(金地粹) | 1585-1639 | 문신 | 해행서 | 23.5×20.5 | 시, 新安館與白洲宿別用來韻 |
| 0383 | 조경(趙綱) | 1586-1669 | 문신 | 행초서 | 21×13.7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384 | 심대부(沈大孚) | 1586-1657 | 문신 | 초서 | 21.5×37.5 | 편지, 기와 장인을 요청함 |
| 0385 | 최명길(崔鳴吉) | 1586-1647 | 문신 | 초서 | 21.5×28.5 | 편지, 編氓으로 살 생각을 함 |
| 0386 | 신유(申濡) | 1610-1665 | 문신 | 해행서 | 25×29.5 | 편지, 상진 아들 불치병을 위로 |
| 0387 | 김상(金尙) | 1586-? | 문신 | 해행서 | 22×30.3 | 시, 奉次高韻叙別湖中之行 |
| 0388 | 정광경(鄭廣敬) | 1586-1644 | 문신 | 행초서 | 24.5×26.2 | 편지, 아이를 영감 內行에 맡김 |
| 0389 | 홍호(洪鎬) | 1586-1646 | 문신 | 행초서 | 21.5×21.5 | 편지, 遷厝에 대한 걱정 |
| 0390 | 오준(吳竣) | 1587-1666 | 문신 | 행초서 | 28×24 | 편지, 李壽昌의 軍官을 부탁함 |
| 0391 | 한흥일(韓興一) | 1587-1651 | 문신 | 해행서 | 24.5×16 | 편지, 役徒에 대한 걱정 |
| 0392 | 장유(張維) | 1587-1638 | 문신 | 행초서 | 21.2×20 | 편지,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 |
| 0393 | 유백증(兪伯曾) | 1587-1646 | 문신 | 행초서 | 30×15 | 시, 次南九萬三首 |
| 0394 | 김응조(金應祖) | 1587-1667 | 문신 | 해행서 | 21×22 | 편지, 伊山書院 모임의 계획 |
| 0395 | 최유연(崔有淵) | 1587-? | 문신 | 초서 | 31.5×27.5 | 편지, 恩榮慶席 준비를 부탁함 |
| 0396 | 윤선도(尹善道) | 1587-1671 | 시인 | 행초서 | 22.8×33.8 | 편지, 새해 인사를 올림 |
| 0397 | 조운(趙贊) | 1587-? | 문신 | 행초서 | 17.5×15.5 | 편지, 아들 趙嗣迪에게 답함 |
| 0398 | 최유해(崔有海) | 1588-1641 | 문신 | 해서 | 21.5×17.8 | 시, 칠언율시의 일부 |
| 0399 | 황일호(黃一皓) | 1588-1641 | 문신 | 초서 | 21.5×37.7 | 편지, 石奴를 비로소 보냄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400 | 허후(許厚) | 1588-1661 | 문신 | 해행서 | 25×29.5 | 편지, 進賀兼謝恩使를 통탄함 |
| 0401 | 신익성(申翊聖) | 1588-1644 | 문신 | 초서 | 23×17 | 편지, 先人 문집(象村集) 간행 |
| 0402 | 이지정(李志定) | 1588-1650 | 문신 | 해행서 | 17.5×25.5 | 편지, 鄭教官宅에 보냄 |
| 0403 | 이광(李珖) | 1589-1645 | 왕자 | 해행서 | 22.7×16.5 | 편지, 蠅拂을 받고 감사드림 |
| 0404 | 성여관(成汝寬) | 1589-1636 | 문신 | 해서 | 23×22 | 시, 奉別朴學士赴咸平 |
| 0405 | 이민구(李敏求) | 1589-1670 | 문신 | 해행서 | 22×36 | 편지, 선친 묘비석 세움을 부탁 |
| 0406 | 조위한(趙緯韓) | 1567-1649 | 문신 | 해행서 | 31×45 | 시, 奉別月沙閣下朝燕京 |
| 0407 | 임련(林鍊) | 1589-1654 | 문신 | 해행서 | 27×41 | 시, 月灘을 전별한 칠언율시 |
| 0408 | 이지천(李志賤) | 1589-? | 문신 | 해행서 | 26.5×19.5 | 시, 칠언고시 |
| 0409 | 김반(金槃) | 1580-1640 | 문신 | 해행서 | 16×23.5 | 편지, 아들의 장원급제를 알림 |
| 0410 | 이시백(李時白) | 1581-1660 | 문신 | 해행서 | 18×31.5 | 편지, 연이은 喪을 원망함 |
| 0411 | 김광혁(金光赫) | 1590-1643 | 문신 | 해서 | 31×45.5 | 시, 朴大觀을 송별한 오언고시 |
| 0412 | 윤순지(尹順之) | 1591-1666 | 문신 | 초서 | 20×24 | 편지, 가뭄과 기근을 걱정함 |
| 0413 | 조문수(曹文秀) | 1590-1647 | 문신 | 초서 | 24.5×27.5 | 편지, 巡歷 때 平海에서 만나기 |
| 0414 | 유정량(柳廷亮) | 1591-1663 | 문신 | 초서 | 17.5×27.5 | 편지, 명쾌한 판결로 죄를 다스림 |
| 0415 | 구인기(具仁壘) | 1597-1676 | 문신 | 해행서 | 22.3×27.5 | 편지, 보낸 작은 모자에 감사드림 |
| 0416 | 강대수(姜大遂) | 1591-1658 | 문신 | 해서 | 27×52 | 시, 送朴大觀學士出宰咸平 |
| 0417 | 이해(李澥) | 1591-1670 | 문신 | 초서 | 18.5×32.5 | 편지, 요구에 부응 못함을 사과함 |
| 0418 | 박미(朴瀾) | 1592-1645 | 문신 | 초서 | 26.5×58.5 | 시, 칠언율시 |
| 0419 | 조계원(趙啓遠) | 1592-1670 | 문신 | 해행서 | 21×31.5 | 편지, 보낸 평과 끝에 감사드림 |
| 0420 | 오숙(吳翹) | 1592-1634 | 문신 | 초서 | 33.5×43 | 시, 別大觀學士知咸平縣 |
| 0421 | 정연(鄭沆) | 1592-? | 무신 | 행초서 | 31×47.4 | 시, 奉別朴使君赴箕山之行 |
| 0422 | 송민고(宋民古) | 1592-? | 서화가 | 초서 | 25.3×29.3 | 편지, 부인을 위해 膏雉 알을 부탁 |
| 0423 | 신천익(愼天翊) | 1592-1661 | 문신 | 해행서 | 26.7×21.3 | 편지, 친구들과 月出에서 만날 계획 |
| 0424 | 김세렴(金世濂) | 1593-1646 | 문신 | 초서 | 28.3×25.7 | 편지, 蔡得沂에게 치료받길 부탁함 |
| 0425 | 원두표(元斗杓) | 1593-1664 | 문신 | 초서 | 23.8×41.4 | 편지, 부탁한 약재를 보내드림 |
| 0426 | 유경창(柳慶昌) | 1593-1662 | 문신 | 초서 | 23.5×36.4 | 편지, 빌린 털이불에 감사드림 |
| 0427 | 심지원(沈之源) | 1593-1662 | 문신 | 행초서 | 26.5×46.4 | 시, 送大觀兄赴咸平(칠언율시) |
| 0428 | 기만헌(奇晩獻) | 1593-1651 | 문신 | 해행서 | 34.3×16.7 | 시, 칠언고시 |
| 0429 | 이시방(李時昉) | 1594-1660 | 문신 | 해행서 | 21.4×28.2 | 편지, 新曆을 보내드림 |
| 0430 | 이응서(李應著) | 1594-1660 | 문신 | 초서 | 21.8×31.9 | 편지, 자질이 부족한 벼슬의 낭패 |
| 0431 | 심동구(沈東龜) | 1594-1660 | 문신 | 초서 | 25.3×36.5 | 시, 奉送朴大觀出貶南縣 |
| 0432 | 윤의립(尹毅立) | 1568-1643 | 서화가 | 행초서 | 20×33.2 | 편지, 私通을 써 주시길 부탁함 |
| 0433 | 백상빈(白尙賓) | 1594-? | 서예가 | 초서 | 21.4×10.7 | 시, 題望京樓(오언절구) |
| 0434 | 조속(趙涑) | 1595-1668 | 서화가 | 초서 | 18.7×27.2 | 편지, 祭物로 乾魚를 보내드림 |
| 0435 | 강학년(姜鶴年) | 1585-1647 | 문신 | 초서 | 24.2×49.6 | 편지, 낙마로 장사행렬 참석 미지수 |
| 0436 | 이명환(李明漢) | 1595-1645 | 문신 | 해행서 | 27.9×40.6 | 시, 오언고시 |
| 0437 | 김덕승(金德承) | 1595-1658 | 문신 | 해서 | 32×51.5 | 시, 追奉咸平朴使君之行 |
| 0438 | 이기조(李基祚) | 1595-1653 | 문신 | 해행서 | 30.1×36.8 | 시, 送別李評事榮伯赴咸鏡北幕 |
| 0439 | 이경석(李景奭) | 1595-1671 | 문신 | 행초서 | 26.7×43.6 | 편지, 보낸 銀魚에 감사드림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440 | 허목(許穆) | 1595-1682 | 문신 | 해행서 | 29×24.5 | 편지, 寒花를 감상하며 벗을 기다림 |
| 0441 | 민광훈(閔光勳) | 1595-1659 | 문신 | 해서 | 22.5×24.5 | 편지, 呈告를 허락하기 바람 |
| 0442 | 정유성(鄭維城) | 1596-1664 | 문신 | 초서 | 21.5×28.8 | 편지, 약재를 많이 보내주길 바람 |
| 0443 | 윤순거(尹舜擧) | 1596-1668 | 문신 | 초서 | 28.5×26.4 | 편지, 진한 시를 교정해 주길 바람 |
| 0444 | 김남중(金南重) | 1596-1663 | 문신 | 해행서 | 29.8×50 | 시, 奉贈朴學士大觀咸平之行 |
| 0445 | 조수익(趙壽益) | 1596-1674 | 문신 | 행초서 | 31×41.7 | 편지, 수령자리를 주선해 주길 부탁 |
| 0446 | 홍명구(洪命耆) | 1596-1637 | 문신 | 초서 | 26.5×38.6 | 시, 朴大觀을 송별한 칠언율시 |
| 0447 | 임담(林潭) | 1596-1652 | 문신 | 해행서 | 23×35.3 | 편지, 감사의 말과 칠언절구를 보냄 |
| 0448 | 박정(朴炆) | 1596-1632 | 문신 | 해행서 | 20.6×14.5 | 편지, 시를 지어 보내니 화답 바람 |
| 0449 | 이행진(李行進) | 1597-1665 | 문신 | 해행서 | 24.7×24 | 시, 咸卿赴錦城鎖直不能送 |
| 0450 | 김광찬(金光燦) | 1597-1668 | 문신 | 해행서 | 23.9×37.4 | 편지, 약재를 많이 보내주길 바람 |
| 0451 | 정두경(鄭斗卿) | 1597-1673 | 문신 | 행초서 | 26.4×38.7 | 편지, 보낸 술에 감사드립니다 |
| 0452 | 이후산(李後山) | 1597-1675 | 문신 | 해행서 | 21.9×24.5 | 편지, 보낸 節筵에 감사드립니다 |
| 0453 | 정언황(丁彦璜) | 1597-1672 | 문신 | 행초서 | 26.4×21.8 | 편지, 병으로 피곤하여 倩草(대필)함 |
| 0454 | 박황(朴潢) | 1597-1648 | 문신 | 해행서 | 27.5×23 | 시, 朴大觀을 송별한 칠언율시 |
| 0455 | 윤강(尹絳) | 1597-1667 | 문신 | 초서 | 26.2×27.5 | 편지, 蔡裕後의 죽음에 애통함 |
| 0456 | 송시길(宋時吉) | 1597-1656 | 문신 | 초서 | 22×38.1 | 편지, 도망간 노비 推刷를 부탁 |
| 0457 | 이소환(李昭漢) | 1598-1645 | 문신 | 초서 | 27.7×35.6 | 시, 朴大觀을 송별한 오언고시 |
| 0458 | 이후원(李厚源) | 1598-1660 | 문신 | 초서 | 29.7×37 | 편지, 보낸 새해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
| 0459 | 박의(朴漪) | 1600-1645 | 문신 | 초서 | 24.5×28 | 편지, 藥料와 인삼을 보내드립니다 |
| 0460 | 홍곽(洪灌) | 1597-? | 문신 | 초서 | 22.8×12 | 편지, 구휼의 대책을 의논함 |
| 0461 | 김시온(金是榘) | 1598-1669 | 학자 | 초서 | 27×40.5 | 편지, 병 증세를 여쭙 |
| 0462 | 유주(柳澍) | 1568-1639 | 학자 | 해행서 | 32.3×33 | 편지, 늦게 돌려준 天命道에 사과함 |
| 0463 | 민업(閔業) | 1605-1671 | 학자 | 초서 | 18×28.5 | 편지, 병세에 대해 걱정함 |
| 0464 | 신익룡(申翊隆) | 1598-1657 | 문신 | 해서 | 26.6×21.6 | 편지, 慈闈의 부음을 위로함 |
| 0465 | 손필대(孫必大) | 1599-? | 문신 | 초서 | 22.1×35 | 편지, 보내기로 약속한 蟹胥를 확인 |
| 0466 | 심지명(沈之溟) | 1599-1685 | 문신 | 초서 | 20.5×29.7 | 편지, 제사를 위한 햇불과 초를 부탁 |
| 0467 | 채유후(蔡裕後) | 1599-1660 | 문신 | 초서 | 24.3×40.5 | 편지, 소 염통구이에 군침을 흘림 |
| 0468 | 정양(鄭養) | 1600-1668 | 문신 | 해행서 | 23×33.3 | 편지, 병든 딸을 위해 由狀을 올림 |
| 0469 | 이시해(李時楷) | 1600-1657 | 문신 | 행초서 | 23×30.3 | 편지, 오랫동안 변방의 고생을 위로 |
| 0470 | 유명립(柳命立) | 1600-1647 | 문신 | 초서 | 27.2×38.8 | 시, 次秋山韻奉贈李評事榮伯 |
| 0471 | 이진(李軫) | 1600-? | 문신 | 초서 | 23.7×32.7 | 편지, 登龍의 경사를 축하 |
| 0472 | 이무(李袤) | 1600-1684 | 문신 | 해행서 | 18.7×21 | 편지, 기우제 지내시길 呈狀함 |
| 0473 | 임전(林疇) | 1600-? | 문신 | 초서 | 28.2×23.5 | 편지, 집사람의 浮脹을 걱정함 |
| 0474 | 홍처후(洪處厚) | 1599-1673 | 문신 | 행초서 | 26×23 | 편지, 보낸 狂尾에 감사드립니다 |
| 0475 | 이상일(李尙逸) | 600-1674 | 문신 | 해행서 | 24.5×26 | 편지, 임금께서 편안하심을 기뻐함 |
| 0476 | 이지안(李志安) | 1601-1657 | 문신 | 행초서 | 22.7×23.8 | 편지, 묘자리와 長杠을 준비함 |
| 0477 | 윤형각(尹衡覺) | 1601-1664 | 문신 | 해서 | 28.6×25.3 | 시, 奉送李評事榮伯赴雉城幕下 |
| 0478 | 박서(朴遜) | 1602-1653 | 문신 | 초서 | 25×38 | 편지, 부탁한 오언율시를 지어 보냄 |
| 0479 | 이완(李浣) | 1602-1674 | 무신 | 초서 | 22.8×29.3 | 편지, 간청한 李滄의 일을 당부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480 | 김홍욱(金弘郁) | 1602-1654 | 문신 | 초서 | 20.2×20.4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481 | 정태화(鄭太和) | 1602-1673 | 문신 | 해행서 | 28.7×35.3 | 편지, 장원 이름이 호적에 없음 |
| 0482 | 김소(金素) | 1602-? | 문신 | 행초서 | 24.5×37 | 편지, 금강산에 들어갈 계획 |
| 0483 | 강백년(姜栢年) | 1603-1681 | 문신 | 해행서 | 26×32.3 | 편지, 관찰사 업무를 축하 |
| 0484 | 이홍연(李弘淵) | 1604-1683 | 문신 | 행초서 | 25.5×15.5 | 편지, 보낸 평과 꿀에 감사드림 |
| 0485 | 남노성(南老星) | 1603-1667 | 문신 | 초서 | 23.5×23.7 | 편지, 曹吏 편으로 안부를 물음 |
| 0486 | 이산퇴(李山賚) | 1603-? | 문신 | 해행서 | 21.8×20.9 | 편지, 退溪集을 써서 드림 |
| 0487 | 유영(柳穎) | 1603-1646 | 문신 | 초서 | 21.5×16.4 | 편지, 安君의 引避를 질책 |
| 0488 | 이계(李桂) | 1603-1642 | 문신 | 행초서 | 18.4×18.2 | 편지, 부정한 下吏를 신문함 |
| 0489 | 홍주일(洪柱一) | 1604-1662 | 문신 | 초서 | 15.4×18.3 | 편지, 症錄을 沈僉正에게 보냄 |
| 0490 | 권시(權認) | 1604-1672 | 학자 | 해행서 | 22.4×22.1 | 편지, 未發之論·取象에 감복 |
| 0491 | 황호(黃阜) | 1604-1656 | 학자 | 초서 | 23.4×26 | 편지, 行狀의 초고를 돌려드림 |
| 0492 | 김득신(金得臣) | 1604-1684 | 시인 | 행초서 | 25.2×8.8 | 편지, 奴子를 보낸 편지에 감사함 |
| 0493 | 임의백(任義伯) | 1605-1667 | 문신 | 해행서 | 21.7×20.6 | 편지, 보낸 賻儀·歲饌에 감사드림 |
| 0494 | 채성구(蔡聖龜) | 1605-1647 | 문신 | 해서 | 20.5×19.7 | 편지, 宜谷의 부음에 통곡함 |
| 0495 | 윤집(尹集) | 1606-1637 | 문신 | 해행서 | 21×23.7 | 편지, 화제의 흑심함에 놀람 |
| 0496 | 이행우(李行遇) | 1606-? | 문신 | 행초서 | 21.6×26.2 | 편지, 보낸 새해 선물에 감사드림 |
| 0497 | 조형(趙珩) | 1606-1679 | 문신 | 초서 | 24.8×25.7 | 편지, 승정원 발탁에 고민함 |
| 0498 | 홍주원(洪柱元) | 1606-1672 | 문신 | 초서 | 23.8×38.7 | 편지, 琥珀을 보내드려 칭송받음 |
| 0499 | 이희(李禧) | 1607-1672 | 문신 | 초서 | 25×42.2 | 편지, 李名材甫를 잘 부탁함 |
| 0500 | 조석윤(趙錫胤) | 1605-1655 | 문신 | 해행서 | 22.2×29.8 | 편지, 보낸 음식에 감사드림 |
| 0501 | 장차주(張次周) | 1606-1651 | 문신 | 초서 | 26.5×39.5 | 시, 칠언 율시 |
| 0502 | 유철(俞徹) | 1606-1671 | 문신 | 초서 | 24.7×34.5 | 편지, 돌아가는 배를 간곡하게 부탁 |
| 0503 | 윤문거(尹文舉) | 1606-1672 | 학자 | 해행서 | 25.8×40.5 | 편지, 부탁한 글씨를 아직 쓰지 못함 |
| 0504 | 송준길(宋浚吉) | 1606-1672 | 문신 | 초서 | 25.6×43 | 편지, 起居의 반열에 출입함은 운명 |
| 0505 | 송시열(宋時烈) | 1607-1689 | 학자 | 해서 | 22.2×35.8 | 편지, 비문의 다른 양식을 보내드림 |
| 0506 | 홍명하(洪命夏) | 1607-1667 | 문신 | 행초서 | 27×34 | 편지, 답답함을 인편에 써서 보냄 |
| 0507 | 홍처량(洪處亮) | 1607-1683 | 문신 | 행초서 | 23.2×31.2 | 편지, 보낸 先世의 祭需에 감사드림 |
| 0508 | 유계(俞棨) | 1607-1664 | 문신 | 해행서 | 22.3×30.6 | 편지, 金集·金益熙 죽음을 애도함 |
| 0509 | 이유태(李惟泰) | 1607-1684 | 문신 | 초서 | 18.7×34 | 편지, 還上을 더 부탁함 |
| 0510 | 이시술(李時術) | 1606-1671 | 문신 | 초서 | 28.8×33.8 | 편지, 보낸 補元之劑에 감사드림 |
| 0511 | 민응협(閔應協) | 1597-1663 | 문신 | 해행서 | 31.8×50.7 | 시, 送朴學士大觀出宰湖南 |
| 0512 | 허격(許格) | 1607-1690 | 문신 | 해행서 | 27×31.8 | 편지, 二字에 의지해 안부를 알림 |
| 0513 | 신면(申冕) | 1607-1651 | 문신 | 해행서 | 20×26.6 | 시, 李存吾께 보낸 오언율시 2수 |
| 0514 | 조종운(趙從耘) | 1607-? | 문신 | 초서 | 23×26.2 | 편지, 떡 선물에 감사드림 |
| 0515 | 조한영(曹漢英) | 1608-1670 | 문신 | 행초서 | 32.2×38.4 | 편지, 祠宇를 짓는 재목을 부탁 |
| 0516 | 유심(柳滄) | 1608-1667 | 문신 | 해행서 | 27.8×38 | 편지, 상세한 奴婢巡點의 어려움 |
| 0517 | 정시성(鄭始成) | 1608-1686 | 문신 | 해서 | 37×49 | 편지, 納幣의 의식을 거행함 |
| 0518 | 오달제(吳達濟) | 1609-1637 | 문신 | 초서 | 21.8×26.7 | 편지, 배긴 筍子를 보여주길 바램 |
| 0519 | 정치화(鄭致和) | 1609-1677 | 문신 | 해서 | 24×25.6 | 편지, 부족한 馬草를 보내길 바램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520 | 조복양(趙復陽) | 1609-1671 | 문신 | 초서 | 25.2×36.8 | 편지, 여러 약물을 부탁함 |
| 0521 | 목행선(睦行善) | 1609-1661 | 문신 | 초서 | 24×42.6 | 편지, 永保亭 모임을 주선 |
| 0522 | 이익한(李翊漢) | 1609-1668 | 문신 | 초서 | 22.8×31.5 | 편지, 혼례에 기름과 꿀을 부탁 |
| 0523 | 남훤(南翺) | 1609-1656 | 문신 | 초서 | 24×26 | 편지, 파벌이 전한 글에 기뻐함 |
| 0524 | 김시번(金始蕃) | 1610-1650 | 문신 | 행초서 | 19.8×18 | 편지, 보낸 簡楮에 감사드림 |
| 0525 | 허적(許積) | 1610-1680 | 문신 | 해행서 | 21.3×23.5 | 편지, 약소한 노자에 한탄함 |
| 0526 | 윤선거(尹宣擧) | 1610-1669 | 학자 | 해행서 | 23.3×27.2 | 편지, 부탁한 輓詞를 지어 보냄 |
| 0527 | 박세모(朴世模) | 1610-1667 | 문신 | 초서 | 19.3×32 | 편지, 造墓軍에 護喪시킬 계획 |
| 0528 | 오정일(吳挺一) | 1610-1670 | 문신 | 초서 | 26.3×28.7 | 편지, 영감과 상봉을 기대함 |
| 0529 | 유석(柳碩) | 1595-1655 | 문신 | 초서 | 21×38 | 편지, 딱한 사정을 사또께 알림 |
| 0530 | 김익희(金益熙) | 1610-1656 | 문신 | 행초서 | 33×45.6 | 편지, 지나친 형적 노출을 탄식 |
| 0531 | 한진기(韓震琦) | 1610-1665 | 문신 | 초서 | 28×41 | 편지, 관찰사 업무가 편안하길 빚 |
| 0532 | 석지형(石之珩) | 1610-1699 | 문신 | 초서 | 34×46.2 | 시, 敬次拜呈栗村老相公案下 |
| 0533 | 권대운(權大運) | 1612-1699 | 문신 | 초서 | 22.8×26.2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534 | 이정기(李廷夔) | 1612-1671 | 문신 | 행초서 | 20.8×25.5 | 편지, 인편이 없어 소식을 못 전함 |
| 0535 | 이일상(李一相) | 1612-1666 | 문신 | 해행서 | 28.8×55.6 | 小序, 짧은 서문과 오언절구 |
| 0536 | 박장원(朴長遠) | 1612-1671 | 문신 | 초서 | 30×41.3 | 편지, 그림을 빨리 완성하여 보냄 |
| 0537 | 김익렴(金益廉) | 1622-1694 | 문신 | 해행서 | 26.2×40.2 | 시, 李選께 칠언율시로 보답 |
| 0538 | 홍중보(洪重普) | 1612-1671 | 문신 | 해행서 | 27.3×43 | 편지, 生淸과 당귀를 부탁함 |
| 0539 | 최관(崔寬) | 1613-1695 | 문신 | 초서 | 31×40 | 편지, 문서 수정이 까마득하여 걱정 |
| 0540 | 정지화(鄭知和) | 1613-1688 | 문신 | 초서 | 23.2×26.5 | 편지, 沈鯉 선물에 감사드림 |
| 0541 | 오정원(吳挺垣) | 1614-1667 | 문신 | 초서 | 22.5×27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542 | 이상진(李尙眞) | 1614-1690 | 문신 | 초서 | 24×38 | 편지, 병으로 누워서 안부 여쭙 |
| 0543 | 장선징(張善徵) | 1614-1678 | 문신 | 행초서 | 31.1×40.5 | 편지, 造墓擔軍은 쓰지 말라는 훈계 |
| 0544 | 유창(俞瑒) | 1614-1690 | 문신 | 초서 | 26.2×46.5 | 편지, 營吏를 세 집에 보내길 바람 |
| 0545 | 서필원(徐必遠) | 1614-1671 | 문신 | 해행서 | 22.8×23.2 | 편지, 친지의 농장 폐쇄를 걱정함 |
| 0546 | 민희(閔熙) | 1614-1687 | 문신 | 해행서 | 29×26.5 | 시, 춘부장께 올린 칠언율시 2수 |
| 0547 | 민점(閔點) | 1614-1680 | 문신 | 해행서 | 33.5×55.6 | 시, 奉驢東萊府伯鄭白也行軒 |
| 0548 | 이가상(李嘉相) | 1615-1637 | 호자 | 행초서 | 25×28.5 | 시, '端居'와 '限韻贈黃子'의 일부 |
| 0549 | 조윤석(趙胤錫) | 1615-1664 | 문신 | 행초서 | 24.2×22 | 편지, 趙龜錫의 편지를 보내드림 |
| 0550 | 이정영(李正英) | 1616-1686 | 문신 | 초서 | 27.8×43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551 | 이태연(李泰淵) | 1615-1669 | 문신 | 해행서 | 27.7×34.5 | 편지, 東平公主의 상을 슬퍼함 |
| 0552 | 조구석(趙龜錫) | 1615-1665 | 문신 | 행초서 | 22.6×38 | 편지, 보낸 선물에 감사드림 |
| 0553 | 조세환(趙世煥) | 1615-1683 | 문신 | 해서 | 29.2×33.5 | 시, 奉別李沃川令公之龜城配所 |
| 0554 | 윤휴(尹鑄) | 1617-1680 | 문신 | 초서 | 22.2×34.8 | 편지, 보낸 꿀에 감사드림 |
| 0555 | 김좌명(金佐明) | 1616-1671 | 문신 | 초서 | 25.6×35.3 | 편지, 讀券官을 지탱하지 못할까 걱정 |
| 0556 | 유혁연(柳赫然) | 1616-1680 | 무신 | 초서 | 25.3×32.5 | 편지, 보낸 두 가지 과일에 감사드림 |
| 0557 | 김우형(金字亨) | 1616-1694 | 문신 | 해행서 | 30.5×34 | 편지, 淮陽 부임을 알림 |
| 0558 | 조중운(趙仲耘) | 1616-? | 문신 | 해행서 | 23×33.7 | 편지, 大君 행차의 지체를 걱정함 |
| 0559 | 이경휘(李慶徽) | 1617-1669 | 문신 | 해행서 | 29×39.6 | 편지, 狀啓 이외의 곡절을 모름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560 | 목내선(睦來善) | 1617-1704 | 문신 | 초서 | 21.8×31.5 | 편지, 손님 접대의 계란을 부탁함 |
| 0561 | 이은상(李殷相) | 1617-1678 | 문신 | 초서 | 23.5×39.8 | 편지, 別試를 치르고 還官할 예정 |
| 0562 | 심유(沈攸) | 1620-1688 | 문신 | 해행서 | 29.1×41 | 시, 奉別沃州史君李擇之令公之行 |
| 0563 | 정익(鄭楹) | 1617-1683 | 문신 | 초서 | 26.8×37.5 | 편지, 손님 맞을 禮의 주선을 물음 |
| 0564 | 임규(任奎) | 1620-1687 | 문신 | 해행서 | 29×44 | 시, 李擇之를 송별한 칠언절구 |
| 0565 | 이관징(李觀徵) | 1618-1695 | 문신 | 초서 | 30.3×45.2 | 편지, 보낸 세 종류 진미에 감사드림 |
| 0566 | 김시진(金始振) | 1618-1667 | 문신 | 초서 | 27.5×37.5 | 편지, 趙龜錫의 호남관찰사 부임 소식 |
| 0567 | 임중(任重) | 1618-1656 | 문신 | 행초서 | 18×28 | 편지, 보낸 꿩 두 마리에 감사드림 |
| 0568 | 권대재(權大載) | 1620-1689 | 문신 | 행초서 | 20×22.5 | 편지, 계속되는 아이들의 병 걱정 |
| 0569 | 김우명(金佑明) | 1619-1675 | 문신 | 해행서 | 27.8×36 | 편지, 묘한 제주의 松鶴을 탐냄 |
| 0570 | 이만상(李萬相) | 1622-? | 문신 | 해행서 | 19.8×42 | 시, 칠언절구 |
| 0571 | 이경억(李慶億) | 1620-1673 | 문신 | 초서 | 22.8×31.5 | 편지, 보낸 꽃감과 건어에 감사드림 |
| 0572 | 신만(申冕) | 1620-1669 | 문신 | 해서 | 26.7×15.1 | 편지, 약 두 첩을 지어 보냄 |
| 0573 | 심광사(沈光泗) | 1620-? | 문신 | 행초서 | 21.3×26 | 편지, 表姪 柳承培를 부탁함 |
| 0574 | 조위봉(趙威鳳) | 1621-1675 | 문신 | 해행서 | 24.8×31 | 시, 次洞石精舍韻(오언율시) |
| 0575 | 유탁연(柳卓然) | 1620-? | 문신 | 초서 | 21×28.5 | 편지, 보낸 책 제목 일을 수락 |
| 0576 | 유형원(柳馨遠) | 1622-1673 | 학자 | 해행서 | 19.8×23.8 | 편지, 婢夫 宋英俊 말을 還推 |
| 0577 | 이요(李潛) | 1622-1658 | 종실 | 해서 | 29.3×33 | 편지, 젊은 사위 부고를 위로 |
| 0578 | 홍주국(洪柱國) | 1623-1680 | 문신 | 행초서 | 28.3×31.3 | 시, 李擇之를 송별한 칠언율시 |
| 0579 | 이유상(李有相) | 1623-1673 | 문신 | 초서 | 16.3×35.5 | 편지, 大科가 당겨져 정함 |
| 0580 | 황윤(黃玠) | 1623-1688 | 문신 | 해행서 | 23.2×25.3 | 시, 칠언율시 |
| 0581 | 정창도(丁昌燾) | 1623-1687 | 문신 | 초서 | 25×16.2 | 편지, 약재와 토산품을 보냄 |
| 0582 | 남일성(南一星) | 1623-? | 문신 | 행초서 | 21.3×31.5 | 편지, 보낸 胎錄의 액수를 결정 |
| 0583 | 조효창(曹孝昌) | 1623-1680 | 문신 | 행초서 | 26.5×33.3 | 편지, 급제로 남쪽 고을을 원함 |
| 0584 | 유담후(柳譚厚) | 1623-1686 | 문신 | 초서 | 26.3×28.5 | 편지, 부채를 구해 보내드리겠음 |
| 0585 | 김수증(金壽增) | 1624-1701 | 문신 | 행초서 | 28×38 | 편지, 아드님 장원급제를 축하함 |
| 0586 | 오두인(吳斗寅) | 1624-1689 | 문신 | 행초서 | 27.1×45 | 편지, 竹漿 한 동이를 보내드림 |
| 0587 | 신혼(申混) | 1624-1656 | 문신 | 해행서 | 23.7×42 | 시, 苦雨臥病呈駱村(칠언고시) |
| 0588 | 심재(沈梓) | 1624-1693 | 문신 | 해행서 | 21.2×24.5 | 편지, 보낸 節箒에 감사드림 |
| 0589 | 이원정(李元禎) | 1622-1680 | 문신 | 해행서 | 24.5×23 | 편지, 곧 洛社에서 만날 약속 |
| 0590 | 이단하(李端夏) | 1625-1689 | 문신 | 행초서 | 22.5×32.5 | 시, 李端相에 드린 칠언율시 |
| 0591 | 이민적(李敏迪) | 1625-1673 | 문신 | 해서 | 22.8×32 | 편지, 羸博(아들 상)을 조문함 |
| 0592 | 여성제(呂聖齊) | 1625-1691 | 문신 | 해행서 | 29×41.3 | 편지, 虛錄을 법에 따라 처리 |
| 0593 | 남이성(南二星) | 1625-1683 | 문신 | 해행서 | 23.8×32.4 | 편지, 棘人을 특별히 役夫로 題給 |
| 0594 | 정시한(丁時翰) | 1625-1707 | 학자 | 초서 | 20×32.6 | 편지, 여식의 돌림병을 걱정함 |
| 0595 | 이숙(李翻) | 1626-1688 | 문신 | 행초서 | 25.7×46.6 | 편지,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
| 0596 | 김수흥(金壽興) | 1626-1690 | 문신 | 초서 | 21.2×27.5 | 편지, 인편을 통해 안부를 전하길 |
| 0597 | 이명은(李命殷) | 1627-? | 문신 | 초서 | 34×14.8 | 시, ‘贈李唐山人’의 뒷부분 |
| 0598 | 윤지선(尹趾善) | 1627-1704 | 문신 | 해행서 | 28.5×40.2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림 |
| 0599 | 송광식(宋光弼) | 1625-1664 | 문신 | 초서 | 25.5×41.3 | 편지, 家累를 옮길 말 두 필 부탁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600 | 민정중(閔鼎重) | 1628-1692 | 문신 | 행초서 | 25.3×55 | 편지, 掌隸院 글을 바빠서 못 봄 |
| 0601 | 이단상(李端相) | 1628-1669 | 문신 | 초서 | 25.3×26.5 | 편지, 氷帖 몇 점을 부탁함 |
| 0602 | 이익상(李翊相) | 1625-1691 | 문신 | 해행서 | 29.2×43.2 | 시, 奉寄陟州使君案下(칠언율시) |
| 0603 | 남용익(南龍翼) | 1628-1692 | 문신 | 해행서 | 34.5×49 | 시, 李一相을 송별한 칠언율시 |
| 0604 | 이하진(李夏鎭) | 1628-1682 | 문신 | 초서 | 23.2×40.3 | 편지, 해산물과 대자리에 감사드림 |
| 0605 | 신정(申晷) | 1628-1687 | 문신 | 초서 | 19.8×24.5 | 편지, 역대 제왕 시집을 부탁함 |
| 0606 | 이원록(李元祿) | 1514-1574 | 문신 | 해서 | 21.6×12 | 편지, 奴와 말을 보내며 문안 인사 |
| 0607 | 박세당(朴世堂) | 1629-1703 | 문신 | 해행서 | 29.6×42.3 | 편지, 보낸 네 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
| 0608 | 송인명(宋寅明) | 1689-1746 | 문신 | 초서 | 25.8×46.1 | 편지, 말씀을 大僚께 올려 추진함 |
| 0609 | 조경망(趙景望) | 1629-1694 | 학자 | 해서 | 26.8×50 | 시, 贈別鄭善長南歸兼示混原詞契 |
| 0610 | 윤증(尹拯) | 1629-1714 | 학자 | 해서 | 27.3×36 | 편지, 서글픈 소식에 오직 위안함 |
| 0611 | 남구만(南九萬) | 1629-1711 | 문신 | 행초서 | 30×37.3 | 편지, 보낸 갖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
| 0612 | 김수항(金壽恒) | 1629-1689 | 문신 | 행초서 | 26.5×35.5 | 편지, 국상을 당한 슬픔을 전함 |
| 0613 | 민유중(閔維重) | 1630-1687 | 문신 | 해행서 | 24.5×45.7 | 편지, 田政으로 연임 명령을 받음 |
| 0614 | 송규렴(宋奎濂) | 1630-1709 | 문신 | 초서 | 29.3×37.5 | 편지, 진혼의 어려움을 동감함 |
| 0615 | 이세화(李世華) | 1630-1701 | 문신 | 초서 | 25.7×36.5 | 편지, 문안과 선물에 감사드림 |
| 0616 | 서문상(徐文尙) | 1630-1677 | 문신 | 해행서 | 26.2×18.5 | 편지, 내일 퇴직하여 西郊에서 만남 |
| 0617 | 목천성(睦天成) | 1630-1687 | 문신 | 행초서 | 29.3×23.3 | 편지, 내일 辭職單子를 올림 |
| 0618 | 박세채(朴世采) | 1631-1695 | 학자 | 행초서 | 25.8×38.3 | 편지, 보낸 歲儀에 감사드림 |
| 0619 | 최후상(崔後尙) | 1631-1680 | 문신 | 해행서 | 25×35.3 | 시, 奉別擇之令兄之任沃州 |
| 0620 | 홍만용(洪萬容) | 1631-1692 | 문신 | 행초서 | 27.2×49.3 | 시, 李擇之를 송별한 칠언율시 |
| 0621 | 유하익(兪夏益) | 1631-1699 | 문신 | 초서 | 29×32.5 | 편지, 譯學 시신의 운송을 부탁함 |
| 0622 | 조근(趙根) | 1631-1690 | 문신 | 해행서 | 25.7×32.5 | 편지, 令胤의 부음을 위로함 |
| 0623 | 유성삼(柳星三) | 1631-1700 | 문신 | 행초서 | 24.5×30.6 | 편지, 만날 기약이 없는 슬픔을 전함 |
| 0624 | 윤진(尹摺) | 1631-1698 | 문신 | 행초서 | 22.3×32.8 | 편지, 술상 미주하던 때를 생각함 |
| 0625 | 박신규(朴信圭) | 1631-1687 | 문신 | 해행서 | 22.5×24.5 | 편지, 여름마다 보낸 妙筵에 감사드림 |
| 0626 | 오시수(吳始壽) | 1632-1681 | 문신 | 행초서 | 19×23.5 | 편지, 지극한 염려와 의리에 감사드림 |
| 0627 | 민종도(閔宗道) | 1633-1693 | 문신 | 초서 | 29.5×55 | 시, 奉贖萊伯令公之行(칠언율시) |
| 0628 | 이서우(李瑞雨) | 1633-1709 | 문신 | 해행서 | 25.7×44 | 시, 送別沈君涉湖西伯(칠언율시) |
| 0629 | 유명천(柳命天) | 1633-1705 | 문신 | 해행서 | 27×27.5 | 편지, 玉潤의 병에 보낸 川芎에 감사 |
| 0630 | 이선(李選) | 1632-1692 | 문신 | 해행서 | 30×45.4 | 편지, 구기자과 복분자에 감사드림 |
| 0631 | 정유악(鄭維岳) | 1632-1701 | 문신 | 행초서 | 27.2×37.6 | 편지, 보낸 꿩과 물고기에 감사드림 |
| 0632 | 정재송(鄭載嵩) | 1632-1692 | 문신 | 행초서 | 28.5×39.7 | 편지, 보낸 꿀에 감사드림 |
| 0633 | 조사석(趙師錫) | 1632-1693 | 문신 | 해행서 | 20.8×28.2 | 편지, 장마 중에 몸이 상해 고생함 |
| 0634 | 송일중(宋日中) | 1632-1717 | 문신 | 초서 | 21.6×26.8 | 편지, 학문 중에 건강하심이 다행 |
| 0635 | 김구만(金龜萬) | 1632-1699 | 문신 | 행초서 | 20.2×30.5 | 편지, 마치지 않은 汰講을 의논 |
| 0636 | 이민서(李敏敘) | 1633-1688 | 문신 | 해행서 | 28.3×41.8 | 편지, 喪行을 보내는 슬픔을 전함 |
| 0637 | 김만기(金萬基) | 1633-1687 | 문신 | 해행서 | 29×33.8 | 편지, 보낸 민어와 조기에 감사드림 |
| 0638 | 권유(權愈) | 1633-1704 | 문신 | 해행서 | 26.7×38 | 편지, 새해 운수를 점쳐 보냄 |
| 0639 | 한영(韓潑) | 1633-1689 | 문신 | 해행서 | 23.2×23.2 | 편지, 禮成祭에 불참해서 심문을 받음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640 | 민취도(閔就道) | 1633-1698 | 문신 | 해행서 | 26.5×28.2 | 편지, 가까운 날에 회포를 풀고 싶음 |
| 0641 | 유지발(柳之發) | 1633-1705 | 문신 | 초서 | 30.5×36 | 시, 竹西樓에 부친 칠언율시 |
| 0642 | 김필진(金必振) | 1635-1691 | 문신 | 해행서 | 30.5×46 | 시, 咏月樓名(칠언율시) |
| 0643 | 윤심(尹深) | 1633-1692 | 문신 | 해행서 | 27.6×33 | 편지, 지령이 같은 글씨로 죄송 |
| 0644 | 이인환(李寅煥) | 1633-1699 | 문신 | 해행서 | 32.6×44.7 | 편지, 부탁한 책을 인쇄해 올림 |
| 0645 | 신익상(申翼相) | 1634-1697 | 문신 | 해행서 | 27.3×36.6 | 편지, 소금과 각종 선물을 보냄 |
| 0646 | 서문중(徐文重) | 1634-1709 | 문신 | 해행서 | 30×44.3 | 편지, 새로운 관직에 고민함 |
| 0647 | 이만웅(李萬雄) | 1620-1661 | 문신 | 초서 | 29.5×40.5 | 편지, 還穀 구결 문서에 고민함 |
| 0648 | 신여철(申汝哲) | 1634-1701 | 무신 | 행초서 | 28.3×44.5 | 편지, 物放置簿의 진말을 모름 |
| 0649 | 김석주(金錫胄) | 1634-1684 | 문신 | 초서 | 24×23.6 | 편지, 어려운 때 증임에 고민함 |
| 0650 | 홍석구(洪錫龜) | 1621-1679 | 문신 | 해행서 | 20.6×21.5 | 편지, 흑한에 기력을 염려함 |
| 0651 | 윤지완(尹趾完) | 1635-1718 | 문신 | 해서 | 27.3×32.5 | 시, 敬次奉呈(칠언절구) |
| 0652 | 박세성(朴世城) | 1621-1671 | 문신 | 해행서 | 23×35.3 | 편지, 보낸 붓에 감사드립니다 |
| 0653 | 김만중(金萬重) | 1637-1692 | 문신 | 행초서 | 24×30.8 | 편지, 슬하의 자식 잃음을 위로 |
| 0654 | 이세백(李世白) | 1635-1703 | 문신 | 행초서 | 26×36.5 | 편지, 누이동생 절박함을 청함 |
| 0655 | 엄집(嚴緝) | 1635-1710 | 문신 | 초서 | 26.2×40 | 편지, 覆試에 회포를 풀어 다행 |
| 0656 | 심단(沈檀) | 1645-1730 | 문신 | 초서 | 23×33 | 편지, 常禮만 고수함에 異意 제기 |
| 0657 | 김주(金澍) | 1512-1563 | 문신 | 초서 | 30×34.5 | 편지, 경솔한 論罪를 아뢰 |
| 0658 | 유상운(柳尙運) | 1636-1707 | 문신 | 해행서 | 25.3×31.3 | 편지, 보낸 節扇에 감사드립니다 |
| 0659 | 박태상(朴泰尙) | 1636-1696 | 문신 | 초서 | 29.8×38.9 | 편지, 朴泰輔께 보냄 |
| 0660 | 이우(李俁) | 1637-1693 | 종실 | 해행서 | 25.7×38 | 편지, 圖書가 맞지 않아 한탄함 |
| 0661 | 오시복(吳始復) | 1637-1716 | 문신 | 해행서 | 24×36.2 | 편지, 각종 부채 일곱자루 보냄 |
| 0662 | 임당(任堂) | 1638-1710 | 문신 | 행초서 | 20.4×34.5 | 편지, 보낸 節扇·簡幅에 감사 |
| 0663 | 나양좌(羅良佐) | 1638-1710 | 문신 | 해행서 | 33×25 | 편지, 陳卡을 중지하고 기다림 |
| 0664 | 송광연(宋光淵) | 1638-1695 | 문신 | 행초서 | 29.3×18.7 | 편지, 牌招를 啓請함은 낭패임 |
| 0665 | 임상원(任相元) | 1638-1697 | 문신 | 행초서 | 22.7×29 | 편지, 석방 기약이 아득함을 위로 |
| 0666 | 유이승(柳以升) | 1638-? | 문신 | 행초서 | 25.7×11 | 시, 錢起의 宿洞口驛 |
| 0667 | 조지겸(趙持謙) | 1639-1685 | 문신 | 해서 | 21.6×24.5 | 편지, 보낸 종이봉투에 감사드립니다 |
| 0668 | 권해(權階) | 1639-1704 | 문신 | 해행서 | 29.8×21.2 | 편지, 보낸 고기에 감사드립니다 |
| 0669 | 조상우(趙相愚) | 1640-1718 | 문신 | 행초서 | 27.5×37 | 편지, 탄핵하는 글에 떠날 결심 |
| 0670 | 조위명(趙威明) | 1640-1685 | 문신 | 초서 | 21.2×31.5 | 편지, 건강한 모습에 축하드립니다 |
| 0671 | 원성유(元聖兪) | 1640-1713 | 문신 | 초서 | 26.5×52.5 | 편지, 食玉炊桂의 어려움을 전함 |
| 0672 | 임방(任墜) | 1640-1724 | 문신 | 행초서 | 24.6×29.6 | 편지, 고을에 은혜를 베풀길 바랍 |
| 0673 | 심익현(沈益顯) | 1641-1683 | 서예가 | 해행서 | 27.6×32.2 | 편지, 至聖保命丹을 구해서 드립니다 |
| 0674 | 권상하(權尙夏) | 1641-1721 | 학자 | 해행서 | 27.5×22.7 | 시, 趙之耘에 보낸 칠언율시 |
| 0675 | 엄정구(嚴鼎耆) | 1605-1670 | 문신 | 초서 | 17.5×20 | 편지, 보낸 부채와 편지지에 감사 |
| 0676 | 이돈(李墩) | 1642-1713 | 문신 | 초서 | 24.7×38.5 | 편지, 만날 길이 없음을 슬퍼함 |
| 0677 | 이세필(李世弼) | 1642-1718 | 학자 | 해행서 | 25.5×34.7 | 편지, 송시열 상소문을 上達함 |
| 0678 | 홍수주(洪受疇) | 1642-1704 | 화가 | 행초서 | 25.7×44 | 편지, 먼 변경에 버려짐이 영광됨 |
| 0679 | 유명현(柳命賢) | 1643-1703 | 문신 | 초서 | 32×57 | 편지, 생명을 보존한 덕에 감사함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680 | 이인징(李麟徵) | 1643-1729 | 문신 | 초서 | 26.6×43.3 | 편지, 사면 받을 것을 미리 축하 |
| 0681 | 김성적(金盛迪) | 1643-1699 | 문신 | 해행서 | 24.5×28.7 | 편지, 유생들의 말함을 도울 계획 |
| 0682 | 이세구(李世龜) | 1646-1700 | 문신 | 초서 | 20.2×21 | 편지, 장례를 잘 치르길 기원함 |
| 0683 | 박경후(朴慶後) | 1644-1706 | 문신 | 초서 | 27.2×37.5 | 편지, 편지지와 진귀한 과일에 감사 |
| 0684 | 심벌(沈穰) | 1645-1711 | 문신 | 초서 | 21.3×34.2 | 편지, 내일 湖舍에 오시기 바람 |
| 0685 | 오도일(吳道一) | 1645-1703 | 문신 | 해행서 | 30×39 | 편지, 보낸 節箋에 감사드립니다 |
| 0686 | 이유(李濡) | 1645-1721 | 문신 | 초서 | 23×47.5 | 편지, 湖西의 林川으로 이사할 생각 |
| 0687 | 강선(姜銑) | 1645-1710 | 문신 | 해행서 | 29.3×37.1 | 편지, 50여 권 冊衣를 부탁함 |
| 0688 | 임운원(任胤元) | 1645-1712 | 문신 | 행초서 | 23.8×34.8 | 편지, 새 別墅에 참석 못해 서운함 |
| 0689 | 목창명(睦昌明) | 1645-1695 | 문신 | 초서 | 24.7×25.5 | 편지, 보낸 각종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690 | 민진주(閔鎭周) | 1646-1700 | 문신 | 행초서 | 20.7×25 | 편지, 안부와 碧魚에 감사드립니다 |
| 0691 | 최석정(崔錫鼎) | 1646-1715 | 문신 | 해행서 | 27.3×41.8 | 시, 李選에게 보낸 칠언율시 |
| 0692 | 한태동(韓泰東) | 1646-1687 | 문신 | 행초서 | 31×38.3 | 편지, 인삼과 녹용을 부탁함 |
| 0693 | 정시운(丁時潤) | 1646-1713 | 문신 | 초서 | 24.5×31 | 편지, 重記에 매어 관직을 못 버림 |
| 0694 | 신완(申琬) | 1646-1707 | 문신 | 초서 | 27.5×43 | 편지, 보낸 먹에 감사드립니다 |
| 0695 | 이진은(李震殷) | 1646-1707 | 문신 | 해서 | 26.2×17.6 | 편지, 병으로 다른 差使員 임명 부탁 |
| 0696 | 신엽(申晷) | 1646-1690 | 문신 | 해행서 | 28×18.5 | 편지, 眞墨·乾民魚·石魚·甘同을 보냄 |
| 0697 | 이현석(李玄錫) | 1647-1703 | 문신 | 해행서 | 29.1×42.2 | 시, 南龍翼에 보낸 칠언율시 |
| 0698 | 정호(鄭濤) | 1648-1736 | 문신 | 초서 | 23.2×46 | 편지, 世道の 윤리와 기강을 밝힌 상소 |
| 0699 | 김창집(金昌集) | 1648-1722 | 문신 | 초서 | 26.2×27.4 | 편지, 家奴 때문에 노자를 부탁 |
| 0700 | 박태유(朴泰維) | 1648-1746 | 문신 | 해서 | 18.7×6.5 | 시, 王勃의 滕王閣序 일부 |
| 0701 | 박태항(朴泰恒) | 1647-1737 | 문신 | 초서 | 24.7×45 | 편지, 흉년에 벼슬 유임을 걱정 |
| 0702 | 김구(金構) | 1649-1704 | 문신 | 초서 | 26.7×35.4 | 편지, 새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703 | 정제두(鄭齊斗) | 1649-1736 | 학자 | 해서 | 30.5×39.3 | 편지, 얼음을 얻어 쓰기를 부탁 |
| 0704 | 김홍복(金洪福) | 1649-1698 | 문신 | 행초서 | 27.5×34.3 | 편지, 草料 한 丈 차용을 부탁 |
| 0705 | 임영(林泳) | 1649-1696 | 문신 | 행초서 | 19.5×28 | 편지, 등봉한 별지를 보시기 바람 |
| 0706 | 이정(李漣) | 생몰 미상 | 종실 | 해행서 | 25.3×21 | 시, 歸洛途中(칠언율시) |
| 0707 | 최규서(崔奎瑞) | 1650-1735 | 문신 | 해행서 | 28×44.5 | 편지, 子婦의 깊은 병을 걱정함 |
| 0708 | 강현(姜覲) | 1650-1733 | 문신 | 행초서 | 25.5×33.3 | 편지, 먼 길 행차를 걱정함 |
| 0709 | 김시징(金始徵) | 1650-? | 학자 | 해행서 | 28.3×37.3 | 시, 승려 埴에게 보낸 칠언절구 |
| 0710 | 송주석(宋疇錫) | 1650-1692 | 문신 | 해행서 | 25.3×36.3 | 편지, 正木과 麻布를 납부함 |
| 0711 | 김창협(金昌協) | 1651-1708 | 학자 | 행초서 | 26.4×10.5 | 편지, 10일간 머물다 가면 어떠냐 |
| 0712 | 이대성(李大成) | 1651-1718 | 문신 | 해행서 | 25.5×16.4 | 시, 오언절구 |
| 0713 | 서종태(徐宗泰) | 1652-1719 | 문신 | 해행서 | 35×40 | 편지, 여러 가지 산골 음식에 감사 |
| 0714 | 김창흡(金昌翕) | 1653-1722 | 학자 | 해행서 | 25.6×47.2 | 편지, 시를 읽고 두통이 나오면 좋음 |
| 0715 | 김시걸(金時傑) | 1653-1701 | 문신 | 초서 | 30.5×50 | 편지, 還穀에 숙부 題辭가 필요함 |
| 0716 | 박태순(朴泰淳) | 1653-1704 | 문신 | 행초서 | 23.4×31.5 | 편지, 보낸 節箋에 감사드립니다 |
| 0717 | 신계화(申啓華) | 1653-1689 | 문신 | 해행서 | 27.3×37.8 | 편지, 보낸 먹에 감사드립니다 |
| 0718 | 홍세태(洪世泰) | 1653-1725 | 시인 | 초서 | 37×44.5 | 시, 永昭殿齋舍同李齋郎有吟 |
| 0719 | 유집일(兪集一) | 1653-1724 | 문신 | 해행서 | 32.5×45.4 | 편지, 糶糶과 還米를 즉시 題給함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720 | 박행의(朴行義) | 1653-1718 | 문신 | 해행서 | 23×25.8 | 편지, 免新禮의 刺紙와 족자를 부탁 |
| 0721 | 권두추(權斗樞) | 1632-1670 | 문신 | 초서 | 23.4×27.2 | 편지, 生雉와 작은 송어를 보냄 |
| 0722 | 최석항(崔錫恒) | 1654-1724 | 문신 | 초서 | 30.2×46.3 | 편지, 서원 유생들에게 책 빌려주기 |
| 0723 | 이희조(李喜朝) | 1655-1724 | 문신 | 해행서 | 33.5×45.4 | 편지, 民事와 蕩殘의 심함을 호소함 |
| 0724 | 박태보(朴泰輔) | 1654-1689 | 문신 | 해행서 | 26.3×41.3 | 편지, 거듭 보낸 珍墨에 감사드림 |
| 0725 | 민창도(閔昌道) | 1654-1725 | 문신 | 해행서 | 27.8×37.3 | 편지, 환곡 처리로 바빠 늦게 도착함 |
| 0726 | 남학명(南鶴鳴) | 1654-1722 | 학자 | 행초서 | 28.2×41.6 | 편지, 正言 형님 쟁론으로 좋지 않음 |
| 0727 | 이덕성(李德成) | 1655-1704 | 문신 | 초서 | 27×44 | 편지, 容齋集을 아직 못해 다시 부탁 |
| 0728 | 정유점(鄭維漸) | 1655-1703 | 학자 | 초서 | 25.6×40.7 | 편지, 가족신 남는 것 있으면 부탁함 |
| 0729 | 이인엽(李寅燁) | 1656-1710 | 문신 | 행초서 | 26×38 | 편지, 請起의 절차를 밟으면 도움 |
| 0730 | 윤지인(尹趾仁) | 1656-1718 | 문신 | 해서 | 31.5×48 | 시, 奉呈眞珠使君仙案(칠언고시) |
| 0731 | 권상유(權尙游) | 1656-1724 | 학자 | 행초서 | 25.4×20 | 편지, 정기인사에 實職 추천이 어려움 |
| 0732 | 윤덕준(尹德駿) | 1658-1717 | 문신 | 행초서 | 26×28 | 편지, 舍弟와의 약속을 지키기 바람 |
| 0733 | 송상기(宋相琦) | 1657-1723 | 문신 | 해행서 | 32.3×43.4 | 시, 李郎의 슬픔에 쓴 칠언율시 |
| 0734 | 여필중(呂必重) | 1657-1718 | 문신 | 해행서 | 35.5×43.5 | 편지, 진정 생각해주심에 감사드림 |
| 0735 | 이진휴(李震休) | 1657-1710 | 문신 | 초서 | 28.2×48 | 편지, 궁금함을 감당하지 못해 안부함 |
| 0736 | 권중경(權重經) | 1658-1728 | 문신 | 해행서 | 31×36.5 | 편지, 보낸 선물과 먹에 감사드림 |
| 0737 | 이이명(李頤命) | 1658-1722 | 문신 | 해행서 | 32.3×36 | 시, 奏再奚에 화답한 칠언율시 |
| 0738 | 김창엽(金昌業) | 1658-1721 | 화가 | 해행서 | 29.5×38 | 편지, 壯元의 경사가 끝이 없어 축하함 |
| 0739 | 김진규(金鎭圭) | 1658-1716 | 문신 | 해행서 | 29.7×52 | 편지, 輪次科 폐단을 바로 잡자는 의견 |
| 0740 | 이정신(李正臣) | 1660-1727 | 문신 | 해행서 | 27×34 | 편지, 牌召의 啓請을 시행 못하고 여쭙 |
| 0741 | 홍중하(洪重夏) | 1658-1716 | 문신 | 행초서 | 26.7×39.5 | 편지, 인수인계가 늦어 빌 기약이 없음 |
| 0742 | 조태로(趙泰老) | 1658-1717 | 문신 | 행초서 | 25×28 | 편지, 노쇠로 회포를 풀지 못해 산란함 |
| 0743 | 이만성(李晩成) | 1659-1722 | 문신 | 해행서 | 27.3×29 | 편지, 서울에 머물러 번민을 감당 못함 |
| 0744 | 민진후(閔鎭厚) | 1659-1720 | 문신 | 행초서 | 27.8×36.5 | 편지, 홀어머니 위중함에 놀라고 걱정됨 |
| 0745 | 유봉휘(柳鳳輝) | 1659-1727 | 문신 | 행초서 | 27.6×38.2 | 편지, 印冊紙 20권을 보내드림 |
| 0746 | 이제(李濟) | 1654-1714 | 문신 | 초서 | 30.7×40.3 | 편지, 빈자리에 吳命禧를 넣을 계획도모 |
| 0747 | 조태구(趙泰耆) | 1660-1723 | 문신 | 해행서 | 33×40 | 편지, 진흙 문제로 골치 아픔을 고민함 |
| 0748 | 조태채(趙泰采) | 1660-1722 | 문신 | 행초서 | 30×48 | 편지, 온천옥은 병세의 효험이 없었음 |
| 0749 | 이태좌(李台佐) | 1660-1739 | 문신 | 초서 | 25.5×44.6 | 편지, 가친의 사직상소를 부탁함 |
| 0750 | 이해조(李海朝) | 1660-1711 | 학자 | 해행서 | 29.5×42 | 편지, 갓신 手功으로 쌀 한 석을 보냄 |
| 0751 | 이관명(李觀命) | 1661-1733 | 문신 | 해행서 | 28×43.3 | 편지, 여러 날 親鞫으로 정신이 혼미함 |
| 0752 | 김주신(金柱臣) | 1661-1721 | 문신 | 해행서 | 24.8×30 | 편지, 별지는 羅良佐 청이니 특별히 부탁 |
| 0753 | 김시환(金始煥) | 1661-1721 | 문신 | 해서 | 33×56 | 편지, 연경 객관에서 추위에 건강 조심 |
| 0754 | 유광익(柳光翼) | 1661-? | 학자 | 행초서 | 31.2×36.6 | 편지, 보낸 계절 선물에 감사드림 |
| 0755 | 이수장(李壽長) | 1661-1733 | 서예가 | 해서 | 23.4×50 | 시, 이백 遠別離와 將進酒를 써서 보냄 |
| 0756 | 이서(李澈) | 1662-1723 | 서예가 | 초서 | 33×43.5 | 편지, 아이 冠禮에 君이 없어 섭섭 |
| 0757 | 김창즙(金昌緝) | 1662-1713 | 학자 | 해행서 | 23.3×41.3 | 편지, 几筵 철수 전에 슬픔이 복받침 |
| 0758 | 신심(申鐔) | 1662-1715 | 문신 | 해행서 | 27.7×35.1 | 편지, 증손녀 歸寧에 위로와 기뻐함 |
| 0759 | 이건명(李健明) | 1663-1722 | 문신 | 행초서 | 27×34.1 | 편지, 그리움과 안타까움에 붓을 잠음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760 | 심수현(沈壽賢) | 1663-1736 | 문신 | 초서 | 25×22.5 | 편지, 양식을 댈 수 없어 부탁함 |
| 0761 | 성한(成儻) | 1664-1719 | 학자 | 해행서 | 32×23.5 | 시, 禮園同苦別何忙(칠언율시) |
| 0762 | 민진원(閔鎭遠) | 1664-1736 | 문신 | 해행서 | 30.5×41.5 | 편지, 대간의 탄핵으로 괴로움 |
| 0763 | 신입(申鉞) | 1639-1725 | 문신 | 행초서 | 33×47.5 | 편지, 모든 운수가 용납이 어려움 |
| 0764 | 임수간(任守幹) | 1665-1721 | 문신 | 행초서 | 23.5×39 | 편지, 보낸 꼴과 핑에 감사드립니다 |
| 0765 | 조정강(趙正綱) | 1666-? | 서예가 | 해서 | 31.5×20.5 | 시, 중국 작가 미상의 시 |
| 0766 | 권섭(權燮) | 1671-1759 | 시인 | 해행서 | 34.2×21.8 | 시, 次贈(칠언절구) |
| 0767 | 정도복(丁道復) | 1666-1720 | 문신 | 행초서 | 23.7×36 | 편지, 만날 길이 없어 걱정이 됨 |
| 0768 | 홍치중(洪致中) | 1667-1732 | 문신 | 해행서 | 31.3×43.5 | 편지, 조정에 돌아갈 날이 가까움 |
| 0769 | 오태주(吳泰周) | 1668-1716 | 부마 | 해행서 | 30.5×33.5 | 편지, 보낸 종이에 감사드립니다 |
| 0770 | 권이진(權以鎭) | 1668-1734 | 문신 | 해행서 | 28.3×47.5 | 편지, 산소를 쓰는 데 방해되지 않음 |
| 0771 | 홍중성(洪重聖) | 1668-1735 | 문신 | 해행서 | 31×39 | 시, 李光佐께 드린 칠언율시 |
| 0772 | 이조(李肇) | 1666-1726 | 문신 | 행초서 | 27.5×44 | 편지, 백지 4-5束을 보내주길 바람 |
| 0773 | 윤두서(尹斗緒) | 1668-1715 | 화가 | 초서 | 22.1×37.5 | 편지, 시력이 흐려져 서화가 어려움 |
| 0774 | 이진유(李眞儒) | 1669-1730 | 문신 | 초서 | 34.2×56 | 시, 醉後敬次江陽鄭明府丈韻 |
| 0775 | 최창대(崔昌大) | 1669-1720 | 문신 | 해행서 | 31.2×41.5 | 편지, 定齋集을 교정후 부치겠음 |
| 0776 | 이의현(李宜顯) | 1669-1745 | 문신 | 초서 | 25.4×45 | 편지, 보낸 각종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777 | 채팽운(蔡彭胤) | 1669-1731 | 문신 | 초서 | 31.7×38 | 편지, 朴公 독촉으로 破戒를 못 면함 |
| 0778 | 김춘택(金春澤) | 1670-1717 | 문신 | 행초서 | 25.8×44 | 편지, 子婦의 학질에 약제가 필요함 |
| 0779 | 김유경(金有慶) | 1669-1748 | 문신 | 해행서 | 24.3×40.7 | 편지, 손자의 소상까지 지내길 바람 |
| 0780 | 김고(金槲) | 1670-1727 | 문신 | 해행서 | 28×44 | 편지, 남인들을 용서해 수습해야 함 |
| 0781 | 맹만택(孟萬澤) | 1660-1710 | 문신 | 초서 | 29.2×40.5 | 편지, 진흥정책을 호조판서와 의논 |
| 0782 | 이병연(李秉淵) | 1671-1751 | 시인 | 해서 | 26.1×33 | 시, 送申峻夫之縣(오언율시) |
| 0783 | 임수적(任守迪) | 1671-1744 | 문신 | 해행서 | 25.5×47 | 편지, 눈병이 심해 대필을 시킴 |
| 0784 | 이진망(李眞望) | 1672-1737 | 문신 | 초서 | 24.5×33.5 | 편지, 관아 사람이 없어 글을 못 보냄 |
| 0785 | 어유봉(魚有鳳) | 1672-1744 | 문신 | 해행서 | 24.2×35.2 | 편지, 의리를 강론하며 이치를 궁구함 |
| 0786 | 조영복(趙榮福) | 1672-1728 | 문신 | 행초서 | 4.5×31.6 | 편지, 보낸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787 | 오명항(吳命恒) | 1673-1728 | 문신 | 해행서 | 34×43 | 편지, 형의 방향을 몰라 개탄함 |
| 0788 | 이덕수(李德壽) | 1673-1744 | 문신 | 해행서 | 35×42 | 편지, 많은 새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789 | 김이만(金履萬) | 1683-1758 | 문신 | 초서 | 35.8×50.5 | 시, 奉別錦城使君投紱之行 |
| 0790 | 이광좌(李光佐) | 1674-1740 | 문신 | 초서 | 32.2×44 | 편지, 獻官員 수가 많아 분배가 어려움 |
| 0791 | 조경명(趙景命) | 1674-1726 | 문신 | 해행서 | 28.5×48.5 | 시, 李眞儉을 위한 칠언율시 |
| 0792 | 심택현(沈宅賢) | 1674-1736 | 문신 | 해행서 | 32.6×48.2 | 편지, 南草 한 봉지를 노자로 바침 |
| 0793 | 조태억(趙泰億) | 1675-1728 | 문신 | 해행서 | 32.3×42.3 | 편지, 모래 生陽館에서 만남을 기대함 |
| 0794 | 어유구(魚有龜) | 1675-1740 | 문신 | 행초서 | 27×24 | 편지, 괴로운 일을 면할 수 있어 다행 |
| 0795 | 이병상(李秉常) | 1676-1748 | 문신 | 해서 | 26.8×28.4 | 편지, 벼슬을 그만두셨을 것 같아 기쁨 |
| 0796 | 이진순(李眞淳) | 1679-1738 | 문신 | 초서 | 33.2×41 | 편지, 眼藥을 다시 보낼 것을 기대함 |
| 0797 | 이하곤(李夏坤) | 1677-1724 | 화가 | 해서 | 32.2×45.3 | 시, 尹最績을 화답한 칠언율시 |
| 0798 | 김동필(金東弼) | 1678-1737 | 문신 | 행초서 | 30×41.9 | 시, 次別席韻贈載方之行 |
| 0799 | 엄경우(嚴慶遇) | 1655-? | 문신 | 해행서 | 29.5×33 | 편지, 보낸 眞玄(참떡)에 감사드립니다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800 | 이재(李緯) | 1680-1746 | 문신 | 해행서 | 29.3×45.8 | 편지, 자식의 과거급제를 기뻐함 |
| 0801 | 김제겸(金濟謙) | 1680-1722 | 문신 | 초서 | 20×12.2 | 편지, 龍眼肉을 곧 구해 보내줬음 |
| 0802 | 윤순(尹淳) | 1680-1741 | 서예가 | 초서 | 26.5×27.5 | 편지, 絹本은 그리고 小本은 돌려보냄 |
| 0803 | 조문명(趙文命) | 1680-1732 | 문신 | 초서 | 33.5×43.5 | 편지, 관찰사 조카 뜻이 억지라 생각함 |
| 0804 | 홍계적(洪啓迪) | 1680-1722 | 문신 | 해행서 | 19.5×21.2 | 편지, 忌故에 쓸 水丁을 부탁함 |
| 0805 | 홍봉조(洪鳳祚) | 1680-1760 | 문신 | 해행서 | 28.9×22.3 | 편지, 아드님 병에 약 3푼을 보내드립니다 |
| 0806 | 서명균(徐命均) | 1680-1745 | 문신 | 행초서 | 9.7×44.7 | 편지, 약재는 과연 보내드리기가 어려움 |
| 0807 | 이익(李潁) | 1681-1763 | 학자 | 초서 | 23×43.1 | 편지, 초고를 완성하지 않으니 울지 않음 |
| 0808 | 조상경(趙尙綱) | 1681-1746 | 문신 | 초서 | 26.5×35 | 편지, 영남 유학자들이 뵙길 바람 |
| 0809 | 신유한(申維翰) | 1681-1752 | 문신 | 해서 | 32×45 | 편지, 新曆에 쓴 세 글자에 감사드립니다 |
| 0810 | 신정하(申靖夏) | 1681-1716 | 문신 | 해행서 | 21.4×23.2 | 편지, 几筵을 철거하여 올 곳이 없음 |
| 0811 | 정내교(鄭來僑) | 1681-1757 | 시인 | 초서 | 32×19.3 | 시, 오연절구 |
| 0812 | 김재로(金在魯) | 1682-1759 | 문신 | 초서 | 30.2×39.5 | 편지, 백 번 모함에도 아직 해직되지 않음 |
| 0813 | 김치후(金致厚) | 1692-1742 | 문신 | 해행서 | 33.3×35.7 | 편지, 보낸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814 | 한원진(韓元震) | 1682-1751 | 학자 | 초서 | 23×42.2 | 편지, 朝紙는 열람 후 市便으로 보냄 |
| 0815 | 황익재(黃翼再) | 1682-1747 | 문신 | 초서 | 20.5×32.7 | 편지, 咳嗽 진찰을 위해 김의원을 초청 |
| 0816 | 윤봉구(尹鳳九) | 1681-1767 | 학자 | 해행서 | 31.4×42.5 | 편지, 禪祭의 거행 여부에 관한 의견 |
| 0817 | 이일제(李日躋) | 1683-1757 | 문신 | 해서 | 31.2×49.3 | 시, 次三清再會聯句韻 |
| 0818 | 채지홍(蔡之洪) | 1683-1741 | 학자 | 해행서 | 30.1×25.2 | 편지, 거취 계획을 내일 이조에 보냄 |
| 0819 | 이의병(李宜炳) | 1683-? | 문신 | 해행서 | 31.4×19 | 시, 명나라 謝榛의 遠別曲 |
| 0820 | 홍의인(洪義人) | 1683-1722 | 문신 | 해행서 | 31.2×34.5 | 시, 書恩門宴韻呈尹進士案下 |
| 0821 | 임상덕(林象德) | 1683-1719 | 학자 | 해행서 | 30×35.8 | 편지, 부친 병환으로 庄土를 검토 못함 |
| 0822 | 이진수(李眞洙) | 1684-1732 | 문신 | 초서 | 30×49 | 편지, 庶弟가 내일 들러서 모두 진술함 |
| 0823 | 김진상(金鎭商) | 1684-1755 | 문신 | 초서 | 32.3×49 | 편지, 이번 여행은 남의 말을 빌려 탐 |
| 0824 | 이현모(李顯謨) | 1685-1731 | 문신 | 행초서 | 26.1×35.6 | 편지, 영감 손자가 내방하여 기뻐함 |
| 0825 | 이정섭(李廷燮) | 1685-1774 | 문신 | 해행서 | 36.1×47 | 편지, 보낸 생선에 감사드립니다 |
| 0826 | 조영석(趙榮祐) | 1686-1761 | 화가 | 해행서 | 31.2×27.5 | 편지, 우리나라 서화는 진함이 짧음 |
| 0827 | 여선장(呂善長) | 1686-1742 | 문신 | 해행서 | 29×45.5 | 편지, 간관 책임을 메우기가 어려움 |
| 0828 | 조명교(曹命敎) | 1687-1753 | 문신 | 초서 | 34×47.4 | 시, 奉送關西方伯之行(칠연율시) |
| 0829 | 남유용(南有容) | 1698-1773 | 문신 | 초서 | 26.4×46.8 | 편지, 가족이 모일 수 있음이 그리움 |
| 0830 | 권만(權萬) | 1688-1749 | 문신 | 초서 | 21×36.4 | 편지, 생질녀 혼사를 논함 |
| 0831 | 황정(黃暹) | 1689-1753 | 문신 | 해행서 | 32.7×44.3 | 편지, 軍政과 糶政으로 짬이 없음 |
| 0832 | 유취기(兪最基) | 1689-1768 | 문신 | 해행서 | 28.8×29 | 편지, 외직 지방관에서 진흙을 고민 |
| 0833 | 강박(姜樸) | 1690-1742 | 문신 | 해행서 | 29.3×18.8 | 편지, 陪持가 급히 지나갈 때 보냄 |
| 0834 | 조관빈(趙觀彬) | 1691-1757 | 문신 | 해행서 | 31.8×45.5 | 편지, 조카 壽彬의 첫 벼슬자리를 구함 |
| 0835 | 조지빈(趙趾彬) | 1691-1730 | 문신 | 해행서 | 33×53.4 | 시, 敬呈關西李按使行軒 |
| 0836 | 조현명(趙顯命) | 1690-1752 | 문신 | 초서 | 29.8×47 | 편지, 임금께서 누차 斬點하셔 황공함 |
| 0837 | 유척기(兪拓基) | 1691-1767 | 문신 | 초서 | 34.5×44.5 | 편지, 葬禮 물건을 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0838 | 박문수(朴文秀) | 1691-1756 | 문신 | 초서 | 22.1×32 | 편지, 筵臣의 명백하지 못함을 한탄함 |
| 0839 | 유엄(柳儼) | 1692-? | 문신 | 행초서 | 32.3×41 | 편지, 微稟은 일의 모양이 좋지 못함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840 | 이종성(李宗城) | 1692-1759 | 문신 | 초서 | 24×40.5 | 편지, 僱人의 직임을 계속하길 부탁 |
| 0841 | 정우량(鄭羽良) | 1692-1754 | 문신 | 해행서 | 28.6×34.8 | 편지, 마주 앉아 옛일을 말하며 슬퍼함 |
| 0842 | 조구명(趙龜命) | 1693-1737 | 문신 | 해행서 | 28.3×41.3 | 편지, 濟卿의 遺事 부탁에 안타까움 |
| 0843 | 영조(英祖) | 1694-1776 | 왕 | 해서 | 35.2×45.1 | 편지, 賜對를 하지 않음은 왕을 사랑함 |
| 0844 | 민우수(閔遇洙) | 1694-1756 | 문신 | 해행서 | 32.9×48 | 편지, 집 혼사에 사람이 없어 왕립 비람 |
| 0845 | 이태중(李台重) | 1694-1756 | 문신 | 해행서 | 31×41.4 | 편지, 翰林이 되지 못함을 자책함 |
| 0846 | 윤급(尹汲) | 1697-1770 | 문신 | 초서 | 23.8×36.6 | 편지, 왕이 仁壽·仁順 물음에 답이 없음 |
| 0847 | 임정(任珽) | 1694-1750 | 문신 | 해서 | 12.5×3.5 | 편지, 澗川의 梅竹堂에서 공손히 입서함 |
| 0848 | 김광수(金光遂) | 1699-1770 | 화가 | 해서 | 21×8.5 | 시, 更吟一絶求和(칠언절구) |
| 0849 | 이유경(李儒慶) | 1747-1818 | 문신 | 초서 | 33.3×45.2 | 편지,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책망 |
| 0850 | 남하행(南夏行) | 1697-1781 | 학자 | 예서 | 26.6×18.7 | 회호, 潛翁戲墨 |
| 0851 | 이천보(李天輔) | 1698-1761 | 문신 | 해행서 | 30.7×26.5 | 편지, 昌陵에 封標한 곳은 임금의 뜻임 |
| 0852 | 윤심형(尹心衡) | 1698-1754 | 문신 | 초서 | 26.8×36.2 | 편지, 병자가 있는 곳의 참혹한 광경 |
| 0853 | 김상익(金尙翼) | 1699-1771 | 문신 | 행초서 | 34.5×41.5 | 편지, 영의정과 임시변통하여 의견 제시 |
| 0854 | 오원(吳瑗) | 1700-1740 | 문신 | 초서 | 33.6×45.2 | 편지, 가난한 고을을 돌보는 은혜를 바람 |
| 0855 | 김용겸(金用謙) | 1702-1789 | 학자 | 행초서 | 27.4×47.5 | 편지, 加資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 0856 | 김원행(金元行) | 1702-1772 | 학자 | 해서 | 28.2×35.4 | 편지, 閣中의 계속되는 우환을 걱정함 |
| 0857 | 김양행(金亮行) | 1715-1779 | 학자 | 행초서 | 30×45.5 | 편지, 끝없는 학문 진보에 존경과 경탄 |
| 0858 | 이의철(李宜哲) | 1703-1778 | 문신 | 초서 | 30.6×48.7 | 편지, 관가에서 간성 현감 장례식을 돕길 |
| 0859 | 이광찬(李匡贊) | 1702-? | 문신 | 해행서 | 28.9×44 | 시, 拜別仲父主西關按節行 |
| 0860 | 조명채(曹命采) | 1700-1764 | 문신 | 해행서 | 32.8×52.8 | 시, 夜占要和(칠언율시) |
| 0861 | 정하언(鄭夏彦) | 1702-1769 | 문신 | 해행서 | 38×30 | 시, 칠언율시 |
| 0862 | 신만(申晩) | 1703-1765 | 문신 | 초서 | 30×44.7 | 편지, 각종 재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863 | 김상성(金尙星) | 1703-1755 | 문신 | 행초서 | 25×45 | 편지, 경복궁 벽의 불온한 글에 개탄함 |
| 0864 | 이창의(李昌誼) | 1704-1772 | 문신 | 해행서 | 35×47.5 | 편지, 金貴泰 일을 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0865 | 이광사(李匡師) | 1705-1777 | 서예가 | 해행서 | 28×27.5 | 편지, 부친처럼 의지한 맏형 죽음에 슬픔 |
| 0866 | 이수일(李秀逸) | 1705-1779 | 문신 | 행초서 | 22.5×28 | 편지, 혼례는 신랑이 어려 내년으로 미룸 |
| 0867 | 정휘량(鄭翬良) | 1706-1762 | 문신 | 행초서 | 30.2×31.2 | 편지, 시험관 명단에 저를 거론하지 마시길 |
| 0868 | 신회(申晦) | 1706-1776 | 문신 | 행초서 | 30×32.9 | 편지, 대궐 하직을 송별할 수 없어 슬픔 |
| 0869 | 이성중(李成中) | 1706-1760 | 문신 | 행초서 | 26.6×28 | 편지, 과거급제는 도리어 한탄스러움 |
| 0870 | 심사정(沈師正) | 1707-1769 | 화가 | 해행서 | 34.2×20.7 | 회호, 縱觀 |
| 0871 | 윤용(尹榕) | 1708-1740 | 화가 | 해행서 | 31.8×16.8 | 편지, 관심은 달이 뜨고 해가 지는 것 뿐 |
| 0872 | 허필(許泌) | 1709-1761 | 서화가 | 행초서 | 34×19.5 | 시, 칠언대련에서 4글자 탈락 |
| 0873 | 황경원(黃景源) | 1709-1787 | 문신 | 초서 | 33.8×38.5 | 편지, 近列에 오래 있어 근력이 감당 못함 |
| 0874 | 서종급(徐宗汲) | 1688-1762 | 문신 | 행초서 | 30.2×45.7 | 편지, 벼슬을 그만들은 진실로 다행 |
| 0875 | 이인상(李麟祥) | 1710-1760 | 화가 | 해행서 | 29×36.4 | 시, 雲峰 객사에서 지은 오언고시 |
| 0876 | 송문흠(宋文欽) | 1710-1752 | 서예가 | 전서 | 25.2×24.5 | 시, 詩經·衛風·淇輿의 제1장 |
| 0877 | 김시찬(金時燾) | 1700-1767 | 문신 | 초서 | 32×40.5 | 편지, 歸田을 蕩條한다는 하교에 기뻐함 |
| 0878 | 김위재(金偉材) | 1710-? | 유생 | 해행서 | 24.5×21.8 | 편지, 程朱 학설은 평생 공부해도 모자람 |
| 0879 | 이상정(李象靖) | 1710-? | 학자 | 행초서 | 25.2×23.5 | 편지, 아드님이 병든 몸으로 돌아가 걱정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880 | 이광려(李匡呂) | 1720-1783 | 학자 | 해행서 | 27×37.1 | 편지, 박연폭포를 가서 보니 상쾌함 |
| 0881 | 윤동섭(尹東暹) | 1710-1795 | 문신 | 해행서 | 25.9×38.6 | 편지, 延諡의 은전에 영광스럽게 여김 |
| 0882 | 권진응(權震應) | 1711-1775 | 문신 | 초서 | 26.7×42 | 편지, 송시열 遷葬 일이 결정되었음 |
| 0883 | 이맹휴(李孟休) | 1713-1750 | 문신 | 해행서 | 34.8×44 | 편지, 黃連丸 복용 방법을 여쭙 |
| 0884 | 유이복(柳以復) | 1653-1704 | 문신 | 해행서 | 26.7×45 | 편지, 기억하고 보낸 각종 선물에 감사 |
| 0885 | 김근행(金謹行) | 1713-? | 문신 | 해서 | 21.2×12.7 | 시, 奉和空色道人寄示韻 |
| 0886 | 김상복(金相福) | 1714-1782 | 문신 | 행초서 | 29.2×15.6 | 시, 제목 中內源의 오언율시 |
| 0887 | 강세황(姜世晃) | 1713-1791 | 서화가 | 해행서 | 29.7×46.8 | 시 贈別恩叟赴盛京(오언고시) |
| 0888 | 서지수(徐志修) | 1714-1768 | 문신 | 해행서 | 25×41 | 편지, 임금 은혜로 벼슬을 그만두어 기쁨 |
| 0889 | 이광정(李光靖) | 1714-1789 | 학자 | 해행서 | 24.5×45.4 | 편지, 멀리 떨어져 합삭을 못함어 슬픔 |
| 0890 | 이윤영(李胤永) | 1714-1759 | 화가 | 해서 | 21.8×20.2 | 贊, 昭烈帝贊과 張子房贊 |
| 0891 | 김순택(金純澤) | 1714-1787 | 학자 | 해서 | 23×28.8 | 시, 李胤永 서재에서 오언율시 |
| 0892 | 조운규(趙雲逵) | 1714-1774 | 문신 | 해행서 | 33.4×45.4 | 편지, 按覈使로 獄事를 마치고 복명함 |
| 0893 | 한광회(韓光會) | 1715-? | 문신 | 초서 | 35.1×56 | 편지, 만머느리 大祥 祭需 마련이 어려움 |
| 0894 | 이양천(李亮天) | 1716-1756 | 문신 | 해행서 | 28.4×14.6 | 시, 오언율시 |
| 0895 | 서명옹(徐命膺) | 1716-1787 | 학자 | 초서 | 25.1×25.2 | 편지, 經筵의 대화를 대략 적어 드림 |
| 0896 | 김치인(金致仁) | 1716-1790 | 문신 | 초서 | 29.2×44.8 | 편지, 夜筵에서 임금의 명령을 알려주길 |
| 0897 | 조봉진(曹鳳振) | 1777-1838 | 문신 | 해행서 | 29.5×47 | 편지, 지금 흉년의 모습을 걱정함 |
| 0898 | 김상숙(金相肅) | 1717-1792 | 문신 | 행초서 | 29.5×47 | 편지, 친척의 정겨운 이야기가 가장 기쁨 |
| 0899 | 오찬(吳瓚) | 1717-1751 | 문신 | 해행서 | 23.8×18 | 시, 칠언율시 |
| 0900 | 이용휴(李用休) | 1708-1782 | 학자 | 해서 | 26×16.5 | 편지, 柳璞의 花木品第는 착오가 없음 |
| 0901 | 송명흠(宋明欽) | 1705-1768 | 학자 | 해행서 | 23×39.2 | 편지, 지방에서 백모님 부고에 슬퍼함 |
| 0902 | 이복원(李福源) | 1719-1792 | 문신 | 행초서 | 27.2×39 | 편지, 단풍으로 종적을 못 보고 돌아옴 |
| 0903 | 채제공(蔡濟恭) | 1720-1799 | 문신 | 초서 | 29.8×42.2 | 시, 雨坐戀明軒次餘窩(칠언율시) |
| 0904 | 원인손(元仁孫) | 1721-1774 | 문신 | 행초서 | 33×48.4 | 편지, 敎授로 許坪을 적임자로 천거함 |
| 0905 | 김중후(金鍾厚) | 1721-1780 | 문신 | 해행서 | 22.6×28.7 | 편지, 형의 헛걸음에 탄식과 죄송함 |
| 0906 | 정범조(丁範祖) | 1723-1801 | 문신 | 초서 | 34.5×17.6 | 시, 訪樊巖別墅餘窩亦至拈韻共賦 |
| 0907 | 김익(金燧) | 1723-1790 | 문신 | 해행서 | 28.3×45.1 | 편지, 질녀의 근황이 매우 궁핍함 |
| 0908 | 정상순(鄭尙淳) | 1723-1786 | 문신 | 해행서 | 26.5×42.4 | 편지, 專城을 이루어 임금 은혜에 감사 |
| 0909 | 홍양호(洪良浩) | 1724-1802 | 문신 | 초서 | 32×43.8 | 편지, 임금 은혜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 |
| 0910 | 김시구(金耆耆) | 1724-1795 | 문신 | 해행서 | 32.7×49.2 | 편지, 아드님의 요절을 위로함 |
| 0911 | 이성원(李性源) | 1725-1790 | 문신 | 해행서 | 32.6×34.6 | 편지, 임금의 엄한 견책을 받고 변경에 감 |
| 0912 | 이미(李瀾) | 1725-1799 | 문신 | 행초서 | 21.5×18 | 편지, 海民국의 모든 약제가 부족함 |
| 0913 | 조유행(曹允亨) | 1725-1799 | 문신 | 해행서 | 24.5×28.4 | 시, 한유 夜歌와 왕유 鳥鳴澗 |
| 0914 | 서명선(徐命善) | 1728-1791 | 문신 | 행초서 | 36.5×37 | 편지, 보낸 柑糖을 家廟에 올리니 감사함 |
| 0915 | 조경(趙暎) | 1727-1789 | 문신 | 해서 | 34.5×43.4 | 편지, 죄를 용서하는 임금 명령에 황송함 |
| 0916 | 송환기(宋煥箕) | 1728-1807 | 학자 | 해행서 | 25×39.9 | 편지, 쫓겨 후에 크고 작은 제사를 지냄 |
| 0917 | 목만중(睦萬中) | 1727-? | 문신 | 해행서 | 33.5×37.5 | 시, 睦幼選을 송별한 칠언율시 |
| 0918 | 오재순(吳載純) | 1727-1792 | 문신 | 해행서 | 27.8×22.5 | 편지, 선조의 문집을 빌려드림 |
| 0919 | 김화택(金和澤) | 1728-? | 문신 | 해서 | 26.3×23 | 시, 玄湖에서 지은 칠언율시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920 | 김종수(金鍾秀) | 1728-1799 | 문신 | 초서 | 28×54.6 | 편지, 국가의 수령 설치는 백성을 위함 |
| 0921 | 윤사국(尹師國) | 1728-1809 | 문신 | 해행서 | 32.6×40 | 편지, 보낸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922 | 이보온(李普溫) | 1728-? | 문신 | 해행서 | 26.2×38 | 편지, 옛 서원에서 청풍명월을 생각함 |
| 0923 | 신광수(申光洙) | 1712-1775 | 문신 | 초서 | 27×36.2 | 편지, 바쁜 공무와 우환으로 근심함 |
| 0924 | 정재원(丁載遠) | 1730-1792 | 문신 | 해행서 | 31.4×43.6 | 편지, 동쪽 변경을 지키는 수고를 위로 |
| 0925 | 황운조(黃運祚) | 1730-1800 | 서예가 | 초서 | 23.5×29.5 | 題跋, 중국 여러 제발을 옮김 |
| 0926 | 홍대용(洪大容) | 1731-1783 | 학자 | 해행서 | 31×36.1 | 詩序, 寄題雲山書屋詩并小序 |
| 0927 | 나열(羅烈) | 1731-1803 | 문신 | 해행서 | 22×51.4 | 편지, 명나라 杜冀龍의 江南春圖를 소개 |
| 0928 | 성대중(成大中) | 1732-1812 | 학자 | 행초서 | 29.7×50.7 | 편지, 서울로 가신다는 계획을 도움 |
| 0929 | 이한진(李漢鎭) | 1732-? | 서예가 | 전서 | 26.7×56.8 | 시, 두보의 古栢行을 씀 |
| 0930 | 신대우(申大羽) | 1735-1809 | 문신 | 해서 | 14.4×35.8 | 시, 惡韻을 만난 오언고시 |
| 0931 | 이일운(李日運) | 1736-1805 | 문신 | 초서 | 28×46.4 | 편지, 官庫가 혼란하고 어려움 |
| 0932 | 이조원(李祖源) | 1735-1806 | 문신 | 초서 | 31.5×44.5 | 편지, 아과 누워 형 생각에 문안드립니다 |
| 0933 | 김노진(金魯鎭) | 1735-1788 | 문신 | 초서 | 37.9×46 | 편지, 鄭友의 요절에 애석함 |
| 0934 | 박지원(朴趾源) | 1737-1805 | 학자 | 행초서 | 34.8×50.3 | 편지, 魚景國의 죽음을 애도함 |
| 0935 | 정종로(鄭宗魯) | 1738-1816 | 학자 | 행초서 | 19.6×36 | 편지, 수정한 화답시를 보여주길 바람 |
| 0936 | 이언진(李彦鎭) | 1740-1766 | 시인 | 해행서 | 22×9.6 | 시, 자서시 칠언절구 |
| 0937 | 이영익(李令翊) | 1740-? | 학자 | 전서 | 27.4×15.9 | 휘호, 四言(坐待禪僧, 眠留醉客) |
| 0938 | 이덕무(李德懋) | 1741-1793 | 학자 | 해서 | 20.4×47.5 | 편지, 학문의 발전은 헤아릴 수 없음 |
| 0939 | 이가환(李家煥) | 1742-1801 | 학자 | 해서 | 29.1×53 | 묘지명, 李威休墓誌銘 |
| 0940 | 이정운(李鼎運) | 1743-? | 문신 | 초서 | 27×44.3 | 편지, 齋咨官의 諺札을 보고 평안함 |
| 0941 | 최북(崔北) | 1720-1769 | 화가 | 해행서 | 21.2×15.5 | 휘호, 妙在枝幹 |
| 0942 | 김좌두(金佐斗) | 1744-? | 서예가 | 해행서 | 26.9×15 | 시, 두보의 秋興八首 중 제5수 |
| 0943 | 이충익(李忠翊) | 1744-1816 | 학자 | 행초서 | 28.5×38.7 | 편지, 糶穀을 받을 때 옷돈이 필요함 |
| 0944 | 이시수(李時秀) | 1745-1821 | 문신 | 해행서 | 32.3×36.8 | 편지, 보낸 다섯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0945 | 김두열(金斗烈) | 1746-? | 서예가 | 해행서 | 26.3×42.7 | 시, 오언율시 |
| 0946 | 이승운(李升運) | 1746-? | 문신 | 초서 | 21.2×37.4 | 편지, 한때 소식 막혀 그림고 답답함 |
| 0947 | 이익운(李益運) | 1748-1817 | 문신 | 초서 | 27.6×23.2 | 편지, 하인 6인을 보낼 수 있음 |
| 0948 | 유득공(柳得恭) | 1748-1807 | 학자 | 해행서 | 16.4×17.2 | 편지, 趙處士를 송별한 오언율시 |
| 0949 | 박제가(朴齊家) | 1750-1805 | 학자 | 해행서 | 23×31.6 | 시, 絕句一頁呈敬菴先生文几 |
| 0950 | 홍의영(洪儀泳) | 1750-1815 | 문신 | 해행서 | 32.8×49.7 | 편지, 朱書筭疑를 비로소 대강 마침 |
| 0951 | 정조(正祖) | 1752-1800 | 왕 | 해행서 | 34.3×35.3 | 편지, 풍년에 斗 대신 石으로 보냄 |
| 0952 | 서미수(徐美修) | 1752-? | 문신 | 해행서 | 28×35.7 | 시, 和呈歸樂窩(칠언율시) |
| 0953 | 이서구(李書九) | 1754-1825 | 문신 | 예서 | 28.6×40.9 | 편지, 치밀치 않은 글을 지적해줌 |
| 0954 | 김낙서(金洛瑞) | 1757-? | 여향인 | 해행서 | 26.7×18.7 | 시, 宋聖訥을 송별한 칠언절구 |
| 0955 | 홍의호(洪義浩) | 1758-1826 | 문신 | 해행서 | 20.8×29.6 | 시, 金富弼께 드린 칠언율시 |
| 0956 | 천수경(千壽慶) | 1758-1818 | 여향인 | 해서 | 32.4×43.1 | 편지, 우리 閭巷人은 서로 철차탁마 |
| 0957 | 장혼(張混) | 1759-1828 | 여향인 | 해서 | 32.1×42.5 | 叙, 문학의 사귀은 평생 갈 수 있음 |
| 0958 | 남공철(南公轍) | 1760-1840 | 문신 | 초서 | 34×47 | 편지, 사직상소의 윤희를 얻지 못함 |
| 0959 | 서영보(徐榮輔) | 1759-1816 | 문신 | 행초서 | 28.3×26 | 편지, 祭官으로 차출됨을 걱정함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0960 | 유한지(兪漢芝) | 1760-? | 서예가 | 전서 | 15.4×9.2 | 휘호, 淸賞 |
| 0961 | 김홍도(金弘道) | 1745-? | 화가 | 해행서 | 27.1×19 | 휘호, 畫逐高風向北飛 |
| 0962 | 지덕구(池德龜) | 1760-? | 여향인 | 해행서 | 32.3×48.6 | 시, 訪王步庚不遇(칠언율시) |
| 0963 | 정약용(丁若鏞) | 1762-1836 | 학자 | 해서 | 26×32.4 | 시, 樊翁宅讌集見招不赴 |
| 0964 | 조수삼(趙秀三) | 1762-1849 | 여향인 | 해서 | 39×52.3 | 시, 金興根을 송별한 칠언율시 |
| 0965 | 이상황(李相瓚) | 1763-1841 | 문신 | 행초서 | 39×52.3 | 편지, 어려운 관직을 맡아 민망함 |
| 0966 | 서유구(徐有槩) | 1764-1845 | 학자 | 해행서 | 30.3×42.2 | 편지, 재해를 조사하는 일로 근심함 |
| 0967 | 김조순(金祖淳) | 1765-1832 | 문신 | 해행서 | 36×47.1 | 편지, 아들은 해직되어 꾀박받지 않음 |
| 0968 | 김노경(金魯敬) | 1766-1837 | 문신 | 해행서 | 24.3×46.8 | 편지, 며칠 후 筆洞을 갈 때 방문함 |
| 0969 | 이익회(李翊會) | 1767-1843 | 문신 | 해행서 | 29.6×37.3 | 편지, 當歸酒와脯를 보내드림 |
| 0970 | 이복현(李復鉉) | 1767-1853 | 시인 | 해행서 | 23×32.2 | 시, 碧蘆舫에서 읊은 2수 |
| 0971 | 박기수(朴耆壽) | 1767-? | 문신 | 해행서 | 23.2×22.8 | 시, 2수의 칠언율시 |
| 0972 | 임득명(林得明) | 1767-? | 여향인 | 해서 | 18×10.5 | 시, 石鼓文의 첫머리 |
| 0973 | 신위(申緯) | 1769-1845 | 서화가 | 해서 | 23×21 | 시, 洪顯周에게 화답한 시 |
| 0974 | 신재식(申在植) | 1770-? | 문신 | 해행서 | 23×27 | 시, 任百淵에게 보낸 칠언절구 |
| 0975 | 성해응(成海應) | 1760-1839 | 학자 | 해행서 | 31.3×45.5 | 편지, 증손자 과거급제에 기쁨 |
| 0976 | 이양연(李亮淵) | 1771-1853 | 문신 | 해행서 | 28×34.6 | 편지, 인품·학문을 士林이 의지 |
| 0977 | 서기수(徐淇修) | 1771-1834 | 문신 | 해행서 | 23×22.5 | 시, 洪顯周에게 화답한 시 |
| 0978 | 박윤묵(朴允默) | 1771-1849 | 문신 | 해행서 | 20.5×27 | 시, 벽에 붙이고 경계한 시 |
| 0979 | 현재덕(玄在德) | 1771-? | 서예가 | 해행서 | 27.4×37.7 | 시, 金稚能께 안부를 전한 시 |
| 0980 | 조광진(曹匡振) | 1772-1840 | 서예가 | 해서 | 26×13.5 | 휘호, 由唐入晉集古字 |
| 0981 | 노운적(盧允迪) | 1772-? | 여향인 | 해서 | 31.2×21 | 叙, 처세는 五倫으로 세움 |
| 0982 | 박종훈(朴宗薰) | 1773-1841 | 문신 | 행초서 | 31.8×42.8 | 편지, 모내기할 비가 내려 기쁨 |
| 0983 | 송상래(宋祥來) | 1773-? | 화가 | 해행서 | 22.3×40 | 휘호, 烹葵邀上客 看竹到貧家 |
| 0984 | 김계온(金啓溫) | 1773-1823 | 문신 | 해행서 | 31×54 | 序, 泛湖帖序 |
| 0985 | 이노집(李魯集) | 1773-? | 문신 | 해서 | 22.9×26.9 | 시, 칠언절구 |
| 0986 | 이지화(李至和) | 1777-? | 서예가 | 초서 | 27×18.5 | 시, 臨溪漫興(칠언절구) |
| 0987 | 홍석주(洪奭周) | 1774-1842 | 문신 | 해행서 | 30.7×49.8 | 편지,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림 |
| 0988 | 홍경모(洪敬謨) | 1774-1851 | 문신 | 해행서 | 37×50.2 | 편지, 진흙 행정 마무리에 안심 |
| 0989 | 홍직필(洪直弼) | 1776-1852 | 학자 | 초서 | 36×47.5 | 편지, 論語는 학자의 근본 바탕임 |
| 0990 | 이지연(李止淵) | 1777-1841 | 문신 | 해행서 | 34×45.7 | 편지, 行部の 업무로 골치 아픔 |
| 0991 | 이광문(李光文) | 1778-1838 | 문신 | 행초서 | 37.5×46.7 | 편지, 이 글로 객지 수심을 씻길 |
| 0992 | 조인영(趙寅永) | 1782-1850 | 문신 | 행초서 | 34.3×37 | 편지, 보낸 삼과 녹용에 감사드림 |
| 0993 | 권돈인(權敦仁) | 1783-1859 | 서화가 | 해행서 | 33.8×51.2 | 편지, 무더위 국방업무를 위로함 |
| 0994 | 김도희(金道喜) | 1783-1860 | 문신 | 해행서 | 31.5×42 | 편지, 年運이 안 맞아 新卜이 낭패 |
| 0995 | 김유근(金迪根) | 1785-1840 | 문신 | 행초서 | 31.3×38.3 | 편지, 보낸 민어와 조기에 감사드림 |
| 0996 | 김정희(金正熙) | 1786-1856 | 서예가 | 해행서 | 29.6×43.7 | 편지, 紙筆에 곧 그림을 그려 보냄 |
| 0997 | 정학연(丁學淵) | 1783-1859 | 시인 | 해행서 | 22.1×43.5 | 편지, 산속 추위 고생에 마음이 쓰임 |
| 0998 | 윤정현(尹定鉉) | 1793-1874 | 문신 | 해행서 | 23.8×36.8 | 시, 志感用前韻奉呈游觀相公 |
| 0999 | 의순(意恂) | 1786-1866 | 승려 | 해행서 | 27.8×25.2 | 시, 石秋를 위한 오언율시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1000 | 전승조(全承祖) | 1787-? | 서화가 | 예서 | 15×21.5 | 歌, 예서로 쓴 醒世歌 |
| 1001 | 김명희(金命喜) | 1788-1857 | 서예가 | 해행서 | 24.2×53.5 | 시, 慈雲居士를 위한 5수 중 2수 |
| 1002 | 홍종응(洪鍾應) | 1783-? | 문신 | 해행서 | 26.2×33 | 시, 칠언절구 |
| 1003 | 홍재철(洪在喆) | 1799-1870 | 문신 | 해행서 | 25.2×33.2 | 시, 又以一自道語敢供兩閣下博粲 |
| 1004 | 신석희(申錫禧) | 1808-1873 | 문신 | 해행서 | 29.2×36.6 | 편지, 咨草의 바른 가르침을 구함 |
| 1005 | 이시원(李是遠) | 1790-1866 | 문신 | 행초서 | 29×37.3 | 편지, 蠅頭細字를 보니 地行仙임 |
| 1006 | 순조(純祖) | 1790-1834 | 왕 | 해서 | 36.1×41 | 휘호, 孝親忠君愛國 |
| 1007 | 이기복(李基福) | 1791-? | 여향인 | 해행서 | 16.2×21.5 | 시, 宋吉甫和陶詩의 앞부분 |
| 1008 | 유최진(柳最鎭) | 1791-? | 서화가 | 초서 | 21.5×22.7 | 시, 청나라 陳浩의 시를 씀 |
| 1009 | 정원용(鄭元容) | 1783-1873 | 문신 | 행초서 | 32.5×46.8 | 편지, 黃岡 樽席에서 어릴 적을 회상 |
| 1010 | 이정신(李鼎臣) | 1792-1858 | 문신 | 초서 | 24.5×33.3 | 편지, 인편이 있어 몇 자로 안부 |
| 1011 | 숙선옹주 (淑善翁主) | 1792-1836 | 정조 둘째딸 | 해서 | 13×2 | 시, 오언절구 |
| 1012 | 홍현주(洪顯周) | 1793-1865 | 부마 | 해행서 | 22.5×21.3 | 시, 칠언율시 2수 |
| 1013 | 김양기(金良驥) | 1792-? | 화가 | 해행서 | 22.8×32 | 시, 霏瓊의 題翠禽畫 제화시 |
| 1014 | 조계승(趙啓昇) | 1794-? | 문신 | 해행서 | 23×26.7 | 시, 칠언절구 |
| 1015 | 최헌수(崔憲秀) | 1792-? | 여향인 | 예서 | 23×27 | 시, 6구절의 오언시 |
| 1016 | 김상희(金相喜) | 1794-1861 | 서예가 | 해행서 | 23.8×46.4 | 시, 慈雲居士를 위한 칠언율시 2수 |
| 1017 | 조두순(趙斗淳) | 1796-1870 | 문신 | 해행서 | 32.7×35.5 | 시, 題游觀相公郊居(칠언율시) |
| 1018 | 김흥근(金興根) | 1796-1870 | 문신 | 행초서 | 34.6×41 | 편지, 홀로 누각에 기대어 생각함 |
| 1019 | 김좌근(金左根) | 1797-1869 | 문신 | 해행서 | 27×41.2 | 시, 칠언절구 2수 |
| 1020 | 허전(許傳) | 1797-1886 | 문신 | 초서 | 29.3×41.2 | 편지, 世稿를 보내니 조상을 공경함 |
| 1021 | 조희룡(趙熙龍) | 1789-1866 | 화가 | 해행서 | 16.2×44 | 편지, 李基福의 은자 기상을 내가 아내 |
| 1022 | 이정민(李鼎民) | 1800-? | 문신 | 해행서 | 28.7×19.5 | 시, 율곡이 퇴계를 알현한 獻詩 |
| 1023 | 서홍순(徐弘淳) | 1798-1876 | 서예가 | 초서 | 43.5×23.5 | 시, 王維의 시로 誤字가 있음 |
| 1024 | 이삼만(李三晩) | 1770-1845 | 서예가 | 해행서 | 25.5×51.2 | 휘호, 趾窩 |
| 1025 | 김영면(金永冕) | 1800-1829 | 여향인 | 해행서 | 26.5×19 | 시, 槐陰臺與趙德章共賦 |
| 1026 | 금파(錦波) | 1800-? | 승려 | 해행서 | 23.5×8.5 | 시, 송별시를 넣었던 봉투 |
| 1027 | 조병구(趙秉龜) | 1801-1845 | 문신 | 해행서 | 33.5×43.2 | 편지, 세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1028 | 김문근(金汶根) | 1801-1863 | 문신 | 초서 | 27×31.5 | 편지, 눈 오는 추위의 국방업무 |
| 1029 | 이종우(李鍾愚) | 1801-? | 서화가 | 해행서 | 17.5×51.7 | 시, 扇面에 쓴 칠언율시 |
| 1030 | 송주헌(宋柱獻) | 1802-? | 문신 | 해행서 | 25.7×27.4 | 편지, 남종화의 粉鉛法 |
| 1031 | 임백연(任百淵) | 1802-? | 문신 | 해행서 | 22.2×26.6 | 시, 칠언고시 |
| 1032 | 이상적(李尙迪) | 1804-1865 | 시인 | 해서 | 23.2×37.4 | 시, 金永爵 회갑을 축하하는 시 |
| 1033 | 조면호(趙冕鎬) | 1803-1887 | 서예가 | 해행서 | 21.7×24.5 | 시, 李寅高 회갑을 축하하는 시 |
| 1034 | 이남식(李南軾) | 1803-1878 | 서화가 | 예서 | 21.8×26 | 시, 이백의 月下獨酌 |
| 1035 | 신응조(申應朝) | 1804-1899 | 문신 | 초서 | 22.8×34.5 | 편지, 지금 글씨는 먹칠만 한 것 |
| 1036 | 신석우(申錫愚) | 1805-1865 | 문신 | 초서 | 36.4×52.4 | 편지, 함부로 벌금을 징수함은 부당 |
| 1037 | 박규수(朴珪壽) | 1807-1876 | 문신 | 해행서 | 30.7×47.7 | 편지, 승정원에 제수되어 황송함 |
| 1038 | 정대림(丁大林) | 1807-? | 문신 | 해행서 | 27.3×47.5 | 편지, 노친의 甄復 추천을 부탁함 |
| 1039 | 강진(姜潛) | 1807-1858 | 서화가 | 해행서 | 23.5×50.3 | 시, 칠언율시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1040 | 정지윤(鄭芝潤) | 1808-1858 | 여향인 | 해행서 | 30×42.6 | 시, 칠언율시 |
| 1041 | 신정왕후조씨 (神貞王后趙氏) | 1808-1890 | 익종의 妃 | 한글 흘림 | 20.5×29.6 | 편지, 대전 침수(寢睡)를 태령(泰寧) 하게 하시옵니다 |
| 1042 | 익종(翼宗) | 1809-1830 | 왕 | 해행서 | 22×42 | 편지, 左將 후보자로 許溟을 추천 |
| 1043 | 신명연(申命衍) | 1809-? | 화가 | 해행서 | 23.1×54.5 | 편지, 법도와 기운이 충만한 聽秋圖 |
| 1044 | 김유연(金有淵) | 1819-1887 | 문신 | 행초서 | 25.6×42.7 | 편지, 곡식 4천 석은 放料로 사용 |
| 1045 | 허련(許鍊) | 1809-1892 | 화가 | 해행서 | 20.2×23 | 시, 칠언율시 |
| 1046 | 조석우(曹錫雨) | 1810-? | 문신 | 행초서 | 21.3×28.5 | 편지, 여러 가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1047 | 남계우(南啓宇) | 1811-1888 | 화가 | 행초서 | 23×44.5 | 편지, 아들과 종형제 과거급제를 축하 |
| 1048 | 심동근(沈東瑾) | 1810-? | 문신 | 해행서 | 33.9×44.8 | 시, 칠언과 오언시 |
| 1049 | 김상현(金尙鉉) | 1811-1890 | 문신 | 해행서 | 24.1×37.9 | 시, 徐承輔의 '遲梅'를 次韻 |
| 1050 | 이유원(李裕元) | 1814-1888 | 문신 | 해행서 | 30.3×46.5 | 편지, 陞資의 은혜와 가친의 還朝 |
| 1051 | 임헌회(任憲晦) | 1811-1876 | 학자 | 초서 | 18×22.5 | 편지, 밤낮으로 아파 죽을까 걱정함 |
| 1052 | 서승보(徐承輔) | 1814-1877 | 문신 | 예서 | 35×11 | 휘호, 賞心樂事 |
| 1053 | 홍순목(洪淳穆) | 1816-1884 | 문신 | 해행서 | 25.3×40.8 | 편지, 처음 맡는 정사에 점차 피곤함 |
| 1054 | 신헌(申櫨) | 1810-1884 | 무신 | 행초서 | 23.2×40.2 | 편지, 군인과 백성이 한가로워 위로됨 |
| 1055 | 서미순(徐眉淳) | 1817-? | 문신 | 해행서 | 23×39.5 | 시, 3수의 칠언절구 |
| 1056 | 이하응(李棼應) | 1820-1898 | 왕족 | 해행서 | 22.6×38 | 편지, 異樣船 출몰에 환란이 눈에 선함 |
| 1057 | 김익용(金益容) | 1820-? | 문신 | 해행서 | 25.5×51 | 편지, 金秀敦을 발탁해 여론에 부응 |
| 1058 | 이만용(李晩用) | 1792-? | 문신 | 해행서 | 23×55.5 | 시, 申緯 시를 차운한 오언고시 |
| 1059 | 신헌구(申獻求) | 1823-? | 문신 | 해행서 | 25.4×44.3 | 시, 金允植께 드린 칠언율시 |
| 1060 | 소휘면(蘇輝冕) | 1814-1889 | 학자 | 해행서 | 26.2×39.8 | 편지, 시호 시기를 연기함에 개탄함 |
| 1061 | 전기(田琦) | 1825-1854 | 화가 | 초서 | 23×13.9 | 편지, 보낸 빈 대련에 그림을 보냄 |
| 1062 | 조인승(曹寅承) | 1842-1896 | 문신 | 해서 | 22×24.6 | 시, 唐繼武가 보낸 시에 次韻함 |
| 1063 | 헌종(憲宗) | 1827-1849 | 왕 | 예서 | 20.1×24.5 | 標題, 8개의 香蘇山館詩鈔 |
| 1064 | 조병세(趙秉世) | 1827-1905 | 문신 | 초서 | 24.7×48.3 | 편지, 돌아가지 못해 公私로 걱정됨 |
| 1065 | 어재연(魚在淵) | 1823-1871 | 무신 | 해행서 | 26×40.2 | 편지, 伏閣하니 신속한 처리를 바램 |
| 1066 | 홍기주(洪岐周) | 1829-? | 문신 | 해행서 | 27.5×41.3 | 시, 謹次 戚叔鄭丈甲筵韻 |
| 1067 | 강위(姜瑋) | 1820-1884 | 학자 | 해행서 | 31.8×41.4 | 시, 陳樹棠께 드린 칠언절구 |
| 1068 | 오경석(吳慶錫) | 1831-1879 | 서화가 | 해행서 | 25.7×12 | 편지, 禮器碑로 용필법을 깨달았음 |
| 1069 | 김석준(金奭準) | 1831-1915 | 시인 | 해행서 | 27.5×21.8 | 시, 戲作 칠언절구 |
| 1070 | 서상우(徐相雨) | 1831-1903 | 문신 | 해행서 | 25.6×32.8 | 편지, 火輪船이 인천항에 정박함 |
| 1071 | 정학교(丁學教) | 1832-1914 | 서화가 | 초서 | 22.5×42 | 편지, 배편으로 부칠 옷 농을 보내길 |
| 1072 | 김기수(金綺秀) | 1832-? | 문신 | 해행서 | 16×49 | 시, 扇面에 쓴 칠언율시 |
| 1073 | 신정희(申正熙) | 1833-1895 | 무신 | 해행서 | 22.3×35.5 | 편지, 보낸 扇竹에 감사드립니다 |
| 1074 | 민태호(閔台鎬) | 1834-1884 | 문신 | 해행서 | 23.2×40.5 | 편지, 邑務의 노고에 도리어 걱정됨 |
| 1075 | 김윤식(金允植) | 1835-1922 | 학자 | 해행서 | 22.5×15.5 | 편지, 작은 고을이 출발점인 셈 |
| 1076 | 오경림(吳慶林) | 1835-? | 서화가 | 해서 | 12.1×9.2 | 시, 칠언절구 |
| 1077 | 김성근(金聲根) | 1835-1919 | 문신 | 해행서 | 30.3×40.2 | 시, 黃鉞 二十四畫品の 蒼潤 |
| 1078 | 이희수(李喜秀) | 1836-1909 | 서화가 | 해행서 | 28×15 | 시, 오언절구 |
| 1079 | 변원규(卞元圭) | 1837-? | 문신 | 해행서 | 23.8×20 | 편지, 입궐해 왕실 경사에 기쁨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1080 | 윤태준(尹泰駿) | 1839-1884 | 문신 | 행초서 | 25×44.3 | 편지, 有司로 재상 명령을 올림 |
| 1081 | 전우(田愚) | 1841-1922 | 학자 | 초서 | 24.8×26 | 편지, 學規를 베껴 실천하기 바람 |
| 1082 | 김홍집(金弘集) | 1842-1896 | 문신 | 행초서 | 26×26 | 편지, 대감 말씀에 公文이 필요하랴 |
| 1083 | 권동수(權東壽) | 1842-? | 문신 | 해행서 | 31.5×43.5 | 시, 칠언절구 |
| 1084 | 윤근(尹困) | 1842-? | 서예가 | 초서 | 19.2×53 | 편지, 扇面에 쓴 난정서 논함 |
| 1085 | 이조연(李祖淵) | 1843-1884 | 문신 | 초서 | 26×42 | 편지, 내일 袁世凱와 꽃구경 약속 |
| 1086 | 양기훈(楊基薰) | 1843-? | 화가 | 해행서 | 27.8×7 | 휘호, 黃花節紫蟹肥 |
| 1087 | 유한익(劉漢翼) | 1844-1923 | 서예가 | 해서 | 34.2×23.5 | 銘, 張繹 좌우명을 베껴 씀 |
| 1088 | 황윤명(黃允明) | 1848-? | 여향인 | 해행서 | 25.1×18.4 | 편지, 정무를 보시느라 뵈 수 없음 |
| 1089 | 이재면(李載冕) | 1845-1912 | 왕족 | 해행서 | 25×24 | 편지, 日函을 報聘大使가 가져갈 것 |
| 1090 | 조영하(趙寧夏) | 1845-1884 | 문신 | 해행서 | 22.5×55.2 | 편지, 周玉山の 초대로 가지 못함 |
| 1091 | 김가진(金嘉鎭) | 1846-1922 | 문신 | 행초서 | 26.1×57.5 | 편지, 謙齋의 白雲洞圖는 至寶임 |
| 1092 | 정현시(鄭憲時) | 1847- ? | 문신 | 해행서 | 22.8×18.8 | 시, 玉芙蓉贊(사언고시) |
| 1093 | 성기운(成岐運) | 1847-? | 문신 | 해행서 | 25.5×23 | 편지, 政府에 들어와 무슨 수작 |
| 1094 | 어윤중(魚允中) | 1848-1896 | 문신 | 해행서 | 25.7×51.7 | 편지, 동학이 성하여 갈 수 없음 |
| 1095 | 이도재(李道宰) | 1848-1909 | 문신 | 행초서 | 23.7×39.5 | 편지, 免職의 윤허를 청함 |
| 1096 | 박영교(朴泳敎) | 1849-1884 | 문신 | 행초서 | 28.3×44 | 편지, 順天府에서 남긴 사랑이 큼 |
| 1097 | 김택영(金澤榮) | 1850-1927 | 학자 | 해행서 | 24.3×29 | 편지, 士民必知 서문을 부탁함 |
| 1098 | 김옥균(金玉均) | 1851-1894 | 문신 | 해행서 | 26×14.5 | 시, 부탁한 2수의 칠언절구 |
| 1099 | 신기선(申箕善) | 1851-1909 | 문신 | 해행서 | 24×25.8 | 편지, 洪寢 상량문을 製述함 |
| 1100 | 강진희(姜璉熙) | 1851-1919 | 서화가 | 예서 | 24.6×24.5 | 편지, 청나라 郭毓圻의 수장품 |
| 1101 | 지창한(池昌翰) | 1851-1921 | 서화가 | 해행서 | 25.6×39.5 | 시, 칠언율시 |
| 1102 | 고종(高宗) | 1851-1919 | 왕 | 해서 | 22.4×30.4 | 편지, 큰비의 피해를 자세히 살핌 |
| 1103 | 이건창(李建昌) | 1852-1898 | 문신 | 행초서 | 23.5×30.5 | 편지, 魚軍容帖 임서와 칠언절구 |
| 1104 | 정대유(丁大有) | 1852-1927 | 서화가 | 예서 | 32×19 | 시, 吳世昌계 曹全碑체로 써 줌 |
| 1105 | 장박(張博) | 1849-1921 | 문신 | 해행서 | 26.3×18 | 휘호, 和衷共濟 |
| 1106 | 지운영(池雲英) | 1852-1935 | 화가 | 해행서 | 15.5×48 | 시, 扇面에 四虛浮浮頌을 씀 |
| 1107 | 윤용구(尹用求) | 1853-1939 | 서화가 | 해행서 | 34.5×32 | 臨書, 鄭燮의 墨蘭 題辭를 임서 |
| 1108 | 박태영(朴台榮) | 1854-? | 문신 | 해행서 | 26.5×32 | 편지, 지금의 형세는 진퇴양난임 |
| 1109 | 홍영식(洪英植) | 1855-1884 | 문신 | 해행서 | 24.7×43 | 편지, 연말 납세 독촉에 걱정됨 |
| 1110 | 김응원(金應元) | 1855-1921 | 서화가 | 예서 | 26.3×18 | 시, 吳世昌계 써 준 칠언율시 |
| 1111 | 조희연(趙羲淵) | 1856-1915 | 문신 | 해행서 | 26.3×18 | 시, 吳世昌계 써 준 오언절구 |
| 1112 | 문유용(文有用) | 1856-? | 내시 | 해행서 | 21.8×27 | 편지, 보낸 사연에 마음이 탐 |
| 1113 | 이기(李琦) | 1856-? | 문신 | 해행서 | 24.5×24.5 | 편지, 正局目錄을 보내드림 |
| 1114 | 현채(玄采) | 1856-1925 | 학자 | 초서 | 24.2×33.7 | 편지, 國事가 형에 달렸는가? |
| 1115 | 유길준(兪吉濬) | 1856-1914 | 문신 | 해행서 | 26.3×18 | 시, 吳世昌계 써 준 오언절구 |
| 1116 | 이완용(李完用) | 1858-1926 | 문신 | 해행서 | 25×14 | 편지, 會同으로 관청에서 기다림 |
| 1117 | 박제순(朴齊純) | 1858-1916 | 문신 | 해행서 | 18.3×44.2 | 편지, 제 문집을 成健齋에 보냄 |
| 1118 | 윤효정(尹孝定) | 1858-1939 | 문신 | 해행서 | 24×26.5 | 편지, 好男兒의 일을 축하드림 |
| 1119 | 서광범(徐光範) | 1859-1897 | 문신 | 행초서 | 26.2×20.5 | 편지, 임금 은혜로 복직을 축하 |

| 번호 | 작가 | 생몰 | 신분 | 서체 | 크기(cm) | 분류, 내용 |
|------|----------|-----------|-----|-----|-----------|-----------------------|
| 1120 | 이준(李儁) | 1859-1907 | 열사 | 해행서 | 24.3×34.5 | 시, 오언절구 |
| 1121 | 이용백(李蓉白) | 1859-? | 여향인 | 해행서 | 25.5×43.5 | 편지, 고향이 북처럼 커져 통증 |
| 1122 | 민영익(閔泳翊) | 1860-1914 | 문신 | 해행서 | 24.6×40.3 | 편지, 회답에 승산이 없어 걱정 |
| 1123 | 민영환(閔泳煥) | 1861-1905 | 문신 | 해행서 | 26×28.8 | 편지, 袁慰廷에 답하라는 임금 뜻 |
| 1124 | 박영호(朴泳孝) | 1861-1939 | 부마 | 해행서 | 25.3×41.5 | 편지, 보낸 부채와 편지지에 감사 |
| 1125 | 손병희(孫秉熙) | 1861-1922 | 종교가 | 해서 | 17×51.2 | 휘호, 氣化 |
| 1126 | 권동진(權東鎭) | 1861-1947 | 정치가 | 행초서 | 26.2×18 | 시, 두보의 茅屋爲秋風所破歌 |
| 1127 | 안중식(安中植) | 1861-1919 | 화가 | 해행서 | 28.4×16.7 | 시, 西湖途中(칠언율시) |
| 1128 | 조중응(趙重應) | 1860-1919 | 문신 | 해행서 | 26.2×18 | 휘호, 論語·子罕의 구절 |
| 1129 | 윤치호(尹致昊) | 1865-1945 | 문신 | 행초서 | 23.8×24 | 편지, 1897년 8월 13일은 紀元節 |
| 1130 | 윤희구(尹希求) | 1867-1926 | 학자 | 해행서 | 18×33.1 | 편지, 대마도 종이에 조선 인장 |
| 1131 | 이진호(李軫鎬) | 1867-1943 | 무신 | 해행서 | 26.3×18 | 시, 吳世昌께 써 준 칠언절구 |
| 1132 | 이준용(李竣鎔) | 1870-1917 | 문신 | 해서 | 26.4×18 | 휘호, 일본 房州에서 吳世昌께 |
| 1133 | 김돈희(金敦熙) | 1871-1937 | 서예가 | 해서 | 27.2×23.5 | 記, 東國史를 베껴서 吳世昌께 |
| 1134 | 김규진(金圭鎭) | 1868-1933 | 서화가 | 초서 | 34×11.5 | 휘호, 칠언 대련 |
| 1135 | 민형식(閔衡植) | 1875-1947 | 문신 | 해행서 | 31.9×43.5 | 시, 吳世昌 81壽에 칠언율시 |
| 1136 | 이도영(李道榮) | 1884-1933 | 서화가 | 해행서 | 18.5×50.5 | 편지, 티끌이 없어 수양에 좋음 |

| | | | | | | | | | | | |
|----|-----|-----|-----|-----|------|-----|----|------|-----|----|-------|
| 신분 | 문신 | 학자 | 서예가 | 서화가 | 화가 | 시인 | 왕실 | 무신 | 여향인 | 기타 | 총계 |
| | 870 | 99 | 32 | 25 | 23 | 20 | 16 | 15 | 13 | 23 | 1,136 |
| 서체 | 전서 | 예서 | | 해서 | | 행서 | | 초서 | | 한글 | 총계 |
| | 4 | 12 | | 101 | | 728 | | 290 | | 1 | 1136 |
| 분류 | 편지 | 시 | 휘호 | 서 | 명(銘) | 제발 | 기타 | 총계 | | | |
| | 741 | 358 | 17 | 6 | 3 | 2 | 9 | 1136 | | | |

『근묵(槿墨)』의 목록 1책과 본문 34책에 수록한 필적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 목록 : 성명(姓名)·자호(字號)·향관(鄉貫)·시대(時代)·직업(職業)·계통(係統) 등을 기록함
- 제01책, 36점 :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현보(李賢輔, 1467-1555)
- 제02책, 43점 : 어득강(魚得江, 1470-1550)에서 원혼(元混, 1505-1897)
- 제03책, 37점 : 정렴(鄭濂, 1505-1549)에서 김수일(金守一, 1528-1583)
- 제04책, 37점 : 최황(崔滉, 1529-1603)에서 이수봉(李壽鵬, 1537-?)
- 제05책, 32점 : 윤근수(尹根壽, 1537-1616)에서 유희경(劉希慶, 1545-1636)
- 제06책, 35점 : 김응남(金應南, 1546-1598)에서 강인(姜綏, 1555-1634)
- 제07책, 32점 : 이항복(李恒福, 1556-1618)에서 김덕함(金德咸, 1562-1636)
- 제08책, 30점 : 기자헌(奇自獻, 1562-1624)에서 유역(柳湜, 1567-1624)
- 제09책, 39점 : 이홀(李屹, 1568-1630)에서 권도(權濤, 1575-1644)
- 제10책, 39점 : 유희량(柳希亮, 1575-1628)에서 김광욱(金光煜, 1580-1656)

- 제11책, 40점 : 김육(金堉, 1580-1658)에서 허후(許厚, 1588-1661)
제12책, 38점 : 신익성(申翊聖, 1588-1661)에서 이기조(李基祚, 1595-1653)
제13책, 40점 : 이경석(李景奭, 1595-1671)에서 박서(朴遂, 1602-1653)
제14책, 39점 : 이완(李浣, 1602-1674)에서 정시성(鄭始成, 1608-1686)
제15책, 32점 : 오달제(吳達濟, 1609-1637)에서 조윤석(趙胤錫, 1615-1664)
제16책, 28점 : 이정영(李正英, 1616-1686)에서 이요(李潏, 1622-1658)
제17책, 32점 : 홍주국(洪柱國, 1623-1680)에서 조경망(趙景望, 1629-1694)
제18책, 32점 : 윤증(尹拯, 1629-1694)에서 유지발(柳之發, 1633-1705)
제19책, 32점 : 김필진(金必振, 1635-1705)에서 심익현(沈益顯, 1641-1683)
제20책, 33점 : 권상하(權尙夏, 1641-1721)에서 이정(李觀, 생물 미상)
제21책, 30점 : 최규서(崔奎瑞, 1650-1735)에서 권중경(權重經, 1658-1728)
제22책, 28점 : 이이명(李頤命, 1658-1728)에서 임수간(任守幹, 1665-1721)
제23책, 28점 : 조정강(趙正綱, 1666-?)에서 심택현(沈宅賢, 1674-1736)
제24책, 30점 : 조태억(趙泰億, 1675-1728)에서 이진수(李眞洙, 1684-1732)
제25책, 29점 : 김진상(金鎭商, 1684-1732)에서 이천보(李天輔, 1698-1761)
제26책, 30점 : 윤심형(尹心衡, 1698-1754)에서 윤동섭(尹東暭, 1710-1795)
제27책, 29점 : 권진응(權震應, 1711-1775)에서 김시구(金蓍耆, 1724-1795)
제28책, 24점 : 이성원(李性源, 1725-1790)에서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제29책, 28점 : 정종로(鄭宗魯, 1738-1816)에서 지덕구(池德龜, 1760-?)
제30책, 27점 :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서 홍직필(洪直弼, 1776-1852)
제31책, 37점 : 이지연(李止淵, 1777-1841)에서 금파(錦波, 1800-?)
제32책, 33점 : 조병구(趙秉龜, 1801-1845)에서 신헌구(申獻求, 1823-?)
제33책, 37점 : 소휘면(蘇輝冕, 1814-1889)에서 박영교(朴泳教, 1849-1884)
제34책, 40점 : 김택영(金澤榮, 1850-1927)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

이를 보면, 책마다 24~40점씩 34책에 모두 1,136점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표의 분류에 의하면, 신분은 문신·학자·서예가·서화가·화가·시인·왕실·무신·여향인·기타이고, 이 중에서 문신(77%)·학자(8.7%)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문신은 과거급제한 문관(文官)의 신하이고, 이 중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거나 유학자·성리학자·실학자·양명학자로 더 유명한 분들은 학자로 분류하였다. 왕실(王室)은 왕의 집안으로 왕(4)·종실(4)·부마(3)·왕족(2)·왕후(1)·왕자(1)·옹주(1) 등을 포괄한다. 여향인(閩巷人)은 선조 때부터 시작된 중인(中人)·서얼(庶孽)·서리(胥吏) 출신의 하급관리와 평민의 시인·문인·서화가를 가리킨다. 기타는 의병장(10)·승려(6)·민족대표(독립운동가이면서 종교가·정치가 2)·유의(儒醫, 1)·유생(儒生, 1)·효자(1)·내시(中官, 1)·열사(烈士, 1) 등을 포괄한다.

서체는 행서(64%)·초서(26%)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구분이 어렵다. 행서는 서체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정해진 형체나 일정한 서사 기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서 필의가 많으면 해행서(楷行書)라 일컬으니 왕희지의 <난정서(蘭亭序)>가 대표적이고, 행서에 초서 필의가 많으면 행초서(行草書)라 일컬으니 안진경의 <제질고(祭姪稿)>가 대표적이다. 도표의 분류에서는 이에 따라 행서를 해행서(535)와 행초서(193)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인의 문신이나 학자는 전문 서예가와 달리 편지나 시를 쓸 때 서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행서에서도 해서·행서·초서를 자유롭게 섞었기 때문에 분명한 서체의 구분이 쉽지 않다. 또 행초서와 초서는 객관적 구분이 어려워 주관적 판단에 맡겨 결정하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류는 편지·시·회호·서·명(銘)·제발·기타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편지(65%)·시(31%)가 96%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편지는 짧은 글로 서간(書簡)·서한(書翰)·서찰(書札)·서신(書信)·수찰(手札)·간찰(簡札)·찰한(札翰)·척한(尺翰)이라고도 한다. 시는 평측(平仄)·용운(用韻)·대구(對句) 등에 엄격한 규칙이 있는 절구(絕句)·율시(律詩)의 근체시(近體詩)와, 평측(平仄)이나 구수(句數)의 제한이 없는 고시(古詩, 古體詩)를 포괄한다. 서는 서(序, 2)·서(叙, 2)·소서(小序, 1)·시서(詩序, 1) 등을 포괄한다. 명(銘)은 중명(鍾銘, 1)·좌우명(座右銘, 1)·묘지명(墓誌銘, 1) 등을 포괄한다. 기타는 기(記, 2)·부(賦, 2)·임서(臨書, 1)·사(詞, 1)·가(歌, 1)·표제(標題, 1)·찬(贊, 1) 등을 포괄한다.

이상을 보면, 『근목』에 보이는 우리나라 선인의 문신·학자들은 행서·초서로 대부분 편지·시를 썼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편지의 역할은 매우 크니, 홍명희(洪命熹, 1888~1968)가 소설 『임격정』에서 “양반은 편지로 살고, 아전은 포핍(逋欠)으로 살고, 기생은 웃음으로 살지마는……”이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편지는 사대부의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양반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서성(書聖)이라 일컫는 왕희지의 작품은 거의 편지이고 첩학(帖學)의 종조로 여기며, 이를 법첩(法帖)이라 일컫는다. 이에 관해서는 송나라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이른바 법첩이란 것은 그 일이 대략 모두 조문하고 애도하며, 기후와 병문안을 하고 이별을 서술하며, 소식과 안부를 물으면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보냈으니 불과 몇 줄일 뿐이다. 대개 처음 글씨에 뜻을 두지 않고 날랜 붓으로 남은 흥이 무르익으며 소쇄하게 붓을 갈겨쓰니 혹 끊기도 하고 혹 밀기도 하면서 갖가지 자태가 뜻밖에 생겨난다. 두루마리를 펼치고 편지를 펴면 찬란함이 눈에 들어와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 까무러치게 함을 본 것 같다. 천천히 이를 보면 그 뜻과 자태가 더욱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후세 이를 얻으면 기이한 완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생각해본다.”²¹⁹⁾라고

219) 歐陽脩, 『集古錄跋尾·晉王獻之法帖一』卷五：“所謂法帖者，其事率皆吊哀候病，敘睽離，通訊問，施於家人朋友之間，不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편지는 처음부터 글씨에 뜻을 두지 않고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아서 다양한 자태가 나오고 필의도 무궁하다. 특히 대부분 행초서로 이를 쓰므로 더욱 풍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보면, 편지가 주를 이루는 『근묵』은 의미가 있는 서첩이라 하겠다.

2. 문제점

오세창이 1943년에 성첩한 『근묵(槿墨)』은 1911년에 완성한 『근역서휘(槿域書彙)』와 함께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묵』에 수록된 글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진위판단,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 서명이 없는 필적의 신빙성, 대필의 필적, 1943년 성첩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위판단은 주로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국한하니, 정몽주(鄭夢周, 1337~1392)·길재(吉再, 1353~1419)·이개(李塏, 1417~1456) 등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록 진짜로 보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짜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성첩한 오세창의 감식안과 수록한 의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필적은 원본을 본뜨거나 번각(飜刻)한 모본(摹本), 또는 썼다고 전해지는 전칭작(傳稱作)으로 보아야 한다. 현전하는 왕희지의 작품은 진적이 없고 모두 모본으로 전하지만 그 시대의 서풍을 볼 수 있다. 오세창이 이들 명류(名流)의 필적으로 수록한 의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다.

둘째,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는 안평대군 이용(李瑢, 1418~1453)이 대표적이다. 그가 썼다는 “城峻隨天壁，連連睥睨侵。浮雲連海岱，世亂戟如林。”과 “方丈三韓外，開帆駕洪濤。篙工密逞巧，利涉想蟠桃。”이라는 2수의 오언절구 시는 김육(金瑬, 1580~1658)이 1636년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을 다녀오는 길에 당나라 시인 두보의 오언시를 집구(集句)한 것으로 제목은 각각 「산해관(山海關)」·「각화도(覺華島)」이다. 이는 『잠곡선생유고(潛谷先生遺稿)』권3 ‘집두오언절구(集杜五言絕句)’에 실려 있고, 17세기의 시이어서 안평대군 이용의 글씨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학문과 감식안이 높았던 오세창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용 필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그의 필의를 닮은 필적을 선택하여 서명하지 않고 ‘비해당유묵(匪懈堂遺墨)’이란 제목 아래에 수록하였다. 이는 비록 이용의 필적이 아니더라도 그의 필의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수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서명이 없는 필적으로 맹사성(孟思誠, 1360~1438)·황희(黃喜, 1363~1452)·김수온(金守溫, 1409~1481) 등이 있는데, 이들 필적은 비록 역대 명인(名人)의 필적을 집성(集成)한다는 목적의식에서 수록하였으나 진위판단의 기준작이 없어

過數行而已。蓋其初非用意，而逸筆餘興，淋漓揮灑，或妍或醜，百態橫生。披卷發函，爛然在目，使人驟見驚絕。徐而視之，其意態愈無窮盡。故使後世得之，以爲奇玩，而想見其人也。”

신빙할 수 없다. 또한 박은(朴聞, 1479~1504) 필적은 “辛巳二月一日聞”이라 서명이 있지만, 지본(紙本)·필법(筆法)은 후대의 양식이고 그의 생존에 신사(辛巳, 1461·1521)라는 간지가 없어 신빙할 수 없다.

넷째, 대필의 필적으로 정언황(丁彦璜, 1597~1672)과 임수적(任守迪, 1671~1744)이 있다. 이들 필적에 의하면, 정언황은 병으로 피곤하여 천초(倩草, 대필)한다[病困倩草]고 하였으며, 사연으로 볼 때 쓴 날짜는 8월 17일이 아니라 27일인 것이다. 임수적은 눈병이 바야흐로 괴로워 천초한다[眼病方苦倩草]고 하였다. 이를 보면, 이것들은 정언황과 임수적이 직접 쓴 필적이 아니라 대필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943년에 성첩하였기 때문에 근대유물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금석·서예·회화·전각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오세창의 성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대문화재로 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록한 필적이 모두 조선 시대의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대문화재가 아닌 동산문화재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묵』은 오세창이 수집하여 성첩하였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수록된 필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동산문화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 문제점은 세로와 가로로 순서, 가로와 세로로 순서가 섞여 있어 수록한 필적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연대순 나열에서 이숙량(李叔樑)·김부륜(金富倫)·이해수(李海壽)·김복(金玔)·우성전(禹性傳)·최영경(崔永慶)·이일(李鎰)·김연광(金鍊光) 등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임제(林悌, 1550~1621)와 한희(韓懷, 1549~1587)는 연대순과 작품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작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에서의 문제이므로 『근묵』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여기에서는 『근묵』의 첫머리에 수록한 정몽주의 필적을 살펴보고 이상의 문제점들을 대변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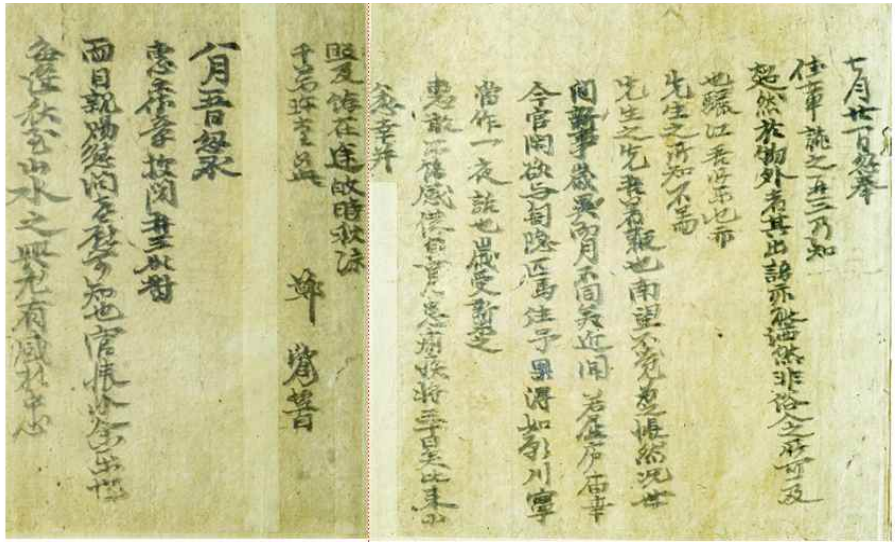
정몽주(220)는 ‘동방 이학의 시조[東方理學之祖]’로 추앙하고, 정치적으로 고려 말기 정승의 자리에 오르며 큰일이 나더라도 사리에 맞게 처결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몽주의 필적은 『근묵(槿墨)』·『선현첩(先賢帖)』(2첩)·『성인록(成

220) 정몽주(鄭夢周, 1337~1392)는 본관이 영일(迎日)이고 처음 이름은 정몽란(鄭夢蘭)·정몽룡(鄭夢龍)이며, 자는 달가(達可)이고 호는 포은(圃隱)이다.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정승명(鄭襲明, 1095~1151)의 후손으로 부친은 정운관(鄭云權, ?~1355)이다. 1357년(공민왕 6) 감시(監試)에 합격하고 1360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문관의 검열(檢閱)·수찬(修撰)이 되었다. 이후 낭장(郎將) 겸 함문지후(閤門祇候)·전농시승(典農寺丞)·예조정랑(禮曹正郎)·태상소경(太常少卿)·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예의사(禮儀司)·문하평리(門下評理)를 거쳐 영원군(永原君)에 봉해졌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내고, 1389년(공양왕 1)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워 이듬해 문하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사 호조상서시사 진현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관대사성 영서운관사(門下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戶曹尙瑞寺事進賢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領書雲館事)로 익양군충의군(益陽郡忠義君)에 봉군되고, 순충논도동덕좌명공신(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의 호를 받았다. 1391년 인물추변도감제고관(人物推辨都監提調官)이 되어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더하였고, 이듬해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趙英珪, ?~1395) 등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주자집주(朱子集註)』에 대한 강설이 뛰어났다. 송나라 유학자 호병문(胡炳文, 1250~1333)의 『사서통(四書通)』이 전해지면서 내용이 정몽주의 강설과 맞아떨어져서 모두 탄복하였다. 그의 충절을 대변하는 「단심가(丹心歌)」로 유명하고, 문집은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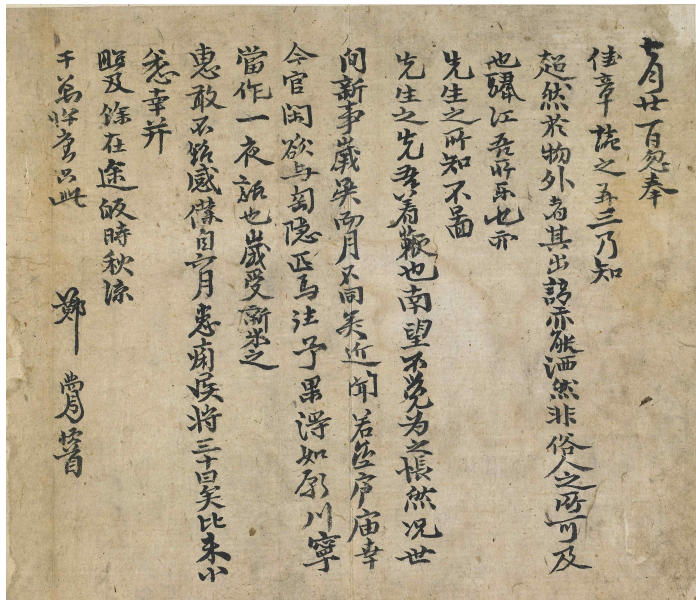
仁錄)』·『근역서회(權域書彙)』 등에 보인다.



『성인록(成仁錄)』



『선현첩(先賢帖)』



『근묵(權墨)』



『근역서회(權域書彙)』

『근묵』의 해행서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은 18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여말선초선현첩(麗末鮮初先賢帖)』(이하 簡稱 『先賢帖』)에 수록한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과 ‘팔월오일첩(八月五日帖)’ 중 하나이다. 두 편지의 내용은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습유(拾遺)·답둔촌서(答遁村書)』 권3과 이집(李集, 1327~1387)의 『둔촌잡영(遁村雜詠)』에 보인다. 7월 21일 편지에 이집이 여강(驪江)의 천녕(川寧)으로 은퇴한 사연이 나오는데, 이집의 「묘갈문(墓碣文)」에 의하면 1380년의 일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정몽주가 1380년 7월 21일에 이집의 편지를 받고 쓴 것임을 알 수 있고, 8월 5일 편지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무렵에 썼을 것이다.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1581년(선조 14)에 송나라 충신 문천상(1236~1282)과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네 편지를 모각한 『성인록』 끝에는 “위는 이집(李集, 1327~1387, 호는 遁村)에게 부친 수간이다[右奇遁村手簡].”라고 하였다. 여기에 수록한 네 편지는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팔월오일첩(八月五日帖)’·‘별후현갈첩(別後懸渴帖)’ 세 편지와 본문은 없어지고 ‘십일월입사일(十一月廿四日)’이란 월일과 추신만 남은 편지이다. 그리고 『근역서회』에는 정몽주의 오언고시 「용수편이공봉운(用首篇李供奉韻)」을 비단에 쓴 것이 있는데, 대부분 결락되고 12자만 남은 조각이다. 이는 오세창의 감식을 거친 것이고, 또한 조정의 금보(金寶)·옥책(玉冊)과 사찰·누관(樓觀)의 편액을 많이 썼던 정몽주의 외손 윤사국(尹師國, 1728~1809)도 인정한 것이어서 정몽주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중에서 『근목』에 수록한 ‘칠월입일첩(七月廿一帖)’이 『선현첩』과 『성인록』에 보이는데,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1행 | 3행 | 4행 | 7행 | 9행 | 11행 | 13행 |
|-------|-----|----|----|----|----|-----|-----|
| | 七月廿 | 超 | 也 | 矣 | 作 | 愈 | 珍 |
| 『先賢帖』 | | | | | | | |
| 『成仁錄』 | | | | | | | |
| 『槿墨』 | | | | | | | |

<先賢帖·成仁錄·槿墨에 보이는 정몽주의 ‘七月廿一帖’ 서체 비교>

이 중에서 『선현첩』 글씨는 종이에 열은 먹으로 써서 용필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七月’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超’자에서 ‘召’와 ‘走’의 마지막 필획인 날획, ‘也’자에서 위로 향해 갈고리로 처리한 도필(挑筆), ‘矣’자의 먹색 변화와 ‘作’자의 가로획, ‘愈’자의 ‘心’에서 보이는 가는 필획과 무겁게 누른 점, ‘珍’자의 필획 변화 등이다. 이는 원본을 본떠 그리거나 써서 새긴 모각(摹刻)과 원본을 본뜨거나 번각(飜刻)한 글씨의 모본(摹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는 오직 필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어서 『선현첩』 글씨는 순수 쓴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성인록』은 모각의 특징이 분명하고, 『근목』은 모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목』 전체의 글씨를 보면, 미묘한 용필의 특징이 보이지 않고, 농담의 먹색 변화가 없으며, 자연스러운 필세(筆勢)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순수 쓴 필적을 모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

본과 가짜 작품은 구별이 있다. 만약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가짜 작품을 제작한 모본은 위작(僞作) 또는 안작(贗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같은 모본이라도 희귀본으로 후세에 길이 전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이를 가짜 작품이라 보기 어렵다. 당 태종 이세민이 <난정서>의 모본을 제작한 의도는 후자에 속하니, 후세 이를 가짜 작품이라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를 보면, 정몽주의 필적이 비록 모본에 속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진위판단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식안이 뛰어났던 오세창이 이를 첫머리에 수록한 진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진위판단, 서명과 필적의 불일치, 서명이 없는 필적의 신빙성, 대필의 필적 등 문제점은 『근목』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보이는 것이어서 전체의 가치에 비하면 옥에 티라 하겠다. 또 성첩이 1943년이라는 문제점은 수록된 필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동산문화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3. 가치와 의의

『근목』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까지 근 600년에 걸친 우리나라 선인 1,136점을 모은 서첩이다. 이는 서예에서의 가치와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린 편지 내용은 다른 어떠한 종류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여 여러 방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예에서의 가치이다.

『근목』은 1,136명이 한문과 한글을 포함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한글 등 각종 서체를 망라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예사·서체·서예가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이는 모두 비각(碑刻)이 아니라 묵적(墨蹟)이고, 현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로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600년의 살아있는 서예사이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필적은 한국서예사 연구의 기준작이고, 서풍의 변화과정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서체는 한문의 각종 서체와 한글을 망라하였고, 이를 쓴 사람은 왕에서 승려까지 다양한 계층을 담고 있어 ‘한국역대 서예가사전(韓國歷代書藝家辭典)’에서의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이들이 쓴 글씨는 전문 서예가와 그렇지 않은 신분의 구분으로 말미암아 실용서예와 예술서예가 섞여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서예 분야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여항인(閻巷人)의 필적을 상당수 수록하여 이 분야 연구의 개척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둘째, 인장사·수결·시전지(詩箋紙)의 가치이다.

인장을 날인한 인영은 박상(朴祥, 1474~1530)에서 제일 먼저 보인 이후 민형식(閔衡植, 1875~1947)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 중기·후기에는 가문에 따라 인장을 애용한 경우가 많아서 조선 고유의 전통적 낙관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청나라 학계와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문신과 학자를 막론하고 인장을

사용한 수준이 높아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풍이 들어오면서 인장의 풍격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근목』에 실린 인장은 『근역인수(權域印藪)』에 거의 실리지 않아 우리나라 인장사에 소중한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인장 이외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소세양(蘇世讓, 1486~1562)·장옥(張玉, 1493~1550)·이숙량(李淑梁, 1519~1592) 등에서 보이는 다양한 수결(手決, 署押·花押)은 필적의 진위를 판정하는 믿을 만한 기준이 되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 편지나 시를 쓰는 종이의 시전지(詩箋紙)가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지질은 고정지(靛精紙, 黃紙)·감지(紺紙)·상피지(桑皮紙)·저지(楮紙) 등 작가의 취향에 맞게 독특한 문양을 찍어 사용하였는데, 대개 목판을 이용하여 채색을 가미하여 찍었다. 시전지는 조선 시대 채색판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고, 한지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셋째, 생활사 연구의 자료 가치이다.

『근목』에 실린 것 중에 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600년간에 걸친 우리 선인들의 생활사이기도 하다. 이 중에는 정치·학술·문학에 관한 것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 친구끼리의 증답(贈答)과 가족 간의 문안(問安)이 주를 이룬다. 중요한 청탁은 대체로 별지(別紙)를 사용했는데, 이는 대개 당시에 없애버려서 전하지 않고, 문집에도 ‘서(書)’라는 항목이 있으나 내용이 학술·문학·역사적 의의가 없는 것은 대체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근목』에 실린 편지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시 경제사·문화사·사회사는 물론이고 일반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서(序·叙·小序·詩序)·기(記)·제발(題跋) 등도 대부분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화사적으로 참고 자료의 귀중한 가치가 있다.

먼저 편지에 주고받거나 부탁한 물품을 살펴보면, 대략 음식·먹(眞墨·珍墨·眞玄)·붓(白筆)·동백즙·약재·종이(名楮·白紙·紙束·刺紙·印冊紙·簡楮·簡幅·편지지)·부채(節扇·扇竹·節箒·妙箒·紙箒·扇面)·회시답안지·력(冊曆·新曆·曆日)·혼례복·혼례비용·인삼·녹용·잣·꿩(膏雉·生雉)·책의(冊衣)·해산물(물고기·차조기·송어·乾魚·碧魚·민어·조기)·모자·게·꿀·털이불·호박(琥珀)·재목·차자(筍子)·기름·마초(馬草)·약물·과일·꽃감·토산품·얼음(氷帖·氷丁)·죽장(竹漿)·노(努)·말(馬)·대자리·구기자·복분자·책·소금·고기·초료(草料)·노자·가죽신·쌀·남초(南草)·용안육(龍眼肉)·황연환(黃連丸)·감당(柑糖)·당귀주(當歸酒)·포(脯)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경제생활을 연구하는 데에 참고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이외에 한중외교사와 사사로운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사신으로 중국에 네 번 갔는데, 모두 정기적이거나 의례적이 아닌 중요한 임무를 띤 특별한 사신이였다. 네 번의 사행을 떠나며 그가 받은 송별시는 40여 수가 『근목』에 실려 있는데, 일괄 자료 중에 가장 많다.

이는 16세기 말기에서 17세기 초기에 이르는 한중외교사, 한중교류사, 조선인의 대중국관 등을 엿보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정조(正祖, 1752~1800)의 편지는 친척에게 물품을 하사한 것들이 보인다. 즉 벼 한 석, 담배 두봉, 계장 한 항아리, 밤 한 말인데, 이 중에서 계장을 빼고는 모두 창덕궁에서 재배한 것들이다. 특히 내원(內苑)에서 재배한 담배가 토양이 적합하여 맛이 좋아 평안도 삼등(三登)에서 나는 질 좋은 담배에 못지않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편지는 아내를 잃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쓴 것이다. 김정희는 일찍이 아내를 잃어 봐서 그 슬픔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해학 겸 위로를 하였다. 아내를 잃었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슬픔을 삭이는 데는 “종려나무 싹갓을 쓰고 오동나무 나막신을 신고 산색을 보고 강물 소리를 들으며 방랑하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비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용정차(龍井茶)와 대나무 필통을 받고 종이부채에 그림을 그려 돌려보내는 등 내용은 짧으나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용백(李蓉白, 1859~?)의 편지는 풍습(風濕)으로 하초(下焦)의 병이 되어 오른쪽 고환이 커지며 걸가죽이 감처럼 붉고 윤기가 난다는 내용이다. 이는 편지가 남에게 말 못할 비밀스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유용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윤치호(尹致昊, 1865~1945)의 편지는 1392년 음력 7월 16일에 개국한 이성계의 조선 건국일을 우리나라 기원절(紀元節)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독립협회가 주체가 되어 1897년 양력 8월 13일에 개국 505회 기원절 기념식을 독립관에서 거행하였다. 이 편지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독립협회의 성격규명과 정신적 지향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이준(李儁, 1859~1907) 열사가 쓴 오언절구에 오세창은 추도사를 덧붙였는데, 이는 1907년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가서 순절한 이준의 거사를 흠모하며 천고에 길이 추앙받을 것이란 찬사를 올린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매국노라 지탄받는 이완용(李完用, 1858~1926)도 글씨로 이름이 있는데, 『근묵』에 수록한 것은 특이한 일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광노봉, 『한국서예사』, 다운샘, 2020.
- 河永輝, 「鄭夢周의 두 편지의 글씨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98, 2017.
- 『근묵』(영인본 5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 『근묵』(4책: 상하, 상하부록,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청문사, 1981).

○ 기 타

오세창은 우리나라 서화를 수집하여 1937년 수집이 완료된 이후 ‘근묵(槿墨)’이란

이름의 서첩 제작을 시작해서 1943년(80세)에 성첩하였고, 작고한 이후 1962년 12월 유족들은 성균관대학교도서관에 이를 양도하였고, 1964년 6월 22일 박물관이 개관되자 이곳으로 이관되었다. 성균관대학교박물관은 1969년 3월 31일 『근목』 전용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설치하고 보관하여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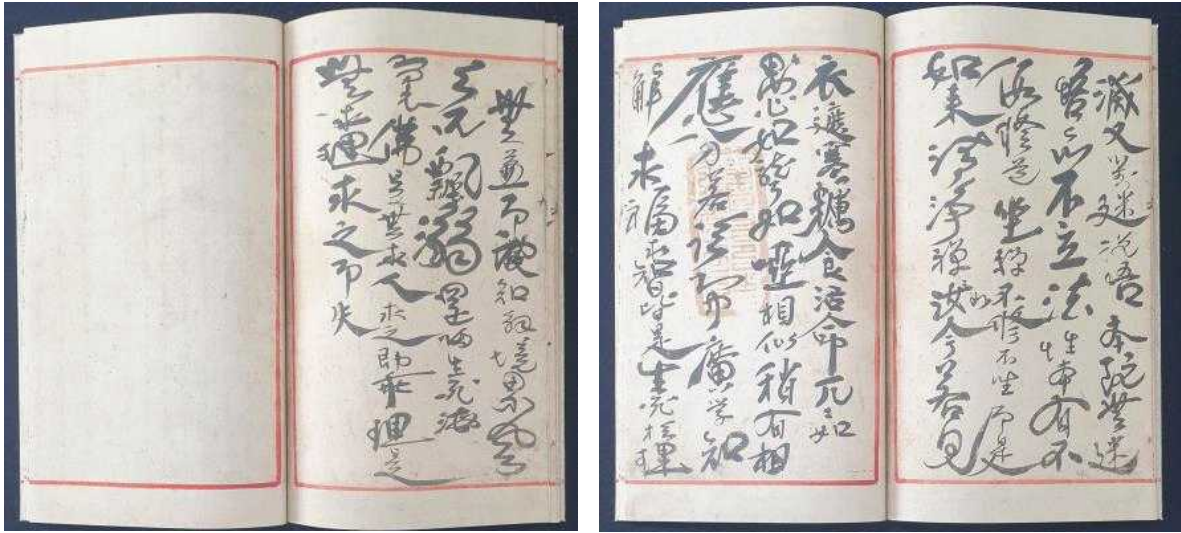
완정함

○ 내용 및 특징

『근목』은 고려 말 정몽주로부터 근대 이도영에 이르는 1,136명의 필사본을 연대순으로 한 점씩 편집한 서간 위주의 34첩과 목록집 1책 등 모두 35첩으로 꾸며져 있다. 여기에 각 인물마다의 간개(簡介)를 덧붙여 근 600년 간의 서예인명 사전적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예의 흐름과 예술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기 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2010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대흥사 소장 서산대사의 『정선사가록』을 지정조사한 바 있는데, 모두 14장의 첩장 중에 7, 8, 9장이 산실(散失)되어 큰 하자가 있었지만 결국 지정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 9째 장이 『근목』에 실려 있음을 대흥사 말사인 미황사의 주지 향문이 필자에게 알려왔으며 나머지 7, 8은 필자한테 내용을 필사케 하여 완정본을 꾸민다고 하였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대흥사에서 완정본을 만들고자 하는 가본의 책자에서 찍은 것으로서 9째 장을 『근목』에서 취하여 복사해 넣은 것이다. 여기에 7, 8장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정 후에라도 장물운운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

○ 현 상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근목>

『근목』은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고려 말부터 근대기에 이르는 우리나라 역대 명사들의 필적을 모아서 만든 서첩이다. 표지 제첨이나 표제(標題)에 「八十葦」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80세이던 1943년에 이 서첩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엮은 서첩은 『근목』보다 앞선 만든 『근역서휘(槿域書彙)』(1911)가 있는데, 이 서첩은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위창이 남긴 공적은 이러한 서첩의 완성에 그치지 않는다. 곧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인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을 저술함으로써 후일 서예사, 미술사학 등 관련 분야 연구

에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근목』이란 근역(權域)의 목적(墨蹟)으로 이해되며, 모두 1,136명의 글씨를 각각 한 점씩 모아 모두 34첩에 생존 시기 순으로 편성해 놓았다. 첫 번째는 고려 말의 정몽주(鄭夢周, 1337~1392), 마지막은 이도영(李道榮, 1884~1933)의 필적까지 편성한 국내 최대 분량의 서첩이다. 수록된 인물의 신분은 국왕에서 중인 심지어 천인 계층까지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 1책에 34첩의 편성 순서대로 수록해 놓았는데, 성명, 자, 호, 관향, 시대, 계통 등을 적어 놓았다. 34첩에 수록된 필적 인물은 <표1>의 차례와 같다.

<표1> 34첩에 수록 편성된 필적(인물)

| 첩 | 필적(인물) | 수 |
|---|--|----|
| 1 | 정몽주(鄭夢周), 강회백(姜淮伯), 정도전(鄭道傳), 길 재(吉 再), 맹사성(孟思誠), 황 희(黃 喜), 최덕지(崔德之), 최흥효(崔興孝), 황수신(黃守身), 이석형(李石亨), 김수온(金守溫), 권 람(權 擘),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이 용(李 瑑), 이 개(李 垲), 유성원(柳誠源), 서거정(徐居正), 권 전(權 專), 김종직(金宗直), 노사신(盧思愼), 김시습(金時習), 홍귀달(洪貴達), 성 현(成 俔), 이의무(李宜茂), 김굉필(金宏弼), 조지서(趙之瑞), 송 질(宋 軼), 이계맹(李繼孟), 강백진(康伯珍), 성희안(成希顔), 정광필(鄭光弼), 신용개(申用漑), 김일손(金駟孫), 지 엄(智 嚴), 이현보(李賢輔) | 36 |
| 2 | 어득강(魚得江), 남 곤(南 袞), 박 영(朴 英), 이장곤(李長坤), 박 상(朴 祥), 김안국(金安國), 박 은(朴 閏), 이 자(李 耜), 김안로(金安老), 조광조(趙光祖), 김 식(金 湜), 공서린(孔瑞麟), 이연경(李延慶), 정순명(鄭順明), 신광한(申光漢), 박 훈(朴 薰), 소세양(蘇世讓), 정옥형(丁玉亨), 이성동(李成童), 김 구(金 絀), 정사룡(鄭士龍), 기 준(奇 遵), 이언적(李彦迪), 조 성(趙 晟), 성수침(成守琛), 상 진(尙 震), 장 옥(張 玉), 심달원(沈達源), 송지한(宋之翰), 성수중(成守琮), 주세붕(周世鵬), 김 먼(金 沔), 백인걸(白仁傑), 심봉원(沈逢源), 조 옥(趙 昱), 이 찬(李 滌), 이 항(李 恒), 김홍윤(金弘胤), 이준경(李浚慶), 이 황(李 滉), 조 식(曹 植), 원 혼(元 混) | 43 |
| 3 | 정 량(鄭 璜), 원호변(元虎變), 박충원(朴忠元), 엄 혼(嚴 昕), 황기로(黃耆老), 윤 복(尹 復), 김인후(金麟厚), 김부인(金富仁), 유희춘(柳希春), 김우평(金宇宏), 박난영(朴蘭英), 주 이(周 怡), 양사준(楊士俊), 신 호(申 護), 노수신(盧守愼), 심수경(沈守慶), 이희검(李希儉), 송 인(宋 寅), 양사언(楊士彦), 허 엽(許 曄), 노 진(盧 禎), 이 량(李 樑), 휴 정(休 靜), 이숙량(李淑梁), 김부륜(金富倫), 조 목(趙 穆), 신희중(申孝仲), 김제갑(金悌甲), 이희득(李希得), 이양원(李陽元), 정 탁(鄭 琢), 구봉령(具鳳齡), 금응협(琴應夾), 기대승(奇大升), 신 점(申 點), 남몽오(南夢鰲), 김수일(金守一) | 37 |
| 4 | 최 황(崔 滉), 금난수(琴蘭秀), 구사맹(具思孟), 이광준(李光俊), 김부신(金富信), 권호문(權好文), 황정옥(黃廷彧), 최경회(崔慶會), 고경명(高敬命), 윤두수(尹斗壽), 이해수(李海壽), 정 작(鄭 碓), 정유일(鄭惟一), 배삼익(裴三益), 김명원(金命元), 송익필(宋翼弼), 조정기(趙廷機), 성 혼(成 渾), 심의겸(沈義謙), 김 룩(金 玊), 우성전(禹性傳), 이 이(李 珪), 정 철(鄭 澈), 송응개(宋應漑), 최영경(崔永慶), 정개청(鄭介淸), 송한필(宋翰弼), 이제신(李濟臣), 이 일(李 鎰), 권 울(權 慄), 조종도(趙宗道), 김천일(金千鎰), 이충원(李忠元), 김연광(金鍊光), 백광훈(白光勳), 홍인건(洪仁健), 이수봉(李壽鵬) | 37 |
| 5 | 윤근수(尹根壽), 김성일(金誠一), 최철건(崔鐵堅), 이산해(李山海), 이 달(李 達), 최경창(崔慶昌), 최 립(崔 昱), 김극일(金克一), 김취려(金就礪), 유운룡(柳雲龍), 권춘란(權春蘭), 김홍민(金弘敏), 금응훈(琴應薰), 홍가신(洪可臣), 홍 진(洪 進), |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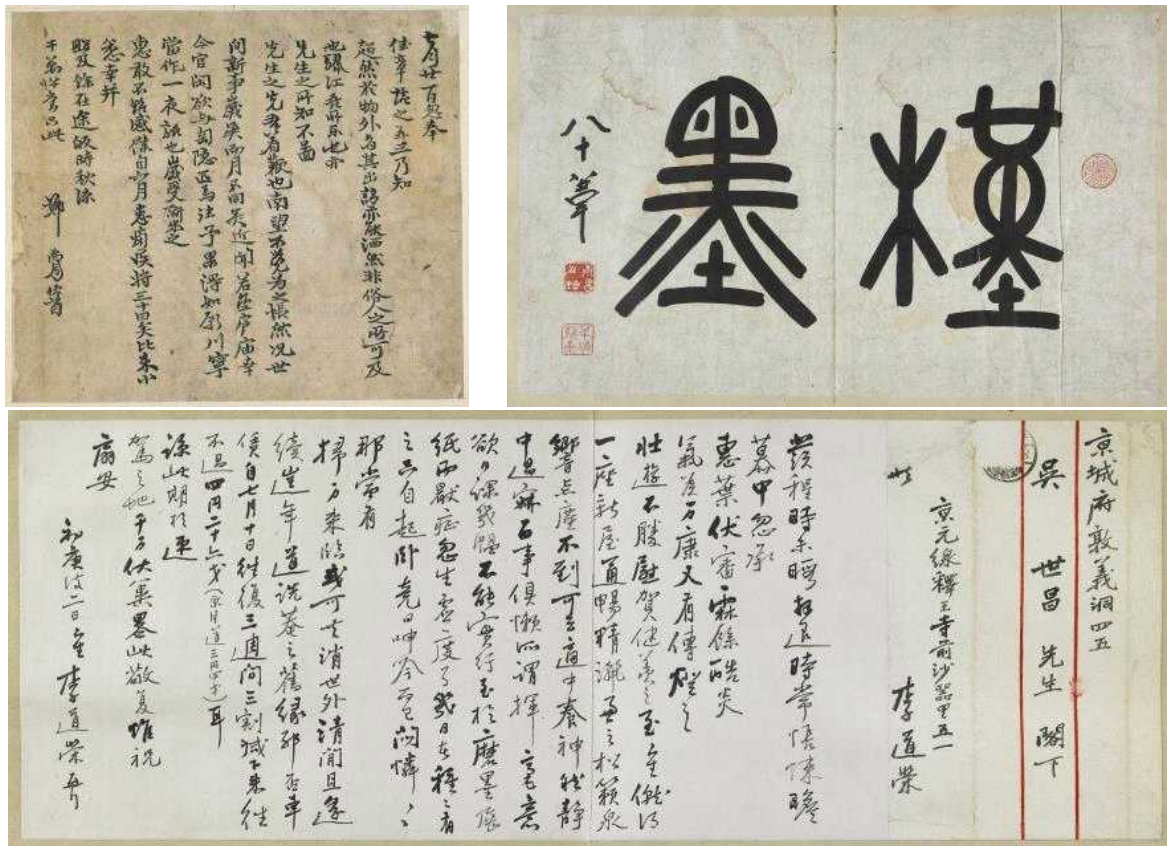
| 첩 | 필적(인물) | 수 |
|----|---|----|
| | 김복일(金復一), 이덕홍(李德弘), 이 정(李 霆), 이 우(李 瑀), 황 진(黃 璣), 김현성(金玄成), 유성룡(柳成龍), 송언신(宋言愼), 한 준(韓 準), 한 호(韓 濩), 정 구(鄭 述), 강 신(姜 紳), 조 헌(趙 憲), 이 발(李 潑), 유 정(惟 政), 정윤목(鄭允穆), 유희경(劉希慶) | |
| 6 | 김응남(金應南), 심 대(沈 岱), 이원익(李元翼), 김 수(金 睟), 김 기(金 圻), 김택룡(金澤龍), 우복룡(禹伏龍), 김여물(金汝物), 심희수(沈喜壽), 김장생(金長生), 허 성(許 箴), 이인기(李麟奇), 홍이상(洪履祥), 유 근(柳 根), 임 계(林 悌), 한 회(韓 懷), 한언침(韓彦忱), 송상현(宋象賢), 허 봉(許 筠), 신 식(申 湜), 정광직(鄭光績), 이광정(李光挺),곽재우(郭再祐), 조 탁(曹 倬), 김덕겸(金德謙), 권 우(權 宇), 박홍구(朴弘耆), 정홍명(鄭弘溟), 이호민(李好閔), 오덕령(吳德齡), 이덕윤(李德胤), 고종후(高從厚), 장현광(張顯光), 김 해(金 垓), 강 인(姜 綱) | 35 |
| 7 | 이항복(李恒福), 차천로(車天輅), 조 익(趙 翊), 이정면(李廷冕), 허 적(許 適), 이 숙(李 瀟), 이경운(李卿雲), 송영구(宋英耆), 이상길(李尙吉), 한준겸(韓浚謙), 이 귀(李 貴), 홍경신(洪慶臣), 서 성(徐 滂), 유몽인(柳夢寅), 구 성(具 成), 김의원(金義元), 윤광계(尹光啓), 오윤겸(吳允謙), 성문준(成文濬), 차운로(車雲輅), 권극중(權克中), 이 준(李 竣), 김종남(金終男), 이상의(李尙毅), 오백령(吳百齡), 정효성(鄭孝成), 이덕형(李德馨), 김상용(金尙容), 이 각(李 覺), 김순명(金順命), 황 신(黃 愼), 김덕함(金德誠) | 32 |
| 8 | 기자헌(奇自獻), 이홍주(李弘胄), 조존세(趙存世), 윤 방(尹 昉), 정 엽(鄭 曄), 배대유(裴大維), 정경세(鄭經世), 이수광(李睟光), 이의건(李義健), 김지남(金止男), 진 식(全 湜), 권 겹(權 翰), 성여학(成汝學), 이정구(李廷龜), 박동열(朴東說), 이유희(李綏祿), 민형남(閔馨南), 황익중(黃益中), 유 숙(柳 瀟), 백진남(白振南), 권 반(權 盼), 남이공(南以恭), 김수현(金壽賢), 신 흠(申 欽), 이덕형(李德炯), 장 만(張 晩), 한민정(韓敏政), 이경전(李慶全), 강 주(姜 籟), 유 역(柳 湫) | 30 |
| 9 | 이 흘(李 屹), 윤안국(尹安國), 심 열(沈 悅), 허 균(許 筠), 정 온(鄭 蘊), 박동량(朴東亮), 목서흠(睦叙欽), 심 집(沈 誦), 황경중(黃敬中), 권 필(權 驊), 양형우(梁亨遇), 이민성(李民成), 임 서(林 悊), 김상헌(金尙憲), 김 류(金 瑬), 윤 황(尹 煌), 이춘원(李春元), 양인용(梁仁容), 정홍익(鄭弘翼), 윤 휘(尹 暉), 심 액(沈 詒), 이안눌(李安訥), 이 목(李 槩), 홍서봉(洪瑞鳳), 조찬한(趙讚韓), 목장흠(睦長欽), 김신국(金薰國), 조정호(趙廷虎), 정호서(丁好恕), 이시직(李時稷), 홍명원(洪命元), 윤 환(尹 暄), 이형욱(李馨郁), 이현영(李顯英), 안방준(安邦俊), 김덕보(金德普), 김 집(金 集), 남이웅(南以雄), 권 도(權 濤) | 39 |
| 10 | 유희량(柳希亮), 이선복(李善復), 조희일(趙希逸), 이지완(李志完), 엄 성(嚴 惺), 양극선(梁克選), 기윤헌(奇允獻), 신경진(申景禛), 정충신(鄭忠信), 남이흥(南以興), 유성증(兪省曾), 최 연(崔 蓆), 임숙영(任叔英), 정광성(鄭廣成), 신민일(申敏一), 고용후(高用厚), 이경직(李景稷), 김대덕(金大德), 신계영(辛啓榮), 조 박(趙 璞), 홍무직(洪茂績), 고부천(高傅川), 고부립(高傅立), 김 령(金 垪), 김영조(金榮祖), 김시국(金蓍國), 윤계선(尹繼善), 박 로(朴 籟), 이중길(李重吉), 민응형(閔應亨), 한필원(韓必遠), 조 익(趙 翼), 정기광(鄭基廣), 윤이지(尹履之), 서경주(徐景耑), 김 확(金 燾), 임 광(任 統), 이성신(李省身), 김광욱(金光煜) | 39 |
| 11 | 김 욱(金 埵), 김응하(金應河), 김시양(金時讓), 유 림(柳 琳), 홍명형(洪命亨), 이정남(李井男), 윤신지(尹新之), 유 진(柳 軫), 박홍중(朴弘中), 김 개(金 闔), 유충립(柳忠立), 정세규(鄭世規), 윤 계(尹 槩), 홍 영(洪 甕), 김광현(金光炫), 한여직(韓汝漫), 이 식(李 竝植), 이성구(李聖求), 이계선(李繼先), 이경여(李敬輿), 정세구(鄭世矩), 김지수(金地粹), 조 경(趙 綱), 심대부(沈大孚), 최명길(崔鳴吉), 신 유(申 濡), 김 상(金 尙), 정광경(鄭廣敬), 홍 호(洪 鎬), 오 준(吳 竣), 한흥일(韓興一), 장 유(張 維), 유백증(兪伯曾), 김응조(金應祖), 최유연(崔有淵), 윤선도(尹善道), 조 빈(趙 贇), 최유해(崔有海), 황일호(黃一皓), 허 후(許 厚) | 40 |
| 12 | 신익성(申翊聖), 이지정(李志定), 이 광(李 珖), 성여관(成汝寬), 이민구(李敏求), | 38 |

| 첩 | 필적(인물) | 수 |
|----|--|----|
| | 조위한(趙緯韓), 임 련(林 棟), 이지천(李志賤), 김 반(金 槃), 이시백(李時白), 김광혁(金光赫), 윤순지(尹順之), 조문수(曹文秀), 유정량(柳廷亮), 구인기(具仁暨), 강대수(姜大逵), 이 해(李 澥), 박 미(朴 瀾), 조계원(趙啓遠), 오 숙(吳 翹), 정 연(鄭 沆), 송민고(宋民古), 신천익(愼天翊), 김세렴(金世濂), 원두표(元斗杓), 유경창(柳慶昌), 심지원(沈之源), 기만헌(奇晩獻), 이시방(李時昉), 이응시(李應蓍), 심동구(沈東龜), 윤의립(尹毅立), 백상빈(白尙賓), 조 숙(趙 涑), 강학년(姜鶴年), 이명한(李明漢), 김덕승(金德承), 이기조(李基祚) | |
| 13 | 이경석(李景奭), 허 목(許 穆), 민광훈(閔光勳), 정유성(鄭維城), 윤순거(尹舜舉), 김남중(金南重), 조수익(趙壽益), 홍명구(洪命耇), 임 담(林 潭), 박 정(朴 炆), 이행진(李行進), 김광찬(金光燦), 정두경(鄭斗卿), 이후산(李後山), 정인황(丁彦璜), 박 황(朴 潢), 윤 강(尹 絳), 송시길(宋時吉), 이소환(李昭漢), 이후원(李厚源), 박 의(朴 漪), 홍 탁(洪雨濯), 김시온(金是榘), 유 주(柳 澍), 민 엽(閔 業), 신익룡(申翊隆), 손필대(孫必大), 심지명(沈之溟), 채유후(蔡裕後), 정 양(鄭 養), 이시해(李時楷), 유명립(柳命立), 이 진(李 袵), 이 무(李 袤), 임 진(林山專), 홍처후(洪處厚), 이상일(李尙逸), 이지안(李志安), 윤형각(尹衡覺), 박 서(朴 遂) | 40 |
| 14 | 이 완(李 浣), 김홍옥(金弘郁), 정태화(鄭太和), 김 소(金 素), 강백년(姜栢年), 이홍연(李弘淵), 남노성(南老星), 이산뢰(李山賚), 유 영(柳 穎), 이 계(李 桂), 홍주일(洪柱一), 권 시(權 認), 황 호(黃 屎), 김득신(金得臣), 임의백(任義伯), 채성구(蔡聖龜), 윤 집(尹 集), 이행우(李行遇), 조 형(趙 珩), 홍주원(洪柱元), 이 회(李 禴), 조석윤(趙錫胤), 장차주(張次周), 유 철(俞 徹), 윤문거(尹文學),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홍명하(洪命夏), 홍처량(洪處亮), 유 계(俞 槩), 이유태(李惟泰), 이시술(李時術), 민응협(閔應協), 허 격(許 格), 신 면(申 冕), 조종운(趙從耘), 조한영(曹漢英), 유 심(柳 滄), 정시성(鄭始成) | 39 |
| 15 | 오달재(吳達濟), 정치화(鄭致和), 조복양(趙復陽), 목행선(睦行善), 이익한(李翊漢), 남 환(南 翎), 김시번(金始蕃), 허 적(許 積), 윤선거(尹宣舉), 박세모(朴世模), 오정일(吳挺一), 유 석(柳 碩), 김익희(金益熙), 한진기(韓震琦), 석지형(石之珩), 권대운(權大運), 이정기(李廷夔), 이일상(李一相), 박장원(朴長遠), 김익렴(金益廉), 홍중보(洪重普), 최 관(崔 寬), 정지화(鄭知和), 오정원(吳挺垣), 이상진(李尙眞), 장선징(張善徵), 유 창(俞 場), 서필원(徐必遠), 민 희(閔 熙), 민 점(閔 點), 이가상(李嘉相), 조윤석(趙胤錫) | 32 |
| 16 | 이정영(李正英), 이태연(李泰淵), 조구석(趙龜錫), 조세환(趙世煥), 윤 휴(尹 鑄), 김좌명(金佐明), 유혁연(柳赫然), 김우형(金字亨), 조중운(趙仲耘), 이경휘(李慶徽), 목내선(睦來善), 이은상(李殷相), 심 유(沈 攸), 정 익(鄭木益), 임 규(任 奎), 이관징(李觀徵), 김시진(金始振), 임 중(任 重), 권대재(權大載), 김우명(金佑明), 이만상(李萬相), 이경억(李慶億), 신 만(申 冕), 심광사(沈光泗), 조위봉(趙威鳳), 유탉연(柳卓然), 유형원(柳馨遠), 이 요(李 潛) | 28 |
| 17 | 홍주국(洪柱國), 이유상(李有相), 황 윤(黃 玠), 정창도(丁昌燾), 남일성(南一星), 조효창(曹孝昌), 유담후(柳譚厚), 김수증(金壽增), 오두인(吳斗寅), 신 혼(申 混), 심 재(沈 梓), 이원정(李元禎), 이단하(李端夏), 이민적(李敏迪), 여성계(呂聖齊), 남이성(南二星), 정시한(丁時翰), 이 숙(李 翻), 김수흥(金壽興), 이명은(李命殷), 윤지선(尹趾善), 송광식(宋光植), 민정중(閔鼎重), 이단상(李端相), 이익상(李翊相), 남용익(南龍翼), 이하진(李夏鎭), 신 정(申 晷), 이원록(李元祿), 박세당(朴世堂), 송인명(宋寅明), 조경망(趙景望) | 32 |
| 18 | 윤 증(尹 拯), 남구만(南九萬), 김수항(金壽恒), 민유중(閔維重), 송규렴(宋奎濂), 이세화(李世華), 서문상(徐文尙), 목천성(睦天成), 박세채(朴世采), 최후상(崔後尙), 홍만용(洪萬容), 유하익(俞夏益), 조 근(趙 根), 유성삼(柳星三), 윤 진(尹 摺), 박신규(朴信圭), 오시수(吳始壽), 민종도(閔宗道), 이서우(李瑞雨), 유명천(柳命天), 이 선(李 選), 정유악(鄭維岳), 정재송(鄭載嵩), 조사석(趙師錫), 송일중(宋日中), 김구만(金龜萬), 이민서(李敏紘), 김만기(金萬基), 권 유(權 愈), 한 영(韓 潑), | 32 |

| 첩 | 필적(인물) | 수 |
|----|--|----|
| | 민취도(閔就道), 유지발(柳之發) | |
| 19 | 김필진(金必振), 윤 심(尹 深), 이인환(李寅煥), 신익상(申翼相), 서문중(徐文重), 이만웅(李萬雄), 신여철(申汝哲), 김석주(金錫胄), 홍석구(洪錫龜), 윤지완(尹趾完), 박세성(朴世城), 김만중(金萬重), 이세백(李世白), 엄 집(嚴 緝), 심 단(沈 檀), 김 주(金 澍), 유상운(柳尙運), 박태상(朴泰尙), 이 우(李 侁), 오시복(吳始復), 임 당(任 堂), 나양좌(羅良佐), 송광연(宋光淵), 임상원(任相元), 유이승(柳以升), 조지겸(趙持謙), 권 해(權 階), 조상우(趙相愚), 조위명(趙威明), 원성유(元聖俞), 임 방(任 望), 심익현(沈益顯) | 32 |
| 20 | 권상하(權尙夏), 엄정구(嚴鼎耆), 이 돈(李 墩), 이세필(李世弼), 홍수주(洪受疇), 유명현(柳命賢), 이인징(李麟徵), 김성직(金盛迪), 이세구(李世龜), 박경후(朴慶後), 심 별(沈 機), 오도일(吳道一), 이 유(李 濡), 강 선(姜 銑), 임윤원(任胤元), 목창명(睦昌明), 민진주(閔鎭周), 최석정(崔錫鼎), 한대동(韓泰東), 정시윤(丁時潤), 신 완(申 琬), 이진은(李震殷), 신 엽(申 晷), 이현석(李玄錫), 정 호(鄭 濤), 김창집(金昌集), 박태유(朴泰維), 박태항(朴泰恒), 김 구(金 構), 정제두(鄭齊斗), 김홍복(金洪福), 임 영(林 泳), 이 정(李清見) | 33 |
| 21 | 최규서(崔奎瑞), 강 현(姜 覲), 김시징(金始徵), 송주석(宋疇錫), 김창협(金昌協), 이대성(李大成), 서종태(徐宗泰), 김창흠(金昌翕), 김시걸(金時傑), 박태순(朴泰淳), 신계화(申啓華), 홍세태(洪世泰), 유집일(兪集一), 박행의(朴行義), 권두추(權斗樞), 최석항(崔錫恒), 이희조(李喜朝), 박태보(朴泰輔), 민창도(閔昌道), 남학명(南鶴鳴), 이덕성(李德成), 정유점(鄭維漸), 이인엽(李寅燁), 윤지인(尹趾仁), 권상유(權尙游), 윤덕준(尹德駿), 송상기(宋相琦), 여필중(呂必重), 이진휴(李震休), 권중경(權重經) | 30 |
| 22 | 이이명(李頤命), 김창업(金昌業), 김진규(金鎭圭), 이정신(李正臣), 홍중하(洪重夏), 조태로(趙泰老), 이만성(李晩成), 민진후(閔鎭厚), 유봉휘(柳鳳輝), 이 제(李 濟), 조태구(趙泰耆), 조태채(趙泰采), 이태좌(李台佐), 이해조(李海朝), 이관명(李觀命), 김주신(金柱臣), 김시환(金始煥), 유광익(柳光翼), 이수장(李壽長), 이 서(李 澈), 김창즙(金昌緝), 신 심(申 鐸), 이건명(李健明), 심수현(沈壽賢), 성 환(成 儻), 민진원(閔鎭遠), 신 임(申 鉞), 임수간(任守幹) | 28 |
| 23 | 조정강(趙正綱), 권 섭(權 燮), 정도복(丁道復), 홍치중(洪致中), 오태주(吳泰周), 권이진(權以鎭), 홍중성(洪重聖), 이 조(李 肇), 윤두서(尹斗緒), 이진유(李眞儒), 최창대(崔昌大), 이의현(李宜顯), 채팽윤(蔡彭胤), 김춘택(金春澤), 김유경(金有慶), 김 고(金 槲), 맹만택(孟萬澤), 이병연(李秉淵), 임수적(任守迪), 이진망(李眞望), 어유봉(魚有鳳), 조영복(趙榮福), 오명항(吳命恒), 이덕수(李德壽), 김이만(金履萬), 이광좌(李光佐), 조경명(趙景命), 심택현(沈宅賢) | 28 |
| 24 | 조태억(趙泰億), 어유구(魚有龜), 이병상(李秉常), 이진순(李眞淳), 이하곤(李夏坤), 김동필(金東弼), 엄경우(嚴慶遇), 이 재(李 縉), 김제겸(金濟謙), 윤 순(尹 淳), 조문명(趙文命), 홍계적(洪啓迪), 홍봉조(洪鳳祚), 서명균(徐命均), 이 익(李 瀼), 조상경(趙尙綱), 신유한(申維翰), 신정하(申靖夏), 정내교(鄭來僑), 김재로(金在魯), 김치후(金致后), 한원진(韓元震), 황익재(黃翼再), 윤봉구(尹鳳九), 이일제(李日躋), 채지홍(蔡之洪), 이의병(李宜炳), 홍의인(洪義人), 임상덕(林象德), 이진수(李眞洙) | 30 |
| 25 | 김진상(金鎭商), 이현모(李顯謨), 이정섭(李廷燮), 조영석(趙榮碩), 여선장(呂善長), 조명교(曹命教), 남유용(南有容), 권 만(權 萬), 황 정(黃 晷), 유최기(俞最基), 강 박(姜 樸), 조관빈(趙觀彬), 조지빈(趙趾彬), 조현명(趙顯命), 유척기(俞拓基), 박문수(朴文秀), 유 엄(柳 儼), 이종성(李宗城), 정우량(鄭羽良), 조구명(趙龜命), 영 조(英 祖), 민우수(閔遇洙), 이태중(李台重), 윤 급(尹 汲), 임 정(任 珽), 김광수(金光遂), 이유경(李儒慶), 남하행(南夏行), 이천보(李天輔) | 29 |
| 26 | 윤심형(尹心衡), 김상익(金尙翼), 오 원(吳 瑗), 김용겸(金用謙), 김원행(金元行), 김양행(金亮行), 이의철(李宜哲), 이광찬(李匡贊), 조명채(曹命采), 정하연(鄭夏彦), 신 만(申 晩), 김상성(金尙星), 이창의(李昌誼), 이광사(李匡師), 이수일(李秀逸), | 30 |

| 첩 | 필적(인물) | 수 |
|----|--|----|
| | 정휘량(鄭翬良), 신 회(申 晦), 이성중(李成中), 심사정(沈師正), 윤 용(尹 惛), 허 필(許 泌), 황경원(黃景源), 서종급(徐宗汲), 이인상(李麟祥), 송문흠(宋文欽), 김시찬(金時燦), 김위재(金偉材), 이상정(李象靖), 이광려(李匡呂), 윤동심(尹東暹) | |
| 27 | 권진응(權震應), 이맹휴(李孟休), 유이복(柳以復), 김근행(金謹行), 김상복(金相福), 강세황(姜世晃), 서지수(徐志修), 이광정(李光靖), 이윤영(李胤永), 김순택(金純澤), 조운규(趙雲逵), 한광회(韓光會), 이양천(李亮天), 서명용(徐命膺), 김치인(金致仁), 조봉진(曹鳳振), 김상숙(金相肅), 오 찬(吳 瓚), 이용휴(李用休), 송명흠(宋明欽), 이복원(李福源), 채제공(蔡濟恭), 원인손(元仁孫), 김종후(金鍾厚), 정범조(丁範祖), 김 익(金 煜), 정상순(鄭尙淳), 홍양호(洪良浩), 김시구(金蓍耆) | 29 |
| 28 | 이성원(李性源), 이 미(李 瀾), 조운형(曹允亨), 서명선(徐命善), 조 경(趙 璈), 송환기(宋煥箕), 목만중(睦萬中), 오재순(吳載純), 김화택(金和澤), 김중수(金鍾秀), 윤사국(尹師國), 이보온(李普溫), 신광수(申光洙), 정재원(丁載遠), 황운조(黃運祚), 홍대용(洪大容), 나 열(羅 烈), 성대중(成大中), 이한진(李漢鎭), 신대우(申大羽), 이일운(李日運), 이조원(李祖源), 김노진(金魯鎭), 박지원(朴趾源) | 24 |
| 29 | 정종로(鄭宗魯), 이언진(李彦瑱), 이영익(李令翊), 이덕무(李德懋), 이가환(李家煥), 이정운(李鼎運), 최 북(崔 北), 김좌두(金佐斗), 이충익(李忠翊), 이시수(李時秀), 김두열(金斗烈), 이승운(李升運), 이익운(李益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홍의영(洪儀泳), 정 조(正 祖), 서미수(徐美修), 이서구(李書九), 김낙서(金洛瑞), 홍의호(洪義浩), 천수경(千壽慶), 장 혼(張 混), 남공철(南公轍), 서영보(徐榮輔), 유한지(俞漢芝), 김홍도(金弘道), 지덕구(池德龜) | 28 |
| 30 | 정약용(丁若鏞), 조수삼(趙秀三), 이상황(李相璜), 서유구(徐有渠), 김조순(金祖淳), 김노경(金魯敬), 이익회(李翊會), 이복현(李復鉉), 박기수(朴耆壽), 임득명(林得明), 신 위(申 緯), 신재식(申在植), 성해응(成海應), 이양연(李亮淵), 서기수(徐淇修), 박윤묵(朴允默), 현재덕(玄在德), 조광진(曹匡振), 노운적(盧允迪), 박종훈(朴宗薰), 송상래(宋祥來), 김계온(金啓溫), 이노집(李魯集), 이지화(李至和), 홍석주(洪奭周), 홍경모(洪敬謨), 홍직필(洪直弼) | 27 |
| 31 | 이지연(李止淵), 이광문(李光文), 조인영(趙寅永), 권돈인(權敦仁), 김도희(金道喜), 김유근(金迥根), 김정희(金正喜), 정학연(丁學淵), 윤정현(尹定鉉), 의 순(意 恂), 전승조(全承祖), 김명희(金命喜), 홍종영(洪鍾英), 홍재철(洪在喆), 신석희(申錫禧), 이시원(李是遠), 순 조(純 祖), 이기복(李基福), 유최진(柳最鎭), 정원용(鄭元容), 이정신(李鼎臣), 숙선옹주(淑善翁主), 홍현주(洪顯周), 김양기(金良驥), 조계승(趙啓昇), 최헌수(崔憲秀), 김상희(金相喜), 조두순(趙斗淳), 김흥근(金興根), 김좌근(金左根), 허 진(許 傳), 조희룡(趙熙龍), 이정민(李鼎民), 서홍순(徐弘淳), 이삼만(李三晩), 김영면(金永冕), 금 파(錦 波) | 37 |
| 32 | 조병구(趙秉龜), 김문근(金汶根), 이종우(李鍾愚), 송주헌(宋柱獻), 임백연(任百淵), 이상직(李尙迪), 조면호(趙冕鎬), 이남식(李南軾), 신응조(申應朝), 신석우(申錫愚), 박규수(朴珪壽), 정대림(丁大林), 강 진(姜 潛), 정지윤(鄭芝潤), 김유연(金有淵), 신정왕후조씨(神貞王后趙氏), 익 종(翼 宗), 신명연(申命衍), 김유연(金有淵), 허 련(許 鍊), 조석우(曹錫雨), 남계우(南啓宇), 심동근(沈東瑾), 김상현(金尙鉉), 이유원(李裕元), 임헌회(任憲晦), 서승보(徐承輔), 홍순목(洪淳穆), 신 현(申 櫛), 서미순(徐眉淳), 이하응(李晙應), 김익용(金益容), 이만용(李晩用), 신헌구(申獻求) | 33 |
| 33 | 소휘면(蘇輝冕), 전 기(田 琦), 조인승(曹寅承), 헌 종(憲 宗), 조병세(趙秉世), 어재연(魚在淵), 홍기주(洪岐周), 강 위(姜 璋), 오경석(吳慶錫), 김석준(金奭準), 서상우(徐相雨), 정학교(丁學教), 김기수(金綺秀), 신정희(申正熙), 민태호(閔台鎬), 김윤식(金允植), 오경림(吳慶林), 김성근(金聲根), 이희수(李喜秀), 변원규(卞元圭), 윤태준(尹泰駿), 전 우(田 愚), 김홍집(金弘集), 권동수(權東壽), 윤 균(尹 困), 이조연(李祖淵), 양기훈(楊基薰), 유한익(劉漢翼), 황윤명(黃允明), 이재면(李載冕), 조영하(趙寧夏), 김가진(金嘉鎭), 정헌시(鄭憲時), 성기운(成岐運), 어윤중(魚允中), | 37 |

| 첩 | 필적(인물) | 수 |
|----|--|----|
| | 이도재(李道宰), 박영교(朴泳敎) | |
| 34 | 김택영(金澤榮), 김옥균(金玉均), 신기선(申箕善), 강진희(姜璉熙), 지창한(池昌翰), 고종(高宗), 이견창(李建昌), 정대유(丁大有), 장박(張博), 지운영(池雲英), 윤용구(尹用求), 박태영(朴台榮), 홍영식(洪英植), 김응원(金應元), 조희연(趙義淵), 문유용(文有用), 이기(李琦), 현채(玄采), 유길준(兪吉濬), 이완용(李完用), 박제순(朴齊純), 윤효정(尹孝定), 서광범(徐光範), 이준(李儔), 이용백(李蓉白), 민영익(閔泳翊), 민영환(閔泳煥), 박영호(朴泳孝), 손병희(孫秉熙), 권동진(權東鎭), 안중식(安中植), 조중응(趙重應), 윤치호(尹致昊), 윤희구(尹希求), 이진호(李軫鎬), 이준용(李竣鎔), 김돈희(金敦熙), 김규진(金圭鎭), 민형식(閔衡植), 이도영(李道榮) | 40 |



<제1책 첫 장의 표제면(우상), 정몽주 필적(좌상), 이도영 필적(하)>

34첩은 모두 첩장(帖裝) 형식이다. 비단으로 된 표지의 제첩에는 『權墨』, 「八十華」가 쓰여 있고, 「葦蒼翰墨」 등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제1첩의 첫 장도 이와 유사하다. 필적은 크기에 따라 양면에 1장 또는 단면에 1장을 수록하였는데, 글씨를 쓴 인명과 생몰년 등 저자 사항을 필적 오른쪽의 첨지(添紙)에 적어 놓았다. 1,136점의 필적은 모두 개인의 필적이기는 하나 내용으로 보면 이 서첩에 수록된 인물끼리 주고받았던 필적도 있다. 그중에는 중종 7년(1512)에 이현보(李賢輔)가 지은 칠언절구 2수에 대해 이장곤(李長坤), 박상(朴祥), 정사룡(鄭士龍) 등이 차운한 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수록된 필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선행 조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목록(별책)의 표지(우상), 첫 장부터 마지막 장(시계 반대방향)>

문장의 종류는 서간 724점, 시 359점, 제액(題額) 15점, 기(記) 10점, 부(賦) 7점, 서(序) 5점, 화제(畫題) 3점, 증언(證言) 2점, 비명 2점, 발 2점, 찬 1점, 잠언 1점, 법어(法語) 1점, 표제(表題) 1점, 유지(諭旨) 1점, 물목(物目) 1점, 종명(鐘銘) 1점 등이다. 서체는 행서가 595점, 초서가 468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서 57점, 전서, 예서가 16점이다. 이렇게 근목은 필적의 수록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안평대군 이용(李瑢)의 글씨로 소개된 시는 김육(金堉)이 인조 14년(1636)에 지은 시로 그의 문집 『잠곡유고(潛谷遺稿)』에 수록되는 등 진위 논란이 있는 필적이 있다. 이렇게 진위 논란의 대상은 비교 대상의 필적이 없거나 여말선초 인물의 필적에 대한 것이 많다. 그러나 『근목』은 당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여말로부터 구한말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필적들을 모아 시대순으로 편성한 역사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위논란은 『근목』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비한다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근목』(영인본 5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 『근목』(4책: 상하, 상하부록,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청문사, 1981).

- 『근목해제』(https://museum.skku.edu/museum/collection/collection_2.d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문화재 조사보고서』(서울특별시, 2018).

○ 기 타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목』을 소장하게 된 경위는, 1964년에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이후 동대학 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에서는 1981년에 영인본(상하, 상하부록), 2009년에도 원본과 같은 크기로 영인본(5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하여 보급하였다.



○ 내용 및 특징

《근목》의 내용과 특징을 서사자, 서체, 문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서첩에는 영조, 정조,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임금, 정몽주, 정도전, 황희, 이하응 등 문신, 이황, 조식, 이이, 이익, 정약용 등 학자, 권율, 광재우, 김천일, 이완 등 무장, 홍세태, 정래교, 이언진, 천수경, 오경석 등 여항인, 승려인 지엄, 휴정, 유정, 초의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조선 초기 이래의 저명 서화가들의 글씨가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대거 수록되어 있다. 즉 최홍효, 김구, 황기로, 양사언, 한호, 허목, 이서, 이광사, 김정희, 김돈희 등 조선 초기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손꼽히는 명필들의 목적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이정, 심사정, 이인상, 최북, 김홍도, 안중식 등 저명 화가들의 글씨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여항인과 서화가들의 글씨가 《근목》에 다수 수록된 것은 글씨를 수집하고 장첩한 오세창이 역관의 후예이자 탁월한 서예가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서첩에 수록된 글씨를 서체 별로 분류하면 행서 595점, 초서 468점, 해서 57점, 예서 12점 등이고 문체별로 보면 서간 724점, 시 359점, 제액 15점, 기 10점, 기타 28점 등이다. 행·초서가 절대 다수인 것은 문체별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서첩에는 실용문에 해당하는 서간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간문의 경우 서사자가 특별한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집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간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행초서로 쓰여진 서간문에는 서사자의 필력과 개성, 즉 서사자의 서예와 관련된 미의식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 밖에 시고, 제액, 화제 등 서사자의 심미 정서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목적에서는 당대의 서풍과 서사자의 미적 감각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

으며, 정치 학문 문예 서화 통역 등 서사자의 활동 분야에 따른 서풍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료가 지닌 중요한 특징이다.

○ 참고문헌

- 『근묵』(영인본 2책, 부록 1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81년) ※탈초 임창순
- 『근묵』(영인본(원본과 동일한 색상과 크기로 영인) 5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년) ※하영휘 국역, 김채식 교열

○ 기 타

위창 오세창(1864~1953)이 고려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의 명사 1,136인의 목적을 수집하여 1943년에 34첩으로 장첩하고 각 첩의 표지에 전서로 《근묵(槿墨)》이라는 표제를 붙여 집안에서 보관해 온 것을 1964년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양도받아 현재까지 보관해 왔다.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조사 대상 『槿墨』은 위창이 簡類의 소품을 수집하여 엮은 『槿域書彙』의 후속작이다. 선조로부터 전승된 유물과 수집한 書簡類의 墨蹟을 엮어 1943년 완성하였다. 포배장 34책의 본체와 선장본 목록 1책을 추가해 35책이다. 수록된 작품의 시기는 고려의 鄭夢周부터 21세기 초의 閔衡植과 李道榮까지 55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친필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들의 신분은 국왕에서 천인에까지 이르며, 직업으로는 관료·학자·문학자·예술가·승려 등이 망라되었다. 서체로는 행서 595점, 초서가 468점으로 행초서가 그 대부분이지만 해서 57점, 전예가 16점이어서 篆·隸·楷·行·草의 구색이 모두 갖추어졌다. 문장의 내용도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書簡이 724점, 詩稿가 359점으로 서간과 시문이 대부분이다.
- 서지사항: 槿墨, 卷1-35. / 吳世昌 編.
親筆本. [1943] 30.5×45.0cm.
35冊. 帖裝.
內容 : 書帖 34帖, 目錄 1冊.

○ 내용 및 특징

① 葦滄의 生涯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葦滄 吳世昌(1864~1953)은 언론인, 천도교인, 독립운동가, 민족지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한 인물이다. 자신을 포함하여 8대가 역관을 지낸 전형적인 중인 출신이었다. 1864년(고종 1) 서울 梨洞에서 역관인 亦梅 吳慶錫(1831~1879)과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海州이다. 오경석도 초기 開化派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오세창의 자는 仲銘, 호는 葦滄이다.

8세부터 한의학자이며 개화사상가인 대치大致 유흥기劉鴻基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 16세인 1879년(고종 16) 역과에 합격하였다. 오세창은 22세에 사역원 직장(종7품)까지 승진했지만, 1886년(고종 23) 12월에 博文局 主事로 차출되어 『한성주보』 기자로 활동하였다. 1895년(고종 32) 농상공부 참서관에 임명되었으며, 농상공부 통신국장도 겸임하였다. 1897년(광무 1) 8월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가 도쿄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를 지냈다. 1899년(광무 3)에 귀국한 후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칩거하였다.

1902년(광무 6) 개화파인 兪吉濬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청년장교들의 비밀결사인 일심회와 함께 모의했던 쿠데타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도쿄에서 동학교주 孫秉熙를 만나 천도교에 입교했고 평생 동지가 되었다.

1906년(광무 10) 손병희 등과 귀국하여 천도교 기관지 『萬歲報』를 창간해서 사장에 취임하였다. 1909년에는 『大韓民報』 사장을 지냈다. 1919년에는 33인 민족대표의 한사람으로서 「己未獨立宣言書」에 서명하였다. 이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4월 10일 서울에서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연합회 명의로 선포한 조선민국 임시정부(정도령 손병희, 부도령 이승만)의 조각에서 장관급인 殖産務卿으로 이름을 올렸다.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치안 방해 등의 혐의로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1년 12월 가출옥하였다.

1925년 『時代日報』 사장을 지냈다. 이즈음 본격적으로 문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서화와 골동품이 가득했던 가정환경과 타고난 예술적 소양이 있어 평소 관심이 많았던 서예와 서화 감식에 몰두하였고, 선대부터 갖고 있던 서화작품과 자신이 모은 작품들을 근간으로 한국서화사 연구에 착수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우익에 가담하여 김성수, 김구, 이승만과 함께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에는 반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민족대표로서 일본에 빼앗겼던 대한제국 황제의 옥새를 되돌려 받기도 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구로 피난을 갔고, 거기서 1953년 4월 9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② 葦滄의 著作

위창은 한국미술사의 초석을 이룬 편저자·서화가·감식가·미술이론가·전각가·고증학자·금석학자이다. 위창은 왕성한 서화작품 활동을 하면서, 서화의 감식·수장·제작은 물론 여러 수장가를 독려하여 민족문화를 보존하는 데도 공헌을 하였다. 당대의 안목으로 1916년부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역대 서화가의 眞筆을 수집하면서 이들 자료를 토대로 서화사 연구도 진행해 『權域畫彙』·『權域書彙』·『權墨』·『權域印藪』 등을 편찬했고, 역대 서화가 인명사전인 『權域書畫徵』도 편찬하였다. 한 점씩 살펴보기로 한다.

1928년 3권의 『權域書畫徵』을 啓明俱樂部에서 출판하였다. 『權域書畫徵』은 역사나 문집에 실린 글을 발췌한 역대 서화가의 인명록이다. 참고한 문헌은 270종으로 사서·문집·방목·금석서 등이 주류이며, 이외에도 읍지·족보·비명·병풍·서첩·주련까지 인용되어 있다. 이 책에는 신라의 率居부터 이 책이 발간되기 직전에 타계한 羅壽淵(1861~1926)과 丁大有(1852~1927)에 이르기까지 모두 1,117명(서예가 392·화가 576·서화겸비 149)의 서화가가 수록되었다. 기록에 나타난 역대서화가를 신라·고려·조선(상·중·하) 5편으로 나누고, 출생연도순으로 수록한 것이다. 위항인도 대거 편입시켰으며, 수적으로 적지만 여성도 수록하였다. 성명에 이어 자·호·본관·家世·출생연도·受學·관직·사망연도 등의 대강을 소개한 후, 그의 예술에 대한 기록과 논평을 싣고 그 서목을 밝혔으며, 유전되는 작품의 명칭과 소재도 밝힌 것이다. 이 책은 출판된 서적이어서 우수한 도서관에는 수장되어 있다.

위창은 부친을 통해 추사의 금석학을 계승하고, 청대 금석학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금석학자로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금석의 감식, 전각의 연구, 편저서에도 고증학자로서의 안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위창 금석학자로서의 저작은 1901년(광무 5) 편찬한 『書之鱗』이다. 『書之鱗』에는 갑골문, 금문, 석고문, 전폐문, 종정문, 와전문, 전문, 비갈명, 마애각석 등 夏에서 明까지의 중국 금석문 63종과 삼국과 고려까지의 한국 금석문 21종을 雙鉤하고 금석유물의 출처지, 서자, 서체분석, 서평 등을 제발로 쓴 책이다. 이 책은 미정고이지만 위창 금석학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한다. 이 책은 국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秋史의 맥을 잇는 전각가인 위창은 『權域印藪』 4函과 목록도 1937년 편집하였다. 위창의 전각은 추사의 학맥과 전각관의 토대에서 청대 각 유파들의 刻風을 수용하였다. 역대 한국·중국·일본의 인보를 두루 섭렵하고 독자의 각풍을 이룬 것이다. 위창은 창작과 더불어 전각에 관해 깊이 연구하여 조선 초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우리나라 서화가와 학자들이 애용하던 인장 856명의 3,912顆를 수집하고 정리해 『權域印藪』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 실린 인장의 종류는 姓名印·雅號印·別號印·字印·藏書印·詞章印 등 다양하며, 우리나라 전각예술의 진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책을 편집하기 위하여 위창은 인장자체를 수집한 것은 아니고, 인장의 捺印本을 수집한 것이다. 그 방법은 직접 날인해 구하기도 하고, 혹은 책에 날인된

藏書印 또는 서화작품에서 오래내기도 하였다. 각 印影 밑에 그 위치 그대로 인쇄체 정자를 넣어 印文과 대조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권두에는 姓氏別字劃順과 號別字母順 목차를 수록하였고, 또 姓氏別 人員數까지 수록해서 印章辭典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1953년 피난지인 대구에서 작고한 후 유족들이 『槿域印藪』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외에도 自刻한 인장을 모아 『葦滄印譜』(1892년 경) 1冊·『吳氏印集』(1892년 경) 1冊·『祭花室印譜』(1900년) 1冊·『鐵筆殘影』(1910년 경) 1冊·『吳氏丹篆』(1924년)·『葦老印藁』(1928년)·『酬雨丹篆』 3冊·『融扁』·『十二幅瓦屏』 등의 印譜도 편찬하였다. 이들 작품은 장손이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작품은 추사 이후 인보가 흔치 않았던 전각계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이며, 순수한 自刻印으로서의 최초의 인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槿域畫彙』 3첩은 우리나라 역대 명인의 그림을 모아 만든 眞墨圖錄이며, 서울대학교 수장의 『槿域書彙』 37책과 짝이 되도록 편집한 것이다. 『槿域畫彙』는 친일군인이자 거부인 多山 朴榮喆(1879~1939)에게 양도되었다. 박영철의 기증으로 지금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화가 67명의 그림 67점이 시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天帖에 25점, 地帖과 人帖에 각기 21점, 도합 67점의 그림이 실려 있다. 시기별로는 조선 초기 1점, 중기 9점, 후기 30점, 말기 이후가 27점이다. 비록 수록된 양은 많지 않지만 조선 초기 安堅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山水圖」, 申師任堂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白鷺圖」, 李澄의 「산수도」 등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鄭敎, 沈師正, 姜世晷 등 조선시대 주요 화가의 그림도 두루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간송미술관에도 오세창이 편집했다고 전하는 同名의 화첩이 소장되어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전체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어 양자 간의 관계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위창은 삼재의 그림을 모아 『三齋畫帖』도 편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三圓’과 ‘三齋’로 불리는 천재 화가들이 있었다. 삼원은 檀園 金弘道·蕙園 申潤福·吾園 張承業을 말하고, 삼재는 謙齋 鄭敎·玄齋 沈師正·恭齋 尹斗緒를 두고 하는 말이다. 후대에 孫在馨(1903~1981)이 『三齋畫帖』을 인수하여 改粧하였다. 孫在馨은 ‘三齋畫帖’이란 방정한 해서의 서명 밑에 특유의 소전체로 “歲在丁丑乞巧節 素筌題之”라고 쓰고, 이어 ‘在馨(白文方印)’, ‘素筌(朱文方印)’ 두 과의 인장을 상하로 나란히 검인하였다. 乞巧節은 음력 칠월칠석 전날을 가리킨다. 이로써 이 화첩을 1937년인 35세에 손재형이 입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두에는 오세창이 무오년인 1918년 붉은 印札紙에 쓴 「三齋畫幅說」이 첨부되어 있다. ‘吳世昌’, ‘葦滄氏’ 두 과의 반각인이 있다. 이 화첩은 위창에서 소전으로 다시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넘어가,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槿域書彙』 37책은 1911년 편찬되었고, 수록된 인물의 총 수는 1,107명이다. 고려말에서 대한제국말까지 선인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眞墨圖錄이다. 『槿域書彙』는

1911년 위창이 직접 首冊 및 1~23책을 편찬하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박영철에게 양도하였다. 박영철은 위창의 도움을 받아 1932년까지 再續 2책, 三續 3책, 四續 2책, 五續 4책과 人名考 2책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쳐 모두 37책이다. 포배장이다. 고려 초기 문신 서희,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조선 중기 학자 이이 등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인물 1,107명의 원본필적 1,119점이 담겨있다. 수록된 필적은 거의 600여 년에 걸치는 것으로, 신분상으로 볼 때는 국왕의 어필을 비롯하여 각계 유명인사들의 서간·詩軸·文稿 등으로부터 중인·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수록된 필적은 대부분 서간·문고류 등의 소품이지만, 시·서문·기문·발문 등 다양한 한문체의 글도 실려 있어 미술·풍속·사회사 등 역사적 사료로도 가치가 높다. 대작이 적은 우리나라에서의 서예사적 가치는 높으며, 특히 서간류는 선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필 수 있는 점에서 사회사자료로서도 귀중하다. 또한 진위가 문제시되는 작품의 경우 동일 작가의 작품은 『權域書彙』과 『權墨』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박영철 사후 1940년 경성제국대학에 기증되어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③ 『權墨』

위창이 簡類의 소품을 수집하여 엮은 책은 『權域書彙』 외에 『權墨』도 있다. 『權域書彙』가 1부라면, 『權墨』은 2부에 해당된다. 선조로부터 전승된 유물과 수집한 書簡類의 墨蹟을 엮어 같은 형태의 서적을 2부 완성한 것이다. 『權墨』은 1943년에 완성되었다. 포배장 34책의 본체와 선장본 목록 1책을 추가해 35책이다. 제점을 보면 서명에 이어 소자로 “八十葦”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서첩의 제작시기가 그의 나이 80이 되던 1943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용상 연대로 보면 鄭夢周의 출생이 1337년(충숙왕 복위 6)이고, 대한제국말의 閔衡植과 李道榮의 출생이 1884년(고종 21)이니 상하 거의 550 여년에 걸친다. 그들을 신분별로 보면 위로 국왕에서 아래로는 천인에까지 이르며, 직업별로는 관료·학자·문학자·예술가·승려 등이 망라되었다. 서체별는 행서 595점·초서가 468점으로 행초서가 그 대부분이고, 해서 57점·전예가 16점이어서 篆·隸·楷·行·草의 구색이 모두 갖추어졌다. 모두 1,136명의 친필이 수록되어 있다. 그 문장의 내용은 書簡이 724점, 詩稿가 359점, 題額 15점, 記 10점, 賦 7점, 序 5점, 畫題 3점, 證言 2점, 碑銘 2점, 跋 2점, 贊 1점, 箴言 1점, 法語 1점, 表題 1점, 諭旨 1점, 物目 1점, 鐘銘 1점 등이다. 내용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서간과 시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용이 풍부하고 역대인물이 거의 빠짐없이 망라된 簡帖類는 『權墨』과 『權域書彙』에 비견할 것이 현재까지는 없다. 『權墨』은 1962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유족으로부터 讓受한 것이다. 1981년 任昌淳이 『權墨』을 탈초해서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에서 영인본을 발간한 바 있다. 『槿域書彙』와 함께 일찍부터 우리나라 名家 글씨의 기준작으로 인식되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상엽, 「朝鮮時代 書畫品評 管見-『槿域書畫徵』所載 眞僞관계 記事」. 『東洋古典研究』20, 2004, pp.139~154.
- 이승연, 『위창 오세창』, 이회문화사, 2000.
- 李昇妍, 「葦滄 吳世昌의 篆刻과 印譜」, 『書誌學研究』41, 2008, pp.397~425.
- 李昇妍, 「葦滄 吳世昌의 金石學과 書之鯖」, 『한국사상과 문화』70, 2013, pp.421~448.
- 河永輝, 「鄭夢周의 두 편지의 글씨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98, 2017, pp.7~268.

○ 기 타

- 1943년 위창 오세창(1864~1953)이 명사 1,136명의 글씨를 성첩함
- 1962년 12월 유족으로부터 34책을 구입하여 성균관대학교도서관에서 보관함
- 1964년 6월 22일 박물관이 개관되자 박물관으로 이관됨

9. 전 이사언 환도 (傳 李思彦 環刀)

가. 검토사항

‘전(傳) 이사언 환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전(傳) 이사언 환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4.1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2.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전 이사언 환도(傳 李思彦 環刀)
- 소유자(관리자) : *** (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길이 69cm, 칼날 길이 53cm, 칼자루 길이 16cm, 무게 563g
- 재 질 : 철(도검), 나무와 대나무(도검집), 명주실(유소)
- 조성연대 : 조선 후기(18세기 말~19세기 초)



<성산이씨 양계종택 도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성산이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도검 유물은 호신용 환도의 일종으로서 이 유물은 이사언(李思彦, 1749~1811)이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환도 유물 자체에 명문이 새겨진 흔적이 전혀 없으며 그와 관련된 가전 문헌 등에도 이사언이 이와 관련된 유물을 패용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그가 실제 패용했다고 볼 증거가 미흡하다. 다만 칼날과 칼자루 및 칼집의 크기나 규격 등에 있어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는 여겨진다.

이 환도 유물은 유소혈이 있고 패용장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환도만의 특징을 잘 엿볼 수 있다. 조형적인 면에서는 칼자루와 칼집을 목재로 만들고 그 위에 죽피로 감쌌으며, 3개의 문양대에는 죽피를 얇게 음각으로 깎아 어두운 바탕의 물결문양을 반복하면서 그 위에 매끈한 죽피의 표면을 그대로 살려 각각 잉어와 용 및 마주한 초룡을 주문양으로 배치하고 있다. 선비들이 입신양명으로 삼아 과거에 급제하는 등용문의 문양까지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문관의 호신도라는 조형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된다.

그러나 환도의 기능이나 제작기술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칼날의 경우 20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날이 무디어 훼손되어 있어 실전용 무기를 제작하는 군기시나 왕실의례용 도검을 제작하던 상의원의 것이 아닌 민간에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쇠를 다루어 버리는 공예 기술적인 수준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칭 이사언 환도 유물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칼자루와 칼집에 죽피를 씌운 공예 기술이나 물결무늬와 잉어나 용 문양 등을 음양각으로 표현하는 조형성은 우수한 편이나 무기로서 칼날을 버리는 기술이나 기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 다음의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미흡하다.
- 이 칼은 이사언(李思彦, 1749~1811)이 사용한 의병지휘도라고 문화재 지정신청서로 올라왔다. 칼에 어떤 의병으로써 구호같은 명문이 없다.

예) 임용상단도의 명문²²¹⁾ 〈倡義〉 〈一片刀〉²²²⁾ 〈龍光射斗牛〉²²³⁾ 星文入絲, 七星

221) 육군박물관, 『조선의 도검 충을 버리다』, 2013, p.32.

222) 위 도록, p.134.

223) 위 도록, p.82.

근字 등의 문양

- 또는 선비로서 수양을 위한 칼이라면 칼이 남아있는 자료에 비해 가볍고 약하다. 역사적으로 무기발달사의 한 징검돌의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사언의 의병활동과 이 칼의 역할이 더 연관성을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예) 이억기하사보검²²⁴⁾으로 임금이 하사한 명문과 실록의 기록이 일치한다든지, 독립기념관 소장 곽한일의 장도 경우 목제흑칠장 환도이나 상방검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
- 이 칼은 개인이 만든 것이고 의병활동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부의 명이 아닌 임의의 민제 환도인 것이다. 무기보다는 민속성이 강하다. 현재 남아있는 민제 환도 중 대표적 환도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 사용한 인물의 역사적 애국사실과 그때 사용한 지휘도로 매치할 수가 없고 제작 시기는 칼의 크기를 보아 작지도 키지도 않은 환도의 규격에 들어가는 규격이고 외모로 보이는 곡선이 강한 전투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의병목적으로 칼을 만든 것이 아니다.
예) 훈자명 환도처럼 실전용 환도가 아니다.
- 제작의 선비가 구하기 쉬운 재질 즉 대나무재질로 외장하고 금속장식은 강하게 보강하는 목적이 있는데 동체에 옷칠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 다만 띠돈이 달려있는 것이 조선 환도의 특징인 한 가지를 충족하고 직단의 칼에서는 조금 발전한 약간의 곡선이고 조금 길어졌다는 것이 한·중·일 중 확실히 조선 환도가 맞다는 것이 의미 있다.
- 칼이 가볍기 때문에 띠돈을 통해 옷 겨드랑이에 찰 수 있는 것이고 띠돈의 끈이 다른 재질인 목면으로 교체되어있다. 이목면의 흔적은 본인의 것이 아닌 품격이 없는 사람의 솜씨로 보임. 원래는 특정 조대로 사용한다.
- 비녀장 장금장치가 낙실되었고 띠돈을 매기 위한 금속지지대가 2개 중 하나는 수리되어 새로 제작되었는데 표가 날 정도이다. 비완벽성을 들 수 있다.
- 전존한 유물치고 칼날이 빛나지 않는 점(선비도는 자기마음을 닦는 행위로 칼을 닦는다)
- 미적 가치로는 물고기 문양이 있고 파도무늬와 화문이 있는데 물고기는 등용문을 통해 입신양명하는 뜻을 가지고 수호적 뜻을 지닌다. 이런 무늬는 민속품에서 볼 수 있다. 칼자체가 위용이 있다든지 상방검에서 보여지는 옥이나 백은 입사 등의 문양이 있는 것이 아닌 소박한 민제 선비의 칼 군자도이다.
- 여기에 남명조식의 <정의도> 라든지 임경업의 <추련도> , 이순신의 장검 같이 이사언이라는 인물의 애국적 명분이 담길만한 정신적 의미가 담겨있는 칼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224) 위 도록, p.15,

○ (지정 가치 미흡)

- 이 도검은 1790년(정조 14)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 시기의 것으로 환도의 법제 적용 여부면에서 보면 이를 따르지 않았다. “무기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관청인 군기사에서 실전용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호신용으로 만든 것”이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적게 나간다.
- 이 유물은 도검의 기능적 측면에서 칼날이 예리하지 않고 칼날도 일부 훼손되어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에 “나무재질인 칼자루와 칼집에 주철을 기본으로 어문과 운문이 새겨져 있고 코등이에 연꽃 문양이 있어 장식적 요소를 가미하였다”고 그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현전하는 다수의 칼집이 어피에 철을 입힌 도검들이나 대모도(철종어도와 유사), 또 칼도신에 용문양 및 호신명문구등을 새긴 명문 도검 등에 비해 그 고급짐은 떨어진다고 보인다.
-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에 “200년 이상 되었다”고 그 역사성을 강조하나 이는 그리 오래된 칼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그 역사성이 더하며 도신에 명문시가 시문되어 있는 ‘임경업(1594~1646) 추련도’의 경우도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로 머물고 있다.
-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환도는 ‘이순신장검(보물)’, ‘곽재우장군유물 일괄(도검, 보물)’을 비롯하여 소수다.
- 종합적으로 이 도검은 1790년(정조 14)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환도의 법제 적용여부를 볼 때 官製가 아닌 民製로서 규격 면에서 작으며 무게도 적게 나간다. 대나무재질의 칼집이나 코등이에 여러 문양은 양호한 편이나 칼날과 칼집장식의 일부 훼손 및 도신의 상태, 호신용 환도로서 칼에 명문이 없는 점 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1. 도검의 종류와 환도

도검(刀劍)은 ‘도(刀)’와 ‘검(劍)’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조선시대 군사들의 개인 휴대무기 가운데 대표적인 단병기이다. 도검은 쇠를 이용하여 다양한 철제 기물을 제작하는 야철(冶鐵) 공예의 한 분야로서 칼과 검을 총칭하는 말이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년)에 의하면 ‘도(刀)’는 날이 한쪽에만 한 쪽에만 있으며 ‘검(劍)’ 날이 양쪽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도는 대체로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자루가 길면서 칼집이 없어 주로 베어서 살상효과를 냈고, 검(劍)은 칼날이 양쪽에 있으며 형태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도(刀)에 비해서 자루가 짧고 칼집이 있으며, 베는 것 외에도 찔러서 살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사연 환도의 칼집과 칼자루>



<이사연 환도의 칼날과 칼자루>

조선후기로 갈수록 도와 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검에만 존재하던 칼집을 도에도 제작함으로써 장식성을 높여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는 도가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운검(雲劍), 패검(佩劍), 패도(佩刀) 등은 외날의 칼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시대 단병기를 일컫는 환도의 일종이고 사용자나 장식에 따라 명칭에 차이를 두었다. 사인검과 죽장검 등 특수한 목적의 도검을 제외하면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모든 칼은 환도라고 볼 수 있다.

환도(環刀)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환도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몽골족의 사브르와 환도의 공통점은 둥근 고리와 끈이다. 따라서 ‘환도’는 칼집을 매는 둥근 고리와 끈에서 유래된 것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칭이 이 부분에서 비롯될 만큼 중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용원필비(戎垣必備)』(1813년)에 “환도를 ‘環’이라고 명명한 것은 칼집이 있어 고리를 달고 이 고리에 끈을 묶어 찌기 때문에 환도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곧 ‘환도’란 칼집에 고리가 있어 여기에 끈을 묶어 허리에 찌 수 있는 칼을 말

한다. 곧 환도라는 명칭은 칼날이 휘어서라기보다 패용할 수 있는 칼이라는 뜻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조선의 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바친 ‘왜검(倭劍)’도 ‘환도’라고 적고 있다. 곧 환도란 특정 시기에 출현한 도검의 형식을 규정하는 명칭일 뿐 특정 유형의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패용할 수 있는 칼, 그중에서도 둥근 고리를 달아 찔 수 있는 칼의 범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환도는 길이에 따라 ‘대환도(大環刀)’, ‘중환도(中環刀)’, ‘소환도(小環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도검류는 환도인데, 이 환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가 원나라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충렬왕 때의 일이다. 중앙아시아 초원지역의 유목민족이 사용하던 ‘사브르(sabre)’에서 비롯된 곡선형의 칼을 원나라와의 접촉을 통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환도라는 명칭은 『세종실록』 「군례서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패검을 우리나라 말로 환도라고 한다.”는 부분이 있다. 이로 미루어 ‘환도’라는 용어는 설사 동음의 타국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정의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에서 이러한 환도는 군기감(軍器監)에 소속된 환도장(環刀匠)에 의해 제작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소규모 대장간에서 제작하여 공납하기도 했다. 다만 환도장의 경우 세종대에 군기감에 2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고, 세조 6년(1460)에 33명으로 증원되었지만, 성종 대에 12명으로 감소되면서 소속이 상의원(尙衣院)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군기감 소속 환도장은 전투용 무기를, 상의원 소속 환도장은 왕실의례 때의 의장용을 제작했으며, 일부 지방의 장인도 환도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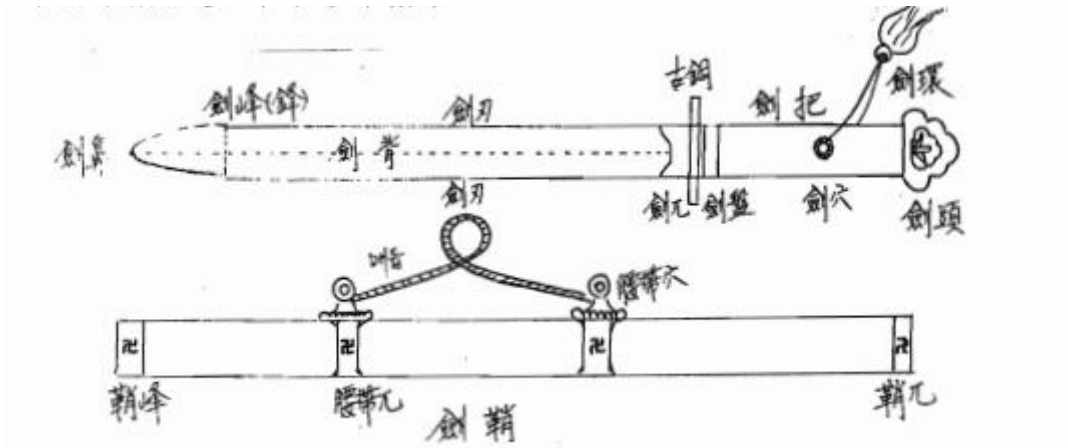
2. 현존하는 환도 유물의 명칭과 제작시기

현재 성산이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도검 유물은 호신용 환도의 일종이다. 이 유물은 이사언(李思彦, 1749~1811)이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칼날이나 칼자루 및 칼집 등에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고 가전된 문서 등에서 실제 이사언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유물은 ‘전(傳) 이사언 환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전 이사언 환도 유물은 전체 길이가 69cm, 칼날의 길이 53cm, 칼자루의 길이 16cm이다. 이것을 조선전기와 후기에 환도를 제작한 규격과 비교해볼 수 있다. 문종 때 표준화된 환도의 치수는 기병의 것은 1자 6치, 보병의 것은 1자 7치 3푼 이었고, 자루의 길이는 2치였다. 반면 조선 후기 정조대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1790년)에 의하면 환도의 규격은 칼날은 길이 3자 3치, 칼자루의 길이는 1자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 이사언 환도 유물은 이사언의 유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활동하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유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환도 유물의 세부 특징

현존하는 이 환도 유물은 일반적인 도검과 마찬가지로 크게 칼날[刀刃, 劍身]과 칼자루[柄部] 및 칼집[劍匣, 刀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날은 쇠로 만들어져 있고, 칼자루와 칼집은 나무에 죽피를 얇게 저며 주칠로 착색을 하여 마감했다. 칼자루와 칼집은 죽피로 전체를 둘렀고, 패용장식이나 코등이를 비롯하여 칼집 병부 끝의 마감제나 손잡이 끝에도 구리제로 마감한 것이 공통된다.



<도검의 세부 명칭, 김성혜(학예지6), 34쪽>

3-1) 칼날의 세부

도검에서 ‘칼날’은 물체를 베는 칼의 날 부분이다. ‘도신(刀身)’은 칼의 몸을 이르는 말로, 칼날과 스페 부분을 합쳐서 부른다. ‘칼끝’은 ‘칼’과 ‘끝’의 합성어로 칼날의 맨 끝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슬’은 칼끝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칼등’은 ‘칼’과 ‘등’의 합성어로 칼날의 반대편에 날이 없는 부분이다.

이 환도 유물의 경우 칼날은 쇠를 제련하여 원재료를 만들고 이를 불에 녹여 두드리고 단접하는 과정을 통해 성형한 후 연마하고 담금질을 하여 베틀려 만들었다. 그러나 이 환도 유물을 만든 장인이 쇠를 다루는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았던지 현재 녹이 슬어 있고 날 부분이 군데군데 패어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유존하는 유물로 미루어볼 때 군기감이나 상의원에서 전통적으로 제작한 도검의 경우 무기로서 칼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기능에 더해 형태나 문양 및 장식 등에서 예술적 미감이 뛰어난 것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이 환도 유물의 경우 칼날은 녹이 슬고 날이 예리하지 않고 강도나 형태 및 기술적 특성 또한 그다지 우수하지 않아 군기감이나 상의원 등 관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전 이사인 환도의 칼날>

이 환도 유물의 칼날은 직선 길이로는 48.5cm, 곡선 길이로는 52.8~53cm이다. 이 중에서 ‘서슬’이라고도 부르는 칼끝은 5.45cm 부분부터 좁아지기 시작하여, 1.6~1.14cm 지점이 제일 가늘면서 끝이 뾰족한 삼각형으로서 찌르기에 적합하다.

칼날과 칼집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호인(護刃)은 ‘환도막이’, ‘칼날매기’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날 스페 위에 날을 휩싸서 댄 덧쇠를 가리킨다. 호인이란 부속은 도신과 코등이, 칼자루의 결합을 견고히 하고, 칼집과 칼몸을 결합할 때 칼집 입구에 꼭 들어맞게 하여 칼날과 칼집의 결합을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이다. 조선시대의 도검에는 호인을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도검을 사용한 후, 칼집에 다시 꽂아 패용한 상태에서 호인이 칼집 입구에 잘 맞물리지 않거나, 마모되어 헐렁거릴 경우, 도검패용자의 보행 시, 또는 주행 시에 그 움직임으로 인하여 도검이 심하게 흔들거리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도신이 칼집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로 인한 결과로서 호인에 의지하지 않고도 안전한 결합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고, 결국은 그에 맞는 부속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도검을 칼집과 결합 시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주었던 ‘잠금장치’였다. 초기의 잠금장치는 ①칼집의 패용장식에서 연장된 비녀 형태의 고리를 코등이 상부에 난 구멍에 꽂는 ‘비녀장방식’이 사용되기도 했고, ②칼집 입구의 양 옆에 튀어나온 철심을 코등이나 내측의 절우(切羽)에 낸 작은 구멍에 맞물리는 방식도 있었다.

이 환도 유물에서는 2.3×2cm의 호인이 황동으로 둘러져 있다. 흔히 구리로 만들며, 칼이 자루에 꽂힐 때 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인데 이 도검처럼 황동 재질에 얇은 동판을 덧대어 만들어 ‘동호인(銅護刃)’이나 황동호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칼자루와 코등이>



<호인과 코등이>



<코등이 무늬>

3-2) 칼자루의 세부 구조

이 도검 유물은 칼자루[병부]와 칼집[도초]을 합친 전체 길이는 60cm인데, 나무로 백골을 삼아 만든 칼자루는 너비 3.1cm에 두께 1.35cm에 길이 16cm의 형태를 만들었고, 그 위를 죽피[竹皮]로 장식하여 만든 것이다. 칼자루와 칼집을 구분하는 코등이와 패용장식의 가락지에는 구리를 사용하였으며, 패용장식에 황동 띠돈을 장식하였다. 칼자루 중앙에 위치한 스페 고정혈은 구멍이 뚫려 있고 녹색의 매듭술이 달려 있다.



<칼자루와 코등이>



<칼자루-뒷매기, 유소혈, 등용문 문양, 앞매기>

칼자루는 칼을 안전하게 쥐게 만든 부분이다. 칼자루 부분의 명칭으로는 전체 명칭인 ‘칼자루, 도병(刀柄), 검병(劔柄)’ 등이 있고, 부분 명칭으로 ‘뒷매기, 칼자루마구리, 앞매기, 자루매기, 철준(鐵鑪), 미철(尾鐵)’ 등이 있다.

먼저 ‘뒷매기’는 칼자루의 끝에 덧댄 철물이다. ‘매기’는 16세기 문헌에 ‘마기’, 18세기 문헌에는 ‘막이’의 형태로 나온다. 따라서 ‘매기’는 ‘마기(막이)’이며, 칼자루마구리 또한 같은 말이다. 현재 이 환도 유물의 뒷매기는 너비 3cm의 황동으로 마감했고, 구불구불한 곡선의 선각으로 마감했다.

칼자루와 코등이 사이에는 유소혈과 앞매기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1천여 년 전부터 타씨의 전형은 스페와 칼자루의 결합과 고정할 때 목정혈(目釘穴)에 대나무 편을 이용한 ‘메쿠기’ 방식이 주류인데 비해, 조선의 도검은 금속제 편이나 속이 빈 파이프 형태(유소혈)의 고정형 부속을 메쿠기 대신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합으로 마감되는 고정방식도 있고, 이 방식에 더욱 견고함을 얻기 위해 스페의 끝을 뾰족하게 하여 칼자루의 상부 윗매개 장식에 관통시킨 후, 두드려서 이중마감을 하는 경우 또한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조선의 환도는 날을 자루와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날을 강제로 칼자루와 분리할 경우 금속편 또는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형 금속편과 같은 칼자루의 고정장식을 파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의 도검은 일반인이 해체하기도 어렵거니와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장식의 전면교체와 보수를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칼날이 망가지면 칼을 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선의 유소혈은 칼자루 중앙에 위치한 스페 고정혈로서 이 환도 유물에는 지름 1.6cm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여기에 유소를 달기 때문에 유소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 환도 유물에는 녹색의 매듭술이 달려 있다. 매듭실은 오래되어 삭고 헤지고 변색되었으나 도래매듭이 남아있고 술의 흔적도 남아 있다.

‘앞매기’는 칼자루와 코등이가 만나는 부분에 철물을 둘러서 칼자루를 보강하고 스펀지가 칼자루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해주는 부분을 가리킨다. ‘앞매기’를 다른 말로 ‘자루매기’라고 하기도 한다. 이 환도 유물에는 2.3×2cm의 앞매기 유물이 둘러져 있다.

‘코등이’는 칼자루와 칼날 사이에 끼워서 손을 보호하도록 만든 원형의 철물이다. ‘코등이’라는 말은 칼에서 툇 튀어나온 부분 즉, 칼의 콧등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고동(古銅)’이라고 하는데 이는 ‘코등’을 음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등의 원래 목적은 손에 대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칼로 찔렀을 때 공격자의 손이 앞으로 밀려나가 자기 칼에 자기 손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상대의 가격으로부터 손을 방어하는 기능은 좀 더 후대로 와서 강조된 것이다. ‘코등이’를 조선시대에는 ‘양마’라고도 했다. 이 환도 유물의 코등의 지름은 7.4cm이고, 두께는 0.25cm의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유물의 코등이 상하에는 나비문이 투각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매란국죽을 선각으로 새겼다.



<코등의 절우[덧쇠]>



<코등의 비녀장구멍>

‘절우(切羽)’는 코등의 앞뒤에 덧붙이는 구멍 뚫린 작은 원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말로 ‘덧쇠’를 사용하기도 한다. ‘덧쇠’는 현대에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말이고 전통적으로는 ‘절우(切羽)’나 ‘박환(薄環)’을 사용하였다. 이 환도 유물에는 코등이 앞뒤로 각각 1개씩의 절우가 들어가 코등이가 칼날 및 칼자루와 단단히 결합되도록 해주고 있다.

‘비녀장구멍’은 전통적인 조선 환도의 코등의 칼등 쪽에 있는 비녀장을 채우기 위한 작은 구멍이다. 이 환도 유물에서는 비녀장이 탈락되어 있으며, 비녀장구멍 안쪽에 부러진 비녀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

3-3) 칼집의 세부 구조

‘칼집’은 칼날을 넣는 집을 말한다. 이 도검의 칼집은 목재로 외형을 만든 다음 죽

피를 싸서 마감을 했다. ‘칼질입’은 칼을 넣는 칼집의 입구 부분 및 입구를 보강하는 철제 띠고리를 말한다. 이 도검에서는 칼집입의 경우 황동 위에 대모의 느낌이 나게 검은색 옷이 듬성듬성 비정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칼집마구리’는 칼집의 아랫부분을 보강해주는 철제 보호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칼집고리’는 칼을 허리에 차기 위하여 칼집에 ‘가락지’라고 부르는 금속 띠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 이사연 환도의 칼집>



<칼집>



<칼자루>

특히 조선시대 도검은 띠돈[帶金]을 비롯한 패용장식 등의 부속을 갖추고 대(帶)를 이용해 허리에 차는 방식으로 패용하였다. ‘띠돈’은 칼집고리[가락지]에 묶인 끈을 하나로 묶어 허리띠에 직접 거는 데 사용하는 금속 고리를 말한다. 일반적인 도검의 고리에 광다회를 걸고 대를 광다회에 통과시키거나 광다회에 띠돈을 달아 대를 띠돈에 통과시켜 허리에 차도록 하는 패용장식은 칼집의 상하에 가락지를 만들고 그 위에 다회끈을 달아 칼을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용도이다. 중국, 일본의 칼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부속이 칼집에 달린 ‘패용장식’이다. ‘칼을 찰 수 있게 해주는 장식’인 이 패용장식에서 중국, 일본의 도검과 다른 우리 선조들의 독특한 발상과 과학적 창의를 확인할 수 있다.



<칼집의 패용장식>



<환도의 패용장식 가락지 위 다회걸이>

조선의 도검은 관제든 민제든 법제에 따라 제대로 만든 칼이라면, 공히 패용장식을 이용하여 휴대하였다. 전기에는 『세종실록』 「군례서례」의 ‘검’처럼 띠돈 없이 패용장식에 달린 고리에 직접 띠를 묶어 차는 방식이었고, 중기 이후로 구한말까지는 띠돈을 달아 패용 시 도검의 위치조절이 쉬운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좌우 가락지와 띠돈고리 및 띠돈>



<각급 박물관 소장 띠돈고리와 띠돈>

이 환도 유물에는 칼집의 중간 부분 상하에 황동으로 가락지를 돌리고 등 위쪽에 다회고리를 넣을 수 있게 호리병형을 좌우로 펼치고, 그 위에 받침과 고리를 이중 삼중으로 황동제 고리를 결합하고 덧붙여 칼을 들고 다니더라도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락지와 다회고리는 황동제로 만들어 원래의 것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위에 매단 끈은 원래 광다회로 엮어 짠 끈이 오래되어 훼손되었는지, 인견천에 삼베를 배접하여 이중으로 감싼 천끈을 사용하고 있어 후대에 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상하의 끈이 마주한 부분에는 리벳형으로 연결한 띠돈 고리 또한 황동으로서 원래의 것을 유지하고 있으며 띠돈고리와 3×2.6cm의 띠돈[帶金] 또한 매끈하고 윤기나는 황동으로 만들어져 원형을 잘 엿볼 수 있다. 고급의 값비싼 도검의 경우 띠돈이나 코등이에 백옥이나 금도금제 등을 사용된 것도 있으나, 이 환도 유물은 코등이와 마찬가지로 띠돈고리나 띠돈을 황동제를 사용하고 있어 문무겸비를 상징하면서 칼을 소장하였던 문관의 돈박한 품격을 엿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패용방식으로 가락지와 다회고리 및 띠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육군박물관 소장 <녹철장별운검>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패검>이나 <예도> 및 <별운검>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칼집의 표면 처리는 다르나 가락지 위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다회끈으로 연결하고, 띠돈고리를 연결한 다음 장방향의 단순한 띠돈을 연결하여 사용한 것도 대체로 유사하다.



<화문황동장환도> 패용장식 부분



<사군자옥구보도>의 패용장식 부분

이처럼 이 환도 유물의 띠돈은 기본적으로 끈을 달아 허리춤(군복이나 갑주를 입었을 경우)이나 가슴부분(평복 시, 겨드랑이 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찰 수 있도록 해주며, 후면에는 광다회나 요대 등의 끈이 통과하도록 직사각형의 고리가 있다. 또한 칼을 패용한 상태에서 칼의 전후를 바꾸기 쉽도록 띠돈의 하단에 회전할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현존하는 조선 띠돈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유성룡도검에 속한 띠돈은 전기 유형의 것으로, 띠돈의 하단에 달린 고리는 좌우로만 회전이 가능한 형식이며 차고 있는 칼의 위치를 앞뒤로만 바꿔 줄 수 있는 단순 기능을 가진다. 조선 초기에 ‘좌우’로 움직이던 띠돈 하단부의 고리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중간 연결부속을 추가한 것이 그것이다. 중국식 띠돈은 단순히 허리띠에 거는 고리형 장식이기 때문에 줄을 뒤집어야만 위치가 바뀌는데, 이 경우 걸거나 뛰게 되면 칼이 출렁이며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일본식 타찌의 경우는 칼집에 장착된 두 곳의 고리에 직접 줄을 거는 관계로 칼의 위치를 앞뒤로 바꾸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 조선 특유의 패용장식인 띠돈은 그 기능으로 조선의 도검 패용자들에게 칼의 휴대를 간편하게 하고, 패용 시 소지자의 움직임을 매우 편하게 했던 첨단 장치였던 것이다.

3-4) 칼집과 칼자루의 문양 특징

이 환도 유물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목제 백골 위에 죽피를 감싼 기술이나 죽피 위에 새긴 문양의 표현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이다. 특히 문양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칼자루의 유소혈과 코등이 사이 부분이 제1문양대, 칼집 상단의 가락지와 가락지 사이가 제2문양대, 칼집 하단에 길게 제3문양대가 배치되어 있다.

각 문양대의 길이는 차이가 있어 제1문양대는 길이가 짧고, 제2문양대는 약간 길고, 제3문양대는 칼집 하단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긴 편이다. 이러한 문양대의 제작 기법이나 문양의 구성 형식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세 문양대 모두 전체적으로 상하가 긴 장방형인데, 그 상하면 부분에 여의두운을 배치한 것이 공통된다. 장방형 문양 안쪽에는 바탕 문양인 물결무늬는 죽피 전체를 얇게 면을 깎아 어둡게 만든 다음, 다시 음각선로 얇고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문양에 해당되는 문양은 각 문양대마다 달라 제1문양대에는 물고기와 물살을, 제2문양대에는 구름 속의 용무늬를, 제3문양대에는 마주한 초롱의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각 문양대의 주문양은 죽피의 반짝이는 표면을 그대로 이용해서 구

름이나 물살을 표현할 때 면적의 넓이와 두께에 변화를 주어 어둡고 깊은 바탕의 단순하고 일정하고 반복적인 물결무늬와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칼자루의 제1문양대>



<칼집 가락지 사이의 제2문양대>



<칼집 하단의 제3문양대>

제1문양대는 칼자루의 유소혈과 코등이 사이에 길이가 짧은 장방형 사이에 물결 위로 잉어가 튀어 오르는 문양으로서, 등용문(登龍門)의 도상을 엿볼 수 있다. 문관이 사용한 이 도검의 성격이 잘 반영된 문양이다.

제2문양대는 가락지와 가락지 사이에 위치하여 황동제로 감싼 상하 가락지 사이에 여의두운을 배치하고 그 사이 물 속에 솟구친 용이 구름 사이에 내려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바탕의 물결 무늬는 죽피 전체를 얇게 면을 깎아 어둡게 만든 다음 물결을 음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위쪽 구름과 운룡은 죽피의 밝은 표면을 그대로 살려 부드러운 곡선의 넓이와 두께를 조정하여 율동감을 주고 있다. 어둡고 단순하게 물결을 반복적인 선으로 처리한 바탕에 비해 구름 위를 뚫고 내려오는 용은 전체적으로 누운 S자를 그리면서 역동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제3문양대는 칼집 전체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상하로 긴 장방형 속에 여의두운 문양이 마주하고 바탕에는 여전히 어두운 물결무늬를 두고, 주문양으로 두 마리의 초룡이 서로 마주보는 모양새이다. 두 마리의 초룡은 얼굴만 겨우 표현되었고 나머지 몸통은 비늘의 표현이 없고 마치 당초문양처럼 굽기나 두께를 통해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각 문양대는 단순 반복적이고 선적인 어두운 물결무늬에 비하여 복잡하고 면적인 리듬감이 강하면서 밝은 잉어문이나 운룡문 및 초룡문이 대비되어 문양 표현에 있어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태조실록』, 『세종실록』, 『군례서례』, 『문종실록』, 『세조실록』, 『선조실록』, 『순조실록』
- 『경국대전』, 『대전회통』
- 『기효신서』
- 『용원필비(戎垣必備)』 환도조
- 『무예도보통지』
- 강화전쟁박물관, 『조선의 도검』, 2017.
- 광낙현, 「조선후기 壯勇營故事를 통해본 도검 무예」, 『東洋古典研究』제51집, pp.279~306.
- 김성태, 「刀劍의 군사·사회사적 기능과 의미」, 『한국대학박물관협회』제47회 학술발표회, 2002, pp.73~84.
- 김성혜·김영섭,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제6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4. pp.25~96.
- 육군박물관 편, 『조선의 도검 忠을 베티다』, 2003.
- 육군박물관 편, 『학예지』제11집-조선의 도검 특집, 2004.
- 이석재, 「선조들의 과학적 아이디어 녹아든 조선도검」, 『과학과 기술』, 2006.6, pp.54~61.
- 장충덕, 「도검(刀劍) 관련 어휘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제38집, 2013, pp.5~37.
- 조혁상, 「朝鮮後期 士人の 刀劍愛好傾向에 대한 考察」, 『東方漢文學』제52호, 2012, pp.1~22.



○ 현 상

1) 제원(크기)

- 전체 길이: 69cm(도신 53cm, 병부 16cm)
- 도신 너비: 2.3~1.6cm
- 병부 두께: 1.35cm
- 코등이(劍鐔) 지름: 7.4cm(두께 0.25cm)
- 무게: 563g(칼 391g 칼집 172g)
- 유소혈은 수술이 탈락된 상황이며 칼집에 남아있는 띠돈을 연결하는 조대는 다른 면끈(조잡한 수공)으로 교체되어 있다.
- 칼집의 비녀장이 훼손되어 있다.

2) 규격

조선 문종대 규격 표준화

: 기병 환도 1척 6촌, 보병 환도 1척 7촌 3푼, 너비 7푼, 자루 길이 2권

1790년(정조14년) 『무예도보통지』 환도 규격

: 칼날의 길이 3척 3촌(67.98cm), 병부 길이 1척(20.6cm), 무게 1근 8냥(963g)으로 기록

- 도검의 규격은 1790년(정조14년) 『무예도보통지』 기록의 기준에 못 미치지만 이 시기는 이사언(李思彦, 1749~1811)의 생몰연대와도 부합함. 따라서 이 도검은 1790년을 기준으로 18세기~19세기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됨. 이 도검은 민간에서 제작한 호신용 칼(민제 환도)이면서 수양의 칼이며 또 상황에 따라 지휘도로 사용한 칼이다.(문종의 주장)

3) 보존상태

- 칼날이 예리하지 않으며, 칼날 일부에 흠집이 있어 사용을 많이 하였으며 그것은 이사언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후대 사람이 사용하다가 흠집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신이 맑지 않고 어둡다. 옛 선비는 실제로 해마다 1회씩 칼을 버리고 마음을 닦는 포프먼스처럼 칼을 자주 닦았다. 예) 학봉 김성일의 시중에 쌍용검을 닦으며 원정을 달랜다는 시가 있음²²⁵⁾
- 코등이에 매화, 난초 등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음. 칼집은 대나무에 각종 문양을 넣음. 선비, 유학자들이 군자도, 선비의 칼이다. 조선시대는 무인들은 개개인의 단병 기술이나 군사적 훈련보다 유교적 덕목을 더욱 강조하였다. 따라서 무인들은 유교적인 무인 정신이 강조되는 새로운 무인으로 변해 가는데 무인 정신과 유교 정신의 만남을 군자의 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군자가 좋아하는 것 네 가지(梅, 蘭, 菊, 竹)가 있다면, 군자가 의지했던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적하기 위한 검이다. 조선의 선비 즉 군자는 뜻을 고상히 하고, 불의를 용납지 않는 성품을 키우면서 절제와 충을 닦았다. 그리고 그 매개체로 칼이 있었다. 16세기 남명학파의 거두 조식(曹植, 1501~1572)은 벼슬길을 포기하고 몸에 차고 다니던 칼에 “안에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에서 결단하는 것은 의다(內明者敬 外斷者義)”라는 글을 새겼다. 경과 의는 주역(周

225) 구월달 얼음을 이제사 처음 보니

낮선 땅 풍토에 새삼 놀란다
세찬 바람 저녁엔 비랑을 찢더니만
안개 걷힌 아침엔 살기(殺氣)가 뻗쳐 있네
가도 가도 말머리는 북으로 향하는데
기러기는 도리어 남으로만 날아가네
허리춤에 다행이 쌍룡검 있어
때때로 닦으며 遠情을 달래보네
(『학봉집』)

易)에 나오는데 “군자는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바깥을 바르게 한다.”는 말이다. 또 그는 성성자라는 방울을 늘 차고 다녔는데,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 칼로 턱을 고이는가 하면 허리춤에 방울을 차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여 “이 방울은 맑은 소리로 사람을 깨우친다. 내가 이 귀중한 보배를 너에게 주니,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조금만 울려도 스스로 경계하고 꾸짖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이 방울에 죄를 짓지 말라.”하여 스스로 경계와 반성을 하였다. 조식은 문정왕후 섭정의 명종시절 일생토록 타락한 권력을 꾸짖고 무기력한 지식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후 임진왜란 시 남명학과에서 의병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홍의 장군 곽재우는 남명학파이다. 이후 19세기에 진주민란이 일어난 것이 남명학파의 근거지임을 볼 수 있다. 명분이 바로 선비정신이였다.

- 학봉 김성일은 “너희들은 내가 劍을 나누어 주는 뜻을 알겠느냐? 모름지기 이 검劍으로써 의義와 이利의 관계를 베어 끊어서 의義를 취하고 이利를 버릴 것을 분별케 함이니라.” 학봉에게는 칼이 義와 利의 관계를 끊어 주는 도구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칼로 베듯이 義와 利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말이다. 제자가 묻기를 “어떻게 하면 善과 惡을 실제로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라 하니 선생(학봉 김성일)이 대답하시기를 “義와 利, 公과 私의 구분을 엄하게 해야 한다. 털끝만큼 미세한 것도 나중에는 천리나 차이가 나게 되니 이것은 배워서 밝히는 데 있을 뿐이라.”라 하셨다. 226)

○ 내용 및 특징

- 명칭: ① 전 이사언 지휘도(傳 李思彦 指揮刀)
② 민제 죽장어문 환도 (民製 竹裝魚文 環刀)
- 칼집 및 손잡이 장식이 대나무에 어문과 운문 파도문이 음각되어있음. 금속장식 부분에는 사군자의 문양들이 시문되어있다. 비녀장잠금장치는 탈락된 상태 같은 유형의 도검은 고려대학교와 육군박물관에 각 1점씩 소장하고 있다.
- 환도는 차고 다니기 편하게 칼집에 고리(환環)를 달고 있는 조선시대의 칼이다. 패검이라고도 하고 환이 있으며 황동장식과 붉은 끈, 술이 달려있으며 사슴 가죽띠가 부착되었다. 환도는 둥근 고리가 장식된 칼집 때문이라는 설과 손을 보호하는 둥근모양의 코등이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 환도는 이름 없는 조선 칼의 통칭이고 이름이 있는 특별한 칼에는 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외날은 도이고 양날은 검이라고 정의한 것은 18세기 『무예도보통지』에서 비로소 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한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검이고 긴 손잡이가 창처럼 있는 무기는 도라 하였다. 그 예로 한날이라고

226) 육군박물관, 『조선의 도검 충을 버리다』, 2013, p.41.

운검·칠성검·보검 등으로 칭하고, 그래서 이순신의 칼을 한날이지만 장도라고 하지않고 장검이라 명명하였다 창처럼 자루가 길어 마상이나 보병이라 할지라도 검보다는 더 몸을 상대로부터 멀리할고 싸우므로 봉에 칼을 얹힌 것이다. 예) 언월 청룡도·협도가 있다.

- 조선 환도의 중국과 일본의 칼과 다른 세가지 특징 중 하나는 보통 길이가 55~75cm로서 일본도에 비해 직단 즉 짧고 곧은, 칼날의 휘임이 없이 밋밋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과의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선환도도 점점 길어지고, 휨각도 커지며 도신에 피홈도 생기기 시작한다. 피홈은 살상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일본에서 시작하였으나 후에 조선환도도 피홈을 두었다. 그 예로 임란이후 훈련도감과 삼수병을 양성하였는데 삼수병인 포수, 사수, 살수 중 도검병인 살수가 사용하였던 칼이 훈련도감에서 만든 훈자명 환도가²²⁷⁾ 약 90cm 정도로 길어지고 튼튼한 성능으로 바뀌게 되고 19세기에 나온 『용원필비』에도 이 규격으로 실리게 된다.
- 둘째는 조선환도의 그 패용에 있어 띠돈이라는 장식이 있어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쓰임에 편리하고 섬세한 구조이며 일본도에 비해 가볍다. 일본도는 무거운 중량이 있어 옷에 매달 수가 없어 허리춤에 끼워서 착용하며 허리를 묶는 끈이 있다.
- 셋째는 칼의 그 양면 중 한면을 갈아서 평평하게 쓰는 일면 평조도이다. 칼의 두께가 일본도는 두텁고 내리치는 힘을 과시했다면 조선도는 얇으면서 스쳐 베는 용도임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무사들이 어찌다 위력있는 일본도를 하나 구하면 도리어 한 면을 갈아서 사용한 흔적들이 보인다. 남아있는 조선환도가 규격과 법도에 맞지 않는 다양한 모습이 혼재된 채 있는 것은 군기감에서 계속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신체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여 제작해달라는 요구와 후기에 오면 전쟁이 없으므로, 특히 과거시험에 도검 관련 과목이 사라지고 도검은 상의원(관복담당관청)에서 제작하게 되면서 칼날보다는 외장에 치중하게 되었다.
- 명칭을 『민제 죽장어문 환도』의 민제는 관제와 대조되는 용어이고 군기감, 상의감 등 국가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만들었으며 칼집과 병부는 목제가 아닌 죽제로 장식한 것과 여러 문양 중 어문이 있다는 것을 명기하여 다른 환도와 차별하는 것이다. 민제이므로 크기나 무게가 적고 가벼워 관제에 미치지 못한다. 휨각도 완만하여 직도에 가깝다. 한눈에 조선 환도이나 완벽한 칼의 규격이 아니다.
- 『전 이사언의 지휘도』라 한다면 이사언이 의병활동을 한 점, 양반으로서 지휘자라는 점으로 이사언의 지휘도라 전한다고 하여 문중의 주장을 인정한다.

227) 육군박물관, 『조선의 도검 충을 버리다』, 2013, p.3.

예)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傳 이성계의 어도라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전 앞에 서는 운검의 일종으로 사려됨²²⁸⁾

○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 「군기편」
- 『용원필비 戎垣必備』 환도조
- 『무예도보통지』
- 육군박물관, 『조선의 도검 충을 버리다』, 2013.
- 김성혜 외, 「도검의 기능성 연구」, 『학예지』 제6집, 육군박물관, 1999.
- 김성혜 외, 「조선시대 도검의 실측과 분석」, 『학예지』 제5집, 육군박물관, 1997.
- 국립문화재연구소, 『독일 라이프찌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3.



○ 현 상

이 도검은 전체 길이가 69cm(도신 53cm, 칼자루 16cm)이다. 칼배와 칼날이 부식되고 손잡이 및 유소가 손상되어 진행되어 2018년 8월 보존처리를 시행하였다. 칼날이 예리하지 않으며, 칼날 이가 빠져(훼손) 있다. 칼집의 비녀장 하나도 훼손되어 있다. 칼은 철로 코등이는 구리로 칼집은 대나무에 문양을 엮고 칠을 하였다. 코등이에는 매화 난 등의 문양이 있다. 칼집에도 입신양명을 상징한다고 하는 어문 등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1) 명칭

- ① 도검의 종류 가운데 환도(環刀)이다.
- ② 문화재지정 신청서에 이사연(李思彦, 1749~1811) 이후 성산이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호신용 환도라고 연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도 자체에 명문이나 이를 확인해주는 다른 기록은 없다. 따라서 ‘전(傳) 이사연 환도’라고는 칭할 수 있겠다. 1813년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용원필비』에는 환도라는 명칭이 패용하기에 편하게 칼집에 고리[環]를 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²²⁸⁾ 서충대사련도나 대사례도 등 각종기록화를 보면 왕은 표시하지 않고 운검이 어깨에 칼을 메고 서있다.

2) 제작 시기

이 도검은 1790년(정조14)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 도검을 소지했었다고 하는 이사언(李思彦, 1749~1811)의 생몰연대가 『무예도보통지』의 편찬 시기와 부합하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이 도검은 1790년을 기준으로 18세기말~19세기 초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도검이 官製가 아닌 民製여서 환도법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3) 제원(크기)

- ① 전체 길이: 69cm(도신 53cm, 칼자루 16cm)
- ② 도신 너비: 2.3~1.6cm
- ③ 칼자루 두께: 1.35cm
- ④ 코등이 지름: 7.4cm(두께 0.25cm)
- ⑤ 무게: 563g(칼 391g, 칼집 172g)

4) 제원과 무게의 검토

환도의 법제 적용 여부를 볼 때 官製가 아닌 民製로서 규격 면에서 약간 작으며 무게도 적게 나간다. 1790년(정조14년) 『무예도보통지』 환도 규격은 칼날의 길이 3척 3촌, 칼자루의 길이 1척, 무게 1근 8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周尺(1척=약 20.6cm)을 적용해보면 칼날은 $3.3 \times 20.6 = 67.98\text{cm}$, 칼집은 $1 \times 20.6 = 20.6\text{cm}$ 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 단계에서의 환도의 전체 길이는 88.58cm이다. 그런데 이 칼은 69cm이다. 19.58cm 짧다. 도신과 칼자루 비율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 官製가 아닌 民製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 칼의 무게는 563g(칼 391g, 칼집 172g)이다. 1790년(정조14년) 『무예도보통지』 환도의 무게는 1근 8냥이라고 했다. 『경국대전』에 “황종관에 물의 중량 88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10리(釐)가 1분이고, 10분이 1전이고, 10전이 1량이고 16냥이 1근이고, 큰저울은 100근, 중간저울은 30근, 작은저울은 3근 혹은 1근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칼의 1근 8냥은 1.5근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기록에 근거하여 1근은 641.946g이라고 한다. 따라서 1.5근은 962.919g이다. 따라서 이 칼의 무게는 563g이니 『무예도보통지』 환도의 무게인 962.919g에 비하면 399.919g 가볍다. 이 점도 官製가 아닌 民製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다.

○ 지정사례

- 보물 지정 도검은 이순신, 광재우 등 역사적 위업이 널리 인정된 분들임
- 위업만큼 유물도 많아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 그 가운데 도검이 보

물로 지정됨

- 임경업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 위업도 알려져 있고 환도에도 훌륭한 명문이 새겨졌는데도 시도유형문화재에 머무르고 있음

| 연번 | 지정구분 | 지정명칭 | 수량 | 규격 |
|----|--------------------|--|-------|---|
| 1 | 보물 | 이순신 보물 일괄 (장검) | 2자루 | 197.5cm |
| 2 | 보물 |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귀도鬼刀, 참도斬刀) | 각 1쌍 | 귀도 칼날길이:83.3cm 너비:7cm 전체길이:137.9cm 참도 길이:180.2cm 너비:6cm |
| 3 | 보물 | 곽재우 유물 일괄 (장검長劍) | 1 | 길이:86cm 너비:3cm 자루:16cm |
| 4 | 국가민속문화재 | 정공칭 유품 (도검) | 1령 | 총길이:85cm 너비:3.5cm |
| 5 | 국가등록문화재 | 의병장 김도현 칼 | 1 | 길이:43.5cm 폭:3.3cm 칼집:4.2×29.2cm |
| 6 | (울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 박홍춘 환도 | 1건 2점 | 길이:99cm |
| 7 | (충청남도) 시도유형문화재 | 이삼장군유물 <영정첩.검철퇴.언월도> | | |
| 8 |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 | 임경업 추련도 (林慶業 秋蓮刀) | 1점 | 총길이:101.4cm 폭:6cm 칼날길이:86.7cm |
| 9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 김명윤유품쌍검 | 2점 | |
| 10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 합천 마씨종택 철검 | 1점 | 78cm |
| 12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 하동 관어재 김중원 유물 (운검) | 2점 | |
| 13 | (인천광역시) 시도등록문화재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유물 (인천육군조병창 제조 총검) | 3점 | 길이:52.4cm 길이:50cm 길이:52cm |

○ 참고문헌

- 『태조실록』, 『세종실록』, 『군례서례』, 『문종실록』, 『세조실록』, 『선조실록』, 『순조실록』
- 『경국대전』, 『대전회통』
- 『기효신서』
- 『용원필비 戎垣必備』 환도조

- 『무예도보통지』
- 육군박물관 편, 『한국전통무기 조사』, 국립민속박물관, 2003.
- 육군박물관 편, 『학예지』제11집-조선의 도검 특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4.
- 김대중 외,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국사편찬위원회, 2008.
- 육군박물관 편, 『조선의 도검 忠을 베풀다』, 2003.
- 강화전쟁박물관, 『조선의 도검』, 2017.
- 『장서각 소장 금속문화재 보존처리 보고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10. 아미타여래구존도 (阿彌陀如來九尊圖)

가. 검토사항

‘아미타여래구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로부터 ‘아미타여래구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12.) 및 과학조사('23.3.14~3.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아미타여래구존도(阿彌陀如來九尊圖)
- 소유자(관리자) : 울산광역시(울산박물관)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54.0×64.9cm, 화면 67.2×45.8cm
-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565년(명종 20)



<아미타여래구존도, 울산박물관 소장, 1565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가정 44년(1565)에 삼베 바탕에 그려진 채색불화로 화기를 통해서 조성연대, 존명이 명확하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팔대보살이 본존 머리 광배 주변까지 둥글게 둘러싼 구성은 16세기 조성된 아미타여래구존도의 형식과 상통하고 있고, 조성시기가 명확한 채색불화로서 국내에 거의 전하지 않은 조선 전기의 아미타여래구존도로서 시대적 희소성의 가치가 충분하다.

신청 대상인 <아미타여래구존도>는 본존과 머리와 몸을 둘러싼 원형 광배형식, 둥글고 넓적한 육계와 반달형 중간계주 표현, 문양이 생략된 채색 등에서 왕실발원불화와 민간 불화의 특징을 모두 반영한 조선 전기 민간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연구자료로 가치가 있다. 현재, 조선 전기 아미타여래구존도가 지정된 사례가 없

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자료로 삼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이란 제작연대가 정확한 조선전기 불화이다. 이 불화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비롯한 팔대보살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고려 후기 불화의 요소가 남아 있으며, 여래를 중심으로 보살을 에워싸는 배치, 여래와 보살의 형상과 묘사, 필선의 사용과 문양을 배제한 색 중심의 채색법에서는 조선전기 불화의 새로운 요소, 특히 16세기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바탕천을 삼베를 사용하였음에도 여래의 묘사와 공간감 있게 팔대보살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왕실불화의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불화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박물관에 소장되었고 국내에 현전하는 조선전기 불화 가운데 제작연도가 정확한 아미타여래구존도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고려 후기부터 조선전기 불화의 형식과 양식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565년에 제작된 16세기 불화이다. 구성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8위의 보살들이 위계에 맞게 배치된 구존도 형식을 띠고 있다. 정확한 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며 나머지 보살은 뚜렷한 도상적 특징 없이 합장인을 결하고 있어 존명 파악에 한계점이 있으나, 고려시대 <아미타여래구존도>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작된 16세기 불화이자 17세기 아미타여래설법도와 목각아미타여래설법도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한국불교회화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 6점 중 기년을 지닌 채색불화라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편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소재해 있고, 국내에 현존 하는 작품 대부분은 그 사례가 드물어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불화 역시 1565년이라는 제작시기를 간직하고 있어 조선 전기 불화 연구에 절대적 기준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국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전체 크기 세로 154.0cm, 가로 64.9cm, 화면 크기 세로 67.2×가로 45.8cm로 삼베 바탕에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로 구성된 채색불화 1폭으로 족자 형태이다. 일본식 장황(裝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 상측 부분 장황은 비례로 볼 때 약간 잘린 듯하며 하측은 원래대로 남아있어 운문이 장식된 녹색 비단을 그림으로 표현한 회장 문양이 남아있다. 장황 경계에 붉은 선과 흰색 테두리를 두었고, 상단 흰색 테두리 위쪽에는 풍패(風佩) 한 쌍을 그려 짝을 이루었다. 그림 표면은 가로 꺾임과 표면 손상이 약간 존재한다.

바탕 직물은 평직(平織)으로 제작된 마직물이며 총 2폭(12+33.1)을 실로 연결하였다. 화면에서 훼손된 삼베 바탕천을 견직물을 사용하여 보강한 부분이 있다.

화면 아래 중앙에 진사로 칠한 붉은 색 화기 칸에 먹으로 조성연대, 시주질 등을 기록하여 제작연대인 1565년(명종 20)이 확인되는 조선 16세기 불화이다. 화기는 4행(行) 32자(字)로 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없지만, 오기(誤記)와 다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호는 명나라 가정(嘉靖) 44년으로 파악되지만, 연호 표기에서 ‘정’자를 ‘晴’으로 잘못 표기하였고, 15~16세기 불화에서 이렇게 용례는 없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바탕에도 다른 글자의 흔적은 없으므로 원래부터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작 연도는 가정(嘉靖) 44년(1565)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攄諭大施主’ 역시 일반 용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攄大施主’는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쇼가쿠지(正覺寺) 소장 <아미타여래삼존도>(1565)와 일본 도쿠시마현(德島縣(舊)) 보광사(寶光寺) 소장 <석가설법도>(1569),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 고쿠분지(國分寺) 소장 <지장시왕도>(1586), 일본 오사카시(大阪市) 시텐오지(四天王寺) 소장 <석가설법도>(1587), 일본 효고현(兵庫縣) 야쿠센지(藥仙寺) 소장 <감로왕도>(1589)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마지막 줄의 幾主(几主) 지준비구(智峻比丘)는 의미상 보통 화주(化主), 대시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불화는 일본인 사카모토 고로(神奈川縣)가 소유하다가 서울의 개인 소장자에게 이관되었다가 2019년 6월에 공개 구입하여 울산박물관이 소장하였다.

○ 내용 및 특징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명종 20)에 제작된 불화로 국내에 소장된 조선 전기의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아미타여래구존도이다. 구도는 화면 중앙에 아미타여래가 이중의 원형 두광과 신광을 갖춘 형식으로 아미타구품인을 곁하고 불단 대좌 위에 연화좌대를 받치고 곁가부좌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팔대보살이 아래 각 2위씩 나누어 4존이 배치되고, 위로 원형을 이루며 4존이 아미타여래를 향해 서 있는 군도형식이다.

아미타여래는 극락정토 신앙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극락왕생 후 중생을 화엄세계로 인도하여 구제하는 여래이다. 원래 인도에서는 한량없는 수명을 가졌다는 의미의 무량수(無量壽, Amitayus)와 한량없는 광명을 지닌 무량광(無量光, Amitabh a)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중국에서 아미타불로 음역하였다. 아미타신앙은 중국에서 지침(支讖)의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이 번역된 이후,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으로 불리는 강승개(康僧鎧) 역의 『무량수경(無量壽經)』(252년),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424년), 구마라집(鳩摩羅什) 역의 『아미타경(阿彌陀經)』(5세기 초)이 소개되면서 동아시아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팔대보살은 원래 아미타여래와 관련 없이 믿어지는 보살로서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荼羅經)』, 『대일경(大日經)』, 『태장도상(胎藏圖像)』, 『별존잡기(別尊雜記)』 등의 경전과 도상집에서 소개되어 있다. 『팔대보살만다라경』 등에서 정의한 팔대보살을 우리나라 팔대보살과 연결하면,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관음보살, 자씨보살(慈氏菩薩)=미륵보살, 보현보살(普賢菩薩),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금강장보살, 만수실리보살(曼殊室利菩薩)=문수보살, 제장애보살(除蓋障菩薩)=제개장보살, 지장보살(地藏菩薩)이며, 우리나라 불화에서는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 대신 대세지보살로 표현되었다. 이들 보살은 각각 경전에 따라 신체 색, 지물, 자세 등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팔대보살만다라경』의 도상과 지물을 차용하여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고려시대부터 제작된 도상으로 조선 전기까지 제작된 아미타여래구존도와 아미타불회도는 23점이 알려져 있다. 이중 제작연대가 확실한 작품은 고려시대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307년), 일본 <마츠오데라(松尾寺) 아미타팔대보살도>(1320년)와 조선 전기의 <일본 엔라쿠지(延曆寺) 아미타팔대보살도>(1532), 일본 <하시데라(長谷寺) 아미타불회도>(1570), 일본 <오오쿠라집고관(大倉集古館) 아미타불회도>(1591), 그리고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565)가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아미타여래구존도 가운데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불화 가운데 제작 연도가 확실한 유일한 작품이다<표 1>.

<표 1> 조선 전기 아미타계 불화 목록

| 구분 | 유물명 | 연대 | 재질 | 크기(cm) |
|----|----------------------|-------|----|-------------|
| 1 | 일본 善妙寺 아미타팔대보살도 | 15세기 | 비단 | 77.3×51.0 |
| 2 | 일본 延曆寺 아미타팔대보살도 | 1532년 | 삼베 | 109.2×55.7 |
| 3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 1565년 | 삼베 | 67.1×45.8 |
| 4 | 일본 개인소장 아미타팔대보살도 | 16세기 | 비단 | 77.3×51.0 |
| 5 | 일본 寶珠寺 아미타팔대보살도 | 16세기 | 비단 | 40.8×26 |
| 6 | 일본 長谷寺 소장 아미타불회도 | 1570년 | 삼베 | 128.5×122.7 |
| 7 | 일본 大倉集古館 소장 아미타불회도 | 1591년 | 삼베 | 178.3×126.1 |
| 8 | 일본 金峰寺 아미타팔불회도 | 16세기 | 삼베 | 82.8×55.3 |
| 9 |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아미타불회도 | 16세기 | 비단 | 99×81.3 |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화면 중앙에 아미타여래가 설법인을 하고 불단형 대좌 위에 연화좌대를 놓고 걸가부좌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팔대보살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고려 불화에서 아미타여래구존도 형식은 일본 마츠오데라(松尾寺) 소장의 <아미타팔대보살도>(1320) 등에서 보이는 본존과 보살이 엄격하게 구분된 이단구도를 14세기 후반부터 벗어나면서 본존 주위로 팔대보살이 좌우측에 4존씩 배치되는 설법도 형식으로 변화였다. 이 형식은 조사대상 불화같이 권속이 둥글게 배치된 일본 <엔라쿠지(延曆寺) 아미타팔대보살도>(1532, 그림 1), 일본 가가와현(香川縣) <이야다니지(彌谷寺) 지장시왕도>(1546), 일본 가가와현(香川縣) <쥬주인(長壽院) 석가설법도>(1553, 그림 2) 등에서 보듯이 조선 전기 불화의 도상 형식으로 계승되었다. 조선 전기에 이러한 균도형식 구도가 정착되어 나타난 초기 작품이 <엔라쿠지 아미타팔대보살도>이다. 이 불화는 진한 붉은색 화면 바탕에 전체적으로 금니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채색한 선묘불화이다. 본존 형식이 둥근 얼굴에 건장한 신체를 한 고려불화에 가까운 형태미를 보이지만, 뾰족한 정상계주는 티베트계 불화양식으로 조선 전기 불화에서 유행하는 양식을 반영하였다.



<그림 1> 일본 延曆寺 아미타여래구존도,
조선 1532, 견본금니 채색, 55.4×78.8cm



<그림 2> 일본 香川縣 長壽院 석가설법도,
조선 1553, 마본 채색, 128.6×137.1cm

그러나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의 본존 아미타불의 육계 형식은 둥글고 넓은데 중간계주 부분이 납작한 반달형에 색바림한 모습으로 일본 <쥬주인(長壽院) 석가설법도>(1553, 그림 2), 일본 <쇼주지(正宗寺) 석가설법도>(1561), <지후쿠지(持福寺) 소장 영산회상도> (1563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영산회상도>(1562년), 일본 <시텐노지(四天王寺) 영산회상도>(1587년) 등 16세기 불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존의 원형 이중광배는 일본 <쥬주인(長壽院) 석가설법도>(1553), 일본 <하시데라(長谷寺) 아미타불회도>(1570), 일본 <장안사(長安寺) 아미타여래오존도>(1586, 그림 3) 등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이와 같이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본존과 권속 구도에서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이 감싸듯 어우러진 구도와 광배, 육계 형식 등에서 16세기 조선불화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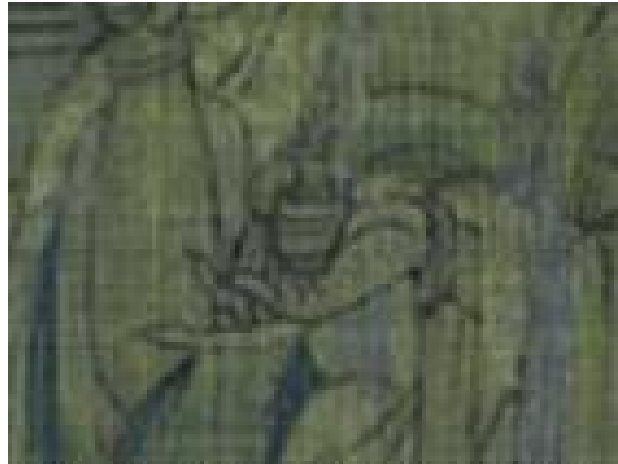
팔대보살은 화면 아래 1단에 각각 좌우로 2존씩 4존을 일렬로 배치하고, 4존의 보살이 신광과 두광 좌우로 둥글게 배치되었는데, 보살 간의 간격이 넓어서 공간감이 깊다. 화면 앞줄의 백의를 입고 정병을 들고 버들가지를 든 보살은 관음보살로 볼 수 있다(그림 4). 따라서 반대편의 보살은 합장하고 있는 모습에 별다른 지물과 보관장식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세지보살일 가능성이 크다. 화면 뒷줄에서 육환장을 들고 민머리형에 가사를 입은 모습으로 지장보살임을 알 수 있고, 그 반대편 보살은 대칭적으로 미륵보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음·지장 보살을 제외한 다른 문수보살·보현보살·제장애보살·금강장보살로 추정되는 육보살은 모두 합장한 자세로 지물 없이 서 있는 자세이므로 정확한 존명을 알기 어렵다.



<아미타불의 상반신>



<그림 3> 일본 佐渡市 長安寺 아미타여래오존도, 조선 1586, 114×2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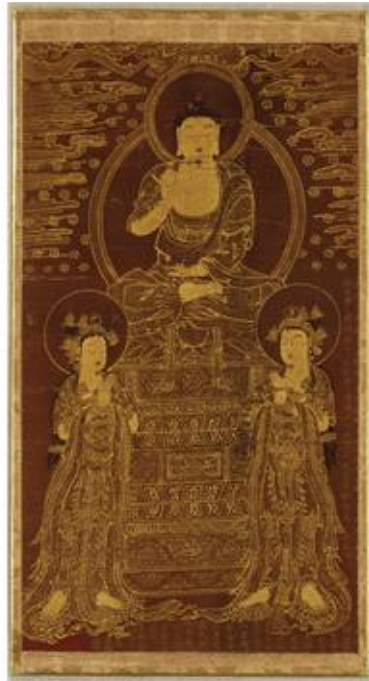


<그림 4> 관음보살의 정병 부분

불화는 크고 작은 화면 결실부를 과거에 보존처리하면서 보건과 배접지 위에 색맞춤을 하였다. 채색 안료는 붉은색[진사], 백색[연백], 황색, 흑색[먹], 녹색[석록], 청색[쪽] 등에서 전통 안료를 사용한 것이 과학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화면 중심색조는 본존과 보살의 가사에 칠한 붉은색이고, 그 밖에 위에 언급한 색을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문양을 그리지 않고, 눈 밑 등에 흰색으로 덧칠하였다. 얼굴 이목구비의 표현이 특이한데 눈매를 크게 강조하고, 입술이 도톰하다.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전체적인 구성과 도상 특징은 조선 16세기의 불화 형식을 잘 보여주는 불화이다. 또한 보건과 보채 등이 조금씩 더해졌지만, 전통 안료를 사용한 불화로 화면 바탕의 출초(出草)는 조선 전기 불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 불화가 제작된 시기는 화기에서 보이는 가정 44년은 억불정책을 실시한 조선에서 불교를 부흥시켰던 명종의 모후였던 문정왕후(1501~1565, 즉위 1517~1565)가 양주 회암사 중창을 기념하고, 아들 문종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여 제작한 금니화(金泥畵) 200폭과 채색화(彩色畵) 200폭을 제작하고 사망한 해이다. 당시 석가·약사·미륵·아미타불의 부처·보살을 소재로 조성한 불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 전하고 있는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1565, 그림 5)는 가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뾰족한 원형 정상계주나 연화좌에서 대좌 양쪽으로 늘어진 수식, 세밀한 문양 요소 등에서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있다.



<그림 5>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조선 1565.

반면, 울산박물관 소장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이중 원형두신광과 원형 군도 형식과 둥글고 납작한 육계와 반달형 중간계주 형태는 16세기 불화 양식이 반영되지만, 문양이 없는 채색, 본존과 권속의 큰 눈과 도톰한 입술, 화기의 오류는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화승 개인의 화풍과 민간불화의 형태를 반영한 작품으로 파악되며, 거의 남아있지 않은 조선 전기 불화에서 조성 시기가 명확한 아미타여래구존도로서 희소성을 지녔다.



<아미타여래구존도, 조선 1565, 삼베 채색, 화면 67.2×45.8cm, 울산박물관>



<가시광 및 적외선 영상 사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소, 2023>



<아미타여래구존도> 장황 부분과 화면 삼베 연결 부위



<보관함>



<아미타불의 상반신(초 현상)>



<보살 표현 부분>

○ 문헌자료

(화면 하단 가운데 방제 칸을 두어 화기 기록)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弥陀會圖」

幀誦大施主今之保」

几主 智峻比丘」

화기를 통해서 을축년 4월에 조성된 불화로 확인되며, 명칭이 ‘아미타회도’로 기록되었지만, 이전에 보물로 지정된 불화와 같이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그린 도

상이므로 ‘아미타여래구존도’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명칭을 ‘회도’로 기록한 사례는 일본 <엔라쿠지 아미타팔대보살도>(1532)에서 ‘미타회도(彌陀繪圖)’라고 언급한 경우가 있다.

아미타여래구존도가 고려 이후 조선 전기에도 조성되거나 사람들이 도상 구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나타난다.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6월 8일 기록에 “명나라 신하 창성이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을 그릴 금(金) 1전 5푼을 요구하고, 윤봉(尹鳳)은 소불(小佛)을 장식할 채색(彩色)을 요구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라는 기록이나, 월산대군이 발원하여 제작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1489)에서 ‘순금으로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제작’하였고,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586)의 발원문에서 ‘정월 18일에 아미타불 1구와 아미타팔대보살 1탱(幀), 아미타양대보살 2탱을 그려 봉암사 선당 향적전에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화기 모습>

○ 참고문헌

- 울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1.
-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 『아미타여래구존도 조사 결과 보고』, 2023.
- 김형곤, 「조선전기 아미타팔대보살도연구-한국 개인소장 금선묘아미타팔대보살도를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24, 2018.
- 다케다카즈아키·박은경, 「日本 福井縣 鮮妙寺소장 조선초기 〈阿彌陀八大菩薩圖〉」, 『美術史論壇』3, 1996.
-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 박은경, 「일본 소재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연구」, 『석당논총』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 양희정, 「고려시대 아미타팔대보살도 도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57, 2008.
- 정우택,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지역 조선시대 전기 불화의 조사 연구」, 『미

술사논단』33, 한국미술연구소, 2011.

- 姜恩實 등, 「朝鮮前期金泥線描仏畫の畫法研究—比叡山延曆寺所藏『阿弥陀八大菩薩像』と京都市立芸術大學芸術資料館所藏 ‘藥師三尊八大菩薩十二神將像’の比較を通して—」, 『研究紀要』63, 京都市立芸術大學美術學部, 2019.
- 구진경, 「고려 아미타팔대보살도 도상의 성립과 특징」, 『동아시아문화와 예술』7, 2009.

○ 기 타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일본 개인소장자에게 김창분씨가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으로, 울산광역시가 2019년에 공개 구입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6월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울산박물관 소장)로 귀속되어있다.



○ 현 상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에 조성된 불화로 주존인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팔대보살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불화의 장황은 당초문 음각 새김이 된 금속제 축두가 있는 상·하축에 금직 화문으로 표장한 일본식 족자로 되어 있다. 동반 유물로 흑칠된 일본식 보관함이 있다.

불화의 전체 크기는 세로 154.0cm에 가로 64.9cm이며 화면 크기는 세로 67.2cm에 가로 45.8cm이다. 화면 바탕천은 울이 굵은 삼베 2매 33.1cm와 12.0cm를 바느질로 연결하여 바탕천을 이루고 있다. 화면 곳곳에서 가로 꺾임이 있으며 가로 꺾임 부분과 바탕천 연결부에서 화면 결실이 확인된다. 장황과 함께 일부 수리가 이루어진 듯 화면에 결실된 부분은 비단으로 보강하고 색 맞춤을 하였다. 또한 현재 화면 좌우의 외곽선과 회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화면 상단에 화면을 들렀던 붉은 외곽선과 흰색 회장만이 남아 있고 다행히 하단부에 붉은 외곽선, 흰색 회장만이 아니라 하축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흰색과 운문이 있는 녹색 회장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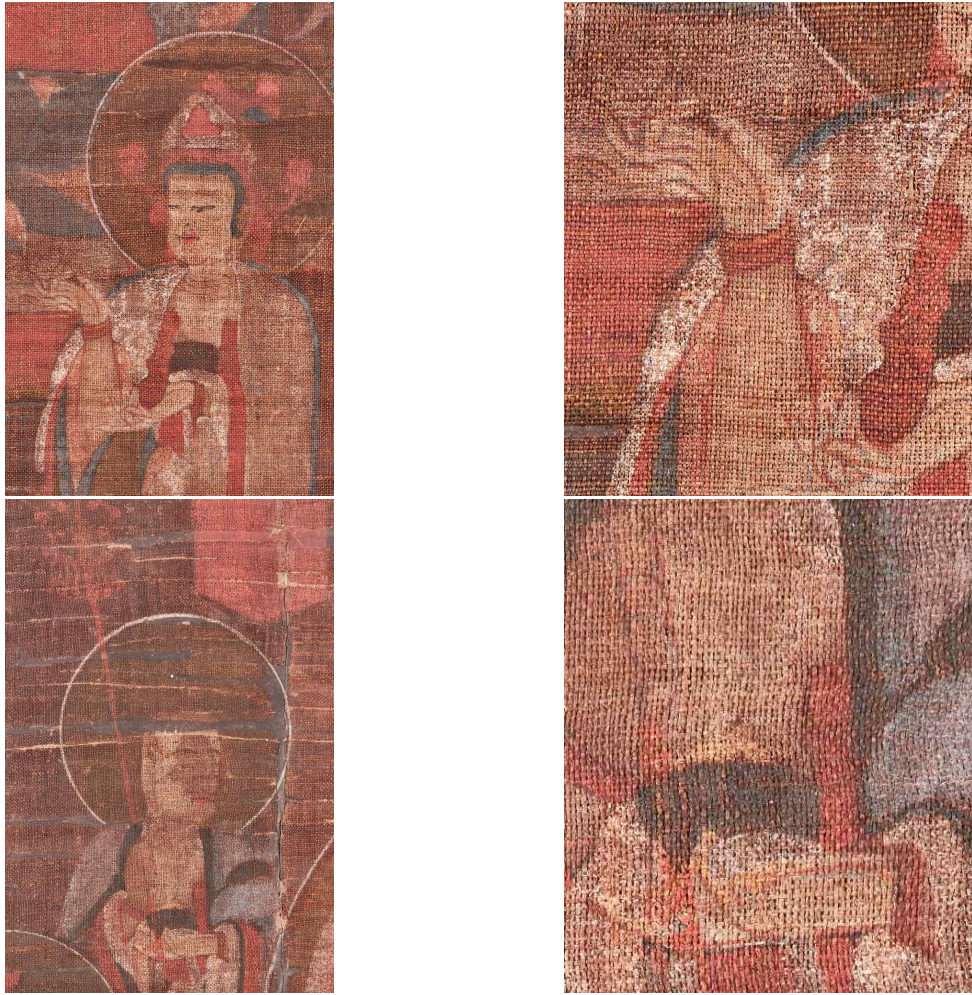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 1565년에 조성된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화면 크기가 67.2×45.8cm로 조선전기에 조성된 채색 불화 중 가운데 소형 불화에 속한다. 존상 구성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팔대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은 설법

인을 하고 높은 불단에 놓인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육계는 낮고 둥글며 크고 납작한 중간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 표현은 눈, 코, 입의 비율이 적절하여 엄정한 인상을 주며, 왼손을 배 부분에 두고 오른 손을 든 설법인의 표현, 넓은 어깨와 짧은 허리, 무릎 높이의 비율이 비롯해 넓은 앉은 자세 등은 모두 표현이 안정감이 있다. 이와 같은 여래의 형상은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영산회상도>(156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불회도>(1562년) 등 16세기 불화를 비롯해 불상인 <봉암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1586년)과도 유사하다.

아미타여래에 비해 좌우에 서 있는 팔대보살은 본존에 비해 신체를 길고 가늘게 표현하였다. 보살의 이러한 세장한 신체 표현은 일본 조주인(長壽院)의 <영산회상도>(1553년)와 유사하다.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에서 대부분의 팔대보살은 합장을 하고 있어 보살의 존명을 모두 알 수 없으나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도상적 특징을 통해 존명을 파악할 수 있다.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왼손에 정병이 들고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로 버들가지를 들고 있으며 백의의 천의를 걸쳐 입었다. 지장보살은 민머리 형상에 오른손은 주색의 육환장을 들고 왼손에는 흰색의 수정 구슬을 들고 있다(삽도 1).



<삼도 1>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존상 구성과 배치에 있어 고려 후기 적 요소와 조선전기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팔대보살을 권속으로 배치하는 구존도 형식은 일본 마쓰오지(松尾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320)를 포함해 고려 후기부터 지속되어 온 존상 구성이다(삼도 2).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고려 후기 불화처럼 배경 없이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만을 구성하면서도 팔대보살을 여래 아래에 두지 않고 화면 상단까지 올려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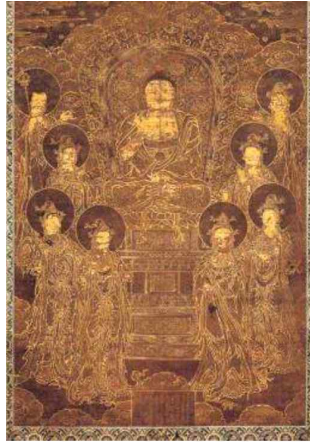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배치법은 일본 쯤묘지(善妙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5세기), 일본 엔락쿠지(延歷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등 조선전기 불화에서 볼 수 있는 권속들의 배치법이다.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보살들의 배치를 상하 일렬로 배치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 둥글게 배치하여 공간감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감을 부여하는 배치법은 일본 요다테라(與田寺) 소장 <지장육광보살도>(15세기)를 비롯해 왕실 발원 불화인 엔락쿠지 <아미타여래구존도>와 일본 야야테라(彌谷寺) 소장 <지장시왕도>(1546년) 등

수준 높은 조선전기 불화에서 볼 수 있다(삽도 2).

<삽도 2>



松尾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320년,
비단,
117.3×91.2cm



延曆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32년,
비단,
180.8×55.7cm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65년,
삼베,
67.2×45.8cm



與田寺 소장
지장육광보살도,
15세기,
129×77.5cm

- 존상을 표현하는 필선은 안료가 박락되면서 선명하지 않지만 아미타여래의 얼굴을 비롯하여 안료가 박락된 지장보살의 얼굴 묘사에 사용된 섬세한 필선 사용과 얼굴선을 먹선 위에 주색선으로 처리한 방식에서 능숙한 필력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먹선으로 눈꼬리와 눈동자를 강조하면서 아래에 백선을 살짝 넣거나 붉은 입술 중간에 굵은 먹선 양끝을 눌러 표현하는 방식은 이 불화를 그린 작가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짐작된다. 얼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섬세한 필선은 여래의 육계, 보살의 보관의 형태, 그리고 대의와 천의 등 불보살의 복식을 표현할 때에는 최소화하였다. 또한 문양으로 장식성을 높이지 않고 적색과 녹색, 흰색 등의 색 대비를 통한 각 존상이 화면에서 두드러지게 하였다. 현재 적색과 흰색, 일부 먹색을 제외하고 녹색으로 추정되는 색은 박락되거나 변색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 볼 수 없다.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조선전기 왕실이 아닌 민간에서 제작한 불화에서 바탕천으로 삼베를 사용한 마본(麻本)불화이다.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화면이 거칠지만 존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필선은 유려하며 현재 안료가 많이 박락되었지만 적색, 흰색 등의 잔여 상태로 보아 제작 당시에는 진채기법으로 채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대좌 아래에는 주색 바탕에 먹으로 쓴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彌陀會圖 幀誦大施主今之保 凡主 智俊比丘”란 내용의 화기가 적혀 있다. 주색바탕에 먹으로 쓴 화기 또한 마본불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화기에서 “嘉晴”은 嘉靖의 오기로 이 불화의 제작 시기는 가정 40년 을축인 1565년이다.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주제로 조선전기 불화는 일본에 소재한 쯤묘지(善妙寺),

엔락쿠지(延曆寺), 하세데라(長谷寺), 호주지(寶珠寺), 긴포지(金峰寺), 오쿠라슈고칸(大倉集古館) 등을 포함해 개인소장품으로 여러 점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기년명 불화는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565년) 등을 비롯해 엔락쿠지(延曆寺, 1532년), 하세데라(長谷寺, 1570년), 오쿠라슈고칸(大倉集古館, 1591년) 등에 소장된 아미타여래구존도 4점에 불과하다(삽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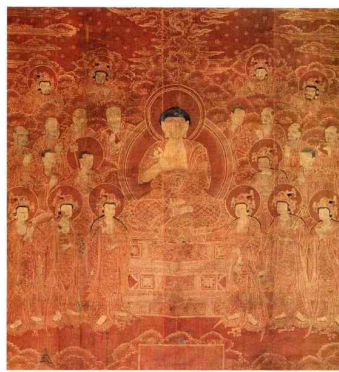
<삽도 3>



延曆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32년,
비단,
180.8×55.7cm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65년,
삼베
67.2×45.8cm



長谷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70년,
128.5×122.7cm



大倉集古館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1591년

- 앞서 살펴보았듯이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화기에 적힌 불화의 명칭은 阿彌陀佛會圖이다.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이 결합된 불화 형식은 조선전기 문헌인 『목은문고』의 「贈休上人序」, 『동문선』의 「五臺山西臺水精菴重創記」(1404년), 『세종실록』44권의 세종 11년(1429) 기사조에서 “新繪彌陀八大菩薩”, “畫西方彌陀八菩薩”, “畫彌陀八大菩薩” 등이란 내용으로 제작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지장보살본원경』(1489)의 발문에서 “純金彌陀八大菩薩”이란 문구와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1586)에서 “畫成彌陀八大菩薩一幀”이란 내용을 통해 조선전기에 많은 수가 제작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록에서 언급되는 “아미타팔대보살”은 현전하는 조선전기 불화에서 사용된 용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의 “阿彌陀會圖”와 유사 용례로 일본 엔락쿠지(延曆寺)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1532)의 화기에서 “彌陀會圖”가 알려져 있다. 일본 엔락쿠지 소장 불화는 화기명만이 아니라 존상 구성에 있어 고려 후기 아미타여래구존도처럼 아미타불과 팔대보살만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와 친연성을 가진다.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화면 상단에는 낙영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는 필선과 색채가 흐려지고 변했지만 장황에 사용되는 비단을 그림으로 그린 회장 부분이 남아 있다. 불화에 낙영을 그리는 방식은 일본 코묘지

(光明寺) 소장 <지장시왕도>(1562년), 일본 약센지(藥仙寺) <감로도>(1589년) 등 조선전기 16세기 불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낙영과 함께 화면 외곽의 회장을 마치 비단으로 장황한 듯 그림으로 그리는 방식 또한 조선전기 불화에서 확인되는 특징으로 녹색바탕의 운문은 17세기~18세기에 조성된 조선후기 불화에서 화면 외곽에 둘러지는 회장 문양의 선행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화기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彌陀會圖
幀誦 大施主今之保
几主 智峻比丘

○ 참고문헌

-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 김형곤, 「조선 전기 아미타팔대보살도연구-한국 개인소장 금선묘아미타팔대보살도를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24, 2018.
- 다케다카즈아키·박은경, 「日本 福井縣 鮮妙寺소장 조선초기 <阿彌陀八大菩薩圖>」, 『美術史論壇』3, 1996.
- 鄭于澤, 「延曆寺 소장 조선전기 金線描 阿彌陀八大菩薩圖의 고찰」, 『동악미술사학』16, 2014.

○ 기 타

이 불화는 일본인 사카모토 고로(神奈川縣)씨가 소장하다가 2016년에 명인박물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명인박물관 소장 당시 동국대학교박물관 특별전인 「서로모아-부처님께 합장」에 출품되면서 공개되었다. 이후 소장자는 최창분씨였으며, 2019년에 울산박물관에서 공개 구입을 통해 현재 박물관 소장품으로 귀속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2019년 공개구입을 통해 구입한 불화이다. 원 소장자는 김창분이며, 김창분은 일본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소장하였다고 한다.

이 그림은 여래와 8위의 보살로 구성된 그림이다. 화면 하단에 마련된 화기에 따르면 제작 시기는 가정 44년 을축, 즉 1565년(명종 20)이며 아미타회도를 그린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8위의 보살을 그린, 이른바 <아미타여래구존도>이다.²²⁹⁾ 제작에는 탕포대시주 今之와 几主 智峻 등 소략한 인물만이 참여하였다. 几主라는 소임은 생소하지만 계주로 참여한 지준은 1557년 歸眞寺에서 간행한 『大方廣佛華嚴經疏注』 난외에 같은 이름의 승명이 확인한다. 활동 시기로 보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은 세로 67.2cm, 가로 45.8cm 가량의 소규모 그림이며, 화면은 폭이 12.0cm와 33.4cm 되는 두 폭의 삼베를 바느질로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조선 후기 대형의 후불화와 달리 조선전기 불화는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의 40탱(1565년)과 같이 왕실이나 개인의 원찰에 봉안되는 경우가 많아 소형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화도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이 불화는 현재 일본식으로 장황으로 되어 있다. 일본으로 반출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출된 이후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수보되었음을 말해 준다. 화면 결손부는 보존처리 때 보견 없이 배접지 위에 보채된 부분이 많고, 극히 일부에는 바탕천과 같은 재질로 메움하여 색 맞춘 곳도 확인된다. 화면의 상하좌우가 잘려 개장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장황형태와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상단에는 붉은색 외곽선과 백색의 변아 부분이 확인되고, 하단에는 붉은색 외곽선과 백색의 변아, 운문의 그려진 녹색의 회장 일부가 확인된다. 아마도 상단도 이와 같은 양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관상자는 옷칠한 일본식 함이다.

화면은 전반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어 어둡고 탁한 느낌을 주는데, 원래는 적색과 녹색과 청색, 백색, 남색 등 명·채도가 높은 색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중간 색조를 조채하여 실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산뜻한 색채감을 간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29) 통상 아미타여래와 8위의 보살로 구성된 불화를 통상 학계에서는 <아미타팔대보살도>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재 문 화재청의 지정명칭 선례에 따라 <아미타여래구존도>로 칭하기로 한다.



<도1. 아미타여래구존도 전면, 1565년>



<도2. 아미타여래구존도 배면>

화면은 사각의 높은 수미단 위 연화대좌에 앉은 설법인의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상하에 각각 4위의 보살을 배치한 구존도 형식이다. 아미타여래의 상단에는 연꽃의 보개가 자리 잡았으며 보개를 구름이 감싸 상서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화면의 상단 좌우에는 규형의 낙영이 드리워져 있고 여래의 머리에서 뻗어나간 두 줄기 빛이 천공을 가르고 있다.

고려시대 아미타여래구존도는 여래를 상단에 두고, 8위의 보살을 하단에 배치하는 이른바 엄격한 상하 2단 구도를 택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여래를 중심으로 8위의 보살이 둥글게 에워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이 불화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아미타여래구존도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고려와 다른 조선 전기의 양식이 적용된 것이다.

아미타여래와 8위의 보살로 구성된 이와 같은 불화의 형식을 통상 <아미타팔대보살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미타여래구존도>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여래와 팔대보살의 구성은 8세기 후반 불공이 한역한 『팔대보살만다라경』에 의거하며, 『대일경』, 『태장도상』 등 밀교경전과 도상집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팔대보살만다라경』의 여래는 특정한 여래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석가여래로 판단되며, 이곳에 등장하는 8대 보살은 관음·금강수·보현·자씨·허공장·지장·제개장·문수보살이다.²³⁰⁾

230) 唐代 不空이 譯한 『八大菩薩曼荼羅經』에 의하면, 팔대보살의 구성과 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即曼荼羅中, 想於如來眞金色身三十二相, 坐蓮華臺. 次說觀自在菩薩密言曰. ……即想曼荼羅中聖觀自在赤色身. 左手持蓮花. 右手施願. 頭冠中有無量壽如來. 次說慈氏菩薩密言曰…於觀自在菩薩, 後想慈氏金色身. 左手執軍持. 右手施無畏. 冠中有窈都婆. 半跏坐. 次說虛空藏菩薩眞言曰. ……於佛背後想虛空藏. 左手持寶安於心上, 右手施流出無量寶. 次說普賢菩薩密言曰. ……虛空藏左邊想普賢菩薩. 載五佛冠. 金色身. 右手持劍. 左手施願. 半跏而坐. 次說金剛手菩薩眞言曰. ……於如來左邊想金剛手菩薩. 右執金剛杵. 左手手安於膀. 載五佛冠. 身青色. 半跏而坐. 次說曼殊室利菩薩眞言. ……於金剛手菩薩前想曼殊室利菩薩. 五髻童子形. 左手執青蓮花, 花中有五股金剛杵, 右手作施願. 身金色. 半伽而坐. 次說除蓋障菩薩密言曰. ……於曼殊室利菩薩, 右想除蓋障菩薩, 金色身. 左手執如意幢. 右手施願. 半跏而坐. 次說地藏菩薩密言曰. ……於如來前想地藏菩薩. 頭冠瓔珞. 面貌熙怡, 寂靜愍念一切有情, 左手臍下拓鉢. 右手覆掌, 向下大指捻頭指, 作安慰一切有情想.”

아미타여래 팔대보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작품은 12세기 후반에 편찬된 『별존잡기』의 <팔대보살만다라도>이다. 이곳에는 분명히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하단 앞쪽부터 지그재그로 관음(좌)과 보현(우), 문수(좌)와 지장(좌), 허공장(좌)과 자씨(우), 금강수(좌)와 제개장(우) 보살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도상이 고려 1307년 작 <노영 필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와 일본 마츠오데라(松尾寺) 소장 <아미타여래 구존도, 1320년>에서 구현되고 있으나, 대개 우리나라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불공의 『팔대보살만다라경』을 토대로 하되, 아미타여래의 정토신앙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여 허공장보살을 대신하여 대세지보살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문명대 교수의 선행연구에서는 1776년 작 보물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와 국보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에 기입된 8대보살의 존명을 고려불화에 소급 적용하여 허공장보살을 대신하여 대세지보살이 포함되며, 제장애(제개장) 보살이 칼을 든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줄 좌측 보살은 관음, 우측은 대세지, 좌측 가장자리는 금강장, 우측 가장자리는 제개장보살로 보고, 뒷줄의 본존 좌측은 문수, 우측은 보현, 좌측 가장자리는 미륵, 우측 가장자리는 지장보살로 판단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양희정은 기존 칼을 든 제개장보살이 허공장보살이며, 세지보살로 대체되지 않고 일관되게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세지와 제개장이 같은 자리에서 관음과 짝을 이루고 있어서 고려시대에는 『팔대보살만다라경』의 존명을 그대로 따르는 팔대보살도와 제개장(화염보주·보관보주) 대신 세지(경함·보관정병)가 포함된 팔대보살도 공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팔대보살도의 존명은 두 가지 설 모두 유효하다.



<도3. 아미타여래구존도 화면>



<도4. 아미타여래구존도 보관상자>

본존은 둥글게 핀 연꽃대좌에 걸가부좌하였고, 둥근 신광과 두광을 갖추었다. 광배는 오색영롱한 빛을 형상화 한 듯 여러 겹의 빛의 띠를 둘러 나타내었고, 신광의 표면은 옥빛으로, 두광의 표면은 녹색계통으로 달리 처리하였다. 인물의 묘선은 먹선을 기본으로 하되, 얼굴과 손, 발 등 피부 등 중요부위는 먹선 위에 다시 주색 선을 올려 자연스러운 상호의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다.

본존의 머리에는 큼직한 반달모양의 계주가 표현되어 있고 나발은 굽다. 얼굴은 건장한 신체에 비해 작고 둥그랗고 통통하게 살집이 올라 있는 모습이다. 본존불에서 보이는 상호의 표현과 비례감각은 15세기의 균형 감각이 잘 잡힌 비례감에서 양식이 변천하여 동야대학교 영산회상도(1565년)나 국립중앙박물관 사불회도(1562년) 등과 마찬가지로 16세기 중엽경의 조형감각이 반영된 것이며, 경주 왕룡사원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1578년),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좌상(1578년경), 문경 봉암사 아미타여래좌상(1586년) 등 16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수인은 엄지와 검지를 닿을 듯 말 듯 처리한 설법인은 긴장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손가락은 길고 섬세한 편이다. 균의의 끝단은 彎曲을 이루고 있으며, 복부에는 균의를 묶고 흘러내린 두 가닥의 끈이 표현되어 있다.

화면 좌측 하단 여래의 곁에 서 있는 관음보살은 좌상의 아미타화불이 안치된 보관을 썼으며, 왼손으로 정병을 잡고 오른손은 들어 올렸는데 양류가지를 잡은 듯하다. 화면 우측 상단 가장자리에 배치한 지장보살은 석장을 쥐고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나머지 보살상은 거의 같은 보관과 천의를 걸치고 얼굴은 측면관으로 본존불을 향했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다. 머리에는 두광을 갖추었으며,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 묘사하였다. 그 중 눈을 크게 강조한 것이 이 불화의 특징이다. 보살의 천의는 적·청색의 보색대비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백의관음처럼 상징성 있는 보살은 상징 색으로 천의를 연출하였다. 귀를 타고 내려온 보발이 어깨 위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화 중 울산박물관 소장본과 같은 형식의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32년 京都 延曆寺本(線描)을 포함해 6점정도 알려져 있는데, 기년을 가진 채색불화로서는 이 작품이 유일하고 국내 유존 작으로서도 유일하다.

<표> 조선 전기 아미타구존도 현황

| 연번 | 작품명 | 시대 | 재질 | 크기(cm) |
|----|--------------------|-------|----|------------|
| 1 | 일본 善妙寺 아미타여래구존도 | 15세기 | 비단 | 77.3×51.0 |
| 2 | 일본 延曆寺 아미타여래구존도 | 1532년 | 삼베 | 109.2×55.7 |
| 3 | 울산 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 1565년 | 삼베 | 67.1×45.8 |
| 4 | 일본 개인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 16세기 | 비단 | 77.3×51.0 |
| 5 | 일본 寶珠寺 아미타여래구존도 | 16세기 | 비단 | 40.8×26.0 |
| 6 | 일본 金峰寺 아미타여래구존도 | 16세기 | 삼베 | 82.8×55.3 |

한편, 화기부분에 대한 초분광, 적외선 촬영 결과 덧쓰거나 수정흔적이 없어 제작 당시에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嘉靖’의 연호를 ‘嘉晴’이라고 쓴 것도 제작 당시 착오로 인한 오기로 판단된다. 그리고 궤주로 등장하는 지준의 활동시기를 감안하면 『대방광불화엄경소주』에 나오는 지준과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불화가 가지고 있는 양식적 특징과 더불어 1565년에 제작된 불화임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화기>

嘉晴四十四年乙丑四月日」

願造阿弥陀會圖」

幀誦大施主今之保」

几主智峻比丘」

11.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淳昌 日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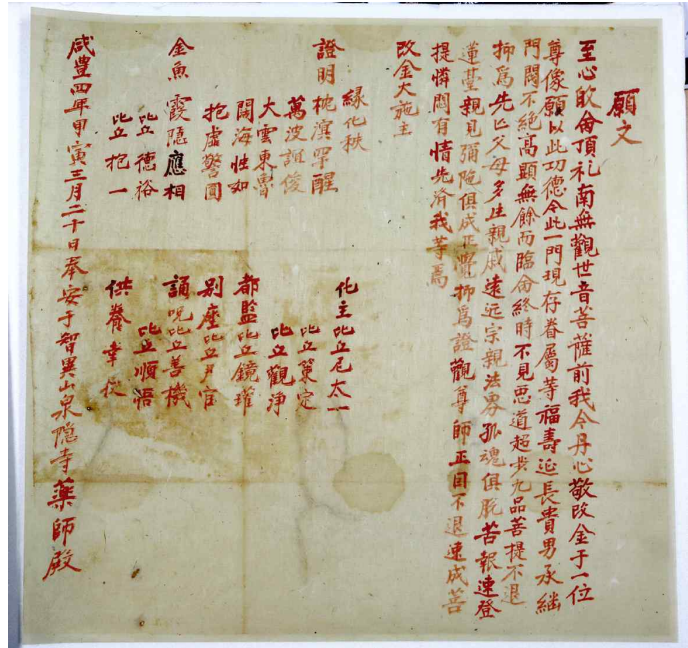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7.1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2.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2014.10.31. 지정)
- 명 칭 :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淳昌 日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한국불교태고종 일광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담순로 2168-33, 일광사
- 수 량 : 보살상 1구, 중수발원문 1점
- 규 격 : 전체 높이 47.0cm, 무릎 폭 28.5cm
- 재 질 : 나무에 도금(보살상), 종이(중수발원문)
- 형 식 : 독존상(정병을 들고 앉은 관음보살)
- 조성연대 : 조선 후기(17세기 추정)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중수발원문>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불룩한 사각형의 얼굴, 균형 잡힌 신체, 옷주름에서 드러나는 힘과 사실감의 조화 등 혜희의 조각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신체의 양감이나 사실적인 옷주름 등으로 보아 제작 시기는 혜희의 고�령 반룡사 비로자나삼존불좌상(1642)를 상한으로 하며 혜희의 독특한 표현기법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상은 혜희 불상의 양식적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보관은 후보되어 원형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원위치였던 천은사 약사전에서 이곳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보물로 지정받은 혜희의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이나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62)은 발원문을 비롯한 복장물이 잘 남아 있어 상의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수리 당시에 넣은 중수원문 외에 다른 복장물은 없어진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황을 고려한다면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순천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성시기와 작가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1854년에 구례 천은사에서 개금한 사실만 확인되었다. 당시 관음보살상으로서 약사전에 봉안되었다.

보살상의 착의법이 천의를 입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기존의 조사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조각승 혜희의 특징으로 보고, 이 목조보살상이 혜희의 작품이거나 같은 계열의 조능의 작품으로 추정할 바 있다.

이와 같은 천의형 착의의 보살상은 조선시대에는 주로 관음보살상에 보이며, 특히 오른손을 들고 있는 보살상은 관음전(혹은 원통전)에 단독으로 봉안하기 위해 만든 수월관음 도상으로서의 관음보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수발원문에서 관음보살상만 명시된 것도 이 상이 원래부터 단독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원래의 보관은 유실되어 두 차례에 걸쳐 새로 보관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는 큰 손상이 없는 상태이고, 일목조로 조성되었으나 등판이 일부 합성수지로 대체되어 있어 2018년도 개금 당시 나무판으로 교체하였다.

조각양식적으로 조각상 혜희 계보의 조각에 가까우며, 다만 유독 치켜올라간 눈매의 표현이나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 생략이 강한 착의표현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보여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점은 같은 조각가의 작품이면서도 보살상의 크기가 작은 것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상은 특히 단독상으로서의 관음상으로서 법당의 주존으로 봉안되었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50cm 미만으로 매우 작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 작은 규모의 원통전(관음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여 원통전과 관련된 문화를 연구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보살상은 조성 당시의 기록이 없어 아직 정확한 제작연대 및 조각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많은 경우 혜희작품으로 추정되고는 있으나, 양식적으로 혜희작품에 가깝다고 해도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천의형 착의법은 풍기 영전사, 부산 범어사의 목조관음보살상도 천의형 착의를 한 관음보살이지만 혜희 양식은 아니어서, 이러한 천의형 착의가 반드시 혜희 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듯 작은 크기임에도 법당 주존으로서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수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뛰어난 조각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조성연대 및 조각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등재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진전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구례 천은사에서 1854년의 상황과 관음전의 조성관계, 조각의 세밀한 양식적 검토,

양식적으로 유사한 보살상의 깊이있는 고찰, 혜희의 행적에 대한 검토, 유사한 관음보살상으로서 혜희작품으로 추정되는 조각상들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고찰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큰 의미를 지닌 불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 불상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상 17세기 전반기 범령파로 추정되는 혜희의 작품을 담고 있다. 현재 혜희의 작품은 분명한 제작시기를 가지고 있는 기년작만 해도 7~8점정도 되고, 이외 추정 작품도 많다. 따라서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상이 조형적으로 뛰어나고 양식적으로 조각승 혜희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제작시기도 17세기 중엽 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만, 17세기대 조성된 불상의 양이 많고, 또한 대부분 제작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료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다른 불상들에 비해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

다만, 제작 시기와 제작자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조형적, 도상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온전한 구성형식을 갖추고 있는 불상은 추후 세부 지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정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18년에 개금·수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뒷면 등에 도금 박락이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보관은 수리하면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사찰 측에서는 이 보관이 보살상에 알맞지 않아 새로 제작 중이라 전한다. 복장물은 중수원문만 확인되었는데 원문에 의하면 이 상의 원 봉안처는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 약사전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금어는 사불산파의 하은 응상으로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승이다. 이 상이 이곳 일광사에 오게 된 것은

이 절의 창건주인 김세현 스님에 의해서다(중수원문 참조). 일광사는 1935년에 작은 건물로 시작하여 인근 암굴에서 수행 생활을 하는 세현스님을 오월명화라는 보살이 모셔와 1948년에 함께 법당을 짓고 보살상은 이곳으로 이봉했다고 한다. 1961년, 1972년에 부속 건물들을 증축하며 사세를 키우던 중 오월명화 보살이 세상을 떠나자 선운사의 말사였던 이 사찰은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등록하였다. 현재는 대웅전 관음전, 삼성각, 요사채를 갖춘 사찰로 신행과 포교의 중심사찰로 자리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상은 대웅전 내 가운데 불단의 우측편인 중단(中壇)에 봉안되어 있는데 높이는 47cm, 一자 반 정도의 작고 아담한 크기로 한 나무로 제작되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지만 어깨와 다리가 이루는 신체의 비례와 균형이 좋다. 손등을 바깥으로 향해 돌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맞대고, 손바닥을 펴서 든 왼손에는 라마식 정병이 놓여 관음보살에 도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관 아래의 머리카락은 앞에서 뒤통수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모발을 섬세하게 새겼으며, 귀 앞과 뒤로 흘러내린 두꺼운 두 가닥의 머리카락은 어깨에서 3개의 고리가 덩어리처럼 하나로 모였다가 다시 두 가닥으로 흘러내린다. 턱이 둥근 네모진 얼굴은 이마가 넓고 긴 눈썹선과 이어지는 편평한 콧등의 작은 코,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눈매, 넓고 편평한 콧바퀴와 날카로운 외연의 귀 표현 등은 혜희의 불상인 공주 갑사 보장각 목조석가여래좌상(1642년 후반)이나 대적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등과 닮았다. 이런 특징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조각승과 비교해 보면 표현법이 확연히 다를 수 있는데 운혜의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67)을 보면 가름해 보이는 얼굴에 큰 코가 오뚝하며, 무염의 속초 신흥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1)은 두툼한 눈꺼풀과 작은 눈, 좁은 미간에 돌출된 듯한 코의 표현 등 조선후기 불상에는 조각승 개개의 개성이 더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푼 듯한 가슴에 상반신은 옷을 입지 않고 천의를 솔처럼 걸쳤으며 천의 자락은 양어깨를 넓게 감싸서 겨드랑이와 양 옆구리 측면으로 둥근 원을 만든 뒤 다시 앞으로 빼낸 천의자락을 양 손목 바깥으로 넘긴 모양이다. 또한 겨드랑이 위치의 상박에는 ‘人’형을 이루는 천의 아래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음도 보인다. 가슴 아래 균의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요포를 입어 끈으로 묶은 후 안쪽 면을 바깥으로 접어 드러나도록 했으며, 긴 요포의 자락은 양측으로 펼쳐 허벅지를 돌아 바닥으로 밀어 넣은 듯 정리했다. 다리 위로 표현된 균의 옷주름은 사실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두껍고 힘이 있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무릎에는 행전(行纏)처럼 묶어

상하를 붕긋하게 접어 사실감을 주었고 가운데 옷자락은 층을 이루는 듯 차곡차곡 접어 정리했으며 끝단은 지그재그형을 이루고 있는데 표현에 힘이 있다. 뒷면 균의도 ‘八’자형으로 주름이 접혀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조각승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일광사 보살상은 얼굴을 제외하고 상반신의 천의를 입은 모양이나 상박의 장신구 등의 표현기법은 법령의 군산 은적사 목조보살좌상(1629)과 상당히 유사해 혜희가 법령계의 조각승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혜희의 활동을 보면 법령의 익산 송림사 안심당 목조여래좌상(1640), 청헌·법령의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1641) 제작에 참여했으며, 혜희가 조성한 공주 갑사 보장각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상(1655) 제작에는 군산 은적사 불상을 천윤이 참여해 혜희가 법령의 계보를 가진 다른 조각승과도 여전히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령계와의 관련성은 불상의 표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혜희 활동 전반기에 제작된 고령 반룡사 비로자나불좌상(1642)은 법령의 익산 송림사 안심당 목조여래좌상과 양감과 사실감이 매우 유사하며, 심지어 귀, 장신구 등의 세부적 표현도 닮았다. 혜희의 불상은 점차 기념비적인 모습에 힘이 강조된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상(1655)의 개성 강한 표현기법으로 변화되어감을 볼 수 있다. 이런 양식적인 변화의 추이로 본다면 여전히 양감과 사실감이 보이는 일광사 보살상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상보다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탈보관 >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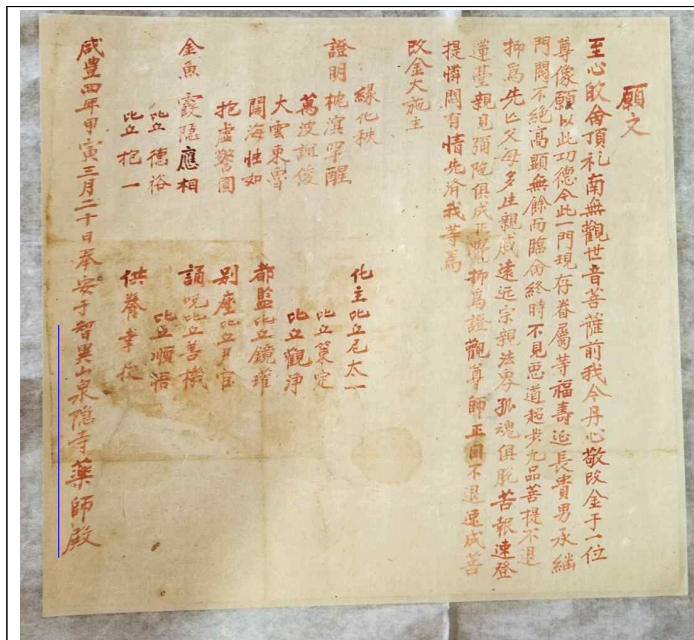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우측면>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좌측면>

○ 문헌자료

<중수원문>



「願文

至心歸命頂禮南無 觀世音菩薩前我今 丹心敬改金于一位
尊像願以此功德今此一門現存眷屬等福壽延長貴男承繼
門閥不絕高顯無餘而臨命終時不見惡道 超步九品菩提不退
抑爲先亡父母多生親戚遠近宗親法界孤魂俱脫苦報速登
蓮臺親見彌陀俱成正覺抑爲證觀尊師正回不退速成菩
提憐悶有情先 濟我等焉

改金大施主

| | |
|--------|---------|
| 緣化秩 | 化主比丘尼太一 |
| 證明枕溟罕醒 | 比丘策定 |
| 萬波誼俊 | 比丘觀淨 |
| 大雲東魯 | 都監比丘鏡瓘 |
| 闊海性如 | 別座比丘尹官 |
| 抱虛警圓 | 比丘順悟 |
| 金魚霞隱應相 | 誦呪比丘善機 |
| 比丘德裕 | 比丘順悟 |
| 比丘抱一 | 供養幸拔 |

咸豐四年甲寅三月二十日奉安于智異山泉隱寺藥師殿」

○ 참고문헌

- 송은석, 「法靈派 彫刻僧과 佛像-法靈, 惠熙, 祖能」, 『불교미술사학』5, 불교미술사학회, 2007.
- 임남수·김준영·배영진·윤선영·최강국, 「고령 반룡사(盤龍寺) 비로자나삼존불좌상」, 『민족문화논총』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희(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 사회평론, 2006.



○ 내용 및 특징

순창 적성면 괴정리 체계산에 위치한 일광사는 1932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고 있는 전통사찰로서, 창건주인 김세현 대사가 이번 조사대상인 목조관음보살좌상을 구례 천은사 약사전에서 모셔와 봉안하던 중, 공양주 오(吳) 월명화 보살의 발원으로 보살상을 잘 모시기 위해 인법당을 지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

광사 목조관음상의 개금기에서도 이 보살상이 원래 천은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절에 전해지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도1.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도2.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도3. 보살두 정면 세부 >
정면(보관착용)> 정면(보관탈거)>

현재 천은사에는 약사전이 없으나, 천은사 성보박물관에는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는 목조여래좌상이 1구 전하고 있다. 이 여래좌상은 양식적으로 일광사 목조관음상과는 차이가 있어 원래 일광 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은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는 서로 다른 양식의 불상과 보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천은사 약사전에는 각기 다르게 조성된 불·보살상들을 모아 삼존불 등을 구성하여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며, 약사전이 헐리거나 혹은 다른 전각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그 안에 봉안되었던 불상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 목조보살상은 순창 일광사로 이운된 것으로 예상된다. 천은사 극락보전에는 지금은 현대에 와서 새로 봉안한 아미타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나, 원래는 1614년 조각승 현진 등이 조성한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이들 목조보살좌상 역시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상과 양식적으로 다르고, 크기도 90cm가 넘는 작품이어서 맥락을 달리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상이 17세기에 천은사에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법당과는 무관하게 조성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관음전(원통전)의 주불로 봉안되었을 가능성, 혹은 다른 절에서 조성되었다가 1854년에 천은사로 옮겨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보관은 2018년도에 개금하면서 새로 제작한 것이어서 고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 이전 사진에는 보관이 없이 관음전의 주존으로서 단독으로, 혹은 지금의 보관과는 다른 보관을 착용한 상태에서 새로 봉안한 아미타불의 좌협시보살로 봉안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 보관도 한 차례 이상 변화가

있어 관대장식이 추가된 사진이 확인된다. 현재는 기존의 일광사의 주불전인 관음전을 대웅보전으로 개칭하고, 별도의 관음전을 따로 세워 주존상으로 봉안하고 있으며 보관도 새로 조성한 것이다.



<도4. 귀와 어깨부분 보발 세부>

<도5. 보살두 뒷면 세부>

<도6. 반좌측면>

관음상은 높은 상투가 틀어져 있으며, 가장 끝단에서 고사리처럼 뒤로 말려있는 형태인데, 일부 수리가 되었다고 한다. 상투의 가장 아래에는 상투를 고정한 것처럼 보이는 둥근 고리가 있다. 보관에 가려지는 정수리 주변의 머리카락은 생략이 되어 밋밋하고, 보관이 얹혀지는 단 아래로는 보발이 표현되었는데, 이마 위로는 실타래와 같이 꼬인 보발이 보이며 이마 가운데에 혀 모양으로 내려온 보발이 보이고, 그 좌우로는 대칭적으로 같은 모양의, 그러나 크기가 약간씩 작은 보발이 이어지다가 양쪽 끝에서 다시 커지는 모양이어서 말하자면 발제선이 M자의 이마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보살두 뒷부분의 보발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단순한 형태이며, 보발 하나하나에 머리카락이 역시 수직선으로 새겨져 있다. 귀의 앞뒤로는 보발이 한가닥씩 길게 늘어져 흘러내리다가 컷불 하단의 귀걸이 위쪽 뒷편에서 하나로 만나 꼬이면서 어깨 위로 늘어지고 8자매듭이 지어진 후 다시 두 갈래로 나뉘며 한 가닥은 어깨 앞으로 비교적 짧게, 다른 한 가닥은 어깨 옆으로 길게 늘어지고 있는데, 늘어진 높이는 앞과 옆의 보발이 대체로 같지만, 어깨의 너비가 있어 옆으로 늘어진 보발의 길이가 더 긴 것이다.

귀는 이륜과 물음표(?) 모양의 작은 이곽 사이가 유독 넓은 편인데, 이 공간 위쪽에 한번 접힌 음각선이 보인다. 이는 혜희가 조성한 공주 갑사 보장각 목조석가불좌상, 전주 일출암 목조약사불좌상 등의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형식이다.

보살의 안면은 대체적으로 위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이며, 이마가 넓고, 이목구

비는 아래쪽에 몰려있어 전체적으로 납작한 인상을 준다. 상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위로 치켜 올라간 눈매인데, 눈 안쪽이 코의 중간 높이에서 시작되고, 양끝은 코의 뿌리 높이까지 올라가 있어 눈을 치켜 뜬 모습이 유난히 강조되었다. 눈썹은 완만한 호를 그리며 코로 이어지고 있는데, 코가 굽고 콧등이 평평하여 콧등의 좌우로 눈썹선이 각각 이어지고 있다. 코 높이의 1/4 정도 길이로 인중이 있고, 그 아래로 입술의 너비는 코 너비와 거의 비슷하나 약간 넓게 표현되었는데, 윤곽이 뚜렷하고 미세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입술 아래 턱이 매우 짧아 턱을 목 안쪽으로 바짝 당긴 긴장된 느낌을 준다.

목 아래로 삼도가 표현되었는데, 목 전체에 표현된 것이 아니라 정면 부분에만 열게 표현되었다. 목 아래로 노출된 가슴은 특별한 인체 표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둥글게 부푼 듯한 느낌이 든다. 어깨 양쪽에서는 천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깨 상박에서 ‘스’자 형태로 갈라지면서 팔뚝이 노출되는 착의 형식이다. 보살은 이처럼 천의를 걸친 착의형식과 여래와 같은 가사를 걸친 착의형식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가사형 착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순창 일광사 보살상처럼 천의형 착의를 걸친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도7. 보은 범주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혜희 작. 1655년.>



<도8. 승주 송광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혜희 작. 1662년.>

이처럼 천의를 착용한 보살상으로 대표적인 작품은 범주사 원통전 관음보살상을 들 수 있다. 이 상은 1655년 조각승 혜희를 비롯한 20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대작으로, 조선시대 관음보살상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관음상의 도상은 원통전에 주존으로 봉안할 관음보살상 단독으로 조성되었음이 조성기에 의해 밝혀져 관음보살상이 분명할 뿐 아니라, 휘날리는 천의자락과 함께 남순동자 및 해상용왕이 함께 조성되어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한 수월관음의 도상을 계승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혜희는 1662년에 송광사 원통전 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며 유사한 도상을 다시 한번 사용하였다. 역시 명문에 의해 관음보살상임이 확인되며, 비록 범주사 원통전 관음상처럼 가슴에서 좌우로 휘날리는 천의자락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보관에서 내려오는 띠가 휘날리는 모습으로 보아 강한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보타락가산의 수월관음상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통견의 법의가 아닌, 솔과 같은 보살의 천의를 걸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도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을 올리고 있어서 원통전의 주존으로서 조성된 관음상임을 알 수 있다.



<도9. 풍기 영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도10. 범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천의 착의 형식의 보살상을 원통전(관음전) 주존으로서의 관음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광사 보살상 역시 원통전의 주존으로 조성된 관음보살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의 좌협시 관음보살은 왼손을 들고 오른손은 내리고 있는데 반해 이 상은 오른손을 들고 있어 단독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예외적으로 삼척 천은사 아미타삼존불처럼 좌협시인데도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우협시가 세지보살이 아닌 지장보살이어서 이처럼 지장+관음보살 구성의 아미타삼존불에서 관음보살의 수인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존 보고서에서 이러한 천의형식의 보살상을 조각승 혜희가 조성한 관음보살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서 범주사, 송광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혜희의 작품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착의를 하고 있는 보살상 중에 혜희의 작품과는 차이가 있는 보살

상도 있기 때문에 혜희의 특징이라고만 특정하기 보다는 관음전이나 원통전에 봉안되는 주존상으로서의 관음보살상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풍기 영전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도 천의형 착의를 보이고 있지만, 혜희의 작품과는 거리가 있고, 아마도 영은(혹은 영색)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범어사 관음전의 관음보살상 역시 천의형 착의이지만 1722년 조각승 진열이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일광사 목조관음상에서 혜희의 조각양식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의형 착의의 보살상이 혜희 작품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결국 이같은 비교를 통해 천의를 걸치고 오른손을 들고 있는 일광사 관음보살상 역시 범주사나 송광사의 관음전처럼 관음전 주존으로서 수월관음의 개념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구례 천은사에는 현재 관음전이 있고, 그 안에는 현대에 조성한 관음상이 봉안되어 있어서 만약 이 상이 관음전 주존이었다면 왜 관음전에 봉안하지 않고 약사전에 봉안했던 것인지 등이 의문이다. 아마도 1854년 당시 관음전이 폐쇄되면서 주존보살상만 별도로 약사전에 모셨거나, 혹은 다른 절에서 모셔오면서 당시 천은사에는 관음전이 없어 약사전에 모시거나 혹은 관음전에 이미 관음상이 봉안되어 있어 약사전에 봉안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도11. 보살상 천의 세부> <도12. 보살상 천의 우측면 세부><도13. 보살상 천의 좌측면 세부>

양쪽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천의는 목둘레에서 옷깃처럼 반전되고 있고, 대략 세 겹 정도로 접히며 옆구리로 흘러들어갔다가 U자형으로 휘면서 다시 앞으로 나와 손목을 안에서 밖으로 휘감고 나와 가부좌한 다리 아래로 들어가 마무리되는 형식이다. ‘八’자형으로 벌어진 천의의 틈새로 상박에 찬 완천(腕釧)이 살짝 드러나

보이며, 손목에도 팔찌를 차고 있다. 팔찌에는 특별한 문양은 없고, 다만 양 테두리와 가운데에 용기선이 보여 전체적으로 세 줄이 도드라진 팔찌이다.

복부를 덮은 옷은 아랫배를 덮은 U자형으로 넓게 늘어진 옷자락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옷주름은 다른 보살상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우나, 법주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진천 영수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유사한 옷자락 표현을 볼 수 있다. 진천 영수사 보살상 역시 혜희작으로 추정된 바 있어 유사한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도14. 진천 영수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수인은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들고 있고, 왼손은 내리고 있어 하품중생인에 가깝지만, 왼손의 경우는 엄지와 중지를 맞대지 않고 다소 떨어져 있는데, 이는 정병을 엮기 위한 것이다. 왼손 손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고, 정병 아래에 못이 있어 꽃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병은 주구(注口)는 위로, 손잡이는 아래로 향한 조선시대 관음보살정병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도15. 보살상 오른손 및 팔찌 세부>



<도16. 보살상 결가부좌한 하체 세부>

가부좌한 다리는 전체적인 인체 비례에서 짧은 편이지만, 가부좌한 상태에서 다리가 서로 눌리면서 종아리의 근육이 도드라지게 부푼 모습이 유독 강조되어 팽

평한 느낌이 든다. 왼발바닥은 허벅지 아래로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오른발바닥은 절반 정도는 천의에 가려졌으나 엄지발가락 등 일부는 노출되어 보인다. 오른발목에서는 균의자락이 발목을 감싸고 돌아 S자형으로 구부러지며 대좌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다. 또한 무릎 아래로는 균의를 한번 묶어 각반을 차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도 특징이다. 원통전에 봉안되는 주존관음상은 무릎 아래에 슬갑(膝匣)이라고도 불리는 테슬이 달린 각반 같은 것을 차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일광사상은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무릎 아래로는 옷을 묶어 종아리에 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슬갑은 아니지만 유사한 계통의 균의라고 하겠다.

과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하나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일목조 방식의 조각상이다. 다만 양쪽 귀는 별도로 만들어 못으로 고정한 것이다. 그 밖에 등 뒤 쪽으로 구멍을 내고 아마도 내부의 복장공을 만들거나 납입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개금 시 위쪽 큰 나무판은 합성수지로 대체되어 있어 새로이 나무판을 제작하여 교체하고 개금하였다. 때문에 복장공을 들여다보면 일목조이지만 나무판을 덧댄 흔적이 있어 마치 접목조처럼 보인다. 이처럼 일목조로 조성한 것은 크기가 작은 보살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순천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목록

| 연번 | 명칭 | 수량 | 재질 | 비고 |
|----|-----------|-----|-----|--------------------------|
| 1 | 목조관음보살좌상 | 1 | 나무 | 상 높이 47.0, 무릎 폭 28.5 |
| 2 | 중수발원문 | 1 | 종이 | 합풍 4년(1854년) |
| 3 | 다라니1(현대) | 1 | 종이 | 금강경탐 다라니(붉은색 탐이 인쇄된 다라니) |
| 4 | 다라니2(현대) | 1 | 종이 | 서방정토극락세계구품연화대 |
| 5 | 다라니3(현대) | 1 | 종이 | 상평통보가 인쇄된 지전(紙錢)다라니 |
| 6 | 다라니4(현대) | 1 | 종이 | 법자다라니 |
| 7 | 한약재 | 1첩 | 약재 | |
| 8 | 씨앗 | 일괄 | 씨앗 | |
| 9 | 인조구슬(현대) | 4개 | 구슬 | 녹색·붉은색·옥색·보라색 |
| 10 | 금속편(현대) | 2 | 금속판 | |
| 11 | 청실·홍실(현대) | 1타래 | 실 | 붉은실과 청색실 묶음 |
| 12 | 실(현대) | 3묶음 | 실 | 적색·황색·녹색실 각 1묶음 |



<도17. 복장물 일괄>



<도18. 중수발원문>

○ 문헌자료

<중수발원문>

[원문]

願文

至心皈命禮頂禮南無觀世音菩薩前我今丹心敬改金于一位」
 尊像願以次功德今此一門現存眷屬等福壽延長貴男承繼」
 門闕不絕高顯無餘而臨命終時不見惡道超步九品菩提不退」
 仰爲先亡父母多生親戚遠近宗親法界孤魂俱脫苦報速登」
 蓮臺親見彌陀俱成正覺仰爲證觀尊師正回不退速成菩」
 提憐愍有情先濟我等焉」

改金大施主」

緣化秩」

證明 枕溟罕醒」萬波誼俊」大雲東魯」闊海性如」抱虛警圓」

金魚 霞隱應相」比丘德裕」比丘抱一」

化主 比丘尼太一」比丘策定」比丘觀淨」

都監 比丘鏡瓘」

別座 比丘尹宦」

誦呪 比丘善機」比丘順悟」

供養 幸技」

咸豐四年甲寅三月二十日奉安于智異山泉隱寺藥師殿」

[번역문]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오며, 관세음보살님께 정례(頂禮)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삼가 관세음보살 1위를 개금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공덕으로 현존하는 권속들이 복을 받고, 수명이 장수하며, 아들로 대를 이어 가문이 끊이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원하오며, 임종 때에도 악도(惡道)를 만나지 않고 극락왕생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과 여러 생을 거듭하며 맺어진 친척, 멀고 가까운 종친까지 법계의 고향들이 모두 해탈하여 속히 연화대에 올라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모두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관세음보살(觀尊師)께서 증명하여 바른 말이 없어지지 않고 속히 깨달음을 얻으며,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금대시주」

연화질」

증명 침명한성」 만과의준」 대운동노」 활해성여」 포허경원」

금어) 하은응상」 비구덕유」 비구포일」

화주 비구니태일」 비구책정」 비구관정」

도감 비구경관」

별좌 비구윤회」

송주 비구선기」 비구순오」

공양 행문」

함풍4년 갑인(1854년) 3월 20일 지리산 천은사 약사전에 봉안합니다.

□

○ 내용 및 특징

이 보살좌상은 일광사의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는 관음보살좌상이다. 조성과 관련된 기록은 없으나 중수기록은 남아있다. 중수기록은 2013년 전통사찰 신청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1854년 3월 20에 작성된 <중수원문> 따르면 원래 천은사 약사전(약사암으로 추정)에 봉안되었던 보살상으로 확인된다. 불상의 개금중수에 참여한 조각승은 霞殷 應相, 德裕, 抱一 세 분인데, 모두 불화승들이다. 하은응상은 불화승으로 동화사 칠성도(1857년), 통도사 서운암 칠성도(1861) 등 수많은

불화작품을 남긴 19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불화승이다.²³¹⁾ 덕유는 운문사 사리암 독성도(1851, 2위, 首 文成), 동화사 칠성도(1857, 2위, 首 應相), 통도사 서운암 칠성도(1861, 2위, 首 霞穩基相),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칠성도(1866, 首 霞隱偉相, 3위) 제작에 참여하였다. 포일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1860, 首 益讚), 은해사 운부암 아미타여래도(1862, 首 慈友) 제작에 참여하였다.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8일 동안 나운불교조각 이광민에 의해 보존처리와 개금이 이루어졌다. 이때 손상된 보계의 뒤쪽 부분과 수지로 마감된 등 쪽 복장구를 은행나무로 깎아 보수하였다.

1854년 중수 발원문에는 존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총독부관보 제1769호(1932년 11월 30일자)에 고시된 천은사 약사암 귀중품목록에는 1척 4촌 크기의 목제도금 관음보살좌상이 등재되어 있다. 천은사 약사암의 관음보살상과 이 보살상이 동일한 보살로 판단되므로, 이 보살상은 원래 관음보살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보살상을 봉안하고 있는 일광사는 김세현 스님이 1935년 10월에 작은 건물 한 채를 지으면서 비롯된 사찰이라고 전한다. 관음보살상은 창건주이신 김세현 스님이 일광사를 창건하기 전부터 모시고 있었던 불상인데, 일광사를 창건하기 바로 직전 인근 암굴(黃窟 또는 金窟)에서 이 보살상을 모시고 신행 활동을 하다가 1948년 10월에 吳月明華 보살과 인법당을 건립하고 목조보살좌상을 이운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관음보살좌상은 이안 시기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1932년 11월 30일에서 일광사가 개창되던 1935년 무렵에 천은사 약사암에서 일광사로 이안된 것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안 이후 1948년 10월 무렵 삼성각에 봉안했고, 1972년 8월 삼성각과 부속건물을 중수하면서 대웅전의 아미타삼존상의 협시로 모시다가, 다시 2018년 10월 대웅전 삼존불을 새로 조성하면서 관음전으로 옮겨 봉안하고 있다.

관음보살상의 형태를 보면, 우선 머리를 틀어 올려 보계를 만들었다. 보계는 뒤로 둥글게 말려 있는데, 이 부분은 수리되었다. 고려와 조선 전기의 보계에 비해

231) 응상은 하은 위상, 응상 등으로 불리웠던 화승이다. 그는 동화사 칠성도(1857), 통도사 서운암 칠성도(1861), 통도사 백련암 석가여래도(1863), 백련암 신중도(1864), 청암사 수도암 산신도(1864), 통도사 소장 현왕도(1864),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칠성도(1866), 대승사 신중도(1868), 운문사 관음전 관음도(1868), 운문사 원응국사진영(1868), 쌍계사 국사암 칠성도(1871), 해인사 범보전 비로나자불도(1873), 대승사 지장도(1876), 대승사 신중도(1876), 도리사 극락전 석가여래도(1876), 수다사 아미타여래도(1878), 금봉암 아미타여래도(1880), 금동암 신중도(1880), 김룡사 금선암 석가여래도(1880), 김룡사 금선암 신중도(1880), 김룡사 양진암 신중도(1880), 김룡사 사천왕도(지국천왕, 1880), 압곡암 신중도(1881), 도리사 칠성도(1881), 용문사 상향각 아미타여래도(1884), 용문사 심육나한도(1884), 고운사 금당 신중도(1887), 채운암 칠성도(1887), 파계사 금당암 석가여래도(1887), 파계사 금당암 신중도(1887), 파계사 금암 칠성도(1887), 김룡사 심육나한도(1888), 김룡사 칠성도(1888), 김룡사 독성도(1888), 김룡사 대성암 독성도(1888), 봉정사 영산암 석가여래도(1888), 대승사 묘적암 신중도(1890), 명봉사 현왕도(1890), 보국사 석가여래도(1890), 보국사 신중도(1890), 보국사 칠성도(1890), 통도사 자장암 신중도(1890), 김룡사 대성암 아미타여래도(1913), 김룡사 삼장도(1913), 화림사 미륵불도(1927)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고경스님 교감·송천스님·허상호·김정민 編著,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11, pp.1432~1433.

빈약한 편이다. 보관으로 가려지는 곳은 보발을 표현하지 않았고, 앞쪽과 뒤쪽 노출되는 머리의 보발은 굵게 처리하였다. 귀의 앞과 뒤쪽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서 엮고 다시 두 갈래로 흘러내렸다. 노출된 굵은 머리카락은 몸체와 동일한 나무는 아니며, 가소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1.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7세기>



<도2. 좌측면>



<도3. 중수발원문, 1854년>

보관은 제작당시의 것은 소실되고 최근 새로 제작한 것이다. 귀의 앞 뒤쪽에서 한 가닥씩 흘러내린 보발을 땅아 어깨위로 멋스럽게 드리웠다. 크게 굴린 이륜은 돌기 없이 매끈하게 처하여 전체적인 귀의 형태는 ‘?’ 형태를 띤다. 귀에는 조금 도톰하게 볼륨감을 붙여 넣었다. 상하각 사이에는 얇은 음각선을 넣어 삼각와를 표현하였고, 耳甲腔의 공간은 좁고 좁게 늘어 진 형태를 띤다. 귓볼에는 꽃모양의 장신구를 부착하였다.

얼굴은 턱이 짧아 넓직한 편이며, 이목구비는 또렷하게 구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쁘장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마는 넓고 시원하게, 눈은 가늘고 길게 눈꼬리를 올렸고, 内眦에는 몽고주름이 매력적이다. 각진 코는 작고 오뎅하며, 인중은 짧고 인중 기둥이 뚜렷하여 입체적이며, 작은 입은 도톰하고, 턱은 짧게 처리하였다. 불신은 허리가 짧고 굵은 편이며 무릎 폭도 좁고 높아 전반적으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기 같은 신체비례를 갖추고 있다.

着衣로는 天衣와 裙衣, 腰衣로 구성하였다. 양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는 입체감과 속도감을 강조하였다. 어깨를 타고 내린 좁은 천의자락이 옆구리 쪽으로 힘차게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급속도로 방향을 틀어 팔뚝을 돌아 무릎 측면으로 재빠르게 흘러 내렸다. 배면에는 허리까지 천의를 덮었으며 못깃은 이중으로 처리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균의의 단이 표현되어 있고, 균의 위로는 멋스럽게 늘어진 요의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착의형식을 갖춘 보살상은 혜희나 조능과 같은 조각승들이 많이 만들었다.

무릎의 측면은 부드럽게 둥글렀고 무릎 앞으로는 부메랑 모양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골 깊은 몇 가닥의 호선 주름이 덧붙어서 매우 입체적인 조형감각을 표출하고 있고, 무릎 양쪽에 금강저 모양으로 수직주름을 잡은 것이 이례적이다. 이곳에 보이는 무릎 주름은 법령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금산 은적사 목조보살상(1629년)을 비롯하여 보은 법주사, 순천 송광사 등 법령-혜희-조능-금문 등으로 연결되는 조각 집단이 즐겨 구사한 표현 요소이다.

오른손은 들어 손바닥을 정면으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몸통에 주구가 달려 있는 정병을 받쳐 들고 있다.

골 깊은 주름과 빠른 속도감을 통해 탄력과 긴장감을 극대화한 천의자락의 표현, 몽고주름이 잡힌 길게 치켜뜬 매력적인 눈, 작고 오뚝한 삼각형의 콧날, 열게 미소 지은 작은 입술 등에서 보이는 예쁘장한 상호, 애기같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단구적인 신체비례를 갖춘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중·후반기 작품 활동을 펼친 조각승 혜희와 조능의 작품에서 이와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혜희 작품 중 1655년 작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1662년 작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조능의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과 비교된다. 보은 법주사나 순천 송광사 상에서 볼 수 있는 무릎의 행전(또는 치레장식)이나 복부에 표현된 꽃모양의 복갑의 표현이 생략되었다.

이 불상을 조각승 혜희와 조능은 법령의 조각풍을 계승한 조각승이며, 조능은 혜희의 작품에서도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혜희는 공주 갑사 보장각 목조석가여래좌상, 고령 반룡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1642년),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 보물),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62년, 보물), 김제 금복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76년), 전주 일출암 목조약사여래좌상(1677년), 부산 금정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77년) 등을 제작한 조각승이다. 조능은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 보물)과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7년, 보물) 등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공주 갑사 대자암 목조보살좌상, 금산 보석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진천 영수사 관음전 목조보살좌상 등 혜희(또는 조능)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표> 조각승 혜희의 작품 목록

| 조각승 | 佛像名 | 造成年代 | 조각승 | 原 奉安處 | 지정사항 |
|------------------|-------------------------|-----------------------|---|---------------|-------|
| 혜熙 / 慧熙 | 익산 승림사 성불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 1640년 2월 | 法靈, 哲學, 覺玄, 慧熙, 祖能, 惠元 | 진북 옥구 불명사 | |
| |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1641년 6월 | 淸憲, 法令, 惠澄, 會海, 法玄, 雲蹟, 元澤, 天元, 榮竺, 賢允, 贊日, 法密, 惠熙, 信雄, 見牛, 靈隱, 惠遠 | 봉안처 표기없음 | 보물 |
| | 高靈 반룡사 木造毘盧遮那佛三尊坐像 | 1642년 7월 | 慧熙, 尙敏, 戒學, 法均, 祖能, 智和 | 봉안처 표기없음 | |
| | 公州 甲寺 木造釋迦佛坐像 | 1640년대 추정 | 惠熙, 天允, 尙敏, 善雲 | 봉안처 표기없음 | |
| | 報恩 法住寺 木造觀音菩薩坐像 | 1655년 10월 | 惠熙, 智修, 天允, 尙敏, 海修, 天澤, 祐玄, 釋蘭, 性悅, 處祥, 麻日, 金文, 勝學, 裕洽, 能學, 淨允, 省贊, 信明, 明覺, 處仁 | 報恩 法住寺 觀音殿 | 보물 |
| | 순천 송광사 木造觀音菩薩坐像 | 1662년 1월 | 慧熙, 金文 | 順天 松廣寺 | 보물 |
| | 진주 日出庵 木造藥師佛坐像 | 1667년 6월 | 慧熙, 處祥, 信一, 靈坦, 普融, 懷一, 道文 | 完州 龍門寺 | 유형문화재 |
| | 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佛坐像 | | 慧熙, 處祥, 信日, 靈坦, 普融, 懷日, 道文 | | |
| 김제 금복사 목조여래좌상 | 1676년 5월 | 惠熙, 金文, 性悅, 宝融, 懷日 | 완주 안심사 | | |

○ 문헌자료

願文

至心皈命頂禮南無觀世音菩薩前我今丹心敬改金于一位」
尊像願以此功德今此一門現存眷屬等福壽延長貴男承繼」
門闕不絕高顯無餘臨命終時不見惡道超步九品菩提不退」
抑爲先亡父母多生親戚遠遠宗親法界孤魂俱脫苦報速登」
蓮臺親見彌陀俱成正覺抑爲證觀尊師正因不退速成菩」
提憐悶有情先濟我等焉」

1단>

改金大施主」

緣化秩」

證明 枕溟罕醒」

萬波誼俊」

大雲東魯」
 闊海性如」
 抱虛警圓」
 金魚 霞隱應相」
 比丘 德裕」
 比丘 抱一」
 2단>
 化主 比丘尼 太一」
 比丘 策定」
 比丘 觀淨」
 都監比丘 鏡瓘」
 別座比丘 尹官」
 誦呪比丘 善機」
 比丘 順悟」
 供養 幸杖」
 咸豐四年甲寅三月二十日奉安于智異山泉隱寺藥師殿」

○ 과학조사

2016년 3월 공주대학교에서 수종분석, X-Ray촬영,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나무의 수종은 은행나무과 은행나무(*Ginkgoaceae Ginko biloba* Linnaeus)로 밝혀졌으며, X-Ray 조사결과 몸통과 머리는 한 나무로 조성하고 귀와 밑판만 별도의 목재로 제작한 후 못으로 결합하였다. 2곳에서 채취한 나무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pm 1\sigma$ 편차를 기준으로 시료1은 1445~1485년, 다른 시료 1점은 1440~1455년으로 측정되었으며, $\pm 2\sigma$ 편차에서는 시료 1점이 1440~1530, 다른 시료 1점은 1595~1620년으로 측정되어 관음보살에 사용된 나무는 16~17세기에 채취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2.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順天 桐華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가. 검토사항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문화재청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3.1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順天 桐華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화엄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동화사
② 복장유물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성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대좌 3점,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 복장진언 1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표 참조
- 형 식 : 공간적 삼세불
- 조성연대 : 1657년(효종 8)
- 제작자 : 계찬(戒贊), 인계(印戒), 영언(靈彦), 정민(淨敏), 성률(性律), 사민(思敏), 종협(宗洽)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지정 대상 현황>

| 연번 | 명칭 | 재질 | 크기(cm) |
|----|---------------|--------|--|
| 1 | 목조석가여래좌상 | 나무에 도금 | 높이 115.0, 무릎 폭 78.0 |
| 2 | 목조석가여래좌상 대좌 | 나무에 칠 | |
| 3 | 목조아미타여래좌상 | 나무에 도금 | 높이 99.0, 무릎 폭 70.5 |
| 4 |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 나무에 칠 | |
| 5 | 목조약사여래좌상 | 나무에 도금 | 높이 98.0, 무릎 폭 70.1 |
| 6 | 목조약사여래좌상 대좌 | 나무에 칠 | |
| 7 | 목조석가여래좌상 발원문 | 종이 | 20.4×49.8 |
| 8 | 목조석가여래좌상 후령통 | 칠, 비단 | 지름 최소 2.9~최대 3.5, 높이 9.0 * 황초폭자에, 사방경 4점 포함 |
| 9 |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진언 | 비단 | 31.0×3.7 * 붉은색 비단에 범서 |
| 10 |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 | 종이 | 20.6×52.0 |
| 11 |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후령통 | 종이, 비단 | 전체 길이 17.9, 최대 폭 8.9 *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
| 12 | 목조약사여래좌상 발원문 | 종이 | 20.5×51.0 |
| 13 | 목조약사여래좌상 후령통 | 종이, 비단 | 전체 길이 10.5, 최대 폭 4.7 *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은 세 불상의 복장에서 각각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7년 조각승 계찬이 주도하여 조성되었으며, 제작 당시부터 동화사에 봉안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성발원문 외에 각 불상의 대좌상판에도 대동소이한 조성기가 묵서로 기록되어 있어 조성기 내용과 교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동화사 삼세불상은 계찬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로는 유일한 것이나, 이와 유사하면서도 조각승이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의 불상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화사 삼세불상의 발원문은 불상조성에 있어서의 업무 분담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기록되어 있어서 불상조성 공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계찬에게 영향을 준 스승이나 선배 조각승의 작품보다 다소 간략화되고 단순화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중반을 넘어서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단순화의 경향은 조선후기 불상양식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흐름으로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전환기의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불상이 지니는 고도의 집중력과 초월성, 생명력을 두루 지니고 있어, 마치 불상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것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털어낸 듯한 단순함이 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와 함께 동화사 삼세불상은 연화대좌 상판의 묵서명을 통해 대좌까지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대응전의 불단 및 단집까지 포함하여 조성 당시의 원형을 완전하게 일괄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이 삼세불상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한 이 삼세불상을 보물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고 연구자료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 형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삼세불상 모두 개금의 탈변색 이외 큰 손상 없이 제작 당시 모습(대좌 포함) 대로 원래의 봉안 장소에서 온전히 전해져 오고 있다는 점

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7년이라는 제작시기, 조각승(계찬 등), 봉안사찰(동화사),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오금, 황금, 재목, 복장 등)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임진·정유재란 이후 재건·복구 불사를 진두지휘한 벽암각성스님이 불사에 동참하고 있어 동화사 불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조각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수조각승 계찬은 지금까지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1643년부터 1671년까지 활동한 조각승이며, 수 조각승 응혜와 승일 밑에서 조각적 역량을 키웠다. 그의 조각에서는 이들 중 응혜의 영향이 좀 더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계찬의 독자적인 경향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불상을 통해 17세기 전반기 활동한 1세대 조각승에서 17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2세대 조각승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조각승의 계보와 불상 양식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데도 유익한 자료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정 검토대상은 그동안의 조선후기 불상 지정선례에 따라 주색 인본다라니를 제외한 불상 3점, 대좌 3점(연화대좌 포함),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후령통 관련 유물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657년 수조각승 계찬에 의해 조성된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의 삼존불이다. 조각승 계찬은 임진왜란 종전 직후 형성되어 영남 일대와 순천, 여수 등 호남 남동부 지역에서 활동한 현진·청현파의 청현-응혜를 이은 주요 조각승이다.

동화사의 이 불상들은 조각승 계찬이 조성한 대표 작품으로, 원래 봉안처인 동화사 대웅전에 그대로 봉안되어 있고, 발원문과 복장물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작품의 예술성·학술성도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복장유물, 지정 가치 있음)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복장유물 중 발원문은 연화대좌의 묵서와 함께 동화사 삼세불의 제작시기를 알려주며, 불상 제작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스님과 시주 그리고 화원을 기록하여 동화사 불상의 역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라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순천 개운산 동화사는 대각국사 의천이 창건했다고 전하며, 대웅전 앞 뜰의 삼층 석탑의 연대가 고려 초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고려 초기 창건으로 보기도 한다. [도1] 동화사는 정유재란 기간에 파괴되어 1601년(선조 34) 신충(信聰)이 대웅전을 재건하였으며, 1630년(인조 8) 계환(戒環)이 중창하였다고 한다. 1662년(헌종 3)에는 희안(熙安)과 범홍(法弘) 등이 호선루 건립과 기와 불사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정조사 대상인 삼세불은 계환의 1630년대 중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조성된 것이며, 아마도 처음 중창 후에는 1601년 재건 당시의 불상이 계속 봉안되어 있었으나 1657년에 이르러 비로소 제대로 삼세불을 조성하여 봉안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춰 몇 년 후 기와불사도 새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1. 순천 동화사 대웅전 및 삼층석탑>



<도2. 순천 동화사 대웅전 단집>

현재 삼세불상은 동화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의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으며, 불단 위로는 법식을 잘 갖춘 단집[도2], 그리고 후불후벽의 관세음보살입상 벽화를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후불탱화로서는 석가모니 단독 설법도상의 홍탱을 걸어두었는데 근래의 작품이다.[도3]



<도3.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세불좌상>



<도4. 중앙 목조석가여래좌상>

삼세불 중에서 우선 중앙의 본존 석가여래상을 살펴보면 그 크기는 양 옆의 아미타·약사여래상보다 큰 크기로 조성되었다.[도4] 오른쪽 어깨를 가사로 살짝 덮은 변형편단우견에 항마촉지인을 결한 전형적인 석가모니의 도상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손이 신체비례에 있어 큰 편이고, 어깨는 비교적 좁으며, 결가부좌한 무릎이 높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정수리 부분은 반원형에 가깝게 둥글다.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를 갖췄는데, 정상계주는 높고 굽은 편이지만, 나발이 역시 높아서 정면에서 볼 때 낮게 솟은 것처럼 보인다.

불두는 전체적으로 정수리에서 턱끝단까지의 1/2 높이에 눈썹을, 다시 눈썹과 턱끝의 1/2 높이에 코끝이 위치하게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도5] 이러한 비율로 보자면 코끝에서 턱 끝단까지의 높이의 1/2 정도에 입술이 위치하면 자연스러운 비례가 될 것으로 보이나, 입술은 이 1/2 높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중이 다소 짧게 느껴진다. 이러한 안면 비례는 다른 두 불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눈은 가늘며 거의 수평으로 직선에 가깝게 뜨고 있다. 눈썹이 그리는 호선도 완만한 곡선이어서 눈을 지그시 뜨고 있는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코는 뿌리(위)쪽이 콧볼(아래)쪽보다 약간 좁지만 거의 같은 굽기를 지녔으며, 옆에서 볼 때는 이마선이 내려오다 미간 부분에서 밖으로 약간 꺾이면서 솟는 윤곽을 보인다.[도6] 콧망울선이 양쪽에 초승달 모양으로 새겨졌다. 콧볼은 물음표(“?”) 모양의 이륜(耳輪)이 평행한 띠처럼 표현되고, 그 안에 이맥(耳脈)이 낫 모양으로 굽고 간략히 표현된 형식인데, 이맥 끝단에는 이주(耳珠)가 솟아있다. 이주 뒤쪽으로는 콧구멍이 깊게 파여 있다. 이륜과 이주가 만나는 부분 정도가 안면부의 눈높이 정도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턱 아래에는 호선의 홈을 만들어 턱의 양감을 강조하고 있다.



<도5. 석가여래 불두 정면>



<도6. 석가여래 불두 측면>



<도7. 석가여래 상체 세부>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양쪽 어깨를 덮은 가사가 목 양쪽 끝단을 가릴 정도로 넓게 덮고 있어 의도적으로 가슴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 가슴에는 인체의 굴곡 표현이 전혀 없이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가슴 아래로 복부를 덮은 옷자락은 마치 혀를 내민 것처럼 U자형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불상에서 이 부분의 옷주름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소 구분되는 독특한 표현이다.[도7]

항마촉지인을 결한 두 손은 전체적인 비례로 볼 때 다소 크게 강조되어 있다. [도8] 손뿔이 뾰족하지 않고 네모난 형태로 유난히 넓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며, 손등 부분은 평면적이지만, 손바닥 부분의 양감과 손가락 마디마다 음각선을 두어 강조했다. 팔뚝이 노출된 오른팔도 양감이 없이 기둥처럼 밋밋한 편인데, 팔굽 부분이 다소 굽고 손목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가늘어지고 있어 인체의 형태를 기본적으로는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면적이고 생략적인 조형성은 한편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듯한 자세를 강조해주기도 한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식이며, 손뿔과 그 아래 손가락 끝 사이에 깊이 굴곡을 내어 오른손보다 더 정교하게 처리한 느낌이다.[도9]



<도8. 석가여래상 오른손 축지인 세부>



<도9. 석가여래상 좌측 수인 세부>

가부좌한 하체도 전체적인 옷자락은 생략이 많고 다만 교차한 두 다리 사이로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이 펼쳐진 것과 종아리 부분의 근육을 암시하는 음각선만 강조되어 있다.[도10] 왼발은 옷자락에 덮여 보이지 않고, 오른발 발바닥만 일부 노출되어 있다. 무릎이 전체 비례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도10. 석가여래상 하체 세부>



<도11. 석가여래상 대좌>

대좌는 상·중·하대를 갖춘 3단 대좌인데, 평면은 8각이지만, 방형에서 모죽임한 팔각으로 볼 수 있다.[도11] 상대에는 하엽 문양이 달린 계자각을 세워 난간을 들렸고, 계자각 사이의 궁판에는 십(十)자형의 안상 구멍이 뚫려있다. 상대의 상판 아래에는 3단의 층급받침을 두었다. 중대는 탕주를 세웠는데, 정면에 3칸, 측면에 2칸, 그리고 간방에 각각 1칸이 구획되었으며, 각 칸마다 안상을 새겼다. 하대는 4단의 층급을 두고, 맨 아래에 안상이 새겨진 다리를 세웠다. 상대의 위에는 불상을 받치기 위해 양련과 복련이 위아래로 결합된 연화대좌를 받쳤는데 평면은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불상연화대좌 형식이고, 복엽의 연잎이 그려져 있다.



<도12. 석가여래상 연화대좌 상판 목서명>

이 연화대좌 위쪽 양련좌의 상판에 목서가 새겨져 있어 이 불상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목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 性日 比丘

持殿 熙安 比丘

畫員

戒贊 比丘

印戒 比丘

英彦 比丘

淨敏 比丘

性律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 單身

緣化秩

供養主 三彦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忠宝 比丘

雷彦 比丘

海堅 比丘

大化士 法弘 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도13. 아미타여래좌상>



<도14. 약사여래좌상>

한편 아미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은 조각기법이나 양식은 석가여래좌상과 대동소이하나, 다만 두 상 모두 크기가 석가여래상에 비해 조금 작고, 통견착의에 오른손은 손목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구품인을 결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복부를 덮고 있는 군의 끝단의 옷주름이 연꽃 모양으로 주름진 점도 석가모니불상의 같은 부분 옷주름과 다른 점이다. 향우측의 약사불은 아마도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사라져 아미타불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삼세불의 경우 좌우의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손을 대칭되게 반대로 들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동일하게 오른손은 손등이 위로,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들고 있다. 이처럼 좌우 보처불이 동일하게 손을 들고 있는 사례는 드물지만 예를 들어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세불상 등을 들 수 있다.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러한 경향은 주로 불화로서 그려질 때의 도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불화에서는 삼세불화의 좌우보처로서 아미타·약사여래의 수인이 좌우 동일하게 나타나고, 불상에서는 좌우 대칭으로 나

타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회화적 도상이 조각에 사용된 것은 불상초 제작에 있어 불화승의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도15. 아미타여래 연화대좌 상판 묵서명>



<도16. 약사여래 연화대좌 상판 묵서명>

연화대좌 상판에 묵서가 쓰여진 것도 석가여래좌상과 동일하고 내용도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나, 다만 문장의 위치, 작성 방향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도17. 아미타여래좌상 하체 세부>



<도18. 약사여래좌상 하체 세부>

한편 아미타여래좌상은 석가·약사불과 다소간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불상의 얼굴 안면처리에 있어 턱이 다소 가름한 편이며, 오른쪽 어깨를 덮은 가사자락이 석가·약사여래상은 둥글게 덮고 있는 반면, 아미타여래상은 한번 접히면서 흘러내리고 있고, 아미타여래의 왼팔에서 흘러내린 가사자락이 왼쪽 무릎을 덮으며 앞으로 흘러내리는 표현은 석가·약사여래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존 발표된 동화사 삼세불상 논문에서는 아미타여래상은 수화승 계찬의 작품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다른 화승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조각양식이라기 보다는 표현형식상의 차이이고, 계찬이 수화승으로 제작을 주도한 다른 불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석가·약사여래상과의 공통점이 지배적으로 많이 보이므로 다른 조각승의 작품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다음 ‘문헌자료’ 참조)에 의하면 지전(持殿)으로 참여한 희안(熙安) 비구는 이들 불상이 조성된 지 5년 뒤인 1662년에 호선루 건립 및 기와불사를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화사 중창 불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조성발원문 및 대좌 묵서의 내용을 통해 이들 삼세불상이 원래부터 동화사에 봉안되기 위해 조성되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희안 비구가 동화사에 새로운 불상을 조성하면서 조각을 의뢰한 조각승 계찬은 지금까지 다른 불상조성 발원문에서 종종 그 활동이 확인되었지만, 수화승으로 참여한 것은 현재까지로는 순천 동화사의 이 삼세불이 유일하다. 그는 그간의 행적을 통해 17세기 중반 조각승 승일, 응혜와 주로 함께 작업했으며, 그 조각적 원류는 현진 유파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대략 1610년 이전에 태어나 1630년대부터 불상 제작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고, 1640년대에는 승일, 응혜, 회장, 성조 등과 불상 제작에 참여하면서 1640년대 후반부터는 부화승이나 차화승으로 그 비중을 점차 늘려갔다.

이번 조사대상인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은 계찬이 1657년 조성한 불상으로 그가 수화승으로서 주도한 유일한 작품이다. 앞서 살펴본 동화사 삼세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승일 및 회장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만의 특징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 추후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발견되었을 때 다양한 양식적 계보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줄 유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화사 삼세불상은 발원문과 함께 대좌 상판 묵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 교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중요성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불상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업무 분담이 매우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불상조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현재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벽암각성은 석가여래상 발원문에만 등장하는데, 이는 1660년 그가 86세로 입적하기 불과 3년 전이어서, 그가 말년에도 이러한 불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의 행적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된다.

<석가여래상 조성발원문>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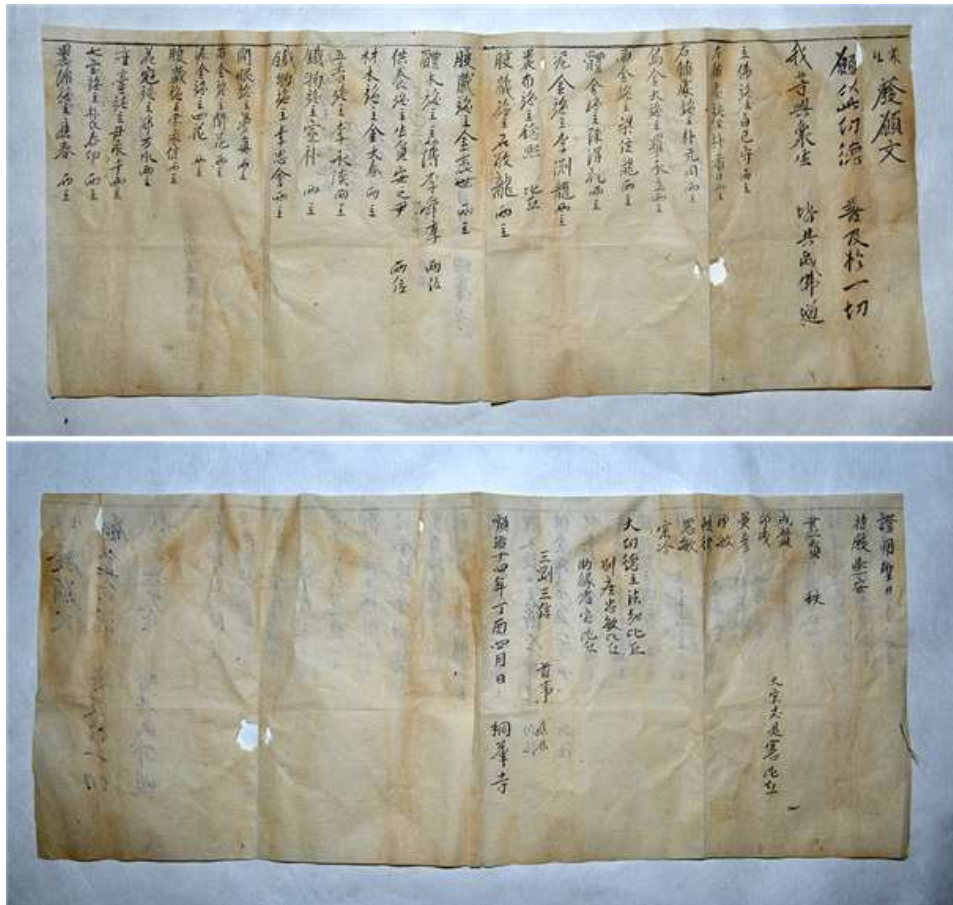
衆生 願我 發願文」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 兩主」左輔處施主朴希日 兩主」右輔處施主朴元同兩主」
 烏金大施主羅承立兩主」裏布施主安石同 兩主」裏布施主主柳弼信 兩位」
 裏布施主德熙 比丘」體木施主主簿李舜享 兩位」面金施主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裴正日 兩主」烏金施主李闊龍 兩主」泥金施主四花 兩主」
 座臺施主朴仁金 兩主」座臺尹永千 兩主」座臺施主鄭萬水 兩主」
 供養施主安羅頭金 保體」步連大施主崔氏先眞 兩主」
 引燈大施主金莫金 兩主」鐵物施主宣卜 兩主」供養施主許以誠 保體」
 腹紙施主已去黃泉李斗廷」
 證明聖日比丘」持殿熙安比丘」供養主三彦比丘」別座忠敏比丘」

[뒷면]

助緣忠寶比丘」雷彦比丘」
 大功德主法弘比丘」

禪宗大禪師覺性」大禪師敬正玄」宗禪靈憲」
 山人玉倫」文彥」玉坦」
 畫員秩」戒贊」印戒」靈彥」淨敏」性律」思敏」宗洽」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首事應林」三剛 三信」

<아미타여래상 조성발원문>



[앞면]

衆生發願文」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兩主」左輔處施主朴希日兩主」右輔處施主朴元同兩主」
 烏金大施主羅承立兩主」面金施主梁信龍兩主」體金施主陳得禮兩主」
 泥金施主李閱龍兩主」裏布施主德熙 比丘」腹藏施主石敬龍兩主」
 腹藏施主金忞世 兩主」體木施主主簿李舜享 兩位」
 供養施主生員安之尹 兩位」材木施主金大春兩主」五香施主李承淡兩主」
 鐵物施主宣禮 兩主」鐵物施主李忠會兩主」開眼施主夢眞兩主」
 面金施主閏花兩主」泥金施主四花 兩主」腹藏施主宋永信兩主」
 花冠施主鄭萬水兩主」座臺施主尹永千兩主」七寶施主朴氏春伊 兩主」
 裏綿施主應春 兩主」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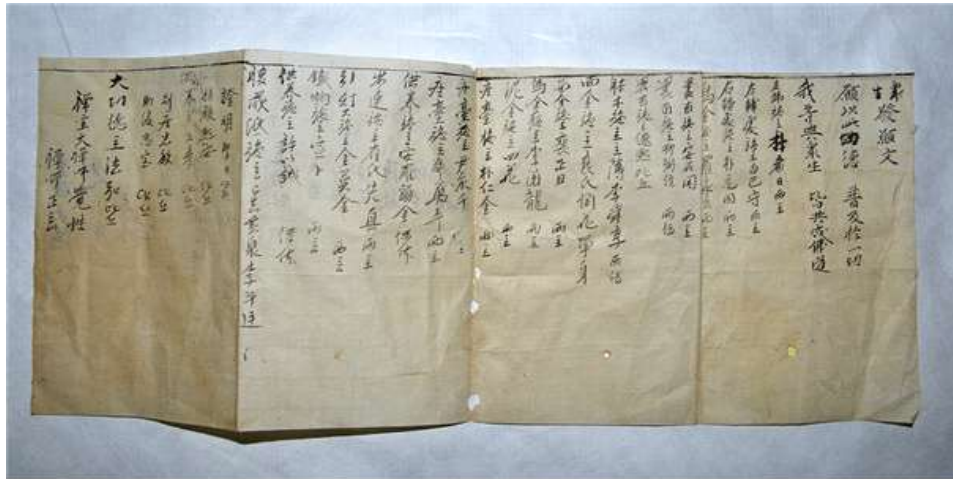
證明聖日」持殿熙安」

畫員 秩」戒贊」印戒」英彥」淨敏」性律」思敏」宗洽」大宗丈靈憲比丘」

大功德主法弘比丘」別座忠敏比丘」助緣忠寶比丘」

三剛三信」首事 應林」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약사여래상 조성발원문>



[앞면]

衆生 發願文」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朴希日兩主」左輔處施主白己守兩主」右輔處施主朴元同兩主」

烏金施主羅承立兩主」裏布施主安石同 兩主」裏布施主柳弼信 兩主」

裏布施主德熙比丘」體木施主主簿李舜享兩位」面金施主裴氏閏花單身」

面金施主裴正日 兩主」烏金施主李闊龍 兩主」泥金施主四花 兩主」

座臺施主朴仁金兩主」座臺施主尹永千兩主」座臺施主鄭萬奇兩主」

供養施主安羅頭金保體」步連施主崔氏先眞兩主」引燈大施主金莫金 兩主」

鐵物施主宣卜 兩主」供養施主許以誠 保體」腹藏紙施主己去黃泉李斗廷」

證明聖日比丘」持殿熙安 比丘」供養主三彥 比丘」別座忠敏 比丘」

助緣忠寶 比丘」大功德主法弘比丘」禪宗大禪師覺性」禪師正玄」

[뒷면]

宗禪靈憲」山人 玉倫」文彦」玉坦」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首事應林」三剛 三信」

畫員秩」戒贊」印戒」靈彥」淨敏」性律」思敏」宗洽」

□

○ 내용 및 특징

순천 동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찰의 창건은 대각국사 의천의 창건하였다고 하나 이 보다 시기가 앞선 삼층석탑이 사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정유재란때 호남의 사찰들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동화사도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이 끝나자 1601년(선조 34) 信聰이 대웅전을 건립하였고 1630년(인조 8) 다시 대웅전 쓰러지자 계환이 중창하였다. 1662년(현종 3)에는 熙安과 法弘이 호선루 건립과 기와 불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굴곡을 겪었으나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樂安郡邑誌』(1899) 등 주요 문헌 기록상에 폐사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중수와 중창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단절 없이 법등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1.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전경>



<도2. 본존 석가여래좌상>

삼불좌상은 동화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높은 수미단 위에 팔각대좌와 연화대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2013년 삼불상에서 절첩형식으로 접은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주서 다라니 등 복장유물이 확인되었다.

조성발원문 외 불상이 앉은 연화대좌의 윗면에는 조성 묵서와 중수 백서가 동시에 남아 있다. 두 기록을 종합하면 이 불상은 1658년에 2월에 조성된 것이며, 聖日을 증명으로 하여 戒贊이 수조각승을 맡았으며, 보조조각승으로 印戒, 靈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등이 참여하였다. 이외 禪宗大禪師 覺性, 大禪師 正玄(능가사 창건주)도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벽암각성은 부용영관 - 부휴선수의 법맥을 잇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승려로, 임진왜란 이후 팔도도총섭 체제로 개편된 불교계의 승정체제에서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되어 전란으로 황폐해진 사찰 복구에 힘썼는데, 특히 당시 불교계에서 재능 있는 승려 장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실된 예배존상을 복구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물론 남한산성 축성 등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 국책 사업에도 승려들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표> 보조조각승 주요 활동

| 성명 | 활동연대 | 활동사항 |
|----------|---------------|---|
| 인계 印戒 | 1651 ~1714 | 1651년에 應惠와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 1653년에 전남 영암 도감사 道誥國師守眉大禪師碑 건립에 시주자로 참여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1678년에 應惠와 지리산 小隱蘭若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광양 무등암 봉안) 1678년에 智玄과 경남 남해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제작 1689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 1707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천불전 창건을 주도 1714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불상 개금에 시주자로 참여(嘉善大夫) |
| 영언 英彦 | 1657 |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
| 정민 淨敏 | 1657 |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
| 성률 性律 | 1633 ~1657 | 1633년에 전북 고창 禪雲寺 大雄寶殿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조성에 無染과 참여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
| 사민 思敏 | 1657 ~1689 |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1678년에 應惠와 지리산 小隱蘭若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광양 무등암 봉안) 1689년에 印戒와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 |
| 종협 宗洽 | 1657 | 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 |

불상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 시주로는 주불, 좌보처, 우보처 같은 주 예배대상부터 烏金, 面金, 體金, 泥金, 裱布, 腹藏, 體木, 供養, 材木, 五香, 鐵物, 開眼, 花冠, 座臺, 裱綿 등 개금과 복장, 대좌 등 부속유물 제작에 필요한 세부 물목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시주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상 제작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시주자 정만수는 석가여래발원문과 약사여래 발원문에는 좌대, 아미타여래 발원문에는 화관 시주자로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도3. 석가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목서>



<도4. 아미타여래 조성발원문, 1657년>

수조각승 계찬은 이 조각 외 여러 작품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조각은 현재까지 계찬이 만든 첫 수조각승 작품이다. 그는 선배 조각승인 응혜, 승일의 조각현장에서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조각적 역량을 키워나갔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작품에도 두 선배 조각승의 영향이 크게 엿보인다. 특히 응혜의 조각 작품이 그의 조각 작품에도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불상의 발원문이 발견되기 전까지 동화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응혜 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 수조각승 계찬은 1634년 대구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에서 응혜를, 1646년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불상과 대세지불상에서 勝日을, 1647년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응혜를, 1648년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승일을, 1651년 진주 은정대 불상에서는 응혜를, 1671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살상 1구 제주 심광사)에서 응혜를 보조하였다. 따라서 계찬은 조각승 응혜와 승일에게서 영향을 받은 조각승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의 조각 작품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표> 수조각승 戒贊의 주요 활동

| 연대 | 지역 | 봉안 사찰 | 작업내용 | 조각승 | 비고 |
|-------|-------|---------|------------------------|----------------------------------|-------|
| 1643 | 대구 달성 | 용연사 |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조성 | 書員 應慧 熙莊 善弘 處英 雙修 唯問 戒贊 命弘 道岑 四龍 | 造成發願文 |
| 1646 | 전남 구례 | 천은사 수도암 |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조성 | 匠主 列次 勝日 熙藏 太元 性照 戒贊 天學 寶海 | |
| 1647 | 전북 군산 | 불지사 |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 | 書員 應惠 戒贊 淸眼 | |
| 1648 | 전남 강진 | 정수사 |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 書員 勝一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 |
| | 전남 여수 | 흥국사 | 목조지장보살 좌상 | 시주자로 참여 | |
| 1651 | 경남 진주 | 은정대 | 불상조성 | 書員 應惠 戒贊 觀澤 雷映 印戒 玄峰 | |
| 1657 | 전남 순천 | 동화사 대웅전 |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 書員 戒贊 印戒 英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 |
| 1671 | 전남 장성 | 백양사 |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 書員 應慧 戒贊 *제주 심광사에 보살상 1구 봉안 | |
| 연대 미상 | 전북 완주 | 대원사 | 불상조성에 시주자로 참여 | 戒贊 | |

삼불좌상의 구성은 중앙에 석가여래, 좌측에 약사여래, 우측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로 구성하였다. 삼불상 중 본존인 석가여래를 다른 불상들에 비해 약 16~17cm가량 크게 조성하여 존격 차를 엄두에 두었다. 삼불상의 표현은 모두 고요하게 삼매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조성되었다. 머리와 육계는 구분이 없으며 중앙에는 작은 반달모양의 중앙계주를,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제작하였다.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았다. 귀는 이륜에서 귓볼까지의 잘록하게 처리하지 않고 윤곽선의 변화가 거의 없어 둔중한 편이다. 삼각와의 윤곽도 어림뜻하고 이 갑강의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 실재감 있도록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불 중 석가여래만 편단우견을 걸치고 향마촉지인을 걸하였으며, 옷 주름은 억양이 강하지 않는 단순 간결한 선묘를 구사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잡혀 있는 주름은 몇 가닥의 수직주름과 y자 주름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단조롭게 처리된 조선 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계찬의 특징도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무릎 앞으로는 띠 주름을 胡蝶처럼 좌우로 펼쳐내고 그 옆으로 몇 개의 속도감 있는 호선주름을 펼쳐 부채살 모양의 주름을 만든 것은 승일과 응혜의 조각 작품에서도 확인되어 같은 유파 내에서의 작품의 전승 과정을 읽어 낼 수 있다. 삼불 중 본존의 촉지인을 크게 강조한 점도 다른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좌측의 약사불상과 우측의 아미타불상은 수인을 서로 대응되게끔 조각하고, 착의는 석가여래와 달리 상의위에 대의를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표현되었다. 상호와 옷주름은 본존불과 대동소이하지만, 균의 단을 석가여래는 물결모양으로, 좌우 협시불은 꽃모양으로 주름잡아 조형적 변화를 주었다. 다만, 삼존상이 거의 같은 조형감각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에서 미미한 차이점도 간취된다. 즉 석가여래와 약사여래의 상호와 착의법은 매우 흡사한 반면, 아미타불상은 상호와 착의법에서 이들과 어딘 모르게 조금 다른 모습을 띤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마도 화엄사 대응전 목조삼신불상처럼 조각승들 간의 분업과 협업 과정을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대좌는 난간을 가진 부정팔각형이며, 마대와 족대 중대 청판, 상대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 청판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모각하였다. 각 부위로 이어지는 곳에는 3단의 받침대를 두었다. 상대 윗면에는 축을 내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난간 청판에는 ‘十’자형으로 투각하였다. 팔각대좌 위에는 다시 반타원형의 연화좌를 놓았고 그 위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각 연화좌의 윗면에는 조성과 관련된 목서가 남아 있고, 석가여래의 연화좌 상면에는 조성목서와(1657년)과 重修白書(1753)²³²⁾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 불상의 조성과 중수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32) 백서에는 건륭 17년 癸酉로 되어 있으나, 건륭 17년은 壬申이다. 통상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을 때 간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삼불상은 1753년에 중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유물

| 도판 | 명칭 | 연대 | 재질 | 크기(cm) | 수량 | 비고 |
|---|-----------|-------|----|--------------------------------|----|---------------------|
|  | 석가여래 발원문 | 1657년 | 종이 | 20.4×49.8 | 1 | |
|  | 석가여래 후령통 | 1657년 | 철 | 지름 최소 2.9~최대 3.5, 높이 9.0 | 1 | *황초폭자, 사방경 4점 포함 |
|  | 석가여래 복장진언 | 1657 | 비단 | 31.0×3.7 | 1 | *붉은색 비단에 범서 |
|  | 약사여래 발원문 | 1657년 | 종이 | 20.5×51.0 | 1 | |
|  | 약사여래 후령통 | 1657년 | 철 | 전체 길이 10.5, 최대 폭 4.7 | 1 |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
|  | 아미타여래 발원문 | 1657년 | 종이 | 20.6×52.0 | 1 | |
|  | 아미타여래 후령통 | 1657년 | 철 | 전체 길이 17.9, 최대 폭 8.9 | 1 | *황초폭자에 포장되어 있음 |

○ 문헌자료

<1-1 석가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앞면)

1면

衆生 願我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 兩主」
左輔處施主朴希日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2면

烏金施主 羅承立 兩主」
褁布施主 安石同 兩主」
褁布施主 柳弼信 兩位」
褁布施主 德熙 比丘」
體木施主簿李舜亨 兩位」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3면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座臺施主 朴仁金 兩主」
座臺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鄭萬水 兩主」
供養施主 安羅頭金 保體」
步連大施主 崔氏先眞 兩主」

4면

引灯大施主 金莫金 兩主」
鐵物施主 宣卜 兩主」
供養施主 許以誠 保體」
腹紙施主己去黃泉李斗廷」
證明 聖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民比丘」

(뒷면)

후1면

助緣 忠宝比丘」
 雷彦比丘」
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大禪師 敬正 玄」
宗禪 靈憲」
山人 玉輪」
文彦」
玉坦」

후2면

畫員秩」

戒贊」

印戒」

靈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首事 應林」

三剛 三信」

<1-2 석가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목서>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 性日²³³⁾ 比丘

持殿 熙安比丘

畫員

戒贊 比丘

印戒 比丘

英彦 比丘

淨敏 比丘

性律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²³⁴⁾ 單身

233)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聖日로, 대좌 목서에는 性日로 적혀 있다.

234)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대좌 목서에는 모두 적혀 있어 대좌 만들 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緣化秩

供養主 三彦²³⁵⁾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忠宝 比丘

雷彦²³⁶⁾ 比丘

海堅²³⁷⁾ 比丘

大化士 法弘 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백서> 乾隆拾柒」年」癸酉始三月初畢四月」晦」

<2-1 약사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앞면)

1면

衆生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重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朴希日 兩主」

左輔處施主 白己守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烏金施主 羅承立 兩主」

2면

褰布施主 安石同 兩主」

褰布施主 柳弼信 兩位」

褰布施主 德熙 比丘」

體木施主主簿李舜亨 兩位」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235)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36)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37)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泥金施主 四花兩主

座臺施主 朴仁金 兩主」

3면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鄭萬壽 兩主」

供養施主 安羅頭金 保体」

步連施主 崔氏先眞 兩主」

鐵物施主 宣卜 兩主」

供養施主 許以誠 保体」

腹藏紙施主 己去黃泉李斗廷

4면

證明 聖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助緣 忠宝比丘」

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禪師 正玄」

(뒷면)

후1면

宗禪 灵憲」

山人 玉倫」

文彦」

玉坦」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三剛 首事 應林」

三信」

후2면

畫員秩」

戒贊」

印戒」

灵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2-2 약사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목서>

順治十四年丁酉三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證明 性日比丘」
持殿熙安比丘」
畫員 戒贊比丘」
 印戒比丘」
 英彦比丘」
 淨敏比丘」
 性律比丘」
 思敏比丘」
 宗洽比丘」
 海元單身」

緣化秩」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忠宝比丘」
 雷彦比丘」
 海堅比丘」
大化士 法弘比丘」

<3-1 아미타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앞면)

전1면

衆生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白己守 兩主」
左輔處²³⁸施主 朴希日 兩主」

전2면

右輔處²³⁹施主 朴元同 兩主」
烏金大施主 羅承立 兩主」
面金施主 梁信龍 兩主」
體金施主 陳得禮 兩主」
泥金施主 李淵龍 兩主」
褰布施主 德熙比丘」
腹藏施主 石敬龍 兩主」

전3면

腹藏施主 金忞世 兩主」
體木施主 主簿 李舜亨 兩位」
供養施主 生員 安之尹 兩位」
材木施主 金大春 兩主」
五香施主 李承淡 兩主」
鐵物施主 宣朴 兩主」
鐵物施主 李忠會 兩主」

전4면

開眼施主 夢眞 兩主」
面金施主 閏花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腹藏施主 宋永信 兩主」
花冠施主 鄭万水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七宝施主 朴氏春伊 兩主」
褰綿施主 應春 兩主」

(뒷면)

후1면

證明 聖日」

238) 補處의 오기이다.

239) 補處의 오기이다.

持殿 熙安」

畫員秩」

戒贊」

印戒

大宗丈 靈憲 比丘

英彦」

淨敏」

性律」

후2면

思敏」

宗洽」

大功德主 法弘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助緣 忠寶 比丘」

三剛 三信 首事 應林」

順治十四年丁酉²⁴⁰)四月日 桐華寺」

<3-2 아미타여래좌상 연화대좌 상면 목서>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必也」

상단

證明 性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畫員 戒贊比丘」

印戒比丘」

英彦比丘」

淨敏比丘」

性律比丘」

思敏比丘」

宗洽比丘」

海元單身」

하단

緣化秩」

供養主 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雷彦比丘」

240) 順治十四年丁酉는 1657년이다.

海堅比丘」
大化土 法弘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 내용 및 특징

- 중방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방 약사불과 서방 아미타불이 협시하고 있는 삼존불좌상이다.
- 주존 석가불을 비롯한 좌우 협시불에서는 후령통, 경전류, 다라니류 등 복장물이 다량 발견되었으며, 불상 조성에 관한 기록인 조성발원문과 조성기도 세 불상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 이들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조성기에 의하여 세 불상은 수조각승 계찬(戒贊)을 비롯하여 인계(印戒), 영언(靈彦), 정민(淨敏), 성율(性律), 사민(思敏), 종흡(宗洽) 등 7명의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되어 1657년 4월 24일에 동화사(桐華寺) 대웅전에 봉안된 아미타불-석가불-약사불의 삼존상임이 밝혀졌다.
- 발원문에 의해 수조각승으로 알려진 계찬은 현진(玄眞, 1600~30년대)-청헌(淸憲, 1620~40년대)-응혜(應惠, 1630~70년대)-계찬(戒贊, 1640~80년대)로 이어진 유파의 조각승이다.
- 계찬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43년 응혜(應惠)와 함께 달성 용연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조성 8명 중 7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한 기록이다.
- 이후에도 1647년 군산 불주사 <목조보살좌상>, 1652년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제작에 참여하여 수조각승 응혜를 보조하였다. 한편 계찬은 응혜의 사형으로 추정되는 조각승 승일(勝日, 勝一)의 보조 조각승으로도 활약하였는데, 1646년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1648년 강진 정수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그 사례이다.
- 계찬은 1640년대에서 165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의 수련기를 거친 후 수조각승으로 독립하여 1653년 청도 적천사 무차루 <석조아미타불좌상>을 처음 조성하였고 1657년에는 본 보고서의 대상인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이후에도 1686년 취선(就禪)과 함께 구례 화엄사 내 원암(현 부산 금수사 봉안)의 <목조불좌상>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조각승으로서 활동하였다. 특이한 점은 본격적인 수조각승 활동기인 1671년에도 스승인 응혜가 주도한 장성 백양산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불사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이다.

- 대응전의 불상들은 석가불을 주존으로 하고 양 협시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배치한 ‘삼방불’ 형식인데,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조각승 청헌-승일·응혜·희장으로 이어지는 청헌계 조각승들의 오른손 수인 표현과 같이 오른손을 약간 들어 올린 수인을 하고 있다.
- 얼굴은 턱 선이 둥근 장방형이며 살짝 다문 입술 양옆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고 입술이 매우 얇다. 귀는 이륜(耳輪)의 폭이 일정하고 단순하며, 이곽(耳郭)도 ‘물음표(?)’를 닮은 간략한 형태이다. 이륜과 이곽 사이의 삼각와는 거의 표시나지 않게 살짝 눌러 음영만을 나타내었으며, 귓구멍 입구의 이병(耳屏)이 동그랗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모두 같다.
- 동화사 약사불상의 옷은 오른쪽 어깨를 가린 대의가 어깨로부터 호선을 그리며 비스듬히 오른쪽 팔꿈치에 이르는 형태인데, 목을 감싼 부분에는 깃처럼 대의 자락이 반전되어 있고 가슴을 타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을 나타내어 입체감을 높였다. 어깨 쪽의 옷주름은 모두 3줄의 양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선이 1줄로 내려오다가 2줄로 갈라진 형태이다.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은 중앙에 곡선으로 이루어진 폭넓은 옷주름 2개가 거의 대칭인 형태이며 그 좌우로 폭 좁은 주름들도 대칭을 이루고 있다. 아미타불상은 왼쪽 다리의 정강이와 무릎 사이로 끝이 뾰족한 대의의 모서리 자락이 흘러내려져 있는 모습이다. 동화사의 세 불상은 얼굴과 체형은 같지만 대의는 각각 다른 형태로 묘사된 특징이 있다.
- 신체, 머리, 얼굴, 복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스승인 응혜가 1647년에 계찬과 함께 조성한 군산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1660년에 함께 제작한 담양 호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매우 비슷하여, 계찬은 스승인 응혜로부터 양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석가불좌상, 약사불좌상, 아미타불좌상 모두에서 발원문과 함께 대좌의 묵서조성기도 함께 발견되었다. 여기에서는 석가불상의 발원문과 대좌의 조성기만을 소개하도록 한다.

*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白紙墨書, 1657년 4월 24일(그레고리력. 6월 5일)
(앞면)

衆

生 願我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白己守 兩主

左輔處施主朴希日 兩主

右輔處施主朴元同 兩主

烏金大施主羅承立 兩主

裹布施主安石同 兩主

裹布施主柳弼信 兩位

裹布施主 德熙比丘

體木施主主簿李舜享兩主

面金施主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裴正日 兩主

烏金施主李淵龍 兩主

泥金施主四花 兩主

座臺施主朴仁金 兩主

座臺尹永千 兩主

座臺施主鄭萬水 兩主

供養施主鄭羅頭金 保体

步連大施主崔氏先眞 兩主

引燈大施主金莫金 兩主

鐵物施主宣卜 兩主

供養施主許以誠 保体

腹紙施主已去黃泉李斗廷

證明聖日比丘

持殿熙安比丘

供養主三彦比丘

別座忠敏比丘

(뒷면)

助緣忠宝比丘

雷彦比丘

大功德主法弘比丘

禪宗大禪師覺性

大禪師敬玄

正

宗禪虛憲

散人玉倫

文彦

畫員秩 玉坦

戒贊

印戒

靈彦

淨敏

性律

思敏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宗洽 首事應林

三剛 三信

「木造釋迦佛坐像 造成記」臺座上面에 墨書, 1657년 4월 24일(그레고리력. 6월 5일)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性日比丘

持殿熙安比丘

願以此功德

畫員

普及於一切

戒贊 比丘

我等與衆生

印戒 比丘

皆共成佛道

英彦 比丘

淨敏 比丘

性律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 單身

緣化秩

供養主三彦比丘

別座 忠敏比丘

忠宝比丘

雷彦比丘
海堅比丘
大化士法弘比丘

「木造釋迦佛坐像 重修記」臺座上面에 白書, 1753년4월 30일(그레고리력. 6월 1일)
乾隆拾柒
年
癸酉始三月初畢四月
晦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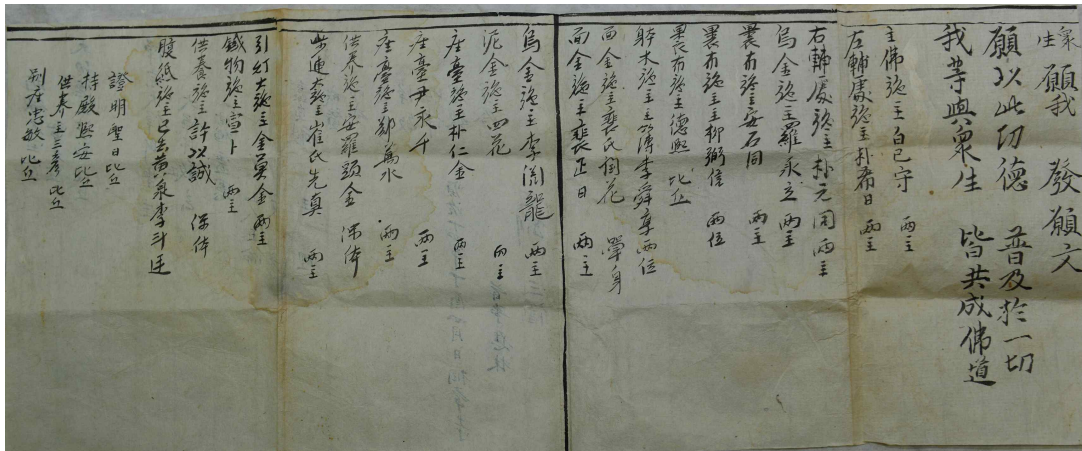
동화사 대웅전 내 불상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이루어진 삼세불(三世佛)이다. 조성발원문은 각각의 불상 내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그 실측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명칭 | 수량 | 크기 | 시기 | 등록번호 |
|----------------|--------|------------------------|-------|-------------------|
| 석가모니불좌상 발원문 | 1점(4절) | 20.4×49.8(cm) 2장 연접 | 1657년 | 석가모니불좌상 발원문-42 |
| 약사불좌상 발원문 | 1점(4절) | 20.5×51.0(cm) 2장 연접 | 1657년 | 약사불좌상 발원문-51 |
| 아미타불좌상 발원문 | 1점(4절) | 20.6×52.0(cm) 2장 연접 | 1657년 | 아미타불좌상 발원문-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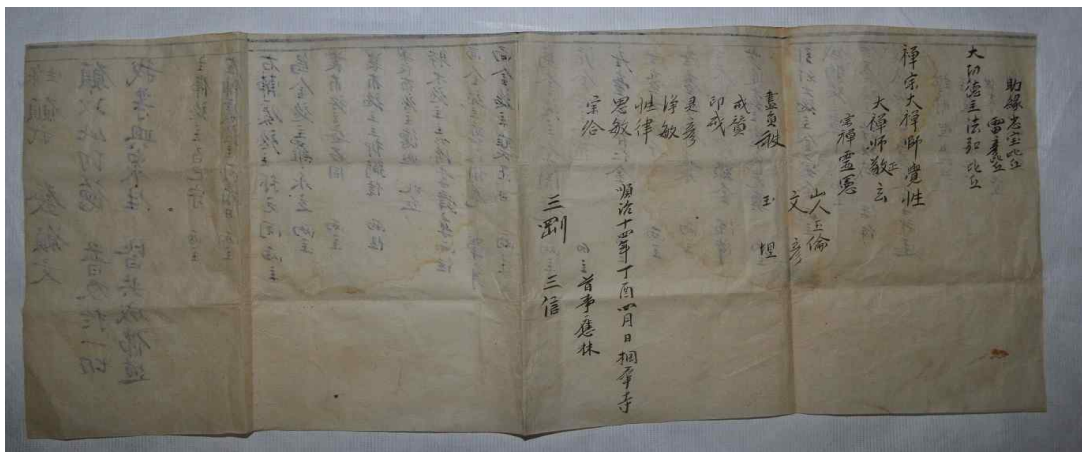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1) 석가모니불좌상 조성발원문

발원문은 약 25.2cm 내외의 종이 두 장을 연접한 상태이다. 발원문은 앞면에 시주질(施主秩)과 함께 증명(證明), 지전(持殿), 공양(供養), 별좌(別座) 스님을 기록하고, 뒷면에는 앞면에 이어 조연(助緣) 忠宝比丘, 대공덕주(大功德主) 法弘比丘 그리고 선종대선사(禪宗大禪師) 각성(覺性) 스님과 함께 화원(畫員)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발원문의 끝에는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이라는 간기를 적어 1657년이라는 절대연대를 사실을 보여준다.



<석가불 조성발원문(전면)>



<석가불 조성발원문(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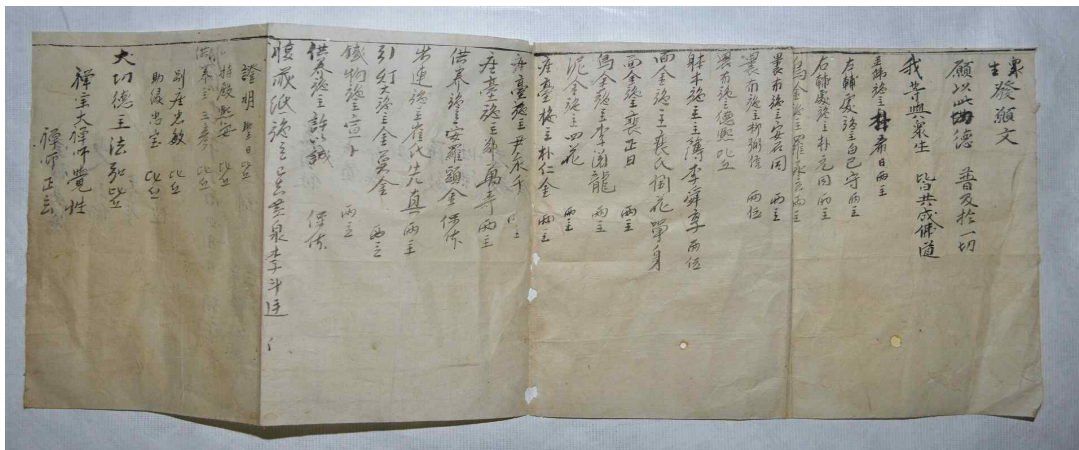
이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 | | |
|---|---|---|
| <p>別座 忠民比丘 供養主 三彥比丘 證明 聖日比丘 持殿 熙安比丘</p> | <p>腹紙施主 己去黃泉李斗廷 供養施主 許以誠 保休 鐵物施主 宣卜 兩主 引灯大施主 金莫金 兩主 步連大施主 崔氏先眞 兩主 供養施主 安羅頭金 保體 座臺施主 鄭萬水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朴仁金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體木施主 簿李舜亨 兩位 裹布施主 安石同 兩主 裹布施主 柳弼信 兩位 裹布施主 德熙 比丘 烏金施主 羅承立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左輔處施主 朴希日 兩主</p> | <p>衆生 願我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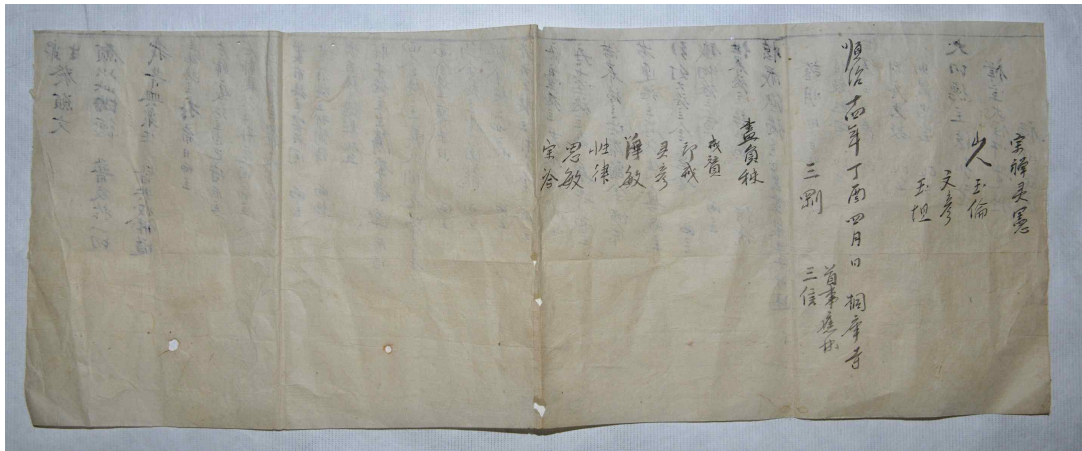
助緣 忠宝比丘
 雷彦比丘
 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大禪師 敬正 玄
 宗禪 靈憲
 山人 玉輪
 文彦
 玉坦
 畫員秩
 戒贊
 印戒
 灵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首事 應林
 三剛 三信

2) 약사불좌상 조성발원문

발원문은 약 25.7cm 내외의 종이 두 장을 연결한 상태이다. 발원문은 앞면에 시주질(施主秩)과 함께 증명(證明), 지전(持殿), 공양(供養), 별좌(別座) 그리고 대공덕주(大功德主) 法弘比丘와 함께 대선사 각성(覺性) 스님을 기록하였다. 후면에는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이라는 간기를 적고 그 뒤에 석가모니불 조성문과 같은 화원(畫員)의 이름을 적었다.



<약사불 조성발원문(전면)>



<약사불 조성발원문(후면)>

이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p>大功德主 法弘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禪師 正玄</p> | <p>助緣 忠宝比丘 別座 忠敏比丘 供養主 三彦比丘 證明 聖日比丘 持殿 熙安比丘 供養主 三彦比丘</p> | <p>鐵物施主 宣卜 兩主 供養施主 許以誠 保休 腹藏紙施主 已去黃泉李斗廷</p> | <p>座臺施主 鄭萬壽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朴仁金 兩主 泥金施主 四花兩主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體木施主 主簿李舜亨 兩位</p> | <p>裴布施主 德熙 比丘 裴布施主 柳弼信 兩位 裴布施主 安石同 兩主 裴布施主 羅承立 兩主 烏金施主 朴元同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左輔處施主 朴希日 兩主 主佛施主 朴希日 兩主</p> | <p>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p> | <p>衆生發願文</p> | <p>生 衆 發願文</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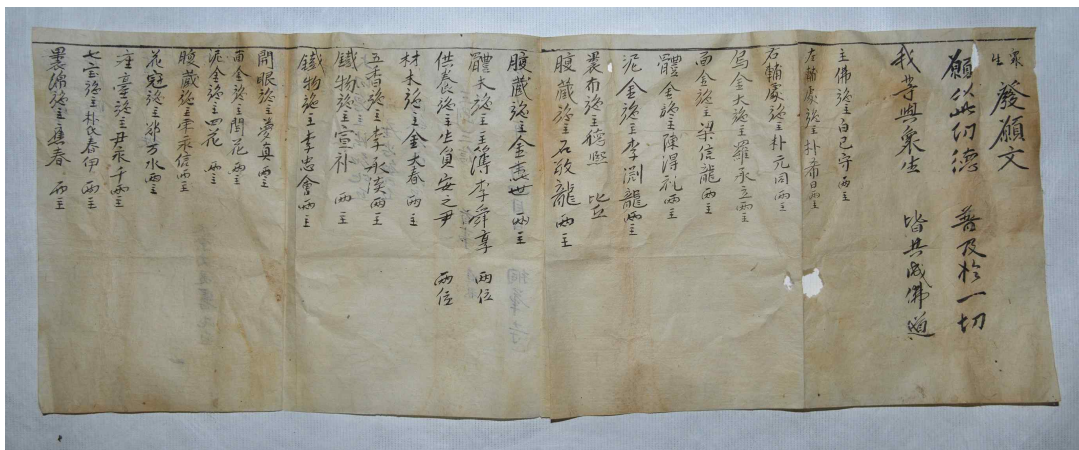
宗禪 灵憲
山人 玉倫
文彦
玉坦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 桐華寺
三剛 首事 應林
三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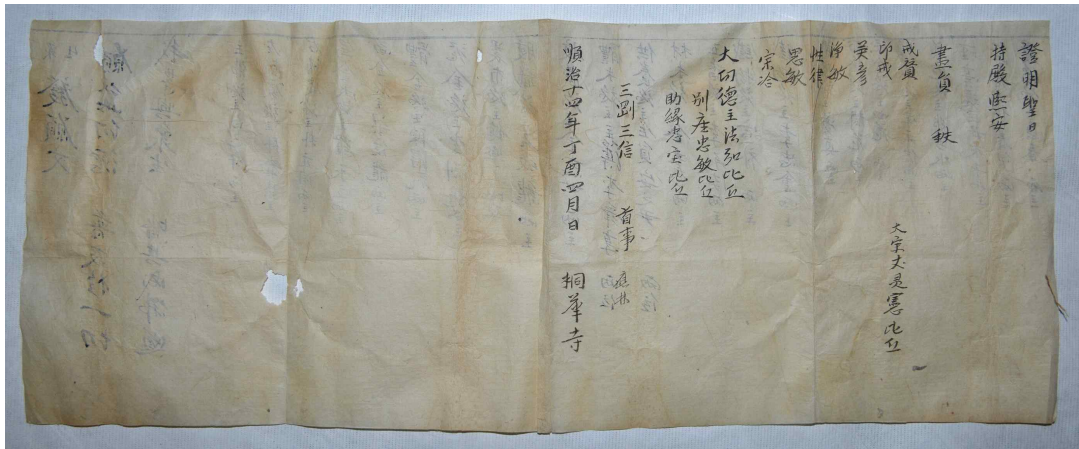
畫員秩
戒贊
印戒
灵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3) 아미타불좌상 조성발원문

발원문은 약 26.2cm 내외의 종이 두 장을 연결한 상태이다. 발원문은 앞면에 시주질(施主秩)과 함께 증명(證明), 지전(持殿), 공양(供養), 별좌(別座) 그리고 대공덕주(大功德主) 法弘比丘와 함께 대선사 각성(覺性) 스님을 기록하였다. 후면에는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이라는 간기를 적고 그 뒤에 석가모니불 조성문과 같은 화원(畫員)의 이름을 적었다.



<아미타불 조성발원문(전면)>



<아미타불 조성발원문(후면)>

이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衆生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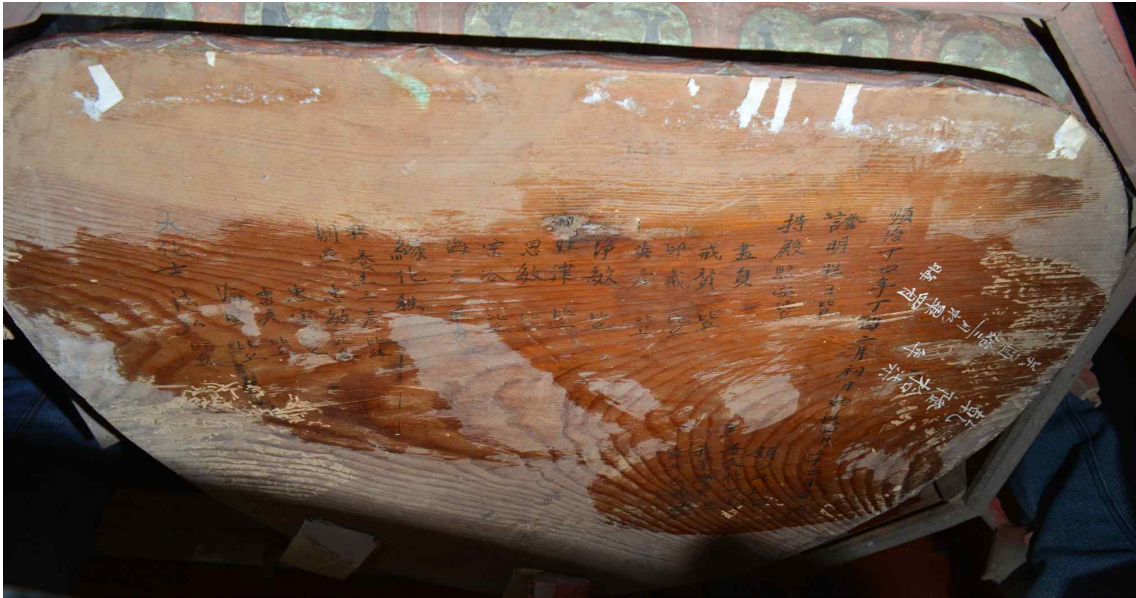
主佛施主 白己守 兩主
左輔處施主 朴希日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烏金大施主 羅承立 兩主
面金施主 梁信龍 兩主
體金施主 陳溥禮 兩主
泥金施主 李淵龍 兩主
裴布施主 德熙比丘
腹藏施主 石敬龍 兩主
腹藏施主 金恁世 兩主
體木施主 主簿 李舜亨 兩位
供養施主 生員 安之尹 兩位
材木施主 金大春 兩主
五香施主 李承淡 兩主
鐵物施主 宣朴 兩主
鐵物施主 李忠會 兩主
開眼施主 夢眞 兩主
面金施主 閔花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腹藏施主 宋永信 兩主
花冠施主 鄭万水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七宝施主 朴氏春伊 兩主
裴綿施主 應春 兩主

證明 聖日
 持殿 熙安
 畫員 秩
 戒贊
 印戒
 英彥
 淨敏
 性律
 思敏
 宗洽
 大功德主 法弘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助緣 忠宝 比丘
 三剛 三信 首事 應林
 順治十四年丁酉²⁴¹⁾四月日 桐華寺
 大宗丈 靈憲 比丘

한편, 각각의 불상 대좌에는 목서가 남아 있다. 대좌에 적힌 목서는 세 구가 모두 동일한 내용인데, 조성발원문과 비교해보면 畫員 마지막에 海元, 別座 마지막에 海堅이 더 언급되어 대좌 조성과 관련된 사실을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가여래와 약사여래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緣化秩과 施主秩이 각각 1명씩 다르지만, 아미타여래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비교해 보면 材木, 腹藏, 開眼, 七寶, 供養, 面金, 裏綿, 五香, 体金施主 등이 다르다. 다음은 석가불 대좌의 목서 내용이다.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 性日²⁴²⁾ 比丘 緣化秩
 持殿 熙安 比丘 供養主 三彥²⁴³⁾ 比丘
 畫員 戒贊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印戒 比丘 忠宝 比丘
 英彥 比丘 雷彥²⁴⁴⁾ 比丘
 淨敏 比丘 海堅²⁴⁵⁾ 比丘
 性律 比丘 大化士 法弘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²⁴⁶⁾ 單身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241) 順治十四年丁酉는 1657년이다.



<석가불 대좌 묵서>

-
- 242)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聖日로, 대좌 묵서에는 性日로 적혀 있다.
 - 243)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244)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245)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246)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대좌 묵서에는 모두 적혀 있어 대좌 만들 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3-02-013

13.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가. 검토사항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지정정보 정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지정정보 정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보물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23.1.27)를 실시하고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추가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보완조사(‘23.3.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정보 정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지정현황

| 문화재명 | 현황 | 사진 |
|--|---|--|
| <p>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종목 : 보물 ○ 지정일자 : '06.12.29.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자운사 * 복장유물은 송광사성보박물관 보관 ○ 수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 1구 - 전적류 10건 - 직물류 57점 - 금속/기타 1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은제가사장식 1점 · 청동방울 1점 · 흑칠경갑 1점 · 목제후령통 1점 · 동방·북방·남방·서방 후령통 각 1점 · 종이류 6점 |    |

라. 그간의 경과

- '00년 및 '04년 복장유물 수습, 조사
- '04년 복장유물 송광사정보박물관에 보관
- '06년 5~6월, 9월 지정조사(장소 : 송광사정보박물관)
- '06년 12월 보물 지정
- '22년 정기조사 시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후령통 4점과 중복 지정 의견 제기됨
- '23년 1월 27일(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3년 2월 9일(목)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직물이 포함되어 지정되었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추가조사 사유로 보류
- '23년 3월 14일(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마. 조사자 검토 의견

(1차 조사 의견)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이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과 함께 송광사정보박물관에 보관됨. 지정 당시 착오로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지정목록에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후령통 4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지정목록의 금속후령통 4점은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후령통 4점과 동일한 유물임을 육안조사하였고,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수습에 참여했던 송광사정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의 면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음

(2차 조사 의견)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이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과 함께 송광사정보박물관에 보관됨. 지정 당시 착오로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지정목록에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직물 5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수습 당시의 직물류 유물을 촬영한 사진과 유물을 포장하여 송광사정보박물관으로 보냈던 사진을 현재 직물류 지정목록과 대조하여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복장유물의 직물류를 구분해냈음.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수습 당시 참여하였던 현 주지 일국스님이 입회하여 확인하였음

(종합 의견)

-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관리상의 혼선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함

| 정정 이전 | 정정 이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 1구 - 전적류 10건 - 식물류 57점 → 52점 - 금속/기타 1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은제가사장식 1점 · 청동방울 1점 · 흑칠경갑 1점 · 목제후령통 1점 · 동방후령통 1점 · 북방후령통 1점 · 남방후령통 1점 · 서방후령통 1점 · 종이류 6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 1구 - 전적류 10건 - 식물류 52점 - 금속/기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은제가사장식 1점 · 청동방울 1점 · 흑칠경갑 1점 · 목제후령통 1점 · 종이류 6점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정보 정정함.

14.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지정정보 정정


가. 검토사항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에 대한 지정정보 정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지정수량 정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보물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23.1.27)를 실시하고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추가 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보완조사(‘23.3.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수량 정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지정현황

| 문화재명 | 현황 | 사진 |
|--|---|---|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順天 松廣寺 塑造 四天王像 腹藏遺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종목 : 보물 ○ 지정일자 : '06.04.28.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류 12종 14책 - 인본다라니 383장 - 후령통 4점 |  |

라. 그간의 경과

- '05년 10월 지정조사
- '06년 4월 보물 지정
- '07년 인본다라니 보존처리

- '22년 정기조사 시 수량 불일치 확인: 383장→428장
- '23년 1월 27일(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3년 2월 9일(목) 2023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직물이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에 포함되어 지정되었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추가조사 사유로 보류
- '23년 3월 14일(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마. 조사자 검토 의견

(1차 조사 의견)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인본다라니는 보존 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외부 유물의 혼입도 없었으므로 관리 과정 및 보존 처리 과정에서 수량이 변동된 것으로 추정됨

(2차 조사 의견)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지정 시 직물류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별도 지정정보 정정 불필요

(종합 의견)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지정수량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관리상의 혼선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함

| 정정 이전 | 정정 이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류 12종 14책 - 인본다라니 383장 - 후령통 4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류 12종 14책 - 인본다라니 428장 - 후령통 4점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정보 정정함.

보고 사항

15. 조선시대 사천왕상 부의 대상 선정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조선시대 사천왕상 지정조사를 실시하고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부의대상 선정을 위해 관계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22년도 제1차 동산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선시대 사천왕상 및 경기도지사가 지정 신청('22.6.13.)한 '안성 칠장사 소조 사천왕상'을 포함하여 지정조사를 실시('22.4.21.~'23.2.28.)하였음
- 이에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부의대상을 선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지정계획에 반영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소위원회 개요】

- 회의명 : 2023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 일시 : '23. 2. 28.(화) 15:30

다. 회의결과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부의대상 선정

라. 향후 계획

-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2023. 2월 말 ~ 5. 31.(수)
- 보고서 검토: 2023. 6월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부의: 2023. 8월 예정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16. 괘불도 국보 지정 추진 대상 추가 선정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괘불도 국보 지정 추진을 위한 추가 지정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관계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나. 보고사유

- 불교회화 분야 국보 지정 추진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소위원회 개최('17.5.26.) 결과에 따라 괘불도 중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 내소사 영산회 괘불탱,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 3점이 선정됨
- 진천 영수사 괘불탱 지정조사('22.4.28.) 과정에서 비교조사 의견이 제기되어 종합적인 비교조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지정계획에 반영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소위원회 개요】

- 회의명 : 2023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3. 3. 3.(금) 13:30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다. 회의결과

- 괘불도 국보 지정 추진 대상 추가 선정: 총 7점 추가 선정
- ※ 선정기준: 우리 나라 괘불도 도상의 시원이 되는 작품으로 선정

라. 향후 계획

- 지정조사: 2023. 3월 ~ 2024. 12월
-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2025. 1월 ~ 2025. 3월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부의: 2025. 4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